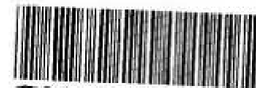
庚辰譜

漆原尹氏大同譜

두류도서관



GM005299

第1卷

文獻 上系

종 기



해설 : 한글 윤(尹)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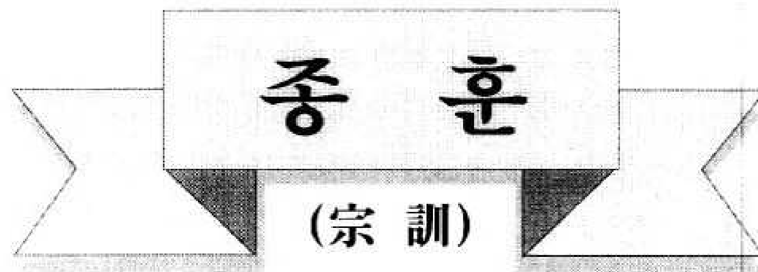
큰 원형은 시조공에서 비롯한 일체성을

여섯점은 6개파의 융화단결을

거북은 칠원윤씨의 영원불멸성을

바탕의 진록색은 평화,박애,보호를

전체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형은 숭조위선의 정신을 나타냄



숭 조 보 본 (崇祖報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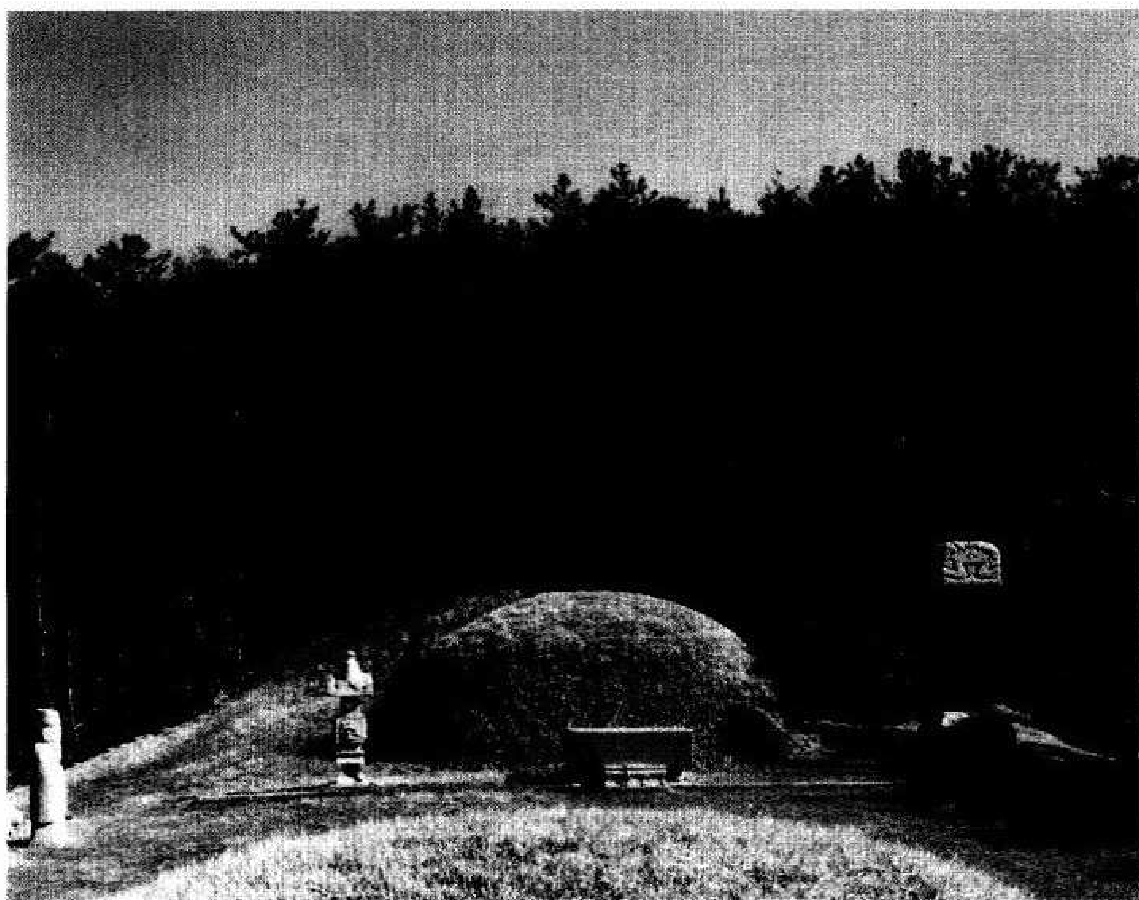
조상을 숭배하고 근본에 보답하자

효 친 목 종 (孝親睦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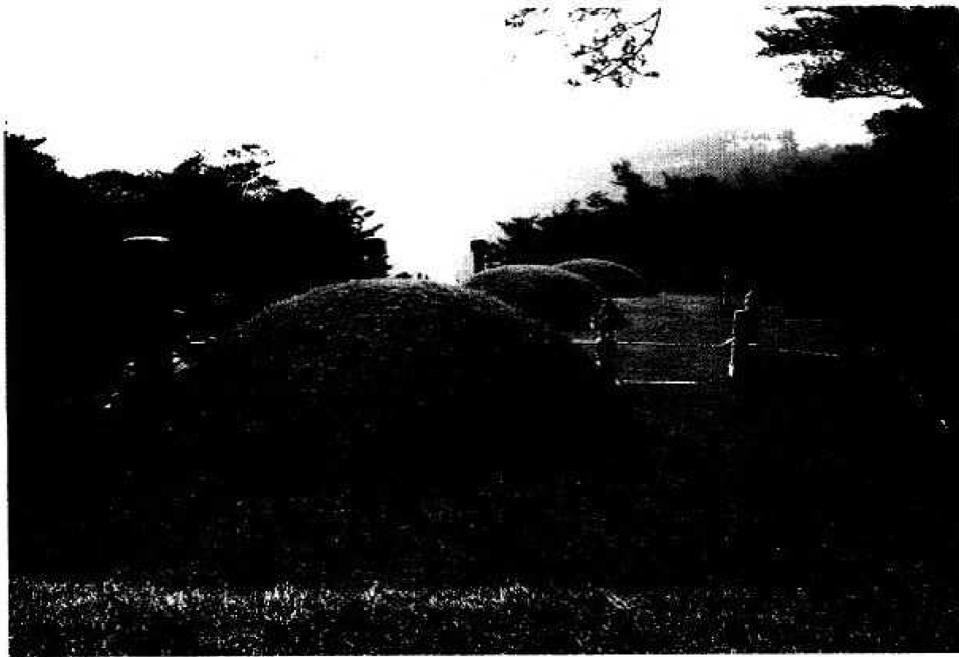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가간에 화목하자

근 정 계 후 (勤正啓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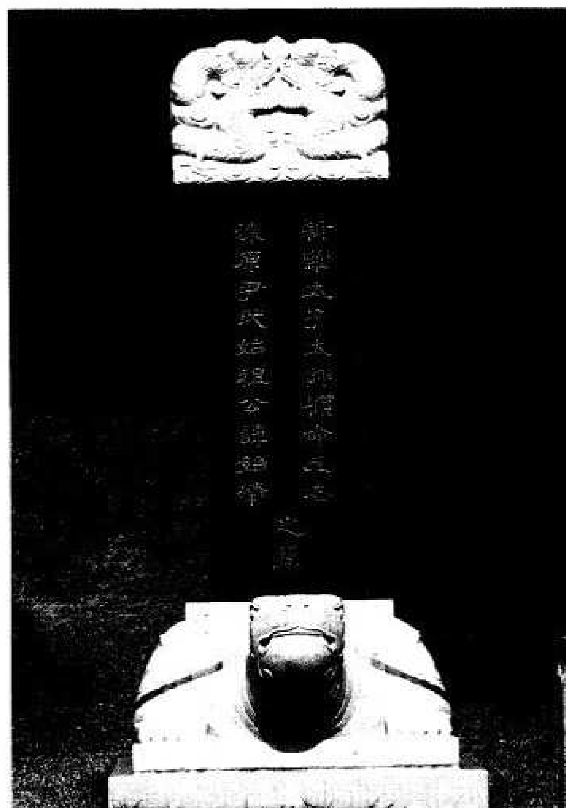
근면하고 정직하게 후손을 가르치자



시조 신라 태자 태사공(휘 시영)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1194-1



시조 태사공 묘소 뒤에서 바라본 묘역 전경



태사공 묘비

목 차

제1편 서장(序章) ······ 11
1、발간사 (편찬위원장 윤응원) ······ 11
2、서 문 (대종회장 윤진원) ······ 13
3、발 문 ······ 14
①경진보 발문 (전대종회장 윤영학) ······ 14
②경진보 발문 (전대종회장 윤영연) ······ 15
③경진보 발문 (전대종회장 윤영원) ······ 17
4、일러두기 ······ 18
5、칠원윤씨 족보 발간사 ······ 23
6、구보서발문(舊譜序跋文) ······ 25
(1)광해 병진보 발문 ······ 25
(2)숙종 정유보 발문 ······ 26
(3)영조 신유보 발문 ······ 29
(4)영조 신유보 범례 ······ 30
(5)고종 임신보 서문 소인 ······ 32
(6)고종 임신보 발문 ······ 33
(7)고종 임신보 간후기 ······ 35
(8)고종 임신보 범례 ······ 36
(9)경자보 발문 ······ 41
(10)경자보 범례 ······ 43
(11)경신보 발간사 ······ 46
(12)경신보 소기 ······ 49
(13)경신보 범례 ······ 52
7、칠원의 연혁과 본관 유래 ······ 55
(1)칠원의 연혁 ······ 55
(2)본관 유래 ······ 56
8、화 보 ······ 57
(1)선영소재지도 ······ 57
(2)선영도 ······ 58
(3)칠원의 선영사진 ······ 62
(4)족보 영정외 기타 사진 ······ 75
(5)각 파계의 사진 ······ 92
제2편 세덕(世德) ······ 129
1、칠원윤씨 잠영보서 ······ 129
2、칠원윤씨 잠영보서 ······ 130
3、현조록 ······ 132
4、관적록 ······ 138
5、삼강록 ······ 178
6、유적록 ······ 180
제3편 대종회 현황 ······ 184

1、대종회 종규 …… 184
2、대종회 임원 …… 198
3、대종회 재산목록 …… 205
4、대종회관 건립기 …… 212
5、헌성금 방명록 …… 212
제4편 묘제(墓祭) …… 213
1、태사공 묘제(太師公 墓祭) …… 213
(1)산신제 …… 213
(2)태사공 묘제 축문 …… 214
(3)묘제홀기(墓祭笏記) …… 214
2、진설도 …… 219
3、칠원시제 향사위 …… 222
4、실전위 향사위 …… 223
제5편 문헌(文獻) …… 224
1、비 문 …… 224
(1)신도비 …… 224
①태사공신도비명(시조 휘 시영) …… 224
②헌민공신도비명(휘 탁연) …… 227
③관찰사공신도비명(휘 조원) …… 229
④판서공신도비명(휘 동교) …… 235
⑤판돈녕부사공신도비명(휘 사국) …… 239
(2)묘갈명 …… 250
①판결사공묘갈명(휘 조생) …… 250
②직제학공묘갈명(휘 석보) …… 252
③사정공묘갈명(휘 성계) …… 255
④승지공묘갈명(휘 보상) …… 257
⑤집의공묘갈명(휘 덕형) …… 259
⑥부제학공묘갈명(휘 풍형) …… 260
⑦전적공묘갈명(휘 준제) …… 264
⑧백암공묘갈명(휘 창명) …… 266
⑨칠계군묘갈명(휘 탁연) …… 269
⑩다계공묘갈명(휘 승보) …… 275
⑪정부인홍주이씨묘갈명(휘 승보의 배) …… 277
⑫병절교위공묘갈명(휘 개보) …… 278
⑬돈암공묘갈명(휘 영상) …… 279
⑭송재공묘갈명(휘 홍량) …… 281
⑮좌랑공묘갈명(휘 광원) …… 282
⑯도승지공묘갈명(휘 자신) …… 284
⑰송헌공묘갈명(휘 강헌) …… 286
⑱찰방공묘갈명(휘 담) …… 287
⑲부사공묘갈명(휘 희원) …… 289
⑳선교랑공묘갈명(휘 태기) …… 292

㉑장령공묘갈명(휘 방삼) …………………… 294
㉒퇴은공묘갈명(휘 민길) …………………… 296
㉓통덕랑공묘갈명(휘 중삼) …………………… 299
㉔금오랑공묘갈명(휘 완) …………………… 301
㉕충신주부공묘갈명(휘 익) …………………… 304
㉖사부공묘갈명(휘 빈) …………………… 306
㉗장령공묘갈명(휘 우정) …………………… 309
㉘참판공묘갈명(휘 지화) …………………… 315
㉙목사공묘갈명(휘 경룡) …………………… 319
㉚좌찬성공묘갈명(휘 경종) …………………… 325
㉛송와공묘갈명(휘 심의) …………………… 328
㉜몽엄공묘갈명(휘 방직) …………………… 330
㉝만옹공묘갈명(휘 치방) …………………… 333
㉞금파공묘갈명(휘 동근) …………………… 336
㉟비서감승공묘갈명(휘 영달) …………………… 338
㊱정은공묘갈명(휘 소의) …………………… 342
㊲사성재공묘갈명(휘 우학) …………………… 345
㊳시당공묘갈명(휘 병달) …………………… 349
㊴화산공묘갈명(휘 영도) …………………… 353
㊵참봉공묘갈명(휘 순학) …………………… 355
㊶우천공묘갈명(휘 창학) …………………… 358
㊷오헌공묘갈명(휘 병기) …………………… 362
㊸학생공묘갈명(취 병석) …………………… 364
㊹심재공묘갈명(휘 병형) …………………… 366
㊺금강공묘갈명(휘 성학) …………………… 369
㊻가선대부공묘갈명(휘 광무) …………………… 372
(3) 묘 비 …………………… 373
①시조공묘비문(휘 시영) …………………… 373
②상서공묘비문(휘 을부) …………………… 375
③충의공묘비문(휘 길보) …………………… 377
④충효공묘비문(휘 환) …………………… 379
⑤양성당공묘비문(휘 지) …………………… 380
⑥승지공묘비문(휘 중임) …………………… 381
⑦참판공묘비문(휘 붕) …………………… 384
⑧군수공묘비문(휘 자당) …………………… 386
⑨사과공묘비문(휘 달) …………………… 387
⑩진사공묘비문(휘 여형) …………………… 389
⑪좌승지공묘비문(휘 성) …………………… 390
⑫동지중추공묘비문(휘 천상) …………………… 392
⑬참판공묘비문(휘 수연) …………………… 393
⑭검열공묘비분(휘 길원) …………………… 397
⑮첨지중추공묘비문(휘 옥) …………………… 399
⑯훈련원정공묘비문(휘 발) …………………… 400
⑰참판공묘비문(휘 유길) …………………… 400

⑱동덕랑공묘비문(휘 익삼) …… 402
⑲동지중추부사공묘비문(휘 해) …… 403
⑳좌수공묘비문(휘 광호) …… 405
㉑진사공묘비문(휘 상의) …… 407
㉒연곡공묘비문(휘 식의) …… 409
㉓청재공묘비문(휘 병의) …… 412
㉔종모재공묘비문(휘 영상) …… 414
㉕참봉공묘비문(휘 영옥) …… 417
㉖구암공묘비문(휘 승원) …… 418
㉗성주배씨묘비문(휘 형원의 배) …… 421
(4) 묘지석 …… 422
①좌사보공묘지문(휘 계) …… 422
②서승공묘지문(휘 참) …… 423
③생원공묘지문(휘 사) …… 425
④직제학공묘지문(휘 석보) …… 426
⑤교리공묘지문(휘 관) …… 428
⑥판관공묘지문(휘 문형) …… 429
⑦중영의정공묘지문(휘 이) …… 433
⑧학생공묘지문(휘 효달) …… 436
⑨직암공묘지문(휘 사국) …… 437
⑩학생공묘지명(휘 순의) …… 439
(5) 제단비 …… 441
①선세묘단비문(검단구비) …… 441
②선세단향비문(검단신비) …… 442
③선세단향비문(유동) …… 443
④선세조제단비문(보성) …… 444
⑤생원공제단적비문(휘 신생) …… 445
⑥선세단향비문(거제) …… 448
⑦군수공제단비문(휘 신로) …… 449
⑧진사공제단비문(휘 제) …… 451
⑨생원공제단비문(휘 희규) …… 453
⑩송월암공단갈명(휘 풍형) …… 455
⑪승지공단비문(휘 충남、휘 상) …… 458
⑫나주정씨제단비문(휘 천상의 배) …… 460
⑬내산세천비문(휘 원) …… 461
2、홍포서원 …… 462
(1) 서원 …… 462
①홍포서원5선생입향시유사 …… 462
②충효공윤선생행록 …… 463
③정평공윤선생행록 …… 464
④양성당윤선생행록 …… 464
⑤지퇴당윤선생행록 …… 465
⑥중호윤선생행록 …… 466
⑦원우중수동문 …… 467

⑧원우중수상량문 …… 468
⑨칠원시고유문 …… 471
⑩중수시이안문 …… 471
⑪환안문 …… 472
⑫홍포서원유허비음기 …… 472
⑬발문(칠원윤씨세가지장) …… 473
⑭홍포서원복설발의통문 …… 475
⑮종중통문 …… 476
⑯홍포서원중건상량문 …… 477
⑰홍포서원중건기 …… 479
(2) 사당 …… 482
①홍포사 5선생봉안문 …… 482
②축호식 …… 483
③홍포사봉안 및 배치도 …… 484
④홍포사진설도 …… 485
⑤향례홀기 …… 486
⑥제향축문 …… 496
⑦안석고유문 …… 497
⑧5선생신위이안고유문 …… 498
⑨홍포사중건상량고유문 …… 498
⑩5선생신위환안고유문 …… 499
⑪홍포사중건후사토지축문 …… 500
⑫상향축문 …… 500
3、사우기문 …… 502
(1) 삼충사(거제) …… 502
(2) 충훈사(거제) …… 504
(3) 장충사(거제) …… 506
(4) 송재사(거제) …… 506
(5) 대량사(거제) …… 506
(6) 대덕사(거제) …… 507
(7) 죽봉사(거제) …… 507
(8) 성덕사(거제) …… 507
(9) 송덕사(거제) …… 508
(10) 충인사(거제) …… 508
(11) 성인사(거제) …… 508
(12) 세전사(거제) …… 508
(13) 송학사(거제) …… 509
4、행장 및 유사 …… 509
(1) 행 장 …… 509
①충효공행장(휘 환) …… 509
②대사간공행장(휘 지) …… 511
③백암공가장(휘 창명) …… 514
④칠계군행장(휘 탁연) …… 517
⑤목사공행장(휘 수연) …… 526

⑥임부인행장(휘 자신의 배)…………………… 532
⑦율원공행장(휘 조원)…………………… 539
⑧석호공가장(휘 복원)…………………… 542
⑨칠평군시장(휘 경원)…………………… 548
⑩통어사공행장(휘 시달)…………………… 552
⑪몽엄공행장(휘 방직)…………………… 558
⑫묵와공행장(휘 홍의)…………………… 562
⑬눌암공행장(휘 영돈)…………………… 565
⑭오산공행적(휘 재철)…………………… 568
(2)유 사…………………… 569
①송은당사적(휘 적)…………………… 569
②관북일기약조(휘 탁연)…………………… 570
③다계공창의록(휘 승보)…………………… 574
④장령공사적(휘 빙삼)…………………… 577
⑤종주부공사적(휘 익)…………………… 578
⑥종좌랑공사적(휘 광은)…………………… 579
⑦석봉공사적(휘 제형)…………………… 580
⑧차군헌공유사(휘 동교)…………………… 582
⑨검옹공사적(휘 징삼)…………………… 584
⑩삼대묘전전말소기(휘 경구)…………………… 586
⑪통덕랑공사적(휘 학령)…………………… 587
⑫효열절행록(휘 기손、기진)…………………… 589
⑬별검공사적(휘 양승)…………………… 591
⑭병암공사적(휘 대형)…………………… 593
⑮심의제도발(휘 종의)…………………… 593
⑯송와공실록(휘 심의)…………………… 594
⑰종모재공유서(휘 영상)…………………… 596
⑱연계공효행실록(휘 하박)…………………… 598
⑲학생공사적(휘 안국)…………………… 602
⑳3·1운동기념탑취지문(휘 택근)…………………… 604
5、재사기문 및 상량문…………………… 604
(1)재사기문…………………… 604
①궐초재기(상포재 구재호)…………………… 604
②상포재중건기(시조공 병사)…………………… 606
③상포재중건기(시조공 병사)…………………… 608
④검단재중건기(휘 황)…………………… 610
⑤구혜재기(휘 계)…………………… 612
⑥유원재기(휘 환)…………………… 614
⑦수지재중건기(휘 환)…………………… 616
⑧영모재기(휘 조생)…………………… 618
⑨종안재기(휘 신생)…………………… 620
⑩남춘재기(휘 지)…………………… 622
⑪선덕재기(휘 제)…………………… 623
⑫마전재기(휘 자균)…………………… 625

⑬ 안동재기(휘 자당) ······ 627
⑭ 다원재기(거제) ······ 628
⑮ 경모재기(휘 준제) ······ 629
⑯ 첨앙재기(휘 탁연) ······ 631
⑰ 내산재기(휘 원) ······ 633
⑱ 송죽강당기(휘 담) ······ 634
⑲ 쌍청루현판후기(청양) ······ 637
⑳ 상량재기(휘 옥, 휘 발) ······ 637
㉑ 경모재기(휘 태기) ······ 638
㉒ 구수재기(휘 중삼) ······ 640
㉓ 죽림재기(휘 순무) ······ 641
㉔ 전당재중건기(휘 익삼) ······ 642
㉕ 봉소재기(휘 해) ······ 644
㉖ 덕암재중수기(보성) ······ 646
㉗ 유산재기(휘 세원) ······ 647
㉘ 서양정기(휘 재호) ······ 649
㉙ 동산재사실기(휘 상의) ······ 650
㉚ 구강재기(휘 창학) ······ 652
㉛ 원상정사기(휘 병형) ······ 654
(2) 상량문 ······ 656
① 상포재중건상량문(시조공 병사) ······ 656
② 검단재중건상량문(검단) ······ 659
③ 구혜재상량문(휘 계) ······ 661
④ 영모재상량문(휘 조생) ······ 663
⑤ 관산재상량문(휘 탁연) ······ 664
⑥ 첨앙재상량문(휘 탁연) ······ 666
⑦ 덕암재상량문(보성) ······ 668
⑧ 운암재상량문(휘 우을) ······ 670
⑨ 석전재상량문(휘 형립) ······ 672
6、충효열비문、기문 ······ 673
(1) 충 신 ······ 673
① 충신효자정려중수기(휘 익、휘 광은) ······ 673
② 애국지사공적기념비(휘 병한) ······ 677
③ 애국지사기적비(휘 병일) ······ 678
④ 항일투사기적비(휘 병환) ······ 680
⑤ 의사윤병석전(휘 병석) ······ 682
⑥ 애국열사기적비(휘 병구) ······ 683
(2) 효 자 ······ 684
① 사부공정려중수기(휘 빈) ······ 684
② 효열정려기(휘 기손、기진 청풍김씨) ······ 685
③ 효행기실비(휘 학률) ······ 687
④ 효자정려기(휘 병조) ······ 689
⑤ 효자비문(휘 영원) ······ 690
⑥ 효자정려기(휘 종) ······ 693

(3) 열 녀 …… 694
① 칠원윤씨열녀포양장 …… 694
② 회산황씨정려기(휘 화국의 배) …… 695
③ 청풍김씨정려기(휘 득성의 배) …… 696
④ 부안임씨묘비문(휘 병갑의 배) …… 697
⑤ 의령남씨정려기(휘 영희의 배) …… 698
⑥ 열녀정려기(휘 상의의 비 정씨) …… 698
⑦ 전주이씨정절비문(휘 병학의 배) …… 700
⑧ 전주이씨정려기(휘 인수의 배) …… 701
7、제문 유사 및 상소문 …… 702
(1) 제 문 …… 702
① 군수공제문(휘 지임) …… 702
② 관찰사공사제문(휘 경룡) …… 704
③ 판돈녕공사제문(휘 사국) …… 705
(2) 유 사 …… 706
① 부사공선정비문(휘 영하) …… 706
② 군수공선정비문(휘 영직) …… 707
③ 용암공송덕비문(휘 경원) …… 707
④ 칠계군유적비명(휘 탁연) …… 708
⑤ 중호선생영당기(휘 탁연) …… 711
⑥ 첨정공표도비문(휘 영상) …… 713
⑦ 송강공세적비문(휘 정국) …… 715
⑧ 돈본계서(휘 사국) …… 717
⑨ 돈보계서(휘 인국) …… 718
⑩ 돈본계헌발(휘 재급) …… 719
⑪ 덕산서당기(휘 사국) …… 721
⑫ 동천서숙기(휘 사국) …… 723
⑬ 직암공연보초(휘 사국) …… 723
⑭ 덕암재서계안(휘 필오) …… 724
⑮ 유사초(휘 순의) …… 725
⑯ 석남공기직비문(휘 혁원) …… 726
⑰ 소송공유적비문(휘 병용) …… 728
⑱ 대농공창의기적비문(휘 창의) …… 729
⑲ 모암선생추모비(휘 자원) …… 734
(3) 상소문 …… 736
① 정평유생원유상소(휘 탁연) …… 736
② 인제공상소(휘 상) …… 736
③ 진시폐22조상소(휘 수연) …… 740
④ 진민막상소(휘 복원) …… 746
⑤ 진시폐상소(휘 복원) …… 749
제 6편 칠원윤씨대동보상계 …… 763
1、칠원윤씨세계도(漆原尹氏世系圖) …… 764
2、칠원윤씨상계(漆原尹氏上系) …… 765

제7편 족보편찬위원회 ……… 781
1、경진대동보편찬위원회규정 ……… 781
2、경진대동보편찬기준 ……… 783
3、경진대동보편찬위원회명단 ……… 786
4、임원명단 ……… 787
5、수단위원명단 ……… 788

◆부록목차◆

제8편 부록(附錄) ……… 789
제1장 보첩에 관한 상식 ……… 789
1、종친과 문사 ……… 789
2、보첩과 보첩에 나오는 용어 ……… 789
3、조선시대의 관직 ……… 794
4、관직과 품계 ……… 799
5、훈호와 봉호 및 시호 ……… 799
6、행직과 수직 ……… 800
7、관직의 기타 호칭 ……… 800
8、교지와 첩지 ……… 800
9、제수(除授) ……… 801
10、묘계 ……… 801
11、봉사(奉祀) ……… 801
12、학제 ……… 802
제2장 과거제도 ……… 802
1、정기과거 ……… 802
2、부정기과거 ……… 805
제3장 제례(祭禮) ……… 806
1、제례의 유래와 의의 ……… 806
2、기제사 ……… 806
3、축문의 예 ……… 810
제4장 방위와 시간 ……… 819
1、산소의 좌향 ……… 819
2、방위도 ……… 820
3、간지시간 ……… 821
제5장 기타상식 ……… 822
1、음양오행설 ……… 822
2、육십갑자 ……… 822
3、주자십회훈 ……… 823
4、결혼기념일 ……… 824
제6장 친족 ……… 825
1、계촌법 ……… 825
2、조손(祖孫)의 호칭 ……… 826
3、친인척간 호칭 ……… 827
제7장 통계자료 ……… 830

1、한국의 10대성인구 …… 830
2、한국의 성씨일람표 …… 831
3、윤씨본관별 인구통계 …… 832
4、윤씨본관별 사마시합격자(조선조) …… 833
5、성씨별 문과합격자(조선조) …… 834
제8장 역대왕계 및 관직표 …… 835
1、역대왕조의 왕계 …… 835
2、통일신라관직표 …… 843
3、고려관직위계변천표 …… 861
4、고려관직변천표 …… 862
5、고려시대동반관직표 …… 894
6、고려시대서반관직표 …… 897
7、조선시대동반관직표 …… 898
8、조선시대서반관직표 …… 902
9、외방관직제의 도해 …… 904
10、조선관아소장(所掌) 및 별호표 …… 905
11、조선관직품계표(1) …… 907
12、조선관직품계표(2) …… 908
13、갑오경장 관제일람표 …… 911
14、한말관직표 …… 912
제9장 연대대조표 …… 919
1、연대기원조견표 …… 919
2、동서양연대대조표 …… 920
〈편 집 후 기〉 …… 932

제1편 서 장(序 章)

발간사(發刊辭)



족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상의 혈통(血統)을 이어받은 동족의 소목(昭穆)을 밝혀 선대로부터 기서(起序)한 씨족의 역사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일가가 번성하여 천지만엽(千枝萬葉)이 되더라도 본래는 동근생(同根生)이므로 족보를 수보(修譜)함으로서 일가간의 분파(分派)와 친소원근(親疎遠近)의 윤서(倫序)를 가리고 항렬(行列)의 높고 낮음을 밝힘으로서 분산되고 소원(疎遠)한 일가들을 한데 모아 숭조목종(崇祖睦宗)의 전통을 계승 실천하게 되는 기본적인 장전(章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는 산업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집성촌이 사라지고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세대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한 관념이 소홀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번에 족보를 발간하게 된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조(先祖)의 발상(發祥)과 혈통을 알고 유적과 유물등에 관한 기록을 성실히 수호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발간되는 경진보(庚辰譜)는 1741년에 창간된 신유보(辛酉譜) 이래 5번째의 대동보(大同譜)이며 경신보(庚申譜) 발간이래 20년이 지나 대동보에 누락된 종인이 많고 출생、 사망、 결혼등으로 인한 수보(修譜)의 필요성과 한문위주의 족보이므로 후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족보발간을 바라는 종인들이 많게 되었다。 대종회로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난 1996년도 정기총회에서 대동보를 간행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의를 받아 준비과정을 거쳐 1997년 7월에 대동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의 각 지역과 파종을 망라하여 수단유사를 선정하고 수단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식견(識見)과 능력(能力)은 선인(先人)들에 미치지 못하고 일은 전보다 몇배나 많아 위로는 13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는 모든파의 말손까지를 포괄하여 그 차례를 기술하고 조상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중대한 일이라 족보를 만든다고 하는 일이 말과 같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여러 고문님과 대종회장님 그리고 편찬위원님과 수단

유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편집·교정 실무진들의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으로 이 큰 과업을 대과없이 4년만에 성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바이다.

이번 경진보(庚辰譜)는 기존의 편보체제(編譜體制)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만인통용(萬人通用)의 족보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이번의 한글족보는 기존의 한문 족보를 완전한글화하였으며 기존8단 족보를 6단으로 재편집하였다. 모든 문헌과 자손록의 방주도 한글로 번역하고 생졸년대는 간지(干支)를 서기로 환산 기입하였으며 묘소의 좌(坐)는 향(向)으로 바꾸고 위치는 현행정구역명으로 바꾸어 기재하므로서 후손들이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인의 감각에 맞도록 편찬하게 된 것은 실로 획기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이번 족보발간을 계기로 하여 CD롬을 제작하고 전산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앞으로 클릭한번으로 자기와 선대의 기록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은 앞으로 모든 칠원 윤씨의 정보와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영구히 운영될 것이다.

세째, 족보에 올라있는 사람의 찾아보기(索引)란을 가나다순으로 새로 만들어 각 권 말미에 첨부하므로서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만 알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족보찾는 방법등이 필요없도록 하였다.

네째, 남녀평등주의원칙에 따라 딸도 아들과 똑같이 등재하고 아내와 며느리의 성명을 기재하고 친정가계를 기록함에 있어 아버지 중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등재하여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다.

다섯째, 구보(舊譜)에서 불분명하였던 득본유래(得本由來)를 밝히고 파계도의 하계(下系)를 36세까지 확대편집하여 계보(系譜)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뿌리를 찾지 못하여 애태우던 종인(宗人)들을 족보에 등재토록 구제하였으며 새 족보를 국립, 시립 등 주요 도서관에 50질 한도내에서 배본 비치토록 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우리 칠원윤씨 역사상 초유의 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들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로서 족보의 환골탈태(換骨奪胎)이며 신유보(辛酉譜)이래 제2의 창보(創譜)라고 할 수 있는 일대 쾌거이며 우리나라의 족보발간사상 초유의 일로서 한글 족보의 새로운 장을 우리 칠원윤씨가 열어 놓은 것이며 앞으로 타성씨의 족보발간에 「모델케이스」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납단(納單)을 하지 않은 종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종인 그리고 외국이나 이북에 살고 있는 종인과 특히 장군공

파 종인들을 동참시키지 못한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삼가 바라건대 한정된 시간에 워낙 방대한 작업을 하다보니 미쳐 발견하지 못한 점 또는 생각이 부족하였던 점 그리고 번역상 오류와 오탈자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고 여섯번째 새로운 대동보가 발간될 때에는 가장 귀중한 자료로 이번의 경진보가 쓰여질 것을 믿고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끝으로 우리 칠원윤씨의 통계상 인구는 44,883명이며 통계청의 2000년 11월1일 추계 인구는 51,857명으로 보고있다. 이 중 이번에 족보수단에 참여한 종인은 43,190명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종인이 참여하여 우리 윤문의 족보 간행사상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우리 칠원윤씨가 숭조목종의 단합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서광의 징조로서 기필코 우리 칠원윤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함께 이룩하고 우리의 씨족사(氏族史)를 새롭고 화려하게 바꾸어 놓을 것임을 굳게 믿으면서 삼가 발간사에 가름하는 바이다.

2001년 6월 일

칠원윤씨 대동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응원(應遠) 삼가씀

서 문



족보는 씨족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다. 계보를 앎으로서 위로 조상을 추모하여 유업을 보존관리하고 아래로 일가간의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며 화목을 돈독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조들은 족보를 편찬하고 발행하는데 성의와 노력을 다 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칠원윤씨는 400여년전에 인제현감공이 족보편찬을 시도한 초고보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네번의 대동족보와 열다섯번의 파별족보가 발행되었다. 이번에 발행하는 족보는 다섯번째인 경진대동보이다. 경신보 이후로 자손들의 생졸, 혼인, 관직, 묘소, 비갈, 재사들의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구보편찬시에 누락된 가장문헌들을 찾아내어 추가로 기재하되 자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호명과 관직명은 국문과 한문을 병기하고 기타의 모든 기록문은 모두 번역하여 놓고 연대기록은 서력기원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후손을 위하여 컴퓨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CD롬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동보는 우리 칠원윤씨 족보사 이래로 가장 많은 종원이 참여하였고 가장 현대적인 족보가 되는데 전국에 거주하는 수단유사와 편찬위원들

이 일심동력으로 수단과 경비에 협조하여 문중대사를 완성한 것이다。족보의 중요성을 말하자면 현재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뿌리찾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상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계보를 알리는 것이다。숭조사상이 해이하여지고 핵가족 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족보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느껴지므로 우리 칠원윤씨는 한가정에 한질씩 소유하고 조석으로 문헌록을 읽으면 선조의 유업을 알게되고、자손록을 보면 계촌이 가능하여 백대도 지친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경진보를 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임원여러분과 수단에서 발행까지 일체업무를 관장한 편찬위원장 응원씨와 자료수집 번역、교정、출판등에 노력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불초 진원이 대종회회장직을 맡고 있기에 두서없이 서문을 쓰게되니 송구할 뿐입니다。

서기 2001년 6월 일

칠원윤씨대종회 회장 진원 삼가씀

발 문(跋文)



나라에는 그 나라의 역사(歷史)가 있듯이 씨족(氏族)에는 그 씨족의 족보(族譜)가 있어 그 씨족의 혈연적 관계(血緣的 關係)를 종횡(縱橫)으로 명확(明確)하게 하고 씨족(氏族)의식(意識)을 자각(自覺)하게 하여 그 씨족의 영예(榮譽)나 선조(先祖)의 업적(業績)을 찬양(讚揚)하고 스스로 그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숭조목종(崇祖睦宗)의 정신을 갖게 하는 데 족보발간(族譜發刊)의 참 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칠원윤씨(漆原尹氏)는 시조공(始祖公)으로부터 지금까지 1300여년 면면(綿綿)이 이어 오는 동안 각 파별로 발간한 파보(派譜)는 15차 있었으나 대동보(大同譜)의 발간은 네차례 뿐이었다。그 창간보(創刊譜)는 1741년에 발간된 신유보(辛酉譜)이고 2차는 131년 후인 1872년에 발간된 임신보(壬申譜)이며 3차는 1960년에 발간된 경자보이고 4차는 1980년에 발간된 경신보(庚申譜)이다。이번의 경진보(庚辰譜)는 5차로 발간되는 대동보이다。이렇게 발간을 거듭할 때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칠원향안(漆原鄉案)같은 옛 문헌(文獻)이나 또

는 교리공묘지(敎理公墓誌)같은 여러 고증자료(考證資料)에 의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조상님에게 욕됨이 없도록 하였다。각 대동보에 따라 소목(昭穆)의 위차(位次)가 상이(相異)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장군공파(將軍公派) 종원(宗員)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 경진보(庚辰譜) 수단(收單)에 참여(參與)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이제까지 발간된 족보는 그 내용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한문을 잘 모르는 한글세대의 자손들은 족보를 읽을 수 없어서 족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경진보는 문헌록(文獻錄)은 한글로 번역하고 원문을 병기(倂記)하였으며 그 외의 내용은 모두 한글로 써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읽도록 하였다。타성씨(他姓氏)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混用)한 족보는 발간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순수한 한글족보는 우리 경진보가 처음이 아닌가 하여 매우 자랑스럽다。

우리 칠원윤씨 종원들은 집집마다 빠짐없이 이번에 발간하는 경진보를 모셔서 모든 자손들이 읽어보도록 하여 자기가 동일시조(同一始祖)의 혈연집단(血緣集團)의 한 구성원(構成員)이라는 자각(自覺)을 깊게 하고 숭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경진보 발간에 노고(勞苦)가 많은 응원(應遠) 족보편찬위원장을 비롯하여 편찬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치하(致賀)와 감사(感謝)의 말씀을 드린다。

2001년 6월 일

전 대종회장 영학(榮學) 삼가씀

◇

발문(跋文)



유서 깊은 우리 칠원윤씨의 족보는 1616년에 인제현감공(麟蹄縣監公)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발간을 보지못하여 그 장도(壯圖)가 중도에 그쳤고, 1741년에 관찰사공(觀察使公)이 대동보를 처음 발행하였는 바, 이것이 신유 창간보(辛酉創刊譜)이다。그로부터 지금까지 총 19차의 족보가 발간되었는데, 그 중 4차는 대동보이고 그 외는 파보(派譜)들이다。우리 문중은 족보를 통하여 조상들의 찬연한 업적을 후세에 전할 수가 있었고 씨족(氏族)간의 계촌(計寸)을 통하여 하나임을 다지면서 일가간의 화목을 도모하여 왔다。

불초(不肖) 영연(永淵)이 교수로 봉직하면서 추원(追遠)의 성(誠)이 부족함을 늘 안타깝게 여기던 중 문중 일가들의 권유로 대종회장직을 맡게되어 선산을 성찰

(省察)하고 문중의 재산을 점검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빈약한 종재(宗財)에 초라한 선영(先塋)、그리고 족보에는 많은 일가들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일들을 원로종친들과 상의하고 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전 종친들이 대종회관을 서울에 건립하여 종재의 기반을 삼고 2000년에 완간(完刊)을 목표로 대동보를 새로 발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즉시 실행에 옮겨 대종회관을 서울에 지었고 새 족보 발간을 위한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새로 발간되는 대동보는 전 종인을 망라하되 한글 위주로 편찬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읽히게 하고 자손록(子孫錄)은 한글로 번역하고 문헌록(文獻錄)은 원문외에 한글 번역문을 같이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하였다。 1년여 출간기간(出刊期間)을 늦추면서 오랜 연구(硏究)와 숙의(熟議)끝에 나온 금번의 경진보(庚辰譜)는 완전히 개혁된 새로운 족보로서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대동보가 될 것이다。 한글 위주의 현대판 족보가 최초로 우리 문중에서 출간됨으로써 한국 족보사(族譜史)에 새 기원을 열었고、90%이상의 宗人들이 족보 발간에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동보가 되었으며、족보의 시디롬(CD-ROM)제작과 인터넷 연결은 우리 문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긍지(矜持)를 느낄 수 있는 족보가 발간되기까지는 많은 종친들의 헌신과 노고의 땀이 서려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일의 총책임을 맡아 4년여 자신의 건강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불철주야로 헌신한 응원(應遠) 족보편찬위원장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선조의 유적(遺跡)을 고증(考證)하고 난해한 문집(文集)을 한글로 바꾸는 등의 일을 맡았던 의원(義遠) 편찬위원、자문과 편찬에 많은 수고를 한 족보편찬위원제위와 실무진들에게도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또한 족보의 수단과 원고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전국의 보소(譜所) 및 파종(派宗)의 유사(有司)들에게 감사와 그 노고를 치하한다。

오늘이 있기까지 종친회 발전에 초석(礎石)을 놓아주신 영학(榮學) 전대종회장님、많은 사재(私財)를 출연(出捐)하여 선조묘역을 정화해 주신 영원(英遠) 전대종회장님、종재관리에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어려운 종사를 잘 운영하는 진원(晉遠) 현회장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1년 5월 일

전 대종회장 영연(永淵) 삼가씀

발 문(跋文)



빛나는 우리 조상의「뿌리와 얼」을 찾아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5000년의 역사(歷史)를 가진 단군(檀君) 할아버지를 모셔왔고 해돋는 금수강산 고요한 조선(朝鮮)의 나라를 가진 우리 민족의「얼」참되고 아름답기만 하다。

우리 칠원윤씨의 처음 족보발간은 1741년이고 그 뒤 계속 재간(再刊)、삼간(三刊)이 나오고 그 다음 1980년에 발간한 경신보에 이어 이번에 다섯번째로 경진보를 발간하게 되어 읽기 쉽고 보기 편한 한글(한자병기) 족보로 편집되어 우리 종중 모두 기뻐해 마지 않는다。

나는 훗날 누가 나에게 네가 속해있는 칠원윤씨대종회(漆原尹氏大宗會)에서 종문(宗門)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홍포사(鴻浦祠) 중건(重建)에 1억4천만원을 헌성하여 사우(祠宇)를 준공하였으며 한국로타리 장학회 윤영원관명(尹英遠冠名) 장학생 5명중 2명은 칠원윤씨 장학생을 선발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로타리 봉사단체에서 영구적(永久的)으로 계속되며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후손(後孫)에게 계승(繼承)되는 종중(宗中)에 대한 작은 선물이며 나의 한국 로타리 총재단의장(2년 집무)의 기념 사업의 일부(一部)이기도 하다。

1997년2월부터 1999년8월까지 2년6개월간 대종회 회장 재임중 시조공묘역(始祖公墓域) 정화공사(淨化工事)를 시행함에 있어 전직 영학(榮學)、영연(永淵) 회장님의 계획을 이어받아 응원(應遠) 부회장(副會長)과 여러 종현(宗賢)의 협력하(協力下)에 성지(聖地)로서 손색없이 훌륭하게 완공(完工)하였다。다행히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 계내리(溪內里) 시조공묘역(始祖公墓域) 앞 일대는 공원화(公園化) 되기로 확정(確定)됨에 따라 진원(晋遠) 회장 임기동안 성역화(聖域化)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후손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정착한 81세의 독신 노인 민병갈씨의 일화를 생각해본다。그는 1945년 9월8일 인천(仁川)에 상륙하여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미군(美軍) 제일진(第一陣) 인수대장으로 서울에 진주(進駐)했다。이때 주변의 산하(山河)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군복무후 한국에 정착하여 24년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충남 천리포에 수목원을 조성했다。이 수목원은 18만여평에 7000여종의 수종을 자랑하는 세계생

물지도에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수목원으로서 자산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민병갈(閔丙渴)(CARLFORRIS MILLER)씨는 1979년에 한국에 귀화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閔丙燾)씨의 성과 항렬을 따라 관향을 여흥민씨로 하고 이름은 병갈로 한 것이다。 원컨대 칠원(漆原)을 본관으로 가진 우리 윤씨도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고 사회에서 타의 동경의 대상이 될때 위와 같은 이방인(異邦人)의 본관(本貫) 이적(移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2001년 칠원윤씨(漆原尹氏) 대동보(大同譜) 발문말미(跋文末尾)에 적어보는 것이다。

2001년 6월 일

전 대종회장 영원(英遠) 삼가씀

◇

4、일러두기(凡例)

① 이 족보는 경신보(庚申譜)를 기준(基準)으로 하여 편수(編修)하고 경진보(庚辰譜)라 칭하며 모든 기록 내용은 편찬규정을 준수하고 편찬위원회의 심사와 결의에 따랐다。

② 구보(舊譜)에 전해오는 묘비문(墓碑文)、 묘지문(墓誌文)、 제단비문(祭壇碑文)、 기적비문(紀蹟碑文)、 재사기문(齋舍記文)、사우기문(祠宇記文)、 정려기문(旌閭記文)、 제문(祭文)、 유사(遺事)、 행장(行狀)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원문(原文)은 번역문 뒤에 함께 등재하여 필요한 종원들이 참고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새로 접수된 각종 문헌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복된 비문과 재기(齋記)는 신문(新文)만을 기재하고 구문(舊文)은 삭제하였다。

③ 국한문(國漢文)이 혼용된 원문은 한문자(漢文字)만 기록하여 문법상으로는 위배되지만 관명(官名) 이칭(異稱) 별명(別名) 숙어(熟語)등을 구별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칠원 4개처의 선조 묘소 및 재실과 각파의 파조(派祖)의 묘소 및 재실을 천연색 사진으로 게재하였다。

⑤ 선영도(先塋圖)는 항공사진으로 대체하여 묘의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후손들이 선영(先塋)을 찾아가기 쉽도록 천연색 지도를 별도로 첨부하였다。

⑥ 구보에 기재된 잠영록(簪纓錄)을 보완하고 표(表)로 만들고 편집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⑦ 이 족보는 전질(全帙) 11권으로 하고 제1권은 사적(史蹟)과 시조로부터 20세까지 상계를 수록하고 제2권이하 제11권은 21세이하 자손록으로 하였으며 6단 족보로 편수하였다。

⑧ 자손록(子孫錄)은 매 면(面)마다 6단으로 나누고 1회에 6세까지 기록하였다. 매회 제일 아랫단에서 다음 기두(起頭)로 올라갈 아들의 방주(旁註)는 기재하지 않고 딸과 사위, 외손자의 방주와 양자(養子)의 들어가고 나간 사실은 기록하였다.

⑨ 이번 족보는 방주(旁註)까지 한글로 번역하여 편집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번 수보에서 ㉯는 묘소이고 ㉰는 이름이외에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고 ㉱는 아호(雅號)이다.

㉯직급(職級)과 경력(經歷)、학력(學歷)등을 편찬기준에 의거 기록하였다.

㉰이름은 항렬자를 감안하여 한자(漢字)로 하고 밑에 한글로 음(音)을 달았다.

㉱생년월일은 그 동안 발간된 족보에서는 간지(干支)위주로 표시함으로써 명확한 면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족보에서는 간지를 서기(西紀)로 환산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함으로써 읽기 쉽고 명확하게 하였다.

㉲조선조(朝鮮朝)까지의 벼슬은 한글로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기입하였으며 품계(品階)까지 표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자(子)·녀(女)는「아들」「딸」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배의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는 친정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 등으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생부(生父)는 낳아주신 아버지로 풀어서 기록하였다.

⑩ 이번 수보에 납단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신보에 의하여 모두 전재하여 후일에 입보할 여지를 남겼다.

⑪ 구보(舊譜)의 오류(誤謬)나 누락(漏落)된 사항은 종전 구보나 각종 문헌을 참작하여 정정하였다.

⑫ 생년월일을 표시할 때 음력(陰曆)이나 양력(陽曆)을 구별하지 않고 수단에 기록된대로 등재하였다.

⑬ 이번 족보에서도 남자를 먼저 기입하고 뒤에 여자를 기록하였다. 순서는 나이순으로 하였다.

⑭ 학력(學歷)은 전문대학교(專門大學校) 졸업 이상만 등재하였으며 대학의 명칭은 넣지 않았다.

⑮ 경력(經歷)은 공사직(公私職)을 막론하고 편찬기준에 맞는 사항은 수단에 기록된대로 등재하였다.

⑯ 보명(譜名)과 호적명(戶籍名) 또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의 이름은 방주란에 따로 기록하였다.

⑰ 묘소의 위치 표시는 현행 행정구역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고유지명은 한자를 괄호속에 넣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⑱ 구보에서 묘소를 좌(坐)로 표시한 것을 향(向)으로

바꾸어 한글로 표시하고 괄호안에 좌(坐)를 넣어서 현대인이 어느 방향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⑲ 구보에서 묘소를 합폄(合窆)·합봉(合封)·합분(合墳)·합장(合葬)등 같은 뜻을 여러 가지로 표시한 것을 합장(合葬)으로 통일하였다.

⑳ 이번 수보에 있어 각 계파의 수단유사가 교정을 하였으며 개인별로 수단을 제출한 사람에게도 열람 교정의 기회를 주었다.

㉑ 배위(配位)가 두분 이상일 때에는 첫 배위는 배(配)라 표시하고 이배(二配)이상부터는 계배(繼配)라고 표시하였다.

㉒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등재하여 남녀(男女)를 동등(同等)하게 하였으며 딸의 이름도 큰글자로 표기하고 남편은 부(夫)라고 작은 글씨로 표시한 다음 본관과 이름을 기록하였다. 외손이 있을 때에는 수단에 의하여 수록하였다.

㉓ 조선조 까지의 훈록(勳錄)은 구보에 등재된대로 전재(轉載)하였고 해방후에는 정부에서 수여한 훈장이나 표창등을 수단에 기록된대로 모두 기록하였다. 또 시장(市長) 군수(郡守)이상이 수여한 효자·효부·열녀상 등도 전부 수록하였다.

㉔ 그 동안 누보되었던 종인의 입보(入譜)는 편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였다.

㉕ 아들이나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을 때에는 그 이름을 기입하고 배우자의 국적명을 기록하였다.

㉖ 홀수쪽 테두리 밖에는 파명(派名)과 분포지역명을 기록하였다.(지명은 선조 묘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였다)

㉗ 짝수쪽 테두리 밖에는 매단(每段)마다 세수(世數)를 기록하여 자기의 세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㉘ 매권(每卷)마다 「찾아보기」(索引)란을 편집하여 가나다순으로 이름과 세수 등을 기입하여 자기의 기록이 있는 곳을 쉽게 찾도록 하였다.

㉙ 숫자(數字)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다.

㉚ 자손록 매권 첫페이지에 종훈, 종기와 그 권을 상징할 수 있는 파조의 묘나 사당을 실었다.

㉛ 자손록 매권에 수록된 파계도는 종전의 28세에서 36세까지로 확대 수록하여 한눈에 계보를 파악할 수 있게 폭을 넓혔다.

㉜ 항렬도(行列圖)는 경신보대로 등재(登載)하였다.

㉝ 이번 족보에서 간지(干支)를 서기로 환산 기재하는 것과 한문번역에 있어 착오나 오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단 소홀로 인한 미비점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널리 양해하기 바라며 후일 족보 발간시에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항렬도(行列圖)

세	항렬
31세	敬 경 ○
32세	○ 國 국
33세	載 재 ○
34세	○ 義 의, ○ 誼 의
35세	永 영 ○, 光 광 ○
36세	○ 根 근, ○ 學 학
37세	炳 병 ○, 烱 형 ○
38세	○ 逵 규, ○ 遠 원
39세	鎬 호 ○, 鍾 종 ○
40세	○ 洙 수, ○ 淳 순
41세	相 상 ○, 柱 주 ○
42세	○ 默 묵, ○ 勳 훈
43세	孝 효 ○, 敎 교 ○
44세	○ 欽 흠, ○ 鎭 진
45세	海 해 ○, 溥 보 ○
46세	○ 植 식, ○ 模 모
47세	燦 찬 ○, 爀 혁 ○
48세	○ 均 균, ○ 培 배
49세	鎔 용 ○, 錤 기 ○
50세	○ 漢 한, ○ 淵 연
51세	東 동 ○, 程 정 ○
52세	○ 煥 환, ○ 燮 섭
53세	圭 규 ○, 奎 규 ○
54세	○ 銓 전, ○ 鉀 갑
55세	澈 철 ○, 滋 자 ○
56세	○ 榮 영, ○ 權 권
57세	炫 현 ○, 熙 희 ○
58세	○ 基 기, ○ 坤 곤
59세	錫 석 ○, 鈺 옥 ○
60세	○ 洪 홍, ○ 泰 태

족보세계 기두표(族譜世系起頭表)

세 \ 재기두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세	6	11	16	21	26	31	36	41	46
2세	7	12	17	22	27	32	37	42	47
3세	8	13	18	23	28	33	38	43	48
4세	9	14	19	24	29	34	39	44	49
5세	10	15	20	25	30	35	40	45	50
6세	11	16	21	26	31	36	41	46	

족보권별 면수표(族譜卷別面數表)

편 \ 권	1	2	3	4	5	6	7	8	9	10	11	면수계
파명	수권	판결사	생원공	생원공	다공계	명진계	낭아장주공계	양성당	순수공	외순수공	외부원군	
파계도		28	14	28	32	24	20	52	38	34	24	294
자손록		940	514	1,160	908	732	660	1,056	1,022	486	1,110	8,588
색인		62	32	68	68	52	52	76	68	36	72	586
면수계	934	1,030	560	1,256	1,008	808	732	1,184	1,128	556	1,206	10,402

5、칠원윤씨족보발간사(漆原尹氏族譜發刊史)

(1) 대동보(大同譜)

보명(譜名)	발간연대	권수	구분	발행인	연차(年差)	발간지
병진보	1616년(광해 8년)		초보(草譜)	인제공 상(祥)		인제
계해보	1683년(숙종 9년)		초보(草譜)	관찰사공 가적(嘉績)	67	공주
정유보	1717년(숙종 43년)		초보(草譜)	진사공 경구(敬龜)	34	양주
신유보	1741년(영조 17년)	3	대동보	관찰사공 경룡(敬龍)	24	서산
임신보	1872년(고종 9년)	24	대동보	영건(永健)외	131	정산
경자보	1960년	16	대동보	성학(晟學)외	88	칠원
경신보	1980년	5	대동보	영춘(永春)	20	칠원
경진보	2000년	11	대동보	응원(應遠)	20	서울

(2) 파보(派譜)

보명(譜名)	발간연대	권수	구분	발행인	연차(年差)	발간지
경진보	1760년(영조36년)	3	대언공	용인공 태국(泰國)	19	양주
갑인보	1794년(정조18년)		대언공	판돈녕공 사국(師國)	34	강화
을축보	1805년(순조5년)	8	충효공 부원군	진사공 심의(心誼)	64	노성
임진보	1832년(순조32년)		대언공	부사공 재급(載伋)	38	고양
갑진보	1844년(헌종10년)	9	대언공	진사공 종의(從義)	12	상산
정사보	1857년(철종8년)	13	충효공	영래(永來)외	52	천안 정산
병오보	1906년(광무10년)		부원군	병두(柄斗)외	34	보성
갑인보	1914년	2	판결사공	영규(永奎)외	42	정산
기사보	1929년	12	대언공 부원군	군수공 영직(永稷)외	57	칠원
갑술보	1934년	2	부원군	익순(益淳)외	5	보성
병자보	1936년	10	충효공	경학(璟學)외	64	정산
정축보	1937년		충효공후 사과공	영무(永斌)외	1	거제
병신보	1956년	3	대언공후 직제학공	승원(升遠)외	27	합천

6、구보서발문(舊譜序跋文)

(1) 광해 병진보 발문

우리 선조들은 바로 영남 칠원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본원이 출발되고 여기에서 파종이 분리되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휘 송제의 이전은 아득한 옛날이라서 상세하지 못하고 송제의 후로는 역역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송제로부터 5대손 되는 휘 천이가 조선이 수도를 서울에 정한 초기에 처음으로 들어와 이로 인하여 대대로 살게 되었으며 9대까지 이르면서 본손과 외손들이 번창하고 높은 관리들이 조정에 가득하게 있었다。

내 일찌기 들으니 근원이 깊은 물은 그 흐름이 반드시 깊고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그 가지가 반드시 무성하다고 하였으니 만일 그러하다면 그 근원이 깊고 뿌리가 견고한 것으로 인하여 그 가지와 흐름이 무성하고 또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나의 고조부 되는 휘 석보는 젊어서 지방군수로 나가 터럭 만큼도 범하지 아니하여 청백리로 성종시대에 선록이 되어 지지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다。 연산군 시대에 여러차례 사간 관리를 하였으며 또 직제학 관리로 임명받고 할말을 다하고 동요되지 아니하다가 1504년 여름에 강음으로 귀양을 갔으며 이 해 겨울 12월 25일에 귀양간 곳에서 졸하였다。

중종대왕이 반정한 초기에 특별히 도승지 관직을 추증받았다。 그의 아들 휘 풍형이 바로 나의 증조고이다。 역시 청백한 절개로 자신을 힘써 가문을 계승 하였으며 파당없이 조정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홍문관 관리를 하였는데 김안로에게 배척을 당하여 관동지방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다。 자신의 아호를 송월암이라 하였는데 전후에 지어 놓은 시고를 모아 다섯권 책으로 이루워 놓았다。 대체로 천여편이 넘지만 대략 백여수만 선출하여 족보 끝에 붙여 놓았으니 거의가 이 일로 힘입어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군자참군과 봉사 관직을 받은지 7년이나 되었다。 공무를 보고 난 여가때면 널리 찾아 족보를 이루게 되었다。 때마침 인제군수로 나가게 되어서 바야흐로 발간하려고 하였지만 한달도 되지 아니하여 파직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평생의 여한이 되었다。 그러나 후일 나의 소망을 계승할 것이니 어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겠느냐? 슬프도다。 혹은 번성하고 혹은 쇠퇴하는 것이 인간사의 정상인 것이다。 지금 그 자손들이 비록 크게 번창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늘이 또다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니 반드시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또 장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근원이 깊고 뿌리가 견고한 말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두고 있노라。

서기 1616년12월 일

통훈대부 전행인제현감 원주진관병마절제도위

윤상은 삼가 발문을 쓰다

(1) 光海丙辰譜 跋文

吾先 乃嶺南漆原人也 發源於斯 分派於斯 綿綿 以至于今 盖有諱松碑之前 茫茫未詳 松碑之後 歷歷可記 自松碑 五代孫 諱天怡 始入於我 國漢都之初 因此世居 以至九代 內外蕃庶 簪纓 滿朝 余嘗聞 源深之水 其流必長 根固之木 其枝必茂 若然則因其源之深根之固而其枝流之茂且長可知也 余之高祖 諱碩輔가 少宰郡牧 纖毫不犯 以淸白被選於 成廟朝 載地志 當燕山朝 屢爲司諫 又拜直提學以盡言不撓 甲子夏 謫江陰 是年冬十二月二十五日 卒于謫所 中廟反正初 特 贈都承旨 子諱豊亨 卽余之曾祖也亦以淸節 自勵 以世其家 正色立朝 久長玉堂 爲金安老所斥 出按關東 自號松月菴 前後述稿 集成五卷 蓋千有餘篇略選其百餘首 附于末 庶賴此而不朽 余受軍資參軍及奉事之職七年 治任之餘 廣求成譜 適守麟蹄 方欲開刊 未及一朔 遞罷以來 未遂素志 是爲平生之恨 然 後之繼吾志者豈無其人哉 吁 或盛或衰 人事之常 今其子孫 縱未至於克昌 天欲復興吾門 必使雲仍 浣浣且長也 余於源深根固枝茂之說 深有感焉

萬曆四十四年 臘月 日

通訓大夫前行麟蹄縣監原州鎭管兵馬節制都尉 尹祥謹跋

◇

(2) 숙종정유보 발문

이것은 칠원윤씨의 족보 네편과 별록 일편이니 모두가 일백육십오책이다。 우리 윤씨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비로소 성대하여 일찌기 7대가 작위에 기록되어 무성하게 세상의 명망족이 되었다。 계속하여 충의공은 문학이 있고 지략이 있어 고려 말기에 저명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직제학공 같은 이는 바른 말을 한 이유로 연산군 시대에 죽음을 당하였지만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추증의 은전을 크게 펼쳐 빛나는 소문이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 한갓 문학과 벼슬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독 족보의 전통은 지금까지 발행한 것이 없어서 문장으로 증거하기는 부족한게 있으니 어찌 우리 일가들의 수치스러운 바가 아니겠는가?

나의 종조부 되시는 관찰사 공이 일찌기 깊은 뜻을 두고 있어 계해년에 호서지방 관찰사로 나가 자주 서울과 지방의 여러 일가들에게 통지를 하여 두루 초단을 수집하여 일이 곧 늠름하게 성취되어 갔는데 공이 갑자기 불행을 당하시었다。 현재 삼십여년이 이르고 있으나 또 계승자가 없어 오직 공이 경영하여 온 공로까지 어

두움 속에 가까워지는 아니하더라도 과연 완성될 날이 없을소냐? 불초한 경구는 자신이 망령된 뜻으로 일을 한다는 것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또 막내 종조부 되시는 사평공의 뜻을 받들어 여러 일가들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또다시 계해년 이후의 자손록을 수집하고 아울러 전일 수집한 것을 가지고 각기 세대별로 편찬하려고 나의 재산을 합하여 곧바로 집안 서재에서 목판을 조각한 것이다。

대략 계파별 항렬 위치는 균일하게 소장하고 있던 옛날 족보에 의하여 하되 역시 여러 일가들의 기록도 참조하고 여러가지 족보도 두루 참고하여 대략 고증을 더하였다。 대개 옛날 족보에 기록한 바는 보윤공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계해년에 수집한 초단을 참고하여 보면 호남지방에 사는 일가분 세추라는 사람이 12세대까지 전해오지 아니하던 계보가 전승되어 있고 배위의 성씨까지 이르러서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감탄스럽고 또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실전되어 있는지 오래이며 온 집안 나이 많은 선배들도 역시 말한 사람들이 없고 이미 그 증거를 증명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한 사람의 기록에만 빙자하여 급히 편입을 하는것은 의리상 과감하게 못할 바가 있어서 이제 조심하여 특별히 책머리에 써 놓아 전승에 의문의 여지로 삼았으니 후일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혹시 이 기록으로 연관되는 묘소의 소재지와 비석。지석등의 증거되는 문자를 찾게 되면 어찌 우리 문중의 크나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대저 12대의 세계가 비록 이와같이 상세하지는 아니하여도 보윤공께서 참정공의 윗대 세계가 되는 것은 역시 이미 분명하여졌다。 그러나 이 족보의 세계를 참정공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대개 참정공 이상의 상계 서차는 이미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완전하지 아니하여 그 전승을 믿기가 곤란한 것이 있다。 그런고로 현재 계곡 장모씨 세보를 모방하니 자연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뜻이 일어나 약간의 지문을 앞에다 더하여 계통의 순서를 세우니 사실상 이제것보다 분명하게 하려는 형편때문인 것이다。 또 우리 종친의 비석、지석 여러가지 기록이 확실히 이미 여러가지로 참정공을 선조로 하고 있으니 역시 내가 감히 시발을 정할 바가 아니었다。

외손되는 남녀와 측실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다같이 당대에서 중지하고 기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저 재력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기록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겸하여 본손과 외손의 구별을 두게 되고 명분의 의의를 소중히 한 것이다。 또 칠원백 다섯 형제분들을 나누어 각자의 책에 첫째로 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현재 우리 윤씨의 여러 지파는 이 다섯 종파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고로 대략 기계

유씨네의 족보 예를 근거로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가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아 정숙자가 논하기를 세상에 인심을 지배하려면 근본이 분명한 족보 세계로 돌리라 하였고 소명윤이는 그 족보 서문에서 보는 사람은 효도와 공경의 마음이 자연 들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이 있었구나。족보의 제작은 세상의 교육과 관계가 있으니 사실상 효도와 공경에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그러나 자장이 서문을 짓고 맹견이 전기를 서술한 이래로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여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능히 선조를 존경하고 어버이에게 친히 한 것이 문장으로 후세인에게 나타나있는 것은 역시 매우 감소되었다。근래에 이론이 성행하는 것에 이르게 되어 성씨들마다 각자 족보가 있지만 효도와 공경을 세상에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듣지를 못하였다。그런고로 옛날 것이 가리워져 있다면 오로지 이것은 족보로만 머물것이다。아마도 우리 윤씨가 지금까지 족보가 없는게 어찌 효도와 공경을 능히 이행하고 있기에 족보를 바라지 아니 하여서 그런 것이라고 할까? 그러나 그 시작은 한명이나 무수함에 이르면 족보가 아니고선 보존하기 어려우니 이 족보를 만들때 빠지지 않으면 마침내 또한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삼가 지나온 역사를 사실대로 책 끝에 기록하여 놓고 또 고하는 것이 있으니 시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던가 보통 현재 사람들은 나의 동성씨만 같은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 여러 일가들께서는 반드시 족보의 뜻을 생각하여 풍속의 교육에 매어두면 반드시 근본인 효도와 공경을 하게 되어 족보를 편수하기 이전보다 부끄러움이 없고 족보를 편수한 후로는 더 힘을 쓸 것인즉 지나간 세상에 거행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에 이르러 이루워 놓은 것으로 거의 영원토록 칭송이 있을 것이다。기타의 법식은 모두 범례문 속에 나타나 있으니 유별로 추측하면 좋을 것이다。

서기 1717년 7월1일

참정공 17대손 진사 경구는 삼가 발문을 쓰다

(2) 肅宗丁酉譜 跋文

右 漆原尹氏 族譜四編 別錄一編 總一百六十有五策 我尹氏 始大於羅麗之際 嘗七葉疏爵 蔚爲世望 繼以忠義公 有文有猷 著於西京之季 逮我昭代 有若直提學公 以直言 死燕山朝 靖陵改紀 追典 大備則烈聞 載世 亦不徒衣冠之蟬聯也 然 獨譜牒之傳 尙未有登梓者而文有不足證 豈非吾宗之所羞也 肆我從祖觀察公 嘗深致意焉 癸亥 出按湖西節 亟通論於京外諸宗 遍收長單 事將凜凜就緖而公遽不幸矣 迄至今三十餘載 又未有能繼之者 惟公 經治之功 不幾於黮昧而尹氏之譜 果然無可完之日矣 不肖敬龜 竊不自揆 妄意述事 且承季從祖司評公旨意 發書諸宗 更收癸亥以後

子孫錄 幷就前所裒集 各以世編之 鳩合私財 仍即家塾而繡木焉 凡系派圖位 一依家藏舊牒而亦有參以諸宗所記 旁考諸譜 略加更證者 盖舊牒所載 始起於甫尹公而且考癸亥所收長單中 有湖南宗人世樞甫 能傳十二代不傳之系者 至若妣位姓氏 無不記載 吁亦奇哉 然 其失傳 久矣 一門長德先輩 亦未有能言之者 既無左驗明證而只憑一人所記 遽加編入 義有所不敢 玆謹別書於卷首 以爲傳疑之地 後之來者 如或因此而尋其封表所在 得若碑誌等徵信文字 豈非吾門之一大幸歟 夫十二代之系 雖如是不可詳而甫尹公之爲參政公上世則亦既明矣 然 斯譜之系 始自參政公者 何也 盖參政公以上系次 既斷續不完 有難傳信 故 今倣張谿谷世譜 起自執義之意 略加著識於前而立統紀序 實昉於此其勢然耳 且吾宗 金石諸記 固已多祖參政公則亦非余所敢擬定也 外孫男女 及諸房 側出 並止當代而不書者 何也不徒事力 不贍 有難遍錄 兼以存別內外 重名分之義也 且漆原伯 五昆季 分主各編 何也 今吾尹氏諸支 不外此五派故 略依杞溪兪氏譜例 俾使覽者 易見焉 於乎 昔 程叔子論 管攝天下人心 歸本於明譜系 蘇明允 序其譜 自保觀者之起孝悌心 有是哉 譜牒之作 關乎世敎而實孝悌之需也然 自子長 自序 孟堅 叙傳以來 下逮唐宋諸家 能尊祖展親 文彩 著於後者 亦甚尠焉 及乎近世文勝 姓各有譜而未聞孝悌之行於世也 高擠前古則只是譜而止耳 抑我尹之至今無譜 豈其躬行孝悌有不待譜而然歟 然而其始 惟一以至不億則自非紀籍 有難遍存而不遺 斯譜之作 終亦不可以已也夫 玆謹略識經紀顚末於卷尾 且有以告焉 詩不云乎 凡今之人 莫如我同姓 惟我諸宗 須念明譜之意 有繫風敎而其必本之以孝悌 無忝於修譜之前而加勉於修譜之後則歷世 未就之擧 及今日 乃成者 庶幾永有辭焉 他餘法式 俱見凡例中 可以類推云爾

崇禎紀元後 再丁酉 孟秋朔日

參政公十七代孫 進士 敬龜 謹跋

◇

(3) 영조신유보 발문

우리 칠원윤씨가 족보를 비로소 간행하여 세상에 유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우리 일가의 다행한 일이다。 전후에 걸쳐 족보를 편수한 시종은 돌아가신 큰 형님 진사공의 발문에 이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또다시 무슨 혹을 붙일소냐? 아 나의 큰 형님께서 여러 해를 두고 신간과 구간의 족보를 고증하여 서기 1717년에 비로소 전 책을 완성하여 겨우 삼사십 조각 목판을 새겨 놓고 공사를 끝나지 못한 채 나의 형님께서 불행하게 세상을 버리게 되어 중도에 폐지되었으니 우리 일가들은 탄식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대를 이어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공경스럽게 마음이 아프도록 다스려온지 오래이었는데 지금 무

오년(1738년)에 외람되게 호남의 족숙인 전 정언 지태씨에게 말을 하였다。 때마침 서산 현감으로 나가 있어 마침내 상의를 하고 월급 약간을 내놓아 지태씨로 하여금 일을 돕도록 하였으며 모두 정유 족보에 의거하여 간행토록 하고 그 후로 본손과 외손들이 과거에 합격함과 출생과 망졸은 완성한 후에 계속하여 이루어 놓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아 우리 일가들의 돈독하게 친애하는 성심과 돌아가신 나의 형님께서 족보를 밝혀놓은 뜻은 지금 다행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마침내 눈물을 닦으면서 대략 아래에 기록하여 후손들이 참고가 되도록 구비하였다고 말할수 있으리라。

서기 1741년2월 참정공 17대손

통정대부 전공홍도관찰사겸 순찰사

경룡은 삼가 머리숙여 발문을 쓰다

(3) 英祖辛酉譜 跋文

惟我漆原尹氏 族譜 始得刊行于世 此誠吾宗一大幸也 前後 修譜顚末 亡伯氏進士公 跋文 己悉 復何贅焉 噫 吾伯氏 積年巧證新舊譜 肅宗丁酉 始成全書 入刻僅三十四十板 工未及訖 吾伯氏不幸捐背 中途而廢 吾宗 莫不咨嗟 余以踵成班史之意 惕焉疚懷經紀者久 今戊午 猥忝湖臬 族叔 前正言志泰氏 適又莅瑞山縣 遂與相議 割俸錢如干 俾志泰氏 相役 一依丁酉本刊出 其後內外子孫 科官生卒 姑俟日後之續成 噫 吾宗人 惇親之誠 亡伯氏 明譜之意 今幸不墜於地矣 遂抆涕而略識于下方 以備後屬之參考云爾

上即位之十七年辛酉中春

參政公十七代孫 通政大夫前洪道觀察使兼巡察使

敬龍 謹拜手追跋

◇

(4) 영조신유보 범례

一、우리 칠원윤씨는 태사공으로 시조를 삼고 이 족보의 시작은 참정공으로부터 하였으니 그 많은 이유는 대략 수권하의 소지에 나타나 있다。

一、우리 일가의 옛날 족보는 모두가 보윤공을 시조로 삼고 참정공과 군부판서공 양대로 직계 소목을 삼고 있으며 계해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12대가 전승되지 아니하던 순서를 전승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의심이 없었다。그런고로 이제 빨리 옛날 오기를 정정하여 대략 수권아래 소기에 나타냈다。

一、충의공의 제삼자 칠성군이 두 아들을 두어 차자 대제학 공이 칠원백의 후계로 출계되었다。 그런고로 그 자손들이 이미 후일 파별로 기재된 것을 다시 본파로 기록하기는 마땅하지 아니하여 이제

제사방 사윤공파와 더불어 합하여 일편으로 만들었다。

一、우리 종친은 성은 쓰지 아니하고 외손은 모두 성씨를 써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였다。

一、족보 중에 생존한 사람이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모관이라 하고 전직함은 전모관이라 하였으며 사위와 외손은 상세하게 못하였다。

一、우리 일가의 생졸과 과거 급제한 연대는 명나라 연호를 썼으며 숭정 이후는 이미 정통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같이 조선 왕호와 모년을 썼다。

一、그런 이유 때문에 비로소 인조대왕 모년、효종대왕 모년、현재 왕위 모년으로 썼다。

一、배위는 생졸을 막론하고 모두 실자로 쓰되 봉군과 시호를 받은 분은 부인으로 호칭하였다。

一、별록의 삼개파는 그 보계 순서가 비록 전승되지는 아니하였어도 혹은 금석 문자의 고증이 있으며 하물며 집안에서 소장한 족보 첩지가 모두 충의공을 선조로 하고 있어 그래서 부득이 아울러 기재하되 요약하여 썼으며 각파 중시조 밑에 소기하여 후일 아는 사람을 기다릴 뿐이다。

(4) 英祖辛酉譜 凡例

一、我漆原之尹 以太師公 爲鼻祖而斯譜之起自參政公 委折 略見於卷首下小識

一、吾宗舊譜 皆以甫尹公 爲始祖 以參政 軍簿兩代 直爲昭穆 逮至癸亥 始傳十二代 不傳之序 眞的無疑故 今迺亟正舊誤 略見卷首下小記

一、忠義公 第三子漆城君 有兩子而次子大提學公 出繼漆原伯后故 其子孫 旣載於所後所派則不宜更錄於本派 玆與第四房司尹公派 合爲一編

一、本宗 不書姓 外孫 皆書姓者 別內外也

一、譜中生存人 帶職子 曰今某官 前啣 曰前某官而女婿外孫則不能詳焉

一、本宗人 生卒 科第年甲 宜書 大明年號 而崇禎以後則旣無正朔故 一以 朝鮮 廟號 某甲 書之

一、故 始以我 仁廟某甲 孝廟某甲 今 上某甲 書之

一、配匹 毋論存歿 皆書以室字 而至於受封及諡封者 輒稱夫人云

一、別錄 三派 其系序 雖不傳 而或有金石文字之可徵者況其家藏 譜牒 皆祖忠義公故 不得已 並爲載錄而略書小記于每派中祖之下 以俟後之知者云爾

(5) 고종임신보 서문소인

대저 모이면 나누어지고 나누어짐이 오래면 반드시 모이는 것은 바로 천리의 자연인 것이다。우리 윤씨의 족보는 인제군수공께서 시작하시었는데 그 일은 4백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 문헌의 증거가 없으니 모이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신유보와 경진보 같은 것은 다섯개 파종이 모여 하나의 족보를 만든 것이며 을축보와 임진보에 이르면 파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른바 모이고 나누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우리 고종 황제가 왕위에 오른지 9년되는 임신년에 (1872년) 다섯개 파종 후손들이 개연히 대동 족보에 뜻을 두고 경영을 통지하고 준공날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이른바 나누어지면 다시 모인다고 하는 것이니 어찌 중용에서 말하는 끝에 가면 다시 모여 하나가 되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우리 집안의 막대한 행복이라 하겠다。

일가 대부되시는 영건씨가 이미 서문을 지어 족보에 대한 시종사를 소명하게 기재하였으니 나같이 불민한 사람이 감히 또 덧붙여 말하리요마은 차례로 생각하여 보니 영건씨는 바로 직제학공의 후손이요 우리 집안이 직제학공 후손으로 촌수를 따지면 비록 멀으나 정의는 유복친을 넘는다。일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없고 말이 행동과 동일하지 아니한게 없은지 오래이다。옛날에 명암공이 족보 일을 경영할때 나의 7대조 성재공께서 12대조가 전래하지 아니하던 세계의 역사를 찾아내어 수권으로 만들어 회와공이 그 족보를 인쇄하여 낸 것이다。6대조 군수공이 사실상 그 일을 맡았고 직암공이 다시 족보 수단을 정리하여 놓은 것을 고조부 별검공께서 또 그 일을 독려하였으며 임진년에 이르러서 항재공이 또 다시 수보일을 맡았으며 조부 용암공이 삼년간 도와 그 일이 성대하게 되었다。우리 집안에서 종사에 관여한 시종을 여기에서 추측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내가 대부되시는 영순씨를 모시고 또 족보 일을 감독하며 옛날을 추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아 이로부터 후로는 우리 다섯개 종파가 모여 한 집안이 되어 각자 선조들이 균등하게 보라는 의의를 본받으면 효도와 공경의 마음이 반드시 유연히 느껴질 것이다。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권장하고 과실이 있으면 서로 바로 잡아 백세가 되어도 일가끼리 친하는 정의를 더욱 빛나게 밝히면 지초와 난초처럼 뿌리가 있고 샘물처럼 근원이 있다고 이를 수 있으니 우리 일가가 어찌 이로 인하여 번창하고 성대하여짐을 알지 못할소냐?

1872년 가을　참정공 23대손 병은은

삼가 서문으로 위와 같이 서술하다

(5) 高宗壬申譜 序文小引

夫合而分 分久必合 即天理之自然也 我尹之譜牒 始於麟蹄公而事在四百年前 文獻 無徵 其合與分 未可知也 至若辛酉庚辰則五房派 合爲一譜而逮夫乙丑壬辰則爲派譜 是所謂合而分者也 惟我 聖上即祚九年壬申 五房派子孫 慨然有志於同譜 發通經營 竣役有日 此所謂分而復合 豈非中庸 所稱末復合爲一理者耶 此 吾宗 莫大之幸也 族大父永健氏 既作序文 昭載譜事之顚末則如我小子 不敏 何敢更有贅說 而第念 永健氏 即直提學公 後孫也 吾家於直學公後裔 計寸雖疎 情踰至親 無事而不遂 無言而不同 厥有久矣 在昔 鳴巖公之經始譜牒也 我七世祖誠齋公 探索十二代 不傳之系於古史 以爲卷首 悔窩公之印出譜系也 六世祖郡守公 實相其役 直菴公之重整譜單也 高祖別檢公又董其事 及夫壬辰 恒齋公之更修譜役也 祖考庸菴公 三載來相 告厥盛事 吾家之終始於宗事 於此而可推知矣 今小子 幸陪族大父永順氏 又董其役 追感古昔 不覺涕淚之漣漣也 嗚呼 自玆以往 惟我五房派 合爲一家 各體祖先均視之義則孝悌之心 必油然而感矣 有善而相勸 有過而相規則百世 親親之誼 益彰明 可謂芝蘭 有根 醴泉 有源 吾宗 安知不因此而昌大乎哉 是歲秋 參政公二十三代孫炳殷謹因序文 叙述如右

(6) 고종임신보 발문

족보 보자의 뜻을 해석하여 호적의 기록이라 말하고 혹은 세대의 계통이라 하였다。 세계라는 것은 선조를 후손이 대를 잇는 것이라 이르는 것이다。 상나라의 후손이 억을 넘어도 성탕왕으로 시조를 삼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며 주나라의 본손과 지손은 백세가 되도록 문왕을 시조로 삼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모두 경전책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 어찌 호적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대저 우리 윤씨의 다섯개 파종이 온 나라에 두루 있으니 어찌 천백뿐이겠느냐?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고 세상에서 뜻밖에 만나면 오로지 같은 관향의 친족인줄만 알 뿐이요。 특히 친하고 후하게 아니하는 것은 대체로 파계중에 누가 선조가 되고 나에게는 몇촌의 친족인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 비록 다른 사람들이라도 나와 혼인으로 척분이 있으면 반드시 친히 하고 후하게 하고져 하는 것이 바로 인정의 진실한 것인데 또 하물며 할아버지가 같은 자손이라면 어찌 가히 서로 보고만 있겠는가? 이것은 호적의 기록이 각자의 족보 보다 편파적이라서 서로 자상하게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제 대보가 이미 완성되어 다섯개 파종의 자손들이 이 족보속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 이래서 누구의 후손은 어느 파가 되고 어느 파가 사는 곳은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있다。이로부터 후로는 비록 천리밖에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듣고 족보를 참고하면 곧 나에게 할아버지、손자、아저씨、조카의 항렬이 아니면 바로 형、아우、아들、조카의 항렬이 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이렇기 때문에 백대의 우의가 유연하게 나오고 알연하게 감동되어 기쁘고 경사스러울때 달려가 서로 축하하고 재앙과 근심에 기어가 서로 구제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 윤씨가 다시 번성할 징조가 아니겠는가? 아 나 동근은 천년의 후일에 태어나 천년의 전일을 밝히려 하니 역시 어려움도다。그러나 일곱 세대가 봉군된 위대한 공로와 뛰어난 절개와 다섯개 파종 선조들의 남겨놓은 풍화와 여운들이 이미 옛 족보에 기재되어 지극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였으나 대대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혹은 많은 것이 빠져있는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진실로 깊이 개탄되는 바이다。나는 도사 영진씨와 수사 영하씨가 합동대보를 하자는 상의를 받고 금년 봄에 서울로 올라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사는 각 파의 일가들을 근동으로 모이게 하여 회의하니 여러 사람들의 말이 하나로 말이 되어 부절을 합한 것 같았다。이것은 바로 감사공이 신유대보를 편수한 후로 초유의 성사였다。오직 재력이 넉넉하지 못하여 계획이 미비되었는데 족숙되는 창한씨와 영순씨가 인쇄소를 정산 전적공 재실로 옮겨 놓고 나에게 인쇄의 책임을 지워 총무의 책임을 사양하지 못하였다。위로는 선대에서 이미 빠져있는 직책과 사적을 밝히고 아래로는 후손의 계승되는 항렬 순서를 서술하여 선대를 계승하고 후손을 이어주는 도리와 일가간에 돈독히 하고 친척간에 화목하는 의의를 후일까지 계속되기 기다리는 바이다。오늘이 합동대보가 어찌 우리 윤씨의 세계가 아니며 또 우리 윤씨의 호적 기록이 아니겠는가? 족보 보자의 의의를 힘쓰고 힘쓸지어다。

서기 1872년 겨울

충효공 18대손 동근은 삼가 발문을 쓰다

(6) 高宗壬申譜 跋文

譜字之義 釋之者曰籍錄 或曰世系 世系云者 以祖 統后裔之謂也 商之其麗不億 莫不以成湯 爲始 周之本支 百世莫不以文王 爲祖 俱載於經傳 此豈非籍而錄之者乎 夫我尹氏五房派之遍於八域者 奚啻千百 而道路萍遇 逆旅邂逅只認同貫之親而已 不甚款厚者 蓋未諳派系之在何先而於吾 爲幾寸親也 噫 雖在他人 於我 有姻誼戚聯則必欲親厚之即人情之固然而又况同祖之孫 豈可脉脉乎 此由籍錄之偏於各譜而不能互相詳也 今夫大譜旣成 五房派 子孫 莫不備載於一編之中則是以 知某公之后裔 爲某派 某派之所居 爲某鄕 自玆以往 雖在千里之外 聞其名 考其籍則於我若非祖孫叔姪之行 即是兄弟子姪之列也 由是乎百代之誼

油然而生 蕩然而感 喜慶焉 疾趨而相賀 禍患焉 匍匐而相恤 此豈非吾尹更盛之兆耶 嗟予小子 生於千載之下 且欲講明於千載之前 亦以難矣 然 七世封勳之巍勳卓節 五房先哲之遺風餘韻 旣載舊牒則至矣盡矣而大朴未成 或多闕略者 焉故 誠深慨歎也 予承都事永進氏 曁水使永夏氏合譜之議 今春 上京則畿內 湖嶺 各派諸宗 會于芹洞 萬口一談 如合符節 此乃監司公 辛酉大譜後 初有之盛事也 惟以財力 不贍 措畫 未備 族叔昌漢氏 曁永順氏 移設梓鐫于定陽典籍公丙舍 予於剞劂之任 不辭刀筆之勞 上以昭先代已漏之職帖事蹟 下以叙後昆繼承之行列第次 承先紹後之道 敦宗睦親之誼 以俟後日之源源 今此合譜 豈非吾尹之世系乎 亦靡吾尹之籍錄乎 譜字之義 勉旃勉旃

上之九年壬申冬

忠孝公十八代孫 東根 謹跋

◇

(7) 고종임신보 간후기

아 우리 윤씨가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현재 것이 최초의 대보이다。 신유년에 처음 세 권으로 이루워 놓은지 불과 수백년만에 26권이 되었으니 어찌 장엄하고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곰곰히 생각을 하여보니 임신년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하여 그 해 가을에 정산사는 창한씨가 재력이 근심됨을 걱정하여 전적공 재실

로 옮기자는 공론을 발의하여 나도 역시 따라서 동의하여 마침내 그 해에 인쇄를 시작한지 일년이 되지 아니하여 일이 완료에 가깝게 되었으니 일이 귀신보다 빠른 것도 결함이었다。 좌랑공 영진씨가 돌아가시고 수사 영하씨는 불길하게 되었고 창한씨도 잇따라 죽어 어언 8·9년간이나 이 일이 끝이 나지 아니하여 내가 경진년 봄에 두렵지만 일어서 마침내 여러 일가와 더불어 그 일을 독려하여 다행히 일을 준공하니 옛날을 추억하는 감회에 슬픔이 마음속에 차지 아니할 수가 없다。 드디어 두 질을 전적공 재실과 판결사공 재실에 소장하게 하고 후기를 수권에 기록하니 그 소망이 어찌 우연일소냐? 우리 참정공의 후손들은 모두 이 족보에 있어 합하여 한 집안을 26편으로 만들었으나 사실은 1편인 것이다。 1편에 있는 일가들이 이 재실에 모여 이 족보를 보게되면 효도와 공경과 우애와 화목의 알연한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 윤씨가 세상에 성대하게 된 것은 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니 이 경사와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감히 말을 하며 재실자리에 바치는 바이다。

서기 1880년 11월6일

참정공 21대손 영순은 삼가 쓰다

1871년 봄 비로소 족보편찬에 관한 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유사：전헌감 영석、참봉 영진、진사 영만、영순、수사 영하

1872년 여름 비로소 서울 서문밖 근동에 족보소를 설치하였다。

도유사：참봉 영진、수사 영하、보청주관：영순

1872년 가을 족보소를 정산 동대 전적공 재실로 이전하였다。

보청 주관유사：영순、판결사파 도유사：재효、전적공파 도유사：창한、장재교정유사：영란、영준、영선、봉근、동근、병은、병로、태원、주공：곽봉규、식주：변봉돌

(7) 刊後記(高宗壬申譜)

嗚呼 吾尹 有譜以成 今焉始大矣 辛酉 草成三冊 不過數百年 爲二十六編者 豈不壯哉 休哉 越自壬申 始役於京城 其年秋 定山昌漢甫 憫其財力之爲患 拟論移設於典籍公丙舍之意 余亦從而和之 竟以是歲 始印未周年而幾至告訖 事欠神速 佐郎公永進氏下世 水使永夏 不淑 昌漢甫 繼歿於焉八九年之間 未遑是役 余於庚辰春 懼然而起 遂與諸族 來董其役 幸而竣事 追感舊日 不能無愴懷溺中 遂以二帙 藏于典籍公齋舍 判決公齋舍而識于卷首 其志豈偶然哉 爲我參政公後裔 盡在於是譜而合爲一家二十六編 其實則一編也 一編一家之人 會是齋 閱是譜 孝悌敦睦 藹然莫遏 吾尹之大於世 自此始矣 不勝慶忭 玆敢爲說 獻于齋席

上之十七年庚辰十一月六日

參政公二十一代孫 永順謹書

今 上辛未春始發通 京有司 前縣監 永錫 參奉 永進 進士 永萬 永順 水使 永夏

壬申夏始設於京西門外芹洞譜所

都有司 參奉 永進 水使 永夏 譜廳主管 永順

壬申秋移設於定山東坐典籍公丙舍

譜廳主管有司 永順 判決事派都有司 載孝 典籍公派都有司 昌漢 掌財 校正有司 永蘭 永俊 永善 鳳根 東根 炳殷 炳潞 泰遠 鑄工 郭鳳奎 食主卞鳳乭

◇

(8) 고종임신보 범례

一、정사보와 갑진보를 이제 합하여 인쇄를 하면서 두파보에 기입되지 아니한 자손을 추기하여 소상하게 등재 하였다。

一、족보의 법규는 이미 무민재공이 법식을 정하여 둠이 있어서 갑진보와 정사보례에 의하여 참고하고 변통시키어 층단을 신유보례로 육개층단으로 시행하였다。

一、생졸 과거 연대는 당연히 명나라 연호로 함이 마땅하나 지금 몇백년이 되어 일일이 어느 연호 몇 년인지 계산하기 불가능하여 그래서 일제히 조선

왕들의 연호를 썼다。

一、칠원백 오형제파에의 분편에는 이미 나의 아버지 항재공이 예를 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신묘보 법례에 의하여 준행하였다。

一、남자를 앞에 쓰고 여자를 뒤로 쓰는 것과 소실의 아들 딸과 배위의 칭호는 모두 경진보례에 이미 정해진 법식이 있어서 다시 예를 새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一、배위의 사대 선조는 기재한 후라도 정사보례에 의하여 벼슬한 선조가 있으면 기재하였다。

一、시조 태사공에서 검교랑장공에 이르기까지는 옛날 족보할 때에 수권에 편찬하여 행간으로 나열하여 써 있음으로 그래서 그 보에 의하여 수권으로 편찬하였고 도지휘공 부터는 대수가 막혀 그래서 단층을 고쳐 원보의 상편으로 만들었다。

一、구보는 종이 첫머리에 천자문을 인쇄하였으나 경진년에 왕가의 세보처럼 몇편 몇쪽으로 개정하였고 지금은 정사보와 더불어 몇편을 참고하여 매편마다 천자문을 첫장에다 인쇄하고 몇쪽이라는 것은 숫자를 써 놓았다。

一、발문은 인제공에서 판돈녕공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이번 족보에 모아 놓고 을축에서 정사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파보가 됨으로 후손으로 하여금 그 시종을 볼 수 있도록 일일이 편입하였다。

一、우리는 같은 성씨로 사방에 흩어져 파보를 각자 이루고 있어 항렬이 일제하지 아니하다。 모름지기 백세토록 일가의 정의가 아니며 또 어느 집안의 일가이고 어느 선조의 후손인지 알 수가 없으니 어찌 크게 걱정이 안되겠는가? 비록 갑진보에 십세간 항렬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중용장구자를 찾아 항렬자로 배정하고 그리고 혹은 오행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으며 혹은 휘자와 저촉이 된다고 항렬자를 바꾸고 있으니 이 어찌 동성동본의 도리일소냐? 지금부터 후로는 족보가 이미 합보로 되어있고 항렬도 이미 정해져 있으니 예정된 항렬자는 후손의 규칙이 되니 만일 중용자로 항렬을 한다면 특히 자음의 청탁에 방해는 아니되어도 지어진 이름이 천속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고로 다시 오행자로 20대까지 표준자를 정하여 매 항렬마다 두자씩 배정하였으니 구보 예에 의하여 바꿔서 변통 할 수 있다。 항렬도는 항목을 달리하였으니 참조하라。

一、칠원의 돈본계와 덕산 서당 계헌은 바로 판돈녕공이 선산 묘소를 수호하려고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되었어도 지난날 자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산하에 여러 일가들이 계헌을

지킨다는 것을 듣지를 못하였으니 옛날 예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았다。아 우리들이 면목이 없는 것은 불초하여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선조를 제사하는 자리와 종족의 뿌리 터를 한 사람도 계승함이 없으니 어찌 애통하고 한탄스럽지 아니할소냐? 또 수권에 편입하여 후손과 여러 일가중에 유망한 사람이 있기를 기다리겠다。

一、이번 대동보는 조선시대 오백년 이후로 처음있는 장한 일이었다。우리 같은 관적을 가진 일가면 누구인들 선조들이 균등하게 보라는 뜻에 감동되어 유연히 흥기되지 아니할소냐? 만일에 이론이 있어서 이 족보에서 빠지자는 말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일가의 본심은 아닐 것이니 영원토록 제거하여 항렬에 들지 못하게 하고 종중 자리에서 연령도 대우하지 아니 할 것이다。

一、이번 족보를 편찬한 후로는 대대로 족보 예를 지키어 삼사십년에 한번씩 파마다 각자 유사를 정하여 여러 일가에게 알려서 수단 정단 인쇄에 세대가 오래되지 말게하고 종중법을 바꾸지 말지어다。

一、족보가 있게 된 이후로부터 양개파에 이르기까지 파보마다 각기 깊은 예규가 있어서 잘 정리된 조리는 후세들이 미칠 바가 아니고 이제 합동보를 하는 것에 또 덧붙일 말이 없지만 세대가 점차 내려가며 분파의 법을 참고하여 보면 간섭하지 아니할 수 없어 그래서 약간 말을 고쳐 정식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이 뜻을 본받아 후일에 고증하여 준수하기를 기다린다。

一、소자는 아버지를 닮지 못하여 육십이 가깝도록 성취한 바가 없어 아버지를 욕보인 죄를 피할 바 없으나 감히 합동대보를 나의 책임으로 삼고 도사인 사촌형 영진씨에게 알리고 진사 집안 형 영만씨를 찾아가 대종중으로 편지를 보내고 돌아와 큰 형님에게 품의하니 큰 형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내 소망으로 소망을 하고 있구나? 내 장차 서문을 쓸 것이니 너는 그 곳으로 가서 족보 일을 감독하라고 하여 나는 명을 받은 이후로 두려워 아낌없이 하였으나 아침 저녁으로 두려운 것은 족보라는 것은 시조로부터 몇 천년이 되고 자손이 계승되어 번성한 자손이 몇 만이 되는데 현재에 이르러서야 사방에 사는 여러 일가를 차례대로 책에 인쇄하여야 되는 것이다。나는 적은 지식 얕은 생각으로 어찌 감히 규약을 감당하고 대책을 세워서 중요한 책임을 대할 수가 있을까?

삼가 찾아보니 인제군수 공의 서기 1616년 족보는 관찰사 명암공에 이르러 처음 두권으로

이루어졌고 두번째는 진사 회와공에 이르러 정유보를 세 권으로 중수하려다가 완성하지 못하였고 관찰사 독성재공이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을때 그때에 큰 형 되는 회와공의 유언대로 세 권을 인쇄하였으며 세번째는 현령 무민재공에 이르러 여러해 동안 찾아다니며 다시 교정을 하여 경진년(1760년)에 이르러 편성이 되었으나 간행하지 못한 것을 판돈녕 직암공이 사람을 사서 깨끗이 써서 간행에 들어가고져 하였지만 완성을 못하였다。순조 을축년(1805년)에 장파의 재묵씨가 이 족보가 완성되지 못한 것을 걱정하여 우선 충효공파부터 파보를 하였으며 네번째는 신묘년(1831년)에 첨추 퇴밀당공이 척연히 두려움이 들어 나의 아버지와 족숙되는 창의씨에게 명하여 원근에 소식을 알려 활자체로 인쇄 시작한 반년도 되지 아니하여 퇴밀당공이 세상을 떠났으며 갑진년에는 아버지 항재공이 마침내 족대부 되시는 재호씨와 더불어 마침내 대언공파의 파보만 이루었다。다섯번째 이르러서야 정사파보가 되었다。또 장파로부터 그 일을 알려와 두 일가들이 합하여 각각 한질로 이루니 충효공파는 13권이 되고 대언공파는 9권이 된다。그래서 족보는 합하지못했지만 20여권이 되었다。

슬프도다 한 할아버지 자손들이 흩어져 사방에 있지만 합해지면 모두 한질이 되니 이것이 바로 신라와 고려 이후의 지난날 보첩이다。이 보첩을 가지고 오늘 보면 합보를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우리 시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지난날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니 진실로 옛날에 선조들이 합보를 한 자취가 있다면 모든 세상이 하나의 일가일 것이다。이런 마음이 들어 일가에 더한 창한씨와 영은씨가 선도하고 호응하여 함께 계획의 방법을 세우고 도와가며 대책을 세워 곧 준공의 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삼가 이 몇가지 조건만으로도 족히 구보의 예가 이루워질 수 있다고 하겠다。

서기 1872년 가을

무민재공 증손 영순은 절하고 삼가 기록하다

(8) 高宗壬申譜 凡例

一、丁巳譜 甲辰譜 今爲合印 則追錄兩譜 子孫 未入者 昭詳 入梓

一、譜法 己酉旡悶齋公 定式 而依甲辰譜 丁巳譜例 參考互相變通 而層格 以辛酉譜例 爲六層施行

一、生卒科官年條 宜以 大明年號 而今 至屢百年 亦不可

以一一計紀元幾甲故 一體書以本朝廟號

一、自漆原伯 五兄弟派 分編 己有先府君 恒齋公 定例故 依辛卯法例 遵行

一、先男後女 側室子女 配位稱號 皆有庚辰譜例 已有定式 則不必更爲創例

一、配位四祖 備書後 依丁巳譜例 有顯祖則書之

一、自始祖太師公 至檢校郎將公 舊譜時 編爲卷首 以行簡列書故 依舊例 編爲卷首而自都指揮公 塡代數故 改以層間 爲原譜上編

一、舊譜 紙頭 印千字 而自庚辰 依 璿譜 改幾編幾板而今與丁巳譜 參考 幾編則 每編 印千字文於第一張 幾板則只書數字

一、跋文 自麟蹄公 至判敦公 俱是合譜而自乙丑 至丁巳 皆爲派譜 而使後人 看得顚末 一一編入

一、惟我同姓 播分八路 派譜 各成 行列 不齊 須非百世一家之誼 且無以識某某家之族 某先之後 豈不大可悶然乎 雖有甲辰譜 十世行之預定而拈得於中庸章句字 排定行列 而或他用五行字而作名者 或稱觸諱而改行者 則此豈同姓同本之道乎 自今以往 譜既合矣 行已定矣 當預定行列 以爲來後之規式 而若以中庸字 爲行則非獨字音 淸濁之妨害 於作名 且近於該俗 故 更以五行字 乃定二十代之標準而每行 排定二字 依舊例 推移變通 行列圖 別項參照

一、漆原 敦本稧 德山書堂稧憲 即判敦公 爲先山守護而設也而 歲舊年深 往蹟 尙存 山下諸宗 聞無守行稧憲 舊例若存 若無 嗟乎 小子輩 無狀 不肖莫無纘述 而祖先香火之所 宗族根本之地 無一人繼承 寧不痛迫而至恨乎 謹又編入卷首 以俟後仍與諸宗 有望焉

一、今番大譜 入我 朝 五百年來 初有之盛事也 凡我同貫之宗 孰不欣感於體祖先均視之意 油然而興起哉 若有異論而肆發漏譜之語者 即非吾宗之本性也 永爲割去 不序其行列 不齒於宗案

一、自今修譜以後 世守譜例 三、四十年 一次式派派 各定有司 發通諸宗 修整印刊 毋至世代久遠 勿替宗法焉

一、自有譜以來 至于兩派 派譜而各有泓例 井井條理 非後生之企及 則今於合譜也 更無贅說而 世級稍降 分派之法 考閱之際 古今異同之論 不無參涉故 略改措語 以爲定式 須體此意 以俟後日之考證 遵行

一、嗚呼 小子 以不似之甚 半近六旬 無所成就 忝先之罪無所逃而 敢以合譜 爲己任 告于都事從兄永進 暨進士族兄永萬而發文于大宗中 而歸稟于伯兄 伯兄曰 汝以我志 爲志乎 吾將弁文 汝其徃而董役焉 余命以來 惕然無惜 夙夜恐懼者 譜自鼻祖 幾千載 子孫 繼繼 蕃支萬千 迄于今 八路諸宗 次第列刊於方策 余 以蔑識淺慮何敢擅一規畫一策 以對重責乎 謹按麟蹄公 丙辰譜 傳于觀察使鳴岩公而草成二冊 再傳于進士悔窩公而丁酉

重修三冊 而未就 觀察使獨醒齋公 按節湖西 遂卒伯氏 悔窩公之遺志而印三冊 三傳于縣令无悶齋公 積年採訪 重加勘校 至庚辰而成編 未刊 判敦寧直菴公 倩人精寫 擬欲入刊而未果 純祖乙丑 長派 載默 悶斯譜之未成 先自忠孝公派 爲派譜 四傳而辛卯 僉樞退密堂公 惕然 有懼 命我先府君及族叔昌義氏 發通遠近 以活字 印出 未半一歲 退密公 下世 至于甲辰 先君恒齋公 遂與族 大父載像氏 竟成 代言公派 派譜 傳于至五 而丁巳 派 譜 又自長派而告厥 兩宗 合成一帙 則忠孝公派 爲十 三卷 代言公派 爲九卷 然則譜未合 而爲二十餘矣 噫 夫以一祖之孫 散之則在八方 合之則總一帙而此 乃羅 麗以來之徃牒也 而以徃牒而視今則莫如合譜之爲愈矣 自我始祖 溯以上之則如今之視徃也 苟有上世而譜合之 跡則盡天下而爲一家矣 擧斯心 加諸於宗族而昌漢 永 殷甫 唱而和 俱爲之畫之以方 相之以策 將有辭於竣役 之日矣 謹以數件條目 足成舊例

今上即位九年壬申秋

无悶齋公會孫 永順 拜手 謹識

◇

(9) 경자보 발문

우리 윤씨는 칠원을 관적으로 하고 신라시대 태사공을 시조로 삼고 있는데 영걸한 자질과 현명한 덕행이 세상에 저명한 재상이 있었다。그 후로 장군 재상의 업적과 문관 무관의 인재가 연속하여 세대마다 계속 일어나 신라 고려의 사이에는 명망있는 집안이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충신、효자、과거 급제한 어진선비들과 문장가가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여 역시 국내에 저명한 씨족에 부끄러울 것이 없음은 족보를 찾아보면 모두 알 수 있다。족보는 서기 1616년에 인제현감공이 사실상 시작을 하였으며 이때부터 그 이후로 우리 일가의 족보는 대략 십여차례 편수하였지만 모두가 분파의 족보를 하였고 대동족보를 한 것은 오직 세차례 뿐인데 세상의 변천으로 더욱 기강이 없어져 널리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무술년(1958년) 10월에 시조 태사공 시제 올리던 날에 일가들의 의논이 크게 일어나 현재에 대동족보를 편찬하지 아니하면 일가들이 장차는 이산되어 다시 수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서로 더불어 계획을 세웠다。이래서 자세히 상의하여 여러 일가가 동의하여 각기 사람을 선출하여 책임을 나누어 수단비를 거두어 겨우 두 해 동안에 수단 일이 크게 모아져 이의를 제기하는 낙후된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어찌 지금 세상에 쉽게 되었을까? 비로소 파급된 바를 헤아려 보니 여기에서 가히 우리 선조들이 내려놓은 교훈이 말없이 도와줌이 원대하고 또 심오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일가들

이 화목하고 단란한 것이 바로 타인들보다 다르다는 것이니 어찌 다행이 아닐소냐?

옛날에 두자미는 곡강 두씨 족보 서문에 말하기를 원래 우리가 나오기 시작한 바라고 하였고 소명윤이는 미산 소씨 족보 서문에 말하기를 다행히 거리의 사람에는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두 성씨의 족보는 오로지 그 나오게 된 것만을 밝히고 또 여러대까지 친한 것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그런고로 그들의 말이 이와같이 매우 간략하나 사실은 요약하여 할말을 다한 것이다。현재 우리 족보는 수십대를 거꾸로 올라가면 후손이 기록되어있는 사람들이 수만명도 넘는다。그러나 만일에 자신이 나오게 된 곳을 오래도록 추모하고 숭배하고 화목하여 거리인으로 보지 아니하면 위로는 선조로부터 곁으로 종친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또다시 몇백세대가 지나도 자연히 선조를 같은 집 한 방에 모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두씨와 소씨의 말을 진실로 생각하고 외워야 할 것이다。

일가가 비록 친소가 있다고 하지만 선조로부터 보면 다같은 자손인 것이니 이것이 범희문의 경계이니 뜻있는 말이로다。나는 또한 정성껏 외우며 여러 일가들에게 이번 족보를 같이 하자고 알렸던 것이다。오직 소원이라면 우리 일가들은 먼 후일까지 추모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화목을 더욱 높혀 오늘에 족보 편찬의 의의를 잊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이 변천하여 산이 옮기고 바다가 움직인들 우리 일가에 대하여 어찌하겠는가? 나는 이래서 스스로 격려하고 또 이래서 서로 돕게 된 것이었다。여러 일가들이 내가 이번 족보일에 참여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발문을 지으라고 하여 이제 삼가 대강만 서술하여 마음에 느낀 바를 위와같이 삼가 쓰고있을 뿐이다。

경자년(１９６０) 9월10일
대언공 18대손 성학은 삼가 기록하다

(9) 庚子譜 跋文

吾尹之貫漆原 以新羅太師公 爲鼻祖 英資賢德 爲世名卿 自後 將相勳業 文武才傑 連世繼作 蔚爲羅麗間望族 至于前韓 忠孝科甲 儒賢文行 承紹不絕 亦無愧爲國中名閥 可按譜而悉知也 譜始於光海丙辰 麟跡公 實刊行之而自是厥後 吾族之譜 凡十餘修而擧爲派分之譜而其爲大同則惟三次而已而世變 益無紀極 有難普收 何幸戊戌十月 始祖太師公墓奠之日 宗議峻發 謂及今不一修大同譜則族將散而不可復收 盍相與圖之 於是 詢謀僉同 各選人分掌 收單醵費 僅兩年而事乃大集 罔有携貳而落後者 是豈斯世之所易有而始料之所及也耶 玆于而可見吾祖之垂訓默佑 遠且深而吾族之敦睦團欒 正自異於他人也 豈非幸歟 昔 杜子美序曲江杜氏之譜曰原吾所自出 蘇明允 序嵋山蘇氏之譜曰

幸不至於途人 夫二氏之譜 只明其所出而亦不及於屢代之親故 其言 如此甚簡 實則約而盡矣 今吾譜 溯及於累十世後孫之在籍者 不止數萬 然 若追遠所自出 崇睦不途人視上自以祖先 傍及宗親 雖自此更累百世 自與侍祖先於同堂一室 無異也 杜蘇氏之言 誠可思而可誦也 宗族 雖有親疎自祖先視之 均是子孫 是 范希文之戒也 旨哉言乎 余又恪誦而諗于諸族之同是譜者 惟願吾族 益篤追遠 益崇敦睦無忘今日修譜之義則雖世變 山移海動 其於吾族 何 余以是自勵而亦以是相勗焉 諸族 以余與聞是役 屬爲之跋 玆謹叙述梗槩而謹書所感于中 如右云爾

庚子重陽節上澣

代言公十八代孫 晟學 謹識

◇

(10) 경자보 범례(1960년)

우리 칠원윤씨는 태사공으로 시조를 삼고 있는데 태사국판사공부터 보윤공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수십세대가 족보에서 빠져 전승되지 않고 있다. 그런고로 우리 일가의 족보첩은 모두가 보윤공을 기세 시조로 삼고 있어 삼가 이 규칙을 준수하여 이번 족보의 기세도 보윤공부터 기세로 쓴 것이다.

서기1717년도 족보 발문을 찾아보면 계해년 수단중에 호남 사는 일가 세추씨가 12대의 전해오지 아니하던 세계를 전승하고 있는데 배위의 성씨까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역시 감탄되고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실전된지 오래이며 온 집안의 나이 많은 선배들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 이미 그것을 증명할 증빙이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한 사람의 기록만 의존하여 급히 편입하기도 의리상 결정을 못할 바 있어서 이제 삼가 수권으로 나누어 전승의 의문 여지를 삼았다고 이르니 근신을 지극히 하였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소목 세계는 보윤공에서 시작하고 기세는 참정공부터 시작하였으니 소목 세계는 믿을수 있으나 기세가 의심되는구나! 아마도 매우 옳다고 할수 있을까? 또 하물며 나열한 선조들의 벼슬과 시호는 이미 고려시대 명신록에 나타나 있음에야!

一、권질의 분류는 일세 이하부터 23세 이상 까지를 일국으로 편성하여 상계를 삼고 그 아래로는 각 편으로 나누었으니 보기만 편한 것이 아니고 옆가지가 가지와 통하고 가지가 뿌리와 통하는 뜻을 취할 수 있다.

一、권질이 옛날 족보보다 못한듯 하나 상세하고 요약한 것이 같지않고 기록상 특이한 예는 현 시대에 좋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그 대체를 살펴보면 전 족보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一、매 편마다 9층에 15행으로 정해놓고 소자는 매 층

마다 7자를 배열하여 쓰고 최하층은 단지 휘 누구라고만 써서 하편에서 서로 볼 수 있게 하였고 최상층은 또다시 휘 누구라고 쓰고 옆으로 주석을 써서 보기에 편하게 하였으며 만일 자손이 없어도 기록하여야 될 사람이면 글씨를 층끝에서 끝내고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一、배위의 4대 할아버지 쓰는 것은 옛 예에 의존하고 혹 부득이하게 자세히 기록할 것이 있으면 수단시에 빠진 것만 썼다。

一、아들딸은 아들을 앞에 하고 딸을 뒤로 쓰고 사위는 관적과 성명과 아버지 이름과 관직과 출세한 선조와 그리고 외손자도 관적을 쓰게 하였다。

一、양자를 간 사람은 본가의 생부 아래에 아들 누구라고 쓰고 누구의 아들로 출계라 쓰고 양자 간 아버지 밑에는 계자 누구라 쓰고 생부 누구라고 하여 출계한 의의를 중히 하였다

一、각 파의 소재지 이름은 매 장마다 선외공간에 써서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一、각 파의 행장 실록은 이미 구보에 기재되어 있어서 지금은 생략하였다。

一、구보의 범례를 이번 인쇄에 편입하지 아니한 것은 옛 것과 지금 것이 같으니 다르니 하는 논란의 간섭이 없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一、임신대보의 항렬자가 이미 빛날 병자 이하 24세의 항렬자 까지 예정하여 배열한게 있음으로 이 규칙을 잘 지키기로 하고 그리고 기사보에서 다시 영화 영자 이하 5세대 항렬자를 보태 놓은지라 이제 병합하여 써 놓았다。

一、항렬자 중에 빼어날 수자는 판서공의 휘와 같은 자이다。그래서 동녘 동자로 개정하였다。

一、권명과 판수는 모두 1、2、3、4로 구별하니 보는 곳에 어려운 단점이 있는듯 하나 상세히 참고하면 자세하게 되었으며 또 1、2、3권을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으니 보는 사람이 상세하게 하여야겠다。

一、구보의 묘소들은 소재지 지명이 시대따라 개혁이 된게 많아 당연히 개혁에 따라 기재를 하였으나 혹은 상세하게 되고 혹은 요약된 것은 수단이 일정하지 아니한 이유이다。

一、충주 낭장공파는 처음은 족보를 같이 아니하였는데 단 영조 신유보에 별보로 편입이 되었고 고종 임신보에 오로지 항재공이 기록한 상계 석장이 있었으나 수단의 기록이 있지 아니한것은 그 파의 구전하는 속에 그런 것이 있었냐는 의문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니 이것이 어찌 우리 종중의 큰 결함점이 아니겠느냐? 삼가 찾아보니 대제학공 이하에 소목 세계는 공의 처음 휘가 지보요 또 원보라고

써서 휘 조생 계로 되어 있으니 구보를 참고하여 보면 을보란 한 세대가 그 중간에 있어 낭장공과 더불어 같은 형제가 된다는 말이 있으나 우리 윤씨는 족보를 시작한 이후로 이런 말은 있지 아니하였으며 가령 지보 원보가 아버지가 되고 을보가 아들이 된다면 도울 보자와 보배 보자는 글자는 비록 다르나 자음이 서로 저촉되고 있으니 평범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진실로 이런 풍습은 없는데 하물며 당시는 나라가 비록 왕권이 바꾸어졌어도 어진 선비들이 무리로 나와 사대부들은 가법으로 규약을 이행하고 있었을 것임에야? 또 조씨의 족보에 이르기를 사실상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저기에서 오자되어 족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니 역시 분명하다。그런고로 이번 족보에 대제학 공의 셋째 아들로 편입하였다。

⑽ 庚子譜 凡例(一九六〇年)

一、我漆原之尹 以太師公 爲鼻祖而自判太史公 至甫尹公 其間數十世 譜逸不傳故 吾宗譜牒 皆以甫尹公 爲始祖 起世則謹遵此規 斯譜之起世 自甫尹公 起世書之 按肅宗丁酉 譜跋文則癸亥 所收長單中 湖南宗人世樞甫 能傳十二代 不傳之系者 妣位 姓氏 無不備載 吁亦奇矣 然 其失傳 久矣 一門의 長德先輩 未有能言之者

旣無左驗明證 而只憑一人所記 遽加編入 義有所不敢 茲謹別卷首 以爲傳疑之地云 可謂敬謹之至 然 昭穆則始於甫尹公 起世則始於參政公 信於昭穆而疑於起世歟 恐甚不可 又況列位府君之官爵 封諡 已顯於麗代名臣錄

一、卷帙分類 自一世以下 至二十三世以上 編成一局 爲上系 其下則分列各編 非但便於考覽 亦取條貫於枝 枝貫於本之意也

一、卷帙 似損 於舊譜 有詳略之不同 記載之異例 而祗不過今世之好詳而已 顧其大體 不越乎前譜之意耳

一、每編 九層十五行 爲定而小字 每層七字 排列以書 最下層 只書諱某 互見於下編 最上層 更書諱某 旁註 以便考覽 若無后 可錄者則書止於層盡處 不爲再起焉

一、配位 書四祖 依舊例 而或有不得詳錄者 盖錄單牒之疎漏也

一、子女則先男後女 女婿 書貫 姓名 父啣 官職 顯祖而外孫 書名官職焉

一、爲人后者 於本生父下 書子某 出系某之后 系后父下 書系子某 生父某 以別出系義重

一、各派 所在地名 列書于每張井間空處 以便考閱焉

一、各派 行狀 實績 旣載于舊譜 而今 闕略焉

一、舊譜 凡例 今不更刊編入 古今異同之論 不無參涉故也

一、壬申大譜 行列字 已有炳字以下二十四世 行之預定排

例 謹遵此規 今不帖焉 而已巳譜 更添榮字下五世行故今並書之

一、行列中 秀字 判書公 諱 同字 故 以東字 改訂

一、卷名及板數 俱以 一二三四 爲別 互見處 似有難辨之端 詳考則可詳 且有一、二、三卷 合爲一册者 覽者 詳之

一、舊譜 墳塋所在 地名 多有隨時改革 當以隨改登錄 而或詳或略者 里牒之不一故

一、忠州郎將公派 初不同譜 但 英宗辛酉譜 編於別譜 高宗壬申譜 只有恒齋公所錄上系三張 未有長單之記者 以其有該派舊傳中 有然疑之一說故也 玆豈非吾宗 大欠典哉 謹按大提學公以下昭穆則公之初諱之輔又作元輔 以諱祖生系之而考其舊傳 有乙寶一世於其間 與郎將公 同爲弟兄之說 吾尹 始譜以來 未有此說 假使以之輔元輔 爲父 以乙寶 爲子 輔與寶 字雖異 而音實相觸 若尋常愚夫 固無此習 况當是時也 國雖易命 儒賢輩出 士大夫家法 循蹈規矩者乎 且趙氏 譜云云者 實是訛於此而誤於彼也 不足證信 亦明矣 故 今譜 編入于大提學公 第三子位也

(11) 경신보 발간사(1980년)

우리 칠원윤씨의 본원은 멀리 신라시대 태자태사공이신 휘 시영을 시조로 모시고 본원이 시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태사공의 아들이며 태사국판사공이신 휘 황 이후로는 몇 세대가 족보에 빠져 전승되지 아니한 것이 한탄스러운 일이다。 고려 초기에 이르러 호장보윤공 휘 거부를 1세조로 시작하여 46세까지 일천여년간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승이 되었다。 우리 윤씨의 족보 책과 고려사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귀족 네 성씨들과 같은 위치에 오른 일족이 되었음을 자부하는 바이다。 조선 중엽까지도 충신 효자가 대대로 전승되고 높은 관리들이 계승하였으니 우리 선조는 영민하고 총명하고 현량하고 후덕하여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하며 공로와 업적이 대대로 연속하여 무리지어 나와 있음은 가히 우리나라의 명망있는 씨족이라 이를 수 있다。

무릇 족보라는 것은 세대의 계통과 파별과 항렬과 소목을 나열하고 선조의 생전 업적을 기록하고 종족과 인척과의 상관된 것을 나타내는 씨족의 보감이다。 우리 윤씨의 족보를 편찬한 내력을 고찰하면 서기 1616년에 처음으로 붓으로 족보를 써 보았고 서기 1741년에 창간 족보를 발간하였고 서기 1872년에 재차로 족보를 발간하고 서기 1960년에 3차로 족보를

발간하기까지 대동족보와 십여 차례의 파보를 발간한 적이 있었다.

지난 경자년에 대보를 편수한 후로 2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약 배수에 이르는 종원의 증가로 인하여 반드시 족보를 편찬할 대상이 급격히 늘었으며 전국적으로 고루 흩어져 살고 생활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요자도 증가하였으며 문화 수준의 변천으로 근대화 문제가 대두되어 지난 기미년 가을에 상포재에서 개최된 종회에서 대동족보 발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다음해 경자년 봄에 결의되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상포재에 보소를 설치하고 마산에 편찬위원회 사무소를 분치하여 네번째 족보 발간의 일을 착수한 바 일년이 넘어 인쇄가 되니 불과 일년여만에 신속하게 일을 끝낸 것은 오로지 여러 일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로이다.

이번 족보를 편수함에 있어

첫째 양장제본으로 양면에 인쇄하여 분질받는 종인의 재력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관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둘째 휘자 행장문 묘비문에 국문으로 토를 달고 또는 국문으로 번역하고 영자 항렬 이하는 간지 밑에 서기 연대를 삽입하였다.

셋째 지난 번에 족보에서 누락된 종인을 찾아내는데 진력하여 무후된 것으로 알고 있던 칠성군 휘 장의 후손을 족보에 편입시켰음은 우리 일가에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상계와 가장은 별책으로 제일권에 편찬하고 관직 품계표와 연대 대조표등을 부록하여 족보를 열람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족보를 편수한 바 가호수는 팔천 세대이며 인구 수는 삼만여인이 되었다. 휴전선 이북과 해외에 거주하는 종인들이 족보에 누락됨은 실로 우리 일가의 비극이며 우리나라의 비극이니 천추의 한탄이다. 그러나 이 족보 발간을 계기로 전 종인이 이 족보의 정신을 구심점으로 단결하여 뿌리인 조상과 가지인 일가와 열매인 자신을 인식하면 견고한 뿌리에 지엽이 번성하고 번성한 지엽에 충실한 열매가 결실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치가 바로 뿌리를 배양하여 가지를 아끼며 조상을 숭배하고 일가를 화목하는 정신의 원천이다.

이 정신으로 우리 일가의 발전을 도모할 때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기대될 것이다. 최근 우리 일가중에 출세한 인재가 점차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에 선조의 위대한 업적과 쌓아 놓은 덕을 새삼 흠모하는 바이다.

끝으로 여러가지 고충의 부족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다소 성기고 누락된 족보책을 편수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족보에서 누락된 종인이

적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만부득이 편수를 마감하게 되니 선조와 일가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후손들이 보완하여 주는 행복을 바라는 바이다。

서기 1981년 신유년 3월

칠원윤씨대보편찬위원장 영춘은 삼가 기록하다

(11) 庚申譜 發刊辭(一九八〇年)

漆原尹氏 本源 新羅時代 太子太師公諱始榮 始祖 發源 不幸 太師公 子太史局判事公諱 璜以後 數世 譜逸不傳 恨 高麗初 戶長甫尹公諱 鉅富 起一世 四十六世 千有餘年間綿綿相傳 吾尹 譜牒 麗史 考察 東邦華族(四大)躋列 一族 自矜 朝鮮朝中葉 忠孝世傳 簪纓相承 祖先 英明賢德 科官勳業 連世輩出 可謂邦國之望族

譜者 世系派別行列 昭穆 布列 祖先 行狀 宗族 姻戚 相關 氏族 寶鑑 吾尹 譜歷 考察 光海丙辰一六一六年 始筆 抄譜 英祖辛酉一七四一年創刊譜 高宗壬申一八七二年 再刊譜 純宗後庚子一九六〇年三刊譜 大譜 十數次 派譜刊出

庚子修譜後 不過二十年 約倍數 達 宗員 增加 因 要修譜 對象 激增 全國的 頒布 生活圈 擴散 因 需要增加 文化水準 變遷 近代化問題 擡頭 己未年秋 上浦齋 開催 宗會 大譜發刊 必要性 擧論 翼庚申年春 決議 甚幸 上浦齋 設譜廳 馬山 分置編纂委員會事務所 四刊譜役 着手 越年而上梓 不過年餘 迅速告畢 諸宗 積極的 協助 功

本譜編修

一、洋裝製本 兩面印刷 頒帙宗人 財力負擔 輕減 保管 便利圖

二、諱行狀碑文等 國文縣吐 現代文 飜譯 永字行以下 干支下 西紀 揷入

三、過間漏譜 宗人 探尋 盡力 無后 知悉 漆城君諱 樟 後孫 入譜 吾宗 幸

四、上系 世狀 別冊 卷之一 編纂 官職品階表 年代表等 附錄 譜牒考覽 便宜 提供

今般修譜 戶八千世帶 口三萬人員 休戰線以北 海外居住 宗人 漏譜 實 吾宗 悲劇 邦家 悲劇 千秋 恨 本譜發刊 契機 全宗人 本譜 精神 求心點 團結 祖上 一家 自我 認識 堅實 枝葉 茂盛 茂盛 枝葉 充實 結實 大自然 攝理 理致 培養 崇祖睦宗 精神 源泉

精神 吾宗 發展 圖謀 無窮 榮光 發展 期待 最近吾宗 顯達之材 漸增多出 祖先 偉業 蔭德 欽慕

諸般考證 不足 財政不贍 疎漏 譜冊 編修 甚 遺憾之事 漏譜 宗人 不少 知悉 萬不得已編修磨堪 祖宗 對 悚懼 禁 來裔 補完之幸 企望

西紀一九八一年 辛酉春 三月 日

漆原尹氏大譜編纂委員長 永春 謹識

(12) 경신보소기(1980년)

대저 나라에는 역사가 있고 씨족에는 족보가 있으니 나라에 역사가 없으면 옛날 정치교화를 참고할 수 없으며 씨족에 족보가 없으면 옛날 선조를 참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고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고 씨족이 있으면 반드시 족보가 있는 것이다。 족보라는 것은 대대로 일가의 계통을 기록하여 선조를 상세히 하고 파별을 분명히 하여 어버이를 존경하고 일가를 화목하는 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일가에게 친히 할 수 있으랴?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 태사공 이후로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12인이 문관으로 높은 벼슬을 하였고 7대선조가 군호에 책봉해져 빛나고 있다。 고려 말기에 충효공의 정치 교화와 대언공의 덕업과 칠성군의 공로와 사윤공의 모범과 부원군의 보조와 장군공의 전략은 우리 가문의 파조 여섯 할아버지이니 국가 역사에 기재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전승하여는 문관 무관이 대대로 전승되어 그 인원수가 4백여인이며 계속하여 번성하였으니 가히 한 나라의 명망있는 씨족이라 이를 수 있으니 어찌 선조들이 후손에 남겨 놓은 음덕이 아니겠는가?

아 우리 윤씨의 족보는 서기1616년 인제현감 공이 처음으로 족보 편찬을 하였으나 간행하여 세상에 내놓지 못하였고 서기 1741년에 관찰사 공이 족보를 창간하였으며 서기 1872년에 두번째 족보를 발간하고 서기 1960년에 세번째 족보를 발간하여 세상에 배포되어 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기미년에 시조 태사공 시제시에 족보를 편찬하자는 의논이 나왔으나 문중 회의에서 결의하지 못하고 경신년 봄에 다시 각 문중 대표가 회합하여 난만히 토의하여 마침내 합의를 얻어 보소를 마산에다 설치하고 임원진을 정할때에 여러 일가들이 결의하여 총무 책임을 지워 여러차례 사양을 하였지만 얻어내지 못하였다。 여러 성씨들의 족보 규칙을 널리 찾아보고 우리 족보의 옛날 규칙을 상세히 살펴 이미 계획에는 폐단이 없었지만 어찌 모두가 좋다고 이를소냐? 마산에서 일을 시작한지 아홉달 만에 정산、거제、합천、칠곡、보성、화성 등지와 기타 각 문중으로부터 초단이 마감되어 마침내 정단을 하니 때가 이미 섣달이 되었다。 현재 족보 편집에는 정산 사는 홍수가 10여년간을 두고 여러 일가들이 소장하고 있던 문헌을 널리 참고하고 선계를 정밀하게 판단하고 세지를 채택하여 일가 회의를 준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하지 아니할소냐?

금년 봄에는 보소를 대전으로 옮기니 인쇄를 회상사에 맡기었다。 옛날 족보는 29권에 16책이었으나 다섯권 다섯 책으로 축소시켜 여러 일가들에게 반포하였다。 현

재 족보를 편찬한 요령은 보기에 편리하고 보관하기 좋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은 재력이 넉넉하지 못하여 짧은 시간내에 인쇄를 끝내느라 오자를 교정하고탈자를 보충함에 다하지 못하여 더할수 없이 미안하고 거주지를 모르는 일가와 외국에 사는 일가들이 족보에서 빠짐이 없다고 못하겠으니 이것도 흡족하지 못한 일이다。 오직 소원이라면 후손들이 계속하여 족보를 편수하여 믿음을 주는 것이 좋겠다。 종친이란 비록 원근 친소의 구별이 없지 않으나 그 선조를 보면 균일한 자손이요 자손은 다같이 선조에 혈기의 유체를 받은 것이니 어찌하여 원근 친소로 정의에 후하고 박절한 것을 둘소냐? 이 족보를 편수하는 요지는 오래도록 선조들의 유업을 추모하고 종친간에 화목을 돈독히 하며 위로는 소목을 밝히고 아래로는 모범을 계시하는 것이니 영원토록 전승하여 선조의 유훈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소기한 것이다。 이 족보 일에 특히 조력을 아끼지 않았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한 사람들을 차례로 아래와 같이 대략 기록하고 겸하여 삼천수 백질 족보를 분질하였으니 각 도에 사는 여러 일가들의 숭배하고 아끼는 정성에 감사함이 긇이지 아니할 뿐이다。

기

주간 위원장 영춘

협찬 영창 학근 홍근 중학 효근 건학 영학 종구 남두 원국 병혁 병희 정삼 태원 종락

문안심해 병재 순원 득원 종은 종오 홍수

정단감인 정원 홍원 종수 연수 은수

협역

서울 제원 명원 종구 상훈

경기 영복 병철 경흠 해조 달수

강원 상갑 명수

충북 철원 조원 농원

충남 영설 병갑 병현 대원 두원 종철 종대 호경

대전 용학 종서 경수

전북 병수 병찬 종린

전남 송섭 봉근 종대 석호 상석 계용

대구 수원 종석

경남 효근 대근 충학 정원 병로 병수 병찬 병기 병상 희상 해원 규원 종호

거제 철근 경용

부산 형우 치원 수원 기수

이외 다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신유년 중추

총무 형수는 삼가 기록하다

⑿ 庚申譜小記(一九八〇年)

盖國有青史 族有系譜 國無史則無以稽古之政敎 族無譜則無以稽古先祖故 有國則必有史 有族則必有譜 夫譜者 系以紀世族 詳其先 明其派 以敎尊親睦宗之道 不知其源 何以親其族乎 惟我漆原之尹 自新羅太師公以來 至於麗朝十二文顯 七代封君之燀赫 麗末 忠孝公之政化 代言公之德業 漆城君之勳勞 司尹公之儀表 府院君之保祚 將軍公之武略 吾門派祖六顯 載于國乘 傳于朝鮮 文武官冕 連世相傳 其員 四百有餘而綿延蕃衍 庶可謂國之望族 豈非先祖遺後之蔭德耶 噫 吾尹之譜 光海丙辰 麟蹄公 始營修譜未刊行于世 英祖辛酉 觀察使公 創刊譜 高宗壬申再刊譜純宗後庚子譜三刊 行于世 其後二十年己未 始祖太師公薦享之時 有修譜發論 門議不果 庚申春 再會各門代表 爛商熟議 終得合意 設譜所於馬山 遂定任員 以僉宗結議 擔責總務 屢辭不獲 廣査各氏之譜規 詳察吾門之舊譜 旣圖無弊 豈云盡善哉 於馬山經營三季 自定山巨濟陜川漆谷會城華城等地及其他各門中 抄單磨勘而終其精單 時已歲暮矣今譜編輯中 定山居弘洙 積十有餘歲 博考諸族之所藏文獻辨證先系之精詳 採擇世誌 遵行宗議則豈不幸甚耶 今春譜所 移于大田 印任回想社 舊譜則二十九卷十六册 以五卷五册 縮小頒帙于諸宗 今編譜之要領 便於考覽 宜於管守 然 有感 財力之不贍 落刊乎 短晷之日 不盡正其訛誤補其闕誤 未安莫甚 然而不知居處宗人及移居外國宗人 漏譜者 不無 是爲未恰之事 惟願來裔續修譜者 垂諒 可也宗族 雖不無遠近親疎之別 然 視其祖先則均是子孫 子孫同受祖先血氣之遺體也 豈可以遠近親疎 有情誼之厚薄乎今修譜之要旨 遠慕先祖之遺跡 敦其宗族之和睦 上以明其昭穆 下以開其龜鑑 永世相傳 勿替先祖之遺範 豈不幸甚哉 是以爲小記 是役也 特以不惜助力 擧有終之美歷 如左略記 兼而頒帙三千有餘幾百譜 八域諸宗 崇愛之誠 感謝無已云爾

記

主幹 委員長 永春
協贊 永昌 學根 弘根 中學 敎根 建學 榮學 宗求 南斗
元局 炳赫 炳曦 政三 泰遠 鍾洛
文案審解 炳材 順遠 得遠 鍾殷 鍾五 弘洙
精單鑑印 禎遠 興遠 鍾壽 衍洙 殷洙
協役
서울 濟遠 明遠 鍾九 相勳
京畿 永福 炳喆 敬欽 海朝 達洙
江原 相甲 明洙
忠北 喆遠 祚遠 瓏遠
忠南 永卨 炳甲 炳賢 大遠 斗遠 鍾喆 鍾大 鎬京
大田 龍學 鍾書 景洙

全北 炳洙 炳燦 鍾麟
全南 頌燮 奉根 鍾大 錫祜 相錫 桂用
大邱 壽遠 鍾錫
慶南 孝根 大根 忠學 正源 炳魯 炳秀 炳燦 炳基 炳相
熙祥 亥遠 圭遠 鍾鎬
巨濟 轍根 慶鎔
釜山 炯佑 致遠 秀遠 麒洙
以外多數 不可盡記

辛酉仲秋

總務 亨洙 謹記

◇

⒀ 경신보(1980년) 범례

一、본 족보는 경신보라 호칭하고 옛날 족보의 범례를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개편을 더하였다.

一、본 족보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져 옛날 족보의 한문에 토씨를 달았고 또는 국문으로 기록도 하였다.

一、권질의 분류는 첫째 권에 발간사와 선조의 행장과 시조이하 20세 까지만 수록하고 그 이하 세대는 모두 하권에 수록하였다.

一、매 쪽마다 8계단이며 대자로는 35개자를 기재하고 소자로는 70개자를 기재하되 윗부분 2계단은 소자로 7개자를 기재하고 중간 부분 3、4번 계단은 8개자가 기재되고 밑부분 5、6、7、8 계단은 10개자를 기재하였다.

一、자손록의 기재는 휘자、이름은 대자로 쓰고 자、아호、생년월일、행적、관직、졸일、묘소、석물、배위 성씨 등은 소자로 썼다.

一、현대인의 관직은 3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와 석사、박사 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만 한정하고 국영기업、자영업체의 모든 직위는 생략하였다.

一、매 계단 첫머리에 소속 상계를 첨서하여 계대의 계승을 표시하였다.

一、생졸년의 연대 표시는 34세까지는 경자보에 의거하고 35세 이하는 모두 간지하에 서기 년수를 연기하여 시대 참고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一、배위의 사대 선조는 구보예에 의거하였으며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수단첩에서 탈루한 소치이다.

一、자녀의 배열은 남자를 앞에 쓰고 여자를 뒤에 쓰되 연령순으로 기재하고 적자와 서자는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며 미혼한 딸도 족보에 기입을 허용하였다.

一、딸은 출가하고 아니한 것을 막론하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출가한 경우에는 사

一、위의 성명과 그 부모와 외손까지 기재하였다。

一、선조의 기록문 행장 기타의 문헌은 구보에 기재된 부분은 모두 이기하되 각 파별로 반포된 현조들의 문헌에 의거하되 한사람에 두 건으로 국한하였다。

一、구보에 누락된 자손과 또는 상계가 미상한 자손의 초단을 들여올 때에는 본보 편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록하였다。

一、금번 족보에 수단을 보내오지 아니한 경우는 경자보에 의하여 모두 이기하여 후일에 족보에 편입할 기회를 주었다。

一、각 파종이 살고 있는 주소 지명을 가선 빈곳에 요약하여 써서 자손들의 주소를 밝혀놓았다。

一、이번 족보 편찬에는 각 파종의 유사들이 정단을 교정하였으며 혹은 사실이 아닌 관직과 행적은 삭제하였다。

一、구보에 오기되고 또 누락된 사항은 구보와 각종 문헌을 참작하여 정정하였다。

一、첨지공 휘 빙의 고증자료

칠성군 휘 장의 후손들은 옛날 책에 이르기를 양주와 고양 근처에서 살았으며 무술로 등용이 되었으나 빈한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왕래한 바가 없어 그간에 족보에서 누락되었었다。이번에 칠성군과 일가인 종호가 소장하고 있는 가승과 첨지공 휘 빙 이하의 묘갈비 묘소 상석을 고증하니 마침내 칠원인이라 써져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어 그래서 이번 족보에 편입하였다。

一、장군공 휘 계유는 임신、경자 두 족보에 참정공 휘 송제의 증손자 란에 후손으로 계보하였으니 고려사와 칠원향안 책을 참고한 즉 공의 손자인 휘 수상이 충효공 휘 환과 더불어 동시에 벼슬을 한바있고 과거에 급제한 연대가 30년 뒤이며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렀으니 그 연대를 추산하고 또 참정공 으로부터 그 손자까지는 연속하여 삼세대가 독자이라 타 계통 일가는 없음이 불 보듯 환하다。그런고로 이제 참정공 손자 휘 수 군부판서공의 제삼자 란에 편찬하였다。

一、위의 범례에 누락된 사항은 구보 예에 의거한다。

(13) 庚申譜 凡例(一九八〇年)

一、本譜는 庚申譜라 稱하고 舊譜凡例를 參酌하여 아래와 如히 改增함

一、本世譜는 時代的要請에 相應코자 舊譜의 原文에 懸吐를 하고 又는 現代文으로 記하기도 하였다

一、卷帙의 分類는 卷之一에 發刊辭世誌와 世狀等과 始

祖以下二十世까지 收錄하고 其以下世는 모두 下卷에 收錄하였다

一、每面은 八段(大字는 三十五字 小字는 七十字)이며 上二段은 七字平이요 中三、四段은 八字平이요 下五、六、七、八段은 十字平으로 하였다

一、孫錄의 記載는 諱、名은 大字로 하였으며 字、號、生年月日 行蹟官蹟卒日墓所儀物配位는 小字로 하였다

一、現代人의 官蹟은 三級以上의 公職者와 碩士學位以上을 受한者로 限하고 國營 또는 私營業體의 諸職位는 略하였다

一、起頭欄에 그 所屬上系를 添書하여 系代의 接續을 表示하였다

一、生卒年의 年代表示는 三十四世까지는 庚子譜에 依하고 三十五世以下는 모두 干支下에 西紀를 連書하여 時代考覽의 便宜를 提供하였다

一、配位의 四祖는 舊譜例에 依하였으며 詳錄되지않음은 單諜의 疎漏한 所致다

一、子女의 配列은 先男後女와 年齡順으로 錄載하고 嫡庶를 不問하였으며 未婚女도 入譜를 許容하였다

一、女는 出嫁與否를 莫論하고 그 名 및 生年月日을 俱記하였으며 出嫁하였을 境遇에 女婿의 姓名과 그 父母와 外孫까지 記載하였다

一、世誌世狀其他文獻은 舊譜에 登載된 部分은 全部轉載하되 各派에 頒布된 顯祖로서 文獻에 依據하고 一人에 二件으로 局限하였음

一、舊譜에 漏落된 子孫 또는 上系가 未詳한 子孫의 納單이 있을 時에는 本譜編纂委員會의 決議로 收錄하였다

一、今般修譜에 納單하지 아니한 境遇라도 庚子譜에 依하여 모두 轉載하여 後日에 入譜의 機會를 주었다

一、各派의 居所地名을 每張井間空處에 略書하여 子孫의 居所를 밝혔다

一、今般修譜에 있어 各派有司가 精單을 校正하였으며 或無實한 官爵과 行蹟은 削除하였다

一、舊譜에 誤載 또는 漏落된 事項은 舊譜와 各種文獻을 參酌하여 訂正하였다

一、僉知公諱聘攷

漆城君 諱 樟後孫은 久傳云散處楊州高陽等地라 以弓馬로 進用이러니 不免零替而無攸來往하여 其間漏譜矣라 今考該派宗人琮皓所藏家乘과 僉知公諱聘以下의 墓碣墓床컨대 逐書漆原人이라 以可證信故로 編入于本譜하노라

一、將軍公諱繼茱는 壬申庚子兩譜에 參政公諱松磾의 曾孫欄에 後孫으로 系譜 하였으나 攷諸麗史及漆原鄕案則公之孫 諱守常이 與忠孝公諱桓으로 同時立朝인바 登科年代가 三十年後이며 官至大提學하니 推其年代

하고 又以自參政公으로 至其孫에 獨子連三世라 無他系之族而明若觀火故로 今編次于參政公孫 諱秀軍簿判書公의 第三子欄하다

一、右凡例에 漏落된 事項은 舊譜例에 依한다

◇

7、칠원의 연혁과 본관유래

(1) 칠원(漆原)의 연혁(沿革)

칠원은 본래 신라의 칠토(漆吐)현으로 경덕왕 16년(757년)에 칠제현(漆隄縣)으로 개칭되어 오늘날 마산、창원、의창지방인 의안군(義安郡)에 예속된다。고려 태조23년(940년)에 칠원으로 고쳐지며 현종9년(1018년)에는 오늘날 김해지방인 금주(金州)에 소속되어 통제받았다。

공양왕(恭讓王) 2년(1390년)에 비로소 감무(監務)가 파견되었고 조선이 건국되어 태종 13년(1413년)에 가서 현으로 승격되어 현감(縣監)이 파견되는 곳이 된다。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고을이 쇠잔해지므로서 선조 34년(1601년)에 함안에 합속되며 그 뒤 차츰 인구가 불어나고 토지가 개간되므로서 광해군 9년(1617년)에는 마침내 함안으로 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정을 펴나가게 되나 인조5년(1627년)에 창원도호부에 그리고 인조7년(1629년)에 다시 함안에 합속되었고 인조17년(1639년)에 다시 함안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근래에 들어와 광무10년(1906년) 9월 14일 행정구역개편때 다른 속현(屬縣)은 분리되어 나가고 다음과 같은 세개면의 이름이 정해졌다。

칠서면(漆西面)

1895년 5월 칠원에 속한 서면이 되었다가 1906년 행정구역 변경시 함안군으로 속해지자 칠원의 서쪽에 위치한다고 칠서라 칭하였다。

낙동강변에 있는 칠서는 현재 농공병진의 고장으로 전망이 밝으며 늪지를 개발해서 칠서지방공단이 조성되어 주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고등채소 재배로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구마고속도로가 관통하는등 교통의 요지이다。

칠북면(漆北面)

칠북면은 변진(弁辰) 12국의 접도국(接塗國)이래로부터 칠토、칠제 즉 칠원의 영토였으며 1906년 행정구역 변경시 칠원군이 함안군에 병합되어 함안군 칠북면이 되었다。원래는 칠원 북쪽에 위치하여 북면이라

하다가 광무10년 9월 14일 칙령에 의해 칠원의 고토라 하여 칠자와 북자를 따서 칠북이라 하였다。

칠서면과 경계를 이룬 광려천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군청까지는 21·6㎞로 가장 먼거리에 있다。

칠원면(漆原面)

칠원면은 1906년 폐군된 칠원현의 명칭을 계승한 것으로 지금의 무기천(舞沂川)을 옛날에는 칠계(漆溪)라 한데서 칠자를 따고 고을의 근원인 원자를 써서 칠원이라 했다고 전한다。옛 군명은 칠토、칠제이고 읍명은 구성、무릉이며 삼한중 변진(弁辰) 12국의 접도국(接塗國)이었으며 칠원은 고려 태조 23년부터 불려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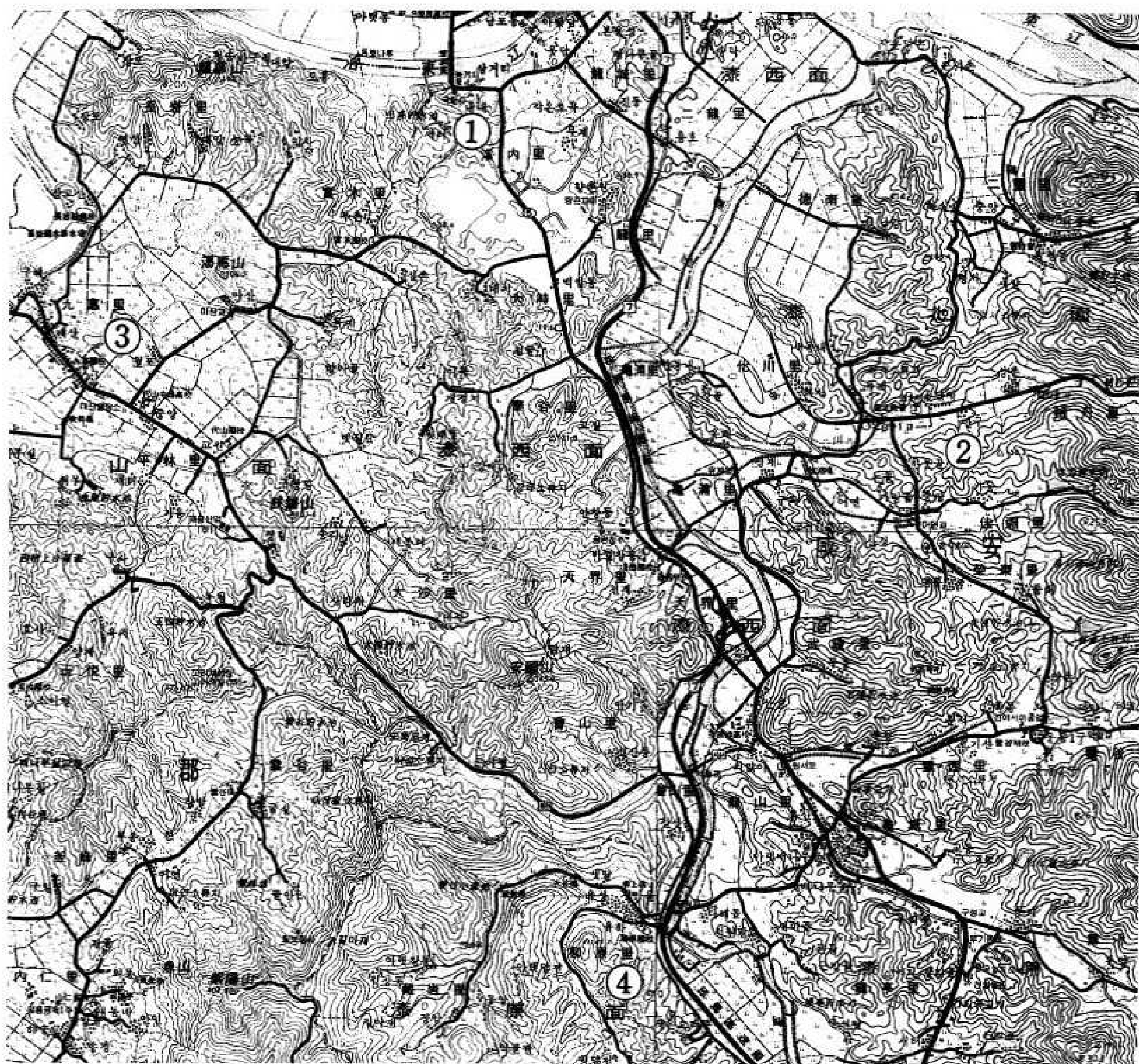
(2) 본관(本貫) 유래(由來)

성(姓)은 같은 조상을 모시는 같은 혈족(血族)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서 다른 혈통의 씨족(氏族)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 위에 붙이는 호칭이다。그러나 점차 씨족의 수가 증가하고 성(姓)이 일반화 되면서 성(姓)은 같으면서도 시조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혈통을 구별하기 어렵게 되자 성(姓)앞에 본관(本貫)을 붙여서 다른 혈통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 본관(本貫)이다。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윤씨(尹氏)성은 본관이 44개이며 그중 하나의 본관이 칠원(漆原)이다。

우리가 칠원(漆原)이라는 본관을 사용하게 된 유래는 중시조(中始祖)후 17세인 충의공(휘 길보)때 부터이다。충의공(忠義公)은 고려 제24대 원종 11년(1270년)부터 제28대 충혜왕 1년(1331년)까지 60여년간 관직에 계시면서 삼중대광 첨의찬성사(三重大匡僉議贊成事)와 상의회의 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를 역임하셨고 수성직량공신(輸誠直亮功臣)의 훈호(勳號)와 구성군(龜城君:구성은 칠원의 옛지명)의 군호(君號)를 받으시고 충의(忠義)라는 시호(諡號)를 받으셨으며 슬하에 5남 2녀를 두셨는데 후손들이 칠원(漆原)에 정착세거(定着世居)하면서 본관을 칠원(漆原)으로 하였다。

(1) 선영 소재 지도



① 상포선영(上浦先塋)　　③ 구혜선영(九惠先塋)
② 검단선영(檢丹先塋)　　④ 유원선영(柳原先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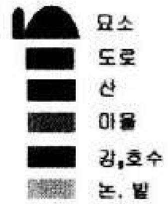
(2) 선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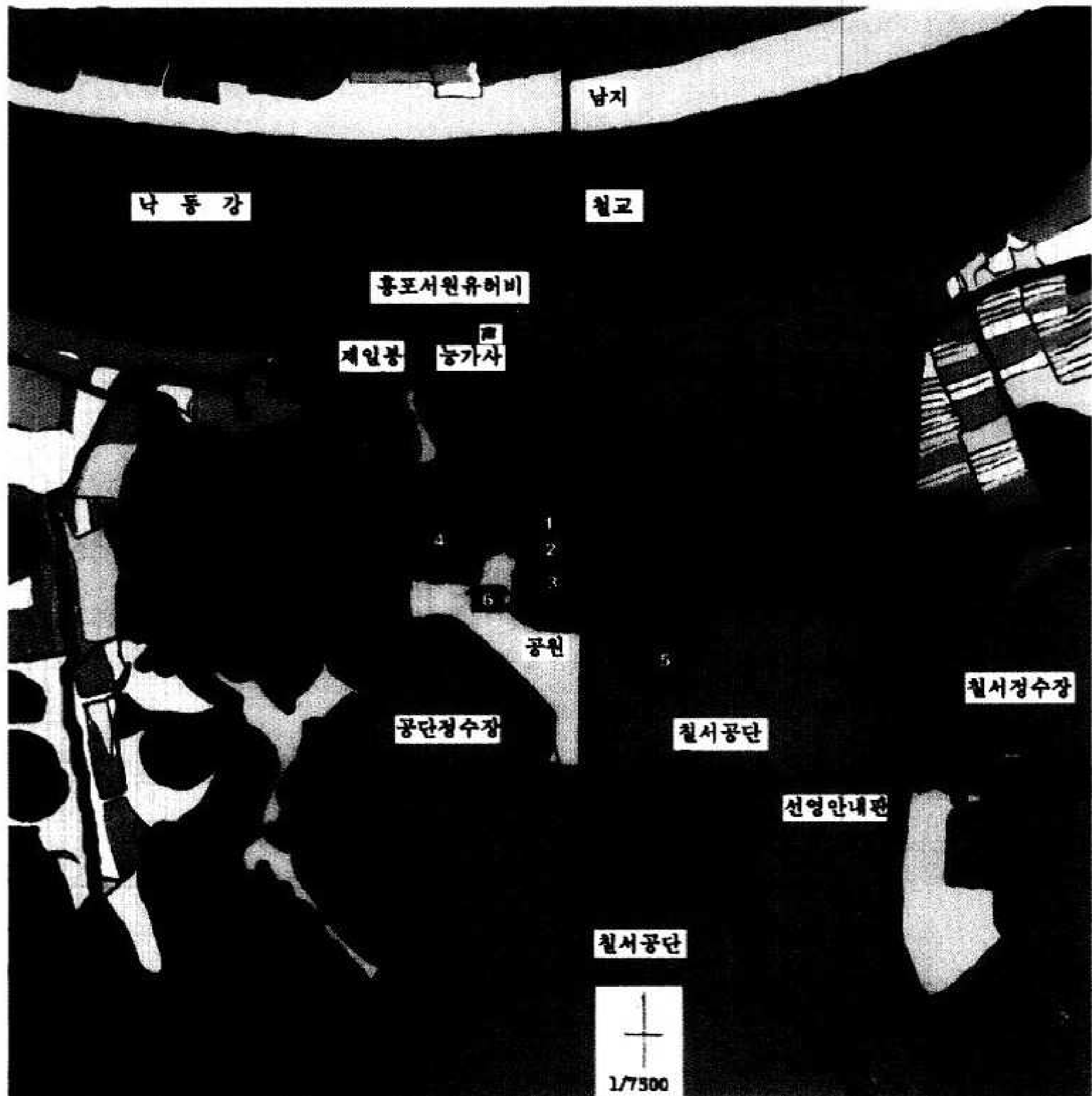
상 포 선 영 도

上 浦 先 塋 圖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94-1번지)

(1) 시조태사공(휘시영)묘
(2) 12세상서공(휘율부)묘
(3) 17세충의공(휘길보)묘
(4) 16세무안박씨(휘수의배)묘
(5) 19세정평공(휘자당)묘
(6) 상포재





검 단 선 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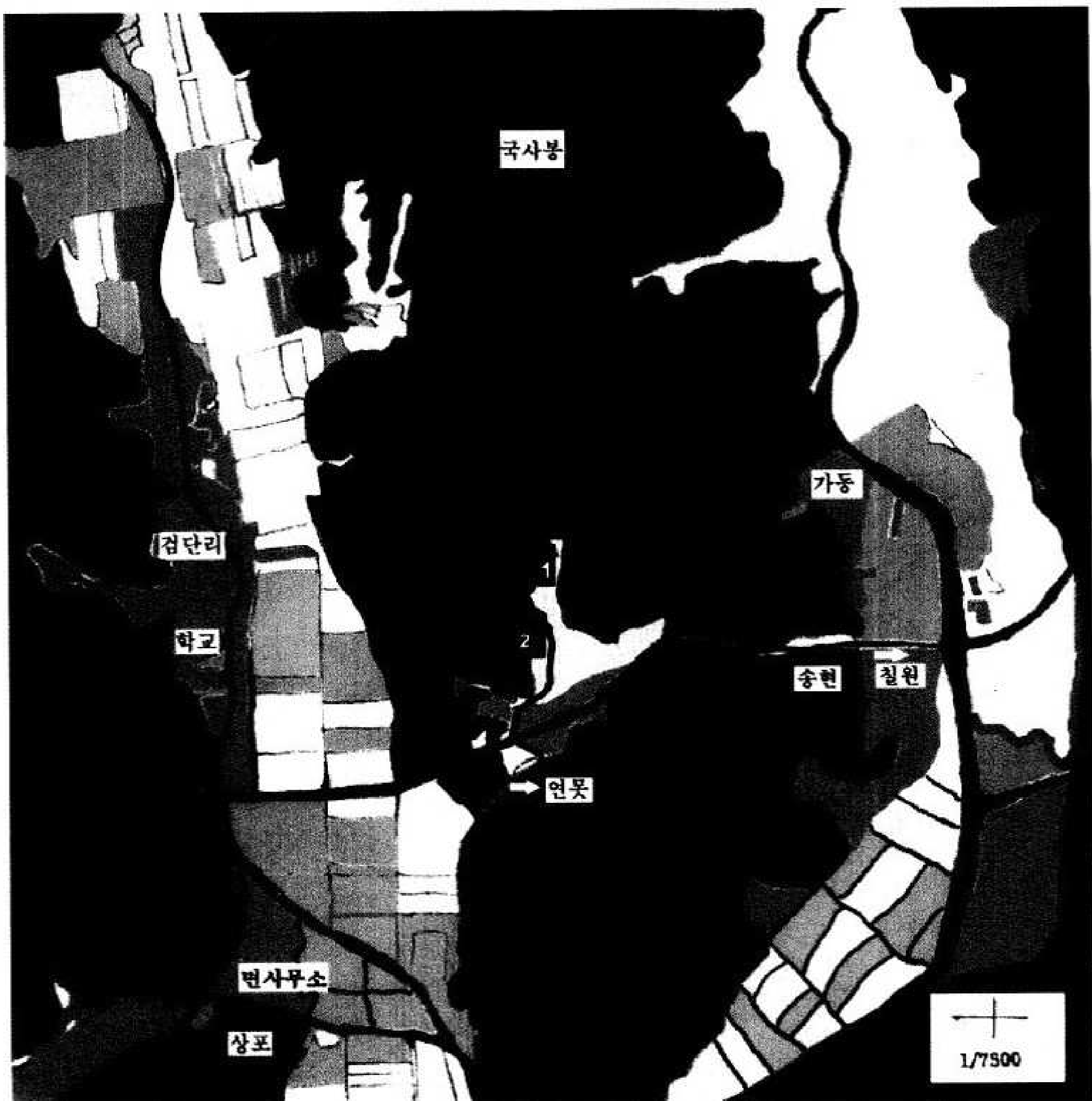
檢 丹 先 塋 圖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 190번지)

(1)세단비
판례사국사공(휘황)부군
중시조호장공(휘거부)부군
배문화유씨
14세참정공(휘송제)부군
배여산송씨
16세판서공(휘수)부군
18세대언공(휘자)부군

(2)검단제

묘소
도로
산
마을
강,호수
논.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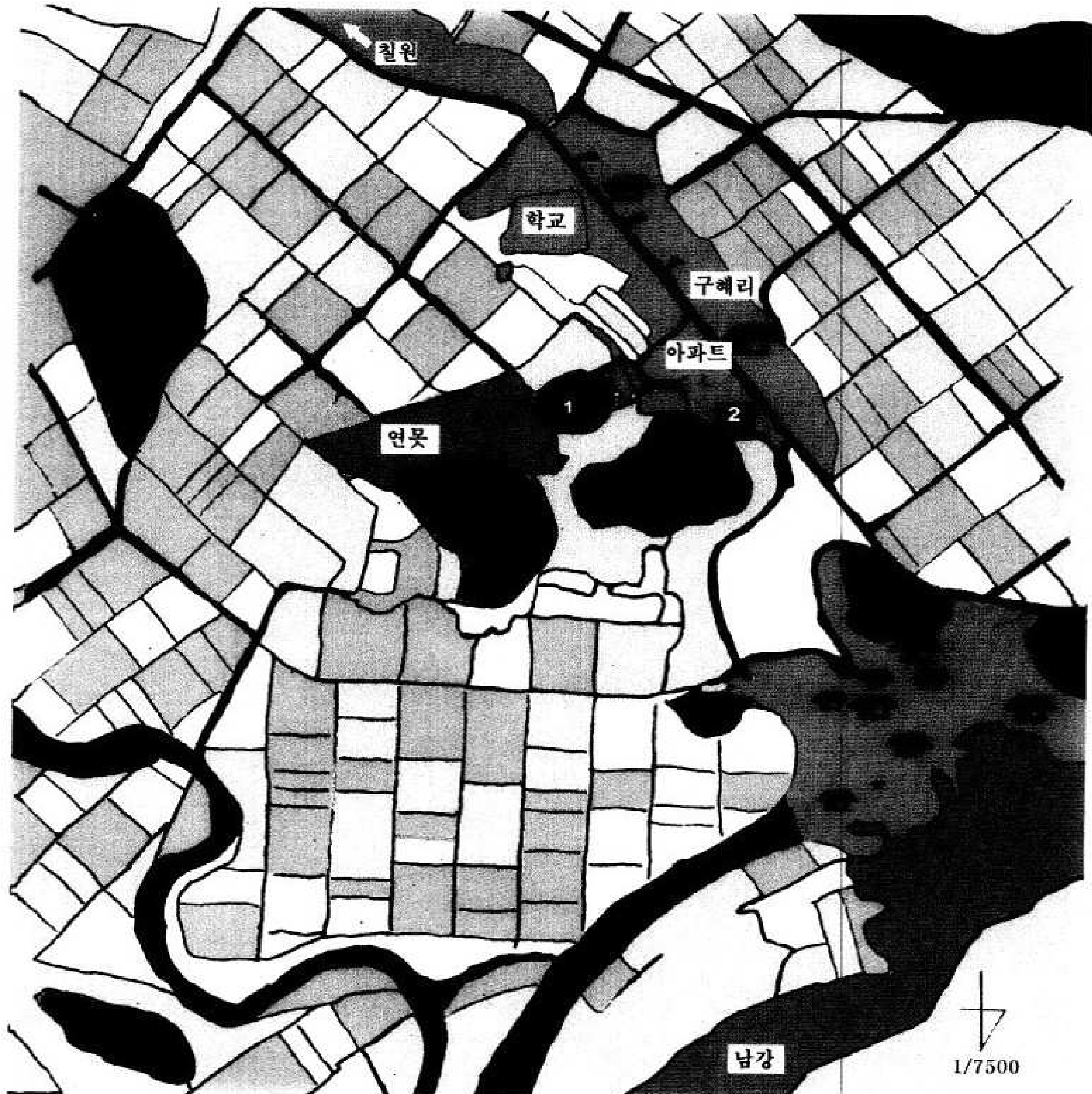


九惠先塋圖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205번지)

(1) 6세좌사보공(휘계)묘
(2) 구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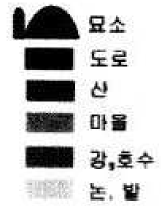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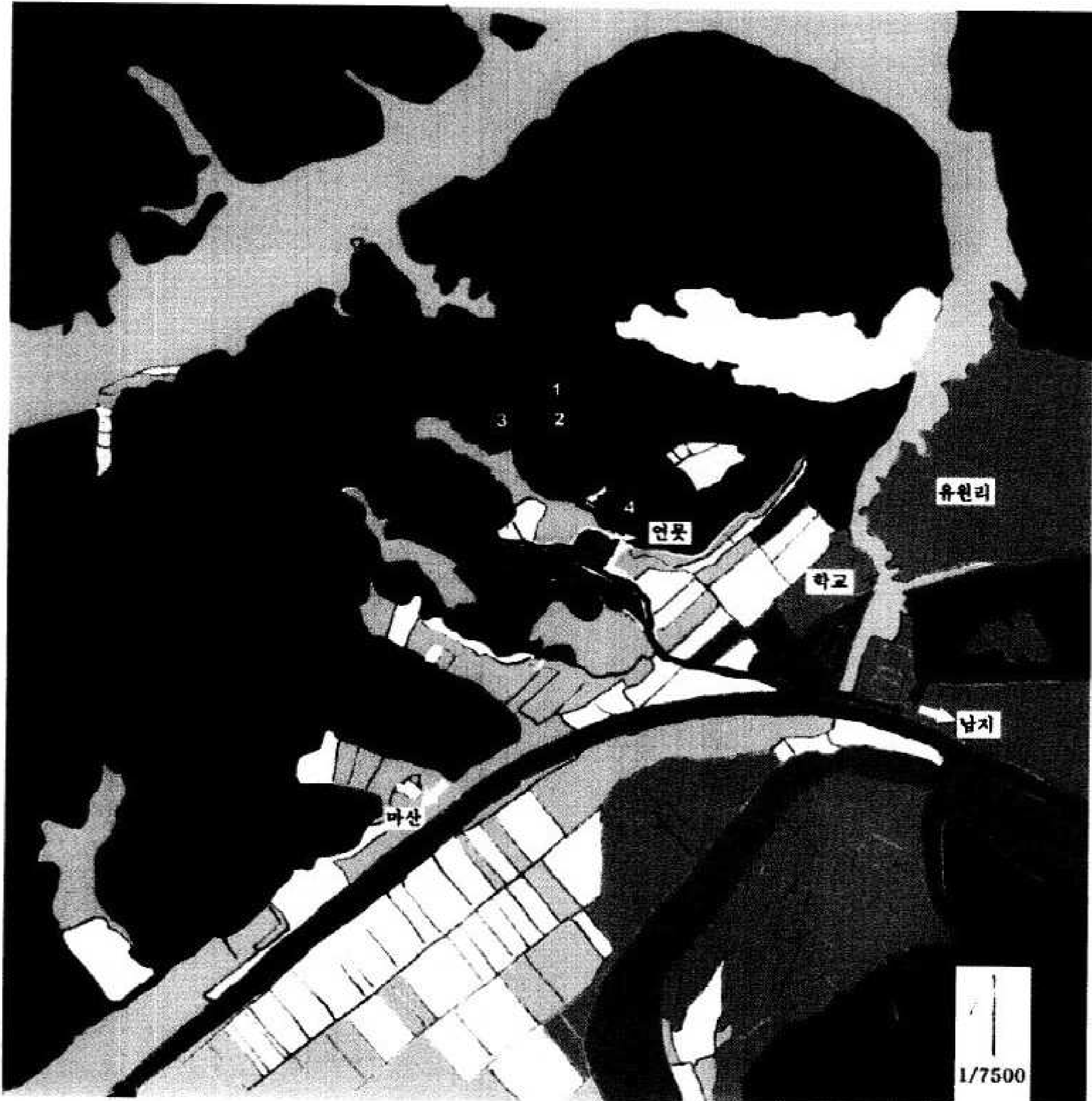
유 원 선 영 도
柳 原 先 塋 圖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18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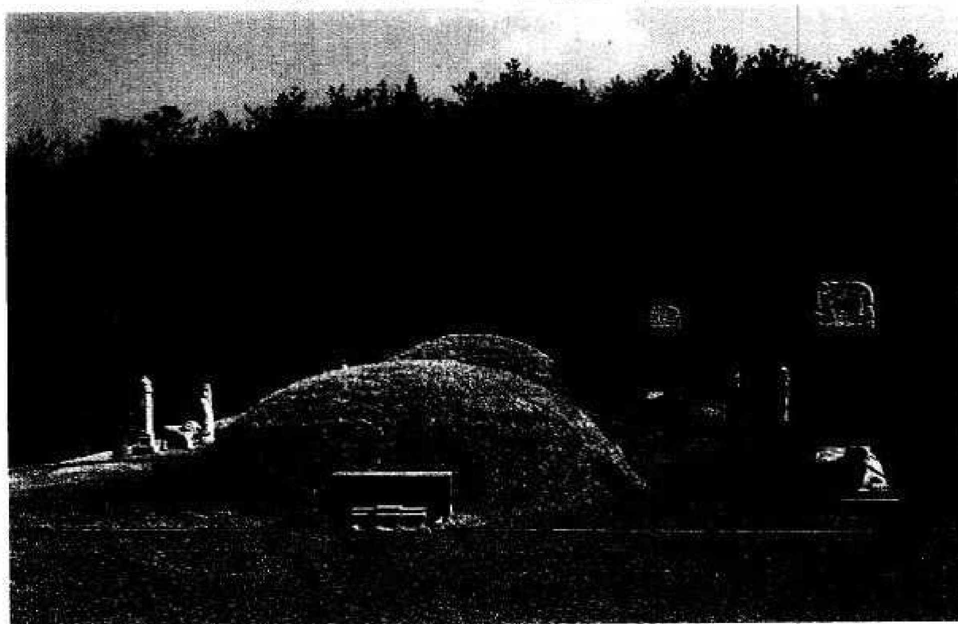
(1)18세충효공(휘환)묘
(2)19세대제학공(휘천호)묘

(3)단비
18세칠성군(휘장)부군
18세사윤공(휘화)부군
18세부원군(휘공)부군
19세대제학공(휘수상)부군
(4)유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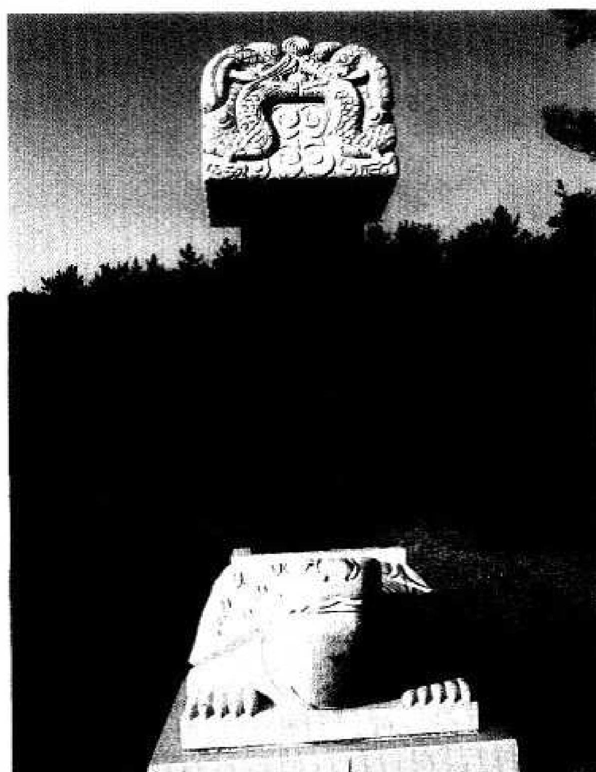




(3) 칠원의 선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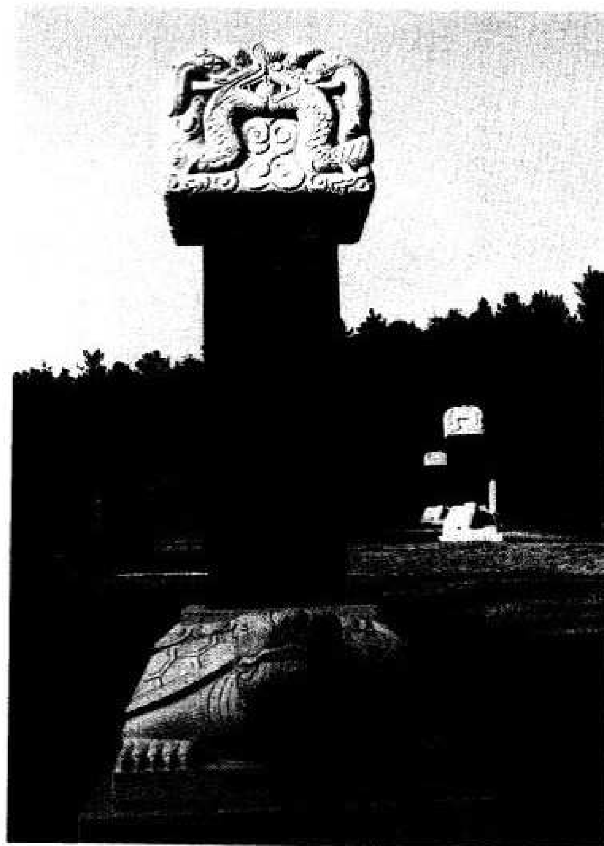
12세 고려 이부상서공(휘 을부)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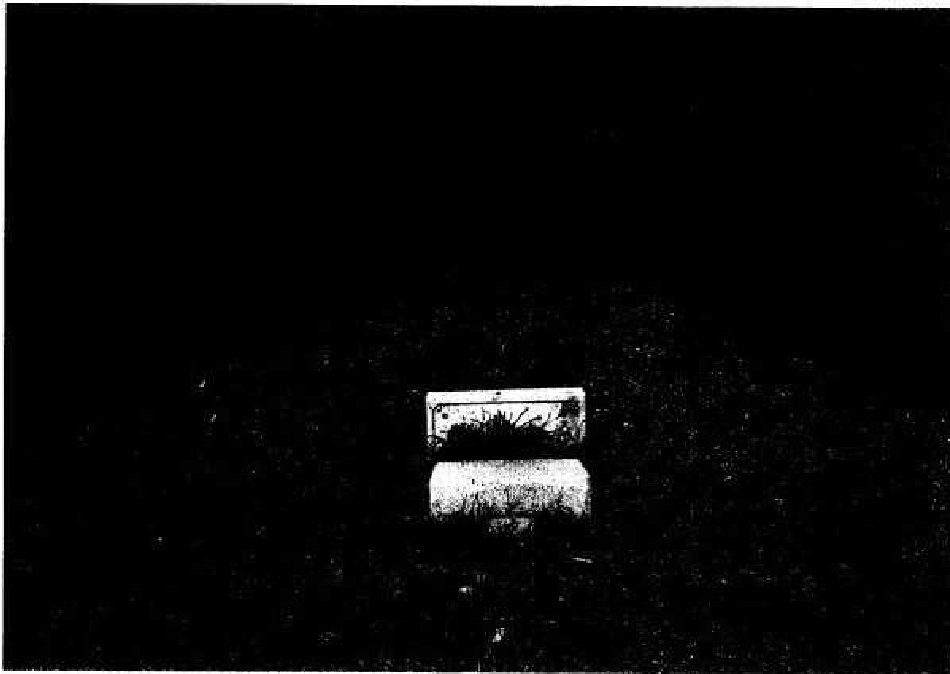
상서공 묘비



17세 고려 직량공신 구성군 충의공(휘 길보)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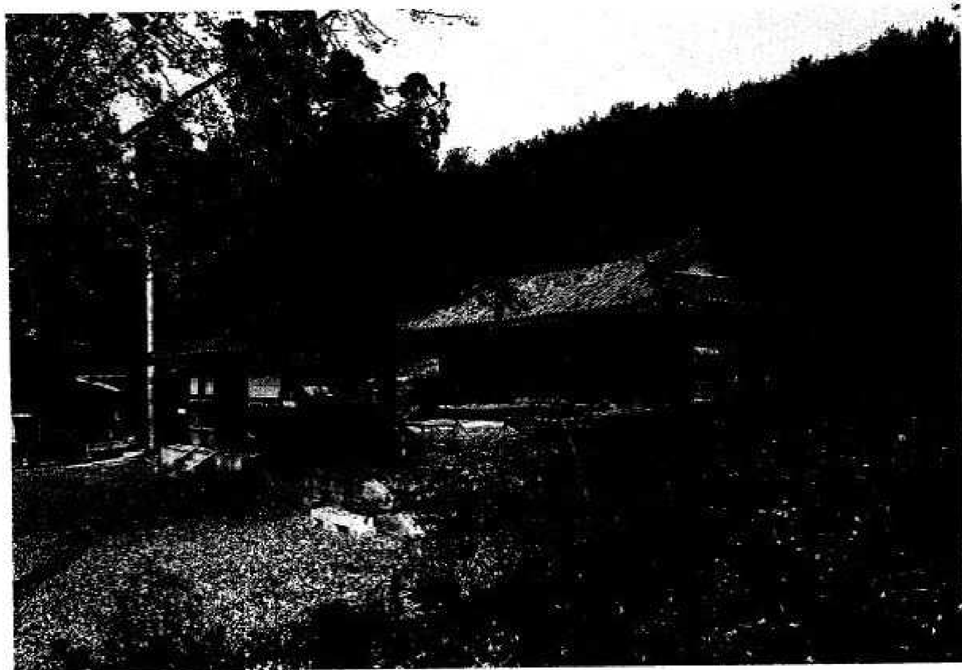
충의공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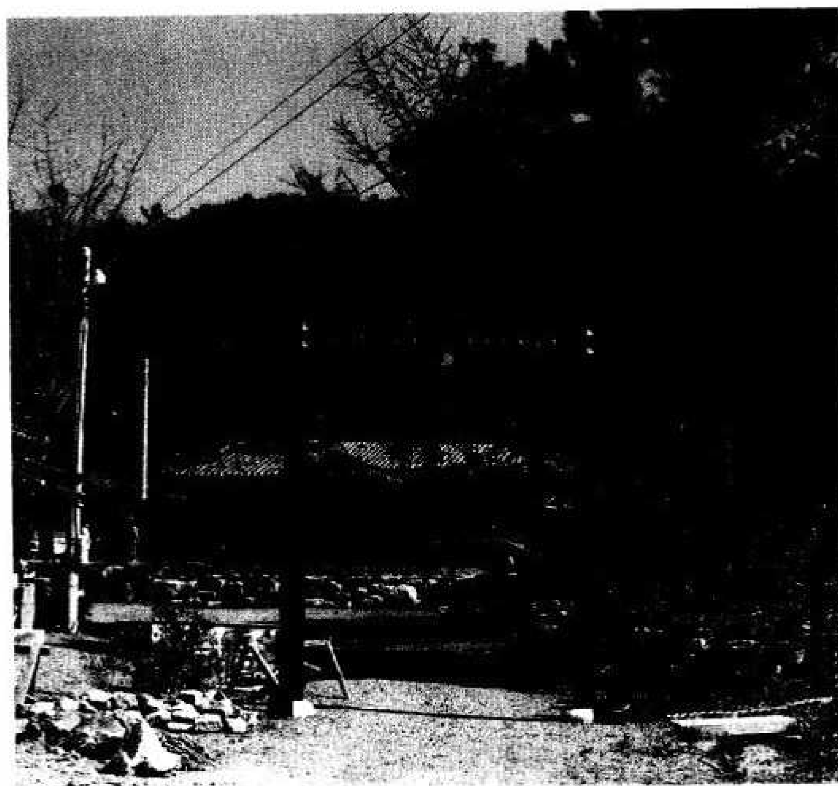
16세 고려 군부판서공(휘 수)의 배위 무안박씨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30-3



19세 조선 좌명공신 칠원부원군 정평공(휘 자량)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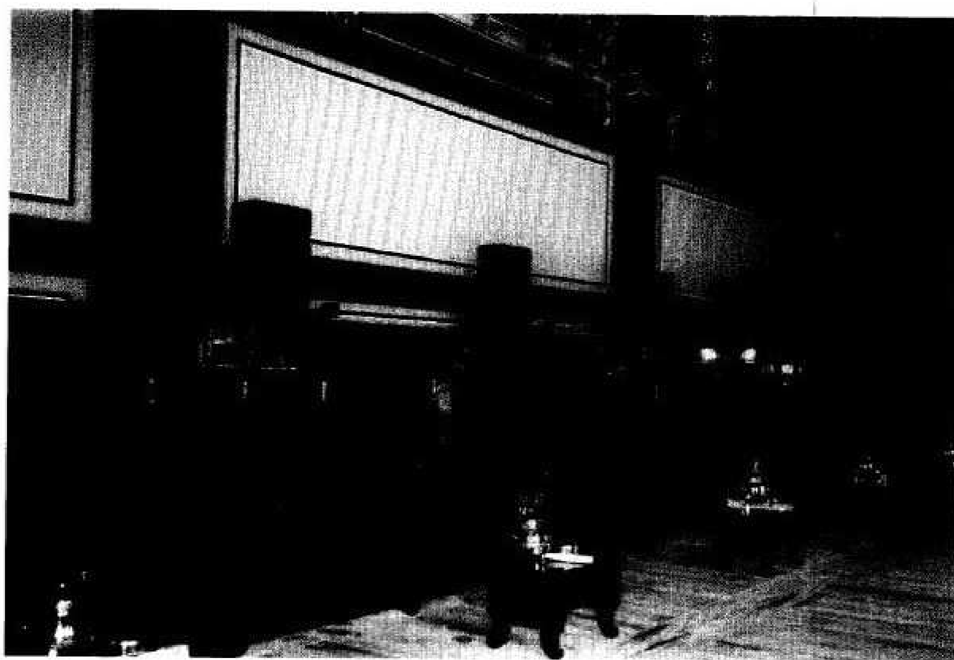
상포재 (上浦齋)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1172



홍포사 홍살문



홍포사(鴻浦祠)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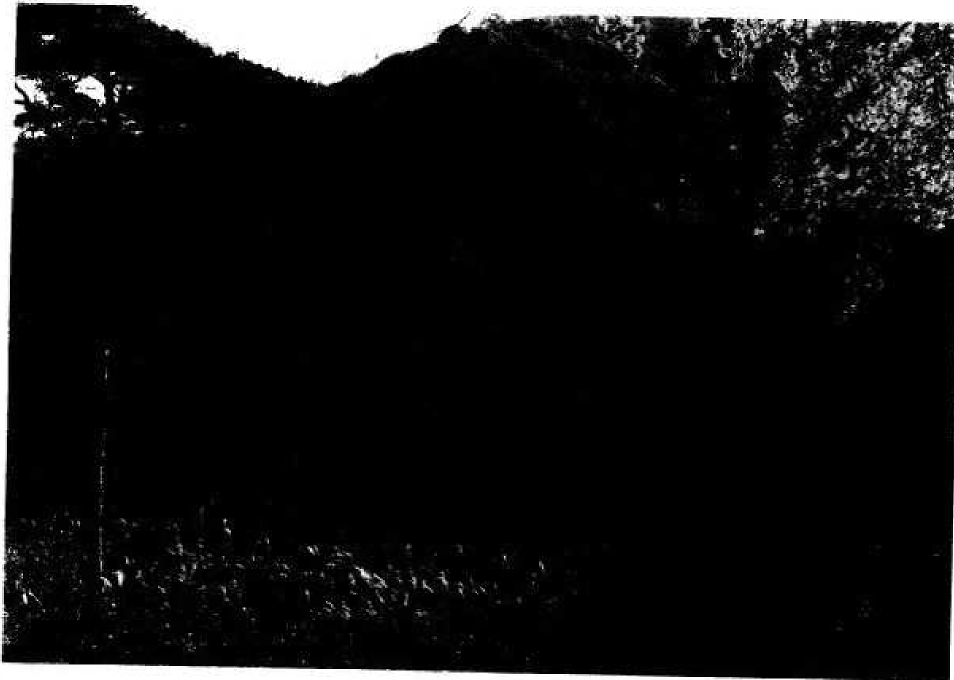
홍포사 배향위
충효공(휘 환)　양성당(휘 지)　현민공(휘 탁연)
정평공(휘 자당)　지퇴당(휘 석보)



홍포서원(鴻浦書院) 전경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1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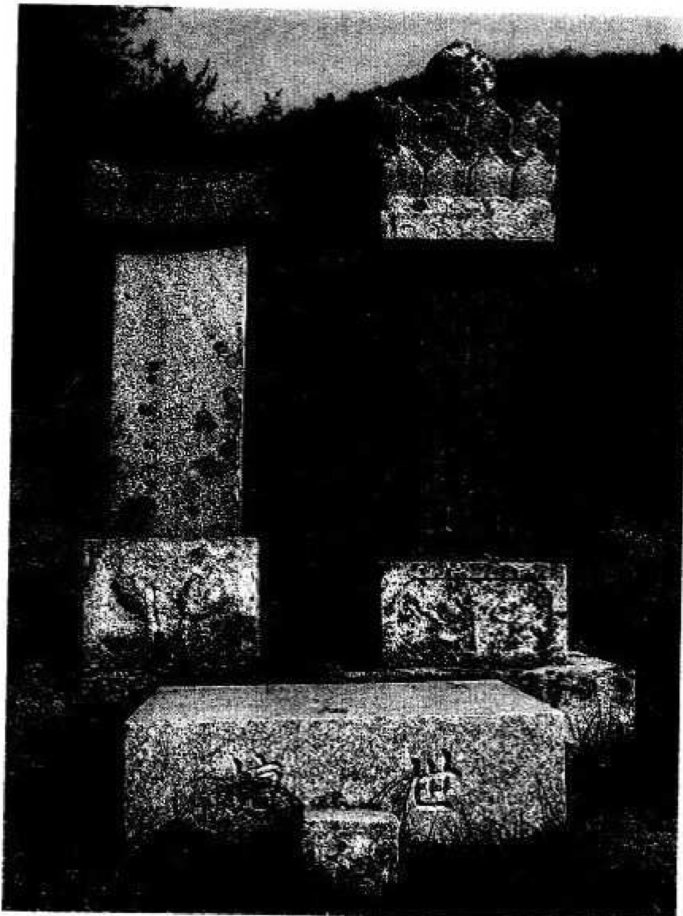


상포선영 올라가는 103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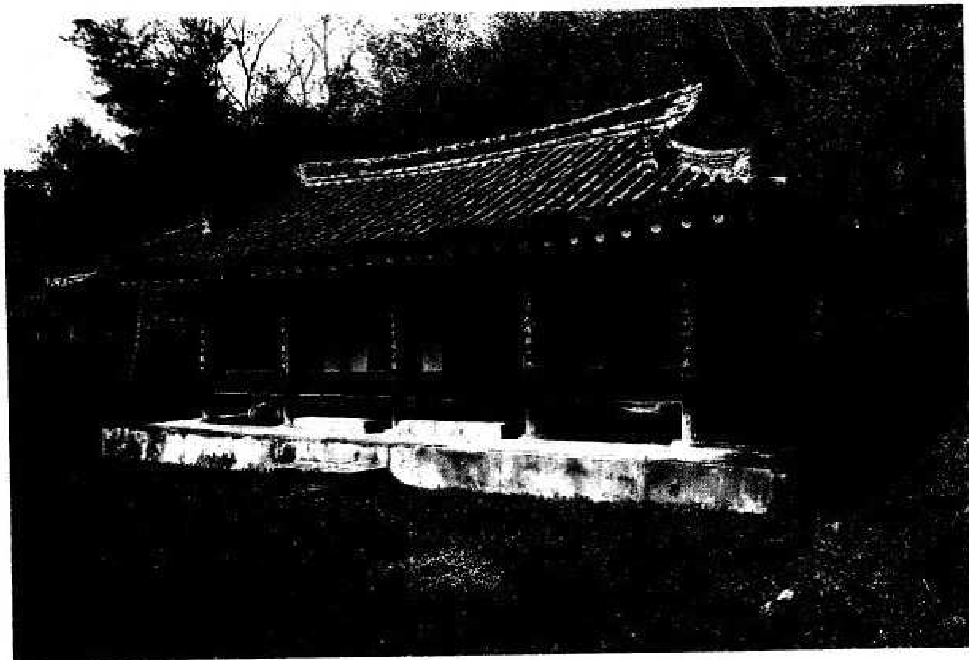
검단선영 전경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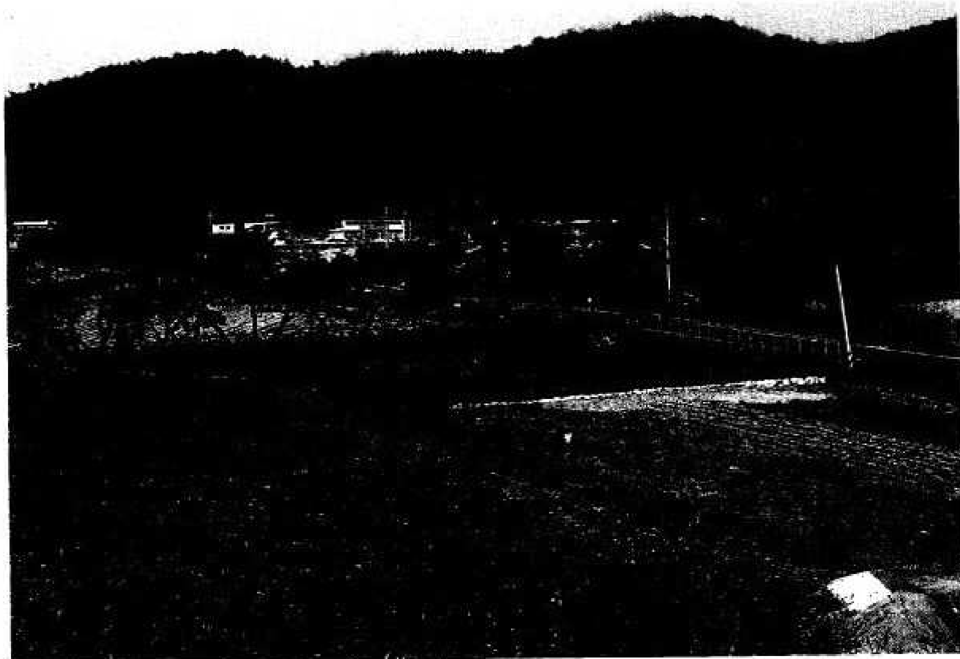


검단선세제단비

소재지:검단 선영하
단향신위(좌로부터)
신라 판태사국사공(휘 황)부군(시조공자)
고려 호장공 칠제백(휘 거부)부군(1세)
배위 문화 유부인 신위
고려 은청광록대부 참정공(휘 송제)부군(14세)
배위 여산 송부인 신위
고려 정순대부 군부판서공(휘 수)부군(16세)
고려 우부대인공(휘 자)부군(18세)



검단재(檢丹齋)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832



검단 연못 전경(1998년1월25일 복구함)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12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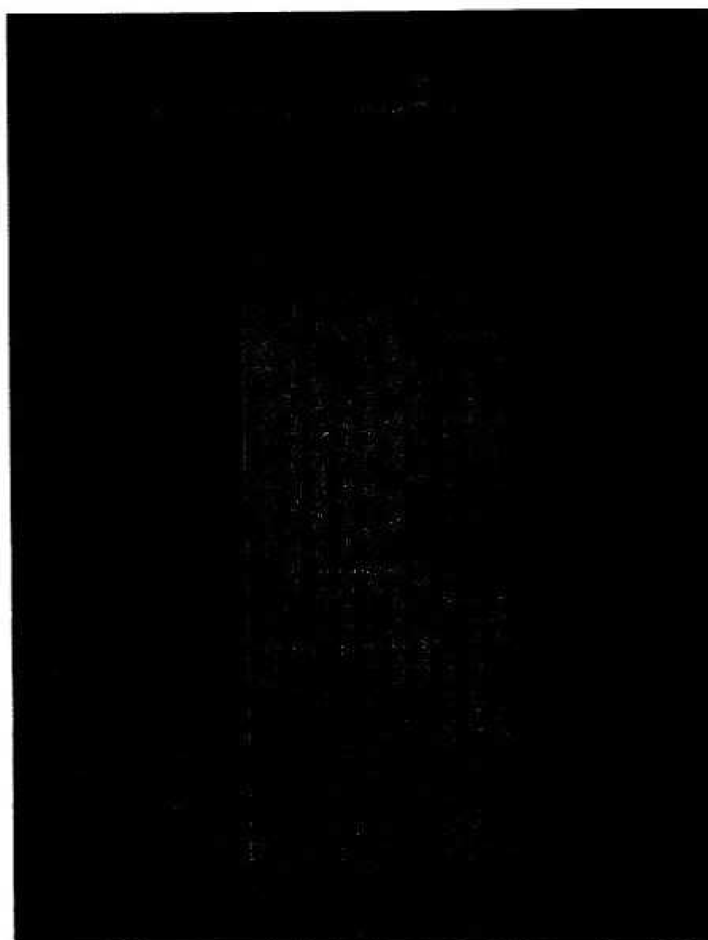
6세 고려좌사보공(휘 계)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205



구혜재(九惠齋)
소재지 :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34-1



18세 고려의찬공신 칠원백 충효공(휘 환) 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산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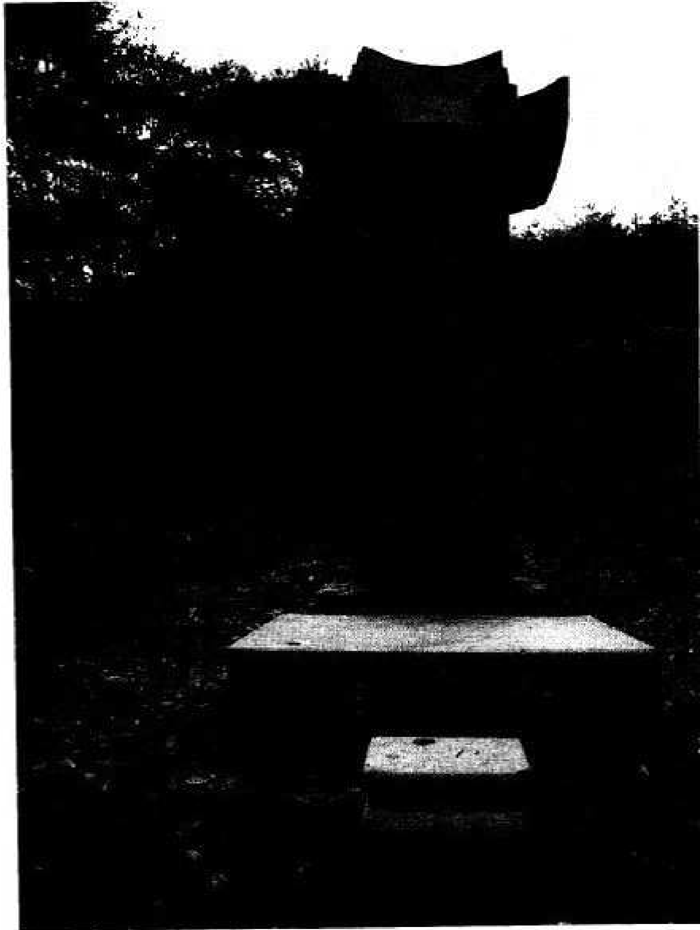
충효공 묘비



19세 고려광록대부 대제학공(휘 천효)묘소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산182-1



유원선영 전경
상 : 충효공 묘　하(우) : 대제학공 묘　하(좌) : 단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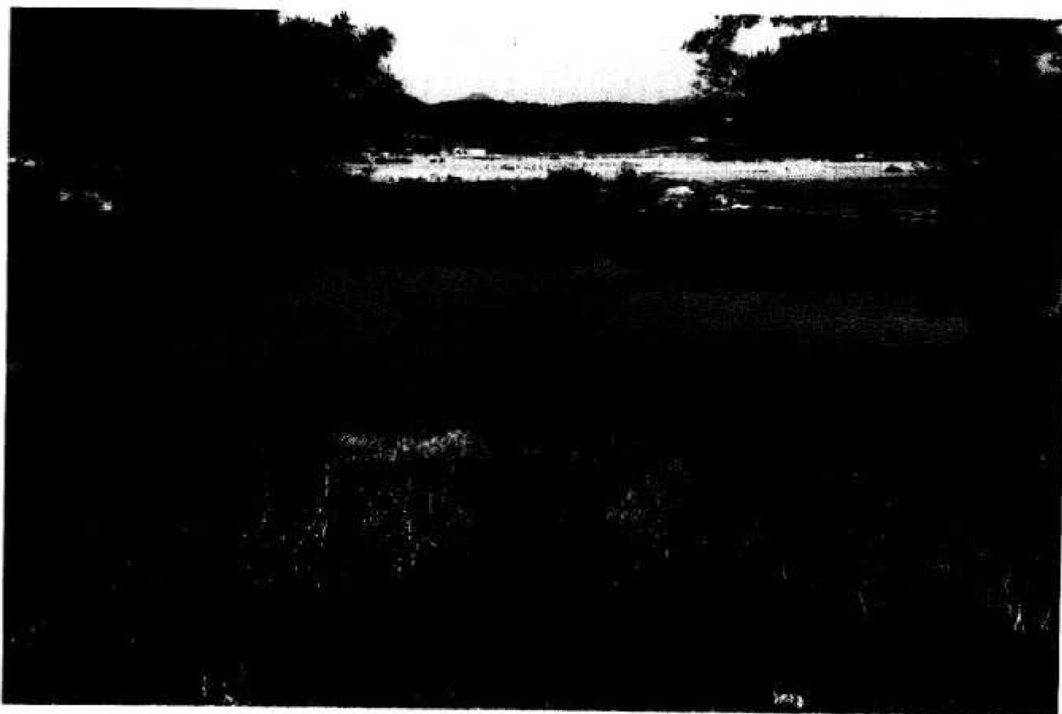


유원선세단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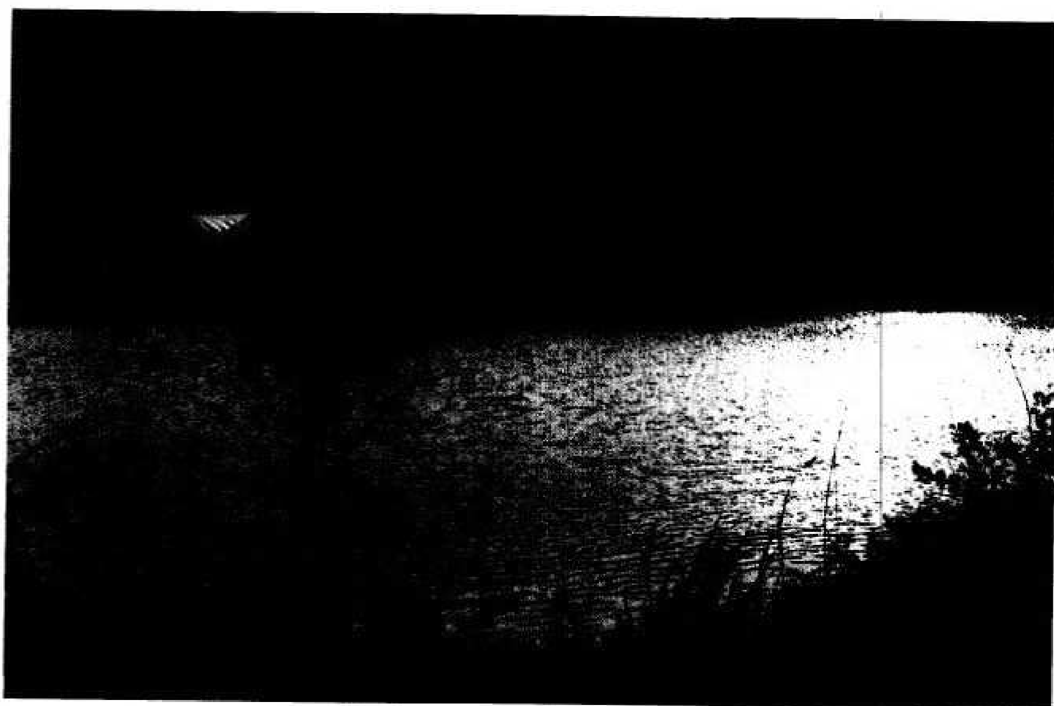
단향신위(좌로부터)
고려 칠성군(휘 장)부군(18세)
고려 인영부좌사윤공(휘 화)부군(18세)
고려 보조공신 삼중대광 칠성부원군(휘 공)부군(18세)
고려 도첨의평리공(휘 수상)부군(19세)
소재지:유원 선영



유 원 재(柳原齋)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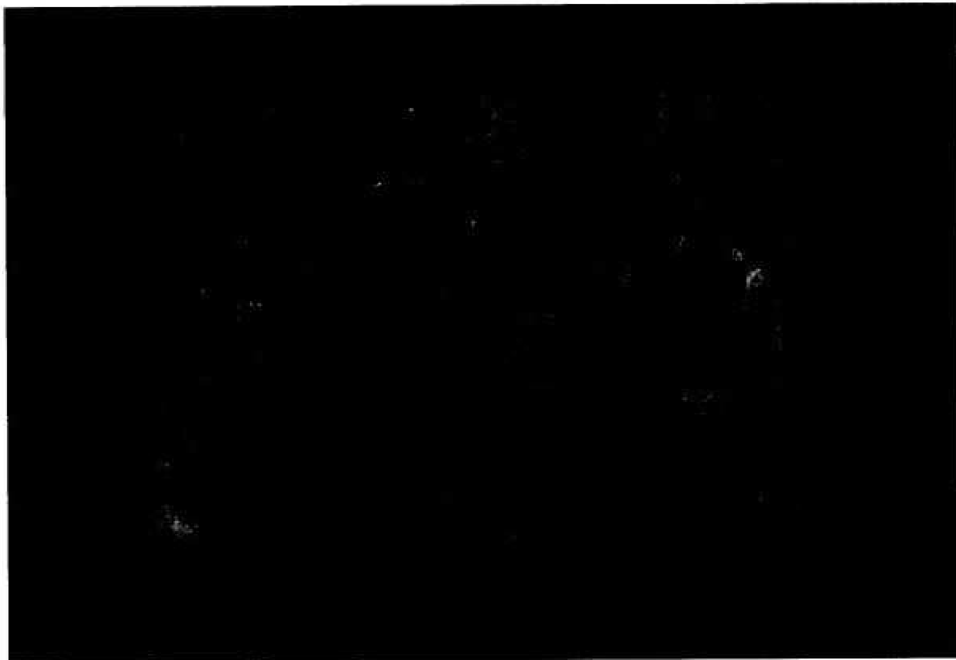


구혜리 좌사보공 묘소앞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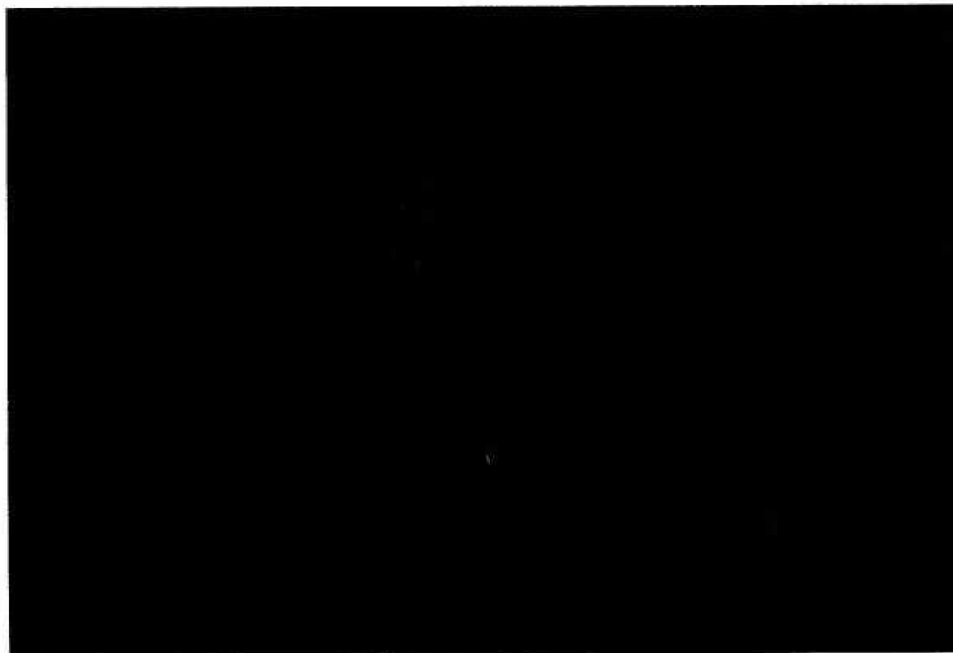


유원리 충효공 묘소앞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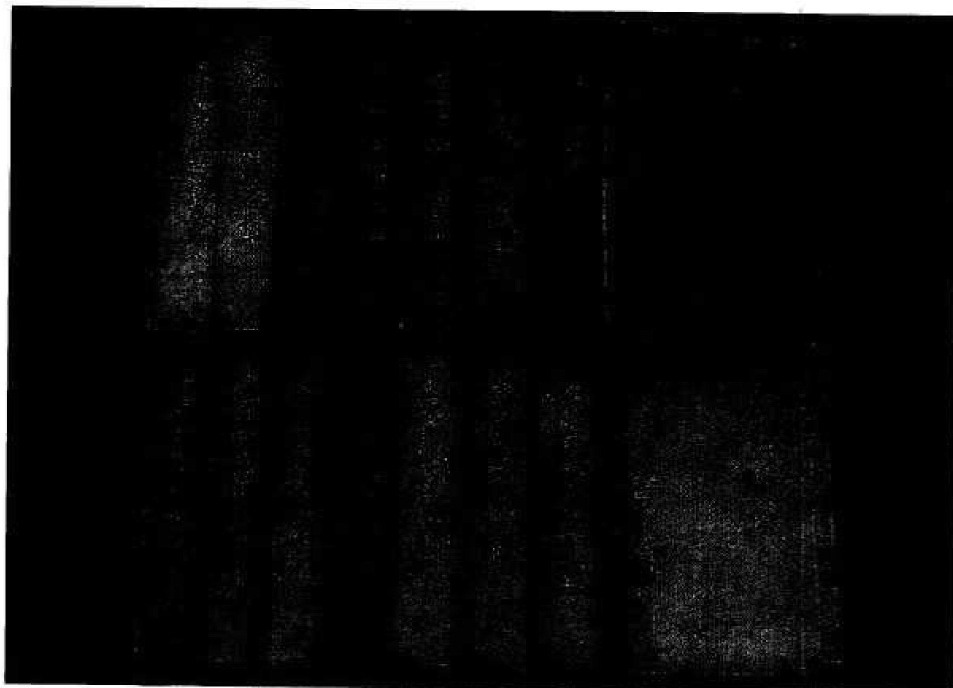
(4) 족보영정외 기타사진
〈칠원윤씨 대동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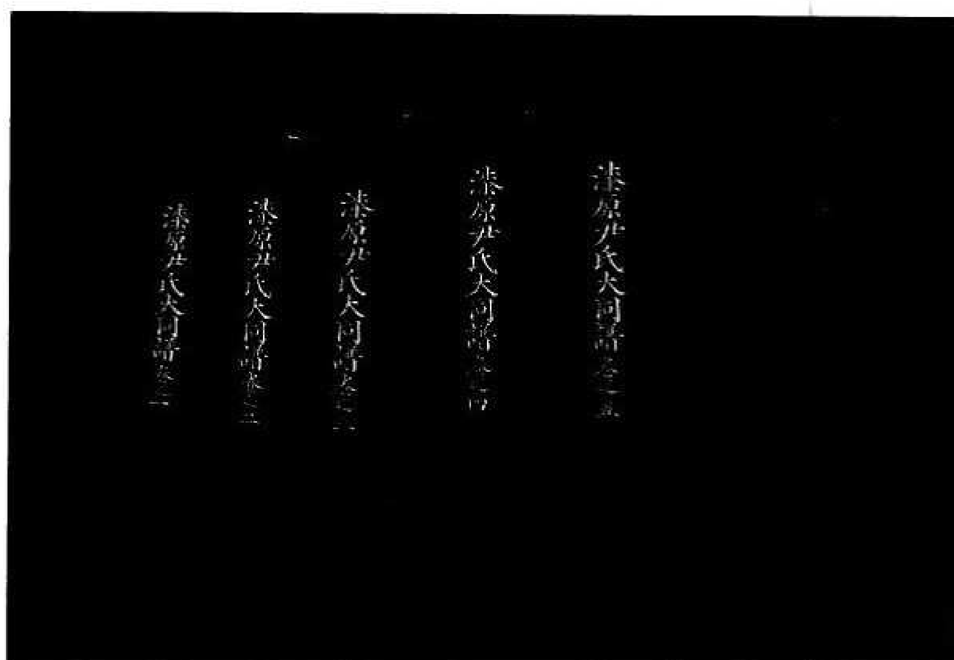
보　명 : 창간대보 신유보(1741년 간행)
소　장 : 칠원윤씨 대종회
기증자 : 전대종회장 윤영학고문



보　명 : 재간대보 임신보(1872년 간행)
소　장 : 경모재(전적공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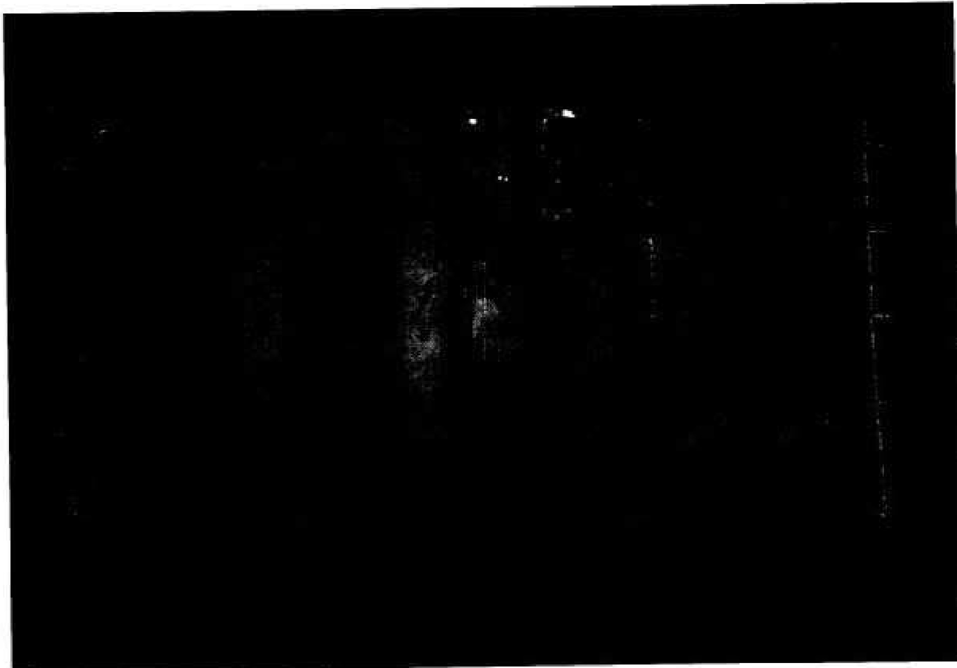


보　명 : 3간대보 경자보(1960년 간행)
소　장 : 철원윤씨 대종회
기증자 : 전대종회장 윤영학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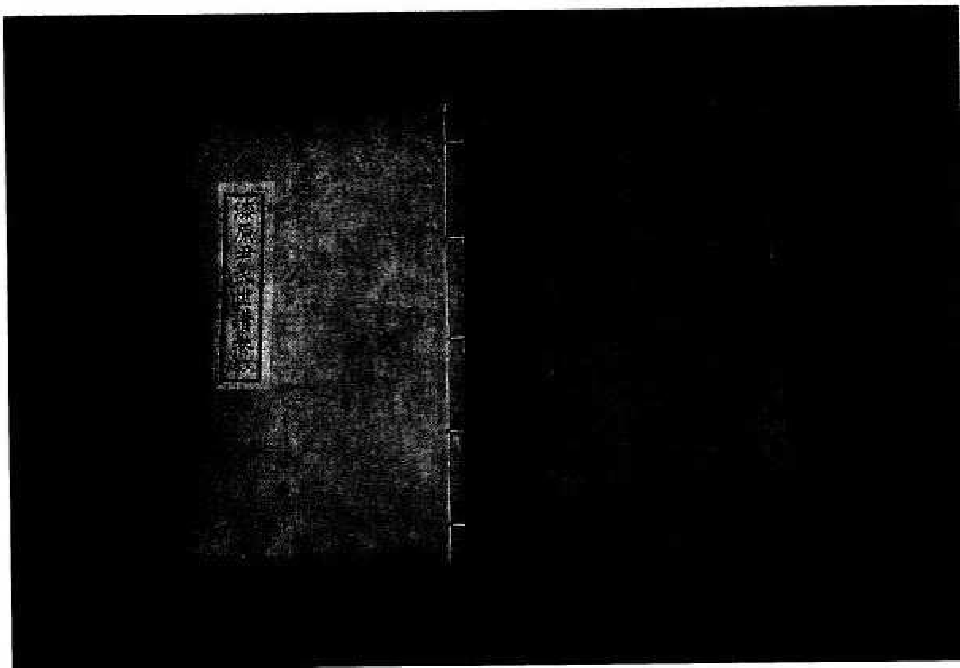


보　명 : 4간대보 경신보(1980년 간행)
소　장 : 철원윤씨 대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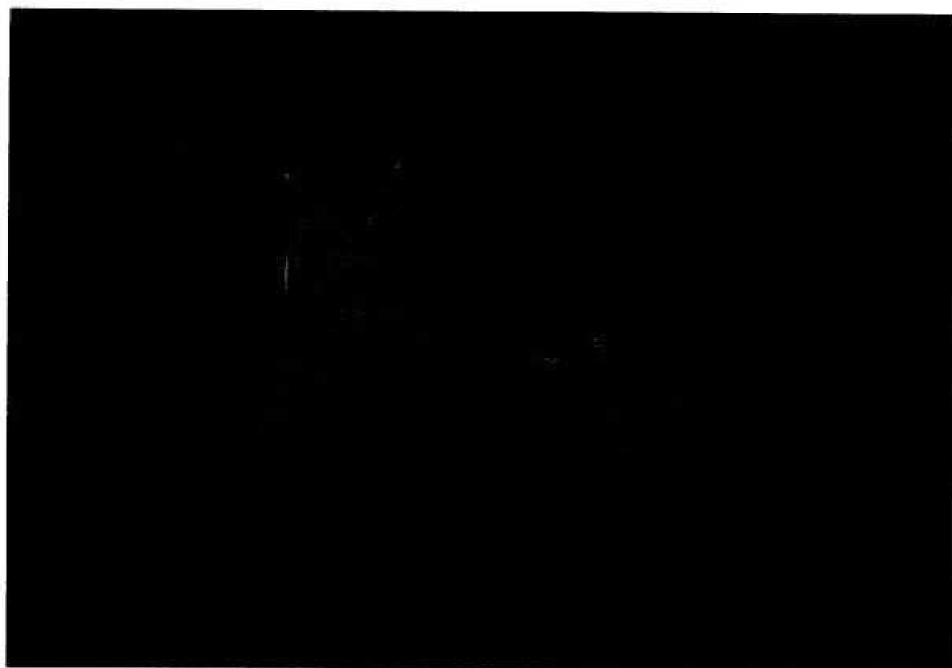
〈칠원윤씨 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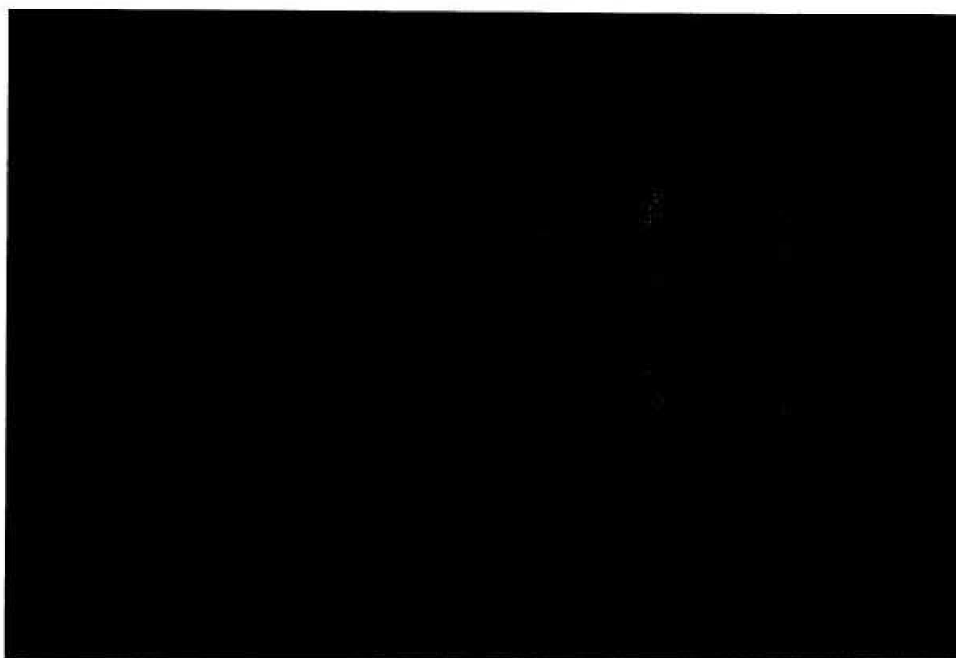
보　명 : 을축보(충효공, 부원군 파보 1805년 간행)
소　장 : 윤병기



보　명 : 갑인보(판결사공파보 1914년 간행)
　　　　병자보(충효공파보 1936년 간행)
소　장 : 칠원윤씨 대종회
기증자 : 전대종회장 윤영학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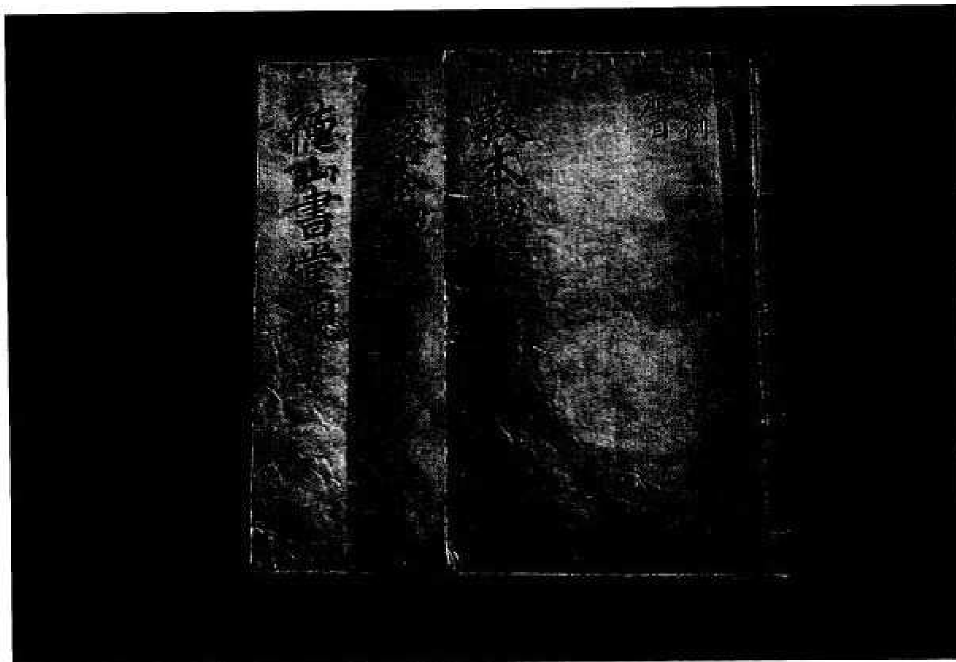


보　명 : 갑술보(부원군파보 1934년 간행)
소　장 : 윤대형



보　명 : 병신보(직제학공파보 1956년 간행)
소　장 : 칠원윤씨 대종회
기증자 : 대종회 윤응원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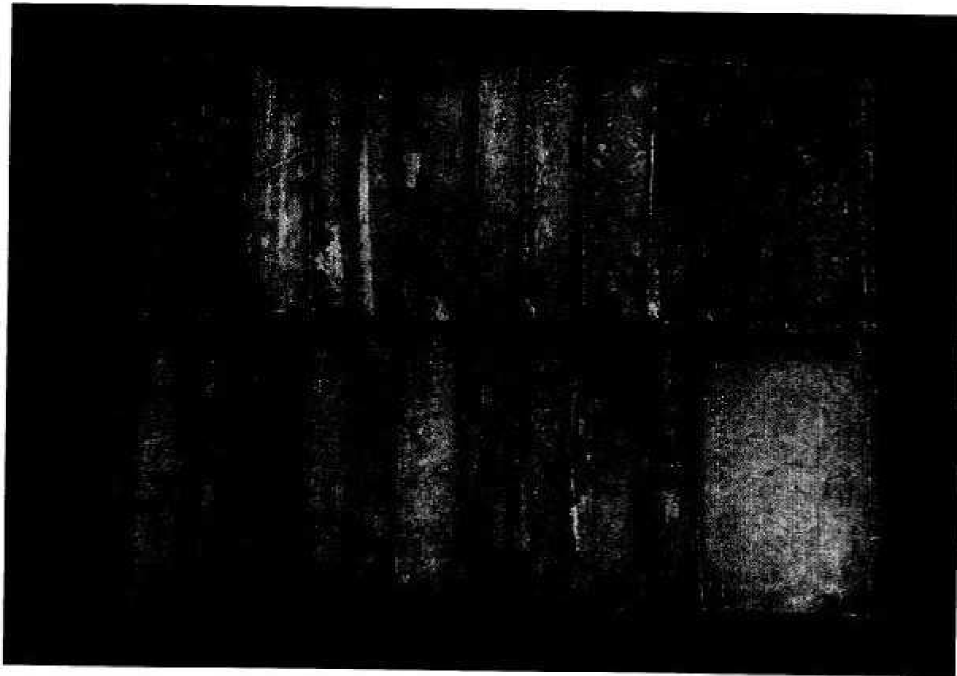
〈칠원윤씨 계헌 및 가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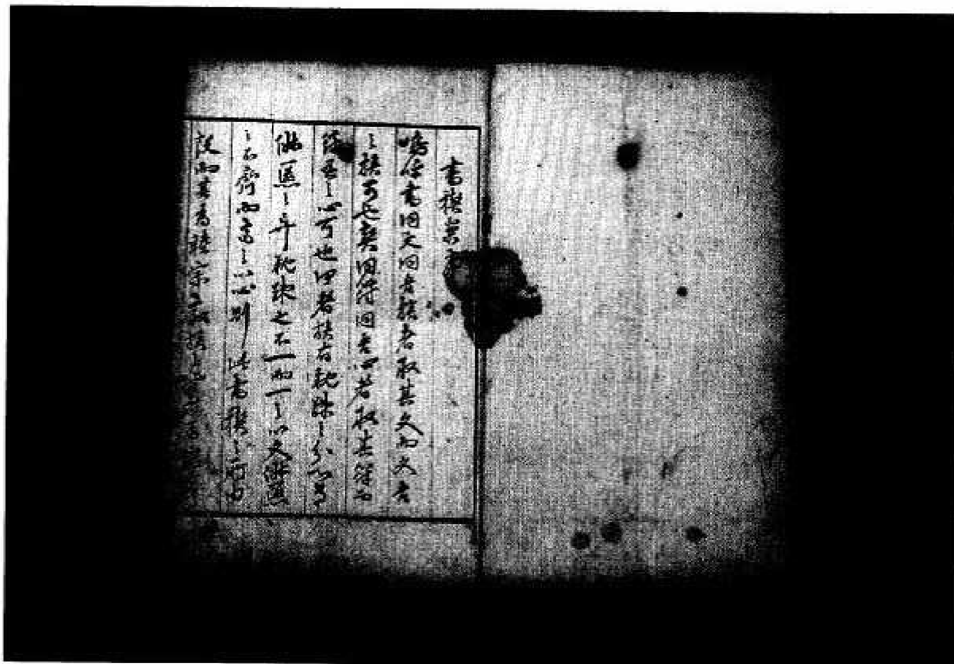
책　명 : 돈본계헌(1780년 간행)
소　장 : 칠원윤씨 대종회



책　명 : 돈본계헌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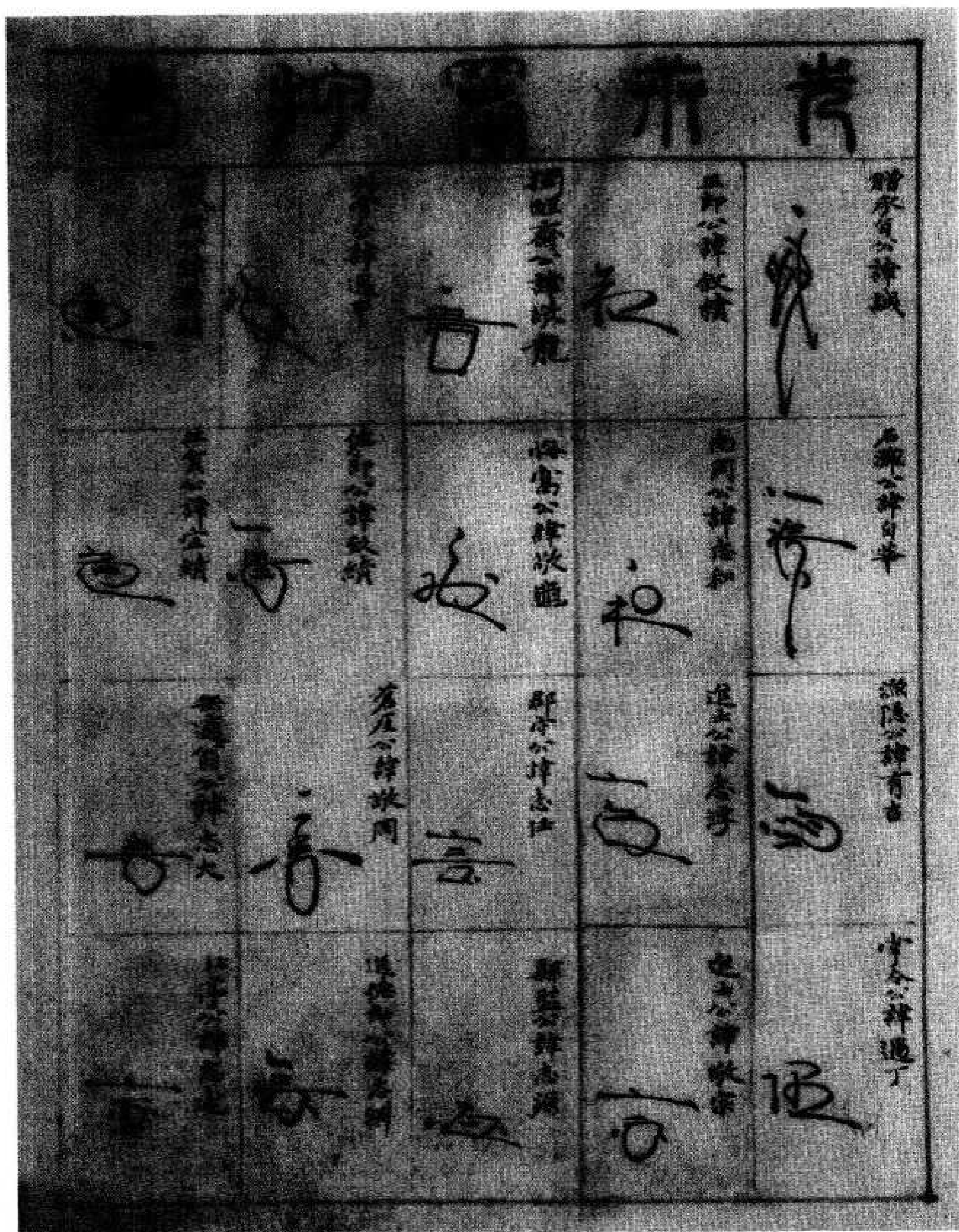


책　명 : 가승(순수공파 생원공계)
소　장 : 칠원윤씨 대종회
기증자 : 직암공(直庵公)8대손 윤명수
기증전 관수자 : 윤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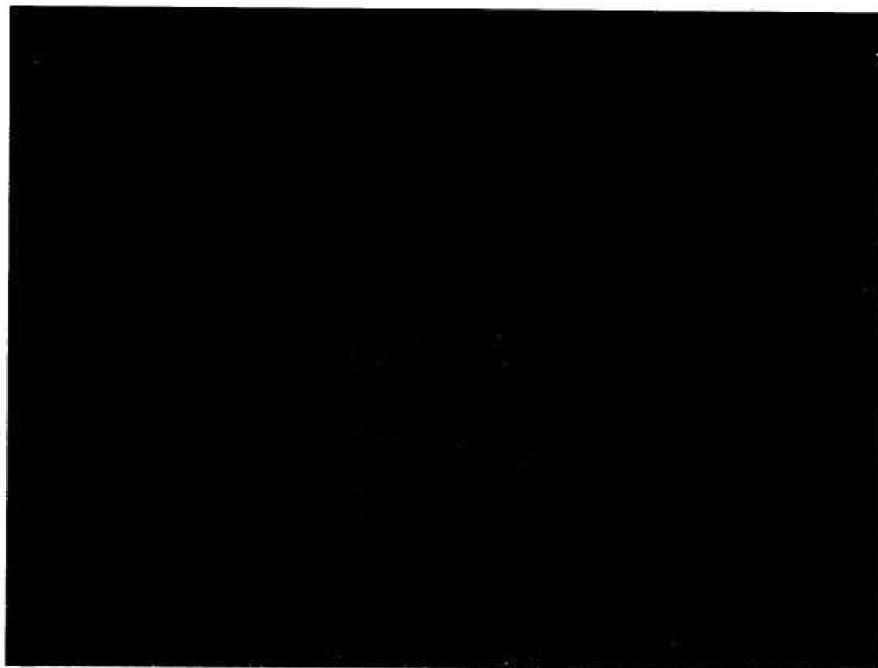


책　명 : 덕암재 서계안(1805년 간행)
소　장 : 윤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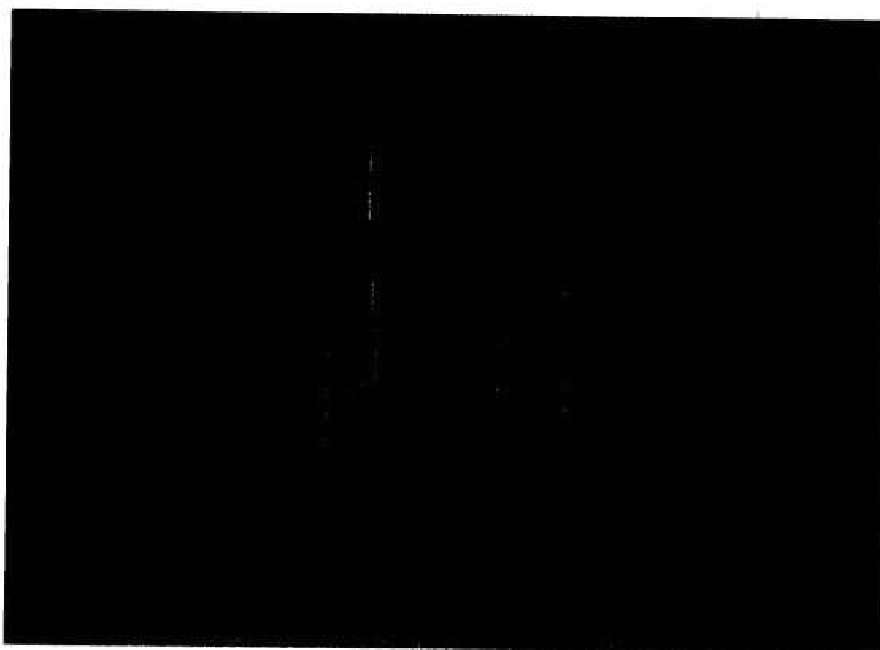
선세서압도(순수공파 생원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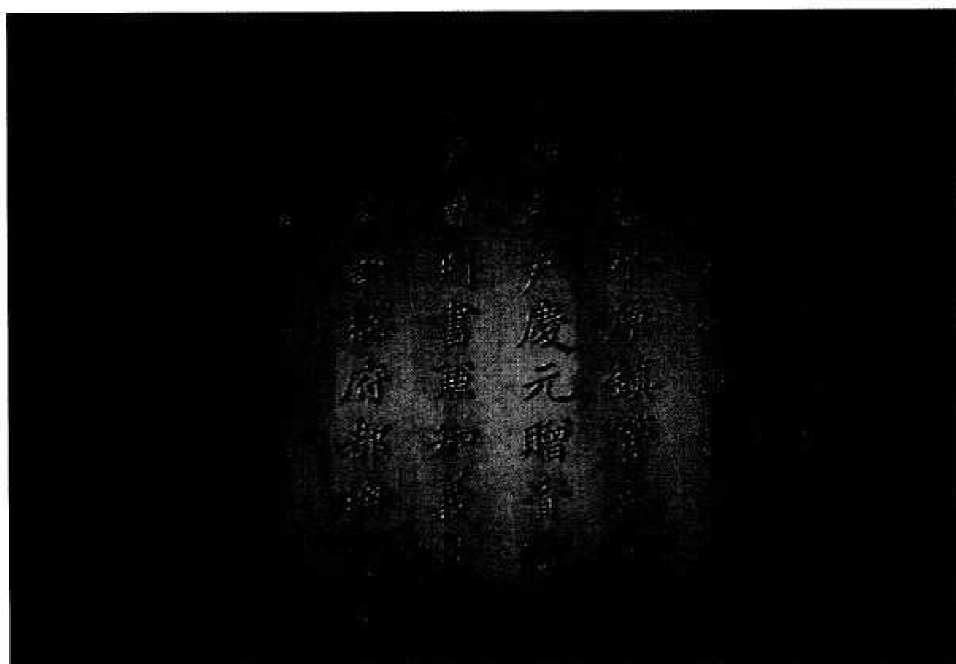
선조님들의 수결(手決) 모양(현재의 싸인)



24세 증영의정공(휘 이)의 사은서령 교지(1573년)



25세 칠계군(휘 탁연)의 증시 교지(1711년)



26세 칠평군(휘 경원)의 증직 교지(17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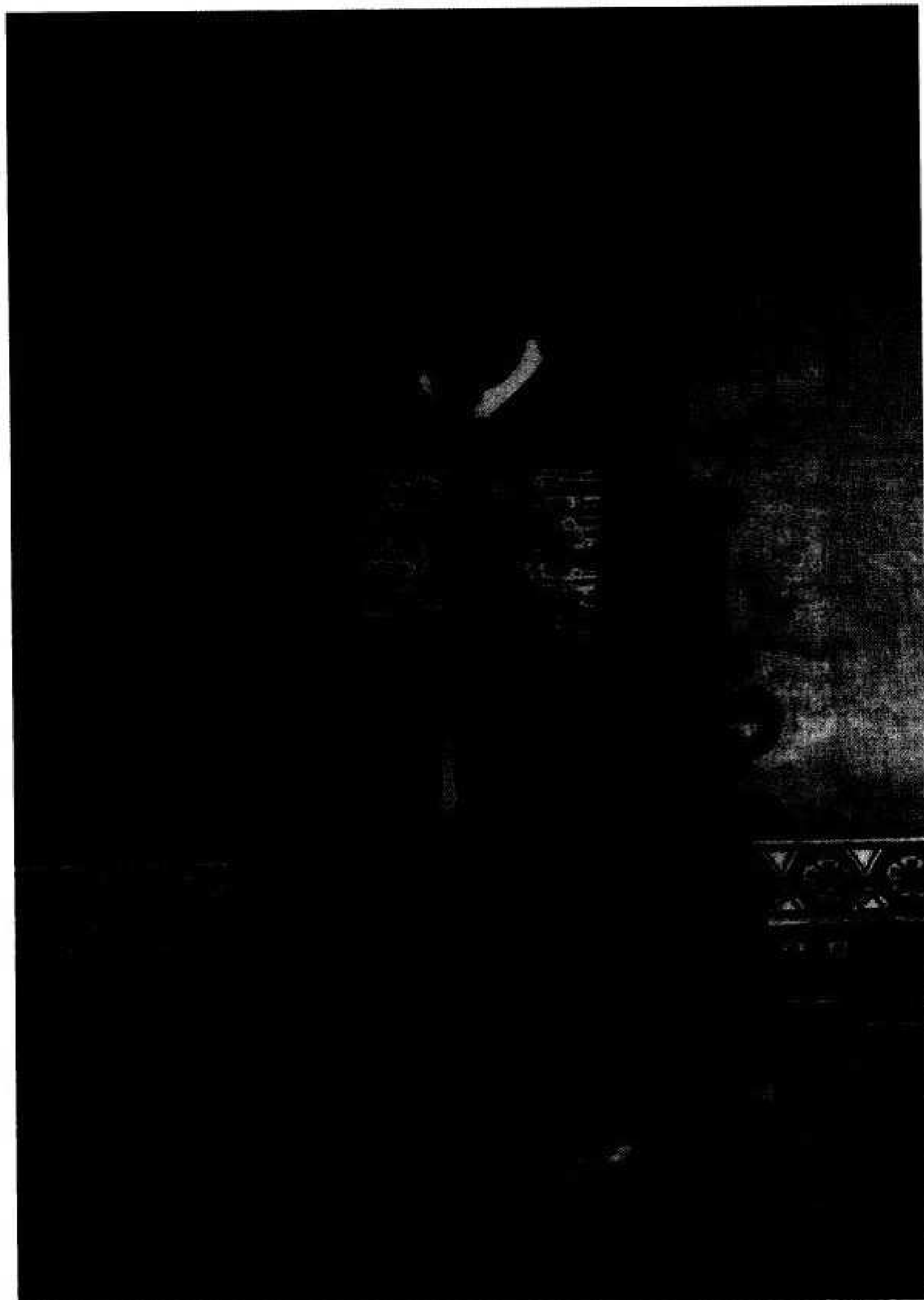
26세 칠평군(휘 경원)의 증시 교지(17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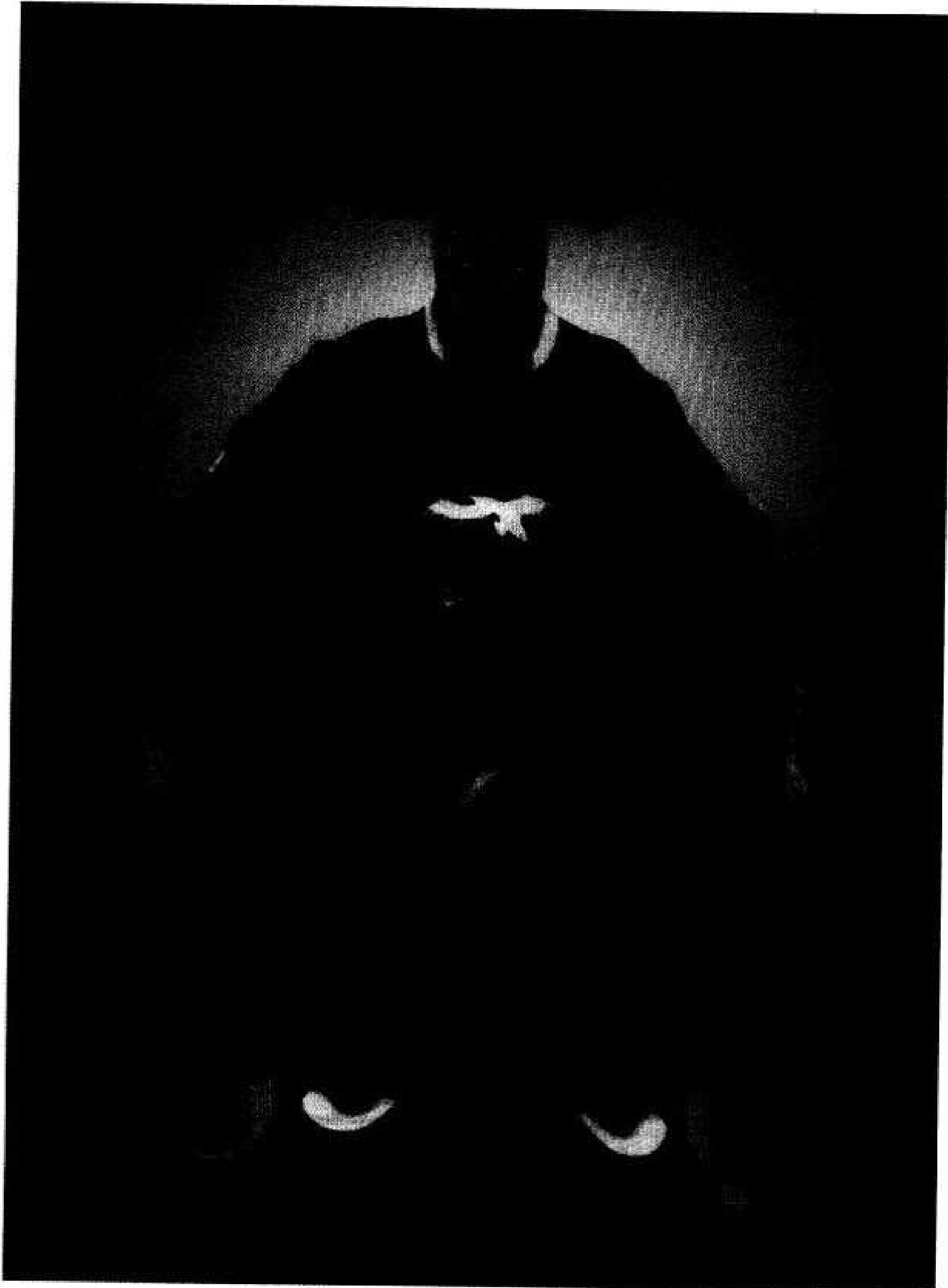
25세 중호 관북일기
(임진왜란중 함경도관찰사겸 도순찰사 재임시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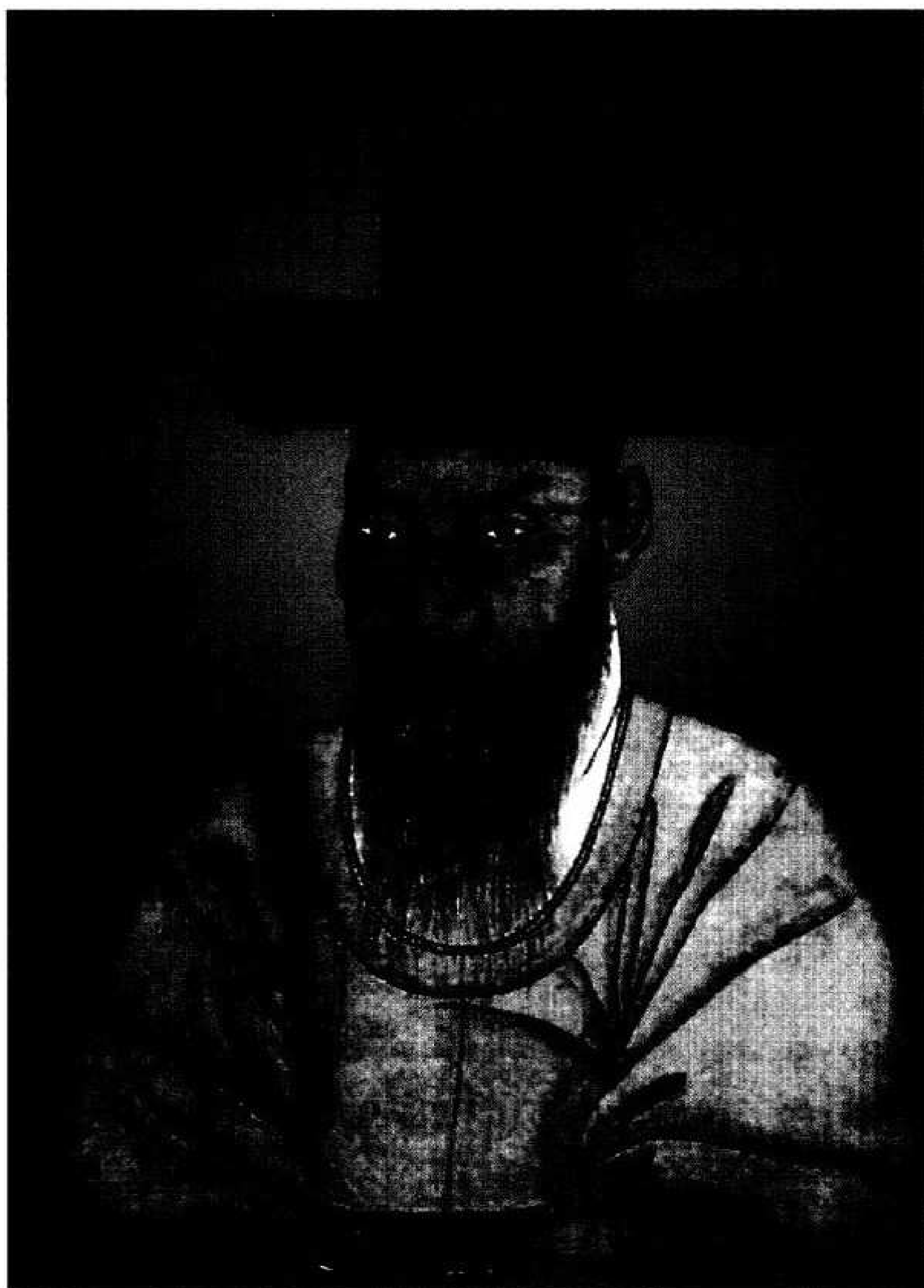
중호 관북일기 본문



25세 광국공신 호조판서 칠계군 헌민공(휘 탁연)영정
(1538년~159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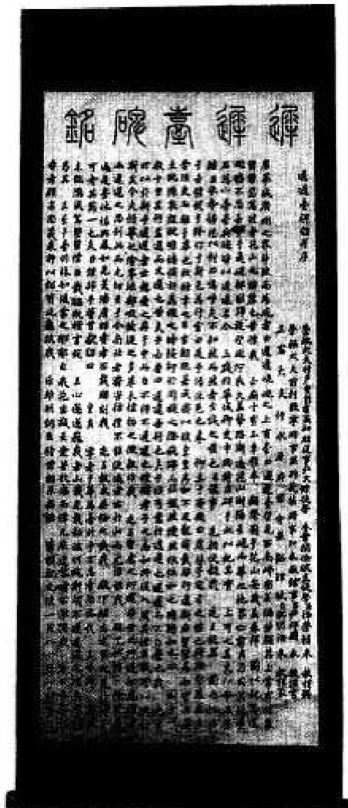
29세 증 병조판서공(휘 시달)영정
(1622~1693년)



32세 돈녕부 판사공(휘 사국)영정
(1728년~1809년)



26세 칠평군 충장공(휘 경원)의 충신정려(17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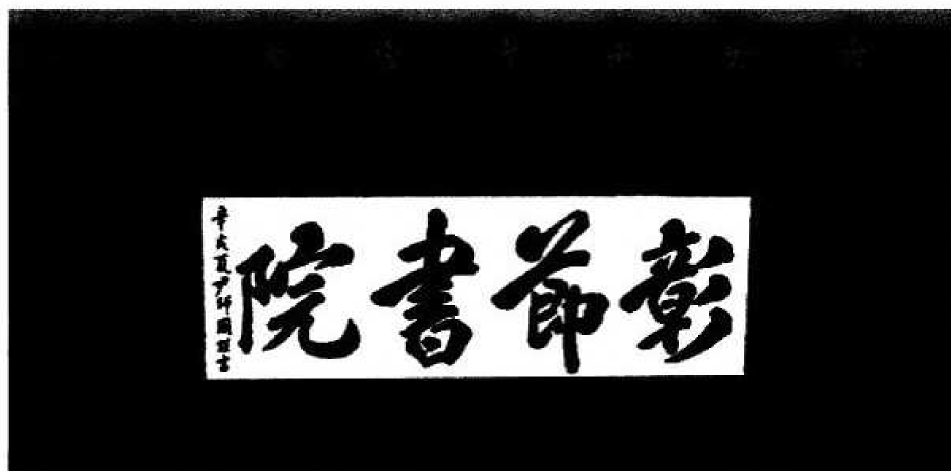


▲ 창의사비
헌민공(휘 탁연)배향
소재지 : 함경남도 함홍

◀ 지지대 비명
32세 돈녕부 판사공(휘 사국)글씨
소재지 : 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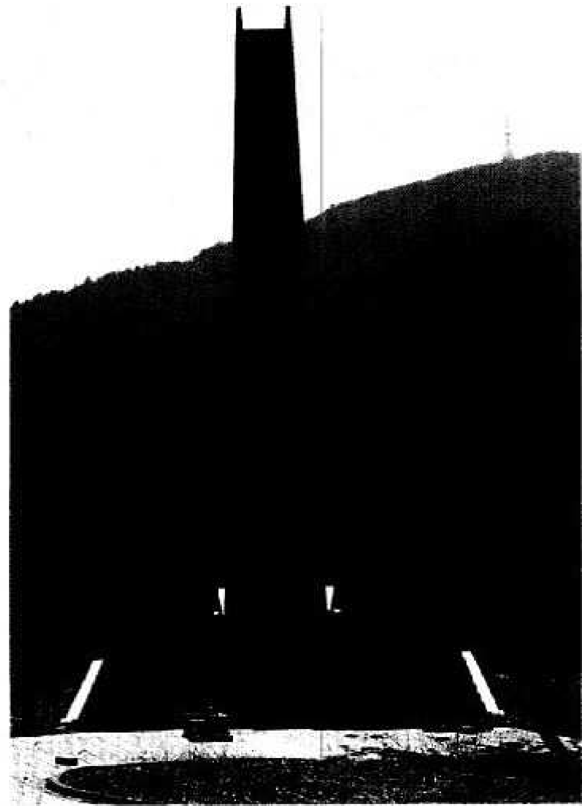
동천서숙
32세 돈녕부 판사공(휘 사국)글씨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16-1



창절서원(사육신외 4인을 배향)
32세 돈녕부 판사공(휘 사국)글씨
소재지 : 강원도 영월읍 영흥리



3 · 1운동 기념비
(37세 병한공 행적)
소재지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상리산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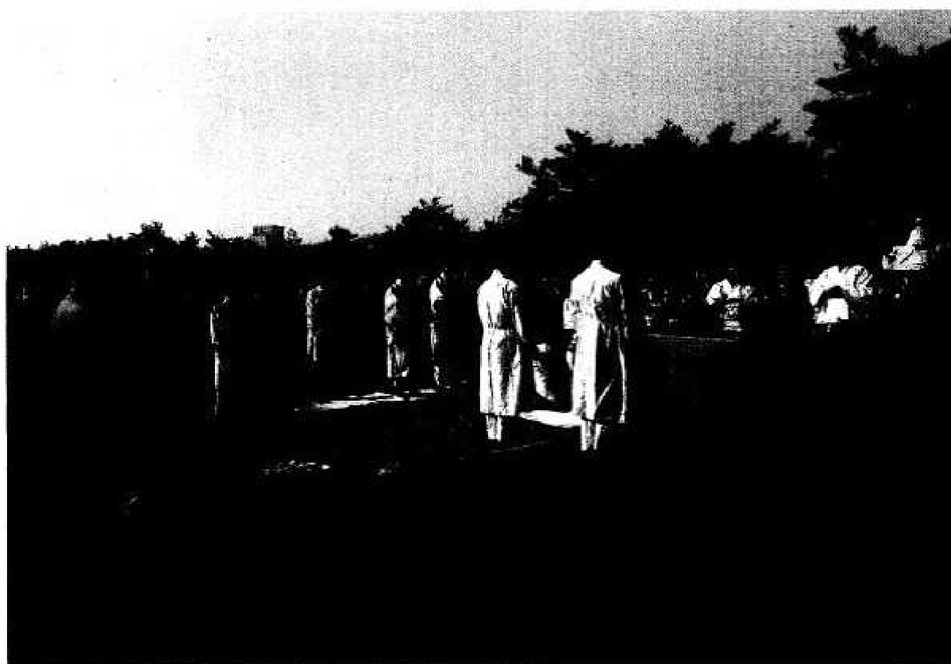
3 · 1운동 기념탑
(36세 택근공 행적)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170-12



대종회관 준공식(1996. 4. 21)



대종회관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7



시제행사(상포선영)

(5) 각 파계의 사진



20세 판결사공(휘 조생)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70 막곡



판결사공(휘 조생)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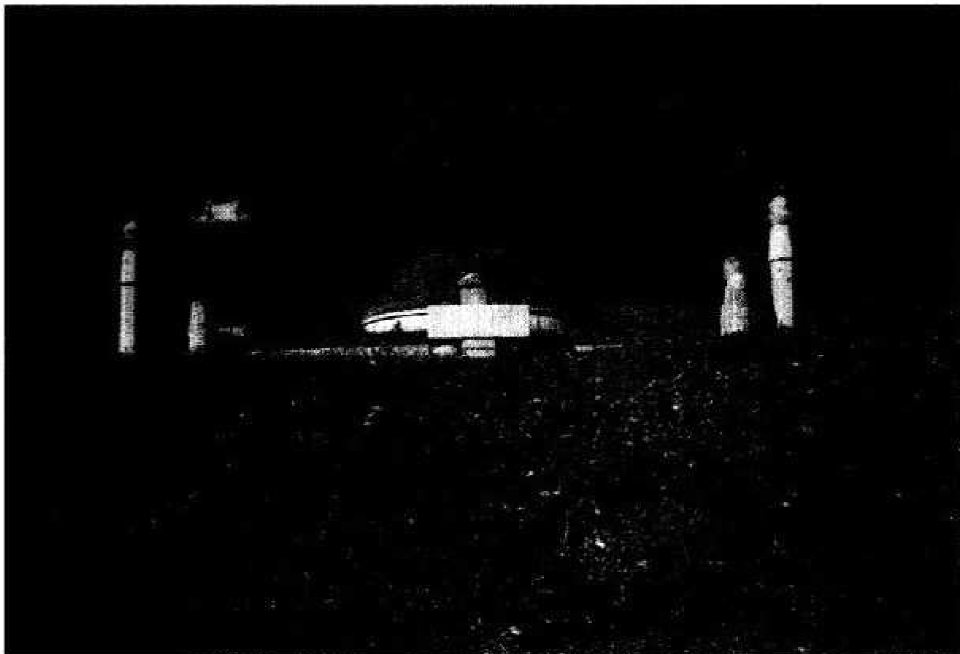
제 단 비
21세 군수공(휘 신로) 부군(충효공후)
22세 부사과공(휘 필) 부군(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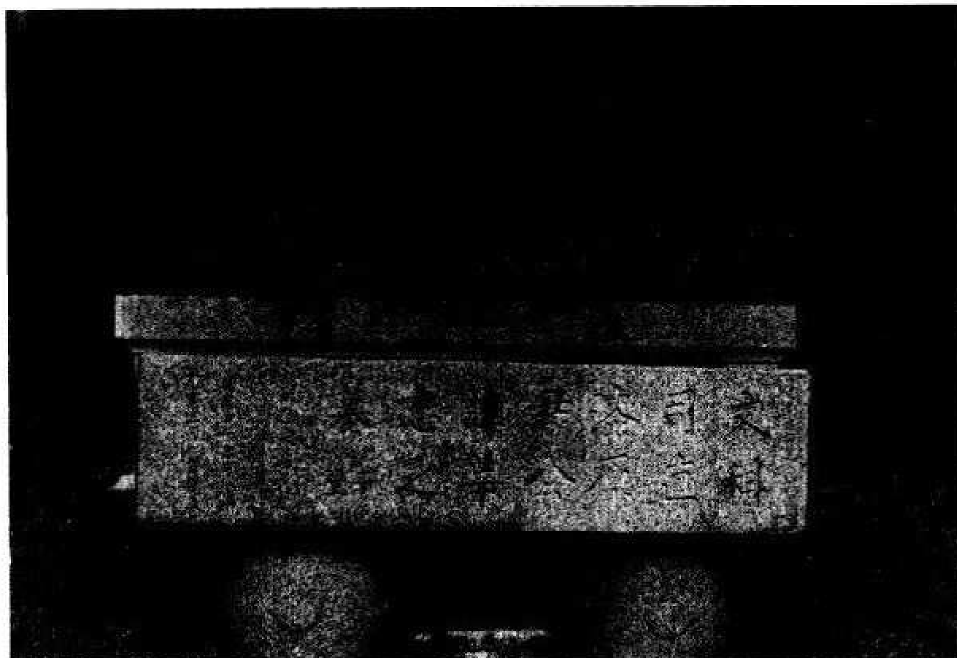
23세 증 좌승지공(휘 중임)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24세 증 병조참판공(휘 붕)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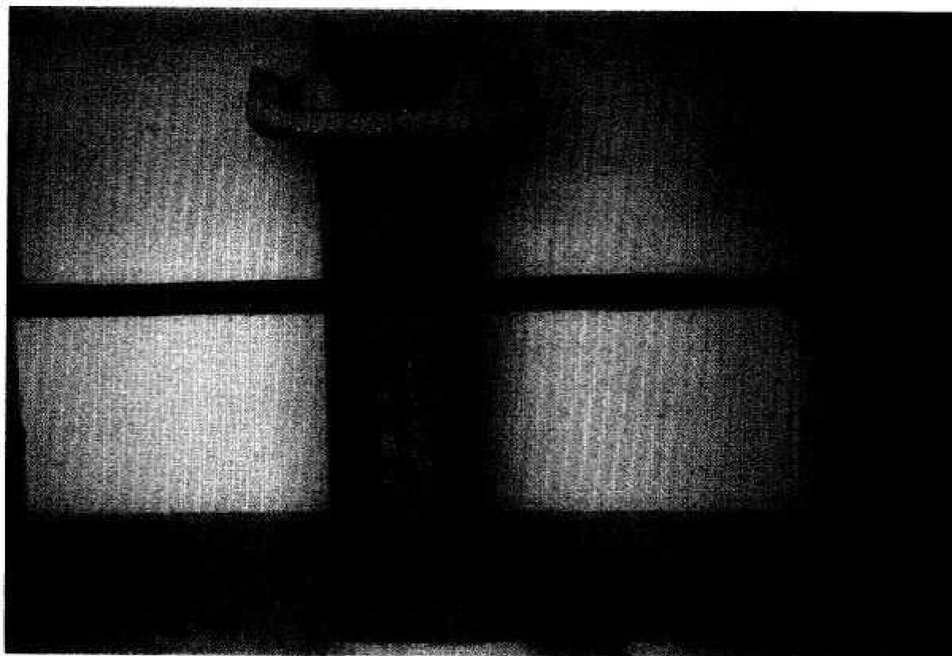
24세 교리공(휘 관)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유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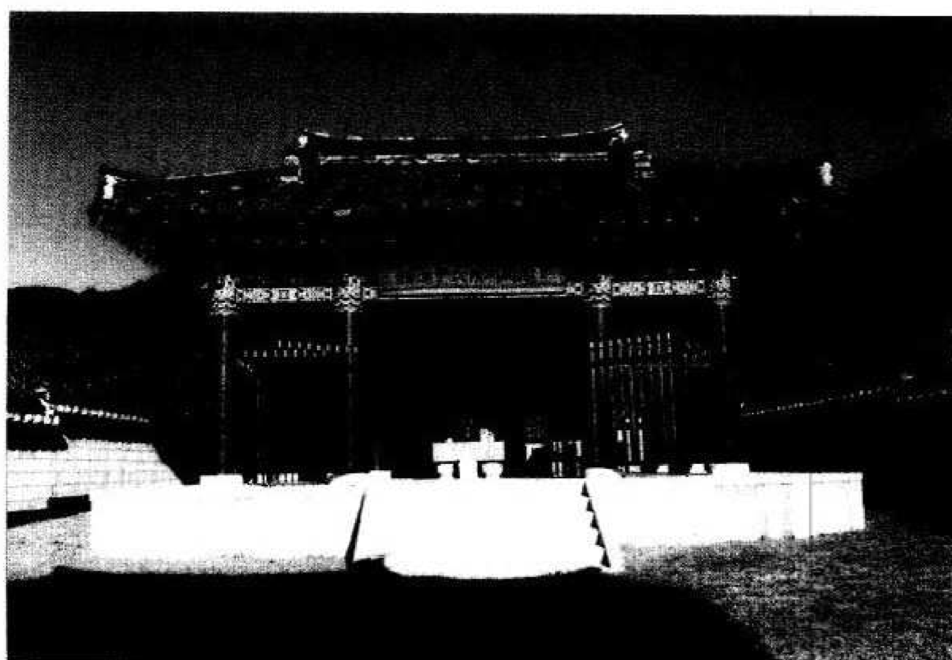
21세 사직공(휘 신충)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화양리 산1 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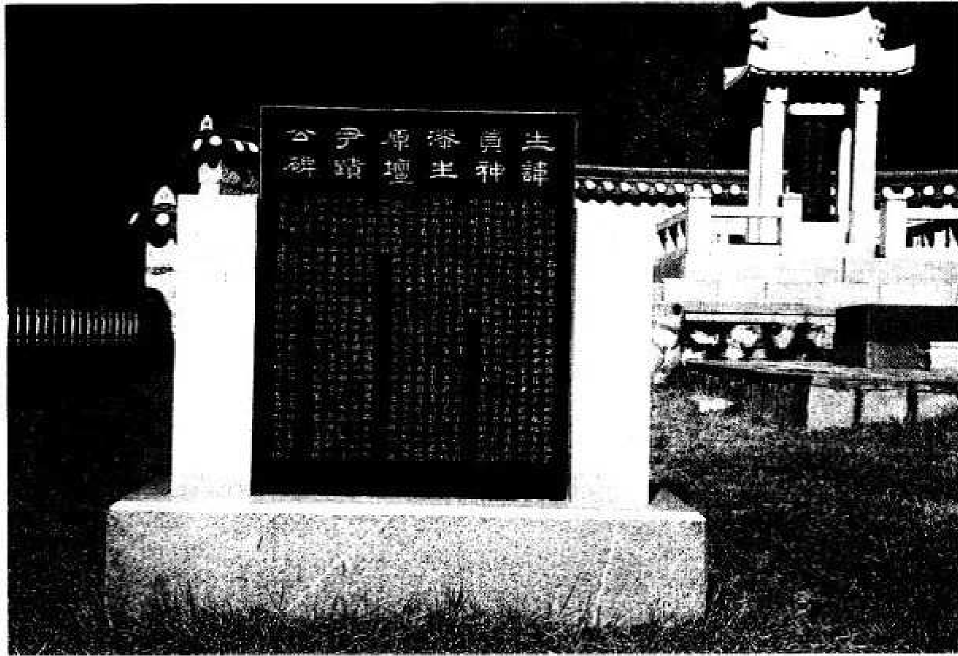
26세 충신 증 주부공(휘 익) 정려(충효공후)
27세 효자 증 좌랑공(휘 광은) 정려(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목면 대평리 산46 정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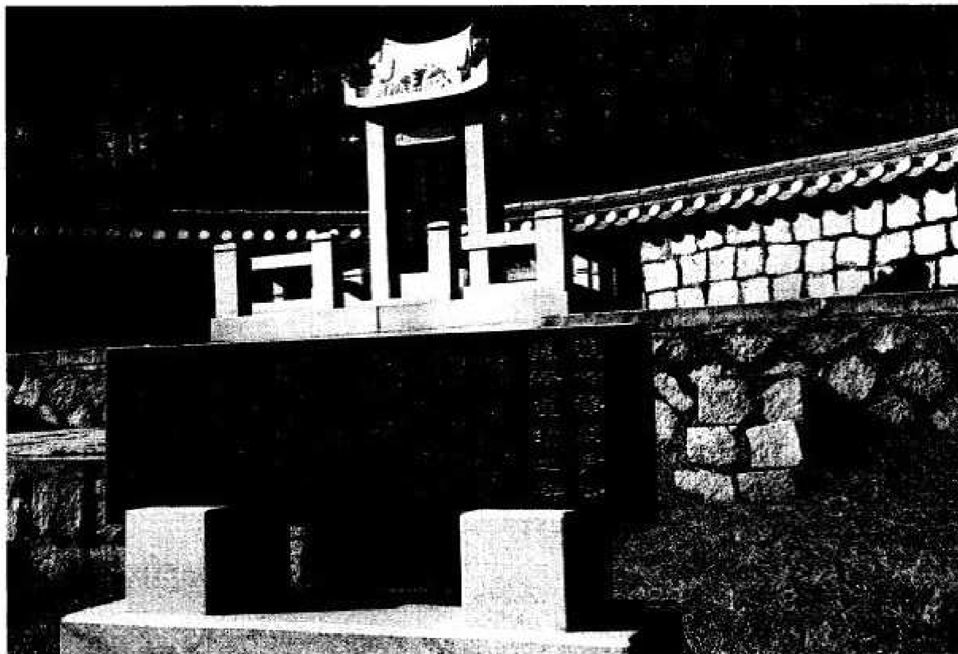
28세 진사공(휘 재빙) 제단비(충효공후)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항리



33세 수직통정대부공(휘 사지) 비각(충효공후)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산16-1



20세 생원공(휘 신생) 제단비(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21세 진사공(휘 제) 제단비(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22세 사정공(휘 성계)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24세 맹산현감공(휘 자균)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24세 진도군수공(휘 자당)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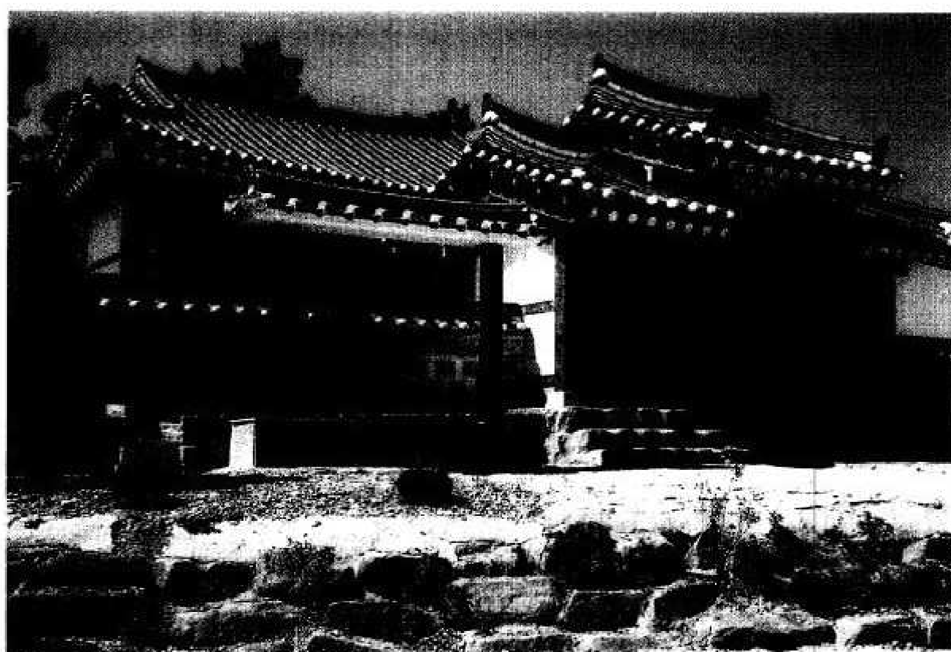


진도군수공(휘 자당) 묘비



제 단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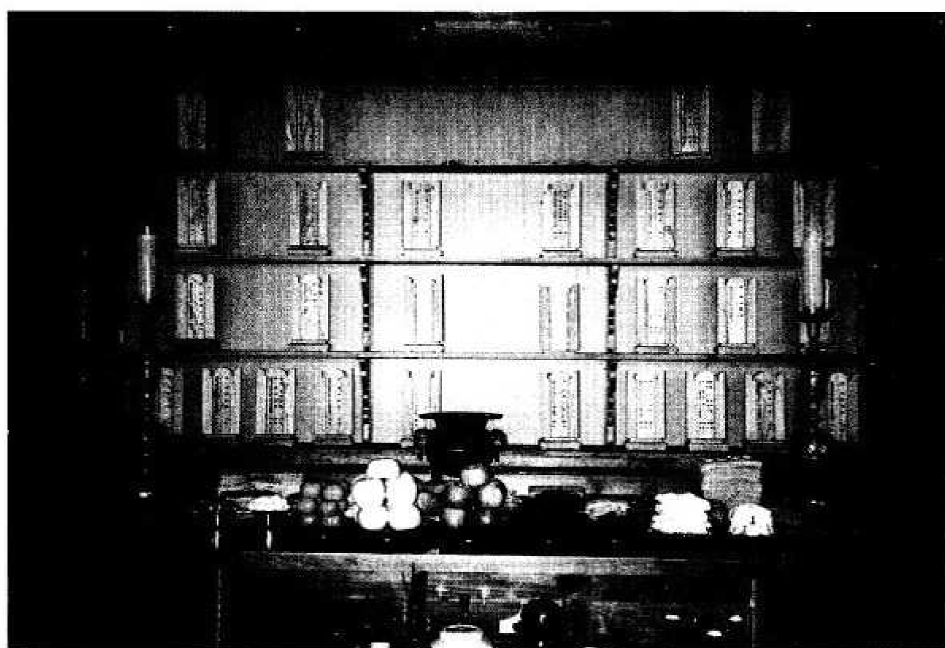
27세 장사랑공(휘 천명) 부군(충효공후)
28세 (휘 정길) 부군(충효공후)
29세 (휘 창영) 부군(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비안)



송희각 전경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천면 송정리 307



송회각(松禧閣)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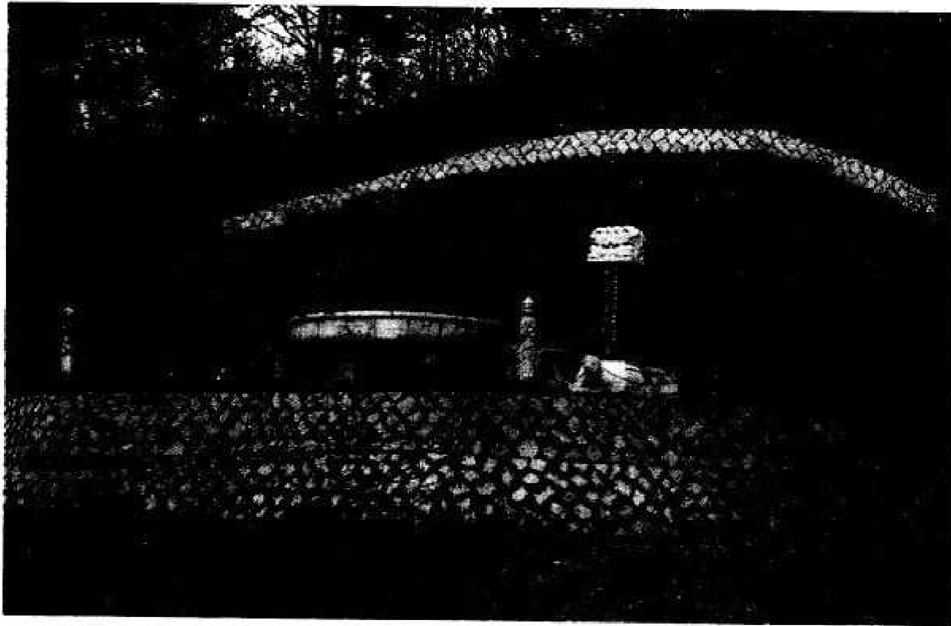
송회각 위패 봉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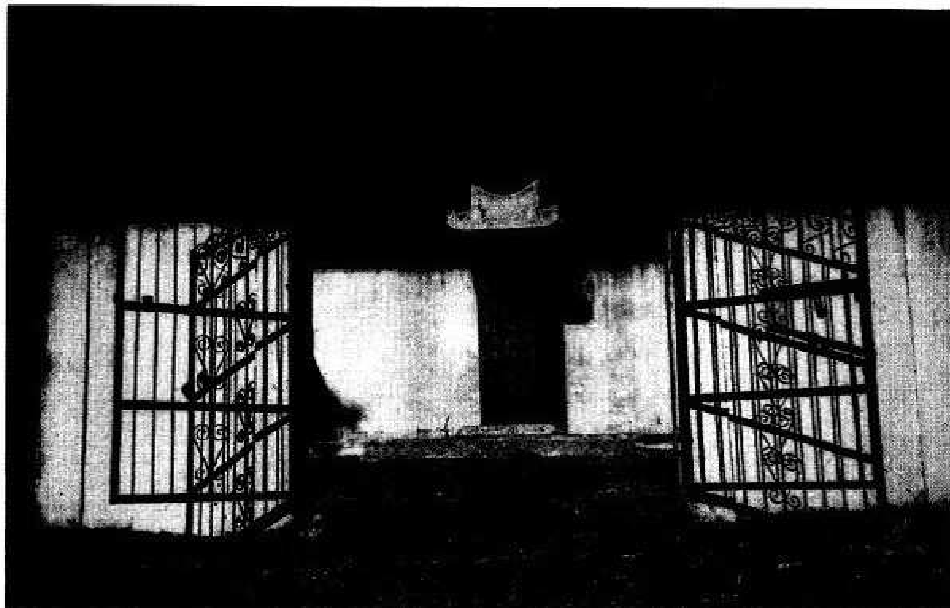
26세 전적공(휘 준제)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외동 장항



24세 진사공(휘 자곤) 묘소(충효공후)
25세 주부공(휘 은동) 묘소(충효공후)
30세 (휘 기신)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용안면 법성리 산21



21세 사과공(휘 달)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산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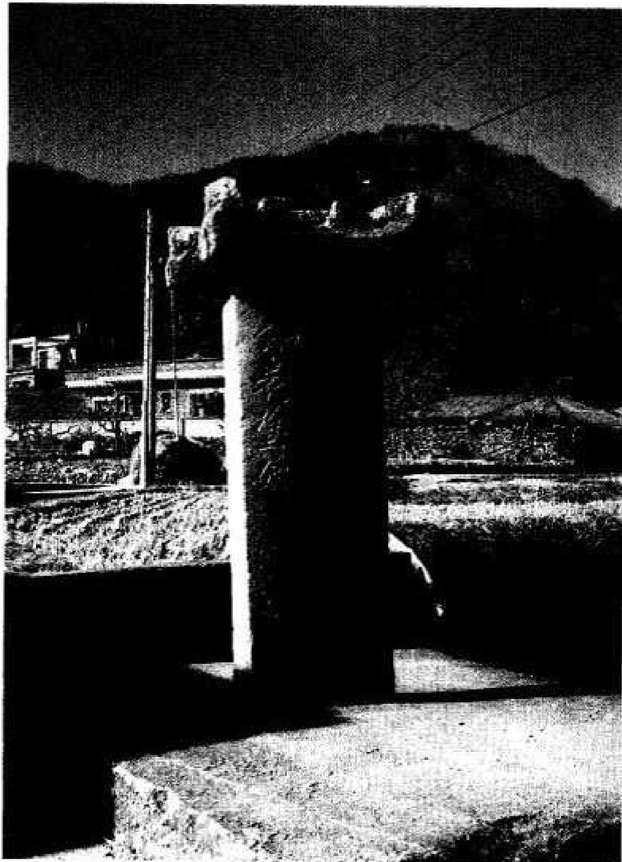
제 단 비
22세 처사공(휘 계동) 부군(충효공후)
23세 선전관공(휘 손) 부군(충효공후)
24세 부사공(휘 말형) 부군(충효공후)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25세 증 참판공(휘 승보) 묘소(상)(충효공후)
26세 첨정공(휘 영상) 묘소(중)(충효공후)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소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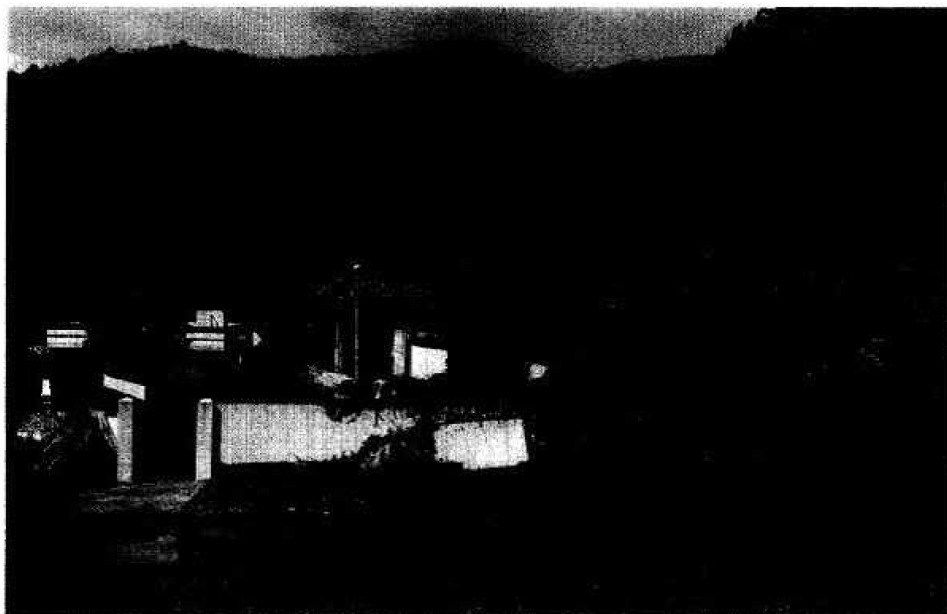
25세 증 병절교위공(휘 개보)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광터



26세 첨정공(휘 영상)
표도비(表塗碑)(충효공후)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도론골 도로변



의령남씨 열녀각(35세 휘 영희의 배)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죽전마을



충 훈 사(忠勳祠)

배향위

25세 증 병조참판공(휘 승보)

25세 증 병절교위공(휘 개보)

26세 훈련원 첨정공(휘 영상)

26세 훈련원 부정공(휘 홍량)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441



20세 낭장공(휘 광우) 묘소(상)(충효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23



21세 증 병조참판공(휘 제) 묘소(충효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23



22세 병조참지공(휘 신우) 묘소(상)(충효공후)
23세 군수공 (휘 양좌) 묘소(중)(충효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27



32세(휘 기손)과 (휘 기진)의 효자 정려(충효공후)
33세(휘 득성)의 배 청풍김씨 열녀 정려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765



21세 양성당(휘 지)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작두산



양성당(휘 지)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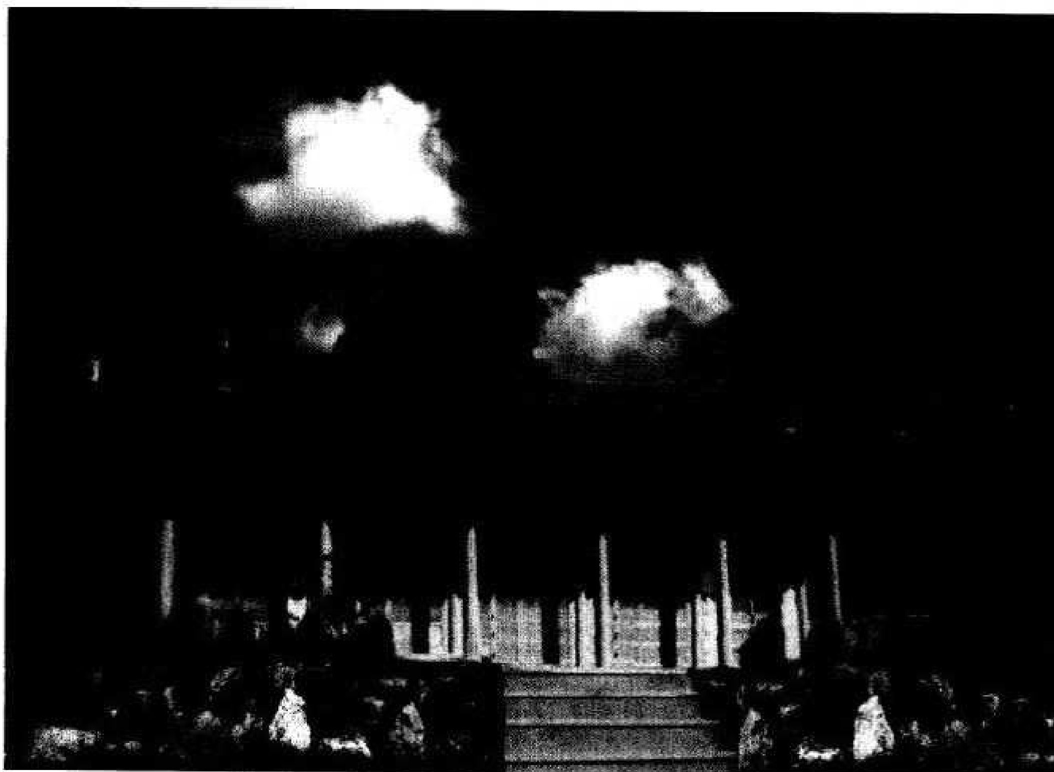
22세 홍문관 습독관공(휘 도원)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작두산



습독관공(휘 도원)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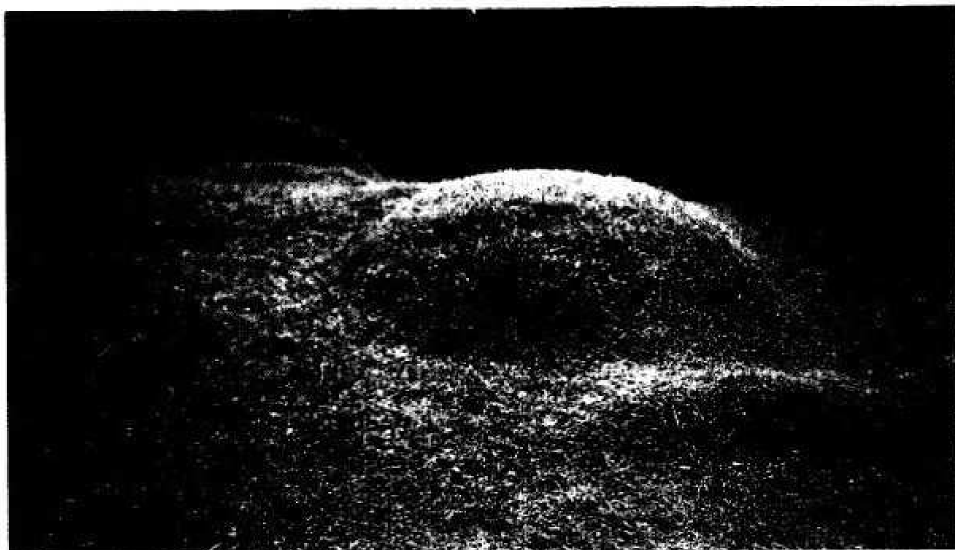
23세 사헌부 감찰공(휘 상우)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작두산



남 춘 재(南春齋)
소재지 :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곤 산 재(鵾山齋)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서면 안기리



24세 헌릉참봉공(휘 헌) 묘소(상)(대언공후)
25세 진사공(휘 회) 묘소(하)(대언공후)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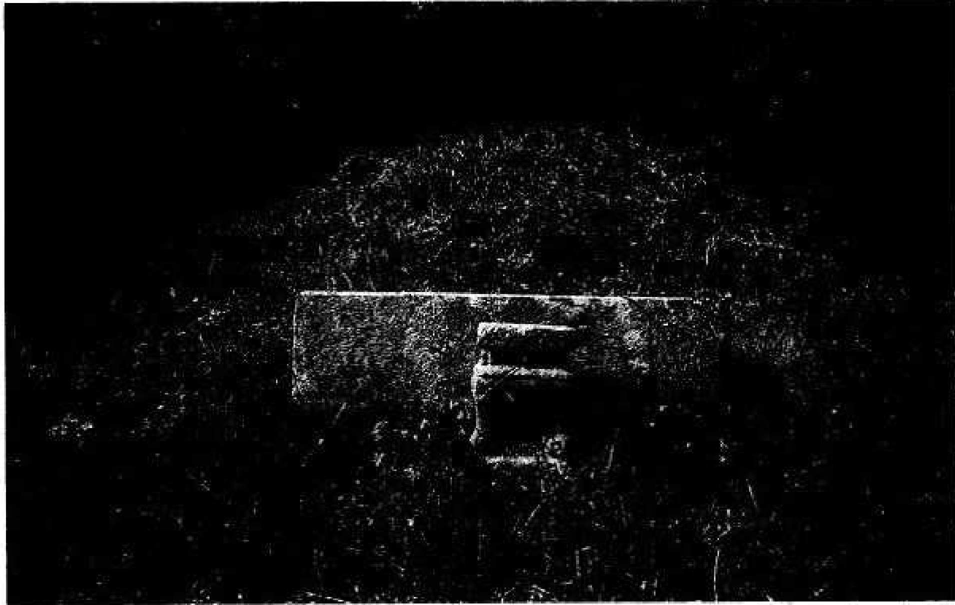
칠원윤씨 세장산
소재지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75



24세 증 사헌부 집의공(휘 엄)묘비(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971



26세 증 이조참판공(휘 자신)묘비(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 971



27세 증 호조참판공(휘 유길)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 신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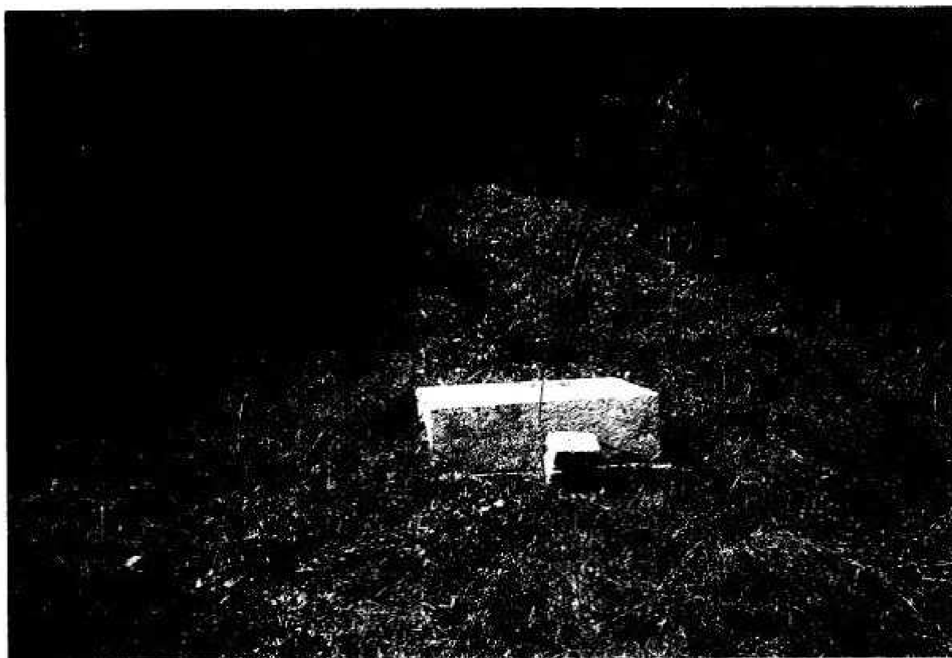
증 호조참판공(휘 유길)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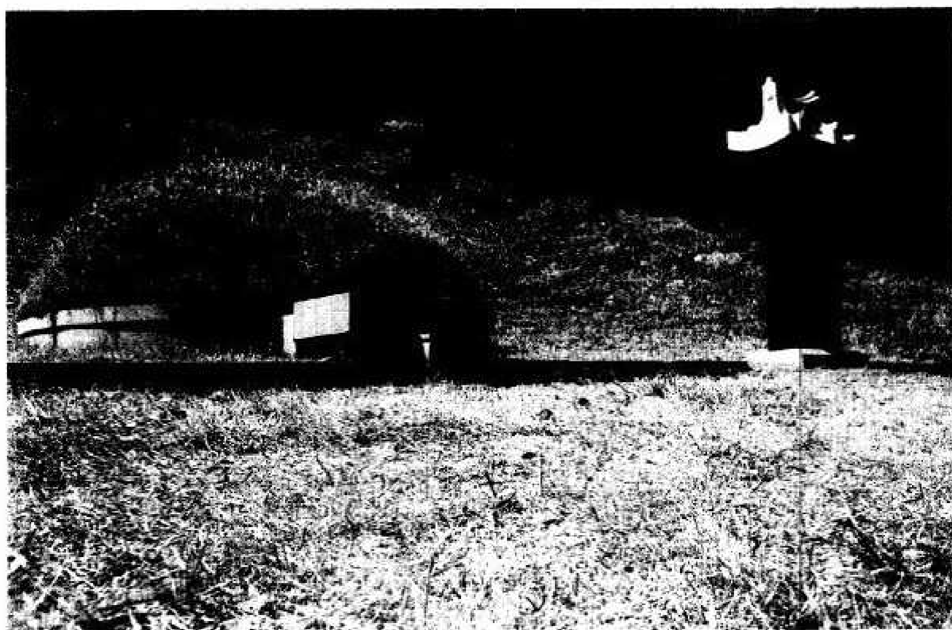
28세 증 이조참판공(휘 우정)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주저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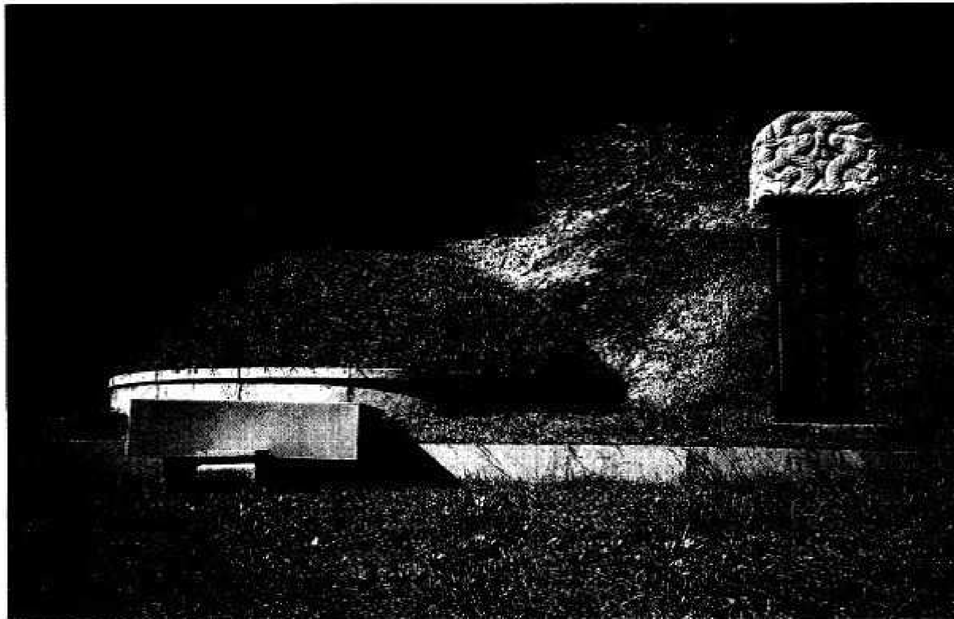
28세 황주판관공(휘 우갑)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산90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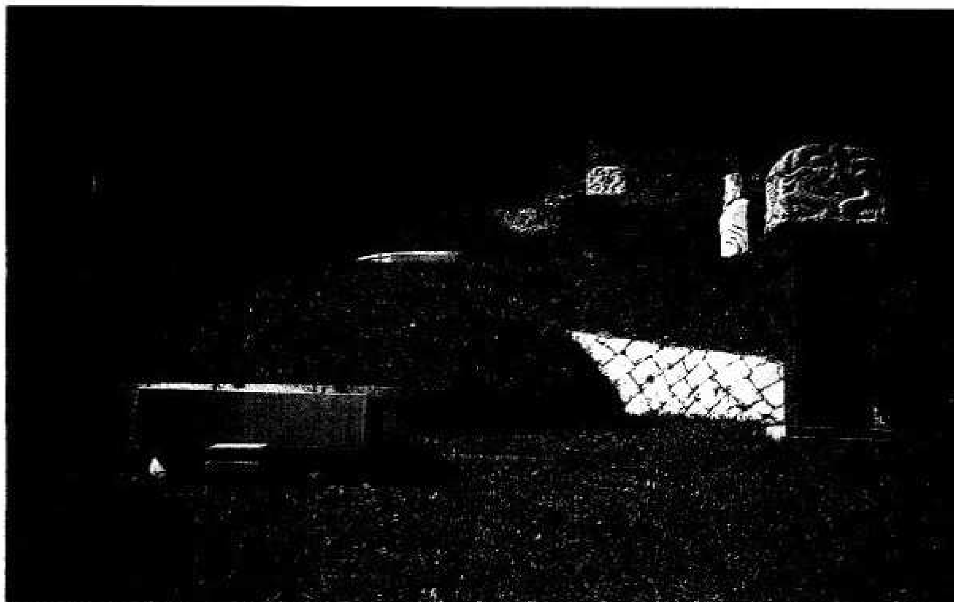
29세 병조좌랑공(휘 치적)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충남 당진군 순성면 갈산리 신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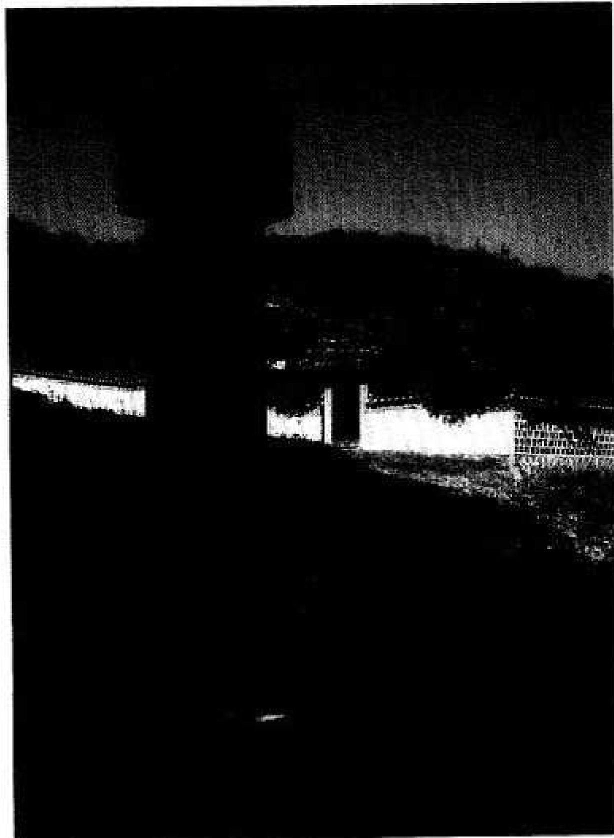
27세 선무원종공신(휘 발)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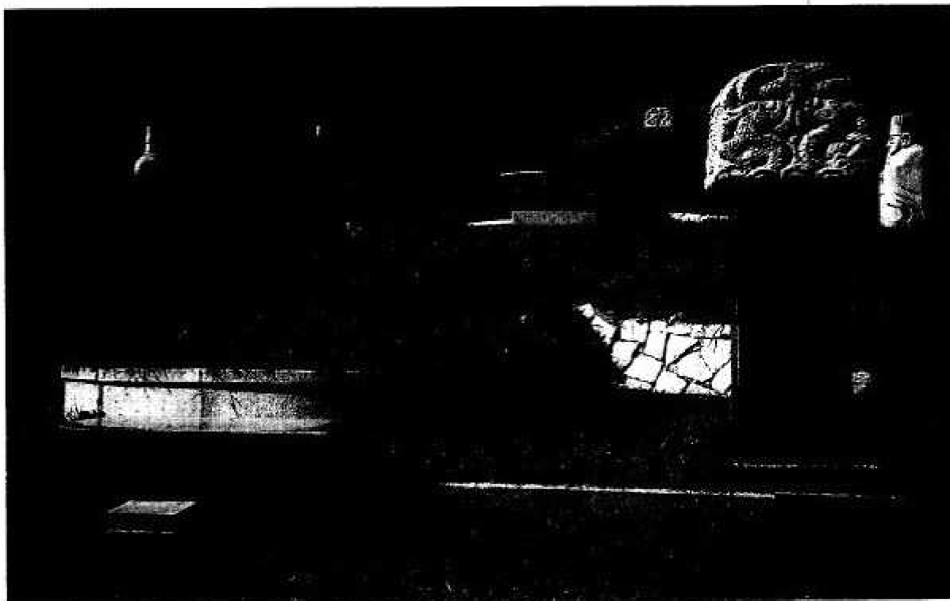
24세 증 구원부원군 영의정공(휘 이)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산45-1



25세 칠계군 헌민공(휘 탁연)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산45-1



헌민공(휘 탁연)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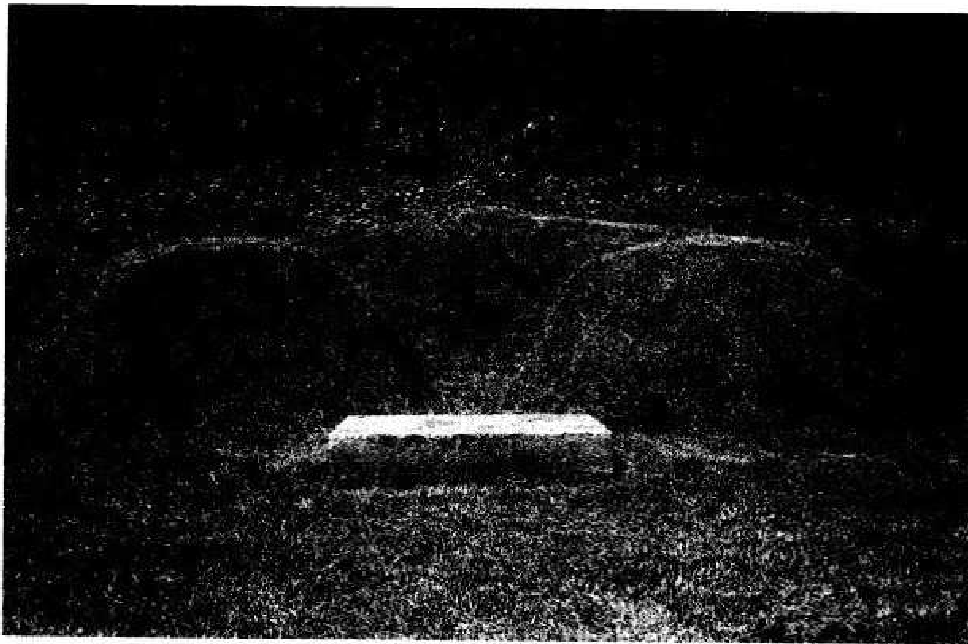


26세 칠평군 충장공(휘 경원)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산45-1



재 실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 산45-1



25세 증 호조참판공(휘 수연) 묘소(왼쪽)(대언공후)
배 증 정부인 홍천이씨 묘소(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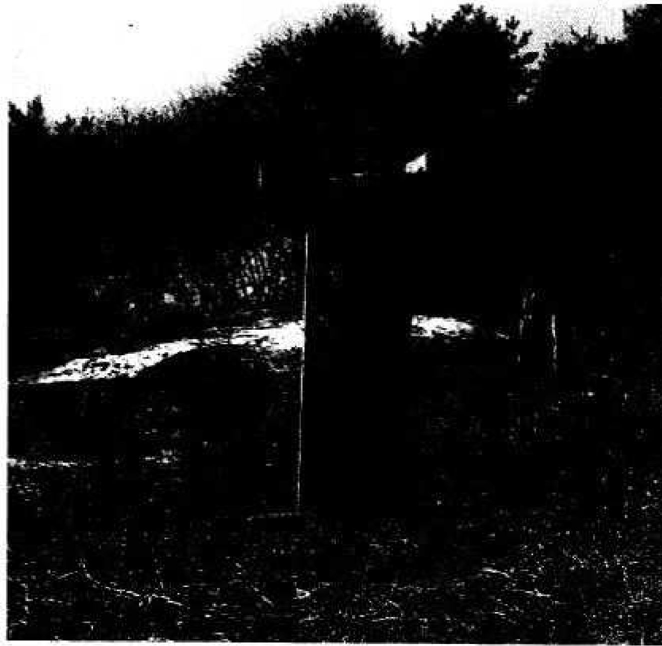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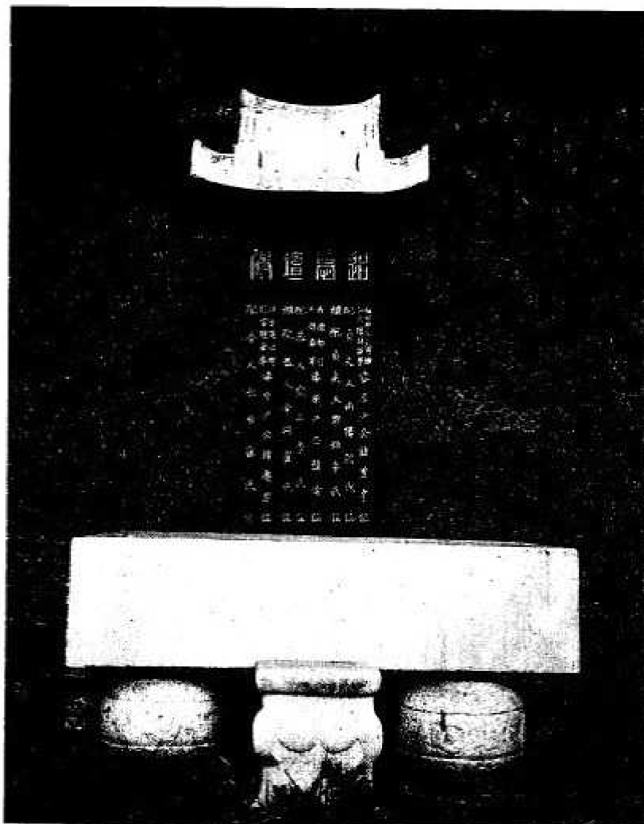
증 호조참판공(휘 수연) 묘비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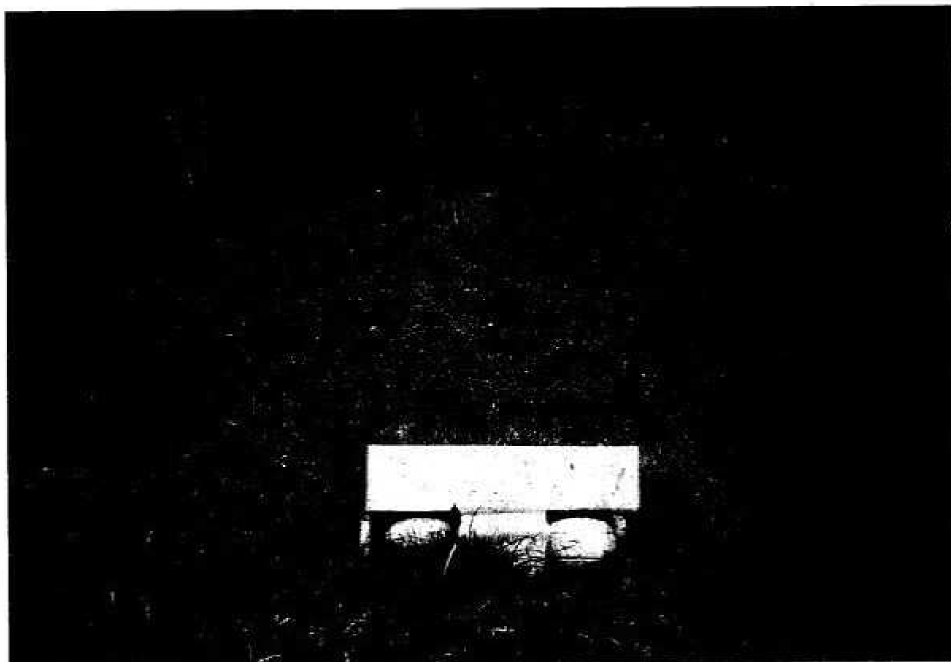
25세 증 이조참판공(휘 창명)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충북 제천군 금성면 유원리



26세 감사공(휘 조원) 묘소 및 신도비(대언공후)
소재지 :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 화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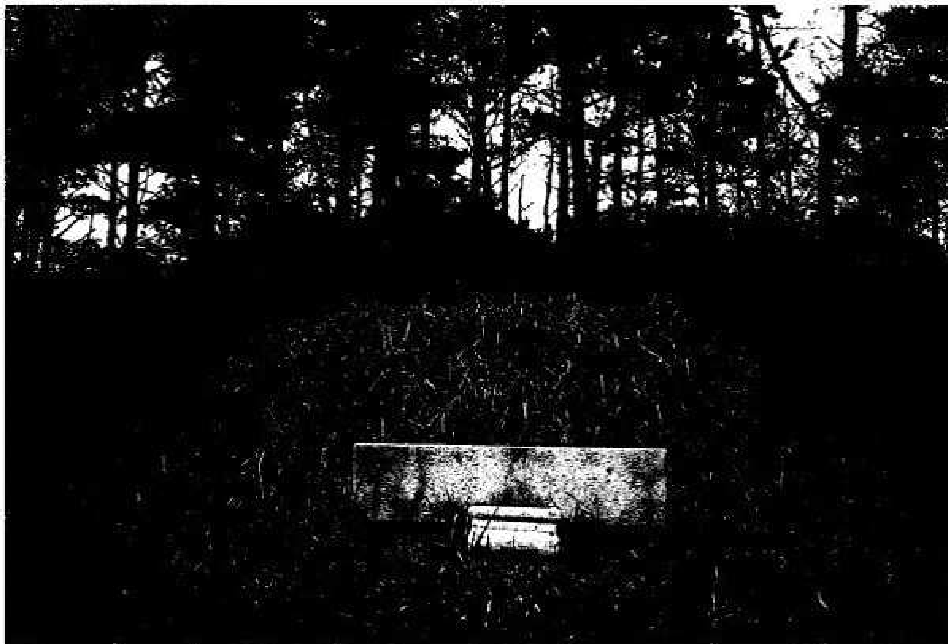
추모단비
신 위
23세 부제학공(휘 풍형)위(대언공후)
24세 서부참군공(휘 일)위(대언공후)
25세 선릉참봉공(휘 경남)위(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쌍봉산 선영



26세 고령현감공(휘 적)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쌍봉산



26세 사헌부감찰공(휘 호)묘소 (대언공후)
배 숙인 창원유씨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서제곡



27세 진사공(휘 수민) 묘소(대언공후)
소재지 :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선세 제단비
20세 정순대부공(휘 세안)부군(부원군후)
21세 조열대부공(휘 보)부군(부원군후)
22세 가선대부공(휘 봉)부군(부원군후)
23세 사직공(휘 중경)부군(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세천산



24세 부호군공(휘 한경) 묘소(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25세 사헌부감찰공(휘 현손) 묘소(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31세 증 이조판서공(휘 동교) 묘소(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증 이조판서공(휘 동교) 신도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31세 통덕랑공(휘 동주) 묘소(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방죽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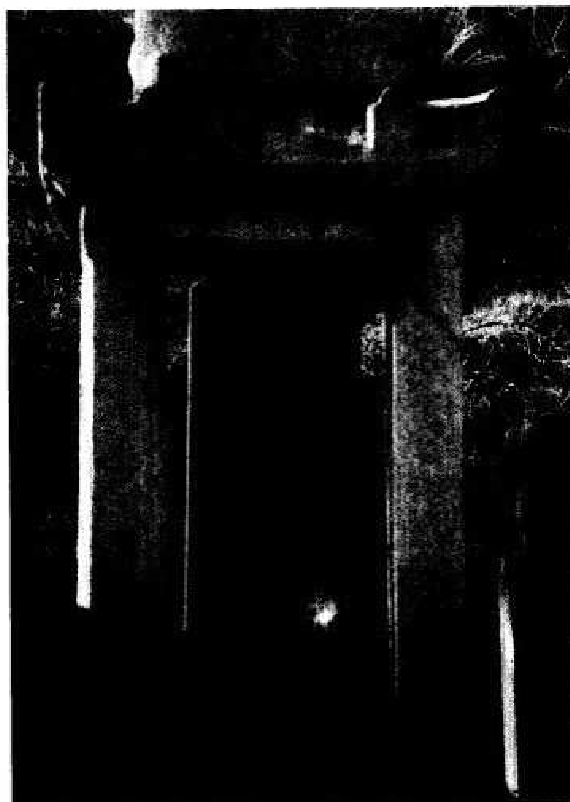
광탄재(廣灘齋)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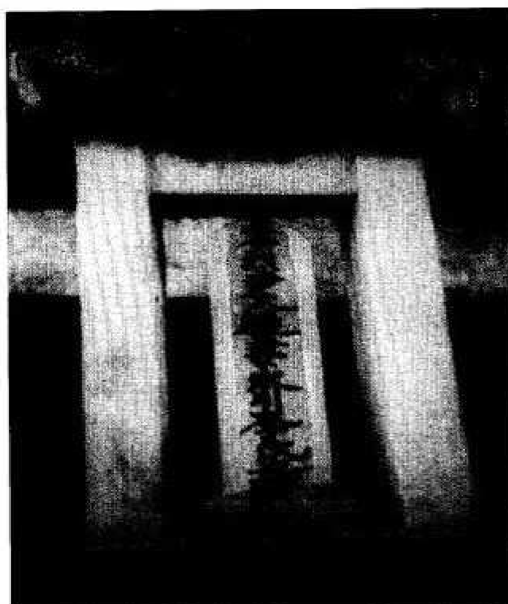
덕암재(德巖齋)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예서재(芮棲齋)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304



윤환은 효자비(35세 : 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동락동



영천이씨 효열비
(35세 윤대은의 배 : 부원군후)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양촌

제2편 세덕(世德)

1、칠원윤씨잠영보 서

우리 칠원윤씨 씨족계통은 태사공께서 처음 신라시대에 벼슬을 하였고 그리고 그후로 몇대는 전승을 잃어 문헌에서 빠져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손과 지손이 점차 퍼져 높은 관리가 더욱 빛났으니 장군과 재상을 지낸 동량의 재목이요 충성과 의리로 나라초석의 확고한 책임을 지었다 태조가 조선을 세울 때에 이르러 조선이 문명의 기회를 만나 예악과 문물이 국가와 더불어 다 함께 아름다워지니 과거하여 관리로 살고 가문이 더욱 번창하여 문관 무장들이 가문의 명성을 계승하여 뚜렷한 명문 씨족이 되어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37인이요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 110인이요 무과에 합격한 사람이 120인이요 문관이 71인이니 당시에 우러러 보는 것만이 아니고 가히 후세인들의 흠모가 되었다。 비유하자면 산중에서 태산이 으뜸이 되는 것과 같아 천하에 명산을 누르고 물 중에서 황하가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지류를 통합하는 것과 같은데 만일에 산수 지리책이 없다면 역시 본류와 지류가 자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 집안들이 문관과 무관의 족보가 있더라도 혹 우리 집안 것은 빠져 기록이 없다면 누구나 일찌기 한탄할 것이다。

족손되는 병은이 네 권으로 된 잠영보를 한 번 나에게 내놓아 내가 읽어보니 매우 자상하여 조선시대 우리 성씨가 중엽기까지 빛나있음이 빠지지 아니하여 거울 보는 것과 같았으며 거의 역사와 동일하고 오히려 비석보다 나았다。 장차 인쇄를 하여 종중에 분질하게 되면 이것은 영광스러움이 되어 썩지 아니하고 후세에 전승이 될 것이다。 서문을 써달라고하여 그 뜻이 가상하여 그래서 서문을 지었노라。

서기1884년4월

직제학공 13대손 영만은 삼가 기록하다

1、漆原尹氏簪纓譜 序

粤我漆原氏族系自 太師公之始仕羅朝而其後數代失傳文獻有闕逮于麗時本支漸衍簪纓益彰將相任棟樑之材忠義托柱石之固歷至 太祖刱業之際適値東方文明之會禮樂文物與國咸休科臼從事門閥仍昌文蔭武官善繼家聲顯爲名族庶耀後裔大闡三七小成百十而一百廿之虎榜七十一之鶴背非徒當時之瞻顯可作後人之欽慕譬如山之五嶽泰爲之宗而鎭天下之名山水之四瀆河爲之源而統海內之分流若不有山經水誌亦莫詳爲宗分流然則雖有諸家文蔭武譜而或有吾家疎漏闕文每嘗恨者族孫炳殷分編四譜袖進一局於余余覽之頗詳入我朝吾氏中葉炳靈銖不漏而鑑如明則殆同垂竹帛而却勝勒金石也將營刊梓分帙宗中是爲榮名不朽庶作後世相傳

求爲弁文嘉其有志因爲之序

崇禎五甲申孟夏日

直提學公十三代孫 永萬 謹記

◇

2、칠원윤씨잠영보 서

우리 조선의 씨족은 모두 여섯가지이지만 이것을 말하여 만성이라 하며 그리고 조선 태조가 왕위에 오른지 오백년이 가까워 문학이 크게 유행하고 번성한 씨족들이 대대로 계승한 원로 대신의 집안이며 요직의 인물이 조정에 두루 퍼져있고 고금에 넘쳐 손가락을 꼽아 셀 수가 없는데 바로 문관、무관、생원、진사 음직들을 기록한 보에 들어있으니 이러한 보가 요람책보다 보기가 편리하다。나는 이래서 관리 계보에 뜻을 두고 대략 초집을 만들어 19편으로 인쇄하고 제목을 교세보략이라 하였는데 때가 잘 맞았다。족손되는 병은이 찾아와 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다른 성씨들의 벼슬과 과거한 사적과 도덕과 충효도 이렇게 고중하였으니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다고 하며 우리 집안에 이르러선 저명한 인사、높은 관리、공로、덕행의 성대한 것이 후손의 빛이 선조보다 빛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데 슬프도다。우리 칠원윤씨는 각 지방 시골에서 생장한 사람들이라 어느파 어느공께서 어느때 어떤 과거에 합격하고 어느때 벼슬을 하여 이름이 빛났으며 어느때 공을 세웠는지를 아는 자가 드문데 어찌 족보를 보고 상고하며 과연 뒷날 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 우리 문중도 역시 교세보략의 예를 따르면 가령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 글을 읽은 사람들이면 모두가 볼 수 있어서 또다시 선조의 유적에 경모심이 더하여져 역시 대대로 전하여질 것이니 어찌 한갓 교세의 족보만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자네는 똑똑하게 듣고 이 원대한 길을 염려하시오 그리고 힘쓰고 힘써주게。내가 편집하여 놓고 3년이 지난 갑신년(1884년) 1월에 완산에서 유정리 병은네 집에 이르러 몇일을 상의하여 비로소 우리 칠원윤씨 잠영보 초고를 보이며 자네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 문자가 흩어져 있거든 책에 나열하고 편집하여 한 권에 모으면 1질로 만들어 한번에 보는것처럼 편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이에 더욱 열심히 도와 곧바로 빨리 인쇄하여 널리 일가에 배포하고 선조의 아름다운 덕을 추모하여 대대로 막히지 아니하게 하면 어찌 교세보략 편집의 아름다움에 비유할소냐?

서기 1884년 4월

직제학공 13대손 영순은 삼가 쓰다

2、漆原尹氏簪纓譜 序

我東氏族擧六數曰萬姓而惟我 太祖大王龍興近五百年文敎大行華閥世承喬木之大家柱石之巨室遍於朝紳溢於古今難以屈指而數則乃有文譜虎榜生進譜蔭譜便於要覽余於是乎有意於簪纓譜略爲抄集謄作十九編題云喬世譜略而適其時也族孫炳殷來訪見而歎曰他姓氏之科宦事業道德忠孝如是考徵無一漏焉至於吾宗而名碩顯達勳業懿德之盛非不著於後光於前而嗟我漆尹各在四方鄕曲生長之人鮮裕知其某派某公之何時科何時宦何時垂名何時建功而豈可考閱於譜牒而後果能記存耶吾宗亦用文武蔭譜之例則可使晝耕夜讀之人皆有以盡閱更加景慕 祖先遺蹟亦可傳世矣何爲徒事喬世之譜乎余聞而懼然曰子以博聞念茲裕遠之道乎勉之勉之吾亦爲之編輯而越三年甲申孟春余自完山到楡亭炳殷之家講誼數日而始見吾尹簪譜草略則子是有志者也凡於文字散之則列於方册輯之則聚於一卷其在便覽之道莫若合而成帙一通看過也茲以加勉勗之卽速印刊廣布諸族追襲 先世之懿行世世不替則豈比喬世譜略編集之美而已哉云爾

歲在甲申孟夏日

直提學公十三代孫 永順 謹書

3、顯祖錄

(1) 高麗의 顯祖

① 封君(爵)贈諡錄

世數	諱	父	年代	封號	諡號	官歷	派名
1세	鉅富		太祖	漆隄伯		甫尹戶長	
4세	勛	弘中	顯宗	武陽侯	文敬	上柱國僉議贊成事	
5세	鳴道	勛	文宗	龜寧府院君	忠敬		
7세	元綱	啓	仁宗	武安君		判密直三司事	
8세	蕤	元綱	〃	武昌伯	翼亮	知都評議司事	
9세	殷卿	蕤	毅宗	漆隄君	安惠	判厚德府事	
17세	吉甫	秀	忠烈王	龜城君	忠義	僉議贊成事	
18세	桓	吉甫	恭愍王	漆原府院君 漆原伯	忠孝	門下侍中	忠孝公
18세	樟	吉甫	恭愍王	漆城君			漆城君
18세	栓	吉甫	恭愍王	漆城府院君			府院君

② 功臣錄

世數	諱	父	年代	勳號	派名
17세	吉甫	秀	忠烈王	輸誠直亮功臣	
18세	桓	吉甫	恭愍王	推誠秉義同德燮理翊贊功臣	忠孝公
18세	栓	吉甫	恭愍王	推誠秉義同德燮理保祚功臣	府院君

(2) 朝鮮의顯祖

① 封君(爵)贈諡錄

世數	諱	父	年代	封號	諡號	官歷	派名
19세	邦抵	樺	太宗	漆原君	貞景	議政府右贊成	司尹公
19세	子當	椊	太宗	漆原府院君	靖平	議政府左贊成	府院君
19세	子良	椊	太宗	漆隄伯	忠簡	大提學 漢城府判尹	府院君
24세	伊	文亨	宣祖	龜原府院君		司醞署令 贈領議政	代言公
25세	春蘭	鵬	宣祖	漆平君		副司果 贈左贊成	忠孝公
25세	卓然	伊	宣祖	漆溪君	憲敏	刑曹判書 判尹 監司	代言公
26세	健	春蘭	宣祖	武原君		仁川府使 贈吏曹判書	忠孝公
26세	慶元	卓然	宣祖	漆坪君	忠壯	陽城縣監 贈吏曹判書	代言公
30세	志述	景績	憲宗		正愍	成均館掌議 贈吏曹判書	代言公

② 功臣錄

世數	諱	父	年代	勳號	派名
19세	邦抵	樺	太宗	推忠奮義翊載佐命三等功臣	司尹公
19세	子當	椊	太宗	推忠奮義翊載佐命四等功臣	府院君
24세	伊	文亨	宣祖	贈純忠補祚功臣	代言公
25세	卓然	伊	宣祖	輸忠貢誠翼謨修記光國三等功臣	代言公
25세	春蘭	鵬	宣祖	贈純忠補祚功臣	忠孝公

③ 原從功臣錄

世數	諱	父	年代	勳號	官歷	派名
19세	子良	棪	太宗	輔國原從功臣	大提學 漢城府判尹	府院君
22세	莘遇	齊	世祖	敵愾原從功臣	慶興府使 兵曹參知	忠孝公
22세	道源	志	中宗	靖社原從功臣	習讀官 贈吏曹判書	代言公
24세	恕	殷佑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訓鍊院判官	代言公
25세	卓然	伊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刑曹判書 監司	代言公
25세	粹然	伊	宣祖	光國原從功臣	廣州牧使 贈戶曹參判	代言公
25세	承輔	抹亭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贈兵曹參判	忠孝公
25세	玠輔	抹亭	宣祖	宣武原從功臣(三等)	守門將 贈秉節校尉	忠孝公
25세	耕莘	念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訓鍊院僉正	代言公
26세	健	春蘭	宣祖	扈聖原從功臣(一等)	仁川府使 贈吏曹判書	忠孝公
26세	榮祥	承輔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訓鍊院僉正	忠孝公
26세	興良	承輔	宣祖	宣武原從功臣(二等)	訓鍊院副正	忠孝公
26세	調元	昌鳴	宣祖	宣武原從功臣(三等)	黃海道監司	代言公
26세	調元	昌鳴	宣祖	扈聖原從功臣(三等)	黃海道監司	代言公
26세	慶元	卓然	宣祖	宣武原從功臣	陽城縣監 贈吏曹判書	代言公
26세	儉	春荃	宣祖	淸難原從 功臣	司果	忠孝君
27세	有吉	自莘	仁祖	寧國原從功臣	平昌郡守 贈戶曹參判	代言公
27세	沃	承元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折衝將軍	代言公
27세	潑	承元	宣祖	宣武原從功臣(二等)	萬戶 訓鍊院正	代言公

世數	諱	父	年代	勳號	官歷	派名
28세	希	世傑	宣祖	宣武原從功臣(一等)	守門將	代言公
29세	大任	應麟	仁祖	寧國原從功臣	居昌府使	府院君
29세	處聘	熹明	英祖	奮武原從功臣(二等)		代言公
30세	亢	起莘	宣祖	宣武原從功臣	部將	府院君
31세	東郊	世樞	英祖	奮武原從功臣	渭原郡守 贈吏曹判書	府院君

④ 清白吏錄

世數	諱	字	號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1세	志	可衡	養性堂	參	文宗	集賢殿學士 大司諫	代言公	長興
22세	碩輔	子任	止退堂	思	成宗	弘文館直提學	代言公	豊德

⑤ 湖堂錄

世數	諱	字	號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3세	豊亨	衜中	松月庵	碩輔	中宗	弘文館副提學 大司諫	代言公	楊州

⑥ 判書

世數	諱	父	曹別	官歷	派名	世居地
25세	卓然	伊	刑曹·戶曹	漢城府判尹 監司	代言公	서울
32세	師國	敬宗	工曹·刑曹	大司諫 大司成 大司憲 漢城府判尹	代言公	서울

⑦ 漢城府判尹

世數	諱	父	年代	歷官	派名	世居地
19세	子良	控	太宗	弘文館大提學	府院君	漆原
25세	卓然	伊	宣祖	判書·監司	代言公	서울
32세	師國	敬宗	正祖	判書·判敎寧府事 判義禁府事	代言公	서울

⑧ 觀察使

世數	諱	父	年代	道別	歷官	派名	世居地
23세	豊亨	碩輔	中宗	江原	大司諫 副提學	代言公	楊洲
25세	卓然	伊	宣祖	慶尙·京畿·咸鏡	判書·判尹	代言公	서울
26세	調元	昌鳴	光海	黃海	同知中樞府事 上護軍	代言公	提川
29세	嘉績	遇丁	肅宗	公洪	巡察使	代言公	唐津
31세	敬龍	志淳	英祖	公洪	巡察使	代言公	長湍
32세	師國	敬宗	正祖	江原	判書·判敎寧府事	代言公	서울

⑨ 耆社

世數	諱	生年	卒年	壽	歷官	派名	世居地
32세	師國	1728년무신	1809년기사	82	判敎寧府事	代言公	서울
33세	德采	1743년계해	1815년을해	73	通政大夫	府院君	寶城
34세	佖雲	1820년경진	1902년임인	83	通政大夫	忠孝公	巨濟
36세	衡學	1830년경인	1910년경술	81	通政大夫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生年	卒年	壽	歷官	派名	世居地
36세	敬學	1823년계미	1904년갑진	82	通政大夫	府院君	寶城
36세	奎學	1828년무자	1908년무신	81	嘉善大夫	忠孝公	梧甲
37세	炳林	1819년기묘	1903년계묘	85	嘉善大夫	忠孝公	梧甲
37세	炳祚	1826년병술	1902년임인	77	嘉善大夫	忠孝公	梧甲
38세	時遠	1863년계해	1943년계미	81	嘉善大夫	府院君	高興

⑩ 贈議政

世數	諱	父	職	歷官	派名	世居地
19세	邦抵	樺	領議政	右贊成	司尹公	서울
24세	伊	文亨	領議政	司醞署令	代言公	서울

4、官蹟錄

(1) 歷代官蹟(新羅·高麗)

世數	諱	父	時代	年代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始祖	始榮		新羅			太子太師 顧命元老		漆原
	璜	始榮	新羅			判太史局事		漆原
1세	鉅富		高麗	太祖		甫尹戶長		漆原
2세	瑩	鉅富	高麗	光宗	文科	左僕射判內史		
3세	弘中	瑩	高麗	成宗	文科	政堂文學		
4세	勣	弘中	高麗	顯宗		太尉加特進上柱國僉議贊成事		
5세	鳴道	勣	高麗	文宗		龜寧府院君		
5세	玄道	勣	高麗	文宗	文科	成均祭酒		
6세	啓	鳴道	高麗	肅宗	文科	左思補		咸安
6세	喦	鳴道	高麗	肅宗	武科	三道都指揮使		
7세	元綱	啓	高麗	仁宗	文科	金紫光祿大夫 判密直三司事		
7세	叔綱	啓	高麗	仁宗	武科	郞將		
7세	季綱	啓	高麗	仁宗	文科	右代言		
8세	蕤	元綱	高麗	仁宗	文科	知都評議司事		
9세	殷卿	蕤	高麗	毅宗		判厚德府事		
9세	殷老	蕤	高麗	毅宗	文科	兵部令		
10세	博	殷卿	高麗	明宗	文科	檢校監直司 西州·觀風·三道		
11세	世得	博	高麗	神宗	文科	檢校監察持平 西海廣詢御使		

世數	諱	父	時代	年代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11세	時得	博	高麗	神宗	文科	集賢殿直提學		
12세	乙富	世得	高麗	高宗	文科	吏部尙書 元官興威衛別將		漆原
13세	仡	乙富	高麗	高宗		檢校禁衛諭郎將		
14세	松磾	仡	高麗	高宗		銀青光祿大夫 參知政事 都指揮使 元官中郎將		漆原
15세	養三	松磾	高麗	高宗		光祿大夫 樞密院副使 檢校神虎衛將軍		
16세	秀	養三	高麗	元宗		軍簿判書 上護軍		漆原
17세	吉孫	秀	高麗	忠烈王		檢校選部典書 大護軍		
17세	吉甫	秀	高麗	忠烈王		僉議贊成事 上護軍		
17세	繼業	秀	高麗	忠肅王		大將軍	將軍公	
18세	安信	吉孫	高麗	忠肅王		判書		
18세	桓	吉甫	高麗	恭愍王		門下侍中	忠孝公	漆原
18세	橅	吉甫	高麗	恭愍王		右副代言	代言公	
18세	樟	吉甫	高麗	恭愍王		漆城君	漆城君	
18세	樺	吉甫	高麗	恭愍王		仁寧府左司尹	司尹公	
18세	桱	吉甫	高麗	恭愍王		判宗簿寺事	府院君	
18세	佺	繼業	高麗	忠定王		知密直司事	將軍公	
19세	天斅	桓	高麗	恭愍王	文科	寶文閣大提學	忠孝公	
19세	天義	橅	高麗	恭愍王		留守	代言公	
19세	天怡	橅	高麗	恭愍王		大殿左中禁衛諭郎將	代言公	交河
19세	天佑	橅	高麗	恭愍王		木川縣監	代言公	
19세	守常	佺	高麗	恭愍王		都僉議評理 藝文館提學	將軍公	
20세	懋	守常	高麗	恭愍王		判宗簿寺事	將軍公	

(2) 歷代官蹟(朝鮮)

① 文科錄(國朝榜目에 登載)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試種	官歷	派名	世居地
22세	碩輔	思	成宗	1472년임진	式年	直提學 淸白吏 贈吏曹參判	代言公	豊德
23세	豊亨	碩輔	成宗	1519년기묘	別試	吏曹參議 玉堂·湖堂 監司	代言公	楊州
25세	卓然	伊	宣祖	1565년을축	謁試	刑曹判書 判尹 監司	代言公	서울
25세	昌鳴	信	宣祖	1585년을유	別試	成均館學錄 贈吏曹參判	代言公	提川
25세	光遠	偉	宣祖	1586년병술	別試	兵曹佐郞	代言公	서울
26세	吉遠	卓然	宣祖	1590년경인	增試	藝文舘檢閱 入箕雅	代言公	서울
26세	遵悌	汝衡	宣祖	1590년경인	增試	成均館典籍	忠孝公	定山
26세	調元	昌鳴	宣祖	1603년계묘	式年	黃海道監司 上護軍	代言公	提川
26세	自莘	誠	宣祖	1606년병오	增試	刑曹正郞 贈吏曹參判	代言公	서울
27세	安基	喜元	宣祖	1639년기묘	式年	禮曹正郞	代言公	서울
28세	遇丁	有吉	顯宗	1662년임인	庭試	司憲府掌令 贈吏曹參判	代言公	唐津
28세	邦憲	滋	顯宗	1673년계축	式年	察訪	忠孝公	梧甲
29세	嘉績	遇丁	顯宗	1664년갑진	春塘台	公洪道監司	代言公	唐津
29세	致績	遇丁	顯宗	1669년기유	庭試	兵曹佐郞	代言公	唐津
29세	興績	鼎弼	肅宗	1683년계해	增試	兵曹佐郞	代言公	廣州
30세	志和	叙績	肅宗	1699년기묘	庭試	司諫院正官	代言公	서울
30세	志遠	維績	英祖	1728년무신	別試	司憲府掌令	代言公	豊德
30세	志泰	殷績	英祖	1735년을묘	增試	世子侍講院輔德	代言公	長湍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試種	官歷	派名	世居地
31세	東郊	世樞	肅宗	1708년무자	式年	渭原郡守 贈吏曹判書	府院君	筏橋
31세	敬周	志益	英祖	1728년무신	春塘台	世子侍講院 弼善	代言公	서울
31세	敬龍	志淳	英祖	1730년경술	庭試	公洪道監司 義州府尹	代言公	長湍
31세	一復	志述	英祖	1757년정축	庭試	靈光郡守	代言公	利川
32세	光國	敬直	英祖	1754년갑술	庭試	世子侍講院文學	代言公	서울
32세	師國	敬宗	英祖	1759년기묘	謁試	監司 判尹 判敦寧府事	代言公	서울
33세	志衡	就三	英祖	1747년정묘	式年	兵曹佐郎	府院君	筏橋
33세	陽昇	鶴齡	英祖	1763년계미	增試	成均館典籍	府院君	筏橋
36세	尙學	永顯	高宗	1864년갑자	別試	吏曹參議 侍講院詹事	代言公	鎭川

② 文科錄(舊簪纓譜에만 登載)

19세	邦抵	樺	太宗			議政府右贊成	司尹公	서울
19세	子當	樘	太宗			議政府左贊成	府院君	서울
19세	子良	樘	太宗			弘文館大提學	府院君	서울
20세	祖生	天敎	太宗			掌隷院判決事	忠孝公	青陽
21세	莘老	祖生	世宗			益山郡守	忠孝公	公州
21세	仲任	弼	世祖			龍川都護府使	忠孝公	青陽
23세	祺	蕃孫	世祖			別侍衛司果	忠孝公	青陽
23세	商佑	道源	明宗			司憲府監察	代言公	長興
24세	鶴	仲任	成宗			弘文館校理	忠孝公	華城
24세	自坪	輔商	中宗			司憲府監察	忠孝公	公州
26세	佑	春芸	宣祖			五衛都摠府都事	忠孝公	青陽
	逸莘	俊元				承政院注書		

③ 司馬試錄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20세	參	天怡	太祖	1393년계유	生員進士	典設署丞 贈通訓大夫 司憲府執義	代言公	豊德
20세	神生	天敎	世宗	1419년기해	生員	成均館生員	忠孝公	公州
21세	濟	神生	世祖	1461년신사	進士	成均館進士	忠孝公	公州
21세	思	參	世宗	1447년정묘	生員	贈刑曹參議	代言公	豊德
21세	達	神生	成宗		進士	司果	忠孝公	巨濟
22세	希奎	志	世宗	1436년병진	生員		代言公	長興
22세	碩輔	思	世祖	1462년임오	進士	直提學 淸白吏 贈吏曹參判	代言公	豊德
23세	仁佑	希奎	成宗	1486년병오	生員	宜寧縣監	代言公	長興
23세	自蕃	希哲	中宗		生員		代言公	晋州
23세	重亨	碩輔	中宗	1507년정묘	生員	右部將	代言公	서울
23세	德亨	碩輔	中宗	1510년경오	生員	贈司憲府執義	代言公	提川
23세	豊亨	碩輔	中宗	1516년병자	進士	江原道監司 玉堂·湖堂	代言公	華城
23세	興殷	菌	明宗	1561년신유	生員		司尹公	扶安
23세	殷佑	道源	明宗	1546년병오	生員	麗州牧使	代言公	長興
24세	自坤	輔商	明宗		進士		忠孝公	龍安
24세	寧	自蕃	中宗		進士		代言公	晋州
24세	友衡	良佐	中宗	1507년정묘	生員		忠孝公	麗州
24세	偉	重亨	中宗	1531년신묘	進士		代言公	서울
24세	伯	德亨	中宗	1510년경오	生員		代言公	大德
24세	憲	商佑	明宗		進士	憲陵參奉	代言公	羅州
25세	昌孫	漢臣	中宗		生員	成均館生員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25세	汝衡	自塘	中宗	1510년경오	進士		忠孝公	魯城
25세	卓然	伊	明宗	1558년무오	進士	刑曹判書 判尹 監司	代言公	서울
25세	粹然	伊	宣祖		進士	廣州牧使	代言公	長湍
25세	慶男	佾	宣祖	1585년을유	進士	宣陵參奉	代言公	華城
25세	昌鳴	信	宣祖	1579년기묘	進士	成均館學錄	代言公	提川
25세	知遠	偉	宣祖	1579년기묘	進士		代言公	서울
25세	光遠	偉	宣祖	1579년기묘	進士	兵曹佐郎	代言公	서울
25세	浩然	伊	宣祖	1588년무자	生員	永平縣令	代言公	長湍
25세	滄	憲	宣祖	1589년기축	進士	獻陵參奉	代言公	羅州
25세	萬齡	漢甫	中宗		生員		府院君	寶城
26세	俊	倚衡	中宗	1510년경오	進士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華城
26세	傑	倚衡	中宗		生員		忠孝公	華城
26세	禰	慶男	宣祖	1606년병오	進士	高靈縣監	代言公	華城
26세	謙	賢孫	中宗		進士	英陵參奉	府院君	寶城
26세	遵悌	汝衡	明宗	1561년신유	進士	成均館典籍	忠孝公	魯城
26세	承元	光遠	孝宗		進士	成均館進士	代言公	梁山
26세	慶元	卓然	宣祖	1582년임오	進士	陽城縣監 贈吏曹判書	代言公	서울
26세	吉元	卓然	宣祖	1582년임오	進士	藝文舘檢閱	代言公	서울
26세	自莘	誠	宣祖	1585년을유	生員	刑曹正郞 贈吏曹參判	代言公	서울
26세	世長	安邦	宣祖		進士		忠孝公	恩津
26세	調元	昌鳴	宣祖	1603년계묘	生員	黃海道監司 上護軍	代言公	提川
26세	復元	粹然	光海	1613년계축	生員進士	沔川郡守	代言公	長湍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26세	益元	粹然	宣祖	1606년병오	進士	漢城府庶尹	代言公	長湍
26세	傳然	春芷	宣祖	1603년계묘	生員		忠孝公	定山
26세	瀛	明遠	光海	1612년임자	進士		代言公	서울
26세	俊元	浩然	仁祖	1624년갑자	進士		代言公	서울
27세	殷鼎	俊	明宗		進士	木川縣監	忠孝公	華城
27세	殷台	傑	明宗	1546년병오	生員		忠孝公	華城
27세	壽民	祜	仁祖	1640년경진	進士	成均館進士	代言公	華城
27세	大任	誠	宣祖	1585년을유	生員	司憲府監察	府院君	寶城
27세	泰基	吉元	宣祖	1589년기축	進士	宣敎郎	代言公	서울
27세	保民	禧	燕山	1495년을묘	生員		代言公	華城
27세	殷老	涉	孝宗	1650년경인	生員		忠孝公	麗州
27세	彬	健	孝宗	1605년을사	進士	孝宗師傅	忠孝公	靑陽
27세	有吉	自莘	光海	1615년을묘	生員	平昌郡守 贈戶曺參判	代言公	서울
27세	啓基	慶元	光海	1617년정사	生員	漢城府判官	代言公	서울
27세	安基	喜元	仁祖	1627년정묘	生員	禮曹正郎 槐山郡守	代言公	서울
27세	正基	復元	仁祖	1633년계유	生員	義禁府都事	代言公	長湍
28세	寬	大僩	宣祖		生員	同知中樞府事 贈戶曺參判	府院君	寶城
28세	遇丁	有吉	仁祖	1642년임오	生員	司憲府掌令 贈吏曹參判	代言公	唐津
28세	遇甲	有吉	仁祖	1642년임오	生員	黃州牧判官	代言公	忠州
28세	遇明	泰基	肅宗	1675년을묘	進士	刑曹正郎	代言公	楊州
29세	完	安命	仁祖	1645년을유	進士	司僕寺主簿	忠孝公	華城
29세	致績	遇丁	孝宗	1652년임진	進士	兵曹佐郎	代言公	唐津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29세	叙績	遇丁	孝宗	1657년정유	生員進士	戶曹正郞 贈吏曹參判	代言公	서울
29세	嘉績	遇丁	顯宗	1663년계묘	進士	公洪道監司 公州牧使	代言公	唐津
29세	宣績	遇甲	顯宗	1663년계묘	進士		代言公	忠州
29세	忠績	必成	孝宗	1656년병신	進士		代言公	華城
29세	昌績	遇聖	肅宗	1682년임술	生員		代言公	陜川
29세	光績	遇商	肅宗	1696년병자	進士		代言公	서울
29세	最績	遇明	肅宗	1708년무자	生員進士	璿原殿參奉	代言公	陜川
29세	盛績	遇五	肅宗	1696년병자	進士	扶餘縣監	代言公	서울
29세	靖績	遇明	肅宗	1715년을미	進士		代言公	陜川
29세	相績	遇明	肅宗	1695년을해	進士		代言公	陜川
29세	維績	世弼	肅宗	1681년신유	生員	敦寧府都正	代言公	豊德
29세	大慶	應麟	光海	1616년병진	進士		府院君	楊州
30세	志任	敍績	光海	1677년정사	進士	丹陽郡守	代言公	서울
30세	志和	敍績	光海	1689년기사	進士	司諫院正言 贈吏曹判書	代言公	서울
30세	志淳	敍績	光海	1689년기사	進士	贈吏曹參判	代言公	서울
30세	志益	敍績	光海	1687년정묘	生員	司導寺僉正	代言公	麗州
30세	志源	致績	光海	1687년정묘	進士	平昌縣監	代言公	唐津
30세	志浩	嘉績	肅宗	1696년병자	進士		代言公	唐津
30세	志大	凝績	肅宗	1699년기묘	生員進士	加平郡守	代言公	鎭川
30세	志遜	宣績	肅宗	1708년무자	進士		代言公	忠州
30세	志述	景績	肅宗	1715년을미	進士	成均館掌議 贈吏曹判書	代言公	廣州
30세	德隣	盛績	肅宗	1715년을미	進士		代言公	서울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30세	德純	盛績	肅宗	1715년을미	進士		代言公	서울
30세	志遠	維績	肅宗	1719년기해	生員	司憲府掌令	代言公	豊德
30세	德新	靖績	景宗	1721년신축	進士		代言公	陜川
30세	德春	相績	英祖	1725년을사	進士		代言公	陜川
30세	志泰	殷績	景宗	1723년계묘	生員	世子侍講院輔德	代言公	長湍
30세	心泰	殷績	英祖	1756년병자	生員		代言公	長湍
31세	坤	彦弼	英祖		進士	縣監	忠孝公	春川
31세	敬宗	志知	肅宗	1699년기묘	進士		代言公	豊德
31세	敬龜	志淳	肅宗	1711년신묘	進士		代言公	서울
31세	敬龍	志淳	肅宗	1708년무자	進士	公州牧使 公洪道監司	代言公	長湍
31세	世東	鳳壽	英祖	1738년무오	進士		代言公	提川
31세	光茂	宗一	憲宗	1846년병오	生員	壽職同知中樞府事	代言公	高興
32세	光國	敬直	英祖	1726년병오	進士	世子侍講院文學	代言公	서울
32세	寅國	一復	英祖	1762년임오	進士	沔川郡守	代言公	鎭川
32세	靖國	敬性	正祖	1777년정유	進士		代言公	廣州
33세	載伋	師國	正祖	1777년정유	進士	韓山郡守	代言公	서울
33세	載奭	逸國	高宗	1888년무자	進士	懿寧園守奉官	代言公	華城
33세	載黃	明國	純祖	1803년계해	進士		代言公	長湍
33세	載輔	定國	純祖	1828년무자	進士	兎山縣監	代言公	長湍
33세	載近	忠國	純祖	1828년무자	進士		代言公	廣州
33세	載學	榮國	哲宗	1861년신유	生員	壽職同知中樞府事	代言公	南原
33세	象誼	載鍵	哲宗	1858년무오	進士		忠孝公	溫陽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科別	官歷	派名	世居地
34세	載信	昌國	正祖	1783년계묘	進士	南原都護府使	代言公	서울
34세	心誼	鳴國	正祖	1786년병오	進士		忠孝公	魯城
34세	復誼	載信	純祖	1814년갑술	進士	龍宮縣令	代言公	春川
34세	尙義	載興	高宗	1874년갑술	進士	成均館進士	代言公	陜川
35세	永進	復誼	憲宗	1848년무신	進士	戶曹佐郎	代言公	陜川
35세	永萬	晋誼	哲宗	1861년신유	進士	工曹佐郎	代言公	唐津
35세	永周	亨義	高宗	1885년을유	生員	彰陵參奉	代言公	鎭川
35세	永三	正義	高宗	1882년임오	進士	五衛將	代言公	서울
35세	永琦	行誼	純祖	1827년정해	進士		代言公	奉化
36세	光翼	映	純祖	1870년경오	進士		忠孝公	平澤
36세	祉學	永順	純祖	1879년기묘	進士		代言公	鎭川
36세	正學	永斗	純祖	1874년갑술	進士		忠孝公	梧甲
36세	庸學	永相	純祖	1893년계사	進士		代言公	陜川
37세	炳璣	周學	純祖		進士		將軍公	報恩

④ 武科錄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22세	希哲	志	世祖	1465년을유	郡守	代言公	長興
22세	莘遇	齊	世祖		慶興府使 兵曹參知	忠孝公	梧甲
23세	良佐	莘遇	成宗	1480년경자	熙川郡守	忠孝公	梧甲
23세	祉	蕃孫	中宗		內禁衛將	忠孝公	定山
23세	輔商	成啓	成宗		同副承旨	忠孝公	恩津
23세	遜	啓東	明宗		宣傳官	忠孝公	巨濟
24세	鵬	仲任	成宗	1474년갑오	興陽縣監 贈兵曹參判	忠孝公	青陽
24세	自塘	輔商	中宗	1540년경자	珍島郡守	忠孝公	恩津
24세	恕	殷佑	宣祖		訓鍊院判官	代言公	長興
24세	汝衡	良佐	成宗			忠孝公	楊平
25세	思忠	復	明宗		秉節校尉	司尹公	扶安
25세	思建	衎	明宗		奉事	司尹公	扶安
25세	達莘	念	光海	1621년신유	訓鍊院判官	代言公	長興
26세	健	春蘭	宣祖	1582년임오 重試	仁川府使 贈吏曹判書	忠孝公	青陽
26세	翊	璘	仁祖		訓鍊院主簿	忠孝公	定山
26세	儀	春荃	宣祖		主簿	忠孝公	青陽
26세	慶秀	翰	仁祖		副護軍	忠孝公	青陽
26세	莘覺	思忠	宣祖		奉事	司尹公	扶安
26세	祜	慶男	光海	1613년계축	司憲府監察	代言公	華城
26세	補	懿男	宣祖			代言公	華城
26세	天衡	聘莘	仁祖			代言公	長興
26세	謙	殷鳴	宣祖		宣傳官	代言公	提川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27세	大儇	謙	宣祖		漢城府主簿 贈戶曹參判	府院君	寶城
27세	邦振	莘發	肅宗		秉節校尉	司尹公	扶安
27세	大仁	紀雲	仁祖			代言公	羅州
27세	從憲	遵誠	宣祖		部將	忠孝公	恩津
27세	之殷	亨遜	仁祖		禦侮將軍	忠孝公	龍安
27세	殷傑	涉			縣令	忠孝公	楊平
27세	涵	仁慶				忠孝公	楊平
27세	沃	承元	宣祖		僉知中樞府事 折衝將軍	代言公	梁山
27세	潑	承元	宣祖		萬戶 訓鍊院正	代言公	梁山
28세	安性	殷鼎	宣祖		通政大夫 肅川都護府使	忠孝公	華城
28세	安民	殷台	宣祖		折衝將軍 永宗防禦使	忠孝公	華城
28세	守一	商梅	肅宗	1676년병진	副司果	忠孝公	靑陽
28세	繼業	德麟	宣祖			忠孝公	恩津
28세	元莘	舜懋	肅宗		秉節校尉	代言公	漆原
28세	商華	衡立	肅宗	1681년신유	主簿	代言公	漆原
28세	商佑	衡立	肅宗	1681년신유	宣傳官	代言公	漆原
28세	之甲	敏行	宣祖			代言公	提川
28세	廷輔	殷傑	宣祖		監察	忠孝公	利川
29세	元覃	濯	宣祖		主簿	府院君	寶城
29세	南海	希焞	宣祖		主簿	府院君	寶城
29세	紡	衡一	顯宗			忠孝公	靑陽
29세	時達	浣	仁祖	1649년기축	三道統御使 贈兵曹判書	忠孝公	溫陽
29세	時建	浣	仁祖		熙川郡守	忠孝公	定山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29세	時進	浣	顯宗	1665년을사	朔州都護府使	忠孝公	定山
29세	時逸	浣	肅宗	1676년병진	宣傳官	忠孝公	定山
29세	宇	安命	光海		僉正	忠孝公	華城
29세	德璘	以天	宣祖			府院君	寶城
29세	寬	安性	光海		宣傳官	忠孝公	華城
30세	亢	起莘	仁祖		部將	府院君	統營
30세	瑞	元覃	仁祖		判官	府院君	統營
30세	時翼	興莘	仁祖		主簿	府院君	寶城
30세	聖來	殷相	肅宗	1702년임오		代言公	漆原
30세	一商	時達	肅宗	1676년병진	慶尙右道兵馬節度使	忠孝公	溫陽
30세	潢	宗立	顯宗	1660년경자	工曹參議	忠孝公	平澤
30세	志學	就績	肅宗	1717년정유	宣傳官	代言公	廣州
30세	世章	天綱	顯宗		杆城郡守	府院君	寶城
31세	春回	珍	光海		守門將	府院君	統營
31세	逸南	大成	宣祖			府院君	寶城
31세	佑商	亢	顯宗		僉正	府院君	統營
31세	佑湯	英男	孝宗		臨淄萬戶	府院君	寶城
31세	五殷	時衡	顯宗		宣傳官	府院君	寶城
31세	憲	彦弼	肅宗		訓鍊院奉事	忠孝公	春川
31세	三徵	潢	肅宗	1688년무진	宣傳官	忠孝公	平澤
31세	敬一	志淵	英祖	1731년신해	豊川都護府使	代言公	서울
31세	五徵	沃	肅宗			忠孝公	平澤
31세	恬	彦英	顯宗	1672년임자	熊川縣監	忠孝公	華城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31세	聖五	翊商	英祖	1728년무신	端川都護府使	忠孝公	定山
31세	聖臣	以商	英祖	1725년을사	宣傳官	忠孝公	定山
31세	傳	由莘	宣祖			忠孝公	華城
32세	天覺	應聘	肅宗		監察	府院君	寶城
32세	檀	佑湯	肅宗		主簿	府院君	寶城
32세	商虞	惕	肅宗		壽職僉知	忠孝公	華城
32세	大任	時中	顯宗			府院君	寶城
32세	聖任	時中	肅宗		主簿	府院君	寶城
32세	彥佐	三徵	英祖	1726년병오	宣川都護府使	忠孝公	平澤
32세	隆訓	憲	英祖			忠孝公	春川
32세	隆諸	憲	英祖			忠孝公	春川
32세	隆臣	憲	英祖		禦侮將軍	忠孝公	春川
33세	興立	天覺	英祖		漢城府主簿	府院君	寶城
33세	商鳴	弘	顯宗			府院君	統營
33세	商弼	弘	顯宗		訓練院僉正	府院君	統營
33세	載鐸	羲國	純祖	1805년을축	全羅右水使	忠孝公	溫陽
33세	載鍵	羲國	純祖	1805년을축	慶尙左兵使	忠孝公	溫陽
33세	相	應佐	英祖	1768년무자	禦侮將軍	忠孝公	華城
33세	載熙	範國	純祖	1816년병자	五衛將	代言公	鎭川
34세	得完	栻	正祖	1783년계묘	司果	忠孝公	華城
34세	得燁	相	純祖	1806년병인	竹山都護府使	忠孝公	平澤
34세	致誼	載鐸	純祖	1829년기축	忠淸兵使 副摠管	忠孝公	溫陽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34세	得衡	積	哲宗	1855년을묘		忠孝公	平澤
34세	恒義	載熙	高宗	1885년을유	五衛將	代言公	鎭川
35세	曔	得心	憲宗	1837년정유	高山僉使	忠孝公	平澤
35세	曔	得永	憲宗	1837년정유	礪山府使	忠孝公	平澤
35세	映	得燁	憲宗	1840년경자	仁川府使	忠孝公	平澤
35세	永夏	定誼	哲宗	1851년신해	東萊水使	忠孝公	溫陽
35세	皓	得衡	憲宗			忠孝公	平澤
35세	暎	得衡	憲宗		宣傳官	忠孝公	平澤
35세	永植	秉誼	哲宗	1856년병진		忠孝公	溫陽
35세	永周	秉誼	哲宗	1855년을묘		忠孝公	溫陽
35세	永殷	定誼	高宗	1864년갑자	鐵山府使	忠孝公	溫陽
35세	永泰	綱義	高宗		副司果	忠孝公	論山
35세	永瑞	萬誼	高宗	1873년계유		忠孝公	溫陽
35세	永瑄	碩誼	高宗	1886년병술		忠孝公	定山
35세	永世	暎誼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壽	亨誼	高宗		五衛將	忠孝公	溫陽
36세	景根	永魯	高宗	1886년병술內試	宣傳官	忠孝公	溫陽
36세	榮根	永華	高宗	1893년계사	中樞院議官	忠孝公	赤谷
36세	光斗	曔	哲宗	1852년임자	司果	忠孝公	平澤
36세	光秀	馨	哲宗	1863년계해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華城
36세	光翼	映	高宗	1872년임신	南行別軍	忠孝公	平澤
36세	光軾	永祚	哲宗	1860년경신	安峽縣監	忠孝公	平澤

世數	諱	父	年代	年榜	官歷	派名	世居地
36세	光元	瞰	哲宗	1858년무오	宣傳官	忠孝公	平澤
36세	敏學	泳漢	高宗	1866년병인	中樞院議官	忠孝公	靑陽
36세	明根	永植	高宗	1871년신미	防禦使	忠孝公	溫陽
36세	昌根	永夏	高宗	1872년임신	廣州府尹	忠孝公	溫陽
36세	鎭根	泳漢	高宗	1881년신사別試	展力副尉	忠孝公	靑陽
36세	性學	永三	高宗	1867년정묘		代言公	서울
36세	善學	永三	高宗	1882년임오		代言公	서울
36세	周學	永喆	高宗		宣傳官	將軍公	報恩
37세	岐善	光軾	高宗	1870년경오	彦陽縣監	忠孝公	平澤
37세	容善	光宙	高宗	1867년정묘	戶曹佐郎	忠孝公	華城
37세	鎬善	光軾	哲宗	1859년기미	渭原郡守	忠孝公	平澤
37세	箕善	光軾	高宗	1885년을유	侍從院侍從	忠孝公	平澤
37세	龜善	光轍	高宗	1874년갑술	興海郡守	忠孝公	平澤
37세	翊善	光秀	高宗	1891년신묘	宣傳官	忠孝公	華城
37세	昌善	光斗	高宗		副司果	忠孝公	平澤
37세	龍善	光翼	高宗	1885년을유	副司果	忠孝公	平澤
37세	鳳善	光翼	高宗	1885년을유	副司果	忠孝公	平澤
37세	容善	光宙	高宗	1867년정묘	戶曹佐郎	忠孝公	華城
38세	敎稷	行善	高宗	1885년을유	副司果	忠孝公	華城
38세	敎益	恒善	高宗	1888년무자	宣傳官	忠孝公	華城
38세	來遠	炳一	高宗	1891년신묘		忠孝公	定山
38세	亨遠	岐善	高宗	1885년을유	仁遮萬戶	忠孝公	平澤

⑤ 蔭敍錄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19세	邦昌	樺	太宗	禮曹參判	司尹公	서울
19세	邦抵	樺	太宗	議政府右贊成	司尹公	서울
19세	邦興	樺	世宗	護軍	司尹公	서울
19세	子當	栓	太宗	慶尙右道水軍都節制使 左贊成	府院君	서울
19세	子良	栓	太宗	弘文館大提學 漢城判尹	府院君	서울
20세	祖生	天戰	太宗	通政大夫 掌隷院判決事	忠孝公	定山
20세	作	邦抵	太宗	縣監	司尹公	定山
20세	世安	子良	太宗	判軍器寺事 藝文侍敎	府院君	寶城
20세	光佑	天戰	太宗	郎將	忠孝公	陰城
21세	淵	祖生	太宗	司直	忠孝公	
21세	迪	祖生	太宗	忠順衛	忠孝公	河東
21세	莘老	祖生	太宗	益山郡守	忠孝公	公土
21세	莘忠	祖生	太宗	司直	忠孝公	定山
21세	齊	光佑	太宗	護軍	忠孝公	梧甲
21세	繼祖	作	世祖	禦侮將軍	司尹公	扶安
21세	保	世安	世宗	朝奉大夫 知蔚州事	府院君	寶城
21세	居正	懋	世宗	開城庶尹	將軍公	報恩
21세	衡	祖生	世宗	集賢殿校理	忠孝公	靑陽
21세	志	參	世宗	集賢殿學士 大司諫	代言公	長興
22세	興磻	衡	世祖	牧師	忠孝公	靑陽
22세	奉	保	世祖	知春秋館事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2세	成啓	濟	成宗	龍驤衛後部司正	忠孝公	公州
22세	蕃孫	莘忠	成宗	淸安縣監	忠孝公	定山
22세	道源	志	成宗	習讀官 贈吏曺判書	代言公	長興
22세	圭	强明	成宗	德川郡守	司尹公	扶安
23세	仲卿	奉	世祖	司直	府院君	長興
23세	碩堅	跡	世祖	司果	將軍公	報恩
23세	文亨	碩輔	中宗	內贍寺判官	代言公	豊德
23세	商佑	道源	明宗	司憲府監察	代言公	長興
23세	龍佑	道源	明宗	憲陵參奉	代言公	長興
24세	仲衡	良佐	中宗	濟州牧師	忠孝公	麗州
24세	儼	重亨	中宗	副司果 贈司憲府執義	代言公	서울
24세	侃	重亨	中宗	副司果	代言公	서울
24세	信	德亨	中宗	平邱察訪 贈左承旨	代言公	提川
24세	佾	豊亨	中宗	西部參軍	代言公	華城
24세	抹亨	遜	成宗	靑松府使	忠孝公	巨濟
24세	世衡	良佐	中宗	德川郡守	忠孝公	麗州
24세	自均	輔商	明宗	孟山縣監	忠孝公	恩津
24세	惠	商佑	宣祖	禮賓寺參奉	代言公	長興
24세	漢從	仲卿	中宗	司直	府院君	寶城
24세	漢元	仲卿	中宗	主簿	府院君	寶城
24세	漢冏	仲卿	中宗	副護軍	府院君	寶城
25세	誠	儼	明宗	司果 贈左承旨	代言公	鎭川
25세	賢孫	漢冏	中宗	司憲府監察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5세	元孫	漢從	成宗	水軍節制使	府院君	寶城
25세	亨孫	漢從	成宗	吉州牧使	府院君	寶城
25세	殷孫	漢元	成宗	展力副尉	府院君	寶城
25세	承輔	抹亨	宣祖	訓鍊院僉正	忠孝公	巨濟
25세	恩仝	自坤	中宗	主簿	忠孝公	龍安
25세	玠輔	抹亨	宣祖	贈秉節校尉	忠孝公	巨濟
25세	春蘭	鵬	中宗	副司果 贈左贊成	忠孝公	青陽
25세	耕莘	念	宣祖	訓鍊院僉正	代言公	長興
25세	淑	惠	孝宗	掌隷院司評	代言公	長興
25세	忠男	佾	宣祖	宣敎郎 贈左承旨	代言公	華城
25세	春荃	鵬	中宗	司贍寺參奉	忠孝公	定山
25세	居衡	鶴	中宗	監察	忠孝公	華城
26세	世希	昌孫	明宗	漢城左尹	府院君	寶城
26세	誠	賢孫	明宗	軍資監正	府院君	寶城
26세	春	大亨	宣祖	部將	忠孝公	青陽
26세	亨孫	恩仝	明宗	參事	忠孝公	龍安
26세	榮祥	承輔	宣祖	訓鍊院僉正	忠孝公	巨濟
26세	壽	聘	宣祖	司直	漆城君	서울
26세	興良	承輔	宣祖	訓鍊院副正	忠孝公	巨濟
26세	讚元	昌鳴	宣祖	淸安縣監	代言公	提川
26세	東野	滄	仁祖	獻陵參奉	代言公	羅州
26세	敏道	讚元	肅宗	連山縣監	代言公	提川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6세	祥	忠男	宣祖	麟蹄縣監	代言公	華城
26세	儉	春荃	宣祖	司果 淸亂原從功臣	忠孝公	서울
26세	世憲	彦邦	中宗	義禁府都事	忠孝公	恩津
27세	天文	遵孝	明宗	禮賓寺僉正	忠孝公	定山
27세	嗣源	興良	宣祖	察訪	忠孝公	巨濟
27세	任莘	春	光海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靑陽
27세	承基	益元	仁祖	監役	代言公	長湍
27세	民基	益元	仁祖	義禁府都事	代言公	長湍
27세	三顧	衍	仁祖	司憲府監察	將軍公	報恩
27세	大休	謙	中宗	同知中樞府事	府院君	寶城
28세	宋	大倜	仁祖	司僕寺正	府院君	筏橋
28세	希中	大休	明宗	軍資監正	府院君	筏橋
28세	浣	天祿	仁祖	義禁府都 事贈吏曹參議	忠孝公	溫陽
28세	湛	天祥	宣祖	察訪	忠孝公	靑陽
28세	遇聖	泰基	肅宗	敬陵參奉	代言公	陜川
29세	弘績	遇泰	肅宗	宜寧縣監	代言公	陜川
29세	尙績	遇甲	肅宗	平市署令	代言公	忠州
29세	大亨	應麟	仁祖	金川縣監	府院君	서울
29세	大任	應麟	仁祖	居昌府使 寧國原從功臣	府院君	서울
29세	懋績	遇賢	肅宗	判官	代言公	陜川
29세	景績	遇丁	肅宗	世子翊衛司翊衛	代言公	利川
29세	鵬	世珍	仁祖	訓鍊元僉正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9세	遇三	湛	孝宗	副護軍	忠孝公	定山
29세	應三	湛	顯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29세	二敏	善先	肅宗	嘉善大夫	漆城君	서울
29세	五敏	善伯	肅宗	參議	漆城君	서울
29세	起莘	凊	仁祖	麗州牧師	府院君	寶城
29세	殷鳴	璡	肅宗	副司果	將軍公	報恩
30세	商佑	大亨	肅宗	察訪	府院君	서울
30세	倚衡	鶴	中宗	文川郡守 贈同知中樞府事	忠孝公	華城
30세	彦弼	世遜	肅宗	高城郡守	忠孝公	春川
30세	德基	重三	孝宗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30세	英男	鵬	顯宗	訓鍊院主簿	府院君	寶城
31세	佑商	世標	英祖	參奉	府院君	筏橋
31세	琠	商老	英祖	主簿	府院君	서울
31세	敬殷	志一	肅宗	四山監役官	代言公	서울
31세	敬學	鎭邦	高宗	五衛將	代言公	光州
31세	敬老	五聘	正祖	司僕寺正	忠孝公	巨濟
32세	汝聘	佑商	仁祖	宣傳官	府院君	統營
32세	徵三	佑商	英祖	童蒙敎官	府院君	筏橋
32세	泰國	敬龜	英祖	龍仁縣令	代言公	鎭川
33세	載五	衡國	正祖	河陽縣監	代言公	서울
33세	載元	漢國	高宗	中樞院議官	司尹公	扶安
33세	載殷	定國	憲宗	副司果	代言公	漆原

世數	諱	父	王朝	官歷	派名	世居地
33세	載昊	致國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高興
33세	載燁	閏國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高興
33세	載默	善國	正祖	通德郎	忠孝公	溫陽
33세	載修	鼎國	純祖	通德郎	代言公	鎭川
33세	載復	履臣	英祖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33세	載若	三龍	憲宗	資憲大夫 經筵·春秋館正	忠孝公	巨濟
33세	載佑	商臣	高宗	禦侮將軍 副護軍	代言公	宜寧
33세	載善	順國	正祖	嘉善大夫	代言公	서울
33세	載源	欽衡	哲宗	靑松都護府使 司僕寺正	忠孝公	巨濟
34세	益辰	載允	哲宗	貞陵參奉	忠孝公	巨濟
34세	愿誼	載奎	哲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忠孝公	巨濟
34세	秉誼	載默	純祖	通德郎	忠孝公	溫陽
34세	定誼	載鍵	憲宗	通德郎	忠孝公	溫陽
34세	弘誼	載活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昌原
34세	從義	載伋	哲宗	通德郎	代言公	論山
34세	行義	載修	純祖	通德郎	代言公	鎭川
34세	聖誼	載坤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靈山
34세	極誼	載珉	憲宗	副護軍兼五衛將	代言公	漆原
34세	仁誼	載珉	哲宗	副護軍兼五衛將	代言公	漆原
34세	泓誼	載佑	高宗	司憲府監察	代言公	宜寧
34세	壽誼	載均	高宗	敬陵參奉	代言公	宜寧
34세	達義	載孝	高宗	章陵參奉	代言公	昌寧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4세	明義	載殷	高宗	忠勳府都事	代言公	昌寧
34세	秉誼	載環	高宗	懿寧園守奉官	代言公	柳山
34세	履誼	載五	純祖	漣川縣監	代言公	서울
34세	聲誼	載俊	高宗	監役官	代言公	扶餘
34세	在信	泰權	高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府院君	筏橋
34세	点義	載善	純祖	嘉善大夫	代言公	서울
34세	漢義	載百	純祖	吏曹參判	代言公	大田
35세	心鉉	在益	純祖	童蒙敎官	將軍公	報恩
35세	永錫	衡義	哲宗	軍威縣監	代言公	鎭川
35세	永顯	秉義	高宗	江東縣監	代言公	鎭川
35세	永覺	莘興	哲宗	通德郞	代言公	咸安
35세	永常	從義	哲宗	對策三政蒙恩賜	代言公	論山
35세	邦鉉	在龍	高宗	通德郞	府院君	寶城
35세	永兆	瓚誼	純祖	通德郞	府院君	서울
35세	永旭	弼誼	高宗	忠義參事	忠孝公	巨濟
35세	永基	得誼	高宗	副司果	忠孝公	平澤
35세	永周	俊誼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燁	必誼	高宗	昭陵參奉(孝薦)	忠孝公	巨濟
35세	永瑄	杜誼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安城
35세	永琳	仁誼	高宗	淑陵參奉	代言公	漆原
35세	永弼	晋誼	高宗	司憲府監察	代言公	唐津
35세	永錫	衡義	高宗	軍威縣監	代言公	鎭川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5세	永晚	采義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鎭川
35세	永翰	聖誼	高宗	彰陵參奉	代言公	昌寧
35세	永鍵	亨義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鎭川
35세	永華	明義	高宗	彰陵參奉	代言公	茂州
35세	永善	進誼	高宗	內部參書	代言公	南原
35세	永魯	聲誼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扶餘
35세	永昌	明義	高宗	貞陵參奉	代言公	漆原
35세	永翊	殷誼	高宗	通訓大夫	代言公	柳山
35세	永稷	殷誼	高宗	漆原郡守	代言公	柳山
35세	永日	漢義	高宗	宮內府委員	代言公	大田
35세	弼鉉	在龍	高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府院君	寶城
35세	永達	尙義	高宗	秘書監丞	代言公	陜川
35세	永俊	命誼	哲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5세	永炳	仁烈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道	汝俊	高宗	義禁府都事	忠孝公	巨濟
35세	永奎	斗誼	高宗	敦寧府都正	忠孝公	靑陽
35세	永泰	綱義	高宗	副司果	忠孝公	論山
35세	永昌	綱義	高宗	順陵參奉	忠孝公	論山
35세	永大	綱義	高宗	折衝將軍 全羅右道水使	忠孝公	論山
35세	永碩	鳳誼	高宗	英陵參奉	忠孝公	溫陽
35세	永宰	赫誼	高宗	健元陵參奉	忠孝公	定山
35세	永烈	弘俊	高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忠孝公	巨濟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5세	永淳	弘俊	高宗	弘陵參奉	忠孝公	巨濟
35세	琪周	繼眞	高宗	司果	忠孝公	巨濟
35세	永杓	度誼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現	鴻誼	高宗	巨濟郡主事	忠孝公	巨濟
35세	浣吉	点義	憲宗	通政大夫	代言公	서울
35세	聖銖	采完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서울
35세	永權	學殷	高宗	崇政大夫	代言公	서울
35세	永道	鵬誼	高宗	洪陵參奉	忠孝公	巨濟
35세	永煥	昌誼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柱	鴻誼	高宗	童蒙敎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哲	忠誼	高宗	宮內部主事兼忠義參事	代言公	서울
35세	永律	起誼	高宗	中樞院議官	代言公	
36세	敦學	永鈺	高宗	綏陵參奉	忠孝公	益山
36세	明學	永萬	高宗	同知義禁府事・同知敦寧府事	忠孝公	論山
36세	秉學	永萬	高宗	同知中樞府事・敦寧府都正	忠孝公	扶餘
36세	盛學	應漢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青陽
36세	景根	永魯	高宗	宣傳官	忠孝公	溫陽
36세	榮根	永華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青陽
36세	文學	泰殷	高宗	宮內府主事	忠孝公	青陽
36세	道學	弼殷	高宗	副護軍 同知中樞府事・敦寧府都正	府院君	筏橋
36세	鳳學	琦殷	高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府院君	筏橋
36세	孟學	柱鉉	高宗	敦寧府都正 贈戶曹參判	府院君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6세	敏學	邦鉉	高宗	禮曹參議	府院君	寶城
36세	邦學	珽鉉	高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府院君	寶城
36세	璟根	永權	高宗	弘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鉉學	永佐	高宗	元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禹根	永周	高宗	司諫院正言	忠孝公	巨濟
36세	瑢根	永世	高宗	惠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正學	永君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6세	浩根	永秀	高宗	副摠管	忠孝公	巨濟
36세	仲學	永旻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6세	幸根	永業	高宗	懿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文學	永權	高宗	宮內府主事	忠孝公	巨濟
36세	元根	永又	高宗	貞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英學	永彦	高宗	副護軍	忠孝公	巨濟
36세	龍學	永寬	高宗	貞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季學	永日	高宗	訓鍊院僉正	忠孝公	巨濟
36세	處學	永敏	高宗	管理署主事	忠孝公	巨濟
36세	奎學	永鼎	高宗	監役官(陞耆社)	忠孝公	梧甲
36세	殷學	永八	高宗	副護軍	代言公	陝川
36세	泰學	永極	高宗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代言公	陝川
36세	正學	永極	高宗	敬陵參奉	代言公	陝川
36세	智學	永誼	高宗	司果	代言公	陝川
36세	性學	永萬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唐津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6세	情學	永弼	高宗	義禁府都事	代言公	唐津
36세	淳學	永達	高宗	順陵參奉	代言公	陝川
36세	昌學	永達	高宗	漢城府主事	代言公	陝川
36세	昌學	永翰	高宗	宮內府主事	代言公	大田
36세	在說	光華	高宗	秘書院丞	代言公	梁山
36세	致說	光華	高宗	中樞院議官	代言公	梁山
36세	鳳學	永鈺	高宗	司憲府監察	代言公	靈山
36세	榮禎	淙文	高宗	參奉	代言公	서울
36세	奉根	永稷	高宗	淑陵參奉	代言公	柳山
36세	新說	光連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梁山
36세	希誠	泓定	高宗	江陵郡守	漆城君	서울
36세	夔學	永稷	高宗	宮內府主事	漆城君	서울
36세	命學	永求	高宗	度支部主事	漆城君	서울
36세	命學	永浩	高宗	洪陵參奉	將軍公	報恩
36세	壽學	煥殷	高宗	通政大夫	府院君	筏橋
36세	侑學	永龜	高宗	工曹參議	將軍公	報恩
36세	昌學	永萬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扶餘
36세	有根	永秀	高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6세	致學	永植	高宗	副護軍	忠孝公	益山
36세	基學	致曦	高宗	惠陵參奉	忠孝公	巨濟
36세	勉學	永兆	憲宗	通德郎	忠孝公	서울
37세	命卿	景臣	純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寶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7세	炳文	敏學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靑陽
37세	炳夏	敏學	高宗	通德郎	忠孝公	靑陽
37세	行善	光宙	高宗	通德郎	忠孝公	華城
37세	恒善	光宙	高宗	通德郎	忠孝公	華城
37세	炳直	聖根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靑陽
37세	炳周	尙學	高宗	通德郎	代言公	鎭川
37세	之殷	起說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梁山
37세	炳文	新說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梁山
37세	致寬	光勳	哲宗	通政大夫	府院君	巨濟
37세	泰善	光轍	高宗	侍從院侍御	忠孝公	平澤
37세	大善	光協	高宗	中學敎官	忠孝公	平澤
37세	鶴善	光奎	高宗	副司勇	忠孝公	華城
37세	炳泰	景學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論山
37세	炳鎭	致命	高宗	戶曹參議	府院君	高興
37세	炳純	致命	高宗	秘書院丞	府院君	高興
37세	炳文	之學	高宗	睦陵參奉	府院君	筏橋
37세	炳植	廷學	高宗	中樞院議官	府院君	筏橋
37세	炳斗	致玟	高宗	章陵參奉	府院君	寶城
37세	炳皓	孟學	高宗	副護軍	府院君	寶城
37세	炳志	敏學	高宗	順陵參奉	府院君	寶城
37세	炳悅	奎學	高宗	副護軍	府院君	寶城
37세	炳漢	弼學	高宗	宮內府主事	忠孝公	扶餘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7세	炳甲	成學	高宗	明陵參奉	忠孝公	青陽
37세	炳斗	鎭根	高宗	禧陵參奉	忠孝公	青陽
37세	炳弼	明學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沃溝
37세	炳煥	辰學	高宗	司憲府監察	忠孝公	益山
37세	炳壽	麟學	高宗	恭陵參奉	忠孝公	青陽
37세	炳植	廷學	高宗	中樞院議官	府院君	筏橋
37세	炳弼	連根	高宗	學部參書官	忠孝公	青陽
37세	炳奎	濟根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7세	炳周	武洪	高宗	禮曹正郎	忠孝公	巨濟
37세	炳俊	處學	高宗	管理署主事	忠孝公	巨濟
37세	炳守	孟學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7세	炳京	殷學	高宗	貞陵參奉	忠孝公	巨濟
37세	炳烈	貞學	高宗	學部教員	忠孝公	楊平
37세	炳準	殷學	高宗	中樞院議官	代言公	陜川
37세	炳玉	敏學	高宗	徽陵參奉	代言公	唐津
37세	炳奎	情學	高宗	穆陵參奉	代言公	唐津
37세	炳虎	尙學	高宗	貞陵參奉	代言公	鎭川
37세	炳漢	鳳學	高宗	參尉 英親王冠禮典衛	代言公	鎭川
37세	炳萬	榮克	高宗	副司果	代言公	서울
37세	重燁	榮春	高宗	副護軍	代言公	서울
37세	炳碩	致命	高宗	同知中樞府事	府院君	高興
37세	炳順	興學	高宗	敎寧府都正	忠孝公	益山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7세	炳徽	元學	高宗	司憲府監察	忠孝公	沃溝
38세	赫遠	大善	高宗	法部主事	忠孝公	平澤
38세	敬元	鎬善	高宗	侍從院侍御	忠孝公	平澤
38세	達遠	箕善	高宗	度支部主事	忠孝公	平澤
38세	寅遠	龜善	高宗	厚陵參奉	忠孝公	平澤
38세	慶遠	炳一	高宗	顯陵參奉	忠孝公	定山
38세	來遠	炳世	高宗	宮內府參書官	忠孝公	靑陽
38세	馨遠	炳弼	高宗	學部主事	忠孝公	靑陽
38세	埶	炳周	高宗	洪陵典衛	代言公	鎭川
38세	成鶴	相殷	高宗	中樞院議官	代言公	梁山
38세	貞遠	重燁	高宗	鎭衛隊參校	代言公	서울
38세	摯遠	師行	哲宗	同知中樞府事	府院君	昇州
38세	寬遠	師任	高宗	同知中樞府事	府院君	昇州
38세	明遠	師邦	高宗	義禁府都事	府院君	高興
38세	琪遠	炳鎭	高宗	司僕寺正	府院君	高興
38세	洪遠	炳純	高宗	明陵參奉	府院君	高興
38세	誠遠	炳莘	高宗	秘書院丞	府院君	筏橋
38세	啓遠	炳勳	高宗	貞陵參奉	府院君	寶城
38세	奎遠	炳萬	高宗	侍從院侍御	代言公	서울
39세	鍾鐸	鳳遠	高宗	璿源閣參奉	忠孝公	靑陽
39세	錫起	奎遠	高宗	參奉	代言公	서울
39세	學律	致寬	高宗	以孝童蒙敎官	府院君	巨濟

⑥ 贈職錄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1세	思	參	世宗	刑曹參議	代言公	豊德
21세	齊	光佑	世宗	護軍 贈兵曹參判	忠孝公	梧甲
24세	伊	文亨	中宗	司醞署令 贈領議政	代言公	서울
24세	復	起殷	明宗	戶曹參議	司尹公	扶安
25세	齊衡	輔	宣祖	司憲府執義	將軍公	報恩
26세	挺莘	誠	仁祖	工曹參判 同知義禁府事	代言公	鎭川
26세	衎	齊衡	仁祖	司憲府執義	將軍公	報恩
27세	天祿	遵悌	宣祖	吏曹參議	忠孝公	定山
28세	弼夏	鼎莘	肅宗	軍資監正	忠孝公	河東
28세	淑	天龍	光海	軍資監正	忠孝公	定山
28세	五謙	燦然	肅宗	軍資監正	忠孝公	廣州
28세	應麟	鎔	宣祖	刑曹判書 都摠管	府院君	서울
29세	世龍	弼夏	英祖	工曹參議	忠孝公	河東
29세	綏	衡一	肅宗	戶曹參判	忠孝公	公州
29세	興三	湛	宣祖	軍資監正	忠孝公	青陽
29세	聘三	湛	宣祖	司憲府掌令	忠孝公	青陽
29세	重三	湛	顯宗	通德郎	忠孝公	青陽
29세	廷斗	五謙	英祖	工曹參議	代言公	廣州
29세	休績	必重	正祖	司僕寺正	代言公	華城
29세	震績	必重	正祖	司僕寺正	代言公	華城
29세	載績	遇乙	肅宗	刑曹參判	代言公	陜川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9세	商舟	希夫	肅宗	左承旨	府院君	寶城
29세	卓立	寬	光海	戶曹參議	府院君	筏橋
29세	斯任	宋	仁祖	掌樂院正	府院君	筏橋
29세	斯殷	宋	肅宗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筏橋
30세	志任	世龍	正祖	漢城府右尹 副摠管	忠孝公	河東
30세	鎭邦	廷斗	正祖	漢城府左尹 副摠管	代言公	廣州
30세	彦臣	完	肅宗	戶曹參判	忠孝公	華城
30세	楷	時商	肅宗	副護軍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30세	弘基	興三	肅宗	戶曹參議	忠孝公	定山
30세	志衡	休績	純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代言公	華城
30세	志天	震績	正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代言公	華城
30세	永夫	商舟	英祖	戶曹參判	府院君	寶城
30세	世標	卓立	仁祖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	府院君	筏橋
30세	世楷	斯任	肅宗	戶曹參議	府院君	筏橋
30세	世樞	斯殷	肅宗	左承旨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	府院君	筏橋
31세	聖龜	一商	英祖	左承旨	忠孝公	溫陽
31세	敬宗	志和	肅宗	左贊成 判義禁府事 都摠管	代言公	豊德
31세	敬默	志衡	純祖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	代言公	華城
31세	秣雲	永夫	英祖	吏曹參判	府院君	寶城
31세	東堣	世捲	英祖	軍資監正	府院君	筏橋
31세	佑仁	世楷	肅宗	戶曹參判	府院君	筏橋
31세	敬一	志任	純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河東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1세	一柱	弘基	英祖	戶曹參判 副摠管	忠孝公	定山
31세	敬鼎	志天	純祖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	代言公	華城
31세	惇	彦臣	肅宗	戶曹參判	忠孝公	華城
31세	愉	彦臣	英祖	戶曹參判	忠孝公	華城
31세	愓	彦承	肅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華城
31세	敬燧	明誼	正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忠孝公	定山
31세	齊煥	昌道	純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青陽
31세	得煥	昌德	正祖	戶曹參判	忠孝公	青陽
32세	輔國	敬五	純祖	漢城府右尹 副摠管	忠孝公	河東
32세	鳴國	尙采	英祖	司僕寺僉正	忠孝公	青陽
32세	應佐	文徵	英祖	掌樂院正	忠孝公	華城
32세	義國	敬燧	正祖	吏曹參判	忠孝公	定山
32세	範國	得煥	憲宗	同知中樞府事兼同知敦寧府事	忠孝公	青陽
32세	善國	聖龜	正祖	兵曹參判	忠孝公	溫陽
32세	毅達	鳳柱	正祖	掌樂院正	忠孝公	定山
32세	欽衡	敬晦	正祖	資憲大夫	忠孝公	巨濟
32세	重衡	以宗	英祖	童蒙敎官	忠孝公	巨濟
32세	五臣	一柱	英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32세	致興	秣雲	英祖	左贊成	府院君	筏橋
32세	三元	東堣	正祖	工曹參議	府院君	筏橋
33세	載祿	鳴國	正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忠孝公	青陽
33세	載楯	應佐	正祖	戶曹參議	忠孝公	平澤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3세	載範	輔國	高宗	吏曹參判	忠孝公	河東
33세	載精	承國	高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靑陽
33세	載慶	道成	英祖	司憲府執義	忠孝公	恩津
33세	載殷	毅達	正祖	戶曹參議	忠孝公	定山
33세	載赫	宣民	純祖	資憲大夫	忠孝公	巨濟
33세	載淵	時衡	憲宗	同知義禁府事兼戶曹參判	忠孝公	巨濟
33세	載尙	仁衡	高宗	副摠管	忠孝公	巨濟
33세	載勻	雲孫	高宗	軍資監正	忠孝公	巨濟
33세	載元	商衡	高宗	護軍	忠孝公	巨濟
33세	載燮	義國	哲宗	嘉善大夫	代言公	서울
33세	載醇	寅國	正祖	掌禮院掌禮	代言公	鎭川
33세	德文	致興	正祖	司僕寺正	府院君	筏橋
33세	德崇	致興	正祖	戶曹參議	府院君	筏橋
33세	泰權	三元	純祖	戶曹參判兼經筵 春秋館事	府院君	筏橋
33세	陽晋	鶴齡	正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筏橋
33세	載翼	義國	純祖	童蒙敎官 壽職同知敦寧府事	忠孝公	定山
34세	淑義	載祿	純祖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忠孝公	靑陽
34세	仁權	德文	正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筏橋
34세	仁燦	德崇	正祖	吏曹參判	府院君	筏橋
34세	台誼	載範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河東
34세	得任	枰	純祖	左承旨	忠孝公	華城
34세	得誼	載楯	正祖	戶曹參判	忠孝公	華城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4세	采完	載赫	正祖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4세	泰誼	載鳳	高宗	左承旨	忠孝公	巨濟
34세	度誼	載琪	哲宗	漢城府右尹	忠孝公	巨濟
34세	乂誼	載琪	哲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4세	鳳誼	載淵	高宗	左副承宣	忠孝公	巨濟
34세	鴻誼	載淵	高宗	同知敦寧府事	忠孝公	巨濟
34세	鵬誼	載淵	高宗	右副承宣	忠孝公	巨濟
34세	昌誼	載淵	高宗	同知敦寧府事	忠孝公	巨濟
34세	淑誼	載夏	高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4세	泰誼	載毫	高宗	戶曺參判	代言公	長興
34세	勝義	載殷	高宗	工曹參判	忠孝公	定山
34세	秉義	載醇	純祖	秘書院丞	代言公	鎭川
34세	德稀	就五	英祖	司僕寺僉正	府院君	寶城
34세	仁弼	德采	純祖	司憲府監察	府院君	寶城
34세	在敏	陽運	純祖	司僕寺正	府院君	筏橋
34세	在順	陽曄	純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筏橋
34세	在龍	陽晋	純祖	戶曺參判	府院君	筏橋
34세	琮	大亨	純祖	童蒙敎官	將軍公	報恩
34세	綱義	載文	高宗	副護軍 左承旨	忠孝公	恩津
34세	得誼	載尚	高宗	漢城府判尹	忠孝公	巨濟
34세	郁誼	載基	高宗	漢城府判尹	忠孝公	巨濟
34세	汝俊	載寬	高宗	同副承旨	忠孝公	巨濟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5세	重殷	仁弼	哲宗	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府院君	筏橋
35세	馨	得任	高宗	戶曹參判	忠孝公	華城
35세	永萬	昌義	純祖	吏曹參判	忠孝公	論山
35세	永萬	頤誼	純祖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忠孝公	扶餘
35세	永赫	載義	純祖	左承旨	忠孝公	沃溝
35세	永珂	大有	高宗	明陵參奉	忠孝公	巨濟
35세	永元	鴻誼	高宗	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永福	淑誼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巨濟
35세	永業	日誼	高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5세	完淑	相誼	高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5세	永宰	大誼	高宗	思陵參奉兼中樞院議官	忠孝公	巨濟
35세	思聖	德稀	英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寶城
35세	弼殷	仁權	憲宗	同知中樞府事 五衛將	府院君	筏橋
35세	衡殷	仁燦	純祖	童蒙敎官	府院君	筏橋
35세	大殷	仁燦	憲宗	司憲府監察	府院君	筏橋
35세	必學	在頤	正祖	童蒙敎官	府院君	寶城
35세	柱鉉	在敏	憲宗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寶城
35세	珽鉉	在順	純祖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兼副摠管	府院君	寶城
35세	誾鉉	在順	哲宗	司憲府監察	府院君	寶城
35세	禹鉉	在軾	純祖	左承旨兼經筵參贊官	府院君	寶城
35세	永秀	聲誼	高宗	漢城府判尹	忠孝公	巨濟
36세	廷學	重殷	純祖	義禁府同知事	府院君	筏橋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6세	明學	永赫	純祖	禮曹參判	忠孝公	沃溝
36세	景臣	思聖	純祖	戶曹參判 同知義禁府事 副摠管	府院君	寶城
36세	召權	永孝	高宗	秘書院丞	忠孝公	定山
36세	弘學	時漢	憲宗	內部協辦	忠孝公	青陽
36세	辰學	永赫	哲宗	戶曹參議	忠孝公	沃溝
36세	興學	永赫	高宗	兵曹參判	忠孝公	益山
36세	成學	永益	高宗	漢城判尹	忠孝公	巨濟
36세	濟根	永業	高宗	秘書承旨	忠孝公	巨濟
36세	商輔	東采	純祖	司憲府監察	府院君	昇州
36세	商喆	東采	純祖	司僕寺正	府院君	昇州
36세	致命	必旭	純祖	工曹參判兼副摠管	府院君	高興
36세	賢學	衡殷	哲宗	侍從院侍從	府院君	筏橋
36세	致玫	必覺	憲宗	童蒙教官	府院君	寶城
36세	奎學	禹鉉	高宗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府院君	寶城
37세	炳德	進學	哲宗	通政大夫	忠孝公	論山
37세	炳熙	馨根	高宗	漢城府判尹	忠孝公	巨濟
37세	師行	商輔	純祖	左承旨	府院君	昇州
37세	師一	商喆	純祖	左承旨	府院君	昇州
37세	炳華	賢學	高宗	掌禮院(嘉善大夫)	府院君	筏橋
37세	炳德	致邦	純祖	掌禮院(通政大夫)	府院君	寶城
38세	國遠	師行	哲宗	戶曹參判兼都摠管	府院君	昇州
38세	衡遠	炳德	高宗	童蒙教官	府院君	寶城
38세	出遠	師一	憲宗	禮曹參判	府院君	昇州

(7) 壽職錄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26세	世平	自莘	宣祖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26세	弘發	賓信	英祖	通政大夫	代言公	長興
27세	賛立	舜來	肅宗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27세	德立	舜來	肅宗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27세	復立	舜來	肅宗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27세	逸商	得廷	肅宗	副護軍	代言公	靈岩
27세	長吉	挺莘	光海	同知中樞府事	代言公	鎭川
27세	湯民	裕	宣祖	副護軍	代言公	華城
27세	天祥	遵悌	宣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28세	衡在	彬	肅宗	同知義禁府事	忠孝公	公州
28세	沚	天禎	肅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石城
28세	振卿	光殷	肅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定山
28세	樑	商彦	肅宗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青陽
28세	光總	瑞龜	肅宗	副護軍	代言公	長興
28세	鎭甲	敏述	英祖	嘉善大夫	代言公	提川
28세	善伯	得鳳	孝宗	嘉善大夫	漆城君	서울
29세	再衡	樑	肅宗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青陽
29세	龜楠	日富	肅宗	嘉善大夫	代言公	漆原
30세	聖擧	麗翰	英祖	資憲大夫	忠孝公	巨濟
30세	聖殷	益己	英祖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0세	周憲	汝翰	英祖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0세	聖智	保衡	英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巨濟
30세	聖徵	汝聘	英祖	同知中樞府事	代言公	漆原
30세	德成	載績	英祖	同知中樞府事	代言公	陝川
31세	致徵	梲	英祖	嘉善大夫(承傳)	忠孝公	定山
31세	以仁	德來	正祖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巨濟
31세	元彬	聖宗	英祖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巨濟
31세	以東	湯來	純祖	通政大夫	忠孝公	巨濟
31세	聘三	商憲	英祖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31세	晋哲	命憲	純祖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31세	應三	解憲	英祖	通政大夫	代言公	漆原
31세	敬毅	德徵	正祖	僉知中樞府事	代言公	淳昌
31세	佑商	世標	孝宗	同知中樞府事	府院君	筏橋
31세	莘徵	演	肅宗	工曹參判	忠孝公	平澤
32세	起巽	世喜	肅宗	僉知中樞府事	忠孝公	梧甲
32세	鳴國	敬泰	純祖	通政大夫	代言公	陝川
32세	世興	惇	英祖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華城
32세	商聘	愉	正祖	同知義禁府事	忠孝公	華城
32세	任國	敬文	高宗	副護軍	代言公	大田
32세	逸國	敬默	高宗	同知中樞府事	代言公	華城
32세	榮國	敬毅	正祖	戶曹參判	代言公	任實
33세	載學	榮國	純祖	同知中樞府事	代言公	南原
33세	載環	任國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大田

世數	諱	父	年代	官歷	派名	世居地
33세	載瓌	烈國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柳山
33세	載豊	尙國	哲宗	副護軍	代言公	廣州
33세	泗智	隆臣	英祖	通政大夫	忠孝公	春川
33세	德采	致成	正祖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3세	柱	彦佐	正祖	通政大夫	忠孝公	平澤
34세	潤誼	載興	高宗	掌禮院卿	代言公	宜寧
34세	莘興	載林	哲宗	副護軍	代言公	咸安
34세	泌雲	載洽	哲宗	嘉善大夫(陞耆社)	忠孝公	巨濟
35세	永裕	滕義	哲宗	同知中樞府事	忠孝公	青陽
35세	永彦	興誼	哲宗	副護軍	忠孝公	巨濟
35세	永尙	運誼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鎭海
35세	永瑾	在誼	高宗	通政大夫	代言公	馬山
35세	必賢	在麟	純祖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5세	永祥	明誼	高宗	承政院承旨	代言公	馬山
36세	台根	永奎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青陽
36세	馨根	永信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巨濟
36세	衡學	正鉉	高宗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6세	敬學	必鉉	高宗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7세	炳殷	鳳學	高宗	通政大夫	忠孝公	定山
37세	炳禹	馨根	高宗	嘉善大夫	忠孝公	巨濟
37세	炳錫	致珩	高宗	通政大夫	府院君	寶城
37세	炳林	致永	高宗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7세	炳祚	行文	高宗	通政大夫(陞耆社)	府院君	寶城
37세	炳吉	致命	高宗	通政大夫折衝將軍	府院君	高興

5、三綱錄

(1) 忠臣旌閭

世數	諱	年代	字	號	父	王朝	派名	世居地
26세	慶元	1560-1592	善餘		卓然	1742년英祖	代言公	麗州
26세	翊	1615-1637	景亮		璘	1789년英祖	忠孝公	定山

(2) 孝子旌閭

世數	諱	年代	字	號	父	王朝	派名	世居地
27세	彬	1554-1632	子華		健	1665년顯宗	忠孝公	定山
27세	光殷	1634-1705	莘輔		翊	1789년正祖	忠孝公	定山
29세	聘三	1601-1673	汝任		湛	1695년肅宗	忠孝公	定山
32세	起巽	1709-1792	鱗伯	杜溪	世喜	1821년純祖	忠孝公	梧甲
32세	起震	1722-1783	子長	槐亭	世鐸	1821년純祖	忠孝公	梧甲
33세	載源	1820-1907	士元	松圃	欽衡	1888년高宗	忠孝公	巨濟
34세	琮	1786-1822	聖若		大亨	1829년純祖	將軍公	報恩
34세	尙義	1817-1877	殷甫		載興	1888년高宗	代言公	陝川
37세	炳祖	1848-1911	敬九		榮根	儒林旌閭	忠孝公	定山

(3) 烈女旌閭

世數	姓氏	年代	夫	媤父	王朝	派名	世居地
32세	檜山黃氏	1729-1788	華國	敬天	1797년正祖	代言公	陝川
33세	淸風金氏	1729-1813	得聖	起巽	1825년純祖	忠孝公	梧甲

世數	姓氏	年代	夫	媤父	王朝	派名	世居地
33세	原州元氏	1820-1882	載源	欽衡	1888년高宗	忠孝公	巨濟
34세	草溪鄭氏	1820-1877	尙義	載興	1888년高宗	代言公	陜川
35세	宜寧南氏	1841-	永曦	柯誼	1888년高宗	忠孝公	巨濟
40세	全州李氏	1908-1977	寅洙	鍾協	儒林旌閭	忠孝公	定山

(4) 抗日義士

世數	諱	年代	字	號	父	備考	派名	世居地
36세	澤根	1892-1969	性華	一	永斗	거제삼일운동주도	忠孝公	巨濟
37세	炳日	1873-1897	章日	華岡	召權	항일의거 애족장	忠孝公	定山
37세	炳漢	1874-1932	雲路	重岩	鳳學	진천삼일운동 애족장	代言公	鎭川
37세	炳球	1893-	義敬		林學	의열단원 독립장	忠孝公	青南
37세	炳環	1889-1946	君凡		大學	청남삼일운동 기적비	忠孝公	青南
37세	炳奭	1889-1955	南見	鶴堂	昌學	묘산삼일운동載삼일운동사	代言公	妙山
37세	炳殷	1878-1948	自華		周學	묘산삼일운동載삼일운동사	代言公	妙山
37세	炳德	1887-1922	龍見	南崗	誠學	묘산삼일운동載삼일운동사	代言公	妙山
37세	炳喬	1887-1919	世臣		性學	묘산삼일운동載삼일운동사	代言公	妙山
38세	承遠	1900-1950	允基	學山	炳南	항일투사 공적비	府院君	寶城
42세	泰勳	1874-1908	德來		相周	1908년의병대장순직	忠孝公	春川

6、遺蹟錄

(1) 祠宇

名稱	配享位	建立	所在地
鴻浦祠	18세 諱桓	1782年	경남함안군칠서면계내리
	19세 諱子當	1857年重修	
	21세 諱志	1878年撤廢	
	22세 諱碩輔	1981年重建	
	25세 諱卓然	1999年5月5日重建	
忠勳祠	25세 諱承輔	1803年	경남거제군연초면다공리
	25세 諱玠輔		
	26세 諱榮祥		
	26세 諱興良		
彰義祠	25세 諱卓然		함남함흥시
奬忠祠	26세 諱綱憲	1917年	경남거제시하청면하청리
	26세 諱成憲		
朔寧祠	26세 諱慶元		경기도연천군삭녕면삭녕리
松齋祠	26세 諱興良	1993年	경남거제시연초면다공리
	27세 諱嗣源		
	28세 諱尚一		
	29세 諱萬重		
大樑祠	27세 諱汝任	1938年	경남거제시동부면산양리

名稱	配享位	建立	所在地
	28세 諱商老		
大德祠	27세 諱成敏	1983年	경남거제시연초면다공리
竹鳳祠	27세 諱成立起莘	1990年	경남거제시거제면내간리 송곡
成德祠	27세 諱成立	1970年	경남거제시연초면연사리
	28세 諱興莘		
	28세 諱徵莘		
頌德祠	28세 諱精一	1971年	경남거제시신현읍상동리
忠仁祠	29세 諱仁華	1965年	경남거제시연초면오비리
聖仁祠	30세 諱聖殷	1991年	경남거제시연초면연사리
四賢祠	30세 諱志逑	1725年	崇節祠(문묘동쪽) 에서 이관중폐지
世傳祠	33세 諱載厚	1958年	경남거제시연초면이목리
松鶴祠	33세 諱載治	1980年	경남거제시거제면내간리 송곡

(2) 齋室

名稱	享祀位	建立	所在地
上浦齋	始祖諱始榮外4位	1908년	경남함안군칠서면계내리
	始祖諱始榮外4位	1957년重建	경남함안군칠서면계내리
檢丹齋	諱璜外6位	1829년	경남함안군칠북면검단리
	諱璜外6位	1959년重建	경남함안군칠북면검단리
九惠齋	6세諱啓	1970년	경남함안군대산면구혜리
柳原齋	18세諱桓外5位	1955년重建	경남함안군칠원면유원리
永慕齋	20세諱祖生	1960년3월	충남청양군청남면상장리
宗安齋	20세諱神生	1980년10월	충남공주군탄천면덕지리

名稱	享祀位	建立	所在地
廣灘齋	20세 諱世安外	1960년	전남보성군노동면광탄리
宣德齋	21세 諱濟	1980년 10월	충남공주군탄천면삼각리
南春齋	21세 諱志外	1998년 3월	전남장흥군부산면부춘리
鵰山齋	22세 諱希奎外	1996년 3월	경남함안군칠서면안기리
竝院齋	22세 諱跡外	1988년	충북보은군수한면병원리
麻田齋	24세 諱自均	1980년	충남논산군가야곡면삼전리
雁洞齋	24세 諱自塘	1980년 10월	충남부여군초촌면진호리
茶原齋	25세 諱承輔	1825년	경남거제시연초면다공리
冠山齋	25세 諱卓然	1968년	경남합천군묘산면팔심리
瞻仰齋	25세 諱卓然	1963년	경남합천군묘산면광산리
細洞齋	26세 諱遵孝		충남공주군탄천면남산리
敬慕齋	26세 諱遵悌	1955년	충남청양군청남면동강리
竹林齋	27세 諱舜懋	1939년 12월	경남함안군칠원면죽청리
石田齋	27세 諱衡立	1959년 12월	경남함안군칠원면석전리
景慕齋	27세 諱泰基	1980년 8월	경남합천군합천면인곡리
來山齋	28세 諱源	1981년 8월	충남청양군청남면동강리
雲巖齋	28세 諱遇乙	1959년	경남합천군합천면관자동
九水齋	29세 諱重三	1979년 10월	충남청양군목면신흥리
電塘齋	29세 諱益三		충남청양군목면신흥리
柳山齋	29세 諱世元	1980년	경남의창군구산면유산리
新塔齋	30세 諱邦彦		충남부여군초촌면세탑리
松亭齋	31세 諱自任		충남부여군초촌면송정리

名稱	享祀位	建立	所在地
瑞陽亭	33세 諱載豪	1963년	경남합천군합천면남옥동
東山齋	34세 諱尙義		경남합천군묘산면팔심리
龜岡齋	36세 諱昌學	1962년5월	경남합천군묘산면팔심리
源上精舍	37세 諱炳馨	1959년	경남합천군묘산면팔심리

(3) 影堂

名稱	諱	建立	所在地
重湖先生影堂	25세 諱卓然		경기도성남시대원동
彰義祠影堂	25세 諱卓然		함남함흥시
佳谷影堂	25세 諱卓然		경남합천군묘산면광산리
百源亭影堂	25세 諱卓然		전북남원군송동면영동리

(4) 書院·書堂·講堂

名稱	建立	所在地
鴻浦書院	1782년	경남함안군칠서면계내리
	1857년重修	
	1878년撤廢	
	1981년重建	
	1999년5월5일重建	
德巖齋書堂	1510년	전남보성군복내면유정리
	1868년撤廢	
	1978년重修	
	1996년重建	
松竹講堂	1962년	충남청양군목면신흥리

제3편 대종회 현황

1 종 규(宗 規)

1969. 10. 10 제정	1990. 5. 6 개정
1974. 10. 10 개정	1993. 4. 16 개정
1975. 10. 10 개정	1994. 5. 1 개정
1980. 10. 10 개정	1995. 4. 26 개정
1986. 10. 10 개정	1996. 4. 21 개정
1987. 10. 10 개정	2001. 2. 24 개정
1989. 4. 2 개정	2001. 5. 1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대종회의 명칭은 칠원윤씨대종회(漆原尹氏 大宗會)라 칭한다. (이하 대종회라 약칭한다.)

제2조 (구성) 본 대종회는 칠원윤씨 시조 태사공(諱 始榮)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대종회의 사무소는 태사공 선영하 상포재(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75번지〈대표번지〉)에 둔다.

단 사무편선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 대종회는 위선(爲先), 애종(愛宗) 및 단합(團合)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숭조사상(崇祖思想)의 앙양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 등 본 대종회의 번영발전과 국가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본종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조의 봉사(奉祀), 선영수호(先塋守護), 유적(遺蹟), 유품(遺品)등의 관리보존(管理保存) 및 발굴(發掘)과 유업현양(遺業顯揚)에 관한 사항
2. 종원간의 돈목(敦睦) 및 화합(和合)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3. 종중 재산관리(財産管理)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조(慶弔)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5. 육영(育英), 장학(奬學), 숭조효친(崇祖孝親)의 교양기구(敎養機構)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6. 지역 종친회 조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보사(譜史)의 연구, 편찬 및 종보발간(宗報發刊)에 관한 사항
8. 기타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대종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종회장 : 1명 2. 부종회장 : 명
2. 이 사 : 명 4. 감 사 : 3명
단, 부회장 및 이사의 수는 총회에서 위임한 별도규정에 의하여 각지역별로 안배한다.

제7조 (임원선출) 본 대종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종회장은 지역종친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96. 4. 21개정)
2. 부종회장 및 이사는 임원정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종친회 및 파종회 대의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2001. 2. 24개정)
단 결원이 생겼을 때에 충원은 지역종친회 및 파종회 대의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하고 총회에서 추인(追認)받는다.(2001. 2. 24개정)
3. 감사는 종다수(從多數) 원칙으로 선출한다.
4. 대종회장은 종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종무집행을 위하여 상근직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996. 4. 21개정)
5. 지역종친회장이 대종회 임원인 경우 지역종친회 회장이 경질(更迭)되었을 때에는 후임회장이 전임회장의 권리의무를 자동승계(自動承繼)한다.(1994. 5. 1신설)
단 경질(更迭) 즉시 회의록 첨부하여 대종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무) 본 대종회 임원 및 사무국장, 관리유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종회장은 본 대종회를 대표하고 종무일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종회장은 대종회장을 보좌하며 대종회장 유고시에 대종회장이 지명한 자 또는 부종회장단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 대종회 종규 제17조 및 제19조 2항에 규정된 의결권을 가진다.
4. 상근직 임원은 대종회장의 명을 받아 종무일체를 총괄하며 대종회장을 보좌한다. (1996. 4. 21개정)
5. 감사는 종무집행 사항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사무국장은 대종회장의 명 또는 상임임원으로부터 지시 전달되는 종무일체를 집행한다. 또한 정기총회에 매 회계연도의 종무제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종회장은 필요에 따라 관리유사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유사는 대종회장의 명을 받아 선영관리 및 종중 재산을 관리한다.(1994. 5. 1신설)

제 9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종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요건) 임원의 자격은 국내거주자로서 다년간 종사경험(宗事經驗)과 위선정신(爲先精神)이 투철한 자라야 한다.

제10조의2 (임원의 의무) 1. 임원은 칠원윤씨의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사에 참석하여야 한다.(2001. 2. 24신설)
2. 임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2001. 2. 24신설)
3. 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등 종사에 연간1회도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2001. 5. 19신설)

제11조 (임직원의 보수) 본 대종회의 임직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직은 예외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으로 정한다.(1994. 5. 1개정)

제12조 (고문, 자문위원) 대종회장은 전임대종회장 및 종사경험이 많은 분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1994. 5. 1개정)

제 3 장 총 회

제13조 (총회)
1. 본 대종회에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종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4.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종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5. 총회는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95. 4. 26개정)

제14조 (정기총회의 구성) 본 대종회의 정기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第15조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1. 본 대종회의 임원 및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여타 대의원은 지역종친회 및 파종회등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2001. 2. 24 개정)
2. 전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이 된 자가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 충원은 지역종친회 및 파종회등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2001. 2. 24개정)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대의원의 정수는 총회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으로 한다.

第16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2. 종규개정, 재산의 처분은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공공용지 편입 등 수용대상일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결석대의원은 타 대의원에게 1인 1표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회의 개회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이 1군(1시) 1인만이 있는 지역에 한하여는 타 종원 또는 타 관내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7조 (총회의 기능)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종규개정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第18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임원 및 대의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고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第19조 (구성 및 기능)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대종회장, 부종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995. 4. 26 개정)

가)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 등의 예비 심의
나) 본 대종회의 사업집행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기채(起債)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바)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대종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의2 (소집 및 의결) (1996. 4. 21개정)

1. 이사회는 대종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통신방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결석구성원은 타 구성원에게 1인 1표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향사) 본 대종회에서 봉향하는 시조공의 시제일은 음력 10월 1일로 정한다. 여타 시제는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행한다.

제21조 (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본 대종회에서 선조의 제전에 관한 고증 및 연구지도를 위하여 제전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 (수입) 본 본종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에서 생(生)하는 수입
2. 헌성금(獻誠金) 및 협찬금(協贊金)
3. 기타수입

제23조 (회계연도) 본 대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말(末)로 한다. (1995. 4. 26개정)

제24조 (자금관리) 본 대종회의 자금은 대종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통장은 상임임원 또는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 대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 15일전에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6조 (결산) 본 대종회의 결산은 총회 20일전에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27조 (지출)

1. 본 대종회의 제반지출은 종회장의 결재하에 행하여야 하며 전도금(前渡金)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상근직 입직원은 취임한 1개월 이내에 재정보증서(財政保證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4. 21개정)
3. 제임직원의 보수(報酬), 여비(旅費), 교통비(交通費) 및 경조비(慶弔費)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第28조 (장부 등 비치) 본 대종회는 다음의 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재산 및 비품대장
3. 시설물대장 (묘비(墓碑), 상석(床石),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단비(壇碑), 인양석(人羊石), 유허비(遺墟碑), 산신석(山神石)등 일체)
4. 회계장부(수입 및 지출) 그 증빙서류(證憑書類)
5. 연혁지(沿革誌) 및 사료(史料)
6. 종규(宗規) 및 제 규정철(規程綴)
7. 임원 및 대의원 명부

第29조 (포상 및 징계) 본 대종회의 포상 및 징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경과규정)

1. 본 종규 개정전 총회에서 선출된 종회장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2. 여타 임원의 임기는 차기임원이 선출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시행일) 본 종규는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9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9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규정)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9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9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200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200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정수 규정

1989. 4. 2 제정
1992. 4. 18 개정
1993. 4. 16 개정
1993. 4. 19 개정
1994. 4. 16 개정
1999. 8. 7 개정
1999. 9. 11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종규 제6조 단서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종무집행을 위하여 부종회장 및 이사를 지역별로 그 수를 안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잠정조치) 본 규정은 각 지역별 수적 여건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대구 경북	대전 정산 논산	거제	마산	산하	전라	충북	합천	울산 하동	기타	계
부회장	7	2	1	3	1	1	1	2					18
이 사	25	4	4	6	3	2	1	6	2	2	2		57
감 사													
계	32	6	5	9	4	3	2	8	2	2	2		75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대의원 정수 규정

1989. 4. 2 제정
1990. 4. 14 개정
1990. 4. 22 개정
1993. 6. 19 개정
1994. 4. 16 개정
1999. 8. 7 개정
1999. 9. 1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규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대의원 정수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수)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 150명이하로 하되 각 지역종친회(화수회포함) 조직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각 지역 실정을 감안 임원회 결의로서 안배하며 그 수는 다음과 같다.

단 아래 정수는 지역별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 수를 말한다.

지 역	지역 및 대의원수	대의원수
서 울	서울24, 인천1, 수원1, 화성1, 이천1, 강원2	30명
부 산	부산, 김해, 양산	10명
대 구	대구3, 칠곡1, 고령1	5명
거 제	거제, 장승포	8명
마 산	마산, 창원, 진해	6명
산 하 동	칠원1, 유원1, 칠서1, 칠북1, 구혜1	5명
합 천	합천2	2명
충 남	대전1, 정산4, 논산2, 부여2, 공주1	10명
충 북	보은2, 음성1, 제천1	4명
전 남 북	광주2, 장흥2, 보성2, 나주1, 화순1, 남원1, 고흥2	11명
기타경남	울산1, 충무1, 산청1	3명
사무국장		1명
계		95명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전위원회(祭典委員會) 규정

1989. 4. 2 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칠원윤씨대종회 제전위원회(祭典委員會)라 칭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는 종규 제21조에 의하여 설치하되 제전의 고증을 연구하여 원활한 제향(祭享)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조공을 위시한 선조묘사(先祖墓祀)와 단향(壇享)의 제관망정(祭官望定) 및 향사집행
2. 홍포사(鴻浦祠) 향례준비(享禮準備) 및 향내사림(鄕內士林)과 협력강화
3. 각 제향(祭享)의 제수관리(祭需管理)
4. 제전(祭典)에 관한 고증(考證), 연구(硏究) 및 지도(指導)
5. 기타 본 위원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항

제 4 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을 호선(互選)한다.

제 5 조 (선출) 본 위원회 위원은 본 대종회에서 연륜이 많고 제전에 고명한 원로 종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6 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종규는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비 지급 규정

1989. 4. 2 제정
1994. 4. 16 개정
1994. 5. 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종회의 경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 본 대종회의 임직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근직은 예외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으로 정한다.(1994. 4. 16 개정)

제3조 (여비, 교통비) 임직원이 종무로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종원도 이에 준한다.(1994. 4. 16 개정)

제4조 (경조비) 고문, 임원 및 본 대종회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등에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 1. 경상비의 모든 예산은 대종회장의 사전 결재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여 사전 결재가 어려울 때에는 경미한 사항은 사후 결재에 의할 수 있다. (1994. 4. 16 신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규정

1989. 4. 2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종규 제29조에 의하여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포상) 본 대종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종원간의 유대강화(紐帶强化) 또는 문중의 명예를 선양한 자, 사회적으로 특별한 선행 및 효행한 자 등에 포상한다.

제 3 조 (징계)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는 선영손상(先塋損傷), 도장행위(盜葬行爲), 유적물(遺蹟物)의 파손 및 5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로 하며 이에 징계 받은 자는 본종회 및 종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경징계는 본종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또는 50만원 미만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로 한다.

부 칙

제 4 조 (시행) 본 규정은 198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대종회 임원

대종회 고문 명부

(2001.6.30 현재)

지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	영우(永禹)	(직장)		
		(자택)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A 104-903	02-402-6588	
서울	영연(永淵)	(직장)동덕여대	02-940-4422	
		(자택)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6-1 동진A 105-301	02-930-0459	
서울	영학(榮學)	(직장)새인천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032-424-2111	
		(자택)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23	02-967-6688	
서울	영원(英遠)	(직장)		
		(자택)서울시 양천구 목동 908-28 부영그린타운2차 1904	02-2648-6084	

대종회 자문위원 명부

지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	기옥(錡玉)	(직장)		
		(자택)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1476	02-533-3728	
서울	종오(鍾五)	(직장)		
		(자택)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세종1차A106-1002	031-432-3502	
서울	석순(碩淳)	(직장)		
		(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87-145	02-585-2636	
부산	종구(鍾九)	(직장)서면 메디칼센터 회장		
		(자택)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럭키A 19-801	051-555-6460	
대전	종만(鍾萬)	(직장)		
		(자택)대전시 서구 변동 34-15	042-533-6877	
마산	철원(哲遠)	(직장)		
		(자택)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87-2	055-246-4096	
마산	종태(鍾太)	(직장)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의장	055-268-1500	
		(자택)경남 마산시 합포구 추산동 7-5	055-248-3370	
대구	양원(良遠)	(직장)	016-819-4680	
		(자택)대구시 남구 대명8동 2013-314	053-473-4680	
정산	홍수(弘洙)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041-942-0023	

대종회 제전위원 명부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	위원장	기옥(錡玉)	(직장)		
			(자택)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1478	02-533-3728	
서울	위 원	응원(應遠)	(직장)		
			(자택)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2-17	02-564-1224	
		의원(義遠)	(직장)	011-9987-0675	
			(자택)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샌추리타워 606	02-873-0675	
대구	위 원	종화(鍾華)	(직장)		
			(자택)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482-15	053-652-5369	
부산		종구(鍾九)	(직장)서면 메디칼센터 회장		
			(자택)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럭키A 19-801	051-555-6460	
거제		은수(銀洙)	(직장)거제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055-635-8051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06-13	055-635-2852	
정산		병현(炳賢)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439	041-942-7709	
		흥원(興遠)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041-942-7632	
칠원		병운(炳雲)	(직장)		
			(자택)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180	055-587-8359	
전라		주창(柱昌)	(직장)		
			(자택)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34-34	02-876-5199	

대종회 임원 명부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	대종회장	진원(晋遠)	(직장)유림빌딩 대표	02-975-3333	
			(자택)서울시 중랑구 묵동 126-29	02-979-6000	
	부종회장	응원(應遠)	(직장)대종회 상임부회장	02-928-6707-8	018-234-1224
			(자택)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2-17	02-564-1224	
	부종회장	병섭(炳攝)	(직장)		
			(자택)서울시 강서구 방화1동 266-3	02-663-7780	
	부종회장	병흠(炳欽)	(직장)협성상회 대표	02-409-1570	
			(자택)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457-27	02-854-2175	
	부종회장	의원(義遠)	(직장)미술문화원 고문	02-873-0675	011-9987-0675
			(자택)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추리타워606	02-875-5507	
	부종회장	종주(鍾宙)	(직장)서울 법무사회 제1부회장(011-340-2854)	02-2605-2654	02-697-3947
			(자택)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4 대림A 106-604	02-3663-4242	
	부종회장	종구(鍾璆)	(직장)천일한의원 원장	02-832-0062	678-0062
			(자택)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278	02-836-0062	
	부종회장	석찬(碩燦)	(직장)삼성종합식품	031-863-3568-9	
			(자택)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7 진흥빌라 8-103	02-546-0014	
부산	부종회장	종원(淙遠)	(직장)제일금속	051-416-1290	
			(자택)부산시 영도구 영선동4가 55 10/3	051-417-7185	
	부종회장	용근(龍根)	(직장)전망대 횟집 대표	051-722-7456	
			(자택)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연하리 전망대 횟집	051-722-6600	
대구	부종회장	병갑(炳甲)	(직장)		
			(자택)대구시 서구 평리4동 1215-28	053-562-9670	
대전	부종회장	종서(鍾書)	(직장)대전일보 사장	042-253-3321	
			(자택)대전시 서구 괴정동 135-11	042-536-0206	
거제	부종회장	병오(炳五)	(직장)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문동리 219	055-636-2594	
마산	부종회장	병호(炳浩)	(직장)	055-277-1718	
			(자택)경남 창원시 서상동 213-2 창원드림타워 701	055-251-1874	
논산	부종회장	창원(昌遠)	(직장)소망문화사 대표	041-736-2020	
			(자택)충남 논산시 부창동 대림A 105-2004	041-732-2652	
청산	부종회장	종은(鍾殷)	(직장)보인당 한약업사	041-855-4078	
			(자택)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 588-2	041-942-9023	
전라	부종회장	성근(成根)	(직장)		
			(자택)전남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2구	061-372-7525	
	부종회장	성순(成淳)	(직장)		
			(자택)전남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내기	061-852-5223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산하	부종회장	병로(炳魯)	(직장)		
			(자택)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 죽청	055-587-0587	
서울	감 사	종재(鍾在)	(직장)광희중학교 교장	02-2292-0439	011-258-3677
			(자택)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2-72	02-446-5634	
서울	감 사	홍묵(弘默)	(직장)우당장학회 사무국장	02-766-2101	019-209-9330
			(자택)경기 과천시 주암동 70-13 대일아트빌라6-102	02-578-9300	
거제	감 사	양원(樑遠)	(직장)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59-8	055-635-2893	
서울	이 사	봉학(鳳學)	(직장)		
			(자택)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193-1 한신A 9-403	02-439-8827	
	이 사	인학(麟學)	(직장)		
			(자택)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아세아선수촌A 6-605	02-417-2535	
	이 사	영운(永雲)	(직장)		
			(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A 303-501	031-701-8406	
	이 사	병만(炳萬)	(직장)	011-207-2248	
			(자택)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5-2장암1차현대A 101-104	031-872-1240	
	이 사	복현(福現)	(직장)세원창고(주)대표	032-772-6111	032-772-6112
			(자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5 샘마을A 301-502	031-429-2468	
	이 사	성탁(星鐸)	(직장)	016-660-8448	
			(자택)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04-24	02-856-8448	
	이 사	동원(東遠)	(직장)윤동원 법무사 대표	02-775-1800	
			(자택)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A 30-401	02-907-6622	
	이 사	해원(海遠)	(직장)대진상사 대표	02-432-9022	
			(자택)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성원A 102-801	02-439-0320	
	이 사	영원(暎遠)	(직장)윤성기업 대표	02-2273-8686	
			(자택)서울 동작구 사당2동 극동A 110-1204	02-596-0357	
	이 사	문원(文遠)	(직장)21세기 안산발전연구소 소장	031-403-1717	
			(자택)경기 고양 일산구 주엽동 강선마을 A106-2001		
	이 사	성호(晟豪)	(직장)한진상사 대표	019-667-3677	
			(자택)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1-4	02-457-3677	
	이 사	종복(鍾福)	(직장)성진산업 대표	031-754-8211	032-754-8403
			(자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3-6	02-547-4811	
	이 사	종사(鍾思)	(직장)동하전기 대표	02-2631-5011	
			(자택)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384-12 건영A 2-813	02-802-7533	
	이 사	종석(鍾晳)	(직장)	011-9928-3900	
			(자택)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01-34 서울문구	02-3494-6217	
	이 사	종보(鍾保)	(직장)안동MBC사장	054-851-7000	
			(자택)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26-31	02-381-1398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	이 사	종신(鍾辛)	(직장)		
			(자택)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 8-326	02-986-1588	
	이 사	종섭(鍾燮)	(직장)아주세무회계사 대표	02-923-3330	011-712-5070
			(자택)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42 동영주택 C-201	02-487-5070	
	이 사	흥순(興淳)	(직장)	011-768-3060	
			(자택)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475	02-936-1056	
	이 사	재원(在元)	(직장)공성교통	032-578-7900	
			(자택)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1536-3	02-886-6861	
	이 사	백순(伯淳)	(직장)일신기계(주) (017-208-7665)	02-2632-1163	031-498-1160
			(자택)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럭키A 104-23	02-312-7665	
	이 사	윤수(潤洙)	(직장)휠라코리아	02-523-6100	02-3470-9509
			(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10		
	이 사	행순(幸淳)	(직장)		
			(자택)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우성A 101-301	02-586-1291	
	이 사	해수(海洙)	(직장)열차식당 대표	02-734-2849	
			(자택)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58	02-733-1203	
	이 사	계섭(桂燮)	(직장)		
			(자택)서울시 마포구 도화1동 현대A 105-1103	02-715-1125	
	이 사	주화(柱華)	(직장)		
			(자택)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28-15호 8/2	033-242-1048	
부산	이 사	병태(炳台)	(직장)		
			(자택)부산시 북구 만덕3동 911-3 럭키2차A 203-506	051-341-3195	
	이 사	병종(炳宗)	(직장)		
			(자택)부산시 영도구동삼1동383-46삼창파크타운3차 101-406	051-405-1046	
	이 사	종권(鍾權)	(직장)		
			(자택)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럭키무지개타운 3-1307	051-291-2494	
	이 사	천수(千洙)	(직장)		
			(자택)부산시 남구 대연5동 28-5 동남A 506	051-627-6894	
대구	이 사	병열(炳烈)	(직장)		
			(자택)경북 경산시 옥산동 884 우방A 103-602	053-811-7886	
	이 사	해원(海遠)	(직장)		
			(자택)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보성A 103동 308호	053-522-3376	
	이 사	성현(成玄)	(직장)자영업	053-559-5661	
			(자택)대구시 중구 대신1동 68-10	053-559-5661	
칠곡	이 사	인수(仁洙)	(직장)		
			(자택)대구시 달서구 성당1동 223-20	053-626-9749	
마산	이 사	인재(仁宰)	(직장)		
			(자택)경남 창원시 북면 신촌리 온천동 435-1(일신식당)	055-298-1149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마산	이 사	용규(龍逵)	(직장)		
			(자택)경남 창원시 서상동 318	055-299-0557	
거제	이 사	이원(伊遠)	(직장)한샘외국어학원 원장	055-635-4713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4-1	055-635-4713	
	이 사	병혁(炳赫)	(직장)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8-40	055-636-2214	
	이 사	형두(炯斗)	(직장)		
			(자택)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22-1	055-636-2274	
산하	이 사	병호(炳鎬)	(직장)		
			(자택)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00-13	055-582-8657	
울산	이 사	병춘(炳春)	(직장)	011-551-4455	
			(자택)경남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64-5	052-272-3737	
하동	이 사	유근(有根)	(직장)		
			(자택)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055-883-3608	
합천	이 사	규원(圭遠)	(직장)윤규원 법무사 사무소 소장	055-931-2340	
			(자택)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20		
	이 사	종규(鍾圭)	(직장)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465-2 영창주유소	055-931-7751-2	
			(자택)		
대전	이 사	경원(敬遠)	(직장)		
			(자택)대전시 동구 용운동 398-5	042-282-4062	
음성	이 사	대원(大遠)	(직장)		
			(자택)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043-878-6384	
보은	이 사	석원(錫遠)	(직장)		
			(자택)충북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168-1	043-443-5581	
논산	이 사	수원(修遠)	(직장)	041-736-2020	
			(자택)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1구	041-741-4078	
정산	이 사	영각(永恪)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3839	041-942-7496	
	이 사	병현(炳賢)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493	041-942-7709	
	이 사	종렬(鍾烈)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041-942-7026	
	이 사	종희(鍾熙)	(직장)		
			(자택)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400	041-942-9274	
전라	이 사	형남(衡南)	(직장)		
			(자택)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80-41	02-959-2887	
	이 사	태원(泰遠)	(직장)		
			(자택)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663	061-857-1589	

지역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전라	이 사	봉근(奉根)	(직장) (자택)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원곡	061-863-2700	
	이 사	종승(鍾昇)	(직장) (자택)광주시 남구 사동 81	062-672-3915	
	이 사	종태(鍾兌)	(직장) (자택)전남 보성군 복내면 장철리 평주	061-852-4336	
	이 사	병균(炳均)	(직장) (자택)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061-857-4315	
	사무국장	영무(永茂)	(직장) (자택)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61-13	031-255-4189	

3 재산 목록

종중 건물 종합 집계표

명 칭	구 분	구 조	소 재 지
삼포재	정 침	목조와즙평가건 1동5칸2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행 랑	〃 1동3칸	
	관리사	목조스레이트가건 1동3칸	
	창 고	목조스레이트가건 1동	
홍포서원	사 우	목조와즙평가건 1동 15평	
	삼 문	〃 1동 3평	
	강 당	〃 1동 3칸	
	행 랑	〃 1동 3칸	
	화장실	〃 1동 4평	
검단재	정 침	목조와즙평가건 1동5칸1열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대 문	〃 1동1칸	
구혜재	정 침	목조와즙평가건 1동4칸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행 랑	〃 1동3칸	
	관리사	목조함석즙평가건 1동2칸2열	
	창 고	부럭조스레이트즙평가건 1동	
유원재	정 침	목조와즙평가건 1동3칸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행 랑	〃 1동3칸	
	관리사	목조스레이트평가건 1동3칸	
	창 고	부럭조스레이트평가건 1동2칸	
마산회관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300.5평	마산시 합성동 266-2
서울회관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213.15평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7
계			

종중 토지종합 집계표

단위 : 필지
평

지목별 / 지역별	전	답	대지	임야	유지	잡종지	도로	계
칠 서 면 계 내 리	6 1,016		10 1,038	1 15,977		1 44		18 18,075
칠 북 면 검 단 리	2 3,362	4 941	1 138	3 54,463	2 663		7 2,069	19 61,636
대 산 면 구 혜 리	2 861	9 6,139	1 226	1 2,628	1 7,226			14 17,080
칠 원 면 유원,용정	9 2,882	9 2,951	2 512	3 29,753	2 292			25 36,390
마산회관			1 125					1 125
서울회관			1 76.4					1 76.4
계	19 8,121	22 10,031	16 2,115.4	8 102,821	5 8,181	1 44	7 2,069	78 133,382.4

부동산 목록표(전)

단위 :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평	등기일자	소유권자	비고
칠서면 계내리 1170	전	57	82. 5.29	윤태사	
칠서면 계내리 1171	전	377	64.12.31	〃	
칠서면 계내리 1192	전	107	91.11.29	칠원윤씨대종회	
칠서면 계내리 1195	전	55	82. 5.29	윤태사	
칠서면 계내리 1335	전	132	82. 5.25	〃	
칠서면 계내리 1340	전	288	82. 5.29	〃	
칠북면 검단리 829	전	570	81. 7.18	〃	
칠북면 검단리 830	전	2,792	81. 7.18	〃	
대산면 구혜리 204-2	전	807	65. 6.19	〃	
대산면 구혜리 204-3	전	54	86. 9. 4	〃	
칠원면 용산리 571	전	813	81.10.27	〃	
칠원면 유원리 243	전	117	81.11.18	〃	
칠원면 유원리 248	전	341	81.11.18	〃	
칠원면 유원리 269	전	26	81.11.18	〃	
칠원면 유원리 271-1	전	140	81.11.18	〃	
칠원면 유원리 362	전	220	85. 6.19	〃	
칠원면 유원리 927-2	전	355	65. 6.19	〃	
칠원면 유원리 928	전	180	88. 1.29	칠원윤씨태사공종중	
칠원면 유원리 929	전	690	65. 6.19	윤태사	
계(19필지)		8.121			

부동산 목록표(답)

단위 :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등기일자	소유권자	비고
		평			
칠북면 검단리 1228-1	답	269	64.12.31	윤태사	
칠북면 검단리 1229-5	답	90	64.12.31	〃	
칠북면 검단리 582	답	467	81. 7. 8	〃	
칠북면 검단리 716	답	115	64.12.31	〃	
대산면 구혜리 3-1	답	906	65.10.30	〃	
대산면 구혜리 3-2	답	1,058	65.10.27	〃	
대산면 구혜리 3-3	답	834	70. 5.20	칠원윤씨태사공종중	
대산면 구혜리 5-1	답	886	70. 5.20	〃	
대산면 구혜리 5-6	답	506	65. 6.15	윤태사	
대산면 구혜리 204-1	답	252	65. 6.19	〃	
대산면 구혜리 206-3	답	1,398	65.10.27	〃	
대산면 구혜리 206-4	답	148	65.10.27	〃	
대산면 구혜리 211-1	답	151	70. 5.20	칠원윤씨태사공종중	
칠원면 유원리 61-2	답	122	84.12.27	〃	
칠원면 유원리 61-3	답	443	84.12.27	〃	
칠원면 유원리 244-1	답	37	65. 6.19	윤태사	
칠원면 유원리 267	답	477	65. 6.19	〃	
칠원면 유원리 268-1	답	660	65. 3. 1	충효공	
칠원면 유원리 272-2	답	93	94.12.31	칠원윤씨대종회	
칠원면 유원리 272-3	답	205	94.12.21	〃	
칠원면 용산리 755	답	375	65. 6.29	윤태사	
칠원면 용정리 576-3	답	539	65. 6.28	〃	
계(22필지)		10,031			

부동산 목록표(대지)

단위 :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평	등기일자	소유권자	비고
경남 마산시 합성동 266-2	대지	125	87. 3.26	칠원윤씨대종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7	대지	76.4	96. 8.28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75	대지	119	80.11.20	윤태사	
〃 1176	대지	177	94.12.21	칠원윤씨대종회	
〃 1177	대지	19	82. 5.31	윤태사	
〃 1178	대지	103	80.11.28	〃	
〃 1179	대지	102	80.11.28	〃	
〃 1172	대지	59	65. 5.27	〃	
〃 1173	대지	99	65. 5.27	〃	
〃 1336	대지	78	82. 5.25	〃	
〃 1337	대지	52	64.11.21	〃	
함안군 칠서면 칠서지방산업단지1-1블럭	대지	230		칠원윤씨대종회	2000.7.31 환지미등기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832	대지	138	80.11.28	윤태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270	대지	151	80.11.28	충효공	
〃 271-2	대지	361	94.12.31	칠원윤씨대종회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334-1	대지	226	81. 1.13	윤태사	
계(16필지)		2,115.4			

부동산 목록표(임야)

단위 :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평	등기일자	소유권자	비고
칠서면 계내리 산1194-1	임야	15,977	80.11.28	칠원윤씨대종회	
칠북면 검단리 산190	임야	29,343	80.11.28	윤태사	
칠북면 검단리 산191	임야	14,456	80.11.28	〃	
칠북면 검단리 산191-3	임야	10,664	80.11.28	〃	
대산면 구혜리 산205	임야	2,628	80.11.28	〃	
칠원면 유원리 산182-1	임야	26,793	80.11.28	충효공	
칠원면 유원리 산185	임야	1,290	80.11.28	〃	
칠원면 유원리 273	임야	1,670	94..2.21	칠원윤씨대종회	
계(8필지)		102,821			

부동산 목록표(기타)

단위 : 평

소 재 지	지목	지적	등기일자	소유권자	비고
		평			
칠서면 계내리 산1148-3	잡종지	44	80.11.28	윤태사	
칠원면 유원리 248-1	유지	55	65. 6.19	〃	
칠원면 유원리 272-1	유지	237	94.12.31	칠원윤씨대종회	
대산면 구혜리 206-1	유지	7,226	85. 9.22	칠원윤씨태사공종중	
칠북면 검단리 산191-1	도로	51	80.11.28	윤태사	
칠북면 검단리 산191-2	도로	1,809	80.11.28	〃	
칠북면 검단리 1228-2	도로	4	64.12.31	〃	
칠북면 검단리 1228-3	도로	18	64.12.31	〃	
칠북면 검단리 1229-2	도로	13	94.12.31	〃	
칠북면 검단리 1229-3	도로	158	64.12.31	〃	
칠북면 검단리 1230-2	도로	16	64.12.31	〃	
칠북면 검단리 1229-1	유지	355	64.12.31	〃	양어장
칠북면 검단리 1230-1	유지	308	64.12.31	〃	양어장
계(13필지)		10,294			

4、회관건립기

우리 칠원윤씨는 시조 태사공이래 일천삼백여년간 내려오면서 후손은 번성하여 명문 거족을 이루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오면서도 대종회관 하나 없이 지내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중 1995년에 대종회가 종토보상금 6억원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서울 종친회가 주축이 되고 전국의 종친들이 정성을 모아 4억3천여만원의 헌성금과 현물납으로 우리 칠원윤씨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고 종친문화를 꽃 피울수 있는 모임의 전당인 대종회관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우리 칠원윤문의 역사적인 장거이며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값진 유산이 될 것이기에 이를 기리는 뜻으로 헌성인들의 이름을 적어 보존한다。

1996년 4월 21일

칠원윤씨대종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장 영연·영학

5、헌성금 방명록

일억오백만원	석원(石遠)[현물]
삼천육백만원	영연(永淵)
이천오백만원	영학(榮學)
일천오백만원	영원(英遠)
일천사백만원	종사(鍾思)[현물]
일천삼백만원	병철(炳哲)·광순(珖淳)
일천만원	중근(重根)·한흠(漢欽)
팔백만원	종일(鍾一)
칠백만원	철호(喆鎬)[현물]
오백만원	종구(鍾璆)·석찬(碩燦)
사백만원 이상	진원(晋遠)·장순(長順)
삼백만원 이상	기복(基福)·용한(容漢)·보은종친회
이백만원 이상	원(遠)·일수(日洙)·진수(秦洙)·인학(麟學)·재원(在元)·영운(永雲)·우정(羽正)·종보(鍾保)·종복(鍾福)·응원(應遠)·갑수(甲洙)·주한(朱漢)·순득(順得)·철수(喆洙)·홍묵(弘默)[이상 서울] 종서(鍾書)[대전]·규원(圭遠)[합천]·정산종친회·목사공종회·춘천종친회
일백만원 이상	형완(炯玩)·동원(東遠)·영원(英遠)

· 기옥(錡玉) · 양수(亮洙) · 호원(鎬遠) · 종재(鍾在) · 종태(鍾太) · 형순(亨淳) · 해수(海洙) · 길순(吉淳) · 제순(濟淳) · 용부(勇夫) · 부훈(富勳) · 종철(鍾哲) · 종주(鍾宙) · 종욱(鍾旭) · 영우(永禹) · 병무(炳武) · 의원(義遠) · 태원(泰遠) · 동원(東遠) · 정성(正城) · 종구(鍾九) · 종의(鍾慭) · 종렬(鍾烈) · 대(大) · 종수(鍾壽) · 석순(碩淳) · 창수(昌洙) · 방수(芳洙) · 명수(明洙) · 민봉 · 성수(星洙) · 행순(幸淳) · 상국(相國) [이상 서울] · 무남(武南) [정산] · 병택(炳宅) [대전] · 갑순(甲淳) [서천] · 양원(良遠) [대구] · 전적공종회 · 낭장공파종회 · 부산종친회 · 장위상계종회 · 광주종친회 · 홍천종친회 · 칠곡종친회 · 규의종중

일백만원 미만

삼백사명 사천육십육만원

명단 별도 보존

제4편 묘 제(墓祭)

1、태사공 묘제(太師公 墓祭)

(1) 山神祭(산신제)(묘제에 앞서 지냄)

祝文(축문)

維(유)

檀紀○○○○年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某敢昭告于
(단기○○○○년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모감소고우)

土地之神 某恭修歲事于始祖考新羅太子太師府君之墓
(토지지신 모공수세사우시조고신라태자태사부군지묘)

惟時保佑實賴 神休敢以酒饌敬伸奠獻尙
(유시보우실뢰 신휴감이주찬경신전헌상)

饗(향)

단기○○○○년 간지 ○○월 간지 삭○○일 간지 ○○는 감히 밝혀 토지신령님께 고합니다。 ○○가 신라태자태사부군의 묘소에서 공손히 시제를 올리는데 때로 도와주시는 신의 도움에 의지하고자 감히 술과 음식을 공경히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2) 태사공묘제 축문 太師公墓祭 祝文

유
維

단기○○○○년세차간지 모월간지삭모일간지후손모감
檀紀○○○○年歲次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后孫某敢

소고우
昭告于

현시조고신라태자태사부군지묘
顯始祖考新羅太子太師府君之墓

세천일제 예유중제 이자상로 미증감모
歲薦一祭 禮有中制 履茲霜露 彌增感慕

근이청작시수 지천상사 상
謹以淸酌時羞 祗薦常事 尙

향
饗

단기○○○○년 간지○○ 월 간지 삭○○일 간지○○에 후손○○는 감히 밝혀 시조할아버지이신 신라태자태사부군 묘소에 고합니다。

해가 바뀌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입니다。이미 서리가 내리니 사모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정성껏 세사를 올리니 흠향하소서

(3) 묘제홀기 墓祭笏記(묘제의 진행순서)

○ 집례행사선언
執禮行事宣言
(집례는 제례행사 시작을 선언한다)

○ 초헌관이하제집사개성복서립
初獻官以下諸執事皆盛服序立
(초헌관이하 모든 집사는 제복을 입고 순서대로 서시오)

○ 집례관수세수취배위재배복위
執禮盥水帨手就拜位再拜復位
(집례는 대야물에 손을 씻고 절하는 위치로 나가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 집사이인관수세수취배위재배흥립우상석동서
執事二人盥手帨手就拜位再拜興立于床石東西
(집사 두 사람은 대야물에 손은 씻고 절하는 위치로 나가 두번 절하고 일어나 상석 동서로 서시오)

○ 초헌관점시진설환복위
初獻官點視陳設還復位
(초헌관은 진설을 점검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 강신례
降神禮

○ 초헌관관수세수취향로석하궤좌
初獻官盥手帨手就香爐石下跪坐
(초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고 향로석 아래로 나가 꿇어 앉으시오)

분향재배잉궤좌
○ 焚香再拜仍跪坐
(향에 불을 붙여 올리고 나서 두번 절하고 다시 꿇어 앉으시오)

서집사봉출잔반수헌관
○ 西執事奉出盞盤授獻官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고 나와서 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양수봉잔반동집사침주우잔
○ 獻官兩手奉盞盤東執事斟酒于盞
(헌관은 두 손으로 잔반을 받들고 동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헌관우수집작뢰우지삼경진이허잔환수동집사
○ 獻官右手執酌酹于地三傾盡以虛盞還授西執事
(헌관은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땅위에 세번을 기우려 모두 따르고 나서 빈잔을 서집사에게 돌려주시오)

서집사봉잔반전우신위전
○ 西執事奉盞盤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신위앞에 올리시오)

초헌관부복흥재배복위
○ 初獻官俯伏興再拜復位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참신례
◆ 參神禮

헌관제집사급참사원부복재배흥평신
○ 獻官諸執事及參祠員俯伏再拜興平身
(헌관과 집사 및 참사원은 모두 엎드려 있다 두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서시오)

초헌례
◆ 初獻禮

초헌관취향로석하부복궤좌
○ 初獻官就香爐石下俯伏跪坐
(초헌관은 향로석 아래로 나아가 엎드려 있다 꿇어 앉으시오)

서집사봉출잔반수초헌관
○ 西執事奉出盞盤授初獻官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고 나와서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양수봉잔반동집사침주우잔
○ 初獻官兩手奉盞盤東執事斟酒于盞
(초헌관은 두손으로 잔반을 받들고 동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초헌관우수집작소제우지잉수동집사
○ 初獻官右手執酌小祭于地仍授西執事
(초헌관은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땅위에 조금 따르고 나서 다시 서집사에게 주시오)

서집사봉잔반환전우신위전
○ 西執事奉盞盤還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신위앞에 올리시오)

동집사진어적초헌관부복
○ 東執事進魚炙初獻官俯伏
(동집사는 어적을 올리고 초헌관은 엎드리시오)

동집사계반개치기남
○ 東執事啓飯蓋置其南
(동집사는 메그릇 뚜껑을 열어 남쪽에다 놓으시오)

삽시반중서병정저우시접상동서집사퇴출
○ 揷匙飯中西柄正箸于匙楪上東西執事退出
(숟가락을 메 가운데에 꽂고 젓가락은 손잡이가 서쪽을 향하도록 시접위에 바르게 올려 놓고 나서 동집사는 물러 나오시오)

초헌관이하개부복
○ 初獻官以下皆俯伏
(초헌관이하 모든 참사자는 엎드리시오)

대축취초헌관지좌궤독축문홀축관복위
○ 大祝就初獻官之左跪讀祝文訖祝官復位
(대축은 초헌관 왼편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마치면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초헌관이하개평신초헌관재배복위
○ 初獻官以下皆平身初獻官再拜復位
(초헌관이하 모든 참사자는 일어나 바로하시오 초헌관은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서집사퇴출잔반별사타기이허잔반환전우신위전
○ 西執事退出盞盤別瀉他器以虛盞盤還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내려서 퇴주그릇에 쏟고 빈잔반을 신위앞에 올려 놓으시오)

아헌례
◆ 亞獻禮

아헌관관수세수취향로석하궤좌
○ 亞獻官盥手帨手就香爐石下跪坐
(아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고 향로석 아래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서집사봉출잔반수헌관
○ 西執事奉出盞盤授獻官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고 나와서 아헌관에게 주시오)

아헌관양수봉잔반동집사침주우잔
○ 亞獻官兩手奉盞盤東執事斟酒于盞
(아헌관은 두손으로 잔반을 받들고 동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아헌관우수집작소제우지잉수서집사
○ 亞獻官右手執酌小祭于地仍授西執事
(아헌관은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땅위에 조금 따르고 나서 서집사에게 주시오)

서집사봉잔반환전우신위전
○ 西執事奉盞盤還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신위앞에 올리시오)

동집사진육적아헌관부복흥재배복위
○ 東執事進肉炙亞獻官俯伏興再拜復位
(동집사는 육적을 올리고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 서집사퇴출잔반별사타기이허잔반환전우신위전
西執事退出盞盤別瀉他器以虛盞盤還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내려서 퇴주그릇에 쏟고 빈잔반을 신위앞에 올려 놓으시오)

종헌례
◆ 終獻禮

○ 종헌관관수세수취향로석하궤좌
終獻官盥水帨手就香爐石下跪坐

(종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고 향로석 아래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 서집사봉출잔반수종헌관
西執事奉出盞盤授終獻官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고 나와서 종헌관에게 주시오)

○ 종헌관양수봉잔반동집사침주우잔
終獻官兩手奉盞盤東執事斟酒于盞

(종헌관은 두손으로 잔반을 받들고 동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종헌관우수집작소제우지잉수서집사
終獻官右手執酌小祭于地仍授西執事

(종헌관은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땅위에 조금 따르고 나서 서집사에게 주시오)

○ 서집사봉잔반환전우신위전
西執事奉盞盤還奠于神位前

(서집사는 잔반을 받들어 신위앞에 올리시오)

○ 동집사진계적종헌관부복흥재배복위
東執事進鷄炙終獻官俯伏興再拜復位

(동집사는 계적을 올리고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유식례
◆ 侑食禮

○ 초헌관취향로석하궤좌
初獻官就香爐石下跪坐

(초헌관은 향로석 아래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 서집사봉공잔수초헌관
西執事奉空盞授初獻官

(서집사는 빈잔을 받들어 초헌관에게 주시오)

○ 초헌관양수봉잔동집사침주우잔
初獻官兩手奉盞東執事斟酒于盞

(초헌관은 두손으로 잔을 받들고 동집사는 잔에 술을 따르시오)

○ 초헌관봉작수서집사
初獻官奉酌授西執事

(초헌관은 잔을 받들어 서집사에게 주시오)

○ 서집사수작첨작신위전잔반
西執事受酌添酌神位前盞盤

(서집사는 잔을 받아서 신위앞의 잔반에다 첨작을 하시오)

○ 동집사퇴갱진숙수삼시수반
東執事退羹進熟水三匙水飯

(동집사는 갱을 내려 놓고 숭늉을 올리고 메를 세번떠서 물에 말으시오)

초헌관부복흥재배복위
○ 初獻官俯伏興再拜復位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두번 절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시오)

초헌관이하개입이숙사평신
○ 初獻官以下皆立而肅俟平身

(초헌관이하 모두 서서 머리를 숙여 묵념을 한 후 바로하시오)

서집사합개하시저
○ 西執事盒蓋下匙箸

(서집사는 메그릇 뚜껑을 덮고 수저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오)

음복례
◆ 飮福禮

초헌관취향로석하음복위서향궤좌
○ 初獻官就香爐石下飮福位西向跪坐

(초헌관은 향로석아래 음복위치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대축철제일첩급포수헌관
○ 大祝撤第一帖及脯授獻官

(대축은 첫번째 술잔과 포를 내려 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수작음흘
○ 獻官受酌飮訖

(헌관은 잔을 받아 복주를 마시시오)

대축이축문분어향로상
○ 大祝以祝文焚於香爐上

(대축은 축문을 향로위에서 불사르시오)

대축향초헌관읍고이성초헌관답이성
○ 大祝向初獻官揖告利成初獻官答利成

(대축은 초헌관을 향하여 읍한다음 「이성」하고 초헌관도 따라서 「이성」하고 답하시오)

사신례
◆ 辭神禮

초헌관이하개사신재배
○ 初獻官以下皆辭神再拜

(초헌관이하 모든 참사자는 두번 절하시오)

예필
○ 禮畢

(제례를 마칩니다)

집사철찬
○ 執事撤饌

(집사는 찬을 거두시오)

2、陳設圖(진설도)

山神祭(산신제)(묘제에 앞서 올리시오)

墓上左便築壇 定爲山神位(묘상좌편축단 정위산신위)

묘소 위 왼쪽에 단을 쌓아 산신위로 정한다.

淨掃設床及爐盒布席陳設(정소설상급로합포석진설)

깨끗이 청소하고 제상과 향로와 향합을 준비하고 자리를 편다음 진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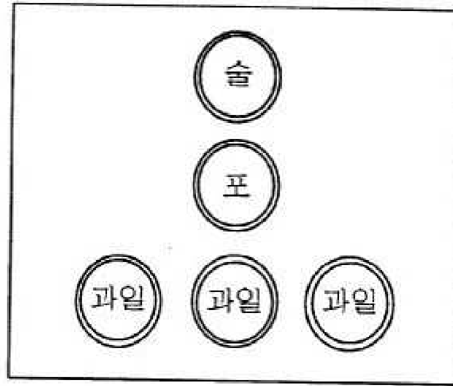
降神參神闕焚香(강신참신궐분향)

강신과 참신을 하며 분향은 하지 않는다.

單獻辭神撤饌(단헌사신철찬)

술잔을 한번 올리고 사신하며 찬을 거둔다.

山神祭陳設圖(산신제진설도)



단 위 진 설 도 (한분 모실 때)

수저	메	잔	갱			
면	적	적	적	떡		
탕	탕	탕				
포	숙채	청채	생채	간장	김치	식혜
과일	과일	과일	과일	과일	과일	조과

양위진설도 (두분 모실 때)

메	잔	갱	수저	메	잔	갱
면		적	적	적		떡
		탕	탕	탕		
포	숙채	청채	생채	간장	김치	식혜
과일	과일	과일	과일	과일	과일	조과

3、칠원시제향사위(시제일 : 음력10월1일)

지명 / 휘(諱) / 세(世)	상포(上浦)	검단(檢丹)	구혜(九惠)	유원(柳原)
시조(始祖)	시영(始榮)			
시조자(始祖子)		황(璜)		
1세		거부(鋸富) 문화류씨(文化柳氏)		
6세			계(啓)	
12세	을부(乙富)			
14세		송제(松磾) 여산송씨(礪山宋氏)		
16세	무안박씨(務安朴氏)	수(秀)		
17세	길보(吉甫)			
18세		자(樜)		환(桓) 장(樟) 화(樺) 공(椌)
19세	자당(子當)			천효(天斅) 수상(守常)
계	5위	7위	1위	6위

4、묘실전선조시제향사위(30위)

세	휘	배위				
2세	영(瑩)	진주하씨(晋州河氏)				
3세	홍중(弘中)	안동김씨(安東金氏)				
4세	적(勣)	김해김씨(金海金氏)				
5세	명도(鳴道)	개성왕씨(開城王氏)				
7세	원강(元綱)	강씨(姜氏)				
8세	유(蕤)	경주김씨(慶州金氏)				
9세	은경(殷卿)	능성김씨(綾城金氏)				
10세	박(博)	경주이씨(慶州李氏)				
11세	세득(世得)	하동정씨(河東鄭氏)				
13세	흘(仡)	안동김씨(安東金氏)				
15세	양삼(養三)	개성왕씨(開城王氏)				
17세	계유(繼萸)					
18세	전(佺)					
19세	천이(天怡)	경주이씨(慶州李氏)	천각(天覺)	방저(邦柢)	동복오씨(同福吳氏)	자량(子良)

제5편 문헌(文獻)

1、비 문

(1) 신도비

① 태사공신도비명(시조 휘 시영) 상포

옛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이신 칠원윤공의 휘는 시영이시며 묘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새터남향의 언덕에 있다。옛날 칠원고을에 윤씨 부인이 있었는데 임신하여 꿈에 신령님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깨어나 이상히 여기다가 분만하여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었더니 벼슬이 태자태사고명원로에 이르렀으며 윤씨중에 관적을 칠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태자태사공을 시조로 모시고 있다。공의 아들인 황은 태사국판사이었다。그의 후손들로 저명한 사람을 말하면 고려초기부터 칠제백작에 봉해진 거부와 좌복야판내사를 역임한 영과 정당문학벼슬을 한 홍중과 태위에서 특진상주국찬성사를 거쳐 무양후작에 봉해지고 문경공으로 추중받은 적과 구령부원군에 봉해지고 충경공으로 추중받은 명도와 좌사보를 역임한 계와 판밀직사를 역임하고 무안군에 봉해진 원강과 지도평의사사를 역임하고 무창백작에 봉해지고 익량공으로 추중된 유와 판후덕부사를 역임하고 칠제백작에 봉해지고 안혜공으로 추중받은 은경과 검교감직사를 역임한 박과 검교감찰을 역임한 세득과 이부상서를 역임한 을부와 금위유랑장에 오른 홀과 참지정사에 오른 송제와 추밀원부사를 역임한 양삼과 군부판서를 역임한 수와 선부전서에 오른 길손과 수성직량공신으로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공으로 추중받은 길보와 대장군에 오른 계유와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작에 봉해지고 충효공으로 추중받은 환과 우부대언에 오른 자와 칠성군에 봉해진 장과 좌사윤에 오른 화와 칠성부원군에 봉해진 공과 대제학에 오른 천효와 금위유랑장을 역임한 천이와 사평에 오른 침과 낭장에 오른 광우와 대제학을 역임한 수상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대왕의 조정에 좌명공신으로 칠원군에 봉해지고 영의정과 정경공으로 추중받은 방저와 좌명공신으로 칠원부원군에 봉해지고 정평공으로 추중받은 자당과 한성판윤을 역임하고 칠제백작에 봉해지고 충간공으로 추중받은 자탕등이 있다。

세종대왕 조정에는 판결사에 오른 조생과 생원에 합격한 신생과 진사에 합격한 달과 교리를 역임한 형과 대사간을 역임한 지와 생원에 합격한 사 등이 있다。성종대왕의 조정에는 군수를 역임한 중임이와 승지를 역임한 보상이 있다。중종대왕 조정에는 직제학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선록된 석보와 현감을 역임한 번손과 교리에 오른 관이 있다。명종대왕 조정에는 이조판서로 추증받은 문형과 호당부제학을 역임한 풍형과 현감을 역

임한 자균과 군수를 역임한 자당과 진사에 합격한 자곤이 있다。선조대왕 조정에는 승사랑에 오른 준효와 전적을 역임한 준제와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으로 추증받은 탁연과 현감을 역임하고 칠평군에 봉해지고 충장공으로 추증된 경원과 관찰사를 역임한 조원과 통어사를 역임한 시달과 선무원종공신으로 첨정에 오른 승보가 있다。숙종대왕 조정에는 절제사를 역임한 동교와 첨지를 역임한 빙이 있으며 영조대왕의 조정에는 이조판서와 정민공으로 추증받은 지술과 지제교를 역임한 복일과 관찰사를 역임한 경룡이 있고 정조대왕 조정에는 호조판서와 판돈영을 역임한 사국등이 있으며 기타의 청백하고 저명한 사람들을 생략하여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름답고 성대하도다。공의 후손되는 상학이 가장문을 구비하여 나에게 비문을 문의하였다。아 공은 처음 출생을 할때부터 보통사람들 보다 크게 다르게 되었으며 벼슬의 높음이 재상의 등급에 올랐으니 그 재능과 덕행을 가지고 있음과 공로와 업적을 세워놓음이 반드시 기록과 전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세상은 세번 나라가 바뀌어졌고 연대수는 수천년이 지나 남아있는 사료에도 고증이 없고 부러진 비석은 말을 아니하여 자취없이 사라져 고증할수가 없는 것이 애석할 뿐이로다。

대저 공덕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체백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손들이 번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공의 후손들을 관찰하여 보니 어쩌면 그렇게 번성하여 퍼지고 그리고 또 저명한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을까요。세상에 운수는 돌고 돌아서 강과 산이 자리가 바뀌어 졌는데 그런데 공의 나즈막한 묘소는 천 백여년을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하늘 땅 만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역시 이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이 두가지 일로 가히 증험이 될 것이다。비명문에 이르기를

보통 씨족의 창조에는 반드시 기이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영기가 모여 산악같이 쌓여 그 힘이 만민에게 이르게 되며 아름다운 문채가 크게 밝아 인후한 덕을 베풀면 이런 분을 시조라 하는 것이 옛날의 여론이로다。윤씨가 칠원을 관적으로 한 것은 태자태사공부터 시작이라네。신령님이 이름도 지어주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도다。아득한 옛 여묘에 벼슬과 영화가 떨어질소냐? 높은 덕을 세워 놓음이 여기에 이 상고가 되리라。비록 상고됨은 없으나 그 증험이 있다네。공이 후손을 두었으니 문관과 무관이 대대로 일어나리라。천 백년이나 이어졌으니 매인 줄 없지 아니하리라。근원마다 뿌리마다 바로 공을 의거하고 있다네。공은 묘소가 있으니 길지를 골라 모시었도다。자좌 오향으로 봉분을 하였으니 다듬어 지은 집과 같도다。해마다 시제에 향 피우면 크

고 많이 널리 널리 퍼지도다。 펴 놓은 덕화 바다같은 공로 누구인들 빛내지 아니할까? 이미 증험되었고 또 믿음이 있으니 공을 어떻게 가히 잊을소냐。 초군과 목부들도 반드시 절하는 곳이 수곡의 능원이라네。 이 비석에 문장을 새기어 그 후손들을 위로하오니 재능있는 후손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 문중 번창하리라。

1914년 4월 일

숭록대부 전이조판서 홍문관제학 원임규장각제학

해평 윤용구는 지음

① 太師公神道碑銘(始祖 諱 始榮) 上浦

故新羅太子太師漆原尹公 諱 始榮 墓 在漆原西面上浦柰內藪谷子坐之原 昔 漆原縣有尹氏 婦 有娠 夢 神人 錫名 覺而異之 旣娩而命名焉 官至太子太師顧命元老 尹氏籍漆原者 皆祖太子太師公 公之子璜 判太史局事 其後孫顯者 曰麗初漆隄伯鉅富 左僕射判內史瑩 政堂文學弘中 太尉特進加上柱國贊成事武陽侯文敬公勳 龜寧府院君忠敬公鳴道 左思補啓 判密直司事武安君元綱 知都評議司事 武昌伯翼亮公彛 判厚德府事漆隄伯安惠公殷卿 檢校監直司博 檢校監察世得 吏部尙書乙富 禁衛諭郎將仡 參知政事松磾 樞密院副使養三 軍簿判書秀 選部典書吉孫 輸誠直亮功臣龜城君忠義公吉甫 大將軍繼英 門下侍中漆原伯忠孝公桓 右副代言櫶 漆城君樟 左司尹樺 漆城府院君椌 大提學天斅 禁衛諭郎將天怡 司評忱 郎將光佑 大提學守常 入朝鮮朝 太宗朝佐命功臣漆城君 贈領議政貞景公邦柢 佐命功臣漆原府院君靖平公子當 漢城判尹漆隄伯忠簡公子良 世宗朝判決事祖生 生員神生 進士達 校理衡 大司諫志 生員思 成宗朝郡守仲任 承旨輔商 中宗朝直提學淸白吏碩輔 縣監蕃孫 校理鶴 明宗朝 贈吏曹判書文亨 湖堂副提學豊亨 縣監自均 郡守自塘 進士自坤 宣祖朝承仕郎遵孝 典籍遵悌 戶曹判書漆溪君憲敏公卓然 縣監漆坪君忠莊公慶元 觀察使調元 統禦使時達 宣武原從功臣僉正承輔 肅宗朝節度使東郊 僉知聘 英祖朝 贈吏曹判書正慤公志述 知製敎復一 觀察使敬龍 正祖朝戶曹判書判敎寧師國

其餘淸顯 略不盡記 猗歟盛矣 公之后孫尙學 具狀問銘于不佞 嗚呼 公之初生 大異凡民 其位之尊 躋列上公 才德之蘊抱 勳業之樹立 必有可記可傳者 而世更三古 年歷數千 殘史無徵 斷碑不語 泯然不可考 惜哉 夫有功德之人沒而體魄 不寧 子姓 不昌則無是理也 觀公之雲仍 何其繁衍而又顯者之衆也 世運循環 陵谷易位而 公之四尺之封千百年不變 殆將穹壤之塊久 不亦異乎 是二者而可徵矣

銘曰

凡厥肇族 必有異人 鍾靈杲嶽 賴及烝民 鴻朗炳蔚 施于振振 是曰鼻祖 疇之與論 維尹籍漆 肇自太師 神之命之 邦之綏之 邈哉斯盧 典榮闕墜 卓彼樹立 斯焉稽斯 雖則無稽 而有可徵 公有孫子 文武代興 綿千百年 罄無弗繩 原

原本本 緊公是憑 公有衣履 卜藏吉岡 面陽而封 如斧如堂 歲時芬苾 肸蠁洋洋 開德冥功 孰云不章 旣徵且信 公也可謏 樵牧必式 藪谷之原 琢辭龜珉 以慰孝孫 有才無止 永昌其門

歲甲寅四月 日

崇祿大夫前吏曹判書弘文館提學原任奎章閣提學

海平 尹用求 撰

◇

② 헌민공 신도비명(휘 탁연) 대언공후 여주

조선국 수충공성익모수기 광국공신 정헌대부 호조판서겸 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칠계군 시 헌민윤공 신도비명

가원이 몇달앞서 합천 광산에 살고 있는 중호 헌민공 윤탁연선생의 후손을 위하여 유적비명을 찬한바 있어 공의 진충위훈(眞忠巍勳)과 문장행의(文章行義)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었다。이제 경기도 성남에 세거한 주손(冑孫) 칠수군의 청에 의하여 다시금 이 신도비명을 쓰기로 하였다。공의 자는 상중이요 관은 칠원이요 중호는 자호(自號)였고 그 선계를 소고(溯攷)하면 여한(麗韓)이래에 긍하여 환업(宦業) 문장이 이어져 일국의 대성(大姓)으로 알려졌었다。연산조에 직간으로 이름높던 홍문관 직제학 석보는 공의 증고(曾考)였고 왕고(王考) 내섬시 판관 문형 황고(皇考) 우봉 현령이 외왕고(外王考) 성균생원 안동 김윤선은 모두 유망(儒望)이 있었다。공은 중종무술 5월15일 청주 정안리에서 태어나 어렸을때부터 남다른 총명을 지녔으므로 겨우 말을 배우자 문득 글자를 알게 되었으며 어른의 엄격한 가르침을 기다리기 전에 문장이 숙성하여 기동(奇童)으로서 이름을 떨쳤고 자라서는 명성이 더욱 높아 아계 이산해와 고죽 최경창 등으로부터 8문장이란 일컬음을 얻었다。무오 사마를 거쳐 을축에는 알성과에 올라 괴원(槐院)에서부터 사국(史局)으로 들어갔고 얼마 아니되어 승정원 주서가 되어 수상의 추천에 의하여 명종의 말명(末命)을 받아쓸때 공은 곧 덕흥군 제3자라 하여 三을 參으로 갖추어 썼으므로 조신들은 그의 주민함을 칭도하였다。무진에 성균관전적 사간원정언 형조좌랑등을 역임하고 천추사 서장관으로 명경(明京)에 건너가 종계변무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사헌부지평이 되었다。어느날 연중(筵中)에서 왕의 잘못을 논하되 이와같은 일은 진나라 간문으로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더니 왕은 노하여 네가 어찌 나를 간문에게 비한단 말이냐 하였으나 공은 조용히 잘못된 허물을 고치면 요순이 될것이오나 그렇지 못한다면 걸주도 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다만 간문에 그칠 뿐이옵니까 하고 대답하여 왕의 노여움은 더욱 심했으나 상신 홍섬의 간곡한 진언에 따라 풀리었

다。 곧 장령에 올라 홍문관교리로 옮겼고 내섬시와 종부시의 첨정을 거쳐 의정부의 검상、사인과 양시(兩試)의 아장(亞長)을 지냈다。 을해에는 동래부사에 발탁되었고 병자에는 내외상(喪)을 만났고 뒤에 상주목사로서 치적이 있어 조정에서는 표리(表裏)를 내리고 백성은 거사비를 세웠다。 경진에는 잇달아 동부승지 좌부승지에 제수되고 춘당대 문신시(文臣試)에 장원하여 가선에 올랐으며 승지에서 도승지를 거쳐 예조참판으로 옮겼으며 마침 영남에 심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관찰사에 특제(特除)되었다。 돌아와 남궁(南宮)을 거쳐 지중(知中)에 옮겨 동지춘추와 승문제조를 겸임하였고 얼마 아니되어 한성판윤을 지냈다。 공은 전후 세차례 형조를 맡았고 두차례 탁지를 거느렸으나 모두 구김없이 수행했으므로 사람들은 공은 다만 문장에서만 장점을 지녔을뿐 아니라 이재(吏才)에도 능했다 하여 칭도해 마지 않았다。 경인에 광국훈3등으로 정헌대부 칠계군에 봉했고 비국유사(備局有司) 당상에 특제(特除)되었다。 임진에 왜적이 서울까지 침입하자 왕이 서도로 파천할제 명을 받들어 임해군을 호위하여 북도로 향하는 도중에 검찰사에 제수되었다。 이때 왜적은 이미 함관(咸關)을 휩쓸고 북변에 이르렀고 우리 군민(軍民)은 모두 도망치기도 하려니와 적에게 항복한자도 적지 않았다。 공은 이러한 정세를 행재소에 보고하는 한편 잔졸을 모집하여 국토회복의 계획을 서둘렀고 도 순찰사에 특배(特拜)되자 눈물을 머금고 정의을 부르짖어 비로소 원근이 메아리처럼 응하여 합홍에서 적을 물리쳤고 홍원에서 대첩하였으며 안변에서 추격하였다。 이에 앞서 아들 경원이 행재소에 갔을때 의찬(意贊)을 보내어 죽음으로서 보국할 것을 격려하였고 왕은 공의 풍설속에 근왕(勤王)하는 노고를 근념하여 양구(羊裘)를 내렸다。 공은 흉회(胸懷)가 너그럽고 처사가 공명하여 흩어진 군졸을 잘 수습하여 쌓였던 민폐를 씻고 식량을 고루주어 적의 방비(防備)에 힘을 다하였으므로 북도백성들은 그가 갈려갈것을 우려하여 소를 올려 만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은 3년 풍진에 극도로 노취(勞瘁)한 나머지에 여질(癘疾)이 그 틈을 타서 갑오5월28일에 이르러 마침내 향년 57세로 여차(旅次)에서 순직하였고 그해 광주선산 세동 임좌원에 반장(返葬)하였으며 헌민의 시호가 내렸다。 공의 저적(著籍)은 당시 병란에 거의 유일(遺逸)되고 다만 북관일기와 시문 몇편이 남아 중호문집 2책이 간행되었을 뿐이었으나 모두 충군애국의 내용을 지녔고 특히 퇴계 이선생 만(挽)은 철사(哲師)를 오랫동안 섬기지 못한 슬픔을 간곡하게 서술하였다。 공의 전배 여산송씨는 동지 송맹경의 딸로서 2남을 두었는데 경원은 양성현감으로 삭녕에서 순절하여 충장의 시호가 내렸고 길원은 문과 한림이요 후배 전의이씨는 현감 이념

의 딸로 3남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희원、상원、영원이요 사위는 현감 이유심、현령 남석이다。 손증(孫曾)이하는 이루 다 기록하지 않는다。 옛 갑오에서 올해 을축에 이르기까지 어언 410여 성상이 흘렀고 옛날의 세동은 지금의 성남시 대원동으로서 도시확장에 따라 공의 묘는 황고(皇考) 우봉공과 아들 충장공의 묘와 함께 시력 4월6일 올해에 여주 도곡리 해좌원으로 이봉되어 3대 고비(考妣)가 동역(同域)에 누참하였다。

서기1986년 8월 일 세우다

문학박사 진성 이가원이 짓고

안동 김응현이 글씨를 쓰고 전액도 썼다

※ 참고

괴원(槐院): 승문원(承文院)의 별호

사국(史局): 춘추관(春秋館)의 별호

남궁(南宮): 예조(禮曹)의 별호

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의 별호

◇

③ 관찰사공신도비명(휘 조원) 대언공후 제천

제천의 향토는 산수가 수려하여 고위 관리들이 퇴임후 늙어서 많이 살고 있는데 향월 마을은 윤씨네가 이곳 저곳에서 재상이 나왔고 그 아름다운 문장과 아름다운 글씨들이 선조와 후손이 서로 빛내고 있었으나 그러나 수세대를 지나면서 남겨 놓은 업적과 남아있는 운치들이 자취없이 사라져 전혀 전해지는 것은 없고 다만 옛 마을 으슥한 지름길에 잡초들만 쓰러져 어지러울 뿐이다。

유일하게 감사를 역임한 윤공은 현재 수백년에 이르렀어도 시골 마을 부녀자와 어린이까지 역시 모두들 윤감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현명한 것 칭찬하기를 옛날 지방장관을 사당에 제사올리는것 같이 하고 있으니 공은 어떠한 남겨놓은 혜택이 있어서 이와같이 하는게 있을까?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퍼져 원근동에 여기 저기에 있고 줄줄이 품행이 단정하고 사리에 바른 선비들이 있어서 다른 성씨들처럼 필요없는 긴 말과는 같지 아니하여 물어볼 것 없이 윤씨 문중의 번창을 알수있으니 공은 어떠한 일을 세워 놓아 있기에 이와같은 것이 있을까? 나는 늘상 그의 글을 좋아서 읽으면서도 그 연고를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그의 후손되는 병익이 나를 찾아와 비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자신을 돌아보니 직위도 낮고 문장도 졸렬하여 감히 해당이 되지 아니하지만 또 병익이 찾아온 뜻을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침내 가져온 가장한통을 읽어 본 연후에 비로소 그 이루어진 이유들을 알게 되었다。 삼가 찾아보니 공의 이름은 조원이고 자는 정평이

며 호는 율원이니 칠원윤씨 후인이다。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시다。휘 길보는 고려시대에 직량공신으로 구성군에 봉해졌고 시호를 충의로 추서하였다。휘 참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서승이란 벼슬을 하여 신라와 고려의 기간에는 저명인이 상계되고 문무관리들이 연속되어 조선의 명족이었다。

고조부의 휘는 석보이며 호는 지퇴당이니 홍문관직제학을 하였으며 청백리로 선록되어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증조부의 휘는 덕형이니 진사이었는데 집의로 추증이 되었고 늙어서는 영동과 단양 지방에서 은거하며 산수로 즐거움을 삼고 있었으며 할아버지 휘는 신이니 어버이 섬김에 뜻을 받아 들이고 초상 3년에는 죽만 마시어 그 효성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었으며 중종대왕과 인조대왕의 승하시에는 부모님의 초상과 같이 슬퍼하여 조곡하는 신하들을 감동하게 하였다。고위 관리들이 효도와 충성으로 왕에게 천거하여 부형의 덕으로 좌승지에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휘는 창명이요 호는 백암이니 타고난 성격이 의분에 차서 큰 절개를 가지고 있어 선조대왕의 임진계사의 왜란시에 호서지방과 영동지방에서 의병을 인도하고 몸을 던져 왜적을 토벌하다가 마침내 죽령에서 순직을 하여 조정에서는 특별히 이조참판홍문관직제학으로 추증하였으며 어머니는 중정부인 봉화 금씨이니 군자감정 벼슬을 한 금극인의 딸이다。

융경6년(1572년) 7월13일에 제천 동방 백양리의 집에서 공은 출생하였으니 우리나라 선조대왕 5년이었다。

공은 용모가 준수하고 재덕이 겸비하여 나이가 겨우 15세에 문장을 잘 지었고 18세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 다녀 당대의 명류들과 더불어 금강산에 놀러가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하였으며 또 관동유록이란 1백구절되는 장편 시를 지어 자신의 취미를 만족하게 여기고 언사가 달변이었는데 아버지가 해를 당한 후에 그 여화가 장차 전 집안에 이르게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난을 피하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니 그 어려움과 고초는 강차옹의 옛날 일과 같았었다。

군대의 난리가 이미 평정되고 학문은 일찌기 성취되어 있어 계묘년(1603년) 32세 되는 9월에 사마시에 합격을 하였고 그 해 10월에는 갑과에 합격하여 육조의 사정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관북지방 장관이 되어 덕이 풍부하고 정치가 청백하여 지방 민속이 크게 변화하여 집집마다 인의와 예악의 책을 읽고 사람마다 효도와 우애의 일을 성근있게 하여 일개 군내가 편안하여 저 태평연월의 표상이 있어 이웃 지방의 남녀들이 역시 모두 멀리 바라보려고 목을 늘이고 있었다。

익산 군수로 나가서는 하천 정리를 하여 수해를 제거하고 옥토를 개척하여 민생을 이롭게 하여주니 각 지방 국민들이 모두 그의 혜택을 입었었고 또 경기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특별히 선령을 편안히 받들고 좋은 업적을 아름답게 하라는 교지를 내렸고 또 분우전에 성을 쌓으라고 하명하여 마음으로 감사관 정치를 흠모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몸소 옛날 사람들이 만든 수로의 교육을 실천하였다。

가선대부로 승진하여 황해도 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를 제수 받았다。 공은 임진왜란시에 황봉과 노전지방에 있으면서 육군과 수군의 비용을 보조하며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왕래하는 경비를 세밀히 검산하여 민폐를 제거하였으며 혼미한 조정이 인륜을 손상시킨 날을 당하여 깊고 높은 많은 원통한 일이 있어 상소를 올려 논쟁하다가 또 여러 흉악배의 감정에 거슬려 의금부에 갇히었으며 병진년(1616년)에는 마침내 운산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고 무오년(1618년)에는 경산으로 유배되었다。

인조원년 서기 1623년에는 방면의 혜택을 입어 상호군 겸 양서균전사둔전사로 부름을 입게 되었다。 공은 젊은 시절은 난리때문에 이미 아버지 봉양을 끝까지 할 수 없었고 8년간은 타관에서 살아 어머니에게 효도를 펼 수 없어 마침내 죽을 때까지 통한이 되어 간절히 사양하고 취임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가득한 3정승과 판서들이 불러 여러차례 권고하여도 일어서지 아니하였다。

계해년(1623년) 9월에는 가선대부로 승진시키어 동지중추의홍위부사겸오위도총부도총관을 제수받았으나 차자를 올려 정황을 진술하고 은퇴하여 향리에서 살며 거처하는 집 동구밖에 못을 파서 논밭에 물을 대게 하고 물고기를 길러 여러 사람에게 그의 혜택을 입히니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겸지라 부르는 곳이 여기이다。

숭정병자 서기 1636년 12월13일에 천명을 다하고 영면하니 향년이 65세이었으며 제천 장평 내동 복혜현동향(유좌) 능선에 안장하였다。 배위는 정부인 창원황씨이니 승지 벼슬을 한 황서의 딸이고 계배는 안동권씨이니 봉사 벼슬을 한 권준의 딸이다。 두 부인은 다같이 부덕이 있었고 집안 살림에 검소와 절약의 법도가 있었으며 공과 더불어 합장을 하였다。

3남2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민선이니 첨지 벼슬을 하였고 차자는 민길이니 선교랑 벼슬을 하였고 삼자는 민익이니 교수 벼슬을 하였다。 두 딸은 백진이와 금람에게로 시집을 갔다。 작은 부인에게서 아들이 있으니 민제이며 큰 딸은 홍우량의 소실이 되었고 차녀들은 이식과 강성업에게 시집을 갔다。

첨지의 아들은 상갑이고 선교랑의 아들은 성갑이요 상갑은 출계하였고 취갑이며 지갑이는 출계하였고 정갑이며 딸은 윤세규에게 출가하니 주부 벼슬을 하였다。

교수의 아들은 형갑이와 진악과 진화와 진항이며 딸들은 이상정과 이우태에게 시집을 갔다。

현손자인 익수는 지극한 효도로 세상에 소문이 나 있고 7대손인 학신이는 학문이 높아 후학을 개도하였으며 10대손인 하박이는 효행과 충절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 현재 후손들이 수백명에 이르러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공은 천부적으로 뛰어나게 명랑하고 성품도 공손하고 겸소하였으며 20세에 문장이 성공되어 세상에 추앙을 받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았으며 벼슬 길에 올라 30여년간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늘상 선비같이 빈한하게 살아 집안 가옥들이 누추하고 협소하였으니 이문청의 집같았으며 기물과 책상도 질박하고 검박하여 문중자같이 좋은 물건은 없었으며 왕실을 도와 덕화를 베풀고 저축을 많이 하였으며 관복차림은 화려하게 입고 국경을 지키며 대중을 거느렸고 모든 행정시행에 찬연한 법도가 있었으며 심고 거두는 법을 구비하여 국민의 생업을 가르치니 한순양의 업적같았다。 망해가는 조정에 정치가 혼란하여 아첨하는 무리들이 사악해져 저명한 정승판서들이 줄을 이어 쫓겨나고 높고 얕은 모든 관리들이 손을 놓고 발을 조심하여 모두들 포학을 피하였지만 조그마한 몸으로 강하게 방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앙의 덫에 덤벼들었으니 주유소의 결사적 간언과 같았으며 거친 파도와 사나운 세태속에서의 고난과 협악을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바이나 의연히 자립하여 수절을 변치 아니하였으니 장위공의 열번 귀양 가고도 후회하지 아니한 것과 같았으나 재앙이 연속하여 끝까지 부모님 봉양을 얻지 못하여 종신토록 원통하게 여기며 높은 관직 많은 녹봉을 사양하고 문을 닫고 잠적하여 여생을 마치었으니 옛 사람들이 말한대로 삼정승과도 바꾸지 아니한 것이었다。

석당이공은 공의 절개와 청렴을 칭찬하여 시로 말하기를 당대에 도원량이요 전신은 병만용이라 하였고 유천 한공과 사재 박공은 공의 효성이 더욱 독실하다고 칭찬하였으며 영안위인 홍공과 상곡 강공은 공의 재능과 덕화가 탁월하였고 여유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가 세상에 소문난 어진 재상들이라 억지로 아부하지는 아니하였다。 공의 성취한 바를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그리고 후손들이 요점만 적은 것과 동리 사람들이 추모하는 것은 그 사실대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명문에 이르기를

문현과 현인이 있는 종족이요 충성과 의리가 있는 가문이로다。 20세에 나타남을 이루어 시문에 주장이 되었

다네。 조정에 들어가 회포를 펼쳐 그 인품에 사람들은 놀래었도다。 군수가 되어 변방으로 나가 정치는 청백하고 민속은 변화되었다네。 해변지방에 덕화를 베풀어 경내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녕하였도다。 멀리 가까이에서 존경히 바라보아 명성이 태산북두와 같았도다。 어두운 임금이 방사하여 사악한 신하들이 혼탁하고 음란케 되었네。 상소올려 항쟁하니 바른 말이 조정에 진동하였도다。 그 늠름한 절의는 화와 복을 하늘에 맡기었다네。 남쪽지방 개척하려 8년간이나 해변에서 살았다네。 성군이 왕좌에 올라 금계가 홰에 올랐도다。 어버이 생각은 마음 아프게하고 관직 수행도 때때로 계속하였지요。 사정을 진술하여 간절히 사양하였지만 녹봉도 많아지고 관직도 높아졌네。 은퇴하여 시골에 살았지만 그 존망은 날로 새로워 졌다네。 마을과 나라에 모범이 되어 대부중에 현인이었도다。 셀 수 없는 후손들은 서로 모여 이를 준수하고 평범한 이 마을 사람들도 게으름 없이 공경히 준수할지어다。

서기 1939년 기묘년 9월16일 평원 이정규는 짓다

③ 觀察使公神道碑銘(諱 調元) 代言公后 堤川

奈堤之鄕 山明水麗 士大夫退老者 多居焉 鄕月尹扉 在在相望 金章玉環 前後輝映 然 歷數世 而遺蹟餘韻 湮沒消散 漠然無傳 但見古村幽逕 荒草靡亂而已 惟監司尹公至今數百歲 街巷婦孺 亦皆說尹監司而稱其賢 如古昔鄕大夫 祭於社者 公 有何等流澤 而有如是者乎 其子孫繁衍散在遠近 而比比有端人正士 不如他族之冗長 不問可知爲尹門之昌 公 有何等所樹而有如是者乎 余常欽誦 而亦莫知其故也 今因其雲孫炳益 謁余牲銘也 自顧地卑文拙 固不敢當 亦不忍孤其來意 遂讀下其家狀一通然後 始知其所以致之由也 謹按公 諱 調元 字 政平 號 栗園 漆原人也 始祖 新羅太子太師諱始榮 有諱吉甫 高麗直亮功臣龜城君 謚忠義 有諱參 入我朝 官署丞 羅麗之間 聞人相繼 簪纓連仍 爲海東名族 高祖 諱 碩輔 號 止退堂 弘文館直提學 錄淸白吏 贈吏曹參判 曾祖 諱 德亨 進士 贈執義 晩年 退跡於永丹之間 而山水爲樂 祖 諱 信 事親養志 居喪啜粥 誠孝感人 中廟仁廟大陟 如喪考妣之痛 感慟哭班 大官以忠孝 薦王 蔭仕 至左丞旨 考 諱 昌鳴 號 白岩 天性慷慨有大節 宣廟龍蛇之亂 倡義湖嶺之間 挺身討賊 竟殉於竹嶺 朝家特贈吏曹叅判弘文館直提學 妣 贈貞夫人奉化琴氏 軍資監正克仁 女 隆慶六年壬申七月十三日 生公於奈堤東白楊里第 我昭敬大王五年也 公 容貌俊秀 才德 兼備 年纔成童 善於屬文 十八 陪從先公 與一代名流 遊楓岳唱和 又著關東遊錄百句詩 趣味自足 辭意暢達 及先公遇害之後 禍將及全家 奉母逃亂 備經險阻 艱難苦楚 如江次翁古事也 師旅旣平 學問夙就 癸卯九月 中司馬試 同年十月 登甲科 歷轉諸曹如各司正 陞資通政 通判關北 德洽

政淸 民俗丕變 戶誦仁禮之書 人勸孝悌之事 一境 晏然有烟月之像 隣邑士女 亦皆望風延頸 出宰益山 疏溝洫 以除水害 開拓沃野 以利生民 各邑之民 咸蒙其澤 又奉 命重建慶基殿也 特下戴妥先靈用嘉休績之教 又下分憂殿城 志慕龔黃之政 銳意利民 手蹟鄭白渠之教 陞嘉善 拜黃海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公 莅壬亂黃鳳蘆田 以補戍卒水軍之費 細算使者來往之需 以除民弊當昏朝彝倫斁傷之日 以海獄多寃 上疏爭之 又激群凶之感情 逮繫金吾 丙辰 仍謫雲山 戊午 移配慶山 仁廟元年癸亥 蒙放 以上護軍 兼兩西均田使屯田使 被 召 公以夙歲喪亂 既不能終養大人 八年鵩舍 又未得伸孝慈 竟爲窮天之痛 懇辭不就 滿朝三公賢宰 累勸不起 癸亥九月 陞資嘉善 除同知中樞義興衛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 因上箚陳情 退老鄉里 鑿池於居第洞外 灌漑魚鱉之利 被於方面 鄉人至今稱美兼池者此也 崇禎丙子十二月十三日 考終于正寢 享年 六十五 葬于堤川長坪內洞伏蟹峴酉坐原 配 貞夫人昌原黃氏 丞旨曙之女 系配 安東權氏 奉事晙之女 俱有婦德 治家 有儉約之範 與公同窆 有三男二女 長 敏善 僉知 次敏吉 宣教郎 次敏益 教授 女 白瑨 琴攅 側室男 敏悌 女長 爲洪宇亮副室 次 李湜 姜成業 僉知 男 相甲 宣教郎 男 聖甲 相甲 出 就甲 之甲出 正甲 女 尹世揆 主簿 教授 男 衡甲 鎭岳 鎭華 鎭恒 女 李相正李遇泰 玄孫翼壽 以至孝 聞於世 七世孫 有學臣 以問學邃高 開備後學 十世孫河博 以孝行節義 見稱士林 今其雲仍 至於數百不能盡錄 公 天分秀朗 性度恭儉 弱冠成章 爲世所推而以謙卑自居 立朝三十餘年 歷敭淸要而常如措大之寒居 堂室廬舍 樸陋隘陝 李文淸之治第也 什物几案 質素儉薄 文仲子之無長物也 宣化藩府 努貯豐阜 儀仗華盛 備邊御衆 凡百施爲 燦然有度 備諸稼穡 敎民生業 漢淳良之治蹟也 廢朝 政亂 倖幸鴟張 名公巨卿 相系斥逐 大小百僚 袖手重足 皆避虐炙 以盻然一身 不畏强禦 觸犯禍機 朱遊少之折檻也 鯨濤鵩棲之間 艱辛險阨 人所難堪 毅然自立 不變所守 張魏公之十謫靡悔也 禍故連仍 以不得終養父母 終身痛兎 辭高官厚祿而 杜門斂跡 以終餘年 古人所謂不以三公換也 釋堂李公 稱其節操廉謹 以詩讚之曰當代陶元亮前身邴曼容 柳川韓公 思齋朴公 稱其孝思彌篤 永安尉洪公 商谷姜公 稱其才德 綽有餘 是皆名世賢宰也 汙不至阿好矣 公之所成就 於斯可点 而後民之攝履 鄉人之追慕 一實爲其符驗也歟 因爲之銘曰

文獻之族 忠義之門 弱冠成章 主盟詞壇 立朝展抱 風采動人 五馬出塞 政淸俗變 宣化海藩 境靜民安 遐邇延頸名齊斗山 昏主肆恣 陰邪濁亂 一疏抗爭 讒滿朝震 凜凜節義 禍福任天 開荊南荒 澤吟八年 聖明臨仰 金鷄登竿 思親懷痛 官薄秋蟬 陳情懇辭 厚祿高官 退跡江湖 雅望日新模楷鄉邦 大夫之賢 不億雲仍 盍相是遵 凡厥鄉人 母怠敬遵

永曆五己卯 重陽月既望 平原 李正奎 撰

◇

④ 판서공신도비명(휘 동교) 부원군후 보성

무신년(1728년) 반란을 평정한 전 산음현감인 윤공이 죽을 힘을 다하여 반역의 무리를 토벌하여 적군이 이미 평정되었어도 양보하여 명예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종공신에만 기록되어 사람들이 큰 공로를 작게 보답하여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20년 뒤에 이르러 한번 명예가 드러나 조정에서 불러 가선대부예조참판으로 특명을 내리고 겸하여 폐백도 상례대로 하였으며 현재 임금이신 영조임신년(1752년)에는 자헌대부 이조판서겸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추증되었다.

이래서 위로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초야의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감탄하고 한숨쉬며 성스런 임금님의 착한 것을 표창하는 풍토를 세우는 정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다시는 유감이 없게 되었다. 나 임현회는 공의 충의에 감복되어 일찌기 그의 문집에 서문을 지었으며 이제는 비석을 새김에 의리상 끝까지 사양할 수 없어 바로 공의 평생을 찾아 서술하였다.

공의 휘는 동교요 자는 명여이며 호는 차군헌이다. 칠원후인이니 신라시대 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았고 고려나라가 끝날 때까지 대대로 문무관을 하였고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 휘 자량이 있으니 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칠제군에 봉해져 충간으로 시호가 추봉되었다. 몇대를 내려와 휘 겸에 이르러 참봉 벼슬을 하여 지평관으로 추증되었으니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문하생이며 이분이 공의 5대조고가 된다. 증조고의 휘는 구요 호는 송은이니 병자호란시에 의병을 일으키어 사복시정이란 벼슬을 추증 받았고 조부의 휘는 사은이니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아버지 휘는 세추이니 호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어머니는 증정부인 여흥 민씨이니 민담의 딸이다.

공은 출생하여부터 단정하고 준수하며 피부가 옥설같았으며 어려서부터 용기와 절개가 있어 독실한 소망으로 학문을 하여 도암 이문정공 선생을 따라 수학하여 보고 느낌이 이미 깊어졌고 조예가 매우 정확하였다.

무자년(1708년)에 명경과에 합격하였으나 통보가 이르기 전에 할머니 상을 당하였으며 복기를 끝내고 보안승을 제수받았으며 내직으로 예조좌랑을 하였고 외직으로 장연현감이 되어 임기를 마치었다.

병오년(1726년)에는 문겸선전관을 제수 받았고 그해 겨울에는 산음현감을 하였으며 2년 후에는 안의지방 도적 정희량이 군사를 일으켜 반역을 하여 1개군

이 흔들려 국도를 지키는 신하들이 거의가 겁을 먹고 새와 쥐같이 달아났지만 공은 특별히 태연히 말하기를 나는 국민에 안정을 명령받았기에 감히 내 나라위해 죽지 아니할소냐 하고 마침내 직접 격문을 써서 원근 이웃에 고루 돌려 알리기를 충성과 신의가 있으면 장수로 삼고 인의가 있으면 크고 작은 방패로 삼겠다고 하고 또 시를 지어 군사들에게 맹세하니 그의 호령은 엄숙하고 군사 계획은 세밀하였었다。 적군을 추격하여 거창성 초역에 이르러 용맹스러운 군사를 선발하여 높은 곳에서 먼저 정희량이 거느린 임금을 버리고 나라를 배반하는 죄인을 세어보게하고 또 말하기를 귀순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역적을 따르는 놈들은 죽일 것인데 너희들 중에 억지로 따르는 사람은 즉시 도망가거라。 그렇게 아니하는 놈들은 또 모두 죽일 것이라 하여 적군들이 이 말을 듣고 곧 겁을 먹게되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여 대파시키었으니 이것이 공이 난에 임하여 임금을 위한 대략인 것이다。

난이 평정되어 보성 고향마을로 돌아와 여생을 마칠 계획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칭찬하기를 큰 덕화를 세운 것이 있다며 죽림중에 정자를 지어주며 그 집을 차군헌이라 명명하였으니 역시 만년의 뜻을 더욱 독려한 것이라 하겠다。 경술년(1730년)에는 북방에 근심이 있게 되어 조정에서는 공은 모욕을 막아낼 수 있는 재질이 있다며 위원군수로 임명하니 공은 말하기를 영남지방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요행히 된 것이요 조금도 나라에 보답한게 아니었지만 나라에 보답할 일이 오늘날에 있다고 하며 낮과 밤으로 위험한 때에 부임하였다가 이 해 12월4일 재직중에 급서하였다。 1736년까지 살았으니 향년은 55세이었다。 보성군 장항 남남동향(해좌)의 산등 선영을 따라 장례를 모시었다。

공은 천성적으로 효자이었다。 부모님 병환에 손가락을 베고 변을 살펴보며 노천에서 기도하여 대신하기를 소원하였으며 상을 당하여서는 죽을 마시며 여막살이를 하였고 친척에게는 돈독히 하고 친구들에게는 후대하여 재물은 경솔히 여기고 베푸는 것은 좋아하고 정치는 근신하였기에 사람들이 연명하여 비석을 세워 공의 고마움을 칭송하였다。

아내는 정부인 여산 송씨이니 생원에 합격한 송내송의 딸이다。 갑인년(1674년)에 출생하여 계유년(1753년)에 졸하였고 아름다운 규범이 있었으며 묘소는 남편의 묘소 좌측에 안장되었다。 2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학영과 봉영이니 다같이 통덕랑 벼슬을 하였으며 난리중에 아버지를 시종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 학영에게는 후일에 사복시정으로 추증되었다。 딸은 통덕랑인 박사익과 첨추인 임경태에게 시집을 갔다。 손자들 중에 양복과 양승은 별검 벼슬을 하였다。 양섬과 양

진이까지 장자의 소생이고 박사의의 아들은 춘길이고 임경태의 아들인 장원은 승지 벼슬을 하였고 오원과 학원이 있고 홍원은 주서에 추증되고 호원 등이며 증손과 현손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난리와 역도가 어느 세대인들 없을소냐? 그런데 무신년 같은 때는 없었으니 이 때를 당하여 인심이 무너져 충신과 역적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조정과 진중까지 모두 적군의 심복과 보조자가 있었다。종묘와 사직의 보존과 패망이 순간에 임박하여 오직 공만이 충성심과 분노심이 격화되어 몸을 던져 난중으로 달려가 역도를 소멸시켜 경내를 안정시켰으니 얼마나 장엄할소냐。그가 특별한 영전을 양대 임금에게서 입어도 좋을 것이다。공의 후손인 병철과 병은은 나하고 교류가 있어서 찾아와 비문을 부탁하였다。명문에 이르기를

칠원윤씨는 덕으로 빛나지만 충간공과 송은 선생은 아름다운 명성이 더욱 빛나도다。공은 또 뛰어나게 생겨 선조의 영광을 잉태하였도다。일찌기 스승을 만나 배움에 방향 갈리지 아니하였도다。집에서 살며 효도한 것은 하늘에 법을 온전히 함이요。관리로 살며 청렴하고 공정한 것은 옛 선량을 따름이로다。무신년을 만나 영남지방 역적이 난동하여 역적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반이나 되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없었다네。충성스런 마음 의로운 담력으로 공은 왕에게 죽기를 맹세하였으니 용맹이 없었으면 효도도 못하였으리라。격문을 경내에 돌려 양식과 병사를 모집하여 적군을 거창군까지 격퇴시키고도 내가 소탕한게 아니라 말하였지만 당당하게 공이 세운 것이라네。공은 탐욕이 없이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네。따뜻한 마음씨에 대나무가 서리를 능멸하는 것 두고 있도다。서쪽지방이 의탁할 것 잃어 저 하늘을 꾸짖었다네。임금님은 자주 보답하여 임금의 조서가 여러차례 빛나도다。높고 높은 저 산에 체백을 묻었다네。여기 신도비에 새겨 놓으니 소문이 끝이 없으리라。순종과 반역의 구분을 남쪽지방 사람들은 잊지를 말아라。만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비석 글을 보아라。솔직히 공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인륜강령을 보호한 것이로다。

숭정기원후5 을해(서기1875년) 11월 일에 가선대부 이조참판겸 성균관좨주경연관 세자시강원찬선서연관인 서하 임헌회는 짓다。

④ 判書公神道碑銘(諱 東郊) 府院君后 寶城

戊申地役 故山陰縣監尹公、戮力討賊 賊旣平 退讓不居 秪錄原從勳 人無不以功鉅報細 惜之 及回再甲 一方譽髦 籲于 朝 特命嘉善大夫禮曹參判 兼帛如例 今上壬申 加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於是 上自公卿大夫

下至草野有識 咸咨嗟太息 以爲 聖朝 彰善樹風之政 至是
而無復遺憾 不佞 服公 忠義 嘗爲其遺稿弁文 今於牲石之
刻 義又不可終辭 乃按公 本末而叙之 公 諱 東郊 字 命
汝 號 此君軒 漆原人 以新羅太師始榮 爲初祖 終麗之世
世襲簪笏 入我 朝 有諱子良 尹京兆 封漆隄君 謚忠簡 累
傳至諱謙 參奉 贈持平 靜菴趙先生門人 寔公 五世祖也
曾祖 諱 求 號 松隱 丙子 倡義 贈司僕寺正 祖諱 斯殷
贈左承旨 考諱 世樞 贈戶曹叅判 妣 贈貞夫人驪興閔氏
倓之女也 公 生 質端秀 肥膚 如玉雪 自少 有氣節 篤志
爲學 從陶菴李文正先生遊 觀感旣深 造詣甚正 戊子 登明
經科 未及應榜而遭承重 內艱服闋 除保安丞 入爲禮曹佐
郞 出監長連縣瓜遞 丙午 除文兼宣傳官 冬 爲山陰縣監
再明年 安義賊鄭希亮 稱兵叛 一省震蕩 守土之臣 率多恇
㥘 鳥鼠竄 公 獨馱然曰吾受命百里 敢不以身殉國 遂手草
檄文 遍諭遠近 有忠信 爲甲冑 有仁義 爲干櫓之語 又述
詩誓師 號令明肅 籌策深密 逐賊至居昌省草驛 選驍勇登
高 俯臨賊壘 先數希亮 負君背國之罪 且曰歸順者生從逆
者死 凡爾脅從 其卽遁去 否者 且將盡劉 賊兵 聞之 頗有
惶㥘意 於是 縱擊大破之 是爲公 臨亂敵愾之大略也 亂定
歸寶城鄕里 爲終焉計 人稱有大樹風 構亭竹林中 名其軒
以此君軒 盖亦礪勵晩節之意也 庚戌 有北憂 廟堂 謂公有
禦侮材 拜渭原郡守 公 曰嶺邑一捷 直是倖耳 靡足爲塵刹
之報 報國 其在今日乎 日月危難 赴任 是歲十二月四日

遽卒于官 距其丙辰 壽五十五 返葬于本郡獐項亥坐之原
從先兆也 公 性於孝 親癠 裂指嘗糞 露禱請代 及喪 啜粥
廬墓 敦親戚厚故舊 輕財喜施 爲政謹愼 連人樹石 頌其惠
公 配 贈貞夫人礪山宋氏 生員來松之女也 甲寅 生 癸酉
卒 有懿範 墓 祔左 生二男二女 男 鶴齡 鳳齡 俱通德郞
從公于亂 多有勤勞 鶴齡 後 贈司僕寺正 女 適通德郞朴
思益 僉樞任鏡泰 孫 陽復 陽昇 官別檢 陽暹 陽晉 長房
出 朴思益 子 春吉 任鏡泰 子 長源官承旨 五源 興源贈
注書 浩源 曾玄以下 不盡錄 噫 亂逆 何代無之而未有如
戊申者 當是時 人心陷溺 忠逆無辨 廊廟藩鎭 盡是賊穴之
腹心羽翼 宗社存亡 迫在呼吹 惟公 忠憤激烈 挺身赴亂
克勦猖獗 以安封彊 一何壯也 其被殊典於兩朝宜矣 公后
孫炳哲 炳殷 從余遊故 來謁銘 銘曰
惟漆原氏 載德皇皇 忠簡松隱 令名尤彰 公又挺生 胚胎前
光 蚤自得師 學不迭方 在家而孝 克全天常 居官廉公 殆
古循良 歲値涒灘 嶺賊猖狂 幾逆半世 人無不恇 忠肝義膽
公誓死王 無勇非孝 傳檄以藩 鳩糧犒士 蹴賊于昌 不日掃
蕩 樹立堂堂 斂公若無 角巾還鄕 晩春心期 有竹凌霜 西
陲失倚 致詰彼蒼 聖朝崇報 紫誥屢煌 嵂嵂章山 衣履攸藏
勒銘神道 垂聲無彊 順逆之分 南人無忘 如我不信 視此石
章 非直昭公 用扶人綱
崇禎紀元後五 乙亥至 月 日 嘉善大夫吏曹叅判兼
成均館祭酒經筵官世子侍講院贊善書筵官 西河 任憲晦 撰

⑤ 판돈녕부사공신도비명(휘 사국) 대언공후 장단

영조와 정조 양 대왕의 조정에서는 준수하고 선량한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하며 그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염려되는 바를 돕고 재능인은 그 시행을 소명하게 하여 모두 공적이 있으니 세상에 모두 밝힐 수 있으나 여섯가지 예술을 베푸는 풍속과 시서를 가르친 혜택에 이르러서는 정대하고 소명하고 몸소 인륜 도덕을 이행하며 개연히 정직하면서 동요되지 아니하여 선정의 조정에 진실한 신하가 되었고 장수하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명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오직 직암 윤사국 재상이라고 할까?

나 정원용이는 후일 태어난지라 그의 덕빛을 쏘이거나 정연한 논리를 듣기는 불가능하였으나 일찌기 선배중 연장자들의 말을 들음이 이와 같았다。 이로 인하여 내가 공의 현명함을 남들보다 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해에는 관동지방을 순행하였는데 그가 남겨놓은 공적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해변 마을 산골 농민들이 그를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쇠퇴하지 아니하여 병을 고쳐주고 물에서 건져준 것 같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며 깊은 산골 승려들도 순행나들이 소문을 들으면 공과의 친분으로 환영하기를 명령에 달려가듯 하였으니 공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여기에 이르렀을까? 이것은 따뜻한 작은 은덕이 겹쳐져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또 일찌기 풍고 김태사가 발문을 쓴 집안 서첩에 이르길 윤재상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6、7세때 썼다는 글씨를 수집하여 여러겹으로 시축을 만들어 책상 속에 수장하였으니 그것은 어린 아이가 먹칠한 장난이었지만 효자로서 차마 없앨 수 없던 것이니 하물며 문자로 전해오는 것들이야? 이것은 공이 관리 생활과 가정사에서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혹자는 마음에 감복되어 배우고자 하면서도 하지를 못하고 혹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훈시하였다。 작은 것들이 오히려 이와 같았다면 하물며 그 행적들의 큰 것이야 어떻게 되었을까?

공의 자는 빈경이요。 호는 직암이다。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이고 휘는 시영이시니 칠원으로 관적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휘자 석보가 있으니 홍문관직제학이었는데 염근리로 선정되었으며 연산군 갑자사화시에 직언을 하였다가 귀양지에서 졸하였다。 삼대를 전해와 휘자 자신이 있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에 올랐으나 광해군시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인조시대에 이조참판으로 추중이 되었으며 이 분이 6대조고가 된다。

고조의 휘는 우정이니 장령벼슬을 하였고 증조고 휘는 서적이니 정랑이었으며 할아버지 휘는 지화이니 정

언 벼슬을 하여 이조판서로 추증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휘는 경종이니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좌찬성에 추증이 되었다。 어머니는 정경부인인데 임천 조씨이며 부사 벼슬을 한 조현기의 딸이다。 진사에 합격한 지순과 관찰사를 역임한 경용은 공의 생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이다。 관찰사공의 전처는 증정부인 평산 신씨인데 목사 벼슬을 한 신곡의 딸이며 후처는 정부인 영일 정씨인데 참봉 벼슬을 한 정계헌의 딸이며 포은 선생의 후손이다。 이 정씨부인이 분만 할 즈음 꿈을 꾸니 정언공이 중당에 앉아 있었는데 이 꿈을 깨고 나서 공을 출생하니 바로 영조4년(서기 1728년) 8월19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체구가 크고 정중하였으며 6세때에 관찰사공을 따라 홍성관사에서 살았는데 밖에 나갔다가 걸인 아이를 보고 죽을 가져다 먹여 큰 형이 관찰사공에게 알려 말하기를 이 어린 아이가 이미 사람을 구제하였다고 하였다。 17세에 아버지 상을 정주 관사에서 당하여 모든 초상 법도를 예의에 따르고 상기가 지나 학문에 전념하며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여 명성이 서당가에 가득하였다。 기묘년(1759년)에 알성시 을과에 합격되었는데 임금께서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나와 잘 아는 사이인데 네가 바로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하였다。

경진년(1760년)에 한림원으로 들어가 임금을 승정전월대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공에게 명령하여 어제홍회문을 써서 걸도록 하라며 사슴 가죽을 하사하였으며 세손 책봉 초에 교만할 교자로서 경계의 말을 삼아서 모든 궁중 서류 속에 수장하시어 만세의 교훈이 되도록 하라고 간청하니 임금께서는 말하기를 정직한 사관이라 고 하면서 너는 그것을 모든 책에 써 놓으라 하였다。 그 해 7월에 경희궁으로 이사를 하시어 세자와는 궁전이 나뉘어져 옮겨 다니며 글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흉악패들이 거짓 이간시키어 두려움이 날로 심해지니 임금께서 우정승 민백상에게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 같은 때에 대신으로서 한마디도 경계하는 말을 진술함이 없는고? 우정승이 찾아와 대답하기를 세자께서는 말씨와 얼굴 표정이 장엄하다고 하였다。

이 우정승은 일찌기 신미년(1751년)에 도헌으로 있으며 세자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임금이 사기라고 물리치며 멀리 귀양을 보냈다가 후일 다시 돌아와 정승으로 임명되니 세자께서는 석연치 아니한 것이 있었다。 우정승이 당황하여 급히 물러나자 공이 뒤쫓아 세자가 사는 궁문밖에 이르러 말하기를 하교를 받들고 왔으니 장차 무어라고 다시 아뢰오리까? 잠시 피하여 있으라 하고 대신 진술할 것을 간청하니 우정승이 기다리고 있고 공은 다시 들어가 훈계한 것을 진술하니 그 주고 받은 말이 메아리 같았다。 물러나와 장계문을 지어 주어

우정승이 이를 가지고 다시 아뢰자 임금의 뜻이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

신사년(1761년)에는 별겸춘추관으로 승진하여 회의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동료 관리들이 임금의 장인되는 이와 친분을 가지려 하여 공이 비난하였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북역 권관으로 임명을 받고 부임하니 새로 북백으로 제수된 사람이 공과 더불어 친척이란 혐의가 있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권관과 도백이 지친간이 된 것은 진실로 드문 일이라 하며 분산시키었다。

돌연한 소문은 임금이 기우제를 올리려고 창덕궁으로 거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잠시후 다시 도승지인 충정공 이인장이 금오문 밖으로 쫓겨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 급히 상소문을 지어 사간원에 보냈는데 이때에 간쟁을 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귀양 길로 쫓겨나갔다。 공도 명령을 기다리며 날을 보내고 있는데 뒷 소문에 둘째 외사촌 형이 당시 사간원에 있었는데 공이 매우 강직한 것을 알고 두려움이 더욱 격화되어 감히 임금에게 아뢰지 못하였다 하니 공은 분통이 터졌지만 끝내 그 글을 올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원고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원고가 남아있게 되면 이것은 강직을 팔아먹는 것이라 하고 매번 집안 식구들께 말하기를 임금의 덕화는 빠짐이 없어도 흉악한 무리는 끝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직랑서로 제수를 받았지만 취임하지 아니하였다。 그 해에는 큰 흉년이 들어 어사로 제수되어 충청도와 전라도로 곡식을 운반하여 나누어 주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는데 교서에 말하기를 윤사국은 풍부한 지식이 있어도 일을 맡기기는 염려가 되지만 빨리 부임하라 하니 북방 곡식 수십석 운반을 계획을 짜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또 군수중에 불량한 사람은 파면시켰다。임금께서 이 장계를 보시고 칭찬하며 눈으로 보는것 같다 하시니 급히 돌아와 고루 나누어 준것을 알려 감동시켰다고 한다。

병술년(1766년)에는 홍문록에 선발이 되었고 연이어 부수찬부교리에 임명되었으나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상소를 올리니 임금님이 답장에 말하기를 상상컨대 너의 아버지도 한밤에 슬픔을 주었고 네가 어머니 위함을 가상히 여기노니 어찌 회답을 기다릴소냐 하였다。

정해년에(1767년)는 대신인 유지양이 상소하여 주창자인 정후겸이를 완화시키자고 말하니 왕께서 진노하여 급히 육상궁으로 거동하여 공을 장령으로 특진시켜 부르자 공이 달려나가 노상에서 모시니 임금이 말을 멈추고 장계를 전하라 명령하여 공이 전일 장계를 진술하니 임금은 말하기를 단지 이것뿐인고 하시며 명령하

시기를 남해로 전근시키라 하였다。 그런 후일에 육상궁으로 거동하시어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 길에서 귀양가게 된 자의 그 어미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방면하라고 명령하였으며 3년 뒤에는 시종망으로 선발 되었었다。

다음해에는 재상들이 어사로 선발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시종안을 읽어보라고 명령하여 공의 이름에 이르자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오래도록 이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하였다。 재상들이 그 이유를 아뢰니 즉시로 분간하여 보라하여 곧 선발인을 장계로 올리니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노숙하니 모든 일에 무관할 것이라 하시며 춘방으로 제수하라 하시고 다시 하교하여 말하기를 매우 유순하면서 연약하지 아니하여 동궁관이 가합하다고 하였다。

경인년(1770년)에는 강원 감사로 나가 세금을 균등하게 결재하고 국고를 덜어 금전을 늘려 국민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전근시에는 잉여분이 있게 되었다。 임진년(1772년)에는 조정으로 들어와 응교중학교수가 되었고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는데 현종대왕의 왕호를 추존할 때에 왕의 계보를 낭송하는 관리를 하였음으로 승정원부승지겸병조참의에 제수 되었다。 계사년(1773년)에는 곡산부사로 제수하며 말하기를 노친을 잘 봉양토록 하여라 하였으니 임금께서 전일이나 후일이나 공의 부자에게 사랑을 내림이 이와 같았으며 곡산지방 주민들은 무지하였으나 공이 부임하면서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그후 생가 어머니 상을 만나 귀향하였다。

정종대왕 경술년(1778년)에는 복제가 끝나 병조 은대 간원으로 연속하여 제수 받았고 기해년(1779년)에는 안동 현감이 되었는데 13곳 창고의 장부가 모두 무난하게 정리되어 곡식매매를 실시함에 주민으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니 아전들이 감히 팔고 사는데 덤비지 못하였다。 또 관청 사옥을 수리 보수하다가 완료하지 못하고 동래부사로 전근되자 받은 월급을 보내어 완료하게 하였다。 얼마후엔 사정으로 인하여 관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인년(1782년)에는 승지를 제수받고 예조로 전근하면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연속하여 병조참판 한성우윤 대사헌겸 금부충부와 경연특진관인 여러 관직을 임명받았다。 계묘년(1783년)에는 부사신으로서 중국에 갔다가 다음해에 돌아와 의주부사로 임명받아 신의주지방에서 정치에 전념해서 백성의 고통이 소멸되고 학문과 무술을 가르쳐 변방이 엄정해지고 무기고가 넘쳐 타지방에서 부러워 하였으며 의주지방 상인들중에 거짓말은 한사람도 할 수가 없었다。

병오년(1786년)에는 대사성에 임명되고 기유년(1789년)에는 현릉 이장시에 지방을 써서 가의대부

로 승진하며 도승지가 되었고 강원감사로 임명되어 순시차 영월군청에 가보니 옛날 단종대왕이 거동하였다는 자규루가 있는데 허물어진지 오래이라 너무 처참하여 중건하고자 옛 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10월에 영월군수에게 터가 될 만한 조용하고 넓은 땅을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내렸다。또 다음 날에는 강풍이 부는데 객사의 남쪽 밖에 있는 민가에 불이 번져 다섯가구를 태우고 꺼지니 주춧돌이 모두 드러나 주위에 땅이 한자쯤 높아진 곳을 만나게 되었다。이제 목재와 석재를 모으려는데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때마침 3일간이나 비가 내려 물에 띄워 육지로 끌어 올릴 수있어 관리들과 주민들이 기쁘게 달려왔다。1월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해 봄 임금께서 수레타고 노량진을 지나면서 사육신 사당에 제사를 올리도록 하명하자 주위의 신하들이 자규루 사건을 아뢰니 임금이 급히 신하들에게 자세한 장계를 올리도록 명령하고 국고를 지원하여 사육신 사당과 묘소를 개축하고 김시습、남효온、엄홍도를 추증하여 사당에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며 순직한 30여 사람들까지 제단을 설치하라고 하명하였다。그 날 저녁에는 무지개가 땅에 비추어 서남간 집에서 부터 제단까지 뻗었으며 자규루에 상량하던 밤에도 역시 광채가 내려 비추어 관람자들이 모두 놀랬다고 한다。공은 또 호장인 엄홍도의 정려비를 세웠는데 공에게 명령하여 단종대왕이 지은 자규루시 두 수를 써서 걸도록 하였다。휴가를 얻어 동해안 어촌 마을을 순시하여 보니 세금이 과중한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강릉 향교 유림이 가장 심하여 공이 억제를 하니 그 곳 유림들이 글을 보내여 비방을 하였다。공이 본부로 잡아들이라고 하명하여도 군수들이 잡아 보내지 아니하니 공이 장계를 올려 아뢰니 임금께서 본부관을 쫓아내고 그 유생들도 유배시켰다。공은 이 사건때문에 여러차례 사직서를 내니 외직으로 일을 보살피라는 하명을 받았다。

임자년(1792년)에는 여러 지방에 있는 사당들을 수리하고 제단을 지으라는 명을 받아 공이 여러지방 것을 완료하고 장계를 올리니 임금께서 그 근면한 것을 장려하여 특별히 자헌대부로 승진시켰다。계축년(1793년)에는 공조판서로 제수되어 돌아왔다。공은 공부를 엄격하게 하고 정밀하게 이치를 판단하여 군대의 민폐와 역로의 폐단을 바로잡지 아니한 것이 없고 보통 장계로 요청을 하면 임금께서 반드시 교시로 대답하여 주며 신하를 믿고 따라주었다。궁으로 돌아온지 5년이 지나서야 임금이 훈시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편안히 살아온 것은 경의 노력이라 하시며 강화유수로 임명하였으며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판윤、전설、전생、제조、지춘추를 하였다。을묘년(1795

년)에는 경모궁에서 임금의 존호를 추증할 때에 왕의 호적의 글씨를 써서 정헌대부로 승진되며 겸관상감제조가 되었다。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으나 정리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 상소문 중에는 공을 이야기한 것이 있어 공을 형조판서로 임명하였으나 공이 나가지 아니하자 들어와 자세히 말하라는 명령이 있어도 공은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해 임금께서 경모궁에 이르러 춘향제를 올리는데 당시 관리들이 근실하지 못한지라 공을 불러 명령하시기를 시대운감으로 제수하겠다 하였는데 공은 끝내 나가지 아니하였다。전일 대금오로 있을 때에 한 죄인에게 특별히 형량을 탕감하였는데 공과 동료들이 서로 연루되었었음을 아뢰니 이때에 이르러 명하여 동료들과 귀양보내졌는데 공은 울산으로 유배되었다。유배지에서 돌아와 또다시 형조판서로 임명받아 연속 엄법을 내리고 또 약방제조로 들어와 임금을 진찰하라는 은전을 입어 진찰의 말이 진지하여임금께서는 교시에 말하기를 경은 앞으로 대간에서 상소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아는가? 경이 불행하게도 금성사사에 있으니 이런 소식이 나올 줄을 또 어찌 알겠는가 공이 말하기를 소신은 이제서야 비로서 알았으니 어찌 감히 또다시 인용을 하겠습니까?

대저 공이 강원감사로 있을때 김군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군수가 현재 남의 무릎만 닦는다고 조롱하고 있다。또 임금이 물어 말하기를 경은 내년이면 당연히 기로소로 들어가는가? 하여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임금은 애석하도다。늙음이여 이와같은 사람 여럿이구나! 하였다。정사년(1797년)에는 기로소로 들어갔으며 무오년(1798년)에는 부부가 해로하여 70세가 지났으므로 특별히 정승급으로 승진시켜 겸판의금부에 이르렀고 종부시에 천거되었다。

관동지방은 바다로 막혀 있어 전후의 강원관찰사들이 도내에 귀양살이하고 있던 것을 바로 공이 개혁하였었는데 그후에 또다시 그르치고 있었다。공도 혼돈되어 자신조차 판단이 되지 않아 회양으로 귀양갔다가 사면되어 돌아와 판돈녕좌참찬에 임명되었다。경신년(1800년)에는 세자 책봉에 참석하여 가관례를 행하였으며 임금이 공에게 하명하여 세자궁이란 글자를 써올려 말을 하사하며 상의원제조를 임명하였다。임금이 웃으며 하교하여 말하기를 복 많은 사람이 가관례에 당연히 참석한 것이라 하고 다시 묻기를 경은 회혼례가 어느 해인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년이라 하였다。또 묻기를 부인의 성씨와 생활을 물으며 내년 봄 서울 집에서 회혼례를 행하려면 돌아가 두 아들의 봉양을 받으라고 하였다。이때 장자는 경산 군수로 있었는데 하명하여 한산군수로 전근시키었고 차자는 남평군수로 있었

는데 은진군수로 전근시켜 주던 임금님 사랑이 모두 끊어지게 되었다。이 해 6월에 임금이 승하하여 공은 통곡을 하며 살고 싶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신유년(1801년)에는 집안 식구들이 회혼례 잔치를 하고자 간청하여도 공은 울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대관들이 글을 논의하고 관리를 뽑으면서 공의 정치신망을 빗대어 선대왕조를 지적하여 제명이 되었어도 공은 예리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여 교외로 나가 살았다。

정묘년(1807년)에는 나이가 80세가 되어 상례에 따라 승록대부로 진급이 되었고 무진년(1808년)에는 판돈녕으로 특명을 받았다。처음으로 상소를 판단하니 임금께서 후하게 비답을 내리시어 공은 한번 숙계해드리고 싶었지만 병이 들어 할 수 없다고 하였다。기사년(1809년) 3월29일에 편안히 운명하시니 82세까지 장수하였다。조문과 제사를 의례에 따라하여 그 슬픔과 기쁨과 영화와 굴욕에 유감이 없었으며 장단 오관산 북북서향(사좌)의 산등에 장례하니 관찰사공의 묘소 우측 산등이 된다。아내는 정경부인 해주 최씨이니 군수 벼슬을 한 최준홍의 딸이며 영의정 벼슬을 한 간재 최규서의 증손녀이다。이 정경부인은 공보다 2년 먼저 출생하여 공보다 4년 먼저 졸하였으며 묘소는 공의 묘소 좌측 산등에 있다。아들 둘을 두었으니 장자인 재급은 첨정 벼슬을 하고 장수하여 통정대부에 올랐고 차자인 재희는 부사 벼슬을 하고 서자는 재오이며 서녀는 이면위에게 시집을 갔다。재급의 아들은 순의와 종의이며 딸은 한원에게 시집갔다。재희의 아들인 복의는 익위 벼슬을 하였고 딸들은 이준원과 이숭겸에게 시집갔다。재오의 아들인 정의도 있다。종의의 아들은 영건과 영순과 영상이다。영건은 순의에게 출계하였다。복의의 아들은 영수이고 영진이는 진사에 합격하였고 딸은 현감인 이인봉과 부사인 정노용에게 시집갔다。정의의 아들은 영익이다。

공은 독실한 행동이 있었지만 어려서 아버지가 죽어 고아가 됨을 지극히 애통해 하였으며 어머니 섬김에 깊은 사랑을 쌓았다。가난할 때는 쌀을 지고 다니는 정성을 다하였고 높은 벼슬을 하여서는 부자집의 봉양을 하였고 초상과 제사에 이르러 예절을 다하면서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하였으며 뿌리를 돈독히 하면서 선조를 추모하는데 이르렀고 형제에 우애하며 종친간에 화목하였으며 가난한 이를 살피고 외로운 이를 도와 소원하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늘상 이리저리 관리 생활을 하면서도 종회를 신설하고 돈본계헌을 짓고 서당규약을 짓고 속집가승 십여권을 편수하였다。늘상 범문정공을 흠모하여 범희문이네 편액의 뜻을 바라며 가난한 이 도움을 모방하려 했지만 궁핍하여 힘에는 이르지 못

하였다。십이세대조들의 선조와 방조들의 묘소에 묘지석 비갈 제수 전답까지 모두 자력으로 갖추어 제례의식을 행하게 했으니 이런 점이 공은 쉽게 행동한 바이나 모두가 사람으로 이루기 어려운 바이다。

공은 서예술의 경지도 매우 높아 어릴때에 정승인 서명균이 서첩을 쓰며 반 정도를 비워놓고 주면서 말하기를 네가 쓰기를 기다리겠다 하였고 백하 윤순과 원교 이광사가 모두 사랑을 주며 권면하여 후일에 서예의 명가로써 조정의 금옥보책。사찰。누각 편액중에 공이 직접 쓴 것이 많이 있다。금강산 바위에 묘길상이라고 새겨 놓은 세 글자는 중국인들이 그 탁본을 보고 전각된 서체중에는 드물은 것이라 감탄하였다。여든살에 왕명을 받고 지지대비문을 썼는데 그 필획들이 정화하여 학자겸 스승의 포상을 받았다。공은 천부적으로 자태가 온순하고 염정하면서 마음이 꽉차서 확연히 빳기지 아니한 사람이며 배움에는 영리하면서 경서를 숭상하였고 관리 생활은 민첩하면서 정의를 살피어 평생토록 거짓말로는 아이들도 속인 적이 없으며 시대의 영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관리 생활 50년 중에는 평파와 부침으로 기구한 환란의 역경을 오르락 내리락 왔다갔다 하면서도 독립하여 동요하지 아니하기를 왕존의 만마주족과 같이하고 요직에서 자취 감추기를 자사공의 고행무당과 같이 하였기에 비록 몇차례 권리를 잡게되어 밀치고 밀리는 바이었으나 안으로 작은 친분도 없고 밖으로 친구의 힘이 부족하여 풍운에 의탁되어 많이 끌려 다니기도 하였다。

정조대왕은 매번 공의 서책을 내놓고 곧 유시로 말하기를 공을 알아보고 공을 등용한 것은 모두가 특별한 간택에서 연유가 된 것이라 하였다。공이 재상직에 오르게 된 것은 곧 양대 임금님의 현철하고 현명함이었으며 일찌기 기밀과 요직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그런고로 그 실력을 능히 펴지는 못하였고 늘상 요직과 중책의 사이에 정지되었으며 이에 학자들이 애석하게 여기었다。

노후에는 은퇴하여 삼산지방에서 살며 꽃 심으며 나막신 신고 다녔다。도서에 은은한 향기와 글씨 쓰는 이외의 일과는 논어를 읽을 뿐이었다。공과 같은 사람을 옛날에는 사랑을 남기고 정직을 남긴 사람이라 일컬었는데 공처럼 현명한 사람을 후인들이 표창하지 아니한다면 누구를 자랑하여 명문을 지을소냐? 명문에 이르기를

사람이 삶을 정직하게 한 것은 하은주 시대만 정직한 도를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오직 직무에 힘쓰고 삼가하고 정직하신분이 바로 공이시니 남 모르게 이 글에 유감이 들었다 할까? 아마도 공이 세워놓은 것은 순수함이고 지킨 것은 열정이라 가르침의 노력을 기다리지 아

니하였어도 치우친 길은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까? 요직에 앉아 임금과 화합이 되었고 멋진 태도가 조정의 모범도 되었다네。그 실천의 독실성과 출처의 상세함들은 저울과 잣대 같이 편벽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외부 것을 적어보면 청렴과 자혜로운 정치로 모두를 처리하였으니 이것이 족히 공의 공로중에서 제일이며 공의 명성중에 으뜸이니 공설이란 사람이 유가에 근심함이요。황씨와 채씨의 서예에 정교함이며 범희문이 종족에 돈목하고 만물을 구제하는 사상이요 두여창이 은퇴하여 나라를 근심한 정성과 같도다。또 하물며 공자의 가훈으로 집안에서 일 처리를 독실히 행한 것은 대대로 시서의 소리로소니 장차는 책상에 홀이 가득하고 문앞에 사마거수레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도다。듣자하니 적덕을 많이 한 사람은 후세에게 반드시 남기는게 있다 하였으니 나는 이 비석문을 지어 현철한 사람의 비장을 표출시키었노라。아름답도다 이 5관의 근원은 산이 수려하고 물이 청정함이라고 하겠노라。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규장각제학
동래 정원용은 짓다。

⑤ 判敦寧府事公神道碑銘(諱 師國) 代言公后

英宗 正宗兩聖朝登崇 俊良 咸精其能 知者贊其慮 才者明其施皆有功迹 見述於世 至若舒六藝之風薰詩書之澤 端方昭朗 躬蹈常經 介然直而不撓 蔚爲熙朝恂臣 壽耈康健 終始令名者 曰惟直庵尹尚書師國乎 元容 後生也 不能炙德輝而染緖論 然 甞聞諸前輩 長者之言 如此 余是以 知公之賢 有加於人也 徃年 按關東 公 遺澤 旣久而使浦戶峽氓 爰思不少衰 如痊痛 援溺者之懷其恩 深山勝藍 緇衲聞遊旅 與公有舊迎欸如趨 令公 何修而致此哉 此非煦煦小惠 可襲而取之也 又嘗見楓臯金太史跋家帖 曰尹尚書收其先人 六七歲時墨蹟 累襲以紬緞 櫝以藏之 其童嬉塗鴉之蹟 孝子尚不忍沒 況文字之可傳者乎 此 不過公 官治家常之細節而使人 或服於心而欲學而不能 或書其事而示戒於子孫 小猶若此 況其行蹟之大者乎 公 字 賓卿 號 直庵 始祖 新羅太師始榮 以漆原 仍籍焉 入我 朝 有諱碩輔弘文舘直提學 選廉謹吏 燕山甲子 直言 謫卒 三傳而諱自莘 文科正郎 光海時 棄官歸 仁廟朝 贈吏曹叅判 六世祖也 高祖 諱 遇丁 掌令 曾祖 諱 叙績 正郎 祖 諱 志和正言 贈吏曹判書 考 諱 敬宗 進士 贈左贊成 妣 貞敬夫人林川趙氏 府使顯期 女 進士諱志淳 觀察使諱敬龍 公本生祖與考也 觀察公 前配 贈貞夫人平山申氏 牧使轂 女繼配 貞夫人迎日鄭氏 參奉纘憲 女 圃隱先生 後也 貞夫

人 當娩 夢 正言公 坐中堂 已而 生公 即 英廟四年戊申
八月十九日 自幼 嶷然凝重 六歲 隨觀察公洪陽官舍 出見
丐兒 持粥哺之 伯氏 告觀察公曰幼兒 已有濟人意 十七
丁觀察公憂於定州官 治具 一遵禮 外除 攻學業甚力 名動
庠序 己卯 擢 謁聖乙科 上曰汝父 與豫有知遇 爾有乃父
典型 庚辰 入翰苑 上 御崇政殿月臺 命公書揭御製興懷文
賜鹿皮 公 奏 世孫冊封初 戒諭以驕字 請藏諸史宬 垂訓
萬世 上曰直史臣也 爾其書諸策 是年 七月 上 移御慶熙
宮 與世子 分宮 各移說書 時 凶徒誣間 疑懼日深 上 教
右相閔百祥曰此時 大臣 無一言陳戒乎 右相 來對 世子辭
色 莊勵 右相 曾於辛未 以都憲 上書 世子 上 斥矯誣 遠
竄之 後還至拜相而 世子有不釋然者也 右相 惶懼遽退 公
急追至閤門外 曰奉 教而來 將何以回奏 第小避之 請代陳
之右相 爲留待 公 復入陳所戒 酬酢 如響 退修晉啓以授
之右相 持以回奏 上意始釋 辛巳 陞別兼春秋 叅圈坐 僚
官 欲取國舅切戚 公 難之 竟圈他人 命差北塞權管 新除
北伯 與公 有親嫌當遞 上 笑曰權管與道伯 爲至親 誠稀
貴 還置散 壬午閏五月十三日 猝聞 上 以祈雨 幸昌德宮
已而 聞都承旨李忠正公彝章 逐出金吾門外 大驚慟 亟治
疏送院 時 諍議者 相繼竄逐 公待命經日 追聞 乃中表兄
時 在院者 見其切直 懼益激 不敢奏也 公 慟恨其不自呈
遂焚其藁曰留藁 是沽直也 每對家人語 春德無闕而凶徒罔
極 輒垂涕 除臺職郎署 皆不就 秋 大饑 擇御史 監運穀賑

兩湖 教曰尹某 沈深有識 慮可任事 馳赴督運北穀數十斛
分劃均賑 又劾免守宰之無良者 上 覽啓 稱如在目中 竣還
論善賑可感 丙戌 選弘文錄 連拜副修撰副校理 陳乞養疏
批曰想惟爾父 中夜興愴 嘉爾爲親 何待回啓 丁亥 臺臣柳
知養 疏論和緩主子鄭厚謙 上 怒 遽幸毓祥宮 特除公掌令
促召 公 趨侍路上 上 駐驛 命傳啓 公 只陳前啓 上曰只
此乎 命投畀大靜 尋 命移海南 後 駕幸毓祥宮 教曰此路
被謫者 其母何幸 命放送 限三年 拔侍從望 翌年 相臣 請
抄御史 上 命讀侍從案 至公名 曰何久不見此人 大臣 奏
其由 即分揀 仍抄啓 教曰此人 老熟 凡事無難 爲之拜春
坊 教曰此人 極佳 亦不柔弱 可合東宮官 庚寅 出監江東
釐逋均簽 捐廪殖錢 以袪民斂 及移 乃剩之 壬辰 入爲應
教中學教授 陞通政階 以 顯廟追上 尊號時 讀金寶官也
除承政院左副承旨兼兵曹參議 癸巳 授谷山府使 教曰使營
養老親 上 前後眷注公父子如此 谷峽邑 俗貿 及瓜 有改
觀 還遭本生母喪 正宗戊戌 制闋 連拜兵曹銀臺諫院 己亥
爲安東縣監 十三倉穀簿 皆紊 乃仍糶糴圖式 使戶民 一見
瞭然 吏不敢售奸 修葺官廨 未訖而移東萊府使 送俸錢 俾
完之 未幾 因事罷歸 壬寅 叙拜承旨以禮房 陞嘉善階 連
拜兵曹叅判 右尹 大司憲兼禁府摠府 經筵特進官諸職 癸
卯 以副使 赴燕 翌春 還拜義州府使 灣桐鄉也 尤殫心爲
治 蘇民瘼勸儒武 肅邊禁羡庫儲 灣商謬例 一無所近 丙午
拜大司成 己酉 顯隆園遷奉時 紙榜書寫 陞嘉義 爲都承旨

拜江原監司 巡到寧越府 舊有 端廟所御子規樓 圮毁已久
愴然欲重建 尋舊址未獲 十月 本府 使相址於閑廣處 忽雷
翳雨驟 翌日 又大風 客舍南墻外 民家 火延 燒五戶而止
址礎俱露 周遭高乎地一尺 方鳩木石 時 雪積氷堅 三日雨
水 水浮陸曳 吏民歡趨 正月 始工 是春 上 駕過露梁 命
祭六臣祠 侍臣 因奏子規樓事 上 亟令道臣詳啓 命劃付公
穀 拓六臣廟墓 蹟金時習 南孝溫 嚴興道 設配食壇祠 殉
節者三十餘人 設壇之夕 紅光 燭地 自丁閣 亘于壇 子規
樓上樑之夜 亦有光氣暎射 觀者皆驚 公 又竪嚴戶長 旌閭
之碑 命公書揭 端廟御製子規詞二首 視上騆東沿漁戶 多
濫徵而江陵校儒 尤甚 公 裁抑之 其儒 發文侵詆 公 令本
府捉之 主守 執不送 公啓論之 上 黜本府配其儒 公 以此
屢辭 命以外補視事 壬子 命諸道修社厲壇 公 飭列邑修完
以啓 上 奬以恪勤 特加資憲 癸丑春 以工曹判書 召還 公
嚴考課 精剸理 邑瘼驛廢 靡不矯捄 凡有啓請 上 必褒諭
曲從委任 至五年還後 上 諭曰東民安業 卿之力也 拜江華
留守 入爲判尹典設 典牲 提調 知春秋 乙卯 景慕宮 追上
尊號 以 金寶書寫 進正憲階 兼觀象監提調 有臺臣 投疏
不捧而疏中 語及公 公以秋判 不出 命入侍開諭 公 退而
還鄕 翌年 上 詣 景慕宮 行春享以奏 時官 不勤 命召公
以時帶雲監 提擧也 公竟不進 前 帶金吾時 有罪籍人 特
蕩之 命公與僚堂 繳奏 至是 並竄其時諸堂 公配蔚山 旋
宥 又拜秋判 連下嚴飭 又以藥房提調 命入診 恩 諭備摯

至 敎曰卿知向來臺疏出處乎 卿 不幸 當金城査事 此出報
復何引之有 公 曰臣 今始知之 何敢更引 盖公 在東藩時
査啓金城守而其守 今啾修隙者也 上 又問曰卿 明年 當入
耆社乎 對曰然 上 曰惜哉 老也 如是者屢 丁巳 入耆社
戊午 以偕老過七十 特旨加政階兼判義禁府 提擧宗簿寺
時 以關東海弊 竄前後道伯于道內 即公所釐矯者而其後
又謬者也 公 混入而不自辨 謫淮陽 翌年 宥 還拜判敦寧
左叅贊 庚申 行 世子冊禮 冠禮 命公 書寫東宮達字 錫馬
除尙衣院提調 上 笑諭曰卿 福人 當叅加禮 仍問卿 回巹
何年 對以明年 又問夫人姓貫起居 敎曰明春 行回巹於京
第 徃受二子榮養也 長子 方在慶山 命換韓山 次子 除南
平 仍換恩津 恩數曠絕 六月 上 賓天 公 慟隕 如不欲生
辛酉 家人 請設巹筵 公 泣不許 有臺官 疏論銓官 以擬公
政望 指爲 先朝 罪枳之蹤 公略不辨 退住郊廬 丁卯 年八
十 例進秩崇祿 戊辰 特除判敦寧 始疏辨 上 優批答之 欲
一肅而病未能也 己巳三月二十九日 考終 壽八十二 吊祭
如儀 哀榮無憾 葬于長湍五冠山負巳之原 觀察公墓右岡也
配 貞敬夫人海州崔氏 郡守駿興 女 艮齋領議政奎瑞 曾孫
生 先公二年 卒 先公四年 墓 在公墓右岡 有二子 長 載
伋 僉正 壽階通政 次載僖 府使 庶子 載俁 庶女 適李勉
緝 載伋 男 循義 從義 女 適韓琬 載僖 男復誼 翊衛 女
適李駿遠 李崇謙 載俁 男 靖義 從義 男 永健 永順 永常
永健 繼循義 復誼 男 永受 永進 進士 女 適縣監李寅鳳

府使鄭老容 靖義 男 永翊 公 有篤行 早孤 爲至痛 事母
夫人 著深愛 貧而負米之誠 顯而列鼎之養 以至喪祭盡禮
追慕終其身 敦本而至於追遠 友兄而及於睦宗 周卹庇孤
不問疎遐 常宦東南 設同宗會 敦宗契憲 書堂學規 續輯家
乘 數十卷 常慕范文正公 以范希扁堂意 放義庄而詘 於力
未逐也 十二代先世及旁親 墳墓誌碣 祭田 皆自辦 著祭式
行之 此 公之所易行而皆人之所難及者也 公 於筆藝方分
甚高 幼時 徐相國命均 書一帖 虛其半 與之曰待汝自書
白下尹公淳 圓嶠李公匡師 皆贈字勉之 後 成名家 朝家
金玉寶冊 寺刹樓觀 扁額 多公手書 金剛山石刻 妙吉祥三
字 華人 見搨本 歎 其擘窠中 罕有 八臺 承 命 書遲遲臺
碑文 畫動精華 領阜比之賞 公 天姿 溫粹恬靜而中實 確
然不可奪者 爲學 穎悟而崇經術 居官 通敏而審精義 平生
無奮言飾兒 不隨時俗俯仰 仕宦五十年 上下往復於平陂浮
沈 崎嶇憂患之域 特立不動 如王存之萬馬駐足 歛跡要津
如汲公之孤行無黨 雖累爲操枋者 所擯擠 然 內無葭莩之
親 外乏綆引之力而托契風雲 曳履星辰 正廟 每晉公資秩
輒 論曰知卿用卿 皆由特簡 公之致位上卿 即兩 聖朝則哲
之明而未嘗管機密樞要故 未克布厥藴積 庸只止於鎖鑰屛
翰之間 尙爲士君子之所惜 老後 退居三山 蒔花木庋 圖書
徽醲 弄翰之外 惟日課讀論語而已 如公者 其所謂古之遺
愛遺直者耶 以公之賢而不爲表著於後則尙誰之爲銘哉 銘
曰

人之生也直 三代所以直道而行也 靖恭爾爲正直 是與公
竊有感於斯經歟 抑公之植者粹而守者貞 不待烝矯之功而
不由偏側之程歟 爲席珍而契合于 昭主 爲羽儀而模楷乎朝
廷 若其踐履之篤 出處之審 權衡尺度之不倚而不傾 賦于
外而綜理廉惠之政 此可足膚公功而冠公名 貢薛儒雅之傅
黃蔡書藝之精 范希文敎宗濟物之思 杜汝昌退老憂國之誠
又況夫子之家-事治篤 內行而世詩禮之聲 將見繩繩 乎床
盈笏而門容駟 吾聞積之厚者 後必贏 我作詞而表哲人之藏
美哉 五冠之原 山麗而水淸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奎章閣 提學
東萊 鄭元容 撰

◇

(2) 묘갈명

① 판결사공묘갈명(휘 조생)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조생이며 칠원윤씨 계통으로 출생하여 신라시대 태자태사공 휘 시영이 시조가 된다。 문무관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대가 전승되었으며 휘 수에 이르러서는 고려시대에 군부판서를 하였고 휘 길보는 구성군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의공이며 휘 환은 칠원백작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효공인데 나의 방5대조이신 성담 송환기 선생이 그의 신도 비명문을 지었으며 휘 천효는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하였는데 이분들은 공의 고조, 증조, 조고, 선고가 된다。

조선 초기에 들어와 공이 출생하였는데 천부적으로 자태가 도인에 가까와 어른스런 풍채가 있었다고 한다。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통정대부장예원판결사에 이르렀으며 묘소는 정산장면명덕봉 서쪽 기슭 지금의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서남서향(갑좌)의 능원에 있다。 배는 숙부인 파주 염씨이니 좌사령 벼슬을 한 염방경의 딸로 부인의 숙덕이 있었고 계배는 숙부인 해주 정씨이니 정승을 역임한 정각의 딸로 역시 부인의 숙덕이 있었다。 전·후배 모두 공과 더불어 합장을 하였다。

다섯 사람 아들과 한 사람 딸을 거론하면 아들 중에 장자인 연은 사직 벼슬을 하였고 차자인 적은 충순위를 역임하고 삼자인 형이는 집현전 교리 지제교를 역임하였으니 전처가 낳았으며 넷째 아들 신노는 군수를 하였고 다섯째 아들 신충은 사직 벼슬을 하였고 딸은 김좌에게 시집을 갔는데 후배가 낳았다。 순손이는 참군 벼슬을 하였는데 적의 아들이고 홍반이는 목사를 역임하였는데 형의 아들이고 필이는 사과 벼슬을 하였는데 신노의 아들이며 무손이와 번손이는 현감을 하였는데 신충의 아들이다。 여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공은 충성과 효도의 집안에서 생장하며 대대로 가정 교육을 받아 그래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종족간에 화목하며 초상 때는 예절을 다하고 제사 때는 정성을 다하여 향리에서 모두들 칭찬을 하였다고 한다。 그 덕을 행함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바이었으니 이미 수백년 세월이 지나도록 묘소자리만은 오히려 초군 목동들까지 손으로 가르키고 있으니 그가 내려놓은 덕화가 무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의 14대손인 형의와 그의 족손인 중원이까지 나와 더불어 세의들이 있어서 대략 기록한 실기를 들고 찾아와 비석의 문장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우리 선조께서는 조선 초기에 태어나 이미 5백년의 오랜 세월이 되어 일거리는 커서 힘을 계속하였어도 지금까지 사업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몇차례 전쟁을 치르며 사적들이 자취없이 사라진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 여러 일가들이 각자들 힘을 다바쳐 오래도록 전해주고자 한 것이며 또 당신의 비문을 얻으면 어찌 영광이 아니겠느냐 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어찌 감히 쓰겠는가마는 높은 덕망가의 문장을 버리고 이제 이 용렬한 솜씨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간 알고 지내던 정의에서 취하려고 그랬을 것이라고나 할까?

마침내 비문을 지으며 대략 공의 사적을 서술하니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일도 있었느냐 하는 놀라움과 허망한 감정도 들었다。 오륜 삼강이 패망하여 무너지는 날을 당하여 이런 비석을 세우고 있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할고? 명문에 말하기를 높이 솟은 저 칠원이여 화창한 기운이 창창하도다。 대대로 현인과 준걸이 있음은 공이 바로 독실히 살음이로다。 5백년 오랜 세월 지금까지 초군 목동들 칭찬하고 있다네。 내려놓은 음덕 끝이 없이 후손들 번창하도다。 저 명덕봉 바라보니 소나무 잣나무 아끼는 것은 이 판결사공의 묘소를 위하여라네。

서기 1954년 갑오년 월 일
은진 송두헌은 짓고 청송 심응주는 쓰다

① 判決事公墓碣銘(諱 祖生) 忠孝公后 青陽

公 諱 祖生 系出漆原之尹 新羅太師 諱 始榮 爲鼻祖 冠冕不絕 累傳至 諱 秀 高麗軍簿判書 諱 吉甫 龜城君 諡 忠義 諱 桓 漆原伯 諡 忠孝『吾傍五世祖性潭先生 撰神道碑銘』諱 天敎 寶文閣大提學 此-公之高曾祖禰也 入我 朝初 公 生而天姿 近道 有長者之風 文科 官至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 墓 在定山場面明德峰西麓甲坐原 配 淑夫人坡州廉氏 左史令邦慶 女 有淑德 繼配 淑夫人海州鄭氏 政丞慇 女 亦有婦德 前後配 皆與公合祔焉 擧五男一女 男 長 淵 司直 次 迪 忠順衛 次 衡 集賢殿校理知製教 前配出也 次 莘老 郡守 次 莘忠 司直 女 適金佐 後配出也 順孫 叅軍 迪 男也 興磻 牧使 衡 男也 弼 司果 莘老 男也 武孫 蓄孫 縣監 莘忠 男也 餘 不盡錄 嗚呼 公 生長忠孝家 承襲庭訓而孝於親 忠於君 睦於宗族 喪盡其禮 祭盡其誠 鄉里咸稱焉 其之德之行 人所莫及 已過數百星霜 衣履之藏 猶爲樵牧之所指點 其垂德之無窮 可知也 公之十四世孫亨義暨其族孫仲遠 與余 有舊誼 抱略抄實蹟 求牲石之刻而曰吾先祖生於國初則已爲五百年之久矣 事巨力綿 尙未得卒業而累經兵燹 事蹟之泯沒者-多故 惟是之懼 諸族 各盡其力 欲壽其傳而又得子之文則豈不有光乎 余非其人則奚敢也 捨當時丈德之文 今求於拙手 有所取於世誼而然歟 遂著爲文 略叙公之蹟 所謂有是存焉者乎 又有曠世之感也 當此倫綱斁敗之日 能爲此擧 豈不壯哉 銘曰屹彼漆原 淑氣蒼蒼 世有賢俊 公乃篤生 五百年久 樵牧尙稱 垂蔭無窮 雲仍蕃昌 瞻彼德峰 松栢青青 松栢爲愛 是公玄堂

檀君紀元四千二百八十七年甲午 月 日
恩津 宋斗憲 撰
青松 沈膺宙 書

◇

② 직제학공묘갈명(휘 석보) 대언공후 풍덕

세상의 말쟁이들은 청백리의 후손은 거의가 드날리지 못한다고 이르고 있기에 하늘의 도가 의심스러웠으나 이제 나는 직제학 공의 유사를 읽은 연후에 그러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늘의 도가 청백

리와 더불지 아니하였다면 공의 자손들의 오늘날 번창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때문이란 말인가?

맹씨 가업계승 노래보다 우수하고 초나라 왕의 작은 은총 풍자할 뿐이나 어찌 진실로 청백리가 되어 할 수 없는 것을 하였으랴? 오늘날 군자들이 가끔은 이 말을 달달 외우면서도 청렴을 하기에는 게을리 하고 있으니 의혹스럽도다。

공의 휘는 석보요 자는 자임이며 칠원윤씨 후손이다。성종 임진년(서기1472년)에 문과에 합격하였고 청백리와 현관을 거쳐 풍기와 성주 군수로도 나갔었다。연산군 시대에 사간원직제학을 하다가 갑자년(1504년)에 강음으로 귀양을 가서 을축년(1504년) 12월 25일에 졸하였다。공은 청백리로 소문이 나서 중종대왕이 법을 고쳐 포상으로 승정원도승지로 추증하여 장려하였으며 아들의 벼슬 때문에 또 이조참판에 추증이 되었다。

지금은 공이 세상을 떠난지 3백년이나 되었다。공이 평생토록 걸어온 자세한 일과 사업의 아름다움은 거의가 전래하지 아니한다。공의 자손들이 요즘 수집하여 유사를 만들었는데 비록 빠지고 생략되었지만 역시 고증이 되는 것들이다。

선조대왕이 중흥하여 윤상이란 후손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선대 왕조의 신하인 윤석보는 청백리로 선록된 바 있습니다。선대 왕조 신하인 윤석보는 처음 풍기 군수로 나가며 사내종 1명과 계집종 1명만 처자가 살고 있는 풍덕 시골집에 남겨 놓았는데 처자식들이 배고프고 추운게 괴로워서 비단 옷감을 팔아 밭 일묘를 매입하여 자급하려 하였더니 선대 왕조 신하인 윤석보는 급히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땅을 늘리지 않고도 그 임금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제 군수로 벼슬한 후이니 임금의 녹을 먹으면서 농토와 주택을 사들이는게 옳단 말인가? 처자들은 나를 죄인이 됨이 없게 하라 하여 아내는 곧 그 밭을 다시 팔았으니 이 일로 추측하면 기타 여타의 일은 알 수가 있을 것이라 하여 중종대왕이 가상하게 여기어 특별히 정려문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돌아다 보건대 전쟁의 화재를 만난 이후로 문헌의 서적들이 모두 망실되어 선대 왕조 신하인 윤석보의 이름마저 자취없이 사라져 없어질까 두려워 애원하오니 하명을 다시 하사하시여 찬양하여 영광되게 하소서 하니 선조 대왕께서 성대한 대우를 하려고 임금은 대신들과 논의하여 크게 바로 잡으라는 말을 하고 또 문서를 바꾸어 그의 자손들을 채용하여 후인들을 권장케 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임금께서 윤허하시었다。윤상은 공의 현손자이다。대체로 그 일을 믿고 그 말이 공정하다면 자손들 이라도 가히 부형을 칭찬할 수 있거니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윤상이가 어떻게 감히 임금에게 간청하고 그리고 조정의 공론도 어찌 간곡한 베풂음을 하였으랴。

내가 이조판서로 있으며 일찌기 청백리록을 읽어보니 그 속에 공의 이름이 있어 이때부터 공의 청렴을 백세까지 믿게 되었으며 야사와 전설로 여기 저기 나와있는 것은 생략하여도 좋을 것이다。유사에 말하기를 공은 바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게되니 어느 사람이 공에게 권고하기를 동료중에 이미 죽은 사람을 지목하여 자신은 벗어나라 하니 공이 울며 말하기를 무슨 면목으로 황천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겠느냐 하였다。

귀양살이 때에도 관청문전 청소하기를 부지런히 하였으니 공의 충성과 의리의 큰 절개를 의연히 공경함이 이와 같으니 돌아다보면 단지 청백리라는 이유로 공이 가리워졌을 뿐이라 할까?

공은 4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두었으니 중형은 부장 벼슬을 하고 문형은 판관을 하였으며 덕형은 생원에 합격하고 풍형은 이조참의까지 하였으며 딸들은 류일손、신극숭、군수인 홍석견、곽박、수찬관인 강승덕、정언인 안방진에게 시집을 갔다。후손은 현재 9대손과 10대손이 되어 너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었다。공의 문집과 족보에 나타난 사람은 좌랑인 광원과 정랑인 자신과 장령인 우정과 좌랑인 치적과 관찰사인 가적과 정언인 지화와 관찰사인 경룡과 필선인 경주들은 큰 아들계통의 후손이고 판서를 하고 광국공신으로 칠계군에 봉해진 탁연과 검열인 길원과 도사인 안기와 좌랑인 홍적과 장령인 지원과 보덕인 지태들은 둘째아들 계통의 후손들이며 학록인 창명과 관찰사인 조원은 셋째 아들의 후손들이니 어찌 그렇게 번성하였을까?

공의 전부인은 경주 김씨이니 자손을 두지 못하였고 그 묘소도 실전되었으며 둘째 부인은 고령 박씨이니 현감인 박인효의 딸이며 묘소는 풍덕동면오동곡에 북동향(곤좌)으로 되어있다。공은 성주군수로 부임할 때에 부인이 임신을 하여 여덟 달이었는데 가마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갔다고 한다。명문에 말하기를

공께서 자손을 많이 두고 그 자손들이 부귀하고 현달한 것은 하늘 이치의 보답이요 청렴한 선비가 되라는 권고이라네。

영의정 조현명은 짓고

영의정 서지수는 비문과 아울러 액전을 쓰다

② **直提學公墓碣銘(諱 碩輔)** 代言公后

世之謂者謂 廉吏之後 多不振 天道 可疑也 今 余讀直提學尹公遺事然後 信斯言之誣也 天道不與廉吏也則公之子孫 至今蕃昌 若是 何哉 優孟負薪之歌 諷楚王少恩耳 豈眞以廉吏 爲不可爲也 今之君子 往往顯誦斯言而怠於爲廉感也 公 諱 碩輔 字 子任 漆原人 成宗壬辰 登文科 歷淸

顯 出宰豐基星州 燕山時 爲司諫直提學 甲子 謫江陰 乙丑十二月二十五日 卒 公 以淸白 著名 中廟改玉 褒特 贈承政院都承旨 以奬之 後 以子貴 又 贈吏曹叅判云 今之去公 時且三百年矣 公 生平履歷之詳事 事蹟之休 多不傳公之子孫 近頗蒐輯 爲遺事 雖疎略 亦可徵也 宣廟中興有尹祥者 上疏曰先臣碩輔 成廟朝 所選廉謹吏也 先臣 始守豐基 以一奴一婢之官 留妻子豊德村舍 妻子 苦飢寒 賣衣置田一畝 以自治 先臣 走書曰古人 有不廣尺寸地 以負其君者 今我 從大夫後 食君之食而置田宅 可乎 其無以重我罪戾也 妻遂還其田 推此而他餘 可知也 中廟嘉之 特施旌贈 顧自兵火以來 典籍 俱亡 先臣之名 恐遂泯沒 乞命復賜 褒揚以光 宣廟 盛典焉 上 議大臣 大臣一辭 請吏書籍 錄用其子孫 以奬後人 上 允之 祥 公之玄孫也 夫其事信 其言公則子孫 亦可以頌其父兄也 不然則祥 安敢請之君而朝議 亦安用曲施之也 余長銓曹 嘗見淸白吏案 中有公名 即此而公之廉 可以信於百世 其雜出於野乘傳聞者略之 亦可也 遺事 又曰公 以直言 被謫 或 勸公 諭僚臺已死者 以自脫 公 哭曰何面目 歸見九原人也 在謫日 灑掃官門 惟勤 公 忠義大節 凜然可敬如此 顧 但以淸白 蔽公而已也哉 公 有四子六女 重亨 部將 文亨 判官 德亨 生員 豊亨 吏曹參議 女 適柳一孫 愼克承 洪石堅郡守 郭璞姜崇德修撰 安方進正言 後孫 今爲九世 十世 多不能盡記 其以文譜 著者 佐郞光遠 正郞自莘 掌令遇丁 佐郞致續 觀察使嘉績 正言志和 觀察使敬龍 弼善敬周 長房後也 判書光國功臣漆溪君卓然 檢閱吉元 都事安基 佐郞興績 掌令志遠 輔德志泰 二房後也 學錄昌鳴 觀察使調元 三房後也 何其盛也 公 前配 慶州金氏 無育 失其墓 繼配 高靈朴氏 縣監仁孝 女 墓 豊德東面梧桐谷坐坤原 公 赴星州時 夫人 孕八朔 不轎而以騎行云 銘 曰公多孫子 孫子貴顯 天道之報 廉士之勸

領議政 趙顯命 撰
領議政 徐志修 書幷篆

◇

③ 사정공묘갈명(휘 성제) 충효공후 공주

우리 선대 할아버지이신 사정공의 묘소는 공주군 탄천면 종안동 산기슭 유좌묘향의 능원에 있는데 지금까지 5백여년 세월이 되도록 일찌기 비석을 세운 적이 없음은 실로 우리 자손들이 한미한 탓으로 말미암아 이루워진 바이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할소냐? 그렇기 때문에 몇대의 산소들이 그 곳에 있건만 대부분 실전하여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올리니 자손된 사람으로 누구인들 송구하지 아니할소냐?

이제 여러 일가들과 상의하여 비석을 세워 선대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하게 되어 비석 일체를 갖추게 되어 거의 유감이 없게 되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우리 칠원윤씨는 시조이신 신라시대 태자태사공 휘 시영에서부터 칠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관적을 삼았던 것이다。그 후로 고려대에 들어와 크게 현달하여 마침내 일곱분이나 군호에 봉해지는 호칭이 있었다。10여세대조를 지나서 휘 환이 계시었으니 고려조에서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작에 봉해지고 시호를 충효공으로 추증되었으며 휘 천효가 있었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대제학에 이르렀으며 휘 신생이 있었으니 조선시대에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휘 제가 있었으니 진사에 합격하였다。이 분들은 사정공부군의 고조、증조、조고、선고들이시며 그리고 어머니는 의인 진주 하씨이다。부군의 휘는 성계이며 관직은 승훈랑돈용교위용양위부사정에 이르렀다。배는 숙인 밀양 박씨이니 자세한 출생과 사망의 년월일시는 모두 실전되었으며 묘소는 남편과 합장하였다。

아들인 보상은 동부승지 벼슬을 하였고 익상은 후사가 없다。손자인 자평은 문과에 합격하여 감찰 벼슬을 하였고 자균은 맹산 현감을 하고 자당은 진도 군수를 하고 자균은 진사에 합격하였고 자동은 내금위장을 하였다。증손과 고손이하는 번다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부군께서 쌓아놓은 덕과 아름다운 행동이 당연히 많은 기록이 있으련마는 세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문헌상 증빙서도 없이 여기에서 붓을 놓으나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여 퍼지고 문무관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헤아려 보고 사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수천호에 이르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 부군의 감추어진 빛과 쌓아놓은 덕이 아니고서야 후손들을 음덕으로 덮을 수 있겠는가? 명문에 이르기를

우리 윤씨가 성씨를 얻은 것은 오래전 신라시대요。일곱 세대 선조가 군호에 봉해진 것은 고려시대로다。이 현인의 묘소는 서당골이요。탄천은 멀리 흐르고 계룡산은 우뚝 솟아 있도다。

서기 1963년 계묘 윤4월 일
18대손 기순은 삼가 기록하다

③ 司正公墓碣銘(諱 成啓) 忠孝公后 公州

我先祖考司正公墓 在於公州郡灘川面宗安之麓酉原而于今五百餘星霜 尚闕顯刻 實由我子孫寒微之所致 寧不愧哉 所以在前屢代墓所 擧多失傳 設享祀 爲子孫者孰不悚懼乎 今玆謀諸宗族而樹貞珉 以遂先代未遑之事 賁飾墓道 庶無憾焉 竊惟我尹氏 始自新羅太師公諱始榮而居漆原故 子孫仍籍焉 厥後入麗朝 大顯 遂有七代封君之稱 歷十餘世 有諱桓 高麗侍中漆原伯 謚忠孝 有諱天敎 文科大提學 有諱神生 李朝生員 有諱濟 進士 寔府君之高曾祖禰而妣 宜人晉州河氏 府君 諱 成啓 官 承訓郎敦勇校尉龍驤衛部司正 配 淑人密陽朴氏 該生卒年月日 俱失傳 墓 祔焉 子輔商

同副承旨 翊商 無後 孫男自坪 文科監察 自均 孟山縣監
自塘 珍島郡守 自坤 進士 自東 內禁衛將 曾玄以下 繁不
記焉 嗚乎 府君之宿德懿行 宜有多記者而世旣遠矣 文無
徵焉 姑此囚筆 然 揆以我雲仍 繁衍 簪纓 不絕 散處四方
者殆將數千戶 此豈非我府君之潛光毓德 以燾後昆之蔭歟
因爲之銘曰

我尹得姓 粤自新羅 七世封君 麗朝尤多 賢人之藏 書堂之
藏 灘川悠遠 鷄山嵯峨

檀紀四二九六年癸卯閏 四月 日

十八代孫 氣 淳 謹識

◇

④ 승지공묘갈명(휘 보상) 충효공후 공주

삼가 생각 하여보니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이신 휘 시영이 시조가 되시고 그 후로 저명한 재상과 큰 학자들이 대대로 계승이 되었지만 고려대에 이르러 더욱 현달하여 7세대 선조가 군호에 봉해져 우리나라에 명망있는 씨족이 되었으며 그 자손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사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경기와 충청과 전라지방에 장례를 하게 된 것은 대제학공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상세대 할아버지의 묘소를 실전한 곳도 여러 위가 있고 진사공서부터 2대가 연속하여 실전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제단을 세워 제사를 올리지만 자손들이 성묘하고 청소하는 것을 방만하게 됨은 묘소에 석물들을 미비한 소치일 것이라 할까?

여러 일가들이 늘상 이런 것이 두려워 함께 상의하고 힘을 모아 전번엔 사정공 묘소앞에 세웠고 오늘 또 승지공 묘소의 비석을 세우며 나에게 비문을 위촉하여 나는 문장을 짓지 못한다고 사양하였지만 마지 못하였다。 생각을 하여보니 승지공으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백여년의 오랜 세월이 되었으며 그간에 몇차례 전쟁이 지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문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공이 조정에 남겨놓은 업적과 고향에 남겨놓은 연혁들이 당연히 소문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은 없으며 아름다운 덕행과 높은 행동도 많이 있었는데 증명할 곳이 없으니 그 애통함을 이겨낼수 있을소냐?

삼가 찾아보니 부군의 고조할아버지 휘는 천효이니 고려 말엽에 문과에 합격하여 대제학까지 하시고 증조할아버지 휘는 신생이니 생원에 합격하였고 할아버지 휘는 제이니 진사에 합격하고 아버지 휘는 성계이니 용양위후부사정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숙인 밀양 박씨이다。

부군의 휘는 보상이니 무과에 합격하여 오위도총부를 역임하고 후일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경연춘추관편수관 승정원동부승지를 역임하였으며 부인은 숙부인 광주 김씨이니 묘소는 공주군 탄천면 삼각리 선덕후록에 신좌로 합폄되어 있다。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생육하였으

니 큰 아들 자평은 문과에 합격하여 감찰을 하고 희말을 낳았으며 둘째 아들 자균은 맹산 현감을 하고 통덕랑인 언방과 직장인 안방과 정방을 낳았으며 셋째 아들인 자당은 군수를 하고 진사인 여형, 여림과 여태를 낳았으며 넷째 아들 자곤은 진사에 합격하고 주부인 은동을 낳았으며 딸은 최준에게 시집을 갔으니 토산후인이며 사학교수를 하였으며 다섯째 아들 자동은 내금장을 하였고 여섯째 아들은 자남이다. 그 이하는 줄이어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아 부군께서는 문무의 재능이 겸비되어 조정을 출입하였으니 당연히 대중들 보다 뛰어난 성대한 업석이 있을 것인데 단지 외손되는 최청강의 족보에만 요약되어 나타나 있고 그 이외는 고증하여 후손에게 계승될만한 것이 없어 이제 비석을 새기면서 눈물 흐르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명문에 말하기를

태자태사공이 처음 자리잡아 칠원윤씨라 하였다네. 고려시대에 크게 현달하여 7세대 선조들이 군호를 받으시었네.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높은 관리들로 소문이 나 있지요. 아 부군께서는 조정에 올라 문무를 빛냈지요. 그 높았던 덕과 넓었던 업적은 세월이 오래되어 자취없이 사라졌네. 아 저기 봉산이여 군자의 묘소가 있도다.

서기 1963년 계묘년 윤4월

17대손 기순은 삼가 기록하다

④ 承旨公墓碣銘(諱 輔商) 忠孝公后 公州

恭惟我漆原之尹 始於新羅太公諱始榮而厥後 名卿巨儒 世世繼承 至麗朝尤顯 有七代之封君 蔚爲東方之望族 子姓之 布居鮮域者 其麗不億而葬畿湖 自大提學公後始 上世之失墓 尙矣 進士公以上二代 連爲失傳 到今設壇享祀 子孫之省掃 汗漫 墓道之石儀 未備所致歟 諸族 庸是之懼 合謀倂力 向旣竪司正公墓前之貞珉 今又樹承旨公墓前之碑石而屬余記事 余以不文 辭不獲已 第念 自承旨公 迄今爲四百餘祼之久 其間 累經兵燹 家藏之文獻 掃地闕如 府君在朝之功業 在鄕之沿革 宜有可聞 不書之 懿德卓行者多而無處可徵者 可勝痛哉 謹按府君之高祖諱 天敎 麗末文科大提學 曾祖諱 神生 生員 祖 諱 濟 進士 考 諱 成啓 龍驤衛後部司正 妣 淑人密陽朴氏 府君 諱 輔商 以武科 行五衛都摠府經歷 後 除通政階 以經筵春秋館編修官行承政院同副承旨 配 淑夫人廣州金氏 墓 公州郡灘川面三角里宣德後麓中原合窆祔左 育六男一女 男長 自坪 文科監察 生希末 二男 自均 孟山縣監 生 彦邦 通德郞 安邦直長 正邦 三男自塘 郡守 生汝衡進士 汝霖 汝台 四男自坤 進士 生恩仝主簿 一女 適崔濬 兎山人 學校授 五男自東 內禁將 六男 自南 以下 絕不記焉 嗚呼 府君之兼全之才 出入朝廷 宜有拔群出類之盛蹟而只有略見於外裔崔

清江譜牒而外 無可考以紹後 今於鏤珉 不覺泣 銘曰
肇基太師 漆原之尹 大顯麗朝 七世之君 繼在李朝 蟬嫌相
聞 府君登朝 以武以文 崇德廣業 世遠言湮 盰彼蜂山 君
子之阡

檀紀四二九六年癸卯閏四月 日
十七代孫 氣淳 謹識

◇

⑤ 집의공묘갈명(휘 덕형) 대언공후 제천

공의 휘는 덕형이며 칠원윤씨이니 고려시대 삼중대광 첨의찬성사를 역임하고 충의공으로 추서받은 길보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홍문관직제학을 역임한 휘 석보이며 공의 아우인 관찰사 풍형이의 벼슬로 인하여 증이조참판에 이르렀고 어머니는 정부인 박씨이니 광양현감을 역임한 박효인의 딸이다。 공은 성화정유(1477년)에 출생하였는데 어린이 시절에는 많은 질병이 있어 늦게까지 과거 공부를 하여 경오년(1510년)에 생원에 합격하였고 처음은 상산에서 살다가 중간에 중원으로 이사를 한 것은 본래부터 산수를 좋아하는 천성이 있기 때문이고 마침내는 외롭게 단양에서 홀로 살았다。 집안 형제들이 조정에 출입한 사람이 2、3명 되지만 공은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가정기유(1549년) 11월22일에 졸하니 나이가 78세이었다。

공은 천성적으로 지극한 효자이었다。 어머니가 97세까지 장수하니 공도 70세의 나이지만 매년마다 찾아가 헌수연을 베풀고 몇개월씩 머물다가 돌아왔다。 죽을때까지 더욱 독실히 하였고 자손들도 따라서 역시 깊은 사랑의 예절이 있었다。 공의 묘소는 자신이 살아오던 제천 유원 남향(자좌)의 능원에다 미리 정하여 놓고 임종시에 유언을 하였다。

큰 아들인 백이가 한명의 아들을 두었으니 효명이고 둘째 아들인 주가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으니 준명과 은명이며 유곤과 장정임은 손자 사위이고 딸은 황언양에게 시집가서 2남2녀를 낳았으니 윤과 침이고 외손자 사위중에 곽한은 생원에 합격하였다。 셋째 아들 신이는 충성과 효도로 조정까지 소문이 나서 일찌기 참봉과 찰방을 역임하여 향리에서 추모를 받고 있으며 1남1녀를 낳았으니 창명은 아들이고 사위는 이대수이니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그리고 이대수는 사포서별서를 제수받고 창명은 을유문과에 합격하였다。 넷째 아들 건이 4남1녀를 낳았으니 영명、탁명、원명、홍명이고 사위는 신맹경이다。

공은 친손과 외손들이 37명이 된다。 공의 출생년월일과 사적들은 셋째 아들 찰방이 갖고 있으며 또 묘앞에 비석을 세워 없어지지 아니하게 계획하고 나에게 명문을 문의하니 공은 바로 나의 숙조부가 된다。 정의상 사

양할 수 없어 명문에 이르기를
세가지 높은 덕이 있는데 공은 그 두가지를 얻었도다。
충성과 효도 집안에 전승시켜 가업이 실추되지 아니하
였네。학문을 펼쳐 거두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남기시니
자손들 번성하며 많은 복을 받았도다。

종손자 탁연은 삼가 짓다

⑤ 執義公墓碣銘(諱 德亨) 代言公后 堤川

公 諱 德亨 漆原人 高麗三重大匡僉議贊成事忠義公吉甫之後 考 弘文館直提學諱碩輔 以公弟觀察使豊亨之貴 贈吏曹參判 妣貞夫人朴氏 光陽縣監孝仁之女 公 生於成化丁酉 少嬰疾病 晩事科業 中庚午生員 始居商山 中移中原 素有山水癖 終乃僑寓丹邱 一家兄弟出入臺閣者數三人而公 無意仕宦 以嘉靖己酉十一月二十二日 終 年 七十三 配鄭氏 兵曹正郎綸之女 亦東萊大姓 成化甲辰生而卒于嘉靖辛酉十二月初九日 年 七十八 公 性 至孝 母夫人 享壽九十有七 公亦古稀之年而每歲來獻壽盃 留數月而歸 抵死益篤 子信亦有深愛之節 公之有窆 卜兆于信之所居堤川楡院坎坐离向之原 公 臨訣之願也 男長曰伯 生一男 孝鳴 次曰偶 生二男二女 峻鳴殷鳴 壻 劉昆 張鼎任 女適黃彦良 生二男二女 玧忱 壻 生員郭瀚 次曰信 以忠孝 傳聞於朝 曾爲參奉察訪 鄕隣 慕之 生一男一女 昌鳴 壻 李大遂 皆中司馬而大遂 薦授司圃署別坐 昌鳴 擢乙酉文科 次曰健 生四男一女 英鳴 卓鳴 遠鳴 弘鳴 壻 申孟慶 公 內外諸孫 三十七人 公之存沒有事 察訪 棠主之而又將立石於阡墓 以圖不朽 問銘於余 公 乃余之叔祖父 情義 不可辭

銘曰
尊德有三公得二 忠孝傳家業不墜 種學不收貽子孫 子孫振振受多祉

後孫 卓然 謹撰

◇

⑥ 부제학공묘갈명(휘 풍형) 대언공후 양주

공의 성은 윤씨요 이름은 풍형이요。자는 구중이요 호는 송월암이다。진사에 합격하고 문과에도 합격하여 관직이 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이었으니 칠원윤씨란 훌륭한 씨족이다。공의 선조중에 휘 송제와 수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중국 원나라에서 계승하여 벼슬을 하여 명성이 중국에서도 빛나고 있으며 그 후로 휘 길보는 고려나라에 큰 공로가 있어 그 공로로 직량공신이 되어 작위가 구성군에 봉해졌으며 대언공 휘 자와 랑장공 휘 천이에 이르러서는 덕도 높고 벼슬자리도 유지되어 가문이 더욱 더 번창하였다。

공의 증조할아버지 휘 참과 할아버지 휘 사는 다같이 학문을 업으로 하여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그리고 저명한 손자가 있어서 증직으로 집의와 참의에 이르렀다。

아버지를 말하면 홍문관직제학인 휘 석보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군수를 하면서 터럭끝 만큼도 국고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군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연산군 조정에서 벼슬을 하며 바른 말을 하면서 굴복하지 아니한 이유로 강음으로 귀양가 그 곳에서 졸하였으나 조정이 회복된 초기에 특별히 도승지로 추증시키었고 후일 다시 이조참판에 추증이 되었으니 처음의 증직은 본인의 공적 때문이고 뒤에 증직은 아들 때문에 증직한 것이다。 참판공은 중참의인 고령 박씨 박효인의 딸과 결혼하여 홍치신해(1491년)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얼굴 모양이 예쁘고 온순하며 자질이 영리한데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넉넉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도 학문이 날로 성장하였다。 어린시절부터 사람들은 노숙하다고 칭찬하였으며 점차 자라면서 문장과 글씨가 더욱 풍부하고 높아 시문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부지런히 외우고 있었다。 병자년(1516년)에는 대관의 입문 기회를 얻었고 기묘년(1519년)에는 알성과거에 합격하여 최초로 한성참군을 받았으니 대저 장원급제하여 7등급에 제수됨은 국가에 상례적인 영전법이 있기 때문이었다。 신사년(1521년)에는 한림원으로 선발이 되어 그래서 전적으로 승진이 되었다가 잠시후에 사서관으로 직책을 바꾸었고 병조로 전근을 하였다。 이때부터 늘상 좋은 자리에만 있게되어 홍문관과 동궁이 아니면 어사대 중서부에만 있다가 잠시후에 당상관으로 특진하여 명성이 더욱 빛났다。

승정원에서 물러나와 이조참의를 역임하고 오랫동안 홍문관에 있었는데 김안로의 배척을 받아 강원감사로 나갔다가 조정으로 들어와 대사간과 부제학을 다시 제수받았다。 공은 늘상 벼슬자리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간청을 드려 부평부사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며 직무수행시에 관리나 노비를 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결하였으며 얼마후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특별히 판결사를 제수 받았다。

기해년(1538년)에는 병이 들어 자택에서 졸하니 나이가 49세이었다。 양주군 장홍골에 서북서향(을좌)의 능원에 장사를 지냈다。

공은 평생토록 검소하게 몸을 다스려 재물 때문에 자신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은 모두들 말하기를 저명한 아버지의 아들이요 대대로 전승되는 청백리 집안이라 하였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잠시도 쉬지를 아니하고 날마다 몇편의 시축과 연편을 지어놓아 송월암집 5권이 세상에 전래하고 있으니 송월이란 바로 공의 별호이며 시율품격이 고아하여 고시품격에 뒤지지 아니한다。

공의 전부인 남양 홍씨는 사성벼슬을 한 찬의 딸로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일은 서부 참군을 하였다。 부인

은 병인년(1506년)에 졸하시어 수원 장족리 선영의 곁에 장례를 하였다。 두번째 부인은 신씨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공보다 11년뒤에 졸하시어 공과 합장을 하였다。 참군인 일의 전처는 전주 이씨 풍안수 수청의 딸이며 후처는 전주 최씨 계증의 딸인데 각자들 두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충이와 원이와 경이와 의이가 그들의 이름이다。 충이도 역시 전·후처가 있었는데 회는 전처의 소생이고 상이와 두 딸은 후처의 소생이다。 상이는 현재 군자참봉 벼슬을 하고 큰 딸은 선전관 임효간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참봉 이개에게 시집갔다。 원이는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유이며 경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일찌기 선수참봉을 제수 받았으나 어머니 상을 당하여 복을 입었고 3년 상기가 끝나고도 벼슬하지 아니하였으며 2남3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적이고 차자는 호이며 장녀는 정랑관인 김취의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이중에게 시집갔으며 셋째딸은 어린이이다。 의는 4남5녀를 두었으니 장자인 보는 무과에 합격하였고 차자들은 양과 정이며 장녀는 홍극관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학자인 고우예에게 시집갔고 기타는 다같이 어린이들이다。 상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선부군인 승정원통판교 남원 윤강원의 딸이다。 그 형인 희의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 앞으로는 차자가 그 대를 계승하게 되었으니 사실상 그의 아들인 택민은 그 고조부 졸하신 것을 거듭 생각하고 있었는데 70년이 가깝도록 지금까지 비석이 없어 그 명적들을 표기하자는 이유는 영원히 자취없이 사라질까 두려워서라며 나에게 비문 부탁을 간절히 하여 나는 그의 뜻이 애절하여 감히 사양을 못하고 명문에 이르기를

영원한 윤씨는 그 근원이 면면히 이어졌네。 어찌 높이 존경을 아니할소냐。 그 두분 할아버지가 원나라에 벼슬한 것 어찌 더욱 번창이 되지 아니할소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이 있으니 공로는 구성군이 빛나고 문장은 대언공이 빛나도다。 잠시 벼슬은 막혔어도 그 덕망은 존경받았다네。 아름답도다 직제학 공이여 우리 나라의 충직한 신하이지요。 청렴에는 노력 많이 하고 의리에는 자신도 잊었다네。 자신은 근신으로 살았고 또 고관들도 낳았다네。 선조의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되었도다。 속이 알차 겉으로 드러나 얼굴은 존망스럽고 마음은 온화하다네。 당연히 경사를 열었으니 가문을 계승하는 자손되었도다。 효도하고 또 충성하였으니 좌우에 휘장이로다。 빛나는 옥 같으니 그 밑음 쇠퇴됨이 없으리라。 오래도록 귀로 익숙히 들었으니 어찌 눈으로 보는게 필요할까。 여기에 공경심이 일어나서 감히 빗돌에다 명문을 하였다네。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 남원 윤기 지음

⑥ 副提學公墓碣銘(諱 豊亨) 代言公后

公姓尹 諱 豊亨 字 衢中 號 松月菴(直提學公第四子湖堂) 進士(中宗丙子式年 中第 八人 壯元 趙連) 文科(中宗己卯 別試甲科 第 二人 壯元 金珌) 官 通政大夫行弘文館副提學 漆原茂族也 其先 有諱松碑 諱 秀 祖 孫 相繼仕大元 名聲 顯中華 其後 有諱吉甫 有大功於前朝 勳爲直亮 爵爲龜城君 傳至代言諱樵 郎將諱天怡 德邵官柴門戶益振 公 曾大父諱參 大父諱思 俱業文 擧司馬 以有顯孫 贈至執義與叅議 考曰弘文舘直提學 諱 碩輔 少宰郡牧 以纖毫不犯 載地誌 入事亂朝 以盡言不撓 謫江陰以卒反正初 特贈都承旨 後改 贈吏曹叅判 初 贈 贈以己 後贈 贈以子也 叅判 娶 贈叅議高靈朴氏仁孝之女 以弘治辛亥歲 生公 公 狀貌玉溫 質禀頴發 嚴訓有餘 不待他師而學日就 自在童孩 人以老成目之 稍長 文筆益自富蔚 所製賦詩 誦於人口藉藉也 捷丙子蓮榜 登己卯龍科 初受漢城叅軍 盖甲科 超七 昌國有恒典故也 辛巳 薦拜翰院 因例陞典籍 俄改司書 轉郎于騎曹 自此 長在華帙 非玉堂春坊久長玉堂 爲金安老 所斥 出按江原監司 入復拜大司諫 副必烏臺薇垣 不久 超堂上 名譽益彰 徹自銀臺 歷吏曹叅議提學 公 常以爵位榮極 爲懼 遂力乞 補富平府使 在職 職擧不以官卑 自懈 俄被 宣召 特除判决事 己亥 病卒于寢室 年 四十九 葬于楊州長興鄕乙坐辛向之原 公 平生 簡約律身 不以事物 自煩 人 咸曰名父之子 世傳淸白家也 嗜學 不少休 日吟哦累軸聯篇 松月菴集五卷 傳于世 松月即公 別號 格律雅高 不讓乎古矣 公 前夫人南陽洪氏 司成璨之女 生一男 名 佾 西部叅軍 其亡 在丙寅歲 葬于水原長足里其先塋之側後 後夫人 辛氏 無后 後公十一年而終 祔于公 叅軍 前娶 宗室 豊安守淸之女 後娶 全州崔氏繼曾之女 各生二子 忠 愿 慶 懿男 其名也 忠男 亦前後室 子 禧 前之出也 子 祥 暨二女 後之出也 祥 今爲軍資叅奉 女 長 適宣傳官林孝幹 次 適參奉李愷 愿男 生獨子裕 慶男 以司馬 曾授 宣受叅奉 喪母服 旣闋仍不仕 有二男三女 男長 曰禴 次 曰祜 女長 適正郎金就義 次 適李增 次 幼 懿男 有四男五女 男長曰補 虎科出身 次曰禶 禎 女長 適洪克寬 次適士人高友禮 餘 幷幼 祥之母 即祈先君承政通判校 南原尹剛元女也 以其兄禧於嫡 無后 將承副其先宗者 實其子澤民 重念厥高祖卒 幾七十年 迄玆無顯刻 以表著其名蹟 恐終遠沈泯 請銘于祈甚懇 余哀其志 不敢辭 其銘 曰遠矣維尹 綿綿發源 曷不高敬 二祖仕元 曷不益昌 克紹有孫 勳著龜城 文炳代言 餘或官室 其德則彛 懿哉提學 我 朝直臣 廉以勵頑 義以忘身 旣自愼飭 又生令副 胚胎前光 瑚璉之器 而盎而粹 望表和裏 宜爾啓慶 克家之子 式孝且忠 左右帳幄 潤色玉猷 無替厥職久矣耳熟 何必目接 爰玆起敬 敢銘于石

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 南原 尹祈 撰

⑦ 전적공묘갈명(휘 준제)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준제요 자는 중우요 호는 경정이요 관적은 칠원이며 성은 윤씨이다。 시조 휘는 시영이니 신라 태사이며 기세조 휘는 거부이니 고려초기에 호장이다。 그 이후로 저명하고 높은 재상들이 무더기로 나와 가문이 빛나고 자손이 많이 번성하였다。 17세를 전해와 중조 휘는 환이니 고려 말기에 문하시중으로 봉작호는 칠원백이고 시호는 충효이다。 4세를 전하여 고조부 휘는 성계이니 조선초기에 사정이요 증조부 휘는 보상이니 동부승지요 조부 휘는 자당이니 군수요 아버지 휘는 여형이니 진사요 어머니는 의인 청도 김씨이니 아버지는 도사 지이다。 공의 본집은 옛날 노성현 서소사면 비안동이니 현재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이다。 서기1528년 무자년 6월29일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영리하더니 경서와 사기를 널리 섭렵하였으며 부모를 섬김은 지극한 효성으로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그러움으로 하여 고향에서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서기1561년 신유년 과거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그후로 정산 행봉산 석봉산기슭 위동마을에 살며 경정재를 지어놓고 선배들과 교류하고 후학을 권면하였는데 그 사이에 제자중에 저전에 사는 김현준이 과거에 급제하여 축하시를 지어주니 그 시에 이르길 풀이 황색이라 몰랐으나 울음소리에 송아지인줄 알았고 모래가 희어서 몰랐으나 움직여서 갈매기인줄 알았노라 하였더니 답으로 지어온 시는 골이 깊어서 구름 나오기가 늦었고 강이 넓어서 물 흐름을 더디게 하는구나 하니 시골 선비들이 애송하였다。 서기 1590년 경인증광시에 문과에서 급제하고 다음해에는 승문원저작에 임명되고 또 그 다음해에는 성균관 전적으로 전근되고 또 봉상시첨정에 천거되었으나 취직하지 아니하였다。 증직은 종부시정겸춘추관편수관이다。 서기1594년 갑오 6월28일에 질병으로 천명을 마치니 향년이 67세이다。 그해 10월에 안장하니 묘소는 옛날 정산현 외동 뒷산기슭 동남향(건좌)이니 현재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산 13번지이다。 배위는 숙부인 동복 오씨이니 아버지는 참봉 은이다。 서기 1594년 갑오 4월29일에 졸하니 묘소는 공의 묘소 좌편 산등 남향(자좌)이며 묘갈 상석 망주석등이 구비되어 있다。 공이 운명한 이후에 자손들이 정산현 각 마을에 여기저기 살며 동족 마을을 이루고 있으니 그 자손의 수가 만여명이 된다。 이는 정산지방 대성씨이며 공은 우리 윤씨의 외동 파조이시다。 6남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통덕랑이니 천남이고 차남은 동지중추이니 천상이요 삼남은 중이조참의이니 천록이요 사남은 천우요 오남은 천룡이요 육남은 천경이며 장녀는 전응우에 시집가고 차녀는 이득용에게 시집갔으며 손자와 증손이하는 번다

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공을 산소에 모셔온지 현재 408년 차이다。그후로 78년 되던 신해년 10월에 묘갈을 처음 세우고 그리고 그후에 267년 되는 지난 정축년 3월에 후손되는 종관이 비갈문을 쓰고 영문、병시、병선、종옥、기순등이 일을 맡아 두번째 세우게 되었다。그간에 세운 묘갈들이 대략적이고 왜소하여 비석을 확대시켜 이제 바꿔서 세우니 묘소에 비석들이 더욱 새로워졌다。엎드려 생각하오니 높으신 혼령께서는 천추가 되도록 이곳에 계시고 또 후손들이 만세가 되도록 전승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지난 겨울에 경정공파 종회장인 병현씨가 묘갈명문을 나에게 요청하여 고사하지 못하고 세대의 순서는 족보에 의하고 행적은 향지 기록을 참고하여 대략 글을 짓고 이어서 명문에 이르기를

경정공 부군은 정산외동의 파조이시니 그 단정한 성품과 행동을 지방에서 칭송하였다。부모의 봉양은 정성과 효도로 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그럽고 후덕하시며 경서와 사기에 널리 통달하시어 후학을 권면하시었다。과거인명부에 성명이 기재되었으니 그것은 학문이 우수하시어 벼슬에 오르신 것이며 후손들이 번창하였으니 음덕이 대대로 전해온 것이다。석봉산 명당 산등이여 풍수비결문에 거북이 숨은 형국이라 이르렀으니 봄 이슬 내리고 가을 서리 내릴 때에 영원하도록 제사 올리리라。

서기 2001년 2월 일

14대손 정산향교전교 홍수는 삼가 짓고

11대손 전적공파종회장 병현은 삼가 세우다

⑦ 典籍公墓碣銘(諱 遵悌) 忠孝公后 青陽

公諱 遵悌 字 仲友 號 敬亭 貫 漆原 姓 尹氏 始祖諱 始榮 新羅太師 起世祖諱 鉅富 高麗初戶長 以後 名公碩卿 輩出 門閥赫赫 子姓振振 十七世傳之 中祖諱 桓 麗末侍中 封號 漆原伯 諡號 忠孝 四世傳之 高祖諱 成啓 鮮初司正 曾祖諱 輔商 同副承旨 祖諱 自塘 郡守 考諱 汝衡 進士 妣 宜人清道金氏 父 都事紈 公 親第 故魯城縣西素沙面飛雁洞 今扶餘郡草村眞湖里 一五二八年戊子六月二十九日生 自幼穎悟 經史博涉 事親至孝 接人 以寬 鄕黨尊崇之 一五六一年辛酉 進士 擧人 伊後 定山鷲鳳山石峰麓下外洞 寓居 敬亭齋 構築 先進交遊 後學 勸奬 這間 登科弟子 楮田金賢俊 贈與祝詩 草黃鳴識犢 沙白動知鷗 云 答詩 谷深雲出晩 江闊水流遲 云 鄕人愛誦 一五九〇年庚寅增廣試 文科登第 翌年承文院著作 拜官 又明年成均館典籍 遷拜 又奉常寺僉正 薦任 不就 贈職 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 一五九四年甲午六月卄八日以疾 終天享年 六十七 同年十月 安葬 墓 故定山縣外洞後麓乾坐 今青陽郡青南面東江里山十三番地 配 淑夫人同福吳氏 父

參奉殷 一五九四年甲午四月廿九日卒 墓 公位 左岡子坐 墓碣 床柱 謹具 公歿後 子孫 本鄕各村 散居 同族村 俱成 其數 什千餘 寔 定山大姓 公 吾尹派祖 有六男二女 長男 通德郞天男 二男 同知中樞天祥 三男 贈吏曹參議天祿 四男 天祐 五男 天龍 六男 天經 長女 適田應祐 次女 適李得龍 孫曾以下 繁多不錄 竊念 公 襄奉 于今四百八年次 其後七十八年次辛亥十月 墓碣 初竪 而後二百六十七年次去甲丁丑三月 后孫鍾璀 謹書碣文 永文 炳時 炳宣 鍾玉 氣淳等 董役 重竪 其間墓碣 草略 矮小 貞珉 擴大 今次改竪 墓儀尤新 伏惟尊靈 千秋 是憑 且祈來裔 萬世相傳 去年冬敬亭公派宗會長炳賢甫 碣銘 請余 固辭 不得 世序 譜牒 行績 誌籍 參考 略序 繼而銘云 敬亭府君 定山派祖 端正性行 鄕黨頌之 養親誠孝 對人寬厚 經史博通 後生勉勵 榜目載名 學優登仕 來裔繁昌 庇蔭傳世 石峰吉岡 訣云藏龜 春露秋霜 香火永歲

二〇〇一年 辛巳春二月 日

十四代孫 定山鄕校典校 弘洙謹識

十一代孫 典籍公派宗會長 炳賢謹竪

◇

⑧ 백암공묘갈명(휘 창명) 대언공후 제천

고인이 되신 중이조참판성균관학록 백암 선생은 부인과 더불어 합장이 되었다。 제천군 남유원 자좌의 산등에 있어 초군목동들이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저명한 고위 관리의 묘역을 가히 조심하지 아니할소냐? 그 분의 후손인 정원씨가 문학도 있고 덕행도 있어 선조를 추모함이 독실하야 책 한권을 들고 나를 찾아와 이 책은 우리 백암공 선대 할아버지의 시고라고 하였다。 그 당시의 언어와 풍채와 학문과 관직무를 추심할 수는 없고 오직 이 책만 남았지만 세대가 오래되어 먹색도 변하였고 글자도 오자가 있어 읽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 노련한 큰 선비가 아니면 보완과 보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감히 청하오니 어른께서 분류하여 고쳐놓고 빠진 것을 보완하면 그 책이 본래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겸하여 비문을 지어 주시면 크고 빛나게 새겨 놓겠다고 하였다。 나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 그대의 요청을 정의때문에 문장을 짓지 못한다고 어찌 감히 사양을 하겠느냐고 하였다。

삼가 생각을 하여보니 공은 총명하고 달통한 재능으로 어려서부터 송월암 삼종조에게 배워서 경서의 뜻을 환하게 알아 속세의 선비들보다 뛰어나 말로는 이를수 없는 것이 가끔씩 있었다。 송월암옹은 그의 재능이 대성할 수 있음을 알고 데리고 도산 선생의 문하로 찾아가 배우니 선생이 자주 권장과 자랑을 더하여 한 두번에 끝이지 아니하고 공명정대라는 네자를 써주면서 기필코 노력하면 공같은 재능과 학문은 나가면 가히 임금

의 뜻을 도울 수 있고 물러서면 가히 문단에 모범이 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대략적인 사고이었다。

선조 기묘년(1579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을유년(1585년)에 문과시에 합격하여 계속해서 성균관 학록이 되어 횡장으로 선발되었고 우관으로 승진하였으나 대체로 한직관이었다。 당시 팔곡 구사맹과 어우 유몽인등의 여러 명사들과 더불어 관동팔경을 찾아다니다가 곤려봉 정상에 올라 동해에서 해뜨는 것을 보아가며 좋은 시를 지어 행랑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리니 내가 그 아름답고 큰 기묘한 기를 모두 찾게되면 장엄하고 유쾌하리라 하며 이때부터 각박함을 떠나 한가한 곳으로 나가 하급관리로 살아 한차례도 발탁되거나 어진이 대우를 받는 직책은 없었으니 조정에서는 아는 이가 있었을까? 마침내 임진년에 왜놈의 난을 만나 임금께서 피난을 떠나 신하가 된 사람이라면 의리상 한 하늘을 같이 못할세。 의병을 모아 전답과 주택을 방매하여 군비를 보충하다가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이 순직하였다。 공을 하늘에서 조금도 기다리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랴? 사실상 8월20일의 일이다。 조정에서 채록하고 포상을 하여 그 덕화의 사실을 장려하여야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적막하니 어찌 사관들의 실책이 아니겠는가? 세상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우러러 보지 아니하랴。

대저 공의 선계는 신라시대에 휘 시영이 있었으니 태자태사 벼슬을 하시었으며 시조가 되신다。 고려시대에 휘 길보가 있었으니 찬성사를 역임하고 시호가 충의공으로 추서되었다。 조선시대에 휘 참이 있었으니 서승을 역임하여 집의로 추증되었으며 휘 석보는 직제학을 역임하여 도승지로 추증이 되었으며 청백리로 선록이 되었으니 공의 증조이다。 할아버지 휘는 덕형이니 진사에 합격하여 집의로 추증이 되었으며 아버지 휘는 신이니 효행때문에 찰방으로 천거되었으며 좌승지로 추증이 되었다。 어머니는 청풍유씨이니 호군 벼슬을 한 유영백의 딸이다。 가정정유년(1537년)에 공을 낳았으니 휘는 창명이고 자는 시숙이니 칠원윤씨이다。 후일 아들의 벼슬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가 추증을 받았다。 부인은 봉화 금씨이니 감정 벼슬을 한 금극인의 딸이며 신축년(1541년)에 출생하여 병진년에 졸하였으며 3남을 낳았으니 조원은 문과에 합격하여 감사까지 하였고 찬원은 현감을 하였고 섭원은 시직이었다。 장자의 아들 민선은 첨지중추 벼슬을 하였고 민길은 선교랑이며 민익은 교수이며 딸은 백진과 금남에게 시집을 갔다。 차자의 아들 민도는 현감을 하였고 민성은 통덕랑이었고 민학은 종사랑이었으며 민정은 선교랑이었다。 딸은 권택길과 기세헌에게 시집갔다。 셋째 자의 아들 민행은 통덕랑이요 민술이며 딸은 유정한과 조유에게 시집갔다。

민선이 아들은 상갑이고 민길의 아들은 성갑이니 상갑은 출계하였으며 취갑도 있으며 지갑은 출계하였으며 정갑도 있으며 딸은 윤세규에게 시집갔다。민익의 아들은 형갑과 진갑과 진화와 진항이며 딸은 이상정과 이우태에게 시집을 갔다。민도의 아들은 수갑이며 딸은 홍성적과 한석건과 이삼과 이수적에게 시집을 갔다。민성의 아들은 선갑이요 후갑은 출계하였고 오갑이 있으며 딸은 황도일과 정용과 신영과 이정호에게 시집을 갔다。민학의 아들은 후갑이고 민정의 아들은 훈갑과 성갑과 의갑이며 딸은 황유와 윤적에게 시집을 갔다。민행의 아들은 지갑이고 딸은 박정용과 남대에게 시집갔다。민술의 아들은 신갑과 진갑과 이갑이며 딸은 강만영에게 시집을 갔다。그 이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명문을 지어 이르기를

아름답도다。선생이여 재능이 많고 학문이 넓었다네。한 세대에 선량이며 백인중에 특출하다네。어우 선생과는 동지이며 퇴계 선생의 수제자라네。공명정대라는 네 글자를 방법과 능력으로 삼았지요。살펴보고 찾아내여 이루어 놓은 것이 조정에 가득하다네。생각을 거두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왜 곤액에 성낼소냐。높이 한길 되는 곳이 백암 선생의 무덤이라네。내가 아첨 아니하여도 도가 있는 비문이 되리라。

무인년 청명절 안동후인 권효술은 짓다

⑧ 白巖公墓碣銘(諱 昌鳴) 代言公后 堤川

故 贈吏曹叅判成均館學錄白岩先生之藏與夫人合窆焉 在於堤川縣南楡院子坐之阡 樵牧 相戒曰賢大夫捿神之域 可不愼哉 其後孫稹遠甫 有文有行 篤於追孝 奉一冊子來予曰此 吾白岩先祖詩稿也 當日言論風裁 學問行政 無由尋逐而惟此存焉 世代寖遠 墨渝字訛 至不可讀而非老鍊意匠鮮有不血指矣 敢請吾丈 另加竄補 以有這眞面目出來而彙惠碩人言 以賁顯刻 余作而更坐曰君之請 以誼 不以文也則曷敢辭諸 謹按 公 以聰明特達之才 早從松月庵叔祖學顯透經旨 逈發俗儒輩不可議到者往往有 松翁 知其才可以大成 携之徃贄于陶山夫子之門 先生 亟加奬詡 不止一再至有贈以公明正大四字 期勉焉則公之才之學 進可以黼黻王猷 退可以規矩文苑 即此槩想矣 宣廟己卯 中進士 乙酉登文科 尋爲成均館學錄 選爲饕長 乘郵官 蓋閑官也 時與具八谷思孟 柳於于夢寅諸名公 歷搜關東八勝 登毘盧絕頂 望東海觀日出 瓊章主韻 盈槖而歸 盡拓我鳳翥鵬博之奇氣則壯哉快哉 自是 謝劇就閑 捿遲下僚 一未有拔擢待賢之任 夫知 朝端 亦有人乎 適値壬辰島夷之訌 君父播遷爲臣子者-義不共戴 糾合義旅 放田宅而充軍需事 未完而身殉 公則奈天不少須 何 實八月二十日也 朝家當有採錄褒 贈 以勵風化之實而尙今寥寥 豈非外史氏之有失歟 爲世道憂者-寧不仰望也 蓋公之先 新羅 有諱始榮 太子太師

爲上祖 高麗 有諱吉甫 贊成事忠義公 朝鮮 有諱參 署丞
贈執義 諱碩輔 直提學 贈都丞旨 錄淸白吏 公之曾祖也
祖 諱 德亨 進士 贈執義 考 諱 信 孝 薦察訪 贈左承旨
妣 淸風劉氏 護軍榮伯 女 以嘉靖丁酉 生公 諱 昌鳴 字
時叔 漆原人 後以子貴 三世追 恩也 夫人 奉化琴氏 監正
克仁 女 生於辛丑 卒于丙辰 生三男 調元 文科 監司 讃
元 縣監 燮元 侍直 長旁男 敏善 僉知中樞 敏吉 宣教郞
敏益 教授 女 白瑠 琴攬 次旁男 敏道 縣監 敏成 通德郞
敏學 從仕郞 敏政 宣教郞 女 權擇吉 奇世獻 季旁男 敏
行 通德郞 敏述 女 柳廷翰 趙維 敏善男 相甲 敏吉男 聖
甲 相甲 出 就甲 之甲 出 正甲 女 尹世揆 敏益 男 衡甲
鎭岳 鎭華 鎭恒 女 李相正 李遇泰敏道 男 壽甲 女 洪聖
迪 韓碩建 李級 李樹績 敏成 男 先甲 後甲 出 悟甲 女
黃道一 鄭溶 申漢 李廷虎 敏學 男 後甲 敏政 男 訓甲
誠甲 誠甲 誼甲 女 黃錄 尹檣 敏行 男 之甲 女 朴正龍
南垈 敏述 男 臣甲 鎭甲 以甲 女 姜萬齡 以下 不錄 爲
之銘曰猗歟先生 才大學博 一代之選 百夫之特 於于同心
陶山高足 公明正大 四字方能 展拓而成 有餘一朝 卷懷
而歸 吁何厄哉 有崇四尺 大夫之藏 匪我言謏 有道之銘
時維墨虎淸明節 安東 權孝述 撰

⑨ 칠계군묘갈명(휘 탁연) 대언공후 여주

공의 휘는 탁연이요 자는 상중이며 호는 중호이다。

칠원윤씨는 귀족으로 오래동안 전승하며 고려시대에 휘 송제가 있었는데 원나라에서 중랑장이 되어 참지정사까지 이르렀고 사세대 선조가 연속하여 재상에 올랐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관대작이 계승되었다。

증조할아버지 휘 석보는 충직하게 간언을 하다가 연산군 조정에서 화를 입어 귀양지에서 졸하시어 청백리란 명예와 절개가 있어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고 할아버지 휘 문형은 내섬시판관을 하여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고 아버지 휘 이는 우봉현령을 하여 순충보조공신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이 3대의 추증 보상은 공의 높은 벼슬 때문이었다。 어머니 안동 김씨도 역시 저명한 성씨이다。

공은 가정무술(1538년) 5월15일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소질이 있어 영리하고 모습이 출중하여 말을 배우며 곧 문자도 알아 번거롭게 교육시키지 아니하였고 시문 저술도 날로 발전하여 세상에서는 기이한 아이로 지목이 되었다。 장성하여서는 화려한 소문이 날마다 퍼져 당시 아계 이산해 같은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팔대 문장이란 칭호가 있었다。

무오년(1558년)에는 사마시에 합격하고 을축년

(1565년)에는 알성급제에 올라 의정원에서 사국으로 들어가 자리를 바꾸어 승정원 주서로 임명받았다。명종대왕이 병이 들었는데 영의정이 유교를 내전으로부터 받고 공을 불러 열여덟자 되는 문서를 쓰게 하였는데 덕홍대군 셋째 아들이라고 쓰면서 석삼자를 갖은 삼자로 쓰니 사람들은 그 두루민첩한 것을 감탄하여 임시응변의 재능을 동료인 황대수와 더불어 나란히 칭찬하였다。

무진년(1568년)에는 전적으로 승진하여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고 천추사서장관으로 중국에 갔다가 돌아와 홍문관부수찬에 임명되었다。이때부터 삼사에 출입하게 되었으며 또 삼자어까지 겸직하고 있었다。혹은 예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을 하였는데 일시직이 아니었다。종계의 거짓이 한세대가 지나도록 펴지를 못하였는데 그 전후의 전대에 책임을 져서 반드시 사원의 명망자로 선발을 하였다。

갑술년(1574년)에는 주청사서장관으로 또 중국에 갔었으며 돌아와 사헌부지평을 임명받았다。

일찌기 경연중에 사건의 그릇됨을 바로잡으려 말하기를 이런 일은 진나라 간문이도 하지 아니한 바라하니 임금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나를 간문에게 비교하느냐 하니 공은 천천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면 요순이 되고 고치지 아니하면 걸주가 되는 것이니 어찌 특별히 간문이 뿐이겠습니까? 하니 왕은 노함이 더욱 심해져 정승인 홍섬의 힘을 빌어 이해시키어 사건이 중지 되었다。

장령으로 승진하여 교리로 옮기었다가 내섬 종부시첨정으로 전근을 하였는데 의정부겸상사인들이 천거를 하여 양사의 부장으로 교체가 되었다。을해년(1575년)에는 동래부사로 발탁이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아버지상을 당하여 여막살이에 예절을 다하여 그 애통하는 효성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다。상기가 끝나고 상주목사를 제수받아 특이한 업적을 남기어 안과 밖으로 표장을 입히어 떠나온 후에 상주지방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사모하고 있다。

경진년(1580년)에는 승선으로 특별히 임명되어 춘당대에서 실시한 문신정시에서 장원을 하여 가선대부급으로 발탁되어 곧 바로 좌승지에서 도승지로 승진이 되었으며 그리고 예조참판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때마침 영남지방에 흉년이 들었다는 보고가 있어 임금께서 공에게 특명을 내려 영남지방이 재생의 힘을 얻게되어 그래서 예조로 교체가 되었으며 또 지신으로 전근하여 동지춘추승문제조까지 겸직하였으며 얼마후에 한성판윤으로 특별히 제수되었으며 그 후에 세차례나 형조판서를 하였고 두차례 호조를 거느렸는데 그 직무가 많고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3년을 넘기기 어려운 곳인데

공은 처리하기를 너그럽게 하여 이래서 사람들은 공의 달통한 재능이 단지 문장에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경인년(1590년)에는 비로소 광국공신에 책봉되며 정헌대부로 승진하여 칠계군으로 봉해지고 특별히 비국유사당상이라고 제수받았다。임진년에는 왜구들이 크게 침범하여 임금이 의주로 피난 길을 떠나 공은 왕자들을 배웅하고 북방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며 도중에 검찰사로 특별히 제수를 받았는데 당시에 왜적들이 이미 함경도에 침입하여 군인과 국민들이 모두들 숨어버려 사건은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왕자의 행렬이 함경도 국경에 들어왔는데 반역의 백성들이 왜적군과 달라붙어 있어 공은 빨리 임금이 피난 길에 있는 의주로 소식을 전하고 군대를 모집하여 국토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는데 잠시후 함경도 순찰사로 특별히 제수받고 공은 울면서 선교하니 들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 충의의 소문이 이르게 되어 원근지방에서 호응을 하여 주어 공은 의병을 모아 적군 진지로 진군하니 앞뒤에서 승전보가 서로 이어졌다。그 이전에는 장자인 경원을 파견하여 임금이 피난 나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문안을 드리고 편지를 부쳐 말하기를 적군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나라에 수치를 설욕하지 못할 것이라 하며 성중엔 하란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나 장막에는 제갈량 같은이가 없습니다。대대로 나라에 은총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죽음만 있을 뿐이니 맹세코 구차하게 살려고 아니하고 혼자서 성을 지켜온지 이제 40일이 되었다고 하며 자식들에겐 해와 별이 땅을 보고 있으며 귀신이 옆에서 질정하고 있으며 사랑을 이루고 의리를 이루라는 것은 공자、맹자의 말씀이니 너희들은 내뜻에 찬동하면 서명하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공이 평소에 쌓아온 것이라 하겠다。

겨울에는 임금께서 공이 야영 생활이 오래된 것이 염려되시어 양털 옷 한벌을 하사하며 위로하였는데 공은 즉시로 글을 올려 사양하며 말하기를 5월에 명을 받고 일찌기 도려의 얼음을 먹고 야반에 행군을 하면서 또 채나라 눈을 밟고 돌아간 것이 역사 사실 기록이라 하였다。공은 병란과 흉년을 만난 뒤에는 힘을 다하여 계획을 세워 곡식을 옮겨 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또 어리석이를 계몽하고 군인을 선발하여 남쪽으로 달려가 군사가 되어 외롭게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 힘으로 완전히 살아나 그 곳 주민들은 공이 홈이 잡혀 교체될까 두려워서 항소와 청탁까지 하니 공이 북방에 머물러 있던 것이 대략 3년이나 되었다。피로가 쌓여 병이 되어 갑오년(1594년) 5월28일에 군대 막사에서 임종을 고하였으니 향년이 57세이었으며 이해 모월 모일자로 시

신을 돌려와 광주 세곡동 남남동향(임좌)으로 묘소를 정하였으니 선대 묘소를 따라온 것이다。

공은 타고난 자태가 방정하고 위엄이 있고 마음이 안이하여 효도와 우애의 행동이 하늘에서 얻어 나온 것이며 선조를 받드는 예절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이를 섬기듯 하여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사당을 배알하였으며 명절때면 반드시 직접 절을 올리었고 아우와 여자 형제들을 사랑으로 길러 성공에 이르게 하고 작은 아우가 집이 없자 가산을 덜어 집을 지어주었으니 그 집안 행동은 많은 것이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였으며 평생토록 남과 어울려 노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편당짓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일찌기 절구 한수를 지어 자기 뜻을 보였는데 그 시에 말하기를 평생에 두갈래 길 동서가 있는게 미워 구름과 더불어 함께 걷고 학과 더불어 살리라。 홍이 나면 가끔 흠뻑 취하게 되니 취한 얼굴은 어느 곳이던 사람 향하여 구부린다네。 비록 이렇게 하지만 혹 밀어내고 헐뜯는 때가 있으면 역시 회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일찌기 각박하게 꾸미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하게 하여 사람들이 많이 외우고 있었으나 공은 문장가가 아니라고 여기어 알려짐을 꺼려하였다。

공은 두번 장가를 들었는데 전 부인은 여산 송씨인데 동지 벼슬을 한 송맹경의 딸이며 부사 벼슬을 한 송수의 손녀인데 대단한 부덕이 있었으나 공보다 먼저 죽었고 두 아들을 두었으니 큰 아들인 경원은 한성부윤을 하다가 임진년에 명을 받고 국가를 위하여 죽었기에 좌승지로 추증이 되었고 작은 아들 길원은 문과에 합격하여 검열 벼슬을 하였다。 후 부인은 전의 이씨인데 현감 벼슬을 한 이염의 딸이며 판서인 이구령의 손녀인데 집안에 화목을 이룬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고 3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 중에 장자인 회원은 시문으로 소문이 나 있고 차자들은 상원과 영원이며 장녀는 현감인 이유심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현령인 남석에게 시집을 갔다。

경원은 동지 벼슬을 한 정연의 딸과 결혼하여 4남2녀를 두었으니 장남인 계기는 한성판관이었고 차자인 태기는 검열 벼슬한 길원에게 출계하였고 차자는 배기와 효기이며 직장 벼슬을 한 박안립과 선비인 심벽과 감사 벼슬을 한 이배원은 그의 사위들이다。 회원은 자손이 없어서 사촌 아우인 복원의 둘째 아들인 안기를 입양하여 아들로 삼았으며 상원은 2남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지화이고 차남은 극화이니 영원의 집으로 출계되었고 딸은 참봉인 박진악과 선비인 유재기에게 시집갔다。 계기도 2남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탕필과 정필이고 딸은 문정 벼슬을 한 여효증과 참봉인 윤희와 감사인 권수에게 시집갔다。 태기는 4남3녀를 두었으니 아들 우성이는 참봉이고 우명이는 정랑이고 우현이는 통덕랑

이고 우을이 있으며 딸은 선비인 윤사례와 판서인 이숙과 선비인 유명기에게 시집갔다。효기가 2남을 두었으니 장자는 형필이고 차자는 은필인데 배기의 집으로 출계하였다。안기는 문과에 합격하여 직강이 되었으며 3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우성과 우신과 우한이요 딸은 선비인 이적과 이명석에게 시집갔다。길화는 1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우취이며 딸은 선비인 김석로와 원태삼에게 시집갔다。극화는 자손이 없어 족제되는 명기의 아들인 우오를 입양하여 아들을 삼았고 탕필도 아들이 없어 우성의 아들인 세적을 입양하여 아들로 삼았으니 사실상 공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이유심이 2남을 두었으니 명익은 현감을 하고 명설은 현령이었다。남석은 3남4녀를 두었으니 장자인 득기는 첨정이었으며 차자는 득로와 득두이고 딸들은 평시령인 이인준과 선비인 김기염과 권대평과 조위에게 시집을 갔으며 친손자 외손자와 증손자들 몇명이 더 있다。

나 남용억은 태어나기를 뒤에 하여 공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공의 집안에서 우리 남첨정공을 도와주었는데 바로 나의 당숙이 되시므로 어려서부터 공의 귀중한 업적을 익히 들었으며 또 공의 증손자인 우성과 더불어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엇그제는 우성이 매제되는 이판서가 지은 행장을 들고와 묘지문을 청탁하였다。나는 진실로 문장이 보잘것 없으나 그 사람 요청이 끈질겨 마침내 끝내 사양하지를 못하고 공의 행장을 참고하여 서술을 하고 이어서 명문에 이르기를

우리 조정이 점차 태평하게 되자 공을 서장관으로 삼았지요。민첩하게 임기 응변하였고 급박하여도 정신을 차렸지요。북경에 가서 일처리를 잘하여 왕실의 무고를 해결하였도다。임금님 모시고 글을 지으면 문장이 깊고 새로왔다네。조정에서 항의하면 임금님이 뜻을 물었지요。공부가 익숙하여 팔대가에 이르렀고 초상화가 기린각에 들었도다。전후로 네차례 군사 행정을 맡아 마침내 북방 주민이 안정되었도다。위급한 전란 중에 왕명을 받아 노력하고 애쓰다가 순절하였다네。그 재능과 그 덕화가 우리 후세인에게 덮혀 있도다。썩지않고 오래 가도록 기록하여 비석에 새기노라。

판서 의령후인 남용익은 짓다

⑨ 漆溪君墓碣銘(諱 卓然) 代言公后 麗州

有明朝鮮國輸忠翼謨光國功臣正憲大夫戶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漆溪君 贈諡憲敏公墓碣銘

公諱卓然字尙中號重湖 漆原之尹 華冑遙遙 勝國時有諱松磾 爲元中郎將 至叅知政事 四世連登宰輔 入我朝簪纓相承 曾祖諱碩輔 以直諫 被禍于燕山朝 謫卒 有淸白名節 贈吏曹叅判 祖諱文亨 內贍寺判官 贈吏曹叅判 考諱伊 牛峰縣令 贈純忠補祚功臣議政府領議政 三代之贈

以公貴也 妣安東金氏 亦著姓 生公於嘉靖戊戌五月十五日
幼有異質 潁脫出凡 學語 便知文字 不煩提誨 藻思日進
世以奇童目之 及長 華聞 日播 與同時李鵝溪諸公 有八文
章之稱 戊午 中司馬 乙丑 登謁聖第 由槐院入史局 旋拜
承政院注書 明宗 疾 惟幾首相 受遺教于內殿 招公書十八
字 公 書德興君第三子之三字 不三而參 人 歎其周敏 一
時應卒之才 與同僚黃大受 幷稱焉 戊辰 陞典籍歷司諫院
正言 以千秋使書狀官 朝京還 拜弘文館副修撰 自是 出入
三司 又兼三字啣 或正佐禮曹兵曹者亦非一時 宗系之誣
歷世未伸 前後專對之任 必選詞苑之望 甲戌 以奏請使書
狀官 又朝天還 拜司憲府持平 嘗於筵中 因事格非曰此 晉
簡文之所不爲也 上 厲聲曰爾何比余於簡文耶 公 徐對曰
改過則爲堯舜 否則爲桀紂 豈特簡文而已 上 怒甚盛 賴洪
相公暹 力解 事得已 陞掌令 移校理 轉內贍 宗簿寺僉正
薦爲議政府檢詳舍人 迭爲亞長於兩司 乙亥 擢東萊府使
明年 丁內外艱 廬墓盡禮 哀孝動人 制除 除尙州牧使 有
異績 蒙表裏之褒 去後 州人 碑而思之 庚辰 特拜承宣 魁
春塘臺文臣庭試 擢嘉善階 仍左丞旨陞都承旨 遂拜禮曹叅
判 時 嶺南 告飢 上 才公特授 南土賴蘇 遞拜南宮 又移
知中仍兼同知春秋承文提調 未幾 特除漢城判尹 其後 三
判秋曹 再領度支 職務之劇而難理者 莫逾於茲三任而公
處之 皆裕如 於是 人 始知公之通才不啻在於詞翰而已 庚
寅 始策光國勳三等 陞正憲封漆溪君 特授備局有司堂上

壬辰 倭寇大逞 上 西狩 公 承陪王子往北之命 途中 特拜
檢察使 時 賊 已逼咸關 軍民 皆鳥獸竄 事已無可爲者而
王子行入北邊 叛民 欲執附於賊 公 馳聞行在 召募軍兵
爲復讐計 俄又特拜本道都巡察使 公 灑泣宣教 聞者莫不
揮涕 義聲所曁 遠近 響應 公 糾合義旅 進遏賊鋒 先後報
捷 相繼 先是 公 遣長子慶元 奔問行在 嘗寄書曰國賊 未
討 國耻未雪 藩多賀蘭 幕無諸葛 世受國恩 報以何物 祇
有一死 矢不苟活 獨守孤城 今四十日 日星 下臨 鬼神 旁
質 成仁就義 孔曰孟曰 吾意有贊 汝背當湼 蓋公素所蓄積
也 冬 上 念公 暴露之久 特賜羊裘一襲以勞之 即上箋以
謝 曰五月聞命 曾飮渡瀘之氷 半夜行師 更踏入蔡之雪者
亦棠記也 公 正當兵發飢饉之餘 竭力規畫 移粟分賑 又啓
寢抄師 赴南之役 子遺之民 賴以全活 民 恐其及瓜而遞
至於控疏請借 公之留北 蓋三載矣 積勞成病 以甲午五月
二十八日 告終于旅館 享年 五十七 以是年某月日 歸窆于
廣州細洞坐壬之原 從先兆也 公 天姿方嚴 中心樂易 孝友
之行 出於天得 奉先之禮 一如事存 朝夕 必謁祠廟 俗節
必親奠拜 撫養弟妹 以至成立 小弟無家 捐財而營立之 其
家行 多有人不及者 生平 不喜交遊 且不喜偏黨嘗賦一絕
以示意曰生憎岐路有東西 雲與同行鶴與棲 乘輿有時成大
醉 醉顔何處向人低 雖以此或有推擠枳挫之時而亦不恤也
爲文 未嘗刻意雕鏤而自然贍麗 人多傳誦 皆以未主文盟
爲嫌 公 凡再娶 先夫人礪山宋氏 同知孟璟之女 府使壽之

孫 甚有婦德 先公而卒 擧二男 長慶元漢城庶尹 壬辰 奉命死於王事 贈左承旨 次吉元 文科檢閱 後夫人全義李氏縣監念之女 判書龜齡之孫 有宜家令聞 擧三男二女 男長喜元 有詩名 次 祥元 榮元 女長 適縣監李幼深 次 適縣令南錫 慶元 娶同知鄭演女 生四男三女 男長啓基는 漢城判官 次泰基 出系檢閱后 次 培基 孝基 直長朴安立 士人沈鬫 監司李培元 其壻也 喜元 無后 取從弟復元第二子安基爲嗣 祥元 二男二女 男長 志和 次克和 出繼榮元后 女適祭奉朴震岳 士人柳再起 啓基 二男三女 男 湯弼 鼎弼女 文正呂孝曾 參奉尹喜 監司權修 泰基 四男三女 男遇聖 參奉 遇明 正郎 遇賢 通德郎 遇乙 女 士人尹思禮 判書李塾 士人兪命寔 孝基 二男 長 衡弼 次殷弼 出繼培基后 安基 文科直講 三男二女 男 遇成遇宣遇漢 女 士人李熵 李命錫 吉和 一男二女 男 遇就 女 士人金錫老 元台三 克和 無后 取族弟命基子遇五爲嗣 湯弼 無后 取遇聖子世績爲嗣 棠奉公祀 李幼深 二男 命益 縣監 命說 縣令南錫 三男四女 男長得箕 僉正 次 得老 得斗 女 平市令李寅俊 士人金起濂 權大平 趙暐 內外孫曾 摠若干人 不佞 生也後 不得與公接而公之宅 相南僉正公 即不佞堂叔故 自幼稔聞公重蹟 又與公之曾孫遇聖 相習 乃者 遇聖袖其妹壻李判書所爲狀 以請誌墓之文 不佞 固非不朽人者而其請之愈久而愈勤 遂不敢終辭 撮其狀而爲叙 係之以銘曰

明廟大漸 公爲史臣 敏而應變 倉卒精神 帝京克价 宗誣以伸
王庭應製 詞蔚而新 臺省抗論 鑿坡演綸 馹致八座 形入麒麟
前後四節 終安北民 受命危亂 勞悴殲身 之才之德 羨此後人
不朽者長 銘以刻珉

判書 宜寧 南龍翼 撰

◇

⑩ 다계공묘갈명(휘 승보) 충효공후 거제

공의 휘는 승보요 자는 선보며 아호는 다계이다。파조는 고려시대에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봉작되고 충효공으로 추시되었다。최초로 거제도로 들어오신 진사공 휘자 달의 오세손이며 아버지는 청송부사를 역임한 휘자 말형이다。중종대왕 기해년(1539년) 9월10에 출생하고 배는 숙부인 홍주 이씨이며 묘소는 법동자좌이다。선조대왕 시대에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놈오랑캐들이 해변으로 침범하여 각 지방마다 피가 흘러 땅을 덮고 화약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공은 학문이 소문난 집안이며 충성과 용맹을 떨쳐 나라를 근심하여 의지있는 선비 김희진과 신응수와 아우인 개보와 아들인 홍량등과 고현성중으로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본군 군수인 김준민과 더불어 성을 지킬 보장책을 상의하던 중 경상도 관찰사와 본 군수와는 지친간이었기에 군대를 일으켜 군진으로 달려와 협력하며 자신을 보호하

라고 하는 관찰사 편지가 오자 본 군수는 군대를 이동시켜 진주로 떠났다。그 후로 공이 책임을 맡아 선두에 서서 의병단을 구성하고 활 만드는 장인들과 화살 만드는 장인들을 모집하여 급히 활과 화살을 만들어 적군을 방어하는 방법을 세웠다。임진년 5월12일 왜적군 수만명이 장목포、옥포、지세포로 침입하여 백성들에게 잔악한 짓을 하고 수없이 사람을 죽여 불에 태워 버리고 각 관청에 불을 질러 없애고 시골 부락까지 대포를 쏘는 소리가 하늘을 흔들고 창과 칼 그림자가 해를 가리더니 마침내 고현 지방으로 들어온 것이다。공은 장정들을 모집하고 장사를 불러들여 밤을 틈타 왜적진을 습격하여 적군 사살을 매우 많이 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을 잠복시켜 적군 대장이 지나는 길목에서 기다리게 하여 하루밤 사이에 왜적군을 무수하게 사살 하였다。또 적군을 쫓아내여 그 놈들의 활과 화살을 빼앗았다。매번마다 요로에 서게 되어도 죽음과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토적하고 포획한 공로가 매우 많았다。큰 아들인 영상이 일찌기 사건이 있어서 전라도 전주에 갔다가 왜놈 적군이 거제도 고향으로 침범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돌려 남해 사천 지방의 장정을 모아 적군을 쫓아내고 바다를 건너 아군진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찾아 뵙고 그 휘하에서 성을 보전할 계획과 국민을 구제할 계책을 상의하였다。아 적군의 추장이 높은 곳에 올라가 활을 쏘고 불을 질러 관청과 시골 부락을 불태우니 화살도 떨어지고 힘도 없어 그 많은 것을 적은 것이 대항할 수가 없어 마침내 함락이 되었다。임종시에 지은 싯귀가 있으니 마음속에는 해와 달이 비추어도 눈 밑에는 산하가 울고 있네。칼을 치며 끝없는 한탄은 오랑캐 난리 파도에 씻지 못한 것일세。이 날은 바로 3월12일이었다。후일 다공리 소천봉 유좌향에 장례하였다。슬프도다。장기간 적군을 방어하여 그 많은 공로와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헤아릴소냐? 나라의 임금께서 소문을 듣고 훈련원첨정 가선대부 병조참판을 하사하였다。거제도 사림에서는 충훈사에 봉안하고 매년 9월 첫 정일에 제사를 올린다。

서기 1981년 신유년 월 일

12대손 병재는 삼가 짓고

12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칠원윤씨 거제종중은 중수하다

⑩ 茶溪公墓碣銘(諱 承輔) 忠孝公后 巨濟

公諱承輔 字善保 號茶溪 派祖高麗門下侍中漆原伯諡忠孝諱桓始入巨濟進士諱達之五世孫考行青松府使諱抹亭中廟己亥九月十日生配淑夫人洪州李氏墓法東子坐 當宣廟龍蛇之亂倭寇侵沿邊各邑流血塗地烟火蔽天公文之奮第忠勇夏國志士金希璡辛應壽第玠輔子興良等糾合人古縣城中本

縣金俊民守城保障之策同議中當時道伯金粹本倅間至親也起軍赴營以爲協力保身文字來到故本倅行軍發晉州營後公任總責立先頭義兵團構成聚弓匠矢人急造弓矢以爲禦賊之方壬辰五月十二日倭賊數萬入于長木浦玉浦知世浦殘虐生民殺戮無數焚湯血各浦官舍燒盡村民閭落放炮之聲掀天戈刃之影磨日遂入古縣公發募壯丁招集豪俊乘夜襲擊賊陣勦賊甚衆又埋伏甲卒潛待賊酋之過路一夜之間殺倭無數且驅逐賊兵奪其弓矢每爲要用而不愛死生挺身討捕之功衆多矣長子榮祥曾以有事往全州聞倭寇犯於本鄕還途謀聚南海泗川丁壯遂散賊兵渡海入于本陣謁見父幕下而共議全城之計救活衆之策嗚呼賊酋登高發箭放火焚盡官舍及村落矢盡力竭衆寡不敵城遂陷矣臨死時有詩曰心中明日月眼底泣山河擊劒無窮恨虜塵未洗波祭祀三月十二日也後葬茶貢里小川峰酉坐瘞長期禦賊其豊功偉烈何可量哉天聞下賜訓鍊院僉正嘉善兵曹參判本鄕士林忠勳祠奉安而每年九月上丁日行享祀

一九八一年辛酉 月 日

十二代孫 炳材 謹識

十二代孫 炳五 謹書

漆原尹氏 巨濟宗中 重堅

⑪ 정부인홍주이씨묘갈명 충효공후 거제

정부인은 서기1537년 정유년 3월5일에 출생하였다。 천성이 인자하고 후덕하며 총명하고 의지가 강하고 절개를 지키고 효도하고 정조있고 이웃과 화목하고 일가를 사랑하고 자손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어 부인의 법도가 특이하였다고 한다。 남편인 칠원후인 윤승보는 선무원종공신선략장군행훈련원첨정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훈련원사승에 오르고 남편의 아우인 개보는 선무원종공신수문장병절교위요 장자 영상은 선무일등공신진위장군행훈련원첨정이요 차자 홍량은 선무원종공신훈련원부정이었다。 이와같이 한 집안에서 4인의 충신은 세상에 드문 일이다。 임진왜란시에 전쟁에서 징과 바라등으로 활과 화살의 대용으로 쓰게 후면에서 보급하고 장병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대한 조력을 하였다고 한다。 많은 것에 적은 것이 상대가 되지 아니하여 마침내 성이 함락되면서 나라 위해 죽어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두드리며 통곡하여 말하기를 하늘도 어찌하여 무심하단 말이냐? 두 아들인 영상과 홍량에게 나라의 도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불가하고 아버지의 원수도 보복하지 못하면 불가한 것이라고 교육하였었다。 남편의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기를 한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다가 후일

묘소 자리를 정하여 다공리 소천치 유좌에 장례하였다. 이와같이 충열의 공이 특이한 행동을 왕이 들으시고 정부인 칭호를 하사하였다.

서기 1599년 기해년 8월15일에 졸하였다.

서기 1984년 갑자년 월 일

11대손 병재 삼가 짓고

11대손 병오 삼가 쓰고

칠원윤씨거제종중에서 중수하다

⑪ 貞夫人洪州李氏墓碣銘 忠孝公后 巨濟

貞夫人 西紀一五三七年丁酉三月五日生 賦性 仁慈厚德聰明志剛秉節孝烈和隣愛族敎子有度 閨範卓異 乾公漆原人尹承輔 宣武原從功臣宣略將軍行訓鍊院僉正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鍊院事承 乾公第玠輔 宣武原從功臣守門將秉節校尉 長子榮祥 宣武原從一等功臣振威將軍行訓鍊院僉正 次子興良 宣武原從功臣訓鍊院副正 如此一室四忠 世有罕事也 龍蛇亂時夫人 戰鬪用矢弓釰石後面補給將兵食事提供等助力至大 衆寡不敵 城遂陷落乾己殉國 夫人 仰天叩地痛哭曰天亦何以無心耶也 二子榮祥興良 國賊不可不討父讐不可不報 訓及 乾公屍體 假葬 朝夕巡察 一不解弛 後葬 定窒 茶貢小川峙酉坐 如斯忠烈卓異之行 天聞下賜貞夫人 一五九九年己亥八月十五日卒

一九八四年甲子 月 日

十二代孫 炳材 謹識

十二代孫 炳五 謹書

漆原尹氏 巨濟宗中 重竪

◇

⑫ 병절교위공 묘갈명(휘 개보) 충효공후 거제

선무원종공신병절교위칠원윤공과 의인 합천 이씨의 묘소이며 배위는 서쪽에 부장하였고 자좌이다. 공의 휘는 개보요 자는 충보이며 아호는 다헌이다.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이요 파조는 고려 문하시중 칠원백 휘 환이시다. 최초에 거제도로 들어오신 진사 휘 달의 5세손이며 아버지는 청송부사 휘자 말형이다. 아들은 강헌 성헌이다. 지난 옛날 임진왜란시에 형인 다계공을 따라 족하 둔암 송재와 합심하여 충성을 다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거사를 같이하여 수문장을 역임하였으니 그 많은 공로와 성대한 업적이 있어 공훈으로 병절교위를 추증받았고 사림에서는 충훈사를 세워 4인 충신을 함께 제향을 올리고 있다.

서기1979년 기미년 월 일

12대손 병재는 삼가 짓고

12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칠원윤씨거제종중은 중수하다

⑫ **秉節校尉公墓碣銘(諱玠輔)** 忠孝公后 巨濟

宣武原從功臣秉節校尉漆原尹公宜人陜川李氏之墓配祔西子坐 公諱玠輔字忠輔號茶軒始祖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派祖高麗門下侍中漆原伯諱桓始入巨濟進士諱達之五世孫考靑松府使諱抹亭子綱憲成憲往在龍蛇之亂從于兄茶溪姪遯巖松齋合心同擧輪忠倡義行守門將豊功盛烈以勲贈秉節校尉士林建立于忠勲祠四忠並享爾

一九七九年己未 月 日

十二代孫 炳材 謹識

十二代孫 炳五 謹書

漆原尹氏 巨濟宗中 重竪

◇

⑬ **돈암공묘갈명(휘 영상)** 충효공후 거제

공의 휘는 영상이요 자는 국서요 아호는 둔암이다。 최초로 거제도로 들어온 진사 휘 달의 5세손이며 병조참판 휘자 승보의 장남이다。 배는 경주 김씨이니 후석의 딸이요 계배는 김해 김씨이니 평의 딸이다。 양위의 묘소는 공의 묘소 밑에 쌍분으로 되어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놈들이 난동할때 해변이 더욱 심하였다。 공의 아버지인 승보씨가 칼을 들고 의병을 이끌고 지현현감 김준민과 더불어 상의하여 성을 지킬 계책을 세웠는데 때마침 경상도 관찰사 김성일은 본 현감과 가까운 친족이었다。 군사를 일으켜 영으로 와서 협력하여 자신을 보호하라는 편지를 보내자 현감은 군대를 출발시키었다。 후에 아버지와 경내에 있는 장정과 더불어 성을 지켜 적군을 방어하였다。 공은 일찌기 사건이 있어서 완주영에 갔다가 왜구가 거제도에 침범하여 정세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상의하여 남해 사천지방의 장정을 모아 적군을 쫒아내고 바다를 건너 지현진영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찾아 뵈옵고 그 휘하에서 성을 안전하게 할 계획과 국민을 살릴 계책을 상의하여 아우인 홍량과 신응수、 김희진 두사람 장사와 더불어 협력하여 활과 칼로 적군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제할 계략을 세웠었다。 아 적군의 추장이 높은 곳에 올라 활을 쏘고 불을 놓아 관청과 시골 부락이 모두 불에 타는데 화살도 떨어지고 힘도 다하여 많은 것을 적은 것이 상대할 수가 없어 마침내 함락되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전쟁에서 죽어 삼촌과 아우하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하였다。 왜구들이 완성 밖에 있어 신응수、 김희진 두 장사와 더불어 결의를 하여 말하기를 같은 해 같은 날에 죽자며 남려산 석굴에 숨어 섶나무에 누워 쓸개를 맛보며 적군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적군들이 하청지방에 진을 치고 소를 잡고 술을 군인에게 먹여 밤이 깊어 취하여 잠들자 지붕으로 올라가 불을 담아 적군의 막사에 던지니

불이 화약으로 번져 죽은 놈이 수천명이었다。이길 수 있는 기회를 틈타 패하여 달아나는 적군을 좇아 가다가 공은 발가락을 마침내 잘렸으나 마침내 적의 창을 빼앗아 죽였는데 그 창이 아직 남아있다。공은 삼촌과 아우를 보고 말하기를 국가에 적군을 토벌하지 못하면 불가하고 아버지 원수를 복수하지 못하면 불가하다며 마침내 외로운 성을 지키기는 진실로 어려운 것이라 하고 자진하여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가니 이순신이 보고 기이하게 여겨 더불어 군사를 모의하여 전쟁마다 여러차례 승리하다가 한산도에 이르러 위장 배에 짚을 싣고 적군의 배에 불을 질러 적군들이 달아남에 병목진 곳을 차단한 전쟁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충무공이 그 장엄한 것을 임금에게 상소하여 아버지와 공의 계급과 공의 삼촌과 아우까지 훈장을 받았다。한산도 수루에 올라 이순신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동요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고있네。전쟁에서 칼 휘둘러 나라를 돕고 위급한 시기를 구제하리라 하여 공이 화답으로 지은 시에 말하기를 남려산 암굴 속 깊은 계획 세상은 알지 못하리라 칼 휘둘러 많은 적군 사살하여 맹세코 태평시대 보이리라 하였다。남해 노량포에서 전쟁터마다 같이 싸우지 못한 충무공 이순신이 전사하자 공은 칼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며 동지가 이미 죽었으니 내 어찌 살려고 할소냐?라고 하였다。

임진 창의록과 착량교묘문이 족히 믿을 수 있는 사료가 될 것이다。다공소천산등에 장례하여 칠원윤씨 묘역이 되었다。아버지 삼촌 형제가 충훈사에 봉안되어 매년 9월 첫 정일에 사림들이 제사를 올리고 있다。

서기 1982년 월 일

10대손 철근은 삼가 짓고

종11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칠원윤씨 거제종중은 중수하다

⑬ 遯巖公墓碣銘(諱榮祥) 忠孝公后 巨濟

公諱榮祥字國瑞號遯巖 始入巨濟進士諱達 五世孫兵曹參判諱承輔長男配慶州金氏厚錫女 繼配金海金氏坪女兩位墓公墓階下雙墳 當執徐之亂島夷猖獗治海尤甚公之父承輔仗劒倡義與知縣金俊民同議守城之策時道伯金倅本倅至親也起軍赴營以爲協力保身文字來到故行軍發後父與境內丁壯守城禦賊矣 公曾以有事往于完營聞寇犯於本鄕情勢危急還途謀聚南海泗川丁壯遂散賊兵渡海入于本陣謁見父幕下而共議全城之計救活民衆策與弟興良及辛應壽金希璡兩壯士協力弓劒以爲滅賊濟世之略嗚呼賊酋登高發箭放火焚盡官舍及村落矢盡力竭衆寡不敵城遂陷矣父遂戰亡公與叔與弟收檢屍葬寇菀城外與辛應壽金希璡兩壯士結誼曰但願同年同日死隱於南呂山石窟臥薪嘗膽睍寇動靜彼屯於河淸境上牛酒犒軍夜深醉睡昇盖盛火投彼營落火及藥苞死者

數千乘勝遂北彼弁翻鈎擲之中公足指遂奪鈎斬賊鈎尚存焉公顧謂叔與弟曰國賊不可不討父讐不可不報竟守孤城事固難成自向於忠武公舜臣麾下見而異之與謀軍事連戰累捷至閑山裝船載藁燒賊船彼欲逃走而鑿斷蟻項戰處尚存忠武壯之拜表于上馳父公之秩公及叔與弟蒙賜勳帖登閑山戌樓元師賦詩曰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風塵揮一劒輔國濟危時公和曰南呂山岩裡深圖世不知揮刀多殺敵誓見太平時至南海露梁百戰不兩忠武公戰亡公以撫劒痛哭曰知己已死我何生爲壬辰倡義錄鑿梁橋廟文足爲信史葬茶貢小川嶝乃尹之阡也父叔兄弟忠勳祠奉安每年九月上丁日士林行享祀

一九八二年壬戌 月 日

十代孫 轍根 謹識

從十一代孫 炳五 謹書

漆原尹氏 巨濟宗中 重竪

◇

⑭ 송재공묘갈명(휘 홍량) 충효공후 거제

공의 휘는 홍량이요 아호는 송재이다。시조는 신라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이다。1세가 되는 중시조는 고려 칠제백호장보윤공 휘 거부요 파조는 18세로 고려 문하시중칠원백 시호 충효공 휘 환이다。21세에서 처음으로 거제도로 들어온 진사공 휘 달의 5세손이요 송보의 둘째 아들이다。임진왜란을 만나 부자형제가 의병을 일으키어 전쟁터로 나가 이 충무공 휘 순신을 따라 많은 전투로 나라에 보답한 많은 공과 성대한 업적들은 족히 전쟁사에 증거가 있으며 한 집안에서 4인의 충신은 세상에 드문 일이며 임금께서 그 소문을 듣고 공의 아버지는 선무원종공신행훈련원첨정선략장군가선대부병조참판으로 삼촌인 휘 개보는 선무원종공신병절교위로 형인 휘 영상은 선무원종일등공신행훈련원첨정진위장군으로 공은 선무원종공신행훈련원부정으로 벼슬을 하사하였다。형과 결의한 신응수와 첨정 김희진도 공로가 모두 동일하였다。배위는 영산 신씨이다。3남1녀를 낳았으니 휘는 사원 민원 계원이며 딸은 자헌대부 함안후인 조완벽에게 시집갔다。공은 인조대왕시 10월 10일에 졸하여 배위와 더불어 노자산좌에 장례하였다。아버지 묘소는 다공 소천등 유좌이고 어머니 묘소는 법동 자좌에 있다。4인 충신들은 다공 충훈사에 봉안하고 거제도 사림에서 매년 음력 9월 첫 정일에 제사를 올린다。

서기 1982년 월 일

11대손 병재는 삼가 짓고

11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칠원윤씨 거제종중은 삼가 세우다

⑭ 松齋公墓碣銘(諱 興良) 忠孝公后 巨濟

公諱興良號松齋 始祖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 起一世中始祖高麗漆隄伯戶長甫尹公諱鉅富派祖十八世高麗門下侍中漆原伯諡忠孝諱桓二十一世始入巨濟進士公諱達之五世孫承輔二子也 値龍蛇之亂父子兄弟倡義赴亂從李忠武公諱舜臣百戰報國豊功盛烈足徵戰史一室四忠世有罕事天聞下賜公之考宣武原從功臣行訓鍊院僉正宣略將軍嘉善兵曹參判 叔玠輔宣武原從功臣秉節校尉兄諱榮祥宣武原從一等功臣行訓鍊院僉正振威將軍公宣武原從功臣行訓鍊院副正兄至親結誼有正辛應壽僉正金希璡盖同功一體 配靈山辛氏生三男一女諱嗣源 敏源繼源女資憲大夫咸安人趙完璧 公卒于仁廟十月十日與配葬于老子山 坐考墓在茶貢小川嶝西坐妣墓在法東子坐四忠茶貢忠勳祠奉安而本鄉士林每年 陰九月上丁日行祭禮

一九八二年壬戌 月 日

十一代孫 炳材 謹識

十一代孫 炳五 謹書

漆原尹氏 巨濟宗中 謹竪

◇

⑮ 좌랑공묘갈명(휘 광원) 대언공후 과천

갑오년(1594년) 여름에 윤광원 회보가 서울 객사에서 졸하였다。나와 이윤경이 찾아가 빈소에서 조상을 하였으며 양주 성산리에 장례를 하였다가 얼마 후에 과천 동남향(건좌)으로 이장을 하였으며 그 후로 14년만에 조카되는 영이 가장을 들고 찾아와 나에게 묘갈명을 부탁하고 또 윤경에게 글씨를 부탁하였다。아! 나는 겨우 윤군과 더불어 10여년간 교제하였다。윤군이 살아있다면 머리카락이 지금까지도 세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왜 요절하였단 말인가? 윤군은 사람됨이 마음이 넓고 의기가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스승을 따라 학문에 노력하여 시문학에 재주가 있으며 교우관계가 돈독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해와 화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혹 부정하게 변한 사람이면 직접 배척하여 기피하지 아니하였다。마침내 이런 일 때문에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 뜻을 두지도 아니 하였다。젊어서 아버지 초상을 당하여 슬퍼함이 법도를 지났으며 홀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였고 형제간에는 거스리는 것이 없었으니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기묘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갑신년에는 부모의 덕으로 내시교관을 제수받았다。병술년(1586년)에는 나와 더불어 같은 해에 급제를 하여 성균관권지로 보직을 받고 학유로 승진하여 양현고봉사로 전근하였다。임진년에는 왜군이 서울을 침범하여 윤군과 우성전이 강화에서 의병을 이르키어 신의주까지 달려가 사실을 알려 성

균관전적으로 특진이 되었고 임금이 서울로 돌아와서는 병조좌랑지제교겸춘추관기사관을 역임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관직역사이다。계축년(1553년)에 출생하여 마흔한살을 살았다。 계출은 칠원윤씨이며 고려시대에 송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랑장 벼슬을 하여 대대로 관리가 있으며 증조할아버지 석보는 직제학 벼슬을 하며 청렴결백으로 소문이 나서 증도승지가 되었고 할아버지 중형은 용양위부장이며 아버지 위는 진사이며 어미니는 김씨이니 충의위 벼슬을 한 담의 딸이다。

윤군은 학생 허파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자손이 없었다。 윤군의 집안은 본래 가난하여 밭한두렁 없었는데 허씨부인이 뒷일을 잘 처리하여 이 비석까지 세우게 되었다。 공의 행적이 없어지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가상할 뿐이다。 나는 이윤경 김여현과 더불어 모두가 좋은 친구인데 김군은 난리에 먼저 죽고 이어서 윤군이 죽어 나는 매번 이윤경을 만나면 곧 한탄하였는데 이제 공의 조카 영이 왔으니 내 어찌 다시 생각이 없겠는가? 명문에 이르기를 재능이라고 반드시 베푸는 것 아니고 행동이라고 반드시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버려지면 기울어져 훼손되는 것이니 누가 잘했고 못했다고 말할소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삭아 없어지니 한결같이 망망하도다。 글로써 서술하여 나의 속상한 마음을 부쳐본다네

상촌 신흠은 짓다

⑮ 佐郎公墓碣銘(諱 光遠) 代言公后 果川

甲午夏尹君光遠晦甫疾卒于京師之旅舍與李公潤卿徃殯殮出葬于楊州城山里未幾移窆于果川乾坐之原後十四年其姪子瀛持家狀來囑余墓銘重以潤卿書爲介噫余與君相識僅一紀有餘使君生而在世頭髮尙未素而遽迺夭殞也乎君爲人恢恢負氣義早從師友力學有詞藻篤於交際其所信向者則不以利害禍福或渝所不屑者則面斥無所諱忌終以是不適於時而亦不以爲意也少居父喪哀毁過制事孀母盡其誠孝在兄弟無違行若君非所謂善人者耶已卯進士甲申以蔭授內侍教官丙戌與余同年及第補成均權知序陞學諭移養賢庫奉事壬辰倭寇犯京君與禹公性傳起義兵于江華赴行在奏事超拜成均館典籍大駕還都歷戶兵曹佐郎知製教兼春秋館記事官是其官歷也生于癸丑得年四十一系出漆原高麗時有松磾者爲中郎將連世有人曾祖碩輔直制學以廉潔著稱贈都承旨祖重亨龍驤衛部將考偉成均進士妣金氏忠義衛潭之女也君娶學生許笆女無子君家素貧無一畝業而許氏能經紀後事爲之竪石顯刻冀公行能不至於闇沒茲可尙已余與潤卿及金君汝賢皆善君金君先死於兵君繼亡以余每見潤卿輒恨然通故於瀛之來吾復何以爲懷也銘曰才不必施行不必章久廢轢毁孰云短長神奇臭腐一茫茫兮詞以述之寓我傷兮

⑯ 도승지공묘갈명(휘 자신) 대언공후 양평

공의 휘는 자신이요 자는 자경이며 칠원윤씨인데 신라시대에 태사 벼슬을 하신 시영의 후손이다。고조이신 휘 석보는 직제학을 역임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청백리로 선록이 되었다。충직한 말을 한 것이 연산군을 거슬리게 되어 귀양지에서 졸하였다。증조 휘 증형은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청백리 집안 장자가 되어 우부장을 수여하였으나 취임하지 아니하였다。조고 휘 엄은 감역 벼슬을 하였고 아버지 휘 성은 증좌승지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이며 증숙부인이니 호군 벼슬을 한 권계정의 딸이다。가정을묘(1555년) 6월13일에 출생하여 선조 을유년(1585년)에 생원에 합격하여 태능참봉으로 있으면서 병오문과에 급제하였다。

광해군이 정치를 어지럽혀 권세있는 자제들이 세력을 부리며 과거 시험장에서 난동을 부려도 사법을 맡은 관리는 금지를 못시키는데 공이 때마침 전적을 맡고 있기에 그 주동자 일곱사람을 적발하여 벌을 주고 내쫓았는데 권세인들이 크게 성질이 나서 공의 벼슬 승진 길을 억지로 막아서 병조 예조의 좌랑으로 선택되었으나 역시 논박을 당하였다。

이 때에 무고옥사가 크게 일어나 영창대군은 이미 죽었고 이어서 서궁의 논의가 있게 되어 공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어찌 벼슬할 때인가? 하고 그날로 벼슬을 버리고 진천에 있는 선산 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벼슬이 감찰로서 몇십년을 역임한 후였다。세상이 공을 버리기 심하게 하면 공은 자신 지키기를 더욱 견고히 하다가 경신년(1620년) 8월15일에 진천에서 졸하였다。

4년을 지나 인조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특별히 도승지로 추증이 되었고 또 아들인 유길이 원종훈신으로 참여가 되어 추가로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으며 고양외향동의 서남서향(인좌)에 안장을 하였다。부인은 정부인 진천 임씨이니 부사과 벼슬을 한 임세웅의 딸이며 정사년(1557년) 2월6일에 출생하고 신사년(1581년) 6월28일에 졸하여 공의 묘소에 합장 되었으며 아들이 없어 중형되는 장사랑 기신씨의 차자인 유길을 양자로 하였으니 생원에 합격하여 군수를 하였으며 참판으로 추증이 되었다。아들 둘이 있으니 우정은 문과에 합격하여 장령을 하였으며 참판으로 추증이 되었다。우갑은 판관이었다。우정이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치적은 문과에 합격하여 좌랑이 되었고 서적은 정랑을 하여 참의에 추증이 되었고 웅적은 통덕랑이고 가적은 문과에 합격하여 감사까지 하였고 경적은 판관이었다。우갑이 아들 둘을 두었으니 선적은 진사에 합격하였고 상적은 서령이었다。그 이하는 다 기록하기 불

가능 하였다。가장을 가지고 찾아와 비문을 요구한 사람은 공의 6대손자인 전 참봉 태국과 전 승지인 사국이다。

나 이복원은 이미 직제학공의 묘비문을 지었는데 그 청백한 지조와 충직한 절개는 백세두고 경의가 일어날 것이다。직제학 공의 계자인 아호 송월암이란 사람은 오래도록 홍문관에 있으면서 당색을 바로잡아 조정에 있었지만 김안로의 배척으로 관동지방의 관장으로 졸하였으니 역시 부자간에 명예가 부끄럽지 아니하였다。이제 이 공을 관찰하여 보면 아주 작은 하급관리로서 흉악한 불꽃을 막았고 청백한 논리를 가지고 두려워 하지도 아니하고 의심도 아니하여 헐뜯고 버림받음에 이르러도 그 몸이 죽도록 마침내 그 지킴을 바꾸지 아니하였으니 이 어찌 받은 바가 그렇단 말이냐? 공의 선조와 후손들은 일찌기 높은 벼슬을 한 적이 없어도 세상에서 가문을평논하는 사람들은 곧 명문가로 돌리고 있으니 그것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임씨 부인은 현철한 지식과 아름다운 행동이 있어 남편 도움을 의리로 하였으며 자손의 교육에도 법도가 있었으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대를 잇고 유산도 남겼으니 현명한 아버지에 현명한 어머니이라 하겠다。그 자세한 것은 친구인 이광려가 지은 전기에 있다。명문에 이르기를

번창과 쇠퇴는 정해진 문이 없는 것이니 아름다운 조상을 전승하면 번창하는 것이며 벼슬은 높고 낮음이 정해진 것 없으니 의리를 지키는 자만이 영화를 보는 것이다。군자의 묘소에다 현숙한 아내까지 있으니 산이 무너지고 돌이 문드러지도록 빛이 오래도록 남아 있으리라。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령경연감춘추관사 원자보양관 이복원은 짓고

보국숭록대부판돈녕부사겸이조판서지경연춘추관사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 윤동섬은 제액을 쓰고

6대손 가선대부행승정원도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편수관예문관직제학상서원정 사국은 삼가 쓰다

⑯ 都承旨公墓碣銘(諱 自莘) 代言公后 楊平

公諱自莘 字子卿 漆原人 新羅太師始榮之後也 高祖諱碩輔 直提學 贈吏曹參判 選清白吏 以直言 忤燕山主 沒於謫 曾祖諱重亨 成均進士 以清白嫡長 授右部將 不就 祖諱儼 監役 考諱誠 贈左承旨 妣安東權氏 贈淑夫人 護軍季貞 女 以嘉靖乙卯六月十三日 生 宣廟乙酉 中生員 以泰陵參奉 登丙午文科 光海政昏 權貴子弟 怙勢 亂試場 主司 不能禁 公 適爲典籍 摘其首倡者七人 罰出之 權貴人 大恚 力遏公榮路 差兵曹 禮曹郎 亦見駁逐 時 誣獄大起 永昌 旣死 癸酉 西宮之議 公 喟然曰此豈仕宦時耶 卽日棄官 歸耕于鎭川先塋下 歸時 官監察 歷幾十餘年 世

之擯棄公 益甚 公之自守益堅 庚申八月二十四日 終於鎭
川 越四年 仁廟始反正 特贈都承旨 又以子有吉 叅原從勳
加 贈吏曹叅判 葬高陽外香洞寅坐原 配 貞夫人鎭川林氏
副司果世應女 丁巳二月六日生 辛巳六月二十八日 卒 葬
祔於公 無子 取仲氏將仕郎起莘 次子有吉 爲子 生員 郡
守 贈叅判 二子 遇丁 文學令 贈叅判 遇甲 判官 遇丁 五
子 致積 文佐郎 叙績 正郎 贈叅議 凝績 通德郎 嘉績 文
監司 景績 判官 遇甲 二子 宣績 進士 尙績 署令 其下
不能悉錄 以家狀來 乞銘者 公之六世孫前叅奉泰國 前承
旨師國也 福源 旣誌直提學公之墓矣 淸操直節 百世起敬
直學公 季子豊亨號松月菴者 久長玉堂 正色立朝 爲金安
老所斥 終於關東伯 亦不愧爲名父子 今觀公 以眇然一小
官 抗凶熖 持淸議 不懾不疑 以至齮齕錮廢 終其身而竟不
易其守 是豈所受而然哉 公之先後 未甞有顯閥大爵而世之
評門戶者 輒歸以名家 有以也夫 林氏夫人 有哲識懿行 輔
夫子以義 訓子孫有法 艱難營立 以承以貽 可謂賢父賢母
詳在 士友李匡呂 所爲傳 銘 曰門無盛衰 濟美者昌 官無
崇庳 守義者榮 君子之藏 從以哲媛 岡夷石爛 耿光長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經筵監春秋舘事 元
子輔養官 李福源 撰
輔國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經筵春秋館事判義
禁府事五衛將軍都摠管 尹東暹 題
六代孫 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叅贊春秋館編修
官藝文舘直提學尙瑞院正 師國 謹書

◇

⑰ 송헌공묘갈명(휘 강헌) 충효공후 거제

공의 휘는 강헌이요 자는 기지요 아호는 송헌이다.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이시다. 파조는 고려 문하시중칠원백 시호 충효공 휘 환이다. 선무원종공신병절교위 휘 개보의 장자이다. 서기 1561년 신유년 9월15일에 출생하였다. 천성이 강직하고 굳세며 침묵하고 의로워 인자하고 후덕한 것으로 근본을 삼고 있었다. 임진왜란시에 향교의 수장으로 문묘인 공자 사당을 지키고 이재민에게 구휼을 하고 전쟁의 흔적을 복구하고 농사를 독실히 지어 집안을 다스리고 향리에 유림들의 추앙을 받았다. 서기 1658년 무술년 7월7일에 졸하여 하청 장충사에 봉안하고 매년 9월9일에 자손들이 제사를 올린다. 배는 기성후인 문절공 휘자 부의 15세손이며 선무원종공신 관해의 딸이다. 서기 1560년 경신 3월3일에 출생하고 효도와 정렬이 특이하여 가내 법도가 출중하였으며 서기 1613년 계축 7월6일에 졸하였다. 아들은 여임, 여진이 있다.

서기 1984년 갑자 월 일
12대손 경용은 삼가 짓고
종11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14대손 동수는 중수하다

⑰ 松軒公墓碣銘(諱 綱憲) 忠孝公后 巨濟

公諱綱憲字紀之號松軒 始祖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派祖高麗門下侍中漆原伯諡忠孝諱桓 宣武原從功臣秉節校尉諱玠輔之長子也 西紀一五六一年辛酉九月十五日生賦性剛毅沈摯重義正爲本寬仁厚德龍蛇亂時首任鄉校以守文廟災民救贍亂痕復鷹篤農治家鄉儒推重一六五八年戊戌七月七日卒河淸奬忠祠奉安每年九月九日子孫獻享 配岐城人文節公諱阜十五世孫宣武原從功臣觀海之女西紀一五六〇年庚申三月三日生孝烈卓異閨範超衆西紀一六一三年癸丑七月六日卒 子汝任 汝進

一九八四年甲子 月 日

十二代孫 慶瑢 謹識

從十一代孫 炳五 謹書

十四代孫 東洙 重堅

◇

⑱ 찰방공묘갈명(휘 담)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담이요 자는 극화요 성은 윤씨요 관적은 칠원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 태사요 기세조의 휘는 거부이니 고려초기에 호장이다. 그 이후로 공경과 재상이 대를 이어 여러 사람이 나온 조선의 저명한 씨족이다. 17세를 전하여 중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기에 문하시중이며 봉작호는 칠원백이요 시호는 충효이다. 6세를 전하여 고조부 휘는 자당이니 진도군수요 중조부 휘는 여형이니 성균관 진사요 조부 휘는 준제이니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전적이며 아버지 휘는 천상이니 동지중추부사요 어머니는 정부인 나주 정씨이니 아버지는 영도이며 군자감이다. 공은 서기 1578년 조선 선조대왕 무인년에 출생하고 성장하여 학문이 성취되고 가정교육을 계승하였으며 경서와 역사를 널리 섭렵하고 부조의 업을 잘 계승하였다. 벼슬은 선무랑행초촌도찰방을 하였다. 제사일은 3월25일이며 묘소는 옛날 정산현 청소면 외동 뒷산 할아버지 묘소 아래 동남향(건좌)이니 현재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산13번지이다. 배위는 숙인 고령 김씨이니 아버지는 찬이며 제사일은 2월12일이고 묘소는 건위와 합장하였고 계배는 창녕조씨이니 아버지는 여방이고 제사일은 1월3일이며 묘소는 또한 합장하였다. 6남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홍삼이니 중군자감정이요 차남은 빙삼이니 효행으로 중사헌부장령이요 3남은 중삼이니 통덕랑이요 4남은 응삼이니 동지중추부사요 5남은 익삼이니 통덕랑이요 6남은 우삼이니 용양위부호군이며 장녀는 박홈에게 시집갔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이요 2녀는 우극진에게 시집가니 찰방이요 3녀는 안광국에게 시집갔다. 손자와 중

손 이하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공은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산아래에서부터 정산지방의 각 면에 여기저기 살며 씨족 마을을 이루고 있어 그 자손의 수만도 5천이나 되니 정산지방의 대씨족이며 명문가이다。 고향을 떠나 사는 여러 자손들이 사회 각처에 진출하여 자신이 성공하고 명성을 드날리니 공의 음덕이 대대로 계승되며 소문이 계속 나 있다。 아 공을 장례한 후로 세월의 수가 3백여년이 되었으나 그간에 묘갈석이 오래도록 없었다。 후손들의 오랜 한탄이었는데 종중회의에 합의가 되어 지난 갑술년 3월에 후손인 모원이가 글씨를 쓰고 후손인 병구와 병시와 대규와 종관의 주선으로 묘갈을 세운지 지금까지 64년이 되었다。 이미 세워놓은 묘갈의 내용이 대략적이고 왜소한게 민망스러워 찰방공 파손들의 종의가 한결같아 재정을 약간 할애하여 묘갈을 바꿔 세우니 비갈의 앞면이 넓어지고 비문을 자세히 짓고 묘도를 다시 새롭게 하였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높으신 혼령은 영원히 여기에 의지하여 계시고 또 후손들은 먼 후대까지 서로 전승하며 해마다 시제를 공경히 올리기 소원하는 바이다。 금년 봄 1월에 찰방공파 종회석에서 회장인 종배씨가 비갈문을 나에게 부탁하여 사양을 하지 못하고 족보책에 의거하여 세대순서를 대략 기록하고 인하여 명문에 이르기를 찰방공 부군이시여 외동이 고향이지요。 시서와 예의를 계승하여 선비를 숭상하고 학문을 숭배하였도다。 경서와 사기에 해박하여 학문과 덕행이 일찌기 소문이 나 있지요。 아들 여섯을 두시고 그 후손은 5천인이나 되도다。 남기신 음덕이 후손에 계속되고 후손이 가문을 선양하였도다。 석봉산 동남향(건좌)은 정산지방의 명당이로다。 해마다 제사 공경히 올려 일가끼리 정의 더욱 돈독히 하리라。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여 영원토록 서로 전승하리라。

서기 2001년 신사춘 2월 일

12대손 정산향교전교 홍수 삼가 지음

⑱ 察訪公墓碣銘(諱 湛) 忠孝公后 青陽

公諱 湛 字 克和 姓 尹氏 貫 漆原 鼻祖諱 始榮 新羅太師 起世祖諱 鉅富 高麗初戶長 以後 巨公 碩卿 繼世輩出 東邦 華族 十七世傳之 中祖諱 桓 麗末侍中 封號漆原伯 謚號 忠孝 六世又傳 高祖諱 自塘 珍島郡守 曾祖諱 汝衡 成均館進士 祖諱 遵悌 文科成均館典籍 考諱 天祥 同知中樞府事 妣 貞夫人羅州丁氏 父 永道 軍資監 公一五七八年宣祖戊寅生 及長 就學 家訓 承述 經史 博涉先美 克趾 官 宣務郎行召村道察訪 忌 三月廿五日 墓 故定山縣青所面外洞後麓祖考墓階下乾坐 今青陽郡青南面東江里山十三番地 配 淑人高靈金氏 父 贇 忌 二月十二日 墓 乾位合窆 繼配 昌寧曺氏 父 汝舫 忌 正月三日 三

位合窆 有六男三女 長男 興三 贈軍資監正 二男 聘三 以孝 贈司憲府掌令 三男 重三 通德郞 四男 應三 同知中樞府事 五男 益三 通德郞 六男 遇三 龍驤衛副護軍 長女適朴崁 文科掌令 二女 適禹克遲 察訪 三女 適安匡國 孫曾以下 不記 公 雲仍 大昌 自山下 定山故縣 各面 散居同族村 俱成 其數 半萬 定山 巨族 顯門 此 出鄕衆孫 社會各界 進出 立身 揚名 公蔭 世傳 相聞 嗚呼 公 禮葬後歲次 三百餘 此間 墓碣 久闕 后孫 宿恨 宗議 僉同 去甲戌寅三月 後孫模遠 謹書碣文 後孫炳九 炳時 大逵 鍾權幹事 墓碣 謹竪 于今 六十四年次 旣竪墓碣 草略 矮小憫憫 察訪公派 宗議 歸一 財政若干 割愛 墓碣 改竪 碣面 擴大 銘文 仔細 墓道 復新 伏惟尊靈 永世 是憑 且願後裔 遠代 相傳 歲事 祗薦 今春正察訪公派宗會席 會長鍾培甫 碣銘 請余 固辭 不獲 譜牒 一依 世序 略記 仍而銘云 察訪府君 外洞關山 詩禮繼述 崇儒尙文 經史該博學德曾聞 有子六人 其后五仟 遺蔭續後 雲仍揚門 石峰乾座 悅城羨原 歲事祗薦 親情尤敦 追遠報本 永世相傳

二〇〇一年辛巳春二月 日

十二代孫 定山鄕校典校 弘洙 謹識

◇

⑲ 부사용공묘갈명(휘 회원) 대언공후 광주

아 내가 차마 윤공도의 비명을 짓겠느냐. 공은 나보다 열살이 많았는데 내가 교류를 시작한 것은 바로 만력 무신(1608년)년 전부터이다. 공은 협소한 집에서 살며 자리를 펴고 있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 땅바닥에 거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도 그 얼굴을 살펴보면 살찌고 하얀 이마를 찡그리는 것 같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도인에 가까웁지 아니할소냐? 나와 더불어 오고가기 수십년 되었는데 일찌기 그의 양미간에 조금도 기쁘거나 성내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안중은 넓어보이니 어째서 그럴까요. 공은 본래부터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비록 이웃 마을의 친인척이라도 역시 얼굴 보기가 드물었고 게다가 그는 글씨 쓰고 글 읽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가끔 마음에 맞는 벗이 오면 옛 싯귀를 소리내어 읊었었는데 그 음성이 쇠와 옥돌에서 나오는 소리같이 들렸다. 나를 친구로 받아 들이기 깊이하여 찾아오기를 매우 여러번 하였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보면 집안에는 주역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들이고 밖으로 사기 책이며 장자 열자등의 여러가지 책을 읽지 아니한 것이 없고 시편은 두보 이백 한유 유자후 시의 어려운 곳을 자기 말하듯 하였으며 우리나라 시인 명작들의 운을 다시 짓기 거의 일만여편을 하여 의심나는 것이 없었으니 천부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공은 돌아가신 상서공의 가장 어린 자식이었는데 사

랑하기를 다른 아이들 보다 달리하여 공부 독려와 가르킴을 심하게 아니하였다고 들었다。일찌기 사기 책을 제소재 이춘영에게 반아 소진편을 처음 읽었는데 겨우 한번을 읽고 곧 외우는데 한자도 오차가 없어 이춘영이 또한 탄복하였다고 한다。공은 성년이 된 때부터 고문인 사략을 즐겨 읽고 제자백가집을 즐기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장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다。시를 지으면 당나라 개원 천보년간의 시로 법을 삼고 그 이후로는 말하지 아니하였다。칠언시에서 절구와 율시에 노력을 많이 하여 손님을 전송하고 삼척에 와서 라는 시 중에 말하기를 누각은 북극을 가로 막아 하늘 가까이 닿겠고 산들은 동해를 열어 달빛을 얻도다。또 태풍이란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는 말하기를 파도는 점차 얼음 기둥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곡은 뒤집혀 땅굴이 뚫린 것 같도다 하여 오산 차천뢰가 무릎을 치며 찬성하였다。그러나 공은 그런것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서 전파하지 말도록 엄명을 내려 그래서 당시에 그의 시를 본 사람은 적고 오직 차오산 만이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론은 서로간 상하가 없었다。소암 임무숙이는 매번 공도의 시를 말하여 맑기가 그 사람 인품과 같다고 하였다。

아 문장은 특히 공에게는 여가일 뿐이고 공은 집에서 행동을 가장 독실히 하여 어머니 봉양을 10년을 하루같이 하여 어머니가 병이 위독함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약에 섞어 올려 병이 잠시 낫게도 하였다。그는 후일 대중과 더불어 살면서 반드시 그 솜씨를 줄여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광해조시에 폐모론이 일어나 위경등이 성균관을 선동하여 유생들을 교정에서 내몰고자 한다는 말들이 날로 흉흉하였다。때마침 공이 홀로 쉬고 있었는데 일조에 유생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침식을 폐지하기에 이르자 노비가 달려와 나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두세번 심부름을 시킬 것이라 하니 대저 나와 함께 떨쳐 나가고져 한 것이었다。세상이 당파에 깊이 오염될까 두려워 한 모습이 지금 수십년이 되었어도 내 눈동자 속에 있는 것 같았다。공의 죽음과 나의 절개는 세상에 어찌 또다시 두사람 같은게 있겠으며 그 누가 알리오?

공의 휘는 희원이고 공도는 그의 자이다。윤씨는 칠원에서 시발되었으며 그의 선조 중에 송제는 중랑장이고 그의 증손인 길보는 찬성사란 벼슬을 하였고 삼중대광의 훈로가 있었다。5、6대를 전승하여 휘 석보가 있었는데 공회왕을 섬기면서 청백리로 소문이 나 있고 벼슬은 직제학을 하였다。그가 문형을 낳고 그가 이를 낳고 그가 탁연을 낳았으니 이 분이 공의 아버지이시다。그는 출생하여 기이한 자질이 있어서 신동으로 호칭을 하였고 장성하여는 명성소문이 많았으며 주서로서 일찌

기 명종대왕의 고명시에 명을 받고 글씨를 쓰던 중에 변경하여 처리해서 세상이 모두 위대하게 여기었으며 광국공신이 되어 칠계군에 봉해졌다。과거 시험관의 존망은 황장계와 더불어 공의 품은 전광과 나란히 되었지만 재능을 받은 것은 뛰어남을 더하였었다。그가 말한 것을 돌아보면 세상에 맞는 운문이 없어 그래서 세상에 말살이 된 것이다。평생토록 쌀겨와 쭉정이를 먹었어도 먹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더니 나이 겨우 44세로 운명하였으니 그 허물 어느 곳으로 돌릴소냐。그것은 운명일 것이다。옛날에 선비로 곤궁한 사람들은 섬에서 한미하게 살고 교외에서 수척하게 있어도 모두 진심으로 어진이는 발탁이 되었으니 자신이 그 곤궁을 취한 것이라고 하여도 옳을 것이다。공의 시는 그렇지 아니한데 어찌해서 조물주가 또 그의 고고한 소리 홀로 내는 것을 혐의하였는지 나는 또 알 수가 없었다。

공의 아내는 해주 정씨이니 중해성군 정홍의 딸이다。유순하고 아름답고 현숙하고 총명하였으며 공보다 30년 뒤에 졸하였으니 살아온 나이가 82세였다。아들이 없어 사촌 아우 군수인 복원의 둘째 아들 안기로 양자를 삼았는데 그도 역시 선량한 선비로 기묘 명경과거에 급제하여 그 가업을 계승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능히 장수를 하지 못하여 성균관 직강으로 졸하였다。처음부터 공은 무덤을 광주 선영 곁으로 정하였으나 갑오년에 북북서향(병좌)의 산등으로 이장을 하였으나 역시 선영의 남쪽이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식으로 옆에 묻힌 것이다。

안기는 생원인 황성신의 딸과 결혼하여 3남2이녀를 낳았으며 아들인 우성은 양자로 나가 3남1녀를 낳았고 차자 우선이는 할아버지를 모시며 3남1녀를 낳았으며 셋째 아들 우한은 딸 둘만 낳았는데 장녀는 선비인 이적에게 시집가서 1남3녀를 낳고 차녀는 선비인 이명석에게 시집가서 아들 하나를 낳았다。친손과 외손들이 남녀 99인이나 되었다。나를 찾아와 비문을 요구한 사람은 손자인 우선이다。명문에 이르기를

정신이 맑게 태어났으니 철인의 상이로다。재능을 품고 나서지 아니하였으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네。순수한 효자로 살았으니 바른 길의 수장이로다。잘라진 옥 왜 이리 작을까마는 밤엔 빛이 많이 난다네。

대제학 용주 조세는 짓다

⑲ 副司勇公墓碣銘(諱 喜元) 代言公后 廣州

嗚呼 吾尙忍銘尹公度也 公 長我十年 我之得交也卽萬曆戊申年前也 公 居陋屋以席 爲門客至則班荊于地而坐 視其貌 敷腴白晳 梁間者不如也 豈非近於道者耶 吾與之往還數十年 未嘗見其眉睫間 有幾微喜慍色 其眄中 坦蕩何如也 公 素不喜交遊 雖隣里親戚 亦罕見其面 然 不見其

穿搨伊吾 惟時得 會心友 詠歌古詩 其音 若出金石聲可聽
也 納以辱知之深故 造焉頗數 叩其所有則內而六經 外而
馬班 莊列諸子書 靡不貫穿 詩之李杜韓柳難解處 如誦己
言 至於東方韻士名作 借文幾萬餘篇 無疑記 性天得也 聞
公 於先尙書 最少子也 鍾愛異夫他子 不甚課督教學 嘗授
史記於體素李春英 所始讀蘇秦傳 才訖一番 輒成誦 不錯
一字 李亦歎服 公 自結髮 咀嚼古文史略 嗜欲擧子業 時
文 非其好也 爲詩 開天爲則長度以下 不論也 於七言近體
用功深 其送人赴三陟曰 樓橫北極門天近 山坼東溟得月光
又賦大風曰 浪湧漸看氷柱立 谷翻還似土囊開 五山車後元
擊節稱賞 然 公 守非其人 勿傳戒嚴故 一時見其詩者尠
唯五山 最爲知音 其持論 亦相上下 疎菴任茂叔 每言公度
詩 淸如其人 嗚呼 文章 特公餘事耳 公 內行 最篤 養大
夫人 以十年如一日 及其病革也 割指和藥以進 疾 良已
其後群居 必締其手 恐人之或見也 昏朝時 癈母論起 偉卿
等 煽兇於舘學 欲驅儒籍充庭 其說 日凶凶 時 公 方休枕
獨 念一朝見逼 至癈寢食 走女奴問我者 曰必再三 盖欲同
我出北門也 其恐深汚世之色 至今數十年 如在阿睹中 公
之死老苦節 世寧復有兩人哉 其誰知之 公 諱 喜元 公度
其字也 尹 出漆原 遠祖松碑 中郞將 孫吉甫 爵贊成 勳三
重大匡 五六傳 有諱碩輔 事 恭僖王 以淸白著 官直提學
生文亨 生伊 生卓然 公考也 生有異質 以神童稱 及長 聲
譽藹蔚 以注書 嘗明廟顧命時 奉旨書字中處變 世皆偉之
衆光國勳 封漆溪君 文衡之望 與黃長溪 幷公胚胎前光 受
才加雄 顧出語 無適俗韻故與世抹殺 平生 食糠秕 不厭食
年僅四十四 歸咎何處 其命也 夫昔之文人之窮者-島之寒
郊之瘦 儘雕盱擢賢 宜自取其窮也 公之詩則不爾也 豈造
物者-亦嫌其高絃獨張耶 吾又未可知也 公 內子海州鄭氏
贈海城君欽之女 柔嘉淑明 後公三十年卒 享年 八十二 無
子 取公 從弟郡守復元 第二子安基 爲後 某亦良士 擢己
卯明經第 嗣其家業 不幸 未克永世宮卒 成均直講 初 公
之沒 卜葬于廣州先塋側 甲午 移窆丙坐壬向之原 亦不離
先塋南也 以子祔焉 安基 娶生員黃省身女 生三男二女 子
遇成 出繼人後 生三男一女 次遇宣 承重 生三男一女 次
遇漢 生二女 女長 適幼學李熇 生一男三女 次女 適幼學
李命錫 生一男 內外諸孫 男女九十九人 來求銘者 承孫遇
宣也 銘也曰 神淸而生 喆人之常 懷瑾不市 良覃之藏 純
孝而生 雅道之長 斷璧何小 厚夜之光

大提學 龍州 趙絅撰

◇

⑳ 선교랑공묘갈명(휘 태기) 대언공후 합천

나는 나이 열여덟 살에 선교랑인 칠원윤공의 문하로 글을 배우러 갔었는데 이때는 공이 세상을 떠난지 13년이 되던 해였다。그의 아들 형제와 교류하게 되어 공의 평소 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의 큰 아들인 우성이 공의 행장을 지어 묘비문을 요청하였다。여러차례 사양하며 글을 지을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의 요청이 더욱 완고하여 삼가 받아놓고 살펴보았다。공의 휘는 태기요 자는 소유이니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의 5대손이요。호조판서를 하고 칠계군에 봉해진 휘 탁연의 손자이다。칠계군의 아들 경원은 서윤 벼슬을 하고 길원은 내한 벼슬을 하였는데 이 내한공은 만력 기축년(1589년) 12월29일에 출생하였으며 그리고 내한공은 아들이 없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다。임진왜란에 서윤공이 양성현감으로 있으며 기백과 심대와 더불어 국가를 위하여 함께 죽었으며 얼마 아니되어 내한공도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으니 공의 나이 겨우 여섯살이었다。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배움에 뜻을 두어 경서와 사기를 널리 섭렵하였고 글씨도 절묘하여 글씨 잘 쓰기로 소문이 나있었다。살던 집이 간신인 이이첨 집과 이웃하였기 때문에 이이첨이 공의 집을 점유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였으나 공은 끝내 동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쌓인 감정이 깊어서였다。공은 화가 두려워서 영남 지방 시골집으로 피신하여 서울과는 자취를 끊었다。이래서 세상에 나설 뜻은 없었고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명예와 이욕 보기를 표주박 같이 하였다。

병술년(1646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슬퍼하기를 너무 심히하여 상기가 끝나지 아니하여 졸하였으니 정해년(1647년) 5월15일이었으며 수명은 59세이다。그 해 모월 모일에 합천 두현리 유좌의 산등에 장례를 지냈다。전처는 청주 한씨와 결혼하니 찰방 벼슬을 한 한경유의 딸이며 현숙한 품행이 있었으나 일찍 졸하였으며 딸이 있어 유생인 윤사례에게 시집을 갔다。후처도 청주 한씨와 결혼하니 유생 한위의 딸이며 부덕에 위배됨이 없었는데 공이 졸하였을 때에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올림에 하나같이 예법을 준수하였고 늙어서는 아들과 딸들을 거느리고 서울 사저로 돌아와 아들 딸 혼례를 모두 끝내고 갑자년(1684년) 4월18일에 졸하니 나이는 56세이었다。4년을 지나 정미년에 이장하여 공의 묘소에 합장하니 그것은 그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5남3녀를 두었으니 장남 우성은 참봉이고 차남 우명은 정랑이고 우현은 통덕랑이고 우을과 우무가 있고 딸들은 대사성인 이숙과 유명식과 한시준에게 시집을 갔으며 이이길과 박영필은 소가의 사위들이다。우성이 2남3녀를 두었으니 창적이는 진사이고 세적이며 딸들은 이정과 감사인 이선부와 유생인 이언윤에게 시집갔다。우명이 4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상적이고 성적과 최적과 정적이다。우현이 4남을 두었으며 우을이 2남을 두었고 우무는 1남2녀를 두었다。사위인 윤사례가

2남2녀를 두고 이숙이 1남을 두고 유명식이 3남2녀를 두었다。 나머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명문에 이르기를

나라가 혼란할때 고아의 신세로 태어나 자랐어도 능히 서서 자립하였고 권신과 간신이 횡행하는 때를 만났어도 그들의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였다네。 오직 그가 부조의 응보를 받지 아니한 것은 끝없는 후손을 기다림에서 나온 것이로다。 울창한 저 두현리 산기슭에 홀로이 비석문이 빼어나게 있으리라。

대사성 사위 이숙은 삼가 짓다

⑳ 宣教郞公墓碣銘(諱 泰基)代言公后 陝川

余年十八 委贄于宣敎郞漆原尹公之門 時 公之下世ㅣ十三歲矣 從其孤伯仲遊 聞公平日事頗詳 今其胤子遇聖 狀其行 請銘其墓 屢辭以非其人而其請益固 謹受而按焉 公諱泰基 字 少游 直提學諱碩輔五世孫 戶曹判書漆溪君諱卓然之孫也 漆溪君之子曰慶元 庶尹 曰吉元 內翰 公 生于萬曆己丑十二月二十九日 內翰公 無子 取襁褓子焉 壬辰之亂 庶尹陽城縣監 與幾伯沈岱 俱死王事 未幾 內翰 亦不幸捐館 公年 甫六歲 稍長 自知爲學 博洽經史 筆法亦妙 以善書聞 所居與賊臣爾瞻家比 爾瞻 欲占公居 誘脅多端 公 終不撓 其蓄憾深 公懼禍 避下于嶺南庄舍 絕迹京裡 自是 無進取意 琴酒自誤 其視名利 泊如也 丙戌 丁內艱 哀毁甚 服未闋而終 丁亥五月十五日也 壽五十九 以其年月日 葬于陝川頭峴里酉坐之原 初娶淸州韓氏 察訪景裕女 有賢行 早卒 有一女 適學生尹思禮 後娶淸州韓氏 學生偉女 婦德無違 公之旣歿 治葬祭祀 一遵禮制 晚年 率子女 還京第 畢婚嫁 甲子四月十八日 卒 壽 五十六 越四年丁未 遷柩祔葬于公之墓 從其遺言也 有五男三女 男長遇聖 參奉 次遇明 正郞 遇賢 通德郞 遇乙 遇戊 女 適大司成李塾 僉命寔 韓時俊 李而吉 朴英弼 側室壻也 遇聖生二男三女 男昌績 進士世績 女 適李垺 監司李善溥 幼學李彦綸 遇明 生四男 男長 相績 盛績 最績 靖績 遇賢有四男 遇乙 有二男 遇戊 有一男二女 尹思禮 生二男二女 李塾 生一男 僉命寔 生三男二女 餘不盡錄而銘曰 生長于喪亂 孤露之餘 克樹而立 遭際于權兇 恣睢之時 不緇于沮 惟其不食之報 無涯待後而發 蔚彼頭峴之麓 獨秀斯銘

◇

㉑ 장령공묘갈명(휘 빙삼) 충효공후 청양

옛날 정산현 남쪽 청남면 동강리 외동 뒷산은 바로 칠원윤씨들의 선산이다。 그리고 같은 지역내의 중앙 산등에 해좌 사향으로 높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효자이며 증봉렬대부사헌부장령 윤공의 묘소이다。 공의 휘는 빙삼이고 자는 여임이며 칠원인이니 신라 태자태사공 휘

시영의 후손이다。 태사공 이후로 문무관리가 계승되었으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휘 환이며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로 시호를 추중받은 분이 있었으니 이 분은 공의 11대조가 된다。 고조의 휘는 여형이니 성균관 진사이며 증조의 휘는 준제이니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전적이며 조고의 휘는 천상이니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이며 아버지의 휘는 심이니 부형의 벼슬로 인하여 선무랑이 되었고 소촌도찰방을 역임하였으며 어머니는 숙인 고령 김씨이니 빈의 딸이며 후부인은 숙인 창녕 조씨이니 여방의 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를 하늘로부터 받아 여덟살 때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가슴을 치고 펄펄뛰며 상여를 당기며 울기를 어른과 같이 하였다。 아버지와 계모를 섬기면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의 봉양과 아침 저녁의 보살핌을 부지런히 하여 항상 빠짐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함에 당하여는 허벅지살을 베어 약을 지어 드리니 다시 살아나 5년을 더 살 수 있었다。 계모 섬기기를 더욱 독실히 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는데 병세가 위중한 날에 이르러는 공의 나이가 70세를 넘었으나 노쇠하다고 자처하지 아니하고 옷과 허리띠를 풀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났으며 초상을 당한 후에는 슬픔이 제도를 넘었으며 때마침 날씨가 추웠지만 늘상 빈소 곁에서 살다가 그로 인하여 병이 들어 마침내 묘막에서 죽었으니 진실한 효자로 하늘에서 내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와같이 할 수 있으랴? 같은 마을 선비들이 다같이 포상하여 선양하고저 하였지만 공은 살펴보고 겸손과 양보로 사양하여 명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할 수가 없었다。 현종 계묘년(1664년)에 졸하였으며 숙종 을해년(1665년)에 이르러 순무어사인 송광연이 충청도를 순행하며 사실 행적을 상세히 채록하여 즉시로 장계를 올려 특별히 효자정려문을 세웠으며 그후로 임진년(1712년)에는 판서인 이돈과 참판인 이건명과 참의인 이대성과 좌랑인 길경조와 승지인 김덕기 등 여러 사람들이 경연 회의에서 건의를 올려 특별히 영전을 더하여 봉렬대부사헌부장령으로 추증을 받았다。 두 아내가 있었으니 증영인 의성 김씨는 김사형의 딸이며 증영인 서천 이씨는 이순의의 딸이니 공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3남을 낳으니 장자는 성기이고 차자는 세기이고 3자는 상기이다。 후손들은 번성하여 모두 기록할 수 없다。 장례후로 몇백년이 지나 산림은 무성하여도 묘소에는 비석문이 없어 그 현명한 군자의 묘소인줄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유감이 아니 될소냐? 이제 그 후손들은 더 오래되면 사라질까 두려워 장차 비석에 새겨 놓아 후손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감히 비석에 글을 새겨 묘소 앞에 세

우게 된 것이다。찬양문에 이르기를

어려서부터 효도와 우애한 것은 하늘에서 받은 마음이요。세상이 망하도록 퇴화되지 아니하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로다。그 본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 임종까지 이르렀다네。마을에는 정려문이 있고 묘소에는 비석이 높이 서 있도다。

서기 1960년 계묘년 4월 일

선성후인 김구현은 짓다

㉑ 掌令公墓碣名(諱 聘三) 忠孝公后 定山

舊定山治南青面獐項後山 即漆原尹氏世葬之地而同域中岡 枕亥而昻然封樹者 即孝子 贈奉列大夫司憲府掌令尹公墓也 公 諱 聘三字 汝臨 漆原人 新羅太師公始榮之后也 厥後冠冕相承 至于麗朝 有諱桓漆原伯諡忠孝 是公之十一世祖也 高祖諱 汝衡 成均進士 曾祖諱 遵悌 文科成均典籍 祖諱 天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考諱 湛 蔭宣務郎行召村道察訪 妣 淑人高靈金氏 贇女 繼妣 淑人昌寧曺氏汝舫女 公 自兒時 孝友禀天 八歲 遭母喪 攀號擗踊 有如成長之人 逮事父親繼慈 克盡誠敬 甘旨之養 定省之勤 恒時無欠 及當父病之危篤 割股和藥 因而回甦 得延五年 事繼母尤篤 竭力殫誠 至於病重之日 年踰七旬 不以衰老自處 不脫衣帶 長侍病側 憂形於色 遭變之後 哀毁踰制 時當天寒 常處殯側 因爲成疢 竟卒廬所 非誠孝之出天 固能如是乎 一鄉章甫-咸欲褒揚而公存之曰 謙退自遜 不欲聞名故 鄉里之人 不能强焉 卒于顯宗癸卯而逮至肅廟乙亥巡撫御史宋光淵 按行本道 細采實行 即爲入啓 特蒙旌閭其後壬辰 判書李塈 參判李健命 參議李大成 佐郎吉景祖承旨金德基諸公 建白 筵中 特加崇典 贈奉列大夫司憲府掌令 有二配 贈令人義城金氏 士衡 女 贈令人舒川李氏純義 女也 葬祔公 生三男 長曰聖基 次曰世基 次曰相基後昆 繁衍 不能殫記 葬後數百禩 山谷 幽邃 阡隧-無碑不識其爲賢君子之藏 寧不遺憾哉 今其後孫 恐愈久而愈泯謀將勒石 用示末世而茲敢爲銘表 竪塋前 贊曰

自幼孝友 禀天之衷 沒世不渝 君子之躬 不變其初 以及其終 里有閭表 隧有碑隆

檀紀四二九六年 癸卯 四月 宣城人 金九鉉 撰

◇

㉒ 퇴은공묘갈명(휘 민길) 대언공후 칠곡

옛날 광해군 시대에 황해관찰사인 율원윤공 휘 조원이 수리같이 조정의 수석에 서서 간사한 사람들을 물리쳐 멀리 북으로 보내고 남으로 내치어 평화와 험난을 하나로 이루어 놓아 하늘의 큰 복을 받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선교랑인 민길을 소개하면 어린 나이로 시종하며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경서를 읽고 시경을 외워 어머니 마음을 즐겁게 하였고 아버지가 귀양살이

에서 풀려 돌아오자 명령에 따라 영남지방 칠곡으로 이사를 하여 최초로 살 터전을 세우고 집안 법도를 내린 분이다。10대에 가깝도록 지금까지 석물을 구비한 것이 빠져있어 여러 후손들은 정성껏 일체의 묘도를 구비하여 놓고 그 비석문을 나 박종섭에게 요구하였지만 지식이 적으니 어떻게 감히 지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양하였지만 마지 못하여 삼가 그의 행장을 살펴보았다。공의 자는 가구이며 칠원윤씨의 후손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의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의 계출이며 고려시대에 칠제백에 봉해진 휘 거부는 중시조가 된다。이때부터 높은 관리가 대대로 이어지며 업적이 크게 빛났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 지퇴당은 직제학 벼슬을 하였고 휘는 석보이며 연산군에게 직간을 하였다가 강음으로 귀양을 갔었으며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청백리로 선발 하였고 홍포서원에 배향 되었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5대조이며 고조는 덕형이니 생원에 합격하였고 집의로 추증되었으며 증조는 신이니 찰방 벼슬을 하고 좌승지에 추증이 되었으며 할아버지는 창명이니 호는 백암이며 학록이란 벼슬을 하여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바로 황해관찰사이고 어머니는 정부인 창원 황씨이니 승지 벼슬을 한 황서의 딸이요 또 어머니 안동 권씨는 봉사 벼슬을 한 권해의 딸이다。이 안동 권씨가 선조 갑진년(1604년)에 공을 제천 백양리로 이사시키었으며 공은 총명한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 어려서부터 어버이 사랑하고 어른 공경하는 도리를 알아 밥 먹이고 옷 입는데 번거롭지 아니하였으며 경서와 역사책을 열심히 복습하여 시문에도 빨리 진취되어 영특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술재 이심민이 만나보고 심히 사랑하다가 사위로 삼았다。일찌기 아버지를 경산 귀양지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모당 손처눌 선생이 학문에 연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사사하여 덕과 의리를 연마하고 법도를 이행하여 그 지식과 행동이 함께 진취되었다。병사인 이연정과 더불어 주고 받은 글이 있으니 화암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 봄바람 같이 온화해지고 사수와 함께 술을 마시면 밤 달이 밝은것 같다는 구절은 그 청한한 심성을 그려놓은 것이라 하겠다。

일찌기 경산과 칠곡에다 저수지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혜택을 입게하여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다。아버지 어머니 상을 당하여는 사는 집과 멀리 떨어져 아침 저녁 상식이 빠진 것이 지극한 한탄이 되어 초하루 보름날이면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울며 절을 하였는데 바람 불고 비오는 날도 중지하지 아니하여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여 바로 그 곳에다 단을 쌓아놓고 망향대라 불렀다。이미 상복을 입으면서는 유언에 따라 영화의 생각은 사절하여 버리고 학운산 속에서 살며 자신에 아호를 퇴은이라 하고 채소나 기르며 글을 읽다가 한 세상을 마치

었으니 효종 계사년(1653년) 8월12일이었다。 칠곡 도암내곡의 남향(자좌)의 산등에 장례를 지냈으며 부인은 공인 광주 이씨이니 부덕을 완비하였으며 졸하여 공과 합장하였다。

5남1녀를 두었으니 성갑과 상갑은 통덕랑으로 출중하였고 취갑과 지갑은 무과에 합격하여 출중하였으며 정갑이 있고 딸은 윤세규에게 시집을 갔으니 주부 벼슬을 한 사람이었다。 손자들 중에 경인、경의、경예요 경중은 출중하였고 경직、경수、경렵、경순、경온이가 있으며 곽만기、유익기、원후 정도웅、안명석、권상우、김이각、이명직、강옥、김하영은 손녀 사위들이다。 여타는 기록을 생략하였다。

아 공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한지 현재 3백여년이 되었다。 그의 언행이 없어졌고 유문도 망실되어 장차 그가 끼친 영향을 찾으려 하니 증거 부족의 한탄이 없지 아니하나 공은 영매한 자태로 안으로는 가정교육에 물들어 있고 밖으로는 스승들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 근본적으로 착실히 행동하여 진실로 윤씨들은 바로 곁에서영향을 받아 오히려 고인의 인품이 사람들 입으로 전송되고 있으니 어찌 꼭 문헌에 있고 없는 것을 따지겠는가? 나를 찾아와 비문을 청탁한 사람은 종기와 정원이 두사람이다。 명문에 이르기를

위대하신 율원 노인은 이 아름다운 모범을 남겨놓으셨고 오직 공께서 그 발자취를 좇아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였다네。 대대로 살아온 터 아득히 멀고 저 학산은 첩첩히 쌓이고 깊도다。 만나는 일마다 자신이 맞추며 그 곳에서 편안히 살며 사랑을 돈독히 하였도다。 세상을 피하여 근심없이 효도와 우애를 항상 이행하였다네。 이를 말하여 군자라 한다네。 그 명성 영남에 떨쳤으니 세대는 비록 멀지만 남겨놓은 풍속은 사라지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아름다운 업적을 찾아 크게 빗돌에 새기노라。

평양 박종섭은 짓다

㉒ 退隱公墓碣銘(諱 敏吉) 代言公后 漆谷

在昔光海時 首陽伯栗園尹公諱調元 鶚立朝端 疏斥憸壬 北謫南遷 夷險一致-爲元祐完人 其介宣教郎敏吉 冲年陪從 不離其側 譚經誦詩 慰悅湘懷 及父公 宥還 奉命南徙于嶺之漆谷 剏立基業 垂裕家範 十世不漸 而尙闕麗牲之刻 諸昆 惕然圖治石表隧道 徵其辭於鍾夔 藐玆蔑識 何敢論譔 固辭不獲 謹按其狀 公字可久 漆原人 系出新羅太子太師諱始榮 高麗漆隄伯鉅富爲中祖 自是 公卿 聯襲 勳勳赫著 入朝鮮 止退堂直提學諱碩輔-諷諫喬桐主 放逐江陰 中廟改玉 選淸白吏 享鴻浦院 寔公 五代祖 高祖 曰德亨 生員 贈執義 曾祖 曰信 察訪 贈左承旨 祖 曰昌鳴 號白岩 學錄 贈吏叅 考 即首陽伯也 妣 貞夫人昌原黃氏 承

旨曙 女 安東權氏 奉事晐女 權氏以穆陵甲辰 擧公于堤川白楊里 聰慧過人 自幼 知愛親敬長之道 不煩鉢束 勤習經史 文詞驟進 雋聲 飛騰 述齋李公心愍 見甚奇愛 以女 妻之 曾侍大人公於慶山謫所 聞慕堂孫公學有淵源 往拜師事薰陶德義 循蹈規矩 知行幷進 與李兵使延禎唱酬 花岩共酌春風暖 泗水共酌夜月明之句 陶寫淸閑意趣也 嘗於慶漆兩郡 瀦澤 爲農人蒙利 至今賴頌 喪二親 以室遠闕饋奠爲至恨 朔望 就高阜處哭拜 風雨不廢 里人 感歎 即其地築壇 謂之望鄕臺 旣縞 遵遺誡 謝絶榮念 斂跡鶴雲 自號退隱 治圃讀書 以終其世 孝宗癸巳八月十一日 葬於漆谷道岩內谷枕子原 配 恭人廣州李氏 壺儀婉德 沒 祔公墓有五男一女 男 聖甲 相甲 通德郎 出 就甲 之甲 武科 出正甲 女 尹世揆 主簿 孫男 景仁 景義 景禮 景曾 出 景稷 景洙 景濂 景淳 景溫 郭萬紀 兪益基 元垕 丁道凝 安命錫 權相禹 金爾恪 李命稷 姜沃 金夏英 孫女壻 餘 省錄 噫 公之不于世今三百餘禩矣 言行寢歇 遺文散逸 將欲尋逐其影響 不無杞宋之歎 然 公 以英穎之姿 內而濡染於家庭 外而觀感於函席 立本質行 孚尹傍達 尙此傳誦於尙論之口 何必軒輊於文獻之有無也耶 來請文者 鍾起禎遠二君也 銘曰

憲憲栗翁 貽厥嘉謨 惟公逐武 聲海不趁 梓里綿邈 鶴山峋嶙 隨遇自適 安土敦仁 遯世无悶 孝友素履 是曰君子名振南紀 其世雖遠 遺風不沫 載撫懿蹟 貞鐫于碣

㉓ 통덕랑공묘갈명(휘 중삼) 충효공 청양

平陽 朴鍾燮 撰

공의 휘는 중삼이요 자는 중현이요 호는 세곡이며 관적은 칠원이며 성은 윤씨이다。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 휘 시영이며 그 후로 세상에 빛나는 정승 판사들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중세조는 고려시대에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공 시호를 추증받은 휘 환이다。 7대를 전해와 조선시대에 고조는 진사에 합격한 휘 여형이요 증조는 전적벼슬을 한 휘 준제요 조고는 동지 벼슬을 하신 휘 천상이요 아버지는 찰방 벼슬을 하신 휘 담이며 어머니는 숙인 고령김씨이니 빈의 딸이며 계비는 숙인 창영조씨이니 부장 벼슬을 한 여방의 딸이다。 공은 광해 정사년(1617년) 7월 29일에 출생하였다。 공은 청남면 동강리 외동 선영하에서 태어났으니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명석하며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였고 덕행과 문장력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들 우러러 보았다。 몇대를 계속하여 산수만 즐기며 벼슬하지 아니하고 목면 구수동에서 편안히 살며 후학들을 가르치며 백세의 긴 계획을 가졌다。 숙종대왕시에 선조의 덕으로 통덕랑 벼슬을 하고 늙어서 숙종계유년(1693년) 12월 24일에 졸하니 향수는 77세이었다。 청양군 목면 구수동 앞산 연소형 동북동향(경좌)에 장례하였다。 배는 공인 청

주한씨이니 판관 벼슬을 한 봉구의 딸이며 묘소는 청남면 동강리 장항 서향(묘좌)이니 다같이 석물들이 있으며 계배는 공인 곡산강씨이니 상산부원군 윤성의 후손이며 묘소는 건위 우측산등 남남동향(해좌)이니 석물이 구비되어 있다。아들 셋 딸 둘을 두었으니 장자인 덕기는 절충장군 벼슬을 하고 차자는 진기이며 장녀는 서천 이천주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담양전여익에게 시집갔다。장방손은 방주 이주 필주요 차방손은 나주이니 여타는 번다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아 공을 장례한 후로 287년만에 여러 일가들이 충분하게 토의하여 약간의 성금을 내어 삼가 묘소 석물을 구비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선조의 묘소가 있는 곳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하지 아니할소냐? 나 홍수에게 비문을 위촉하거늘 곰곰히 생각하다가 엎드려 명문에 이르기를

우리 선조님은 뭇 사람들 중에서 탁월하시고 덕행과 학문이 높아 아름다운 명성 많이 퍼져있지요 세상이 어지러워져 벼슬길에 나아가지 아니 하시고 시골집에서 편안히 살며 후인들을 가르쳐 주시었다네 최초로 구수동에 터잡으셨으니 백세까지 서로 이어지겠고 남겨놓은 덕 두터워 먼 후손들까지 반드시 높이 현달할 것이로다。명당에 묘소를 잡으니 제비집형국 이라네。

서기 1979년 기미 2월

11대손 홍수는 삼가 짓다

㉓ 通德郞公墓碣銘(諱 重三) 忠孝公后 青陽

公의 諱는 重三이요 字는 仲賢이요 號는 細谷이요 貫은 漆原이며 姓은 尹氏라 鼻祖는 新羅太師諱始榮이니 厥後赫世公卿이 不絕이라 中祖는 高麗漆原伯謚忠孝이며 諱는 桓이라 七傳하여 朝鮮朝에 有高祖하니 進士로 諱는 汝衡이요 曾祖는 典籍으로 諱는 遵悌요 祖는 同知로 諱는 天祥이요 考는 察訪으로 諱는 湛이요 妣는 淑人高靈金氏니 贇의 女요 繼妣는 淑人昌寧曺氏니 部將汝舫의 女라 公은 以 宣廟後丁巳七月二十九日生으로 生於青南面東江里外洞先壠下하여 天資가 穎哲하여 孝友敦篤하고 有德兼文하니 人皆瞻仰이라 世累ㅣ綿歷하니 徜徉不就하고 安棲木面九水洞하여 勉勵後進而長計百世矣라 肅廟에 蔭資通德郞하여 以終天年于 肅廟癸酉十二月二十四日하니 壽는 七十七이라 葬于青陽郡木面九水洞案山燕巢形庚坐原이라 配는 恭人清州韓氏이니 判官鳳龜의 女이며 墓는 青南面東江里獐項卯坐이며 具石儀요 繼配는 恭人谷山康氏니 象山府院君允成의 后이며 墓는 乾位의 白虎腰亥坐니 具有石儀라 有三男二女하니 男長은 德基니 折衝將軍이요 次는 振基요 女長은 適舒川李天柱요 次는 適潭陽田汝益이며 長房孫은 邦柱와 頤柱와 弼柱요 次房孫은 擎柱이며 餘는 繁不殫記하노라 嗚呼라 葬公後二百八十七載에 諸宗이 爛議僉同하여 捐誠財若干하고 謹具衛

墓之儀하여 使後孫으로 慣識先祖之藏하니 豈不幸甚耶아
屬余不肖하여 以貢之하니 竊思念컨대 伏銘曰

惟我先祖兮여 卓然不群이라 德文蘊抱兮여 芳名蕃衍이라 時勢紛擾兮에 有爲莫迪이라 安棲鄕里兮여 勸學後人이라 肇居九水兮여 百世相傳이라 厚培遺蔭兮여 雲仍必顯이라卜藏吉岡兮여燕巢形原이라(公之事蹟載于定山誌)

檀紀四三一二年己未春二月 日

十一代孫 弘洙 謹識

◇

㉔ 금오랑공묘갈명(휘 완) 충효공후 청양

옛날에는 정산현 적면 추동이라 하였고 지금은 청양군 적곡면 중추리라 호칭하는 향리는 높은 산들이 좌우로 펼쳐있고 잔잔히 흐르는 물은 동서로 둘러있어 현인이 사는 명승지구로 대우를 받았다。 우리 칠원윤씨 최초로 백세의 터로 삼았으니 이 동리의 성재동 남서향(간좌) 묘는 바로 효자이며 금오랑 벼슬을 한 윤공의 백골이 묻힌 곳이다。 여기는 공께서 돌아가신지 이미 3백년의 세월이 되었지만 나뭇군과 목동들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높은 관리로 앙모할 지역이라 하였으니 어찌 근신하지 아니할소냐? 이제 공의 후손들이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워 아름다운 업적을 나타내었으니 그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인가?

삼가 참고하여 보니 공의 휘는 완이요 자는 공탁이며 칠원윤씨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이다。 시조 이후로 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추증받아 대대로 빛나고 있었다。 중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기에 문하시중 벼슬을 하였으며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공 시호를 받았으니 이 선조는 공의 10대 조고가 된다。 6대를 내려와 고조인 휘 자당은 통정대부 진도군수이었으며 증조인 휘 여형은 성균관 진사이며 조고인 휘 준제는 조산대부 성균관 전적이며 아버지인 휘 천록은 중통훈대부이조참의이다。 어머니는 중숙부인 예천 임씨이며 동지 벼슬을 한 담의 딸이다。 공은 조선 선조대왕 임인년(1602년) 4월18일에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효성을 천부적으로 타고나와 아버지 병에 손가락을 끊어 회생시키었고 어머니의 병에도 손가락을 깨물어 효력을 얻었으며 어머니가 상치쌈이 먹고싶다고 하는데 때마침 추운 겨울이라서 채소밭에서 울고 있으니 몇포기 상치 나물이 홀연히 얼은 땅에서 나와 뜯어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초상을 당하여는 여막에서 살았었다。 현종대왕 기유년(1669년)에 문곡 김수항 정승이 조정회의에 건의하여 특별히 금오랑을 제수받았으니 바로 의금부도사라는 직위이다。 동년 11월17일에 졸하니 향년 68세이다。 큰아들인 통어사의 벼슬때문에 가선대부

이조참의음선무랑에 추증되었다。공의 사적은 문헌비고 책과 환승람과 정산읍지에 기재되어 있다。배는 정부인 예안 김씨이니 경서의 딸이다。선조 임인년(1602년) 5월6일에 출생하여 현숙한 품행이 있었으며 인조대왕 계미년(1643년) 11월25일에 졸하니 향년 43세이며 묘소는 공의 묘소 좌측에 합장하였다。묘소 뜰 아래로 두 곳에 묘소가 있으니 아들 통어사공의 묘소와 손자 병사공의 묘소이다。아들 여섯과 딸 넷을 두셨으니 큰 아들인 시달은 통어사요 둘째아들 시건은 회천군수요 셋째 아들인 시적은 통덕랑이요 넷째 아들인 시진은 삭주도호부사요 다섯째 아들인 시일은 선전관이요 여섯째 아들인 시우는 통덕랑이다。큰 딸은 이장겸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윤후철에게 시집가고 셋째 딸은 최순경에게 시집가고 넷째 딸은 이만지에게 시집갔다。큰 아들집 손자인 일상은 경상병사요 둘째 아들집 손자는 홍상이요 귀상은 통덕랑이며 취상이요 정상은 통덕랑이며 유상이다。셋째 아들집 손자인 명상은 직장이요 원상은 통덕랑이다。넷째 아들집 손자들은 계상、이상、태상、우상、오상이니 모두들 통덕랑이다。다섯째 아들집 손자들은 형상、제상、사상이니 모두 통덕랑이다。여섯째 아들집 손자인 빙상은 통덕랑이다。증손자와 고손자들은 번다하여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공을 장례한 이후로 상석과 동자석과 장군석은 이미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묘소앞에 비석이 빠져있어 후손들의 오랜 여한이었다。이제 몇년을 두고 여러 일가들이 상의하여 제물을 모아 앞으로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일가 어른인 백근씨와 병무씨가 나를 정산 연세당까지 찾아와 비문을 요청하였다。스스로 돌아보니 직위도 낮고 문장도 졸렬하지만 나는 공과 더불어 전적공이 같은 할아버지가 된다。그러므로 어른을 모시는 애모심이 타인들보다 배나 들어 감히 고사하지 아니하고 기록문서에서 들은대로 요약하여 모아 앞과같이 차례로 기록하였다。명문에 말하기를

적곡면 중추리는 윤씨의 옛 묘소지이다。네 높은 관리의 묘소가 있어 나뭇군과 목동까지 경계하는 말을 하였다네。향리에 남겨놓은 풍속은 행동거지에 꼭 필요하지요。인륜에 순서가 있어 어버이 섬김에 지극히 순수하였도다。부모님을 회생시키려고 손가락을 끊어 수명을 연장시키었지요。추운 겨울에 상치쌈 얻었으니 그 효성은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지요。초상을 당하여 시묘를 하고 영원토록 추모하여 선조에 보답하였지요。금오랑으로의 특명은 현종대왕 경연회의에서 하였지요。아름다운 명성이 썩지않고 역사책에 나타나 있다네。오직 공께서 내려놓은 음덕으로 후손들이 현명하고 준수하다네。문관과 무관이 대대로 계승되어 사십여손이 벼슬을 하였도다。아름다운 업적 비석에 새기니 천년이 지나도

록 살피소서。

서기 1983년 계해 1월 일

일가 후손 홍수는 삼가 기록하다

㉔ 金吾郎公墓碣銘(諱 浣) 忠孝公后 青陽

故爲定山縣赤面楸洞 今稱青陽郡赤谷面中楸里鄉 高山左右開 潺水東西廻 以待賢人之勝區耳 吾漆原尹氏 肇基百世 本里聖才洞艮坐原 卽孝子金吾郎尹公衣履之藏 是也 公之賓天 已久三百祀 樵牧相戒曰賢大夫之瞻慕地域云 豈可不愼哉 今玆 公後竪碣墓徑 以表徽績 庶有以永世不泐也歟 謹按 公 諱浣 字公濯 漆原之尹氏 鼻祖 諱始榮 新羅太子太師 以後封君贈諡 連世燀爀 中祖 諱桓 高麗末官門下侍中 封漆原伯 諡忠孝 是公之十代祖考也 六傳 有高祖 諱自塘 通政大夫珍島郡守 曾祖 諱汝衡 成均館進士祖 諱邊俤 朝散大夫成均館典籍 考 諱天祿 贈通訓大夫吏曹參議 妣 贈淑夫人醴泉林氏 同知霱女 公 生于朝鮮宣祖壬寅(一六〇二)四月十八日 自幼 誠孝根天 父病 斷指回甦 母病 嚼指得效 母思蒿菜 時値隆冬 號泣畦園 數莖蒿苣 忽生凍地 取以供進 丁憂廬墓 顯宗己酉(一六六九) 文谷金相國壽恒 建白筵中 特除金吾郎 卽義禁府都事 同年十一月十七日卒 享年六十八 長子統禦使以貴 贈嘉善大夫吏曹參議蔭宣務郎 公之事績 載於文獻備考 寰勝覽 定山邑誌 配 貞夫人禮安金氏 慶瑞 女 宣祖壬寅(一六〇二)五月初六日生 有賢行矣 仁祖癸未(一六四三)十一月二十五日卒 享年四十三 墓 公墓 附左合封焉 階下 有二封 嗣男統禦使公位 嗣孫兵使公位 有六男四女 長男 時達 統禦使二男 時建 熙川郡守 三男 時迪 通德郎 四男 時進 朔州都護府使 五男 時逸 宣傳官 六男 時遇 通德郎 女長適李長謙 次 尹後哲 崔順慶 李萬枝 長房孫 一商 慶尚兵使二房孫 興商 歸商 通德郎 就商 鼎商 通德郎 裕商 三房孫 鳴商 直長 元商 通德郎 四房孫 啓商 以商 台商 佑商五商 俱通德郎 五房孫 衡商 濟商 師商 通德郎 六房孫聘商 通德郎 曾玄以下 繁多不盡記 嗚呼 公之藏後 床石童子石 將軍石 既具然 羨道 尚闕貞石 後孫宿恨矣 今爲有年 諸宗 詢謀鳩財 將有鑽刻 族丈百根 炳茂 請余碣銘於定山延世堂 自顧地卑文拙 余與公 同祖典籍公故 執鞭之慕 有倍餘人 敢以不得固辭 以宜聞誌籍 略撮序右 次用銘曰

赤面 楸洞 尹氏舊阡 大夫幽藏 樵牧戒言 鄉坊遺風 行止必專 彛倫有序 事親至純 堂上回甦 斷指壽延 嚴冬求蒿誠孝根天 遭艱侍墓 追遠報本 特除金吾 顯廟經筵 令名不朽 史乘著見 惟公垂蔭 雲仍賢俊 文武繼世 四十餘紳 懿績銘石 瞻顧歷千

檀紀四三一六年(一九八三)癸亥正月 日

族后孫 弘洙 謹識

※ 參考: 青陽郡誌 七九八面

㉕ 충신주부공묘갈명(휘 익) 충효공후 청양

여기 옛날 호서지방 정산현 동쪽 가야산 조정동 남남서향(계좌) 묘소는 충신인 윤익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참고하여 보니 공은 광해조 을묘년(1615년) 6월30일에 출생하여 나이 열여덟살에 무과에 합격하고 스무살에 훈련원주부를 역임하고 스물 한살에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초상복을 입었다。스물두살때에 병자호란을 당하여 의병을 이끌고 직산으로 달려가 충청감사인 정세규의 군대와 더불어 합세하고 맹세하되 적군과는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죽을 힘을 다하여 같이 죽기로 권고하고 진군하여 용인 검천에 이르러 오랑캐와 격돌하였는데 그의 진영이 함락됨에 이르러 정공이 부상당하여 혼수상태에 이르자 공은 분기하여 군대를 정리하고 그 외롭게 남은 장병들에게 유시하여 말하기를 적군은 토평하지 못하고 우리 군세는 이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은 오늘 적군을 토벌하다가 죽는것만 있을 뿐이라 하고 마침내 혼자서 적군의 화살속으로 돌진하여 좌충우돌하며 많은 적군을 사살하다가 이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마침내 충절로 순국하니 해는 병자년 12월27일이요 나이는 스물 두살이었다。

부인 김씨께서는 이 변고를 듣고 통분하여 기절하였다가 잠시후 다시 살아나 말하기를 신하는 당연히 이와같이 하는 것이라 나는 진실로 공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었다고 하며 즉시로 전쟁터로 나가 시체 찾기를 여러날 하였으나 백골이 산같이 쌓여 거의 식별할 수 없음으로 남아있던 의복으로 초혼하여 이곳에 장례하였으니 진실로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이런 아내가 있었다고 말하겠다。그후로 숙종대왕시에 이르러 통훈대부에 추증되고 영조대왕 기유년(1729년)에 정려문 혜택을 입었으니 여지승람에 기재되었고 그밖의 전쟁에서 패망한 사적의 소장물은 재티가 되어 전해오지 아니한다。공의 자는 경양이요 칠원후인이다。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한 휘 시영이 시조가 된다。여러 세대를 전하여 고려 말기에 이르러 휘 환이 있었으니 문하시중 벼슬을 하고 칠원백이며 시호는 충효이었다。두대를 전하여 휘 조생이 있었으니 조선 태종시대에 문관으로 장예원 판결사 벼슬을 하였으니 공에게는 7대조고가 된다。현감인 휘 번손과 사과인 휘 기와 참봉인 휘 사영은 고조 증조 조고이다。아버지의 휘는 린이니 품행이 고매하여 몇차례 부름을 입었으나 끝내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임종시에는 세전충효(대대로 충효를 전승하라)는 네글자를 써서 유훈으로 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늠름한 대장부의 기개가 있었고 유훈을 차고 다녔으며 활쏘고 말타는 연습을 하여 늘 국가의 위급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었으니 공이 평소에 쌓

아놓고 있던 바가 그런 것이다。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니 원서의 딸이요 배위는 숙인 김씨이니 첨정 벼슬을 한 김덕유의 딸이며 6월6일에 출생하고 11월12일에 졸하였으며 묘소는 건위와 합장하였다。 1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인 광은이는 어버이 섬김에 지극한 효자이었으며 이미 어머니 상기를 마치고 추가로 아버지 복까지 입고 벗들과 교류를 끊고 죽만 3년을 먹었으며 매년마다 순국한 날에는 직접 전쟁터까지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제를 올리며 슬픈 감정을 펼쳤다。 숙종대왕 때에 공조좌랑에 추증되고 영조대왕 때에 정려문 명을 받았다。 딸들은 김상익과 김유제에게 시집갔다。 광은이 아들 오형제를 두었으니 장자인 진경은 증가선대부이며 차자는 한경이요 삼자는 필경이니 증가선대부이고 다음은 취경과 하경이다。 그의 음덕으로 자손들이 번성하여 모두 기록할 수 없다。

아 위대하도다。 공의 행동이여 나이 겨우 스무살로 의를 분발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이 또한 몇사람이나 있을까? 오늘 공의 9대손자인 영설이 그분의 남긴 공적이 사라질까 두려워 장차 비석을 세우려고 종중에서 협의하고 정산향교의 전교인 김홍원씨와 더불어 찾아와 성균관 문을 두드려 소매에서 문헌을 내놓고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거늘 나는 일찌기 면식이 있어 사양하지 아니하고 서술하기를 앞과 같이 하였다。 이어서 명문에 말하기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큰 절개를 볼 수 있으니 기타 작은 일들을 어찌 논의할소냐? 남한산성으로 곧 바로 달려가 마침내 순국한 것을 국가에서는 정려문으로 그 혼령을 위로하였도다。 대장부가 죽을 곳에서 죽었을 뿐이니 백골은 전해옴이 없어도 원망은 없을 것이다。 그 의복과 행장을 이곳에 묻었으니 의로운 명성이 천추에 영원히 남아 있으리라。

광복후 을축년(1985) 청명절

성균관장 박중훈 지음

㉕ 忠臣主簿公墓碣銘(諱 翊) 忠孝公后 青陽

此舊 湖西 定山治東 加也山 照井洞 癸坐之原 忠臣 尹公翊 衣履之藏也 按 公 生于 光海 乙卯 六月 三十日 年十八 登 武科 二十 歷訓鍊院主簿 二十一 遞官歸家 服母喪 二十二 當丙子亂 先倡義兵 赴徃于稷山 與忠淸監司鄭世規軍合勢 誓不欲與賊俱生 與之戮力 勉以同死 進軍至龍仁儉川 擊胡賊中 及其陣陷 鄭公 被傷昏倒 公 奮起整旅 仍諭其子遺將士曰 賊猶未平 我勢至此 吾輩 今日 只有討賊而死耳 遂以匹馬 直挑於亂兵簇立中 左衝右撞 斯殺過當 乃爲流失所中 竟殉於節 歲 丙子 十二月 二十七日 時年 二十有二矣 夫人金氏聞變 痛憤氣絶 有時 復甦曰 人臣之義當如是矣 吾 固知公之必不生還 卽 奔戰地

求骸多日 白骨堆積 無可辨識故 以遺衣 招魂藏於斯地 眞可謂有是夫 有是婦矣 而後至 肅廟 贈 通訓大夫 英廟己酉 蒙旌閭 事載輿覽 其餘戰亡事蹟之藏 所燼未傳 公字景亮 漆原人 新羅 太子太師 諱 始榮 爲始祖 累傳至 勝朝末 有諱桓 門下侍中 漆原伯 諡 忠孝 再傳 有諱祖生 朝鮮太宗朝 文 掌隷院判決事 於公 七世祖也 縣監諱蓄孫 司果諱祺 叅奉諱仕榮 高 曾 若祖也 考諱璘 操行 高邁 屢 蒙承傳 終不出仕 臨終 以世傳忠孝 四字 遺訓 公自幼 凜然 有烈 丈夫志氣 銘佩遺訓 嫺肄弓馬 常以國家之急 擔着于身 公之素所蓄積者然矣 妣 密陽朴氏 元瑞之女也 配 淑人金氏 僉正德裕女 生於 六月六日 卒於 十一月十二日 墓 乾位 合窆 生一男二女 男光殷 事親至孝 旣闋母喪 追服父喪 息交絕遊 乾粥三年 每歲殉日 躬往戰所 椒糞展哀感焉 肅廟 贈工曹佐郎 英廟 命旌 女 安東 金尙益 金有繼 光殷 生五男 長 振卿 贈嘉善 次 漢卿 次 弼卿 贈 嘉善 次 就卿 夏卿 以蔭厚 子姓繁衍 不可盡錄

嗚呼偉哉 公之行也 年纔弱冠 奮義捨命者 亦有幾人乎 今公之九代孫 永高 懼其遺跡之泯 將爲牲石 協議宗門 與定山鄕校 典校 金洪遠甫 來叩泮宮之門 因出袖文 請余一文 余曾有靑武之莅 有面識不辭 敍之如右 繼而銘曰

觀人 觀其大節 其餘小者 奚論 直赴南漢 竟殉朝家 旌以慰魂 丈夫死於死己 白骨無傳 莫怨 衣履 攸藏于斯 義名 千秋永存

光復後 乙丑 清明節

成均館長 朴重勳 撰

◇

㉖ 사부공묘갈명(휘 빈) 충효공후 청양

문장은 간요한 문장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쇠와 돌에 새긴 금석문이 더욱 그러하다。후세로 내려오면서 세상은 호화로운 것을 숭상하여 대개들 큰 비석을 세우고 아름다운 말을 새겨 선조를 천명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여기고 있으나 결코 덕을 높이고 중요한 것을 본받는 길은 아니다。또 하물며 세대가 유원하고 문헌에 증거가 없는 것이야? 만일에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묘소에 아첨하는 것이니 특히 비문을 짓는 사람은 근신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여기 정산 청남면 태평동에 남남동향(해좌)의 묘소가 있으니 고인이 된 대군 스승인 칠원윤공의 백골이 안장된 곳이다。현재 공이 세상을 떠난지 288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묘소 앞에 비문이 없어 후손되는 여러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 곧 비석을 세워 예의대로 하면서 공의 9대손인 태학이 가승을 들고 나 이종선에게 비문 짓기를 요구하면서 선조의 문서들은 망실되어 먼지만 남고 또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

아 마침내 선조의 아름다운 덕을 빛내지 못한 것이 사실상 우리 문중이 대대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이 비문을 짓는데 비록 부러지고 깨진 사실이라도 주어 고맙지만 글재주를 생각하면 비문을 감히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 추모하는 성의에 감동되어 살펴보아 서술하였다。

공의 휘는 빈이요。 자는 자화이다。 신라시대 태사공은 시조가 되시고 휘 환에 이르러서는 고려시대에 벼슬이 문하시중이요 시호는 충효공이며 칠원백에 봉해졌고 2대를 전래하여 휘 조생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판결사 벼슬을 하였으니 공에게는 7대조가 된다。 고조부 휘 중임은 용천 부사를 하여 승지로 추증되었고 증조부 휘 붕은 홍양현감을 하여 병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고 조부 춘란은 충의위부사과를 하여 순충보조공신의정부좌찬성으로 추증되고 칠평군에 책봉되었으며 아버지는 건이니 인천부사를 하고 임진란에 호종하다가 전쟁 중에 죽은 공로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무원군으로 책봉되었으며 3세대 즉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은총을 더하였다。 어머니는 은진 송씨이니 판서인 송시원이 그의 아버지이다。 무원군에게는 백씨가 있었으니 휘는 수이고 선무랑 벼슬을 하였고 그의 배위는 단양 우씨이니 병사인 광덕의 딸이다。 이는 생가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공은 광해갑인(1616년)년 7월7일에 출생하였는데 타고난 자질이 매우 고아하고 총명이 뛰어나 부모를 섬기고 형에게 순종하는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 향리에서는 그의 효도와 우애를 칭찬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학문과 예술이 크게 진보되어 인조 기사년(1629년)에는 증광진사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이어서 학문과 덕행으로 대군의 사부로 천거되었으니 바로 효종대왕이 사저에서 살때였다。 고감록이란 책을 저술하여 진상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어 특별히 포상을 하였다。 대저 대군사부라는 직위는 임시로 설치한 직책으로 품계는 비록 하급직이지만 사실은 청백리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공은 현명한 재덕이 일찌기 이루어져 당시에 존경받은 것을 대략으로 상상해 본 것이다。 하물며 또 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는 그 왕의 문장과 무술을 위하여 큰 뜻을 분발하였음에야!

숙종 임신년(1692년) 8월15일에 졸하니 79세까지 장수하였다。 33년이 지난 후일인 영조 을사년(1725년)에 효자로 정려문을 세웠으니 바로 공주 탄천면 송학리이다。

부인은 동래 정씨이니 문익공 정광필의 손녀이고 군수인 정유순의 딸이며 도승지인 광산 김이안의 외손녀이다。 공보다 3년 앞인 을묘(1615년) 3월10일에 출생하여 공보다 사년 먼저 무진년 9월9일에 졸하여 묘소는 공과 합장되었다。 아들 2인을 두었으니 형일은

기린찰방을 하여 승지에 추증되었고 형재는 장수하여 가선대부동지의금부사를 제수 받았다。장자계 아들인 유는 중직으로 호조참의이고 신과 방은 무과에 합격하였고 딸은 진주 유병연에게 시집을 갔는데 충의공으로 시호를 받았으며 진은 통덕랑이었고 관과 서이다。차자계 아들은 위이다。증손 이하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공은 뛰어난 자태와 영매한 재능으로 젊어서 성공을 하였음이 이미 공문서를 통하여 당연히 그 공명과 사업이 빛나 있을 것인데 마침내 어둡고 황폐한 계곡에서 빠져 적막하게 들을 수 없으니 그 무슨 까닭일까? 어찌하여 또 병자호란 이후로는 세상 일에 마음이 상하여 벼슬에 나갈 뜻을 끊어버렸을까? 일찌기 지소 황충렬공이 이 만장시에 이르기를 공자가 주공 존경하듯 같은 계통되고 노중연 같이 혼자서 진시황을 부끄러워 하였지요。사나이 절의는 하늘땅이 알고 집은 대대로 충성과 절개로 벼슬을 하였도다。왕궁의 임금님 슬퍼하는 날이요。어머니 늙었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도다。슬프구나 삼척 칼을 생전에 오랑캐에 쓰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몸에 시험하였다네? 라고 하였으니 그의 의분과 고충을 여기에서 가히 찾을 수 있었다。

슬프도다 그 언행과 업적이 비록 모두 전래하지는 아니하나 그의 효도는 높고 뛰어난 것이 있어 특별히 정려문을 세워주는 영전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으니 곧 문헌 기록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족히 증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이에 감히 요점만 찾아 비석에 게재하오니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말이 아첨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명문에 이르기를

아름답도다。공이여 천부적으로 온전함을 얻었도다。우는 학이 언덕에 있으면 소리는 하늘까지 들리도다。글을 읽으며 집안에 있어도 그 재능의 현명한 것은 발탁이 되었다네。임금께서 아름답다 말한 것은 고감록을 지었기 때문이다。오랑캐가 덤벼들어 더러움이 눈에 가득하였도다。명예욕이 없었으니 청백하여 허물이 없었지요。근본을 이행하고 예절에 독실하여 문전이 빛났지요 후손이 번창하지 못함은 보답하는 하늘의 이치가 많이 위궤되었기 때문이라네。이에 돌을 갈고 이에 새기었으니 옛 무덤에 새로운 비석이로다。내 그 대략만 서술하여 가르침 천년이 지나도록 하리라。

서기 1979년 기미 월 일

월성 이종선은 짓다

㉖ 師傅公墓碣銘(諱 彬) 忠孝公后 定山

文貴簡要 金石文 爲尤然矣 自夫世降 俗尚華靡 盖以斲致豊碣 美辭顯刻 爲闡先之能事 殊非尊德體要之道也 且況世代悠邈 文獻無徵者乎 若於無徵而爲有徵 是誣其墓也 尤作者之不可不審慎也 維定山靑南太平洞 抱巳而封四尺

者 故大君師傅漆原尹公 冠烏之藏也 今距公之世 二百八十有八年而尙闕義門之刻 苗裔諸氏 權風雨之愈久愈泯 將排石如儀 九世孫太學 袖家牒 要不佞爲銘曰先世文蹟 蕩佚灰燼 且因後承之零替 遂使祖懿靡彰 實吾門 世世飮恨者也 此雖斷爛 據實以惠之 顧文不敢當 感其追遠之誠 按而叙之 公 諱 彬 字 子華 以新羅太師始榮 爲上祖 至諱桓 麗朝 官侍中 諡忠孝 封漆原伯 再傳 諱祖生 入國朝判決事 於公 間七世 高祖仲任 龍川府使 贈承旨 曾祖鵬興陽縣監 贈兵曹叅判 祖春蘭 忠義衛副司果 贈純忠補祚功臣議政府左贊成漆平君 考 曰健 仁川府使 壬亂 以扈聖原從功 贈吏曹判書封武原君 加 恩三世 妣 恩津宋氏 判書時元 其父 武原君 有伯氏 諱 修 宣務郞 其配丹陽禹氏兵使光德之女 本生考妣也 公 光海甲寅七月七日 生 天賦甚高 聰慧絶倫 事親從兄 有至性 鄕邦稱其孝友 早自劬學文藝大進 仁祖己巳 捷增廣進士 尋以學行 薦拜大君師傅乃 孝廟龍潛時也 製進古鑑錄 上 嘉納 特賜恩賞 盖大君師傅 是權設之職而品雖卑 實淸選則公 以賢德夙達 見重於當時者 槩可想矣 矧復大君 踐阼 爲聖文神武 奮發大志之孝考乎 卒于 肅宗壬申八月十五日 壽 七十九 後三十三年 英祖乙巳 以孝 命旌其閭 即公州灘川之松鶴也 配 東萊鄭氏 文翼公光弼之孫 郡守惟醇女 都承旨光山金以安外孫也 生先公三年乙卯三月十日 卒亦先公四年戊辰九月九日 墓 祔焉 擧二子 衡一 麒麟察訪 贈承旨 衡在 壽 嘉善同知義禁府事 長房 男 曰綏 贈戶叅 曰紳 曰紡 武科曰女 適晋州柳炳然諡忠毅 曰縉 通德郞 曰綰 曰緒 次房男 曰緯 曾以下不錄 嗚呼 公 以卓犖之姿 頴邁之才 早年小成 旣通仕籍則宜其有功名事業之赫而竟沈晦荒谷 寥寥無聞 抑又何哉 豈亦丙丁以來 盡傷時事 絶意仕進而然歟嘗挽芝所黃忠烈公 有曰夫子尊周爲一統 魯連獨耻帝西秦男兒節義通天地 家世忠貞冠縉紳 玉闕龍顔哀有日 萱堂鶴髮養無人 可嗟三尺平生劍 未試單于反試身 其義憤苦衷此可探也 噫 言行治蹟 雖不得盡傳 觀其孝其卓絶 特蒙綽楔之典則不待文獻而足以有徵矣 玆敢摭要 揭諸石章 善讀者 倘不以余言 爲諛也 銘 曰猗嗟公兮 賦畀得全 鳴鶴在皐 聲聞于天 講書有院 擢彼才賢 王曰嘉哉 古鑑有篇 建虜馳突 滿目腥羶 脫屣名疆 自淸罔愆 行源篤摯 煌煌門前雲仍不審 報施多舛 載礱載鐫 新碣舊阡 我述其槩 用詔歷千

檀紀四千三百十二年己未三月 日

月城 李鍾宣 撰

◇

㉗ 장령공묘갈명(휘 우정) 대언공후 당진

선대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기상이 옛적 대각에서 벼슬살던 사람들과 비슷하여 대부분 굴곡하게 된 것을 심히 부끄러워하며 감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 돌아가신 장령 윤공의 현저함과 같다。

공의 휘는 우정이요 자는 사형이다。 천계정사년(1917년) 12월6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뛰어나게 특출하여 겨우 여덟살 때에 마을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었는데 어른들이 공에게 명하여 글을 지으라고 하니 공은 즉석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낮에 달무리가 있으나 반짝이는 별들은 없도다 하여 대중들이 모두들 기이하게 여기었다。 장성하여는 문장력이 크게 소문이 나서 문학인과 재사들이 모두들 만나보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임오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명성이 더 현명하여졌다。 갑신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계사년 봄에는 금오랑을 제수받았으며 그 해 7월에는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정유년에는 전설별유로써 사재직장으로 전근하였다。 경오년에는 금오랑차석에서 공조좌랑으로 승진하고 그 해 겨울에는 함열현감으로 나가 모든 것을 청렴하고 검약하게 자신이 모범으로 행동하며 사랑과 용서로 오랜 눈병을 씻은듯 하여 국민들이 부모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북인들 파에서 함열현에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리들의 실수하고 있는 것을 고찰하여 여럿속에서 잡아가는 일이 일어났으나 공이 어지럽던 관리를 구금하고 다소간 주선하여 파장에 이르지 않게 하였으나 도리어 사간원 공론을 면하지 못하고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수레를 당기며 울면서 헤어졌으며 후에 비석을 세워서 사모하고 있다。 임인년에는 공조로 발령을 받고 이어서 호조로 전근을 하였으며 그 해 10월에는 특별시험에서 급제하여 예조와 병조 두 곳 랑관겸춘추를 역임하고 사간원정언을 제수받았었다。 때마침 흉인 윤선도가 핑게로 예가를 논하는 사화가 일어나 임금께서 진노하여 북녘 변방으로 안치하라 하였는데 홍우원이 옥당관으로 윤선도를 구원하라 하니 공은 홍우원에게 벼슬장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병조로 교체되어 다시 사헌부지평이 되었는데 때마침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궁중과 환시들의 불법사항을 논의하다가 줄줄이 엄한 교지를 받게 되었는데 공이 애써 간언하여 해결을 얻었다。 일찌기 여러 동료와 더불어 궁중으로 들어가 전쟁의 재앙대책을 진술하여 어진신하를 친히하고 정치도 강론을 우선으로 하여야 된다고 간절하게 말하였으며 제수의 음식물은 엄숙히 차리고 정성껏 준비하며 종묘의 예물들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은 일제히 수리하고 바꾸라고 간청하여 모두 임금의 허락을 얻었으며 또 상소문으로 임금의 덕을 극론하니 조정에서 비답으로 말하기를 대변해서 간청한 이후 소의한 근심과 사랑의 정성을 내놓아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기고 있으니 공은 오래도록 대관의 직위에 있으면서 몰래 살펴 잘잘못을 들춰내라 하니 임금의 친척과 조정의 신하들이 숙연하여졌다。 갑진년 4월에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다시 장령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도사로 교체되었으며 그해 12월17일에 집에서 졸하니 수명이 48세이었다。 그달에 또 장령을 제수한 적이 있으나 공은 알지를 못하였다。 다음해 2월에 임시로 고양 선영의 묘소곁에 장례하였다가 정미년에 면천 치북면 주절동 서향(묘좌)에 영폄하였으며 후일 아들의 벼슬때문에 증이조참판이 되었다。 공은 온순하고 간결하여 과묵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서는 과실만 얻어도 감히 먼저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렸으며 네살때에 할아버지상을 당하였는데 슬퍼하기를 어른같이 하여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병자호란시에 3노인을 모시고 호남지방으로 피란을 가는데 비록 창황하고 분주한 때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족히 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초상시에 슬퍼도 예절을 다하고 위험하여도 완전한 것을 얻었으며 우애를 돈독히 하여 여동생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공과 의식을 같이하며 분가를 시키어 농사꾼 남편을 얻어주고 서얼동생과 서얼자매들도 귀천에 차이가 없었으며 4촌형제들이 역질에 걸리자 공은 근심하며 더러웁게 여기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이불을 같이 덮고 잤으나 아침이 되어도 병에 걸리지 아니하였다。 때마침 추운 겨울인데도 추위를 무릅쓰고 돌보아 주었다。 친구가 역질에 죽었는데 공이 찾아가 조상하고 그 부모와 자식들을 위로하였으며 매번마다 가난한 사람과 거지를 보면 곧 주머니를 풀어 도와 주었다。 대체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였다。 아들과 조카들을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일가중 아이들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역시 집에 데려가 키우면서 가르치었고 사람들과 대하며 사랑으로 하여 모두에게 환심을 얻었으며 초상난 곳에 가면 애도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며 만일 친척중에 두 차례 홍문관에 오르면 의정부에서 누락시키었다。 정승 정태화가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움직으로 높은 벼슬을 하게되자 나는 빨리 진급한 것을 시기하였는데 아쉽게도 정승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젊었을때 일찌기 밤에 글을 읽는데 손님이 찾아와 말하기를 역적의 옥사가 곧 일어나면 반드시 별시를 볼 것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글을 짓지 아니하고 글만 읽느냐? 공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느냐며 글 읽기를 계속하였다。 후일 임금의 변고가 있은후에 별시가 있었는데 손님 역시 참여하여

일찌기 공과 더불어 과거에 관한 말을 널리 인용하여 공을 개입시킨 문답을 쓰자 유사는 공을 잡으라고 청하였다。 효종대왕이 특별히 교지를 내려 체포하지 말라 하였다。 그 허망한 것을 어떤말로 꾸짖을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임금의 현명한 것을 칭찬하였지만 또한 평일 말과 행동에 신중한 공을 볼 수 있다。

칠원윤씨는 고려시대 동북면도지휘사 벼슬을 한 휘자 송제가 선조가 되고 대대로 높은 벼슬한 관리가 있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 휘자 석보가 있으니 연산군 시대에 직제학 벼슬을 하면서 바른말을 한 이유로 유배를 당하였으나 후일 청백리로 선록이 되고 증이조참판이 되었다。 고조할아버지 휘 엄은 감역이요 증조할아버지 휘 성은 증승지요 할아버지 휘 자신은 문과에 합격하여 정랑이요 아버지 휘 유길은 군수이니 양세대가 다같이 증참판이었다。 어머니는 증정부인 풍산임씨이니 선교랑 벼슬을 한 선의 딸이다。

공의 배위는 용인이씨이니 아버지는 개성유수를 역임한 후산이다。 시부모 섬김은 효성으로 하고 춘추제사 받드는 것은 공경으로 하고 시누이와 일가간에는 사랑이 흡족하여 모두들 부덕이 있다고 칭찬하였으며 집안이 심히 가난하여도 없는 속에서 판단을 잘하여 사람들이 군색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몇차례 군수의 봉급을 받었으나 마음은 검소하고 절약하였으며 일을 만나면 시원하게 처리하여 구애되는 것이 없으며 비록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얼굴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진짜 옛날에 말하던 여자의 솜씨라 하겠다。 공과는 나이가 같으며 을축년(1685년) 9월6일에 졸하여 공의 묘소 좌측에 부장하였다。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었으니 아들 치적은 병조좌랑이요 서적은 호조정랑이요 응적이는 학생이요 가적이는 관찰사요 경적이는 판관이며 딸은 판관박태여에게 시집갔다。 지연이와 지원이는 좌랑이며 사위 이만모와 함께 큰아들 계출이다。 지임은 군수이고 지화는 정언이며 지순은 진사요 지익은 현감이며 사위 사부유봉협등은 둘째아들 계출이다。 지대는 현감이요 사위는 참군 이형수이니 셋째아들 계출이다。 지호는 진사요 지명이요 사위는 관찰사 이만견이요 서녀는 부사 심제현의 첩이 되었으니 넷째 아들 계출이다。 지술은 진사요 사위는 진사 민우수이니 다섯째 아들 계출이다。 외손은 필신 필부와 두 딸은 사위 수찬 이진견과 여경주이다。 증손과 고손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공같이 높은 재능 뛰어난 덕망으로 현명한 임금의 시대를 만나 당연히 평안하게 살며 벼슬을 하여야 할 것인데 하늘이 그 사람에 준것을 찾아보니 하늘은 그 사람 나이를 막아 만분지일도 펴지를 못하였으니 그것을 운명이라 이를소냐 그러나 그의 청백한 명망과 정

직한 절개는 족히 후세에 영광이 흐르고 그리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복을 받아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 증거로 여기에 있다。

나의 아버지이신 집의공이 일찌기 공과 더불어 교분이 깊고 두터웠다。 그래서 나는 젊어을때도 공을 찾아가 슬하에서 절을하고 풍채를 우러러 본 후에는 공의 아들과도 더불어 교분이 더욱 돈독하여 공의 제행에 아름다움을 들었으며 오늘 그의 묘소하에 나무가 이미 아름들이 되어 여러 아들들까지 거의가 모두 죽고 없어 과거를 더듬어 보면 현재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다。

엇그제는 판관군(경적)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며 생각하여 보니 우리아버지 덕을 아는 이는 자네와 같은 사람이 없는 듯 하다 하여 그래서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 비록 문장가는 아니나 어찌 감히 사양할소냐? 삼가 행장을 가지고 차례대로 앞과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명문을 지었으니 그 명문에 이르기를

아! 빛나는 윤공이여 금옥같은 문장이 늦게 임금에게 알려져 임금 책상에까지 가까이 있었고 정직하고 이치에 맞는 좋은 말은 가을 서리같이 서늘하였도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상하니 곧 벼슬길로 나오게 하여라 하였으니 그 찬양은 글로 다하지 못하겠도다。 어찌하여 저 하늘은 그 유풍을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면서 수명을 길게좀 해주시지 않았는가? 효자는 공경하여 묘소에 비석을 세우니 나의 글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끝없이 될 것 분명하구나。

문순공 권상하 지음

㉗ 掌令公墓碣銘(諱 遇丁) 代言公后 唐津

先朝學士大夫氣像近古處臺閣者多以骫骳爲深恥敢言爲已任若故掌令尹公其著者也公諱遇丁字士衡以天啓丁巳十二月六日生幼聰明好讀書嶷然超出曺偶八歲里人會射長者命公綴句公即對曰當晝月暈不夜星馳衆皆奇之及長以辭賦大振文人才士皆願一識壬午中司馬名重賢甲申遭內艱癸巳春拜金吾郞七月丁外憂丁酉以典設別檢例遷司宰直長庚午徙金吾郞陞工曹佐郞冬出監咸悅縣一切以清約律身而行之以仁恕宿瘼如洗民莫不父母之時當大北設場於縣擧子以考官之失体群起作挐公以禁乱官多所周旋不致罷場而猶不免臺論坐罷而歸髻白攀轅泣別樹石以思之壬寅叙授工曹轉戶曹十月擢庭試文科歷禮兵二曹郞兼春秋拜司諫院正言時兇人尹善道假托論禮嫁禍士林 上震怒安置北邊洪宇遠以玉堂官營救善道公請削宇遠仕版適移騎省再爲司憲府持平時兩司幷論諸宮家及宦寺不法事連被嚴旨公力諫乃得解又嘗與諸僚入陳那災之策惓惓以親賢臣講治道爲先又請祭享之物嚴飭精備太廟儀物之傷破者一齊修改皆蒙嘉納又上疏極論

君德朝廷批曰請對之外更進所悵憂愛之誠予甚嘉之公久在臺者刺擧不避貴近朝右肅然甲辰四月得奇疾授掌令辭遞六月拜京畿道事以十二月十七日考終于正寢壽四十八是月復有掌令除命而公不及知越二月權厝于高陽先塋側丁未永窆于沔川治北駐節洞未向之原後以子貴贈吏曹參判公溫雅介潔簡默自持兒時遇果品不敢先嘗必獻祖父母若父母四歲遭王考喪悲喊如成人宗族咸稱孝兒丙子之亂奉三老親徃避湖中雖倉荒奔迸之際甘旨不乏前後居憂哀毁盡制幾危獲全友愛篤摯一妹有不得於夫家者公與共衣食至析箸擇與田民撫養庶弟妹無間貴賤從兄遘毒癘公悶其不汚達宵共衾朝已不可爲矣時當寒凜盡睨衣衾而歛之友人死於癘公徃哭之恤其老幼每見窮人乞兒輒傾槖而周之盖自少時已然也教子姪以義方族子之有才者亦舍養而訓誨之接人以恩咸得其歡心及喪無不痛悼如親戚再登瀛選漏於都堂鄭相公太和聞公沒嗟恨曰此君從蔭仕擢第未久吾嫌其驟進終未引致於經幄也少時嘗夜讀書客有來言曰逆獄將起必有別詩君何不製而讀耶公峻責曰何其虛妄也仍讀書不輟後有上變者客亦與焉廣引嘗與語慶科者至擧公問答之辭有司請拿公孝廟特教曰勿逮也責其虛妄何言之可問至今人稱聖祖之明睿而亦見公平日言行之愼重也漆原之尹以高麗東北面都指揮使松碑爲上祖代有大官入我　朝有曰碩輔燕山朝以直提學直言流配後選淸白贈吏曹參判高祖諱僎監役曾祖諱誠贈承旨祖自莘文正郎考諱有吉郡守兩世俱贈參判妣贈貞夫人豊山任氏宣教郎瑄之女也公之配龍仁李氏其考開城留守後山也事尊長以孝奉蒸嘗以敬處娣姒宗黨之間恩意洽然咸頌婦德家甚貧寒而能扢無中辦有人不知窶色累享專城之養而一心儉約凡遇事洞然處之無碍雖有不平事絕不見色辭眞古所謂女士也與公同年歿於乙丑九月六日祔公墓左擧五男一女男致績兵曹佐郎叙績戶曹正郎凝績學生嘉績觀察使景績判官女適判官朴泰興曰志淵志源佐郎女壻李萬模長房出志任郡守志和正言志淳進士志益縣監女壻師傅柳鳳協二房出志大縣監女壻忝軍李衡秀三房出志浩進士志溟女壻觀察使李晩堅庶女爲府使沈齊賢妾四房出志述進士女壻進士閔遇洙季房出外孫弼莘弼傅二女歸修撰李眞聖呂慶周曾玄多不盡錄嗚呼以公之高才雋望得遇明奇宜若平步亨衢天究厥施而天嗇其年未展万一尙所謂命也歟然其淸名直節足以流光於來世而後承蕃昌福祿未艾理之可徵者其在斯歟余先子執義公嘗與公交誼深厚以故余於少時亦揖拜公於床下景仰其風懿後與公諸胤交誼甚篤益聞公制行之義今其墓木已拱而諸郞亦幾盡零落撫徃傷今悲不自勝乃者判官君以狀授余托以墓文曰顧瞻斯世知吾先德者莫子若也回泣懇不已余雖不文義何敢辭謹撮其狀叙次如右係之以銘銘曰於赫尹公金玉章脫結主知近御床謇謇昌言凜秋霜　王曰嘉乃進塗揚飛不盡翰奈彼蒼遺風未沫令命長孝子翼翼碣玄堂我筆不愧昭無彊

文純公　權尙夏　撰

㉘ 참판공묘갈명(휘 지화) 대언공후 서울

윤정랑관 지임의 자는 군중이요 그의 아우는 고인이 된 정언관 휘 지화인데 자는 혜보요 아호는 남강이다。 지임이 그 아우를 위하여 나에게 비문을 부탁한지 일년이 되도록 응답을 주지 아니하였다。 아 슬프도다。 내가 혜보에게 어찌 한마디 말을 아낄소냐? 다만 혜보가 생각나는 것은 출중한 인재로서 탁 트인 길이 눈앞에 있어 영광의 진로가 본래 정해져 있었으나 처음으로 대간의 직책을 받고 상소한 말이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어 이래서 내가 밉게 보아 등용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끝이 났으니 나로써 혜보의 비문을 짓는다면 그 혹시라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아니하겠지? 그러나 채씨가 비석을 세워 자기 길을 지키려고 글로 지어 구공의 비행을 들추어 내어 세상의 소인들이 좋아하였지만 채씨가 죽음에 구공이 그를 위하여 비문을 지었으니 내 비록 구공의 이론을 감히 모방하지는 못하지만 혜보의 비문을 지음이 생각컨대 채씨의 비석과 무엇이 다를소냐? 비록 그러하지만 구공이 비문을 지어 도리를 지킨 것은 오히려 비방의 불꽃이 꺼지기를 기다린게 되었지만 혜보가 비방한 불꽃은 현재 이미 꺼졌는지 꺼지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것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내 나이가 이미 여든살이 넘어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또다시 기다린다는 것은 옳지 아니하여 이내 순서대로 비문을 짓노라。 윤군의 관적은 칠원이며 사헌부장령을 역임하고 이조참판에 추증된 휘 우정의 손자이며 호조정랑을 역임한 휘 서적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나주 박씨이니 강화부사를 역임한 세기의 딸이다。 숭정후 경자년(1660년)에 윤군이 출생하여 기사년(1689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기묘년(1699년)에 문과에 발탁되어 최초로 승문원에 선발되었고 이어서 예문관으로 들어가 검열시교 시강원설서를 역임하였으며 임오년(1702년)에는 전적겸 선전관으로 승진하여 병조좌랑으로 임명받고 사간원정언으로 옮겨서 상소하여 임금의 덕과 조정에 대한 극언을 하였으니 그 문장을 요약하여 말하면 임금이 게으르고 안일하면 반드시 뱃놀이 사냥에 빠지지 아니하면 여색에 음탕하게 되는 것이며 오직 그 생각하고 있음이 해이해져서 국가 일에 오로지 정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는 태만과 안일이 심하여서입니다。 소신은 전하의 경연관에서 개강하실 때와 빈청에서 응접하시는 때를 살펴보았더니 여러 신하들이 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나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부르는 소리가 없는 것이 그 한가지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매번 여러 신하들이 일을 아뢰오면 일찌기 반복하여 익숙히 강론하고 자세히 토론하고 연구하시지 아니하여 한쪽자리 신하는 겨우 확정

된 것을 앞에서 뺏아가고 한쪽자리의 신하는 또 다시 간청에 의해 뒤에서 변경시키며 혹 금년에 행하자고 말해놓고 내년에 중지시키며 혹 오늘 논란이 끝난 것을 내일 변경하고 있어서 조정의 명령들이 이미 안팎으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법이 전도되고 모든 업무가 부서져 직무가 이것 때문에 국가의 결정이 꺾어졌으니 무진년 사건 이후로 연계된 사람은 일제히 혁파를 하시고 이미 일정한 법을 둔 뒤에도 모든 궁내에 새로 점유한 자리가 또 얼마인지 알지 못하여 죄인의 옥사가 최초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자주 엄격한 훈령을 내리시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무리는 결코 살려둘수 없다며 하루 걸러 엄하게 형을 내리고 거듭 칙명을 내린 적이 또 두세번이 아니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미리 먼저 국문을 중단하시고 과실자들을 너그럽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두 대신들을 벌주라고 요청한 장계가 처음으로 나옴에 전하께서는 두 신하의 마음씨를 깊이 살피시어 자세하게 하교를 주셨습니다. 소신은 그때에 기주라는 직책으로 모시고 있기에 임금님 말씀을 듣고 간책에다 써놓았는데 얼마되지 아니하여 파직시켜 내쫓고 또 방치하여 놓아 처리하시었고 강세구를 사면시킨 것은 특별한 뜻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임금님 뜻은 반드시 두신 바가 있으되 대간의 신하들이 조치를 머물러 두자고 요청한 것은 오로지 전죄인 강세구를 벌준 경중이 당초와 같아야 되는데 이미 임금의 하명이 내려져 도리어 땀이 흐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아 셀수없는 우리 백성과 국내외의 모든 신하는 우러러 모시고 크게 앙망하는게 오로지 전하의 한몸이라 임금께서 말씀 한마디 내놓으시면 신명같이 받들어 모시는데 오늘날에는 명령을 내면 이행하기만 생각하고 돌이켜 훈계할 것은 생각지 아니하여 한결같지 못한게 없지도 아니하오니 이는 전하의 의지가 서지 못한 병일뿐이라 하였으며 끝부분에는 또 인재와 언로등의 일을 논한 것이 여러백가지를 말하였는데 임금께서 비답에 말하기를 이 말을 올린 것은 사실상 나의 병폐를 맞추었다며 깊이 가상하게 여기였으나 그러나 조목 조목 펼친 여러가지 일을 아울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또다시 돌려 놓았던 상소장 뜻을 해석해 보더니 홍문관을 당연히 처치하라 하였는데 부제학인 김진규가 윤군의 상소문중에 서책에 써놓은 글 한구절로 비사가 누설되었다며 파직하기를 요청하여 임금께서 윤허하여 파직되었다. 1년여가 되어 계미년 가을에는 평안도사로 쫓겨나가 추위를 당하여 농토를 점검하며 수천리를 달리다가 병이 깊어져서 서울로 돌아와 관직을 사표내었다. 갑신년(1704년) 10월에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처음은 경기도 광주에다 장례를 하였고 2년

을 지난 병술년에 양주가오리 동북동향(신좌)의 산등으로 이장을 하였다. 처음 아내는 연안 이씨이니 군수인 봉조의 딸이며 윤군과 합장을 하였으며 두번째 부인은 안동 권씨이니 선비인 상의 딸이다.

아들인 경종이는 이씨의 소생이며 스무살에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윤군이 죽었을 때에 상례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딸은 소실에서 낳아 이태제에게 시집을 갔다. 경종은 아들은 없고 딸은 어린이이다. 윤군은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심히 받아 집안에 일이 있으면 어렵던 쉽던 크던 작던간에 반드시 윤군에게 의탁하여 이루게 하였으며 형제와 모든 집안에 일이 있으면 역시 반드시 윤군에게 질의하여 윤군의 말을 얻은 연후에야 뜻에 차게 되었으며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넓이하고 어진이를 친히하여 각자 그 정의를 다하였었다. 그가 병이들자 날마다 찾아와 문병을 하였으며 그가 죽어서는 울며 슬픔을 다하여 모두들 친척같이 하였다. 슬프도다. 윤군의 재능으로 아름다움이 여기에서 중지된 것은 운명인가보다. 옛날부터 말하기를 직위가 덕과 맞지 아니한 사람은 후세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윤군의 아들이 또 일찍 죽었으니 장차 누구에게 보답을 맡기고 또 장차 무슨 말로 위로할소냐? 윤군의 거듭된 회포를 풀어주려 하니 슬프기만 하구나. 명문에 이르기를

대저 사람은 태어나 모두 한번 죽는 것이 있으며 팔다리를 온전하게 죽어야 이것을 보고 말하여 효자라 하는데 하물며 그 마음까지 온전히 하였으니 죽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다.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매우 가지고 싶은 것이다. 만일 직위도 높고 장수도 하며 또 만일 후손까지 계승되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천부적인 현철이 있었으나 간혹 여기에서는 막히게 된다네. 오늘 내가 윤군에게 무엇으로 슬픔을 달리할소냐? 그대를 위하여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문자만이 있으니 비문으로 소명하게 하여 끝없이 보게들 하였노라.

신묘년 8월 일 세우다.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 관상감사세자사치사봉조하 남구만이 짓고
가선대부경기도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순찰사 박필주는 쓰고
통훈대부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겸 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동학교수 이세최는 전액자를 쓰다.

㉘ 參判公墓碣銘(諱 志和) 代言公后 서울

尹正郞志任字君重 爲其弟故正言志和字惠甫號南岡 乞銘於余有年 未有以報也 嗟乎 余於惠甫 豈靳一言哉 第念惠甫 以逸群之才 坦途在前 榮進素定而初拜諫職 疏語及余 以此見嫉 當路坎壈以終 以余而銘惠甫其或不足信於人也

耶 然 蔡君謨石 守道 皆作詩以訐歐公 爲世睢盱而其卒也
歐公 皆爲之銘 余雖不敢擬歐公之立言而惠甫之可銘 顧何
異於蔡石耶 雖然 歐公之銘守道 猶待謗焰之熄 未知惠甫
謗焰 今己熄乎否也 此余所以不能無躊躇 今余之齒ㅣ己踰
八十矣 死在朝暮 不可復待 乃序而銘之 君 籍 漆原 司憲
掌令贈吏曹參判諱遇丁之孫 戶曹正郞諱敍績之子 妣 羅州
朴氏 江華府經歷世基之女 以崇禎後庚子歲 生君 己巳 登
進士 己卯 擢文科 初選承文院 尋入藝文 歷檢閱侍敎 侍
講院說書 壬午 陞典籍兼宣傳官 除兵曹佐郞 遷司諫院正
言 上疏 極言君德朝政 其略 曰人君怠逸 非必荒於遊畋
淫於聲色 惟其志慮解緩 不能專精國事 是 怠逸之甚者 臣
竊瞷 殿下 經筵開講之時 賓廳引接之際 臣僚祗候於閤門
外而自朝至晏 宣召寂然 此其一事也 殿下每於臣僚奏事
未嘗反覆熟講 仔細討究 一筵臣 纔定奪於前 一筵臣 又請
變於後 或有講行今年而明年 罷之者 或有論勘今日而明日
改之者 朝家命令 既不見信於中外 政刑之顚倒 庶務之叢
脞 職由於此 宮家折受凡係戊辰以後者 一併革罷 既有定
式而其後 諸宮新占之地 又不知其幾何 科獄之初出也 殿
下屢下 嚴敎曰此輩 斷無生理 間日嚴刑之 申飭 又不翅再
三 至於今日 徑先勘斷 過置寬典 昨年 兩大臣 請罪之啓
始發 殿下深燭兩臣心事 丁寧賜諭 臣 於其時 入侍記注之
列 仰聆天語 書之簡冊矣 曾未幾何 既罷既黜 又置付處
姜世龜之原赦ㅣ出於特旨 伏惟 聖意ㅣ必有所在而臺臣 請寢

之措語 只是前罪世龜所坐之輕重 猶夫當初而既下 成命
不免反汗 噫 億兆群生 中外諸臣 所仰戴而顒望 只是殿下
一身 王言一出 奉若神明而今於令出 惟行不惟反之訓 不
無參差 是 殿下志不立之病耳 末 又論人才 言路等事 累
百餘言 上 答曰玆進言 實中豫病 深用嘉尙 然 條陳諸事
並不見納 君復引避開釋疏意 弘文館 當處置 副提學金鎭
圭 以君疏中 書之簡冊一句語 謂漏泄秘史 請罷職 許之
錮廢一年餘 癸未秋 黜補平安都事 當寒檢田 驅馳關塞數
千里 疾敓 還京解職 甲申十月 竟不起 初葬廣州 越二年
丙戌 移葬楊州加五里申坐寅向之原 初配 延安李氏 郡守
奉朝女 葬祔君 繼配 安東權氏 士人想女 一子 敬宗 李出
年二十 成進士 君 歿 不勝喪 一女 權出 適李泰躋 敬宗
無子 有一女 幼 君 居家 甚得父母心 家有事 難易巨細
必托君以成之 昆弟諸宗 凡有事 亦必質之君 得君之言然
後 滿意 其於朋友 泛愛親仁 各盡其誼 其病也 日來訊問
其歿也 哭之盡哀皆如親戚焉 嗚呼 以君才 美止於斯 命矣
夫 古稱位不稱德者有後 今君之子 亦夭矣 將於何乎責報
又將以何辭慰 釋君重之懷ㅣ悲夫 銘曰
凡人之生 皆有一死 全形而歸ㅣ是曰孝子 矧全其心 歸而無
媿 念人之道ㅣ斯爲極摯 若位若壽 又若後嗣 有命存焉 非
可自致 雖在先哲 或嗇于此 今余於君 何用嗟異 爲君不朽
唯有文字 銘以昭之 眎于無止
辛卯八月 日 刻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致仕奉朝賀

南九萬 撰

嘉善大夫京畿道觀察使兼水軍節度使開城府留守江華府留守巡察使

朴弼周 書

通訓大夫行弘文館副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東學教授

李世最 篆

◇

㉙ 목사공묘갈명(휘 경룡) 대언공후 장단

공의 휘는 경룡이요。 자는 운중이며 칠원윤씨이다。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있다。 고려시대에 휘 송제가 있으니 동북면도지휘사 벼슬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휘 석보가 있으니 홍문관직제학 벼슬을 하였으며 연산군 갑자년(1504년)에 직언을 한 이유로 유배중에 죽었는데 후일에는 청백리로 선록이 되었고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다。

5대를 전해와 휘 유길은 평창군수를 하여 호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고 휘 우정을 낳았는데 사헌부장령 벼슬을 하여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으며 휘 서적을 낳았으니 호조정랑을 하여 이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휘 지순을 낳았으니 진사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에 추증이 되었으니 이분들은 공의 4세대 조고가 된다。 비는 증정부인 창녕조씨이니 현령이며 증이조참판이고 하은군에 봉해진 조헌주의 딸이며 회곡선생인 조한영의 손녀이다。

윤씨들은 세상에 문장으로 크게 소문이 나 있으나 거의가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달성한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여 세상에 크게 현달하지 못하였다。 공은 풍부한 인격과 화려한 명망으로 이론가로 관가에 연결되었으며 대신들도 또한 공을 중용하고저 하였으니 대체로 몇대간의 조상의 음보가 공에게서 크게 발현되려고 하였지만 공도 또 일찍 졸하였다。 공은 어려서 고아가 되었기에 공부에 독려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문리가 빨리 이루어져 과거보라는 소문이 있어 무자년에 성균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얼마후에 오래있으면 과거시험에 불리하다며 선대의 음덕으로 영휘전 참봉으로 보직을 받았고 정릉참봉으로 이전하였으며 금부도사가 되어서는 병으로 사직을 하였다。 경술년(1730년)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의정부에서 직책을 맡았는데 직위가 말석이라서 전적으로 승진시켜 병조좌랑으로 전근이 되었으며 정언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홍양 현감으로 나갔는데 이 홍양골은 크지만 폐단이

있어 간사한 무리들은 척결시키고 폐추된 것은 수리를 하고 큰 흉년을 만나 구휼하는 법도를 두어 정치의 길로 삼았었다。본래는 홍양은 주에서 현으로 강등되었는데 한계에 이르러 목으로 장차 승급시키려는데 공은 직위가 하급직이라 교체가 당연하나 임금께서는 대신들의 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흉년에 좋은 관리를 잃으면 불가하다며 특명으로 목사로 승진시키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이 공의 빠른 진급을 시기하여 본래 직위에 앉혀두라고 요청하는지라 교체되어 주사랑으로 돌아와서 관동지방 곡식 운반을 감독하였다。계축년(1733년)에는 홍문관으로 들어가 교리에 임명되었다。

그 전에 당파인끼리 무고사건이 있었는데 이산배가 정승으로 선출되니 이산배는 공과 함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정승됨을 빙자하여 모든 함께 과거 본 사람들을 혼동시키고자 하거늘 공은 이 사람을 의리로 인도하여 모든 사법부를 맑게 하려고 곧 극구 사양하여 취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잠시 금영랑으로 부임하였으며 또 수찬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때마침 왕비가 병이 들어 공이 병 간호에 참여하여 정성껏 여러 날을 돌보고 있다가 약원을 물리며 지름길로 나오다가 관리들을 대면하니 이미 환직하라는 하명이 있었다。곧 상소를 올려 자신을 인책하니 임금께서 심히 꾸짖어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구분은 엄격한데 약원이 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무엇때문에 말하느냐? 하시며 특명을 내려 보은 현감으로 보직 받았었다。그때에 보은 지방에는 큰 감옥이 있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갇혀있었다。공이 부임하면서 곧바로 사면시켜 놓아주고 농사를 권고하고 세금을 균등히 하여 교화에 돈독히 하기를 홍양의 정치같이 하면서 더욱 더 세밀히 하였다。돌아올 때에는 주민들이 각자 마을에다 비석을 세웠으며 승려들도 역시 비석을 세워 송덕을 하였다。

을묘년(1735년)에는 부수찬으로 불러들여 잠시 후 교체하여 다른 직책을 주었지만 모두 취임하지 아니하고 의주부윤으로 선발이 되었으나 공에게 통보가 늦어져 아득히 후열에 있었는데 조정의 의논은 빨리 등용하자고 하였기에 그래서 벼슬을 제수하였지만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묘하게 저지하고 대신들이 교체하자고 말을 올렸다。

병진년(1736년)에는 어사로써 남한지방을 검열하여 군대식량을 돌려 주었다。교리로 임명받고 또 의로운 법으로 전과같이 인도하는데 임금의 하교가 더욱 엄하여 축출되어 고산에서 고을살이하시다가 얼마후에 교리로 소환되었다。

정사년(1737년)에는 다시 의주부윤으로 임명받았으나 공은 또 여러차례 사양하다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부임하여 정치하기를 백성을 구휼하고 군대를 훈련시키

며 변방을 엄하게 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의무를 삼았으며 중국사신이 관사에 도착하였는데 접빈사가 옛날 조례에 따라 칙서를 비밀리에 열어보니 바로 빈 함뿐이었다。 접빈사가 크게 놀래거늘 공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사사로운 함에 들어있으니 다른 이유가 없을 뿐이라 하였다。 임금께서 소식을 들어 조정에 의논이 몹시 술렁이었는데 이미 과연 공이 생각한 대로 같았다。

다음해에는 연좌제가 끝나 이미 호서지방 절도사로 임명받고 나갔는데 이 호서지방은 명문거족이 많아 대성씨들이 연대하여 호세를 부려 국민의 피해가 되고 있었다。 임금께서 능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공을 파견하며 완급을 맞추어 하라고 교시를 내렸는데 공은 관부를 순찰하여 늠름한 풍채를 유지하며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거듭 바로잡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니 호세를 부리던 가문들이 크게 두려워 하였었다。

때마침 계속하여 흉년이 들어 국민이 곤궁하여 공이 재해마을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임금에게 알려 밝혀놓고 해안변에 옛 세금을 제거하고 농정을 균등히 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고 의심나는 옥사를 결단내리고 죄수를 사면하고 사찰을 중수하여 공양미를 모으게 하고 형틀을 수리하여 낱낱이 분명히 하였으며 모든 사찰에서는 이자를 받아 각종 승려들의 비용으로 쓰게 하고 학자를 길러 낼 자금을 세워서 유학을 권면시키었으며 수천냥 돈을 내놓아 허물어진 역사를 보수하는데 쓰게 하였으며 또 남는 곡식 5만석을 특별히 모아 흉년에 대비하였으니 모든 일 처리의 상세함이 이러하였다。

기미년(1739년)에는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하게 되었지만 동부승지로 특명을 받았으며 다시 좌부승지로 임명을 받았다。 신유년에는 장단부사로 있다가 관동백으로 이전하라는 임명을 받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공을 무고하고 있어 사양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나 연하여 우승지로 임명되었으며 병조참지、 참의까지 하였다。 계해년(1743년)에는 정주목사로 나갔으며 그 다음해엔 6월29일에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향년은 59세이었다。

공은 재능이 있고 학식이 많아 실정을 연구하고 응접에는 민첩하여 백번 버림받았어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았다。 공은 처음에는 금오랑으로 있었다。 무신년 옥사를 당하여 상소문이 좌우에 구름같이 모였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기를 유창하게 하였다。

어느날 임금께서 직접 신문하는데 낭관은 임금의 뜻을 전하며 죄수들을 꾸짖는 말들이 있어도 먼저 말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인데 낭관이 물으며 급하게 말하려고 하거늘 공이 곧 왕 앞에서 일어나 손으로 가렸는데 임금께서 가상하게 여기였다。 이래서 이름이 알려지고 벼슬도 하게 되어 꼭 처리하고자 하는 말은 공이 구차

히 명령받지 아니한게 생각났다。 비록 몇차례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이런 일 때문에 공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 전에는 경연 신하들께 말씀하기를 일찌기 금오랑 벼슬을 하였지만 그 사람됨이 넓고 박식하며 오늘날 다시 너를 보고 싶었다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를 보지 아니한다하여 신하가 임금을 보지 아니한 것은 듣지를 아니하였다하였으니 그것은 은총을 베풀음이 이와 같이 된 것이라 하겠다。

공은 일찌기 은총을 버렸지만 공은 재상의 덕망이 있었다。 묘당에 빛나는 것이 있으면 공의 성명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공은 그래서 윗 사람과 아래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나 공은 당쟁하는 세상에 살았어도 굴복하고 추앙하는 유순한 태도를 즐기지 아니하였으며 오래도록 미관말직에 갇혀 있었으며 마침내 또 흉년이 들어 타향에서 죽기까지 하였다。

슬프도다 공은 조정에 들어온지 오래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좋고 나쁜 관직을 가리어 타협하지 않고 대충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특히 그 한 두가지 일의 공로가 지방군수때의 정치에 나타나 있어 기록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어찌 족히 공의 모든 것이 다 될소냐? 공은 관리 생활때문에 어버이 봉양을 제대로 못한 것을 지극한 슬픔으로 여기어 선조 모시기를 독실히 하였으며 계모와 형수 봉양을 어머니 같이 하여 우애의 도를 돈독히 하였으니 대체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바가 있었다。

공의 전처는 평산 신씨이니 목사의 딸이며 후처는 영일 정씨이니 참봉 벼슬을 한 찬헌의 딸이다。 신씨부인은 아들 정국이를 낳았으나 일찌기 죽었고 정씨부인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으니 태국과 사국이며 딸은 이재협에게 시집을 갔다。 정국이 딸은 남은로에게 시집을 갔고 태국의 아들은 어린이이다。 경기도 장단 반룡산 동쪽 산기슭 원당동 남남동향(임좌)에 신씨부인과 더불어 합장으로 장사를 지냈다。

계해년(1743년) 겨울에 나는 사신의 명을 받고 심양으로 가다가 공과 더불어 신안관에서 밤에 술을 마시었는데 나는 이미 취하여 공에게 말하기를 당신같은 재능으로 어찌해서 오래도록 이 자리에 있게되었소? 공은 비록 말로 감사하였지만 그의 뜻은 나같은 사람과는 같지 아니하여 서로 알 수가 없었다。 아 누가 공이 여기서 그처 취중에 한 한마디 말이 마침내 천추의 결별이 될것이라 하였더냐? 슬프도다 명문에 이르기를

칠원윤씨 가문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현달하였지요。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도 문무관리가 계승되었도다。 공은 고아로 분발하여 화려한 소문이 일찌기 났지요。 재능은

두루 갖추고 지식은 통달하여 가는 곳마다 모두 해당이 되었지요。그늘진 곳에서 굳세게 살아 오래오래 멈추었다가 형통하였지요。신선누각 높고 높아 여러 신선이 편안한 집이로다。공은 홀로 머뭇거리고 물러서 의리로 인도하기 더욱 확실히 하였지요。생각이 나서 다시 얼굴 보고 임금께서 여러번 감탄 하였지요。마침내 외직에 종사하여 군수도 하고 왕실의 번병도 하였다네。대범하여 우뢰와 같았고 섬세하여 빗살 같았지요。위엄있고 굳세어도 외로운 사람들 사랑하고 도왔지요。그릇은 좋지 아니하여도 앞에는 막히고 섞이지 아니하였고 시대를 만나지 못하여도 임금을 도움은 독실히 하였지요。그리고 출세만을 꾀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에게 허물이 있다고 이를소냐? 수명이 길지 아니하였으니 하늘은 또 무슨 까닭일까? 언덕같은 무덤에 어진 아내를 옆에 부장하였지요。내가 이 비문을 지어서 백대까지 알리노라。

숭정기원후백십구년병인(1746) 월 일

조현명은 짓고

조명교는 쓰고

박문수는 전액을 쓰다

㉙ 牧使公墓碣銘(諱 敬龍) 代言公后 長湍

公諱敬龍 字雲仲 漆原尹氏 以新羅太師諱始榮 爲鼻祖 麗朝 有諱松礴 東北面都指揮使 入 本朝 有諱碩輔 弘文館直提學 甲子 以直言 流配卒 後 選淸白吏 贈官吏曹叅判 五傳而有諱有吉 平昌郡守 贈戶曹叅判 生諱遇丁 司憲府掌令 贈吏曹叅判 生諱叙績 戶曹正郎 贈吏曹參議 生諱志淳 進士 贈吏曹叅判 是爲公四世也 妣 贈貞夫人昌寧曺氏 縣令 贈吏曹叅判夏恩君憲周 女 晦谷先生漢英 孫也 尹氏 世以詞翰鳴碩 多不達 其達者 又不壽 不克大顯於世 公 以豊材華望 結主知廟堂 大臣 亦有欲重用公者 蓋將累世不食之報 大發之於公 公 又遽逝矣 公 早孤 不煩課督而文理驟達 有場屋聲 戊子 登國庠 已而 久不利南省 蔭補 永禧殿叅奉 移 靖陵叅奉 禁府都事 以病免 庚戌 擢庭試 分隷槐院 以資窮例 陞典籍 轉兵曹佐郎 遷正言 出洪陽縣監 洪邑 大而弊 剔奸 釐修瘝隆 歲値大祲 賑賙有法 治爲一路最 始 洪 以州降縣 限滿 將陞牧 公 資淺當遞 上因大臣言 諭以灾年 不可失良吏 特命陞牧使 公議惜公 徑陞 請寢之 遞歸 以籌司郎 督運關東穀 癸丑 入瀛 錄拜 校理 先是 有黨人誣枳 李山培 槐選 山培 公之同榜而又有藉此 欲混枳全榜者 公 以此引義 一切三司淸顯 輒力辭不就 間差禁營郎 又除修撰 時 坤宮患疹 公 爲叅起居 黽勉持被數日 及藥院退 徑出對吏 旣 命還職 卽疏自引 上

切責曰君臣分嚴 藥院 直不直 何論 特補報恩縣監 時 邑
有大獄 多寃滯 公 至即疏放 勸農均賦 敦教化 如洪之政
而加密 及歸 民 各竪碑坊里 僧徒 亦伐石以頌之 乙卯 以
副修撰 召 乍遞旋授 皆不就 擢拜義州府尹 公 通藉既晩
渺然在後列而廟議－欲亟用之故 有是除 有不悅者－巧沮之
大臣 白遞之 丙辰 以御史 反閱南漢 餉穀竣還 除校理 又
引義如前 批敎加嚴 責黜高山丞 未幾 以校理 召還 丁巳
復授義州 公 又屢辭 迫而後 始勉赴 其爲治 以恤民練卒
嚴邊禁廣軍儲 爲務 北使到館 儐臣 據古例 密啓勅書 乃
空函也儐臣 大驚 公曰是 必齎私篋 無他故耳 及 上聞 朝
議頗洶 既而 果如公所料 翌年 坐文法罷 既敘出按湖西節
湖西 多巨室 大族 盤結豪橫 爲民害 上 臨陣遣公 諭以弦
韋之宜 公 按部 凛然持風 凡有干憲 輒重繩不少貸 豪家－
大畏之 時 荐歉民困 公 奏蠲灾邑新賦 除沿海舊逋 均田
政 賑飢民 斷疑獄滯囚 重修雙樹城峙糧 繕械劃米 諸寺
使之取殖 以資南北番僧之費 建養士庫以勸儒學 出數千緡
錢 以補殘驛公用 又別儲羨穀五萬斛 以備荒歲 其綜理纖
悉 類此 己未 因事拿罷 叙拜同副承旨 復拜左副 辛酉 以
長湍府使 移拜關東伯 有怒甲而誣訐公者 辭不赴 連拜右
承旨 兵曹叅知 參議 癸亥 出牧定州 其明年六月二十九日
感疾不起 得年五十九 公 器局恢曠 才識周通 閑於事情
敏於應接 投之百 爲盖裕如也 始公 以金吾郎 當戊申逆獄
文案 左右雲委 目閱手書如流 一日 上 親訊問 郎 以傳旨

詰囚有句語 不宜先泄者而問郎 倉卒欲信口讀 公 即起前
手掩之 上 嘉之 自是 知公名及釋褐 必欲置之論 思以公
堅不膺命 雖屢有 譴補 然 亦以此重公 嘗語筵臣曰曾爲金
吾郎 見其爲人恢通 今欲更見爾 又曰君不見臣 未之聞也
其眷注如此 公 早負 公輔望 凡有廟剡 公名 未嘗不在其
中 公之所以得於上下者 可知矣 然 公 處黨比之世 不肯
爲俯仰暖姝之態 久困積薪 卒又無年 身 客死異鄕 悲夫
公 立朝不久而又自畫淸塗 言論風旨不槩見 獨其一二事功
之著於州郡薄臬之治者爲可紀 然 此何足以盡公耶 公 以
祿不逮養 爲至痛 篤於奉先 奉養仲母與丘嫂 如母 敦友道
盖有人所難及者 公 前配 平山申氏 牧使 女 繼配 迎日鄭
氏 參奉纘憲 女 申夫人 乳一男鼎國 早夭 鄭夫人 乳二男
一女 泰國 師國 女 適李在協 鼎國 一女 適南殷老 泰國
一子 幼 葬于長湍盤龍山東麓元堂洞負壬原 與申夫人同穴
癸亥冬 余奉使瀋陽歸 與公 夜飮新安舘 余既醉 語公曰以
君才器 豈當久於此耶 公 雖辭謝 其意若不以余 爲不相知
者 嗚呼 孰謂公 止斯而酒中一言 遂爲千古之訣耶 噫 銘
曰漆原之世 顯于羅麗 逮入 我朝 圭組承之 公奮孤童 華
聞早馳 才周識通 履展皆當 屈于蔭塗 久屯而亨 瀛閣岩嶢
群仙攸宅 公獨逡巡 引義愈確 思復見面 明主屢歎 遂從外
試 于邑于藩 大則霆擊 細則梳櫛 威戢强梁 仁周煢子 謂
器不利 前無盤錯 謂時不遇 君相所篤 而用不究 有孰厥咎
壽之不永 天又曷故 宰如之丘 祔以賢配 我爲銘詩 以詔百

代

崇禎紀元後百十九年 丙寅 月 日

趙顯命 撰

曺命教 書

朴文秀 篆

◇

㉚ 좌찬성공묘갈명(휘 경종) 대언공후 풍덕

성균관진사인 윤공의 휘는 경종이며 자는 효백이다。아들인 사국의 벼슬로 인하여 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으로 추증이 되었다。공은 바로 나의 고모부가 된다。나의 선친께서 일찌기 말하시기를 효백은 문학도 있고 덕행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명이 짧아 애석하구나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씨가 맑고 깨끗하였는데 그가 일찍 죽었으니 어찌 이럴수가 있었을까?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여동생은 효도하고 우애하고 정숙하고 현철하여 여러가지 재능과 지식이 있어 당연히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생과 사의 지극한 슬픔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의 명도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라 하시는 것을 나는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 감히 잊지를 아니하고 있었다。

오늘은 공의 아들이 외람되게도 나에게 묘비문을 부탁하니 그 어찌 차마 사양을할소냐。삼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편역하여 순서대로 지으니 공은 칠원인이며 그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였다。조선시대에 이르러 휘 석보가 있었으니 벼슬은 직제학이었는데 연산군 시대에 바른말을 한 이유로 귀양가서 졸하였으며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포상하여 이조참판에 추증이 되었고 청백리로 선록이 되었으니 이분은 공의 9대조고가 된다。증조의 휘는 우정이니 사헌부장령을 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었고 조고의 휘는 서적이니 호조좌랑을 하여 이조참의에 추증이 되었고 아버지의 휘는 지화이니 사간원정언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연안 이씨이니 군수를 하여 좌찬성에 추증된 봉조의 딸이다。

공은 숙종대왕 시대에 태어나 일곱살에 어머니를 잃어 외할머니에게서 자라며 자력으로 글을 읽어 스무살에 성균관 진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얼마후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위독하여 몸소 약제를 다리며 밤낮으로 옷을 벗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슬퍼하였으며 상을 당하여는 몹시 슬퍼하다가 마침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을유년(1765년) 3월5일에 졸하였으니 살아온 나이가 겨우 26살이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총명하며 얼굴이 수려하고 명랑하여 평일 삶에 말이 적고 웃는 모습이었으며 천성적으로 지극한 효성이 있어 그 아버지인 정언공을

모시면서 자상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워 소망을 위배한 적이 없으며 또 계모를 잘 섬겨 기거동정을 잘 받아드리어 잊고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어린 여자동생들을 사랑으로 모두 올바르게 하니 여러 부형들께서 자제중에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하는 사람을 말하려면 반드시 먼저 공을 거론하였다。 술을 심히 잘 마시어 정언공께서 몸이 손상된다고 하니 공은 그 교훈을 삼가 받아들여 이때부터는 일찌기 취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재능과 예술이 일찌기 성취되어 나이 17세에 서정부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문장체가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 정밀하고도 간결하여 요지를 잘 발휘하여 당시 선비들이 모두들 입신양명을 기대하였는데 흉년들던 해에 또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도다。

배위인 유인임천조씨는 바로 나의 할아버지 인천부사를 하시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신 현기의 일곱째 딸이며 병조판서인 김공 휘 좌명의 외손녀이다。 무오년에 태어났는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예쁘고 유순하여 일찌기 여사란 명예를 얻었으며 이미 시집을 가서는 시부모 섬김에 정성과 예절을 다하였으며 여자의 일과 부엌일에 하는것 마다 옳지 아니한게 없어 정언공에게서 소중한 사랑을 크게 받았으며 남편의 초상을 당하여는 슬픔을 참고 눈물을 거두고 손수 대소의복을 재봉하여 염습옷을 준비하여 놓고 이내 거적자리에서 피눈물로 울며 다시는 남편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니 그 후 3년 지난 무자년(1768년) 5월5일에 마침내 남편을 따라 자결을 하였다。

1남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젖 먹을 때에 일찍 죽었고 딸은 대사헌 벼슬을 한 정광충에게 시집을 갔다。

공의 묘소는 처음은 광주에 장례를 모셨으나 무자년에 양주 삼산동으로 이장하여 부인과 합장을 하였으며 갑오년에 또다시 풍덕 남사동 남남서향(계좌) 산등으로 이장을 하였는데 부인을 좌측에 부장하였다。

양자인 사국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이 되었으며 바로 공의 사촌동생이며 관찰사 벼슬을 한 경룡의 셋째 아들이다。 아들형제를 두었으니 진사에 합격한 재급이와 재회이고 대사헌인 정광충이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이름은 창조이며 부솔이란 벼슬을 하였다。 딸 둘이 있으니 현감인 이천목과 수찬관인 이창한에게 시집을 갔다。

원래 공은 병이 들면서 관찰공에게 글을 지어주며 뒷일을 부탁하였는데 공이 죽은 후로 24년 되던 무신년에 대사간인 사국이 태어나고 또 32년 되던 기묘년에는 관찰공과 정씨부인 명으로 공의 제사에 시동으로 오게하고 얼마후에 또 조정으로부터 책명을 받아 제사의 의식을 갖추게 되었고 질녀들까지 빛나니 하늘의 운수를 헤아릴수 있음이 과연 여기에 있었다 할까?

아 나의 아버지는 선비들과 우애가 매우 돈독하신데 공과는 그 정의가 친형제와 같았으며 공의 내외가 계속하여 죽는데 이르자 슬퍼하고 가련히 여기어 장례를 맡아하고 그 어린 딸까지 데려다가 기르시었다。내가 어려서부터 귀로 들은 것은 공과 부인의 현숙한 행동과 아름다움은 법도가 아닌것이 없었으며 그리고 깨끗하고 엄하여 감히 자세히 말하지 못하였고 나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서술하여 공손히 비석의 뒷면에 써놓았다。나의 아버지는 지평 벼슬을 하시고 휘는 정순이다。명문에 이르기를

효자로다 공이여 저명한 아버지에 아름다운 아들이었다네。또 나의 고모께서는 명문의 여사이었지요。하늘이 좋은 짝으로 만들어 주어 집안을 진실로 좋게 하였지요。옥이 부서지고 구슬이 침몰하였으니 무슨 운명이 이처럼 기구할소냐? 옛 집안에 주인이 없는지 50여년이 되었도다。후대를 계승하여 제사올리니 과연 공의 싯귀와 부합하고 있도다。남겨놓은 서적을 수습하고 퇴락된 집을 수리하였네。벼슬한 자손이 사당에 올랐으니 제사일 매우 분명하여 졌도다。이 묘소에 새로운 길이 났으니 풍덕천 물 가득하여라。공손히 비석 머리에 서술하였으니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도다。

자헌대부이조판서겸 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제학오위도총부 도총관 세자우빈객 조명정이 지었다

㉚ 左贊成公墓碣銘(諱 敬宗) 代言公后 豊德

成均進士尹公 諱 敬宗 字 孝伯 以子師國 貴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公即吾 姑母夫也 吾先子 嘗曰孝伯 有文有行而不幸 短命 惜也 又曰心事 太澹潔 其殀豈以是歟 又曰吾妹-孝友淑哲 兼有出人才識 謂宜享有遐祉而生死極悲 諒天道 不可諶 小子心識之 未敢忘 今公之胤子 猥屬墓銘 其何忍辭 謹繹過庭之聞 爲之敍次 公 漆原人 上祖 諱 始榮 新羅太師 入我 朝有諱碩輔 官直提學 燕山時 以直言 謫死 中廟改玉 褒贈吏曹參判 選淸白吏 是爲公 九世祖 曾祖 諱 遇丁 司憲府掌令 贈吏曹參判 祖 諱 叙績 戶曹佐郎 贈吏曹參議 考諱 志和 司諫院正言 妣 延安李氏 郡守 贈左贊成鳳朝之女 公 以肅宗生 七歲 失所恃 鞠於外氏 能自力讀書 二十成進士 未幾 正言公 遘疾彌留 公 躬執藥餌 晝夜不解帶憂悴成病 遭艱 哀毁又甚 遂不起 乙酉三月五日 得年 堇二十六 公 資質純明 眉眼秀朗 平居寡言 笑恂如也 性至孝 其奉正言公 洞屬怡愉 志物靡違 又能善事繼母 承順周旋 瀜洩無間 愛幼妹感摯 諸父兄 論子弟中 敦孝友者 必先擧 公 酒戶甚寬 正言公 戒其傷生 公 謹受教 自是 飮未嘗至醉 才藝夙就 年十七 作西征賦 辭采-煒然爲功令精遒簡潔 善發題意 一時士友 咸期以立揚 無年 又不勝喪

哀哉 孺人林川趙氏 即我祖考仁川府使贈吏曹判書顯期之第七女 兼兵曹判書金公諱佐明之外孫也 生於戊午 英慧婉順 早得女士譽 旣于歸 事舅姑 克殫誠禮 女紅中饋 無適不宜 大爲正言公 所愛重 及其喪所天 忍慟收淚 手裁縫大小衣衾 以備歛襲 仍泣血苫塊 不復見天 後三年戊子五月五日 竟下從 擧一男一女 男 乳而夭 女 適大司憲鄭光忠公 始葬廣州 戊子 遷于楊州三山洞 與孺人 合窆 甲午 又移窆於豊德府南獅洞里坐癸之原 孺人 祔左 繼子師國 文科大司諫 即公 從父弟觀察使敬龍 第三子也 有二男 進士載伋 載僖 鄭大憲 一男 昌朝 副率 二女 縣監 天穆 修撰李昌漢 始公疾病 贈詩觀察公 托以後事 公歿後二十四年戊申 大諫 生 又三十二年己卯 以觀察公 貞夫人 命 來尸公祀 俄又策名于 朝 芬苾備儀 蘭玉聯輝 天道之可諶 其果在是也歟 嗚呼 吾先子ㅣ於孺人 友愛甚篤 推於公 情好如親兄弟 及公內外 相繼殞歿 哀而憐之 經紀葬埋 收育稚女 小子ㅣ自幼時 盈耳者 無非公與孺人之淑行 懿範而性潔禮嚴 不敢覼縷 惟先子言 是述 敬書於石之背 先子 持平公諱正純 銘曰

孝哉維公 名父佳子 亦我姑母 法門女士 天作好逑 家室允宜 玉碎珠沈 何命之奇 舊宅無主 餘五十朞 穀似之祝 果符公詩 收拾遺書 整頓頽楹 緋衣上廟 祀事孔明 載塋新阡
豊水瀰瀰 敬述螭首 自天無愧

資憲大夫吏曹判書兼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世子右賓客　趙明鼎

◇

㉛ 송와공묘갈명(휘 심의) 충효공후 부여

진사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심의요 자는 중진이요 호는 송와며 관적은 칠원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 태자태사요 중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에 문하시중이며 시호는 충효이다. 12대를 전하여 고조의 휘는 방언이요 증조의 휘는 자임이요 조의 휘는 상덕이요 고의 휘는 명국이며 어머니는 평산 신씨이니 아버지는 필구이다. 공은 영조 갑술년(1754년) 6월24일에 출생하여 순조 경인년(1831년) 2월8일에 졸하였으며 묘소는 현재 부여군 초촌면 송정리 정좌 동남향(건좌)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타고난 자태와 영리함과 양심으로 인륜을 지키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리를 다하더니 성장하여서는 가정교육을 이어 받아 학술을 습득하고 행동을 근신하며 향리의 자제에게 효도와 우애의 도리와 학문의 업을 권장케하니 고향에서 칭찬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정조대왕 병오년에 영동의 향시에 응시하여 처음으로 진사에 합격하였다. 과거보러 가던 날 밤에 호랑이가 개를 물고 가다가 공의 옷위에 피를 뿌린 꿈을 꾸고 또 신주함이 파괴되어 수리하는

꿈을 꾸고 장원급제 하였다고 한다。 그후로 국학인 성균관에 들어가 생원 진사들과 같이 경서와 시편을 강독하고 귀향할 때에 자신이 지은 시에 이르기를 서울의 친구들이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소나무 숲 깊은 곳에 누워 책을 읽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공의 취미가 고상한 것을 이름이요 또 묘를 모시던 날에는 광산 김기조가 만장문에 이르기를 문장이 주옥같아 조정에서 사가고 덕망은 북두성 같아 온 세상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니 공의 문장과 덕행의 조예가 당시에 소문이 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는 안동 권씨이니 아버지는 보이며 영조 을사년(1725년) 10월24일에 출생하여 정조 정유년(1777년) 9월16일에 졸하고 묘소는 공의 묘소 왼쪽 등성이 동남향(건좌)이다。 계배는 부안 서씨이니 아버지는 수응이다。 순조 임오년(1822년) 8월11일에 졸하여 묘소는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종안리 남남동향(해좌)이다。 4남2녀를 두니 양자는 영회이니 생부는 홍의요 차자는 영은과 영창과 영화이며 장녀는 전의 이제승과 차녀는 청주 한광유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치학과 양자로 간 정학과 필학、용학、구학、효학、제학、충학、신학이며 증현손 이하의 여러손들은 생략하였다。 아 순조 기유년(1849년)에 공의 증손자인 병하가 공의 가상한 언행록과 친구지간에 주고 받은 유고문 약간으로 송와집을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또 금년도에는 공의 후손들이 상의하여 묘비를 구비하여 세우면서 졸렬한 나에게 비문을 요청하여 백대의 일가 정을 사양할 수가 없어 유집을 널리 참고하여 앞과 같이 대략 서술하고 감히 명문에 이르기를 대대로 받은 가정교육이여 노성군의 선비 가문이라 학문을 세워놓고 근신하여 몸을 수행하였도다。 영동으로 과거보러 가기 전날 신령한 꿈을 꾸고 장원급제하였도다。 성균관에 들어가 생원과 진사들과 강론하였도다。 훌륭한 선조를 따라 고향에서 살았지요。 문장은 조정에서 사갔으니 천추에 존경받게 되리라。

서기 1997년 정축 2월 일

족후손 홍수 삼가 짓다

㉛ 松窩公墓碣銘(諱 心誼) 忠孝公后 扶餘

進士公 姓尹氏 諱心誼 字仲眞 號松窩 貫漆原 始祖 諱始榮 新羅太子太師 中祖 諱桓 麗末門下侍中 諡忠孝 十二代 傳 高祖 諱邦彦 曾祖 諱自任 祖 諱商德 考 諱鳴國 妣 平山申氏 父 必龜 公 英祖甲戌六月廿四日生 純祖庚寅二月初八日卒 墓 今扶餘郡草村面松丁里丁宗乾坐原 公自幼 天姿穎悟 良心秉彝 愛親敬長 道理長成 庭訓承襲 學術習得 操行謹愼 隣里子弟 孝弟 道 學問 業 勸勉 鄕黨 稱之不已 正祖丙午 永同 鄕試 應參 初試進士 附試日 公 衣上 鮮血 神主函 破碎 縫緝 壯元 後國庠 成均館 登

入 生員進士 經義詩篇 講吟歸鄕 自題詩 京洛故人 如我
問 松林深處臥看書 公 志趣 高逸 寃孪 光山金箕照 挽章
文如玉琢三朝售 望若高斗一世知 公 文章 德行 造詣 知
名當世 配 安東權氏 父 俌 英祖乙巳十月廿四日生 正祖
丁酉九月十六日卒 墓 公位左岡乾坐 繼配 扶安徐氏 父
洙膺 純祖壬午八月十一日卒 墓 公州郡灘川面德芝里宗安
亥坐 有四男二女 系男 永會 生考 弘義 次 永誾 永昌 永
和 女長 全義李濟升 次 淸州韓光裕 出嫁 孫男 致學 出
系貞學 弼學 龍學 龜學 孝學 悌學 忠學 信學 曾玄以下
諸孫 略錄 嗚呼 純宗己酉 公 曾孫炳夏 公 嘉尙 言行 知
舊問 與受 遺稿略干 松窩集 登梓頒布 今年 公 後孫 僉
議 墓儀 謹具 拙余 請銘 百代親情 辭讓 傳集 博考 如右
略序 敢 銘 世襲庭訓 魯城儒門 學術樹立 謹愼操身 永同
踏槐 靈夢壯元 登入國庠 生進講筵 高蹈逸躅 托在林泉
文售三朝 推重千年

檀紀四三三〇年 丁丑 二月 日

族后孫 弘洙 謹識

※ 參考：松窩集 乙丑譜都監

◇

㉜ 몽엄공묘갈명(휘 방직) 대언공후 칠원

우리나라는 영조대왕과 정조대왕의 융성한 시대를 만나 남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면 모두들 벼슬자리를 얻었다。 비록 초야에 버려져 등용되지 아니하였어도 자신들이 그 문학과 예술의 지기를 믿고 일찌기 벼슬을 찾아 나가기에 급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드물었으며 능히 명예에 매여있음을 벗어나 숨어서 효도와 사랑을 수행하여 농사짓는 일을 하며 순순연하게 군자의 학문을 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그 시대를 논하여 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여 보면 오직 몽엄윤공이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에 가깝다고 할까?

공의 휘는 방직이요。 자는 내승이며 성은 윤씨이니 관적은 칠원이다。 신라시대에 태사벼슬을 하신 휘 시영은 시조가 되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지나며 후대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으며 집현전 학사인 휘 지는 단종대왕이 왕위를 양보하고 있어 여러차례 초빙하였어도 일어서지 아니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양성당 선생이라고 호칭하였다。 양성당이 휘 희규를 낳았으니 생원에 합격하였고 그가 휘 인우를 낳았으니 현감 벼슬을 하였다。 그후로 5대를 지나 휘 탕필을 낳았으니 참봉에 선발이 되었다。 이 분이 공의 증조부이며 조고의 휘는 종구이며 아버지의 휘는 찬연이며 참봉 벼슬을 하였는데 장수하여 중추부동지사란 수직을 받았다。 어머니는 정부인 초계 변씨이니 변서홍의 딸이다。 영조대왕 을해년(1755년) 8월12일에 공이 출생하였으니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이 있어 부모들이 병이 있으

면 근심스러워 먹지를 아니하였다。아버지가 혹시 외출을 하여 저물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면 공은 먼저 밥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심한 추위와 심한 더위라도 반드시 어버이 곁에서 모시고 있어 오직 옛날 사람들을 본받고 있었다。늘상 말하기를 학문이 하천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지극한 소원이 있으니 이 학문보다 중요한 것이라 하고 오로지 어버이를 모시고 받드는 예절에 뜻을 두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병들은 때에 이르러 가래침과 소대변은 손수 자신이 씻어내며 일찌기 남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며 병이 위독하면 칠성님께 기도하였고 손가락을 찢어 피를 드리기까지 하여 다하지 아니한 일이 없었다。초상에서 장례까지 슬프고 당황하여 단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 올라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게을리 아니하여 나뭇군들까지 감동하여 울었었다。

후일 어머니 초상을 당하여서도 아버지 초상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상기를 끝내고 죽청동에다 집을 정하고 농사와 독서로 법을 삼았으며 형제간 세 사람이 자고 먹는 것을 공동으로 하였다。오동나무를 담장 동쪽 모서리에 빙둘러 심어 놓고 집안식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였으며 삼세대가 공동으로 살면서 한번도 이간하는 말들이 없었으며 비록 동서간의 합치기 어려운 사이라도 역시 보고 느낀바가 있어 그 본성으로 돌아왔으며 자제들이 잘못하면 앞에 앉혀놓고 종일토록 말을 아니하고 자신들이 깨닫게 하였다。

일찌기 꿈에 죽은 아버지를 뵈었는데 아버지가 참을 인자를 공의 손바닥에 써주며 두번이나 두드리며 말하기를 너는 그 참을 인자를 생각하고 있어라 하니 공은 깜짝 놀라 깨어 새벽에 묘소로 가서 자신이 종아리를 쳐서 피가 줄줄 흐르게 하고 곧 울면서 말하기를 소자는 미련하여 아는 바가 없으나 그러나 받은 참을 인자는 이제부터 감히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였다。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누가 얼굴을 붉히고 앞에 서서 싸움의 발단을 일으켜도 공은 곧 꿈의 경계를 생각하여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였다。그후로 몇일만에 그 사람이 아프지도 아니하고 죽으니 바로 자신의 아호를 몽엄이라 말하였다。

당시 학사와 고관들중에 시문으로 칭찬 해준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

공의 선대 묘소들은 경상도 칠원에 있어 공의 선친이 그 일가인 판돈녕 벼슬을 한 사국씨와 더불어 상의하여 종계인 돈보계를 설립하였는데 선친이 죽음에 이르러 공은 해마다 판돈녕공에게 품의하여 제향을 경건히 올리고 화목을 수행하고 시문예절 가르치기를 선친의 옛 규모와 같이하여 감히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판돈녕

공은 비록 직위가 재상급에 이르렀지만 공에 대한 경의가 조금도 해이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도 역시 섬기기를 화기애애하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여 오직 종친간의 옛 정의 뿐이고 절대로 빙자하여 출세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그러나 농촌에서 살면서도 나라의 걱정과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두고 있어서 변방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서북방에 재해가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가뭄을 제거하고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글로 심경을 토로했으며 우아한 심성과 청렴한 절개를 시험삼아 알아보려고 공에게 벼슬을 매수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은 정색하며 말하기를 선비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며 마침내 고향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자신을 위하는데 마음을 두었으며 경서의 깊은 뜻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중용과 대학에 힘을 다하여 많은 사실을 얻어냈으며 한가지 경서 뜻을 얻으면 매번마다 기록하여 자제와 조카들에게 보여 맛있는 음식을 혼자만 배부르게 먹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평생토록 진실하게 살며 자랑한 적이 없어 현명한 식견이 있어도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또 스승과 친구들이 추앙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담성 송환기와 이남학과 주취정 같은 여러 저명한 석학들과 마음의 벗을 삼아 늙으면서 더욱 돈독히 지내었다。순조 병술년(1826년) 10월6일에 임종하니 향년은 72세이며 죽청동 남향(자좌)에 장례를 하였다。아내는 밀양 박씨이니 박원오의 딸이며 묘소는 남편묘와 합장하였으며 자손이 없어 형의 아들인 상권을 양자를 하였다。상권의 아들은 명의이고 명의의 아들은 영수이며 영수의 아들은 봉학이 있고 계학은 양자를 갔으며 정학과 회학도 있다。정학이 공의 친구인 홍문섭이 지은 행장을 가지고 찾아와 나에게 비문의 명문을 요청하여 이 행장을 증거로 지었다。명문에 이르기를

나는 다른 일은 한 적이 없고 부모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는것만 그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도다。비록 내 앞에서 어깨를 드러내고 모욕하여도 유유히 참을 인자로 족히 몸가짐을 바로 할 수 있다네 아 나 소자는 빨리 허리띠에 써서 이런 이치 분명하게 귀신에게 질정하였네。선비로 몸소 농사짓는 소망 길게 맺었고 선생은 서민으로 덕을 펼쳤지요。죽청리 옛 마을에 이사람 없다면 누가 수신제가 알아 가장 진실한 것 배웠으랴? 나는 이 비문이 사라질까 애석해 하노라。

응천 박정선은 삼가 지음

㉜ 夢广公墓碣銘(諱 邦直) 代言公后 漆原

國朝値 英正盛際 君子者皆得其位 雖遺於野而不用 自負其文藝志氣 未嘗汲汲於干進者鮮矣 能超然名累 闇修其孝

慈耕稼之實而循循爲大人之學者尤鮮矣 論其世而觀人則
夢广尹公 庶幾爲尤鮮者歟 公 諱 邦直 字 乃承 姓 尹氏
籍 漆原 新羅太師諱始榮 爲肇祖 歷麗韓 奕世卿相 爲國
忠盡 有集賢殿學士諱志端廟遜位 累徵不起 世稱養性堂先
生 生諱希奎 生員 生諱仁佑 縣監 歷五世 諱湯弼 擧參奉
寔公 曾大父 大父諱 宗龜 父 諱 燦然 參奉 耆爵同知中
樞府事 妣 貞夫人草溪卞氏 瑞興之女 英廟乙亥八月十一
日 公 生 幼有至性 父母有疾 心憂不食 先公 或駕外 至
暮不返則公 不先飯 雖祁寒甚暑 必侍親側 惟古人是則 常
曰學文 不是細事 然 吾有至願 有甚於是者 乃專意於在侍
溫凊之節 及先公 寢疾 唾嚏厠牏 手自浣滌 未嘗委人 疾
劇 禱于北辰 斫指進血 靡不用極 其喪而葬而 哀遑靡逮
晨夕上墓 擗擗哀毁 寒暑不懈 樵豎 爲之憾泣 後丁內艱
一如前喪 服闋 卜居於竹淸之洞 以耕讀 爲規 兄弟三人
枕被同之 環植梧桐于墻東一區 聚宗親於斯 三世同居 一
無間言 雖娣姒之難合 亦自觀感而移其所性 子弟有過 命
前坐終日無言 使其自悟 嘗夢拜先公 先公 書一忍字於公
之掌 中之以答曰爾其念哉 公卽驚悟 晨往墓所 自答其壓
血漣如矣 乃泣告曰小子頑無知 然 所受字 從此不敢斯須
忘墜矣 其翌 忽有人 艴然至前 若起爭端 公 輒思夢徵 忽
不與較 後數日 其人 不病而死 乃自號曰夢广 一時學士大
夫以詩文 讚之者甚多 公之世葬 在漆原 先公 與其族判敦
公師國 議立宗契 及先公 歿 公 歲稟于判敦 虔祀享 修敦
睦 講詩禮 如先公舊規 罔敢少忽 判敦 雖位至公卿 敬公
未嘗少弛 公 亦事之閭閻然所相愛好 惟宗親古誼 絕無藉
是圖進取 然 處畎畝而有憂國死公之心 聞邊虜起而西北災
恨未能發身幹韜 誅鋤蕣亂 大庇飢寒 發於言志之詠 雅性
廉介 一赴試圖 有要公售輒徑者 公 正色曰士子寧有此行
遂决意歸鄉 留心爲己 研窮經旨 尤致力於庸學 多所實得
得一經旨 每書示子侄 如珍味之不欲獨飽 平生 悃愊無華
不以賢知加人 又不喜師友推奬 然 如宋性潭李南壑周翠庭
諸名碩 許以心交 老而益篤焉 純廟丙戌十月六日 終 享年
七十二 葬竹淸洞子原 配 密陽朴氏 元五 女 墓 祔 无育
以兄子商權 后焉 尚權子 明誼 明誼子 永壽 永壽子 鳳學
啓學 出后 正學 喜學 曰正學 持公之心友洪公雯燮 所撰
狀文 請余爲顯刻之銘 是可徵也 銘曰
我無他事可經綸 心父母心爲厥仁 縱有當前袒裼論 油油一
忍足持身 嗟我小子亟書紳 此理明明質鬼神 處士躬耕志契
莘 先生布衣德侔陳 竹淸里古巷無人 誰識修齊學最眞 我
銘祇是惜其湮

凝川 朴正善 撰

◇

㉝ 만옹공묘갈명(휘 치방) 부원군후 복내

고종 병인년(1866년)에 불란서 적군이 서울로 침
입하려 할 때 전라도 관찰사인 이관연이 의병청을 설치

하고 여러 군읍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그 당시 온 나라가 떠들썩하여 응모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었다。이 때에 보성사는 선비 윤치방이 나이 73세로 건장한 노인이 용맹을 자랑하며 피로한 것을 잊고 군막으로 달려가 나라를 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었는데 비록 난리가 평정되어서 중지되었으나 그는 관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남들보다 먼저 날쌔게 싸움터로 달려가 싸우다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었으니 옛날 열사들이 의리에 죽고 절개에 죽는 것이 그의 뜻과 어찌 다를소냐?

아 충의의 마음이 있고 학문에 근본을 두어 소중한 의미의 구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공은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효성스러워 7세때부터 어버이를 모심에 성실하고 순진하고 유순하여 이미 어버이의 마음과 몸의 봉양을 잘 하였으며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도 역시 천부적인 것이어서 가르치고 독려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분명히 살피었으며 정자와 주자학을 독실하게 믿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았으며 백가제자의 책은 불결하게 여기었다。집안이 가난하고 어버이가 늙어 몸소 농사짓고 나무하여 집안 살림을 도왔으며 50세부터는 광탄 선산아래로 나가 살며 무아라는 현판을 걸어놓고 학생을 받아 학문을 강의하는 것으로 평생을 끝내려 하였으나 늙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식구를 법으로 교화시키어 마을까지 미치었으며 남전여씨 같이 향약을 설치하여 덕행의 가르침을 돈독히 하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였으며 향교를 중수하여 제향을 정결하게 올리고 속된 풍속을 바로 잡았었다。

그가 어느날 아침 분발하여 나라의 난에 달려가게 된 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늙을수록 더욱 대우받는 것을 근신하며 회혼례가 되던 나이 84세에 집에서 편안히 임종하였으니 그는 정조갑인년(1794년)에서 고종정축년(1877년)까지가 출생과 임종이며 그리고 8월21일은 제삿날이다。치북복내향 유정리 뒷산 기슭 천동 동남향(건좌) 산등에 장례를 하였는데 만장문을 듣고 울면서 호상한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렀으며 다음 해인 기묘년(1879년)에는 전라도 유생들이 상소문으로 의로운 행실을 천거하여 공을 장례원장으로 추증하게 되었다。유고 두 권을 간행할 계획이다。

공의 자는 광국이요 호는 일치이며 또 만옹이라고도 하였다。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사공 휘 시영부터 빛나는 가문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5세대 선조들이 재상이 되고 7세대 선조가 군호에 봉해졌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휘 자량은 칠제백에 봉해지고 충간공으로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휘 겸은 아호가 괴정이니 학문과 덕행이 있으며 벼슬이 승지에 이르렀다。증

조부는 태복이며 조부는 재린이며 아버지는 필성이며 전주 이씨 재권의 딸이 공의 어머니이니 행실이 단정한 부인으로 소문이 났으며 정씨는 재현이 아버지가 되며 관적은 창원이다。 4남1녀를 생육하였으니 아들은 병덕、 병례、 병무、 병오이며 딸은 함양 박기섭의 아내가 되었다。 형원、 경원은 장자 소생이고 만원이는 차자 소생이며 태원、홍원과 사위 정재구는 작은 부인 소생이며 금원이는 계자의 소생이며 종손 현손들은 번다하여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공의 종손인 호혁、 호준、 종래가 마을 선비인 소신규、 이종필과 더불어 나를 찾아와 비석의 명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충성과 효도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윤리이고 공이 이미 충효에 유감이 없고 여타는 추측하면 되겠기에 마땅히 옛 명문의 법식을 좇아 짓는다。 비명문에 이르기를

높고 높은 공이여 효자이며 충신이라네。 충성은 비록 펴보지 못하였어도 그 의지는 하늘같이 끝이 없도다。 표창의 영전이 늦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사시었다。 백세가 지나도 어느 사람인들 누가 흠모하고 추앙하지 아니할소냐?

양재 권순명은 삼가 지음

㉝ 謾翁公墓碣銘(諱 致邦) 府院君后 福內

高宗丙寅 洋寇沁京 本道兵使李寬淵 設義廳 召募列邑義士時 擧國 沸衄 頗鮮應募 于是 寶城士人尹公致邦 以年七十三 矍鑠覃勇 負病赴幕 樂於敵愾 縱因亂平而止 其不以布衣而後於人 銳然赴難 以死自肩則視古烈士殉義伏節其意豈異也 嗚呼 非性於忠義 本於問學而辦得熊魚之分者能然乎 公 天性 仁孝 自能侍親 洞屬愉惋 已能善其志體之養 其嗜學也 亦根天賦 不待教督而自力斤斤 篤信程朱爲己之說而不屑擧子業 以家貧親老 躬執耕樵 以充廚供中年 徃依廣灘楸下 揭扁無我而受徒講學 若將終身 晩復還故里 式化家率 推及鄕鄙 設藍約 以敦風敎恤貧窶 修聖廟而潔粢盛矯夷俗 其一朝奮發 以赴國難 可謂有所自矣謹刑于 老益賓敬 壽躋回耆而以年八十有四 考終于寢 正祖甲寅 高宗丁丑 其生終而八月二十一日 諱辰也 葬于治北福內鄕楡亭後麓泉洞抱乾原 輓誄哭送 計以數百 再明年己卯 鄕道儒生 疏擧行義 贈公掌隷院正 有遺咳二局 將付鋟行 公 字 光國 號 一癡 又曰謾翁 漆原氏 譜于羅室太師諱始榮嫌閔 麗中 有五相七君而入本朝 諱子良 封漆堤伯 諡忠簡 諱謙 號槐亭 學行 官至丞旨 曾大父 曰泰復大父 曰在麟 父 曰必成 宗室李氏在權 女 其妣而著壼儀齊 曰丁氏 在鉉 父而昌原 籍也 育四男一女 男 炳德 炳禮 炳茂 炳午 女 爲咸陽朴基燮妻 衡遠 景遠 長房生 萬

遠 仲房生 泰遠 洪遠 女鄭在九 叔房生 金遠 季房生 曾玄 繁不錄 公 曾孫鎬赫 鎬俊 鍾來 與鄕章甫蘇臣奎 李鍾弼 謁余以係牲之銘 余惟忠孝 人之大倫 公已無憾則餘可推也 法宜銘 其銘曰

卓卓乎公 而孝而忠 忠雖未展 志則靡穹 褒典不遲 天爵炳朗 百世何人 孰不欽仰

陽齋 權純命 謹撰

◇

㉞ 금파공묘갈명(휘 동근) 충효공후 청양

원도라는 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 이르고 행동하여 옳게 가는 것을 의라 이르고 이것을 따라 가는 것을 도라 이르고 자신에 만족하여 다른 것을 바람이 없는 것을 덕이라 이르나니 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일찌기 풍부한 학문이 있었어도 영화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실로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성현의 도의를 잡아 반드시 자기부터 밝힌 연후에 집안에 행하게 하였고 또 후배까지 교화하였으니 그 도가 정확하여 고립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교육에 힘써서 격려도 하고 분발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위대하지 아니할소냐?

삼가 찾아보니 공의 휘는 동근이요 자는 진원이고 호는 금파이니 융성한 칠원윤씨 후손이다。 시조는 신라시대 태사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시고 중세에 현달한 선조는 고려시대에 문하시중 벼슬을 하고 충효공으로 추증받은 휘 환이시고 그후 8대를 전해와 조선시대에 휘 준제는 문과에 합격하여 성균관전적 벼슬을 하였고 6대를 전해와서 고조할아버지의 휘는 효달이니 지극한 효행이 있었고 증조의 휘는 재적이고 할아버지 휘는 상의이고 아버지 휘는 영구이니 다같이 학문과 덕행이 있었으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니 홍규잡의 딸이며 태사공 은열의 후손인데 자손이 없었으며 계모는 서산 유씨이니 유명주의 딸이요 문간공 성간의 후손이다。

공은 헌종정유년(1837년) 5월26일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행동거지가 단아하였고 효도와 우애가 지극히 돈독하며 학문에 힘쓰고 예술이 뛰어나 일찌기 유학의 근원에 능통하여 학문이 넓고 행동이 독실하여 한 시대에 으뜸이었지만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피하여 도덕의 의의를 함양하며 영남과 호남을 두루 유람하며 후학을 교육시키었는데 그의 교훈 글에 말하기를 어린시절은 잠깐만에 지나는 것이니 아끼어 책속에 있는 기이한 것 많이 채취하길 원하노라。 절제와 검소는 군자의 도이니 검소한 의복이 오히려 비단 옷보다 나으니라 하였다。 고종무술년(1898년) 4월10일에 졸하였으니 향년이

62세이었다。당시에 공의 아들도 함께 죽어 손자인 혜원이 초상을 행하였는데 나이가 겨우 20세이였는데 슬퍼함이 법도를 넘었으며 초상과 제사에 옛 법도를 준수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칭송하여 말하기를 노련한 성인과 같다고 하였다。또 영남과 호남 지방의 문하생들 중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20여인이나 되었다。청양군 목면 신홍리 엄전동 윗골 5대조고 묘소 아래 남향(자좌)에 장례를 하였고 아내는 무안 유씨이니 유태철의 딸이며 송은공 천의 후손이다。헌종병신 2월29일에 출생하였으며 어진 부인의 덕행이 있어 집안을 화합하였는데 남편보다 27년전인 고종신미(1871년) 8월1일에 죽어 향년이 36세이었다。남편 묘소 주산의 왼쪽 가장자리 동남향(건좌)에 장례를 하였으며 2남1녀를 생육하였다。작은 부인은 풍양 조씨이니 군수 벼슬을 한 철진의 딸이며 풍양 부원군 문명의 후손이다。철종경술(1850년) 8월25일에 출생하였으며 시문에 능숙하고 부인의 도리를 잘 지키었는데 고종을미(1895년) 8월21일에 졸하니 향년이 46세이며 남편보다 3년전이며 자손이 없다。

큰 아들은 병직이고 차자는 병열이며 딸은 예안 김휘민에게 시집을 갔다。병직이 아들이 없어 아우 병열의 아들인 혜원을 양자로 삼았고 병열이 2남을 두었으니 큰 아들은 혜원인데 백부에게 양자로 나갔고 차자는 춘원이다。혜원이 2남을 낳았으니 종규와 종광이며 춘원이 3남을 낳았으니 종갑、종수、종덕이다。또 종규가 4남을 낳았으니 홍수、복수、평수、월수이다。종광이 3남을 낳았으니 만수、경수、응수이며 여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공이 세상을 떠난지 83년이나 지나도록 지금까지 묘소에 비석이 빠져 있어 공의 아름다운 업적이 사라질까 두려워 석물일체를 다듬어 놓고 공의 현손인 홍수가 가승과 족보를 가지고 찾아와 나에게 비갈의 명문을 부탁하거늘 나는 졸열하여 감히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고 고사하였으나 끝내 거절 못하고 마침내 그 가승과 족보를 읽어보고 대략 서술하였으며 이어 명문에 말하기를

공의 효도와 우애는 출중하였도다。청렴과 검소로 가업을 넓히고 도의를 수양하였도다。유학에 정통하여 항상 성현의 도를 연구하였도다。유교를 권면하면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두루 유람하였지요。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문하생까지 상복을 입었지요。어린 손자가 계승하였어도 노련한 성인 같았다네。금강 북쪽 산등에 공의 묘소가 있는지라。비석에다 사실대로 새기었으니 길이 전승되어 끝이 없으리라。(공의 사적은 정산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980년 경신 2월 16일

후학 월성 최병무는 삼가 지음

㉞ 錦波公墓碣銘(諱 東根) 忠孝公后 定山

原道 云 博愛之謂仁 行而宜之之謂義 由是而焉之之謂道
足乎己 無待於外之謂德 公則其人 曾有學瞻 不求奢華 誠
無恒産 實有恒心者也 以操聖賢之道 必明於己而後 行於
閭內而又敎化後生 其道正而不孤立 垂功於世教 奪勵而興
起矣 固不偉歟哉 謹按公 諱 東根 字 震元 號 錦波 漆原
之茂族也 始祖 新羅太師諱始榮 中顯祖 高麗侍中諡忠孝
諱桓 八傳 朝鮮 朝 有諱遵悌 文科成均典籍 六傳而高祖
諱 孝達 有孝行 曾祖 諱 載蹟 祖 諱 商義 考 諱 永龜
俱有學行 妣 南陽洪氏 奎潛 女 太師公殷說 后 无育 繼
妣 瑞山柳氏 明柱 女 文簡公成澗 后 公 生于憲廟丁酉五
月二十六日 自幼 賦性 聰慧 行儀 端雅 孝友篤至 勉學督
藝 曾通洙泗之源 文博行篤 冠於一世 不求榮達而遯世 以
涵養道德之義 周遊嶺湖 訓誨後學 其訓 曰蒙年可惜寸陰
過 願採書中奇異多 節儉由來君子道 惡衣猶勝繡綾羅 卒
于 高廟戊戌四月十日 享壽 六十二 時 公之胤 俱既歿 承
重孫惠遠 執喪 年僅十二 哀毁踰制 喪葬祭奠 一遵古禮
鄕人 咸頌曰以若老成云 又以嶺湖門徒 加經者 而有二十
餘人 葬于青陽郡木面新興里奄田洞上谷 五代祖考墓階下
子原 配 務安兪氏 士人泰喆 女 松隱公蔵 后 生于 憲廟
丙申二月二十九日 有賢婦之德 一家和融 先公二十七年
卒于 高廟辛未八月一日 享壽三十六 葬于乾位墓主山左邊
乾坐 育二男一女 副室 豊壤趙氏 郡守喆鎭 女 豊陵府院
君文命 后 生于 哲廟庚戌八月二十五日 能明於文詞 善於
婦道 卒于 高廟乙未八月二十一日 享年 四十六 先公三年
无育 嗣男曰炳直 次男曰炳說 女 適禮安金煇敏 炳直 無
嗣 以弟炳說 長子惠遠 爲后 炳說 生二男 長 惠遠 出爲
伯父后 次 春遠 惠遠 生二男 曰鍾奎 鍾洸 春遠 生三男
曰鍾甲 鍾壽 鍾德 又鍾奎 生四男 曰弘洙 福洙 平洙 越
洙 鍾洸 生三男 曰萬洙 京洙 應洙 餘 不殫記 噫 公之捐
世後 八十有三年 尙闕隧道 恐有公之懿蹟之泯 治石鐫珉
公之嗣玄孫弘洙甫 按其家文籍而請余碣銘 余拙不敢當 固
辭 終不獲 遂按其籍而略叙之 系以銘 曰
惟公孝友 卓出於衆 清儉廣業 道義培養 精通洙泗 恒琢賢
聖 勉勵斯道 周遊湖嶺 賓天訃報 經帶門生 稚孫承重 以
若老成 錦水坎原 是公幽藏 鐫珉記實 永傳無疆(公之事蹟
詳載定山誌)

檀紀四千三百十二年 庚申殷春旣望

後學 月城 崔秉武 謹撰

◇

㉟ 비서감승공묘갈명(휘 영달) 대언공후 합천

주례에 여섯가지 행실을 서술하기에 반드시 효도、우
애、화목、인척、우애、믿음、구휼을 말하였으며 공자
께서는 서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부형에게

효도하고 우애하는 교훈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대저 인간 심성의 선이 효도와 우애에서 발생하여 백가지 덕과 백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진실로 이 효도와 우애를 잘하면 그 또한 천성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를 수 있다. 고인이 된 윤영달씨 같은 사람이라면 곧 효도와 우애에 가깝다고나 할까?

공은 칠원윤씨 후손이며 자는 경윤이다. 신라시대에 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 시조가 되시고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이르며 문무관리가 계승되었다. 성종대에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는 청백리로 저명하였는데 연산군 갑자사화시에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바로 이분의 13대조고가 된다. 선조시대에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으로 추증된 휘 탁연은 광국훈신까지 책훈되었다. 이 헌민공의 장자인 휘 경원은 임진왜란시에 순직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장공으로 시호가 추증되었으며 차자는 검열 벼슬을 하였으며 휘는 길원이니 자손이 없어 충장공의 차자인 선교랑 벼슬을 한 휘 태기로 양자를 하였으니 바로 공의 8대조고 이상이 된다. 증조의 휘는 주국이고 조고의 휘는 재홍이며 아버지의 휘는 상의이니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효행이 있었다. 어머니인 초계 정씨는 석찬의 딸이다.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 음식을 거절하고 남편을 따라 자결하여 태상무자년(1888년)에 정부가 정려문을 세워주는 은택을 받았으며 면암 최익현 선생이 정려문 글을 지었다.

헌종무술년(1838년) 12월14일에 공이 합천의 팔심리 사저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인 진사공은 예의바른 사람으로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다.

공이 젖을 뗄 때부터 항상 효도와 우애를 가르치니 공은 일찌기 아버지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성장하여는 집안이 심히 곤궁한 것을 알고 크게 탄식을 하고 부모를 봉양 할 것이 없어 근심이 된다며 책을 덮어놓고 여러 아우들을 불러놓고 일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다행히 아들 넷을 두었지만 생각하여 보면 가난하여 살수가 없으니 우리들은 자식이 되어서 차마 아버지 어머니를 굶주리게 할 수 없으니 내가 집안일을 주관하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우리들은 부모도 봉양할 수 있고 집안의 명예도 떨어뜨리지 아니 할 것이라며 이때부터 몸소 농사를 지으며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간혹은 아우들을 독려하여 학문적 성공을 이루게 하였다.

그 이후로 살림이 점차 나아져 아우와 누이 아홉 형제를 시집 장가 보내고 재산을 고루 나누어 주어 모두를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여주고 일가와 이웃을 흉년에 구휼하기까지 자기의 직분을 다하였을 뿐이다.

정축년(1877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초상과 삼촌 아우까지 상을 당하매 정성과 예절을 모두 극진히

하였다。갑오년(1894년)에 동학란이 크게 일어나자 공은 하루밤 사이에 재산을 버리고 피신하여 마침내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

공은 비록 공명에는 뜻이 없으나 일찌기 고향을 떠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여 늙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을 하여 순릉참봉이 되었으며 얼마후에는 감조로가 되어 6품급으로 승진하고 통정대부급에 이르러 비서감승이 되었다。이때부터 세상의 변함이 더욱 끝이 없게 되어 공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나는 문무관리의 양반집 후손이 되어 국가의 은총까지 많이 받았는데 차마 국가가 장차 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죽지 못하는게 부끄러울 뿐이다 하더니 그 울분이 병이 되어 신해년(1911년) 1월14일에 마침내 돌아가시니 나이가 74세이었다。원근 이웃에서 모두들 크게 슬퍼하며 좋은 사람이 타계 하였다고 하였다。그 해 3월 임자일에 팔심리 동향(유좌)에 장례를 하였다。아내는 증숙부인 고창 오씨이며 경학의 딸인데 정숙한 부인의 덕행이 있었으며 남편보다 26년 전인 병술년(1886년)에 죽었으니 나이는 52세이었으며 도장곡 남남동향(임좌) 산등에 장례를 하였다。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으니 큰 아들 순학은 참봉벼슬을 하였고 작은 아들 창학은 주사 벼슬을 하였으며 규학이 있다。딸은 남평 문동학에게 시집갔다。순학은 남평 문응수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었으니 아들은 병국이고 딸들은 의성 김영선과 파평 윤태식에게 시집갔다。창학은 동래 정훈민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넷 딸 둘을 두었으니 아들은 병구、병석、병향、병항이며 딸들은 벽진 이창기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아니하였다。규학은 홍해 최봉화의 딸과 결혼하였다。그리고 증손자와 증손녀들은 모두 어린이들이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위엄있고 정중하며 말씨가 간단명료하고 묵묵하여 바라보면 침범하지 못할 것 같지만 만나보면 따뜻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정을 끌어내게 하였으며 어버이 섬김에 어버이도 그 효도를 편안하게 받아 주었고 형제들 처우에 형제들도 그 우애에 즐거워하였으며 마을의 친족과 이웃들 처우에 마을과 친척 이웃이 그 의리에 복종하며 그 은덕을 칭송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학생을 만나면 근면하게 책을 읽으라고 권고하고 농사꾼을 만나면 근면하게 농사를 짓도록 권고하며 날마다 아침이면 마을을 두루 돌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물어보고 교훈을 잊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곧 권고하여 일깨워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들 두려워하고 사랑한 것이다。매일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자제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사람의 집안이 흥하고 망

하는 것은 반드시 효도、우애、예의、겸양으로 근본을 삼고 음란、사벽、방탕을 경계함에 달렸으니 장기、바둑、도박은 몸에 가까이 하지말고 무당、부적등을 집안에 가까이 하지말고 초상 제사 손님 접대는 차라리 후하게 할 망정 아끼지 말고 내가 먹고 입는 것은 차라리 검소할 망정 사치는 없게 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박대하며 온 집안내에 어른 아이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감히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으며 규율과 계획은 엄정한 조정 정치같이 하며 늘상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사람들도 항상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공경하면 사람들도 항상 공경받는 것이라 하였다。

성공이란 하늘을 오르는 것 같으며 패망은 머리카락을 화로에 태우는 것 같다는 말로 종신토록 자신을 지키는 부적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대저 공의 집안 살림과 마을 생활을 관찰하여 보면 한가지도 효도와 공경에 근본을 두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이런 도리로 나아가면 어디를 간들 옳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참봉이 가장과 폐백을 가지고 찾아와 나에게 비문을 청탁하거늘 속으로 헌민공과 나의 선조되시는 문정공을 생각하여 보니 동일한 시대에 공로와 업적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대대로 우호적인 두 집안의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앞과 같이 지었다。명문에 이르기를

위대한 공은 한 지방의 호걸이라네。그의 행실은 효도와 우애며 그의 덕은 근면과 검소로다。자신은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을 받들었지요。선조를 받들고 후손을 길러 세상에 모범이 되었지요。적선하면 경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치 틀리지 아니하구나。수명은 89세에 올랐으며 직위는 고관의 대열에 이르렀도다。조상의 음덕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자손들이 많고 많도다。내가 지은 비문이 아첨이 아님이 소명하게 후세인들에게 보이리라。

무자년(1888년) 4월 일

숭록대부전이조판서 해평후인 윤용구는 비문을 짓고 아울러 쓰다

㉟ 秘書監丞公墓碣銘(諱 永達) 代言公后 陜川

周禮 敍六行 必曰孝友睦婣任恤 孔子亦引書 惟孝友于兄弟之訓 以爲是亦爲政 蓋人性之善 發自孝友 始而爲百德百行之本 人苟能是 其亦可謂不負天性者矣 若故尹公永達 殆其庶幾乎 公 漆原人 字 敬允 冑于新羅太師諱始榮 歷高麗至本朝 簪組相承 成宗朝 直提學諱碩輔 以淸白 著名 燕山甲子 謫卒 是公十三世也 宣廟朝 漆溪君憲敏公諱卓然 策光國勳 憲敏公之長子諱慶元 殉節壬辰 贈吏判諡忠

莊 次子檢閱諱吉元 無嗣 以忠莊公次子宣敎郞諱泰基 爲
后 是八世以上 曾祖諱 柱國 祖諱 載興 考諱尙義 進士
有孝行 妣 草溪鄭氏碩燦 女 所天喪 却粒下從 太上戊子
幷蒙旌典 勉菴崔先生 記其閭 以憲宗戊戌十二月十四日
生公于陜川之八壽里第 初 進士公 以行義 著鄕里 自公免
懷 每敎以孝悌 公 蚤服庭訓 及長 見家甚窶 慨然以阜魚
所歎生 無以爲養者 爲憂 乃掩卷 召諸弟謂曰吾親 幸有四
子而顧貧不能活 吾爲承家子 不忍二親之饑也 吾當幹蠱
汝則學文 庶吾親有養而且不墜家聲 於是 躬耕稼勤儉 間
鞭策諸弟 俾底成學 已而 貲稍饒 弟妹九人 昏嫁分産 皆
均一營辦 以至恤族隣賑饑荒 當盡其分而已 丁丑 丁兩憂
及叔弟喪 情文 備至 甲午 東匪大熾 公 一夜 折產而避
終免浸汙之羞 公 雖無功名意 嘗一發鄕解未遑 晩始筮仕
爲順陵參奉 久之 以監造勞 陞六品至通政階 爲秘書監丞
自是 世變 益罔極 公 喟曰身爲衣冠之裔 濫受國恩而忍見
宗社將亡 所愧不能死耳 鬱悒成疾 以辛亥正月十四日 竟
不起 壽 七十四 遠近 咸驚嗟 以爲善人 亡矣 用其年三月
壬子 葬于八壽里酉原 配贈淑夫人 高敞吳氏慶鶴 女 貞淑
有婦德 先公二十六年丙戌 卒 壽五十二 別葬于道藏谷壬
原 擧三男一女 男長淳學 參奉 次昌學 主事 奎學 女 適
南平文東煒 淳學 娶南平文膺壽女 生一男二女 男 炳國
女 適義城金永善坡平尹台植 昌學 娶東萊鄭墉氏女 生四
男二女 男 炳球 炳奭 炳馨 炳恒 女 適碧珍李昌基 次 未
行 奎學 娶興海崔鳳和女 曾孫男女 幷幼 公 天性 嚴重
言笑簡默 望之若不可犯而即之溫然 使人 各輸其情 事親
而親安其孝 處兄弟而兄弟樂其友 處鄕黨族隣而鄕黨族隣
莫不服其義誦其恩 遇學者 勉以勤讀 遇農者 勉以勤稼 每
朝 遍歷隣里 問其生活 有忘不能事者 輒勸諭之 由是 人
皆畏而愛之 每夜深無寐 招子弟語 人家隆替 必以孝友禮
讓 爲本 淫邪放蕩 爲戒 博奕樗蒲 不近於身 巫覡符章 不
近於家 喪祭賓客 寧厚無約 衣食自奉 寧儉無奢 量入爲出
厚人薄己 一門之內 無長幼老少 無敢有私畜 規模井井 肅
如治朝 常以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 成立 如
升天 覆墜 如燎毛等語 爲終身符 盖觀公之所以治家居鄕
者 無一不本於孝悌 推是道 抑何往而不可哉 今參奉 以家
狀賫幣 謁銘於余 竊念憲敏公 與吾先祖文靖公 同朝勳績
表著史策 其於世好 義有不敢辭焉 遂撰次如右 銘曰
嶷嶷唯公 一方之傑 孝友其行 勤儉其德 不自標幟 奉此天
則 承先穀後 爲世儀式 積善有慶 其理不忒 壽躋耆耋 位
列緋玉 餘蔭 未艾 子姓 振振 我銘 不諛 昭晰後人

歲玄黓困敦四月

崇祿大夫前吏曹判書 海平 尹用求 撰幷書

◇

㊱ 정은공묘갈명(휘 소의) 대언공후 칠곡

칠원윤씨는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고려시대에 휘 적이 있었으니 찬성사 벼슬을 하였으며 무양후에 봉해지고 문경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휘 길보는 직량공신으로 구성군에 책봉되고 충의공 시호를 받았으며 조선시대에 휘는 석보요 호는 지퇴당이 있었으니 홍문관직제학이란 벼슬을 하였는데 연산군이 학정을 하여 바른 말을 하였다가 밉게 보여 강음지방으로 귀양가서 그 곳에서 졸하였으며 청백리에 선록이 되었다。 휘 창명이며 호는 백암이 있었으니 문과에 합격하고 문학으로 저명하였는데 임진왜란 시에 의병을 통솔하다가 순직하여 이조참판으로 추증이 되었다。 그의 아들인 휘 조원은 호가 율원인데 황해도 관찰사를 하였다。 휘는 민길이며 호 퇴은은 선교랑이란 벼슬을 하였으며 충청도 제천에서 이곳 칠곡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공에게는 7세대의 격차가 있다。 고조는 근이요。 증조는 형조요 조고는 진국이요 아버지는 재운이라 하는데 다같이 은거하며 덕행이 있었다。 어머니는 수원 백씨이니 동운의 딸이다。

헌종정미년(1847년) 1월20일에 공은 출생하였으며 이름은 소의이고 자는 임언이며 정은은 자신이 지은 호명이다。 공은 용모가 단정하고 영리하며 일찍 성장하여 취학해서는 읽기를 열번도 아니하여 외웠으며 뜻을 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재주를 믿고 방일한 적이 없었으며 논어、맹자、대학、중용과 시경、서경、주역、예기、춘추、악기에서부터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관통하여 빛나는 문장을 이루고 있어 여러 선비들이 좇아 따라올 수 없었다。

일찌기 장사미헌의 문하로 나가 배울때 깊은 권장과 사랑을 받았으며 이웃한 모든 명사와 아침 저녁으로 따라다녔는데 간절한 생각으로 마음을 의탁한 사람은 기정 장영각이었다。 때로는 선비들끼리 모여 의심나고 어려운 문장을 강론하고 시를 지어 뜻을 펴본 사람들은 농산 장승택과 창번 이이건과 학초 장영석과 취산 이헌연과 만계 장영휘와 만포 조주원등의 여러 사람들이다。

집에서 살때는 항상 근신하였으며 어버이에게는 사랑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어버이가 죽어서는 슬픔과 애모를 다하였다。 화합으로 집안을 이끌어가고 화목으로 친족을 대하며 자기는 소홀히 하여도 남에게 후하게 하였으며 친하고 소원한 차별없이 착한 사람이 있음을 들으면 집까지 찾아가 예우를 하였고 과실있는 사람을 보면 직접 유도하여 반성토록 하였다。 본성이 태평하고 조용하여 물욕때문에 지키는 바를 바꾸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에게는 공부와 농업을 가르쳐 검소와 절약으로 스스로 수행하게 함을 늙어서 더욱 더 독실히 하였으니 여기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었다。 태황기유년(1909년) 3월13일에 졸하였으니 향년이 63세이었다。 묘소는 거망정 뒷산 남남동향(임좌) 능원에 있다。

성산 이씨 이규의 다섯째 딸과 벽진 이씨 이정모의 딸과 순천 김씨 김준의 다섯째 딸들은 초혼 재혼 삼혼한 아내이다。김씨 부인이 1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영승이고 딸은 연안 이현탁에게 시집갔다。영승의 아들은 완식、신식、기식이며 딸들은 김교철、장영길、유종열、강영조에게 시집을 갔다。완식의 아들은 병호、병하며 딸들은 서병호、이병익에게 시집갔다。신식의 아들은 병립。병성이며 딸은 이병헌에게 시집갔다。기식의 아들은 병국、병기、병환이며 여타는 어린이들이라 기록하지 아니한다。

공은 현명하고 호걸스런 자태와 독실한 행동으로 평생토록 문학에 종사하면서도 저술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다。그래서 상자속에 남아있는 것이 겨우 몇편 되는 것을 증손자 되는 병호가 바야흐로 인쇄된 것을 수습하여 뒷편에다 붙여 기록하고져 하면서 일가인 정원을 소개하며 나에게 비문을 요구하여 사양하지 못하고 공의 행장을 읽어보고 대략만 서술하였다。명문에 말하기를

현명한 스승을 만나 학문을 배우고 좋은 친구의 힘을 입어 절절한 도움을 받았다네。이 지방에 군자가 없거든 여기서 이 사람을 취할지어다。그 아름다움을 표기하야 후손들에게 공경스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노라。

광능 이채진은 삼가 지음

㊱ 亭隱公墓碣銘(諱 韶儀) 代言公后 漆谷

漆原之尹 昉於新羅太子太師諱始榮 麗朝 有諱勣 贊成事封武陽侯諡文敬 諱吉甫 直亮功臣封龜城君諡忠義 鮮朝有諱碩輔號止退堂 弘文館直提學 燕山政虐 以直見忤 謫江陰卒 錄淸白吏 諱昌鳴號白巖 文科學錄 壬亂 倡義殉節贈吏曹叅判 子諱調元 號栗園 黃海道觀察使 諱敏吉號退隱 宣教郎 自堤川 移居漆谷 於公間七世 高祖曰根 曾祖曰衡祚 祖曰進國 考曰載運 俱有隱德 妣 水原白氏 東塤女 憲宗丁未正月二十日 生公 諱 韶儀 字 任彦 亭隱 自號也 公 儀狀 端莊 聰悟夙達 就學 讀不過十遍而成誦 着意做工 無或恃才故逸 始自四書六經 傍及諸子百家 融略貫通 斐然成章 儕輩 咸推之以莫及 嘗就正于張四未軒門下 深被奬詡 所交遊 盡名勝居比隣而昕夕追從 切偲托心契者 杞亭張公永恪也 時接會而講討疑難 嘯咏以暢叙者張農山升澤 李蒼樊以鍵 張鶴楚永奭 李醉山憲淵 張晩溪永彙 趙晩圃周源諸公也 居家 謹於常行 親在 盡其愛敬親歿 致其哀慕 和以御家 睦以處族 薄己厚人 無間親疎聞人有善 造廬而禮之 見人有過 面誘以自省 素性 恬靜不以外慕 易其所守 教子課農 儉約自修 垂老彌篤 此其可見之行也 太皇己酉三月十三日 卒 享年 六十三 葬所 居望亭後山負壬原 星山李奎 五女 碧珍李廷謨 女 順天金俊五女 初再三配也 金氏生一男一女 男 永承 女 適延安李

鉉卓 永承男 完植 莘植 琦植 女 金敎哲 張永吉 柳鍾烈 康永祚 完植男 炳鎬 炳昰 女 徐炳湖 李炳益 莘植男 炳昱 炳星 女 李炳憲 琦植男 炳國 炳旗 炳煥 餘幼不錄 公以賢豪之姿 篤棠之行 畢生從事於文學而不喜著述故 遺在巾笥者僅若干篇 曾孫炳鎬方收拾付印而姑欲附錄於後 介其族禎遠 求墓銘于不佞 辭不獲 按其狀略叙之 銘曰

得賢師而就正 資名碩而切偲 魯無君子 斯焉取斯 用表厥美 起後欽思

廣陵 李埰鎭 撰

◇

㊲ 사성재공묘갈명(휘 우학) 대언공후 합천

강주의 북쪽 팔심리에 품행이 독실한 군자가 있었으니 고인이 된 사성재 처사 윤공이 바로 그사람이다。돌아가신 후로 16년이 되었는데 그의 둘째아들인 병수가 나보고 말하기를 우리 선고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3백리길을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찾아와 비석문을 요청하였다。내 비록 늙고 또 병들었지만 정의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공의 휘는 우학이요、자는 장여이며、사성재는 그의 아호이다。윤씨 중에 칠원의 계출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 그의 시조이다。이때부터 문관과 무관이 계승되어 수십세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조선시대 선조대왕대에 이르러 휘 탁연이 있으니 벼슬은 호조판서를 하였고 왕가의 계통문제로 당한 수모를 설욕한 공로로 광국공신에 기록되고 칠계군으로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헌민공으로 추증되었다。일찌기 퇴계선생 문하에서 유학하여 선생의 지론을 들었고 집안의 학문도 근원이 있었다。헌민공의 손자인 선교랑 벼슬을 한 휘 태기는 광해군이 인륜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영남지방 합천으로 이사왔으니 공에게는 9대조가 된다。고조의 휘는 주국이요、증조의 휘는 재홍이요、할아버지 휘는 식의며 아호는 용재인데 넓은 도량과 아름다운 법도는 가문을 빛냈으며 아버지의 휘는 영석이니 효성과 덕행이 순후하고 돈독하며 지방에서 존경을 받았다。어머니는 진주강씨이니 시우의 딸이다。철종임자년(1852년) 10월21일 공이 출생하였다。공은 태어나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으니 얼굴은 옥같고 말씨는 뚜렸하였으며 그의 재능은 외우는 것에만 민첩한게 아니고 궁리와 격물치지를 잘하였다。겨우 입학하여 어렵고 의심나는 것을 물음에 가끔은 남의 의사까지 표출시키었다。열살때에 할머니 초상을 당하였는데 가슴치며 울기를 어른같이 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할때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용재공이 기이하고 사랑스러워 말하기를 이 아이가 후일 반드시 예절로 가문을 빛나게 할 것이라 하였다。장성하여서는 개연히 도를 찾을 소

망을 두고 날마다 공자、맹자、정자、주자의 책들과 우리나라 여러 선생들의 설문을 가지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연구하여 밤을 낮으로 이어가며 이치를 연구하고 공경하며 산지 몇년이 누적되었다。나이 열세살 때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의 큰아버지 되시는 연재선생 문하에서 수학을 하였는데 선생께서 매우 소중한 그릇으로 여기며 성현들이 서로 전승하던 비법을 알려주어 공은 잊지 않도록 허리띠에 써가지고 돌아와서도 연구와 추모를 중지하지 아니하였다。그 수양이 깊어지고 노력이 두터워 쌓아놓은 것이 밖으로 나오면 엄연한듯하여 바라보기 두려웁고、닥아가 보면 온화하여 즐거웠다。우리들 선비들중 알던 모르던간에 물어볼것 없이 군자가 된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군자라고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그 사람이 실행한 일을 보면 어버이 섬기고 조상 받들고 집안 다스리고 사람들 접대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간에 처리한 일이 도리를 하나라도 따르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소학 책속에서 나오는 천성적인 것들이요、또 특별히 옛날 예절을 좋아하여 큰아들 혼인시에 친영의 예법을 실행하여 보고 느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초상과 제사시에 이르러서는 두가지 예절을 더욱 더 근신하여 감히 터럭만큼도 멋대로 하지를 아니하였다。일찌기 아버지 상을 당하여 슬픔을 심히 하였으며 특히 삼년간은 내실에 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강과 육계를 먹지 아니하였다。어머니 상을 당하여는 나이가 이미 많아 파리하면 아니되므로 근심으로 살면서 모든 예절을 아버지 초상시와 같이하여 조금도 쇠퇴하지 아니하였다。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곧 예절책을 읽고 의심나는 문장과 변경된 예절은 연구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지금 발행한 독례집요라는 책은 바로 그때에 편집한 것이다。또 일찌기 가훈일편을 지어 여러 아들을 훈계하였으니 자신이 행동할 조목이 여덟이요、집안을 다스릴 조목이 아홉이요、세상을 살아갈 조목이 네가지이니 그 말들이 명백하고 간절하여 격언이 아닌 것이 없으니 진실로 덕이 있는 사람만 반드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속에서 말하는 문장가들이 모방할 바는 아니었다。곰곰히 생각하여보니 30세이후로 일본의 야욕이 점차 사나워서 시대의 사물이 날로 그릇되어 문을 닫고 조용히 살았지만 항상 과분한 근심을 품고 있어 초상에 조문하고 병자에 문안하는 이외에는 일찌기 시골마을 밖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아니하였다。을사조약과 경술합방 때에는 세상이 변하여 극도에 이르게 되어 나의 큰아버지이신 선생님이 갑자기 나라를 위하여 죽게되고 조선이란 조국이 멸망하게 되자 공은 이 소식을 듣고 목이 쇠도록 통곡하며 말하기를 종묘사직이 끝나고 이 학문이 망하였으니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좋을고하며 마침내 남아

있는 책들을 수습하여 관산의 시골집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아침 저녁으로 성묘하고 시간이 있으면 자손들과 원근에서 찾아온 학생을 가르치었으며 이야기는 마을 일 이외는 하지를 아니하였다. 시간이 있으면 송나라, 명나라 말기의 충신, 의사, 열녀의 사적을 편찬하여 항상 책상위에 놓았으며 혹은 학생에게 보여 설명하였다. 부인과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 그릇됨에 빠지는 근심을 면하게 하였으며 성리학과 이기설에 이르러서는 일찌기 쉽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직 근세에는 학자들 논의가 여러가지이고 후생 초학자는 따를것이 마땅한게 없어 간혹은 부득이하여 책에 써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설법은 사견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도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자와 주자에 합치되어 후인을 위하는데 힘쓰고 있음을 공의 저서를 읽으면 가히 찾아내어 알 수가 있다. 경오년(1930년) 봄에 병들어 더욱 위독하였지만 의관을 단정이 차려입고 강의를 거두지 아니하였다. 점차 위중에 이르러 할 수가 없게 되어 자신이 만장 한수를 지어 자손에게 유언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장사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이대로 나를 보내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죽게되던 달에도 세차례 선조제사가 있었는데 매번마다 제사때를 당하면 반드시 사람을 시키어 일으키도록 하여 제사가 끝날때까지 공손히 기다린후에 잠자리로 나갔으며 마침내 세번째 제사가 있던날 정오시에 편안히 임종하였으니 바로 경오년(1930년) 7월26일이었으며 수가 일흔아홉살이었다. 이해 9월17일에 관산의 동북동향(신좌) 능원에 장례하였으니 그것은 생전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배위는 청송심씨이니 찬조의 딸이다. 남편의 일에 어기는 것이 없어 옛날 숙녀의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으니 큰아들 병재는 공이 죽은후로 십년되던 해에 죽었고 차자가 바로 병수이며 딸은 덕은 송호장에게 시집갔다. 병재가 아들 둘과 딸 둘을 두었으니 큰아들인 방원이는 순박하고 근신하여 배움을 좋아하였으나 불행히도 어려서 죽었으며 차자는 진원이다. 딸들은 함안 이주수와 거창 신종수에게 시집갔다. 병수가 아들 넷 딸 둘을 두었으니 아들은 규원 준원 영원 인원이며 딸들은 청주 한수교에게 시집가고 기타는 어린이라서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아! 옛날 채백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곽유도의 비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나도 이 비문을 지으며 그렇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늙고 병들어 죽음이 가까우며 정력도 흩어져 공에 대한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덕행을 그 만분지 일도 형언하지 못하여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공이 평생동안 저술한 시와 문장은 모두 10여권인데 집안에 소장되어 있다. 명문에 말하기를

세상은 쇠퇴하고 도의는 미약하여 사악한 말들이 교대로 일어나 군자가 없으니 그 어떻게 착하게 할 수가 있으랴? 밝고 믿음직한 윤공은 우리 유학도에 호걸이라네。 젊은 나이에 도를 찾아 늙도록 버리지 아니하였다네。 공경으로 동과 정을 일관하여 그 공로 긴밀하고 간절하도다。 의리와 엄위로 나라를 존경하고 오랑캐를 물리쳐 그 풍류가 고상하였다네。 란새가 죽고 봉황이 숨은지 그 몇년세월이던가。 팔십리 유택에 솔과 잣나무들만 창창하구나。 도는 높이 하늘에 닿아 공이 홀로 서 있는 것 상상이 되네。 밝은 거울 티끌이 없어 공의 마음 씀이 상상되네。 슬프도다 후배들아 어찌 공경심이 일어나지 아니할소냐? 내가 이 명문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소상하게 보인 것이라네。

병술년(1946) 1월 일

덕은 송종헌은 삼가 지음

㊲ 思誠齋公 墓碣銘(諱 禹學) 代言公后 陜川

江州之北八壽里有篤行君子故思誠齋處士尹公即其人也沒後十有六年其次子炳守謂余習知其先公事者十舍重趼來請以樂石之文余雖老且病誼不敢辭公諱禹學字章汝思誠齋其號也尹氏系出漆原新羅太子太師諱始榮其鼻祖也自是圭組聯翩累十世而不絕至我　宣廟朝有諱卓然官戶曹判書以雪宗系勳錄光國功臣封漆溪君諡憲敏嘗遊退溪李先生門得聞其至論家學淵源有自來矣憲敏公之孫宣敎郎諱泰基見光海斁倫遂南徙于嶺之陜川於公爲九世祖也高祖諱柱國曾祖諱載興祖諱植義號容齋宏謨懿範于門戶有光考諱永碩孝行淳篤爲鄉黨所推重妣晉州姜氏時佑女以　哲廟壬子十月二十一日生公公生有異質貌如玉溫聲若金鏘其才不甚敏於記誦而長於窮格甫上學質疑問難往往出人意表十歲遭祖妣喪哭擗如成人朝夕奠饋必參不廢容齋公奇愛之曰此兒他日必能以禮名家及長慨然有求道之志日取鄒魯洛閩之書及我東諸先生之說口講心潛夜以繼日大肆力於窮理居敬之地者蓋積有年所矣年三十以親命就正于我伯父淵齋先生之門先生深器重之告以聖賢相傳旨訣公書紳而歸鑽仰不已及其養深積厚而英華發外則望之也儼乎其可畏即之也溫乎其可樂吾黨之士無間知與不知莫不曰君子人君子人而無異辭焉若以其見於行事者言之則凡事親奉先治家接人友兄弟處宗族之道無非從一部小學中出來而性又酷愛古禮長房之婚始行親迎觀感者甚衆至於喪祭二禮尤加愼重而不敢一毫放過嘗居外艱哀毀甚特三年不入內不進葷桂及丁內艱年已不毀而居憂凡節一如前喪而不少衰少有閒隙輒讀禮書疑文變節無不究窮今所刊行讀禮輯要者乃其時所編也又嘗作家訓一篇以訓諸子行己之目凡八治家之目凡九處世之目凡四其言明白切當無非格論信乎有德者必有言而非世俗所謂能文者之所可彷彿也粤自中身以後島氣漸惡時事日非閉戶端居恒抱漆嫠之憂吊死問疾之外未嘗出山門一步及夫乙巳庚戌之間世變

轉到極處我伯父先生奄然殉道而宗國隨而淪喪公聞之失聲痛哭曰宗社罔矣斯文喪矣我安摘歸遂收拾遺經絕跡于冠山之丙舍朝夕省楸之暇教授子孫及遠近來學者語不及山外事間中撰次宋明末忠臣義士烈女之事常置案上或以示學者說與婦人俾免淪胥之患至於心性理氣之說未嘗容易發口惟近世士論多岐後生初學莫適所從間或不得已而筆之於書然其說不主於偏見不倚於黨論惟以不畔於道而合於程朱爲務後之人讀公之遺文可按而知也庚午春寢疾彌留猶整飭衣冠講論不撤及至沉重而不可爲也則作自挽詩二絕遺戒子孫曰汝等愼勿會葬只以此送我可也臨歿之月先忌凡有三次每當祭時必令人扶起恭俟撤俎而後就臥遂以第三忌日午時恬然而終乃庚午七月二十六日也享年七十九是年九月十七日克襄于冠山申坐之原從治命也配青松沈氏讚祚女配德無違有古女士風凡擧二男一女男長炳載公歿後十年卒次即炳守女適德殷宋鎬章炳載有二男二女男長昉遠淳謹向學不幸早夭次震遠女適咸安李柱洙居昌愼宗洙炳守有四男二女男奎遠畯遠寧遠仁遠女適清州韓壽教餘幼不盡錄嗚呼昔蔡伯喈有言曰吾於郭有道碑文無愧色今吾於斯役也亦云然老病垂死精力澌散於公嘉言懿行不能形容其万一是可愧也公平生著述詩與文總十數局藏於家銘曰

世衰道微邪詖交作不有君子其何能淑顯允我公吾黨之傑早年求道皓首不撤敬貫動靜密切其功義嚴尊攘高尚其風鸞徂鳳伏凡幾星霜八耈之幽松栢蒼蒼道岳當天想公特立塘鑑無塵想公心法嗟爾後人曷不起敬我銘非諛昭示永永時

柔兆閹茂大將月日

德恩　宋曾憲　謹撰

◇

㊳ 시당공묘갈명(휘 병달) 대언공후 칠곡

여기는 우리 시당 선생 칠원윤공의 묘소이다。 공이 돌아가신 이후로 37년되는 무술년(1958년) 가을에 손자인 종기가 유서와 가장 한쪽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공의 묘비문을 요청하였다。 나는 긴 탄식을 하며 사람이 덕행이 있으면 도리상 비문을 쓰는게 좋으나 나는 비문을 지을만한 사람이 아니므로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으랴? 하였다。 그러나 지극한 정성으로 졸라대니 어떻게 감히 끝까지 사양할 수 있으랴? 삼가 찾아보니 공의 휘는 병달이요。 자는 찬경이며 호는 시당이다。 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벼슬을 하신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휘 길보가 있으시니 직량공신으로 삼중대광찬성사 벼슬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휘 석보는 직제학 벼슬을 하였으며 연산군 갑자사화시에 바른 말을 하였다가 화를 입었는데 세상에서는 지퇴당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다。 휘 창명의 호는 백암이며 성균관학록 벼슬을 하였는데 퇴계문하에 입학하여 성리학을 전수하였으며 팔곡 구사

맹과 간암 유몽인과 사암 박순 등의 여러 명현과 더불어 좋은 친구로 교제하며 주고 받은 시집이 있으며 백암의 아들인 휘 조원의 호는 율원인데 가선대부 품계로 황해도 관찰사를 하였으며 휘 민길이며 호 퇴은을 낳았으니 선교랑 벼슬을 하다가 마침내 남쪽지방으로 내려와 칠곡지방 사람이 되었으니 공에게는 10대조가 된다。고조의 휘는 재신이고 호는 남주이며 증조의 휘는 상의이며 할아버지의 휘는 영조이며 아버지의 휘는 동박인데 모두들 학식이 있어 집안의 대를 이었다。어머니는 인천 채씨이니 성균관 생원이 된 휘 범곤의 딸로 요조숙녀의 덕행이 있었다。

철종 정사년(1857년) 9월15일에 공은 빈주리 집에서 태어났다。공은 타고난 천성이 단아하고 신중하여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입학하였으나 재주있고 영리하여 문리를 일찍 성취하였다。한나라、진나라 역사서를 하루 수백줄씩 배워도 서너번만 읽으면 곧 책을 덮고 외울 수 있었다。나의 할아버지이신 미은공이 일찌기 사자를 그려놓고 모방하여 그리도록 하였는데 동창들이 경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특히 인륜인 오륜에 진력하여 어버이 섬김에 효도로 하고 선조를 받들기 정성으로 하며 집안에서는 엄숙하고 일가에는 화목하며 친구의 교제는 믿음으로 하여 공명을 다스림에 명성이 있었으며 몇차례 과거에 시험을 보아 쓰여지지 아니하였어도 곧 태연하여 마음속에 개의하지 아니하였다。

도지사인 엄세영은 당시에 존경을 받던 사람인데 경상도로 부임하여 제일먼저 학문을 일으키려고 대대로 학문가의 선비인 공에게 문의하려고 초대하였는데 공은 편지를 써 사례하여 말하기를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도지사께서 평일에도 선비를 만나고 예의를 일으키고자 하는 훌륭한 마음을 늘상 공무의 여가에 두고 있으니 오늘의 소문에 어찌 여러 선비들이 즐거워 손벽만 치고 말겠습니까?

첫째 과거제도가 문란해져 거짓 학문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릇된 무리들이 해마다 일어나니 시대를 속상하게 여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탄식이 서민에게까지 있게 되었는데 하물며 도지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소원컨대 사벽한 말을 물리치고 준수한 제자들을 진출시켜 육성시키고 성취시켜주면 변화하는 나라가 되어 다같이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니 비록 어리석고 못난 나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 성덕을 노래부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엄 도지사가 이 글을 읽어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당신들 집안에는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였다。

세상의 인도가 점차 변화가 되었어도 서양을 숭상하

는 뜻이 없어 문을 잠그고 한가히 살며 자식을 가르치고 후배를 육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삼아 울연히 한 지방의 방패가 되었었다。 경재 우성규씨가 칠곡군수로서 여러 선비들 앞에 서서 봄과 가을이면 칠곡군 원로들과 더불어 향음주례를 녹동서당에서 행하였는데 공이 그 일을 주선하여 예법대로 이행하니 선배들이 크게 칭찬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만구 이선생 문하를 찾아가 배우며 변론을 주고 받으매 많은 계발이 있어 이 선생이 늘상 두려운 후배로 대우하였다。

늙어서는 작은 초막을 짓고 편히 생활하며 학문 수련 장소로 삼았는데 미강 박공께서 현판을 써주며 말하기를 시당이라 하였고 지남 이공은 따라서 기문을 지었다。 공은 일찌기 자신이 명시를 지어 말하기를 큰 산악이 하늘을 떠바쳐 동요하지 아니하는 때요。 긴 강이 바다로 흘러 쉼을 바라는 때라네。 외람되게 내가 감히 산과 물을 즐긴다고 말할소냐? 올라오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동요되는 때라네 하였으니 아 슬프도다。 공의 일평생토록 공부한 것은 늘상 자신이 이와같기를 기대했을 뿐이요。 자신이 이와 같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위의 문장에서 이른바 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은 공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기유년(1905년)에는 큰 아들이 요절하는 일을 만났고 몇년 되지 아니하여 또 아내의 초상을 당하여 집안의 화가 심히 가혹하고 신의 섭리가 극에 이르게 되었었다。 비록 억지로 뿌리쳐 자신을 너그럽게 하였지만 죽어가는 기력으로 어찌 불일내로 부지불각의 속에 빠짐을 피할 수 있으랴? 3년간 집안에서만 살았어도 정신이 총명하여 편지로 문답하며 구차하게 남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일찌기 고아가 된 손자를 훈계하여 학문에 힘써 가문의 명성을 폐지하지 말라하고 병 수발드는 사람을 시켜 반드시 누워 편안히 서거하였으니 바로 임술년(1922년) 4월2일이며 나이가 60세이었다。 길일을 가려 칠곡군 지천면 금호동 골문곡 동남향(건좌)에 장례를 하니 부인과 더불어 합장이 되었다。 호상한 사람이 매우 많았으며 현철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한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아내는 전의 이씨 휘용의 딸이요 참판 벼슬을 한 재낙의 손녀이니 군자의 아내로 부덕을 위배한 적이 없었다。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았으니 아들은 철원과 회원이고 딸들은 이기석과 이안세에게 시집갔다。 철원이 1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종기이고 딸은 서정전에게 시집갔다。 회원이 3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종렬、종근、종오이며 딸은 정지철에게 시집갔다。 기석이의 아들은 제완과 제곤이고 안세의 아들은 종학이다。 종기의 아들은 용수、인수、길수이며 딸은 아직 어린이이다。 종렬

의 아들은 관수、익수、기수、경수이고 딸은 이창세에게 시집갔다。종근의 아들은 중수、태수이다。종오의 아들은 정수、철수이며 여타들은 어려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아 나 채황원은 외삼촌 여러 형제들보다 늦게 태어나 선생의 생장과 젊은 시절 공부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내가 어른이 되자 공은 이미 늙으시었다。세상은 그래서 견제가 되어 비록 계속하여 슬하로 달려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은밀히 받지는 못하였어도 오늘날 정중한 부탁과 빛나는 도를 비에 새겨 들어나게 해달라는 위촉에 감히 외면할 수가 없었으나 그러나 건방진 죄책이 어찌 감히 없었으랴。나는 사실상 말 솜씨가 없어 남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표현 못하므로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만 대강 발췌하여 경건하게 이렇게 써서 옛날과 현재의 감정을 붙여 놓을 뿐이다。그래서 명문을 지어 이르기를

온화한 마음씨는 화창한 기운과 같고 결백한 마음씨는 얼음보다 더 맑았다네。작은 마을의 어른이며 온 마을의 좋은 선비로다。사람들이 추앙하는게 어찌 이유가 없을소냐。문곡의 산등에 바로 공의 묘소가 있어 명문으로 후인에게 알리오니 바라건대 나무하고 꼴 베는 일이 없을지어다。

내사촌 아우인 인천 채황원은 삼가 지음

㊳ 時堂公墓碣銘(諱 炳達) 代言公后 漆谷

此 吾時堂先生漆原尹公之藏也 公 歿後三十七年戊戌秋 孤孫鍾起 抱遺書及家狀一通 謁余請題其墓 余喟然歎曰人之有德 法宜可銘 余非其人 何敢當 然 責之以至情道理則 豈敢終辭 謹按 公 諱 炳達 字 粲卿 號 時堂 漆原尹氏 以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 爲鼻祖也 至麗 有諱吉甫 直亮功臣三重大匡贊成事 入李朝 諱碩輔 直提學 燕山甲子 以直言 被士禍 世稱止退堂先生 諱昌鳴 號白岩 成均館學錄 登退陶先生門 受性理之學 與同門友具八谷思孟 柳艮夢寅 朴思菴淳諸賢 友善 有唱酬詩集 子諱 調元 號 栗園 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 生諱敏吉 號退隱 宣敎郎 遂南下 爲漆谷人 於公 爲十世祖也 高祖 諱 載莘 號 南洲 曾祖 諱 象儀 祖 諱 永祚 考 諱 東博 俱以文學 世其家 妣 仁川蔡氏 成均館生員諱範坤 女 有女士行 以 哲宗丁巳九月十五日 生公于蘋洲里第 公 姿性 端重 自幼 不喜遊嬉 甫上學 才思穎悟 文理夙就 漢晉之史 日受百餘行而不過三四讀 輒掩卷成誦 吾祖美隱公 嘗畫獅而模擬之 儕流-莫不驚歎 尤盡力乎人倫之常 事親以孝 奉先以誠 肅於閨門 睦於宗黨 交朋友以信 治功令 有能聲 屢試于有司而不售 即曠然不介於懷 嚴輔國世永 素負重望於當世 來按南土 首先倡學而以公 爲世家文學之士 存問而招之 公 修書謝禮曰竊伏念閤下 平日造士興儀之優 常在於莅政之暇

則今日之聞 豈直多士之欣抃而已哉 一自科法之癈 僞學日新 匪流年作 傷時憂國之歎 在細民 猶然 况於閤下地乎 伏願痛斥邪說 引進俊秀子弟 樂育成就則 一變之魯-俱被鴻造之澤矣 雖愚陋如賤子者 豈敢不趍造下風 歌詠盛德也哉

嚴公 見書歎曰乃家尙有人矣 自世道 漸變 無意西上 杜門閑居 以敎子育英 爲己任 蔚然爲一方帡幪矣 禹景齋成圭氏以地主 倡率多士 春秋之間 與本郡老宿 行鄕飮禮於鹿峰書社 公 周旋其間 循蹈如禮 先進 莫不嘖嘖焉 某年 以親命 執贄于晩求李先生門 往復論辨 多有啓發而先生 常待之以畏友也 晩築一小廬 以便起居藏修之所而渼江朴公書之曰時堂 智南李公 從以記之 公 嘗自爲銘詩曰大嶽撑天 不動時 長江走海 肯休時 猥余敢言仁智樂 登臨猶動體心時 嗚乎 公之平生用工 常自期如此 非謂自許如是也 上文所謂時不可失者-非公之志也歟 己酉 遭長子夭逝 未幾年 又哭賢配 家禍孔酷 神理極矣 雖强排自寬 奄奄氣力安得不日陷於不知不覺之中哉 三年床第 神精了了 書疏答問 不苟使人 嘗戒孤孫勉學 勿替家聲 一日 使侍疾者 正寢 逌然而逝 乃壬戌四月初二日 春秋 六十六 用禮月 葬于本郡枝川面錦湖洞骨文谷乾坐原 與夫人合窆 送葬者甚衆而莫不咨歎乎哲人云亡也 配 全義李氏徽容 女 叅判在洛 孫 娓君子 無違德 生二男二女 男 哲遠 喜遠 女 適李琪錫 李安世 哲遠 生一男一女 男 鍾起 女 徐正銓 喜遠生三男一女 男 鍾烈 鍾根 鍾五 女 鄭之哲 琪錫 男 載完 載坤 安世 男 鍾鶴 鍾起 男 龍洙 仁洙 吉洙 女 幼 鍾烈男 寬洙 益洙 琦洙 慶洙 女 李昌世 鍾根 男 重洙 台洙 鍾五 男 挺洙 澈洙 餘 幼不錄 嗚乎 不佞 生晩於親表諸兄之後 不及見先生長者盛年劬經之日而余省事 公已老成矣 世故牽掣 縱未能源源趍候於軒屛之下 穩承辟咡之詔而今於遺文丁乙之托 義道顯刻之囑 誼有所不敢自外 然 僭佞之罪 烏可而已也 余實訥於辭者 不能溢人之美而姑取其耳目大槩 敬書如此 用寓今古之感云爾 因爲之銘 銘曰

溫溫若春和之氣像也 潔潔乎氷清之志尙也 十室忠信 一鄕善士 人之仰之豈無所以 文谷之原 是公攸宅 銘以詔來 庶無樵牧

內弟 仁川 蔡晃源 撰

◇

㊴ 화산공묘갈명(휘 영도) 대언공후 창원

나라 위하여 목숨 다한 것을 충성이라 말하고 남편 위하여 성심을 다한 것을 정렬이라 하는데 지금같은 세상 살면서 그 삼강을 다한 사람 누구일까? 칠원윤씨에서 비로소 보았도다。 윤씨가 칠원으로 관적을 한 것은 신라시대 태자태사 휘 시영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후손중에 의사가 있었으니 휘는 영도요 자는 원오이며 호는 화산이다。 무양후에 봉해지고 시호는 문경공인 휘 적은 고려시대에 위대한 업적이 있었다。 신라와 고

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추증받아 대대로 빛이 나 있었다。 수충익모광국공신으로 칠계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헌민공으로 추증받은 휘 탁연이 퇴계선생을 따라 수학하였는데 이 의사의 10대조가 된다。

고조의 휘는 경윤이니 진사에 합격하였고 증조 휘는 정국이요 호는 송강이며 할아버지 휘는 재원이요 호는 정한이며 아버지의 휘는 상의요 호는 청계이니 효자로 소문이 나 있으며 어머니는 김녕 김씨이니 정랑 벼슬을 한 인부의 딸이며 정렬의 행실이 있었다。

고종갑자년(1864년) 2월6일에 의사가 출생하였는데 기이한 자태와 뛰어난 기세에 조예가 일찍 성숙되어 나이 20세 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마침내 초야에 은거하며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곽면자 선생을 따르며 강론한 것이 많았으며 그리고 강직한 의지와 굳은 행동이 있어서 백번 흔들어도 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본래에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천부적인 근면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상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여 근심하고 있었는데 융희황제가 남쪽지방을 순시하던 날에는 5、6명 시골 선비와 더불어 길에 엎드려 상소문으로 당시 사건을 진술하였었다。

경술년 합방변고를 듣고 곧 의관을 갖추고 정한수를 떠놓고 자리를 펴고 대궐로 향하여 절을 하고 애통을 다하고는 마침내 의관을 불태워버리고 삿갓을 쓰고 선산밖으로는 나가지 아니하고 근심과 격분으로 병이 들어 죽었으니 때는 1912년 2월19일이고 향년은 49세이었다。 경남 창원 승주사 뒷산 남장대의 서북서향(을좌) 산등에 장례를 하였다。 배위는 밀양 박씨이니 정랑 벼슬을 한 박수세의 딸이며 열녀 행실이 있었다。 남편을 섬기며 병 간호를 할새 북두칠성에 기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하며 좋은 약을 찾아 성의와 예절을 다하지 아니한게 없었다。 누가 말하기를 잉어와 소라를 같이 먹으면 좋다 하였는데 때마침 겨울 추위를 만나 여러 곳을 찾아다녀도 얻지를 못하여 몸소 소라를 주웠고 산과 물이 만나는 곳에 이르러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때에 갑자기 한마리 잉어를 얻어 먹게 하여 효험을 얻었다。 그러나 큰 통한은 끝내 구명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버이 섬김과 남편 섬김에서 오직 그 성의를 보면 눈속에 대순과 얼음속의 잉어가 어찌 옛날에만 있었다고 할소냐? 박씨부인은 계유년(1933년) 1월10일에 졸하였으니 향년이 70세이었으며 공의 묘소 밑에 장례를 지냈다。 아들은 영재이며 다섯 딸들은 황성연、배정명、주학조、유위선、진기정에게 시집을 갔다。 손자들은 병회、병철、병기이다。 명문에 말하기를

일찌기 벼슬에 뜻을 두지않고 늙도록 성리를 연구하

였도다。임금과 나라의 근심이 깊어 밤낮으로 슬퍼하고 두려워 하였도다。전일에는 임금이 지나는 역로에서 상소하여 시대의 부패를 진술하였지요。나라의 변란을 듣고 궁궐을 향해 소리내어 울기도 했지요。그로 인하여 병이 들어 운명이 좋지 못하였도다。서산의 청백한 절개와 동해의 높은 업적이라네。시대에 불길한 날을 만나 일이 끝내 침체되었다네。역사에 기록은 정직한데 당연히 포상할 문서가 빠졌도다。그 충성스런 혼과 의로운 넋이 바로 궁중에 오르고 내리리라。개탄하는 선비들 눈물이 줄줄 흐르고 목이 메인다네。이 비석에 새기어 위대한 덕업을 나타냈노라。

진성 이중계는 지음

㊴ 華山公墓碣銘(諱 永道) 代言公后 昌原

爲國盡命曰忠 爲夫盡誠曰烈 處今之世 盡其綱者誰也 於漆原氏 始見 尹之氏漆原 自新羅太師諱始榮 爲始而有裔孫一義士 曰諱 永道 字 元五 號 華山 武陽侯諡文敬公諱勳 在麗朝 有偉績 歷羅麗至本朝 封君贈諡 連世蟬嫌 輪忠翼謨光國功臣漆溪君諡憲敏公諱卓然 從我退陶夫子學於義士 間十世 高祖 諱 敬胤 進士 曾祖 諱 楨國 號 松崗 祖 諱 載源 號 靜軒 考 諱 詳義 號 淸溪 以孝著 妣金寧金氏 正郎仁富 女 有烈行 以 高宗甲子二月六日 生義士 逈異之姿 超絶之氣 造詣夙就 年未及冠 中試而竟屈南省 遂隱居草澤 深究理學 從郭俛宇先生 講質頗多而有以硬脊跟 百撼不仆 不負其素志 不墜其天命之奬 居常 以國步艱難 爲憂而 隆熙帝南巡之日 與五六鄕士 伏於驛路疏陳時事 及聞庚戌之變 即具冠帶 奉盤水設席 拜闕盡哀遂焚冠帶 着野笠 足不履山外 憂憤成疾而終 壬子二月十九日而享年 四十九也 葬于昌原聖住寺後山南將抬枕乙之原 配 密城朴氏 正郎秀世 女 有女士行 事君子侍疾也 祈北辰代身命 求宜藥 無不盡誠盡禮 或 云鯉與小螺 俱宜而時値冬寒 廣求不得 乃躬拾小螺 至山溪合氷處 仰天揮淚之際 忽得一鯉 服之而奏效 然 大恨竟無救矣 蓋事親與事夫 惟觀其誠意則雪笋氷鯉 奚特謂專在於古也哉 孺人 以癸酉正月十日 卒 享年 七十 葬祔公兆下 一男 英宰 五女黃成淵 裵正明 周鶴祚 柳渭善 陳基珽 孫男 炳曦 炳哲炳騏 銘曰

早謝功令 晩究理學 憂深君國 日夜乾惕 迺者驛路 疏陳時瘼 及聞國變 拜闕號哭 因以成疾 大命不淑 西山淸節 東海高迹 逢時不祥 事遂沉宿 史筆有正 宜補闕籍 忠魂義魄 玆宮降陟 慷慨多士 涕漣喉塞 刻于貞珉 用表偉德

眞城 李中啓 撰

◇

㊵ 참봉공묘갈명(휘 순학) 대언공후 합천

나 김영한은 천성적으로 졸렬하여 친구와 교제한 것

이 넓지가 못하지만 심원 윤공만이 특히 비박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쓸쓸한 이곳 강변까지 서로 찾아다닌지 몇년이 되었으며 또 그의 순결과 좋은 수행이 좋아서 마침내 노년을 같이 보낼 친구로 교제를 허락하였었다。

무인년(1938년) 10월2일에 공이 병들어 죽어 합천 선산 팔심리 동북동향(경좌)에 장례를 하여 이때부터 교제가 끝났으니 어디로 향할소냐? 마음이 아프며 지난날의 슬픔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나에게 비문을 문의하여 나는 비록 문장가는 아니어도 그 어찌 차마 사양할소냐?

공의 휘는 순학이고 자는 광여이며 심원은 그의 아호이다。칠원윤씨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문무관리가 계승되어 고려시대에는 군에 봉해진 사람이 일곱 사람이나 있었고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는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는 연산군에게 바른 말을 하였다가 귀양가서 졸하였으며 3대를 전승하여 호조판서를 역임한 휘 탁연은 광국훈신으로 책훈되어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으로 시호가 추증되었으며 이 헌민공이 휘 경원이를 낳았는데 아버지의 음덕으로 칠평군에 봉해지고 충장공으로 시호가 추중되었으며 차자인 휘 길원은 벼슬이 검열이 되었는데 자손이 없어 선교랑인 휘 태기가 충장공의 둘째 아들로 양자로 들어왔으니 이 분이 공의 9대조이시다。증조 휘는 재홍이요 조고의 휘는 상의이니 진사에 합격하였고 효행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휘는 영달이니 비서감승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중숙부인이니 고창 오씨로 경학의 딸이며 고종을축(1865년)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태가 중후하고 정직하여 어려서 공부를 하면서 능히 공부의 길을 세워 일찌기 문리를 통하였고 과거시험공부에도 열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다。일찌기 과거 시험장에 갔다가 시관의 부정한 것을 보고 마침내 불결하게 여기어 다시는 과거 장소에 나가지 아니하고 연제 송문충공을 따라가 학문의 요결을 듣고서 마음으로 열복하였으며 이어 후일 면암 최선생을 사사하여 경전연구를 필생의 가업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임인년(1902년)에 처음 벼슬을 시작하여 순릉참봉이 되었으며 감조로로써 6품급에 올랐는데 당시 상황이 점차 붕괴되자 벼슬할 생각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가 지조를 지켜오다가 경술년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러 모든 일이 끝이나 분하고 억울하여 병이 들어 시름시름 10년을 앓다가 죽었으니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아내 의인 문씨는 남평후인 응수의 딸이다。남편보다 먼저 죽어 도장리의 남양(자좌)에 별도로 장례를 하였다。아들은 병국이요。딸은 김영선、윤태식에게 시집을 갔으며 손자는 익원、맹원、경원이고 손녀들은 권태현、정석주에게 시집갔다。시문과 예의는 집안에서 배웠고 효도와 우애는 하늘

이 내린 것이었다。공이 세상에 살아있던 것이 74년인데 그 아름다운 행실중에 칭찬할 것은 많지만 특별히 그 큰 것을 거론한다면 신해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나이가 겨우 20세인데 예의를 행함이 절절하였고 너무 슬퍼하다가 몸이 상하여 마른나무 같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서 울기를 3년을 하루같이 하였다。그는 초상때에 이와같이 하였고 여러 선대의 묘소에 비석을 세워 덕행을 게재하였으며 위토를 매입하여 제사를 올렸고 헌민공 사당터에 기적비를 세웠으니 그 추원의 성의가 이와같았다。면암이 의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순창으로 달려갔었고 그가 굶어죽어 시신이 돌아올 때는 달성까지 가서 맞이하고 충청남도 정산까지 따라가 장례하는 의식을 보았으니 그의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무오년(1918년)에 고종황제가 서거하자 서로 다른 논의가 어지럽게 있었는데 공은 일가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울을 바라보고 울며 상복을 입고 모든 것을 예절대로 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국장을 치르는 곳까지 달려가 궁궐 밖에 이르러 통곡하다가 돌아왔으니 그 정의를 지킴이 이와 같았다。유교 문학에 관하여는 근신하며 힘써 도우려고 송자대전책을 다시 발간하였으며 남간정사에서 수계를 하였고 그밖에 선현들을 제향하는 예절과 책을 만드는데 참여하였으니 그가 현인을 존경함이 이와 같았다。두 아우에게 우애하고 종족에게 화목하고 벗에게 믿게하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에 이르러서도 법도가 있어 모두가 족히 마을의 모법이 되었다。늙어서도 선영의 곁으로 나가 단간 재사를 지어놓고 책 천여권을 쌓아놓고 조용히 청한하게 앉아 세상을 벗어난 기상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지상의 신선이라 하였는데 이젠 그런 선비를 다시는 볼 수 없다。

옛날에 동산의 재사로 공을 찾아가 곧 수건을 두르고 술 싣고 팔장끼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홍봉의 중간에서 이틀간 유숙하였는데 공의 풍류문장은 강좌파보다 못하지 아니하며 그 지난날 자취를 돌아보면 이 늙은이 속을 창으로 찌르는듯 하니 아 슬프기만 하도다。명문에 이르기를

남쪽지방에 사람이 있는데 깊이 운림에 숨어있도다。뜻을 독실히 하고 옛 것을 숭상하여 당연히 지금과는 위배된다네。비록 위배는 되지만 능히 몸과 명예를 보존하였도다。고인이 지은 시가 그 명성을 퍼뜨리리라。

통정대부전비서원승 안동후인 김영한은 짓고 아울러 쓰다。

㊵ 參奉公墓碣銘(諱 淳學) 代言公后 陝川

不佞 賦性 朴拙 交道不廣矣 尋源尹公 特不鄙之 相從於寂寞之濱者 有年所而且喜其淳潔好修 遂許暮景峨洋之託

焉 歲戊寅十月之二日 公 寢疾觀化 葬于陜川妙山八尋枕
庚之原 從玆破琴 抱向于那 心焉傷蠱 有過時之悲 哲嗣
問銘于余 與雖不文 其何忍辭 公 諱 淳學 字 光汝 尋源
號也 漆原氏 遠有代序 冠帶相承 高麗 有封君者七 入國
朝 直提學諱碩輔 直諫燕山 被竄而歿 三傳 戶曹判書諱卓
然 策光國勳封漆溪君諡憲敏 是生諱慶元 襲漆坪君諡忠莊
次諱吉元 官 檢閱 無嗣 宣敎郞諱泰基 以忠莊仲房 入爲
后 寔公 九世祖也 曾祖諱 載輿 祖諱 尙義 進士 有孝行
考諱 永達 秘書監丞 妣 贈淑夫人 高敞吳氏 慶鶴 女 以
高宗乙丑 生公 公之天姿 重厚質直 幼而受學 能刻立課程
夙通文理 傍治功令 蔚有可觀 嘗赴試 見有司之不公 遂不
屑之 不復蹈棘圍 從淵齋宋文忠公 聞爲學之訣 心悅之 乃
後師事崔勉庵先生 以經傳 爲畢生家計 壬寅 筮仕 順陵參
奉 以監造勞 陞六品 時象 漸壞 念絶要津 歸田守志 迨乎
庚戌 萬事已矣 憤寃成疾 沈吟數十年而終 知其心者莫不
悲之 配宜人文氏 南平膺壽 其父也 先公歿 別葬道藏子坐
男 炳國 女 適金永善 尹台植 孫男 冀遠 孟遠 炅遠 女
適權台鉉 鄭錫柱 詩禮 其家學也 孝友 其天植耳 公之在
世七十四年 懿行之可稱者 不一而足而特擧其大者 辛亥
遭外艱 其年己艾而執禮斬斬 柴毁骨立 晨昏哭墓 三霜 如
一日 其居喪也 有如此者 系世先阡 劖石而揭德 置田而絜
享 憲敏遺祠之墟 亦樹紀蹟之碑 其追遠也 有如此者 聞勉
庵擧義 赴于淳昌 及其立殣 返櫬 迎于達城 隨至定山 以
觀葬儀 其隆師也 有如此者 戊午邦喪 紛紛有異議 公則大
會宗鄙 望哭成服 擧如禮 明年 赴因山 哭闕外而歸 其守
正也 有如此者 事關斯文 必訪力而相之 如宋子大全書之
重刊也 南澗精舍之修禊也 其他先賢俎豆之禮 繡梓之役
是已 其尊賢也 有如此者 至若友于二弟 睦于宗族 信于朋
友 敎子孫 有法度者 皆足爲鄕鄙之標揭焉 晩年 就先隴之
側 締構一齋 貯書千餘卷 穆然淸坐 有出塵之象 人 皆稱
平地仙 今焉 如其彦良 不可復覩矣 記昔訪公於東山之齋
仍襆被載酒 聯襂入伽倻山 信宿于泓峰之間 公之風流文采
不下江左轉眄陳跡 悵觸衰肚 嗚呼悲夫 銘曰
斗南有人 深藏雲林 篤志尙古 宜盤于今 雖則盤之 克保身
名 故人作詩 用播厥聲

通政大夫前秘書院丞 安東 金甯漢 撰

◇

㊶ 우천공묘갈명(휘 창학) 대언공후 합천

강양군에 부자이면서 예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고인이 된 한성부주사인 윤공 휘 창학이며 자 주여가 바로 그 사람이다。 형이 호를 지었는데 우천이라 하며 칠원후인이다。 형제 3인이 낮이면 늘상 한 방에 모여 문장을 의논하고 문의를 강의하였으며 아침과 저녁으로 자제들을 뜰 아래에 줄세워 놓고 예절을 바로 잡으니 옛날 춘진의 가법과 같았다。

시조는 신라시대 태사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신데 이때부터 대대로 문무관이 계승되어 고려시대에 있어서 7선대가 군호에 봉해졌고 조선시대에 휘 석보는 직제학 벼슬을 하였고 휘 탁연은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광국공신으로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이란 시호가 추증되었으며 휘 태기에 이르러서 경기도 광주에서 합천으로 이사와 살았다。

고조의 휘는 주국이요 증조의 휘는 재홍이며 할아버지 휘는 상의이니 진사에 합격하고 효행이 있으며 아내는 열녀라서 함께 정려문의 혜택을 입었으며 아버지 휘는 영달이며 비서감승 벼슬을 하였다。 판서인 관해 윤용구가 비문을 지었다。 어머니 중숙부인은 오죽 용운의 후손인 경학의 딸이다。 고종기사(1869년)년 2월24일에 팔심리 사저에서 공이 출생하였다。 공은 성품이 관대하고 재예가 뛰어나 어른들의 말을 한번 들으면 곧 잊지를 아니하였으며 성장하여는 학문이 소문나 일찌기 과거 시험장에 갔으나 사람들이 비밀리에 합격자를 모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큰 형인 참봉공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빨리 돌아가자 하고 이때부터 과거의 생각은 끊고 6촌형인 성제공을 따라 공부를 하였으나 집안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있어도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생들 모임이 있으면 달려가 보고 느끼는 자료로 삼았다。 임인년(1902년)에 한성부 주사가 되었지만 세상의 기류가 상서롭지 못한 것을 보고 관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경술년(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강개한 눈물을 흘리며 삶을 견디어 내지 못하는 것 같이 하였다。

일찌기 면암 최선생의 고고한 인품을 흠모하고 있었다。 면암선생이 죄인의 몸으로 남쪽으로 내려옴에 조용히 당시의 뜻을 물어보니 말하기를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라 하였다。 얼마후에 일본에서 순국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자 말하기를 선생같은 사람은 진실로 말한 것을 이행하였다고 이르며 자경문에 말하기를 나도 국명을 받은 영광이 있으니 비록 계급이 낮아도 의리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 하고 비록 단신으론 나라의 원수를 보복할 수 없으나 어찌 안일하게 집안에 있겠느냐며 즉시 대덕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자신을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웠었다。

신해년(1911년)에는 아버지 상을 당하여 염습하여 마지막 보내기까지 반드시 정성과 믿음으로 하였으며 묘소와 제사에도 힘을 다하지 아니한게 없었다。 고종황제의 상을 당하여는 집안의 노소인들이 동산 재사로 모여 모두들 슬피 울며 상복을 입었는데 당시 송호완이란 사람이 찾아와 말하기를 조긍섭이란 사람이 상복을 입지 말자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공은 울분을 터뜨려 말하기를 그들 무리만 이나라 국민이 아

니란 말인가? 증거가 있던 증거가 없던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왕릉을 모실 때에는 온 나라 국민이 앞을 다투어 달려가 통곡하며 아울러 독립만세를 불러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국민의 생기가 일어났었다。

이때 둘째 아들인 병석이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나서 석방되어 돌아왔으며 을유년(1945년)에는 일본 오랑캐들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국민이 곧 다시 소생하겠고 나라도 곧 다시 태평하여졌지만 우리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나라의 원수를 갚았으니 하늘이 갚아준게 아니겠는가? 무자년(1948년)에는 우리나라는 비록 독립이 되었지만 남북으로 분열되어 좌파와 우파가 각자 집권하고 있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모두가 하늘이 안정시켜줌이 아니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 해 8월23일에 수명이 80세로 생애를 편안히 끝내여 마을 좌측 구등의 남서향(간좌)에 장례를 하였다。아내는 동래 정훈민의 딸로 남편보다 4년 먼저 죽어 묘소는 남편의 묘소와 동일한 산등 조금 위에 있다。아들은 병구、병석、병향、병항이고 딸들은 벽진 이창기、초계 정화선에게 시집갔다。종원、회원、의원、치원은 양자로 나가고 연일 정영수、의성 김갑석의 아내들은 큰 아들이 낳았고 학순、수원、상원、양기와 초계 변창효의 아내는 둘째 아들이 낳고 치원、은진 송삼훈、성산 전병태、진양 유원호、초계 정현채의 아내들은 셋째 아들이 낳고 성무、성직、성웅、순천 박노춘의 아내는 넷째 아들이 낳았으며 증손과 현손은 번다하여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충성과 신의를 몸에 지니고 효도와 우애로 집안을 이끌어가며 사람을 접대함에 모든 정성을 다해 대접하였다。비록 별안간 일이 급하여도 일찌기 말을 빨리하거나 낯빛이 급하게 변한 적이 없으며 보통 세상에서 재미있다고 하는 어지럽고 화려한 것은 모른는듯 하였다。진실로 마음이 바로서고 행동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와 같이 할소냐?

나는 일찌기 악양에서 칩거하고 있었는데 공이 일차 찾아왔었다。그 헌출한 대장부의 기질이 용모와 언어 사이에 흘러내려 마음속에 이상하게 여기었었는데 그 후에 윤덕환과 더불어 교류하면서 더욱 깊이 알게되고 더욱 자세히 살피게 되었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 생과 사의 길이 홀연히 갈라져 덕환이 나에게 묘비문을 요구하니 정의상 어떻게 감히 사양할소냐? 그 행장을 앞과 같이 모아 놓았다。명문에 이르기를

효도와 우애로 정치를 하였으니 누구인들 추앙하지 아니할소냐? 나라가 패망하니 자정하면서 기다렸지요。한적한 산림에서 소요하며 천명을 즐거워 하였다네。세상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니 이것이 우리들의 끝이로다。

구산 양지쪽 무덤에 풀만 묵어있구나。 일깨우노니 너 나무하는 아이와 소치는 아이야 이 무덤을 훼손치 말라。

초계후인 정형규는 삼가 지음

㊶ 愚泉公墓碣銘(諱 昌學) 代言公后 陜川

江陽之郡 有富而好禮者 故漢城府主事尹公諱昌學 字周汝 是矣 有兄命號曰愚泉 漆原人 兄弟三人 晝則常聚於一室 或論文講義 朝夕則子弟羅列階下 行定省禮 有若古之椿津 家法焉 上祖 新羅太師諱始榮 自是 世襲冠冕 在麗朝則七 代封君 在本朝 諱碩輔 直提學 諱卓然 戶曹判書 以光國 勳 封漆溪君諡憲敏 至諱泰基 自廣州 移居陜川 高祖諱 柱國 曾祖諱 載興 祖諱 尙義 進士 有孝行 並妻烈 蒙旌 考諱 永達 秘書監丞 海觀尹尙書 撰碣文 妣贈淑夫人 吳 竹牖澐 後 慶鶴 女 高宗己巳二月二十四日 生公于八壽里 第 公 性度寬弘 才藝超邁 一聞長者言 輒不忘 及長 習功 令聞 嘗入詩場 見人秘密圖榜 告伯兄參奉公曰其亟還諸 自是 絕意擧業 從再堂兄誠齋 學而家務煩劇 餘力 工不能 專一 然 凡遇儒會 拔身往赴 以資觀感 爲壬寅拜漢城府主 事 見氣像不佳 投紱還山 庚戌屋社 慷慨流涕 如不勝生 嘗欽慕勉菴崔先生高義 逮御者南爲也 從容問時義 曰秖有 一死字而已 既而 擧義 被島拘死還故國 曰如先生者 可謂 允蹈前言也 因自誓曰吾有一命之榮 官階雖輕 義無差殊 縱以隻手 不能報國讎 豈可晏然在家乎 即結茅於大德山中 以爲自靖計 辛亥 丁外憂 襄斂送終 必誠必信 至於墳墓齋 舍 無不殫力 及高宗皇帝之喪 一門老少咸集東山齋 擧哀 成服 時 宋鎬完 來言書兢燮 主不服之論 公 忿然曰彼輩 獨非太皇遺民乎 有證無證 吾不欲聽 因山時 一國臣民 爭 先奔哭 並唱獨立萬歲 聲振天地 起發國民生氣 時 仲子炳 奭 被逮經年放還 乙酉 聞日虜堅降 大喜曰民將復蘇 國將 復泰 我輩不勞而復國讎 非天之賜耶 戊子 我國 雖獨立而 南北 分裂 左右各執 歎曰此皆天之未定者也 奈如之何 是 歲八月二十三日 壽以八十 考終 葬于村左下龜嶝負艮原 配 東萊鄭氏 女 先公四年 歿 墓 與公同原小上 男炳球 炳奭 炳馨 炳恒 女適碧珍李昌基 草溪鄭和善 宗遠 希遠 誼遠 致遠出后 延日鄭永壽 義城金甲石妻 長房出 學舜 守遠 尙遠 暘基 草溪卞昶孝妻 二房出 致遠 恩津宋三訓 星山全炳兌晉陽柳遠鎬 草溪鄭鉉宲妻 三房出 聖武 聖直 聖雄 順天朴魯春妻 季房出 曾玄 繁不錄 嗚呼 忠信 爲持 身 孝友 爲御家 其接人也 渾是一團和氣 雖遇倉猝急遽 未嘗有疾言遽色 凡於世味紛華 一切澹如 苟非立心制行 一主乎禮 能如是乎 余嘗避居岳陽 公 一次枉訪 其軒軒丈 夫之氣 流露於容貌辭氣之間 心竊異之 其後 與尹德煥 爲 交而知之益深 察之益詳 歲月 荏苒 幽明 忽判而德煥 要 余表阡 誼何敢辭 撮其狀文如右 銘曰

孝友爲政 孰不仰止 宗國淪喪 自靖以俟 逍遙林泉 樂付天 命 聊以卒歲 寔我究竟 龜山之陽 墓草已宿 戒爾樵牧 勿

毁四尺

草溪 鄭衡圭 謹撰

㊷ 오헌공묘갈명(휘 병기) 대언공후 합천

예전에 성재선생 윤옹의 관산서당에서 수업을 받고자 멀리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배워 식견이 열려 문학 예의 시가등이 지방에 빛나게 되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추모하는데 그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능히 사업을 계승하고 학풍을 떨어뜨리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라면 오헌 윤공을 추대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어찌 학문을 닦은 바가 없이 그렇게 되겠는가? 공은 바로 분암공의 아들이요 성재의 조카이다. 공은 이런 집안에 태어나 재능과 자태에 특이함을 더하여 어려서부터 말로 교육을 받아 나가고 물러서고 대답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질서가 있었으며 또 외우고 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열다섯살 이전에 5경을 모두 읽고 동창생 여러사람과 더불어 연구를 게을리 아니하여 학업이 점차 진보되고 특히 시문제술에 스스로 빠른 방법을 깨우쳐 특별히 무리에 뛰어났었다. 그런고로 윤옹이 특히 재능을 사랑하여 지방의 유림에서 시강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명하였고 보고 느껴 배우도록 시켜서 앎이 넓어졌으며 공도 역시 학문에 깊고 간절한 바가 있어 윤옹이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꼭꼭 가슴속에 간직하고 혹시 책임진 문중의 일들과 친구간의 답례할 것에 한가지도 심성을 다하고 두루 면밀하지 않음이 없게 아침 저녁으로 조심하였다. 그런고로 세상의 화를 앞에서 뒤에서 번갈아 받아 자연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 기회따라 미리 대비하여 윤옹으로 하여금 문밖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하였다. 윤옹의 임종에 이르러서는 통곡하다 정신을 잃었고 여러 자손과 더불어 염습하여 장례를 치르며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이루고 예절은 윤옹께서 정해 놓은 요식을 준수하고 유서를 수집하여 여러차례 대가들의 교정을 받아 안정되고 번다한게 없이 편집하여 인쇄를 하였으니 윤옹을 위한 변함없는 성의가 모두 이와 같았다. 공은 풍채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후하며 몸가짐과 남을 대하는 것은 오직 근신과 정성으로 지켜 겉으로 들어나지 아니하였다. 어버이를 섬기고 아우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며 일찌기 교만과 거짓으로 하는 일은 아니하여 평생토록 수행한 일이 비록 놀랠만한 특이한 소문과 칭찬은 없어도 가정은 늘상 화합하였고 이간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세상일이 갈수록 더욱 험악한게 매우 통탄스러워 아우와 아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예의의 나라가 오랑캐 나라로 변하는 것이 진실로 통탄스러운 바이나 그러나 힘으

로 어찌할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라도 한조각 윤리의 마음이 남아 그래도 사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라도 내가 당연히 고수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항상 이것을 거듭거듭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대략 공이 의연히 지키던 것에 보통사람들과 크게 다른점이 있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사람들의 칭찬이 전해오는것이 진실로 당연하지 아니하겠는가! 공의 휘는 병기요 자는 봉래요 오헌은 별호이다。 분암공의 휘는 성학이요 어머니는 창영조씨이니 정원의 딸이다。 선계는 선고의 비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다시 말하지 아니하겠다。 공은 고종계유년(1873년)에출생하여계사년(1953년) 12월19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팔심리 좌측 도장곡 술좌향에 있다。

배위는 은진송씨이니 종만의 딸이며 공과 동갑년에 출생하여 임술년 7월10일에 졸하고 묘소는 공의 묘소 좌측에 합장하였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두었으니 장자는 승원이요 명원과 성원은 양자로 나갔다。 딸들은 강진환과 문홍인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종진이요 손녀사위는 도제소와 배재걸이니 큰 아들의 계출이다。 종규와 종천이는 성원이 낳았고 강용수와 문기현은 외손자들이다。 달수와 지수와 홍수는 증손자들이다。 종진이 묘비를 세우려고 행장문으로 비문을 요청하니 나는 이미 그 사람의 아버지 비문을 짓고 두번째 일이라 매우 두려웠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내 어릴때에 아버지를 찾아 손님으로 오셔 한두차례 배알하였는데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특별히 하였기에 그 덕과 의리 추모한지 오래이며 깊었다。 이제 또 종진과 더불어 결의한 것이 더욱 깊은즉 비록 두려우나 완고하게 사양할 수가 없었다。 명문에 이르기를 스승과 벗으로 집을 삼고 인륜과 도의로 생활하도다。 검소한 생활에 지조를 지켜 그 타고난 본성을 보존하였도다。 공자가 말씀하신 근본이 성립한 사람이라 말 할 수 있고 맹자가 말씀하신 세가지 즐거움이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도다。 오직 이것을 비석에 써서 후손에게 보이노라。

광복후 기사년(1989) 9월9일

화산 권옥현은 삼가 짓고

수원 백남수는 삼가 쓰다

1990년 6월 일 세우다

㊷ 梧軒公墓碣銘(諱 炳岐) 代言公后 狹川

往昔誠齋先生尹翁受徒于冠山書舍也遠邇學者多就受啓發文禮風流照曜一方至今爲誦慕而若其始終承奉能述緖業不隕風韻者莫不推以梧軒尹公此豈無所修而然哉公即憒庵公子而誠齋之徒子也公篤生是家加之才資殊異自齠齡受唔詔進退唯喏早有端序又勤誦讀未成童而盡讀經子與同繫諸

公刮劘不懈業有漸進尤於敍述自知豁逕超有拔倫故翁尤器受鄕道儒苑聞有會講則必命往叅使觀感薰染以廣進趣公亦有深切斯事之志翁有所誨咨咨服膺恐或責負凡門宗之事役士友之應酬無一不盡心周章夙宵兢兢故世禍之後先交迫者良多艱險而皆隨機綢繆使翁不知門外有何世也及翁就世痛失依倣與及諸子斂殯治葬極致議敬儀節一遵翁所定輯要因收遺文累受大方諸公監校寧要無煩述狀付梓盖爲翁斷之誠始終如此公風儀雅正性度溫厚持身接物惟守謹恪不爲表襮至於事親友弟惟盡在我可及之力未嘗爲矯僞之事是以一生所修雖無驚異之著稱而家常和洽間言無作甚痛世道之去益險惡戒弟與子曰以禮義拜國淪於夷虜誠所痛迫然力莫可奈惟在我之一片彝衷尙有未泯是非吾人所當固守者耶常以是申申爲言於此槩可想公毅然所守者大有異於人矣人之傳稱固不宜歟公諱炳岐字鳳來梧軒別號也愼菴公諱誠學妣昌寧曺氏定源女先系詳著考墓碣故不復書公生洪陵癸酉卒癸巳十二月十九日墓在八尋村左道藏谷戌坐配恩津宋鍾萬女生同年卒壬戌七月十日墓祔左生三男二女男承遠鳴遠聲遠俱出人后女適姜津桓文洪仁孫男鍾振女都載小褁在杰長房出鍾奎鍾千聲遠生姜鎔洙文基鉉外孫也達洙志洙興洙會孫也鍾振將表阡以狀請銘余已銘具先公阡再甚猥矣然窃念余幼時一二獲拜諸父客位以諄諄詔語撫愛特異仰伏德義者久而深今友與鍾振託契尤深則雖猥不可固辭銘曰家門師友茶飯倫彝履素守貞保厥所貽語云本立孟曰樂有惟以是揭諸阡視來後

光復後己巳重陽節花山 權玉鉉 謹撰
水原 白南壽 謹書
庚午 六月 日 竪碑

◇

㊸ 학생공묘갈명(휘 병석) 대언공후 합천

합천군수 윤상원이 나의 아들 창호와 인연이 있어 나도 만나 보게되었는데 선친의 묘비문을 요청하며 말하기를 선친의 비명문은 이미 나의 형이 지은 것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비석이 구비되었는데 그 비문은 아들의 사견에서 나온 것이라서 그 믿음에 공정성이 부족할까 늘 두려워서 꼭 소중한 말씀을 얻으려 하니 거절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하였다。나는 집이 이웃 마을에 있어 윤씨와 더불어 가깝게 지냈고 또 윤군이 넓고 원대한 기개가 있는 사람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기미년에 국가는 다시 기회를 얻어 독립의 소리를 크게 소리쳐 전국이 진동하였다。윤군이 분연히 일어서 동지들을 이끌고 앞장섰다가 바로 왜경에게 구속되어 1년 후에 풀려났다。을유년(1945년)에 이르러 국가가 광복되자 곧 서울로 달려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찾아가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정책을 논의하여 정부통령 모두가 그의 논의를 받아들였다。그러나 윤군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먼저 직위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하고 또 유림을 단결할 계획을 세워 통문을 돌려 경상도에 회의소를 설립하고 조금이라도 품은 뜻을 펴보려고 하였다。그는 평생동안 뜻을 도의에 두고 있어 구차하게 자신만 편안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대략 이와 같았다。아 몸이 있으면 편안한 것을 찾고 집이 있으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인정이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또한 자신이 뜻을 확고히 하는 것과 집안은 나라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는 고로 반드시 나라가 있은 후에 집안을 보호할 수 있고 뜻이 있은 후에 자신이 헛되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라 소리쳤으니 이것을 모든 용렬하고 평범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겠는가? 윤군은 이런 의의를 잘 알고 있으니 그가 자취없이 사라져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안되겠기에 당연히 공정한 말을 찾아야 되겠으며 사사로이 전해지는게 편안하지 않다는 효자의 정성에 지극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더욱 가상하였다。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고 비문을 짓기로 응한 것이다。공의 휘는 병석이요 또 복주라고 개명도 하였으며 자는 남현이고 자호는 학당이다。윤씨의 계출은 칠원이니 고려시대에 일곱분 선조가 군호에 봉해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직제학공 석보와 칠계군에 봉해진 헌민공 탁연이 있고 칠평군에 봉해진 충장공 경원과 한림검열 길원 형제가 있었으니 모두 저명하신 분들이다。검열공이 아들이 없어 선교랑 태기가 충장공의 둘째 아들인데 양자를 하였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10대조이다。증조부는 진사에 합격한 상의이니 효행으로 정려를 받았고 조부는 비서감승 벼슬을 한 영달이요 아버지는 주사 벼슬을 한 창학이다。어머니는 정씨이니 동래 후인이며 훈민의 딸이다。서기 1889년(광무전 기축년)에 윤군은 합천 팔심리 세거지에서 태어나 향년 66세로 을미년(1956년) 4월1일에 졸하였다。묘소는 이웃 마을 구등산 동남동향(신좌)으로 선산옆에 있다。배위는 의성 김씨 동직의 딸이다。아들 4형제를 낳았으니 학순이 장자요 차자는 수원이요 셋째는 군수 상원이요 넷째는 창기이다。딸은 밀양 변창효에게 시집갔다。큰 아들집 손자는 종현이요 딸들은 조병주、노영수、권영철에게 시집갔다。둘째 아들집 손자는 종태와 종창이요 딸은 송호업의 아내가 되었다。셋째 아들집 손자인 종현은 백부 양자로 들어갔고 종숙、종정、종목이며 딸은 미혼이다。넷째 아들집 손자는 성우요 딸들은 어린이들이다。외손자는 변종갑이다。명문에 말하기를

우아하고 고결한 태도와 강직하고 과감한 지조는 행동을 마음에서 이루어 뜻이 높아도 오만하지 아니하도

다。아들들이 본받아 영원히 그 기약 이루리라。공정한 증거 백세가 되어도 이 비석문에서 볼 수 있으리라。

정미년(1967) 7월30일

의성 김 황은 삼가 짓고

연안 이영달은 공경히 쓰다

㊸ 學生公墓碣銘(諱 炳爽) 代言公后 陝川

陝川郡守尹尚遠 因吾兒昌鎬 以見於吾 且請銘其先考府君之墓 曰先人之銘 已有伯兄所作而今石 已具矣 尙恐其出於家人之私而不足以徵信公聽 所以要得一言之重 幸其勿拒 余居在鄰鄕 與尹氏 有聲氣之求 又知君之爲人 弘遠有氣槩者 夙矣 當己未之歲 國復 有機 獨立嵩呼 震動全域 君郎 奮然起應 驅率同志而爲之前坐 是拘係犴狴 經年方解 及至乙酉 國竟光復則乃趣赴京師 訪謁大統領 及副統領 論陳保國理民政策 俱被嘉納 然君 自念欲有爲 必先得位 於是 以身出望於國會議員 不遂則又謀團結儒林 通文設會 于鄕道覲 以少展蘊抱 蓋其平生 志在道義而不苟於自私偸便 大抵如此 嗟呼 有身而求安 有家而圖利 人情莫不盡然 抑且不知身者 持志而立 家者 國之一分也 故必有國而後 家可保 有志而後 身不爲虛生也 是可與一切庸碌者 道哉 而君 能知此義矣 則其不可泯然無聞於世 宜也 其必求之公談而不安於私傳 可見孝子之至情 靡不用極 尤可尙也 余 所以忘其匪人而爲之應副者也 君 諱 炳爽 又改福注 字 南賢 別自號 鶴堂 尹氏 系出漆原 在高麗 有七封君 當韓代 直提學碩輔 漆溪君憲敏公卓然 漆坪君忠莊公慶元 翰林檢閱吉元 兄弟 皆其顯名者也 檢閱公 無嗣 宣敎郎泰基 以忠莊公仲房 入爲後 寔公 十世祖也 曾祖 進士尙義 以孝 蒙闡 祖 秘書監丞永達 考 主事昌學 妣鄭氏 東萊人壎民 女 光武建元前八年己丑 君 生于陝之八壽里世第 六十六歲 乙未四月一日 卒 墓 在里近龜嶝山嚮辛原 從先兆也 配 義城金東直之女 生四子 學舜 其伯 次守遠 次郎 尙遠 次瑒基 一女 適密陽卞昶孝 伯房 嗣男鍾現 女 曺秉珠盧永壽權泳徹妻 仲房男 鍾泰 鍾昌 女 宋鎬業室 叔房長男 鍾現 入承宗鍾珹 次 鍾政 鍾穆 女 未行 季房 晟宇 女 幼 外孫卞鍾甲 系以銘曰 雅潔之儀 剛果之操 行成由內 志高非傲 有子克肖 致遠是期 公徵百世 尙視銘詞

丁未秋七月澣 義城 金 榥 謹撰

延安 李英達 敬書

◇

㊹ 심재공묘갈명(휘 병형) 대언공후 합천

심재 윤공의 휘는 병형이요 자는 덕환이다。그가 죽어 장례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의 조카인 수원이 남긴 글과 행장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묘비문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나는 공과 외람되게도 동문이었으며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으로 맺어져 공부하며 서로 왕래한지 지금까지 50여년이 되었는데 어느날 아침 갑자기 당하였으니 장차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랴? 내 비록 병들어 붓을 버렸으나 후배의 책임이 있어 비문을 짓지 아니할 수 없어 삼가 칠원윤씨를 찾아보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인 휘 시영으로 시조를 하고 있으며 대대로 빛나는 문무관리가 고려말까지 이르며 끊어지지 아니 하였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 휘 석보는 직제학 벼슬을 하였다。 그리고 4대를 전하여 휘 탁연이며 아호 중호가 있었는데 이퇴계 선생을 사사하고 벼슬은 호조판서를 하였고 시호는 헌민공이었다。 2대를 전하여 휘 태기는 선교랑 벼슬을 하였는데 광해군의 난정을 당하여 남쪽지방 합천으로 이사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았으니 공에게는 10대조가 된다。 증조부 휘 상의는 진사에 합격하고 조부 휘 영달은 비서감승 벼슬을 하였으며 아버지는 휘 창학이며 아호는 우천이며 한성부주사이니 효행과 학덕이 있었다。 어머니는 동래 정씨이니 훈민의 딸이며 부인의 규범이 있었다。 고종신묘(1891년) 8월1일에 공은 팔심리 종가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천부적으로 기이한 자질이 있고 눈매가 비범하여 일찌기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 놀때 맛있는 과실을 얻으면 곧 제사상을 차려놓아 보는 이들이 모두들 기이하게 여기었다。 겨우 말을 배우며 능히 글자를 알았으며 9살에 소학책을 읽었는데 이때부터 새벽마다 반드시 세숫물과 양칫물을 떠다 드리고 아침、저녁 잠자리 보살피는 예절을 하였으며 점점 자라면서 4서5경을 두루 읽었는데 이때가 20세 전후였다。

을묘년(1915년) 겨울에는 간재 전우선생을 개화도까지 찾아가 뵈었는데 선생이 한번 보고 소중한 인재로 여기며 본성과 천명의 원리를 가르쳐주었으며 돌아와서는 동문의 여러 동지와 더불어 날마다 도의를 강론하였으니 석농 오영진、흠제 최병심、창수 정형규、척암 조한규、비천 전기진 등이 가장 막역한 사람들이다。

을유년(1945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슬픔과 예절을 모두 갖추었으며 장례일에는 애통해 하며 꼼꼼히 살펴하였다。 무자년(1948년)에 아버지 초상을 당하여서도 어머니 초상때와 동일하게 하였다。

기해년(1959년) 봄에는 서재를 주거지 곁에다 지어놓고 현판을 원상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심원에서 의의를 따온 것이나 사실은 우천공의 유언이 있었다。 날마다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그 속에서 조용히 살며 더욱 춘추책과 주자대전과 퇴계문집、율곡문집、우암전집 등을 읽기 좋아하여 밤낮으로 책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시골 학생들이 학문을 문의하면 하나하나 분석하여주되 먼저 내외본말과 경중심천의 구분을 살펴보았으며 또 성학도로 병풍을 만들어 좌우에 쳐놓고 보고 느

낄수 있는 자료로 삼았으며 제자백가의 책을 찾아와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갖추어 놓았다. 매년 4월11일이면 친구들을 불러모아 예절을 읽히고 도의를 강의하며 동지계도 설립하고 방안도 세워 크게 유교 교육을 진흥시키었으며 또 선조 모시는 것을 독실히 하여 부모와 형제의 묘소에다 모두 비석을 세우고 위토를 매입하고 재사를 마을 위에 지어 춘추로 제사올리는 장소를 마련하였으며 우천공 시문집을 발행하였다.

늙어서는 달성군으로 이사하여 날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더불어 혹은 노래도 부르고 혹은 시도 읊으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그것은 걱정과 울분이 세상을 슬퍼하는 감정에서 터져나온 것이었다. 77세 되던 정미년(1967년) 4월4일에 집에서 졸하여 살고있는 마을 북쪽 산기슭 선산아래 남남동향(해좌)의 산등에 장례를 하였으니 그것은 생전의 유언이었다.

아내는 보성 오씨이며 치의의 딸이니 자손이 없어 큰형의 넷째 아들인 치원의 아들을 양자로 취하였는데 늙게 아들 우원이를 낳았으며 네명의 사위는 송화영, 전병태, 유원호, 전현채등이다.

아 공은 예민한 재능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젊어서 도통연원의 정통을 계승받아 오직 오륜삼강의 떳떳한 도리에 전념하였으며 옛 것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재화는 소홀히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기며 말씨의 사이에 온화한 봄바람 같은 덕기가 있었으며 일가에 화목하고 실질적인 것에 힘써 문장과 시가의 귀절만을 섭렵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본래 뜻을 알도록 하였으니 그의 함양된 덕행과 은혜의 혜택은 족히 등용될만한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삼촌숙부들이 본인보다 늦게 출생하여 평민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근심하고 후회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아 저 조물주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내 눈으로 보건대 세상은 지금 재화가 하늘에 이르면서 선비들을 먼저 패망시키니 나의 동문중에 노숙한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떠났으니 슬프도다 이 황량한 것을 누구에게 허물할소냐? 탄식하고 슬퍼할 뿐이로다. 이어 명문에 이르기를

샘물이 있으면 근원이 있나니 그 누가 끝을 찾을꼬? 넓은 바다의 진정한 맥은 돌 틈의 물이 진정한 근원이라네. 공은 사실상 능히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니 성현 학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네. 그 문장도 빛나고 그 덕행도 빛나지요. 백세가 되도록 그 아름다운 명성을 이 작은 비석이 증명하리라. 고인이 지은 글 어찌 감히 더럽힐소냐? 저 초목들까지 경계의 말을 하노니 영원히 백세까지 소명하리라.

무신년(1988년) 9월 일

하동 정도현은 지음

㊹ 尋齋公墓碣銘(諱 炳馨) 代言公后 陜川

尋齋尹公 諱 炳馨 字 德煥 歿旣葬踰年 其從子守遠 抱遺狀 謁余以銘其墓 余於公 猥忝同門 託以歲寒之交 講磨徵逐者五十年于玆矣 一朝溘然 將何以爲情 余雖病廢筆硯在後死之責 不可以不文辭 謹按漆原氏 以新羅太子太師諱始榮 爲鼻祖 爀世軒晃 至麗季不替 入我朝 有諱碩輔 直提學 四傳至諱卓然號重湖 師事退溪先生 戶判諡憲敏 再傳諱泰基宣敎郞 當光海政亂 南奠于陜川 子孫 仍世居 於公 爲十世祖也 曾祖尙義 進士 祖永達 秘書監丞 考昌學號愚泉 漢城府主事 有孝學 妣 東萊鄭氏㦂民 女 有閫範以高宗辛卯八月一日 生公于八壽世第 公 生有異質 眉目殊凡 甞與群兒遊 得美果 輒設俎豆儀 見者皆異之 甫學語能識字 九歲 讀小學 自是 晨必盥漱 定省以禮 漸就遍讀四書五經 弱冠前後也 乙卯冬 贄謁艮齋先生于華島 先生一見器重 授以性命之源 退與同門諸公 日講磨道義 吳石農震泳 崔欽齋秉心 鄭蒼樹衡圭 趙惕菴瀚奎 田飛泉璣鎭最莫逆也 乙酉 丁內艱 情文備盡 及葬日 必哀省 戊子 丁外艱 一如前喪 己亥春 築精舍于所居之傍 扁曰源上 盖取尋源之義而實愚泉公之遺詔也 日必冠帶 靜處其中 尤好讀春秋朱書 及退 栗 尤 全集 晝夜不撤 村秀問業 一一剖析先審內外輕重之分 又以聖學圖 爲屛 列左右以資觀省 蓄百家書 備需來學 每於四月十一日 廣邀朋舊 習禮講道 設契立案 丕振儒風 且篤於奉先 於考妣及伯兄之墓 皆立石置祭田 築齋于村上 以備宰牲肄業之所 刊愚泉詩集 行于世 晚年 僑居于達城府 日與會心友 或嘯或咏 以送餘年盖出於憂憤感世之意也 以七十七丁卯四月四日 卒于寢 葬于所居北麓先兆下坐亥之原 治命也 配 寶城吳氏致義女無育 取伯兄第四子致遠子之 晩生有一男禹遠 四女壻 宋華永 全炳兌 柳遠鎬 鄭鉉采 噫 公 通敏之才 盡刻苦之力早承淵源之正 惟專心於彛倫之常 好古樂善 輕財重義 辭氣之間 藹然有春風之德 敎本務實 不馳聘於文詞之末 以求人知 其涵畜之德 惠施之澤 足以爲有用之才而叔季晩生白首窮居 無悶不悔 噫 彼造物者竟亦何意 目見今世禍滔天 儒術 先受其敗 同門老成 後先皆謝 哀此踽凉 誰與爲靠 嗚呼悲夫 繼以銘曰

有泉有源 孰尋其極 滄洲正脈 石潭眞的 公實克溯 無愧聖學 煥乎其文 炳然其德 百世令名 徵此片石 故人作辭 豈敢諂瀆 戒彼草木 永昭來百

戊申九月 日

河東 鄭道鉉 撰

◇

㊺ 금강공묘갈명(휘 성학) 대언공후 창원

나의 친우인 금강 윤군이 죽어 3년 상기가 끝나자 그 아들 병희가 자신이 쓴 가장과 아울러 내가 잘 아는

이정호군이 지은 행장문을 가지고 찾아와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읽어보고 비문에 쓰기를 군의 초휘는 창학이었는데 후일 성학으로 개명하였으며 말년에는 영재로 바꾸었는데 더욱 저명하였으며 자는 태경이며 금강이란 그의 별호이다。

윤씨는 칠원으로 관적을 하고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이 시조가 된다。 후세에 휘 거부는 고려시대에 호장보윤을 하여 칠원백에 봉해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휘 이는 순충보조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세자사로 추증되고 구원부원군으로 봉해졌으며 그가 휘 탁연을 낳았으니 호는 중호인데 아계 이산해、 간이 최립과 더불어 교류하였고 8대 문장이라고 지칭되던 사람들중의 한사람으로 벼슬은 호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으로 시호를 추서받았다。 증조 휘는 재원이고 호는 정한이며 할아버지 휘는 상의이고 호는 청계이며 아버지 휘는 영도이고 호는 화산이니 학행과 절의가 있었으며 남겨 놓은 책이 있다。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니 정랑벼슬을 한 수세의 딸이며 부인의 덕행이 있어 향리에서 칭찬을 받았다。

군은 광무경자년(1900년) 6월29일 칠원 금단리에서 출생하였는데 타고난 인품이 단정하고 총명하며 글을 배워 문리를 일찍 깨우쳐서 독려를 기다리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화산옹이 기특하게 여기어 매우 사랑하였는데 일찌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것이라 하였다。

12살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애통하게 울고 예절 지키기를 성인같이 하였으며 남겨진 가업을 이어서 근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어머니의 뜻과 몸을 받들기 20년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 애통하게 울기를 아버지상 때와 같이하였으며 3년 상기를 끝내고도 심상으로 6년을 더 하였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군은 독서를 매우 많이 하여 의약에도 밝아 합포항안에 약국을 개설하였는데 병자들이 문앞에 장사진을 쳤었다。

그리고 선조를 위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여 상포、검단、유원의 재사를 모두 중수하고 설단하였으며 중호선생의 유집과 양성당 실기를 간행하였으며 또 몇년만에 걸쳐 처음으로 대동보를 편찬하느라 군의 마음과 몸이 거의 문드러졌어도 한번도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군은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답고 선한 기색이 눈섭끝에 넘쳐 쳐다보는 사람마다 친애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늘상 세상의 변천을 궁리하니 미리 아는 예언가로 불려졌다。 세금을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사정을 두지 아니 하였으니 그의 가슴속은 맑고 넓어

득과 실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68세 되던 해인 정미년(1967년) 5월6일에 편안히 세상을 끝내어 웅천 천자봉아래 남남동향(임좌)에 장례를 하였다。 회산 황씨이며 선비인 농주의 딸과 결혼하여 3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병휘、병철、병기이고 딸은 진치범、이원규에게 시집갔다。 기타는 어린 이들이라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일찌기 군의 집과 7년간이나 이웃에 살면서 은혜를 입은 적이 여러번이었으며 일찌기 제문을 지어 군을 제사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자상하게 기술하지 아니하였다。 명문에 이르기를

착하고 믿음직한 자태는 기린과 봉황처럼 늠름하더니 아 이제 마침내 좌절되어 천길 하늘로 날아갔다네。 그 하나 하나 거론하자면 만인 중에 으뜸이었도다。 내 모두 거두어 글을 짓고 비석에 새기어 나타나게 하였노라。

기유년(1969년) 동지절　　하산 성순영은 지음

㊺ 錦崗公墓碣銘(諱 晟學) 代言公后 昌原

余友錦崗子尹君 沒三年喪畢 其胤炳曦 手草家狀 並余所善李君晶浩所撰行狀 請余以外碑之文 余乃按而書之曰君初諱 昶學 後改晟學 晩乃行以英宰 乃尤著云 字 台卿 錦崗 其別號也 尹氏 貫漆原 以新羅太師顧命元老諱始榮 爲上祖 後世 有諱鉅富高麗戶長甫尹 有云封漆原伯 入韓朝 有諱伊 贈純忠補國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世子師龜原君 生諱卓然 號 重湖 與李鵝溪 崔簡易 遊 世稱八文章之一也 官戶曹判書封漆溪君諡憲敏 曾祖諱 載源 號 靜軒 祖諱 祥義 號 淸溪 考諱 永道 號 華山 有文行節義 有遺集 妣 密陽朴氏正郎諱秀世之女 甚有婦德 見稱於鄕里 君 以光武帝庚子六月二十九日 日生于漆原檢丹里 生禀端勅聰慧 上學 文理就夙 不待督課 華山翁 奇愛甚嘗語人曰此兒必大吾家 十二歲 遭考公喪 哀毁守制 如成人 收拾殘餘世業 勤儉治生 奉母孺人志體養備二十年 母孺人 沒世 哀毁如前 喪三年畢 仍爲心喪六年 盖以未盡情於二親 君 讀書甚多 傍究醫藥 開鋪於合浦港裏 病者塡門乃竭力於先事 上浦 檢丹 柳原 二齋 皆重建設壇 重湖先生遺集 及養性堂實紀 刊布 又創議修大同譜 積歲年 君之心血 幾乎爛矣而一不見嚬縮疾遽色 君 秀幹美髥 善氣溢於眉端 望之者-無不親愛 常心切世變 凡稱先知預言者 多召納而館穀之 有欺負者 亦不關情 其胸懷擔蕩 不計較於得失也 以六十八歲丁未五月六日 考終 葬熊川天子峰下壬坐 娶檜山黃氏士人瓏珠女 生三男二女 男 炳曦 炳哲 炳騏 女 適陳治範 李元圭 餘幼不錄 余嘗接隣於君居七年 被眷恤者多而嘗爲文以祭君故 茲不詳銘曰

善信之姿 麟鳳祥也 嗚乎竟挫 千仞翱也 擧其片羽 百夫之特 我撫爲文 顯刻墓石

己酉 冬至節　　夏山 成純永 撰

⑯ 가선대부공묘갈명(휘 광무) 대언공후 고홍

여기 고홍군 풍양면 야막리에 있는 이 산소는 고 가선대부 휘 광무 할아버지를 모신 유택인바 공은 칠원인으로서 초휘는 광택이요 자는 관부이며 아호는 사재이시다。그 조상은 태자태사를 지내신 바 있는 휘 시영으로 그 후예들이 신라조를 거쳐서 이조에 이르기까지 삼조에 걸쳐 현직고관대작들이 많이 배출했으며 공의 고는 휘 종일이요 비는 홍양이씨 진욱의 따님으로 영묘 병술9월16일에 공이 탄생하였는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능히 사친의 예절과 경장지도를 알았고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용모가 단아하고 기우가 굉대하여 장자의 기풍을 갖추었으며 학문과 독서를 즐겼으나 가세가 빈한하여 가위 형설의 공을 쌓아 대성하신 분으로 종족들과 돈목하고 자여질이 모두 효도로써 이름이 높게 함으로도 가히 공의 인품을 미루어 알만하나니 공께서는 일찌기 야막리 일우에다 주택을 축조하고 연지을 마련하여 연화를 심어 놓고 한가이 일월을 보내시다가 헌종조 병오년에 이르러 공의 연세가 81의 고령임에도 심신 공히 건장하시와 멀리 한양까지 올라가서 생원시에 급제하여 곧 절충장군겸오위장의 제수를 받으시고 이어 첨중추에 오르셨다가 4년후인 기유년에 가선대부에 오르셨으나 이해 12월23일에 졸하셨으니 오호라 공의 부음을 전해들은 원근 사람들이 모두 애통해 여기지 않은이 없었으며 배중정부인 홍덕장씨는 장흥관향 유택에 모셨고 계비정부인 청주한씨는 휘 정익의 따님으로 공과 쌍조를 본산에 모셨으며 두 따님은 박도영、이광조에게 출가했고 계자인 치국은 벼슬이 통덕에 올랐으며 공께서는 심오한 학문과 탁월한 시재를 지니신 분으로서 그 성예가 한결높고 널리 전해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자제교육에 있어서는 경신숭조과 사상과 충효의 정신 그리고 근검절약의 미덕을 항시 고취하시고 향당을 이끄심에 있어서도 심협을 경주하사 인보상조하고 애경상문하며 환난상휼등의 미풍양속을 함양하시고 수많은 미담가화를 남기심은 다만 윤씨가문의 영예에 그칠뿐만 아니라 누구나 추앙하여야 할 가상한 일로서 드높은 그 얼이여 하늘아래 거울이요 뛰어난 행적이여 만사람의 본이로다 후손들 명심하여 가문 더욱 빛내시라。

1979년 1월 일

현손 영욱 영국

5대손 봉학 현근 문학 순근 경근 장근
무학 규근 제근 수근 태근 광근

지은이 밀양후인 박 상 진

쓴 이 고령후인 신 윤 우

(3) 묘 비

① 시조공 묘비문(휘 시영)

아… 태사공 부군은 우리 칠원윤씨의 시조이시니 휘는 시영이시다。족보에 이르기를 옛날 신라시대 칠원현에 윤씨 부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시영이라고 하라 하였다。꿈을 깨어 이상하게 여기다가 아이를 낳은 후 신령님의 계시대로 이름을 시영이라고 하였더니 후일에 귀하게 되어 태자태사 고명원로에 이르시었고, 배위는 실전되었다。아… 부군께서는 탄생하신 징조가 평인과 다르고 관직의 높음이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니 그 뛰어난 재주와 덕망과 공적을 세운 것이 반드시 기록되어 전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세상은 나라가 세 번이나 바뀌고 연대는 천여년이나 흘러 남아있는 역사의 증거도 없고 부러진 비석은 말을 아니하여 자취도 없이 사라져 참고할 수 없으니 애석하기 이를데 없다。그러나 오직 후손들이 번성하게 늘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관직도 빛나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드높이고 덕망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 저명한 씨족이 되었으니 어찌 부군께서 당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공덕이 아직까지 능히 후세의 자손들을 그 그늘로 덮어 감싸고 도와서 영원히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묘소는 경상도 칠원현 서쪽 홍포제일봉 남쪽기슭 남향(자좌)에 모셨는데 뒤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앞에는 늪이 열려 세상에서 말하기를 명당이라고 한다。여러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묘소에 세웠던 석물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지 지금까지 거의 수백년이 되었다。산하에 사는 여러 후손들은 산천이 변천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원근에 편지를 보내어 수백 냥의 돈을 모아 비석을 만들어 묘정에 세우면서 불초한 나에게 비문을 지으라고 하므로 혼자서 깊이 생각을 하여보니 비석의 명문은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오나라 연릉에 계자의 묘소가 있다고 하시였기에 이것을 본받아 한 것이지 어찌 감히 근거 없는 말을 꾸며서 도리어 선조를 속이는 죄를 지을소냐! 삼가 최초로 태어나신 사실과 묘소가 있는 산천의 이름을 갖추어 비석 뒷면에 새기어 춘추로 성묘할 수 있게 마련해 놓고 또 나무꾼과 목동들로 하여금 옛날 신라 때 현명하신 대신의 묘소임을 익히 알아서 행동을 삼가하고 길을 피하여 다니게끔 알린 것이다。아… 우리 조상 고향의 여러 일가들은 정성으로 수호하며 영원히 중지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산소를 가르쳐줄 눈이 들어가고 수염이 난 노인을 기다릴 일이 없을 것이다。상서공 휘 을부와 충의공 휘 길보의 묘소도 역시 태사공묘소 아래에 있다。

서기1937년 전가선대부시강원첨사

후손 상학은 삼가짓고

권창륜은 삼가 쓰다

시조공 묘비문 추기

삼가 시조공비문을 읽어보면 전가선대부시강원첨사후손 상학이 글을 짓고 전이조판서 해평후인 윤용구가 글씨를 써서 묘정에 최초로 세웠지만 6·25전쟁으로 인하여 부러지고 깨져서 그 좋은 글과 글씨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묘비가 없는 것도 또한 옳지 아니하여 휴전후에 다시 옛비문에 의거하여 새비석으로 바꾸어 세워 놓으니 문장은 비록 전인이 지은것 그대로이나 글씨는 타인이 의작하여 쓴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정화작업을 하면서 그 의작된 짧고 작은 비석을 거두어 계하에 매립하고 길고 큰비석으로 바꾸어 묘정에 세우면서 비문은 예전 그대로 한자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였다。 글씨는 서예가 초정 권창륜씨에게 부탁하여 추기문을 삼가 비끝에 새겨 후세손들에게 묘비의 역사를 밝히고자한 것이다。

서기 1997년12월　　일

전인천지방검찰청장후손 영학은 삼가 지음

① 始祖公墓碑文(諱 始榮)

嗚呼府君維我漆原尹氏之初祖也諱始榮譜云昔新羅世漆原縣有尹氏婦方孕夢神人來告曰兒生名以始榮及娩因以命名焉後果貴官至太子太師顧命元老配失傳嗚呼府君嶽降之兆迴異凡民爵位之尊躋列上公其才德之蘊抱勲業之樹立必有可記可傳者而世更三古年歷數千殘史無徵斷碑不語泯然不可攷惜哉然惟雲仍蕃衍其麗不億簪組燀爀奕世有名德爲東邦著族豈非府君當日致澤君民之餘烈尙能庇庥來裔傳之无窮者歟墓在慶尙道漆原縣西鴻浦第一峰南麓枕子之原背流洛江前開藪谷世稱名墓云累經兵燹衛墓之儀湮沒無迹者殆數百年于玆矣山下居諸孫深懼陵谷之變遷謄書遠近鳩得數百金伐石表阡而屬余不肖以賁之竊惟碑銘夫子所謂嗚呼有吳延陵季子之墓斯可法矣何敢强飾無稽之辭反取誣先之罪哉謹具厥初所生之蹟環阡山水之名刻之碑陰用備春秋瞻省且使樵牧者慣識勝國賢大夫衣履之藏而知所以禁避哉嗟我祖鄕諸宗恪謹守護永世勿替庶幾異時無待乎深目而髯者矣尙書公諱乙富忠義公諱吉甫之墓亦在其下云

歲在丁丑

前嘉善大夫侍講院詹事後孫　尙學　謹識

權昌倫　謹書

始祖公墓碑文追記

謹按始祖府君之碑文則以前嘉善大夫侍講院詹事後孫尙學之識前吏曹判書海平后人尹用求之書初立於墓庭以庚寅戰火中折破碎其玉章銀鉤不可復得見焉然久闕墓儀亦不可矣休戰之後復依舊碑文而換易新碑識文則雖前人之述書跡則他人之擬作也然而今爲改莎築石撤其短小之舊碑埋于階下

易其長大之新碑竪于墓庭但識文則依舊碑而不以一字加減焉筆書之賢勞請於書藝家艸丁權昌倫氏與追記之文謹付於碑後使後世之孫欲明于墓道小史也

西紀一九九七年十二月　日

前仁川地方檢察廳長 後孫 榮學謹記

◇

② 상서공 묘비문(휘 을부)

고려시대 이부상서공의 휘는 을부요 성은 윤씨로 관적은 칠원이시다。공이 돌아가신지 천년이 가까운데 후손들이 선조를 추모하는 정성으로 묘소에 세울 여러가지 석물을 구비하여 놓고 공의 26대 후손되는 영원이 족보를 펴 보이면서 비문기록을 부탁하여 나는 대대로 교류한 정의가 있어 사양 할 수가 없었다。족보를 읽어보고 그 문헌에 의거하여 보태고 빼는것 없이 기록하였다。공은 고려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이부상서에 이르고 원나라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원나라에서도 홍위위별장 벼슬을 하시었으나 관직에 있으면서 원나라 요동에서 순직하시었으며 아내는 강릉김씨이시다。묘소는 칠원 상포 용화산 남향산능인 시조공묘소하에 합장하였다。

공은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이 시조가 되시고 태사국판사 휘 황은 태사공의 아들이다。고려시대에 이르러 보윤호장이며 칠원백에 봉해진 휘 거부는 기세조가되시고 10대조에서 5대조까지는 재상의 서열에 오르시어 군호에 봉해지고 시호가 추증되었다。고조 휘는 유이시니 문과에 급제하여 지도평의사사를 역임하고 무창백을 받았으며 시호를 익량공으로 추증되었고 증조휘는 은경이니 판후덕부사에 이르고 칠제군호를 받고 시호는 안혜공으로 추증되었으며 조고휘는 박이시니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감직사로 서주 관풍 삼도의 군수를 하였고 아버지 휘는 세득이시니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감찰지평서해광순어사를 역임하고 어머니는 하동정씨이시다。공의 아들인 홀은 검교대전검위유랑장을 역임하였으며 아버지 상서공께서 원나라에서 순직하였다는 부고를 받고 만리길을 멀다 아니하고 요동으로 가서 체백을 모시어다 선산하에 안장하고 삼년간 상기에 애모하기 간절히하여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가상하게 여기어 부의로 포목을 하사하고 랑장으로 특진시키었다。손자인 송제는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겸동북면도지휘사에 이르고 원나라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원나라 중랑장을 받았고 증손자인 양삼은 광록대부추밀원부사행우찬선검교신호위장군이며 현손자인 수는 정순대부군부판서응양군상호군이었다。5대손이하로 재상 장수들이 여러사람이 나와 대단히 번성하여 글로는 모두 기록 할 수가 없었다。명문에 이르기를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이후까지 높

은 관리들이 계승하였도다。오륜과 삼강의 도리를 수행하여 삼정승육판서가 되었다네。선조님의 영혼이 보우하시어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이 계승되었도다。낙동강은 북쪽을 둘러있고 용화산은 서쪽을 선회하였도다。크고 넓은 비석을 여기에 세우니 만고역사가 눈앞에 있다네。이 비문으로 찬양하였으니 나무꾼이나 목동은 오직 삼가할지어다。

서기 1997년 정축년 월 일 세우다

분성후인 배문준은 삼가 짓고

권창륜은 삼가 쓰다

② 尙書公墓碑文(諱 乙富)

高麗吏部尙書公의諱는乙富요姓은尹氏요貫籍은漆原이시다公이永眠하신지近千年인데後孫들이追遠之誠으로墓儀一切를具備하고公의二十六代孫英遠이世譜를開示하면서碑碣銘記를付託하여나는世誼가있어辭讓할수없었다삼가譜册을읽어보고文獻에依하여加減없이記述하였다公은高麗朝에서文科에及第하여官職이吏部尙書에이르고元나라에使臣으로나가시었다가元나라興威衛別將벼슬을拜受하였으나在職中에그곳遼東에서殉職하시었으며配는江陵金氏시시다墓所는漆原上浦龍華山子坐原의始祖公墓下에合窆되었다公은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이鼻祖가되시고判太史局事諱璜는太師公의嗣子이다高麗朝에이르러戶長甫尹이며漆原伯에封爵된諱鉅富는中始祖가되시고十代祖에서五代祖까지는宰相의班列에오르시어封君贈諡가되시었다高祖諱는蕤이시니文科及第하여知都評議司事을歷任하고武昌伯을拜受하여諡號을翼亮으로追贈되었고曾祖諱는殷卿니判厚德府事에이르고漆隄君을拜受하고諡號를安惠로追贈되었으며祖諱는博이시니文科에及第하여檢校監直司로西州觀風三道를守護하였고考諱는世得이시니文科及第하여檢校監察持平西海廣詢御史를歷任하고妣는河東鄭氏이시다公의子인仡은 檢校大殿禁衛諭郎將을歷任하였으며先府君尙書公께서元나라에서殉職하셨다는訃音을듣고不遠萬里하고遼東으로가서體魄을모시어다先山下에安葬하고三年執喪에哀慕切至하여王이所聞을듣고嘉尙하게여기어賻儀로布帛을下賜하고郎將으로特進시키었다孫인松磾는銀青光祿大夫叅知政事兼東北面都指揮使에이르고元나라에使臣으로나갔다가元나라中郎將벼슬을拜受하였고曾孫인養三은光祿大夫樞密院副使行右贊善檢校神虎衛將軍이며玄孫인秀는正順大夫軍簿判書膺揚軍上護軍이었다五代孫以下는文武將相이輩出하여赫赫이蕃盛하여筆說로는不可盡記이었다이어銘文에이르기를新羅와高麗以後까지高官이繼承되었도다五倫三綱을修行하여三公六卿이繼續되었다네先祖의靈神이保佑하사後孫들에게아름다움이繼承되었도다洛東江은北方을圍繞하였고龍華山은西方을旋廻하였도다長廣한碑碣을여기세우니萬古가面前

에있다네이銘文으로宣揚하오니樵君과牧童들은오직삼가할지어다

西紀一九九七年丁丑 月 日立

盆城后人 裵文準 謹撰

權昌倫 謹書

◇

③ 충의공 묘비문(휘 길보)

공의 휘는 길보요 성은 윤씨이시며 관적은 칠원이시다。공은 관직이 수성직양공신삼중대광첨의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에 이르고 구성군에 책봉되고 시호는 충의공으로 추중되었다。고려사 원종시대 조문에는 공은 랑장으로 노예를 모집하여 잔적들을 구포로 격퇴시키고 지방을 수호하여 무뢰한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고 선왕시대 기유년 사월 조문에는 공을 중랑장에서 대호군으로 승진시키었고 경신년 유월조문에는 대호군인 공을 사신으로 원나라에 보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기타에도 크고 작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였다。공의 시조휘는 시영이시니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이며 중세조의 휘는 거부이시니 고려시대에 보윤호장이며 칠원백에 책봉되었다。12대조에서 5대조까지 군호에 책봉되고 시호를 추중받은 선조가 다섯사람이 있고 정승과 장군을 대대로 하고 있었다。고조휘는 홀이시니 거교대전금위유랑장이고 증조휘는 송제이시니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겸동북면도지휘사이며 사신으로 원나라에 나가 중랑장 벼슬을 받았고 할아버지휘는 양삼이시니 광록대부추밀원부사행우찬선검교신호위장군이고 아버지 휘는수이시니 정순대부군부판서웅양군상호군춘궁익위이고 어머니는 무안박씨이시니 밀직부사인부의 딸이시다。아! 공이 돌아가신 이후로 칠백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여러차례 전쟁을 만나 기록문이 유실되고 집안의 세계도 이리저리 흩어져 공의 학문 덕행의 사적은 만가지중에 한가지도 남은 것은 없으나 그 음덕의 혜택으로 훌륭한 후손들이 팔도에 흩어져 살면서 어느 후손은 문과 무과의 관리로 어느 후손은 육예의 명성이 대대로 계승되는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다。묘소는 태사공 묘소가 있는 경내이며 5대조고이신 상서공 묘소하에 자좌 남향이다。아들 5형제와 두딸을 두었으니 장자 환은 다섯세대 왕조에서 벼슬하며 세차례 수상을 역임하여 칠원백에 책봉되고 시호를 충효공으로 추서하였고 둘째아들 자는 우부대언 벼슬을 하고 셋째아들 장은 칠성군에 책봉되고 넷째아들 화는 인녕부좌사윤이고 다섯째 아들 공이는 추성병의동덕섭리보조공신삼중대광에 이르러 칠성부원군에 책봉되었다。장녀는 광산후인 김성리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고선에게 출가 하였다。기타로 큰집 작은집 여러 종형제와 고손 증손들이 모두

정승 판서의 대열에 오른 저명한 가문에 유명한 씨족이다。아! 강산이 바뀌어지는 세월이 지나 묘소의 축대석이 붕괴되고 여러가시 비석들이 훼손되어 완전한 형태는 하나도 없게되어 여러후손들이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축대석을 고쳐 쌓고 봉분을 사조하고 비석일체를 구비하여 놓았으니 오늘 이후로 여러자손들은 정성과 근면으로 성묘를 하고 지성으로 제사를 올려 천추만세 이르도록 영원히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서기 1997년 12월 일 세우다

21대손 의원은 삼가 짓고

권창륜은 삼가 쓰다

③ 忠義公墓碑文(諱 吉甫)

高麗輸誠直亮功臣三重大匡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龜城君諡忠義漆原尹公諱吉甫之墓

公의諱는吉甫요姓은尹氏이시며貫籍은漆原이시다公은官職이輸誠直亮功臣三重大匡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에이르고龜城君에策封되고諡號는忠義로追贈되었다高麗史元宗朝條에는公은郎將으로써奴隷를募集하여殘賊을仇浦로擊退하고守城하여無賴者들이不得姦邪之心이라하였고忠宣王朝己酉四月條에는公을中郎將에서大護軍으로昇進시키었고庚申六月條에는大護軍인公을使臣으로元나라에보내었다고記載되어있다其他에도大小事가許多하지만省略하였다公의鼻祖諱는始榮이시니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이며中始祖의諱는鉅富이시니高麗戶長甫尹이며漆原伯에封爵되었다十五代祖에서五代祖까지封君追諡祖가五位이며文武官爵이世襲되었다高祖諱는仡이시니檢校大殿禁論郎將이고曾祖諱는松𥖁이시니銀靑光祿大夫參知政事兼東北面都指揮使이며使臣으로元나라에나가中郎將을拜受하였고祖諱는養三이시니光祿大夫樞密院副使行右贊善檢校神虎衛將軍이고考諱는秀이시니正順大夫軍簿判書膺揚軍上護軍春宮翊衛이고妣는務安朴氏密直副使인琈의女이시다嗚呼라公이永眠하신以後로七百餘年이經過하며累次戰火를입어文獻이遺失되고家乘이散秩되어公의學行遺跡은萬無一存이나그陰德 餘慶으로鳳子麟孫이八域에散居하며或은文武官員으로或은六藝才名으로世傳하는家門을이룬것이다墓所는太師公墓域內五代祖考尙書公墓下子坐이다有五子二女하니長子桓은五代王朝에入仕하며三次首相을歷任하고漆原伯에封爵되고諡號를忠孝로追敍되었고次子樜는右副代言이고參子樟은漆城君에封爵되고四子樺는仁寧府左司尹이고季子椌은推誠秉義同德燮里保祚功臣三重大匡에이르러漆城府院君에封爵되었다長女는光山后人金成理에게出嫁하고次女는高善에게出嫁하였다其他叔伯諸從과玄曾孫이모두三公六卿의班列에오른著門名閥이었다嗚呼라陵谷이換易하며封土와階石은崩壞되고墓道石物은毁損되어全形이一無하여諸後孫은殫誠竭力하여階石을

改築하고封土를修葺하고墓儀一切를具備하였으니自此以後로諸後孫은誠勤으로省掃하고至誠으로焚香하여千秋萬歲에이르도록永遠히守護할지어다

西紀一九九七年 十二月 日立
二十一代孫 義遠 謹識
權昌倫 謹書

◇

④ 충효공 묘비문(휘 환) 유동

공의 휘는 환이니 고려시대에 무과에 급제하여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책봉되고 충효공 시호를 받았으며 배위는 박씨이니 전서 벼슬을 한 지장의 딸이다. 아버지 휘는 길보이니 수성직량공신삼중대광첨의찬성사를 역임하고 구성군에 책봉되고 충의공 시호를 받았으며 묘소는 칠서면 수곡 (함안군칠서면계내리상포) 자좌남향에 있다. 할아버지 휘는 수이니 정순대부군부판서요 배위는 무안박씨이니 밀직부사 벼슬을 한 부의 딸이며 묘소는 수곡 (계내리상포)에 있다. 증조의 휘는 양삼이니 광록경이요 배위는 왕씨이니 동원군의 딸이다 고조 휘는 송제이니 은청광록대부요 배위는 송씨이니 묘소는 검단에 있다. 시조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였다. 아!…. 공은 다섯 왕조에서 벼슬을 하면서 세차례 수상을 역임하였으며 일찌기 원나라에서도 공로가 있었다. 공민왕시대에 이르러 칠원으로 귀향하기를 소청하여 식읍이 천호에 이르렀고 칠원백에 책봉되었다. 큰 흉년을 만나 재산을 내놓아 주민을 구휼하였으며 때마침 오랜 가뭄이 들었는데 물이 공의 밭에서 솟아나와 주민의 논밭으로 흘러 내려가 이일로 인하여 대풍년이 들었다. 영남지방민들의 칭찬이 지금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5백년이나 되는 아득한 후일에 15대손인 재건이 마침내 창원군수로 임명되어 묘소를 찾아와 배알하오니 소나무와 가래나무들은 옛날과 같지만 상석 망주는 이미 퇴락되어있고 작은 비석은 어디론가 가 버렸다 지난일들이 처참하여 스스로 추모의 회포를 견디지 못하여 거제사는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삼가 작은 비갈을 세우고 다시 상석과 망주를 놓아 선조의 없어지지 아니할 업적을 기록하여 놓았다.

서기 1826년 병술 2월 일
15대손 전수사 재건이 삼가 쓰다

④ 忠孝公墓碑文(諱 桓) 柳洞

公諱桓 高麗武科門下侍中漆原伯謚忠孝 配朴氏 典書之長女 考諱 吉甫 輸誠直亮功臣三重大匡僉議贊成事龜城君謚忠義 墓 在西面藪谷子坐原 祖諱 秀 正順大夫軍簿判書配 務安朴氏 密直副使琈女 墓 在藪谷 曾祖諱 養三 光祿

卿配王氏 東原君女 高祖諱 松確 銀青光祿大夫 配 宋氏 墓在檢丹 始祖諱 始榮 新羅太子太師 嗚呼 公 歷事五朝 三拜首相 曾有功於元 當恭愍朝 請歸於漆原 食邑千戶 封漆原伯 歲當大饑 散財賑民 時方久旱 水湧公田 流及民田 因此大熟 南民之頌 曁今不已 可不猗哉 五百玄古之後 十五代孫載鍵 適拜昌原守 來謁墓所 松楸 依舊 床柱已頹 短碣 何去 往事悽悵 自不勝追慕之懷 與巨濟諸宗議竪片碣 更置床柱 以記先代不朽之蹟

紀元丙戌二月 日

十五代孫 前水使 載鍵 謹書

◇

⑤ 양성당공 묘비문(휘 지) 대언공후 장흥

임진년(1832년)에 장차 선조들이 남겨 놓은 문장과 뛰어난 업적과 보첩등을 수집하여 인쇄에 붙일때 호남에 사는 일가 광언씨가 찾아가야 하지만 늙어서 할 수 없다며 그의 아우인 광택과 희국을 시키어 쓸모없는 사람이 찾아갔더라도 그 일을 도와 달라며 이어 양성당 묘비문을 나 제급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당신의 집안은 우리 종중의 문헌책을 대대로 수장하고 가정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이니 부디 사실 기록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삼가 읽어보니 공의 휘는 지요 아호는 양성당이다. 벼슬은 홍천 현감을 하였는데 대사간을 하였다고도 한다. 우리 윤씨의 관적은 칠원이며 시조의 휘는 시영이시며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이시었다. 증조의 휘는 자이니 고려시대에 우부대언이었고 할아버지 휘는 천이니 낭장이다. 아버지 휘는 참이니 조선시대에 생원과 진사에 합격하여 서승이 되었고 집의로 추증이 되었다. 어머니는 진천 송씨이며 판서인 우의 딸이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장자가 바로 이 비의 주인공이다. 공의 아내는 경주 김씨이며 감사인 겸의 딸이다. 아들 셋 딸 셋을 두었으니 희규와 회철이는 다같이 생원에 합격하고 도원이는 홍문관습독관이다. 딸들은 김경중 사직과 전계용 사용과 안건 훈도에게 시집갔다.

공의 장지는 장흥 부산면 부춘리 작두산 남서향(간좌)에 있다. 공은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만나 글과 글씨 때문에 집현전 학사로 선출되어 점필재 김종직과 사가정 서거정과 보한재 신숙주 등과 더불어 치평요람이란 책을 편찬하였으니 지금도 공을 그려보면 신선이 계신듯하다. 점필재는 우리나라 유학자의 수장인데 도의 교류를 하였고 사가정은 시문단의 주장인데 양성당 기문과 학명루 기문을 기술하면서 공의 학문과 재능을 찬미하였으며 보한재는 시로 화답하여 은거한 일을 애석하게 여기었다. 군자는 도학과 정치에서 가히 그 세상을 논의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공의 생년월일 사망 년월일

관직의 역임과정 정치치적 등을 참고하고 증명할 바가 없었다。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항상 이 일을 한탄하시어 야사 여러가지를 널리 찾아보다가 세 사람 현명한 선비와 더불어 집현전 학사로 선발된 것을 안 연후에 비로소 여러사람들의 유문집과 족보 등에서 찾아내어 가승으로 편책하였는데 현재 광택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은 부분이 서로 부합이 되니 역시 다행한 일이다。또 생각 하여보니 공의 셋째 아들도 덕성이 훈도되어 학행이 있었다。

나의 11대 할아버지이신 직제학 공은 바로 공의 조카이며 그리고 청백리로 역사에 나타나 있으니 한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 소문난 씨족이 되었으니 어찌 선조들의 음덕의 힘이 아니겠는냐? 직제학 공의 휘는 석보이다。나의 할아버지의 휘는 경룡이시니 관찰사이고 아버지 휘는 사국이니 판서이시라。그리고 광택과 희국은 다같이 습독관공의 후손이다。

중12대 손자이며 전첨정인 재급은 삼가 지음

⑤ **養性堂公墓碑文(諱 志)** 代言公后 長興

歲壬辰 將裒輯先世遺文逸蹟及譜牒 付于 剞劂 湖南之宗人光彦 宜來而老不能 使弟光澤與義國 冬夏 荐至 以相其役 仍請養性堂墓表於載伋曰君家 世收吾宗文獻 過庭多聞 幸丙記實之語 以垂不朽 謹按 公 諱 志 號 養性堂 官 洪川縣監 一云大司諫 我尹 籍漆原 上祖諱 始榮 新羅太師 曾祖諱 櫶 高麗右副代言 祖諱 天怡 郎將 考諱 參 我朝 中生進 署承 贈執義 妣 鎭川宋氏 判書愚女 育二男 長即公 公 配 慶州金氏 監司謙女 有三男三女 希奎 喜哲 俱生員 道源 弘文館習讀官 女 金敬中 司直 田繼勇 司勇 安健 訓導 公之葬 在長興夫山面富春里鵲頭山負艮原 公除會英陵盛時 以書寫 被選集賢殿 與佔畢齋金公宗直 四佳亭徐公居正 保閑齋申公叔舟 纂治平要覽 至今想像 望若登瀛 佔畢齋 我東儒宗而爲道義交 四佳亭 文苑盟主而記養性堂鶴鳴樓 歎美其文學才調 保閑齋 和詩而惜屈蔭途 君子於道學政事 可以論其世而公之生卒 官歷 行治無所考證 我 王考暨先君子 常以是 恨歎 博考野乘 知其與三賢 被選集賢殿然後 始採摭諸公遺文錄 諸譜牒 編之世乘 今光澤 所得 多與相符 亦可幸也 且念公之三子 薰陶德性 克有文行 我十二世祖直提學公 即公之從子而廉直 著史傳 一門之內 蔚然爲名世之族 是豈非先世庇休之力也歟 直提學諱 碩輔 王考 諱 敬龍 觀察使 先君子 諱 師國 判書 光澤 義國 俱習讀後也

從十二代孫 前僉正 載汲 謹述

◇

⑥ **승지공 묘비문(휘 중임)**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중임이요 자는 자홍이며 관적은 칠원이다。

공은 세종대왕시대 무자년에(1438년) 문과에 급제하여 용천도호부사를 역임한 중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추추관수찬관이다。묘소는 청양군 목면 내지곡 자좌오향 정남향이다。배는 증숙부인 남양 홍씨이며 판서 벼슬을 한 효례의 딸이다。묘소는 건위 묘소 좌측에 부장하여 쌍분으로 모셨다。공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이며 휘는 시영이시다。중시조는 고려시대 호장보윤이며 휘는 거부이다。기세조에서 18세조까지 문관과 무관으로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며 칠대가 군호에 책봉되어 녹봉으로 생활하였다。5대조의 휘는 환이요 시호는 충효공인데 다섯 왕조에 재직하며 세차례 수상직을 역임하여 세상을 구제한 정치경력이 탁월한 고려시대의 저명한 재상이다。고조의 휘는 천효이며 광록대부보문각대제학이다。증조의 휘는 조생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장예원판결사이다。판결사공은 자손만대가 영화할 곳을 찾아서 산수가 아름다운 충청도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에 편안히 거주하고 영면한 입향하신 선조이다。조고의 휘는 신로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군수를 역임하였다。아버지의 휘는 필이며 병절교위부사과이다。어머니는 숙인 한산 이씨이며 이조좌랑 벼슬을 한 한의 딸이다。3남 3녀를 두셨으니 장남인 봉은 성종시대 갑오년에(1474년) 무과에 급제하고 병오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로 홍양현감을 역임한 중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이다。차자인 봉은 충무위부호군이다。셋째아들 관은 성종 임자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정언병조정랑홍문관수찬교리지제교 벼슬을 지냈다。장자집 손자인 춘란은 선략장군이며 아들인 건의 벼슬 때문에 순충보조공신숭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칠평군에 추증되었으며 춘지는 종사랑이며 춘전은 종사랑사섬시참봉이다。차자집 손자인 춘권은 병절교위행충무위우부장이며 춘운은 벼슬하지 아니하였다。셋째아들집 손자인 의형은 진사에 급제하여 통정대부로 문천군수를 역임하고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에 추증되고 거형은 감찰이다。

10여인의 증손자 중에 건은 선조대왕 임오년에 무과와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로 인천부사 재임중에 임진왜란을 당하여 선조대왕을 호종하다가 순직한 공신으로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무원군에 추봉되었으며 예관이 파견되어 제사를 지내었으며 검은 부사과로 이몽학란을 도평한 공으로 청란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다만 5백여년 후세인으로 5백여년전 일을 기술하므로 족보와 군지와 문헌중에 해당되는 중요한 대목만 선출하여 간략하게 옮겨 기록하고 한개글자 한마디 말도 거짓으로 과장한 바가 없다。오직 선조와 자손의 계통을 생각하여 보면 공의 음덕 보답으로 백대까지 좋은 경사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몇년 전에 15대

손 상원이 건립해놓은 여러가지 비석은 비문의 자획들이 파손되고 석재가 거칠어 외관상 미려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문장을 새로지어 새기기로 여러 일가들이 결의하고 묘비석 일체를 다시 건립하고 옛날 석물들은 계하에 묻어 놓았다。

서기 1995년 3월 일
15대 방손 의원은 삼가 짓고
인천후인 채순홍은 삼가 쓰다

⑥ 承旨公墓碑文(諱 仲任) 忠孝公后 青陽

公 諱 仲任 字 子弘 貫籍 漆原 公 世宗朝戊午文科 及第 龍川都護府使 歷任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官修撰官 宅兆 青陽郡木面內池谷子坐 配 贈淑夫人南陽洪氏 判書孝禮女 墓 乾位祔左 雙窆 公 鼻祖 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 諱 始榮 中世祖 高麗戶長甫尹 諱 鉅富 起世以後 十八世祖 文官武將 襲爵 七代 封君祿俸 五代祖 諱 桓 謚號 忠孝 五代王朝 奉職 三次首相 歷任 濟世經綸 卓越 麗代名相 高祖 諱 天斅 光祿大夫寶文閣大提學 曾祖 諱 祖生 文科 及第 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 判決事公 子孫萬代 榮華地 山紫水明 忠清道青陽青南上場里 安住 永眠 入鄉祖 祖 諱 莘老 文科 及第 益山郡守 歷任 考 諱 弼 秉節校尉副司果 妣 淑人韓山李氏 吏曹佐郎埕女 公 三男二女 生育 長男鵬 成宗甲午 武科 丙午重試 通訓大夫 興陽縣監 歷任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次子鳳 忠武衛副護軍 季子鶴 成宗壬子 文科 及第 司諫院正言兵曹正郎弘文舘修撰校理知製校 長房孫 春蘭 宣略將軍 其子 健 貴 純忠補佐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漆平君 追贈 春芷 從仕郎 春荃 從仕郎司贍侍參奉 次房孫 春巷 秉節校尉行忠武衛右部長 春芸 不仕 季房孫倚衡 進士 及第 通政大夫 文川郡守 歷任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追贈 居衡 監察 十餘人 曾孫中 健 宣祖壬午 武科重試及第 通政大夫 仁川府使在任中 壬辰倭亂 當 宣祖扈從 殉國 功臣 吏曹判書 追贈 武原君 追封 禮官 派遣 致祭 倹 副司果 李夢鶴亂 討平 功 淸難原從功臣 策封 但五百餘年後人 五百餘年前事 記述 譜牒郡誌文獻中該當要目 選拔 簡略 移記 一字一言 浮誇 上下世系 想見 公 陰德應報 百代善慶 推想豫測 年前 十五代孫尙遠 建立 墓儀 碑文字劃 破損 石材 粗惡 外觀上不美 不得已改撰改刻 諸宗 決議 墓儀一切 重修建立 舊石物 階下 埋立

西紀一九九五年三月 日
十五代傍孫 義遠 謹識
仁川后人 蔡舜鴻 謹書

⑦ 참판공 묘비문(휘 붕)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붕이요 자는 운정이며 관적은 칠원이다。조선 성종대왕시 갑오년에(1474년) 무과에 급제하고 문과까지 급제하여 통훈대부로 홍양현감을 역임하고 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에 추증이 되었다。배는 증정부인 풍천 임씨이며 세우의 딸인데 1남을 낳고 계배는 증정부인 죽산 송씨이며 린의 딸이다。공의 묘소는 청양군 목면 지곡리 안에 아버지의 묘소 좌측 산기슭 자좌오향(정남향)이다。배위 임씨는 건위와 합장하고 계배위 송씨는 건위의 좌측 자좌오향에 부장하여 쌍분으로 모셨다。공의 시조의 휘는 시영이며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이다。중시조의 휘는 거부이며 고려시대의 호장보윤이다。계속 이어와서 6대조의 휘는 환이요 시호는 충효공인데 고려 충숙왕 시대에서 우왕시대에 이르기까지 벼슬하여 세차례 문하시중을 역임한 원로세신이며 흉년 들어 굶주린 해에 창고에 남아있는 곡식으로 향리 백성을 구휼한 백세토록 송덕할 사람이었다。2대를 전해와 고조의 휘는 조생이니 조선시대에 장예원 판결사이다。판결사공은 먼 후일 큰 계획이 있어 5백년간 대대로 살아온 터에서 이사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충청도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를 선택하여 은거하였으며 묘소를 정하였으니 바로 충청도로 입향하신 선조이다。증조의 휘는 신로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군수를 역임하고 조고의 휘는 필이며 병절교위부사과이다。아버지의 휘는 중임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중훈대부로 용천도호부사를 역임한 중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이다。어머니는 증숙부인 남양 홍씨이며 판서인 효례의 딸이다。공은 아들 넷 딸 둘을 두셨으니 장남인 춘란은 선략장군이며 그의 아들인 건의 벼슬로 인하여 순충보조공신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겸판의금부사칠평군으로 추증되고 차자인 춘지는 종사랑이고 셋째아들인 춘전은 종사랑사섬시참봉이며 넷째아들인 춘기는 아들이 없고 딸들은 김진과 정열에게 시집갔다。큰아들 집의 손자인 수는 선무랑이고 건은 통정대부로 인천부사 재임중에 임진왜란을 만나 선조대왕을 시종하다 순국한 공신이며 이조판서와 무원군으로 추증되었다。둘째아들집 손자는 생원인 부와 인이 있다。셋째아들집 손자는 탁과 걸이 있고 검은 부사과이며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여 치평한 공로로 청란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증손인 빈은 학문과 덕행이 높고 깊어서 효종대왕의 사부가 되었고 고감록이란 책을 저술하여 임금에게 올려 포상을 하사받았고 지극한 효자로 정려문이 세워졌다。아 수백년 후일에 태어난 사람으로 수백년전 일을 기술하자니 당시의 아름다운 유언과 좋은 행적들은 보고 들을수가 없었고 오직 족보책과 지방 역사

문헌에 중요한 대목만 기재되어 있어 그 문구를 근거로 보태고 뺀것없이 순차적으로 문장을 요약하여 옮겨 써 놓았다。그당시 높은 벼슬과 소문난 문장과 숨은 공로와 보이지 아니한 덕행을 상상하여 보면 좋은 경사의 응보로 천자만손의 번성은 말 아니하여도 알수가 있겠다。옛날에 세워놓은 비석과 상석과 망주석과 인물석등은 수백년간 세월의 비바람에 씻기고 닳아 비면에 글자들이 완전 사라져 없어졌고 이끼만 덮혀 잡석같이 되었지만 오직 선조들의 손때가 애석하여 묘소 가에 옮겨 놓아 후손들이 보고 경계토록 하였다。

서기 1995년 3월 일

15대방손 종오는 삼가 짓고

공주후인 이주형은 삼가 쓰다

⑦ 參判公墓碑文(諱 鵬) 忠孝公后 靑陽

公 諱 鵬 字 雲程 貫籍 漆原 朝鮮成宗朝甲午武科 及第 重試 登第 通訓大夫 興陽縣監 歷任 嘉善大夫兵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 追贈 配 贈貞夫人豊川任氏 世佑女 生一男 繼配 贈貞夫人竹山宋氏 璘女 公 墓 靑陽郡木面池谷里內考墓左麓子坐 配任氏 乾位 合窆 繼配宋氏 祔左雙窆子坐 公 鼻祖諱 始榮 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 中世祖諱 鉅富 高麗國戶長甫尹 傳至 六代祖 諱 桓 諡號 忠孝高麗忠肅王朝 瑀王代 奉職 三次門下侍中 歷任 元老世臣凶年飢歲 倉庫餘粟 鄕民 救恤 百世頌德人 再傳 高祖 諱祖生 朝鮮朝掌隸院判決事 判決事公 遠志壯圖 半千年世居地 移去 山紫水明 忠淸道靑陽靑南上場里 擇 考槃 宅兆 定山即忠淸道入鄕祖 曾祖 諱 莘老 文科 及第 益山郡守 歷任 祖 諱 弼 秉節校尉副司果 考 諱 仲任 文科及第中訓大夫 龍川都護府使 歷任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舘修撰官 妣 贈淑夫人南陽洪氏 判書 孝禮女 公 四男二女 生育 長男春蘭 宣略將軍 其子 健 貴因 純忠補佐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漆平君 追贈 次子春芷 從仕郞 季子春荃 從仕郞司贍寺叅奉末子春芑 無嗣 女婿 金璡 丁說 長房孫修 宣務郞 健 通政大夫 仁川府使在任中壬乱 扈從 殉國 功臣 吏曹判書武原君 追贈 次房孫 生員 傳 仁 季房孫 倬 傑 儉 副司果李夢鶴乱 討平 功勞 淸難原從功臣 策封 曾孫彬 學德 崇深 孝宗大王 師傅 古鑑錄 撰進 褒賞 下賜 至極 孝子 旌閭 噫 數百年後生 數百年前事 記述 當時嘉言善行 視聽譜牒 地方文獻 要目 記載 文句 根據 過不及 順次的 略文移記 官盛文望 潛功陰德 想見 善慶應報 千枝萬葉 繁盛 不問可知 舊碑與床石望柱人物石等 數百星霜 風磨雨洗 額面字劃 全消 苔衣 覆蓋 雜石化 先人 手擇 愛惜 墓庭邊 移置 後裔 鑑戒

西紀 一九九五年三月 日

十五代傍孫 鍾五 謹識

公州后人 李周炯 謹書

⑧ 군수공 묘비문(휘 자당) 충효공후 노성

공의 휘는 자당이며 관적은 칠원윤씨이다.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있다. 대략 그 후로부터 저명한 정승 훌륭한 판서들이 세대마다 끊어지지 아니하여 성대하게 사람들 눈과 귀에 반영되고 있다. 고려 현종시대에 이르러 휘 성이 국가에 큰 공로로 이름을 적으로 하사받고 무양후로 봉작되고 문경공시호를 받았으며 그 후로도 고관대작이 계속하여 승계되었다.

한양으로 서울을 정한 초기에 이르러 휘 천효는 문과에 합격하여 보문각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니 이 분이 바로 공의 5대조 할아버지이다. 고조의 휘는 신생이니 성균관 생원이었으며 증조의 휘는 제이니 성균관 진사이었고 할아버지 휘는 성계이니 사정이었고 아버지 휘는 보상이니 승정원 동부승지이었다. 어머니는 숙부인 광주 김씨이다.

공은 나서부터 영리하였으며 장성하여서는 지기가 웅위하고 사려가 깊어 무예에 뜻을 두고 붓을 버리고 일어서 젊은 나이로 무과에 합격하여 곧 바로 선전관에 제수되어 내직으로 여러 곳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군수까지 지내었는데 혼미한 조정을 당하여 세상사가 날로 그릇된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여 오래도록 사시고 집안에서 임종하였으며 노성현 소사면 비안동 북동향(곤좌)에 장례를 하였다. 배위는 숙인 김해 김씨이며 공과 더불어 합장을 하였다. 3남을 두었으니 장자인 여형은 성균관 진사이고 차자는 여임과 여태이다.

아 공을 이곳에 장례 모신지 거의 4백년에 가까운데 일찌기 비갈이 없어서 공의 생졸일과 장례 년월일을 고증할 길이 없으니 후손들의 현명하지 못함을 한탄만 한들 어찌할소냐? 만일 몇 대만 더 지나면 이 묘소까지 또 실전되어 고증할 수 없을까 두려워서 여러 종인들이 회의하여 비석을 세워 대략만 후면에 기술하였다.

기묘년(1939년) 10월 일

14대 후손 현탁은 삼가 쓰다

⑧ 郡守公墓碑文(諱 自塘) 忠孝公后 魯城

公 諱 自塘 貫 漆原之尹 以新羅太子太師諱始榮 爲鼻祖 蓋自厥後 名公碩卿 代不乏絶 赫然 照人耳目 至高麗顯宗朝 有諱晟 以大勳勞 賜名勳 封武陽侯 謚文敬公而軒冕簪纓 連綿相承 當漢都之初 有諱天斆 文科寶文閣大提學 寔公之五世祖也 高祖諱 神生 成均生員 曾祖諱 濟 成均進士 祖諱 成啓 司正 考諱 輔商 承政院同副承旨 妣 淑夫人廣州金氏 公 生而頴悟 及長 志氣 雄偉 慮淵意深 有意

於弓馬 投筆而起 早登虎榜 即除宣傳 內多歷數 外經守宰 當昏朝 見時事日非 棄官而歸 以天年 終于家 葬于魯城縣 素砂面飛鴈洞坤坐之原 配 淑人金海金氏 墓 與公合窆 有 三男 長曰汝衡 成均進士 次曰汝霖 汝台 嗚呼 葬公於此- 殆近四百禩而曾無表碣故 公之生卒及葬年月日 無可考徵 後孫 不明之歎 當何如哉 若過幾世 顧此衣履之藏 亦恐其 失而無徵故 諸宗 巡謀伐石堅碑 略記於陰

己卯十月 日

十四代孫 炫鐸 謹書

◇

⑨ 사과공 묘비문(휘 달) 충효공후 거제

공의 휘는 달이요 초휘는 유이다。 관적은 칠원이고 성은 윤씨이다。 공의 시조 휘는 시영으로 신라시대에 태자태사고명원로이시고 중시조이며 1세가 시작된 휘는 거부로 고려국의 호장보윤이며 칠제백이시다。 부군 이후로 5백여년동안 문관과 무장이 계속 이어져 7대위 선조들이 군호와 작위의 봉함에 이르게 되시었다。 증조의 휘 환은 5대왕조에 벼슬하여 세차례 수상직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책봉되고 시호를 충효로 추증 받으시었다。 조고 휘 천효는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대제학이시고 아버지 휘 신생은 세종조에 성균관 생원이고 어머니는 의인 동래 정씨이다。 공은 문종조에서 오위도총부사과로 책봉되고 성종조에서 진사에 급제하고 성종 21년 경술년(1490) 교수로 책봉되어 8백여년 세거지인 영남 칠원 고향을 뒤로 하고 형은 북으로 아우는 남으로 이산하여 거제도 교민관으로 섬에 들어온 후에 산이 아름답고 물 좋으며 인정이 순후하고 인후한 마을에서 농사짓고 살며 농민과 어민의 관례、혼례、상례、제례를 교육하고 선비들에게는 예절、음악、글씨、수학을 지도하여 어리석던 섬의 풍속을 크게 변화시킨 연후에 모년 11월 9일 편안히 운명하여 다공리 산7번지 남려산 남서향(간좌)에 안장되었다。 배는 의인 청주 한씨로 모년 10월12일 운명하여 남편 묘소에 합장을 하였다。

공의 아들인 휘 계동은 은일처사요 사손인 휘 손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고 중손인 휘 말형은 청송부사였다。 현손인 휘 승보는 임진왜란시에 백의 선비로 두 아들과 더불어 의병을 창도하여 해변에 외떨어진 고현성을 지키던 중에 왜적들과 격렬하게 싸우다가 활과 화살이 모두 떨어지고 병력이 갈진되어 마침내 성이 함락되니 성두에서 시를 지어 말하기를 마음속에는 해와 달이 비추고 눈 밑에는 산하가 울고있네。 칼을 치며 끝없는 한탄은 오랑캐 난리 파도에 씻지 못한 것일세 란 싯귀를 남기시고 자신은 순국하셨다。 조정에서는 선무원종공신에 책봉하고 훈련원첨정가선대부병조참판으로 추증하였다。 차현손 휘 개보는 큰 형의 장엄한 충성에

동조하여 의병을 창도한 훈공으로 선록되고 병절교위를 추증하였다。5대손들인 휘 영상과 홍량은 참판공의 유지에 순종하여 의병을 인솔하여 충무공 이순신과 합세하여 한산대첩과 당항포격전에서 지대한 전공을 세워 1등훈신에 책봉되었으며 휘 강현은 임난중에 향교를 수호한 지혜로운 공로로 사복찰방관이 되시고 그 후로 학문 관직 부호집이 세대마다 계속 나와 경남지방의 명가문이 되었다。아 공이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귀에 대고 얼굴보며 자세히 가르친 말씀과 산과 바다의 좋은 경치에서 풍월을 읊은 금조각 은조각 같이 귀한 시문은 5백년 세월이 경과한지라 이제는 종이에 글씨까지 좀먹고 수십여차례의 병란이 엄습하여 문헌이 산실되고 심지어는 쇠와 돌에 새긴 글자까지 비바람에 씻기어 그의 남긴 덕과 남긴 업적들이 백가지 중에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후손들이 통탄할 일이다。후손들이 여러파 많은 자손으로 번창한 것은 오직 선조의 음덕으로 받은 큰 복이므로 조상에 보답하는 도리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 비석 일체를 새로 세워 선조를 추모하는 성심에 유감이 적게 하였다。이 일은 공의 후손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거제윤문회원의 정성을 모아 성사한 것이니 모든 자손은 지성으로 성묘하여 영원토록 수호할지어다。

서기 1999년 기묘 10월 일 삼가 세우고

방17대손 의원은 삼가 짓고

16대손 병오는 삼가 쓰다

⑨ 司果公 墓碑文(諱 達) 忠孝公后

公諱達 初諱濡 貫籍漆原 姓尹氏 公初祖諱始榮 新羅代 太子太師顧命元老 中世祖起一世諱鉅富 高麗國戶長甫尹漆隄伯 府君以後五百餘年 文官武將蟬連 七代位先祖 封君爵位 曾祖諱桓 五朝進仕 三次首相 歷任漆原伯 策封 謚號忠孝 追贈 祖考諱天敎 文科及第寶文閣大提學 考諱神生 世宗朝 成均館生員 妣宜人東萊鄭氏 公 文宗朝五衛都摠府司果 策封 成宗朝 進士及第同朝二一年庚戌歲(一四九〇)敎授 策封 八百餘年世居地嶺南漆原鄕 背面 兄北弟南 離散 巨濟敎民官 渡海後 山紫水明 人情淳厚 仁里 耕鑿 農漁民 冠婚喪祭禮典 敎育 士林禮樂書數文 訓導 愚濫 海島俗 大變化 然後 年度未詳十一月九日 考終茶貢里山七番地南呂山艮坐向原 衣藏 配宜人淸州韓氏 年度未詳十月十二日善終乾位墓 合窆焉 公子諱啓東 隱逸處士 嗣孫 諱遜 武科及第宣傳官 曾孫諱抹亨 靑松府使 玄孫諱承輔 壬辰倭亂 白衣士人 義兵 倡導 海邊孤城古縣城 守城中倭敵 激戰 矢弓 消盡 兵力 竭盡 陷城 城頭 詩 曰心中明日月 眼底泣山河 擊劍無窮恨 虜塵未洗波 詩 自身 殉國 朝廷 宣武原從功臣 策封 訓鍊院僉正嘉善大夫兵曹參判 追贈 次玄孫諱玠輔 舍伯 壯忠 同助倡義 勳功 宣武原從功臣 選錄 秉節校尉 贈 五代孫 諱

榮祥 興良 參判公 遺志 順從 義兵 引率忠武公李舜臣 合勢閑山大捷 唐項浦激戰 多大 戰功 一等勳臣 策封 諱綱憲 壬亂中鄕校 守護 賢勞 司僕寮訪官 以後文行官爵富豪世代 續出南國 名閥 嗚呼 公 蒙民愚民 提耳面告 諄諄訓話 山海絶景 吟風詠月 金科玉條 五百餘星霜 經過 紙墨 剝蝕 數十餘兵亂 掩襲 文獻 散失 甚至於金石刻字 風磨雨洗 遺德餘烈 百無一焉 後孫 痛恨 後裔 千枝萬葉 繁盛 先祖 陰德餘慶 報本之道 心力 墓碑一切 換置 追遠之誠 遺憾 爲先事 公 後孫 在京巨濟尹門會員 精誠 成事 子孫 至誠 省掃 永遠 守護

一九九九年己卯十月 日 謹竪

傍十七代孫 義遠 謹識

十六代孫 炳五 謹書

◇

⑩ 진사공 묘비문(휘 여형) 충효공후 노성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여형이며 자는 정부이니 칠원 윤씨 후인이다。칠원백에 봉해져 충효공의 시호를 받은 휘 환의 7대손이며 보문각 대제학에 오른 휘 천효의 6대손이다。아버지 휘 자당은 진도군수를 하시고 할아버지 휘 보상은 승정원 동부승지이고 증조부 휘 성계는 사정이며 어머니는 숙부인 김해 김씨이다。

공은 재능이 뛰어나 학업이 숙성되어 학문과 품행으로 당시에 저명 인사이었으며 효도하고 우애하며 돈목하여 사람들이 이간할 수 없었고 교육을 권장하여 문하에 성공한사람이 많았었다。중종대왕 경자년(1540년)에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을 찾지 아니하고 산수의 풍경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며 뜻한바를 즐기다가 임종하였으니 바로 11월15일이었다。노성현 소사면 비안동 음복령 중턱 서북향(손좌)(현재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에 안장하였으니 아버지의 묘소 곁에 모신 것이다。배위는 의인 청도 김씨이니 아버지의 도사 벼슬을 한 환의 딸이다。천성적으로 유순하여 부모에 효도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집안 살림은 규칙대로 하였고 아랫사람 부리기를 사랑으로 하여서 집안이 매우 화목하였다。

아들 5형제를 낳았으니 장자인 준효는 승사랑이고 차자인 준제는 성균관 전적이고 준의와 준예는 모두 통덕랑이다。배위 묘소는 공과 더불어 쌍분으로 되어 있다。그리고 지난날 묘비가 없던 것이 한탄스럽고 후손들이 묘소를 잃을까 깊이 근심이 되어 종회를 여러번 열어 몇자 되는 비석을 세워놓고 몇 줄의 비문을 지어 새기어 놓았다。이 모두가 공의 음덕이 후손에 유전되었음이니 더욱 오랠수록 더욱 새롭게 되리라。

기묘년(1939년)10월 일

15대 후손 기순은 삼가 쓰다

⑩ 進士公墓碑文(諱 汝衡) 忠孝公后 魯城

公姓尹 諱汝衡 字正夫 漆原人 漆原伯諡忠孝公諱桓七代孫 寶文閣大提學諱天敷 六代孫也 考諱自塘 珍島郡守 祖諱輔商 承政院同副承旨 曾祖諱成啓 司正 妣淑夫人金海金氏 公 才藝超倫 學業夙成 以文學行儀 有名當世 孝友敦睦 人無間言 勸奬教育 門多成就 中宗庚子成均進士 不求仕進 與泉石烟霞 優游樂志而終 乃十一月五日也 葬於魯城縣素沙面飛鴈洞飲福嶺中層巽坐之原 盖從先兆傍也 配 宜人清道金氏 都事紈女 天性柔和 孝養承順 處閨以範 御下以恩 家門大和 生五男 長 遵孝 承仕郎 次 遵悌 成均典籍 遵義 遵禮 皆通德郎也 墓 與公 雙窆而追恨既往之闕儀則深憂后來之失護故 宗議爛商 立數尺之貞珉 撰幾行之陰記 此 皆公之積蔭流慶 愈久愈新也

己卯十月 日

十五代孫 氣淳 謹書

◇

⑪ 좌승지공 묘비문(휘 성) 대언공후 진천

아 여기는 나의 7대할아버지이신 중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 겸경연참찬관 행병절교위용양위부사과 벼슬을 한 휘 성과 7대 할머니이신 중숙부인 안동 권씨가 합장된 묘소이다。 공의 자는 명중이다。 우리 윤씨의 관적은 칠원이며 신라시대에 태사공 시영의 후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휘 석보의 관직은 홍문관 직제학에 그쳤지만 청백리로 선발되어 이조참판에 추증되어 그 정직한 절개와 청렴한 명성이 국사에 기재되어 있으니 바로 공의 증조부이다。 할아버지의 휘는 증형이니 성균관 생원에 합격하였는데 청백리의 장자로 용양위우부장에 추천이 되었으나 취직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의 휘는 엄이니 감역관을 역임하여 집의에 추증이 되었다。 어머니는 양천 허씨이니 생원에 합격한 형의 딸이다。

공은 선조 을해년(1547년) 1월22일에 출생하여 선조의 음덕으로 부사맹 벼슬을 하다가 경인년(1590년) 1월16일에 졸하였으며 후일 손자인 장길이 중추부동지사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승정원좌승지로 추증이 되었다。 우리 집안은 패망하여 곤궁하게 되자 진천 땅이 허씨부인의 고향이므로 이사가서 임시 살았는데 공이 돌아가시자 이곳 지방 만승면 재궁동허씨선영에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허씨 묘소와 5리쯤 떨어진 가까운 거리이다。 권부인은 호군 벼슬을 한 계정의 딸이다。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낳았으니 장자는 홍신이며 차자인 기신은 장사랑 벼슬을 하였으며 차자는 내신이며 3자인 자신은 문과에 합격하여 형조정랑까지 이르렀으나 광해군이 폐모하던 시대가 되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마치어 처음은 승정원 도승지로 추증

되고 다시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4자인 정신은 참판
에 추증되었으며 딸은 유정원에게 시집갔다。
홍신이 1녀를 두었으니 권해에게 시집가고 기신은
계부인 함에게 출계되어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으니
후길은 부사과 벼슬을 하고 유길은 계부인 자신에게 출
계되었고 딸들은 박제남과 민여우에게 시집가고 내신이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혜길이고 자신의 계자인 유길은
군수를 역임하여 참판에 추증되었고 정신이 아들 하나
를 두었으니 장길은 중추부동지사 벼슬을 하였고 유정
원이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제이다。

증손 우정은 장령이고 현손 치적은 좌랑이고 가적은
관찰사이며 5대손 지화는 정언이고 6대손 경룡은 관
찰사이며 경주는 필선이고 일복은 도사이며 7대손 광
국은 문학이며 사국은 판서이니 모두가 군수공의 후손
들이다。만력 병진년(1616년)에 처음 표석을 세웠
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떨어져나가 사국이 비석을 바꾸
어 세우며 삼가 공의 선조와 후손을 앞과 같이 기록하
여 비석 뒷면에 새기면서 증손과 현손 이하는 문보에
오른 사람만 기록하였다。

상지17년(1793년) 계축

7대 손자인 자헌대부형조판서겸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사국은 삼가 지음

⑪ 左承旨公墓碑文(諱 誠) 代言公后 鎭川

嗚呼 此 我七世祖考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
官行秉節校尉龍驤衛副司果諱誠 七世祖妣 贈淑夫人安東
權氏 合葬之墓也 公 字 明仲 我尹 籍 漆原 新羅太師始
榮之後 入我 朝 有諱碩輔 官止弘文館直提學 被選淸白吏
贈吏曹參判 直節淸名 載在國乘 寔公 曾祖也 祖 諱 重亨
成均生員 以淸白吏 嫡長 薦授龍驤衛右部將 不就 考 諱
儼 監役官 贈執義 妣 陽川許氏 生員衡女 公 以 宣廟乙
亥正月二十二日 生 以先蔭例 付副司猛受祿 庚寅正月十
六日卒後 以孫長吉 同知 贈承政院左承旨 我家 喪敗窮窶
以鎭川 爲許夫人世鄕 徙家寓居 及公之卒 葬于本縣萬升
面齋宮洞坐原 即許氏 世葬之地而距母夫人墓五里而近 權
夫人 護軍秀貞女 生五男一女 男長 興莘次起莘 將仕郞
次 來莘 次 自莘 文科刑曹正郞 當光海廢母之時 棄官歸
鄕以終 初 贈承政院都承旨 復 贈吏曹參判 次 挺莘 贈參
判 女 適柳廷元 興莘 有一女 適權解 起莘 出後季父誠
有二子二女 厚吉 副司果 有吉 出後季父自莘 女 適朴悌
男 閔汝佑 來莘 有一子 惠吉 自莘 繼子有吉 郡守 贈參
判 挺莘 有一子 長吉 同知 柳廷元 有一子 濟 曾孫遇丁
掌令 玄孫致績 佐郎 嘉績 觀察使 五代孫志和 正言 六代
孫敬龍 觀察使 敬周 弼善 一復 都事 七代孫 光國 文學
師國 判書 皆郡守公 後也 萬曆丙辰 始竪表 歲久剝落 師

國 治石改竪 謹錄公 先系 後承 如右刻之表陰而曾玄以下
止錄其登文譜者云

上之十七年癸丑

七代孫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師國 謹撰

◇

⑫ 동지중추공 묘비문(휘 천상)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천상이요 자는 경서이니 칠원후인이다.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였으며 그 후로 관리들이 계승되어 오다가 고려 말기에 이르러 휘 환은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공으로 시호를 받았는데 이 분이 공의 9대조부이다. 고조부 휘는 보상이니 승정원동부승지이며 증조부 휘는 자당이니 진도 군수이며 조부의 휘는 여형이니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였고 아버지 휘는 준제이니 문과에 합격하여 전적을 역임하고 통훈대부종부시정춘추관편수관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는 숙부인 동복 오씨이니 참봉인 은의 딸이다. 명종 신유년(1561년) 4월10일 출생하였다. 공은 천부적으로 수려하고 재능과 행동이 탁월하며 효도 우애 문학으로 세상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으며 인자하고 장수하여 수직으로 가선대부중추부동지사에 오르게 되었으며 갑술년(1634년) 5월14일 돌아가시자 정산현 청면 외동 장항후 산등 남향(자좌)에 안장하니 바로 아버지 산소 옆이다.

공을 이 곳에 장례한지 근 3백여년에 가까워도 비석을 세운 적이 없어 더욱 오래되면 고증조차 없을가 두려워 석물도 놓고 비석도 세워 영원함을 계획한 것이다. 배위는 나주 정씨이니 군자감 벼슬을 한 영도의 딸이며 임술년(1622년)에 출생하였다. 또한 선행으로 집안의 모범이 되었으며 공보다 3년 뒤 12월7일 돌아가시어 좌측 산등 동남향(건좌)에 안장되었다. 아들 셋을 낳았으니 장자는 원이고 차자는 담이니 찰방 벼슬을 하였고 차자는 식이다. 손자와 증손 이하는 번다하여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서기1937년 정축9월30일

12대 손자 종관은 삼가 쓰다

⑫ 同知中樞公墓碑文(諱 天祥) 忠孝公后 定山

公 諱 天祥 字 景瑞 漆原人 始祖 新羅太子太師 厥後世世赫赫 簪紳 相承 至于麗季 有諱桓漆原伯謚忠孝 是公之九世祖也 高祖諱 輔商 承政院同副承旨 曾祖諱 自塘 珍島郡守 祖諱 汝衡 成均進士 考諱 遵悌 文科典籍 贈通訓大夫宗簿寺正春秋館編修官 妣 淑夫人同福吳氏 參奉殷女 明宗辛酉四月十日 生公 公 天姿粹美 才行卓越 以孝友文學 爲世崇慕 仁而且壽 天爵 自至資嘉善大夫同知中

樞府事 甲戌五月十四日 卒 葬于定山縣青面外洞獐項後岡子坐 即祔從先兆也 盖葬公於此 殆近三百有餘禩而曾無貞珉之銘 恐其愈久而無徵 伐石竪碑 其爲壽久之計焉 配 貞夫人羅州旌氏 軍資監正永道 女 壬戌生 亦以善行 爲家範後公三年十二月七日 卒 葬于左岡乾坐 生三男 長 源 次湛 察訪 次 湜 曾孫 以下 繁不殫記

丁丑季秋下澣

十二代孫　鍾璀　謹書

◇

⑬ 참판공 비명(휘 수연) 대언공후 장단

공의 휘는 수연이요 자는 여순이며 계출은 칠원이다。시조이신 윤시영은 신라시대에 벼슬하여 관직이 태자태사이었다。고려시대로 들어와 후작에 책봉된 사람이 셋이요 백작인이 둘이요 부원군이 둘이요 군호를 받은 사람이 둘이요 상서가 세사람이었다 휘 참이 조선시대에 최초로 벼슬을 하면서 높은 관리들이 계속되었다。증조고 휘는 석보이니 홍문관 직제학을 하였는데 연산군 때에 바른말을 한 이유로 귀양가게 되어 강음에서 졸하였다。중종대왕 초기에 일등 청백리로 선출되어 도승지로 추증이 되었으며 후일에는 아들 풍형이의 벼슬 때문에 이조참편으로 추증이 되었다。할아버지 휘는 문형이니 내섬판관을 하였는데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아버지 휘는 이이니 금화현령을 하였는데 아들 탁연이의 벼슬때문에 영의정과 구성부원군으로 추증이 되었다。그리고 어머니도 정경부인으로 추증이 되었으니 안동김씨이며 신라왕손인 윤선의 딸이다。

가정계미년(1547년) 9월1일에 공이 출생하니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청렴하고 검약하며 영통하고 민첩하고 인자하였다。아버지의 덕택으로 처음은 와서별제를 제수받아 제용감주부와 사섬주부와 사직영을 역임하였으며 또 양천현감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만나 삼강지방인들이 양천현내로 모여들어 의병을 만들어 공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고저 하였으나 공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나는 선비로 군대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즉시로 전첨사 이일을 찾아가 만나보고 의병의 장수가 되어 함께 적군을 살해하기를 권고하고 공은 기회를 보아 도와주어 살상과 노획을 많이 하였다。조정에서는 공이 양천현내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자감첨정으로 특진시키었다。또 적군을 토벌한 공로로 군자감정이 되었다。계사년(1593년)에는 포천군수에 제수되고 또 용인군수에 임명을 받었으나 병이 들어 신성기로 교체시키어 대리시키었는데 도체찰사인 윤두수가 용인에 왔다가 급히 장계문을 올려 말하기를 소신이 용인군에 와보니 이지방은 전쟁의 여진으로 각지방 마을이 처참하게 패망하여 남은것은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것마다 한심할 뿐인데 윤수연의 충성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패망한 여진을 복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니 청컨대 공을 즉시로 임명하여야 된다고 하였다。조정에서도 특명을 내려 재촉하므로 공은 달려가 부임하였으며 적군을 살해한 공로로 인하여 통정대부계급으로 승진이 되었다。정유년에는 관직에서 은퇴하여 풍덕선영하로 돌아왔다。무술년에는 광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데 전형관들이 대신들의 뜻으로 장계문을 올려 말하기를 광주는 나라의 관문이 있고 또 명나라 군대들이 왕래하여 군대식량이 시급한 곳이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윤모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는 가합한 인재가 없으며 그리고 윤모인이 마침내 광주읍내에 있으니 어떻게하면 되겠습니까? 임금으로부터 특명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재직중에 있는 주사들을 구속하여 경기감영에 가두어 놓아 지방 아전들이 급히 재촉을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광주목사로 제수가 되었다。기해년에는 이천현감에 제수되고 갑진년에는 장단현감에 제수되고 을사년에는 파주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그때는 왜구들이 약탈한 뒤라서 사방팔방이 탕잔하여 있지만 경기도가 가장 심하였으며 또 진원지가 더욱 심하였다 그래서 임진년에서 을사년까지 십사년간 경기도내 일곱곳 군수을 임명받아 재생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공은 일면으로는 의병을 일으키고 일면으로는 적군을 사살하며 군대식량을 만들어 명나라 군대까지 보급하였다。

난이 안정됨에 이르러 곡식을 모아 농사를 권장하고 법을 너그럽게 하려고 번화한 조항을 줄여놓아 포천、용인、장단、파주、이천、광주등지의 지방민을 안도시켜 놓아 시골마을들이 농사짓고 길삼하는 즐거움을 갖게 된 것은 모두가 공의 노력이었다。그동안 조정에서는 내직과 외직자에 표창을 주어 사랑하고 국민들이 큰비를 세워 떠나간 사람을 생각한 것은 모두가 그래서 한것이다。공은 일찌기 집안에 전승되는 청백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자신이 경계하였으며 또 자손들에게 벼슬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경계하였다。터럭만큼도 자신의 사물은 없고 오로지 여종 하나만 두고 남자종은 없었으며 또 논밭 한마지기도 없이 항상 담백하였다。신해년 광해군때부터 문을 닫고 조용히 살며 벼슬하기 즐겨하지 아니하면서 시대에 문란한 것과 왜적의 잊기 어려운 것을 개탄하여 상소문 일권을 올리니 대략 60여 조항이나 되었다。또 공문서에 기록을 근신하여 공이 가지고 있던것을 여기에서 대략은 볼수있었다。공은 어려서 대과에 올라 자기 역량을 발휘하여 그 사업이 빛나 환하게 알수있고 그런데 그늘진 곳에서 살고있어 마침내 크게 펴보지 못하고 오로지 포재를 몇몇 지방군읍에 시행한 것에 그치고 있으니 크게 탄식하고 개탄하는 바이다。그

러나 공께서 지어 올린 상소문을 이제 찾아보니 모두가 시행되어 남아있는 사건은 없었다。 공은 자신은 비록 크게 높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의 법도는 세상에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자신을 굽혀 도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공에게는 지금도 감동되는 것이 있으니 공의 큰형인 판서공 탁연이 문장가이며 당시의 높은 재상인데도 일마다 반드시 공에게 자문한 뒤에 시행하였다고 하니 그 스승과 벗같이 하였으며 공의 가지고 있는것을 여기에서 또 알수가 있었다。

공은 만력 을묘년(1615년) 8월8일에 향수69세로 돌아가셨다。 공은 일찌기 나라를 빛낸 것에 참여하여 원종훈신으로 증가선대부 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이 되고 경기도장단군장서면 금천 동향구릉지에 장례하였으며 배는 증정부인홍주이씨이니 병마절도사 한의 딸이며 공보다 일년 뒤에 출생하여 4년뒤에 돌아가셨으니 향수는 71세이며 공과 같은 산혈에 따로 무덤을 만들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으니 장자인 복원이는 벼슬이 군수이며 아호는 석호이다。 차자인 익원이는 추천으로 한성서윤을 제수받고 딸은 한성에게 시집을 갔다。 복원이는 교위인 홍대성의 딸과 결혼하여 정기 금오랑과 안기는 판서공차자인 회원에게로 출계하였는데 문과에 합격하였고 도사를 지낸 정기와 명기를 낳고 딸은 이홍망성회주판관에게 시집갔다。 익원이는 승지인 신염의 딸과 결혼하여 승기통덕랑과 민기도사를 낳았다。 정기는 우백、우주、세필을 낳고 명기는 우현、우오를 낳아 우오는 출계하였다。 승기는 우일을 낳고 민기의 계자인 우성은 무후되었다。 우백은 하적과 유적을 낳아 유적은 세필에게 출계하였다。 우주는 태적、형적、신적을 낳았다。 세필의 계자인 유적은 돈녕도정이며 우현은 성적을 낳았다。 우일은 리적、이적、은적、정적을 낳고 하적은 지임을 낳고 유적은 지원 정언과 지일을 낳았다。 태적은 지좌와 지우를 낳아 출계하였다。 형적은 지성、지현을 낳았다。 신적은 지상을 낳고 성적은 지웅을 낳았다。 태적의 계자는 지도요 이적은 지수와 지도를 낳아 지도는 출계하였다。 은적은 지태생원문과 보덕과 지형 지희와 이름을 바꾼 심태생원을 낳고 정적이는 지홍과 지통을 낳았다。

서기1750년 3월 일

5대손 통정대부 세자시강원 보덕 지태는 삼가지음

⑬ 參判公碑銘(諱 粹然) 代言公后 長湍

公諱粹然字汝純系出漆原上祖尹始榮仕新羅官太師入高麗封侯者三伯二府院君二君二尚書二諱參始仕我朝圭組蟬聯曾祖諱碩輔弘文館直提學燕山時以直言謫卒于江陰中廟初特首清白選　贈都承旨後以子豊亨貴　贈吏曹參判祖諱文

亨內贍判官　贈吏曹判書考諱伊金化縣令以子卓然貴　贈
上相龜原府院君妣　贈貞敬夫人安東金氏新羅後胤先女以
嘉靖丁未九月一日生公公爲人孝悌廉約通敏慈仁以蔭初除
瓦署別提歷濟用監主簿司贍主簿社稷令又拜陽川縣監時値
壬辰倭亂三江人聚陽川境爲義兵欲推公爲第一　辭曰余儒
生不可與聞戎事即日往見前僉使李鎰勸爲義將相與勦賊而
公相機贊籌殺獲爲多朝廷聞公守境不去超授軍資僉正又以
討賊功陞正癸巳除抱川又拜龍仁呈病而遞以辛誠己代之都
體察使尹斗壽時到龍仁馳　啓曰臣到龍仁則本縣兵燹之餘
邑里蕭殘蕩敗無餘所見寒心若非尹某之忠勤才猷則不可以
蘇瘡痍之餘請以公仍任朝家特命催促公力疾赴任以勦寇有
勞陞通政階丁酉棄歸豊德先隴下戊戌適廣州有窠銓曺以大
臣意　啓曰廣州在國之門戶況天兵絡繹軍餉方急忠勤才敏
非尹某則他無可合之人而某方在准期中何以爲之自　上特
命敍用而時猶拘才解由籌司因京營邑吏刻期催出仍除廣州
己亥除利川甲辰除長湍乙巳除抱川蓋其時島民搶攘之後八
路蕩殘而畿輔最甚況根本之地尤當輸恤故自壬辰至乙巳十
四年間拜畿內七邑以畀蘇活之責而公一而倡義一而勦賊經
紀軍餉以給天兵及夫亂稍定則聚穀勸農寬條蠲繁抱龍湍坡
利廣之民使之按堵閭里得奠耕桑之樂者皆公之力也前後朝
家錫表裏而寵之者四民之豊碑去思在之皆然公嘗以不忝傳
家之淸白自戒又以戒子孫於其居官也一毫不私於己只有一
婢而無尺僮且無一畝田而公常淡泊如也辛亥光海時公閉門

靜居不樂仕宦而慨然時政之多紊倭釁之難忘條進一册子凡
六十餘條且謹關防公之所存於此概可見矣使公早闡大科得
展經綸則其事業輝光儘可有煒煒炳烺者而如栖遑蔭路終未
天布只使天蘊　抱累施於州縣間而止吁可慨也然公之所條
進者以今見之皆已施行無餘矣公身雖不大顯而公之道見施
於世則是身屈而道顯也在公尙何所憾公之伯氏判書公卓然
以文章爲世名卿而凡事必諮公而後行若師友者然公之所存
於此亦可知矣公以萬曆乙卯八月八日卒壽六十九以公嘗參
平乱原從勳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
府副摠管葬于長湍長西面金川東向之原　配贈貞夫人洪州
李氏兵馬節度使漢之女後公一年生後四年卒壽七十一與公
同穴異墳有二子一女男長復元官郡守號石湖次子益元以蔭
薦除漢城庶尹女嫁韓珹復元娶于校尉洪大成之女正基拜金
吾郎安基繼于判書公之次子喜元后登文科都事及命基女嫁
于李弘望成濈胃判官益元娶于承旨申淰之女生承基通德郎
民基都事正基生遇白遇周世弼也命基生遇玄遇五遇五繼克
和承基生遇一民基之繼子遇成爲無后遇白生夏績維績維績
系世弼之后遇周生泰績衡績華績世弼繼子維績敦寧都正遇
玄生成績遇一生賫績履績殷績鼎績夏績生志任維績生志遠
止言志逸泰績生志佐志佑出繼衡績生志聖志賢華績生志相
成績生志雄賫績之系子志道履績生志逐志道殷績生志泰生
員文科輔德志衡志喜改名心泰生員鼎績生志弘志通

崇禎三庚年　三月　日

五大孫通政大夫世子侍講院輔德 志泰 謹識

◇

⑭ 검열공 묘비문(휘 길원) 대언공후 합천

공의 휘는 길원이요 자는 경승이니 칠계군의 차자이다。명종대왕 임술년(1562년) 12월24일 출생하였다。임오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경인년(159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조봉대부예문관검열이 되었으며 선조 갑오년(1594년) 6월1일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33세이다。아 그렇게 단명하였단 말인가? 공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사고명원로 벼슬을 한 휘 시영이다。고려대에 이르러 휘 수는 군부판서이고 휘 길보는 찬성사를 역임하고 구성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충의공으로 추증 받았으며 휘 자는 우부대언이었다。조선시대로 들어와 참은 서승 벼슬을 하여 사헌부 집의로 추증이 되었으며 6대조 이상의 저명한 정승판서는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고조부 휘는 석보이며 호는 지퇴당이니 직제학 벼슬을 하고 청백리로 선록이 되었으며 연산군 갑자사화시에 직언을 한 이유로 강음으로 귀양가 졸하였으며 증조부의 휘는 문형이니 판관 벼슬을 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할아버지 휘는 이이니 현령 벼슬을 하였고 영의정세자사구원부원군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의 휘는 탁연이니 세상에서는 중호 선생으로 호칭하였으니 일찌기 퇴계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고 왕실의 수모를 설욕한 공로로 광국공신으로 기록되었고 칠계군에 봉해졌으며 임진왜란시에 함경도 감사가 되었는데 공로가 있어서 함경도민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시호를 헌민공으로 추증 받았다。어머니 정경부인은 여산 송씨이니 동지 벼슬을 한 맹경의 딸이며 계모는 정경부인 전의 이씨이니 현감인 염의 딸이다。

배위는 숙인 청주 한씨이니 서천군인 강의 딸이며 자손이 없어 형님 충장공이신 경원씨 둘째 아들 태기로 아들을 삼아 합천에서 살기 시작하였으며 벼슬이 선교랑에 이르렀으며 청주 한씨 찰방 벼슬을 한 경유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딸 하나를 낳고 일찍 요절하였으며 다시 청주 한씨 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으니 우성은 참봉이 되고 우명은 형조정랑에 오르고 우현은 통덕랑이 되었고 우을은 통덕랑에서 형조참의로 추증이 되었다。파평 윤사례와 판서인 완산 이돈과 기계 유석은 사위들이며 증손과 현손 이하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 대원동 선영 동남동향(술좌)에 있는데 배위와 합장으로 되어있다。지금까지 3백여년간 안장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구역 확장사업

을 실시하여 신해년(1971년) 봄에 어찌할수 없어 합천 인곡리동점촌후곡 동향(유좌) 능산으로 이장하였는데 선교랑 묘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었다。 옛날에 서 있던 비석은 옮겨 놓을 수가 없었는데 후손인 병희가 혼자 거금을 부담하여 비석을 구해놓고 병윤과 순원을 시키어 이 먼 곳까지 예물을 들고 찾아와 가장을 말하며 나에게 묘비문을 부탁하였다。

생각하여 보니 공은 일찌기 벼슬을 하여 관직이 정3품 당상관 서열에 올랐으니 그의 재덕이 출중한 것과 문장의 성취가 상상되지만 불행하게도 장수를 못하고 또 오랜 세월에 난리까지 당하여 사적과 행적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하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후손들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번창하고 그리고 조상을 추모하여 잊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유골로 하여금 다섯가지 근심을 피하게 하려고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으로 이장하여 부자가 같은 곳에 계시니 선조의 음덕이 여기에 있게된 것이라 할까? 이래서 완고하게 사절을 못하고 대략을 서술하여 나무꾼과 목동들로 하여금 공의 묘소라는 것을 알게하여 훼손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신해년(1971년) 가을

하동 정효현 삼가 지음

⑭ 檢閱公墓碑文(諱 吉元) 代言公后 陜川

公諱吉元 字敬承 漆溪君之次子也 明廟壬戌十二月二十四日生 壬午進士 庚寅文科 爲朝奉大夫藝文舘檢閱 宣廟甲午六月一日卒 享年止三十三 嗚呼其短矣 始祖新羅太師顧命元老諱始榮 至麗代諱秀 軍簿判書 諱吉甫 贊成事封龜城君諡忠義 諱樞 右副代言 入我朝 諱參 署丞 贈司憲府執義 六世以上而名公巨卿 不可殫記 高祖諱碩輔 號止退堂 直提學 選淸白吏 燕山甲子 以直言謫江陰卒 曾祖諱文亨 判官 贈吏曹判書 祖諱伊 縣令 贈領議政世子師龜原府院君 考諱卓然 世稱重湖先生 早遊退翁之門 宣廟朝官至戶曹判書 以雪宗系勳 錄光國功臣 封漆溪君 壬發 爲咸鏡監司 有敵愾功 道人立祠以享之 諡憲敏 妣貞敬夫人礪山宋氏 同知孟璟女 繼妣貞敬夫人全義李氏 縣監念 其考也 配淑人淸州韓氏 西川君絳之女 無育 以兄忠莊公慶元第二子泰基 子之 始居陜川 官宣敎郎 娶淸州韓氏 生一女早夭 再娶淸州韓氏偉女 有四男三女 遇聖 參奉 遇明 刑曹正郎 遇賢 通德郎 遇乙 通德郎 贈刑曹參議 坡平尹思禮 完山李塾 判書 杞溪兪命寔 壻也 曾玄以下不錄 墓在京畿道廣州大院洞先塋下戌坐原 配合窆 距今三百餘年安厝而忽爲國家事業擴張區域 於辛亥春 不得已遷葬于陜川仁谷里銅店村後谷西坐原 宣敎郎墓在一弓內焉 舊碑莫可移樹 後孫炳曦 獨擔巨費而

伐石 使炳允 順遠 齎承遠所爲狀 囑余以隧表 惟公 早年登科 官蹟三品 可想其才德之出倫 文辭之夙就而不幸無壽且歲久經亂 事行無傳 福善之天 果安在耶 後承 去益繁昌而追遠不忘 使遺骸 避吳患而遷厝於雲仍世居之鄕 父子同塋 不食之報 其在斯歟 以是 不固辭而略爲之叙 使樵叟野童 尙識公之墓而不剪伐也

歲辛亥仲秋

河東 鄭孝鉉 謹撰

◇

⑮ 첨지중추공묘비문(휘 옥) 대언공후 양산

선무원종1등공신 중추부동지사 칠원윤공 휘 옥은 신라 태종무열왕때 태자태사로서 고명원로에 이른 휘 시영을 시조로 모시고 고려 승지 우부대언을 지낸 휘 자를 파조로 모시는 대언공 후예요 홍포서원에 봉안한 칠원윤씨 오선생 가운데에 청백리 지퇴당 휘 석보의 후손이며 양산에 입향한 26세조 휘 승원 진사공의 장남으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고 후손은 대마도로 이주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가 불명하므로 자세히 기록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선조대왕 25년 임진왜란때는 아우인 발과 함께 형제가 창의의 깃발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어 분전하여 양산성을 탈환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그 공로가 혁혁하므로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선조대왕은 그 공적을 치하하며 27세조 휘 옥 절충장군은 1등공신에 선록하고 후일에 중추부동지사를 하사하고 그리고 27세조 휘 발은 만호에서 훈련원정으로 승진시키고 2등공신으로 선록하여 선무원종공신록에 기재가 되었다。그래서 만시지탄이라 하겠으나 공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선조공신의 현덕유업을 추모 현양하며 대대로 숭조정신을 이어받아 영원토록 기리고자 정성을 담아 이 비석을 건립하는 바이다。

서기2000년 청명일

12대손 정삼은 삼가 짓고 쓰다

⑮ 僉知中樞公墓碑文(諱 沃) 代言公后 梁山

宣武原從一等功臣中樞知事漆原尹公諱沃 新羅太宗武烈王 太子太師 顧命元老 諱始榮 始祖 承旨右副代言 諱柢派祖 代言公后 鴻浦書院奉安漆原尹氏五先生 淸白吏止退堂碩輔 後孫 梁山 入鄕 二十六世祖諱承元進士公 長男武科 登第 后孫 對馬島 移住 根據 不明 明記 宣祖二十五年壬乱 弟潑 兄弟倡儀 義兵 奮戰 梁山城 民心收拾 功赫赫 事実 朝廷 宣祖大王 功蹟 致賀 二十七世祖諱沃折衝將軍 一等功臣 賜爵 後日中樞知事 二十七世祖諱潑 萬戶 訓鍊院正 陞差 二等功臣 錄封 宣武原從功臣錄 登載故 晚時之嘆 公 後孫 先祖功臣 賢德遺業 追慕顯揚 代代崇祖精神 永遠 精誠 碑 建立

庚辰年 清明節

十二代孫 政三 謹撰

◇

⑯ 훈련원정공묘비문(휘 발) 대언공후 양산

선무원종2등공신 훈련원정 칠원윤공 휘 발은 신라 태종무열왕 때에 태자태사로써 고명원로에 이른 휘 시영을 시조로 모시고 고려 숭지 우부대언을 지낸 휘 자를 파조로 모시는 대언공 후손이요 홍포서원에 봉안한 칠원윤씨 5선생 가운데에 청백리 지퇴당 휘 석보의 후손이며 양산에 입향하신 26세조 진사공 휘 승원의 차남으로 태어나 무과에 급제하고 공의 아들인 휘 정기는 통정대부로서 충효를 세전하였다。 선조대왕 25년 임진왜란때에 형님 옥과 함께 형제가 창의의 깃발을 들고 의병을 일으키어 분전하여 양산성을 탈환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그 공로가 혁혁하므로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서 선조대왕은 그 공적을 치하하여 27세조 휘 옥은 절충장군 1등공신을 하사하고 후일 중추부동지사로 추증하고 27세조 휘 발은 만호에서 훈련원정으로 승진하고 선무원종2등공신으로 선록하여 선무원종공신록에 기재되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라 하겠으나 공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선조 공신의 현덕유업을 추모하고 현양하여 대대로 숭조정신을 이어받아 영원토록 전하고 기리고자 정성을 담아 이 비석을 건립하는 바이다。

서기2000년 청명일

12대손 정삼은 삼가 짓고 쓰다

⑯ 訓鍊院正公墓碑文(諱 潑) 代言公后 梁山

宣武原従二等功臣訓鍊院正漆原尹公諱潑 新羅太宗武烈王 太子太師 顧命元老 諱始榮 始祖 承旨右副代言 諱榯 派祖 代言公后 鴻浦書院奉安漆原尹氏五先生 清白吏止退堂諱碩輔 后孫 梁山 入鄕 二十六世祖諱承元進士公 次男 武科 登第 公 子諱廷起 通政大夫 忠孝世傳 宣祖二十五年壬乱 兄沃 兄弟倡儀 義兵 奮戰 梁山城 民心收拾 功 赫赫 事実 朝廷 宣祖大王 功績 致賀 二十七世祖諱沃折衝將軍 一等功臣 賜爵 後日中樞知事 二十七世祖諱潑 萬戶 訓鍊院正 陞差 宣武原従二等功臣 錄封 宣武原従功臣錄 登載 故 晩時之嘆 公 後孫 先祖功臣 賢德遺業 追慕 顯揚 代代 崇祖精神 永遠 精誠 碑 建立

庚辰年 清明節

十二代孫 政三 謹撰

◇

⑰ 참판공 묘비문(휘 유길) 대언공후 당진

사대부의 가문이 성립되려면 한번의 공적으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 선대부터 하늘을 오르는 것처

럼 어려운일을 맡아서 창업을 내려놓은 선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칠원윤씨는 중엽에 한미해져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지 또 백여년이 되다가 평창공에 이르러 아들 두 형제를 낳아 큰 아들이 문과에 합격하고 또 그의 아들 손자들이 많이 높은 벼슬을 하여 오늘날 마침내 저명한 씨족이 되었으니 그 덕을 심고 경사를 길러놓은 것은 바로 공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공의 휘는 유길이요。 자는 대숙이며 호는 어은이다。 그의 중조는 고려시대 도지휘사를 역임한 휘 송제이며 5대조부는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이니 청렴과 정직으로 소문이 나 있고 고조부는 부장 벼슬을 한 휘 중형이요 증조부는 감역 벼슬을 한 휘 엽이요 조부는 승지로 추중된 휘 성이요 아버지는 이조참판에 추중된 휘 자신이며 어머니는 진천 임씨 세웅의 딸이다。 본래 생가의 아버지는 참판공의 형이 되는 장사랑 벼슬을 한 휘 기신이며 어머니는 여흥 민씨이니 군수를 역임한 사용의 딸이다。

공은 만력 정해년(1587년)에 출생하여 을묘년(1615년)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갑자년(1624년) 금부도사로 임명받고 별검 직장을 역임하면서 감독에 애를 써서 인의로 승진되어 참군、별제、사의、형랑을 역임하고 청양군수、영덕군수、평창군수를 역임하였다。 67세의 나이를 누리고 영국원종훈신으로 호조참판에 추증이 되었다。

공은 성격이 엄하고 정확하면서 효도와 우애의 지극한 행동이 있어 어버이 섬김과 형에게 순종한 것은 많은 것이 법이 되었고 경전과 사기에 능통하여 당시에 소문이 났으며 마침내 이론과 행동으로 자손들을 교육하여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웠다。 민씨 부인이 임신중 꿈에서 인삼 한 뿌리를 캐었는데 중간에 구슬 몇개가 달려 찬란한 광채가 있었으니 출세할 징조인 것이다。 배위는 풍천 임씨이니 친정 아버지 휘는 선이다。 공과 동갑이고 공보다 10년 전에 졸하였으며 면천 갈산 산등에 동향(유좌)으로 공과 합장을 하였다。

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우정은 장령이며 우갑은 판관이다。 딸도 형제가 있으니 첨정 이현국과 신명기에게 시집갔다。 장령의 아들인 치적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이 되었고 서적은 정랑이며 그리고 응적이 있고 가적은 문과에 급제하여 감사를 하였고 경적은 판관이다。 딸은 판관인 박태여에게 시집갔다。 판관의 아들인 선적은 진사에 합격하고 상적은 현감이며 딸은 안서명에게 시집갔다。 이현국은 아들 형제가 있으니 수만은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가 되고 수척도 있으며 딸은 서정이다。 내외증현 손자들은 많아서 모두 기재하지 못하였다。

나 조현명이 젊은 시절 공의 손자이며 평창현감인 지원의 가문으로 장가를 갔는데 공의 여러 손자들인 노인

들이 모두가 온후하고 우애스러웠으며 젊은이들도 역시 문장과 학식이 빛나고 있었으니 공이 자손들을 교육시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현손자사위 수충갈성분무공신 풍원부원군의정부영의정 조현명은 짓고

현손자 통정대부수공홍도관찰사겸순찰사 경룡은 삼가 쓰다

숭정기원후 113년 경신년(1740년) 2월 일 세우다

⑰ 參判公墓碑文(諱 有吉) 代言公后 唐津

士大夫 門戶之立 非一日之積也 必其先 有能任登天之難 而爲叛垂之祖者 漆原尹氏 中微不振 且百餘年 及平昌公 生二子而長房 登文譜 且其子與孫 多顯仕 今遂爲名族 其種德毓慶 寔自公始也 公諱 有吉 字 大叔 號 魚隱 始祖 高麗都指揮使諱松殫 五代祖 直提學諱碩輔 以廉直 聞 高祖 部將諱重亭 曾祖 監役諱儼 祖 贈承旨諱誠 考 贈吏曹叅諱自莘 妣 鎭川宋氏 世應 女 本生考 叅判公 兄將仕將諱起莘 妣 驪興閔氏 郡守思容女也 公 萬曆丁亥生 乙卯 選生員 甲子 薦除禁都 歷別檢 直長 用監造勞 陞引儀 遷叅軍 別提 司議 刑郎 監青陽 盈德 平昌 享年六十七 以寧國原從勳 贈吏曹叅判 公性嚴確 有孝友至行 事親 從兄多可法 通經史詞章 名一時 遂以文行 敎子孫 以建立門戶始 閔夫人 娠公 夢得人蔘一根 中出明珠數顆 爛然有光耀 蓋爲之兆也 配 豊川任氏 考諱 瑄 生與公 同年 歿 先公十年 合葬沔川葛山坐酉原 二子 遇丁 掌令 遇甲 判官 二女 僉正李獻國 申命基 掌令 子致績 文科佐郎 叙績 正郞 凝績 嘉績 文科監司 景績 判官 女 判官朴泰輿 判官子宣績 進士 尚績 縣監 女 安瑞明 李獻國 二子 壽旻 文科府使 壽最 女 徐掟 內外曾玄以下 多不盡載 顯命 童年 贅于公之孫平昌監志源之門 公 諸孫長老 多溫厚友睦 少年 亦彬彬文學 公之所以爲敎於子孫者 尚可徵也

玄孫壻 輸忠竭誠奮武功臣豊原府院君議政府領議政 趙顯命 撰

玄孫男 通政大夫守公洪道觀察使兼巡察使 敬龍 謹書

崇禎紀元後百十三年庚申 二月 日 竪

◇

⑱ 통덕랑공 묘비문(휘 익삼)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익삼이요 자는 성망이며 음직으로 통덕랑이 되었으며 칠원윤씨이다。 신라시대 태사벼슬을 하신 시영은 시조가 되시고 고려시대에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공으로 시호를 추증한 휘 환은 공의 11대조이다。 고조의 휘는 여형이니 성균관 진사이며 증조의 휘는 준제이니 성균관 전적이었으며 할아버지 휘는 천상이니 가선대부이었고 아버지 휘는 담이니 선무랑이었으며 어머니는 고령 김씨이니 빈의 딸이며

계모는 창녕 조씨이니 여방의 딸이다。

인조대왕 무진년(1628년) 11월24일 출생하였으며 본바탕이 아름다워 효도와 우애를 돈독히 실행하였으며 형제간에 늘상 한 집안에 살면서 공경하고 봉양하니 사마온공 집안의 형제에 뒤떨어지지 아니하였고 6친에 화목하고 9족에 화친하니 장공예가 9세가 동거한 것에 못하지 아니하여 마을사람들이 칭찬하였으며 나라의 영광이었다。숙종대왕 경오년(1690년) 2월29일 졸하였으며 묘소는 목면 신흥리 전당골 산등 동남향(건좌)이다。배위는 영광 김씨이니 사원의 딸이며 묘소는 청남면 동강리에 있다。계배는 나주 주씨이니 세엽의 딸이며 묘소는 공의 묘소 좌측 산기슭에 있으며 표석이 서 있다。3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정기요 차남은 대기와 언기이며 장녀는 이시형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안세장에게 시집갔다。손자와 증손은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아 공의 묘소는 옛날과 같으나 상석、망주석들이 이미 퇴락되어 후손들이 합의하여 표갈을 세우고 상석을 바꾸면서 삼가 이 글을 새기었노라。

서기 1964년 갑진 3월 일

9대손 모원은 삼가 짓다

⑱ 通德郞公墓碑文(諱 益三) 忠孝公后 青陽

公諱益三字聖望 蔭通德郞 漆原之尹 以新羅太師始榮爲鼻祖而高麗門下侍中漆原伯謚忠孝諱桓 寔公之十一世祖也 高祖諱汝衡 成均進士 曾祖諱 遵悌 成均典籍 祖諱天祥 嘉善大夫 考諱 湛 宣務郎 妣 高靈金氏 贇女 繼妣昌寧曺氏 汝舫女 仁廟戊辰十一月廿四日 生 克趾先美 惇行孝悌 兄弟常處一室 敬之奉之 不下溫公之兄弟 和六親親九族 不讓張公之九世 鄕黨稱之 邦國榮之 肅宗庚午二月廿九日 卒 墓 木面新興里電塘裡岡乾坐 配 靈光金氏嗣遠女 墓 青南面東江里 繼配 羅州朱氏 世曄 女 墓 公墓左麓 具有表 生三男二女 長 正基 次 大基 彦基 女長適李時衡 次 適安世章 孫曾以下 不盡記錄 嗚呼 公之墳墓 依舊 床柱-旣頹 雲仍 合謀 立表改床 謹此記陰

紀四二九七年 甲辰三月 日 九代孫 模遠 謹表

◇

⑲ 동지중추부사공 묘비문(휘 해) 충효공후 청양

부군의 성은 윤씨요 휘는 해이며 자는 군범이니 칠원인이다。부군은 선대에서 벼슬한 예우로 숙종대왕시에 중통훈대부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을 제수받고 그리고 수직으로 중가선대부중추부동지사의 특전을 거듭 받았다。부군은 신라시대 태자태사공이신 휘 시영의 먼 후

손이다。 1세조 휘 거부는 고려시대에 호장이란 벼슬을 하였고 12대조 휘 환은 다섯 임금을 차례로 섬기며 3차례 문하시중을 역임하여 추성병의동덕섭리익찬공신의 훈호를 받았으며 부원군에 책봉되고 충효공 시호를 추서받았다。 10대조 휘 신생은 조선 세종대왕시에 생원에 합격하였고 5백년간 대대로 살아오던 영남지방 칠원에서 청풍명월의 고향 호서지방 공주로 이사온 입향조이다。 고조 휘 준제는 선조대왕시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저작과 성균관 전적을 역임후에 은퇴하여 살 곳을 산 좋고 물 맑으며 토지비옥하고 인심 순박한 청남면 외동으로 정하고 평생토록 학문을 연구하고 산수를 즐기며 후학을 교육한 지역 스승이었고 증조 휘 천남은 통덕랑이고 조고 휘는 낙이고 아버지 휘는 시상이며 어머니는 창녕 조씨 안국의 딸이다。 부군은 인조대왕 무인년(1638년) 5월16일에 출생하여 숙종대왕 기해년(1717년) 1월2일에 졸하니 살아오신 나이는 82세 이었다。 묘소는 앵봉산 동남쪽 산기슭이며 금강 용바위 윗쪽 동남향(건좌)이다。 배위는 정부인 성주 이씨이니 진사 염의 딸이며 10월10일에 졸하여 남편 산소에서 가장 윗쪽 남향(자좌)에 묘소를 정하였다。 아들 2인과 딸 3인을 두었으니 큰 아들은 재도요 작은 아들은 취도이며 큰 딸은 의령 남유상에게 작은 딸은 전주 이시영에게 셋째 딸은 곡산 강협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진화 진형 진익인데 둘째 아들인 취도가 아들이 없어 진익으로 양자를 하였다。 증손자인 인석 형석은 장손자가 낳고 의석은 둘째 손자가 낳고 정석과 영석은 셋째 손자가 낳았다。 현손자중에 경희、상의、창의는 장증손이 낳고 형석은 무후하여 창의로 양자하고 경흠은 의석이 낳고 성의、승의는 정석이 낳고 임의는 영석이 낳았다。 고손자 이하와 외손등은 번다하여 생략하였다。 부군이 생졸한 후 세월이 3백여년이 경과하며 몇차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이름까지 바뀌었으며 흥망이 교체되고 강산까지 변하여 글씨들은 모두 없어졌는데 묘소의 지역은 송백이 울창하게 자라고 자손들이 번창하여 혹자는 과거급제도 하고 혹자는 천석부자가 되는 후손들이 대대로 계속 나왔으니 모두가 부군이 쌓으신 음덕의 보답이며 음덕을 쌓으면 후손에게 보답이 온다는 실증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9대손 종설은 삼가 짓고

8대손 의원은 삼가 쓰다

서기 2001년 신사 3월 일 세우다

⑲ 同知中樞府事公墓碑文(諱 楷)

忠孝公后 青陽 府君 姓 尹氏 諱 楷 字 君範 漆原人 府君 世家蔭補禮秩 肅宗大王時 贈通訓大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除授 壽職 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恩典 重襲 府君 新羅

太子太師公諱始榮 遠裔 起世祖諱鉅富 高麗朝戶長 十二
代祖諱桓 五代王朝 歷仕 三次門下侍中 歷任 推誠秉義同
德燮理翊贊功臣漆原府院君 冊封 忠孝公謚號 追敍 十代
祖諱神生 朝鮮世宗大王時 生員 及第 半千年世居地 嶺南
漆原 淸風明月 湖西地方公州 移居 入鄕祖 高祖諱邊悌
宣祖大王時 文科 及第 弘文舘著作 成均館典籍 歷任後
退耕地 山高水麗 土沃民淳 定山外洞 定住 藏修遊息 後
學 啓導 鄕先生 曾祖諱天男 通德郞 祖諱 洛 考諱 時商
妣 昌寧曺氏 安國女 府君 仁祖戊寅年(一六三八)五月十
六日 生 肅宗己亥年(一七一七)一月二日 卒 享壽 八十二
歲 墓所 鷲鳳山東南麓下岡 錦江龍岩上乾坐 配 貞夫人星
州李氏 進士李士淰女 十月十日 卒 乾位最上子坐 封墓
有二子三女 長男 載道 次男 就道 長女 宜寧南有相 次女
全州李時榮 季女 谷山康協 出嫁 孫 震華震亨震益 次子
就道 無育 震益 繼代 曾孫 仁錫衡錫 長孫生 義錫 次孫
生正錫永錫 季孫生 高孫中 慶禧尙義昌義 長曾孫生 衡錫
無后 昌義 繼子 慶欽 義錫生 聖義升義 正錫生 任義 永
錫生 玄孫以下 外孫等 蕃多 省略 府君 生卒年月 三百餘
年 經過 數次兵火 易姓革命 興亡 交遞 江山 換易 文墨
遺蹟 消盡 藏魄之域 松柏 蔚蒼 花樹 滿開 或 金榜掛名
或 萬鍾豪農 子孫 代代續出 府君 積善餘慶 應報 陰德陽
報 子子孫孫現示

九代孫 鍾嵩 謹識

八代孫 義遠 謹書

西紀二〇〇一年 辛巳 三月 日 立

◇

⑳ 좌수공 묘비문(휘 광호) 충효공후 거제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광호요 자는 자윤이며 칠원후인이다。 공의 시조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이다。 기세조 휘는 거부이니 고려시대 호장이요 몇대를 전해와 가문을 빛낸 선조 휘는 환이니 다섯 왕을 섬기며 세차례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작에 봉작되고 충효공 시호를 추증받었으니 공의 13대조가 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0조 휘는 달이니 진사에 급제하였고 성종시대에 교수로 임명받고 거제도에서 농사짓고 살며 낙후된 섬나라 국민을 계몽하여 백대토록 존경받는 스승이시며 6대조 휘는 승보이니 임진왜란시에 고향땅을 수호하려고 의병을 일으켜서 전쟁터 앞에서 지휘하며 적군을 방어하다가 군기가 모두 고갈되어 성의 함락과 더불어 순절하여 선무원종 공신에 선록되고 증훈련원첨정에 추서되고 충훈사에 봉안되었으며 5대조 휘는 홍량이니 훈련원부정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많은 전쟁공로를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선록되고 충훈사에 배향되었다。 이 부정공 집안은 아버지 삼촌 형님들이 모두 원종공신으로 한집안 네사람 충신이 무리로 나온 영남지

방의 저명한 씨족이다。할아버지 휘는 처중이요 아버지 휘는 후빙이요 어머니는 칠원제씨이다。 공은 서기 1757년 정축10월15일에 출생하여 을해년 3월25일에 졸하고 묘소는 어머니 묘소 아래 남남동향(해좌)이다。배는 밀양박씨이니 홍장의 딸이며 서기 1757년 정축3월26일에 출생하여 기해 3월9일에 졸하고 묘소는 영진 전독산 서북향(손좌)이다。아들은 우형이고 손자는 재관이며 증손자는 순의 택의 택건이다。 기타의 후손들은 생략한다。거제도무열고절목에 의거하면 공은 서울과 천여리 떨어져있는 외딴 섬의 지방관리로 근무하면서 조정의 법령이 늦게 도착되고 주민들 뜻이 전달되지 못하여 낙후된 것을 발전시키고자 공무에 마음과 노력을 다바친 청렴결백한 관리였다。공은 무열고절목편에 이르기를 고기잡는 방법을 때에 따라 변통시켜 섬주민을 균등하게 자급시키고 일본인들의 멋대로 행동하는 폐습을 방지시키고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면과 마을에서 공평하게 내게하고 말매부 농부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부역과 세금을 공정하게하고 관청의 하인과 관청의 기생까지 구휼하고 해안선 순찰하여 외적들을 방어한 숫돌같이 몸을 바친 사람이다。 공의 입향조는 외딴섬 벽지의 서민들 귀와 눈을 열어준 큰스승이고 5대 6대조들은 나라를 구하고 순국한 원종공신이고 자신은 몸바쳐 봉사한 국민을 위한 관리이다。 공의 7대손되는 원기씨는 조상을 추모하고 근본에 보답하는 도리에 마음과 힘을 다바쳐 선조들이 남겨놓은 업적을 찾아 일가인 나에게 내보여 주었다。공이 손수쓰신 문자엔 먹향기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당시 말소리 얼굴모습이 눈앞에 생생하여 용렬한 솜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안의 계통은 족보를 그대로 옮겨놓고 약력은 향토문헌책에서 해당되는 조목만 선발하여 대략만 기술하고 기타의 말로 전해오는 크고 작은 일들은 후일 정의를 내리는 군자들의 추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서기 2001년5월 일에

동일파후손 의원은 삼가 기록하다

⑳ 座首公墓碑文(諱 光浩) 忠孝公后 巨濟

公의 姓은 尹氏요 諱는 光浩요 字는 子允이며 漆原后人이다 公의 始祖諱는 始榮이니 新羅太子太師이다。起世祖諱는 鉅富이니 高麗戶長이요 累代傳至하여 顯門祖諱는 桓이니 五代王朝에 奉職하며 三次門下侍中을 歷任하고 漆原伯에 封爵되고 忠孝公追諡를 받았으니 公의 十三代祖이다。朝鮮朝에 이르러 十代祖諱는 達이니 進士에 及第하고 成宗朝에서 敎授로 任命받고 巨濟에서 耕鑿하며 落後된 島嶼國民을 啓導한 百代師父이며 六代祖諱는 承輔이니 壬辰倭亂時에 鄕士를 守護하려고 義兵을 倡導하여 陣頭指揮하며 敵軍을 防御하다가 軍器가

竭盡되어 陷城과 더불어 殉節하여 宣武原從功臣에 選錄되고 贈訓練院僉正에 追敘되고 忠勳祠에 奉安되었으며 五代祖諱는 興良이니 訓練院副正官으로 壬辰倭亂에 參戰하여 많은 武功을 세워 宣武原從功臣에 選錄되고 忠勳祠에 奉安되었다 이副正公은 先考叔父伯氏가 原從功臣으로 一家門에 四人忠臣이 輩出한 南國華族이다 祖諱는 處重이요 考諱는 厚聘이요 妣는 漆原諸氏이다。公은 西紀一七五七年丁丑十月十五日에 出生하여 乙亥三月二十五日에 卒하고 墓所는 妣墓下亥坐이다。配는 密陽朴氏이니 興長의 女이며 西紀 一七五七年丁丑三月二十六日에 出生하여 乙亥三月九日에 卒하고 墓所는 明珍前獨山巽坐이다 子는 祐衡이고 孫은 載寬이며 曾孫은 淳誼宅誼宅健이다 其他後裔는 省略한다。巨濟懋悅庫節目에 依據하면 公은 畿內와 千餘里隔離된 絕海島嶼의 郡縣官吏로 勤務하면서 朝政의 法令이 晩到하고 住民의 民意가 未傳되어 落後된것을 發展하고져 公務에 盡心竭力한 清白吏이다 公은 懋悅庫節目篇에 漁條를 隨時變通하여 海民을 均等히 自給시키고 倭人들의 濫行弊習을 防止하고 官需費錢을 各面里에서 一齊히 出給하고 馬夫農民의 生活에 支障이 없도록 役租를 公正하게하고 官奴와 官妓도 救恤하고 海境을 巡哨하여 外敵을 防御한 砥礪獻身者이다。公의 入鄕祖는 絕海僻地에 庶民의 耳目을 啓導한 鄕先生이고 五、六代祖는 救國殉身한 原從功臣이고 自身은 獻身奉職한 爲民官이다 公의 七代孫인 遠基甫는 追遠報本의 道理에 盡心竭力하여 先祖의 遺業餘蹟을 推尋하여 不佞에게 提示하니 公의 手決文字에 墨香이 尚存하니 當世의 聲音貌色이 目前에 生生하여 拙手를 不顧하고 世系는 家乘을 移記하고 略歷은 鄕土文獻에서 要目만 選拔하여 略述하고 餘他의 口碑로 傳來하는 大小事는 後日에 立言君子의 追記를 期待하는 바이다。

西紀 二〇〇一年 四月 日

宗支人 義遠 謹識

◇

㉑ 진사공 묘비문(휘 상의) 대언공후 합천

옛날 진사 벼슬을 한 윤상의의 자는 은보인데 경상남도 합천에서 대대로 살며 정축년 5월 24일 졸하였으니 회갑을 지난지 11년째 되는 해이다。무자년에는 효행으로 정문을 받았다。손자인 순학이 공의 가르침을 받아 경서 사기등의 여러가지 책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내가 살고있는 청성 산중까지 2、3차 찾아와 집안내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들어보니 공의 집안 풍속은 순박하고 근신하여 물욕을 부린 적이 없고 선조를 예로 받들고 조상을 지극한 정성으로 치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간에 화목하여 이웃마을을 읍면까지 이르게 한 것 등 등을 알 수 있었다。

아! 기록에 의거하지 아니하여도 그의 선행을 알 수 있으니 진실한 군자였도다.

윤씨의 관적은 칠원인데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시영이 시조가 되고 고려를 지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고관대작이 계승되었으며 성종대왕조에 직제학에 오른 휘 석보는 청백리로 소문이 나 있었으나 연산군의 난정에 이르러 바른 말을 하였다가 귀양길에서 졸하였으며 헌민공 휘 탁연에 이르러서는 광국공신에 책훈되었고 충장공 경원은 임진왜란시에 순직을 하였으니 이 분들은 8대조 이상이 된다. 덕현、경신、주국、재흥은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가 되고 외할아버지는 진주 강우백이다. 부인은 초계 정씨이니 아버지는 석찬이다. 공의 장례를 마치고 9일동안 곡기를 끊고 남편따라 돌아가시어 나란히 정문을 세우는 영전을 입었으며 연동 남남동향(임좌)에 따로 장사를 하였다.

4남5녀를 두었으니 장자인 영달은 참봉 벼슬을 하였고 동생들은 영상、영철、영구이다. 딸들은 김연호、정종백、감역관인 강계로、송치낙、안장 등에게 시집갔다. 손자 중에 장손인 순학은 참봉인데 창학、규학과 장자 소생이고 성학、용학은 차자 소생이며 여타는 모두 어린 아이들이다. 묘소는 군의북쪽심묘면팔심리 동향(유좌) 능선에 있다. 후일 공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표석을 볼지어다.

숭정기원후 임인년(1892년) 하순

월성 최익현은 짓다

㉑ 進士公墓碑文(諱 尙義) 代言公后 陜川

故成均進士尹公尙義 字 殷甫 世居嶺右陜川 卒今丁丑五月二十四日 享年 甲子一周後十一年 戊子 孝行 旌閭 有孫淳學 服公之敎 博涉經史諸家 一再過余於靑城山中 說門內事甚悉 盖聞公 家風淳謹 無外慕 奉先以禮 居喪致毀 友于兄弟 睦於宗族 推及隣里鄕黨 皆言足聽聞 噫 不待文字而知其爲善 信君子人也 尹氏籍 漆原 新羅太師始榮 爲鼻祖 歷麗迄我 簪組相承 成宗朝 有直提學諱碩輔 淸白著名 逮燕山政亂 直言謫卒 傳至憲敏公卓然 策光國勳 忠莊公慶元 壬辰 立殣 是八世以上 曰德玄 曰敬臣 曰柱國 曰載興 高曾祖禰 外祖 晉州姜遇伯 夫人 草溪鄭氏 考 碩燦 葬公訖 絶粒食九日 殉 幷蒙旌典 別葬于淵洞壬坐 四男五女 長 永達 叅奉 次 永相 永喆 永九 女 金鍊浩 鄭鍾百 姜啓老監役 宋致洛 安璋 孫男長 卽淳學 叅奉 昌學 奎學 一房出 性學 庸學 二房出 餘 幷幼 墓 在郡北心妙面八尋里坐酉原 後 欲考公之世者 視此表石

崇禎紀元後五壬寅下澣

月城 崔益鉉 述

㉒ 연곡공 묘비문(휘 식의) 대언공후 합천

아! 연동은 우리가 대대로 장례하는 터이다。암벽에 새겨져있는 칠원윤씨 연동천이란 곳이 바로 여기이다。부군의 묘소가 관산제 우측 신좌향 능원에 있게된 것은 평일 일찌기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다른 산을 찾지 말고 선조의 묘소곁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하여서 그의 유언을 따라한 것이다。부군의 휘는 식의요、자는 은백이다。늙어서 묘막을 연동에 지어놓고 거기서 늙어 죽을때까지 살았기에 그래서 연곡 노은이라고 호칭하였다。선대의 계통은 선고의 묘비에 상세히 기재되어 남쪽 산중턱 같은 곳에 있으므로 그래서 이 비석문에는 중첩하지 아니하였다。아버지 휘는 재홍이요、어머니는 강씨인데 뛰어난 부덕을 세워 부군을 훌륭하게 낳았으니 무진년(1808년) 3월16일은 바로 출생일이 된다。부군은 천성이 인자하고 강직하고 용모는 단정하고 엄격하여 서있으면 산같이 정중하고 음성은 쇠소리 같으며 전신이 아홉가지 용태가 천연적으로 생기었다。사람을 대할때는 말씨가 온화하고 간결하고 용모는 공손하면서 위엄이 있어 비록 친절하여도 가까히 덤비지 못하였으며、천한 사람들도 모멸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의 착한것은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과실은 간섭하기 싫어하였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온화하여 박절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여 동요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널리 채택하여 한마디 말로 판단을 내리고 혹시 남들과 더불어 다투게 되면 곧 말씨를 낮추고 양보하여 뒷말이 없었다。또 말하기를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 말씨와 표정이 변동하는 사람을 천히 여기는 사람이 장부가 된다고 하였다。집안 살림을 심히 엄하게 하여 규정을 정하여 각자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남녀간 두려워 감히 어기는 일이 없었으며 그리고 일가사랑이 매우 돈독하여 조카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각자 소한마리씩 주어 살림을 도왔으며 때로는 각자의 집을 순방하여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는지 살펴보고 돌아와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몇세대를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자손들이 점차 번성하고 집안이 조금씩 진흥하니 나의 소망에 매우 위로가 된다고 하였으며 먼 일가에 이르러서도 임시 살곳으로 떠나면 그 일거리 자본을 주고 혹 꾸어주고 도와주어 모두 자기 자리를 얻도록 배려하였으며 혹 흉년드는 해를 만나면 이웃 마을까지 도와주고 가난하여 제사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반갑게 손님들을 대접하였다。나그네 신발이 늘상 집안에 가득하였으나 대접함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성의에 항상 여유가 있어 말하기를 손님대접에만 힘쓰면 후일 반드시 계속하기 어렵고 괴로운 마음이 쉽게 생겨나는 것이라 하였다。이웃 마을에 황

씨란 사람이 있었는데 본래 부군에게서 수업을 한지라 부군의 제사날이 되면 매년마다 자신이 제수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돌아가신 선생님의 사랑의 혜택을 죽을때까지 잊기 어려워 이렇게 정성 드리기를 소원한다며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때까지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하였다。부군의 덕과 의리가 사람을 감동하게 한 그 깊이를 대략 볼 수가 있다。평생토록 정성과 노력이 오로지 선조를 받드는데 있었다。일찌기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종중계를 결성하여 재사를 두릉선산 아래에 짓고 세일제를 올리고 또 4대선조 묘소의 위토를 매입하고 상석을 놓았다。기타 종사도 모두가 부군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다。현민공 초상화가 본래 칠원 홍포서원에 있었는데 서원이 철폐된 후에는 오래동안 봉안할 곳이 없어 정축년 봄에 관산재로 모서와 집안 감실에 소장하고 있다가 세일제 예법에 따라 9월9일이면 제사를 올렸으니 부군의 큰 사업은 여기서 끝이 났다。이때부터 시골 집에서 은거하며 가사도 불고하고 산림에서 소요하며 유유연히 세상을 벗어난 취미를 가지고 때로는 선조묘소나 성묘하며 남을 추모하는 모정을 붙이고 있었다。책상위에 소학책 한권을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외워 앞날을 밝히는 즐거움으로 삼으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몇번씩 외워 보도록 명하고 훈계하여 말씀하기를 학문을 하되 효도와 공경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힘쓰도록 하여라 하시었다。서재에서 거처한지 9년되어 천수를 다하였으니 이때가 갑신년 7월7일이며 향수가 77세였다。배위는 진주강씨이니 응주의 딸이다。갑자년 2월 15일에 출생하고 남편보다 23년 앞서는 신유년 7월 21일에 졸하였다。묘소는 팔심리 중본산 남남동향(임좌)능원에 있다。1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영석이다。큰딸은 생원 배찬에게 시집가고、둘째딸은 조수문에게 시집갔다。손자는 셋이요 손녀가 둘이니 우학 성학 수학이요 김병순、신정순의 아내가 되었다。증손은 많아서 기록하지 못하였다。모든 세상에 덕행을 모아놓고 이어서 명문에 말하기를

우리 윤씨는 칠원이 관향이요、신라와 고려의 저명한 씨족이다。조선시대에 이르러 관리가 대대로 이어져 직제학공은 청백리로 저명하고 훈신으로 책봉되고 나라위해 순직한 이는 현민공과 충장공이다。권신과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여 부정한 사람들 크게 놀라게 한 선교랑공이 빛나지만 마침내 합천군민 되었도다。조선중기에 이르러 명성을 날리고 또 업적이 있으며 많은 자손이 계승되었도다。증조부께서 특출하여 덕을 쌓고 인애를 행하여 복을 기르고 상서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닮으시어 집안의 명성을 계승하였으며 두 아우들에게 우애하시었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아저씨도 가르치고

아우도 학교보내며 법도를 남겨 후손에게 후덕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선조를 받들었도다。 내마음 미루워 남들에게 이르고 일가에 화목하고 이웃을 구제하였도다。 늙어서 여막을 선조묘소 가까운 곳에 짓고 평생토록 추모를 쉬지 아니하며 선산가는 길에 내집에서 기거하니 대대로 해마다 지난것 숫자가 천번일세。 위로는 나라를 도와 임금과 국민에 혜택을 주고 아래로는 가문을 계승하여 자신의 덕을 쌓았으니 이것을 후손에게 소상히 하였노라。 음덕 계승하여 그 아름다움 잊지 아니할 것이며 이 비석이 증거가 될 것이다。

손자 우하은 삼가 기록하다

② 淵谷處士公墓碑文(諱 植義) 代言公后 陝川

嗚呼 淵洞 惟我世葬之地也 巖題 有曰漆原尹氏淵洞阡是也 府君之藏 在冠山齋右負辛原 平日 嘗云我死 毋求他山先塋側 是吾所願也 蓋從遺志也 府君 諱 植義 字 殷伯晩年 卜築丙舍于淵洞 因居以終老 故 人 稱淵谷老隱 世系 詳載考墓碑 在南畔嶺一弓許故 茲不架疊焉 考諱 載興妣姜氏 邁種厥德 篤生府君 戊辰三月十六日 卽攬揆之日也 府君 性質仁剛 體貌端嚴 立如山鎭 聲若金鏘而一身九容 盖天資然也 接人則言溫而簡 貌恭而威 雖親密而不押昵 疎賤而不慢侮 樂道人善而惡許人過 處事則雍容不迫正直不撓 博採衆論 片言折衷 或與爭人辨己 便降解氣而退 無後言 又曰凡於財上動聲色者 賤之 爲丈夫也 治家甚嚴 定立規模 各授任職 內外斬斬 無敢違越而恩倫 甚篤諸姪貧者 各給犢一角 助其生業 時巡各家 見其勤課讀務耕織 歸而有喜色曰吾家 數世孤貧 今子孫漸蕃 門戶稍振甚慰予望 以至疎遠之族 分假田土 資其作業 或稱貸之賑恤之 思欲皆獲其所 或値年歉歲時 俵賑鄰里 貧不能祭者喜接 賓客巾屨 常滿堂 不屑屑於供具而誠意常有餘曰 供客而務費者 後必難繼 易生厭苦之心矣 近洞 有黃姓人 素所受知於府君者 府君忌日 每自致助奠之物 曰先老爺 仁愛之澤 沒世難忘 願以是薦誠 終其身不輟 府君 德義 感人之深 槪可見矣 平生誠力 專在奉先 嘗與諸族 敦修宗稧建齋舍于杜陵先隴下 禋享歲祭 且爲四世先墓 置位土 及牀石 凡他宗事 皆出於府君之規劃 先祖憲敏公遺像 昔在漆原鴻浦祠 撤享後 久無妥奉之所 丁丑春 奉還于冠山齋藏諸堂龕 依歲一祭例 以重九 行薦焉 府君之能事 於斯畢矣 自是 退居山齋 不問家事 逍遙林泉 悠然有出塵之趣時省邱壠 以寓羹墻之慕 案上 置小學一部 朝夕念誦 以爲炳燭之樂 時命不肖等 講數章而誡之 曰爲學而不本孝悌何以立身做人 汝曹 其勉之哉 齋居 凡九年而考終 實甲申七月七日也 享年七十七 配 晉州姜氏 諱應周之女 生以甲子二月十五日 先府君三十三年 辛酉七月二十一日卒 墓在八尋里甑峰負壬原 擧一男二女 男曰永碩 長女 適生員裵瓚 次 適晝守文 有孫 男三女二 曰禹學誠學洙學 金秉

淳中靖淳 妻也 曾孫 多不錄 總述世德 系之以銘曰

我尹氏漆 羅麗名族 逮于本朝 晃圭世襲 曰維直學 淸白著名 策勳殉節 憲敏忠莊 權奸滿朝 泰愕匪人 宣教炳幾 遂爲陝民 降至中葉 有震且業 瓜瓞綿綿 曾祖挺生 積善行仁 毓福産祥 府君克肖 繼述家聲 友于兩弟 日邁月征 叔乃種學 季世升庠 貽謨裕後 竭誠奉先 推而及人 睦族恤隣 晩卜菟裘 密邇松楸 終慕以沒休 托先阡我家 世歷年 數千上而輔國 澤君民 下而承家 樹德于身 昭茲來許 攸蔭繩繩 於戱不忘 可徵斯銘

孫 禹學 謹識

◇

㉓ 청재공 묘비문(휘 병의) 대언공후 합천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병의이며 자는 은보이고 청재는 그의 아호이다。관적은 칠원인데 신라시대 태사공 휘 시영이 시조가 되신다。대대로 고관대작을 하면서 고려시대를 지나왔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청백리에 선록된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이고 아호 지퇴당이 12대조가 된다。광국공신이며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칠계군에 봉해졌으며 헌민공으로 시호를 추서한 휘 탁연은 일찌기 퇴계 문하에서 유학하여 세상에서 중호선생으로 불리었는데 공의 9대조가 된다。헌민공의 장자인 휘 경원은 한성서윤 벼슬때에 임진왜란을 만나 순직하여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칠평군에 봉해지며 충장공으로 추서하고 표절사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차자인 길원은 검열 벼슬을 하였는데 자손이 없어 충장공의 차자인 선교랑 벼슬을 한 휘 태기로 양자를 하였으니 이 분은 7대조가 된다。선교랑공은 혼탁한 조정을 피하여 서울을 떠나 영남의 합천 두릉리로 가서 끝내 돌아가실때까지 벼슬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때부터 관직이 마침내 막히게 되었다。휘 경신과 휘 주국과 휘 재홍이며 아호 도남은 숨은 재덕이 있었으니 바로 증조 조부 아버지이시다。어머니는 진주 강씨이니 운백의 딸이다。

공은 순조 계유년(1813년) 4월20일 출생하여 철종 정해년 1월13일 졸하니 생존한 나이가 75세이다。공은 자질이 청수하고 신체가 준엄하여 바라보면 범하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은 그의 드러난 몸가짐 때문이며 경서와 사기에 두루 통달하고 품행이 순박하고 돈독하여 선비들과 벗들에게 추존을 받은 것은 그의 학문과 지조때문이다。그가 진실하고 후덕하고 화합하고 은혜로운 행실은 자연에서 나왔으며 늘상 생활에 편안하고 담백하여 곤궁하게 살아도 불의한 관직을 연모하지 아니하였고 빈천해도 불인한 부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효도와 우애로 하여 부모님 섬김에는 그 순종을 끝까지 하고 사랑과 공경을 독실히 이행하여 아버지 어머니 초상을 임하여는 법도에 게을리 아니하였으며 형

제간에 살아감은 우애와 사랑을 매우 돈독히 하여서 집안에는 이간하는 말이 없었으며 이런 마음으로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대우하기를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여 조금도 꾸밈이 없었다。그래서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할 것 없이 공을 군자라고 칭찬하였다。

아 효도와 공경은 모든 행동에 근원이 되는데 공은 잘 하였으니 이때문에 바로 공이 훌륭한 공이 될 수 있었고 하물며 나의 아버지가 공을 제사하는 글에 말하기를 책상에는 고금의 서책이 있고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끼니를 잊지 못하여도 일찌기 묻지를 아니하였으니 과연 즐기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감히 알 수가 없으나 만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귀중한 것을 알 것이다。라고 쓰셨으니 이것이 족히 끝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배는 경주 최씨이니 효진의 딸이다。효도하고 순종하고 절개있고 현숙한 부인의 덕행이 구비되어 있어 집안살림과 손님 접대에 많은 부분을 아내가 보조하였으며 공보다 4년 뒤인 고종 경인년(1890년) 6월11일 졸하였다。

2남 3녀를 두었으니 영선과 영모는 아들이고 송종덕、유민배、전중모는 그의 사위들이다。손자 중에 주학과 심학은 장자가 낳고 장학이와 정학이는 계자가 낳고 신정모는 계자의 사위이다。증손과 고손들은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묘소는 연동관산재실아래 동남향(건좌)의 능선에 있으며 배위 묘소는 우남반령 증조할머니 묘소 좌측 기슭 북동향(곤좌)의 능선에 있으니 공의 묘소와 마주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증손자인 병정、병문과 현손자인 창원、진원、정원이 비석을 묘소 앞에 세우며 나보고 비문을 지으라고 하는데 사실 공의 학문과 덕업에 대하여 서술할게 많으나 남긴 글들이 모두 화재로 소실되어 상세하게 고찰할 바가 없었다。그래서 단지 평일에 가정에서 들은 바를 삼가 그 대략만을 이와같이 지어 묘소 앞에 게재하는 바이다。

종증손인 병수 삼가 지음

㉓ 晴齋公墓碑文(諱 柄義) 代言公后 陜川

公 姓 尹氏 諱 柄義 字 恩甫 晴齋 其號也 籍 漆原 新羅太師諱始榮 鼻祖也 世襲簪纓 歷麗至我朝 淸白吏直提學諱碩輔號止退堂 十二世祖也 光國功臣戶曹判書漆溪君諡憲敏公諱卓然 嘗遊于退溪之門 世稱重湖先生 九世祖也 憲敏公長子諱慶元漢城庶尹 殉于壬發 贈吏判爵漆坪諡忠莊 享于表節祠 次吉元檢閱 無嗣 以忠莊公次子宣敎郞諱泰基 爲后 是爲七世祖也 宣敎公 避昏朝 去京南徙于嶺之陜川杜陵村 終身不仕 自是 簪組遂替 諱敬臣 諱柱國 諱載興號道南 有隱德 曾祖祖考也 妣 晉州姜氏 運伯之女 公 生以純廟癸酉四月二十日 卒于哲廟丁亥正月十三日 享

年 七十五 公 資質淸秀 氣宇峻嚴 望之若不可犯者 其儀表也 博通經史 制行純篤 爲士友推許者 其學文操守也 其忠厚和惠之實 出於自然平居恬淡 窮焉而不慕不義之貴 貧焉而不羨不仁之富 專以孝友 爲政 事父母 極其承順 愛敬篤摯 前後居喪 守制不懈 處昆季 友愛甚篤 庭無間言 推以待宗族接鄕黨 一以誠慤 少無緣飾之意 故 人無賢愚 無不稱公爲君子也 嗚呼 孝悌 百行之源 而公能之 是乃公之所以爲公者也 而況我皇考祭公文 曰案有古今書而手不釋焉 簞瓢屢空而未嘗問焉 所樂何事 愚 未敢知 如有知之者必識其貴 此尤足以徵於無窮矣 配 慶州崔氏浩鎭女 孝順貞淑 備有婦德 治產接賓 多內助焉 後公四年高宗庚寅六月十一日 卒 生二男三女 曰永善 永謨 宋鍾德 柳敏培 全中謨 其若壻也 孫男 曰周學 心學 長房出 曰章學 正學中正模 季房子若壻也 曾玄 不盡錄 墓 在淵洞冠山齋下負乾原 配墓 在右南畔嶺曾祖妣文氏墓 左麓坤坐原 距公墓相望而近也 曾孫炳正 炳文 玄孫昶遠 鎭遠 正遠等 將伐石表 俾余記其事 實 盖公之學問德業 宜有可述者多矣而遺文 盡失於火 無得以考詳故 只就平日所聞於家庭者而謹掇其大略如此 俾揭于阡

從曾孫　炳守　謹識

㉔ 종모재공 묘비문(휘 영상) 대언공후 합천

나는 참봉벼슬을 하는 윤순학에게서 그의 증부되는 종모재공의 현명함을 잘 들은지 오래이다。 한번도 얼굴을 볼 틈이 없었는데 문득 고인이 되셨다。 공의 손자인 병교가 자기의 재종제 되는 병형이 지어놓은 유사록을 가지고 찾아와 묘비문을 요청하니 나는 고루하여 감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비문을 지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옛날부터 사모한 나의 심정을 표시할소냐? 삼가 찾아보니 공의 휘는 영상이요 자는 경수이며 재호를 종모라 한 것은 효자가 종신토록 애모한다는 의의를 취한 것이다。 칠원윤씨들은 신라시대 태자태사 시영을 시조로 삼고 있다。 고려대를 지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고관대작이 계승되었다。

성종대왕시에 직제학에 오른 휘 석보는 청백리로 저명하였는데 연산군의 난정시에 직언을 하다가 귀양지에서 졸하였고 선조대왕시에 칠계군에 봉작된 휘 탁연은 아호가 중호인데 광국공신으로 책훈되고 시호를 헌민공으로 추증하였으며 헌민공의 장자인 칠평군의 휘는 경원인데 임진왜란때 순국하여 이조판서로 추서하고 충장으로 시호를 추증하였으며 차자인 검열관 휘 길원이는 자손이 없어 충장공의 차자인 선교랑 휘 태기로 후사를 삼았으니 공에게는 8대조가 된다。

일찌기 권신과 간신을 배척하고 영남 합천으로 피신하여 자손들이 살게 되었다。경신은 주국을 낳고 주국은 재홍을 낳고 재홍은 상의를 낳았는데 상의는 진사에 합격하고 초계 정씨 석찬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은 효자 아내는 열녀로 나란히 정문을 세웠으니 바로 공의 고조、증조、할아버지、아버지、어머니이다。공은 천부적으로 준수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움이 남보다 지나치어 행동거지가 정중하고 말씨가 간결하고 묵묵하여 어린 시절부터 여러 아이들과 더불어 놀지 아니하고 오직 서책과 붓、벼루등만 좋아하였다。15세에 이미 사략、통감、효경 등에 능통하였고 성년이 되어서는 시문과 예기와 각종 문장이 곧 노숙한 사람과 비슷하였다。공의 바램은 어버이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어서 몇해인가 과거시험장에 나갔으나 일찍부터 합격과 불합격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후로는 마침내 과거장은 사절하고 산림에 숨어 살며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강구하며 힘을 다하여 자기의 공부로 삼았다。늘상 말하기를 격물치지로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정성과 바름으로 마음을 삼는다고 하였으며 조용히 있을때는 자신을 수양하여 편협되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고 밖에서 활동할때엔 명백하게 판단하고 자세하게 살펴서 하늘의 이치와 인간 욕심의 낌새를 조심하라 하였다。이것은 선배들의 교훈이지만 공이 꼭꼭 가슴속에 간직한 것이니 어찌 문장이나 찾아보고 구절을 따오는 선비들이 따를수 있는 바가 될소냐?

공은 천성적으로 지극한 효자라서 평일에 받들기를 반드시 부모의 의향을 받아드리는 것을 첫째로 삼고 분부를 받은 것이 있으면 어기거나 묵히지 아니하였으며 살아계셔서는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들어서는 근심을 다하여 한결같이 옛날 효자들같이 하였다。정축년 아버지 상을 당하여 3년 상기가 겨우 끝나갈때 어머니도 이어 돌아가시니 공의 애통함은 끝이 없었다。아버지와 어머니의 초상때에 만장 시문이 하늘에 휘날렸으나 때마침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두서없이 혼란하였는데 오직 형님인 승지공만이 의지할분이라 매번 일마다 반드시 품의하고 어느 것도 혼자 멋대로 하는 것이 없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마온공이 백강에게 한 것같이 하였으며 늘상 젊은 시절 집안이 가난하여 어버이를 위하여 맛있는 것을 정성껏 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회갑날 같이 좋은 때도 역시 차마 술과 고기를 장만하지 아니하였다。

집안은 근면과 검소로 다스리고 남을 응접할 때는 정성을 으뜸으로 삼았으며 일가사람 대우에는 은혜와 의리를 겸하여 다하였으며 자손을 훈계하여 농사와 독서를 아울러 실행케 하였다。늙어서도 역시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흉년을 만나 앞 마을 사람들이 밥

을 못하면 곧 집안 형편에 따라 곡식을 주고 구휼하였는데 갑오년에 큰 흉년이 들자 밭까지 팔아 수백 인명을 살린 적이 있어 지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자신을 지키는데에 이르러서는 의복과 모발까지도 온전히 하였고 아들에게는 의로운 곳이면 나가도록 권면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화복과 생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나 오직 공만이 능히 할 수 있었으니 또한 현명하지 아니할소냐? 춘추법에 국왕을 존경하고 적도를 치는 의리와 음양 술수에서 앞뒤의 구분이 어찌 다르랴? 공은 덕행을 먼저 하고 문예를 뒤로 하여 혹 저작한게 있어도 곧 바로 소멸시켜 버렸다。 그런고로 소중한 말과 중요한 말을 수습하였으나 많지 않았다。 애석하도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능과 출중한 품행으로도 좋지 않은 운수를 만나 한번도 천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진실로 뜻있는 선비들의 한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 이연평과 채구봉 같은 두 현인도 우리 유교에서 큰 어른이지만 역시 쓸쓸히 세상을 떠났으니 공께서야 또 무엇이 속상하리오? 공은 헌종 정미년(1848、년)에 출생하여 갑인년(1914년) 1월17일에 졸하니 향년이 68세이다。 합천군 심묘면 팔심리 아래 구등 동남향(건좌)에 안장하였으며 배위는 진주 강씨이니 정두의 딸이다。 정숙하고 유순하며 여자의 법도를 잘 갖추고 있었다。 묘소는 팔심리 북도장곡 동남향(건좌)이다。 4남1녀를 두었으니 아들들은 성학과 진사 벼슬을한 용학과 술학과 상학이며 딸은 남평 문구락에게 시집갔다。 손자인 병교는 장자의 소생이고 증손은 순원이다。 여타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봉훈대부행현릉참봉 월성 최영조 지음

㉔ **終慕齋公墓碑文(諱 永相)** 代言公后 陝川

不佞 與尹寢郎淳學 嘗 聞其仲父終慕公之賢 久矣 未暇一面 奄隔九泉而公之孫炳喬 以其再從弟炳馨 所撰遺事 來謁樹仟之文 自顧淺陋 不敢承當 然 微此一著 亦何以表宿昔景仰之私哉 謹按公 諱 永相 字 敬守 齋號 終慕者 盖孝子終身慕之義也 漆原之尹 以新羅太子太師始榮 爲鼻祖 歷麗迄我 世襲簪纓 宣陵朝 直提學諱碩輔 清白著名 燕山政亂 直言謫卒 穆陵朝 漆溪君諱卓然號重湖 策光國勳諡憲敏 憲敏之長子漆坪君諱慶元 壬辰 殉節 贈吏判諡忠莊 次檢閱諱吉元 無嗣 以忠莊次子宣郎諱泰基 爲后 於公爲八世 嘗斥 權奸避寓嶺之陜川 子孫 因居焉 曰敬臣 曰柱國 曰載興 曰尚義 進士 娶草溪鄭氏碩璨女 夫孝婦烈 幷蒙旌閭 即公之高曾祖及考妣也 公 天稟秀異 聰睿過人 動止凝重 語言簡默 孩提時 不與群兒戲 惟書籍筆硯是好 就傅之年 已通史略通鑑孝經等書 及其成童則詩禮之學 功令之文 殆若老成焉 公 志在榮親 隨衆赴擧盖亦有年 然 不曾以得失關心 永感之後則遂謝場屋 遯跡林泉 講究程朱之

緖餘 致力爲己 業工 雅言 必曰格致以明理 誠正以存心
方其靜也 莊敬涵養 以立其不偏不倚之體 及公動也 明辨
猛察 以謹夫天理人欲之機 此盖前輩成訓而公之所拳拳服
膺者也 豈尋章摘句之士所能及哉 公 天性至孝 平日侍奉
必以養志 爲先 凡有所命 不敢違越 居致敬 養致樂 病致
憂 一如古孝子爲 丁丑 遭外艱 襄奉才畢 母夫人 繼而下
從公 哀毁罔極 前後送死之際 情文 靡鉠 時則家事板蕩
頭緖甚亂而惟伯氏承旨公是倚 每事必禀 無或自專 友愛尤
篤 如溫公之與伯康 常以少日家貧 爲親甘旨 不得盡誠 爲
恨 晬辰令節 亦不忍御酒肉 治家也 勤儉成規 接人也 忠
信爲主 待宗族則恩義兼盡 戒子孫則耕讀幷行 晩年 家計
亦不甚饒而每値饑饉 前村未炊則輒隨力賑恤 甲午大歉 至
賣田土 以活數百人命 境內至今誦之 至若守身 以全衣髮
勉子 以赴義陣則此乃禍福死生之所係而惟公能之 苟不明
乎 春秋尊攘之義 陰陽鄕背之分 何以有他 公 先德行而後
文藝 或有著作 便即滅去故 珠唾瓊咳 收拾無多焉 惜乎
以若經濟之才 倜儻之行 運丁陽九 未需一命 是固爲志士
之恨 然 在昔李延平 蔡九峰二賢 爲斯文之宗匠而亦以韋
布 歿世 於公 又何傷乎 公 以景陵丁未 生 卒于甲寅正月
十七日 享年 六十八 葬本郡心妙面八壽里下龜嶝乾坐之原
配 晉州姜氏正斗之女 貞淑柔嘉 壼儀甚備 墓 八壽里北道
藏谷乾原 擧四男一女 男 性學 庸學進士 述學 商學 女
適南平文龜洛 孫炳喬 長房出 曾孫 順遠 餘 不盡錄

通訓大夫行顯陵叅奉

◇

月城 崔永祚 撰

㉕ 참봉공 묘비문(휘 영옥) 충효공후 칠원

홍능참봉 칠원윤공의 휘는 영옥이요 자는 영언이며 호는 칠소이다。공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시며 고려시대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봉작되어 시호를 충효공으로 추서한 휘 환은 17대조가 된다。임진왜란시에 선무원종공신이며 훈련원첨정으로 추증 받은 휘 영상은 9대조가 되고 할아버지 휘는 재봉이고 아버지의 휘는 행의이며 어머니는 교하노씨이니 옥각의 딸이다。공은 고종 임오년(1882년) 11월15일 칠원 유동에서 출생하였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형용이 근엄하였으며 선조를 위하는 일에 더욱 성실하였다。30여년간 종사 일을 맡아보며 위토가 부족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수확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자신이 부담하여 묘제를 봉향하였으며 충효공 재실이 오랜 세월로 썩고 퇴락되어 붕괴의 경지에 이르게 되자 원근에 사는 여러 종인을 찾아다니며 설득시켜 마침내 중건하였으며 묘소하에 타인의 소유로 된 전답이 있었는데 땅을 파서 채석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전답을 매수하여 종중에 헌납하고 숭조의 일에 전념하다가

신묘년(1891년) 5월11일 별세하여 유동못 골짜기 남남동향(임좌)에 안장되었다. 배는 광산 김씨이니 재군의 딸이며 묘소는 건위와 합장하였다. 3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들은 수근、홍근、토근이고 딸들은 정석원、조용선에게 시집갔다. 수근의 아들은병희、병준이고 딸은 정차호에게 시집갔다. 홍근의 아들은 병철이고 토근의 아들들은 병열、정철이다. 정씨 외손은 기식이고 조씨 외손은 상제이다. 자손들이 이제 비석과 기타 일체 부속 석물을 마련하여 공의 묘소 앞에 세우면서 홍근이 나에게 비문을 청하므로 그 성심을 찬양하여 가져온 가승과 만장문과 문집을 참고하여 이렇게 세계와 사실을 기록하는 바이다.

계축년(1973년) 2월 일

분성 배문준은 삼가 짓고 쓰다

㉕ 參奉公墓碑文(諱 永玉) 忠孝公后 漆原

洪陵叅奉 漆原尹公 諱 永玉 字 英彦 號 漆昭 公 始祖 新羅太子太師公諱始榮 高麗門下侍中漆原伯忠孝公諱桓 十七代祖 壬辰宣武從勳 贈訓練院僉正公諱榮相 九代祖 祖諱 載鳳 考諱 行誼 妣 交河盧氏 玉洛 公 高廟壬午十一月十五日 漆原柳洞 出生 剛直嚴毅 爲先誠實 三十餘年 宗事擔任 位士不贍 凶年 因 收獲不充 時 自擔墓祭奉享 忠孝公齋宮 歲久朽敗 顚覆 境 至 遠近諸宗 巡訪說得 竟 重建 墓所境門 他人 所有田 有 堀土採石 禁止 爲 該田 買受獻宗 等 崇祖一念 終生 辛卯五月十一日 別世 柳洞 池谷壬坐 安葬 配位光山金氏 在君 墓 合窆 三男二女 生男 秀根 弘根 土根 女 鄭錫圓 趙鏞善 出嫁 秀根男 炳會 炳俊 女 鄭且鎬 出嫁 弘根男 炳徹 土根男 炳悅 炯喆 鄭男 基植 趙男 相濟 子孫 碑石 一切付屬石物 公 墓前 弘根 請 誠心 讚揚 家乘 挽誄等文集 參考 世系 事實 記錄

癸丑二月 日

盆城 裵文準 撰 幷書

◇

㉖ 구암공 묘비문(휘 승원) 대언공후 합천

나는 일찌기 윤종진군의 요청으로 그 사람의 증조부와 조부 양대의 묘비문을 지었다. 오늘 또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묘소에 또 비석을 세우려 하는데 나의 아버지를 아시어 비문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돌아가시어 어른을 빼면 고할 곳이 없으니 소원컨대 거듭 요청하오니 사양하지 말라며 눈물을 흘려 측은한 표정이 보였다. 아 그대가 요청하고 내가 응답하는게 진실로 둘다 당연하나 다만 나는 글을 못짓고 이제는 또 노환이 들었으니 어떻게 그 고고하고 큰 의지를 능히 밝혀서 덕행에 손상을 없게 하겠느냐? 이것이 매우 개탄되는 바이다. 공은 나의 아버지 친구인지라 옛날부

터 이미 계속하여 모실수 있었고 공은 나보다 14세 위여서 늘상 공을 어른으로 섬기었고 그리고 공은 나를 아우로 사랑하였다。해변에서 임시로 살때는 이웃이 되어 더욱 정의가 깊어졌고 질병으로 모습은 굽었어도 지팡이 집지 아니하고 두팔 벌리고 다녀 소년의 풍채가 있었는데 우연히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여 내가 만장시를 지어 팔십리 뒷산 유좌향 묘소까지 전송한지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지나간다는 것이 진실로 이와같은 것일까? 공의 휘는 승원이요 자는 주한이요 아호는 구암이다。아버지의 휘는 병기요 아호는 오헌이다。할아버지 휘는 성학이요 아호는 분암이다。은진 송종만은 외할아버지이다。성재선생 우학씨는 종조부이다。선조들은 아버지 비문에 새겨져 있다。공은 영리하면서 재능이 많았고 또 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학문과 서예가 일찍 완성되어 성재 선생이 좋은 재기라며 어여삐 여기었다。겨우 스무살 때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아버지가 중년 나이도 아니되었는데 홀아비로 살 것을 결심하니 공은 공부를 중지하고 집안 일을 주간하며 늘상 아버지 곁에서 자면서 말 한마디 발한걸음까지 오직 뜻을 살펴 그 기쁨을 다하면서 학업은 비록 전공하지 아니하였어도 몸으로 수행하며 집안을 다스린 사람이다。늘상 도리에 맞는 것을 구하고 잊지 아니하고 있었다。아버지 상을 당하여는 과거에 다하지 못한 정까지 더욱 정성을 기울여 초상례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공은 체구는 작아도 똑바로 서서 모양이 단정하고 거울같이 맑았으며 의지는 곧고 말은 법도가 있어 의문의 분석과 시비의 판단에 사람들이 경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남의 불의한 것을 보면 반드시 즉석에서 힐책하였다。일찌기 한 인척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람을 시켜 공에게 요청하여 말하기를 앞으로 모일에 발인하여 어느 산으로 갈 것이니 모든 장례 비품을 고루 준비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 공은 곧바로 준비하여 가지고 장례일에 약속 장소로 가보니 영구차가 이르자 상주인이 내리는데 가지고 온 것은 겨우 한자쯤 되는 도자기였다。모인 사람들이 요란하게 떠들며 말하기를 화장한 것 같다고 하니 공은 처음에는 몰랐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상주 앞으로 나가 질책하며 말하기를 당신도 사람이요 당신은 차마 했을망정 나는 차마 못하겠으니 자신이 책임지라며 준비한 상구를 직접 불태우고 곧 급하게 떠나가니 여러 사람들은 모두 위대하다며 성재 선생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진실로 당연한 일을 행한 것이라 하였다。일생동안 몸 가짐이 거의가 이것과 비슷하였다。그러나 두루두루 가르쳐 주어 자신이 깨우치고 고치게 하였다。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 하면서도 역시 원망의 말은 없었다。공은 고종 무술년(1898년)에 태어나 향년 여든한살로 1978

무오년 6월26일에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배위는 남평 문씨이니 영권의 딸이다。공보다 먼저 1962년 임인년 3월3일에 졸하여 뒷산 동향(유좌)에 따로 장례하였다。세자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종진이요 자부는 의성 김씨이니 경식의 딸이다。딸들은 도재소와 배재걸에게 시집갔다。손자는 달수、지수、홍수이다。손서는 김광호와 박재진이다。외손자는 도기택과 배기호 준호이다。대략 앞과 같이 서술하고 이어서 명문에 말하기를

강직하고 과감한 성품으로 옛 집안의 아름다운 명망을 지키었도다。마땅히 우러러보고 마땅히 허리 굽혀 후인들은 성묘할 지어다。

서기1989년 9월9일 화산 권옥현은 삼가 짓고

수원 백남수는 삼가 쓰다

㉖ 龜菴公墓碑文(諱 承遠) 代言公后 陝川

余嘗因尹君鍾振之請 銘其曾若祖兩世之阡 今又造余曰吾父之阡 亦將竪表而知吾父而可銘者 零落殆盡則捨吾丈無處可控 願乞以重荐 無辭 因泫然著惻 噫 君請余應 固有兩宜 然但余無文 今又病慌 安可闡發孤介之志 能無傷實德耶 是甚可慨 公 余父友也 自鄕 己獲源源承奉而公 先余十四歲故 常以長事公而公則以弟畜余 及寓海上接隣則益復綢繆 痛瘝相句而未甞携笻 翩翩有少年風致 偶一疾不起 余以詩 送葬于八壽村后西坐阡者 奄隔十許年矣 逝者固如是耶 公 諱 承遠 字 周翰 號 龜菴 考 諱 炳岐 號 梧軒 祖 諱 誠學 號 憤菴 恩津宋鍾萬 外祖也 誠齋先生禹學 從祖父也 上系 著先碣 公 敏悟而饒才慧 又勤誦讀 文藝夙成 誠翁 甚器而奬之 甫弱冠而遭內艱 時 大人公亦未中身而斷以獨居 自是 公輟讀幹家務 常侍寢親側 片言跬步 惟視志務盡其欣則業雖未專 修於躬而政於家者 常求合於學之道而未甞忘也 及丁外艱 以前之未盡情 益傾誠哀 禮無不至 公 軆小而植立 貌端而鑑明 志貞固而言語有章 疑難之分 是非之決 人莫不傾聽 而見人之不義則必面折之 甞有一姻親遭故於京 專人請公曰將以某日 發引 抵某山 凡百葬具 願有周章 公 即往備辦 臨期往待于約所 及車至而喪人下 所携者只一尺磁缸也 會者 喧喧曰似火葬 公始不省 及知其的則輒就叱喪人曰君亦人乎 君則可忍而吾則不忍也 任自爲之 手燒其所具 便悻悻去 衆皆偉之曰承誠翁教者固宜然矣 一生行已 盖多類此 然旋則誨誘 使自悟改故 人甚畏憚而亦無怨言焉 公 生高宗戊戌 以享壽八十一之戊午六月二十六日 卒於寓舍 配 南平文氏永權女 先卒壬寅三月三日 別葬後山酉坐 育三子 男 鍾振 子婦 義城金景植女 女 都載小 裵在杰 孫 達洙 志洙 興洙 孫婿 金光浩 朴在進 都基澤 裵基鎬 埈鎬 文鎬 外孫也 略叙如右 繼之詞曰以剛果之質 守古家令望 宜瞻宜式 後人其省

光復後 己巳 重陽節 花山 權玉鉉 謹撰

水原 白南壽 謹書

㉗ 유인성주배씨 묘비문(휘 형원배) 충효공후 청양

유인 배씨는 성주 배씨의 후손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공조판서 휘 진손이 있었으니 바로 부인의 중조이다。이로부터 몇대를 전래하여 휘 상덕이 있으니 이 분은 증조부가 된다。할아버지는 학로이고 아버지는 병회이며 외할아버지는 평산 신광이다。

명문의 숙녀로써 천부적으로 정숙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가하여 칠원윤씨 형원의 아내로 호적이 되었다。바로 전적공 휘 준제의 12대 손녀며느리가 되며 유생인 병준은 시아버지가 된다。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여 사람들은 부인이 귀감이 된다고 칭찬하였는데 하늘이 돕지 않아 시부모들이 일찍 죽고 남편까지 불치의 병이 들었다。배씨 부인은 밤과 낮으로 치료와 탕약에 정성을 다하며 하늘에 기도하기를 자신을 대신하여 달라고 하였건만 귀신은 알아주지 않고 마침내 남편의 상을 당했으니 바로 무진년(1928년) 윤이월 15일이었다。장지는 정산 청남면 백우동 남남동향(해좌)이다。

아! 슬프도다 세상에서 열녀라고 칭송받는 부인들은 거의가 남편따라 죽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일조에 자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도리어 쉬운 것이고 평생토록 의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배씨부인은 집안의 연약한 아녀자로 철석같은 의지를 잘 지켜 어린 자식들을 길러 가문을 일으키었고 문중에 부탁하여 5대조를 시향으로 해마다 제사 올리게 하였다。그의 위대한 공로를 논의한다면 가문을 중흥시킨 여사라 하겠으니 그의 의리를 지킨 절개가 어찌 순절한 것만 못하리요? 배씨 부인은 고종 갑오년(1894년) 4월12일 출생하여 을사년(1965년) 4월29일 졸하여 동쪽 산넘어 고개 남남서향(계좌)에 장례하였다。3남1녀를 두었으니 종일、종섭、종오이며 딸은 최재운에게 시집갔다。조카들은 종선、종석이고 손자는 맹순、덕순、용순、채순이며 근수는 종일의 소생이고 한수、두수、행수、기수、영수、현수는 종섭의 소생이고 평수、희수는 종오의 소생이다。증손인 주호 이하는 번다하여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장자인 종일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묘소에 비석을 세우고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거늘 나는 그 현숙한 어머니 덕행을 자세히 보고 들었기에 문장을 잘 짓지 못하는 것을 잊고 이와 같이 지었노라。(부인의 사적은 정산읍지에 실려 있다)

서기1975년 정사년 2월

예안후인 김만영은 삼가 짓고

탐진후인 최병무는 삼가 쓰다

㉗ 孺人星州裵氏墓碑文(諱 馨遠配) 忠孝公后 青陽

孺人裵氏 星山後裔而至我朝 有工曹判書諱晉孫 即其中祖也 自此 徃累傳至有諱相德 是爲曾祖也 祖曰學魯 考曰秉喜 外祖曰平山申絖 乃其四祖也 德門淑女 天植貞淑之質 出嫁 昇籍漆原尹馨遠配 寔典籍公遵悌 十二代孫婦 士人炳俊 其顯舅也 孝養舅姑 承順君子 世稱閫範龜鑑 天胡不吊 舅婦早失而夫君 有奇疾 裵氏日夜 醫藥殫誠 禱天身代 神鬼無知 竟遭崩城 即戊辰閏二月十五日也 葬定山治南白隅洞亥坐原 噫 世稱節婦者多以殉終爲貴 然 一朝自裁 似難而猶易 終身守義 似易而實難也 裵氏 以閨中弱媛 能守鐵石之志 育幼孤起門戶 勑門中 歲薦五代祖時享 若論偉功 貴門中興女史也 其守義之節 豈以一殉 爲貴哉 裵氏生以高廟甲午四月十一日 卒於乙巳四月二十九日 葬東岱越嶺枕癸抱丁 有三男一女 男 鍾日 鍾燮 鍾五 女 崔在允猶子 鍾璇 鍾碩 孫孟淳 德淳 容淳 宗淳 劤洙 鍾日出 漢洙 斗洙 幸洙 琪洙 英洙 賢洙 鍾燮出 平洙 敏洙 熺洙 鍾五出 曾孫柱祜以下 煩不殫記 長男鍾日甫以爲先心 置貞珉于墓塋 請余刻辭 愚 賢母之德 視聽詳審故 忘其不文而如此撰述云(孺人事蹟載于定山誌)

檀紀四三一〇年 丁巳二月 日立

醴安後人 金萬榮 謹識

耽津後人 崔柄武 謹書

◇

(4) 묘지석

① 좌사보공 묘지명(휘 계) 함안

삼가 찾아보니 함안군 북쪽 구례면 내대산(현재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거대한 옛 무덤이 있고 그 묘소 아래에 큰 제방이 있는데 금귀몰니형 (금거북이가 진흙탕에 들어가는 형국)이라 이르고 있다。 함안지방 사람들은 현재 그 묘소를 지칭하여 윤계의 무덤이라고 이르고 있는데 좌사보공의 성씨와 휘가 부적같이 일치하니 영남지방 사람들까지 모두 이르기를 여기는 칠원윤씨들의 선산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충주 오갑리 사는 종인 정주씨가 비석 머리부분이 깨어진 조각을 찾아냈고 또 빛이나는 그릇을 찾아냈는데 그 그릇은 바로 놋쇠 사발이며 한 쌍의 은가락지가 담겨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함안 마수리에 사는 종인 상중씨가 알려 온 말이다。 정조 경자년(1780년)에는 칠원 사는 일가 찬연과 거제 사는 일가 사람 방민을 보내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묘소의 앞과 뒤와 좌와 우에 지방사람 분묘들이 여러개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갈을 뽑아다가 제방에 버렸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외대산에도 옛날 무덤이 있는데 또 윤정승 산소라고 지칭하였지만 찬연은 이 곳은

함안 윤씨들의 선산같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금까지 확실하지 아니하다。 (돈본계의 재정이 넉넉함을 기다렸다가 한번 개사초를 하면서 묘지문을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역시 불가능하였다。 정주라는 사람이 단지 빛나는 놋그릇만 보았고 지석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지석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함안과 칠원에 사는 모든 일가들이 모두들 산소에 대한 호칭이 이미 공의 성씨와 휘하고 합치가 되고 또 말하기를 능이라 하는데 능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묘소를 이르는 것이다。 그런고로 노인들이 전해오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니 그 곳이 좌사보공 묘소가 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런고로 을묘년(1795년)에 주위에 있던 고총들을 파서 이장시키고 곧 개사초 하였고 정조 20년(1796년) 병진년 처음으로 세일제를 봉행하였다。

서기 1796년 3월 일

후손 통정대부 행안동현감 사국은 삼가 짓다

(4) 墓誌石

① 左思補公墓誌銘(諱 啓) 咸安

謹按 咸安郡北求禮面內岱山(今咸安郡代山面九惠里) 有一大古塚 其穴下 有大堤堰 謂之金龜沒泥形 咸安人 至今稱其墓 謂尹啓陵而左思補公 姓諱同符 嶺人 皆云是 漆原尹氏之先山 曾前 忠州烏甲宗人禎周 求得碑頭破碎者 又得明器而明器則鍮鉢 盛一雙銀環云 此則咸安馬輪宗人商徵 所告者也 庚子(正祖朝) 送漆原宗人燦然 巨濟宗人出身邦敏 省審則穴之前後左右 多有邑人之墳山 或云碑碣拔棄堤堰云 外岱山 亦有古塚 又稱尹政丞山所而燦然言內此則似是咸安尹氏先山云 此事皆至今未詳矣(待稧財之有裕 一番改莎) 尋誌文 亦不可己也(禎周 只見明器 不見誌石則其無誌石 可知 不必更求) 咸漆諸宗 皆以爲墓山之稱號 旣合公姓諱 至又曰陵則陵之爲言 即墓之謂也 故老之流轉 如是 其爲左思補墓 無疑云故 乙卯 掘移傍近之塚仍爲改莎 丙辰(正廟廿年) 始行歲祭

崇禎後丙辰三月 日

後孫通政大夫行安東縣監 師國 謹識

◇

② 서승공 묘지명(휘 참) 대언공후 풍덕

12대 할아버지께서는 서승 벼슬을 하시고 통훈대부사헌부집의로 추증되었다。 부군의 성은 윤씨요 휘는 참이며 칠원윤씨 후손이다。 신라시대 태사벼슬을 하신 휘 시영의 후손이다。 할아버지의 휘는 자이니 고려시대에 대언 벼슬을 하고 아버지의 휘는 천이이니 낭장 벼슬을 하였으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니 소감 벼슬을 한 류의 딸이다。 조선 태조가 왕위에 즉위한지 2년되는 계유년

(1393년) 부군은 생원과 진사 양과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이 서승에 이르렀고 후일에는 증손자인 풍형의 관직으로 인하여 집의로 증직이 되었다。배위는 증숙부인 진천 송씨이니 참판 벼슬을 한 우의 딸이다。묘소는 풍덕홍교리가잠곡 동남동향(신좌)이며 부인은 합장하였다。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지는 헌감을 하였고 사는 생원에 합격하여 참의를 추증받았다。손자와 증손들은 많아서 모두 기록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문과보에 기재되어 있는 손자인 석보는 직제학으로 청백리에 선발되었으나 직언을 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귀양지에서 졸하였고 참판으로 추증이 되었다。증손인 풍형은 부제학에 이르고 5대 손자인 광원이는 좌랑이었으며 탁연이는 판서에 올라 칠계군에 봉직되었다。창명은 학록 벼슬을 하였는데 6대손인 자신은 정랑 벼슬을 하였는데 광해군의 난정시기를 만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종신하였지만 참판으로 추증받았다。길원은 검열관이었고 조원은 관찰사를 역임하였다。7대 손인 안기는 도사에 오르고 8대손인 우정은 장령 벼슬을 하였으며 9대손인 치적은 좌랑이고 가적은 관찰사를 하였고 홍적은 좌랑이 되었다。10대손인 지화는 정언 벼슬을 하였고 지원은 장령이고 지태는 보덕이었다。11대 손자인 경룡은 관찰사이고 경주는 필선 벼슬을 하였고 일복은 도사 벼슬을 하였다。12대 손자인 광국은 문학이며 사국은 승지 벼슬을 하고 있으니 모두가 큰 아들의 후손들이다。

숭정삼갑오년(1774년)

12대 손자 전 승지 사국은 삼가 짓고 아울러 쓰다

② 署承公墓誌銘(諱 參) 代言公后 豊德

十二世祖考 署承 贈通政大夫司憲府執義府君 姓尹氏 諱參 漆原人 新羅太師諱始榮 後也 祖 諱 榹 高麗代言 考諱 天怡 郎將 妣 慶州李氏 少監毓女 我 太祖 即位二年癸酉 府君 中司馬兩試 官至署承 後 以曾孫豊亨 貴 贈執義 配 贈淑夫人鎭川宋氏 叅判愚女 墓 在豊德興教里可潛谷辛坐原 夫人 祔焉 有二男 志 縣監 思 生員 贈叅議 孫曾以下 多不能盡記 其登文譜者 孫 碩輔 直提學 選淸白吏 直言 忤燕山主 謫卒 贈叅判 曾孫 豊亨 直提學 五世孫 光遠 佐郎 卓然 判書漆溪君 昌鳴 學錄 六世孫 自莘正郎 値光海政亂 棄官歸鄕以終 贈叅判 吉元 檢閱 調元觀察使 七世孫 安基 都事 八世孫 遇丁 掌令 九世孫 致績 佐郎 嘉績 觀察使 興績 佐郎 十世孫 志和 正言 志遠掌令 志泰 輔德 十一世孫 敬龍 觀察使 敬周 弼善 一復都事 十二世孫 光國 文學 師國 承旨 皆長房 後也

崇禎三甲午

十二代孫前承旨 師國 謹識 並書

③ 생원공 묘지명(휘 사) 대언공후 풍덕

11대 할아버지는 성균관 생원이며 통정대부형조참의를 추증받았다。부군의 성씨는 윤씨요 휘는 사이며 아호는 순수이니 칠원윤씨이며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의 후손이다。증조부 휘 자는 고려시대에 대언 벼슬을 하였고 할아버지 휘는 천이이니 낭장 벼슬을 하였다。아버지의 휘는 참이니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여 서승이 되었고 집의를 추증받았다。어머니는 증숙부인 진천 송씨이니 참판 벼슬을 한 우의 딸이다。세종 정묘년에(1447년)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후일 손자인 풍형의 벼슬로 인하여 참의를 추증받았으며 배위는 숙부인 양성 이씨이니 판서 벼슬을 한 맹상의 딸이다。1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인 석보는 직제학 관직으로 직언을 하다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귀양지에서 졸하였고 청백리에 선록이 되었으며 참판으로 추증을 받았다。딸은 생원인 이근수와 찰방인 민산명에게 시집갔다。묘소는 풍덕 서승공의 묘소 우측 산등 44보쯤 떨어진 동남동향(신좌)에 있으며 부인은 뒤로 6보쯤 떨어져 분묘가 따로 되어있고 별도로 지석도 있다。증손자 이하는 많아서 모두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며 그 중에서 과거 등과 문서에 오른 사람들로 손자 풍형은 부제학 벼슬을 하였고 현손자인 광원은 좌랑이 되었고 탁연은 판서에 올라 칠계군으로 봉군되었으며 창명은 학록이 되었고 5대 손자인 자신은는 정랑 벼슬을 하였으나 광해군의 난정시대를 만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종신을 하였는데 참판을 추증받았으며 길원은 검열관이었고 조원은 관찰사를 하였다。6대 손자인 안기는 도사이고 7대 손자인 우정은 장령이고 8대 손자인 치적은 좌랑이고 가적은 관찰사이고 홍적은 좌랑이다。9대 손자인 지화는 정언이요 지원은 장령이며 지태는 보덕이다。10대 손자인 경룡은 관찰사이고 경주는 필선이 되고 일복은 도사이다。11대 손자인 광국은 문학이고 사국은 승지이다。

숭정삼갑오년(1774년)

11대 손자 전승지 사국은 삼가 짓고 아울러 쓰다

③ 生員公墓誌銘(諱 思) 代言公后 豊德

十一世祖考 成均生員 贈通政大夫刑曹叅議 府君 姓 尹氏 諱 思 號 順叟 漆原人 新羅太師諱始榮 後也 曾祖諱 樜 高麗代言 祖諱 天怡 郎將 考諱 參 仕本朝 爲署承 贈執義 贈淑人鎭川宋氏女 世宗丁卯 中生員 後 以孫豊亨 貴 贈叅議 配 贈淑夫人陽城李氏 判書孟常女 有一男二女 男 碩輔 直提學 直言 忤燕山主 謫卒 選淸白吏 贈叅判 女 適生員李壽根 察訪閔山命 墓 在豊德署承公之墓右岡四十四步坐辛原 夫人 祔于後六步而異壙 別有誌 孫曾以下 多

不能盡記 其登文譜者 孫 豊亨 副提學 玄孫 光遠 佐郎 卓然 判書 漆溪君 昌鳴 學錄 五世孫 自莘 正郎 値光海政亂 棄官歸鄕 以終 贈叅判 吉元 檢閱 調元 觀察使 六世孫 安基 都事 七世孫 遇丁 掌令 八世孫 致績 佐郎 嘉績 觀察使 興績 佐郎 九世孫 志和 正言 志遠 掌令 志泰 輔德 十世孫 敬龍 觀察使 敬周 弼善 一復 都事 十一世孫 光國 文學 師國 承旨

崇禎三甲午

十一代孫 承旨 師國 謹識 並書

◇

④ 직제학공 묘지명(휘 석보) 대언공후 풍덕

아! 슬프도다. 하늘이 인간에게 수명을 주면서 진실로 온전하게 주고자하지 아니하였을까?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을 착한사람이라 이르고 부귀하고 평안한 사람을 복있는사람이라 이르는 것이다. 어찌하여 선과 복이 서로 만나기는 어렵고 서로 위배되는 것이 많을까? 건국 초기부터 인재를 배양하여 성종시대에 이르러 무성하게 크게 번창하였다. 그 크고깊은 기운이 지금까지 남아있어 청명한 운수가 바야흐로 열리려는데 무오년(1488년)에 한번 타격을 받았으며 갑자년(1504년)에 또다시 타격을 받아 선비되는 사람들이 곧 없어졌으며 세습작록이 마침내 줄어들어 병들고 파리한 시기가 되어 영원히 슬픔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일이 지나면서 우러러 생각하여 보니 정직한 말과 청백한 절개는 버려진지 수백년이 되었으나 그런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는 듯 하나 저 여우와 이리같고 마귀같은 자태로 한 시대에 눈을 부릅뜨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속으로 죽이고 겉으로 꾸짖어 더러움을 남김이 끝이 없으니 바로 여기에 굴복한 사람들은 단명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곧게한 사람은 장수하였다. 저들이 복을 얻은 것은 작고 화를 얻은 것은 컸다. 착한일을 이룬 보답은 오래일수록 더욱 더 빛나니 하늘이 이 인간에게 준 것이 또한 완전하지 아니한가?

직제학 직위에 있는 윤공석보는 갑자사화를 겪은 사람이다. 공은 세조 재위시에 상사생이 되었으며 성종시대에 있어서는 삼사의 청의관을 하였는데 선비들의 혼란과 반대로 풍기와 성주 군수로 나가 다스리며 청렴과 근신으로 법을 지키는 관리가 되었었다. 연산군의 혼탁한 조정이 이르며 조정에서 간하는 신하들 면접을 거절하더니 마침내 강음현으로 귀양을 가서 끝내 졸하였다.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포상으로 도승지를 추증받았으며 후일 아들의 관직때문에 추가하여 이조 참판으로 추증받았으니 이것이 공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이다. 지금은 공이 세상을 떠난지가 심히 오래되었고 그

간에 전쟁도 겪어 집안 문헌이 흩어져 선비들이 경험한 언행을 찾아 고찰할 수 없었다。그러나 일찌기 듣건대 공이 군수로 재임 중에 아내가 집안 살림이 궁색하여 비단 한 필을 팔아 밭을 매입하였는데 공은 급히 편지를 전하여 그 밭을 돌려주라고 하며 말하기를 내가 사대부의 후손으로 임금이 먹이는 것을 먹고 있는데 집사람을 시키어 백성의 밭을 매입하면 옳은 일이 되겠는가? 이것은 공이 자신 다스림을 구차하게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말 때문에 귀양가게 됨을 당하자 누가 공에게 권고하길 관료중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 핑계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라고 하였더니 공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무슨 면목으로 죽어 저승에 간 사람을 만나보겠느냐 하였으니 이것은 공이 어려움에 당하여서도 기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귀양살이 중에 고통이 심하였지만 오히려 자세하게 자식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내가 옛날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 오직 나라 뿐이요 집을 잊어라 하였기에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것은 시운이며 운명인 것이지 배움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오래도록 독서를 폐지하고 있는게 옳다는 말인가? 하였으니 이것은 공의 믿음과 의리가 현혹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슬프도다、이 몇가지만 보아도 우리는 족히 공의 평생을 느낄수 있었다。당시에는 곤액을 당하였지만 후세에 크게 빛난 것은 당연한 것이다。공의 자는 자임이며 칠원윤씨이다。신라시대에 태사공인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있다。고려시대에 대전좌중금위유랑장인 휘 천이와 조선시대에 벼슬이 서승이며 중집의인 휘 참과 중참의인 휘 사는 증조 조부 아버지이시다。어머니는 양성 이씨이니 판서인 맹상의 딸이다。배위는 경주 김씨이니 자손이 없으며 그의 묘소도 실전하였다。계배는 고령 박씨이니 현감인 인효의 딸이며 갑술년(1454년) 출생하여 경술년(1550년) 졸하였다。풍덕 동면 오동곡 북동향(곤좌)에 장례하였고 박씨 부인은 공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공은 4남6녀를 두었으니 중형은 생원에 합격하여 청백리의 큰 아들이 됨으로 우부장에 천거받았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문형은 판관이 되었고 덕형은 생원에 합격하였고 풍형은 부제학이었다。딸들은 유일손、신극승、군수인 홍석견、곽박、정언인 강승덕、정언인 안방진에게 시집갔다。증손자 이하들은 많아서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공의 유사를 찾아 모아 가장책으로 만든 사람은 필선 벼슬을 한 경주이며 이복원에게 비석문을 요구한 사람은 관찰사를 역임한 경룡의 아들인 참봉 태국과 전 승지인 사국이다。이들은 장자 계통의 후손들이며 그리고 공의 9대손과 10대손들이다。공의 청렴한 덕은 전선고에 쓰여있고 읍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야사까지 있어 부녀자들까지 알고있다。그런고로 다시

상세하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명문에 말하기를 아 이 사람은 옛날에 청렴하고 정직한 신하이니 비석에 말할 바 아니다。 천추만세 두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차마 훼손하고 손상시킬소냐?

좌의정 이복원은 지음

④ 直提學公墓誌銘(諱 碩輔) 代言公后 豊德

嗚呼 天之賦命於人 固不欲與之全耶 正直廉潔 謂之善 富貴康寧 謂之福 是何 善之與福 相遇之絕難而相背之多也 國初 培養人材 至 成廟之際 蔚然大盛 渾厚之氣 尚在 清明之運 方開而一椓於戊午再殲 於甲子 士類殆空 世級遂降 殄瘁之時 終古同悲 然而時移事徃 仰而思之 侃侃之言議 皎皎之風節 去之數百年 其人 若存而彼狐狸鬼蜮之恣睢於一時者 旣皆陰誅顯責 遺臭無窮則此之所詘者 短 而所伸者長 彼之得福也小 而得禍也大 善濟之報 久益彰 明天之與斯人 不亦全乎 直提學尹公碩輔 與於甲子之禍者也 公 在光廟 爲上舍生 在成廟 爲三司淸議 士忤當路 出補豊基 星州 爲廉謹守法吏 至燕山昏朝 爲面折廷爭臣 遂爲江陰縣謫 從以沒 中廟改玉 褒 贈都承旨 後 以子貴 加贈吏曹參判 此 公始終也 今去公之世 甚遠 間經兵燹 家乘散逸 士歷言行 莫得而考 然 嘗聞 公 在郡時 夫人 家居無食 賣緞衣一領 置田 公 亟走書 令還其田曰吾從大夫之後 食君之食而使家人 買民田 可乎 此 公之律己不苟也 當以言被謫也 或 勸公 諉僚臺己死者 以自脫 公 哭曰何面目 歸見九泉之人也 此 公之臨難不欺也 謫中 痛劇 尙諄諄戒子曰余學古人書 國耳忘家 竟至於此 此 時也 命也 非學之過 汝今久廢讀書 可乎 此 公之信義不惑也 噫 觀於此數者 爾足以槪公 平生矣 厄於當時 顯於後世宜哉 公字 子任 漆原人 以新羅太師諱始榮 爲始祖 高麗大殿左中禁衛論郎將諱天怡 本 朝 官署承 贈執義諱參 贈參議諱思爲曾祖 祖 考 妣 陽城李氏 判書孟常 女 配 慶州金氏 無后 失其葬處 繼配 高靈朴氏 縣監仁孝 女 生甲戌 卒于庚戌 葬豊德東面梧桐谷坐坤原 朴夫人 祔焉 公 有四子六女 重亨 生員 以清白吏嫡長 薦授右郎將 不就 文亨 判官 德亨 生員 豊亨 副提學 女 適柳一孫 愼克承 洪石堅郡守 郭璞 姜崇德正言 安方進正言 孫曾以下 多不能盡錄 裒輯公遺事 爲家狀者 弼善公敬周也 求銘於福源者 觀察使公敬龍之子前叅奉泰國 前承旨師國也 是爲長房之後而於公爲九世 十世云 公之清德 篋于銓籍 載於邑誌 野史 夫人而知之 故 不復詳焉 銘 曰嗚呼 此 古之廉直臣無所蜼復 千秋萬世 有人心者 誰忍毁傷

左議政　李福源　撰

◇

⑤ 교리공 묘지명(휘 관) 충효공후 남양

공의 휘는 관이요 자는 선명이며 아호는 덕암이며 성

은 윤씨이니 칠원후인이다。 신라시대 태자태사공인 휘 시영의 후손이다。 고조의 휘는 조생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판결사 벼슬을 하고 증조의 휘는 신로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익산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조고의 휘는 필이니 부사과 벼슬을 하였고 아버지의 휘는 중임이니 세종 무오년(143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용천군수를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니 판서 벼슬을 한 효례의 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다른 기예는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성종대왕 임자년(149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정랑 사간원정언 홍문관수찬교리지제교를 역임하였는데 때마침 연산군의 혼미한 시대를 만나 남양에서 은거하여 산수를 즐기며 살았다。 연산군 갑자년(1504년) 8월12일에 졸하니 향년 54세 이다。 아 좋은 말이 발이 굽고 높이 날으려는 새가 날개가 꺾이어 떨어져 원근의 선비들이 슬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동년 10월11일에 경기도 남양군 며지곶면 유지동 대장곡 가운데 산등에 동남동향(신좌)으로 장례를 모셨다。 배위는 한산이씨이니 진사인 수의 딸이며 공보다 2년 먼저 졸하여 처음에는 같은 산등 남향(자좌)으로 장례하였다가 공의 묘소에 부장하였다。 아들 형제와 딸 형제를 두었으니 장남은 의형이니 진사에 합격하였고 차자인 거형은 아직은 어린아이이다。 명문에 말하기를

품행도 있고 덕행도 있어 백세토록 영광이 있었다네。
일찌기 부귀영화 버리고 물욕의 밖에서 살았으며 엄연한 풍모와 절개가 문장에 빛나고 있으니 이 공의 묘소를 누가 감히 훼손할소냐。

가의대부행사헌부대사헌 안동 김연수 지음

⑤ 校理公墓誌銘(諱 鶴) 忠孝公后 南陽

公諱鶴字善鳴號德巖姓尹氏漆原人新羅太師諱始榮後也高祖諱祖生文科判決事曾祖諱莘老文科益山倅祖諱弼副司果考諱仲任世宗戊午文科龍川倅妣南陽洪氏判書孝禮女公少好讀書不事他技成宗壬子文科歷兵曹正郎司諫院正言弘文舘修撰校理知製教時値昏朝遯跡南陽以山水自娛燕山甲子八月十二日卒享年五十四噫良馬跼足高鳥墜翼遠近章甫無不嗟惜同年十月十一日葬于南陽府於知串面柳池洞大壯谷中岡頁辛原配韓山李氏進士秀女先公二年卒初葬同岡子原改祔公墓有二男二人長倚衡進士次居衡尚幼銘曰 有行有德百世有光早辭榮貴物外徜徉儼若風節燦然文章唯公之墓人誰毁傷

嘉義大夫行司憲府大司憲 安東 金延壽 撰

◇

⑥ 판관공 묘지명(휘 문형) 대언공후 풍덕

공의 휘는 문형이요 자는 형지이다。 직제학공 제2자

로 성종 병신년(1476년)에 출생하여 벼슬은 종훈대부 내섬시판관을 역임하고 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을 증직으로 받았으니 이 증직은 손자 탁연의 광국훈로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인조 을사년 7월16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풍덕군 동면 홍교리 해랑서향에 쌍분으로 되었으며 상석 석인 표석 등이 있었으나 파쇄되어 매립하였다.

묘지문

경기도 풍덕 동면 홍교리 해랑은 바로 우리 칠원윤씨의 대대로 장례한 지방이다. 후손인 창의는 후세에 태어나고 사는 곳도 멀어 성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을유년(1825년) 봄에 족숙인 전 군수 재급씨를 낙서집으로 찾아가 뵈니 족숙께서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기를 중이조판서공의 묘소는 직제학공 앞산 등에 있었는데 바로 공이 여막을 지었던 자리이며 옛날에는 표석이 있었지만 깨져 글자가 흐려진지 오래되었고 묘역까지 또 퇴락되었다고 하였다. 나 재급은 일찌기 임자년(1852년) 가을에 아버지 명령을 받고 직제학공 묘소 사초시에 가보았으며 그때에 공의 묘소를 성묘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사초를 하여 봉분을 쌓고 표석을 매립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보고하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말하기를 공의 효성은 비록 백세가 지난 후일이라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는데 네가 능히 그 일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셨다. 세월이 변하였어도 지금이 또 옛날 같으니 네가 어찌 개축의 도를 아니하겠느냐?고 하였다. 창의는 물러나와 자신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재급 족숙은 공의 방손이면서 오히려 이와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공의 자손된 사람들은 어찌할고? 마침내 공의 종손되는 도사 벼슬을 한 이의와 더불어 여러 일가들과 논의하여 옛 봉분을 새롭게 사초하였고 그 후로 6년 넘어 경인년 12월에 처음으로 찾아가 성묘하니 4대 선조 묘역이 백년의 옛 마을에 있어 희미하게 선조들이 보일듯 신령이 계신것 같아 새로운 감회가 일어나 차마 돌아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설을 지나 이의가 후릉참봉으로 있어 몇차례 찾아가 몇번 성묘를 하였으며 또 산하에 살고있는 족제인 현의 집에서 공의 유서와 흩어져 있는 사례들을 찾았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공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농담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청렴과 근신으로 몸을 지켰으며 직제학공 초상을 만나서는 혼란한 시기로 초상기일을 단축하여 끝내라는 때이지만 혼자 상기 예절을 변하지 아니하고 3년간 여막에서 상복을 하루같이 입고 있었다. 본래에 벼슬에는 뜻이 없고 과부인 홀어머니 봉양에 순종하였고 아버지 벼슬로 인하여 강동 현감을 나가게 되었는데 전 군수들이 자주 교체한 뒤라도 5년간 임기를 지켜 정치에 업적을 많이

남기고 국민 사랑하기를 부모같이 하였음을 공의 아우인 부제학공 휘 풍형이 지은 명환록에 나타나 있으며 또 그 곳 읍지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그리고 여기저기 많은 군현에는 모두 은혜를 기록한 비석이 있으며 또 공의 나이 70이 되었는데 위로 97세 되신 어머니가 계시어 하루에 세차례 보살피기에 시종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불행하게 어머니보다 먼저 죽게 되어 자신은 불효자이므로 장례시에 석회를 사용하지 말고 제사에는 기름과 꿀로 조리한 전과는 쓰지 말라고 유언하였다。아 공의 사적과 언행록이 몇차례 전쟁을 지나며 겨우 산실된 가승만 얻는 것에 그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어찌 족히 공의 평생을 대략이나마 말할소냐? 아 부모의 묘소에서 시묘함에 옛날부터 어찌 한계가 있었으랴? 때마침 혼란한 조정을 만났지만 혼자서 예제를 지켜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모두들 시묘살이 한 윤씨 어른 묘소라고 지칭하니 평생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옛날부터 대효자라고 지칭하여 죽은 혼령까지 오래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번 바람 불때 달뜰때에 은은히 앞서 인도하던 소리가 직제학공 묘소를 오고 갈때면 들리는듯 하였다。시골 나무하는 노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엇그제 일같이 전해주고 있으나 공같이 하늘이 내신 진실한 효자가 아니면 어떻게 신통함이 이지경에 이를소냐? 공의 휘는 문형이요 자는 형지이니 직제학 벼슬을 하고 이조참판에 증직된 휘 석보의 둘째 아들이다。할아버지 휘는 사요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증이조참의이다。증조 휘는 참이며 전설서승 벼슬을 한 증사헌부집의이다。시조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이다。어머니는 고령 박씨이니 현감 벼슬을 한 인효의 딸이다。공은 성종 병신년(1476년)에 출생하여 인종 을사년(1545년)에 졸하였다。배는 증정부인 청주 한씨이니 판관 벼슬을 한 언륜의 딸이다。공과는 동갑이며 공보다 10년후에 죽어 공과 봉분이 다른 묘소인데 바로 직제학공의 묘소 앞산을 등진 서향(묘좌)이다。아들 형제와 딸 넷을 두었으니 장자는 이이고 차자는 이니 서령 벼슬을 하고 증영의정구원부원군이다。장녀는 유구정 습독관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파평 윤인승지관에게 시집가고 3녀는 여회 참봉에게 시집가고 4녀는 조경철에게 시집갔다。이의 아들인 비연은 자손이 없고 이의 아들인 탁연은 호조판서이며 광국훈신에 기록되고 칠계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헌민공으로 추증되었다。수연이는 광주 목사를 역임하고 호조참판에 추증되고 호연이는 연산 현감을 역임하고 좌승지를 추증받았다。탁연의 아들인 경원은 양성 현감을 역임하고 삭녕 현감시 순국하여 증이조판서이며 시호를 충장으로 추중받았으며 표절사에 배향되었다。수연이 아들인 복원이는 면천 군수를 역임하고 문장과 기절로 저명하다。

이원이는 한성서윤을 역임하고 문학과 행의로 두 번이 나 남대에 들어갔다。 그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학문계에 저명한 사람은 검열 벼슬을 한 길원이와 정랑 안기와 좌랑 홍적과 장령 지원과 보덕 지태등은 모두가 계자의 후손들이다。

11대손 창의는 삼가 지음。

⑥ 判官公墓誌銘(諱 文亨) 代言公后 豊德

公諱文亨字亨之(直提學公第二子)
成宗丙申生官中訓大夫內贍侍判官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以孫卓然光國勳贈)　仁宗乙巳七月十六日卒　墓京畿道豊德府東面興教里嶰梁卯坐變墳有床石石人表石破碎埋

墓誌文

畿輔之德水東興教里嶰梁卽我漆原尹氏世葬之地也后孫昌誼生晩地遠未及展拜歲乙酉春徃渡族叔前郡守載伋氏洛西第族叔慨然語曰　贈判書公墓在直學公前岡卽公廬墓遺墟舊有表石剝落已久塋域又圮余曾於壬子秋承親命赴直學公墓役時歷拜公墓惕然驚心改封築埋表石歸報我先人先人喜曰公之誠孝雖於百歲之後感人者深故爾能辨此事星霜屢變今復如前汝盍思改築之道昌誼退而自責曰族叔以公傍孫猶尚如此况爲公子孫者乎遂與公宗孫都事履誼發論諸宗於是年十月俾新舊封越六年庚寅臘始徃省拜則四世先壠百年舊鄕况見先祖如在之靈怵惕興感不忍言旋因經歲於履誼　厚陵直所屢徃而屢省又於山下族弟賢誼家搜得公遺文佚事有曰公自少性不戲謔廉謹持身遭直學公喪於昏朝短喪之日獨不變喪制三年廬墓袒括如一日素無宦意而爲養偏慈勉從蔭仕出監江東而適承前倅十年九逋之後準期六十朔治多異績民愛之如父母此則已見於公季氏副學公諱豊亨名宦錄跋又於邑誌載之詳矣而前後典邑皆有紀惠之碑又曰公年蹐七旬而上有九十七歲母夫人日三定省終始不懈不幸先母夫人歿則自以爲不孝遺戒葬勿用石灰祭勿用油蜜煎果噫公之事蹟言行屢經兵燹僅得於散佚之家乘者止此此豈足以槩公平生嗚呼親喪廬墓從古何限而時値昏朝獨自守制居民尙今不諼咸稱侍墓尹大爺之墓終身慕父母古稱大孝而至於英靈久而不泯每於風朝月夕隱隱前導之聲况若來徃於直學公墓所牧叟樵兒目見而傳誦如昨日事然非公出天之誠孝何以靈異之至此也公諱文亨字亨之直提學　贈吏曹參判諱碩輔第二子也祖諱思生員　贈刑曹參議曾祖諱參典設署丞　贈司憲府執義始祖諱始榮新羅太子太師妣高靈朴氏縣監仁孝女公生於　成宗丙申卒于　仁宗乙巳配　贈貞夫人淸州韓氏判官彦倫女生與公同年歿後公十年與公同窆而異墳卽直學公墓前岡負震之原有二男四女男長儞次伊署令　贈上相龜原府院君女長柳九鼎習讀次坡平尹倂承旨次呂誨參奉次趙景澈儞子斐然无后伊子卓然戶曹判書錄光國勳封漆溪君　贈諡

憲敏粹然廣州牧使　贈戶曹參判浩然連山縣監　贈左承旨卓然子慶元陽城縣監殉節朔寧　贈吏判諡忠莊享表節祠粹然子復元沔川郡守以文章氣節著益元漢城庶尹以文學行誼再擬南臺以下不能盡記而以文譜著者檢閱吉元正郞安基佐郞興績掌令志遠輔德志泰皆季房后也

十一代孫　昌誼　謹撰

◇

⑦ 증영의정공 묘지명(휘 이) 대언공후 여주

공의 휘는 이요 자는 신수이다。 연산조 임신년(1512년) 12월23일에 출생하여 벼슬은 통훈대부사온서령을 역임하고 순충보조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관상감사세자사를 추증받고 구원부원군에 봉해졌으니 모두가 아들 탁연의 광국훈 때문이다。 선조 병자년 8월28일에 졸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광주군 남세촌 대원동 건좌에 합장하였으며 상석 석인 표석이 있다。

묘지문

이 묘소는 나의 10세조고이신 증순충보조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관상감사세자사구원부원군행통훈대부사온서령부군과 10세조비이신 증정경부인 안동김씨의 의장을 모신 곳이다。아 연대가 점차 멀어지며 집안의 문서들이 흩어져 부군께서 벼슬하신 이력과 언행들을 자세히 고증할 수가 없으나 집안의 족보책 끝에 약간의 유사가 기재되어 있으니 말하기를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몇차례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다가 늙어 부모의 벼슬 때문에 벼슬하게 되어 사헌부 감찰 사온서령 금화 우봉현감까지 역임하였다。 아들인 탁연이 기묘년에 가선대부에 올라 중이조참판이 되고 계미년에 자헌대부에서 중이조판서가 되고 경인년에 광국훈신에 책봉되어 증순충보조좌찬성구원군이 되고 임진년에는 또 평난원종1등공신이 됨으로 증영의정 부원군까지 더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공께서 벼슬한 약력과 추증받은 모든 것들이다。 또 말하기를 그 성실과 효성은 천부적으로 타고나 금화현감시에 어머니가 병들어 위독하여 거의 치료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오눌어가 좋은 치료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겨울철에 낚시하여 잡아다가 바쳐 즉시 치료가 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공이 어버이 섬김에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말하기를 죽은이 섬김은 살아있는것 같이 하는거라며 누구든 상을 당하면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물품으로 도와주고 종가집이 비록 멀리있어도 대신하며 차자라 아니하고 일찌기 감히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공께서 선조 반드는 모든 것이다。 또 말하기를 자신이 한미한 직책 하

급관리라도 일을 처리하기 게을리 아니하고 공적 모임에는 일찌기 사적 일때문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으며 조회를 하고 국가에 보고할 때면 반드시 훌륭한 덕행이 있는 사람이면 흔흔연하여 무슨 소득이 있는 것 같이하고 혹은 결함이 있으면 슬퍼서 그 근심을 얼굴에 표현하며 자는 것도 잊고 먹는 것도 폐지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감으로 있을 때는 전패를 걸고 임금님을 향하여 예배를 끝낸 후에 전패를 편안히 봉안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기관에 주청하여 객사북쪽에 감실을 짓고 봉안하여 곧 임금님 허락을 받았다。 여러 지방이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으니 이것이 공께서 임금 섬기는 모든 것들이다。 또 말하기를 공은 죽을때까지 몸 가짐을 청렴하고 근신하여 간소함에 힘쓰라고 여덟자를 써서 자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근신하고 근신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공께서 후손들에게 너그럽게 한 모든 것들이다。 또 말하기를 부인 김씨는 시부모님 섬기기에 지극한 효성으로 하여 부인의 덕행이 우리 가문에서는 저명하였으며 일가 친척들이 딸 시집보내고 며느리 얻는데 모두 부인을 모범으로 삼았으며 공이 병들자 눈물을 계속 흘려 울다가 마침내 살리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공과 더불어 같은 해 같은 달 공보다 10일 앞서 죽어 공과 더불어 같은 해 같은 달에 공보다 5일 먼저 장례하여 공과 더불어 같은 날에 한 무덤이 되었으니 이것이 부인의 효도와 정열의 모든 것들이다。 아 공과 부인의 사적과 언행이 후세에 전래하는 것들이 이런 몇가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중지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충성 효도 정렬 네가지 아름다움이 나타나 사람들의 귀와 눈에 비친다。 그러나 작은 비석이라서 비문 기록시에 빠져있고 또 청백한 덕행과 아름다운 모범을 지석에 새겨두지 아니하면 장차 자취없이 사라짐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자손들이 통한하지 아니할소냐? 부군의 성은 윤씨요 휘는 이이며 자는 신수이니 칠원후인이다。 신라시대 태자태사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 있다。 증조 휘는 사이니 생원에 합격하고 증형조참의이다。 할아버지 휘는 석보이니 직제학 벼슬을 하고 성종시대 염근리로 선록되었으며 연산군 시대에 직간을 하였다가 귀양지에서 죽었으며 중종이 왕위에 올라 몇번 추증을 받아 이조참판까지 이르렀다。 아버지 휘는 문형이니 내섬시판관을 역임하고 증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이니 판관인 언륜의 딸이다。 부군은 연산군 임신년 12월23일에 출생하여 선조대왕 병자년 8월28일에 졸하였으며 배위는 김씨이니 안동 명문의 생원인 윤선의 딸로 임신년에 태어나 병자년에 졸하니 두 분들은 다같이 65세이었으며 광주군 남이보 고개 아래 대원동 건좌향에 장례하였다。 아들 삼형제 딸 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탁연은 호조판서를 역임하고 광국공신에 기록되고 칠계군에

봉해지고 헌민공 시호를 받았다。 차자 수연은 광주 목사를 역임하고 광국원종공신으로 참판을 추증받았다。 차자 호연은 현령을 역임하고 좌승지를 추증받았다。 장녀는 선비 심수신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병사 이용에게 시집갔다。 헌민공의 아들인 경원은 서윤 벼슬시에 삭녕에서 순국하여 이조판서를 추증받고 충장공 시호를 받았으며 표절사에서 제향을 올린다。 길원은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벼슬을 하였다。 희원은 사용 벼슬을 하였는데 시문으로 저명하였으며 상원은 사과 벼슬을 하여 참의를 추증받고 영원은 충의위 벼슬을 하였다。 참판의 아들인 복원은 통정대부로 군수를 하였으며 아호는 석호이니 문장과 절개가 뛰어났다。 익원은 서윤 벼슬을 하였으며 덕행과 문학으로 두 차례 남대에 등용되었다。 승지의 아들 충원과 길원은 군수를 하였고 준원은 진사이다。 증손자 이하는 많아서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 문과에 오른 사람중에 정랑 벼슬을 역임한 안기와 좌랑 벼슬을 한 홍적은 장자의 후손들이다。 장령 지원과 보덕 지태는 차자의 후손이다。 창의는 문장가도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감히 그 만분지 일이라도 밝힐수 있을까 하여 삼가 집안 문헌중에 기재된 것을 빌려 지어놓고 후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기다리는 바이다。

10대손 창의는 삼가 지음

⑦ 贈領議政公墓誌銘(諱 伊) 代言公后 麗州

公諱伊字幸叟燕山壬申十二月二十三日生官通訓大夫司醞署令 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觀象監事 世子師龜原府院君(以子卓然光國勳贈) 宣祖丙子八月二十八日卒墓京畿道廣州府南細村大院乾坐合窆有床石石人表石

墓誌文

此我十世祖考 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觀象監事 世子師龜原府院君行通訓大夫司醞署令府君妣 贈貞敬夫人安東金氏之藏也嗚呼年代寖遠家乘散佚府君之仕歷言行今未可攷得而第於譜牒編末畧載遺事曰公自少篤學屢擧不中晩從蔭仕歷司憲府監察司醞署令金化牛峯二邑長子卓然己卯嘉善 贈吏參癸未資憲 贈吏判庚寅策光國勳 贈純忠補祚左贊成龜原君壬辰又參平亂原從一等加 贈領議政府院君此公仕歷 貤贈之終始也有曰公誠孝根天宰金化時母夫人患店危劇幾至不救聞烏訥魚爲良藥冬月泣釣一進卽瘳此公事親之終始也有曰事亾如事存每當喪餘殫誠拮据助需宗家雖遠代亦如之不以次房未嘗敢或懈此公奉先之終始也有曰身在閑司末官理事不倦公會未嘗以私故不赴見朝報國有盛德則欣欣焉如有所得

或有闕失則戚戚焉憂形於色以至忘寢廢飧州縣　殿牌望闕
禮畢後奉安無常所公達於輪對請客舍北壁造龕以安之卽蒙
　允許諸邑至今遵行此公事君之終始也有曰公臨歿時以持
身廉謹務從簡畧八字書戒子孫曰愼旃愼旃此公裕後之終始
也有曰夫人金氏事舅姑至孝婦德著於一門內外宗黨嫁女娶
婦咸以夫人爲矜式及公病厚涕泣不絶仍至不救生與公同年
月而先公十日歿與公同年月而先公五日葬與公同日同壙此
夫人孝烈之終始也噫公及夫人事蹟言行之傳於後者不過此
段者而止猶見其忠孝貞烈四美并休照人耳目而短表尙闕陰
記隨道又無誌刻淸德懿範將至泯沒豈不爲子孫之痛恨也哉
府君姓尹氏諱伊字莘叟漆原人以新羅太子太師諱始榮爲上
祖曾祖諱思生員　贈刑曹參議祖諱碩輔直提學　成廟朝選
廉謹吏燕山朝爲直節臣卒于謫　中廟改玉屢贈至吏曹參判
考諱文亨內贍判官　贈吏曹判書妣淸州韓氏判官彦倫女府
君以燕山壬申十二月二十三日生　宣廟丙子八月二十八日
卒配金氏安東望族生員胤先女生以壬申卒以丙子享年俱六
十五葬于廣州府南利甫峴下大院負乾之原擧三男二女男長
卓然戶曹判書光國功臣漆溪君諡憲敏次粹然廣州牧使以光
國原從　贈參判次浩然縣令　贈左承旨女長適士人沈守愼
次適兵使李戲憲敏男慶元庶尹殉節朔寧　贈吏判諡忠莊享
表節祠吉元文科檢閱喜元司勇以詩鳴祥元司果　贈參議榮
元忠義尉參判男復元通政郡守號石湖以文章氣節著於世益
元庶尹以行誼文學再擬南臺承旨男忠元起元郡守俊元進士
曾女以下多不能盡錄而其登文譜者正郎安基佐郞興績長房
后也掌令志遠輔德志泰次房后也昌誼以不肖不文顧何敢闡
揚其萬一而謹次家牒中所載者以俟夫後之君子

十代孫　昌誼　謹撰

◇

⑧ 학생공 묘지명(휘 효달)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효달이요 자는 사관이며 성은 윤씨이니 관적은 칠원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벼슬을 하였다。 중조의 휘는 송제이니 고려시대에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이었으며 4대를 전래하여 휘 환이 있으니 문하시중에 오르고 칠원백에 봉작되고 충효공으로 시호를 추증 받았는데 이 분은 공의 14대 할아버지가 된다。 고조의 휘는 담이니 선무랑이었으며 증조의 휘는 중삼이며 할아버지의 휘는 덕기이니 절충장군이었으며 아버지의 휘는 이주이고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니 사과 벼슬을 한 원립의 딸이다。

공은 숙종 기축년(１７０９년)에 5월3일 출생하였다。 나서부터 영리하여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한 효도로 하였고 집안 다스림을 법으로 하였으며 능히 아름다움을 실천하여 마을에서 칭찬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영조 갑술년(１７５４년) 어머니 초상을 당하여 예의로 받들었으며 이 날부터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 살았는데 다

음해인 을해년 10월25일 마침내 여막에서 운명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산소 밑에 장례하였는데 바로 공이 시묘하던 곳이다。 지금도 청양군 목면 신흥리 구수동 마을 뒷편 서남서향(갑좌) 묘소에서 바로 공이 평생토록 어버이를 사모하던 심정을 또한 볼 수 있다。 배는 전주이씨 지임의 딸이니 숙종 갑오년(1714년) 2월8일 출생하여 영조 을해년(1755년) 11월18일 졸하였다。 묘소는 건위의 좌측에 합장하여 모셨다。 1남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재적이고 딸은 평산 신하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영원、영임、영구이며 증손과 고손들 이하는 번다하여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아 재정이 계속 부족하여 그의 묘소에 오래도록 비석이 없었는데 아마도 더욱 오래되면 아름다운 행적을 증거할 수 없기에 돌을 다듬어 대략 기술하여 비문으로 삼아 묘소를 표시하였다。

서기 1976년 병진봄에

8대손 홍수는 삼가 기록하다

⑧ 學生公墓誌銘(諱 孝達) 忠孝公后 青陽

公諱孝達 字士寬 姓尹氏 貫漆原 鼻祖諱始榮 新羅太子太師 中祖諱松禪 高麗銀青光祿大夫僉知政事 四傳有諱桓 門下侍中漆原伯 謚忠孝 是公之十四世祖也 高祖諱湛 宣務郎 曾祖諱重三 祖諱德基 折衝將軍 考諱頤柱 妣慶州李氏 司果元立女 公以肅廟己丑五月三日生 生而穎悟 事親至孝 齊家以法 克趾先美 鄕黨稱之不已 英廟甲戌 奄遭內艱 以禮襄奉 自是日 廬於墓側 翌年乙亥十月廿五日 竟卒廬所 從其遺言 繼葬于妣兆下 即公之侍墓處也 于今 青陽郡木面新興里九水洞村後甲坐之原 寔公之終身慕親之情 亦可見矣 配 全州李氏之林女 肅廟甲午二月八日生 英廟乙亥十一月十八日卒 墓乾位 附左合封焉 有一男一女 男載績 女適平山申柾 孫男永源 永任 永龜 曾玄以下 繁不殫記 嗚呼 財力綿薄 其於墓所 久闕儀物 恐其愈久而無徵卓蹟 故 伐石而略誌 以銘表阡(公之事蹟詩 載定山誌)

檀紀四三〇九年丙辰春

八代孫 弘洙 謹識

◇

⑨ 직암공 묘지명(휘 사국) 대언공후 장단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사국이며 자는 빈경이니 칠원인이다。 늙어서는 삼산퇴로라고 불렸다。 아버지의 휘는 경종이니 진사에 합격하고 찬성을 추서받았다。 어머니는 증정경부인 임천 조씨이니 부사 벼슬을 한 휘 현기의 딸이다。 할아버지의 휘는 지화이니 정언을 역임하였고 이조판서를 추증받았으며 증조의 휘는 서적이니 정랑을 역임하였고 이조판서를 추증받았다。 낳아주신 아

버지는 휘 경룡이니 관찰사이었으며 생모는 정부인 영일 정씨이니 참봉인 휘 찬헌의 딸이다。 생가 할아버지의 휘는 지순이니 진사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을 추증받았으니 바로 정언공의 아우이다。

공은 영조 무신년(1728년) 8월19일 출생하여 기묘년(175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년에(1772년) 통정대부로 승진하였으며 정조 임인년(1782년)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기유년에(1790년) 가의대부가 되었고 임자년에(1792년) 자헌대부가 되었으며 을묘년에(1795년) 정헌대부가 되었으며 정사년에(1797년) 기로소로 들어갔고 무오년에(1798년) 숭정대부가 되었으며 순조 정묘년(1807년)는 숭록대부가 되었다。 그간 역임한 관직은 한림원 춘방과 양호감운 영남지방 안렴、옥당동벽、강동현감、승지、병조참의、참지、곡산부사、대사간、안동현감、동래부사、병조、호조、형조참판과 대사헌대사성、도승지、좌우윤、의주부윤、강원도감사、 형조 공조판서、 강화유수、 판윤、지중추、 좌참찬、 판의금과 판돈녕 등을 하였다。 기사년(1809년) 3월29일 삼산리 사저에서 임종하니 향수가 82세이다。 부음 소식을 듣고 조회를 철회하고 조문과 부의를 상례대로 하였다。 같은 해인 5월중에 장단서도 오관산중리의 관찰사공 묘소 우측 북북서향(사좌)에 장례하였다。 배위는 정경부인 해주 최씨이니 군수인 휘 준홍의 딸이다。 공보다 먼저 졸하여 공의 묘소와 같은 산등이나 다른 곳 북북동향(정좌)에 장례를 하였다。 아들인 재급은 첨정이었고 재희는 부사이었으며 서자는 재오이고 서녀는 이면집에게 시집갔다。 공의 정치 행적은 시작에서 끝까지 당연히 비갈에 있기에 대략 세계와 출생과 사망과 관직의 경력등을 새기어 광중의 곁에 묻었다。

숭정기원후 네번째 갑신년(1824년) 2월 일

아들 재급은 삼가 기록하다

⑨ **直庵公大字誌銘(諱 師國)** 代言公后 長湍

公姓 尹 諱 師國 字 賓卿 漆原人 晩稱三山退老 考諱 敬宗 進士 贈贊成 妣 贈貞敬夫人林川趙氏 府使諱顯期女 祖諱 志和 正言 贈吏判 曾祖諱 叙績 正郞 贈吏判 本生考諱 敬龍 觀察使 妣 貞夫人迎日鄭氏 叅奉諱纉憲女 祖諱 志淳 進士 贈吏叅 寔正言公弟也 公 以英宗戊申八月十九日 生 己卯 文科 壬辰 陞通政 正宗壬寅 嘉善 己酉 嘉義 壬子 資憲 乙卯 正憲 丁巳 耆社 戊午 崇政 純宗丁卯 崇祿 歷官 翰苑春坊 兩湖監運 嶺南按廉 玉堂東壁 江東縣監 承旨 兵曹叅議 叅知 谷山府使 大司諫 安東縣監 東萊府使 兵戶 刑曹叅判 大司憲大司成 都承旨左右尹 義州府尹 原春道監司 工 刑曹判書 江華留守 判尹知中樞左叅贊 判義禁 判敦寧 己巳三月廿九日 考終于三

山丙舍 壽八十二 計聞 輟朝 吊祭賻如例 同年五月 葬長湍西道五冠山中里 觀察公墓右負巳原 配 貞敬夫人海州崔氏 郡守諱駿興 女 先公卒 葬在公墓同岡 異原丁坐 子載伋 僉正 載信 府使 庶子載俁 庶女 李勉緝 公 行治本末當在碑誌 略叙世系生卒官歷 刻埋壙側

崇禎紀元後四甲申二月 日

男 載伋 謹識

◇

⑩ 학생공 묘지명(휘 순의) 대언공후 서울

내가 근래에 젊은 사람들을 보았더니 지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 가끔씩 자신이 분발하여 하는 것은 대개가 과거시험 공부에 힘을 써서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는 것만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기에 마음속으로 일찌기 깊이 개탄하고 있었다. 이 때에 윤후배인 치언이 (휘 복의) 소매에서 자신의 죽은 사촌동생 치서에 대한 행장문이라며 나에게 보이고 묘지명을 요구하여 그 행장문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비로소 지금 세상에도 역시 지조와 덕행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뜻을 펴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어찌 세운이 쇠박하다하여 성취하고자 아니한 사람이겠느냐? 치서의 이름은 순의이니 칠원후인이다. 그의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에 태사 벼슬을 하였다. 정언공의 휘는 지화이니 이조판서를 추증 받았으며 진사공의 휘는 경종이니 찬성을 추증 받았는데 그들은 고조와 증조가 된다. 원임판돈녕 사국과 군수 재급은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이며 어머니는 완산 이씨이니 군수인 창증의 딸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자질이 아름답고 놀이는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성장하여는 학문을 더욱 부지런히 하면서도 남들이 앞 다투어 과거 시험을 일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사양하고 과거장에는 나가고자 아니하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의지를 굽히고 공사에 종사도 하였다. 일찌기 관복 제도를 판명하고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학책 읽기를 요구하며 누워서 들었다. 그가 뜻하였던 바가 어찌 원대하지 아니할소냐? 어린시절에 몰래 술을 마시었는데 할아버지가 꾸짖자 공은 술을 끊고 다시는 술잔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다. 새로 시집오는 부인의 친정집 사람들이 찬치를 오래하여 공을 즐겁게 하거늘 공이 말하기를 예법에 삼일간 음악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또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일찌기 아버지에게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받으면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면 겨울 밤에도 밖에 서서 아침까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독실히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면 능히 이와같이 할 수 있으랴?

잘한 일이 있는데 선양하지 아니하면 벗들의 허물이

라는데 내 비록 그대의 벗은 아니나 그대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하고 알게된지 몇년인데 그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어서 또 비문 짓는 것을 사양한다면 이는 나의 불민이 거듭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글을 되돌아 보니 어찌 족히 그대를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랴? 그대는 무술년(1778년) 12월 27일 출생하여 정사년(1797년) 9월29일 죽어 그 해 10월9일 양주 삼산동 북동향(곤좌)에 장사하니 나이가 겨우 20세이다. 부사 벼슬을 한 온양 정창기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자손이 없었다. 하늘이 어찌하여 그대에게 아름다움을 주고도 이렇게 혹독하게 요절을 시켰단 말이냐? 명문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지초와 난초같은 귀중한 나무여 이미 나의 정원 가까이 심었었다네 싹터서 꽃망울 맺히었으나 말라서 떨어졌으니 당초에 나오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내 문장을 돌에다 새기는 것은 몹시 부끄러우니 어찌 오래오래 향기를 전파할 수 있으랴!

숭정기원후2갑정사년(1797년) 10월 일

연기현감 임면호는 지음

⑩ **學生公墓誌銘(諱 循義)** 代言公后 楊州

余看近世年少人 鮮能有志行 往往 自奮發有爲 率用力於程文 取科宦以自足 心嘗竊嘅 於是 尹生穉言(諱 復誼)

袖其所自謂亡從弟穉序(公)狀 示余 求爲誌其墓 取審其狀始知斯世 亦有有志行之人 無年而不能遂 豈世運 衰薄 不欲成就人耶 穉序 名 循義 漆原人 上祖 諱 始榮 新羅太師 正言公 諱 志和 贈吏判 進士公 諱 敬宗 贈賛成 其高曾也 原任判敎寧師國 郡守載伋 其大父 父也 母 完山李氏 郡守昌中之女 君 幼而質美 不好嬉戲 長而學益孜孜耻人之奔競事科宦 欲謝不赴擧 爲大父 父俱在 屈意治公令業 嘗辨明深衣制 病垂死 尙要人讀小學而臥聽之 其爲志豈不遠乎 幼時 竊飮酒 王父 訶之君 絕口 不復近盃酌新娶婦 婦家張音樂 以娛君 君 辭曰禮 三日不擧樂 且吾不好樂 嘗被父譴退 不命之入 冬夜 立於外 至朝不去 非篤於行 能如是乎 有善不揚 朋友之過也 吾雖非君之友 辱知於君之父 叔父 有年 君存而未及知其善 歿又辭爲之文是 重吾不敏也 然 顧吾文 何足以不朽君哉 君 以戊戌十二月二十七日 生 歿於丁巳九月二十九日 用其年十月九日葬于楊州三山洞坤坐之原 年僅二十 娶府使温陽鄭昌期女無育 天何賦君之粹而夭折之斯酷歟 遂爲之銘 曰猗嗟芝蘭兮玉樹 夫旣近植我階庭 維其芽茁蓓蕾而凋隕 孰如厥初之無生 我辭多恧於鑱石 焉足壽爾而播馨

崇禎紀元後二甲丁巳十月 日

燕岐縣監 林沔浩 撰

(5) 제단비

① 선세묘 단비문(검단구비)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사공 휘 시영으로 시조를 삼고 있으니 그의 묘소는 칠원 상포에 있다。 그의 후손인 태사국판사공 휘 황과 고려시대 보윤공 휘 거부와 은청광록대부참정공 휘 송제와 그의 배위인 여산 송씨와 그의 손자인 군부판서공 휘 수까지 대략 5위 묘소는 다같이 검단 지곡 서향(묘좌) 기슭에 있다고 족보와 가승에 전해오고 있으나 그 위치의 순서에 위와 아래가 상세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병란이 지나고 또 지석이나 비석의 증거도 없다。 현재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높은 분을 위에 봉분하고 인하여 순서대로 계승하여 부장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다른 집안들의 아주 옛날의 묘소들을 살펴보았더니 비슷하게 서로 엇갈려 섞여 있었다。 그래서 세대의 순서대로 장례하였다고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또 감히 생각대로 급히 확정지을 수는 없다。 그 묘소에 제사 올리고 축문 읽는 절차에 의심들어서 시행하기 곤란한게 있으니 의심가는바를 행사할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옛 법에 의거하지말고 묘소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허리 굽히고 서서 묘소 입구로 나가 땅을 정리하여 단을 만들어 제사 때에 세계의 순서대로 차례를 삼으면 허물이 적게 될 것이다。 인하여 여러 종인들과 널리 상의하였더니 다른 말이 없었다。 마침내 비석을 깎아 단상에 세워 그 개요만 비석 뒷편에 새겨 앞과같이 말하였노라 아 슬프도다。

숭정기원후 계묘년(1903) 2월 일

후손 영신은 감히 비문을 짓고

후손 칠원군수 영직은 삼가 쓰다

(5) 祭壇碑

① 先世墓壇碑文(檢丹舊碑)

我漆原之尹 以新羅太師公諱始榮 爲肇祖 墓在漆原上浦 其後判太史局事公諱璜 高麗甫尹公諱鉅富 銀靑光祿大夫參政公諱松磾 其配礪山宋氏 及其孫軍簿判書公諱秀凡五位墓所 俱在檢丹池谷卯坐之坡而譜乘所傳 不詳其位次上下 累經燹劫 又無誌碑可徵 以今例之意 最尊之爲上封而仍以次繼祔 然歷觀人家玄古之藏 類多參錯而不以世序者 則玆又不敢以意而遽質也 其於奠獻祝號之節 有難冒疑而徑行者 無寧依古者望墓而式 就塋門 除地爲壇 祭以世序之爲次 寡過也 乃博謀于諸宗而無異辭矣 則遂伐石 以表于壇上 識其槩於陰 如右云 嗚呼

崇禎紀元後五癸卯二月 日

后孫 永臣 敢誌

后孫 行漆原郡守 永稷 謹書

② 선세 단향비문(검단신비)

아 우리 칠원윤씨 일족은 태사공을 시조로 모시고 문덕이 번창하고 무공이 빛나 대대로 전승하여 높히 드러나 있다。그 후로 몇몇 대는 실전도 되고 문헌 책에도 빠져 있었다。그러나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군으로 책봉되고 시호를 추중받은 분이 가득하며 명성이 중국까지 전파되었으니 왕성한 동방의 명망있는 종족이 되었다。고려 5백년동안 충신과 효자와 과거에 급제한 사람중 5인은 재상이 되고 7인은 군에 봉해졌으며 문관과 무장이 대대로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많은 후손들중 크게 성공한 사람이 37인이고 소성한 사람이 110인이며 그리고 120인은 무과에 급제하고 71인은 문관이 되어 한갓 당시의 선망만이 아니고 가히 후세에 흠모의 대상이 되니 비유하자면 산 중에는 오악이 으뜸이고 물은 사해가 근원이 되는 것 같이 그 깊은 근원과 원대한 맥은 모두 산수의 정기에서 나오니 곧 그 정정한 묘소들이 높고 밝게 엄연히 있었기 때문이다。몇차례 병란이 지나 묘소와 비갈까지 훼손되어 묘소의 순서가 분명하지 못하였다。그런고로 예전에 족숙되는 영신씨가 칠원군수로 부임한 영직씨와 더불어 여러 일가들에게 건의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재물을 모아 비석도 세우고 단도 만들어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게 되었으나 오직 우리 선조할머니 문화 류씨와 대언공의 묘위는 실종이 없어 매번 한탄하였다。그 지극한 한탄이 그치지 아니하여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분발하고 힘을 다할때에 족형되는 보근씨가 종유사를 맡아 일가들과 돈독히 상의하여 우선 상포와 검단 두 곳에 재사를 짓고 이어서 문화 류씨와 대언공을 설단하여 제향을 올릴수 있게 되었다。슬프도다 나같이 불초한 사람이 작은 정성과 미약한 힘으로 단독으로 비석을 세워 조상에게 제사 올리는 장소에서 삼가 사모하며 영원토록 끝없이 향화를 경건하게 받들고져 하오니 소원컨대 후세의 자손들은 이러한 뜻을 공경스런 마음으로 펴고 정성을 더하여 지체시키지 말고 선인들의 아름다움을 이어 주면 다행이다。

대한건국41년(1959) 기해 2월 일

후손 성학은 삼가 기록하다

② 先世壇享碑文(檢丹新碑)

嗚呼 惟我尹氏族 以 太師公 爲始而文昌武爀 連世顯隆 其後數代失傳 文獻 有闕 然 盛於羅麗封君贈諡 名傳于中華 蔚然爲東土之望族而逮于前朝 五百年間 忠孝科甲 五相七君 文司武蔭 世世綿綿 雲仍後裔 大闡 三十七 小成百十而一百二十之虎榜七十一之鶴背非徒當日之瞻顧可作後世之欽慕則 譬如山宗五岳 水源四海 其深源遠脉 皆在

於山水精神則正正幽宅 昭昭儼然 屢經兵革 表碣 毁頹 位序不明故 在昔 族叔永臣氏 與郡守永稷氏任本官時 建議諸族 同心鳩財 立碑成壇 以行春雨秋霜之奠香而每恨惟我先祖妣文化柳氏 及代言公墓位無徵 至恨不已 與諸族 奮心竭力 族兄甫根氏 任宗司 以敦其議 先塋上浦檢丹兩先齋 繼成柳氏與代言公幷設壇享 嗟余不肖 以淺誠微力 獨修貞珉 謹慕追遠之位次 虔奉永世無窮之香火 第願來後雲孫 敬伸厥志 引祗勿替 以匡先徽 是大幸也

大韓四十一年己亥二月 日

後孫 晟學 謹誌

◇

③ 선세 단향비문

유동

삼가 살펴보니 칠원골 유동은 우리 윤씨 선대 할아버지이시며 시호가 충효인 휘 환께서 태어나 사시던 곳이다。공께서는 고려시대에 장엄한 지조로 다섯 왕조에서 차례로 봉사하며 3차례 수상을 역임하셨다。5형제가 군에 봉해지거나 시호를 추증받아 혁혁히 빛났고 둘째 아우로 말하면 대언공 휘 자요 셋째 아우로 말하면 칠성군 휘 장이며 네째 아우로 말하면 사윤공 휘 화요 다섯째 아우로 말하면 부원군 휘 공이니 형제들 5인이 재상급이었고 또 종질에 대제학공 휘 수상이 있어 같은 조정에서 급제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다。분명하고 엄연하게 사실이 이와 같은데 항차 역사책에서만 칭송할소냐! 슬프도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며 여러차례 병란이 지나 묘소들까지 실전되었으나 그래도 다행히 충효공 묘소가 보존되어 매년마다 제향을 올릴 때면 모인 후손에게 어찌 통탄의 정이 없을소냐? 그 감동과 상심의 한탄이 하늘까지 닿았다。이래서 경진년(1940)에 대언공의 제단을 검단 선영하에 추가로 설단하였다。경자년(1960년)에 다섯파 후손들이 족보를 편찬하고 남은 재력으로 종회에서 합의한대로 실전된 묘소들은 고증할 실증이 없고 또 추측할 근거의 사적도 없어서 충효공 묘하에 단을 설치하고 비석을 세워 세일제를 봉행하니 예법에 잘못된바가 없었다。대저 신위에 제향은 오로지 자손의 성의에 있는 것이다。그런고로 예법에 이르기를 정성이 있으면 신령이 있는 것이며 정성이 없으면 신령도 없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논리로 사당 신주의 제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산천에서 단향의 제사를 올릴때에야 어떻겠는가? 소원컨데 후손들은 각자 경건하게 신이 계신것 같은 정성을 드리면 밝으신 신령이 어찌 감동하여 흠향하고 영원토록 묵묵히 도와주지 아니할소냐? 이제 감히 짧은 글을 서술하여 만세토록 끝없는 추모의 마음을 이을 뿐이다。

서기 1959년 계유 10월 일

후손들은 공동으로 삼가 세우다

③ 先世壇享碑文

柳洞

謹按漆原之柳原 惟我尹氏先祖考 諡忠孝公諱桓 誕降棲息之地也 公 壯節麗朝 歷事五朝 三拜首相 有五昆季封君贈諡之㛊而弟曰代言公諱櫶 三弟曰漆城君諱樟 四弟曰司尹公諱樺 五弟曰府院君諱椊 昆季五相 又有從姪大提學公諱守常 同朝入第 世有罕事 昭昭儼然 如在如斯 况兮以史竹稱之乎 嗟呼 千有星霜 累經兵劫 蕩失塋域 猶幸得傳忠孝公墓位則每追慕之際 分合裔孫 豈無慟歎之情乎 憾傷之恨旻天昭回 肆以庚辰 大言公則曾以追奉壇享于檢丹先塋下矣 歲之庚子 五房雲仍 以修譜餘力 聚宗合議曰失傳墓位既無可攷之實 又無追據之蹟則忠孝公墓下 設壇竪碑 追行一祭 於禮 無甚悖理 盖神道之享 只在於子孫之誠 故禮云有其誠則有其神 無其誠則無其神 以此論之 廟堂神主之祭 猶然 况原野壇享之祭乎 惟願雲仍 各虔如在之誠則昭昭精靈 豈無感享而默佑于永世者哉 玆敢略叙短編 以承萬世無窮不忘之意云爾

檀紀四二九六年癸卯十月 日

後孫一同 謹竪

◇

④ 선세조 제단비문

부원군후 보성

공의 휘는 세안이니 21세조요 성은 윤씨요 관적은 칠원이며 관직은 정순대부군기시사예문시교판관이다。 시조 휘는 시영이니 신라 태자태사고명원로이다。 중시조 휘는 거부이니 고려 호장보윤이며 칠제백에 봉작 되었다。 증조 휘는 길보이니 수성직량공신삼중대광첨의찬성사상의회의도감사요 구성군에 책봉되고 시호는 충의이다。 조고 휘는 공이니 칠성부원군이다。 아버지 휘는 자다。 태종조에서 문과에 합격하고 홍문관 대제학 한량이니 성부판윤을 역임하고 칠제백에 봉해지고 시호는 충간이다。 사자 휘는 보이니 조열대부지 울주부사이다。 사손 휘는 봉이니 가선대부동지춘추관사이다。 사증손 휘는 중경이니 사직이다。 이 공이 처음으로 장흥에서 살았으며 아들 5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휘는 한종이니 사직이요 차자 휘는 한원이니 주부요 삼자 휘는 한경이니 어모장군용양위부호군이요 사자 휘는 한신이니 사직이요 오자 휘는 한보이니 창신교위이다。 우측에 기록된 5형제 자손들이 보성、순천、고흥、경기、서울、거제까지 흩어져 살며 융성하게 발전하여 지금은 수백호에 이르고 있다。 비통하도다。태종시대 박포의 난과 몇차례 전쟁을 지나면서 선조들의 문헌과 업적이 전수되지 아니하고 배위 조비도 실전되어 세시 제사도 올리지 못한지 매우 오래되었다。 때늦은 한탄이 들지만 지금에 와서 자손들이 모여 재물을 모아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광탄 선영산하에 삼가 제단비를 세우고 세일제를 올리오니 차

후로 여러 자손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정성껏 제단을 성소할지어다。옛말에 이르기를 그 정성이 있으면 그 귀신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귀신도 없다고 하였으니 종족간에 돈독히 화목하여 영원토록 계승하여 제단 지키는 것을 잊지 아니할지어다。

서기1999년 월 일 부원군 후손 일동은 설단하고

양성당 14대손 형남은 삼가 짓고 쓰다

④ 漆原尹氏先世祖祭壇碑文 府院君后 寶城

公 諱 世安二十世祖 姓 尹氏 貫籍 漆原 官職 正順大夫軍器寺事芸文寺教判官 鼻祖諱 始榮 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 中始祖諱 鉅富 高麗戶長甫尹 漆隄伯 封爵 曾祖諱 吉甫 輸誠直亮功臣三重大匡僉議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 龜誠君策封 諡號 忠義 追贈 祖考諱 椌 漆城府院君 考諱 子良 太宗朝文科弘文館大提學漢城府判尹 封漆隄伯 諡號 忠簡 嗣子諱 保 朝列大夫知 蔚州府事 嗣孫諱 奉 嘉善大夫同知春秋館事 嗣曾孫諱 仲卿 司直 公 始居長興 有五房男 長子諱 漢從 司直 次子諱 漢元 主簿 三子諱 漢冏 禦侮將軍龍驤衛副護軍 四子諱 漢臣 司直 五子諱 漢甫 彰信校尉 右記五房子孫 散居寶城順天高興京畿서울巨濟 隆盛發展 於今數百戶 達 悲痛 太宗朝 朴苞之亂 累經兵火 先世祖 文獻行跡 未傳 配祖妣失傳 未奉歲時享祀 維久 晩時之嘆 至今子孫 糾合鳩財之金 全南寶城郡蘆洞面廣灘先塋山下 謹立祭壇碑 興奠歲一祀 自此以后 諸子孫益心竭力 省掃誠勤祭壇 古言云有其誠 有其神 無其誠 無其神也 敦睦宗族 以承永世 不忘守壇

西紀 一九九九年 月 府院君后孫 一同 立碑設壇

養性堂 十四代孫 衡南 謹識書

◇

⑤ 생원공 제단적비문(휘 신생) 충효공후 공주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종안동의 서쪽 언덕에 정돈되고 엄숙한 제사 올리는 단이 있으니 바로 조선시대 성균관 생원인 칠원윤공 휘 신생과 그의 배위인 의인 동래 정씨의 묘소를 잃어버려 지난 서기1937년 정축년에 최초로 설단한 곳이다。금년에는 그 규모의 위상이 매우 간략하고 왜소하므로 이를 안타깝게 여겨 다시 건립하였다。이 곳은 생원공께서 경상남도 칠원으로부터 이 마을로 이사하여 기거하시며 학문과 덕행을 닦았다고 전해온다。그리고 이 제단 우측편에 있는 첫번째 제단은 생원공의 아들이신 진사공 휘 제의 제단이고 두번째 묘소는 생원공의 손자인 사정공 휘 성계의 묘소이다。

생원공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시다。시조공 이후에 문관과 무장의 높은 관리들이 대대로 계승되고 공로와 덕망이 역사에 빛나는 우리

나라의 귀족이다。 고조는 고려시대에 군부판서 벼슬을 하신 휘 수요 증조는 찬성사 벼슬을 하고 구성군에 책봉되고 충의공 시호를 받은 휘 길보요 조고는 벼슬이 세차례 수상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책봉되고 충효공 시호를 받은 휘 환이요 아버지는 보문각대제학 벼슬을 하신 휘 천효이시다。 모두 칠원의 명문거족으로 선대의 고향에서 대대로 살며 대대로 장례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자손들이 팔도에 헤어져 살게 되었다。 생원공과 그 배위의 묘소는 이곳 덕지리 종안이라고 구족보에 상세히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대와 여러번 병란을 지냈으므로 인하여 실전한지 4백여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1937년 정축년에 생원공의 후손들이 봄철과 가을철에 올리는 제사를 오랜동안 못올려 마음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이 있어서 심히 송구하게 여기던 차에 이곳에 처음 제단을 세워 대대로 전하여 오던 오랜 한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다。 해마다 시제를 올림으로 만세의 제사례와 백대의 친족간의 정을 나누는 장을 이룬지 올해로 58년이 되었다。 생원공의 아들은 휘 제이니 진사에 급제하고 손자는 휘 성계이니 사정 벼슬을 하였고 증손은 휘 보상이니 동부승지 벼슬을 하였다。 현손자대부터 번창하여 충청도 지방에 여기저기 살았으니 맹산 현감공이신 휘 자균의 후손들은 은진과 논산이요 진도 군수공이신 휘 자당의 후손들은 노성과 정산과 석성이요 성균관 진사공이신 휘 자곤의 후손들은 용안과 익산이니 이 선조들은 그 지역의 파조가 되신다。 이후로 자손들이 높은 벼슬도 하고 가문이 번창하였으니 가히 음덕을 쌓은 보답이 후손에게 반드시 전승된 것이라 하겠다。 생원공의 차자는 휘 유를 휘 달로 개명하시고 성균관 진사에 급제하였으며 조선 초기에 거제도 섬마을로 들어가 사림과 백성을 교화하고 섬지방 풍속을 개혁하는데 힘을 다하고 졸하였으며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 거제도의 대성씨이며 우리 윤씨중에서도 번성한 일가이다。 진사공의 아들은 처사 휘 계동이요 손자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벼슬을 하였으며 휘는 손이다。 증손은 청송부사를 역임한 휘 말형이며 이후로 크게 번창하였다。 고손인 휘 승보와 휘 개보와 오대손인 휘 영상과 휘 홍량은 임진왜란시에 의병을 일으키어 선무원종공신에 선록되었으며 거제도 충훈사에 배향되었다。 이 제단의 준공은 선조를 숭배하고 일가간에 화목하는 것과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소문이 높은 노성 출신인 상희씨의 현명한 노력으로 성사가 되었다。 상희씨는 제단 중건 추진위원장으로 선조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 윤씨의 번영을 위하여 그 임원진들과 같이 서울에서 시골까지 각 지방을 순방하여 기부금을 모았으니 이 기부금에 있어서도 많고 적은 것을 불문하고 형편에 맞게 고루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문중의 선조를 위하는 성심과 단합의 정신을 대외적으로도 과시가 되었음을 자부한다。아 먼 후대까지 전승되고 지금 세상에서도 서로 칭찬하는 장엄하고 위대한 이 큰 일은 후손에 표준이 될 궁지를 달성한 것이다。이제 선조의 영령이 흔연히 재림하실 이 제단을 중심으로 두손을 잡고 우러러 공경하니 추모의 정감이 그전보다 배가 될 것이다。앞으로는 이 제단 아래에 후손들이 모여 제향을 경건히 받들고 일가의 정의를 고수하여 선조의 유덕을 계승하고 앞으로의 일을 협의하는 좋은 자리가 됨으로 정성과 근신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각자들 힘써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서기 1994년 갑술년 10월3일

생원공 20대손 홍수는 삼가 짓고

생원공 20대손 평수는 삼가 쓰다

⑤ 生員公祭壇績碑文(諱 神生) 忠孝公后 公州

湖西 公州郡灘川面德芝里宗安洞 西 整然 肅然 祭壇 朝鮮成均生員漆原尹公諱神生 配位宜人東萊鄭氏 墓所 失傳 一九三七年丁丑 創設 今年度 規模 委詳 草略 矮小 憐憫 重建 公 漆原 入鄉 杖履 學德 傳 右端第一位 嗣子 進士公諱濟 壇所 第二位 嗣孫司正公諱成啓 墓所 生員公 上祖 官新羅太子太師 諱始榮 後 文武 衣冠 繼世 功勳 德望 靑史 東邦 華族 高祖 麗代 官軍簿判書 諱秀 曾祖 官贊成事 封龜城君 諡忠義 諱吉甫 祖 官三拜首相 封漆原伯 諡忠孝 諱桓 考 官寶文閣大提學 諱天斅 漆原 名閥 梓鄉 世居世葬 以後子孫 八道 分居 生員公 配位 墓所 本里宗安 舊譜 詳傳 世代 兵亂 因 失傳 四百年 經過 一九三七年丁丑 公 後孫 春露 秋霜 香火 闕 怵惕 悽愴 甚 悚懼 次 創壇 世傳 宿恨 一掃 歲薦一祀 萬世香火 百代 親情 場 今年 五十八年 生員公 嗣子 諱濟 中進士 嗣孫 諱成啓 官司正 曾孫 諱輔商 官同副承旨 玄孫代 繁昌 湖西地方 散處 孟山縣監公諱自均孫 恩津 論山 珍道郡守公諱自塘孫 魯城 定山 石城 成均進士公諱自坤孫 龍安 益山 各位 該地域 派祖 自後 子孫 顯達 門戶 昌盛 可 庇蔭 後孫 必傳 生員公 次子 諱濡 改諱達 成均進士 朝鮮初巨濟 入鄉 士民敎化 海俗革舊 盡力 逝去 子孫 世居 巨濟 大姓 吾尹 繁族 進士公 嗣子 處士諱啓東 嗣孫 武科宣傳官諱遜 曾孫 靑松府使諱抹亨 以後大昌 玄孫諱承輔 諱玠輔 來孫諱榮祥 諱興良 壬亂 倡義 宣武原從功臣 籍錄 巨濟忠勳祠 腏享 本壇 竣工 崇祖睦族 愛親敬長 道理 稱聞 魯城出身相禧甫 賢務 成事 相禧甫 祭壇重建推進委員長 先祖 傳統 吾尹 繁榮 爲 任員陣 京鄉各地 巡訪 捐金 醵出 捐金 多少 不問 應分 參預 誘導 契機 門中 爲先 誠心 團合 精神 對外 誇示 自負 遠代 相傳 今世 共頌 壯嚴 偉大 巨役 來裔 標準 矜持 達成 先祖 英靈 欣然 再臨 壇所 中心 拱手敬仰 追慕 情感 倍前 壇下

子孫 香火 虔奉 親情 固守 先祖 遺德 繼述 來事 協議
勝區 恪謹 守護 各己 懇切

一九九四年甲戌十月三日

生員公 二十代孫 弘洙 謹識

生員公 二十代孫 平洙 謹書

◇

⑥ 선세 단향비문(휘 계동、손、말형) 충효공후 거제

삼가 참고하여 보니 우리 칠원윤씨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휘자 시영이요 그후로 족보에 전해오는 일세는 보윤공 휘자 거부요 18세손이며 파조가 되시는 충효공의 휘자는 환이요 21세 진사공 휘자 달은 왕명을 받고 국민을 교육하는 스승으로 거제도로 들어왔으니 세계의 전승은 이와 같이 되었으며 그리고 22세 휘 계동과 23세 휘 손과 24세 휘 말형 세위의 묘소는 다공 송근말에 있다고 기록이 되었으나 슬프도다 임진병란 이후로 묘소의 위치가 묘연하여져서 지금은 이미 찾을 수 있는 실종이 없다。 매년 세일제시에 자손들이 모였다 흩어지면 어찌 통한의 심정이 없으리오。 이 슬프고 속상한 한을 하늘도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다。 여러 일가들이 말하기를 다공 송근말에 단비를 세워 시제를 올리면 가히 자손의 성심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고로 족숙되는 병재씨와 나의 큰 형님이신 창용씨 이외에 여러 일가들의 협조를 얻고 불초한 제가 얇은 정성과 미약한 힘으로 혼자서 비석을 세워 삼가 영원토록 끝없이 제향을 받들게 되었으니 오직 소원컨대 후대의 자손들이 공경히 제향의 례를 올리면 밝으신 영령께서 어찌 흠향의 감정이 없을소냐? 이에 감히 간단한 글을 서술하여 만세 무궁토록 잊지 아니하는 뜻을 계승하게 하노라。

서기 1980년 경신년 월 일

사과공 16대손 병재는 삼가 짓고

사과공 16대손 병오는 삼가 쓰고

사과공 17대손 경용은 삼가 세우다

⑥ 先世壇享碑文(諱 啓東、遜、抹亨) 忠孝公后 巨濟

謹按我漆原尹氏始祖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後譜傳一世甫尹公諱鉅富十八世孫派祖忠孝公諱桓二十一世進士公諱達承命教民訓士入于巨濟世傳如斯而二十二世諱啓東二十三世諱遜二十四世諱抹亨三位之墓茶貢松斤末所在云嗚呼 壬辰兵亂之後墓位渺然 至今旣無可致之實 每追慕之時分合裔孫 豈無慟歎之情 憾傷之恨 昊天昭回 諸族曰茶貢松斤末 設壇竪碑歲祭之享 可以子孫之誠之故 族叔炳材氏伯兄昶瑢氏外諸族 協助 不肖淺誠微力 獨修貞珉 虔奉永世無窮之香火 惟願 來後雲孫 敬伸祭香禮 昭昭精靈 豈無感享 茲敢畧叙短編 以承萬世無窮不忘之意爾

一九八〇年庚申 月 日
司果公 十六代孫 炳材 謹撰
司果公 十六代孫 炳五 謹書
司果公 十七代孫 慶瑢 謹竪

◇

⑦ 군수공 제단비문(휘 신로) 충효공후 청양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벼슬을 하신 휘 시영께서 처음 윤씨성을 취하여 경상남도 칠원에서 거주하신 이후로 1천여년이 전승되었다. 기세조는 고려시대에 호장보윤 벼슬을 하였으며 휘는 거부이시다. 1세조에서 19세조까지 거의 5백년간을 덕행과 학문과 관직에서 문무수반에 올라 7대조가 군호에 봉해진 작위가 있는 경상도 지방의 현달한 가문이었다. 20세조의 휘는 조생이시며 조선시대 통정대부 장예원 판결사 벼슬을 하였다. 이 판결사공은 원대한 소망과 장대한 계획이 있어 5백여년을 대대로 살아오며 선산이 있는 고향에서 산 좋고 물 좋은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로 이사하시어 학문을 연구하며 은거하시다가 영면하시었으니 바로 충청도로 들어오신 선조이시다. 21세조의 휘는 신로이시며 벼슬은 익산군수이었다. 22세조의 휘는 필이시고 벼슬은 병절교위부사과를 하였으며 배위는 의인 한산 이씨이시다.

선대 할아버지 중에는 혹은 묘소가 보존되어 춘추로 성묘하고 제사를 올리고 혹은 묘비기록문이 없어 산하에 제단을 설치하여 시제를 올리고 혹은 휘와 직함이 족보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묘소를 잃어버려 재사의 정청에 신위패를 봉안하고 시제를 받들고 있으나 유독히 군수공과 부사과공은 묘소가 정산 대박곡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으나 찾지못하고 그간 신위전에 제사를 못올리고 있었다. 이제서야 선조를 추모하여 조상에 보답하는 성심으로 흙을 쌓아 제단을 설치하여 시제를 받들고져 의논을 하니 여러 자손들이 다같이 감동하여 성사가 되었다. 군수공의 아버지는 판결사공이시고 어머니는 숙부인 파주 염씨이시며 계비는 숙부인 해주 정씨이시다. 할아버지 휘는 천효이시며 광록대부보문각 대제학 벼슬을 하였다. 증조의 휘는 환이시고 시호는 충효공이시니 학문이 널리 통달하고 도량이 깊고 높아 다섯 임금 조정에서 벼슬을 하며 세번이나 수상을 역임한 훈구대신이요 흉년이 들어 굶주린 해에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구휼한 덕행가 이시다.

손자 중임은 중훈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 벼슬을 역임하였다. 증손자는 붕과 봉과 관세 사람이니 문과에 급제하여 관리로 녹봉생활을 하였다. 현손인 건이는 임진왜란에 순직하여 무원군으로 추서하여 봉해지고 검은 이몽학 반란에 공로를 세워 청란

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군수공과 부사과공은 위로 고조 증조 조고 아버지와 아래로 아들 손자 증손 고손들이 모두 문관과 무관 서열에 들어 근심이 없었던 분들이었다。그러나 종손과 현손대에 이르러 외적군란을 당하여 국가의 유지와 패망의 위기에 처하자 나라를 구제하는 일념으로 집 앞을 지나며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바쳐 순직하며 국가를 먼저하고 자신은 뒤로 하다가 성묘일에 소홀해져 묘소까지 실전되어 후손들이 천추를 두고 통한하는 것이다。이 여한을 해소하고자 열 자손들이 이마를 맞대고 상의하여 재물을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하니 원근에 사는 여러 일가들이 뜻을 같이 하고 협조하여 비석을 세우는 성대한 일이 한달도 길리지 아니하여 완수하게 되었다。이후로는 영원토록 추모하여 선조에 보답하며 일가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자손만대까지 선조를 숭배하고 일가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정성을 지극히 하고 노력을 다할것이다。아 선조의 영령이시여 여러 자손들의 작은 성의에 감응하시여 영원히 이곳에 의지하여 계시소서。

서기 1995년 3월 일

15대손 전검사 영학은 삼가 짓고

17대 방손 의원은 삼가 쓰다

⑦ 郡守公祭壇碑文(諱 莘老) 忠孝公后 青陽

吾漆原尹氏 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 創姓 嶺南漆原耕鑿 以後千有餘年 傳承 起世祖 高麗朝戶長甫尹 諱 鉅富 一世 十九世祖 近五百年間德行文學官職 東西首班 七代封君爵位 嶺南 華閥 二十世祖 諱 祖生 朝鮮朝通政大夫掌隷院判決事 判決事公 遠志壯圖 半千年世居地 桑梓鄕 山紫水明 忠淸道青陽青南上場里 移居 藏修遊息 永眠即忠淸道入鄕祖 二十一世祖 諱 莘老 官 益山郡守 二十二世祖 諱 弼 官 秉節校尉副司果 配 宜人韓山李氏 先世祖中或 宅兆 保存 春秋 省掃奉香 或 墓儀銘記 山下 設壇 時羞之奠 或 諱名職銜 譜牒 明記 墓位 失傳 齋舍精廳 神位牌 封安 時祭 奉獻 唯獨郡守公 副司果公 墓所定山大朴谷 譜牒 記載 失傳 其間神位前 香火 闕 乃今追遠報本之誠 封土設壇 時祭 奉獻 發議 諸子孫 共感 成事郡守公 考 判決事公 妣 淑夫人坡州廉氏 繼妣 淑夫人海州鄭氏 祖 諱 天敦 光祿大夫寶文閣大提學 曾祖 諱 桓諡 忠孝 見聞 博達 圖量 深遠 五代王朝 奉職 三次首相歷任 勳舊大臣 凶年飢歲 濟世救民 德行家 孫仲任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曾孫 鵬鳳 鶴三人 文科 及第 冠冕祿俸 玄孫 健 壬辰乱 殉國 武原君 追封 儉 李夢鶴亂 樹勲 淸難原從功臣 冊封 郡守公副司果公 高曾祖考 兒孫曾玄 文武班 無憂人 曾玄孫代

外賊亂 當 國家 存亡 危機 處 救國一念 過門不入 亡身 殉國 公先私後 省掃疎忽 墓位 失傳 後孫 千秋痛恨 餘恨 解消 諸子孫 鳩首相論 謀財營事 遠近諸宗 同心協力 不朽盛事 不月內完遂 此後 追遠報本 永慕 花樹友誼 敦篤 子孫萬代崇祖愛宗事 至誠盡力 先世祖尊靈 諸子孫 小誠 感應 永遠 憑依

西紀 一九九五年 三月 日

十五代孫 前檢事 榮學謹識

十七代 傍孫 義遠 謹書

◇

⑧ 진사공 제단비문(휘 제) 충효공후 공주

공손히 생각을 하건대 이곳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종안동은 우리 칠원윤씨의 현조이신 생원공 휘 신생께서 조선시대 초기에 경상도 칠원으로부터 이사오신 옛 마을이다。 이 마을 서쪽산 중턱에 아담하고 정숙한 제단이 있으니 바로 생원공의 아들이신 진사공 휘 제와 그의 배위이신 의인 진주 하씨의 신위를 모신 장소이다。 이 제단을 중심하여 좌측은 진사공의 아버지이신 생원공부군과 어머니이신 의인 밀양 박씨의 제단이요 우측은 진사공의 아들인 사정공 휘 성계와 그의 배위인 숙인 밀양 박씨의 묘소가 있다。 진사공의 계출을 살펴보면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하였다。 그후로 고려 초기부터 높은 관리가 계승되고 충성과 효도로 대대로 벼슬을 하였으며 후손들이 번성하여 널리 퍼졌으니 실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씨족이다。 5대조의 휘는 수이니 군부판서요 고조의 휘는 길보이니 찬성사 벼슬을 하시고 구성군에 책봉되고 충의공 시호를 받고 증조의 휘는 환이니 벼슬은 세차례 수상을 임명받고 칠원백에 책봉되고 충효공 시호를 받았으며 할아버지의 휘는 천효이니 보문각대제학 벼슬을 하고 아버지의 휘는 신생이니 생원에 합격하였고 어머니는 의인 밀양 박씨이다。 진사공과 그 배위인 의인 진주 하씨의 묘소는 공주군 탄천면 견동리 견산에 있다고 전해와 일찌기 그 곳에 가서 찾아보았으나 고증할 묘지석과 비갈이 없어서 묘소를 실전하여 서기 1937년 정축년에 탄천면 삼각리 선덕동 공의 손자인 휘자 보상의 묘소가 있는 좌측산등 서쪽에 처음 제단을 세워 제사를 올렸었는데 금년도에 서울과 각 지방에서 사는 자손들의 많은 참여로 일가간 화목의 정의를 더하여 아버지이신 생원공의 제단과 아들인 사정공의 묘소 중간에 제단을 옮기었으니 아버지 아들 손자간에 지친의 정을 추억하여 여기에 단을 세운 것이다。

진사공의 아들은 휘 성계이니 사정 벼슬을 하고 손자의 휘는 보상이니 무과에 합격하여 승지 벼슬을 하였다。 증손대부터 번창하여 충청도 전지역에 퍼져 살아 맹산

현감공 휘 자균의 후손들은 은진과 논산에서 살고 진도군수공 휘 자당의 후손은 노성과 정산에서 살고 진사공 휘 자곤의 후손들은 용안과 익산에서 살아 이 세분 선조는 그 지방의 파조가 된다。이때부터 삼공육경과 문장가 덕망가들이 연속하여 전승되고 가문이 크게 빛나고 자손들이 많이 퍼졌으니 이 어찌 선조의 높은 공덕이 후손을 비호한 영광이 아니리오。아! 아름답고 좋구나 선조를 추모하며 선령을 위안하는 오늘의 위대한 거사는 그 사이에 여러대 전해온 통한을 해소하였다。이 큰 역사는 숭조와 애족의 사명에 다함에 철두철미한 노성출신 상회씨가 제단을 옮겨 세우는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소임을 완료함이다。상회씨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임원들과 서울과 시골을 순방하면서 연조금을 받아 모아놓은 훌륭한 공로의 결정이다。이 일을 계기로 우리 종중의 단합정신을 고조시키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후손에게는 선조의 혈통이 흐르며 선조의 영혼은 후손과 상통한다고 하였다。그렇기에 이 설단을 선산의 구역내에 아니면 후손의 세거지에 하라고 하였다。이곳으로 제단을 옮기게 됨은 이에 부합할 것이다。앞으로 선조의 혼령이 강림하실 곳에 후손들이 다함께 모여 만세토록 제향을 경건히 모시고 백대의 일가간에 정을 독실히 할 도장이 성취되었다。바라건대 후손들은 일치단결하고 공경으로 수호하여 영원토록 이어 나가기를 각자가 권면할지어다。

서기1994년 갑술년 10월3일

진사공 19대손 홍수는 삼가 짓고

진사공 19대손 평수는 삼가 쓰다

⑧ 進士公祭壇續碑文(諱 濟) 忠孝公后 公州

恭遜 生覺 公州郡灘川面德芝里宗安洞 漆原尹氏顯祖 生員公諱神生 朝鮮初 漆原 入鄕 故里 本洞西 雅淡 靜肅 祭壇 生員公嗣子進士公諱濟 配位宜人晉州河氏 妥靈所 本壇中心 左側 進士公 先考生員府君 先妣宜人密陽朴氏 祭壇右側 進士公 嗣子司正公諱成啓 配位淑人密陽朴氏 封塋 進士公 系出 始祖 諱始榮 官新羅太子太師 後麗初 縉紳 相傳 忠孝 世襲 後孫 繁衍 實 東邦 著族 五代祖 諱秀 官軍簿判書 高祖 諱吉甫 官贊成事 封龜城君 諡忠義 曾祖 諱桓 官三拜首相 封漆原伯 諡忠孝 祖 諱天斅 官寶文閣大提學 考 諱神生 中生員 妣 宜人密陽朴氏 本壇進士公 配位宜人晉州河氏 墓所 本郡灘川面見東里見山 有傳 往尋 考證 誌碣 失傳 一九三七年丁丑 本面三角里 宣德 公 嗣孫諱輔商墓位左岡兌原 創壇 享祀 今年度 京鄕子孫參多 睦族 誼 父生員公壇位 子司正公封塋 中間 移壇 父子孫間 至親 情 追惟 築壇 進士公 嗣子 諱成啓 官司正 嗣孫 諱輔商 官武科承旨 曾孫代 繁昌 湖西圈域 散居 孟山縣監公諱自均孫 恩津論山 珍島郡守公諱自塘孫

魯城 定山 進士公諱自坤孫 龍安 益山 各位 該地域 派祖
自後 名公碩卿 文章碩德 連綿相傳 門閥 赫赫 子姓 振振
先蔭 餘烈 後孫 庇護 光榮 猗乎善哉 先祖 追慕 先靈 慰
安 今日 壯擧 累傳 遺恨 解消 巨役 崇祖 愛族 使命 徹
頭徹尾 魯城出身相禧甫 祭壇移建推進委員長 所任 完遂
相禧甫 晝宵 不度 任員陣營 京鄕 巡訪 捐助金 醵出 賢
勞 結晶 契機 宗中 團合精神 高潮 甚幸 故傳 子孫 先祖
血統 先祖 靈魂 子孫 相通 設壇 先山 域內 後孫 世居
移壇 符合 先祖 英靈 移臨 後孫 俱聚 萬世香火 虔奉 百
代親情 篤實 道場 成就 來裔 一致團結 敬伸守護 永傳無
疆 各自 勉勵

一九九四年 甲戌十月三日
進士公 十九代孫 弘洙 謹識
進士公 十九代孫 平洙 謹書

◇

⑨ 생원공 제단비문(휘 회규) 대언공후 함안

무릇 선조를 추모함은 추원의 정성을 다함이요 일가에 화목은 보본의 도리를 펴는 것이다。후세인이 선조의 묘소가 전해진다하여 당연히 제사를 올리고 선조의 묘소가 전래하지 아니한다하여 제사를 그만 둔다면 어질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선조의 묘소를 대신하여 단을 세우고 선조의 혼령을 불러 경건하게 받든다면 더없는 추모의 도리일 것이다。살피건대 생원공의 휘는 회규이며 자는 경서이다。성은 윤씨로 함안군내의 제일가는 씨족이다。시조의 휘는 시영이며 신라 태자태사로 묘소는 칠서면에 있고 중시조의 휘는 거부이며 고려초 호장보윤으로 묘소는 칠북에 있으니 우리의 누대 선조의 묘소가 있는 고향이다。고려시대에 유명한 삼공육경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여 가히 동방의 빛나는 씨족이라 이를수 있다。후세에 이르러 선조들께서 팔도에 흩어져 사시게 되었다。공의 증조의 휘는 천이이며 금위유랑장으로 교하에 이거하고 할아버지의 휘는 참이니 생원과 진사 양과에 합격하여 전설서승으로 풍덕에 살았고 아버지의 휘는 지이며 호는 양성당이다。세종시대에 홍천현감을 지내고 또 집현전 학사로 치평요람이란 책을 편수하고 문종시대에 청백리에 선록되고 대사간을 특별히 제수하였으나 취직하지 아니하고 단종을 위하여 궁궐에서 함께 맹서하다가 화를 입어 장흥땅 깊은 산림중에 은거하였다。정조대왕 시대에 문학과 덕행이 높아 홍포서원에 배향하였다。공은 세종 병진년(1436년)에 출생하여 세조 임오년(1462년) 과거시험에 생원으로 합격하니 사촌 아우 직제학 석보와 동시에 과거에 합격하였다。학문과 덕행이 출중하였으나 벼슬 길에 뜻을 두지 않고 청빈의 한사로 후진육성을 위하여 타향을 유리하던 중에 중종 신축년(1541년)에 졸하였다。

부인은 의인 안동 김씨로 참의 황의 딸이다。 세종 을묘년(1435년)에 출생하여 중종 신축년(1541년)에 졸하였으나 묘소는 모두 전해진 곳이 없다。 공의 큰아들은 인우이며 자는 상좌이다。 성종 병오년(1486년) 과거에 진사로 합격하여 의령현감을 역임하니 명성과 업적이 지금까지 전한다。 만년에는 칠원 본고향에 돌아와서 수신과 제가에 수범하고 천수를 다하였다。 부인은 숙인 진주 하씨인데 현감 혼지의 딸이다。 묘소는 칠북면 고라등 남남동향(해좌) 쌍봉이라 전한다。 고라등은 우리 윤씨의 선산이라 전하나 국난이 지나며 증거의 비석이 없어 고증할 수가 없다。 아 슬프도다 생원공의 묘소는 고증의 실증이 없어 찾지 못한지 5백년이요 현감공의 묘소는 되찾을 흔적이 있으나 진실한 선조 묘소라고 함부로 인정할 수 없어 제사의 의식을 지금까지 못하고 추원의 도를 펴지 못함이 사백여년이니 어찌 후손이 수많은데 미안하고 통한스럽지 않으리오。 그간에 각파의 제종들이 추모의 의논이 있었으나 거사를 이루지 못한지 오래이다。 금년 여름에 부산 병현(종구)씨가 조상을 위하는 정신이 투철한지라 가난한 살림에 본 제단 건립에 연금을 홀로맡아 제종의 오랜한을 달성하여 영원히 향화를 밝힐 처소가 있게 되었으니 이는 선조의 음덕이며 우리문중의 자랑이다。 오직 원하건대 이 자리에 선조를 모신듯한 정성으로 해마다 이 제단하에 모여서 선조를 추모하는 것과 일가 화목의 도리를 다할것이니 후예들이여 더욱 권면할지어다。

서기 1882년 9월8일

후손 태원은 삼가 기록하다

⑨ 生員公祭壇碑文(諱 希奎) 代言公后 咸安

慕先 追遠 精誠 睦族 報本 道理 後世人 先塋 遺傳 妥享 先塋 不傳 闕祀 不仁 先塋 代身 壇 先靈 虔奉 追慕 道理 生員公 諱 希奎 字 敬瑞 姓 尹氏 本鄕 甲族 上祖 諱 始榮 新羅太子太師 墓 漆西 中祖 諱 鉅富 高麗初戶長甫尹 墓 漆北 桑梓之鄕 麗世 名公碩卿 世世不絕 可謂 東國 華族 叔世 先祖 入域 散佚 公 曾祖 諱 天怡 禁衛論郎將 交河 居 祖 諱 蔘 生員 進士 兩榜 典設署丞 豊德處 考 諱 志 號 養性堂 世宗朝 洪川縣監 集賢殿學士 治平要覽 纂修 文宗朝 清白吏 錄 大司諫 特除 不就 端宗 爲 伏闕同盟 被禍 長興深山中林 隱處 正祖朝 文學行誼 鴻浦書院 饗 公 世宗丙辰 出生 世祖壬午式年試 中生員 從弟直提學 碩輔 同榜 學問 德行 出衆 宦路 留意 清貧寒士 後進育成 爲 客鄕 流離中 中宗辛丑 卒 配 宜人安東金氏 參議璜 女 世宗乙卯 出生 中宗辛丑 卒 藏所所傳 公 嗣子 仁佑 字 商佐 成宗丙午式年試 中進士 宜寧縣監 歷任 聲績 至今傳 晩年 本漆原先鄕 歸來 修身齊門 垂範 天年 配 淑人晋州河氏 縣監渾池 女 藏所 漆

北面古羅嶝亥坐雙封 傳 古羅嶝 尹氏 先山 傳 經亂中徵表 考證 生員公位 可考之實 五百年 縣監公位 追據之蹟眞先塋 妄認 享祀之儀 尙闕 追遠之道 未伸 四百餘祀 後孫 不億 未安 痛恨 間 各派 諸宗 寓慕 議論 擧事 未遑今夏 釜山炳現(宗求)甫 爲先 精誠 透徹 零細 家計 本壇建立 捐助 獨擔 諸宗 宿恨 達成 永歲 享火 處所 先祖功蔭 吾門 矜誇 願 先祖 幽藏 精誠 每歲 祭壇下 慕先睦族 道理 來裔 勉勵

西紀一八八二年壬戌九月八日

後孫 泰遠 謹識

◇

⑩ 송월암공 단갈명(휘 풍형) 대언공후 화성

공의 휘는 풍형이요 자는 구중이며 호는 송월암이니 칠원세족이다。 시조되는 태사공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고명원로 벼슬을 하였으며 휘 황을 낳아 태사국판사 벼슬을 하였다。 후손에 휘 거부는 고려시대에 호장 벼슬을 하고 칠원백작에 봉해졌으며 삼대를 전승하여 휘 적은 찬성사 벼슬을 하여 무양후작으로 봉해지고 문경으로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사대를 전해와 휘 유는 지도평의사사 벼슬을 하여 무창백작으로 봉해지고 익량으로 시호를 추증받았다。 6대를 전하여 휘 송제는 광록대부 참지정사 벼슬을 하고 원나라에서 중랑장 벼슬을 하였다。 2대를 전하여 휘 수는 군부판서 응양군상호군 벼슬을 하였으며 그가 낳은 휘 길보는 수성직량공신찬성사 벼슬을 하였으며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로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그가 낳은 휘 자는 고려시대에 우부대언 벼슬을 하였다。 대언공이 낳은 휘 천이는 덕도 높고 벼슬도 높아 가문이 더욱 진흥되었으며 그가 낳은 휘 참은 조선시대에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하여서 벼슬이 전설 서승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의 영광으로 사헌부집의로 추증받은 이는 바로 공의 증조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 휘 사는 생원에 합격하였는데 역시 공의 영광으로 역시 형조참의로 추증받았으며 아버지 휘 석보는 아호가 지퇴당이니 성종대왕시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직제학이 되었으며 연산군 갑자사화시에 바른 말로 간하였다가 강음 땅으로 귀양가게 되어 그곳 객사에서 졸하였지만 중종이 반정을 일으킨 후에 왕명으로 포상하여 도승지를 추증받았으며 공의 영광으로 추가하여 이조참판을 추증받았다。 어머니는 고령 박씨이니 참의 벼슬을 한 인효의 딸이다。 홍치4년 신해년(1491년)에 공을 낳았으니 바로 성종대왕 22년이다。

공은 풍채와 용모가 온순하고 후덕한 덕기가 있으며 타고난 성격이 탁월하였는데 아버지의 교육이 충분하여 스승을 찾아 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학문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칭찬하였으며 장성한데 이르

러서는 문장과 글씨가 당시에 대적할만한 사람이 없었다。남양 홍사찬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으나 불행하게 신고의 슬픔을 만났고 찰방 벼슬을 한 영월 신윤공씨의 딸과 재혼하였으나 자손이 없었다。

중종대왕 병자년(1516년) 진사에 급제하고 기묘년(1519년) 벼슬 길에 올라 한림학사 홍문관부제학 지제교겸경연참찬관시강관춘추관편수관이 되었다。공은 문장가이며 청백리로 세상에서 정직하다는 칭찬을 받아 그 명망이 더욱 빛났다。이조참의를 역임할때 청백하고 정직하게 하였는데 김안로의 배척을 받아 강원 감사로 나갔다가 몇년이 되지 아니하여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이 있어 다시 대사간이 되었으며 호당으로 선발이 되었다。공은 늘상 벼슬 직위가 점차 높아져 영광이 극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어버이의 노병으로 상소를 올려 은퇴을 요구하였으며 평생토록 검소와 절약으로 몸을 지켜가며 공명과 이욕을 도모하지 아니하였다。그 덕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아버지는 당연히 현명한 자식을 두고 효자의 가문에는 반드시 충신이 있는 것이라 하였다。독서를 좋아하고 이치를 연구하여 틈만 있으면 저술을 하여 유고 5권이 세상에 전래하고 있다。중종대왕 기해년(1539년) 사저에서 영면하니 향년이 49세이다。양주군 장흥리 서북서향(을좌)에 장사하였으며 모제 김안국이 만장에 공과의 우의를 드러내보였다。후부인 신씨는 10년후 질병으로 졸하여 공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공의 아들 휘 일은 서부참군을 하였으며 첫번 아내는 완산 이씨이고 후처는 전주 최씨이니 사직 벼슬을 한 계중의 딸이다。두 아내 각자 아들 둘을 두었고 묘소는 장흥리 서남서향(갑좌)에 삼위가 합장으로 되었다。장자 휘 충남은 선교랑 벼슬을 하여 좌승지로 추증받았고 판교 벼슬을 한 남원 윤강원의 딸과 결혼하였다。차자 휘 원남은 창원 공덕천의 딸과 결혼하였다。삼자 휘 경남은 진사에 합격하여 선릉참봉을 하고 진사 최구관의 딸과 결혼 하였으며 묘소는 장흥리 서남서향(갑좌)이다。넷째 아들 휘 의남은 직장 벼슬을 한 문화 유금현의 딸과 결혼하였다。충남이 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장자는 희이고 차자는 상이니 인제현감과 대사성을 역임하였다。원남이 1남을 두었으니 유이며 경남이 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적은 진사에 합격하여 고령현감을 하였고 차자인 호는 사헌부 감찰이었다。의남이 아들 4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보는 무과에 합격하였고 차자 양이요 3자는 정이요 4자는 지이다。중현손 이하의 자손들은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아 그의 충성과 현명한 아름다운 덕이 어찌하여 이렇게 묘연할까? 믿기 어려운게 이치이고 헤아리지 못할게 운명이로다。송월암공과 서부참군공과 선릉참봉공까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의 3

대 묘소가 양주 장흥리에 있다고 하는데 세월이 4백년이 지나고 몇차례 전쟁이 지났으며 또 후손의 쇠퇴와 먼 시골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일찌기 묘소에 제사 올리지 아니한게 어언간 3백년 세월이 지났다。 이것은 선현의 불행이요 후손의 불행이다。 이에 여러 자손들이 선조를 추모하는 성의를 발휘하여 3대의 제단을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선산 곁에 설립하고 영원토록 향화를 받들고져 제단비를 세우고 후손 정학이 찾아와 비문을 고루한 나에게 요청하니 나 김중회는 눈이 어둡다고 사양하였지만 그의 요청이 더욱 거세어져 외람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졸필을 드러내어 이 비문을 지었다。 명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충성스럽고 현명 한 사람을 내어 덕이 높고 재능이 탁월하였도다。 어버이를 영광으로 봉양하여 아버지 이름까지 현달하였다네。 백성 다스림을 청백하게 하여 모두들 그 욕심없는 심정을 칭찬하였다네。 나라를 도움에 힘을 다하여 위대한 공로를 기필코 이루어 놓았도다。 소인들의 시기와 아첨에 지방 관리로 나갔지만 잠시후 불러들여 호당에 오르셨네。 상소를 올려 사퇴를 알리고 사저에서 임종하였다네 선영 곁에 장례하니 눈부신 해도 빛을 잃었네。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동과 서로 흩어진 후손들이 곤궁하여 묘소를 실전한게 가장 큰 슬픔이라네。 추모하는 제단을 설치하고 덕업을 새긴 비석까지 세웠으니 오래도록 흠향못한 영혼께서는 꼭 강림하여 흠향하소서。

공자탄신후 42번째 신해년(1971년) 중춘 10일

후학 화산 김중회는 지음

⑩ 松月菴公壇碣銘(諱 豊亨) 代言公后 華城

公諱豊亨 字衢中 號松月菴 漆原甲族也 始祖太師公諱始榮 新羅太子太師 顧命元老 生諱璜 判太史局事 後孫諱鉅富 高麗戶長 漆原伯 三傳 諱勳 贊成事 封武陽侯諡文敬 四傳 諱蕤 知都評議司事武昌伯諡翼亮 六傳 諱松磾 光祿大夫叅知政事 仕元中郞將 二傳 諱秀 軍簿判書 鷹揚軍上護軍 生諱吉甫 輸誠直亮功臣贊成事 龜城君諡忠義 生諱櫶 高麗右副代言公 生諱天怡 德邵官榮 門戶益振 生諱參 本朝 生進兩試 官典設署丞 追 贈刑曹叅議 考諱碩輔 號止退堂 成宗 文科 弘文館直提學 燕山甲子 以直諫謫于江陰 卒于鵩舍 中宗 反正後 玉褒 贈都承旨 以公之榮加 贈吏曹叅判 妣 高麗朴氏 參議仁孝 女 弘治四年辛亥 生公 即成廟二十二年也 公之風儀 温厚有德 資禀卓越 嚴敎有餘 不事他師而篤學不倦 人皆稱譽 迄爲成長 文章筆法 擅于當世 娶南陽洪氏司瑮 女 生一男俏而不幸 遭酸苦之悼 再娶于寧越辛氏察訪允恭 女 無育 中宗丙子 進士 己卯 登龍門 翰林學士 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 經筵叅贊官侍講官 春秋館編修官 公 以文章淸白吏 世稱正直 名

望 益彰 歷吏曹叅議 以淸白正直 爲金安老 所斥黜 按江原監司 不幾年 被召還朝 復拜大司諫 選湖堂 公 常以爵位 漸陞榮極 惟是爲懼 以親老 上牋乞退 平生 儉約持身 不謀功利 咸頌其德 曰賢父之子 宜有賢人 孝子之門 必有忠臣 耽書窮理 圖隙著述 遺稿五卷 傳于世 中宗己亥 考終于寢室 享年 四十九 葬于楊州長興鄕乙坐之原 慕齋金安國 輓著世誼 後夫人辛氏 十年後病卒 祔于公墓 公之子 諱佾 西部叅軍 先娶 完山李氏 後娶 全州崔氏 司直繼會女 各育二男 墓 長興鄕甲坐 三合窆 長子諱忠男 先敎郞贈左承旨 娶南原尹判校剛元 女 次諱愿男 娶昌原孔壽千女 三子諱慶男 進士 宣陵叅奉 娶崔進士具觀 女 墓 長興鄕甲坐 四子諱懿男 娶文化柳直長金鉉 女 忠男 生二男長 禧 次 祥 麟蹄縣監大司成 愿男 生一男 裕 慶南 生二男 長 禴 進士 高靈縣監 次 祜 司憲府監察 懿男 生四男長 補 武科 次 禯 三子 禎 四子 祉 玄孫以下雲仍 不能盡載 噫 忠賢淸德 何若是杳邈乎 難諶者 理也 未揣者 運也 松月菴公 西部叅軍公 宣陵叅奉公祖子孫 三代墳墓 在於楊州長興鄕云而星霜 四百 累經兵火 且緣於雲仍零滯散居遠方 曾未尋墓行祀 於焉已過三百星霜矣 先賢 不幸後裔 不幸 迺者 諸子孫 感發追慕之誠 設三代壇于華城郡雨汀面朝岩里先塋側 欲奉永世香火 將竪壇碣 後孫楨學來 請碣銘於孤陋人間 重會 辭以貿貿 其請 益勤 不揆犯猥 敢露拙筆 是爲陰記而銘

天挺忠賢 德邵才英 事親榮養 以賢父名 牧民淸白 咸頌撫情 輔國竭力 偉功必成 小人猜讒 斥黜外鄕 未幾被召 爵陞湖堂 上疏告退 考終寢廓 歸葬先塋 白日無光 壬亂胡變 東奔西離 雲仍窮困 失墓最悲 追慕設壇 銘德竪碑 久餓靈魄 應格歆之

孔子誕降後四十二辛亥仲春上澣

後學 花山 金重會 撰

◇

⑪승지공 단비문(휘 충남, 휘 상) 대언공후 화성

서기1988년 9월9일에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일가 대부이신 영복씨가 천리나 되는 먼길 합천까지 여든살 노인의 몸으로 나의 시골집으로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선조되시는 송월암공부터 그 밑으로 4대의 묘소들이 여러차례 병란을 당하고 후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 묘소들을 잃어버린지 현재 3백여년이 되었다 몇년전에 여러후손들이 상의하여 돈을 모아 송월암공 휘 풍형과 참군공 휘 일과 참군공 휘 경남 3위는 설단하여 매년 세일제를 올리고 있으나 성의들이 미약하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좌승지공 휘 충남과 인제공 휘 상 두분께는 제향을 올리지 못하여 종후손되는 도리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인제공께서는 최초로 우리 족보를 만드신 지극히 큰 공로가 있으

시다고 하였다。 그런고로 나 영복은 자나깨나 잊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르러서 일가들이 상의하고 서로간 합의하여 약간의 돈을 모아 삼가 비석을 준비하여 내년 봄쯤하여 동일한 능원에 세우고자 하는데 만일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숙원사업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문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 순원은 본래 문장가가 아니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며 병들어 붓과 벼루를 버린지 오래이니 어찌 감히 이 비문짓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영복씨는 같은 파의 일가사람으로 수십년간 정의가 쌓여있고 또 나이도 같으니 내 비록 문장력이 짧고 글씨가 졸렬하지만 그의 요청이 더욱 완고하고 그의 조상을 위하는 지극한 성심에 감동이 되어 감히 사양을 못하였다。 비문에 이르길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고명원로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이 창성하신 시조이시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참정공 휘 송제와 군부판서공 휘 수는 현달하신 선조이시고、 조선시대로 들어와 직제학 벼슬을 하신 아호 지퇴당공 휘 석보는 청백리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며 네 아들을 생육하였니 휘 풍형이요 아호 송월암공은 네째 아들이다。 그의 아들은 일이요、 손자는 충남이다。 둘째 아들 상이의 벼슬때문에 중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이 되었다。 배위는 중숙부인 남원윤씨이니 판교 벼슬을 한 강원의 딸이다。 휘 상은 통훈대부로 인제현감과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배위는 숙인 안동권씨이니 연의 딸이다。 위로는 충의를 지킨 선조가 계시고 아래로는 선조를 추모하는 후손들이 있으니 어찌 우리 가문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후손들이 영원토록 선조를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말것을 바라며 위와 같이 비문을 지었노라。

서기1988년9월9일 판관공후손 순원은 삼가 지음

위 설단비석을 1989년 봄에 세울 계획을 하였지만 성의만큼 되지 아니하였다

서기1992년 월 일

종9대손 영복은 삼가 세우다

⑪ **承旨公 設壇碑文(諱 忠男、諱 祥)** 代言公后 華城

歲戊辰 菊秋之節 居華城 族大父 永福氏 千里遠程陝川 八十老軀 訪余於山房曰 自先祖松月菴公 以下四代墳墓 累被兵燹 後孫 散居四方故 失傳 於今三百餘年于玆矣 幾年前 諸孫 合謀鳩財 松月菴公諱豊亨 參軍公諱佾 參軍公諱慶男三位 設壇 每行歲一祭 誠意 微弱 財力 不逮 左承旨公諱忠男 麟蹄公諱祥兩位 闕享 爲從後孫之道 罪莫大焉 特 麟蹄公 始初成譜 極有大功故 永福 寤寐不忘 至于今年 爛商宗義 相互同意 募金略干 謹修貞珉 期乎明春而欲豎同原 若成此事 就平宿願 要其陰文 順遠 本以不文人非其人 病廢筆硯 久矣 安敢當是役 永福氏以同派之人

誼積數十年 又同庚 雖短文拙筆 其請 益固 感其爲先至誠不敢辭而叙之曰惟我漆原之尹 新羅盛世 太子太師 顧命元老諱始榮 得姓之上祖 至高麗朝 叅政公諱松礋 軍簿判書公諱秀 顯祖 入李朝 直提學號止退堂公諱碩輔 以淸白吏名著於世 育四男 諱豊亭號松月菴公 序居於四 子曰佾 孫曰忠男 次子祥之貴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配贈淑夫人 南原尹氏判校剛元之女 諱祥 通訓大夫行麟蹄縣監大司成 配淑人 安東權淵之女 上有守忠義祖 下有尙追慕之孫 豈不云吾門之大幸也 企願來裔永世不忘爲先之心 叙之如右

歲戊辰重九之節 判官公后 順遠 謹撰

右設壇碑 己巳春竪立爲期而未得如誠

西紀一九九二年 壬申 月 日

從九代孫 永福 謹竪

◇

⑫ 나주정씨 제단비문(휘 천상배) 충효공후 청양

삼가 생각하여 보니 우리 12대 할머니 나주 정씨의 묘소는 족보를 읽어보면 남편 산소 좌측 산등 동남향(건좌)에 모셨다고 하였으나 세대가 멀어졌고 또 비석과 지석의 고증이 없고 후손들도 현명하지 못하여 수호에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현재 실전이 되었고 오래도록 제사까지 빠뜨렸으니 후손들의 유감과 통한을 어이하랴? 건위는 바로 가선대부칠원윤공 휘 천상이시다。공의 묘소가 이 산 국내에 있어 지금까지 수호하고 있으니 배위의 묘소도 정녕코 동일한 산등 멀지 아니한 곳에 계실터인데 실전이 되었다。그러므로 매년 시제 때가 당하면 할아버지는 제사를 올리고 할머니는 아니하니 조상을 추모하는 도리에 매우 죄송한 생각이 들어 각 파의 여러 일가들이 여러해 동안 그 추모할 수 있는 의식을 상의하여 금년 봄에 임시로 제단을 공의 묘소 아래에 설치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붙이어 삼가 시제의 성의를 펴게 되었으니 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두려웁도다。

서기1976년 병진 봄

12대 손자 종칠은 삼가 기록하다

⑫ 羅州丁氏祭壇碑文(諱 天祥配) 忠孝公后 靑陽

恭惟我十二代祖妣羅州丁氏之墓所 謹按譜諜則在於乾位左岡乾坐而世代逓遠 且無碑碣誌銘之可考 後孫 不肖 守護不謹故 于今失傳而永闕享祀 後仍之痛恨遺感 當何如哉乾位 即嘉善大夫漆原尹公諱天祥也 即公之墓所 在於此山局內 至今守護則坤位之塋域 丁寧同原不遠而失傳 所以每當歲祀之時 乾享坤否 慕於追遠之道 極有罪悚者故 各派諸宗 積年詢謀其寓慕之儀 今春 權設壇所于公之兆下以寓羹墻之慕 恭伸霜露之誠焉 誠惶誠恐

檀紀四三〇九年丙辰春

十二代孫 鍾七 謹識

◇

⑬ 내산세천비문(휘 원) 충효공후 청양

인간의 씨족들은 마을을 선택하여 덕을 심어 뿌리를 내리면 가지로 나누어지고 파별로 분열됨에 이르게 되고 대대로 살며 대대로 장사를 지내 마침내 영세토록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손으로 지적하게 되는것이 역시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사공 휘 시영부터 시작하여 여러 대를 지나서 휘 환은 고려대에 문하시중을 역임하고 칠원백에 봉해지고 충효공으로 추증받았으며 이 분이 대제학 휘 천효를 낳고 4대를 전래하여 휘 보상이 있으니 조선시대에 승지를 하시었고 그 분의 중손자 휘 준제에 이르러서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었으니 이 분이 정산일가의 파조가 된다。 묘소는 청양군 남쪽 외동 장항에 있으니 현 주소는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이다。 이 분이 가선대부 휘 천상을 낳았으니 묘소는 아버지 묘소 윗쪽 같은 산등에 있고 이 분이 학생인 휘 원을 낳았은니 묘소가 같은 면내 내산밑 하천가 자라바위 위 동북동향(신좌)에 있다。 이 분이 나에게는 12대 할아버지가 되며 오직 내산 묘소중에 최고로 높은 묘소가 된다。 공의 초배는 진산 이씨이니 외동 선영 좌측 산등에 있고 계배는 해남 김씨이니 묘소는 공의 묘소 아래 동북동향(신좌)에 있다。 공의 차자 호군공 취삼은 배위 임천 임씨와 합장되어 있다。 그 이하로 여러 대가 거의 내산에 장사하였으며 공의 다섯째 아들 귀삼과 그의 전후배들의 묘소가 외동 선영 좌측 산등에 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내산에다 장사한 이가 역시 많이 있다。

이 학생공으로부터 10여대를 내려오며 씨족끼리 모여 장사한 것이 매우 많으나 특히 이곳 내산 일원은 풍수가들이 거북 모양이 되어있어서 비석을 놓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선산내의 모든 묘소들이 비석 일체를 다같이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생각하여 보면 의전에 결함이 되는 한탄이 들게 된다。 엇그제는 여러 일가들이 서로들 상의하여 말하기를 선산 내에는 이미 석물을 놓을 수가 없으니 산아래쪽이라도 당연히 석물을 놓아야 한다고들 하여 마침내 비석을 준비하여 산 아래 동리 입구에 세우고 그 비석 앞에 쓰기를 칠원윤씨 내산파 세천비라 하였다。 아 학생공의 출생은 선조 무인년이라(1578년)이라 하였는데 추측하여 윗대의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묵묵히 계산하니 바로 선조들이 이곳 마을에서 적선을 하고 음덕을 내려 후손을 보호한 세월이 근 5백년이 되고 있다。

뿌리가 견고하여야 가지가 번창하고 근원이 깊어야 흐름이 길고 덕이 순후하여야 영광이 유전하는 것은 모

두가 동일한 이치이다。우리 한 할아버지 자손들이 어찌하여 선조를 받들고 후손을 여유있게 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할소냐? 그 성묘하고 제향 올리는 때에 구름처럼 조상을 흠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리니 가슴속에 간직하였다가 집안에서 실행하면 우리 일가들의 일어남이 장차 끝도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소나?

학생공 12대 손자 기순은 삼가 기록하다
서기1966년 병자 윤3월 세우다

⑬ 來山世阡碑文(諱 源) 忠孝公后 靑陽

人家氏族之擇里種德 以至枝分派列而世居世葬 遂爲永世行過之指點焉者 盖亦難矣 惟我漆原之尹 肇自新羅太師諱始榮 歷累世 有諱桓高麗侍中漆原伯諡忠孝 是生大提學諱天敷 又四傳 有諱輔商 本朝承旨 至其曾孫諱遵悌 文科成均典籍 是定山族之派祖也 墓在郡之南外洞獐項 今稱靑陽郡靑南面東江里 是生嘉善大夫諱天祥 墓在考墓上同岡 是生學生諱源 墓在同面來山下川邊鱉岩上申坐 寔吾十二代祖而惟玆來山塋阡之最高尊位也 公之初配珍山李氏 從葬外洞先塋左岡而繼配海南金氏墓 公墓下申坐 及其次子護軍公就三 配林川林氏 合封 以下累世之葬 多在來山 公之五子歸三 及其前後配則墓在外洞先塋左岡而厥後子若孫之從葬來山者亦多 盖自學生公以來 歷十數世娶族之葬 甚累累焉而獨此來山一局 術者以爲有物形 不可以置石 以故塋內諸位俱莫伸衛隧之儀而顧自有欠典之歎矣 及者 諸族相與議曰 塋內之石 旣不得以致之 山下之表 宜有以追成之 遂伐石 竪之于山之下洞之口 書其石面曰漆原尹氏來山派阡碑 嗚呼 學生公之生 在宣廟戊寅 推以上之祖禰而默數之則吾先世之於玆鄕 毓慶垂蔭 以庇後昆者歲將半千矣 根固而枝達 源深而派長 德厚而流光 皆一理也 凡我同祖之孫 曷不思所以承先裕後之道乎 其於瞻掃獻享之際 油然而發感慕之心 軆之於身而行之于家則吾族之興 將無窮期矣 豈不休哉 學生公十二世孫氣淳 謹識

檀紀四二九九年丙午閏三月 日立

◇

2、홍포서원

(1) 서 원

① 홍포서원 5선생 입향시유사

다섯분 선생님의 덕행과 공로와 업적이 족히 백세토록 모범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정조대왕 6년(1782년) 임인년에 유림들이 상의하여 칠원현 서쪽 홍우포위에 서원을 세우고 현판을 홍포서원이라 하고 신주를 모셔놓고 봄철과 가을철 두번째 되는 정일에 제향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① 鴻浦書院 五先生 入享時遺事

五先生 德行勳業 足爲百世矜式 我正廟六年壬寅 士林 詢謀 建院于漆原縣西渡鴻雩浦之上 扁以鴻浦書院 妥靈而春秋二丁 腏享焉

◇

② 충효공 윤선생 행록

공의 휘는 환이요 성은 윤씨이니 칠원인이다. 신라시대에 태자태사고명원로 벼슬을 하신 휘 시영의 먼 후손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중추명신되는 휘 적은 덕망이 있어 조정에서 현달 하였으니 현종때에 관직이 태위에 이르고 무양후작에 봉해지고 문경시호를 추증받았다. 휘 송제는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고조가 된다. 증조의 휘는 양삼이니 광록경추밀원부사이고 할아버지 휘는 수이니 정순대부군부판서이고 아버지의 휘는 길보이니 수성직량공신삼중대광찬성사 벼슬을 하고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공 시호를 추증받었다. 충효공 부군은 하늘이 낳으신 영웅호걸로 세상을 바로잡은 정치력이 있어 5대의 조정에 벼슬하며 충성을 다하여 국가를 도왔으며 선수정동행성랑중익찬공신 벽상문하시중 감춘추관사를 역임하고 세차례 수상직을 임명받아 덕업과 공로때문에 칠원백으로 봉하여 식읍 천호를 받았다. 공민왕시대에 은퇴하여 칠원유동사저로 돌아왔는데 그해에 큰 흉년이 들어 집안 재산을 내놓아 몇년동안 구휼미를 주고 가난한 주민들이 빌려간 채권책을 모두 불태웠다. 날씨가 매우 오래동안 가물다가 큰 비가 내렸으며 후일 또다시 큰 가뭄이 들었는데 공이 지팡이를 공의 밭가운데에 꽂으니 샘물이 솟아나와 주민들 밭으로 흘러서 그렇기 때문에 큰 풍년이 들어 송덕하는 소리가 우뢰와 같았으며 그 공덕은 개성의 종과 경쇠에 새겨져 있음이 고려사와 여지승람책에 나타나 있고 행적은 목은집에 많이 실려있다. 칠원현 서쪽 내내강상은 바로 만년의 주거장소이었다. 홍도우포의 사이에 수려한 산자락 끝이 불끈 솟아있고 맑은 못이 거울처럼 펼쳐있어 아름다운데 유허지가 지금까지 수백년간 전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서원을 세운 것이다.

아들 천효는 문과에 급제한 광록대부보문각대제학이요 이 대제학이 아들 형제를 낳았으니 장자의 휘는 조생인데 조선 태종시대에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장예원판결사이었으며 둘째아들 휘는 신생이니 생원에 합격하였다. 후손들은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② 忠孝公尹先生行錄

公諱 桓 姓 尹氏 漆原人 系出新羅太師顧命元老諱始榮

逮高麗世 爲柱石名臣諱 勱 有德望 少顯朝廷 顯宗朝 官至太尉封武陽侯諡文敬 諱松礴 銀青光祿大夫叅知政事 寔府君之高祖也 曾祖 諱 養三 光祿卿樞密院副使 祖 諱 秀正順大夫軍簿判書 考 諱 吉甫 輸誠直亮功臣三重大匡贊成事封龜城君諡忠義 府君 英豪天挺 有匡世經綸 歷事五朝 盡忠輔國 宣授征東行省郎中 翊贊功臣 壁上門下侍中監春秋舘事 三拜首相 以德業勳勞 封漆原伯 食邑千戶 當恭愍 退歸漆原柳洞第 歲大飢 發家財 賑之積年 貧民稱貸契券 悉燒之 時 天 久旱 則大雨 後又當大旱 公 以杖植公田中 水泉湧出 流及民田 仍此大熟 頌聲 如雷 功德 銘于松京之鍾磬 見麗史及輿地勝覽 行蹟 多載牧隱集中 縣西柰內江上 卽晩年杖屨之所也 粧點於渡鴻雩浦之間 有斷麓斗起 黝潭鏡開之勝 遺址 尙傳數百年故 建院于此 子天敎 文科光祿大夫寶文閣大提學 是生二子 長 諱 祖生 我太宗朝 文科官至掌隸院判決事 次諱 神生 生員 雲仍 不盡錄

◇

③ 정평공 윤선생 행록

공의 휘는 자당이며 충효공 아우 칠성부원군 휘 공의 아들이다。 집안을 계승한 독실한 덕행과 나라를 다스릴 높은 재질이 있어 어린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태종시대에 추충익대좌명의 훈로가 있어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에 승진되었고 철권을 하사받았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황하수가 허리띠 같이되고 태산이 숫돌같이 되도록 같이 안락을 누리며 서로 도웁고 구제하자고 하였다。 일찌기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셨는데 명나라 황제가 공의 행동이 수련되어 정제한 것과 위의를 공경하고 근신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어 금자광록대부를 하사하였으며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칠원부원군에 봉해져 식읍천호의 사패전을 하사받았다。 그의 행적은 동국문헌록과 여지승람에 나타나있다。

③ 靖平公 尹先生 行錄

公 諱 子當 忠孝公弟漆城府院君諱椌之子也 有繩家篤行 經國高材 早登文科 太宗朝 有推忠翊戴佐命之勳 陞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賜鐵券曰使黃河如帶 泰山若礪 共享安樂 以相輔恤云 嘗奉使于天朝 制嘉其行誼修整 威儀敬愼 賜金紫光祿大夫 及東還 封漆原府院君 食邑千戶賜牌 行蹟 著東國文獻錄與地勝覽焉

◇

④ 양성당 윤선생 행록 대언공후

공의 휘는 지요 자는 가형이요 아호는 양성당이니 충효공 아우 대언공 휘 자의 증손이며 집의공 휘 참의 아들이다。 공은 행동과 문학으로 한시대의 존경이 막중하

여 점필재 김종직 사가정 서거정등과 더불어 도의의 벗이 되었으며 때마침 세종대왕의 태평성대를 만나 글씨를 잘쓰기때문에 집현전학사에 피선이 되어 치평요람이란 책을 지어 올리자 임금께선 보고 칭찬하시고 여러 현인들도 감탄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살던곳에 양성당과 학명루를 지었는데 그 기문은 모두 서사가정이 지었다。 그들과 수작하며 지은 증별이란 시는 여러 현인들 문집중에 나타나 있다。 후일에 홍천현감을 제수 받았는데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백하게 하였다。 무오사화시에 점필재와 교류한 이유로 참소를 입어 흥양으로 귀양갔었는데 동료인 번씨의 상소로 구제되어 대사간을 제수받았으나 취직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세상길과는 인연을 끊고 전남장흥 산림에서 임종하였다。 사실 행적은 집현록에 기재되어 있다。

④ 養性堂 尹先生 行錄 代言公后

公諱 志 字 可衡 號 養性堂 忠孝公弟代言公諱樜之曾孫也 執義公諱蔘之子也 行誼文學 望重一世 與金佔畢齋 徐四佳亭 爲道義交 際遇 英陵盛時 以書寫 被選集賢殿學士 撰進治平要覽 上覽之稱善 諸賢 歎賞不已而其所居 起養性堂 鶴鳴樓 其記文 皆四佳亭所撰也 其唱酬贈別詩 見於諸賢集中 後 除洪川縣監 奉職公淸而戊午士禍 以佔畢齋從遊 被謫興陽 同僚卜疏 救之 除大司諫 不就 遂絶意世路 終于全南長興山林 事行 載集賢錄

◇

⑤ 지퇴당 윤선생 행록 대언공후

공의 휘는 석보요 자는 자임이며 아호는 지퇴당이다。 성종시대 대언공의 현손자요 참의공 휘 사의 아들이다。 성종시대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훈대부 홍문관직제학이 되었다。 공은 성품이 청렴결백하여 사욕이 없었으며 일찌기 석성과 순천부사를 역임했는데 정치가 청백하기로 소문이 나있었다。 처자식들이 굶주린다는 소문을 듣고 봉급을 조금 덜어 부쳐주니 부인께서는 굶주림을 참아가며 밭일묘를 매입하였거늘 공이 집으로 돌아와 정색하며 말하기를 나는 관리로써 직무상 당연히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하거늘 오늘 사적 재산을 영위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부인은 울면서 밭을 다시 팔았다고 하였으니 그의 근신하고 청렴결백한 것이 이와 같았다。 연산군 갑자사화에 이르러 직간을 한 이유로 강음으로 귀양가서 그곳 객사에서 졸하였으니 그의 고고한 충성과 큰 절개를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보상으로 도승지를 추중받았으며 청백리 책에 기록이 되어있다。 왕명으로 자손들을 등용하라 하여 후손들이 높은 벼슬에 이르게 되었다。 여타는 모두 기록하기 불가능하다。

⑤ 止退堂 尹先生 行錄 代言公后

公 諱 碩輔 字 子任 號 止退堂 代言公之玄孫也 參議諱思之子也 成宗朝 文科通訓大夫弘文館大提學 性 廉潔無私 嘗歷典淅城順天府 所治以淸白 著名 聞妻子飢 損俸少許 寄之 夫人 忍飢而買田一畝 公 歸家正色曰我以命吏職當廉公而今乃營私產乎 夫人 泣而賣田 其謹愼廉介 如此 逮燕山甲子 以直諫 貶江陰 卒于鵬舍 其孤忠大節 人莫不嗟惜焉 中廟改玉 褒贈都承旨 錄淸白吏案 命調用子孫 後代出達官 餘 不能盡錄

◇

⑥ 중호 윤선생 행록 대언공후

공의 휘는 탁연이요. 자는 상중이며 아호는 중호이다. 청백리 석보의 증손자이다. 가정무술(1538년)년에 출생하였는데 출생하여서부터 영리하였으며 성장하여는 화려한 소문이 한 시대를 덮었다. 어려서부터 퇴계문하에서 공부하여 행동과 문학이 사우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아계 이산해와 간이 최립과 더불어 명성이 한결같았다. 무오(1558년)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을축(1565년)년에 장원급제하여 사국으로 추천받아 들어갔는데 때마침 명종대왕이 승하하게 되어 영의정 이준경이 공을 불러 유서를 받아쓰게 하였는데 덕흥군 셋째 아들이란 삼자를 석삼자를 쓰지 않고 옛삼자로 써서 사람들이 공의 영민에 감복하였었다.

사간원에 있을때에 사건이 있어 경연중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공은 임금님 앞에서 간하여 말하기를 이런일은 진나라 간문이도 하지 아니한 바라 하니 임금께서 큰소리로 너는 나를 간문이로 여기느냐? 하며 꾸짖자 공은 천천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면 요순도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걸주가 될것이니 어찌 특히 간문이 뿐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갑술년에는 주청사서장관으로 중국에 가서 종계의 무고사실을 신원한 공로로 광국훈신에 책봉되고 칠계군을 책봉받고 철권을 계획하였으며 선조대왕이 의주로 파천할때 함경도 관찰사로써 군병을 모집하여 적군참살을 매우 많이하고 여러차례 승전보 알리기를 여러 도백중에서 가장 많이 하였다. 임금께서는 공이 야전에서 오래동안 있는것이 염려되어 특별히 양털옷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일찌기 당시인들이 패당짓는게 한탄되어 지은 시가 있으니 그 시에 말하기를 생전에 쌍갈래 길 동쪽 서쪽 있는게 미워, 구름과 더불어 함께 다니고 학과 더불어 살으리라 홍이나면 가끔 흠뻑 취하여 취한 얼굴 어느곳이던 사람 밑으로 향하리라 하였다. 갑오년에는 관직중에 졸하였으니 향년은 오십칠세이었다. 벼슬은 호조판

서에 이르렀으며 현민공 시호를 추증받고 창의사라고 국가에서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남긴 문집이 있다

⑥ 重湖 尹先生 行錄

公諱卓然 字尙中 號重湖 淸白吏碩輔之曾孫 生嘉靖戊戌 生而穎異 及長 華聞 盖一時 早游退溪門下 行誼文學 士友推重 與李鵝溪山海 崔簡易岦 齊名 戊午 司馬 乙丑 登第 薦入史局 時 明廟大漸 首相李浚慶 召公書遺詔 德興君第三子之三字 不三而參 人服其敏悟 在薇垣時 有事執論於筵中 公犯顔力爭曰此 吾簡文之所不爲也 上厲聲曰爾 以我爲簡文耶 徐對曰改過則爲堯舜 否則爲桀紂 豈特簡文而已 甲戌 以奏請使書狀官 赴京 伸宗系之誣 策光國勳 封漆溪君 圖形鐵券 穆陵黑龍之役 以北伯 召募軍兵 斬馘甚多 前後捷報 爲諸道最多 上 念其暴露久外 特賜羊裘 先生 嘗恨時人立黨 有詩曰生憎歧路有東西 雲與同行鶴與棲 乘興有時成大醉 醉顔何處向人低 甲午 卒于官 享年 五十七 官至戶曹判書 諡憲敏 賜額彰義祠 有遺集

---

⑦ 원우중수통문

이 통문은 돌려가며 일을 알리는 것이다。 엎드려 생각하니 사당을 지어 현인을 제사하는 것은 국가의 밝은 의전이며 이 문학의 성대한 거사이다。 그래서 건축의 초기를 생각하여 보니 구조와 규모가 각자 적당한 것을 얻은 연후에야 바야흐로 아름다운 의식의 소중한 것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사림들이 따라 한대로 시행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이 홍포서원은 귀 문중선생 다섯 현인의 제향을 올려 영혼을 편안히 하는 자리가 되겠다。 다만 여러분 좌하들의 경건한 정성으로 연유되어 끝까지 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리고 이 명현들이 태어나 안장된 고향이니 백세의 후세인이 소문을 듣고 나서 어찌 기뻐하며 공경하게 제사를 받들지 아니할소냐? 그런데 결과는 결속이 되지 아니하였고 의식절차도 많이 빠져 있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여러분들은 비록 원지에 있으나 경모의 땅으로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 통문내의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있어 역시 만에 하나도 심히 서로 멀지 아니한데 하물며 오늘 이 사당이 세월이 깊어 비가 새게되어 있고 강당은 공사한지 오래되어 무너지게 되어 수선할 시기가 이르렀음에야 운세란 반드시 그러하지만 이 재능이 씻겨나가고 지식이 소멸되는 것을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할 방법은 없어 가까이 살며 눈으로 보면 답답한 심정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엇그제는 춘향이 되어 여러 사림들이 모인 좌석에서

별도로 공론을 하고 있었는데 월권행위도 기피하지 아니하고 감히 윤리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대략적인 것을 선포하니 일제히 대답을 하였다。 타지방 사람들도 오히려 누구든 이 계획의 통문에 권고하고 있는데 하물며 선조를 위하여 영원토록 추모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소망하건대 반드시 귀문중 여러 후손들은 고루하다 말하지 말고 세심하게 주의하여 빨리 중건공사를 돈독히하여 여러 사림들의 소망에 부응되었으면 천만다행하겠다。

병진(1856년) 3월 27일

홍포산장 황치갑
향교재임 황종환
덕연원장 주희백
제통 주시덕
회원 곽희조

⑦ 院宇重修通文

右爲文輪告事 伏以建院祀賢 朝家昄典 斯文盛擧而第念設施之初 制度也 軆貌也 各得其宜然後 方可爲縟儀之所重 從可驗士林之依歸矣 今此鴻浦書院 乃貴門先先生五賢 醊享妥靈之所也 亶由乎僉座下虔誠之靡不用極而生此名賢杖屨之鄕 聞風於百世之下者 孰不欣聳而敬奉蘋藻哉然而果未要束 儀節 多闕 窃想僉尊 雖在遠外 爲之馳念於景慕之地而其在生等之心 亦不甚相遠者 萬一於此矣 況今廟室貽漏於年深 講舍 致壓於工久 及期修繕 勢所必然而顧此才謭識蔑 萬無區晝之方 居近所睹 不勝紆欝 頃於春享齊會之席 別般公議 不避越樽之嫌 敢將秉彛之心 略布齊籲 凡他士林 猶或有圖榜之勸 矧玆爲先追慕之虔乎 望須貴門僉君子 莫曰芻蕘 銳心注意 亟敦重營 以副多士矜式之望千萬幸甚

丙辰三月二十七日

鴻浦山長 黃致甲 製通 周時德
鄕校齋任 黃鍾煥 會員 郭熙祖
德淵院長 周熙伯

◇

⑧ 원우중수상량문

백세의 훈로명인을 추모하면 고려 말과 조선 초기가 되겠고 한 지방의 명승지를 천단하는 것은 산 높고 물 깊은 것이라 하겠다。 처음으로 여러가지 의식을 거행하고 이 사당을 중건하게 되었다。 충효공 윤선생은 위대한 인물로 남의 허물을 포용한 하늘이 낳은 호걸이다。 위급한 나라에서 벼슬하여 고려 왕궁의 주석이 되었고 늙어 생활은 팔십여세까지 살았으니 묘소가 있는 고향이로다。 신의 조화까지 참여하고 주선하였으니 살아서 능히 국민에게 혜택을 입히었고 영혼이 빛나 놀라게 하

였으니 죽어서 사당에 제사 올리는 것이다。

정평공 윤선생은 가업을 계승하여 행동이 독실하였고 국가를 다스린 높은 재목이라 행복과 영화를 누리며 역시 태평성대의 군주를 만나 추충익대공신을 하사받았으니 사직의 훈신이라 이를수 있다。 천지간에 정승으로 빛났으니 홀잡고 면류관 쓴 사람이요。 해와 별처럼 하늘에 빛났으니 군지에 기록되고 국사에 기록이 되었도다。

양성당 윤선생은 젊어서 소문이 퍼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임금님 마음 돌려놓고 세상에 숨어 살았다네。 세종대왕의 모든 서류를 크게 발천하며 같이 살아온 사람은 점필재 김종직 사가정 서거정이고 집현전의 임금님 문장을 공동으로 교정한 것이 비슷비슷 하였으니 영각중에 십인 학사이었다。 푸른 연기가 꾸불꾸불 둘러있으니 남겨놓은 교화는 홍성군민이 노래로 부르고 붉은 해가 창가에 떴으니 본성은 서재에서 수양되었다。

지퇴당 윤선생은 쇠와 돌같은 엄정한 마음이요、 얼음과 옥같이 맑은 고고한 지조는 청백리로 영원히 남았으니 백기같은 고고한 풍속을 일으키게 되었고 충성심으로 혼미한 조정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니 굴원같은 절개를 자랑할 수 있다。 귀양길도 마음에 달게 여기었으니 그 조화는 옛 물건으로 돌리었고 도승지의 영광을 알려왔으니 세월이 거듭 밝아지는 때를 만나게 되었도다。

헌민공 윤선생은 젊어서부터 국가 다스릴 포부를 품고있었으나 때마침 임진왜란을 만나게 되었다。 임금님 모시고 대통을 정할때 석삼자로 쓰지 않고 옛삼자로 써놓았다。 시퍼런 칼날을 밟으며 인륜을 지킨 공로는 제일인데 직위는 이등이었다。 백일하에 임해군 업고 피난하였으니 가히 장부의 고고한 절개를 볼수 있고 청성에서 적군을 꾸짖었으니 어디에 시랑같은 사람이 있을꼬。 현명한 스승 찾아가 직접 퇴계선생의 진실한 교육을 받았으며 명나라에서 서장관으로 초빙되어 마침내 왕통의 무고를 신원하였다。 빛나고 빛나는 태상의 공적은 국가 역사책에 거듭 새로워졌고 늠름한 백세의 풍기는 부녀자 아이들까지 보고 감동하였도다。

이 다섯분들의 선생은 모두가 칠원윤씨의 후손들로 공로와 업적이 세상과 더불어 티끌이 되었고 비록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영혼만은 물이 땅에 있는것 같을 것이다。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바라보니 빽빽히 서있어 국가의 높으신 유학자가 생각나고 규모는 비록 미약하지만 모두 빛남은 검소함에 있는 것이니 스승을 존경하는 의리로 어찌하여 대현인을 제사 올리지 아니할소냐?

지난 옛날 임인년에 비로소 서원의 옛터를 찾았는데 암벽 천길위에 있어서 그 모습은 나르는 봉황새같이 보이며 길은 모래펄까지 뚫려 시경의 준홍편 음영하는듯

하였다。들보를 깎아 새로 고하니 오직 영혼이 강림하겠으며 사당은 옛 제도를 따르고 있으니 보고 듣는게 향기가 있었다。세시는 정사년부터 십년의 계획으로 시작하여 길일인 갑자일에 여러개 석가래가 아름답게 다시 낙성되었다。지붕과 기둥의 규모가 모두 웅장하게 되었으니 겨울엔 글공부 여름엔 예의교육을 동일하게 권면시킬 것이다。제사일 향기 비로소 올라 완연히 멀리에서 벌떼같이 모일것이며 남겨놓은 혜택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가히 역사에 이어서 기록될 것이다。이 상량문의 육포귀에 감히 크게 칭송하는 글을 붙여 엄숙히 드립니다。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만리의 동쪽에서 기가 통하고 있도다。억겁이 지나도록 끝없어 마음 죽지 아니하여 날마다 둥근 해가 빨갛게 떠들고 나오리라。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천주의 높은 산봉에 한줄기 노을일세。방박하게 천년두고 원기가 들어 봄이오면 나무 그림자 파랗게 드리우리라。들보를 서로 던지니 거울같은 호수 파란 술과 같으네。생각컨대 산등에 해뜨는것 같이 란주의 노력으로 다같이 오르리라。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천리 홍운이 하늘 끝까지 둘러있네。오백년간 내려오며 공사한적 없었으니 충혼을 다같이 보호하자고 같은 소식을 전해주네。들보를 위로 던지니 흰구름 유유히 떠있고 하늘은 넓도다。인간세상 부귀는 너무나 짧아서 저 무덤을 생각하면 배나 슬프도다。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세차게 흐르는 낙동강물 주야로 흘러가네。저 물이 웅덩이에 고인 후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나의 문장을 이루워 놓으니 신명이 기뻐하여 큰 복을 주리라。

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한 후에 뜰도 두고 사랑채도 두어 동에서 서에서 훨훨 날아갈듯 새로와지거라。곧 사당이 낙성된 모양이 기뻐서 어린이와 노인까지 모두들 모여 우두커니 서서 사당을 바라보느라 움직이지 아니하도다。

숭정기원후 네번째 되는 정사년(1857년) 3월16일

후학 밀성 박치회는 삼가 짓다

⑧ 院宇重修 上樑文

仰百世之勳名 麗季國始 擅一區之形勝 山高水長 誕擧緡儀 重創齋宇 恭惟忠孝公尹先生 川亭岳毒 天挺人豪 垂紳笏於危朝 柱石松關 稅杖屨於遲暮 茅土楸鄕 衆神化而轉斡 生能澤其民 赫威靈而動驚 歿而祭於社 靖平公尹先生 繩家篤行 經國高材 享其福祿榮名 罕逢堯舜之主 賜以推忠翊戴 可謂社稷之臣 燮陰陽於黃扉 桓圭袞冕 煥日星於靑汗 邑誌邦乘 養性堂尹先生 早播華而需時 旋懷寶而遯世 英陵之奎華 大闡從游佔 畢齋四佳亭 賢殿之天章 共校彷彿 瀛閣十士 靑烟 繞篆 歌遺化於洪邑 紅日 當牕 養眞性於書樓 止退堂尹先生 鐵石危膓 氷玉孤操 垂淸白於永

世 伯起高風 秉丹寸於昏朝 靈均姱節 抉路甘心 歸造化於舊物 銀臺榮誥 際日月之重光 憲敏公尹先生 早抱經綸 時逢板蕩 奉玉几而定統 書不三而以參 蹈白刃而扶綱 功第一而居二 赤日 負君 可見秀夫孤節 青城 罵賊 誰有侍郎一人 摯謁賢師 親受陶山之眞詮 槎聘上國 竟伸璿源之被誣 煌煌太常之績 邦籙鼎新 凜凜百世之風 婦孺 觀感 惟玆五位先輩 皆是漆貫後仍 勳業 與世成塵 縱烏兎之悠久英靈 如水在地 瞻松檟而密邇 稽國家之崇儒 規雖徽隱而皆彰在韋布 尊師之義 詎大賢而不祀 肆昔在玄虎之年 乃始撫白鹿之址 巖臨千仞 見點像於翔鳳 道通平沙 詠周詩之遵鴻 雕樑 告新 雖陟降之歆格 齋舘 仍舊 在瞻聆而茹羞 太歲在丁 十載之經營始就 吉日維甲 數椽之輪奐重成上宇下棟之規 盖取諸大壯 冬試夏禮之敎 盖勉夫同人 其香 始升 宛肹蠁於雲旗風馬 遺澤 不泯 可紹述於玉軸金箱屬玆脩樑之六抛 敢以偉頌而齊獻

抛樑東 萬里扶桑氣與通 過惕無窮心不死 朝朝擊出日輪紅

抛樑南 天柱高峰一抹嵐 謗礴千年元氣孕 春來樹影 碧毿毵

抛樑西 一鑑鵝湖綠似醍 想得岡爺同泛日 蘭舟努力共攀蹐

抛樑北 紅雲千里繞宸極 五百年來無事治 忠魂共護同消息

抛樑上 白雲悠悠天宇曠 人間富貴石火忙 回首荒邱倍悵仰

抛樑下 滾滾源江 日夜瀉 相彼盈科成我章 神明怡悅錫純嘏

伏願上樑之後 有庭有廡 自西自東 飛翬革新 方喜廟宇之方成樣 譽髦咸集 佇見庠舍之不能容

崇禎紀元四丁巳一八五七年三月

哉生魄 後學 密城 朴致晦 謹撰

◇

⑨ 철원시 고유문

이 학문에 재앙이 들어 서원이 철거를 당하게되었읍니다。사림들은 갈곳을 잃어 하늘에 호소하고저 합니다。모든 규모를 회복시킬 것을 현철한 후배에게 기대하며 경건하게 고유하고 근신하여 고유합니다。

⑨ 撤院時告由文

斯文陽九 俎豆見撤 士失依歸 欲號 天闕 恢復規矩留待來哲 虔告謹告

◇

⑩ 중수시이안문

삼가 생각하여 보니 이 사당은 건축한 연대가 오래되어 기와와 벽들이 이미 허물어져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그 숭모하여 제사 모실 곳을 지으려고 감히 중축하옵니다。삼가 이제 자리를 옮기려고 경건하게 그 사유를 고하는 바입니다。

후학 상산 주시덕 지음

⑩ 重修時移安文

恭惟院宇 建設年深 瓦墁旣毁 風雨攸侵 其在崇奉 敢緩增修 謹玆移位 虔告厥由

後學 商山 周時德 撰

◇

⑪ 환안문

지붕이 새는 것을 보수하니 옛 서원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편안히 모시려고 감히 이 환안문을 경건하게 올리는 바입니다

⑪ 還 安 文

報漏葺椽 舊院維新 今將奉安 敢玆虔伸

◇

⑫ 홍포서원 유허비음기

칠원읍 서쪽 십리쯤에 홍포서원이 있으니 윤씨 5위 선생님들을 제사 올리는 곳이다。 칠원백 충효공 휘 환은 재상으로 고려조에 저명한 분이다。 정평공 휘 자당은 조선 태종대왕을 도와 많은 공로가 빛나고 대사간 양성당 휘 지는 점필재 김종직의 문우로 사화에 걸려 마침내 남쪽 변방으로 귀양가게 되었으며 환향을 허락받아 몇차례 부름을 받고도 취직하지 아니하고 산림에서 임종하였다。 직제학 휘 석보는 연산군을 만나 충직한 절개를 세웠으며 칠계군 휘 탁연은 이퇴계의 수제자로 선조대왕시 임진왜란을 만나 자신은 위험하면서 임금을 모신 충성이 있었다。 이 다섯분 선생님들은 모두 온 국민의 신망을 받아 관리들은 경모하여 봄 가을 제사를 감히 게을리 하는 것이 없었는데 무진년 서원철폐로부터 마침내 황무지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숨을 짓게 하였다。 이 다섯분의 후손과 온 나라의 학자들은 차마 그 터가 사라짐을 견딜 수 없어 장차 비석을 세워 기표하려고 나를 불러 말하게 하였다。 슬프구나 이 서원이 존재하였다면 그 제향을 공경히 할 것이요 서원이 철폐되면 그 터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잊지 아니하려는 까닭이며 잊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다。 그사람을 추모하는 것은 그 도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 도를 존경하는 것은 그 후배를 독려하는 것이다。 후배를 위하는 사람은 능히 자신을 독려할 줄 알며 더욱 그 존경하는 이를 존경하게 되고 더욱 그 추모하는 이를 추모하게 되고 오래일수록 더욱 잊지 아니하게 되어 서원의 흥왕과 폐망 때문에 그 마음이 두갈래 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자신을 권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사당이 한없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

도 고기지져 올리는 의식과 나물 삶아 천신하는 것을 한결같이 옛날 예식만 따라 하지만 곧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그런데 하물며 인적없는 깊은 산속 한조각 옛돌이 과연 무엇을 할소냐? 오직 후손들과 후배들이 서로 더불어 돕는것 뿐일것이다。

계유년(1933년) 2월 16일

통정대부전비서원승 안동 김영한은 기록하다

⑫ 鴻浦書院 遺墟碑陰記

從漆原西十里而有鴻浦書院者 尹氏五先生妥享之所也 若漆原伯忠孝公桓 以相業 著麗朝 靖平公子當 翊戴我 太宗豐功 焯然 大司諫養性堂志 以金佔畢齋之徒 罹于禍 遂竄南荒 及其賜環也 累徵不就 仍終山樊 直提學碩輔 値燕山立直節 漆溪君卓然 以退陶高弟 當 穆陵龍蛇之役 有危身奉上之忠 此五先生 皆民望也 衿紳 尊慕之 春秋俎豆 罔敢或怠 自戊辰撤院 鞠爲蕪草 過者輿喟矣 五門遺裔及一邦章甫 不忍廢其地 將琢石以表之 徵余語 嗚虖 院存則絜其享 院廢則記其墟者 盖由乎不忘也 不忘者 爲慕其人也慕其人者 爲尊其道也 尊其道者 爲勵其後人也 爲後人者能知夫自勵焉則愈尊其所尊 愈慕其所慕 其將愈久而愈不忘 不以院之興廢而貳其心也 若無所以自勵者 雖院宇 穹然長存 燔燎擅薌之儀 藴藻蘋蘩之薦 壹遵古禮 直不過文具而已耳 而況空山深林 一片老石 果何爲者哉 唯後承後學 相與勗而已

癸酉殷春哉生明 通政大夫前祕書院丞 安東 金寗漢 記

◇

⑬ 발문(칠원윤씨세가지장)

저 삼대로부터 내려오며 학교를 건립하고 사당을 세웠었다。그 제사의 예법을 찾아보니 거기에 말하기를 예법을 국민에게 베풀었으면 제사지내고 죽도록 일을 부지런히 하였으면 제사지내고 노력으로 국가를 안정시켰으면 제사지내고 큰 재앙과 큰 난을 잘 막아냈으면 제사지내는 것이며 또 향토선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사당에 제사지내는 의의가 있다고 하며 서원을 말하지면 남당때에 시작되어 송나라 시대에 널리 성행하였다。염락과 관민등은 도를 전승한 대현인들이라 지방마다 제사올리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조대왕과 명종대왕의 태평성대에 덕을 숭배하고 어진이를 존경하는 영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현인들의 소재를 정하여 서원을 세우고 현판을 걸어 향토별로 제사올리게 하여 봄과 가을로 제례의식 자리를 베풀었으며 그 지방의 향토 선생을 제사하여 세상 교화를 바로 세우고 유학풍토를 일으키게 하였으니 아름답지 아니한가?

나의 직계와 방계되는 선조 다섯 선생들은 덕업과 공

로가 족히 백세의 모범이 되신다。이것은 옛날 정조대왕의 숭문정책 시에 일국의 유학자들이 낙동강 상류 홍우포 중간에 집을 짓고 현판을 홍포사로한 사당으로 신주를 모시고 춘추로 제사 올리는 의식은 환연히 성대하여 볼만 하였다。고종황제 무진년(1868년)에 이르러 전국의 서원중에 문묘에서 제향하는 성현 이외는 일제히 철거하여 이 홍포서원도 역시 철폐되었다。유림들은 의지할 곳을 잃고 후손들은 한탄을 하게 되었으니 말한들 어찌하랴? 그 후로 60여년이 되도록 한구역 터만 남아 잡초들만 자라고 있으나 그래도 추모하는 정이 들었다。아 그곳은 산을 파내어 그앞에 길을 내었으니 빈터마저 또 자취없이 사라짐에 이를까 두려워 칠원윤씨 종중에서는 지역 사림과 상의하여 비석을 세워 기표하였다。전 승지 김영한이 비석 뒷면 글을 쓰고 전 판서인 윤용구가 앞면을 썼다。계유년(1933년) 4월 5일 을축일에 비석을 세울 때 원근 선비들이 일제히 모여 술과 음식을 진설하고 신위에 고하며 잔치를 열어 낙성식을 하였지만 그 감모의 회포를 견디지 못하여 시문의 운자를 돌려 봄춘자로 시를 읊으니 여러 선비들이 많이 화답하여 수십편에 이르게 되었다。그래서 오선생 행장과 봉안상향문과 축호식과 위차도와 진설도와 향례홀기와 중수통문과 이안환안문과 중수상량문과 철원고유문들을 수집하여 한권을 만들고 사당 유허비문과 안석고유문을 추가로 기록하고 수비운문시 약간을 부록하여 감히 책이름을 칠원윤씨세가지장이라 하였다。상하권을 합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손의 찬고를 대비한다。

계유년(1933년) 7월 16일

후손 영주는 삼가 기록하다

⑬ 跋(漆原尹氏世家誌狀)

蓋自三代以來 建學立祀而考諸祀典 有曰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災大難則祀之 亦有鄕先生歿而祭於社之義而至若書院之名則昉於南唐而盛於有宋 如濂洛關閩 傳道大賢 無邑無祀而我東 仁明盛時 有崇德象賢之典 先正大賢所在 建院宣額 以祀鄕曲 設春秋縟儀之所 祀其鄕先生於以扶植世教 振起儒風矣 可不懿哉 惟我本傍先祖五先生 德業勳勞 足爲百世矜式 肆昔正廟右文之際 一邦章甫 建院于洛江之上度鴻雩浦之間 扁以鴻浦 妥靈而醱享之俎豆之儀 煥乎可觀矣 逮 高宗戊辰 八域之院祠 自文廟從享賢外一並毁撤 本院 亦見撤廢 儒林之失依 遺裔之齎恨 謂當何如哉 厥後六十餘年 一區遺址鞠爲蕪草而猶爲羹墻之慕矣 噫 彼鑿山通道於其前 墟亦將至湮沒故 自本宗 詢謀于士林 伐石以表之 金承旨 寗漢記其陰 尹判書用求 題其額 癸酉四月初五日乙丑 安石 遠近衿紳 齊會 設尊俎以告由 因讌飮以落之 不勝感慕之懷 紛韻得春字 以歌詠 群賢 多和之 至數十篇 仍集錄五先生

行狀 及奉安常享文 祝號式 位次圖 陳設圖 享禮笏記 及重修通文 移安還安文 重修上樑文 撤院告由文 遂成一篇追錄院墟碑陰記 安石告由文 附堅碑韻若干篇 敢題以漆原尹氏世家誌狀 卷上下 合成冊子 以備來後叅攷云

癸酉秋七月旣望 後孫 永周 謹識

◇

⑭ 홍포서원 복설발의 통문 제문 이원하

이 글을 통하여 사안을 알리게 됨은 충신을 표창하고 현인을 권장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리게 함이다。 옛날부터 어디까지 한계이며 그리고 시기가 있겠느냐? 부흥과 패망은 무상한 것이라서 비록 조정에서 명령으로 금지하여 세상 일을 융성하게 하고 침체하게 관여하였지만 그러나 백성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윤리가 있어 끝까지 망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여기에 남겨놓은 터는 있으니 논의하여 중건을 계획하는 것이 어찌 유림들의 책임이 아닐소냐?

우리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홍포에 있는 홍포서원은 고려말기 공민왕때부터 조선 선조대왕 때까지 칠원윤씨이신 다섯 충신과 현인을 제향하는 곳이다。 충효공의 덕업공로와 정평공의 두나라에서의 높은 벼슬과 양성당의 도의문학과 지퇴당의 정직 청백과 중호공의 학문 무술이 이미 임금과 백성에게 혜택을 이루워놓음이 있고 또 역사책에 소상이 기재되어 백세토록 빛나고 있음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난날 돌아가신 선비들이 이 서원과 이 사당에서 남들의 추모를 받고 공경히 제사를 받드는 것이 백세까지 이르러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옛날 고종황제 무진년(1868년)에 국가의 금지령 때문에 마침내 헐리어 철거 되었었다。 아아 슬프도다。 이 서원의 옛터도 무성한 풀만 자라게 된 이후로 백여년이 되었다。 거리를 다니는 과객들도 오히려 이 서원터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빈터 마당에서 한숨을 짓는데 하물며 사림들의 공론이야 이것을 보고 어찌 감동과 탄식이 일어나지 아니할소냐?

우리들은 욕되게도 선생이란 자리에 있기에 차마 폐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 아니하기도 곤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감히 크게 부르는 것이니 엎드려 소원컨대 여러 선비들께서는 인륜을 지키는 일을 같이하며 한 목소리로 찬성하여 선현들이 공부하던 곳에 서원을 다시 지어 아녀자와 어린이들까지도 옛날에 어진이를 숭배하는 제사 의식을 다시보게 하면 천만번 다행이 될것이다。

서기 1972년 임자년 3월 일

⑭ 鴻浦書院復設發議通文

製文 李源夏

右爲文通諭事 表忠奬賢 立祠享祀 自古 何限而有時乎 興廢無常者 雖関朝家之命禁 世道之隆替然 其在下之民彝 極天罔墜 則其在遺墟 擧議圖復 豈非士林之責乎 鄙郡漆西面溪内里鴻浦 鴻浦書院 自麗季恭愍朝至我宣廟 漆原尹氏 五世忠賢 妥享之所也 若忠孝公之德業勳勞 靖平公之榮顯兩國 養性堂之道義文學 止退堂之正直淸白 重湖公之宸文藩武 旣致澤於君民 且昭載於史乘 炳煌百世而無疑者也 是以往世先儒 是院是祠 寓慕羹墻而虔奉俎豆 將百世而未艾矣 往在 高宗戊辰以國禁竟遭毁撤 噫此院址 鞠爲蕪草伊來 百餘禩矣 行路過者 猶此指點棠栢咨嗟町畽 況於士林公議在此則豈不興感發歎乎 鄙等 忝在首善之地 不忍廢而難可含嘿故 玆敢仰籲伏願 僉章甫 秉彝依同 同聲贊助 復院先賢杖屨之地 使婦孺復覩昔日 崇賢醊享之儀 千萬幸甚

檀紀四千三百五年(一九七二)壬子三月 日

◇

⑮ 종중통문

제문 고재봉

이 글은 사안을 알리는 것이다。슬프도다 우리 칠원골 홍포서원은 우리의 선조이신 다섯 현인 선생님들을 춘추로 제사 올리는 곳이다。우리 정조대왕 6년 임인년(1782년)에 서원을 건립한 이후로 몇백년을 춘추로 정성껏 제사를 올리다가 고종황제 무진년(1868년)에 이르러 때마침 꽉 막힌 운수를 만나 마침내 헐리는 변고까지 당하였으니 유림들은 의지할 곳을 잃고 후손들은 한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으랴 이때부터 터만 남아 잡초가 무성한지 지금까지 백여년이 되었다。비록 평범한 행인들도 오히려 이곳을 가르키며 한탄하는데 하물며 사림은 옛날을 숭배하고 어진이를 본받는 의의가 있고 후손들은 추모의 마음이 일어나니 누구인들 감정이 일어나고 탄식이 나오지 아니할소냐? 이 서원을 복원하기로 한지 이미 몇해가 지났는데 시국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사세에 장애가 많아 미루워놓고 결정하지 아니하다가 이제서 사림들이 일제히 일어나 중건의 논의를 크게 일으키었으니 이것은 사실상 천재일우의 기회이다。우리 칠원 윤씨되는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구인들 어깨가 으쓱하고 벌떡 일어서지 아니할소냐? 이제 사실을 두루 알리오며 엎드려 소원컨대 여러 일가들은 동심으로 협조하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것을 천만번 바라는 바이다。

서기1972년 3월 일

종약장

⑮ 宗中通文 製文 高在鳳

右仰告事 噫惟我漆原鴻浦書院 吾先祖 五賢先生 醊享妥靈之所也 始於我 正廟朝六年 壬寅(一七八二) 建院以來幾百年 虔奉俎豆蘋藻之儀 逮夫 高宗戊辰時(一八六八)值否運 竟遭毁撤之變 儒林之失依 遺裔之齊恨 當復如何哉 自此而遺址蕪草者 于今百有餘年矣 雖尋常行路之人猶此指點咨嗟 況乎士林 崇古象賢之義 本裔油然追慕之心孰不興感發歎乎 復院者 己有年矣 然而因時局之未定 事勢之多碍而遷延未果 今者儒林 齊起大擧復設之議 此實千載一遇之會也 爲我本宗者 聞此好音 孰不聳肩躍起乎 玆以事實 輪告伏願僉宗 齊心協贊 殫誠竭力 俾圖見功之地千望萬企

檀紀四千三百五年三月 日

宗約長

◇

⑯ 홍포서원중건상량문 함안 계내

천명의 운수가 막히고 뚫림이 서로 이어져 마침내 국가의 명령으로 훼철을 당하였고 인간의 폐망과 성흥도 운수가 있어 다시 서원의 모습이 준엄한 것을 보게 되었다。 때를 기다려 이룸이요 신의 도움에 힘입음이다。 생각하건대 이곳 화산에 있는 홍포서원은 우리 칠원윤씨의 다섯분 현인을 제사 올리는 곳이다。 신라시대 태사공의 후손이요 고려시대 보윤공의 후손들이시다。 그리고 대대로 덕행이 빛났으며 하물며 역사문헌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야! 일곱대가 군호에 봉해져 가히 우리나라에서 빛나는 가문이 되겠으며 여덟대가 시호를 추증 받았으니 누가 경상도의 명문가임을 부인하겠느냐? 충효공 선조는 현명한 재상으로 임금을 잘 보필하여 벼슬을 하사받고 식읍과 군호를 받는 포상까지 입었으며 두터운 덕과 깊은 사랑으로 비가 내리고 샘물이 솟아나오는 이변을 이루었다。

정평공 선조는 조선시대에 대광보국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중국으로 사신을 다녀와 금자광록대부를 하사받았다。 양성당 선조는 홍천현을 다스려 청백리로 선발이 되었으며 사간원 대간에 임명받고 현량한 인재들을 천거하였다。 지퇴당 선조는 시강경연관을 역임하여 승정원도승지를 추증받았으며 다스린 고을마다 청백한 명성을 남기었다。 헌민공 중호선조는 선조대왕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공로가 있어서 관록과 직위를 하사받았으며 도산서원의 높은 제자로 문학과 행동때문에 높은직위로 추존되었다。

위엄있던 축대는 폐허화되어 모든 것이 상전이 벽해로 변화하는 것을 일깨우며 굳게 세운 비석은 논밭으로 황폐화됨을 견디지 못하였다。 학자들과 후손들이 오래

전부터 한탄한 것은 새삼풀과 규리풀이 애연히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제 신기마을에서 양지바른 곳을 찾아 몇칸의 아름다운 사당을 지었다。어느 언덕 어느 물가는 진실로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요 그 할아버지 그 손자들이 아울러 사당제사 올리고 있다。분명한 일념으로 강당을 짓는 일에 주력하였다。몇년이 이르도록 재물을 모으는데 노력하고 강당터로 아름다운 곳을 찾아 새로 지은 사당 남쪽에 새 강당을 지으려고 일시가 좋은 날을 가려보니 개인달이 거듭 빛나도다。지난날을 추모하니 1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네。다시 세운 새로운 기둥에 반듯한 4칸의 제도를 이루다。축대는 돌로하고 지붕은 기와로 하여 백년토록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따뜻한 아랫목도 되고 서늘한 당상도 되어 선비들이 강의하기에 모두가 적합하였다。빛나는 강물과 산들이 빛을 더해주고 아름다운 운림에서 광휘가 나오고 있으니 어찌 전보다 곱쟁이 그 성의를 더하지 아니 한 것이라? 이어서 이제부터 그 덕을 닦는다면 한갓 내 선조에만 숭배하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며 아마도 역시 우리 후배들을 계도하는것이 될 것이다。

쌍무지개가 떠서 도와주니 비로서 여섯방위로 펼쳐본다。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동쪽에 상서로운 해가 떠서 창틀로 오르고 있도다。신위 주위가 깨끗하여 티끌하나 없으니 스스로 시사를 깨달아 주인에게 문의하였네。들보를 서로 던지니 높은 저 송악산이 구름과 더불어 가지런 하구나。번화하였던 지난날 자취 누구를 찾아 물어볼꼬。여러차례 풍우에 감개만 하구나。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무릉산 빛이 아지랭이에 젖어있네。현민공선생 초상화 있는 집에 춘추제사에 많이 많이 참배하였도다。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일대의 장강이 늘상 흐르고 있구나。근원이 깊고 흐름이 길어 초록빛 연하였으니 후손들 번성하여 그 수가 천억만 되리라。들보를 위로 던지니 장마비 개여 하늘이 명랑하구나。퇴락한 후에 양기가 나오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니 아름다운 소리 퍼져 메아리로 이어졌네。들보를 밑으로 던지니 비에 젖은 농곡들 큰 들판에 펼쳐있도다。관리、농부、장사꾼、공쟁이、각자들 적합하니 일심으로 사원을 존경하고 호위하리라。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한 후에는 준수한 인재 배출하고 문화와 교육이 진흥되어 정성과 공경을 으뜸으로 여기고 음란하고 사벽한 말을 물리쳐 풍화로 인도하고 충효를 권장하며 도의를 숭상하여 인륜을 보호하리라。전인들이 닦아놓은 덕업과 계획이 백세까지 내려가며 빛나고 이 서원의 춘추제사 음악소리 천추에 뻗어 이어지리라。

서기 1981년 7월 16일에

후손 홍근은 삼가 짓다

⑯ 鴻浦書院 重建上樑文

咸安 溪內

天運之否泰相尋 遽遭邦令之毁撤 人事之廢興 有數 復覩院貌之尊嚴 待時而成 賴神之佑 恭惟此華山之鴻浦一院吾漆尹之妥享五賢 新羅太師遺苗 高麗甫尹後裔 而世德之烜爀 矧文獻之足徵 七代封君 可爲東國華閥 八世贈謚 誰否南州名家 忠孝公先祖 賢相良弼 蒙錫采易名之崇褒 厚德深仁 致降雨湧泉之異瑞 靖平公先祖 在朝而陞大臣輔國領相 使華而賜金紫光祿大夫 養性堂先祖 宰洪川縣監 選清白吏 拜薇垣大諫 擧賢良材 止退堂先祖 侍講經筵 贈銀臺華秩 遺愛州郡 播冰蘗清聲 憲敏公重湖先祖 穆陵南訌以勳功 下賜祿券 陶山高足 以文行 推重襟紳 畏壘化墟儘覺滄桑變幻 貞珉竪表 不忍水地廢荒 章甫雲仍 久矣齎髒 兎葵燕麥 緊然興傷 肆占一區新基之陽 載營數架於穆之廟 某邱某水 允叶桑梓之鄕 是祖是孫 幷享俎豆之薦 炳然一念 傾注講堂之經營 至矣積年 勤勞貲貸之摒擋 相基址之爽塏 新祠南園 卜日時之佳良 重光窝月 追惟過惻 經一甲之星霜 重構新楹 成四架之制度 築以石蓋以瓦 百年之風雨 惟除 煉爲窒涼爲堂 多士之講誦 俱適 煥然江山增彩 美哉雲林 生輝 盍倍前而益輪其誠 繼自今而聿修厥德 不徒崇報吾先祖 抑亦啓牖我後人 助擧雙虹 載陳六偉兒郎偉抛樑東 扶桑瑞旭 上窓櫳 神襟 灑落無塵累 惺惺時常問主翁 抛樑西 巍然松嶽 與雲齊 繁華往逆 憑誰問 三復風泉感慨兮 抛樑南 武陵山色 滴晴嵐 憲敏先生遺影閣釋菜誕辰濟濟參 抛樑北 一帶洛江 常浞浞 源遠流長茀祿連 後昆蕃衍麗千億 抛樑上 潦雨旋晴天宇朗 剝後陽生 理固然 瑤琴 宜得紹遺響 抛樑下 雨露桑麻開大野 仕學農工各適宜 一心尊衛院祠者 伏願上樑之後 儁髦輩出 文敎振興 主誠敬斥淫邪 以導風化 奬忠孝崇道義 以扶綱常 前修之德業風猷 垂百世而炳耀 斯院之祼薦絃誦 亘千秋而連綿

檀紀四千三百十三年辛酉七月旣望 後孫 弘根 謹撰

◇

⑰ 홍포서원중건기

함안 계내

두류산은 우리나라의 신령스런 산이다。그 산세는 깊고 크고 높고 넓어 남쪽지방을 누르고 있으며 펼쳐있는 높은 봉우리와 여러 산봉이 모이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동쪽으로 한맥이 뻗어 멀리까지 이어지며 그 높고 낮은 것이 무상하며 수백리를 뻗어 함안과 창녕의 경계까지 이르다가 광려산이 주봉을 일으키며 북쪽으로 삼십리쯤 꺽어져 다시 돌아 앉고 동으로 몇번을 활같은 지세가 되어 돌다가 멈추어 형세가 누워있는 용같이 되어 멈추고 낙동강 푸른물은 그 서북쪽으로 둘러있고 천주산과 무릉산은 그 동남쪽으로 돌아 깊숙히 포옹하고 있으며 하나의 큰 촌락을 이루었으니 바로 칠원골 유동이다。지사들이 말하는 명당터이며 그리고 칠원윤씨의 고려에

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일대 발상지였으니 이것은 그 지세가 신령스럽고 인재가 걸출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섯 임금을 섬기며 세차례 수상이 되었고 지광이를 꽂아 가뭄을 구제하고 망하고 곤궁한 빈민을 구제한 충효공 선생과 재목이 경영과 문장을 겸하고 충성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였으며 직위가 재상에 올라 임금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맹서를 한 정평공 선생과 학문과 덕행이 조정과 시골에 소문나 집현전에 선입되어 역사에 빛나는 양성당 선생과 바른말로 간하다가 유배를 당하였으나 청백리로 소문나 있고 혼탁한 조정에서 절개를 가지고 몸을 굽혀가며 도를 펴낸 지퇴당 선생과 퇴계선생의 수제자로 학문과 덕행이 일찌기 독단하였고 충성이 해와 달에 가지런하며 임해군을 업고 사직을 도운 중호선생이 있었으니 모두가 백세의 스승이 된다。 모범된 법을 국민에게 내리고 교육을 세상에 남기어 혈기가 있는 사람이면 존경하고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우대하여 포상하고 직위를 높여주는 예가 있었으며 후세에는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 올리는 것이 있으니 그들을 앙모하는 정은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고종 무진년(1869년)에 서원철폐 명령이 있어서 그 현인을 존경하는 자리가 무성한 풀밭이 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일어남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해방이 되어 영광을 회복후 갑인년중에(1974년) 여러후손들이 회의를 하여 복원계획을 하였는데 후손중에 춘박씨를 종사의 주간으로 삼아 감독을 두고 병재와 종낙이가 공사를 맡았는데 여러 선비들도 오래도록 의지할 곳 없이 한숨만 쉬던 나머지 더불어 협찬하기를 좋아하였다。 옛터와 연관시키어 사람들보고 선택하도록 하였더니 고개넘어 높고 상쾌한 곳을 터로 잡아 몇일이 되지 아니하여 사당이 완성되었다。 위패를 받들어 편안히 모시었으나 오직 강당만은 갑자기 짓기가 어려워 한탄하다가 육년이 지난 기미년(1979년)에 후손되는 홍근이 윤씨의 모든 일가를 대표하여 인력을 바꾸어 공사를 시작하고 병상이 공사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전국의 후손들도 각기 능력에 따라 성의를 내고 재물을 모아 여름동안 완공이 되었으니 4칸에 앞기둥이 다섯개이고 건너편에 크게 남북으로 방을 만들고 대청은 중앙에 두었으며 행랑채는 네모반듯하게 지어 좌우에 창고를 만들고 중앙은 대문을 내니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여 거의 목욕재계하고 유숙하면서 제사올리기에 적합한 곳이 되었다。 이미 낙성식을 끝내고 경신년(1980년) 봄 춘향제사 후에 후손들과 여러 선비들이 나에게 당시 원장책임을 주고 나에게 중건문 기록을 위촉하여 내 비록 문장가는 아니나 이 고장에 사는 후배이며 또 명예로운 일을 부탁하니 사실상 영광이 된다。

차마 완고하게 사양하지 못하고 글에 말하기를 이 서원의 설립은 다만 그 사람들만 추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도와 학문을 추모하며 잘 수행하고 잘 배워서 다같이 그 사람의 지위에 돌아가 임금은 요순의 임금으로 만들고 국민은 요순의 국민으로 만들면 마침내 정치는 위에서 융성하게 되고 풍속은 아래에서 아름다워질 것이다。이를 배반하면 타고나온 본연의 착한 성품을 잊게 되고 기질의 습관에 교활하여져 각자 습성만 주장하고 서로간 다투어 국민의 윤리가 붕괴될 것이다。하늘이 충심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그 현인을 추모할 수 있을까? 오직 소원하건대 우리들은 열심히 더 살펴보아 나의 습관에 얽매임이 없고 기질에 용납하는게 없이 오직 선현들이 현인이 되고자 노력한 것을 생각하여 생각마다 잊지 않고 있으면 어진이 추모하는 실상이 여기에서 가히 거행될 것이니 어찌 우리들의 도에 다행이 아니겠는가? 서로서로 더불어 힘쓸지니라。

경신년 1980년 7월 16일

분성 배문준은 삼가지음

⑰ 鴻浦書院 重建記 溪內

頭流山 吾邦之靈岳也 其勢 雄深宏偉 高大曠邈 鎭南土 列峀群巒 莫不朝宗 東馳一脉 逶迤綿綿 起伏無常 延迤數百里 至于咸昌之界 匡廬山 作中主峰而北折一舍許 回環反抱 向東若數弓地 逡巡磅礴 有形如臥龍而蹲止 洛江 菁川 繞其西北 天柱 武陵 環其東南 幽窈抱擁 成一大村落 即漆原柳洞也 形家所謂名基也而漆原尹氏之自麗至朝 大發祥地也 是不其地靈人傑之驗也歟 有若歷事五朝 三爲首相 植杖救僕 傾困療貧之忠孝公先生 材兼經述 輸忠報國 位至崇秩 主盟帶礪之靖平公先生 文學行誼 聲邁朝野 選入集賢 筆煥千秋之養性堂先生 直諫及流 淸白播聲 秉節昏朝 身屈道伸之止退堂先生 退翁高弟 文行夙擅 忠幷日月 負君輔社之重湖先生 皆百世師也 垂範民彝 貽敎天衷 凡有血氣者莫不尊崇 當時而有朝家之優典崇秩 後世而有士類之立祠揭儀 其景仰之情 罔敢或忽 因高宗戊辰撤院之令 黌墻之所 鞠爲茂草 未免爲有志者之興嗟矣 逮在光復後甲寅年間 諸後承 發議謀復 後孫春博 以宗任主幹 有愼炳材鍾洛 專役之 僉章甫 久嘆無依之餘 樂與之協贊之因舊基之爲人所占 相址於越嶺爽塏處 不日而祠宇成焉 奉牌而妥安之 惟恨講堂之猝難成 越六年己未春 後孫弘根 代尹氏全宗 替力而起工 炳相 助役之 八域後承 各因其力而發誠鳩財 間夏而告功 四架五楹 輪焉奐焉而南北 爲房 廳

事居央 廊在當方而左右爲庫 中焉爲門 冬溫夏凊 庶可爲齊宿之絃誦之適耳 旣落而庚申春季享儀之後 後承與僉章甫 以余時任之責 囑記於余 余雖不文 實在鄕中後進 且托名於是役 實爲榮幸 不忍固辭而書之曰 書院之設 非但爲慕其人而已矣 慕其人之道與學而善修而善學之 共歸於其人之地則君爲堯舜其君 民爲堯舜其民而能遂治隆於上 俗美於下者也 反是而忘覺乎所受本然之性善而巧猾乎氣質之所習 各主所習而互相頡頏則民彝乖矣 天衷 喪矣 惡在乎其慕賢也 惟願吾人 猛加省察 無囿乎我習 無容於使氣 惟想乎先賢之爲賢而念念不忘則慕賢之實 斯可擧矣 豈不爲吾道之幸也歟 互相與勉旃哉

歲庚申七月旣望 盆城 裵文準 謹撰

◇

(2) 사 당

① 鴻浦祠五先生奉安文 (홍포사 5선생봉안문)

려계국시 운계문명
○ 麗季國始 運啓文明
(고려말과 조선개국시에 문명의 운세가 열리니)

일문오현 유악강정
○ 一門五賢 維嶽降精
(칠원윤문에서 다섯현인이 하늘의 정기를 띠고 탄생하셨도다)

재온경제 세독충정
○ 才蘊經濟 世篤忠貞
(넉넉한 재능으로 세상을 경영하여 온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위한 굳은마음 대대로 이었으니)

풍공성덕 백세방명
○ 豊功盛德 百世芳名
(거두신공 지대하고 펼치신덕 성대하여 백세에 이름이 전하도다)

사책재록 이정륵명
○ 史策載錄 彝鼎勒銘
(청사에 실리고 소중한 기물에 새겨지도다)

내건사우 보식천령
○ 乃建祠宇 報食千齡
(바로 사당을 지어 만세토록 향화를 올리리라)

숭정기원후임인팔월 일
崇禎紀元後壬寅八月 日

서기 1662년(현종3년)

은진 송환기 찬
恩津 宋煥箕 撰

② 祝號式 (축호식)

유
維

년호기년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후학모등
○ 年號幾年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後學某等

(년 월 일에 후학 ○○등은)

감소고우
○ 敢昭告于

(삼가 밝게 아뢰옵니다)

충효공윤선생
○ 忠孝公尹先生

(충효공 윤선생께서는)

각수기위
○ 各隋其位

(다른 선생님도 충효공선생님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독상향문흘
○ 讀常享文訖

(상향축문을 다 읽는다)

자치말정
○ 玆値末丁

(이에 말정일을 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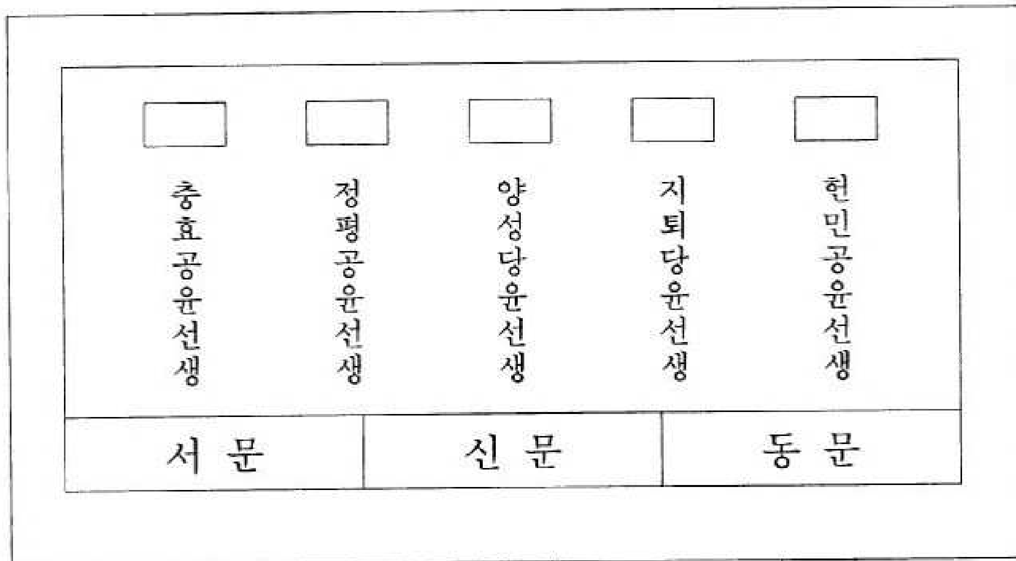
근이자성서품
○ 謹以粢盛庶品

(삼가 곡식과 여러가지 제수품을 장만하여)

식진명천상향
○ 式陳明薦尙饗

(밝은날에 진설하고 향례를 올리오니 흠향하십시오)

홍포사 봉안 및 배치도



서계 | 신도 | 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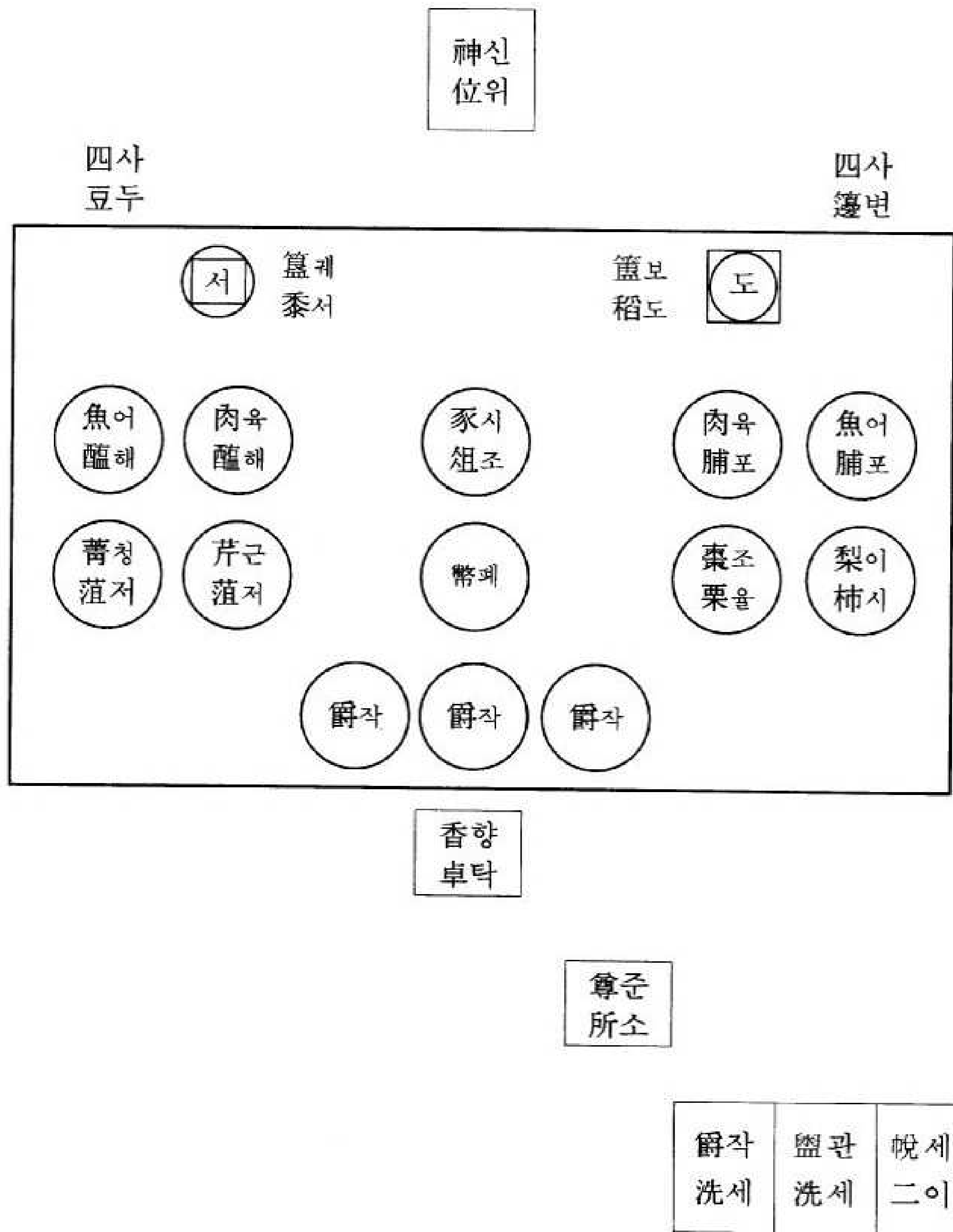
헌관 | 집사

제 관 | 제 관

참 사 자 | 참 사 자

서문 | 신도 | 동문

鴻浦祠陳設圖
(홍포사진설도)



⑤ 향례홀기 享禮笏記

축급제집사개취문외위
○ 祝及諸執事皆就門外位
(축관과 여러 집사들은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가시오)

현관급학생구취문외위상향읍
○ 獻官及學生俱就門外位相向揖
(헌관과 학생들은 함께 문밖의 자리로 나가 서로 마주보고 읍을 하시오)

집례선취계간배위재배
○ 執禮先就階間拜位再拜
(집례는 먼저 계단사이 절하는 자리로 나가 두번 절을 하시오)

입어동서량영간창홀
○ 立於東序兩楹間唱笏
(동쪽 두기둥 사이에 서서 홀기를 읽으시오)

축급제집사입취계간배위개재배
○ 祝及諸執事入就階間拜位皆再拜
(축관과 모든 집사들은 계단사이 절하는 자리로 나가 모두 두번 절하시오)

인예관세위관수세수각취위
○ 因詣盥洗位盥水帨手各就位
(그리고 손씻는 곳으로 나가 대야물에 손을 씻고 각자 위치로 나가시오)

사촉점촉축승자서계동향립장의승자동계서향립사준
○ 司燭點燭祝陞自西階東向立掌儀陞自東階西向立司尊
봉작구예준남북향립봉향봉로전작구예신위전서립
奉爵俱詣尊南北向立奉香奉爐奠爵俱詣神位前序立
(사촉은 촛불을 켜고 축관은 서쪽계단으로 올라가 동쪽을 향하여 서고 장의는 동쪽계단으로 올라가 서쪽을 향하여 서고 사준과 봉작은 다같이 술병앞으로 나가 서로 남북으로 향하여 서고 봉향과 봉로와 전작은 다같이 신위앞으로 나가 차례대로 서시오)

현관급학생입취배위
○ 獻官及學生入就拜位
(헌관과 학생들은 절하는 자리로 들어오시오)

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관수세수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水帨手
(알자는 초헌관을 손씻는 곳으로 인도하시오 초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고)

승자조계점시진설출자동문강복위
○ 陞自阼階點視陳設出自東門降復位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진설된 것을 점검하고 동쪽문으로 나와 내려와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축개독개
○ 祝開櫝開蓋
(축관은 위패함을 열고 덮개를 열으시오)

헌관개재배학생개재배
○ 獻官皆再拜學生皆再拜

(헌관은 다같이 두번 절하고 학생들도 다같이 두번 절하시오)

알자진초헌관지좌근구청행사
○ 謁者進初獻官之左謹具請行事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가 삼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행사하기를 초헌관에게 요청하시오)

행헌폐례
行獻幣禮(폐백 올리는 예를 행하시오)

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관수세수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水帨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으시오)

인예충효공윤선생신위전북향궤
○ 引詣忠孝公尹先生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으로 인도하여 충효공 윤선생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무릎꿇어 앉으시오)

봉향봉향합봉로봉향로헌관삼상향
○ 奉香奉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며 초헌관은 세번 향을 피우시오)

축이폐비수헌관
○ 祝以幣篚授獻官

(축관은 폐백그릇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헌관집폐헌폐이수축전우신위전
○ 獻官執幣獻幣以授祝奠于神位前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앞에 올리시오)

인예정평공신위전북향궤
○ 引詣靖平公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정평공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봉향봉향합봉로봉향로헌관삼상향
○ 奉香奉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며 초헌관은 세번 향을 피우시오)

축이폐비수헌관
○ 祝以幣篚授獻官

(축관은 폐백그릇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폐헌폐이수축전우신위전
○ 獻官執幣獻幣以授祝奠于神位前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앞에 올리시오)

인예양성당윤선생신위전북향궤
○ 引詣養性堂尹先生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양성당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

시오)

봉향봉향합봉로봉향로헌관삼상향
○ 奉香奉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며 초헌관은 세번 향을 피우시오)

축이폐비수헌관
○ 祝以幣篚授獻官
(축관은 폐백그릇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폐헌폐이수축전우신위전
○ 獻官執幣獻幣以授祝奠于神位前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앞에 올리시오)

인예지퇴당윤선생신위전북향궤
○ 引詣止退堂尹先生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지퇴장 윤선생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봉향봉향합봉로봉향로헌관삼상향
○ 奉香奉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며 초헌관은 세번 향을 피우시오)

축이폐비수헌관
○ 祝以幣篚授獻官
(축관은 폐백 그릇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폐헌폐이수축전우신위전
○ 獻官執幣獻幣以授祝奠于神位前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앞에 올리시오)

인예헌민공윤선생신위전북향궤
○ 引詣憲敏公尹先生神位前北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헌민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봉향봉향합봉로봉향로헌관삼상향
○ 奉香奉香盒奉爐奉香爐獻官三上香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봉로는 향로를 받들며 초헌관은 세번 향을 피우시오)

축이폐비수헌관
○ 祝以幣篚授獻官
(축관은 폐백그릇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폐헌폐이수축전우신위전
○ 獻官執幣獻幣以授祝奠于神位前
(초헌관은 폐백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신위앞에 올리시오)

인강복위헌관개재배
○ 引降復位獻官皆再拜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고 헌관들은 모두 두번씩 절을 하시오)

행초헌례
行初獻禮(초헌례를 행하시오)

○ 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관수세수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盥水帨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으시오)

○ 인예작세위 북향립
引詣爵洗位 北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잔을 씻는 곳으로 인도하고 초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 봉작이작수헌관 세작식작이수봉작
奉爵以爵授獻官 洗爵拭爵以授奉爵
(봉작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은 잔을 씻어 봉작에게 주시오)

○ 봉작봉잔반구예준소 헌관서향립
奉爵奉盞盤俱詣尊所 獻官西向立
(봉작은 잔을 받들고 술있는 곳으로 초헌관과 함께 가고 초헌관은 서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 사준거멱작주 봉작겸봉작수주
司尊擧冪酌酒 奉爵兼奉爵受酒
(사준은 뚜껑을 열어 술을 따르고 봉작은 술잔을 받들고 술을 받으시오)

○ 구예충효공윤선생신위전궤
俱詣忠孝公尹先生神位前跪
(초헌관은 봉작과 함께 충효공 윤선생신위앞으로 가고 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이작수헌관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서점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西坫
(초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 서쪽자리에 올리시오)

○ 헌관부복흥평신
獻官俯伏興平身
(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 인예정평공윤선생신위전궤
引詣靖平公尹先生神位前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정평공 윤선생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이작수헌관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주시오)

○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서점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西坫
(초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의 서쪽자리에 올리시오)

○ 헌관부복흥평신
獻官俯伏興平身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양성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養性堂尹先生神位前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양성당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서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西坫
(초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서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지퇴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止退堂尹先生神位前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지퇴당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서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西坫
(초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서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헌민공윤선생신위전궤
○ 引詣憲敏公尹先生神位前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헌민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서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西坫
(초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서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인예중정궤
○ 獻官俯伏興平身　因詣中庭跪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뜰가운데로 나아가 꿇어 앉으시오)

축예헌관지좌동향궤독축문
○ 祝詣獻官之左東向跪讀祝文
(축관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흘복위
○ 訖復位

(축 읽는 것이 끝나면 축관은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헌관부복흥평신 인강복위
○ 獻官俯伏興平身 因降復位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고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행아헌례
行亞獻禮(아헌례를 행하시오)

찬자인아헌관예관세위관수세수
○ 贊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水帨手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손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으시오)

인예작세위북향립
○ 引詣爵洗位北向立
(찬자는 아헌관을 잔을 씻는 곳으로 인도하고 아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세작식작이수봉작
○ 洗爵拭爵以授奉爵
(아헌관은 잔을 씻어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봉잔반구예존소 헌관서향립
○ 奉爵奉盞盤俱詣尊所 獻官西向立
(봉작은 잔을 받들고 술있는 곳을 아헌관과 함께가고 아헌관은 서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사준거멱작주 봉작겸봉작수주
○ 司尊擧冪酌酒 奉爵兼奉爵受酒
(사준은 뚜껑을 열어 술을 따르고 봉작은 잔을 받들고 술을 받으시오)

구예충효공윤선생신위전궤
○ 俱詣忠孝公尹先生神位前跪
(아헌관은 봉작과 함께 충효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가고 아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중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中坫
(아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가운데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정평공윤선생신위전궤
○ 引詣靖平公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정평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중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中坫
(아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가운데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평신
○ 獻官俯伏平身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양성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養性堂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양성당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헌관은 끓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중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中坫
(아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가운데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지퇴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止退堂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지퇴당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헌관은 끓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중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中坫
(아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가운데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헌민공윤선생신위전궤
○ 引詣獻敏公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헌민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헌관은 끓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전우신위전중점
○ 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奠于神位前中坫
(아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가운데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인강복위
○ 獻官俯伏興平身 因降復位
(아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행종헌례
行終獻禮(종헌례를 행하시오)

찬자인종헌관예관세위관수세수
○ 贊者引終獻官詣盥洗位盥水帨手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손 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대야물에 손을 씻으시오)

인예작세위북향립
○ 引詣爵洗位北向立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잔을 씻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북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헌관에게 주시오)

세작식작이수봉작
○ 洗爵拭爵以授奉爵
(종헌관은 잔을 씻어 봉작에게 주시오)

봉작봉잔반구예준소헌관서향립
○ 奉爵奉盞盤俱詣尊所獻官西向立
(봉작은 잔을 받들고 술있는 곳으로 종헌관과 함께 가고 종헌관은 서쪽으로 향하여 서시오)

사준거멱작주봉작겸봉작수주
○ 司尊擧冪酌酒奉爵兼奉爵受酒
(사준은 뚜껑을 열어 술을 따르고 봉작은 잔을 받들고 술을 받으시오)

구예충효공윤선생신위전궤
○ 俱詣忠孝公尹先生神位前跪
(종헌관은 봉작과 함께 충효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가고 종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전우신위전동점
○ 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奠于神位前東坫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동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정평공윤선생신위전궤
○ 引詣靖平公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정평공 윤선생 신위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동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東坫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
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동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양성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養性堂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양성당 윤선생 신위앞으
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동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東坫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
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동쪽 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지퇴당윤선생신위전궤
○ 引詣止退堂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지퇴당 윤선생 신위앞으
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동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東坫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
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동쪽자리에 올리시오)

헌관부복흥평신
○ 獻官俯伏興平身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오)

인예헌민공윤선생신위전궤
○ 引詣憲敏公尹先生神位前跪
(찬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헌민공 윤선생 신위앞으
로 나아가게 하고 종헌관은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수헌관
○ 奉爵以爵授獻官
(봉작은 잔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집작헌작이수전작전우신위전동점
○ 獻官執爵獻爵以授奠爵奠于神位前東坫
(종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올릴 수 있도록 전작에
게 주고 전작은 신위앞 동쪽자리에 올리세요)

헌관부복흥평신 인강복위헌관개재배
○ 獻官俯伏興平身 因降復位獻官皆再拜
(종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시고 내
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헌관들은 모두들 두번

씩 절을 하시오)

행음복례
行飮福禮(음복 례를 행하시오)

알자인초헌관예음복위서향궤
○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西向跪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곳으로 나아가게하고 초헌관은 서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봉작이작복주이수헌관
○ 奉爵以爵福酒以授獻官
(봉작은 잔에 복술을 따라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음졸봉작수허작복우점
○ 獻官飮卒奉爵受虛爵復于坫
(초헌관은 술을 마시고 나면 봉작은 빈잔을 받아 본래 자리에 놓으시오)

축진감신위전조육이수헌관
○ 祝進減神位前胙肉以授獻官
(축관은 앞으로 나가 신위앞에 놓인 고기를 덜어 초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수조이수축복우점
○ 獻官受胙以授祝復于坫
(초헌관은 고기를 받아서 먹은후 그릇을 돌려주면 축관은 본래 자리에 올려 놓으시오)

헌관부복흥인강복위
○ 獻官俯伏興因降復位
(초헌관은 엎드려 있다 일어나 내려와 본래자리로 돌아가시오)

축급제집사강복위
○ 祝及諸執事降復位
(축관과 여러 집사들은 내려와 본래자리로 돌아오시오)

헌관급재위자개재배축합독
○ 獻官及在位者皆再拜祝闔櫝
(헌관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들 두번씩 절을하고 축관은 신위함을 덮으시오)

행망료례
行望燎禮(망료의 례를 행하시오)

알자인초헌관예망좌위북향립
○ 謁者引初獻官詣望座位北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례의 자리로 나아가게하고 초헌관은 북쪽을 향하여 서시오)

축취축판급폐출자서문료우감
○ 祝取祝版及幣出自西門燎于坎
(축관은 축판과 폐백을 가지고 서쪽 문으로 나와 구덩이에서 불사르시오)

실토반감인복위
○ 實土半坎因復位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우고 본래자리로 돌아오시오)

○ 알자진초헌관지좌백례필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는 초헌관의 좌측으로 나아가 제례가 모두 끝났음을 고하시오)

○ 헌관급학생개출문축급제집사이차출
獻官及學生皆出門祝及諸執事以次出
(헌관과 학생들은 모두 문밖으로 나가시오。축관과 여러 집사들도 차례로 나가시오)

○ 집사자입철변두례필
執事者入撤籩豆禮畢
(집사들은 들어가 제수그릇을 거두시오。제례가 모두 끝났읍니다)

◇

⑥ 제향축문 祭享祝文

유
維

세차간지삼월간지삭기일간지 후학성명감소고우
歲次干支三月干支朔幾日干支 後學姓名敢昭告于
(○년○월○일 후학 ○○○는 감히 밝게 아뢰옵니다)

충효공윤선생복이신사오조삼위수규적제계세도광칠지립공용수산재휼민식진조두백세향인
忠孝公尹先生伏以身事五朝三爲首揆適際季世韜光漆址立笻湧水散財恤民式陳俎豆百世享禋
(충효공 윤선생을 엎드려 생각하오니 다섯 조정에서 벼슬하며 세차례 수규에 오르셨고 고려말기에 칠원 고향에서 은거하시며 지팡이를 꽂아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구휼하셨기에 삼가 제수음식을 베풀어 백세토록 제사를 올립니다)

정평공윤선생복이립신명정수충보국지재지문문헌재록자향추음일사욕의문풍백세기경민이
靖平公尹先生伏以立身明廷輸忠報國之材之文文獻載錄梓鄕楸陰一祠褥儀聞風百世起敬民彛
(정평공 윤선생을 엎드려 생각하오니 현명한 임금이 계신 조정에서 출세하여 충성으로 나라에 보답하셨으며 그 큰 인재됨과 그 빛나는 문장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읍니다。고향의 선영하에 사당세워 제사 모시오니 백세토록 백성들의 옳은 도리 공경을 일으키고 있지요)

양성당윤선생복이선입집현학사청망삼현추후이반고상가둔림천유휴경광
養性堂尹先生伏以選入集賢學士淸望三賢推詡二班翺翔嘉遯林泉有休耿光
(양성당 윤선생을 엎드려 생각하오니 집현전에 선입되어 학사들의 존경을 받으셨으며 현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시고 동반 서반에서 높은 벼슬을 하셨으나 군신간의 의리를 지키시어 산림에 은거하셨으니 아름다운 명성 더욱 더 빛이 납니다)

지퇴당윤선생복이급류직절재석청성신굴도신보사천령
止退堂尹先生伏以及霤直節載石淸聲身屈道伸報祀千齡

(지퇴당 윤선생을 엎드려 생각하오니 한결같이 절개를 곧게하셨기에 아름다운 청백리 소문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굽혀 도를 펴놓으셨으니 천년토록 제사로 보답합니다)

헌민공윤선생복이변무수충정난분의알적서돌계자저배유상름연향인백재자치하정정인시의근이생폐예재자성서품식진명천상
憲敏公尹先生伏以辨誣輸忠靖難奮義遏賊西突戒子沮背遺像凜然享禮百載茲値下丁精禋是宜謹以牲幣醴齋粢盛庶品式陳明薦尙

향
饗

(헌민공 윤선생을 엎드려 생각하오니 왕실의 무고 밝힘에 충성을 다하시고 난을 안정시키고자 분발하여 서쪽으로 진격하는 적군을 막아내고 한편으로 자식들에게 옷가지에 글을 적어 뒤에서 경계하셨읍니다。 초상화 늠름하신 모습 우러러보며 백세토록 제사 올립니다。 말정일에 정결한 제사모시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기에 삼가 회생 폐백 단술 부추 제사쌀 여러가지 제수 공경히 베풀어 바치오니 흠향하소서)

◇

⑦ 안석고유문

유세차 계유년 4월 신유삭일 초5일 을축날에 후배인 박희열등은 감히

문하시중칠원백 충효공 윤선생신위와 익대좌명공신 의정부영의정 부원군 정평공 윤선생신위와 사간원 대사간 양성당 윤선생 신위와 청백리 홍문관직제학 지퇴당 윤선생신위와 광국공신 호조판서 칠계군 헌민공 증호 윤선생신위에게 소명하게 고하옵나이다。 칠원윤씨 시조는 태산같은 정기를 받고 탄생하여 다섯 현인이 계승되어 대대로 충성을 독실히 하여 많은 공로와 위대한 업적이 있고 높은 학문과 깊은 학문이 온 나라에 존경을 받아 백대까지 탁월하였다。 그 숭고한 업적에 보답을 무엇으로 할까? 오직 제사올리는 것이다。 봄과 가을 정일이면 유림들이 분주하였으나 일조에 서원이 철폐되어 무성한 잡초만 자라고 있어서 처량하게 보여 지나가는 나그네 경례도 못하게 되었다。 인성이 남아있다면 차마 그자리 폐지할소냐? 사실대로 표기하여 비석을 여기에 세워놓고 삼가 술과 과일로 경건하게 고하고 삼가 고하옵니다。

⑦ 安石告由文

維歲次 癸酉四月 辛酉朔 初五日乙丑 後學 朴熙烈等 敢
昭告于
門下侍中 漆原伯 忠孝公 尹先生
翊戴佐命功臣 議政府領議政府院君 靖平公 尹先生

司諫院大司諫 養性堂 尹先生
淸白史 弘文館直提學 止退堂 尹先生
光國功臣 戶曹判書 漆溪君 憲敏公 重湖 尹先生之位 漆原氏祖 光嶽降精 五賢相繼 世篤 忠貞 豐功偉烈 高文邃學 一邦瞻仰 百代卓犖 崇報伊何 維俎維豆 春秋兩丁 衿紳奔走一朝撤院 蕪草其鞠 滿目荒凉 過者莫式 彝性所在 忍廢其地 紀實以表 貞珉斯峙 謹以酒果 用虔告謹告

◇

⑧ 5선생 신위 이안 고유문

서기1998년 7월 25일 전해군대령 후손 영원은
충효공 윤선생과
정평공 윤선생과
양성당 윤선생과
지퇴당 윤선생과
헌민공 중호 윤선생에게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세월이 오래되면서 사당집이 퇴락하여 훼손되었고 또 협소함으로 인하여 제기들을 움직이기도 곤란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시 지으려고 논의하였으나 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며 이제서 논의가 합해져 날을 선택하여 공사를 시작하니 위패의 자리를 편안한 곳으로 옮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어포와 과실을 차려놓고 감히 그 취지를 고하오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높으신 혼령께서는 놀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⑧ 五先生 神位 移安 告由文

維
歲次戊寅七月辛丑朔二十五日乙丑前海軍大領後孫英遠
敢昭告于
忠孝公尹先生
靖平公尹先生
養性堂尹先生
止退堂尹先生
憲敏公重湖尹先生伏以歲月滋久祠宇頹毁亦因狹促難容簠簋 久謀修復經理不侈今玆謀同擇期工始縟座移安莫可乃已謹具脯果敢告厥旨伏惟 尊靈勿驚勿葸

◇

⑨ 홍포사 중건 상량 고유문

서기1998년 9월 9일에 유학 배문준은
토지신에게 삼가 고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울창한 용화산과 낙동강 깊은 물이 있고 산들이 둘러 있고 물이 안고 있어 자연적으로 명당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원터로 잡아 홍포사를 건립하니 많은 선비들이 달려와 예의를 크게 성행시키었습니다. 누구를 봉

안하였는고 윤씨의 다섯 현인들이시니 충의가 엄숙하고 문학이 깊고 깊었었습니다。 일백년을 내려오며 춘추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많았는데 학문의 운세가 불길하여 진시황같은 시대를 만나 무성한 잡초만 자라서 선비들이 빈축하게 하였습니다。 후배들이 정성을 일으키어 이에 재건을 논의하여 바로 계곡너머에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 논의가 여러 사람의 공론과 합치되어 갑자기 큰 업을 이루게 되었으나 계획대로 완성되지 아니하여 그 규모들이 협소해서 중건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자식 같이 찾아와 오늘 상량을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사유하오니 존엄하신 신령께서는 영원토록 끝없이 보호하여 주시며 높이 흠향하소서。

⑨ 鴻浦祠 重建 上樑 告由文

維

歲次戊寅九月庚子朔初九日戊申幼學裵文準 敢昭告于
后土氏之神伏以有巋龍山洛水浚洄山環水抱名基自開乃卜院墟鴻浦祠建多士駿奔禮儀憲憲爲誰之奉尹氏五賢忠義肅肅文學淵淵爾來百載俎豆華華文運不幸乃逢嬴秦鞠爲茂草士類興嚬後承發誠爰謀重建乃於越谷謀合衆論猝成大業計不完成規模狹窄不無重營衆誠子來今日上梁
伏惟
尊靈永護洋洋尙
饗

⑩ 5선생 신위 환안 고유문

서기1999년 3월9일에 유학 배문준은
충효공 윤선생과
정평공 윤선생과
양성당 윤선생과
지퇴당 윤선생과
헌민공 중호선생에게 삼가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국가는 운수가 없어서 우리의 유도도 역시 막히게 되었고 학문의 길을 이어갈 시설들도 따라서 역시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아 어찌하여 무성한 잡초만 오래도록 무성하였을까? 하늘의 운수가 돌고 돌아 반복되지 아니하는게 없어서 우리의 유도에도 운수가 돌아와 국가의 힘을 회복하고 서원들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지만 마음먹은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들의 공론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를 참고하여 재목을 구하고 설계를 하였고 목공을 불러들여 공사를 시작하여 세월이 지나 이제 겨우 일을 끝내고 신위자리가 정돈되기에 신위패를 원래 자리로 돌려 모시고 삼가 술과 과실을 올리며 감히 고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존엄하신 혼령께서는 영원토록 밝게 이르시어 높이 흠향하소서。

⑩ 五先生 神位 還安 告由文

維
歲次己卯三月戊戌朔初九日丙午後學裵文準 敢昭告于
忠孝公尹先生
靖平公尹先生
養性堂尹先生
止退堂尹先生
憲敏公重湖先生伏以國朝不運吾道亦塞學道諸設隨而亦
漢熙寧茂草長時茂邈天道循環無往不復吾道運回國勢光復
院祠更起未免窘束衆論更發乃按恢廓求材設計招工起役日
居月諸今纔畢力㴱儀整定乃還位席謹奉酒果敢告敢白伏惟
尊靈永歲昭格尙
饗

◇

⑪ 홍포사 중건후 사토지 축문

서기 1999년 3월 20일 유학 배문준은
토지신께 삼가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사당 집도 협소하였고 또 퇴락되었으니 어찌 다시 신축이 없을소나? 옛 건물을 헐어내고 땅을 파서 자리를 개척하여 목수를 초빙하고 일군을 불러들였으니 그 곳의 존엄하신 신령께서는 놀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죄송함을 알지만 감히 그렇게 알아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빠르구나 세월이여 어느덧 준공을 당하여 삼가 술과 안주를 구비하여 우러러 진설하고 고유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존엄하신 영령은 영원토록 보호하고 도와주시며 높이 흠향하소서。

⑪ 鴻浦祠 重建後 祀土地祝文

維
歲次己卯三月戊戌朔二十日丁巳幼學 裵文準 敢昭告于
后土氏之神伏以祠宇陝窄況又頹廢無奈更新舊建乃毁破
土拓地招匠呼役其於尊靈無不驚逆雖知罪悚敢望默識逝
哉光陰遽當竣役謹具酒肴仰陳告白伏惟
尊靈永世護勗尙
饗

◇

⑫ 상향축문

충효공 윤선생
몸소 다섯대 조정을 섬기며 세차례 수상이 되었도다。 마침내 고려말기를 만나 칠원에서 은거하였지요。 지팡이 꽂은 곳에 물이 솟아오르고 재산을 풀어 국민들 구제하였도다。 공경히 제기를 진설하오니 백세토록 제사에 흠향하소서。

정평공 윤선생

자신이 성공하여 조정까지 밝게 하려고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였도다。그 재능과 그 문장은 역사책에 기재되어 있다네。고향땅 선산밑에 사당지어 자리를 갖추었도다。백세토록 소문 들으면 국민들 마음에 경의가 일어나리라。

양성당 윤선생

선발되어 집현전에 들어가시니 여러 학사들의 존망을 받았으며 김종직、서거정、신숙주 세 현인에게 추앙 받으며 동서반을 오고갔지요。산림으로 은퇴하여 살아도 덕화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내도다。

지퇴당 윤선생

대통같이 곧은 절개 비석에 새겨 청백리 소문내었네。몸을 굽혀 도를 폈으니 천년두고 제사로 보답하도다。

헌민공 윤선생

거짓을 판단하려 충성을 다하고 난을 평정하려 의리를 분발하였네。적군이 서쪽으로 돌입하는 것을 막고 자식은 등에 땀이 젖도록 훈계하였도다。조상화가 늠름하니 백세토록 제사를 흠향하소서。

⑫ 常享祝文

忠孝公尹先生

身事五朝 三爲首揆 適際季世 韜光漆沚 立節湧水 散財恤民 式陳俎豆 百世享禋

參考 首揆=納于百揆。百揆는 百官과 같음 首揆는 百官의 우두머리 『書經』

韜光=隱退　　俎豆=祭器

靖平公尹先生

立身明廷 輸忠報國 之材之文 文獻載錄 梓鄕楸陰 一祠禰儀 聞風百世 起敬民彛

參考 梓鄕=桑梓之鄕 고향　楸陰=松楸 무덤앞에 선 나무

民彛=民之秉彛 백성의 가진 양심

養性堂尹先生

選入集賢 學士蜎望 三賢推詡 二班翺翔 嘉遯林泉 休有耿光

參考 三賢=金佔畢齋 徐四佳亭 申保閑齋 二班=東西班 文武官職과 같음

嘉遯=嘉遯貞吉 『周易』

止退堂尹先生
及霤直節 載石淸聲 身屈道伸 報祀千齡

憲敏公尹先生
辨誣輸忠 靖難奮義 遏賊西突 戒子湟背 遺像凜然 享禋百載

◇

3、사우기문

(1) 삼충사(휘 승보、영상、홍량) 충효공후 거제

거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두가 바다이다。그곳은 높은 산봉과 절벽의 암벽들이 곳곳마다 여기저기 서있어서 바라보면 가파르게 깍아 놓은듯 하고 더욱 기이하여 인물이 출생하면 걸출한 것은 그 사이의 영기가 모여있기에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거제도의 관청은 궁벽하게 남쪽의 끝에 있어서 서울과의 거리는 천여리가 되며 그 동안에 비록 충신과 의사가 있어서 높은 공로를 세웠지만 옛날 일이라고 업신여겨 지금까지 표창하여 선양한 적이 없는 것은 지세가 그래서 그런것이니 이상할 것 없다。순조 3년 계해년(서기1803년)가을 8월에 내가 종사일 때문에 처음으로 거제도에 와보니 거제도는 바로 우리 칠원윤씨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였다。일가되시는 어른과 젊은이들이 모두들 삼충사 재사로 모여 일가끼리 화목의 시간을 펼치고 있다가 나를 위하여 삼충사 사실을 자세히 말하니 바로 윤씨들이 의병을 창도한 사적이었다。

옛날 임진왜란시에 돈암 윤영상이 아버지 다계 윤승보와 그 동생인 홍량과 더불어 동시에 충의를 분발하여 방패와 창으로 막아내고 물리치던 중에 아버지가 먼저 순직하였으며 공이 또 한마을 사는 신모씨와 김모씨 두분과 더불어 같이 죽기를 마음으로 맹서하여 가는곳마다 사살을 하니 왜구들이 경상도에 가득 차 있었는데 바라만 보아도 바람처럼 달아나고 흩어졌다。여기에서 두분들의 충성을 받친 큰 절개를 대략 볼 수 있었으며 뒤늦게 충무공 이순신이 알아줌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기묘한 응변술은 제갈량을 관운장과 조자룡과 장비가 도와준 덕과 다를것이 없었으니 이 세 사람의 공로가 어찌 위대하지 아니할소냐?

공은 초야의 서민으로 이미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 감정도 없지만 능히 옛날 영웅들의 바르고 넓은 공로를 판단할 수 있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할소냐? 어렵도다。총알이 날아와 큰 인재가 죽었으니 마침내 충신과 열사의 의지를 갖추고도 당시에 멋대로 펴보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슬프구나。가령 이 충무공이 조금만 일찍 죽지 아니하였다면 명나라에 전승보고 할 때에 당연히 이 세사람의 공로가 첫째로 책봉의 대열에 해당되었

을 것인데 지금은 몇 수백년이 되어 자취없이 사라져 보상하고 선양할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순신에게도 불행이요。 바로 공들에게도 불행이었다。 바닷가 먼 시골에서 대궐까지는 만리길이라 정려문 표창을 비록 받지는 못하게 되었어도 윤씨의 자손되는 사람들이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와 형과 아우들의 사당을 다곡에 세워놓고 봄과 가을로 제사 올리는 장소로 삼은 지가 또 몇년이 되었다。 다행하게도 현재 군수인 신모씨의 현명한 노력에 힘입어 제사올리는 일체의 비용을 비로소 관비로 올리게 되었으니 이 또한 기적적인 것이다。 이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 지방 선비들이 신씨와 김씨 두분까지 추가로 배향하여 한몸으로 여기며 제사까지도 똑같이 하였다。 이 고장 선생들이 죽어 고향사람들이 제사를 올리는 의의는 그 충성과 의로운 마음에 감동되어 인륜을 지키는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나도 이 사실을 듣고 먼저 그 자손들에게 축하를 하였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도 축하를 하였다。 이 삼충사 사당안에 기록문이 없어 멀리에서 온 사람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이 삼충신의 공로가 저와같이 우뚝하여도 알지를 못하고 한마을 사람들의 귀와 입에만 머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의 종인과 더불어 그 사실의 시말을 모두 서술한 후에 졸렬한 것도 잊고 기문을 지었다。

서기 1803년 계해년 가을

방후손 진사 심의는 삼가 짓다

(1) **三忠祠**(諱 承輔、榮祥、興良) 忠孝公后 巨濟

環濟 皆海也 其高峰絕壑 面面叢立 望之巉截而尤奇 人物之生 宜其有傑然鍾靈其間者矣 然而濟之爲府 僻在南遐隅 距京國 千有餘里則間 雖有忠臣義士 卓有樹立 古而蔑無褒揚於今者 無怪乎地之使然矣 上之三年癸亥(純祖)秋八月 余以宗事 始到巨濟 濟是吾尹一派世居地也 宗人之長老少 咸聚於三忠祠齋府 叙族敦親之暇 爲余言三忠祠事甚詳 即尹氏之先倡義之蹟也 往在壬辰之亂 尹公(諱榮祥 號遯岩) 與其父(諱承輔 號茶溪)若弟(諱興良 號松齋) 同時奮義干戈搶攘之中 其父先殉則公 又與同鄉辛金二公 誓心戮力 到處斯殺 倭寇之彌滿嶺邑者 望風奔潰 此槩見二公效忠之大節而晚被李忠武知 其出奇應變 無異諸葛亮之於雲長子龍翼德則三公之勳 豈不偉哉 公 以草野布衣 既無劉先主知遇之感 能辨古英雄匡恢之烈者 尤豈不寃乎 難哉疾丸 如飛 大樹先零 意使忠臣烈士之志 顧不得快展於當時 誠可悲矣 假令李忠武 少須臾無死則天門奏蔵之日 宜以三公之勳 首對於封策之列而至今幾數百年 泯沒而無能爲之褒揚之者 李公之不幸 即公之不幸也 一隅遐鄉 君門萬里 旌異之典 雖未得蒙而爲尹公之子孫者創設其先祖 父與兄及弟祠宇於茶谷 以爲春秋芬苾之所者 蓋亦有年矣 幸賴今太守申侯之賢 香燭牲幣 始自官廚而供焉 斯亦奇矣

自是以後 一鄕之章甫 追配辛金二公 以爲一體 祭祀 一如鄕先生沒 鄕人 祭之之義則其感慕忠義之心 出自秉彝中來矣 余既聞此事 先爲子孫賀 復爲鄕人賀 齋府 叩無記 使遠客行旅之過者 不知三忠之烈 如彼其卓然則不過一鄕人口耳而止耳 遂與宗人輩 盡叙其顚末後 忘拙而爲之記

上即位之三年(純祖)癸亥秋

傍后孫 進士 心誼 謹撰

◇

(2) 충훈사(휘 승보、개보、영상、홍량) 충효공후 거제

이 충훈사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441번지에 있다。이 곳에는 선무원종공신훈련원첨정 다계공 윤승보와 다계공 아우인 병절교위 다헌공 윤개보와 다계공의 장자인 일등공신 첨정 돈암공 윤영상과 차자인 부정 송재공 윤홍량을 봉안하고 있다。서기 1592년 임진왜란때에 다계공은 아우인 다헌과 아들 돈암 송재 등 일가가 창의하여 고현성주로써 항전수성하다가 순국하셨다。개보、영상、홍량 등 3인 의사는 임진년 왜란에서 정유년 재란까지 칠개년간 경상우수영의 해전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계속하여 잔여 적군을 소탕하고 축출하여 향토 수호와 구국제민의 훈공을 세웠다。이에 고향 유림이 한 집안 4인 충신의 전공을 숭모 찬양하여 향리 선생으로 추존하시어 순조 24년(1824년)에 향리인 이곳에 충훈사를 창건하고 매년 9월 첫 정일에 유림향례를 봉향하고 있다。서기 1976년에는 본 손들의 숭조헌성으로 노후하여 퇴락된 사당을 새 모습으로 중건하였다。다계공의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고명원로 칠원윤공 휘 시영이시고 거제입향조인 조선 오위사과 휘 달의 5세손이시다。거제군지를 참고하여 4인 충신의 약사를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다계 윤승보 공은 칠원후인이며 자는 선보이다。임진왜란시에 선무원종공신이며 훈련원첨정가선대부병조참판의 벼슬을 추증받았다。서기 1592년 선조대왕 20년 4월 13일 일본이 수륙양군을 총동원하여 먼저 부산포와 동래를 함락하니 병화의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이 소식을 들은 윤공의 아들인 영상과 홍량 두 형제는 우국의 울분이 궐연히 일어나 민간인으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 마을을 지키는 대의에 나서게 되었다。당시 현령인 김준민과 더불어 방위할 대책을 세워 물 한 방울 샐 틈없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동년 오월초에 부산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들이 장목、옥포、지세포 등지로 상륙을 감행하여 향민을 개와 돼지같이 살해하고 관청과 민가를 모두 불태우고 함부로 부녀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온갖 만행을 부리면서 고현성까지 진격하여 왔다。공은 몸 바쳐 나라에 보답할 시기가 바로 이때인지라 직접 의병들을 거느리고 전선으로 나가 야

음을 틈타 적군을 급습하여 많은 왜적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을 불러들여 좋은 활과 화살을 준비하여 적군을 방어할 대비를 하였다。 특히 고향의 익숙한 산하에 요처를 이용하여 유격전을 펴서 적군을 몰살시켰다。 이렇게 적군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던 무적의 의병도 중과부적의 현상이 일어나 대장 윤승보공이 고현성두에서 적군의 유탄에 맞아 장렬히 순국하니 그 복수의 원한과 구국의 충성으로 영원히 호국의 신으로 남게 되었다。

다헌공 개보의 자는 충보이다。 역시 선무원종공신수문장병절교위이니 앞에서 소개한 대계공의 아우이다。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지략이 있어 선조대왕시에 일어난 임진왜란에 공의 형이신 승보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키었다。 당시 현령인 김준민은 초유사로 내려온 김성일의 명에 의하여 진영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지원군으로 길을 떠나 공은 형과 협력하여 고현성을 지키고 있는데 해변으로 침입한 적군의 세력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아군의 군사력은 미약하여 울분을 못이겨 울면서 동지들에게 호소하며 맹세하고 창검을 앞세우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군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여 무사하게 돌아왔는데 왜적들은 이에 격분하여 대대적으로 역공하여 성이 도리어 위험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에 형인 승보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지니 빗발같이 쏟아지는 적군의 화살을 무릅쓰고 형을 구하려 적진으로 돌격하다가 적군의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하였다。 후일 충무공 이순신이 공로를 임금에게 알려 훈신으로 선록이 되고 수문장병절교위가 되었다。

돈암공 영상의 자는 국서이다。 승보공의 장자이며 역시 선무원종일등공신선략장군훈련원첨정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아버지 승보공이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방어하다가 순국하여 아버지 시신을 적진 중에서 찾아 임시 매장하고 곧바로 호은 신응수。귀수암 김회진과 더불어 의병들을 거느리고 남려산 석굴로 들어가 작전의 본거지로 삼고 의병을 모으고 장비를 정리하여 다시 유격전을 감행하여 복수전을 전개하니 적군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특히 적군들이 승전을 자축하여 술과 고기를 많이 준비하여 대연회를 베푼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지들과 더불어 적군들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 하청 장터를 기습공격하여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이 준비한 술과 고기를 노획하여 굶주린 아군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전쟁중에 공이 적군에게 발을 부상 당하니 옆에 있던 신응수가 그 적군을 역습하여 목을 베고 그 놈의 칼을 빼앗는등등 구국애족의 충성심이 극치에 이르렀다。 공은 여러차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과 적의 목을 대장인 이순신 장군에게 바치니 이순신은 공의 충의를 높이 찬양하고 조정에 공로를 알리니 조정에서는 벼슬을 하

사하였다。

송재공 홍량은 선무원종공신훈련원부정이다。 그리고 승보공의 차자이다。 임진왜란시에 아버지가 친히 의병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대항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나감으로 그 휘하에서 계획에 참여하였다。 한편 의병을 모집하고 무기와 군량을 보급하는데 전력을 하였다。 바깥일로 인하여 전주에 있던 형이 급귀하여 아버지 휘하로 돌아와 형제가 합심하여 적군을 토벌하였지만 적군의 강한 포화로 인하여 마침내 성이 함락되어 아버지가 복수의 원한을 품은채 성두에서 순국하여 형제가 눈물로 부친의 시신을 거두어 임시 매장하고 복수전을 다시 전개하였으니 그 전과가 크게 빛나 이순신이 찬탄하고 그들의 공로를 조정에 알려 훈련원 부정을 내린 것이다。

◇

(3) **장충사 (휘 강헌、성헌)**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380의 2번지에 있다。 서기 1917년 정사년에 창건하여 송헌처사 휘 강헌의 제향소로 삼고있다。 그리고 송곡처사 휘 성헌을 배향하여 매년 10월 19일에 제향을 올린다。

(3) **奬忠祠 (諱 綱憲 諱 成憲)**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河淸面河淸里三八〇-二番地 西紀一九一七年丁巳創建 松軒處士諱綱憲玆香所 松谷處士諱成憲 配享 每年十月九日 行享禮

◇

(4) **송재사 (휘 홍량、사원、상일、만중)**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427번지에 있으며 서기1993년 계유년에 창건하여 선무원종공신훈련원부정 송재 윤홍량의 제향소로 삼고 있으며 그리고 선교랑 자여찰방 휘 사원과 처사 휘 상일과 처사 휘 만중을 배향하고 매년 10월 10일 향례를 행사한다。

(4) **松齋祠 (諱興良、嗣源、尙一、萬重)**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茶貢里四二七番地 西紀一九九三年癸酉創建 宣武原從功臣訓鍊院副正松齋尹興良玆香所 宣教郎自如察訪諱嗣源處士諱尙一處士諱萬重 配享 每年十月十日 行享禮

◇

(5) **대량사 (휘 여임、상로)**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산 24의 1번지에 있다。 서기 1938년 무인년에 창건하여 중암처사 휘 여임의 제향소로 삼고있다。 그리고 한포 능원참봉 휘 상로를 배향하여 매년 10월 15일에 제향을 올린다。

(5) **大樑祠(諱 汝任 諱 商老)**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東部面山陽里山二四-一番地 西紀一九三八年戊寅創建 重岩處士諱汝任苾香所 問圃原陵參奉諱商老 配享 每年十月十五日 行享禮

◇

(6) **대덕사(휘 성민)**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144번지에 있으며 서기1983년 계해년에 창건하여 남계처사 휘 성민의 제향소로 삼고 있으며 매년 10월 16일에 향례를 행사한다.

(6) **大德祠(諱 成敏)**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茶貢里田一四四番地 西紀一九八三年癸亥創建 南溪處士諱成敏苾香所 每年十月十六日 行享禮

◇

(7) **죽봉사(휘 성립, 기화)**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에 서기 1970년 경술년에 영모사를 창건하여 매년 10월 20일에 제향을 올리다가 서기1990년 경오년에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송곡으로 옮겨 중건하고 재사명을 죽봉사로 개명하였으며 제은처사 휘 성립의 제향소로 삼았다. 그리고 죽산처사 휘 기신을 배향하여 매년 10월 19일에 제향을 올린다.

(7) **竹鳳祠(諱 成立 諱 起華)** 忠孝公后 巨濟

巨濟市東部面九川里 西紀一九七〇年庚戌永慕祠 創建 每年十月二十日 享禮 西紀一九九〇年庚午 巨濟面內看里松谷 移建 祠名 竹鳳祠 改名 濟隱處士諱成立苾香所 竹山處士諱起莘 配享 每年十月十九日 行享禮

◇

(8) **성덕사(휘 성립, 홍신, 징신)**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149번지에 있다. 서기1970년 경술년에 창건하여 제은처사 휘 성립의 제향소로 삼고 있다. 그리고 다산처사 휘 홍신과 송곡처사 휘 징신을 배향하여 매년 10월 15일에 제향을 올린다.

(8) **成德祠(諱成立 諱興莘 諱徵莘)**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烟沙里一一四九番地 西紀一九七〇年庚戌 創建濟隱處士諱成立苾香所 茶山處士諱興莘松谷處士諱徵莘 配享 每年十月十五日 行享禮

(9) 송덕사(휘 정일)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200의 1번지 용산에 있다。서기 1971년 신해년에 창건하여 일강처사 휘 정일의 제향소로 삼아 매년 10월 17일 제향을 올린다。

(9) 頌德祠(諱 精一)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新縣邑上東里二○○-一番地龍山 西紀一九七一年辛亥創建 一岡處士諱精一苾香所 每年十月十七日 行享禮

◇

(10) 충인사(휘 인화)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037번지에 있다。서기 1965년 을사년에 창건하여 제향을 올리다가 서기 1995년 을해년에 1066번지로 이전하여 중건하여 중숙처사 휘 인화의 제향소로 삼아 매년 10월 21일을 전후하여 가까운 일요일을 정하여 제향을 올린다。

(10) 忠仁祠(諱 仁華)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烏飛里一○三七番地에 西紀一九六五年乙巳創建 享禮 西紀一九九五年乙亥烏飛里一○六六番地移建仲叔處士諱仁華苾香所 每年十月二十一日前後 近日曜日 行享禮

◇

(11) 성인사(휘 성은)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790의 4번지에 있다。서기 1991년 신미년에 창건하여 심인처사 휘 성은의 제향소로 삼아 매년 10월 15일후 첫 일요일에 제향을 올린다。

(11) 聖仁祠(諱 聖殷)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烟沙里七九○-四番地 西紀一九九一年辛未創建 心仁處士諱聖殷苾香所 每年十月十五日後初日曜日 行享禮

◇

(12) 세전사(휘 재후)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연초면 이목리 143번지에 있다。서기 1958년 무술년에 창건하여 도준처사 휘 재후의 제향소로 삼아 매년 10월 16일 제향을 올린다。

(12) 世傳祠(諱 載厚)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延草面梨木里一四三番地 西紀一九五八年戊戌創建 道俊處士諱載厚苾香所 每年十月十六日 行享禮

(13) **송학사(휘 재흡)** 충효공후 거제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송곡에 있다。서기 1980년 경신년에 창건하였는데 본래는 효봉사로 명명하였던 것을 송학사로 개명하여 은곡처사 휘 재흡의 제향소로 삼아 매년 10월 19일 제향을 올린다。

(13) **松鶴祠(諱 載洽)** 忠孝公后 巨濟

在巨濟市巨濟面內看里松谷 西紀一九八〇年庚申 創建 孝奉祠 松鶴祠 改名 隱谷處士諱載洽苾香所 每年十月十九日 行享禮

◇

4、행장 및 유사

(1) 행 장

① 충효공행장(휘 환) 고려말

공의 휘는 환이며 시호는 충효공이니 군부판서를 역임한 휘 수의 손자이다。고려 충숙왕시에 호군에 임명되고 충혜왕시에 대언을 제수받았는데 충숙왕이 원나라에 있다가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니 당파 논쟁이 일어나 환을 순군에 가두고 교지를 환수하고 장형을 내리고 섬 지방으로 유배시키려 하여 마침내 망명하여 원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환이 일찌기 조익청과 더불어 충혜왕의 측근인 송팔랑과 홍장 등을 잡아다 순군에 가두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홍장이가 전일 유감을 품고 참소하여 환을 칠원으로 추방시키었다。

충혜왕이 왕위에 다시 올라 동지밀직으로 제수하고 원나라에서도 정동행성원외랑을 제수하였다。조적의 반란에 시종한 공로가 있어서 수성량절보리공신의 훈호를 받았으며 찬성사로 특진을 시키니 원나라에서도 정동행성랑중을 제수하였다。왕이 새 궁전을 삼현동에 지어놓고 노비들을 많이 두려고 친근한 신하에게 하명하여 각자들 예쁘게 생긴 계집종을 한두명씩 바치도록 하여 환이 강윤충과 손수경과 더불어 마지 못하여 멈추고 있는데 모두들 말하기를 빨리 명령에 대답하라 하였다。채하중이 때마침 찾아오니 왕이 환을 보고 말하기를 경들이 의논하여 정승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환이 창피하여 말을 못하고 있으니 왕이 재차 재촉을 하여 환이 상고문을 쓰려고 하니 채하중이 말하기를 왕이 비록 명령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신하들은 의논한 적이 몇일 되었는데 하물며 하명이 있으니 감히 명을 받들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공이 물러나와 사람들 보고 일러 말하기를 임금께서 노비 두는 것을 여러 신하들에게 청하는 것은 옛날부터 듣지 못한 바라하니 왕이 진노하여 환을 강릉교주도도순문사로 나가도록 하였다。

충정왕 초기에 칠원부원군으로 봉하고 수성량절선력

보리공신 칭호를 하사하였다。일찌기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환이 정방제조 곽곤을 수뢰사건으로 힐난하니 곽곤이 순응하지 아니하여 환이 팔뚝을 잡아 당겨 곽곤을 내쫓으니 좌우들이 중지시켜 이루지 못하였다。공민왕시에 다시 찬성사가 되어 삼사에 일을 맡았으며 수충협성동덕익찬공신 훈호를 하사받고 좌정승 문하시중까지 특진이 되었는데 죄명으로 유배까지 당하였다。후일 또다시 불러들여 칠원후로 책봉하였으며 다시 칠원백으로 책봉하고 다시 문하시중으로 특진시키어 추성병의동덕섭리익찬공신 훈호까지 하사하였다。

환은 본래에 무관 출신이지만 왕이 감춘추관사로 하명하고 문관이 쓰는 옥관자와 옥갓끈을 하사하였다가 얼마후에 파직시키었다。

신우왕 3년에는 북원나라로 사신을 보내며 평장사를 제수하였고 6년에는 문하시중이 되었으나 신병으로 사표를 내었지만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2년에 임종하였으니 나이가 80여세이었다。

환은 아름다운 수염에 신체가 장대하여 그 풍채가 씩씩하고 컸으며 다섯 임금을 차례로 섬기면서 세차례 수상이 되었으며 대부호 집안이었다。일찌기 왕에게 간청하여 칠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어 사람끼리 잡아먹을 지경이라 집안 재산을 분산하여 구휼을 하였고 빈한한 주민에게서 받은 채권을 모두 불태웠다。때마침 오랜 시간을 가물었는데 공의 전답에서 물이 솟아나와 마을 사람들 전답에 물을 댈 수가 있어 그해는 큰 풍년이 들었다。그래서 경상도 주민들의 칭찬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시호는 충효공이다。아들은 없으며 후실의 딸을 남좌시에게 시집을 보내었는데 남좌시도 의령군에 책봉되었다。배위는 진주 유씨이니 부는 평리 벼슬을 한 간이며 아들과 딸을 생육하지 못하였으며 계배는 박씨이니 전서 벼슬을 한 지장의 딸이다。공의 묘소는 칠원 유동 동북동향(경좌)이다。

방14대손 판돈녕 사국은 삼가 짓다

① 忠孝公行狀(諱 桓) 高麗末

公諱 桓 諡 忠孝 軍簿判書秀之孫也 忠肅時 拜護軍 忠惠立 授代言 忠肅 在元復位 黨獄起 囚桓于巡軍奪告身 杖流海島 遂亡入元 桓 嘗與曺益淸 執忠惠所狎宋八郎洪莊等 囚巡軍 莊 挾前憾譖之 放桓于漆原 忠惠復位 授同知密直 元 授行省員外郞 曺頔之亂 侍從有勞 賜輸誠亮節輔理功臣號 除賛成事 元 授征東行省郞中 王 起新宮于三峴 欲以奴婢實之 命近臣 各獻有姿色一兩婢 桓 與康允忠孫守卿等 不得已 皆曰唯命 蔡河中 適至 王 顧桓曰卿等所議 可語政丞 桓 媿不能言 王 促之再 桓 具以告 河中曰 王雖不命 臣等 議已有日 況有命 敢不奉承 退謂人曰

君上 請奴婢於臣庶 古所未聞 王怒 出桓爲江陵交州道都巡問使 忠定初 封漆原府院君 賜輸誠亮節宣力保理功臣號 王 嘗宴群臣 桓 詰政房提調郭棚 以受賂事 棚 不應 桓 攘臂毆棚 左右止之 不得 恭愍朝 復爲贊成事 尋判三司事 賜輸忠協誠同德翊贊功臣號 拜左政丞門下侍中 尋以罪流 后 召還封漆原侯 改封漆原伯 復拜門下侍中 賜推誠秉義同德燮理翊贊功臣號 桓 本武人 王 命監春秋舘事 賜玉頂兒 玉纓笠 未幾罷 辛禑三年 北元 遣使 授平章事 六年 復爲門下侍中 尋以病辭 不允 十二年卒 年八十餘 桓 美鬚長大 風儀雄偉 歷事五朝 三爲首相 家甚富 嘗請告歸漆原 歲大饑 人相食 散家財以賑之 取貧民稱貸與券 悉燒之 時方久旱 水湧公田 浸及人田 歲大熟 慶尙之民 稱之不已 諡 忠孝 無子 以孽女 嫁南佐時 佐時 封宜寧君 配 晋州柳氏 父 評理玕 無育 繼配 朴氏 典書之長女也 墓 漆原柳洞庚坐之原

從十四代孫 判敦寧 師國 謹撰

◇

② 대사간공행장(휘 지) 대언공후

공의 휘는 지요 자는 가형이며 이형이라고도 한다。 자신이 지은 아호는 양성당이다。 성씨는 윤씨이니 관적은 칠원이며 시조는 신라시대 태사공 시영이다。 시조 이후로 휘 송제는 고려시대에 참지정사이고 휘 양삼은 우찬성이며 휘 수는 판서요 휘 길보는 삼중대광구성군이니 바로 공의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의 휘는 자이니 부대언 벼슬을 하고 조부 휘는 천이이니 낭장 벼슬을 하고 아버지 휘는 참이니 조선시대에 생원과와 진사과 양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서승을 역임하고 집의로 추증 받았다。 어머니는 진천 송씨 우의 딸이다。

공의 세대는 오래되었고 또 여러차례 군사 난을 지나 문헌의 증빙서가 없어서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과 살아온 경과를 모두 고증할 수 없다。 여러가지 야사와 여러 선비들의 문집을 고찰하여 보니 겨우 남아 있는 것은 공은 젊어서부터 지기가 크고 활달하며 시서 학문에 능통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 시대에 당대의 문학자로 집현전에 선발되어 치평요람이란 책을 편찬하였는데 점필제 김선생 종직과 사가정 서거정과 같이 이 일을 마치고 공은 또한 서사까지 하였었다。 점필제가 일찌기 말하기를 당신은 치평요람을 서사한 이유로 집현전에서 벼슬을 하였는데 이제는 늙었다 하고 매번 인재가 전성하였던 때를 말하며 일찌기 탄식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문종시대 정통무진년(1448년)에 홍천군수로 선발되니 사가정 서거정이 지은 송별시가 있으니 그 시에 등용되니 모두들 공논하기를 재능과 명성 누가 그대보다 더할소냐? 공정하고 청렴하여 일찌기 법도가 있으며 진실하여 본래 사치가 없다라는 절귀가 있다。

홍천군수로 부임한지 한달도 되지 아니하여 정치가 크게 거행되었다。경자년 가을에는 객사 동쪽에 누각을 짓고 못을 파서 연꽃을 심어놓고 퇴근 후에는 이 누각에 오르곤 하였다。옛날부터 학이 울었다는 상서로움이 있어서 이름을 학명루라 하고 안평대군이 현판을 써서 아름답게 되었으며 사가정 서거정이 기문에 말하기를 윤군수의 이 누각 거사는 재정을 손상한 것이 아니며 시기를 어기지 아니한 것이다。춘추에 백성을 시기에 맞추어 부리라는 뜻을 깊이 얻었으니 성인의 포상법과 폄론의 상례로 당연히 큰 글씨로 크게 써서 찬미한 것이라고 하였다。청백리로 선발되며 대사간에 제수되었다。단종이 양위한 후에는 여러차례 불렀으나 동요되지 아니하였다。

공의 사저는 성동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이라 산수의 아름다움이 있다。공은 매번 찾아갈때마다 마음 편안하게 즐기고 돌아오는 것을 잊었으며 그 집의 현판을 양성당이라 하였으며 사가정 서거정이 또 기문에 말하기를 그대는 인자하고 지혜로운 자질로 이 곳에서 휴식하며 산의 조용한 것을 관찰하고 더욱 인자한 마음을 기르고 물의 흐름을 보고 더욱 그 지혜를 기르니 어찌 놀러다니는 일 없는 선비가 그저 산수의 즐거움만 구경하고 물경을 보고 뜻을 손상하는 사람에 비교할소냐?

공은 성품이 맑고 고고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고귀한 사람이라 호칭하였다。봉원 정창화가 공의 시에 화답하기를 위대한 은거인은 깊은 산속에 숨지 않아도 풍진이 어찌 감히 더럽힐소냐? 허리 굽히는 것은 작은 것도 부끄러워하고 재능이 있어도 호화로운 것은 사양하였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것이 공의 사실이 되는 대략이다。

공은 장흥군 부산면 기동 자택에서 졸하여 부산면 작두산 남서향(간좌)에 안장하였다。배위는 경주 김씨이니 감사 벼슬을 한 겸이 친정아버지이며 묘소는 건위에 부장되었다。

3남3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희규이고 차남은 희철이니 다같이 생원에 합격하였으며 삼남은 도원이니 홍문관습독을 역임하여 이조판서로 추증이 되었다。장녀는 사직 벼슬을 한 김경증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사용 벼슬을 한 전계동에게 시집가고 3녀는 훈도인 안건에게 시집갔다。

도원이 4남을 두었으니 상우는 문과에 합격하여 감찰에 이르고 탕우와 은우는 생원에 합격하여 목사까지 하였고 용우는 현릉참봉이다。상우가 3남을 두었으니 현이는 진사에 합격하여 현릉참봉이 되었고 무와 혜는 다같이 예빈참봉이 되었다。탕우가 1남을 두었으니 희이며 은우가 3남을 두었으니 염은 현릉참봉이고 유와 서는 판관이다。현손자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슬프도다。조선시대에 인재는 세종대왕 시대보다 번

성한 적이 없다。공은 김종직、서거정과 더불어 명성이 나란하며 조정에 들어와 10년간 동서양반을 오고갔으며 학문 정치에 탁월하여 대중에 뛰어나 한 시대에 중견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늙어서는 교육하기를 청렴하고 완고하며 뜻을 세우게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 소냐? 애석하도다。그 아름다운 절개 아름다운 행적이 모두 세상에 전래하지 아니한다며 공의 후손되는 태국과 재익 등이 천리길 멀다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행장의 글을 보이는데 병이 들어 글씨를 쓰지 못한다고 여러차례 사양하였지만 그들의 성심이 매우 간절하여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앞과 같이 서술하였노라

숭정오계유년(1873년)6월 일

성균관전적 서하 임헌회는 짓다

② 大司諫公行狀(諱 志) 代言公后

公諱志字可衡 一云伊衡 自號曰養性 姓尹氏 系出漆原鼻祖 新羅太師始榮 後 有諱松磾 高麗叅知政事 諱養三 右贊成 諱秀 判書 諱吉甫 三重大匡龜城君 寔公之高祖也 曾祖 諱 橅 副代言 祖 諱 天怡 郎將 考 諱 參 入我朝 生員進士兩試 官 署承 贈執義 妣 鎭川宋氏 愚 女 公之世 遠矣 且屢經兵燹 文獻無徵 生卒資歷 皆不可考 考諸野乘及諸家文字 僅有存者 公 自少 志氣宏達 通詩書文雅 世宗朝 選一代文學士於集賢殿 纂修治平要覽 如佔畢齋金先生宗直 四佳亭徐公居正 是已而 公亦以書寫與焉 佔畢齋 甞云 君 以治平要覽書寫 仕集賢殿 今已老矣 每說 人才全盛之時 未甞不歎息也 文宗朝正統戊辰 公 以選守洪川 四佳亭 送別詩 有 選用皆公論 才名孰于加 公廉曾有道 悃愊本無華之句 莅洪不旬月 政乃大擧 庚子秋 起樓客館之東 鑿沼種蕖 公暇登臨 縣 舊有鶴鳴之瑞 名以鶴鳴 安平大君 書其額修之 四佳亭 記之曰侯之此擧 不傷財不違時 深得春秋使民以時之意 以聖人褒貶之例 當大書特書 以美之也 選淸白吏 除大司諫 端宗遜位後 屢徵不起 公之別業 距城東一舍 有湖山之勝 公 每休休而至 樂而忘歸 扁其堂曰養性 四佳亭又記之曰君 以仁智之資 遊息於斯 觀山之靜而益以養其仁 觀水之流而益以養其智 此豈遊人閑士 徒賞山水之樂 玩物喪志者比哉 公性淸高 人 皆以高世人 稱之 鄭逢原昌和 和公詩 曰大隱非林藪 風塵豈敢加 折腰羞齷齪 懷寶謝芬華 是爲公事實 大槩也 公 歿于長興夫山面基洞正寢 葬于同面鵲頭山艮坐之原 配 慶州金氏 監司謙 其考也 墓祔 擧三男三女 男長 希奎 希哲 俱生員 次 道源 弘文習讀 贈吏判 女長 適司直金敬中 次適司勇田繼童 次適訓導安健 道源 四男 商佑 文科監察 湯佑 殷佑 龍佑生員 牧使 憲陵參奉 商佑 三男 憲 進士 憲陵叅奉 懋 惠 俱禮賓參奉 湯佑 一男 憙 殷佑 三男 淰 憲陵參奉 愈 恕 判官 玄孫以下 不盡錄 噫 本朝 人材 莫盛於英陵之世 公 與金徐諸賢 齊名 鸞坡十載 共聯華班

文學行治之卓 出等 夷見重一世 可知而其晩年 導誨 尤足以廉頑立懦 詎不休哉 惜乎 其姱節徽躅 不盡傳於世也 公後孫台國 載翊等 不遠千里 來謁狀德之文 屢辭以病閣筆硏而其懇 彌苦切 遂爲之叙如右云

崇禎五癸酉六月 日

成均典籍 西河 任憲晦 撰

◇

③ 백암공가장(휘 창명) 대언공후

부군의 휘는 창명이요 자는 시숙이며 호는 백암이며 성은 윤씨이니 관적은 칠원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시니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이시다. 고려시대에 휘 송제는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의 벼슬을 하였고 휘 길보는 직량공신 훈호를 받고 찬성사 벼슬을 하였으며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공 시호를 추중받았다. 휘 참은 조선시대에 서승 벼슬을 하여 집의를 추중 받았으며 휘 사의 호는 순수이니 진사에 합격하여 형조참의를 추중받았으며 휘 석보의 호는 지퇴당이니 직제학 시절에 혼란한 조정을 만나 직언을 한 이유로 강음으로 쫓겨나가 귀양지에서 졸하였으며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포상하여 도승지를 추중받았으며 청백리에 선록되었으니 부군의 증조부가 된다. 할아버지 휘는 덕형이니 진사에 합격하여 집의를 추중받았으며 아버지의 휘는 신이니 효행으로 조정에 알려져 특별히 평구도찰방을 제수받았으며 좌승지를 추중받았다. 어머니는 청풍 유씨이니 호군 벼슬을 한 유영백의 딸이다.

가정정유(1537년)년에 부군은 제천백양리 자택에서 출생하였으니 정신과 안색이 명랑하고 재능과 지혜가 총명하였으며 성장하면서 종조부인 송월암공에게 수학하여 문장이 일찌기 성취되었으며 겨우 스무살 되어 높은 문명과 덕망이 있었다. 퇴계선생의 문하를 찾아가 문장의 뜻을 질문하여 특별한 격려를 받았고 하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계선생이 훈계하여 말하기를 장부가 벼슬길에 나아가면 당연히 공명정대라는 네 글자로 지표를 삼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조 기묘년(1579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을유년(158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봉직랑성균관학록이 되었으며 무자년(1588년)에 태학관 관장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또 강동부승우관이 되었으니 대개가 부군의 여망이 높아서 학우들이 추천한 것이다.

부군은 마음이 넓고 풍채가 뛰어나 바람 시원하게 불고 달 밝은 때면 옛 시와 기묘한 문장을 보면 곧 무릎을 치며 음송하여 울울한 기를 쏟아 버리고 성품이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여 몇몇 동지와 더불어 시를 읊다가 흥이 끝나면 돌아왔다. 금강산은 관동지방의 명승지라 부군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오래이었는데 기축년

(1589년)에는 팔곡 구은맹과 어우 유몽인 제공과 일만이천봉을 돌아보고 많은 시를 주고 받았으며 이미 돌아와 말하기를 나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매번마다 직위와 재능이 맞지 아니하므로 강개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내 임진왜란을 만나 부군은 의분을 이겨내지 못하여 서울과 시골에 흩어져 있는 주민 수천명을 모집하여 의병군대를 일으키어 병장기의 준비와 군량의 보급을 전담을 맡아 잠시도 공급의 중단이 없게 하였으며 진중에서 몇달씩 머물러 있었지만 계략을 완수하지 못하고 갑자기 순직을 하였으니 바로 임진년(1592년) 8월20일이었다. 다음해 2월 모일에 제천군 남유원 남향(자좌)에 장례를 하였다. 그후로 24년만에 아들 조원이의 관직이 귀하게 되어 가선대부이조참판을 추증받았다.

배위는 봉화 금씨이니 감정 벼슬을 한 금극인의 딸이다. 신축년(1541년)에 출생하여 병진년(1616년)에 졸하였다. 부인의 네가지 덕이 있었으며 아들 3형제를 낳았다.

조원은 문과에 합격하여 감사를 하고 찬원은 현감을 하고 섭원은 시직을 하였다. 조원의 아들 민선은 첨지중추부사를 하고 민길은 선교랑을 하고 민익은 교수를 하고 딸들은 백진과 금람에게 시집갔다.

찬원의 아들 민도는 현감을 하고 민성은 통덕랑이고 민학은 종사랑이고 민정은 선교랑이며 딸은 권택길과 기세헌에게 시집을 갔다.

섭원의 아들 민행은 통덕랑이고 민술이고 딸들은 유정한과 조유에게 시집을 갔다.

민선의 아들 상갑은 통덕랑을 하였고 민길의 아들은 성갑이며 상갑은 양자를 갔으며 취갑이 있고 지갑은 양자를 갔고 정갑도 있으며 딸은 주부 윤세규에게 시집을 갔다 민익의 아들은 형갑, 진악, 진화, 진항이며 딸은 이상정, 이우태에게 시집을 갔다. 민도의 아들은 수갑이고 딸은 홍성적, 한석건, 이급, 이수적에게 시집을 갔다. 민성의 아들은 선갑이며 후갑이는 양자를 갔고 오갑이 있으며 딸은 홍도일, 정용, 신영, 이정호에게 시집을 갔다. 민학의 아들은 후갑이며 민정의 아들은 훈갑, 성갑, 계갑, 의갑이며 딸은 황유, 윤적이게 시집갔다. 민행의 아들인 지갑은 무과에 합격하고 딸은 박정용, 백시만, 남대에게 시집갔다. 민술의 아들은 신갑, 진갑, 이갑이며 딸은 강만령에게 시집갔다. 현손자 이하는 기록하지 아니하겠다.

아 부군은 강직하고 공평한 기질을 타고나 기량이 넓고 재능이 탁월하여 들어와서는 종조부의 훈도한 혜택을 받고 나가서는 위대한 선생님의 권고하는 교훈을 받아 일찌기 젊은 나이로 성취하여 문장과 덕망이 일대에 으뜸이었다. 그 같은 그릇에 재능으로 직위를 얻어 도

를 행하며 조정으로 들어갔으면 가히 천리라도 뚫어 이겨냈을 것이며 군수나 목사의 직책에서 퇴임하였다면 가히 교화를 만민에게 베풀 수 있었을 것이나 시대가 자기와 더불어 어긋나서 큰 뜻을 세상에 펴보지 못하고 직위가 6품급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으니 그 당시 부군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들 슬퍼하지 아니할소냐? 임진왜란시에 의병을 일으켜 한번 충의를 분발하여 격렬했던 바가 있으나 자신이 죽어 공로가 없고 보상의 영전이 없었으니 잔약한 후손들의 통한이 어찌 끝이 있을소냐?

부군이 평생토록 지어놓은 시 문장이 적은 것이 아니지만 모두가 다듬은 금이나 아름다운 옥과 같다。임진왜란을 겪은 까닭으로 흩어지고 분실되어 남은 것이 없어 친구들 집안과 주고 받고 가고 온 것을 수습하여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세대가 점차 멀어져 오직 그것마저 없어져 전승하지 못할까 두려워 그의 마을에서 유전하고 있는 말까지 채집하고 가승에 기재되어 있는 업적까지 엮어 이에 감히 유사로 지었다。엎드려 애원하오니 붓을 잡고있는 학자들은 한마디 말을 하여주면 고맙게 여길 것인데 결재해줄것인가 아니해줄것인가?

현손자 경인은 삼가 기록하다

③ 白巖公家狀(諱 昌鳴) 代言公后

府君 諱 昌鳴 字 時叔 號 白巖 姓 尹氏 系出漆原 鼻祖諱 始榮 新羅太子太師 勝國時 有諱松碑 銀青光祿大夫僉知政事 有諱吉甫 直亮功臣贊成事龜城君諡忠義 有諱參入我朝 官署丞 贈執義 有諱思 號順叟 進士 贈刑曹參議有諱碩輔 號止退堂 直提學 時値昏朝 以直言 見逐江陰卒于謫所 中廟改玉 褒贈都承旨 錄淸白吏 府君之曾祖也祖 諱 德亨 進士 贈執義 考 諱 信 以孝 聞于朝 薦授平邱道察訪 贈左承旨 妣 淸風劉氏 護軍榮伯女 嘉靖丁酉府君 生于堤川白楊里第 神彩爽朗 才慧聰敏 稍長 受學於叔祖松月菴公 文詞夙就 纔弱冠 蔚然有文望 摳衣於退溪先生之門 講質文意 特蒙奬詡 及辭歸 先生 戒之曰丈夫出世 當以公明正大四字 爲符 宣廟己卯 中進士 乙酉 文科因爲奉直郎成均館學錄 戊子 選爲齋長 又爲江東府乘郵官蓋以府君輿望之高而士友之所推薦者也 府君 胸次昭曠 風韻逈截 於風淸月朗之時 古詩奇文 輒擊節諷誦 以瀉湮鬱之氣 性好佳山水 與二三同志 吟詠盡興而歸 金剛關東名勝 府君 在念之久矣 歲己丑 具八谷思孟 柳於于夢寅諸公歷覽萬二千峰 多有唱酬 旣歸 曰我遂宿願 每以位不稱才抱慷慨之志 適値壬辰之亂 府君 不勝奮然 收畿湖流民數千 倡起義旅 軍器之備 兵糧之繼 賣田宅而無暫時窘給之端 留陣數月 未遂經略 奄忽殉義 即壬辰八月二十日也 明

年二月日 葬于縣南楡院子坐之原 後二十四年 以子調元貴贈嘉善大夫吏曹參判 配 奉化琴氏 監正克仁女 生於辛丑卒於丙辰 有女士行 生三男 調元 文科監司 讚元 縣監 燮元 侍直 調元 男 敏善 僉知中樞府事 敏吉 宣敎郞 敏益敎授 女 白瑨 琴攬 讚元 男 敏道 縣監 敏成 通德郞 敏學 從仕郞 敏政 宣敎郞 女 權擇吉 奇世獻 燮元 男 敏行通德郞 敏述 女 柳廷翰 趙維 敏善 男 相甲 通德郞 敏吉男 聖甲 相甲 出 就甲 之甲 出 正甲 女 尹世揆 主簿 敏益 男 衡甲 鎭岳 鎭華 鎭恒 女 李相正 李遇泰 敏道 男壽甲 女 洪聖迪 韓碩建 李鈒 李樹績 敏成 男 先甲 後甲 敏出 悟甲 女 黃道一 鄭溶 中漢 李廷虎 敏學 男 後甲 敏政 男 訓甲 誠甲 誠甲 誼甲 女 黃鍒 尹檣 敏行 男 之甲武科 女 朴正龍 白時晩 南垈 敏述 男 臣甲 鎭甲 以甲女 姜萬齡 玄孫 不錄 嗚呼 府君 稟剛大中直之氣 器量寬洪 才藝卓異 入而被叔祖公爐鞴之澤 出而蒙大先生奬詡之訓 早年夙就 文章德義 冠於一世 以若之器之才而得位行道 進處帷幄內則可以決勝千里 退任州牧之責則可以化施萬民 時與我違 未得大展布於世 位不滿六品而止 當日之知府君者 誰不嗟惜 至若壬辰擧義 亶出於一段忠憤所激而殞身無功 且無褒典 孱孫之痛恨 詎有其極 府君平生所著詩文 不爲不多 而皆是精金美玉 以當日兵燹之故 散失無餘 收拾於知舊家酬唱往復 合爲一卷 而藏于家 世代浸遠 惟恐其終沒無傳 採其閭里流傳之言 綴其家乘所載之蹟玆敢撰次遺事 伏乞秉筆君子 惠賜一言而裁擇否

玄孫 景仁 謹識

◇

④ 칠계군행장(휘 탁연) 대언공후

공의 휘는 탁연이요 자는 상중이며 성씨는 윤씨이며 자호는 중호라 하였고 칠원인이다。 공의 선조되는 12대 할아버지 송제는 최초로 원나라에서 중랑장 벼슬을 하였으며 자손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였으며 아들까지 계속 높은 벼슬을 하여 세상에 빛나는 관복을 입었다。 후손중에 8대 손자인 석보에 이르러 홍문관 직제학을 역임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니 공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직접 간언도 하고 청백하기로 세상에 명성이 높이 나 있으며 이 직제학 공이 내섬시판관이며 증 이조참판 휘 문형을 낳았다。 문형은 졸하여 풍덕 해량리에 장사하였으며 이 판관공이 공의 아버지 휘 이를 낳았으니 우봉현감이 되었으며 순충보조공신의 훈호를 받고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졸하여 광주이보하 대원동 동쪽 동남향(건좌)의 능원에 장사하였다。 이 영의정 공이 김윤선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안동 김씨 명망 높은 귀족이다。

가정무술년(1539년)에 공은 청주 정안리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기개와 도량이 보통보

다 뛰어나고 재능이 출중하여 세상 사람들은 신기한 아동으로 호칭하였으며 성장함에 이르러서는 도덕과 문장이 한 시대를 대표하였으며 그리고 친우 일곱사람들과 더불어 교류하여 당시 사대부들이 팔대문장이라 이르게 되었는데 간이 최립과 아계 이산해도 그 중에 한사람이었다。당시에 권세가들이 앞을 다투어 공의 문하로 들어오고자 하여 돌아오기를 자식같이 하였어도 공은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며 부귀하고저 하는 것에 자신을 기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소망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열일곱 살때부터 연속하여 과거에 합격하였다。

무오년(1558년)에는 사마시에 합격하고 을축년(1565년)에는 알성급제하여 세 사람이 승문원으로 선발되어 들어가 한림학사로 빛났으며 전근하여 승정원 주서로 임명받았는데 당시 명종대왕이 옥좌에 앉아 있고 양말이 인도하여 하명하여 공보고 붓을 잡고 글씨를 쓰게 하니 덕홍군 셋째아들이란 석 삼자를 갖은 삼자로 써서 당시 재상들로부터 칭찬을 크게 받았다。이로써 더욱 공의 재능이 알려지게 되었다。무진년(1568년)에는 6품으로 뽑히어 성균관 전적을 임명받았으며 사간원 정언으로 선발이 되었고 전근하여 형조좌랑을 임명받았다。그 해에 천추사서장관이 되어 북경으로 조근을 갔으며 초홍문록으로 피선되어 홍문관부수찬을 임명받고 전근하여 정언을 임명받았다。또 병조좌랑을 임명받으며 즉시로 사간원과 홍문관 출입하기를 수삼년 하였으며 병조와 예조의 정랑과 좌랑을 역임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갑술년(1574년)에는 주청사 이후백과 부사 윤근수의 서장관이 되어 또 북경을 가게 되었다。대체로 업신여기는 일을 펼치게 되고 간략하게 잘 처리하게 되니 일시에 명사가 되었다。

압록강을 건너며 즉시로 사헌부지평을 임명받았다。그 전에 공이 사간원에 있을때 비천한 사람에게 6품정직을 특별히 제수하여 공은 동료들과 더불어 탄핵을 한 것이 이미 몇달이 되었는데 마침내 경연중에 오히려 전일 말을 고집하고 바른 말하며 대답하지 아니하니 찾아와 말하기를 이것은 간문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대 임금께서 말하기를 나를 간문으로 여기고 있느냐? 공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면 요순임금이 되고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걸주임금이 되는 것이니 어찌 간문만 되겠습니까? 임금이 진노하여 대열에 있던 사람들이 땀이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이때에 영의정 홍진이 해명하느라 애를 썼다。그 전에도 몇차례 삼사의 물망에 올랐지만 수락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사헌부로 들어가 사사로 공로가 있게 되어 그래서 장령으로 승진이 되었으며 전근하여 교리를 임명받았다。또 내섬시첨정을 임명받아 의정부검상사인이 되었으며 3품으로 승진되어 집의가 되었으며 사간

도 되었다。을해년(1575년)에는 사인으로 동래부사로 특명을 받아 당상관으로 승진이 되었다。

병자년(1576년)에는 아버지 어머니 상을 당하였으며 3년 복을 끝내고 위장을 제수받았다。 무인년(1578년)에는 상주 목사가 되어 특이한 정치를 하여 왕이 예복 한 벌을 특별히 하사하며 총애하였다。 경진년(1580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로 특명을 받았으며 좌부승지로 전근하여 춘당정시에 장원급제하여 품계를 높여 가선대부가 되고 좌승지가 되었으며 도승지로 승진하여 남훈시 이십수를 배율로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예조참판으로 교체되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까지 추존하여 중직을 받았다。

임오년(1582년)에는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역임하면서 모든 생각을 다하여 모두가 이롭게 하여 괴로운 국민이 소생을 얻어 경상도가 크게 기뻐하였다。병으로 인하여 동지경연예조참판으로 교체되어 또 승정원으로 들어와 도승지가 되었고 자헌대부로 특진하여 한성판윤이 되면서 또다시 아버지 조부 증조부를 지경연예문관제학으로 추중하였으나 사람들이 원한을 갖지 아니하였다。호조판서의 재심이 있었지만 사리에 맞아 지금까지도 준행하고 있으며 또 경기도와 평안도 두곳 관찰사를 하며 모두 소문난 업적이 있다。신묘년(1591년)에는 광국공신 3등으로 정헌대부에 승진되어 칠계군으로 책봉되여 부모까지 작위에 봉하게 되었다。그리고 아들 1명은 철권을 계획하여 은마를 하사받고 사신명을 받았다。상소문으로 명나라 임금에게 알려 왕족 계통을 고치는데 참여하여 공로가 있다。

공은 문장을 애써 다듬지 아니하여도 자연적 모두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전해주고 있다。당하관으로 있으며 스스로 외우며 시대에 어둡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춘추지제교를 겸하였고 가선대부와 자헌대부로 있으며 동지춘추예문관직제학을 하고 승문원 제조까지 하여 당시에 세상에 나타난 글은 많은 것이 공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공은 한림원에 있으면서 달통하지 못하다 하여 오히려 남들한테 가려짐을 당하여 문형의 책임을 맡지 아니하니 부자들이 재능있는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는 시대였다。공은 비변사에 있으며 당상관을 맡아본 것이 10여년이 되는데 부국강병을 계획하다가 근심 걱정이 되어 피로하고 야위었는데 당시 변방 마을에는 근심스런 편지가 많았는데 공은 좌로 받아 우로 대답하며 처리를 너그럽게 하였다。

임진년(1592년) 초봄에는 공이 때마침 여기저기의 비변 책임을 맡고 있었으니 당시에 소중하게 보고 있음이 이와 같았다。이때에 왜군이 침범하여 온 나라가 와해되어 앞 다투어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집안 식구를 생각할 수 없었는데 자식들이 거취를 문의하자 공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종묘 사직이 여기에 있고 나의 임금이 여기에 있으며 내 몸이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은 어디로 돌아갈소냐? 임금께서 평양에 이르게 되어 공은 또 임금의 행차를 모시고 의주로 행차시킨 연후에야 집안 식구들이 겨우 성을 빠져 나와 의주까지 공을 따라갈 수 있었으니 공의 충절은 평화와 험난 때문에 다른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집안일 때문에 그 마음이 매여있지 아니하였다. 북청 지방에 이르러 검찰의 책임을 특별히 제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때에 왜군들이 이미 함경도 관문에 이미 가까히 와 있으며 국민들이 산중으로 도망쳐 숨어있어 공은 혼자서 하늘에 닿는 기세를 막아내기 어려웠다. 우선 삼수와 갑산을 따라 하설령과 압록강을 돌아 죽어서 부모 곁으로 돌아가고져 한 것이 대략 공의 소망이었다. 행진이 별해보에 이르러 관찰사와 도순찰사의 명을 특별히 제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나와 보내온 교유서를 읽으니 좌우에서 보고 듣던 사람까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 비록 평상시 부드럽거나 강직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라도 역시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들었으며 충성의 말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메아리처럼 달려왔다. 공은 이내 나가 함흥 사수촌에다 진을 치고 정규군을 규합하고 의병부대를 끌어들여 같이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공은 임시 조정이 있는 의주로 달려가려 하였는데 토벌을 멈추고 있으라는 명령이 있어서 뜻을 얻지 못하게 되자 큰 아들 경원을 보내어 관군이 지키고 있는 것을 물어보게 하며 큰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국가의 도적을 토벌하지 아니하였고 국가의 치욕을 설욕하지 아니하였는데 진지에 하란은 많아도 군막에는 제갈양이 없으니 대대로 국가에 은총을 받고 무엇으로 보답하랴! 오로지 죽음만 있을 뿐이니 맹세코 구차하게 살으려하지 아니하겠다 혼자서 외로운 성을 지켜온지 오늘이 40일되었다. 하늘에 해와 별이 내려다 보고 귀신들이 곁에서 증명하고 있으며 인을 이루고 의리를 이루라 한 것은 공자의 말이요 맹자의 말이다. 내 뜻에 찬성하거든 너희들도 당연히 서명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본래의 개략적인 자취이다. 병력을 출동하면서 몇차례 적군들을 꺾어 설열, 한검산 등을 막아 왜적의 목구멍을 막고 의주로 통하는 요로를 막아 패배한 적군으로 하여금 의주로 향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누구의 공로일까? 몇차례 승전 첩보를 알려 여러 도내에서는 최고이었다. 이때는 겨울이 깊어져 임금께서 추위를 살피시고 특별히 양가죽 옷 한벌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는데 그 답례로 올린 편지에 말하기를 나라에 도적을 제거하지 못하여 죽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사랑을 내리시어 바

로 옷을 하사 하시는 영광을 입어 내 몸을 어루만지니 이겨내기 어려워 임금님에게 절을 올리는 바입니다。엎드려 생각하오니 소신같이 시서만 읽고 천한 옷 입는 시골 사람이 은총의 영광을 입어 따뜻하고 배부른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임금님 은택을 많이 입어 춤을 추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차지하였는데 바로 오랑캐들이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하여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임금님께서 피난 길을 떠나온지 5개월만에 하명을 듣고 일찌기 녹아내린 얼음물을 마시며 한밤중에 군대를 행군시켜 다시 채나라의 눈을 밟았는데 이 몸이 죽지 아니한 것은 괴이한 일이요 오늘까지 구차스럽게 살아있어 부끄러움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이 궁색한 몸이 섬세하신 임금님 염려를 다할 수 있으며 게다가 검찰과 순찰직을 더하여 도리어 소신의 공로를 기록하여 주시고 공로가 있는지 공로가 없는지 물어도 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양가죽 옷과 몇필의 재물까지 하사하시니 역시 일개의 막료로서 어찌하여 분주한 수작이 가하리이까? 이런 편리를 얻은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엎드려 생각하오니 덕을 만나면 넓은 운수를 족히 밝혀놓고 사복을 입고 있게되면 어진이를 좋아하며 모두들 추앙하는 것은 주나라 관리의 정치인 것이며 진심으로 자기를 추측하는 것은 모두가 송조의 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마침내 극한 추위에 명령하여 도리어 감복되는 따뜻한 것이 되었으니 소신은 감히 편안과 험악을 불구하고 죽을때까지 그 시종을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고 있으리까? 또 드러내고 고쳐서 30년동안 편안히 성은을 입고 싶어하지 않았으니 항상 팔백년 장수를 기원하겠습니다。왜적이 물러간 후일에도 북문에서 군대 난리를 새로 경험하여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들이 기아에 전전하고 있어 거의가 사망하게 되어 공은 밤낮으로 계획을 세워 자기가 기아에 빠진 것 같이하며 곡식을 옮겨 어려움을 구제하여 남북지방의 국민들이 그 힘을 입어 살게 되었었다。

공이 죽음에 이르러 영구를 남쪽으로 옮기는데 주민들이 공의 덕화에 감동되어 도시락과 병술로 거리에서 제사를 올리며 서로들 공의 덕택을 앙망하였으니 그 주민에 남겨놓은 것 크지 아니할소냐? 공은 병이 위독하여도 오히려 순박하고 정중하여 꿈속에 말도 집안 말은 한마디도 없으며 오직 국가 일을 염려하였으니 그가 나라를 위한 충성심은 비록 죽어도 더욱 돈독하였다。아공은 타고난 성품은 바르고 엄하여도 속마음은 즐거웁고 안이하여 인자한 사람과 군자의 마음이 있으며 자상하고 측은한 의지가 있어서 임금 섬김에는 충성스럽고 어버이 섬김에는 효성으로 하였으며 우애에는 독실히 하고 친구와 교류하기는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공은 사건따라 간언을 하되 끝까지 말하기를 기피하지 아니하

였으며 여러차례 좌천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폄론은 당하지 아니하였으며 늙어서 절개가 더욱 높아져 해와 별같이 빛났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성심과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죽은 후에나 중지될 것이니 이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의 지극한 것이라 하겠다。

공은 죽은 아버지 섬기기를 살아있는 것 같이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사당을 배알하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고유하였으며 나가고 들어온 것을 반드시 고유하였으며 평범한 초하루 보름날 명절일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반드시 자신이 올리었으며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일찌기 자제들을 시키어 봉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상의 제사일에는 반드시 혼자 부담하여 지내고 돌려가며 자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어버이에게 효도를 지극히 한 것이다。공은 아우와 여동생들을 길러 성공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젊은 아우가 집이 없음을 근심하여 목재와 기와를 준비하여 하인들을 시키어 지어 주었으니 이것은 우애를 독실히 한 것이다。

공은 친구들끼리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면 일찌기 더불어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당시에 사람들이 분당이 됨을 분개하여 절구시 한수를 지었으니 그 시에 말하기를 살아서 갈래길 동서가 있는게 미우니 구름과 더불어 같이 가고 학과 더불어 살고 싶구나。홍이 나면 때로 많이 취하여 취한 얼굴 어느 곳 사람들로 향하여 낯출 것인가。이 싯귀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사며 감정을 건드리어 좌천이 되었고 비록 훼방을 당하여도 개의하지 아니하였다。이것이 친구와 교류하기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그의 품성의 완전함과 행동의 고고한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은 무술년(1538년) 5월15일에 출생하여 갑오년(1594년) 5월28일에 죽었으니 향년이 57세이었다。광주군 음촌의 남남동향(임좌)의 능원에 장례를 하였으니 선영의 곁이 된다。첫번째 부인은 여산 송씨이니 동지 벼슬을 한 송맹경의 딸이요 부사 벼슬을 한 수의 손녀이다。천성이 온화하고 공손하여 일에 규범이 있으며 부모를 섬김에 소문이 나 있으며 남편을 모시며 덕에 위배된 것이 없었으며 나이는 약간 먼저 졸하였다。두명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인 경원은 나서부터 영리하며 기개와 도량이 남보다 크고 성품이 인자하며 재능이 있고 지각이 있어 나이 일곱살에 어머니가 졸하여 일찌기 계모를 모시며 자신이 봉양하면서 조금도 어김이 없었다。죽음을 당한 후에는 계모가 애도하며 슬피 울기를 자기 자식같이 하였으니 대저 어버이에게 효도한 소망이 상상되며 이미 장성하여는 광국공신의 음덕으로 빙고별제직에 제수 되었다。

무자년(1589년)에는 금오랑중을 제수받고 기축년 변고에는 형방도사로 사건을 간이하게 잘 알려 민첩하

게 이주하니 임금께서 영자로 칭찬하여 당시 동료들까지 영자의 공명을 일대의 영광으로 서로들 희롱하였다。 신묘년(1591년)에는 양성현감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에 임금이 의주로 파천을 떠나고 왕자가 포로되어 천리길을 달려가 관군이 지키고 있는 것을 문의하여 호조좌랑으로 전근되고 특별히 왕의 명을 받아 제금으로 가서 왕자를 구제하였으니 국사에 부지런히 하다가 국사에 죽게되어 추서하여 이조판서를 증직으로 받았다。

둘째 아들 길원은 재능이 있어 말을 잘 타고 글을 잘하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종요와 왕휘지의 필법을 좋아하였으며 임신년(1572년)에는 사마시에서 형제가 같이 합격하였으며 경인년(1591년) 별시에서는 아우인 길원이 먼저 급제를 하였다。 임진년(1592년)에는 승문정자를 임명받고 계사년(1593년)에는 한림원으로 특명을 내렸으나 임명도 받지 못하고 병세가 위독하였다。 애석하도다 형의 아들인 태기로 양자를 삼았다。

둘째부인은 전의 이씨이니 현감인 이염의 딸이며 판서인 구령의 손녀이다。 성품이 인자하고 너그러우며 또 예법에 익숙하여 부모의 곁에 있으며 사랑과 공경의 도를 다하였다。 그는 어린시절에 내사촌 아우 허잠이 어려서 어머니를 잃자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반드시 젖을 양보하고 나중에 자기가 젖을 먹었으니 그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미 장성하여 그가 시집을 가게되어 윤씨네 가문으로 시집을 갔으니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모두들 기뻐하였다。 선물이 들어오면 시부모들에게 바쳐 살아서는 능히 남편과 짝을 맞추어 능히 남편의 일에 배필이 되었으며 능히 그 집안 법도를 지켜 제사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살피고 차려 시종을 게을리 아니하여 비록 피난길 당황하는 가운데라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 딸을 가르치고 길러 모두 시집보내고 장가들여 주었다。 그는 피난다니던 시절에 늙으신 어머니와 형과 조카들을 모두 강원도 회양현으로 모이게 하였는데 적군이 곧바로 북쪽길로 향하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산을 근거로 하여 한걸음 물러서 약간 피할수가 있었다。 남편이 북방에 있어 결사적으로 걸어서 마침내 난리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편안과 험악때문에 그 지조를 변하지 아니하고 부자와 가난때문에 그 지조를 달리 아니하였으며 작은 것을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결같이 살다가 죽었으니 이것이 가상할 뿐이다。 세아들과 두딸을 낳았으니 장자인 희원은 천성이 인자하고 효성이 있으며 뛰어난 재능과 총명하여도 오직 벼슬을 하지않고 이백과 두보 시를 섭렵하며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명성이 자기를 더럽힐까 두려워 하였는데 특히 칠언율시를 잘지어 당나라 풍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악 이안눌과 오산 차천뢰도 역시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둘째 아들 상원과 셋째 아들 영원은 어려서 죽었다。큰 딸은 군수인 이유심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선비인 남석에게 시집갔다。큰 아들인 경원은 공보다 먼저 죽었으며 그의 아들인 성균관 진사 계기가 승중손이 되었다。

이조판서 이돈은 짓다

④ 漆溪君行狀(諱 卓然) 代言公后

公諱卓然 字尙中 姓尹氏 自號曰重湖 漆原人也 其先十二代祖松碑—始爲元中郎將 子孫 世爲大官 冑胤 蟬聯奕世冠冕 後八世 至碩輔 弘文館直提學 贈吏曹參判 於公爲曾祖 以直諫淸白 顯名于世 直提學 生內贍寺判官 贈吏曹參判諱文亨卒 葬豐德蠏梁里 判官 生公之考 諱 伊 爲牛峰縣令 贈純忠補祚功臣議政府領議政 卒葬廣州利甫下大院之東乾坐巽向之原 議政公 娶金氏胤先女 安東望族也於嘉靖戊戌 生公于淸州靜安里第 公 自提抱之時 氣度超凡 才華出衆 世人 以奇童稱之 及其長也 以道德文學 伏一世而其友七人者 與之從遊 當世 大夫士 謂之八文章 崔簡易岦 李鵝溪山海 亦其一也 時 有權勢者 爭欲登于公門歸之如子而公 不以爲屑 不欲以富貴 自期 其志不可量也自十七歲 連中科第 戊午 司馬 乙丑 登謁聖第 三人 選入槐院 裵英內翰 旋拜承政院注書 時 明廟 將憑玉几導揚末命而公 秉筆書 德興君第三子 以參字 書之 大爲時相所賛以是 益知公之才能 戊辰 出六品拜成均館典籍 選拜司諫院正言 遷拜刑曹佐郎 其年 以千秋使書狀官 朝京師 被抄弘文錄 拜弘文館副修撰 移拜正言 又拜兵曹佐郎 即出入薇垣玉堂者 數三 正佐兵曹禮曹者非一 甲戌 以奏請上使李後白 副使尹根壽 書狀官 又爲赴 京 盖爲辨誣中請故愼簡 一時名流也 還越江 即拜司憲府持平 先時 公之在薇垣也 有賤類 特授六品正職者 公 與同僚彈論 已數月矣適中筵中 猶執前說 棘刺不阿 至曰此簡文之所不爲也 上曰以我爲簡文耶 公 即對曰改過則爲堯舜 不改則爲桀紂豈特爲簡文而已 自 上盛怒 在列 無不縮汗 時 洪公暹 爲首相 力解之 前者 屢擬三司之望而未得受點 今始入栢府以使事 有勞故也 陞掌令 移拜校理 又拜內贍寺僉正 爲議政府檢詳舍人 陞三品爲執義 爲司諫 乙亥 以舍人 特拜東萊府使 陞堂上也 丙子 丁內外艱 服闋 除衛將 戊寅 出爲尙州牧使 有異政 特賜表裏一襲以寵之 庚辰 特拜承政院同副承旨 遷左副 以春塘庭試居魁 加資陞嘉善 爲左承旨陞都承旨 所製南薰詩二十韻排律 至今膾炙人口 遞拜禮曹參判 追 贈三代 壬午 觀察慶尙道 所至 極思必悉利 病民得蘇醒 南士大喜 以病遞付同知經筵禮曹參判 又入承政院爲都承旨 特加資憲 爲漢城府判尹 又追 贈三代知 經筵藝文提學 人以爲不寃 判戶曹者再事以理 至今有遵行之者又觀察京畿平安兩道 皆有聲績 辛卯 以光國功臣三等 陞

正憲 封君爲漆溪 父母 封爵官 其一子 圖形鐵劵 賜銀馬
有差 以奏請書狀 改 宗系 與有功也 公 爲文章 不爲雕刻
而自能渾成 不眩於時而人自傳誦 在堂下則兼春秋知製敎
在嘉善資憲則同知春秋藝文館直提學 爲承文院提調 一時
閱世之文 多出其手 公之在文翰 不爲不達而猶阨於人 不
得秉文衡之任 所富者才 而所嗇者時也 公 在備邊司 爲有
司堂上者 十有餘年 籌劃軍國 憂勤勞瘁 時 邊鄙 多虞驛
書旁子而公 左酬右答 處之裕如也 及其壬辰之初 公 方其
散地 特授以備局有任之任 其見重於時 如此 維時 凶鋒一
犯 擧國瓦解 爭懷逃竄之心 莫有朝夕念家屬 以去就 爲問
公 答曰宗廟在此 吾君在此 吾身在此 汝尙何歸乎 至於大
駕西巡 公 又以陪行使 北行然後 家屬 僅得出城 從公于
北 公之忠節 不以夷險有異而不以家累 累其心也 始至北
靑 得聞特除檢察之任而時則賊鋒 己逼於咸關 生民 投竄
於山林 公以隻手 難遏滔天之勢 先從三水甲山 轉何雪嶺
鴨綠 欲歸死於父母之傍 蓋其志也 行至別害堡 始聞特授
觀察使兼都巡察使之命 公 乃出讀所賚來 敎諭書 左右觀
聽者 揮泣感激 雖常時掘疆 不受羈束者 亦皆俯首聽命 義
聲所及 遠近響應爭赴 公 乃進屯之咸興之沙水村 糾合官
軍 控制義旅 以爲攻戰之計 公 欲赴朝于 行在而有 命留
討 不得如志則遣其長子慶元 奔問官守 其寄長子書曰國賊
未討 國耻未雪 藩多賀蘭 幕無諸葛 世受國恩 報以何物
只有一死 矢不苟活 獨守孤城 今四十日 日星下臨 鬼神旁

質 成仁就義 孔曰孟曰 吾意有贊 汝背當湼 此其素所蓋積
也 及其出兵 屢挫凶鋒 欲蔽遮薛列罕劒山等處 扼强寇之
咽喉而制通西之要路 使北賊 不得西向則是誰之功也 屢奏
捷報 爲諸道㝡 時 冬深 自 上特軫其寒 特賜羊裘一襲以
勞之 其謝箋 曰國賊未除 方懷死綏之志 天恩荐降 遽荷賜
衣之榮 撫躬難勝 拜乎知感 伏念臣 詩書舊業 韋布迂生
蒙被寵光 厚享溫飽之樂 沐浴聖澤 長占蹈舞之懽 矗玆卉
服之憑 凌痛矣 乘輿之播越五月 聞命 曾飮渡瀘之氷 半夜
行師 更踏入蔡之雪 此身之不亡 可恠 今日之苟保 多慚
何圖窮塞之微躬 致勤細氈之軫念 仍忝檢察巡察 反錄其犬
馬之勞 不問有功無功 特錫以羊羔之革 至於數束之官貨
亦及一葛之幕僚 有何奔走之可酧 獲此便藩之實數玆 盖伏
遇德則廣運明足 有臨緇衣 好賢咸仰 周官之政 赤心推己
皆思宋祖之仁 逡令折綿之寒 轉作挾纊之懊 臣 敢不夷險
湼背 終始銘心 敵又改爲準擬 三十年安吉 服之無斁 恒祝
八百歲春秋 賊退之後 北門 新經兵燹 子遺之民 饑餓轉展
死亡殆盡 公 夙夜規畫 猶己飢溺 那移穀食 接濟艱難 南
北之民 賴以生活 及公之歿 柩出于南 居民 感公之德 至
以簞壺 薦于道路者 相望 公之德澤 其在人者 不其大矣乎
公之疾革也 猶醇醇然 如夢中語 無一言於家 惟以國事 爲
念 其爲國之誠 雖死而彌篤焉 嗚呼 公 天性方嚴 中心樂
易 有仁人君子之心 有慈詳惻怛之意 事君忠 事親孝 篤於
友愛而不喜交遊 公 隨事納諫 盡言不諱 屢被摧折而不少

貶 晩節彌劭 炳若日星 愛國之誠 憂國之心 死而後已 此其忠君之至也 公 事亡如事存 朝夕 謁廟 有事必告 出入必告 凡朔望節日 具酒饌 必親奠之 雖有疾病 未嘗使子弟行之 祖先祭祀 必獨當行之 不爲輪回 此其孝親之至也 公撫養弟妹 至於成立 且憫其少弟之無家舍 備材瓦 役奴僕以造給之 此可爲篤於友愛者矣 公於儕輩之間 有權勢者未嘗與之往返 又憤時人之分黨 点得一絕 曰生憎岐路有東西 雲與同行鶴與棲 乘興有時成大醉 醉顔何處向人低 以此 見忤於人 敲憾挫慽 雖遭詆毁而不以爲意也 此可謂不喜交遊者矣 其禀性之全 制行之高 爲如何哉 公 生於戊戌五月十五日 卒於甲午五月二十八日 享年 五十七 葬廣州陰村壬坐丙向之原 從先塋也 先夫人 礪山宋氏 同知孟璟之女 府使壽之孫 賦性溫恭 事有規範 奉父母 有顯行 配君子 無違德 年若干先卒 生二男 長 慶元 生以穎悟 氣度過人 性賦仁慈 才禀知覺 年七歲 天只見背 早侍繼母 躬親奉養 少無違之 逮亡之後 繼母 悼傷感泣 若己之子 蓋孝親之志 可想 既長 以光國功臣 蔭除氷庫別提 戊子 除金吾郎中己丑之變 以刑房都事 奏事能簡 趍走敏捷 主上以鈴子 稱善 一時朋僚 以鈴子功名 一代榮顯 相戱云 辛卯 除陽城縣監 壬辰之亂 大駕西幸 王子 被虜 跋涉千里奔問官守 移拜戶曹佐郎 特蒙 王命 齎金往濟王子 勤於國事 死於國事 追贈吏曹判書 次 吉元 才能 騎馬 善 綴文辭 工於文章 筆摹鍾王 壬申司馬 兄弟同榜 庚寅別試 弟先登龍 壬辰 拜承文正字 癸巳 除翰林 未拜而病篤 惜乎以兄子泰基 爲繼后 後夫人全義李氏 縣監念之女 判書龜令之孫 性禀仁慈 又閑禮法 在父母之側 盡愛敬之道 其在孩提 內弟許箴 幼失母 歸養于家 必推其乳而後 自乳 其天性然也 既長 得其所宜歸 歸于尹宗入門 媪御皆喜 既饋而舅姑交賀 生能配其賢役 能守其法 凡祭祀 必躬自檢飾 終始不怠 雖在流離搶攘之中 不廢焉 教養子女 皆得嫁娶 其在奔竄之時 老母與兄姪 咸聚於江原道之淮陽縣 皆以爲賊鋒 直衝于北路 不可以前往 此地 依山退步 可以少避 以公在北 決意而行 卒得相從於患難之中 不以夷險而變其志 不以豐約而異其操 不歉于約 不矜于盈 從一而終 是可尙己 生三男二女 長 喜元 天性 仁孝 英才聰睿 惟諾班馬 涉獵李杜 杜門絕迹 恐名浼己 尤工於七言四韻 深得其盛唐風格 東嶽李君 五山車氏 亦莫不稱善焉 次 祥元 次 榮元 早死 長女 適前縣令李幼深 次 適士人南錫 嗣子慶元先公卒 其子成均進士啓基 承重云

吏曹判書 李墍 撰

◇

⑤ 목사공행장(휘 수연) 대언공후

공의 휘는 수연이요 자는 여순이다。공은 명나라 가정 정미년(1547년) 9월1일 태어나 만력신사년(1581년)에 선조이신 청백리 윤석보의 음덕으로 와

서 별제를 제수받게 되고 을유년에는 6품급으로 승진하여 제용감 주부를 특명받았으며 1년이 지나 병술년에는 제천현감으로 나갔다가 만기가 되어 그곳에 있었는데 사섬주부를 특명받게 되어 돌아왔다。 당시 시험관이 바로 옛날 정승을 지낸 완평군 이원의 노인장이었다。 이공은 공께서 6년간 현감을 하면서 많은 선정의 업적이 있었으니 이후로 군수들이 자리를 비우게되는 것이 있으면 곧 공을 본받으라고 하였다。

공이 여러해동안 외직에 있음으로 형제들과 오래 헤어져 있게 되었다。 그래서 판서로 있는 형에게 고하여 그 사정을 인사관에게 간곡히 알리니 인사관은 대답하기를 6년간 선정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급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말한 후일에 이정승이 마침내 사직서령으로 뽑아 결재를 받았다。 그 후에도 역시 늘상 수령의 물망으로 뽑히게 되었다。 그래서 공은 부득이 하여 인사관에게 알려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을 끝까지 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까운 지방군수로 나가 시시로 늙으신 형님이나 찾아 뵈옵겠다고 하니 때마침 양천에 빈자리가 있었다。 첫째로 뽑혀 승락을 받았다。 바로 임진년 4월이었다。 부임도 하기전에 임진왜란이 갑자기 이르러 온 나라가 큰 파란이 일어났다。 온 집안 식구가 배를 타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공은 나라를 지키는 관리로 끝까지 양천지방을 떠나지 아니 하였다。

이때에 삼강지방에 사는 국민들이 모두 양천지방으로 모여 의병부대를 만들고 곧 공을 추대하여 의병대장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공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적군들은 방자하게 날뛰고 국가 일은 크게 어긋나고 있으니 너희들 하는 일은 비록 남자의 일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장수라는 사람은 진실로 서생이나 선비는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하였다。 이때에 전첨사인 이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히 장수가 될 수 있겠다고 하며 곧바로 달려가 이일이를 만나보고 말하기를 삼강사람들이 양천지방으로 모여온 것은 의병이 되고자 한 것인데 다만 장수 될 만한 인물이 없었는데 그대의 재능이 장수 책임에 적합하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병법을 들었더라면 의기가 있는 곳이면 어찌 소매를 걷어 올리는 의지가 없을소냐? 마침내 의병장을 권고하고 서로 더불어 모의하고 계획하여 많은 적군을 사살하고 생포하였다。 이래서 조정에서는 공이 끝까지 양천을 고수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군자첨정으로 특진을 시키고 얼마후에는 또 군사의 공로로 군자정으로 승진이 되었다。

계사년은 왜적이 물러간 후이라 다시 포천현감을 제수받었는데 포천현은 평화시에도 본래 가난한 지방이었다。 하물며 전란을 겪었으니 인물이 고갈되었을 것이다。

공이 즉시로 부임하여 보니 군내가 쓸쓸하고 주민이 거의 없었다。 다만 늙은 아전 한 사람이 찾아와 말 하기를 이 지방의 피폐가 이렇게 되었으며 현재 국가는 상처를 당하여 기강까지 안정되지 아니한 초기인데 장차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워 놓겠느냐며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였다。 공은 눈으로 이러한 형세를 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오래 걸릴 것이나 중지 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경기감영에 보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감사를 찾아가 그 사실상을 낱낱이 설명하니 경기감사는 상소하여 조정에 알려 포천현을 영평현과 합병시키고 그리고 공은 경기감사의 종사관들을 올라오게하여 감자를 받아다가 군인과 주민에게 나누어 주니 먼곳 가까운 곳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굶주리고 부황나서 거리에 누워 수근거리며 하소연 하는 현상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이때를 당하여 만일 조금이라도 이권을 누리려는 뜻을 두었더라면 토지와 재물을 셀수 없이 모았을 것이다。 그런데 공은 자기 이욕엔 틈이 없고 오로지 인명을 살리는 것으로 급선무를 삼았다。 한사람이 땅문서를 싸가지고 찾아와 구걸을 하여 말쌀과 교환하여 주었더니 와서의 관리가 토지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공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이며 이곳이 어느곳이냐? 내 어찌 차마 토지를 좋아하랴하며 구휼미를 주고 즉시 물리쳐 버렸다。

임진년과 계사년 이년간을 거리에서 자고 밖에서 밥을 먹어 일찌기 고난에 대비가 되어있으며 이런 것으로 끝을 맺겠다고 하더니 학질이 자주 걸려 10여일 고생하며 치료가 쉽지 아니하여 부득이하여 들것에 실려 강화도로 왔으나 온 식국가 피난 나온 곳이라서 병세가 위독하여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궁궐을 바라보며 오히려 임금을 잊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잠고대 헛소리까지 말하는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일이었다。 이때는 경기감사가 바로 정승을 지낸 이정향이었다。 공과 더불어 동문수학한 죽마고우이었다。 공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의사와 약들을 보내고 자주 문병을 하였다。 그 때에 온 집안식구들이 눈물을 머금고 황황히 날을 보내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또 용인현감으로 제수하였다。 공은 병세가 줄어들지 아니하여 공의 큰아들은 즉시로 공의 병세상황을 경기감사에게 알리니 경기감사는 그 병세를 알고 즉시로 교체하여 신성기로 대신 시키었다。 정승인 해원 윤두수 노인장이 도체찰사로 남쪽으로 내려 가다가 용인현에 이르러 급히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소신이 용인현에 이르러 보니 이 용인현은 방탕하고 패망하여 꼴보기에 한심스러우니 윤수연이 아니면 가난한 국민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으니 윤수연이 비록 병중이지만 오늘이라도 병이 나서 회복되거든 빨리 새로 임명한 신성기를 윤수연으로 바꾸어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이 때에 공의 병이 또한 차도가 있어고 조정에서는 독촉을 하니 억지로 병을 참고 즉시로 용인으로 부임하니 이때까지 왜군들은 부산등지에 가득히 있고 명나라군인 10만명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어서 안밖으로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기강이 없었으며 특히 난리를 겪우 수습했으나 또 큰 흉년이 들어서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도 죽음을 못면할정도로 넉넉하지 못하여 서로 뺏어 먹어 남은것이 없으며 또 화적대장 현몽이란 사람이 있어 악당을 불러모아 경기도내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는데 큰무리는 관군까지 몰아내고 세종대왕능소 제수까지 강탈하여가고 작은 무리는 꺼리김 없이 멋대로 행동하여 농촌의 소와 말까지 노략질하니 이래서 각 관아에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다。

공은 산위에다 나무성을 설치하고 백성을 용인군으로 모아 변란을 대비하는 곳으로 삼고 또 백성된 도리를 일깨워 시골마을을 몰래 회유시켜 항복을 하도록하니 현몽의 부장인 이순재가 이천관청으로 항복하여 오고 이봉일도 용인으로 잡혀오게 되니 이 때부터 그 후로는 도적의 근심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을미년에는 도적을 체포한 공로로 통정대부로 승진이 되었다。임진년 이후로 연속하여 경기도내 군수를 하며 나라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굶주린 국민에게 곡식을 주워 살게 하였는데 왜란이 일어난 때에 이르러서는 국민을 물과 불속에서 구제하여 준 사람이 몇천만 사람인지 알수가 없다。사람들은 모두들 음덕의 보답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정유년 칠월에는 벼슬을 버리고 풍덕 시골집으로 돌아와 이 때부터 그 후로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사절하고 늙어 죽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다음해인 무술년에는 광주목사 자리가 비어 있었다。이조에서는 대신들의 뜻을 상소로 올려 말하기를 광주는 지방이 국가의 관문에 있으며 또 명나라 군인들이 계속하여 주둔하고 있어 군량미가 매우 급한데 이런때에 목사는 윤수연이 아니면 절대로 함당한 사람이 없으나 윤수연이 때마침 휴양중에 있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금으로 부터 특명이 내려서 등용하라고 하였으나 공은 벼슬을 버리고 용인으로 돌아갈 때에 이미 벼슬에 뜻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해직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오게된 것이다。그러므로 해직이 지금까지 이루워지지 아니하고 비국에서 경기감영의 관리들을 잡아 가두고 기한내에 부임하라고 독촉을 하였다。4월에는 조정에서 광주목사로 제수를 하여 목사로 부임한 이후로 일은 어려운 것들이 많고 몸은 또 병이들어 겨우 직책을 바꿀 수 있었다。기해년에는 또 이천군수로 나갔으며 경자년에는 천재를 당하였는데 경차관에게 파면을 당하였다。3년을 지나 갑진년에는 장단부사를 제수받었는데 그 해 8

월에 또 천재를 당하여 파면을 당하였다。그 때에 경차관은 겸방문어사로 위 사람들부터 회생자를 뽑아내라는 곳이 양주 강화 장단 네개 군현이었다。회생자를 뽑아낸 사람중에서 군수 한 두사람은 본보기로 위법집행하고 세곳 군수들은 모두가 품계가 높고 유명한 문관들이었다。공은 특히 선조의 덕으로 벼슬을 하고 또 어사와는 평생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어찌 면할 이치가 있을소냐? 그러나 감히 다스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 상소하여 말하기를 윤수연이는 국민을 사랑하고 청렴결백하여 사람들이 많이 찬양하고 있으나 재앙의 손상은 너무 심하니 등등 말을 하여 마침내 파면을 당하여 쫓겨났다。또 파주군수를 받았으나 정미년에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공은 여덟곳 군수를 맡았는데 모두 떠난후에 은덕을 생각하고 있어서 고마움을 표시한 네곳이요 비석을 세운곳이 두 곳이다。

공이 관리로 살아온 시종사적이 대략 이와 같이 되었으며 그리고 집에서의 삶은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는 소문이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으니 진실로 내가 한두가지 말할 바가 아니다。공은 큰누이동생 내외가 다같이 죽은 후로 오직 두아들만 있어 공이 그 두 고아가 의지할 곳 없음을 불쌍히 여겨 데려다가 집안에서 기르게 되었는데 부인도 돌보기를 역시 아들같이 하여 의복과 음식을 자기가 낳은 것 같이 하였으며 장성하여는 장가 들여 주었는데 모든것을 예절대로 의거하였으니 이것뿐만이 아니다。

또 아우의 큰아들과 형의 손녀가 난리를 치른후로 가난하여 시집가고 장가들지 못하여 공과 부인이 상의하여 혼인을 이루게하여 그 시기를 잃지 아니 하였으며 그리고 일가친척들 중에 만일 곤궁한 사람이 있으면 오직 힘이 미치는데까지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었다。이래서 집안사람들과 밖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감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그렇지만 벼슬길에 있으며 청렴결백한 것이 특별한 업적이다。공은 늘상 자손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벼슬하게되면 선세부터 전해오는 청렴결백에 욕되지 않게 하고 제사와 혼인은 반드시 집안의 유무에 맞추어 하고 세상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배는 증의위어모장군부호군 이한의 딸이니 홍주이씨요 부인의 어머니는 이천서씨이다。공은 을묘년(1615년) 8월8일에 졸하니 향년이 69세요 부인은 무신년(1548년)2월24일에 출생하여 무오년(1618년) 11월2일에 졸하니 향년이 71세이다。증정부인이 되었다。묘소는 장단군 장서면 반장리 금천 동남동향(신좌)에 있으며 내외를 쌍분으로 모셨다。

⑤ 牧使公行狀(諱 粹然) 代言公后

諱粹然 字 汝純 公 生於皇明嘉靖丁未九月初一日 萬曆辛巳 以先祖淸白吏尹碩輔蔭 得除瓦署別提 乙酉 陞六品 拜淸用監主簿 越一歲 丙戌 出補堤川 瓜滿 在任所 拜司贍主簿而歸 時 銓相 乃故相國完平李公元翼爺 李公 以公以爲六年 屈邑 多有善治之效 此後 守令若有窠闕則輒及擬望 公 以多年在外 久離同氣 以此 告於判書伯公 懇通其情勢於銓相則銓相 荅曰六年 善治 尙未陞品 無乃以是爲辭耶 云云而後日 政遂擬社稷署令 受點 厥后 亦常擬守令之望 故 公 不得已 通於銓相曰守令之任 若終不得免則寧欲得近邑 以爲時時來覲老兄 適其時 陽川 有窠 首擬而受點 乃壬辰四月也 未赴任前 倭變 猝至 擧國 奔波 一家乘船避難于江都 公則以守土之官 終始不離邑境 時 三江邑人 皆聚陽川界 此爲義兵 仍欲推公爲義將 公 辭曰賊虜橫騖 國事大謬 汝等所爲 雖眞男子事 然 將者 固非白面迂儒 所可當者也 此間 有前僉使李鎰者 其可以爲將 即馳往見李鎰 言曰三江之人 來集境下 欲爲義兵而但無可將之人 君才正合此任 丈夫墜土地 畧聞兵家之事則義氣所在 寧無奮袂之志乎 遂勸爲義兵將 相與謀劃 多數殺獲 於是 朝廷 聞知公 終守不去 即爲超拜軍資僉正 未幾 又以軍功陞授軍資正 癸巳寇退後 旋除抱川縣監 抱川爲邑 在平時 素稱殘邑也 況新經兵火 人物凋瘵乎 公 即往赴任則境內

蕭條 村民無餘 只有一老吏來現曰此邑之疲弊如此而當今 國家瘡痍 紀綱未定之初 將何以成樣乎 云云 公 目見形勢 決難久在 不獲已 一邊報于監營 一邊來見方伯 極陳其實狀則方伯 啓聞于朝 以抱川 合于永平而公則以方伯從事官上來 即受唐米 分給軍民 遠近聞集 餓莩載路 其爲嗷嗷哀訴之狀 惻不忍見 當此之時 若小有意於貪利者則田土財貨不可勝貿而公則不暇自利 專以活人命爲急 至有一人 封文卷來 乞與斗米相換 乃瓦署好田土也 公 招見其人 大叱曰此何等時也 此何等谷也 吾 何忍田土爲也 賑給米斗 即斥去之 壬癸兩年之間 露宿風餐 備嘗艱苦 以此爲祟 重得瘇疾 苦痛十餘度 未易見瘳 不得已 舁來江都 一家避難所 病勢尤劇 將至不救而北首望闕 猶未能忘君 譫語中 所言者 皆國家事也 時 方伯 乃李相國廷馨也 與公同門 蔥竹之友也 聞公病重 送生官及藥物 頻頻問病 其時 一家之人 掩泣遑遑度日而自朝廷 又除龍仁縣令 公則病不能省 公之長子公 即以公之病狀 聞于方伯則方伯 知其實病 即爲啓遞 以辛誠已 代之 尹相國海原斗壽爺 以都體察使 南下到龍仁縣 馳啓曰臣 到龍仁則本邑 蕩敗無形 所見寒心 若非尹某 不可蘇殘氓也 尹某雖病 今又差復 速遞新除授辛誠已而以尹某 仍任事 宜當云云 此時 公 病亦小間 朝廷 督送故 僶俛强疾 即赴任所 時 倭寇 彌滿釜山等地 天兵十萬 來住京城 內外責應 罔有紀極 加以饑經亂離 又大饑 所存餘民 救死不贍 相食殆盡而又有火賊玄夢 嘯聚徒黨

作賊於畿甸 大則驅逐官軍 奪取英陵祭物 小則橫行無忌
劫掠村家牛馬 以此 各官 戒嚴相持 公則設木柵於山上 募
百姓於境內 以爲待變之地而又以朝家付分之意 密諭村間
使之納降 玄夢 副將李純材則納降於利川官 李鳳一則見捉
於龍仁縣 自是之後 賊患 稍寢 歲乙未 公 以捕賊 陞秩通
政 自壬辰年來 連守畿邑 盡心國事 賑活飢民 至如倭亂之
時 濟人於水火中者 不知其幾千萬人 人皆謂將有陰騭之報
云 丁酉七月 棄歸豊德農舍 自此之後 謝絶人事 以計終老
之計 越戊戌 廣州牧 有窠 吏曹以大臣之意 稟啓曰廣州之
爲邑 在國門戶 況且天兵絡繹 運糧方急 此時 牧使 自非
尹某則絶無可合之人而尹某 方在準期之中 何以爲之 自上
特命敍用而公 棄歸龍仁之時 已有仕宦之念 不給解由債而
來故 解由未尙成出 備局 捉囚京營邑吏 刻期催督 四月
政 即除廣州牧使 赴任之後 事多難便 身且有病 僅得圖遞
己亥 又守利川 庚子 見忤於灾傷 敬差官 罷免 越三歲甲
辰 除拜長湍府使 其年八月 又以灾傷 見罷 其時 敬差官
兼訪問御使 自上抽牲者 楊州驪州江華長端四邑也 抽牲中
守令 例有一二人 執頃之規而三邑守令 皆秩高有名文官也
公獨以蔭官 且與御使 素昧平生者也 寧有得免之理乎 然
不敢以不治 爲啓 乃曰尹某 愛民淸白 人多推譽而灾傷則
尤甚 差錯云云 以此 竟被罷黜 又典坡州 丁未 罷歸 公
歷典八邑 皆有去後之思 表裡者四 竪碑者二也 公之屐官
終始事蹟 大槩如斯而其居家 孝友敦睦 播在人口 固非不
肖之所可一二也 公 長姊夫妻 俱沒之後 只有兩孤 公 憫
其兩孤之無依 取養家內而夫人 亦視之如子 凡衣服飮食
一如己出 及長 婚娶 皆依禮 非但此也 且有季弟之長子
伯兄之孫女 經亂之後 貧不嫁娶 公及夫人 相議成婚 不失
其時而凡於親族之中 如有困窮者則惟力所及 竭心周救 是
以門中人 及在外所知 莫不嗟嘆也 然則莅官淸白 特其餘
事耳 公 常戒於子孫曰甫等 他日仕宦 不辱先世傳家之淸
白 凡祭祀冠婚 必稱家之有無 毋效世人之務勝 可也云云
配 忠義衛禦侮將軍副護軍李漢 女 洪州李氏 夫人之妣 利
川徐氏 公 卒於乙卯八月初八日 享年 六十九 夫人 生於
戊申二月二十四日 卒於戊午十一月初二日 享年 七十一
贈貞夫人 墓 在長湍長西面半長里金川辛坐之原 雙墳

◇

⑥ 임부인행장(林夫人行狀) 대언공후

정부인(貞夫人)의 성은 임(林)씨로서 형조정랑(刑曹正郞) 윤(尹)공 휘 자신(自莘)의 배(配)이시다。정랑공(正郞公)은 태국(泰國)의 6대조이시다。임씨의 본관은 진천이고 진천에 세거한 부사과 휘 세웅의 따님이시다。증조의 휘는 격이며 현감이었고 할아버지의 휘는 윤조로 참봉이었으며 어머니는 풍천임(林)씨인 참군 구지의 따님이다。

정부인(貞夫人)께서는 서기 1557년 2월6일에

출생하시어 서기 1641년 6월28일에 돌아가셨다。 묘는 경기도 고양에 정랑공(正郞公)과 합장하였다。 아들이 없어 중씨(仲氏:둘째형님)인 장사랑 휘 기신(起莘)의 차자인 휘 유길(有吉)을 양자로 하였다。 유길(有吉)은 생원으로서 평창군수를 역임하였다。 부인은 뛰어난 자질을 갖고 태어났으며 덕도가 모자람이 없고 부모로부터 매우 귀여움을 받았다。 임공이 본래 부자였는데 어진 딸을 두고 자랑하였다。 사위를 고르는데 향중 세족이 많이 구혼하였다。 임공이 모두 물리치며 부귀한집 자제라도 내 딸과 맞지 않으면 사위를 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때 우리 집은 상난(喪難)을 당하여 진천에 와서 임시로 살고 있었다。 정랑공은 외로운 총각이고 중씨는 병들어 있어 정랑공이 몸소 농사를 지어 형님을 봉양하고 있었다。 하루는 임공이 나무하고 고기 잡는 정랑공을 보고 기뻐하며 이 사람이 나의 사위감이다 하고 물어서 윤씨의 자손임을 알고 마침내 딸을 시집보내니 친정일가들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 이 시골집 아이를 사위로 정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임공은 뜻을 꺾지 않았다。

부인이 처음 와 보니 부서진 집 몇 칸에 바람과 햇빛을 막기 어려웠으며 여러 날 밥을 짓지 않아 종자들이 모두 괴로워하였다。 부인이 탄식하여 병든 시숙이 집에 있으나 조반을 줄 수 없는데 내가 옷과 물건들이 있다고 어찌 혼자 장식하랴 하고 즉시 그것들을 팔아 공양을 하다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친정아버지이신 임공이 듣고 매우 현명하게 여겨서 부인에게 자본이 되는 재산을 만들기로 하고 근방에 집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시집이 곤궁하고 병든 형이 있으니 남편이 이를 버리고 부인을 따라 친정에 오는 것은 불가한데 나도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이니 멀리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으므로 양가의 중간에 집을 마련하소서 하니 임공이 이를 따랐다。

부인이 장사랑공 내외를 시부모같이 매우 공경하여 모셨다。 의식에 쓰이는것 모두를 마련하여드리고 제사 때에는 반드시 먼저 가서 삶고 익히고 닦는 일을 하였다。 돕는 일이 엄하고 정결하였다。 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제사에 쓸 것을 생각하고 그 나머지로 식구양식을 삼으며 중씨네 집으로 옮겼다。 이와 같이 하다가 남편의 나이가 많아지고 공부의 때를 놓치는 것을 걱정하여 하루는 울면서 고하기를 윤씨네 벼슬의 몰락이 극에 달해서 중씨는 재주가 높으나 질병이 있으므로 남편께서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입신하지 않으면 문중에 회복을 바랄 수 없다고 하였다。 공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깨달아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글을 읽겠다 하니 부인께서 배움은 뜻을 세움에 있으니 만일 시작과 끝이 없다면 농사짓는 것만도 못하다 하였다。

공께서 스스로 풀이 우거지고 해충이 있는 자리에 나가 3주 야간 부동자세로 앉아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스스로 시험하셨다。그런 연후에 중형에게 배움을 청했다。한번 자리에 앉으면 날이 어두운 밤까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공이 배움을 시작한 후 부인은 일상의 집안일을 하지 않고 새벽부터 명주실과 삼실을 손수 만들면서 글 읽는 옆에서 부지런히 힘쓰도록 도왔다。집에 책이 없으므로 향교에서 매번 책을 빌려서 읽었고 부인은 항상 향교 관리인에게 책을 빌리는 대신 바느질감을 맡았다。책 반환기일에 돌려주면 복습할 수 없으므로 부인이 종이와 붓을 사 주어 공이 베껴서 읽은 책이 몇 십권인데 모두 부인이 책으로 만들어 금후 자손의 집에 남겼는데 그 겉표지에는 속적삼을 이용해서 한글로 쓴 쪽지들이 많이 보인다。

공이 31세에 사마시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공부를 더하여 3년이 되자 표현되는 말이 멋지고 뛰어났으며 경서에 밝은 명망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자주 천거되었으나 여러번 거절하고 늦게 침랑(참봉)벼슬을 하였다。선조 39년(1606년)에 문과에 오르니 이미 52세였고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광해조에 귀인들의 자제가 세력을 믿고 시험장을 어지럽게 함으로 적발하여 벌하고 과거를 정지시키어 세도가들을 크게 거스렸으나 곧 사헌부 감찰로 되었고 이때 장차 폐모사건의 논의가 있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부인께서 말씀하기를 지금은 군자가 벼슬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셨다。집에서 일하지 않고 지내기를 10년이나 하였으나 부인이 불평하는 기미가 없었다。공이 국사가 혼란한 것을 들을 때마다 분개하고 눈물 흘리시니 부인께서 술을 준비하여 드리고 위로 하였다。

부인이 30세에 자식이 없으니 후사가 없을 것을 걱정하여 공에게 첩실을 들이도록 권하였다。큰 동서 민 부인이 평창공을 임신하였을 때 장사랑 공이 졸하였고 부인께서는 매일 밤 분향하여 아들이기를 축원하였다。평창공이 출생한 후 수개월 후에 민부인과 함께 전염병에 걸렸었다。공은 마침 집에 없었고 병은 위중했다。부인께서 직접가서 보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 기운이 무섭다 하고 또한 앞 내에 빗물이 많아졌으나 다 위험하다고 하였다。부인께서는 동서의 병이 중하므로 내가 가지 않는 것은 불가하고 더구나 어린 아들은 내 집의 존망을 이을 것이므로 내가 당연히 몸소 가서 불행하게도 아이와 더불어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비가 오는데도 소를 타고 재주있게 냇물을 건너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물가에 닿는 즉시 전염병의 급한 열을 투약으로 처방하고 모자를 함께 구하였다。이로부터 평창공을 안고 돌아온일이 지금부터 근 200년이 되었다。시골의 아름다운

여자가 능히 성현의 도리를 세상에 전하는 이상한 일이 있다 하여 그 내를 가리켜 이 곳이 정부인(貞夫人) 임씨가 건넌 냇물이다라고 한다。

평창공이 어릴 때 부인께서는 경험이 없었으나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은것이 없었으며 정랑공(正郎公)은 당시 세상에 뜻을 접고 한가로이 지내면서 아들 교육에 전념하였고 만년을 즐겼다。 평창공은 성품이 매우 효성이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여서 부인께서 기뻐하시며 이 아이가 반드시 윤씨를 번창케 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친정집에서도 부부가 자식이 없다가 이와 같은 아들을 얻은 것은 선행의 보답이라고 칭찬하였다。

1620년에 정랑공(正郎公)이 돌아가시니 부인께서 매우 슬퍼하여 살고 싶은 뜻이 없었으나 평창공이 너무 야위어 짐으로 탄식하시며 남편의 재주와 덕망이 드러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내가 심히 고통스러운데 만약 그에 더하여 남은 자식이 잘못되면 죽는 것이 지나치다 하시며 죽을 드시고 평창공에게도 권하여 먹도록 하셨다。 때마침 고양에 모든 선산이 있을때 상을 당하여 가세가 쇠약하고 먼 땅으로 운상도 어려웠다。 지관이 집 뒤에 좋은 땅이 있으니 묘를 써도 좋다고 하였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남긴 뜻이 아니라고 하였다。 더구나 이 집안이 여기에 영락하고 유랑하면서 만약 다시 편의에 따라 장지로 한다면 여기서 편안히 지내고 영원히 진천 사람이 된다고 하셨다。 순리에 따라 집안을 다스리고 고양 땅에 옮겨 장사지낸 후 즉시 민 부인을 맞이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양가에 각기 아들이 있어서 부탁하고 맡길 수 있으니 다행이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 두 사람이 남은 세월을 서로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평창공이 1615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드시고 1624년에 처음 벼슬에 나가셨다。 인조반정으로 정랑공에게 도승지가 특별히 증직되고 후에 또한 평창공이 1627년에 원종공신에 오르면서 이조참판이 추증되었다。 부인은 정부인 품계로 대우하게 되었다。 1633년에 평창공이 청양군수가 되어 두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부인께서 연세가 높아 손자를 일찍 성혼시키고 더구나 친히 아이들에게는 일과를 정하여 주니 글 쓰고 시 짓는 소리가 항상 슬하에서 가득 차니 보는 사람이 모두 탐내었다。

부인의 성품이 엄중하고 조금도 말을 빨리하거나 안색을 급히 바꾸는 일이 없었다。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한 후 일을 돌보니 늙어도 깨끗하고 맑으며 쇠약하지 않았다。 일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도 목소리와 얼굴색을 변하지 않고 상식적 생각에서 짧은 말로 사물을 서로 구별지어 처리하였다。

친정아버지이신 임공이 이미 병이 위중하니 노부인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큰일이 없으면 가서 보살펴 드리고 맛있는 음식은 모두 정성스럽게 올려 드렸다。노인이 한번 드시면 다행으로 여기고 좋은 날이나 명절에는 소반에 잔을 올려 슬하에서 올려 드려 기뻐하시게 하니 그 세월이 모두 부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정랑공(正郞公)과 더불어 흰머리가 무성해도 어려웠을 때의 굳은 약속대로 행동을 다하여 삼가하고 순종함에 조금도 어김이 없었다。임공이 이미 부인을 후하게 도와주었고 부인이 또한 집과 전답을 잘 다스려 많이 획득하였으며 누에를 치고 실을 뽑는 곳을 세워 집안일에 쓰게 하니 이것은 모두 남편의 뜻을 받든 것이니 함부로 전념한 일이 없었다。세속에 흔히 말하기를 부녀는 성품이 좁고 편한 것만 생각하며 남편을 업신여긴다고 하나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이미 늙어서는 일체의 집안 권력과 재산 관리권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좋은 밭과 좋은 소작인을 골라 장사랑공 장자에게 주고 제사를 모시게 하였다。집안을 다스림에 많은 일을 은혜와 위엄으로 하였고 자신이 편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일을 맡길 때 몸소 가르쳐 이끌어 모두 이치에 맞게 하였다。비록 어리석고 완고한 자도 다 길들여 가르치고 사랑하는 데에 힘을 다하고 즐거워하였다。

평창공이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우정은 문과에 급제하고 장령이었으며 우갑은 판관이었다。큰사위는 첨정 이헌국이요、작은사위는 신명기이다。우정이 5남 1녀를 두었으니 치적은 문과에 급제하고 좌랑이었으며 서적은 정랑이고 의적은 통덕랑、가적은 문과에 급제하고 관찰사였으며 경적은 판관이었다。딸의 남편은 판관 박태홍이다。우갑이 2남1녀를 두었으니 선적은 진사요、상적은 서령이었다。사위는 안세명이다。이헌국에게 2남1녀가 있는데 수만은 문과에 급제하고 부사였다。내외 현손이 이하에 다 적지 못하도록 많다。아! 부인의 덕이 아내가 된 자와 어머니가 된 자에게 교훈이 됨이 옳다。부지런히 힘쓰는 일에는 오로지하고 의로운 일에는 용기있으며 이치에는 통달하니 가정을 가진 자가 어찌 지나칠 일이겠는가。이것은 자손된 자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다。태국의 선친인 관찰사 공께서는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윤씨의 금일이 있는 것은 모두 5대 조모님의 공덕이다라고 하셨다。1743년에 하루는 여러 아들을 위하여 부인의 일과 행적을 말하여 다 알도록 하시며 내가 오랫동안 글로 써서 주고자 하였고 순서를 세워 유사를 편집하고 후세에 경계가 될 만한 훌륭한 말로 명심하게 되기를 바랬으나 공사간에 일이 많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알고 글을 쓰도록 하라고 하셔서 선친의 종제인 필선공(경주)이 글을 쓰기로 했다。그 다음해에 선친이 돌아가시고

필선공도 곧 돌아가시니 지금은 나이드신 어른이 없다。세상일은 변하고 집안에 내려오는 공적의 문서가 날이 갈수록 빠지고 없어지므로 소자등이 선친의 뜻을 염려하고 부인의 큰 덕이 기술되지 못할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영구히 묻혀 버릴까 한탄하여 이에 감히 글의 조리와 순서가 없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전에 들은 바를 행장 한 통으로 만들어 어른께 엎드려 청하오니 지극한 충정으로 여기시고 전기(傳記)를 내려 주십시오。

정랑공(휘 자신)6대손 태국은 짓다

⑥ **林夫人行狀** 代言公后

夫人姓林氏刑曹正郎尹公諱自莘之配也正郎公爲泰國六代祖林氏籍鎭川世居鎭川副司果諱世應之女曾祖諱格縣監祖諱胤祖參奉母豊川任氏參軍諱構之女也夫人以 明宗丁巳二月六日生 仁祖辛巳六月二十八日卒墓于京畿之高陽與府君合葬也無子取仲氏將仕郎諱起莘次子諱有吉爲嗣生員平昌郡守夫人生有異質德度天成自在室有賢聲鍾愛於父母林公家素饒有賢女僊蹇選婿求婚者多鄕中豪勢族林公一皆簡斥不許曰雖富貴子弟不如吾女者吾不婿也時我家喪難流寓于鎭正郎府君孤童未娶仲氏抱疾府君躬耕以養兄一日林公見之於樵漁間喜曰此可婿也問知其爲尹氏子遂以女歸之其親黨皆佐之曰迂哉此翁擇婿正得此村舍兒也林公殊不撓夫人始來婦敗屋數間不蔽風日至之日夕炊無米從者皆愁痛夫人歎曰病叔在堂而朝晡不給吾雖有衣物何以獨自華即賣其資裝給供養久之不肯還林公甚賢之聽其別立產爲資爲夫人營屋將自近夫人言夫家孤窮且有病兄不可舍之從婦來此吾又父之一女未忍遠也請半兩家之間而家焉林公從之夫人事將仕公內外甚恭恪如事尊長衣食百用盡其忠養每祭時必先期往烹飪滌濯事事助莅致其嚴潔歲入必先慮祭祀之用其餘遂口計糧月輸仲氏房以爲常旣而以府君年大失學爲憂一日泣而告曰尹氏之零替極矣仲氏高才抱疾夫子若不自力思取成立則門戶無復望矣府君戚然感悟曰吾自今讀書矣夫人曰爲學在立志苟無始終不如爲農公乃自就中園草莽蚊虻處坐三晝夜不動自試其喫苦堅忍也然後請學於仲氏一坐窮日夜不掇咿唔自府君入學夫人不復以家事聞手絲麻徹曙於讀側以助其勤厲家無書籍每從鄕校借讀夫人常爲校人賃縫衣以致之借書期日輒還又無以溫習夫人爲買紙筆給府君日寫夜所讀書成幾十卷皆夫人手編作册今後孫家有遺卷視其衣多褙用諺書紙府君三十一歲登司馬高等自始學三年矣文詞蔚然兼治明經聲望伏一世而屢擧輒不利晚就仕寢郎 宣廟丙午始登第年已五十二矣爲國子典籍光海朝貴人子有怙勢亂試場者府君摘罰停擧大忤世久乃調司憲府監察時將有廢母議棄官歸鄕夫人言此時君子不仕宜哉家食且十年夫人一無幾微見色府君聞國事昏亂每抗慨下泣夫人爲取酒以進寬慰之夫人三十不育慮終無嗣續勸府君畜妾仲姒閔孺人妊平

昌公而將仕公卒夫人每夜焚香祝其男也平昌公生數月與閔
孺人並遘癘府君適不在而病寖重夫人將自往視取兒而歸旁
人以癘氣爲懼且大水前川盛漲皆危之夫人曰姒氏病重吾不
可以不往救兒幼子係吾家存亡吾當躬往不幸而與兒俱死無
所悔也雨中騎牛出才過川水暴至洪流泊岸至則疾焉熱方劇
亟投藥得母子俱全因抱平昌公以還至今近二百年鄕人士女
能傳道以爲異事指其川曰此林氏夫人所涉也云平昌公幼時
夫人未嘗以愛弛教府君旣絕意當世專以閑居教子爲晚年娛
平昌公性甚孝好學夫人喜曰此兒必昌尹氏吾不恨無己出親
黨亦云此夫婦無子乃得子如此爲善之報也庚申府君損館夫
人哀甚不欲生見平昌公過毁慨然曰夫子之才德沈淪沒身此
吾至痛若又不全此孤後死之過也取粥自進且勸平昌公食之
遂得全先塋在高陽時遭喪家力且屈難於遠地運喪相地者言
舍後有善地可葬諸議以爲便夫人曰非夫子遺意也且此家流
落在此若復便宜留葬懼子孫宴安於此永爲鎭川人也爲盡力
經紀卒返葬府君喪後即迎閔孺人同居曰兩家各有子幸有付
託吾未亡二人當相依餘日平昌公乙卯登上庠甲子入仕初
仁祖反正 特贈府君都承旨後又以平昌公丁卯從勳加 贈吏
曹參判夫人視秩貞夫人癸酉平昌公宰青陽奉二大夫人養以
專城夫人年高孫曾成行猶親自勸課童幼書詩之聲恒滿膝前
見者艶歎夫人性嚴重自少無疾言遽色鷄鳴而起盥櫛執事至
老精明不衰遇事有難處不動聲色片言剖判出於常慮林公旣
篤老夫人居稍間而非有故日就省候一味之美皆致饋以老人

一嘗爲幸佳辰令節輒設盃盤以奉歡膝下其歲月之製皆夫人
手成之也與府君白首相莊艱難契濶動盡愼順未嘗有毫末咈
意林公旣厚資夫人夫人又善治家田土藏獲多鬣績所立而至
於家事日用一皆禀承夫子無所敢專也每言世俗婦女性褊一
有所挾便以驕夫此甚不義也旣老則一切家柄財用百物擧委
之子婦己無所與翛然也田民擇其良者給將仕公長子俾奉祭
祀御家衆甚恩而威無所姑息賦事必以身導率處皆合理雖至
愚頑者皆馴於化拊樂盡其力平昌公有二子二女遇丁文科掌
令遇甲判官女僉正李獻國申命基遇丁有五男一女致績文科
佐郎叙績正郎凝績嘉績文科觀察使景績判官女判官朴泰輿
遇甲有二男一女宣績進士尙績署令女安世明李獻國有二男
一女壽曼文科府使壽最女徐碇申命基繼子鐸內外玄孫以下
多不載錄嗚呼夫人之德可以爲訓於爲妻爲母至其篤深勤勵
勇於義而達於理盖有絕出於閨門者此非子孫之私言也泰國
先人觀察公每言我尹氏之有今日皆五代祖母功德也歲癸亥
在定州一日爲諸子道夫人事行甚悉而曰吾久欲與文成撰次
遺事求銘於立言者而公私多事迄未能汝等宜知之文成先人
從弟弼善公之字也其明年先人下世而弼善公未幾亦卒在今
長老無在人事變遷家文世烈日就闕逸小子等念先父遺意大
懼夫人盛德終無記述永爲幽明之憾玆敢不揆蕪拙詮次家庭
奮聞爲行狀一通以請於執事伏乞哀其至情惠以一言之重

正郎公(諱 自莘)六代孫 泰國 撰

⑦ 율원공행장(휘 조원) 대언공후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조원이요 자는 정평이며 호는 율원이니 칠원윤씨 명망있는 씨족이다。 휘 송제는 고려 은청광녹대부참지정사이고 휘 양삼은 추밀원부사이고 휘 수는 군부판서이며 휘 길보는 직량공신찬성사구성군이요 휘 자는 우부대언이다。 휘 참은 조선조 집의를 추중받고 서승을 역임하였으며 휘 사는 진사로 참의를 추중받았으며 휘 석보는 이조참판을 추중받고 홍문관직제학을 역임하였으니 공에게는 고조부가 된다。 증조부 휘는 덕형이니 진사에 합격하고 집의를 추중받았으며 할아버지의 휘는 신이니 승지를 추중받고 찰방을 역임하였으며 아버지의 휘는 창명이니 이조참판을 추중받고 성균관학록을 역임하였다。 중직을 받게 된 것은 공의 관직이 2품계에 올랐기 때문이다。 참판공은 금극인의 딸과 결혼하여 융경임신년(1572년)에 공을 출산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신체가 보통사람과 다르고 재능이 출중하여 계묘년(160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동년에 갑과에 합격하여 처음은 선공직장을 제수받고 전적을 제수받고 감찰을 제수받고 예조좌랑을 제수받았으며 병조좌랑으로 전근하여 병조정랑을 제수받고 경기도 경상도 양도의 도사를 역임하였다。 그래서 여러차례 대망에 추천이 되었으나 조정이 혼란하여 무신년(1608년)에는 간신들 무리에게 쫓겨 나가게 되어서 북청판관으로 나가 추호도 이욕을 범하지 아니하여 정치에 업적이 있었다。 얼마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모두 길을 막았으며 또 병조에서 익산군수를 임명받고 부임후에 정치는 밝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도랑을 파서 물을 댈수있게 하여 국민이 많은 혜택을 입어 그 소문이 조정에 들려 특별히 통정대부로 승진이 되었으며 또 경기전도수원으로 또 가선대부에 승진이 되었다。 군수로 나가 4년만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갔다가 또다시 동지중추부사부총관을 제수받았으며 군을 다스린 공적이 있어서 황해도 감사를 제수받았으니 이때는 만력병진년(1616년) 봄철이었다。 공은 언어로 이이첨의 간악을 크게 지적하니 이이첨이 중상모략하여 공을 죄인으로 빠뜨려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귀양살이 8개월간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고 있었으며 처음은 운산으로 귀양가 있다가 옮겨서 경산으로 귀양가게 되었는데 귀양가 살은 것이 8년이나 되어서 계해년(1623년) 3월에 석방을 입어 동지중추부사로 소환이 되었다。

병진년(1616년) 의금부로 끌려간 날을 당하여는 친구들이 모두들 반드시 죽게 되었다고 근심 하여도 공은 침착하고 동요됨이 없이 말하기를 조금도 범죄된 것

이 없으니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 무슨 근심이 있을소냐? 당시 사람들이 그의 도량은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고 칭찬하였다。 인조대왕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정승인 한준겸이 크게 등용할 인물로 조정회의에 천거하였지만 당시 공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려 저지되었다。 공은 전일 군수로 있을 때에 자주 빈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그래서 이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이조에서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어도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었으니 비판자들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그 후로 공은 농사일에 밝은 사람이 되어 조정에서 일제히 천거하여 특별히 양서둔전사로 제수를 받았다。

공은 귀양길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 평생토록 한이 되어 마침내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택당 이식과 영안위 홍주원과 유천 한준겸이 벼슬하기를 권고하였지만 끝내 일어서지 아니하고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할 것을 계산하여 남어지는 몽땅 친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남겨 놓지를 아니하였으며 알게 모르게 공의 혜택을 입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다 셀수가 없었다。 공은 평생토록 사치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간결하고 검소한 생활을 힘쓰고 몸 가짐을 검박하게 하고 사람 대우하기를 공손으로 하여 비록 하천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응접하기를 성심으로 하였으며 자제들 교육을 자상하게 하였는데 벼슬 길이 기구하게 험악하여 재능을 펴보지 못하였다。 병진년 이후로는 벼슬하는 것에 뜻이 없고 몸을 농사일에 의탁하려 하였으니 어찌 본래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숭정병자년(1636년) 12월13일에 자택에서 졸하였으니 향년이 66세이었다。 다음해 정축년(1637년) 4월 일에 제천 장평리 복해현 동향(유좌)에 장례를 하였으니 이곳은 전부인의 묘소 우측이다。 공의 전처는 승지 황서의 딸이며 1남1녀를 출생하였다。 아들 민선이는 첨지 벼슬을 하였고 딸은 백진에게 시집갔으며 후처는 봉사 권해의 딸과 결혼하여 2남1녀를 출생하였으니 민길、민익이며 딸은 금람에게 시집을 갔다。 작은 부인도 1남4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민제요 딸들중에 장녀는 수사 홍우량의 소실이 되고 차녀들은 이제 이진 강성업에게 시집을 갔다。 첨지 민선이는 장령 채형의 딸과 결혼하고 상갑을 양자로 삼았고 백진이 1남을 낳았으니 광한이며 둘째는 사인 이심민의 딸과 결혼하여 5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성갑이요 상갑이는 양자 나가고 취갑이며 지갑도 양자로 나갔으며 정갑이며 딸은 윤세규에게 시집을 갔다。 세째의 전처는 진사 안흘의 딸로 결혼하여 3남을 낳았으니 형갑、치갑、세갑이며 후처는 동지 이지무의 딸로 결혼하여 1남2녀를 낳았

으니 아들은 시갑이며 딸들은 이상정과 이우태에게 시집을 갔다。 금람이 5남2녀를 낳으니 아들은 유겸、윤겸、용겸、신겸、상겸이며 딸들은 권용석、윤상명에게 시집을 갔다。 민제는 2녀를 낳아서 이채과 조빈에게 시집을 갔다。 홍우량이 4남을 낳았으니 범、곤、면、항이이다。 이제가 7남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동망、동열、동석、동설、동윤、동직、동백이고 딸은 김회절에게 시집갔다。 강성업이 1녀를 낳았으니 김종강에게 시집을 갔다。 공의 증손과 현손이 약간 명 있으나 역시 출세한 사람이 없다。

덕을 쌓아 받는 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공의 언어와 행동은 비록 기록이 있으나 여러 자손들이 불행하게도 모두들 일찌기 죽어서 증거를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약하여 대략으로 거론하였다。 전부인 황씨는 창원 황씨의 명문 씨족인데 공보다 40년 먼저 졸하였으며 후부인 권씨도 역시 안동 권씨의 명문 씨족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있으며 유순으로 규범을 삼아 친척대접은 공경으로 하고 노비를 부리는 것은 은혜로 하여 당시에 현숙한 부인으로 불리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공보다 10년 뒤에 졸하였으니 향년이 64세이며 바로 숭정병술년(1646년) 12월이었다。 다음해인 정해년(1647년) 2월에 다른 곳에다 장례하였다가 금년 봄에 공의 묘소 좌측으로 이장을 하였다。

판서 송규렴은 짓다

⑦ 栗園公行狀(諱 調元) 代言公后

公姓尹 諱調元 字政平 號栗園 漆原望族也 有諱松磾 銀青光祿大夫叅知政事 有諱養三 樞密院府事 有諱秀軍簿判書 有諱吉甫 直亮功臣贊成事龜城君 有諱樜 右副代言 有諱參 贈執義 行署丞 有諱思 以進士 贈叅議 有諱碩輔 贈吏曹叅判 行弘文館直提學 於公爲高祖也 曾大父諱德亨 以進士 贈執義 大父 諱信 贈丞旨 行察訪 考諱昌鳴 贈吏曹叅判 行成均館學錄 贈以公官至二品故也 叅判公 娶琴克仁之女 隆慶壬申 生公 公自兒時 器宇異凡 才華超衆 癸卯司馬 登同年甲科 初授繕工直長 拜典籍 拜監察 拜禮曹佐郎 遷兵曹佐郎 拜兵曹正郎 歷京畿慶尙兩道都事 仍爲屢叅臺望而昏朝戊申 爲奸黨所擯斥 出除北淸判官 毫利不犯 治有異績 未久棄官而歸 民皆遮道 又自騎省 拜益山郡守 到任之後 政淸愛民 鑿渠灌水 民多蒙利 事聞于朝 特加通政 又以慶基殿都差員 又加嘉善 到郡四年 棄官而歸 又拜同知中樞府事副摠管 以治郡有績 除黃海道監司 是萬曆丙辰春也 公以言語 大觸於爾瞻之奸 爾瞻 必欲中傷 陷公於非罪 陶倣海獄 幾至不測 繫獄八朔 幸保軀命 初竄雲山 移謫慶山 被謫者八年而癸亥三月 蒙放 以同知中樞府事 還召 當丙辰就理之日 親舊皆以必死爲憂 公晏然不動曰少無犯罪 死生在天 有何憂哉 時人

稱其度量之異凡人也 仁廟登極之初 韓相公浚謙 以大用之才 啓薦筵中而時有不樂公者 白 上沮之 以公 前在任郡時 頻有好施貧寒之人故 以此作爲短目 銓曺屢擬請要而丁未 蒙批者 良以此也 其後 以公明農 廟堂 齊薦則 特拜兩西屯田使 公 以謫路 未得訣母 爲終身恨 遂不就職 擇堂李公植 永安尉洪公柱元 柳川韓公浚謙 勸仕 終不起 歸于梓鄕 以治農事 所獲雖多 計其所用 後 盡散親舊貧寒者不留餘儲 凡知與不知 蒙公惠求 以至全活者 不可勝數 公平生不好侈靡 務從簡儉 持身以朴 待人以恭 雖對下賤 接以誠意 敎誨子弟 以此諄諄而仕路崎險 有在未伸 丙辰之後 無意仕宦 托身農畝 豈非素意歟 崇禎丙子十二月十三日 卒于正寢 享年 六十五 明年 丁丑四月日 葬于堤川長坪里伏蟹峴西坐之原 是前夫人之墓右也 公 前娶承旨黃曙之女 生一男一女 男 敏善 僉知 女 適白瑨 後娶奉事權晐之女 生二男一女 男 敏吉 敏益 女 適琴攅 側室 有一男四女 南 敏悌 女 長爲水使洪宇亮妾 次 李湜 次 李縉 次 姜成業 僉知 娶掌令蔡衡女 系子 相甲 白縉 生一男 光漢仲 娶士人李心敏女 生五男一女 男 聖甲 相甲 出 就甲之甲 出 正甲 女 尹世揆 季男 時甲 女 李相正 李遇泰琴攅 生五男二女 男 有謙 允謙 用謙 信謙 尙謙 女 權用錫 尹相明 敏悌 生二女 李策 趙簣 洪宇亮 生四男 汎 浣浼 沆 李湜 生七男一女 男 東望 東說 東奭 東高 東允東稷 東伯 女 金希哲 姜成業 生一女 金宗江 公 有曾玄若干人而亦無顯者 積德餘慶 果安在哉 公之言語行蹟 雖有可記而諸孫不幸 皆早沒 無從徵聞 略此槩擧 前夫人黃氏 昌原茂族也 先公四十年而卒 後夫人權氏 亦安東茂族也 治內有法 柔順爲範 待親戚以敬 使俾僕以恩 當時稱爲賢夫人 豈不猗歟 後公十年而卒 享年六十四 是崇禎丙戌十二月也 明年丁亥二月 葬于別岡 今春 移窆于公之墓左

判書 宋奎濂 撰

◇

⑧ 석호공 가장(휘 복원) 대언공후

공의 성은 윤씨요 휘는 복원이요 자는 중초며 석호는 그의 아호이다。 칠원윤씨 계출이니 시조 휘 시영은 신라 태자태사이다。 고려시대에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적이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청백리로 학문까지 저명한 휘 석보가 있었으니 직제학 벼슬을 하였고 염근리로 선록되어 여러차례 증직을 받아 이조참판까지 이른 사적이 국사와 야사에 기재되어 있으니 공에게는 고조고가 된다。 증조고 휘 문형은 판관을 역임하여 이조판서로 추증받고 조고 휘 이는 사온 서령을 역임하였으나 순충보조공신 영의정 구원부원군을 추증받았고 아버지 휘 수연은 광주 목사를 역임하며 큰 덕행과 넓은 계략으로 임진왜란 같은 나라가 위험지경을 당하여 큰 형님인 헌민공과 더불어 함께 훈로가 있어서 여덟고을 군

수를 지내고 네차례 내외의 총애를 받아 그 후에 광국원종훈로로 호조참판을 추증받았고 어머니는 증정부인 홍주 이씨이니 병마절도사의 딸이며 영의정 문간공 서의 5세손녀이다.

공은 선조 기묘년(1579년) 9월3일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강개한 기질이 있었으며 강직한 마음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천성적으로 나왔고 열심히 글을 읽어 글을 지은 것이 수천편이나 되지만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루어졌다. 광해 계축년(1613년)에 진사와 생원 양과에 합격하였는데 때마침 흉당들이 국권을 잡고 황태후를 유폐하려 하여 공은 태학관 장의를 맡고 있어 명륜당 청사를 물로 깨끗하게 닦고 벌떡 일어서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대북파의 더러운 자취는 남길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에 소문난 명망있는 교제 친구들은 문정공 이경여, 문충공 이경석, 충정공 홍무적이 가장 좋은 벗이며 정을 맺어 독실한 교제로 공무에서 퇴근한 여가면 부지런히 강론하고 서로서로 돕는 일이 많았다. 계해년(1623년)에 반정이 되면서 곧 바로 공을 금오랑에 특명을 내리고 그 해 겨울에는 상의원직장으로 전근하였다. 을축년(1625년)에는 사옹원주부로 승진하였다. 정묘년(1627년) 봄에는 사섬시 주부로 옮기게 되었고 그 해 겨울에는 형조 좌랑으로 전근하였다. 기사년(1629년)에 우봉현감으로 나가니 지역은 작고 폐단은 많아 국민들이 떠돌이 생활자가 많아 공은 자기 녹봉을 아껴쓰고 부역을 균등하게 나오게 하고 폐단을 고쳐 국민을 모으게 하니 우봉읍이 소생할 힘을 입어 연속하여 도에서 장계를 올려 포상으로 두차례 내외의 하사품을 받게 되었다. 계유년(1633년)에는 장예원 사평으로 교체가 되었다. 병자년(1636년)에는 오랑캐 난을 만나 몸에 병이 들어 임금을 호종하지 못하여 아우인 익원이를 보내여 임금님 피난처로 달려가라며 시 한수를 주었으니 경계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군신간 의리 어찌 논할소냐? 형제가 갈라져 떠남에 임하여 몇마디 노력할것 주노라. 상서롭지 못한 말을 일소하라 하였다. 종묘당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긴다는 소문을 듣고 산 넘고 물 건너 달려가 해숭위윤신지, 전창군, 유정량, 유참의와 더불어 강무청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다. 또 유수인 장신을 만나 수어할 계책을 펼쳐주니 장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적들이 어떻게 얼음 바다를 날아서 건너오겠느냐 하여 공은 그 장유수와는 더불어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물러와 시를 지어 울분한 심정을 표시하였다. 정축년(1637년)에 난이 끝나 평시서령에 임명되었다. 무인년(1639년)에는 임실현감으로 나가니 임실이란 곳은 지역이 좁고 물 논이 적어 조그마한 산전들이라 모두들 받아들인 세금과 부

역이 매우 과중하여 공은 상소로 요청하여 사건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의 힘을 펴게 하였다。 신사년(1641년)에는 외지에 나가 있는 인사들을 불러들이는 하명이 있어 계속 대기 중이었다。 임오년(1642년)에는 군기시 주부를 임명받았다。 계미년(1643년)에는 종묘 서령으로 있다가 금산 군수로 나갔다。 갑신년(1644년)에는 시문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어사인 임선백이 공에 대한 감정이 있어 장계를 올리는 바람에 축출 당하였다。 애석한 것은 친구인 송교 이무를 만나는데 편지로 조롱하여 말하기를 국민 사랑을 자식같이 하고 자기 몸 다스리기를 맑은 얼음같이 하면서 병이 생기는 것에 이르렀느냐? 공도 시로 말하기를 신하로 죄가 큰 것을 알고 있으니 어찌 임금에게 사랑 받을 생각할소냐。 쫓겨난 것 어찌 애석할소냐 관리들 말이 또한 거짓이더라 하였다。 정해년(1647년)에는 종친부 전부로 있게 되었고 또 면천 현감으로 나가게 되었다。 기축년(1649년)에는 상사의 노함을 만나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진년(1652년)에는 또다시 전부로 임명을 받았다。 병신년(1656년) 9월20일에는 회혼례 잔치를 하였다。 정유년 4월4일에 졸하니 향년이 79세이며 경기도 장단 장서면 금천의 선영 옆에 장례하였다。 배는 숙부인 남양 홍씨이니 대성의 딸이요 충정공 홍익한의 누이였다。 남편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동서 시누이에게 우애하고 집안에 사랑을 고루주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여도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여러 곳 군수 월급을 받았지만 일심으로 검소하게 생활하여 선비같은 풍모가 있었다。 선조 경인년(1580년) 5월16일에 출생하여 현종계모(1663년) 6월16일에 졸하여 공의 묘소 좌측에 합장하였다。 3남2녀를 두었으니 장자 정기는 금오랑이며 아호는 북사이다。 차자 안기는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이 되었고 종조숙부인 회원에게로 출계하였다。 삼자 명기는 사용 벼슬을 하였다。 장녀는 이홍망에게 시집가고 차녀는 성회주 판관에게 시집갔다。 장방 손자인 우백이는 학문으로 저명하고 차손은 우주와 세필이요 손녀는 정원징 현감과 민광민 현감에게 시집갔다。 차방의 손자 우선이요 우성은 출계하고 우한이다。 3자의 손자는 우현이요 우오는 출계하였으며 이씨 사위 외손자는 내협이요 성씨 사위 외손자인 지행은 서윤이요 지민은 첨정이며 지헌 지태이고 손서는 심저로 봉사이다。 종손 이하는 많아서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필이는 아들이 없어 우백이의 차자인 유적이를 데려다 계자를 삼았는데 도정 벼슬을 하였고 도정이 지원이를 낳았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이 되었다。

아 공은 문장력과 절개가 있으며 또 일찌기 학문에 노력을 애써하고 몇차례 과거를 보았지만 떨어져 급제

하지 못하여 당시에 저명한 큰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년에 음직으로 군수로 나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가난을 위한 적은 녹봉을 받은 것이지 본 소망은 아니었다。 은퇴하여 혹석동 강정에 살며 현판을 이안이라고 걸고 달성위 서공 이석문、조단포、김연촌、윤청강 여러 관리들과 동갑계를 맺어 날마다 만나 소요하는 것을 평생의 계획으로 삼고 있었다。 일찌기 병자호란 초기에서 정유년 임종일까지 22년간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으니 비록 공무에 바쁘고 질병이 들고 날때도 일찌기 폐놓은 적이 없었다。 당시 정치인의 득실과 친구지간의 출처와 재앙과 상서의 변화까지도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곧바로 기록하여 결론을 내리고 곧 율시로 읊어 시로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심도일기는 격앙된 분노가 더욱 상세함을 이루고 있어 세상에서는 남한산성편이라 하고 나구포 일기는 강도에 있을때 지은 것이다。 공이 진실로 모사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망언이 되었으니 경계하라고 하면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녹을 받은 신하로 차마 종묘사직이 망하는 것을 보고 복수를 권장하는 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하물며 공정한 논의가 조정에 있지 아니하면 초야에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매번 말을 하게되면 반드시 요지에 맞게 글로 진술하였다。 평시령으로 있을 때는 형벌이 공정하지 아니한 것과 언로가 열려있지 아니한것과 군정이 수비되지 아니한 것과 기강이 정리되지 아니한 것과 부역이 균등하지 아니한 것을 모두 말하고 그리고 시민의 원성과 괴로움도 역시 상세히 진술하였다。 금산 현감으로 있을때는 또 요지에 맞게 상소문을 올려 위로는 임금이 덕을 얻고 잃는 것에서 아래로 지방 군수들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이르러 그릇된 점을 찾아 비유를 하였으니 사람의 영위란 비유하자면 나라의 근본이요 원기는 나라의 기강에 비유되고 귀와 눈은 관청에 비유되고 팔과 다리는 정승 판서에 비유되고 입과 말은 추밀원에 비유되고 손과 발은 서민에 비유되니 모두들 그 진실을 다하라는 세 개 글자로 치료의 효과를 삼았다。 시종 5·6천수 시는 앞에 비하여 더욱 지극하게 되었다。 면천 현감시에는 조목 조목 시대의 폐습을 올려 당론이 백성에게 얼마나 화를 미치는지 통렬하게 비판하고 국가 산림의 적당한 것을 좌우에 놓아두고 또 각도의 관찰사들의 강등과 승진이 공정하지 못한 것과 선정이 한쪽으로 치우쳐 남용됨을 모두 말하여 그 당시 관찰사 중에 그런 말이 자기 몸에 닥침을 혐의하여 공은 공격을 받아 원망을 조정으로 돌려 일마다 실상없는 사람으로 지목이 되었다。 공의 전후 네차례 상소는 특히 중복된 바가 있어 아름다운 사람들은 학교로 삼아 원기가 있게 되었고 대대로 임금들은

근본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남은 업적을 보면 여러 군현 강당들은 궁하여 무성한 풀밭이 되었고 선비로 갓 쓴 사람들은 오로지 이욕만 숭상하여 모든 국가의 농사짓고 고기잡는 넓은 입법안들이 온 나라에 큰 폐단이 되어 사간원 신하들까지 정중을 다투고 있는게 오늘날 병점이며 그리고 임금께서 지금까지 윤허를 감춘 것은 친히 하기를 편벼되게 하여서 그랬던 것이라 하겠다。또 유기란 평안도 관찰사를 애써 구제하여 일찌기 말 때문에 죄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었으며 또 재앙의 이변이 일어남은 곧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는 바이니 그 닦고 살피는 방법을 더하라고 하였다。초나라 장공의 기뻐하다가 당한 재앙을 인용하여 비유하며 지성으로 경계를 고하니 임금께서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었으며 혹은 두고두고 보시며 비답도 하시고 혹은 각 부서에 명령하여 계몽하도록 하였으니 공이 쌓아놓은 업적들을 여기에서 가히 대략이나마 볼 수가 있었으며 네 곳 지방 현감을 맡은 곳에는 모두 송덕비를 세워 정성껏 공을 모시고 있으니 그 청백은 비교할 곳이 없었다。벼슬에서 물러오던 날에는 말 한마리에 자루를 싣고 돌아와 쓸쓸히 살았다。보리밥 나물국도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고한 생각은 나라를 근심하는 충성과 분발에 격앙되어 매번 지위를 벗어난 말을 하여 당시인의 미움 받는 바가 되었다。그래서 금산과 면천에서는 낭패가 생겨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들은 한탄을 하고 있으니 공에게 무엇을 더하고 뺄소냐? 아 세대가 점차 멀어지며 집안에 문헌들이 남아나질 않으니 아마도 더 오래되면 더욱 없어질까 두려워 삼가 앞과 같이 지어놓고 후일 학자들이 다듬어 주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⑧ 石湖公家狀(諱 復 元) 代言公后

公姓尹氏諱復元字仲初石湖其號也系出漆原上祖諱始榮新羅太子太師在麗朝世有顯官入本朝以淸白文學著有諱碩輔直提學選廉謹吏屢 贈至吏曹參判事蹟詳載國乘野史於公爲高祖考也曾祖諱文亨判官 贈吏曹判書祖諱伊司醞署令 贈純忠補祚功臣領議政龜原府院君考諱粹然廣州牧使以碩德宏猷當壬辰板蕩之際與伯氏憲敏公俱有勳勞八典郡邑四受表裡之寵 後以光國原從勳 贈戶曹參判妣 贈貞夫人洪州李氏兵馬節度使漢女以領議政文簡公舒五世孫 宣祖己卯九月三日生公公自少慷慨有氣節剛膓嫉惡出於天性刻苦讀書下筆數千言不事雕飾而自然成章光海癸丑中司馬兩試時凶黨柄國 母后幽閉公掌太學議以水洗滌明倫堂廳事奮然厲聲曰大北穢跡不可留也一世稱之名重儕流李文正敬輿李文忠景奭洪忠貞茂績最與友善契誼摯篤公退之暇講討亹亹資益相多癸亥 反正卽拜公金吾郞冬轉尙衣院直長乙丑陞拜司饔院主簿丁卯春遷司贍寺主簿冬轉刑曹佐郎己巳出守牛峯邑小弊鉅民多流亡公奉已儉約出役平均弊革民集

邑賴以蘇連入於道啓繡褒再受表裡之賜　癸酉遞拜掌禮院
司評丙子値胡亂病涸未扈駕送弟益元赴　行在贈詩勉戒有
旣識君臣義寧論骨肉兮臨行贈數語努力掃妖氣之句追聞
廟社主移御江都跋涉奔往與海嵩尉尹新之全昌君柳廷亮僉
參議省曾會議講武廳欲擧義旅事未果又見留守張紳脩陳守
禦之策張紳答以賊豈可飛渡氷海公知其不足與有爲退而有
詩以示憤惋丁丑亂已拜平市署令戊寅監任實任峽邑也水田
甚少片片山田皆入量案稅役甚重公疏請隨起收稅以紓民力
辛巳以刷還事有拿命尋宥壬午拜軍器寺主簿癸未以　宗廟
署令出守金山甲申因繡啓罷歸時御史任善伯有憾於公啓以
黜之可惜直之無益松郊李公棨以書嘲之曰愛民如子律巳氷
潔到底生梗公有詩曰自知臣罪大豈意聖恩優一黜何須惜繡
衣語亦浮　丁亥以宗親府典簿又典沔川己丑見忤上司罷歸
壬辰又拜典簿丙申九月二十日行回巹禮丁酉四月四日卒享
年七十九葬于長湍長西面金川從先兆也配淑夫人南陽洪氏
大成女忠正公翼漢姊也事夫子誠敬脩至友娣姒敦宗族恩意
周洽家甚貧寒畧無憂色屢享官供一心儉約多有學士之風宣
祖庚申五月十六日生顯宗癸卯六月十六日卒祔公墓左男二
女男長正基金吾郎號北沙次安基文科正郞出繼從祖叔父喜
元後次命基司勇女長李弘望次成熙冑判官長房男遇白以文
行著次遇周次世弼俱階通德女鄭元徵縣監閔光旻縣監次房
男遇宣遇成出系遇漢季房男遇玄遇五出系成婿男至行庶尹
至敏僉正至憲至泰女沈楮奉事　曾玄以下多不盡錄而世弼
無育取遇白次子維續爲嗣都正都正生志遠文科掌令㦤公負
文章氣節又嘗力學攻苦屢嗚公車落拓不第一時名公碩儒莫
不嗟惜而晚就蔭路捷遲郡綬爲貧斗祿盖非其志也退居黑石
江亭扁以易安與達城尉徐公李石門趙丹圃金烟村尹晴江諸
公修甲禊會日相追遂爲終老計嘗自丙子搶攘之初至丁酉易
簀之日凡二十二年日記其見聞雖公務煩劇出入疾病之時未
嘗闕漏時政得失朋儕出處變異灾祥無不畢書間以己意直筆
論斷輒咏一律便成詩史而其中沁都日記激昻悲憤尤極致詳
世以南漢則羅鷗浦日記在江都則惟公所錄摸寫得眞人或以
妄言爲戒則曰吾以世祿之臣忍見　宗社之危亡不思勸懲之
道乎又況公論不在朝廷則在於草野也耶是以每當求言必應
旨陳疏平市令時極言賞罰之不公言路之不開軍政之不修紀
綱之不振民役之不均而市民怨苦亦爲詳陳　金山時又上應
旨疏上自君德得失下至守令臧否而引病爲喩以人之榮衛譬
國之根本元氣譬國之紀綱耳目譬臺閣股肱譬三公喉舌譬樞
密手足譬民庶末以盡其實三字爲藥石之效首尾五六千言比
前尤摯　沔川時條上時弊痛陳黨論之禍人家國山林之宜置
左右且悉各道方伯黜陟之不公卜定之偏濫其時道伯反嫌其
言之逼已置公下考以怨歸朝廷事皆無實爲目公之前後四疏
尤有所重複而娓娓者以爲學校元氣所在　祖宗之所以爲根
本而今視以餘事列邑黌堂鞠爲茂草士戴儒冠專尙利祿諸官
家漁塩海澤之立案爲一國巨弊臺臣之爭正中今日之病而
殿下之尙悶兪音者睟於所親而然也仍力救兪祀平伯曾言事

被罪之寃又以爲灾異卽仁天之所以愛人君而益其修省之方者也引喩楚莊之喜灾丁寧告戒 上輒皆嘉納或以留覽爲批或令該曺回啓公之畜積此可槩見而四典州郡皆有頌碑恪勤奉公淸白無比 及夫休官之日一鞭行裝歸橐蕭然居家也糲飯麤蔬不厭其苦一念憂國忠憤激慨每多出位之語爲時論所忤至有金山沔川之狼貝尙今爲識者之恨而在公亦何有損益也哉嗚呼年代寖遠家乘蕩殘而竊恐愈久愈泯謹次如右以俟立言君子裁擇焉

◇

⑨ 칠평군시장(휘 경원) 대언공후

옛날 우리나라 선조대왕 25년(1592년) 임진년에 왜군이 대거 침입한지 10일만에 서울 가까이 와서 임금의 행차가 적군을 피하여 북쪽 신의주까지 행차할때 여러 요로가 기강이 허물어져 명령이 통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함경도 감사를 맡고 있던 윤탁연이 그의 아들 전좌랑을 파견하였으니 바로 경원이다. 처음가는 길 2천리를 달려가 급히 행재소에 문안을 올렸다. 조회시에 경기도 감사와 양성현감이 자리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우며 문학과 무예의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대신 보내기로 하는데 이때에 여러 사람들이 심대를 추천하여 경기감사로 삼고 윤경원을 양성현감으로 제수하였다. 심공이 공과 강공 수남과 양공 지를 종사관으로 삼아 곧 달려가 부임하게 되었는데 공은 제공들과 더불어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말하기를 성공과 패망은 운명이니 당연히 죽음으로 보답하자며 공은 사슴 가죽으로 다리를 감싸고 강공은 붉은 실을 가져와 상투를 짜고 양공은 머리에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니 죽음을 각오했다는 표시이다. 행군을 차려 병사를 진출시켜 연천경계에 이르니 이때에 적군이 경기도에 꽉 차있고 우리나라 군대는 미약하여서 공이 여러공들과 더불어 충성과 의리를 추켜세우니 사람들이 모두 죽기를 각오하였다. 적군을 등파나루에서 만나 여러번 접전하여 파괴시키었다. 적군이 약간 좌절하여 곧 진지를 삭녕으로 옮겨 산에 나무와 바위에 숨어 험악한 지점을 의거하여 지킬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군대가 근방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합하자고 편지가 왔고 적군의 정세를 알리며 자원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다. 심공이 크게 기뻐하며 서울에 하루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것이라며 적군을 경시한 면이 있고 작전계획은 조밀하여야 하는데 공이 여러차례 간언하였으나 믿지를 아니하고 사람을 성중으로 보내여 약속일에 전후좌우에서 공격하기로 하였으나 적군들이 염탐하여 알고 있어서 군수와 장수들을 사살하면 군대가 괴란케 될 것이라며 밤중에 사방에서 습격하여 우리 군대가 크게 혼란되고 붕괴되어 지탱할 수가

없었다。 심공은 행수마을 아래에 진을 치고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먼저 습격을 받게 되어 공은 강공과 양공과 더불어 적군 속에 서서 활을 당겨 적군 수십명을 사살하여 피가 흘러 몸에 가득토록 싸움을 더욱 더 분발하다가 그날 행수마을 아래서 죽었으니 바로 임진년(1592년) 10월18일이었다。

등파 나루의 싸움에서 공이 참살한 적군이 더욱 많아 적군들이 더욱 분하게 여겨 많은 군대들이 교전하여 피해가 최고로 혹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공은 임금을 호종하며 신의주에 있을 때에 관찰사공이 북관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 말하기를 나라에 적군을 토벌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치욕을 설욕하지 못하였는데 진중에 하란이는 많아도 군막에 제갈양이 없구나。 대대로 나라에 은총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보답할소나 오로지 죽음 뿐이니 맹세코 구차하게 살으려 하지 아니하겠다며 혼자서 외로운 성을 지켜온지 현재 40일이 된 것을 해와 별이 내려다 보고 귀신들이 옆에서 증명하고 있느니라。 인을 이루고 의를 이루라고 공자가 말하고 맹자가 말하였으니 내 뜻에 찬성하거든 너희들도 당연히 서명하라 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대 공이 과연 나라위하여 죽었으니 아버지 교훈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이를수 있다。 적군이 물러가 양성좌수 이문백은 울면서 대중에게 알려 공의 시체를 찾아 산골 속에 체빈하였는데 공의 부인이 소문을 듣고 광주에 있다가 식량을 준비하여 찾아와 보호하고 있으니 역시 공의 신의를 보여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 것이 이와 같았다。 난이 평정된 뒤에 특명으로 공을 좌승지로 추증하고 원종훈신으로 선록하였다。 영조대왕 임진년(1772년)에는 추가하여 대사헌에 추증하였고 정조 신해년(1791년)에는 추가하여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칠평군에 봉하고 정려문을 세우도록 하명하였다。

공의 자는 선여요 관적은 칠원이다。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 휘 시영이고 고조부는 직제학을 역임한 석보이니 청백리에 선록이 되었으며 직언을 한 이유로 연산군에게 미움을 받아 귀양지에서 졸하였으며 중종대왕이 왕위에 올라 승정원도승지를 추증받았으며 후일 아들 풍형의 벼슬로 이조참판을 추증받았으며 증조부는 내섬시판관을 역임한 문형이니 이조판서를 추증받고 조부는 우봉현감을 역임한 이 이니 순충보조공신훈호와 의정부영의정을 추증받고 아버지는 관찰사에서 예문관제학호조판서를 역임하고 광국훈신에 선록되고 칠계군에 봉해졌으며 헌민공 시호를 받았다。 어머니는 여산 송씨이니 송맹경의 딸이다。

공은 가정 경신년(1560년)년에 출생하여 임오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처음으로 의금부도사와

빙고별제를 임명받았고 호조좌랑과 한성서윤을 역임하고 양성 현감으로 끝이났다。공은 기개와 절개가 범이하고 온갖 이치를 일찍 깨달아 의금부에 있을때 기축년(1589년) 대옥사를 당하여 매번 사건을 알려 임금이 그 민첩성을 칭찬하였다。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으나 계모를 시봉하며 뜻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순국한 때에 이르러 계모도 애도하고 마음 아파하기를 자기가 낳은 것 같이 하였다。

난이 평정되어 광주대원동 선영하 동북동향(경좌)으로 옮겨서 장례를 하였다。공은 광산 정씨 동지 벼슬을 한 연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넷 딸 셋을 출생하였다。

장자 계기는 한성판관이고 차자 태기는 선교랑이고 3자 배기요 4자는 효기이다。딸들은 직장 박안립과 사인 심벽과 감사 이배원에게 시집갔다。삭녕인들이 공의 순절한 곳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전사한 날로 여러 전사자와 함께 제향을 올리며 군내의 선비들이 여러차례 조정에 알려 청원하기를 사당을 지어 액자를 하사하라고 하였는데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정조 신해년(1611년)에 본 군수가 마침내 조정으로 승진되어 임금에게 알려 특별히 관찰사에게 하명하여 사당을 짓게하고 네사람 전사자까지 함께 제사올리게 하고 액자를 하사하니 표절사라 하였다。조정에 신하를 파견하여 제사를 올리었고 후일에는 감사인 서정수의 진정으로 인하여 또 하명하여 추가로 시호까지 하사하였다。

아 임진왜란에 적개심으로 나라위해 죽은 사람들은 거개가 포상의 영전을 받았는데 오직 공은 자손들의 가난 때문에 지금까지 공론마저 없었으니 애석하기만 하다。다행히 우리 성스러운 임금님의 다스림을 만나 충절을 높이고 권장하기에 유원한 곳까지 천명하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지금 2백년 후일에 이렇게 표창하고 이미 액자까지 하였고 또 그 후에 아름다운 시호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직 온 나라 사람들이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장차는 후일 사람으로 신하가 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되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삼가 전사한 사실을 시작에서 끝까지 차례로 지어 사관의 채택을 준비하였다。

숭정대부원임이조판서겸지 경연춘추관사판의금부사홍문관제학동지성균관사오위도총부도총관。풍산 홍양호는 삼가 짓다。

⑨ **漆坪君諡狀(諱 慶元)** 代言公后

昔我 宣廟二十五壬辰 倭奴大擧入寇旬日 迫漢京 車駕避蹕 西下次義州 諸路瓦解 命令不通 于時 咸鏡監司尹卓然遣其子前佐郎 即慶元 初行二千里 奔問于行在 會 畿伯陽城縣監 缺 朝廷 將選忠勇有文武才者 往代之 於是 僉推沈公岱 爲畿伯 尹公慶元 拜陽城 沈公 與公及姜公壽男

梁公誌 爲從事官 將馳馹赴任 公 與諸公 慷慨揮涕 執手
語曰成敗 天也 當以死報 公 以鹿皮纏股 姜公 取紅絲綰
髻 梁公 頭着白飾網巾 所以識死也 行收進兵 至漣川界
時 賊 充斥畿甸 王師草弱 公 與諸公 激以忠義 人皆效死
遇敵於澄波渡 屢戰破之 賊 少挫 乃移屯朔寧 依山樹砦
爲據險戰守計 京城民 聞官兵在近 聯合投狀 來報敵情 自
願內應者 踵相接 沈公 大喜 謂京城不日當 後有輕敵意
機事 頗有密 公 憂之 屢諫而未之信 遣人城中 約日夾擊
賊 詗知之 殺斥候將潰師 夜襲四面而合圍 我軍大亂潰 不
可支 沈公 據杏樹下不動 先被刃 公 與姜公梁公 植立亂
鋒中 彎弓搦矢 連殪賊數十 創血滿體 格鬪愈益奮 同日
死於杏樹下 即壬辰十月十八日也 澄波之役 公 所斬殺賊
尤多 賊沈恚之 衆刃交斫 被害最酷云 方公之扈駕在龍灣
也 觀察公 自北關 貽書曰國賊未討 國耻未雪 藩多賀蘭
幕無諸葛 世受國恩 報以何物 只有一死 矢不苟活 獨守孤
城 今四十日 日星下臨 鬼神傍質 成仁就義 孔曰孟曰 吾
意有贊 汝背當涅 聞者 莫不流涕 及是 公 果死於國 可謂
不負父訓矣 賊退 陽城座首李文泊 泣諭衆購求公屍 殯于
山谷間 聞公夫人 在廣州 齎糧徃護之 亦見公信義之感人
如此 亂定後 特 贈公左承旨 録原從勳 英宗壬戌 加 贈大
司憲 正宗辛亥 加 贈吏曹判書封漆坪君 命旌其閭 公 字
善餘 籍 漆原 始祖 新羅太師諱始榮 高祖 直提學碩輔 選
清白吏 以直言 忤燕山主 卒于謫 中廟改玉 特 贈承政院

都承旨 後 以子豐亨貴 贈吏曹參判 曾祖 內贍寺判官 文
亨 贈吏曹判書 祖 牛峰縣令伊 贈純忠補祚功臣議政府領
議政 考 觀察使 官至藝文館提學戶曹判書 錄光國勳封漆
溪君 諡憲敏 妣 礪山宋氏 孟璟之女 公 以 嘉靖庚申生
壬午 進士 戊子 筮仕 經義禁府都事 氷庫別提 歷戶曹佐
郎漢城庶尹 止陽城縣監 公 氣度異凡 才識夙悟 在金吾
當己丑大獄 每奏事 上 稱其敏 幼失所恃 奉繼母 無違志
及至殉節 繼母悼傷 如己出 難平返葬廣州大院洞先塋坐庚
之原 公 娶光山鄭氏同知演之女 生四男三女 長 啓基 漢
城判官 次 泰基 宣教郎 次 培基 次 孝基 女 適直長朴安
立 士人沈闢 監司李培元 朔寧人 即公立懂之地 構小屋
以戰亡日 並享諸公 郡之多士 屢聞于 朝 請建祠賜額而汔
未諸焉 今上辛亥 本郡守 適登筵提奏 特 命道臣建祠 並
享四公 仍 賜額曰表節 遣近臣致祭 後因監司徐鼎修陳達
又 命加贈 賜諡 嗚呼 壬辰之亂 敵愾死國事者 舉蒙褒揚
之典而惟公 因子孫零替 至今泯翳 公議而嗟惜 幸值我 聖
主臨御 崇奬節義 無幽不闡 今於二百年之後 如是表彰 既
錫之華額 又後以嘉諡 寔惟一邦之人 無不激感 將以勸後
之爲人臣者 豈不懿哉 謹撰次死事始末 以備太常氏之採焉
崇政大夫原任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判義禁府事弘
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豊山 洪良浩 撰

⑩ 통어사공행장(휘 시달) 충효공후

공의 휘는 시달이요 자는 겸선이다。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공으로 시조를 삼고 있으며 대대로 저명인사가 있으니 휘 성에 이르러 고려나라 현종 조정에 큰 공로가 있어서 이름을 적자로 하사받았고 무양후로 봉하고 문경공으로 시호를 추중하였다。이때부터 문관무장이 계속되었으며 조선시대로 들어와 휘 천효는 보문각대제학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공의 10대조이다。고조 휘는 여형이니 성균관 진사요 증조 휘는 준제이니 성균관 전적이요 할아버지 휘는 천록이며 중호조참의이니 광해군의혼정을 만나 부여 백마강변에서 숨어 살며 날마다 범바위에 올라가 북으로 서궁을 바라보며 통곡하여 사람들은 호암선생이라 말하였으며 아버지의 휘는 완이니 효행이 지극하여 문곡 김수항이 경연에 알려 곧 의금부도사를 제수받았으며 후일에는 공의 벼슬로 인하여 증이조참판을 받았다。어머니는 정부인 예안 김씨이니 종사랑 경서의 딸이다。

공은 천계 임술(1622년)년 9월28일에 출생하였다。성품과 재능이 보통 어린이 보다 뛰어나 여덟살에 사기책을 읽다가 노연도해란 말에 이르러 감탄하여 말하기를 전국의 세상에 이와같은 사람은 진실로 의기있는 군자라 하여 도사공이 기이하여 물어본즉 말하기를 실로 주나라를 존경하는 의의가 있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느냐하였다。들은 사람들은 모두들 큰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열여섯살때 외출하여 저물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나 횃불을 밝히며 인도하여 말하기를 통어사행차라 하여서 심히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스무살때에 도사공의 명령으로 전라도에 가서 전답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호산원이란 마을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여자의 우는 소리가 매우 슬프게 들렸는데 바로 가난하게 사는 양반 집안이 동시에 염병에 걸려 죽어서 다섯사람 상청이 방안에 있고 오로지 처녀 한명만 남아있었다。공은 심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집안 늙은 하인을 불러 허리에 차고 있던 돈을 내어주며 이 돈으로 장례의 도구를 마련하고 혹시 남는 돈이 있거든 이 처녀가 상기가 끝나 시집갈때 혼수에 쓰라고 하고 마침내 빈 전대만 차고 돌아와 사실대로 집안 식구들에게 알리니 도사공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런 아들이 있으니 집안이 가난한들 무엇이 근심되리오 하였다。

계미년(1643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슬픔이 예절을 넘었으며 상기가 끝나니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면 당연히 입신양명하고 부모까지 높혀드리는것이니문관이던무관이던무엇이 다를소냐? 곧 도사공에게 품의하여 활쏘고 말타는 것을 배우기 원

한다고 하니 도사공이 허락을 하였다。공은 붓을 놓고 무예에 매우 정진하여 기축년(1649년)에 무과에 합격하고 임진년(1652년)에 부장이 되었는데 정익공 이완이 장수의 재질로 천거하여 선전관겸대주사랑을 제수받아 여러차례 임금의 포상을 받았으며 병신년(1656년)에는 알성시에 합격하고 무술년에는 도총경력으로 전근하여 훈련부정으로 승진하고 기해년(1659년)에는 재령군수를 하였으며 경자년(1660년)에는 조정으로 들어와 도총경력이 되었으며 임인년(1662년)에는 오위장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진주영장이 되었으며 을사년(1665년)에는 가덕진첨사로 특진이 되어 군무에 성심을 다한 이유로 특별히 포상의 영전을 받았으며 무신년(1668년)에는 내금위장으로 전근이 되었고 기유년(1669년)에는 청주영장을 제수받았는데 이 해 겨울에는 도사공의 상을 당하여 정산에서 여막살이를 하였는데 법을 지키며 예절을 다하였다。

임자년(1672년)에는 겸사복장을 제수받았는데 공주영장으로 특명을 받았으며 계축년(1673년)에는 우림장으로 진도군수로 나갔으며 다음해에는 교체되어 서울로 돌아왔으며 을묘년(1675년)에는 용천부사를 임명받고 다음해에는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경흥 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다시 해서방어사로 임명받고 특별히 군량을 비축하여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표창을 하사받았으며 기미년(1679년)에는 또다시 공주영장으로 특명받았으며 경신년(1680년)에는 군무에서 길주목사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충청수사로 특명을 내렸으나 사양하였다。신유년(1681년)에는 경상수사를 특명받았다。임술년(1682년)에는 전라병사로 승진이 되었으나 지탄을 받아 부임하지 아니하였다。갑자년(1684년)에는 함경남도병사를 특명받았으나 인삼장사들이 국경을 넘는 사건이 생겨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법관리가 찾아와 위협을 심히 하며 나포해가려고 조사를 하니 사세가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으나 공은 태연히 들어와 고개만 숙이고 절을 아니하니 사법관리가 노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라의 대신도 나를 보면 반드시 절을 할 것인데 너는 절도사로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느냐? 공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뜰안까지 조사를 받았으니 바로 죄인이 된 것이다。그래서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니 검사는 더욱 노기를 내어 말하기를 죄인이 감히 갓을 쓸수가 있느냐? 공은 말하기를 군자는 죽어도 갓을 벗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물며 조그마한 과실때문에 조사를 받았으니 그것만도 크게 무례한 것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검사는 말문이 막혀 웃으며 말하기를 매우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사건을 마침내

종결하였다。

병인년(1686년)에는 행수선전관을 제수받고 정묘년(1687년)에는 가선대부로 승진되어 삼도통제사를 특명받아 임금님 교유가 자상하게 늘상 나오고 있었다。무진년(1688년)에는 조정으로 들어와 총융중군겸도총부부총관이 되었는데 기사당쟁의 화가 일어남을 당하여 공은 우암 송시열과 문곡 김수항하고 친밀하다는 이유로 흉악도 장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종성으로 멀리 귀양가게 되었는데 공이 길을 떠나게 되어서는 명사들이 많이 전송나왔는데 호곡 남용익이 손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군인의 신분으로 이 당파화를 당하였으니 장엄하고 기이하다고 하니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 의리를 지키다가 화에 걸리는 것은 문인과 무인이 무엇이 다를소냐? 임금님 은총이 끝이 없으나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 죽게 되었으니 역시 영광이 된다고 하였다。판서 신여철이 마침내 당직중에 있다가 글로 뜻을 이루어 말하기를 그대같은 충성과 의리는 비록 오랑캐의 창칼에 죽지는 아니하였어도 명예는 이곽의 당적에 걸려 있을 것이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할소냐?

공은 이미 귀양지에 이르니 흉도들이 금지령을 내리고 있어 서울로 편지가 통하지 못하였다。뒤늦게 진도와 초산의 소식을 처음 듣고 남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살고싶지 아니하다며 유언서를 아들에게 지어주었는데 계속되는 글 뜻이 화를 당한 여러분께 간절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그리고 독실한 의리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며 자신도 설사 죽더라도 한이 없을 뿐이라 하였다。

계유년(1693년)에는 병이 들어 위독하여져 12월 7일에 졸하였는데 임종시 유언에 말하기를 나는 중전께서 복위되는 것과 우암、문곡이 원통한 것을 푸는 것 보지못하고 죽으니 이것이 한으로 남으나 그러나 내가 죽은 후로 몇년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변화의 기쁨이 있을 것이니 우암과 문곡의 관직이 회복되는 날 곧 반드시 내 무덤에 알리거라 하였다。관을 고향으로 돌려오려고 함흥까지 왔는데 함경도지사가 죄인이라며 고향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여 시행을 못하고 곧 체빈을 남문밖에 꾸며놓았다가 갑술년(1694년) 3월에 발인하여 4월4일에 서울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날이 원통한 뜻을 펴고 관직이 복원된 날이었다。문무관리와 학자들이 찾아와 조상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몽와 김창집과 소제 이이명이 가장 먼저 마중나와 조상하였다。이달 28일에 정산현 관면 추동 도사공 묘소아래 장례를 하였으니 공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다음해 4월에는 임금께서 예관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내주고 지제교인 김진규가 제문을 지어 올렸는데 그 제문에 말하기를 예날 기사년에 당쟁의 화가 매우 열렬

하여 큰 학자와 저명한 재상들이 거개가 공격을 받았다。경은 무신으로 어찌하여 흉계에 걸렸는고 슬프도다。경의 입신은 대체로 본말이 있도다。성품은 오직 고지식하였고 자질은 실로 정직하고 말이 적었도다。다른 무인들은 아첨이 많았지만 공은 정직하고 질박하였도다。다른 무인들은 검약한 이 드물지만 경은 청렴 결백하였도다。대중들 모두 시세를 따라 홍망성쇠에 번복하였지만 홀로 지킴을 가지고 시종 유일하였도다。일찌기 좋은 장수밑에 예속되어 그 용감하고 뛰어남을 칭찬받았으며 늙어서는 현명한 재상들과 의지하여 더불어 유배를 당했도다。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흉악배에게 배신을 당하였도다。그 영광과 치욕을 살펴보면 가히 지조와 절개를 볼 수 있다네。항차 경은 예능이 또한 걸출하여 알성시에 두번 합격하여 두루 여러가지 벼슬을 하며 군수를 하면 민심이 가까이 있고 바다를 방어하면 역시 통솔이 되었도다。임금께서 교서 내려 아름다움을 포상하고 사랑을 보였도다。병사로 수사로 끝까지 군문에서 근무하였다네。오직 아부를 아니하여 홍하고 망하였다네。그런것에 관여 아니하여 귀양길 당하였지요。5년간 귀양살이하며 한탄하다 죽었다네。시대에 평화를 만나 억울한 죄명 설욕하였도다。죄명을 벗기고 은전을 회복하는 북소리 들으니 생각이 간절하구나。이제 근심당한 것 풀어주고 억울한 맺음 위로하노라。혼령이시여 이 곳으로 돌아와 이 제수를 흠향하소서 라고 하였다。아! 공의 일평생 아름다운 자취를 여기에서 많이 볼수 있도다。그의 집안 살림과 관직의 처세에 여러가지 행적 빛나는 것을 어떻게 모두 기록을 할 수 있으랴?

공의 배위 정부인은 경주 이씨이니 통덕랑 벼슬을 한 뇌의 딸이다。부인의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친인척들이 현숙하다고 칭찬하였다。경신년(1621년)에 태어나 병인년(1686년)에 졸하여 공과 더불어 합장이 되었다。아들이 하나있으니 일상은 벼슬이 병사이며 손자인 성구는 신축년 사화를 당하여 시골에서 은거하였는데 효행으로 효자에 추천이 되었으며 증손에 선국이 있고 증손녀는 김상용에게 시집갔으며 선국이 아들 3형제를 낳으니 재묵、재탁、재건이요 딸은 이혁수에게 시집갔다。

아 공은 일찌기 문곡의 문하에서 교류가 있었기에 우암을 만날수 있었고 그의 왕실을 존경하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의리를 배우기 싫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광남 김공과 가장 절친하여 경신년 옥사때 힘써 구하고자 하니 도리어 흉악배들의 질투를 면하기 어려웠고 그 기세와 절개 더욱 확고하여 여러 저명인사와 더불어 같이 귀양가는 화를 입었기에 선비들이 탄복하게 된 것이다。공이 어찌하여 유감이 있을소냐? 하물며 그 억울한 것을 펴고 관직이 복원됨이 사실상 변화의 초기에 있었으

니 공의 영광과 굴욕은 모두가 세상의 흥망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백세 후에도 공을 추모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할까? 아 조정에서 충성과 의리있는 자를 표창하고 숭배하면서 전일과 후일에 작위와 시호를 주는 일을 빠뜨림이 없었는데 이제 수거하면서도 공의 지조와 절개가 높은 것이 유독 포상의 영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한탄스럽다。그러나 일이란 진실로 기대가 있어서 이치적으로 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마침내 영원토록 발천의 소문이 없다고 할소냐? 이제 공의 현손자되는 재묵이 공의 유적이 지금까지 자취없이 사라진 것이 두려워 나에게 행장문을 요청하였다。공은 위대한 행실이 많아서 뜻이 남모르게 홍감이 드는 것 자연 타인의 두배나 되는데 어떻게 어리석고 늙었다고 사양할소냐? 삼가 앞과 같이 기고하였노라。

숭정후 세번째 갑자년(1804년) 겨울

은진 송환기는 짓다

⑩ 統禦使公行狀(諱 時達) 忠孝公后

公 諱 時達 字 兼善 漆原之尹 以新羅太師始榮 爲鼻祖 世有顯人 至諱晟 有大勳高麗顯宗朝 賜名勣 封武陽侯謚 文敬公 自是 簪紳相承 入我 朝 有諱天敹 寶文閣大提學 寔公 十世祖也 高祖 諱 汝衡 成均進士 曾祖 諱 遵悌 成均典籍 祖 諱 天祿 贈戶曹參議 當光海朝 屛居扶餘之白江 每登虎巖上 北望 西宮痛哭 人 謂之虎巖先生 考 諱 浣 孝行篤至 金文谷 筵白 直除義禁府都事 後以公貴 贈吏曹參判 妣 貞夫人禮安金氏 從仕郞慶瑞之女也 公 以天啓壬戌九月二十八日 生 性度才氣 超異凡兒 八歲 讀史 至魯連蹈海之語 歎曰戰國之世 如此人 眞義氣君子也 都事公 奇而問之則曰實有尊周之義 豈非君子乎 聞者 皆期以遠大 十六 出外暮歸 忽遇魍魎 列炬護導 曰統禦使行次 甚異事也 二十 以都事公 命 往賈湖南庄土 歸路 宿壺山院村 夜 聞女哭甚哀 乃其窮居兩班 一時遘癘 五喪 在室 只有未笄一女子者也 公 甚加惻傷 招其家老僕 出付所帶數馱錢曰用此爲殯窆之具 如或有餘 可備處女服闋後 嫁時之需也 遂空槖而還 告之以實於家庭 都事公 喜 曰吾有此兒 家貧何憂 癸未 丁內艱 哀毁踰制 制除 歎曰丈夫生世 當立揚顯親 畢竟成功 文武何異 乃禀于都事公 願從事弓馬 都事公 許之 公 投筆 技甚精 己丑 登科 壬辰 爲部將 李貞翼公浣 薦以將材 除宣傳官兼帶籌司郞 屢蒙 天褒 丙申 中重試 戊戌 遷都摠經歷 陞訓鍊副正 己亥 載寧郡守 庚子 入爲都摠經歷 壬寅 歷五衛將 出爲晋州營將 乙巳 拜加德鎭僉使 以盡心軍務 特被褒賞之典 戊申 遷內禁衛將 己酉 拜淸州營將 是冬 丁都事公憂 居廬于定山 守制盡禮 壬子 除兼司僕將 拜公州營將 癸丑 以羽林將 出爲珍島郡守 翌年 遞歸 乙卯 除龍川府使 翌年 罷歸 除慶興

府使 不赴 旋拜海西防禦使 以別備軍糧 自 上特賜表裏
己未 復拜公州營將 庚申 自軍門 出爲吉州牧使 不赴 又
拜忠淸水使 辭遞 辛酉 拜慶尙水使 壬戌 移陞全羅兵使
遭彈不赴 甲子 拜咸鏡南道兵使 以蔘商犯越 生事 罷歸
虜使 出來 嚇喝無比 使之拿入 査詰 事機叵測 公 晏然直
入 長揖不拜 虜使怒曰爾國大臣 見我必拜 爾 以節度使
焉敢乃爾 公 答曰入査庭 乃是罪人 故 不拜 虜使 益發怒
氣曰以罪人而可冠乎 公 曰君子 死 冠不免 況以微過 就
査而其可昌被無禮乎 虜使 語塞 乃笑曰其言 甚得體矣 事
遂已 丙寅 除行首宣傳官 丁卯 陞嘉善 拜三道統制使 聖
諭諄複 有出尋常 戊辰 入爲摠戎中軍兼都摠府副摠管 當
己巳黨禍之作 公 以親密於尤翁 文谷 入於凶徒論啓中 遠
竄鍾城 及其發行 名類多出餞 壺谷南公龍翼 握手歎曰君
以武夫 能參黨禍 壯哉 奇哉 公 笑曰守義罹禍 文武何殊
天恩罔極 圖報無路 今幸得死 亦足爲榮 申尙書汝哲 適在
直中 書以致意曰以君忠義 縱不能死於北胡干戈之中而懸
名於李郭之黨籍 豈不偉哉 公 旣到謫所 爲凶徒所禁遏 京
信莫通 晩後 始聞珍島 楚山之報 南望痛哭 如不欲生 乃
作訣書於胤子 縷縷辭意 罔非惓惓於禍家諸公而勉以篤義
不替 其所自勵 每說死無所恨而已 癸酉 嬰疾沈篤 以十二
月初七日 卒 臨終遺訓 曰吾未見 中宮復位 尤文 伸寃而
死 是爲齎恨 然 吾死後不數年 必有更化之喜 尤 文 復爵
之日 即須告我墓也 返櫬 到咸興 方伯 以爲罪人 不可任

其返葬 俾不得行 乃槀殯南門外 甲戌三月 如啓劄 四月四
日 到京 即公 伸寃復官之日也 搢紳章甫來吊者 甚衆 夢
窩金公 疎齋李公 最先迎哭 是月二十八日 葬于定山冠面
楸洞都事公兆下 遵遺志也 翌年四月 自 上 遣禮官 致祭
知製敎金鎭圭 製進祭文 曰昔歲在蛇 黨禍孔烈 碩儒名卿
擧被艾伐 卿以武臣 胡遘媒糵 嗟卿立身 盖有本末 性惟疎
戇 資實木訥 彼武多諂 卿則直質 彼武罕約 卿則廉潔 衆
皆趍時 飜覆冷熱 獨保所守 始卒惟壹 蚤隷良將 受其奬拔
晩托賢相 與同官詘 所以臭味 背于凶孽 伊考榮辱 可見志
節 况卿藝能 亦自挺出 巍科再捷 環衛累列 郡寄旣膺 海
防亦轄 璽書荐降 褒美伐閱 于陸于水 遂伏閫鉞 惟不求媚
載起載蹶 厥庸未究 而罹譴黜 五載朔荒 齎恨以歿 屬時之
淸 丹籍斯雪 褫鞶恩還 聽鼓思切 玆伸愍典 用慰寃結 魂
兮歸假 歆此芬苾 噫 公之始終徽蹟 於此 大可見矣 若其
居家處官 郡行之焯焯者 何可盡記也 公 配貞夫人 慶州李
氏通德郞雷之女 婦德極備 六親 稱其賢 生於庚申 歿于丙
寅 與公同穸 有一男 一商 官 兵使 孫男 聖龜 當辛丑士
禍 屛居湖鄕 以孝行 登薦剡 曾孫男 善國 女 適金相龍
善國 生三男 載默 載鐸 載鍵 一女 適李赫秀 嗚呼 公 蚤
遊文谷之門 從以獲拜尤翁而於尊攘距闢之義 服習無數 且
與光南金公 最親切而有力於庚申治獄則固難免見嫉於凶
黨而氣節 愈確 與諸名公 同被竄謫之禍而爲士類所歎服
公 亦何憾焉 况其伸寃復官 實在更化之初 公之屈伸 儘可

謂有聯世道之汚隆矣 百載之下 誦慕公者 其不在斯歟 噫 朝家 所以褒崇忠義者 前後殆無遺爵諡之 贈 次第修擧而 以公志節之卓 獨未蒙 褒貤之典 誠可恨也 然 事固有待 理無不伸 安知終無太常之闡發以 聞耶 今公 玄孫載默 於 公遺蹟 尙懼泯沒 請余狀 公 行意甚勤 竊有興感者 自倍 于他 何可以昏耄辭 謹錄如右

崇禎後三甲子冬

恩津 宋煥箕 撰

◇

⑪ 몽엄공행장(휘 방직) 대언공후

몽엄 윤공의 휘는 방직이요 자는 내승이다。 시조 휘 시영은 신라시대 태자태사이다。 고려시대에 휘 성이 있었으니 거란족을 격퇴한 공로가 있어서 이름을 적자로 하사받고 특별히 진급시키어 무양후작으로 봉하였다。 이때부터 동국의 저명한 씨족이 되어 일곱세대조가 군호로 봉해졌다。 조선시대로 들어와 휘 참이 있으니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하여 벼슬은 전설서승을 역임하고 집의로 추증을 받았다。 공이 아들 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휘는 지요 아호는 양성당이니 학자들 사이에 높은 신망이 있어서 점필제 김종직 선생과 사가정 서거정 선생과 더불어 10년간 집현전의 동료가 되어 도의로 교류하였으니 이 몽엄공에게는 십이대조가 된다。 둘째 아들 휘는 사요 아호는 순수이다。 생원에 합격하여 참의를 추증받았으며 자손들이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높은 벼슬과 저명한 사람이 나왔으며 양성당은 아들 3형제를 두었으니 장자 휘 희규는 생원에 합격하고 휘 인우를 낳았는데 현감 벼슬을 하였으며 휘 달안을 낳고 이대 전하여 휘 순무는 칠원현 죽청동에서 살며 휘 원신을 낳아 교위 벼슬을 하였으니 이 분이 공의 고조가 된다。 증조고 휘 탕거는 참봉이요 조고 휘는 종구요 아버지 휘는 찬연이니 참봉 벼슬을 하고 장수한 덕으로 동지중추부사를 하였다。 정조대왕 경자년(1780년)에는 판서를 역임한 직암공 휘 사국이 참의공의 후손으로 안동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영들을 성묘하고 칠원에 위토전답을 만들어 해마다 시제를 올리게 하고 나오는 곡식으로 계를 결성하여 서당을 짓고 책을 사들여 여러일가들을 권고하였는데 바로 중추공을 전후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 졌으니 공은 중추공의 둘째 아들로 능히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였으며 임종시에 이르러 아들과 조카들에게 유언하기를 그 사업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은 공이 조상을 위하는 일이며 또 가히 선세의 덕에 근원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은 영조대왕 을해년(1755년) 8월11일에 태어나 날때부터 효도와 우애가 있어 부모가 병이 들면 곧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먹지도 아니하였다。 여덟살에 비

로소 역사를 배우다가 성왕과 탕왕이 여섯가지 일을 자책하는 것에 이르러 이내 말하기를 일찌기 들으니 사기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배워보니 그렇지 아니하다며 하나하나 그 조목을 들어 어찌 여섯가지 일에 두개 글자만 썼을고。 중추공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며 자주 칭찬하여 말하기를 후일에 내 집안을 성공시킬 사람은 반드시 이 자식이 될 것이라 하였다。 겨우 열살때에 중추공이 매일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 혹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공은 먼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밤을 지나게 되면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있다가 달려나가 중도에 맞이하였으며 비록 심한 추위 심한 더위라도 반드시 의관을 차리고 옆에서 모시고 있으며 물러가라 명하지 아니하면 비록 밤중이 되어도 나태한 모습이 없었으며 집안이 본래 가난하여 맛있는 것을 올릴 수 없었는데 시골 집에 길들이지 아니한 매가 있었는데 공이 바로 불러 산으로 올라가면 대 여섯 마리 꿩을 잡아와 사람들이 모두들 이상하게 여기었다。 중추공이 술을 즐겨서 집에는 반드시 술을 빚어 놓고 있었고 친구들이 혹 술을 놓고 공을 맞이하면 감히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고 곧 소매 속에 술을 넣고 돌아와 바치었다。

일찌기 학문으로 여가를 삼았지만 오직 어버이가 살아 있을 때에 성심을 다하는 것으로 지극한 소원을 삼고있었다。 갑인년(1794년)에는 중추공이 병이 들어 공은 밤낮으로 근심하며 약을 다려 올리면서 남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가래침과 소대변은 자신이 직접 씻어내고 몸에 좋다는 물건을 끝까지 써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병세가 점차 더하여 엎드려 북두칠성에 기도하여 손가락을 베어 피를 바치었으나 5일만에 마침내 초상을 당하여 시신을 넣은 널까지 유감이 없게 하였으며 장례일에 이르러서는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 올라 잣나무를 잡고 슬피울어 나무꾼들까지 감동되어 울었다고 한다。 신유년(1801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여 아버지 초상과 같이 하였으며 상기가 끝나서는 죽청동에다 집을 짓고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자고 같이 먹으며 마을 동쪽에 오동나무를 심어놓고 여러 일가를 그 밑으로 모이게 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살며 한번도 이간하는 말이 없었으며 비록 시누이와 며느리들이 다투는 일에도 역시 보고 느끼는 것을 성품대로 옮기고 자제들이 허물이 있어도 일찌기 매를 때려 꾸짖지 아니하고 불러다 앞에 앉히고 말없이 종일토록 자신이 반성하게 하여 중지하게 하였으며 그 후배와 젊은이에 있어서는 가르치고 키우기를 각자 천성에 따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책을 가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뒤를 이었으며 비속한 언어는 입에서 내지 않고 간사하고 미혹하는 빛은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웃에서 먼지가 쌓일 지경이었으며 일찌기 책 한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 옛날 사람들의 언행중에 법이 될만한 것을 들으면 곧 기록하였다가 때때로 빼어 보고 성현들의 잠언이나 훈계중에 경이한 것은 좌우에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중추공을 만나는데 말씨가 매우 엄연하였으며 공의 손을 잡고 참을 인자를 써서 주었다。 깨어나서 매우 경이하게 여기었는데 얼마후에 누가 억지를 써왔는데 공은 참고 더불어 상대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사람이 공연히 머리에 병이 들어 겨우 20일만에 죽었다。 직암공이 그 집 현판을 몽엄이라 하였다。 공은 평생토록 명심불망의 자산으로 삼고있었다。

일찌기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라법을 위반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여 공은 정색하여 말하기를 이런 짓은 선비로 할 일이 아니라며 호연히 고향으로 돌아와 농촌에 몸을 감추고 자신을 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연구를 반복하여 특히 중용책과 대학책에 힘을 다하였으며 많은 저서를 성담 송환기 선생에게 나가 질문을 하였는데 송선생은 역시 다른 이론을 허용하지 않고 매우 장려를 더하였다。

평생토록 상사 주봉상과 강묵회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격일로 교류하니 그의 절차탁마한 것이 보통 친구들보다 넓고 많았다。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하루는 소복을 입었으니 그의 충후한 성품들이 이와 유사하였다。 갑술년(1814년)에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금맥이 나와 온 마을이 달려가 살고자 하여도 공은 담담히 있으며 의외의 재물은 생각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힐난하였다。 그는 조정의 일에는 먼 시골 선비라 아니하고 자신이 항상 염려하고 있어서 지방 군수들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잊지않고 있었는데 임신년 서양인들의 난이 일어난 날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이고 지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젊은 시절에 붓 버리고 무술 배워 국가에 몸 바치지 못한 것 한탄하며 운자를 내어 시를 지어서 강개한 근심을 붙이었다。 이제 고종황제 병술년(1886년) 10월 6일에 집안에서 임종을 하였으니 향수는 일흔두살이었다。 그 해 12월20일에 죽청동 뒷산 남향(자좌)에 장례를 하였다。 어머니는 정부인 초계 변씨이니 유생 변서홍의 딸이다。 남편을 섬김에 거스린 것이 없었고 자제를 가르침에는 법도가 있었다。 공의 배위는 밀양 박씨이니 자헌대부 박원오의 딸이니 번씨 부인의 아름다움을 잘 계승하여 부인 덕목이 잘 구비되어 있고 가내 규범에 예의가 있었는데 공보다 22년 먼저 졸하니 공의 묘소에 부장하였으며 자손이 없어 큰 형인 방언의 아들 상권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딸들은 주계빈과 신학동에게 시집갔다。 상권이 아들은 명의요 딸들은 배영우、

조자한、이계형、주재열에게 시집갔다。

상권이 공의 행장과 원고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 보이며 말하기를 나의 선고 문장과 행동이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선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것이 나의 지극한 여한이니 자네는 나를 위하여 행장을 지어 서술하라고 하여 나 홍문섭이는 자리를 피하여 말하기를 오직 현명한 사람이 된 후에 현명한 것을 아는 것인데 나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진이 덕행을 행장으로 짓겠느냐 하며 이내 고사하였지만 중지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받아놓고 경건하게 읽어보고 갑자기 일어나 말하기를 아 현명하도다 공의 행동이 보통보다 탁월하였으니 누가 감히 현명하지 아니하다 하리오 하물며 또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이며 모두들 경상남도에서는 큰 덕망가로 소문이 나 있으니 저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하여서 그래서 공의 현명한 것을 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 소자가 어찌 감히 사적으로 할소냐? 삼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모아 차례대로 우와 같이 서술하여 증명할 수 있는 군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구비하였노라。

상지2년(1896년)병신 3월30일

남양 홍문섭은 짓다

⑪ 夢广公行狀(諱 邦直) 代言公后

夢广尹公 諱 邦直 字 乃承 上祖諱始榮 新羅太師 麗朝有諱晟 以擊契丹功 賜名勳 加特進封武陽侯 自是 爲東國顯族 七世疏封 入 我朝 有諱參 中生進兩試 官典設署丞 贈執義 公 有二子 長諱 志 號 養性堂 有士友重望 與佔畢金先生及四佳亭徐公居正 十載職班於集賢殿 道義相交於公 爲十二世祖 次諱思 號順叟 生員 贈參議 子孫 在京代出達官類人 養性堂 有三子 長諱 希奎 生員 生諱仁佑縣監 生諱達安 再傳而諱舜懋 卜居漆原之竹淸洞 生諱元莘 校尉 寔公之高祖 曾祖諱 湯擧 參奉 祖諱 宗龜 考諱燦然 參奉 耆爵同知中樞府事 正宗庚子 判書直庵公師國以參議公后裔 出莅安東 省掃先塋而漆置位田 歲行時祀出穀修稧 建堂貯書 以勸諸宗 寔中樞公 先後之 以成其事公 以中樞公第二子 克趾其美 至於臨死 遺囑子侄 誡勿墜厥緖 此 公爲先之誠而亦可觀世德之有自矣 公 以英廟乙亥八月十一日 生 生而孝友 父母有疾 輒憂慽不食 八歲始學曾史 至成湯六事自責 乃曰嘗聞曾史無衍語 今學不然旣條列其目 安用六事二字 中樞公 大異之 亟稱曰後之成吾家者 必此子也 甫十歲 中樞公 每駕外 或日昃不返 公不先飯 若至經宵則達夜不寐 走迎中途 雖祁寒盛署 必衣冠侍親側 不命退 雖夜分 無惰容 家素貧 甘旨 無以爲供村家 適有不馴之鷹 公 即自呼登山 連獲五六雉 人 皆爲

異 中樞公 嗜酒 家必有醲而儕友 或有以酒邀公者 公不敢自飮 輒袖壺歸供 嘗以文章 爲餘事而惟盡誠於親在時爲至願 甲寅 中樞公 不豫 公 晝宵憂懼 調劑供飯 不以人代 唾噎厠牏手自滌浣 便身之物 靡不用極 疾漸 欲稽顙北辰 斫指進血 至五日 竟不幸 身附棺 無有所憾 及葬 朝夕上墓 攀柏哀號 樵牧爲之感泣 辛酉 丁內艱 如前喪 服闋築室於竹淸之洞 與伯季 一枕同被 村東 植梧桐 會諸宗於其下 三世同居 一無間言 雖娣姒之方圓 亦自觀感而移其所性 子弟有過 未嘗輕加捶責 召前對坐 默默終日 使其自悟而止 其在後生少年 薰陶培養 各隨其性 是以 擩册諸學者 日以踵武 鄙俚之語 不出於口 邪迷之色 不接於目 鎭日端坐 至於衣帶生埃 嘗置一册於丌上 古人言行之可法者有聞輒記 時時披覽 聖賢箴誡之警者 列書座右 朝夕景仰一日 夢拜中樞公 辭氣甚嚴 提公手 書與一忍字 覺甚驚異未幾 有人 橫逆來加 公 忍不與較 其人 自翌有病 纔及二旬而死 直庵公 題其楣曰夢广 公 以爲平生銘鏤之資 嘗入試圍 有人 將欲違法行私 公 正色曰此非士子之所可爲 浩然還鄕 斂跡林泉 留心爲己 硏究反覆 尤致力於庸學 多所劄錄 就質於性潭宋先生 先生 亦無容他議 深加奬詡 平生與周上舍鳳祥 姜公默會數人 間日從遊 其所箴瑑 弘多於尋常知舊 聞其死 必行素一日 其忠厚之性 類如此 甲戌大饑而近地金穴 出 一鄕 趨走聊生 公則淡如 不以意外之財 爲念 人皆難之 其於朝廷事 不以遐鄕布衣 自分一念耿耿於政令得失間 及至壬申西變之日 見人之荷擔奔竄 恨不以强壯時投筆操弓 許身邦國 呼韻賦詩 以寓慷慨之忱今 上丙戌十月六日 考終于正寢 壽七十二 用其年十二月二十日 葬于竹淸洞後子坐原 妣 貞夫人草溪卞氏士人瑞輿女 事君子而無違 訓子弟而有方 公之配 密陽朴氏資憲元五 女 克承卞夫人之休 婦德甚備 閨範有儀 先公二十二年而歿 葬祔公墓 無育 取伯兄邦彦子商權 爲嗣 女 適周肇斌 辛學東 商權 子曰明誼 女適裵永佑 曺子漢 李啓馨 周在烈 商權 持公行錄及文稿 來示余曰吾先父文行 若此而尙不得顯揚 是吾至恨 子其爲我狀而叙之 雯燮 避座曰惟賢而後 能知賢 某也 非賢者 何以狀賢人之德 仍固辭不獲已 受而敬讀 蹶然起曰嗚呼賢矣 公之行治 卓越凡類 孰敢不爲之賢 況又集中所唱和者 盡嶺右碩德著聞者 以彼諸公之賢而賢公之賢 小子何敢私焉 謹撮其最而叙次如右 以備立言君子之採掇焉

上之二年丙申三月下澣

南陽 洪雯燮 撰

◇

⑫ 묵와공가장(휘 홍의) 대언공후 칠곡

부군의 휘는 홍의요 자는 사점이며 호는 묵와이고 성은 윤씨이며 본관은 칠원이다。 시조의 휘는 시영이니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이다。 휘 거부는 고려시대에

보윤벼슬을 하여 칠원백에 봉해졌으며 휘 명도는 구녕부원군에 봉해지고 충경공 시호를 받았으며 휘 길보는 직량공신으로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공 시호를 받았으니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였다。 조선시대로 들어와 휘 석보요 호 지퇴당은 직제학 벼슬을 하고 청백리에 선록되었으며 휘 조원이요 아호 율원은 황해도 관찰사를 하였고 휘 민길이요 아호 퇴은은 선교랑 벼슬을 하였으니 부군에게는 7대조가 되는데 마침내 칠곡 사람이 되었다。 고조 휘는 억이요 증조휘는 형이요 할아버지 휘는 영국이며 아버지의 휘는 재신이요 아호는 남주이니 모두들 나타나지 아니한 덕행이 있었다。 어머니는 청도김씨 광여의 딸이다。 정조 계축년(1793년) 3월26일에 부군은 출생하였다。 부군은 어려서부터 영리한 자질이 있었으며 장성하여는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노력하며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여 원근에 살던 이매포과 박삼연 같은 여러 선비들과 도의의 교우가 되었다。 칠곡 북방에 녹봉 서당이 있었으니 옛날 금계 황준양이 지은 것이며 많은 선비들이 공부하고 예절을 본 받는 곳이다。 마을에서는 부군으로 수장을 삼았으니 부군의 행동은 당시 존경받는 학사이었다。 그래서 부군은 벼슬 길에 나가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은퇴하여 한가로이 본래의 뜻을 지키며 시문과 예절을 편안히 여기며 농사에 힘써서 적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어 곧 가업을 세워놓고 좋은 교훈을 남기었으니 대저 은거한 시골에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전에 선교랑공이 제천에서 상지동으로 이사오고 후일 또다시 빈주로 이사하고 부군이 또 왕산 밑으로 이사오면서 왕방리란 동명이 부군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었다。 임자년 2월27일에 졸하니 향년이 59세이었다。 본군 낙산동 가락곡 남남동향(임좌)에 장례하였으며 배는 광주 이씨 강운의 딸이며 부군보다 13년 뒤에 졸하여 묘소는 합폄이 되었다。 아들 넷과 딸 둘을 두었으니 장자는 영일이요 차자는 영삼이요 셋째는 영오요 넷째는 영구이며 큰 딸은 청도후인 김영규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선산후인 김홍원에게 시집갔다。 영일이 1남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지학이요 딸들은 이경연과 장영호에게 시집갔다。 영삼이 1남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기학이요 딸은 김수묵에게 시집갔다。 영오는 딸만 두어 조카 재학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고 딸은 장영주에게 시집갔다。 영구는 3남3녀를 두었으니 장자는 승학이요 재학은 양자로 나가고 성학이며 딸들은 이근각、장지립、이기엽에게 시집갔다。 김영규가 4남을 두었으니 김상구、상칠、상오、상삼이며 김홍원이 2남3녀를 두었으니 아들 김우동과 김석동은 참봉이며 딸들은 장두필、유인석、채경원에게 시집갔으며 기타 중손과 현손들은 번다하여 모두 기록하지 아니한다。

아 부군께서는 선조 관리들의 음덕을 많이 받고도 은거하며 의리를 행하며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고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 읽으며 욕심없이 농촌 속에 살며 즐거움 바꾸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저축을 하면서 보답없는 곳까지 사랑을 베풀었으며 더불어 교류하던 사람은 모두가 당시의 저명 인사들이며 부군의 평소 아름다운 말과 좋은 행동이 당연히 소홀히 여기는 것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겠지만 집안에 연고가 여러가지 있어서 백분지 일도 남지 아니하여 병돈이는 더욱 오래되면 더욱 많이 잃을 것이 두려워 가승책과 평일 들은 것을 널리 모아 합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고하노라.

갑술년(1934년) 3월10일

증손 병돈은 삼가 기록하다

⑫ 默窩公家狀(諱 鴻儀) 代言公后 漆谷

府君 諱 鴻儀 字 士漸 號 默窩 姓 尹氏 貫 漆原 上祖 諱 始榮 新羅太子太師 顧命元老 諱 鉅富 高麗甫尹 封漆原伯 諱鳴道 龜寧府院君 諡 忠敬 諱吉甫 直亮功臣龜城君諡忠義 歷世冠冕 入 李朝 諱碩輔 號止退堂 直提學 選清白吏 諱調元 號栗園 黃海道觀察使 諱敏吉 號退隱 宣教郎 於府君 七代祖 遂爲漆谷人 高祖 諱 檍 曾祖 諱 衡履 祖 諱 榮國 考 諱 載辛 號南州 俱隱德 妣 清道金氏光汝 女 丁廟癸丑三月二十六日 生府君 府君 幼有潁悟之資 及長 修身力學 入孝出悌 遠邇李梅圃 朴三然諸公 道義交 府北 有鹿峰書社 在昔錦溪黃公所創 爲多士習藝矜式之所 鄉里以府君 首任 府君 行治 當時推重者 雅矣 然府君 不求進取 退縮荒閑 固守素志 安於詩禮 務茲稼穡積小成大 頗立產業 貽厥嘉謨 蓋取晦跡丘園之義也 先是宣教郎公 自堤川 移于上枝 後 復移于蘋洲 府君 又移于旺山下 旺方之里名 自府君 始焉 壬子二月二十七日 卒享年 五十九 葬于本邑樂山洞佳樂谷壬坐之原 配 廣州李氏綱運之女 後府君十三年 卒 墓 合窆 有四男二女 男 長永一 次 永三 次 永五 次永九 女 長適清道金永奎 次 適善山金弘遠 永一 有一男二女 男 志學 女 李經淵 張永鎬永三 有一男一女 男 麒學 女金修默 永五 有一女 取侄在學爲后 女張永周 永九 有三男三女 男 昇學 在學 出 聖學 女李根珏 張志立 李基燁 金永奎 有四男 金象九 象七象五 象三 金弘遠 生二男三女 男 金禹東 錫東 參奉 女張斗弼 柳仁錫 蔡景源 餘曾玄 煩不盡錄 嗚呼 府君 承簪組垂蔭之厚 隱居行義 敦尚孝友 朝耕暮讀 囂囂然處畎畝之中 不改其樂 勤儉貯蓄 施惠於不報之地 所與從遊者 皆當時名流則府君之平日嘉言善行 宜乎不至於疎略而家故多端 百不存一 炳敦 懼夫愈久愈失 博採家乘與平日所聞者 合爲一篇 以詔夫來裔云

甲戌三月上澣

曾孫 炳敎 謹識

⑬ 눌암공행장(휘 영돈) 충효공후 익산

행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덕행을 기록하여 말하는 것이니 확실한 사실이 어긋나면 불가하며 또 지나친 찬미를 하면 불가한 것이다。 친구인 윤경학과 창원이 돌아가신 눌암처사 윤공의 행장을 가지고 뜨거운 더위를 무릎쓰고 나를 찾아와 행장 기문을 요구하여 몇차례 사양하다가 마지 못하고 삼가 읽어보니 공의 휘는 영돈이요 자는 통여이며 눌암은 그의 아호이다。 칠원윤씨들은 태자태사공이신 시영을 시조로 삼고 대대로 현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휘 성에 이르러 고려시대 현종조정에 큰 공로가 있어서 이름을 적으로 하사받고 무양후에 봉해지고 시호를 문경공으로 추증하였다。

이때부터 문관무장이 계승되었으며 조선조에는 대제학 천효와 승지 보상과 도사 세현이 있으니 이 분들은 공의 9대조 이상이다。 그리고 규의와 재담과 도신은 아버지 조고 증조고들이니 모두들 문학과 덕행이 있었다。 어머니는 평산 신씨 도태의 딸이다。 공은 헌종 무술년(1938년) 9월2일에 은진 동성 옛집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찍 아버지를 잃었다。 타고난 자질이 예쁘게 생겼으며 어려서부터 대인의 자질이 있어 학문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나이 일곱살에 글 배울 것을 청하니 어머니께서 기뻐서 허락하여 비로소 경학의 선비인 지헌 변재병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권면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늘상 부지런히 읽었으며 중지하라고 하명하지 아니하면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몇년 되지 아니하여 문리를 통달하였다。 늘상 말하기를 옛날에 우임금은 촌음을 아끼고 우리 공자님은 가죽끈이 세번 끊어졌으니 그들같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성인으로도 오히려 이와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나 같이 노둔하고 용열한 것이 진실로 백배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현인 군자의 경지에 오를수 있으랴? 부지런히 열심히 외우고 읽는 것을 폐지하지 않고 밤을 낮으로 계승하니 마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윤씨내 가문에 군자가 나왔다고 하였다。

나이 스무살에 성인의 글과 현자들의 글을 널리 달통하여 오로지 자기가 말을 일을 위한 학문에 힘쓰고 서른 살에 이르러서는 우뚝 자립되고 도를 찾는 의지가 확실히 독실하여져 마침내 소인산 김중암。송연제。최면암과 같은 여러 덕망가 문하에 교류하며 도의를 연구하여 마침내 유학자가 되었다。 대저 공의 배움은 인륜을 숭상하여 먼저 효도와 우애로 큰 기강을 세우고 또 일가에 화목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손에 훈계하고 후

학을 인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도로 섬세한 조목을 삼았다。돌아가신 아버지는 시봉을 하지 못하여 종신토록 망극의 애통으로 삼고 어머니를 섬김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어 매일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여 편안한 봉양의 도를 끝까지 다하되 먼저 뜻을 받들어 드려 어머니 뜻을 기쁘게 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껏 찾아 어머니 몸을 봉양하였다。어머니가 일찌기 병이 들어 점점 위독하자 날마다 의사 치료를 하였는데 조금도 효과가 없어 근심으로 마음을 조려 허리띠를 끌르지 아니하였으며 깊은 겨울 심한 추위에도 자기의 노쇠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지성으로 하늘에 빌어 자신의 몸이 대신하기를 원하기 일주일 하였으며 그리고 여타의 약을 다리고 변을 검사하는 일은 예사이었다。어머니께서 기러기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니 갑자기 찾으니 얻기가 쉽지 아니하여 근심을 하고 있는데 홀연히 한마리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 급히 달려가 보니 바로 기러기였다。이것을 잡아다가 봉양하여 병환이 점차 차도가 있어 5년간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마침내 노병으로 기해년 겨울에 죽었는데 공의 나이 62세이나 노쇠하지 아니하다고 자처하며 산속에 여막을 짓고 있는데 호랑이가 늘상 찾아와 호위하고 있었는데 근동에 사는 어느 사람이 마침내 눈위에 호랑이 발자욱이 나타나 있다고 하여 모두들 알게 되었다。그는 선조를 받드는 것에 늘상 추모의 정성이 있어 제향을 올리고저 일가 수삼인과 더불어 종계를 창설하여 종토 묘비등이 빠져 있는 것을 마련하였다。그 우애는 아우 영규와 어려서 고아가 되었기에 외로운 현상을 서로 불쌍히 여기었다。자신은 어려서부터 사랑과 구휼의 연연한 정의를 다하였으며 성장하여는 더욱 돈독하게 우애하며 한 집에 살며 고락을 같이하고 늘상 화열한 기색이 있었으며 불평하는 기색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안에는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그 돈목하는 마음을 여러 일가들에게 넓히어 종약을 정하고 시상과 벌칙을 두었으며 자신이 지은 강학의와 연향의를 가지고 돈목의 훈계에 힘쓰고 집안을 다스리고 자손을 가르치는 것에는 자신의 법도가 있어 치가의 비결과 자손을 훈계하는 것과 며느리를 훈계하는 책을 지어 한 집안의 정치로 삼았으며 후배를 가르침은 반드시 자신이 가르치되 표적을 삼으려고 어린이 놀이 시를 지어 일깨워주는 책을 만들어 그의 문하에서 배운 사람들은 거의가 물들어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 오늘 여기에 온 경학이는 공의 조카요 창원이는 또 공의 족손인데 모두들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다。

족보를 편집하는 일로 인하여 아울러 공의 유고 약간을 책으로 간행하였으니 어찌 그것이 세가지로 일하여

도 한가지를 섬기는 도리를 아는 것이 아니겠는가? 시골 마을에 살면서 일찌기 신의로 아니한 것이 없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귀천과 노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없게 하여 진심으로 복종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모두 공의 일생동안 수행의 대략적인 것이다。

고종 병오년(1906년) 10월19일에 졸하니 향수가 69세이었다。 익산군 황화면 구상동 선영 곁 남남서향(축좌)으로 장례를 하였다。 배는 합천 이씨 석현의 딸이니 임진년에(1832년) 출생하고 공보다 먼저 죽었고 묘소는 공과 합장이 되었다。 1남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창권이며 딸은 예안후인 김형규에게 시집갔다。 창권이가 병우、병기、병주를 낳고 증손자 손녀들은 모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아 공은 깊은 학식으로 순수하게 효도를 하여 이미 당시에 모두들 보고서 알고 장차 후세에도 소문이 계속될 것이니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의 가장에 의거하여 조금 기록하고 그리고 대략만을 지어 후일의 사관들이 채택하여 주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병자년(1936년) 7월10일

성균관 진사 진산 소학규는 짓다

⑬ 訥菴公行狀(諱 永敦) 忠孝公后 益山

狀者 狀其德而爲言 固不可以爽實 亦不可以溢美者也 尹友晫學 昌遠二君 懷其先師訥菴處士尹公行錄 冒潦炎而訪余 以求狀德之文 屢辭不獲 謹按 公 諱 永暾 字 通汝 訥菴 其號也 漆原之尹 以太子太師始榮 爲鼻祖 世有顯人而至于晟 有大顯於高麗顯宗朝 賜名勣 封武陽侯 諡 文敬 自是 簪組相承 李朝 有大提學天敎 承旨輔商 都事世憲 寔公之九世以上也 曰奎義 載琰 道莘 考 祖 曾祖 俱有文行 妣 平山申氏道泰女 公 以憲宗戊戌九月二日 生于恩津東城舊第 早歲失怙 而姿禀粹美 自幼 已有巨人之志 能知其非學問 無以爲人 年七歲 請以學文 母夫人 喜而許之 始學于經學之士邊芝軒載丙之門 不待勸勉而常勸讀 不命止之而不輟 不幾年而文義已通 常曰昔 大禹寸陰 是惜 吾夫子 韋編三絶 以其聰明睿智之聖 猶如此 况我鹵莽裂滅者 苟不用百倍其功 何以躋賢人君子之域乎 孜孜惜惜 誦讀不廢 夜以繼晝 鄉里見者 莫不稱賞 皆以爲尹氏之門 君子出焉 年及弱冠 博通經傳 專務爲己任之學 以至于三十歲 卓然自立 求道之志 確然益篤 遂從遊於蘇仁山 金重菴 宋淵齋 崔勉菴諸長德門下 講磨道義 竟成儒業焉 盖公之爲學 敦尙彜倫 先以孝友 立大綱領 又以睦族齊家 戒子孫 牖後學 交人之道 爲細條目 其於先考 以不及侍奉 爲終身罔極之痛 事母夫人也 晨昏定省 每有怡愉之色 冬溫夏凊 極盡便養之道 先意承順 以悅其志 竭力誠求 以養其體 母嘗有病 漸至危劇 日事刀圭 少無效焉 色憂心焦 不解帶 隆冬盛寒 不顧自己之衰敗而沐浴更衣 至誠禱天 願以身代者 凡七夜而外他嘗藥嘗糞之類 是乃例事也 母思鴻雉之物

以猝求未易得爲憂 忽有一禽 自空而墜 急往視之 乃鴻也 得而養之 患憂漸差 加延五歲壽 竟以老病 歿於己亥冬 公之年 六十二而不以衰老自處 廬墓深山 虎常來護 近洞一人 適見虎跡於雪上而皆知之 其奉先也 常有追慕之誠而欲其祭享 與族數三人 鳩設宗契 以供儀物之闕 其友愛也 與其弟永規 相憐早孤孑孑之狀 己自幼時 能盡愛恤戀戀之義 及其長成 友于益篤 居一室同苦樂 常有和悅之氣 未見不平之色而庭無間言 其敦睦也 廣推愛於諸族 定宗約而有賞罰 自著講學儀 燕饗儀 敦睦訓 以勗之 其齊家訓子也 自有法度 著治家訣 戒子孫 戒婦女等書 以爲一家之政 其訓迪後學也 必以身敎之 爲其表臬 著童蒙遊泳等詩 警策之及其門下者 多有擩染成就之人 而今此瞟學 即公之從子昌遠 亦公之族孫 而皆親受教訓者 因其修譜之役 幷刊公之遺稿若干卷 豈其非能知生三事一之道者乎 其居鄕黨也未嘗不以信義 交於人 貴賤老少 無不心悅而誠服 此皆公之一生治行之梗槩也 高宗丙午十月十九日 卒 壽 六十九葬于益山郡皇華面九相洞先塋側丑坐之原 配 陜川李氏錫賢女 壬辰生 先公歿 墓 合窆 擧一男一女 男曰昌權 女適禮安金亨圭 昌權 生炳禹 炳基 炳周 曾孫男女 不盡錄嗚呼 公 以深邃學識 純實孝行 既見知於當時 殆將有聞於後世 可不爲之懿也耶 依其家狀 小錄而畧識 以俟他日太常氏之採擇焉

柔兆困敦(丙子)秋七月上澣

成均進士 晉山 蘇學奎 撰

⑭ 오산공 행적(휘 재철) 충효공

공의 휘는 재철이요 자는 여준이며 오산은 그의 아호이다。여섯 일곱살때 부터 장성한데 이르기까지 재주와 행동이 특이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학문에 열심히 하였으니 이 두세가지 행실은 옛날 군자에게 부끄럽지 아니하였다。집안이 비록 가난하였지만 부모에게 음식은 맛있는 것을 올리고 아침 저녁 보살피는 것과 뜻을 받드는 절차를 50세까지 하루같이 하였다。신묘년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계사년에 또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두분의 병환을 당하여 의사의 치료도 효과가 없이 점차 위급한 경지에 이르게 되자。목욕재계하고 5일밤을 하늘에 빌며 소원하기를 자신을 대신하여 달라고 하였으니 효도를 가히 다하였다고 할수 있다。아우인 재검과 더불어 한 집안에 살며 어려서부터 늙은때까지 밥상을 같이 하고 이불을 함께 덮고 자면서 항상 온화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띠고있어 불평하는 표정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우애를 가히 독실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열심히 부지런히하여 열세살에 시를 짓고 경서를 읽었으며 스무살 이후로 마침내

큰 선비로 이루워졌다。임인년에 공주향시에 참여하고 을사년에 서울과거에 참여하고 을묘년에 진사시험에 참석하였으나 운수가 비색하여 마침내 크고 작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조금도 한탄하는 것이 없이 육십여년을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였으며 원근의 학도들을 집안에 허용하지 아니 하였지만 가르치기는 게을리 아니 하였으니 그의 부지런한 것을 알 수 있다。남의 착한 행동을 보면 무릎치며 감탄하고 남의 불미스러운 것을 들으면 귀를 막고 한탄하였다。벗에는 믿게 하고 말씨를 조심하여 평생토록 관청의 득과 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당시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아니하여 지방군수들이 사당을 세울 인재라고 칭찬하였으며 지방사람들은 도덕을 천거하는 덕망있는 사람이라하니 후일에 선비들이 논의를 어떻게 할지 알수가 없다。공은 64세로 타고난 명을 마치었으니 아! 슬프기만 하구나。

공의 사적은 정산읍지에 기재되었다。

⑭ 鰲山公行積(諱 載哲) 忠孝公后

公諱載哲 字汝濬 鰲山其號也 早自髫齡 及至長成 才行卓異 孝於父母 友於兄弟 勤於文學 此數三實行 足不愧古君子也 家雖貧乏 堂上進飪 足供滋味而定省之節 承順之方 五十載如一日 至辛卯 丁內艱 癸巳 又遭外艱而兩度親患之時 刀圭無效 漸至危劇則躬自沐浴 五夜禱天 願以身代 孝可盡矣 與其弟載儉 同居一室 自少至老 共盤而食 同衾而寢 恒帶和悅之氣 未見不平之色 友可篤矣 自入學以來 勤勤孜孜 十三 做詩文讀書經 二十餘歲 遂成大儒 壬寅 叅公州式年初試 乙巳 叅漢城初試 乙卯 叅庭試初試 數奇運否 竟未解大小會試 然 少無恨歎而六十餘載 手不釋卷 遠近學徒堂不能容 教之不倦 勤可知也 見人之善行 擊節歎賞 聞人之不美 掩耳咨嗟 信朋友 愼言語 平生 不言官政之得失 不論時人之長短則地主稱以鄕祠之才 鄕人云以道薦之望 日後士議 未知如何也 公 年六十有四 以終天年 嗚呼惜哉 (公之事蹟載于定山誌)

◇

(2) 유 사

① 송은당사적(휘 적) 장군공후

윤적의 아호는 송은당이며 벼슬은 직장이었다。개성서윤 벼슬을 한 윤거정의 셋째 아들이며 은청광록대부 참지정사공 휘 송제의 후손이다。당시에 단종이 왕위를 손위하자 벼슬에 뜻이 없어 서울에서 보은군 수한면 장선리로 이사와 살았으니 이 분이 낙향한 최초의 할아버지가 된다。

① 松隱堂事蹟(諱 跡) 將軍公后

尹跡 號 松隱堂 官 直長 開城庶尹居正 第三子 銀青光祿大夫僉知政事公諱松磾 后 時値端宗遜位 無意公車 自京師 始移居于報恩郡水汗面長善里 是爲落鄕初祖也

◇

② 관북일기약초(휘 탁연) 대언공후

만력 20년(1592년) 선조대왕 임진년 4월25일 갑인일에 왕자를 시위하고 있는 관청에 앉아 있으니 이때는 왜군이 침입하여 국가가 매우 위급하므로 임해군이 갑산으로 피난하려는 때이다。경성시위도검찰사는 한성부원군 이양원이요 부사로 선임된 사람은 바로 공이다。종사관은 사옹정 유영순과 호조정랑 이경함 이외로 세사람이며 군관에는 전부사 김호탐과 전현감 신응사 이외로 27인이며 좌상군은 대장 변언수이며 종사관은 이현철 이외로 4인이며 중상군은 대장 신각이며 우상군은 대장 이전과 종사관은 이공좌 이외로 4인이었다。

4월26일 훈련원에 앉아 장계를 올려 말하기를 이렇게 국세가 급급한 때를 당하여 민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데 요즘 사대부 집안에서는 혹은 자기들 재산을 땅속에 묻고 혹은 처자들을 이사시키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까지 파도같이 쏠려 과반이 텅비어 있으니 청컨대 빨리 죽더라도 떠나지 말라는 교시를 내리시어 무너진 민심을 진정시켜 주시고 몰래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목을 베어 걸어놓아 경계토록 하시고 도피하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으니 청컨대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감사들에게 교서를 내리시어 각 역마다 도로에서 검문을 하고 또 군수들을 시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을 찾아내어 중죄를 다스리고 집안에 장성한 사람은 적발하여 군에 종사하게 하소서。답서에 말하기를 장계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리라 하였다。

4월29일은 훈련원에 앉아 있으니 교서에 말하기를 서울에 머물러 있는 신하중에 누가 왕자를 모시고 나가겠는가? 대신들은 회답서에 말하기를 윤탁연과 한준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곳의 대신들은 곧 결재를 올렸는데 전갈에 말하기를 임해군은 윤탁연과 김귀영이 모시고 순화군은 정탁과 한준이 모시고 떠나라 하니 정탁이 장계에 말하기를 이개는 나이가 비록 노쇠하지만 충성과 믿음이 가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전갈에 말하기를 장계대로 의거 하리라 하였다。공도 장계를 올려 소신도 역시 군관의 일인으로 따라가기를 청하겠다고 하였다。전갈에 말하기를 장계문대로 둘다 의거할 것이며 부장인 이경진도 대동하고 가라고 하였다。

4월30일 기미일에는 양천 연정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이 날 명을 받고 곧 출발하려는데 왕자 임해군이 내

해중사로부터 합문밖으로 나와 말하기를 누가 영부사이며 누가 칠계군이냐고 하여 열사람이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김귀영이고 이 사람이 윤탁연 이라고 하고 관문으로 모시고 나올 때 공이 합문 밖에 엎드려서 판단할 바를 알수가 없다며 목 놓아 슬피우니 사람들이 중지시키어 물러섰다。인정문 밖에 이르러 차마 나가지를 못하고 북쪽으로 향하여 네번 절하고 물러섰다。중간은 생략하겠다。

임진년(1592년) 5월1일 경신일에는 포천에서 유숙하였다。이날 아침에 목사 김복경이 나왔거늘 그의 어머니 안부를 물으니 지난 밤에도 두번이나 기절하여 회생을 얻기가 어려워 오늘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자기도 역시 이 행차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여 나는 말하기를 지방을 맡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머니 병이 위중하여 멀리 떨어질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소 어떻게 하면 되겠소? 대저 민심이 이미 떠나 수습하기 어렵다고 하거늘 나는 말하기를 민심을 진정할 책임은 모두가 군수에게 있거늘 어찌하여 이런 말까지 하는고? 죽음으로 지키라고 권면하고 헤어졌다。중간은 생략한다。

5월3일 임술일에 송동에서 유숙을 하고 때마침 옥성을 지나 금화현 오리라는 곳에 이르니 금성 진목역이라는 곳이 있어 공문이 와 있는데 어제는 금성 현령인 정사호의 처자들이 춘천에 있는데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왜적들이 어제는 춘천을 함락시키고 오늘 아침은 당장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이곳 감사도 달아나 피하고 있다고 하였다。왕자가 크게 놀라 결국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워 이때부터 서쪽 기성으로 향하게 되거늘 공은 말하기를 이미 북쪽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어서 이 길로 가기는 곤란할듯 하오니 이 골만 나가면 송동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철령으로 갈 수가 있으나 단지 길이 험악하여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여러분들이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다。

5일은 철령을 넘었는데 왕자가 말하기를 대개 민심이 크게 놀래어 동요하고 양주의 거리에서부터 백성이 이산하고 있으나 별일이 없을 것 같으니 잘 진정시키면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중간은 생략한다。

10월7일 계사일에 별해보에 있었는데 이날 아침에 김당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와 관속들을 점검하여 보니 모두가 건장한 군인들 이라서 기뻤다。함흥사는 이득이란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 됨됨을 보니 단지 용맹스럽고 건장할 뿐이 아니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 지혜가 있는듯 하였으며 또 거짓말 하거나 겁내는 병폐는 없는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는 혼자서도 왜적 수십명의 목을 벨 수가 있는데 우리편 사람들이 적군에게 알리는게 두려워서 그러한 폐단있어 못하고 있

다며 많은 군대가 진지로 나가고 있다면 어찌하여 사살하기가 어려울소냐? 자신의 뜻은 여러 읍에 군인을 규합하여 대거에 일소하는게 좋겠다고 하였다。나는 말하기를 대군을 모으기는 쉽지 아니하며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거든 적군이 적게있는 곳부터 거사하면 노력은 적게 들고 성공하기는 쉬울 것이라 하였다。중간은 생략한다。

10월9일 아침에는 대장인 북병사 성윤문과 좌위장 갑산부사 전봉과 중위장 경성판관 손수헌과 우위장 전첨사 이응원이 군대를 출동시키고 나는 남문수루에 올라 전송을 하였다。

11월22일 한밤중에 하사한 좋은 가죽옷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며 길주의 승전보와 단천에서 포획한 왜군 편지 23장과 전백옥 원치등이 베어 온 왼쪽 귀 19개와 함경도 적군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과 관청사항을 밀봉하여 올렸다。중간은 생략한다。

7월8일은 주부인 한경기가 성윤문 군관과 남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말하기를 의주 행궁에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함경도에 있는 적군이 가장 먼저 도망치고 있는것은 공께서 만일 살펴보고 대응책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면 적군들의 피로가 회복되었을 것이니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겠는가? 라고들 하니 북도의 정예병들이 돌아와 모두들 춤을 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가 순찰사께서 장계를 올린 덕이라 하였다。답서에 말하기를 오로지 내 뜻이 아니고 순비사들이 북변의 상황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의하여 장계를 올린 것인데 나의 덕이라고 칭찬하면 그릇된 말이라 하였다。주서에 계속된다。

칠계군 부군의 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기록은 할 수가 없으니 후일 부군의 세계를 알고저 하는 사람들은 문집 두 권이 세상에 나와 있어 거기에 사실이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며 나라를 위한 충절과 국민을 아끼며 정치한 것과 자식을 가르친 가정교육은 반드시 후손의 귀감이 되겠기에 그래서 불초한 순원이 외람되게 졸필을 잡고 원문을 생략하여 기재하였다。

② 關北日記略抄(諱 卓然) 代言公后

萬曆二十年 宣廟壬辰 四月二十五日甲寅 坐羽林衛廳 時則倭兵 侵入 國家甚危故 臨海君 避亂于甲山之際 京城侍衛都檢察使漢城府院君李陽元 副使選任 即公也 從事官則司饔正柳永詢 戶曹正郎李慶涵外三人 軍官則前府使金好忱 前縣監申應泗外二十七人 左廂 大將邊彦琇 從事官李賢哲外四人 中廂 大將申恪 右廂 大將李戩 從事官李公佐外四人 四月二十六日 坐訓鍊院 啓曰當此國勢汲汲之時 鎭定人心 最爲上策而近至士大夫家或埋其財產 或徙其妻子 小民 靡然奔波 過半空虛 請亟下效死勿去之敎 以鎭

垂潰之人心 潜避出城者 斬頭梟示 逃避之人 不可不及時
收還 請下書于京畿江原黃海監司 各驛 譏察道路 且使守
令 捜出自京來接者 從重治罪 家長 摘發從軍 答曰並依啓
云 四月二十九日 坐訓鍊院有敎曰留都宰臣中何人 可陪王
子而出耶 大臣 回啓曰尹卓然 韓準 可堪而地大臣則請上
裁之 傳曰臨海君則尹卓然金貴榮 順和君則鄭琢韓準 陪去
鄭琢 啓曰李檃 年雖衰老而忠信可堪 傳曰依啓 公之啓曰
小臣 亦請軍官一人帶去 傳曰並依啓 部將李景震帶去事
四月三十日己未 宿楊川蓮亭 是日 承命將出 王子臨海君
自內偕中史出來閤門外曰誰是領府事 誰是漆溪耶 五兩人
進曰某是金貴榮 某是尹卓然云而仍陪出官門 公 俯伏閤門
之外 不知所裁 放聲痛哭 爲人所止而退 到仁政門外 不忍
出來 北向四拜而退 中略 壬辰五月初一日庚申 宿抱川 是
日朝 牧使金福慶 出見 問其母夫人氣候則去夜再度氣絶
艱得甦醒 今日陪移他處 吾亦從此棄去云 予曰守城之人
何能自任耶 答曰老母病重 不可遠離 如何如何 大抵人心
已離 難以收拾云 予曰鎭定人心之責 都在守令 何以發此
言耶 勉以死守而別 中略 五月初三日壬戌 宿松洞 時則過
玉城 到金化縣五里地 有金城眞木驛 公文來到 昨日金城
縣令鄭賜湖 奴子在春川者 來報曰倭賊 昨陷春川 今明當
來 此監司亦走避云 王子大驚 決難仍進前路 當自此西向
箕城 公 曰既有北向之命 似難因此道 出此洞則有松洞路
可達鉄嶺 只路險難行 僉位議定 初五日 踰嶺 王子曰大檃

人心 驚動 自楊州一路 人民散亂 若不別樣 宣諭則前頭之
事 極爲可慮 中略 十月初七日癸巳 在別害堡 是日朝 金
鐺所領軍士及官屬 點考 皆是壯軍 可喜 咸興居李得 來詣
見其爲人則非但勇健 聞其言則似有智慮 且無虛誕恇怯之
病 其言曰吾以單身 亦可斬賊倭數十 第恐我人 告訴於賊
中故 未果 大軍出陣則何難勦殺耶 吾意則合諸邑之軍 大
擧一掃可也 余曰大軍 未易聚而日氣漸寒 自賊小處先擧則
用力小而成功易也云 中略 十月初九日朝 大將北兵使成允
文 左衛將甲山府使田鳳 中衛將鏡城判官孫守憲 右衛將前
僉使李應元 出師 余登南門樓送之云 十一月二十二日三更
受恩賜羊裘 謝箋封進 吉州捷報端川所捉倭書二十三帳 全
伯玉元墀等獻馘十九 咸賊向南 官事書狀 封進 中略 七月
初八日 主簿韓景琦以成允文軍官 南出而還曰行朝之人 皆
曰咸鏡之賊 最先遁去 若非巡察十分策應 使賊疲於自救則
何能致此云 北道精兵之還入者皆蹈舞而言曰此乃巡察使
狀啓之德也 答曰非但吾意 巡備使目睹北邊之事故 同議狀
啓 稱吾德 誤也 續朱書
府君之遺文所載 不可盡記 後有欲知府君之世者 文集二卷
行于世 詳悉其實 爲國忠節 愛民治政 教子庭訓 必爲後孫
之龜鑑故 不肖順遠 猥秉拙筆 略抄而記

③ 다계공창의록(휘 승보) 충효공후

국가의 변경에 도적떼가 있어 국민이 곤경에 빠지게 되면 옛날부터 충신과 의사들이 충절을 뽐내며 칼날을 무릅쓰고 종묘 사직이 어지러운 때를 보호하고 국민을 물과 불 속에서 구제하여 그 공명의 명예를 만세까지 드리우나니 이것이 모두가 대장부의 일이다。아 우리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었다。생각을 하여보면 임진년(1592년) 4월13일에 왜구들이 제일 먼저 전함을 띄워 부산 동래로 갑자기 이르렀으며 또 수만척의 배를 타고 일시에 육지로 진입하여 해변가 여러고을을 침범하여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포탄 연기가 하늘을 가리었다。

거제도 사람인 칠원윤씨 휘 승보라는 사람이 칼을 집고 의병을 일으키어 마을에서 일어나 고현성 중으로 들어가 거제군수인 김준민과 더불어 협의하여 성을 지키어 안전지역으로 만들었다。그런데 군수가 당시의 경상도 관찰사와 매우 친한 사이인데 군대를 일으키어 자기 진영으로 달려와 협력하고 몸을 보호해 달라는 편지가 도래하자 군대를 떠나보낸 뒤에 의사공 승보는 경내의 장정들과 더불어 성을 지키며 적군을 방어하였다。동년 5월12일에는 적군들이 순풍에 돛 달고 배를 달려 장수포와 옥포와 지세포로 침입하여 국민을 잔학하게 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여 여러 포구가 불에 타고 관청이 모두 불에 타고 주민이 사는 마을은 대포 소리가 하늘을 흔들고 창과 칼이 해를 가리었다。공은 장정들을 모집하고 뛰어난 인재를 모집하여 밤을 틈타 적진을 습격하여 죽인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또 활을 만드는 장인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모아 날마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 적군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삼고 또 무장한 군인을 잠복시키어 몰래 적의 우두머리가 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밤 사이에 왜군을 무수히 살해하였다。또 적군을 몰아내어 그들의 활과 화살을 빼앗아 날마다 유용하게 사용하였으며 생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 적군을 토벌한 공로가 많았다。

공의 장자인 휘 영상은 일찌기 볼 일이 있어 전주에 갔다가 왜적들이 남해와 사천에 침입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모의하여 장정들을 모아 적병을 쫓아내고 바다를 건너 본진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군막하로 찾아가 뵈옵고 상의하여 성을 안전하게 할 계획과 국민을 살려 낼 계획을 세워 아우인 홍량과 김희진과 신응수 두 장사와 더불어 활과 칼로 적군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제할 계략을 세웠다。

아 적의 우두머리가 고지로 올라가 화살을 쏘고 불을 질러 관청과 시골마을이 모두 불에 타며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다。첨정공이 죽음에 임하여 지은 시가 있으

그 시에 말하기를 마음속에는 해와 달이 분명하고 눈밑에는 강산이 우는구나。칼을 치는 끝없는 한은 오랑캐 난을 씻어내지 못하는 것일세 하였다。공의 큰 아들이 눈물로 시신을 거두어 온 후에 신씨와 김씨 두사람 장사와 더불어 빨리 달려나가 적진을 피하여 남려산 굴속에 숨어 낮에는 자취를 감추고 밤이면 내려가 적군을 엿보고 있는데 어느날 밤에 적군이 주인없는 소를 몰래 잡고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지자 공은 아우와 두사람 장사들과 더불어 적군의 진중으로 달려갔는데 때마침 적군의 진지는 하청의 옛 장터에 주둔하고 있어 바로 솥 뚜껑에 숯불을 담아 적군속에 뿌리니 불과 재티에 헤매게 되고 놀래어 공포에 떨고 잠결에 당황하고 있어 자신들이 차고 있던 칼을 휘둘러 죽인 자들이 많으며 불길속으로 도망가다가 서로 죽이게 되었다。그놈들의 쌀과 고기를 빼았아 배를 채우고 또 공과 세 사람들은 함께 적진 중으로 들어가자 한 왜병이 창을 들어 공을 향하여 던져 공이 발등에 맞아 약간의 상처가 났는데 신장사가 활을 쏘아 사살하고 그놈의 칼을 빼았아 온 것이 지금도 신씨들 집안에 있다고 한다。공은 전후에 걸쳐 목을 베고 노획을 한 것을 아우 홍량을 시키어 충무공에게 바치니 충무공이 크게 칭찬하며 상품을 주도록 왕에게 알려 임금은 그 공로를 포상하고 특별히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훈련원첨정 벼슬을 하사하였다。충무공이 공을 자기 휘하로 불러 세상을 구제할 위급책을 논의하려고 달밤에 배를 용호포에 띄워놓고 술을 일순배하고 충무공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고 있네。이 풍진에 칼 휘둘러 나라를 돕고 위급한 시기를 구제하리라 하니 공이 화답으로 지은 시에 말하기를 남려산 굴속에 깊은 의도를 세상은 알지 못하리라。칼 휘둘러 많은 적군을 죽여서 맹세코 태평시대를 보리라 하였고 신 장사는 시에 말하기를 외로운 성 풍우속에 하늘의 해는 마음을 밝게 알리라 하니 충무공이 감탄을 그치지 아니하고 공을 거제로 보내어 흩어져 있는 왜군의 침범을 방어하도록 하였다。얼마 후 충무공이 전사하자 마침내 공을 포상하는 말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장이 불행을 만났기 때문이다。

계사년(1593년) 2월22일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공은 세 장수와 더불어 덤벼드는 적군을 죽이려 하였는데 적군 추장이 회피하고 경내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다。무술년(1598년) 12월13일에는 왜군들이 패망하여 그들 나라로 돌아갔다。

대저 공의 뛰어난 용맹은 장부중에 으뜸이며 온 나라가 힘입어 그 공로가 만 사람의 칭찬을 받았지만 명성은 구중으로 가리워 후세에 뜻있는 남아들로 하여금 손목을 잡고 울도록 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할소냐?

한 집안 내에 세 부자가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어 위험을 평정시키고 세상을 구제하여 관직이 도호사가 된 것은 모두가 공의 훈로에 힘 입어 세 장사까지 공이 빛나게 되었다。 저 남려산을 바라보니 바위돌만 높고 높도다。 공의 의리와 충성을 흠모하니 그 덕업이 엄연하도다。 다공천 내려다 보면 그 물결 넓고 넓으며 공의 혜택을 상상하니 가슴속에 은혜가 용솟음 치네。

③ 茶溪公倡義錄(諱 承輔) 忠孝公后

國有邊寇而民 陷塗炭則自古 忠臣義士 奮素節冒白刃 保宗社於板蕩之際 拯生民於水火之中而功銘 名垂萬世 此皆大丈夫之事也 噫 惟我東方 國運不幸 生靈有厄 粤在壬辰四月十三日 倭寇 先泛四柵 猝至釜山東萊而又數萬船一時 並進下陸 侵犯沿邊各邑 血流塗地 烟火蔽天 巨濟縣人漆原尹氏諱承輔甫 杖劍倡義 起於閭閻 入於古縣城中與本倅金俊民 同議守城 以爲保障之地而當時 道伯金倅至親也 起軍赴營 以爲協力保身之文字 來到故 行軍發後義士公 與境內丁壯 守城禦賊矣 同年五月十二日 賊虜 順風掛帆驟船 入于長承浦玉浦知世浦 殘虐生民 殺戮無數 焚蕩各浦 官舍燒盡 村民閭落 放砲之聲掀天 戈刃之影 蔽日 公 發募丁壯 招集豪俊 乘夜襲擊賊陣 死者甚衆 亦聚弓匠矢人 日造弓矢 以爲禦賊之方 又埋伏甲卒 潛待賊酋之過路 一夜之間 殺倭無數 且驅逐賊兵 奪其弓矢 每爲要用而不愛死生 挺身討捕之功 衆多矣 公之長子諱榮祥甫曾以有事 往于全州 聞倭寇犯於南海泗川 謀聚丁壯 逐散賊兵 渡海入于本陣 謁見父幕之下而共議以全城之計 救活衆民策 與其弟諱興良 及金希璡 辛應壽兩壯士 弓劍以爲滅賊濟世之略 嗚呼 賊酋 登高 發箭放火 焚盡官舍及村落城遂陷矣 僉正公 臨死 有詩曰心中明日月 眼底泣山河 擊劍無窮恨 虜塵未洗波 長胤公 裹淚收屍後 與辛金兩壯士飛走避賊 隱於南呂山巖穴中 晝則藏跡 夜下覘賊 一夜 賊酋 盗殺無主之牛 多置餘酒而醉臥濃睡 公 與弟及兩壯士飛行賊中 時 賊陣 屯於河淸舊場基也 乃以鼎冠 盛其炭火播于軍中 火灰迷爛 賊虜驚怖 睡魂倘悅 自引佩刀而死者亦多 熱身投火 走者相殄矣 奪其米肉以充腸 又公及三人共赴賊陣 欲爲劫奪而一倭 擧飛叉而逐公擲之 中公之履後小傷足趾 辛壯士 彎弓射殺 奪其劍而今在辛氏家焉 公 前後斬獲首級 使其弟興良 獻于忠武公 忠武公 大加稱賞 奏功 天門 上 褒其功美 特賜父與兄弟訓鍊院僉正 忠武公召公幕下 共議濟世之危 月夜 泛舟龍湖 酒一行 忠武公詠曰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風塵揮一劍 輔國濟危時 公和曰南呂山巖裏 深圖世不知 揮刀多殺賊 誓見太平時 辛壯士曰孤城風雨裡 天日照心知 忠武公 稱嘆不已 送公本邑 以禦散倭之侵凌矣 未久 忠武公 遇害賊鋒 終未顯言公之褒美 主將之遭不幸也 癸巳二月二十日 陷晋州城而公與三壯士 逐殺來賊 虜酋 避不入境也 戊戌十二月十三日

倭虜 敗沒 歸于渠國矣 盖公之英武 冠於百夫而賴全一境 功稱萬口 名昧九重 使後世有志男兒 扼腕嗚悒 豈不惜哉 一門之內 三父子 當亂倡義 平危濟世而昇爲府號都護使 皆賴公之勳耀而三壯士之著烈也 瞻彼南呂 維石巖巖 欽公義烈 其德儼儼 俯視茶川 波流瀁瀁 想公之澤 恩洽洸洸

◇

④ 장령공사적(휘 빙삼) 충효공후

공의 휘는 빙삼이요 자는 여임이다。 공의 효성과 우애는 천부적으로 타고나 여덟살에 어머니 상을 만나 울부짖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것이 성장한 사람과 같은 것이 있었으며 3년간 항상 묘소곁에 있으며 온종일 울고 있었다。 계모를 섬기면서도 능히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 봉양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살피며 정성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버지 병세가 위독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넙적다리살을 베어내 약을 지어 드렸다。 그것 때문에 회생하여 5년간을 연명하니 사람들은 모두들 이르기를 어버이 병에 손가락을 자른 사람은 간혹 있지만 이 사람같이 넙적다리살을 베어 아버지 명을 살린 것은 사실상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 하였다。 아버지 초상일에는 슬픔이 간절하였으며 상기가 끝나기 전에는 일찌기 웃지를 아니하였으며 여막에 살며 죽만 마시고 채소와 장까지 먹지 아니하였다。 계모를 섬기는 것도 특히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보다 독실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였으며 병세가 위중한 날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나이도 칠십세이었는데 늙었다고 자처하지 아니하고 의복도 벗지 아니하고 늘상 곁에서 모시고 있으며 근심이 표정으로 나타났으며 상을 당한 후에는 슬픔이 예절에 지나치었다。 때마침 날씨가 추웠지만 늘상 빈소 곁에 살아서 병이 되어 마침내 여막에서 졸하였으니 효성을 하늘에서 내지 아니하였다면 진실로 이와같이 하였겠는가?

군내의 많은 선비들이 모두 소원하는 것을 임금께서 듣고 포상하고 선양하였는데 살아있다면 양보하고 겸손하여 소문내고져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못하고 있었다。 죽은 후 을해년에 이르러서야 순무어사인 송광연이 충청도를 순행하다가 실행을 상세히 모아서 곧바로 장계를 올렸는데 정려문을 세우도록 특별히 하명하였으며 임진년에는 판서인 이돈과 참판인 이건명과 참의인 이대성과 승지인 김덕기 같은 여러 신하들이 경연 자리에서 건의하여 장령이란 벼슬을 추증받았다。

공의 사적은 청양군지에 기재되어 있다。

④ 掌令公事蹟(諱 聘三) 忠孝公后

公諱 聘三 字 汝任 公 孝友之性 出於天賦 八歲 遭母喪

攀號踊擗 有如成長之人 三年之內 恒在墓側 呼泣終日 逮事繼慈 克盡誠敬 甘旨之養 定省之勤 虔虔不匱 及當父病之危毒 割股和藥 因以回甦 得延五年 人皆謂親病斷指 間或有之而此人之割股和藥 以活父命 實由至孝之感天也 父喪之日 哀毁切至 終制之前 未嘗見齒 居廬啜粥 不食菜醬 事繼母 尤篤於父在之時 竭力盡誠 至病重之日 其年 七十而不以衰老 自處 不脫衣服 長侍病側 憂形於色 遭變之後 哀毁過制 時 當天寒 常處殯側 因以成疾 竟死廬所 非誠孝出天 固如是乎 一境多士 咸願上聞褒揚而生前則謙退自遜 不欲聞名故 鄕里之人 不能强焉 捐世之後 逮至乙亥 巡撫御史宋光淵 按行本道 細探實行 即爲入啓 特 命旌閭 壬辰 判書李整 參判李健命 參議李大成 承旨金德基諸臣 建白筵中 贈掌令

公之事蹟載于靑陽郡誌

◇

⑤ 증주부공사적(휘 익) 충효공후

공의 휘는 익이요 자는 경량이며 칠원윤씨이다. 관결사공의 6대손으로 충효공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절개있고 의로운 성품을 타고나 이미 6、7세부터 엄연한 대장부 기질이 있어 늘상 국가의 위험한 때에 순국할 것을 한 몸에 지고 있었다. 이것이 대략 공이 평소에 쌓아 놓은 것 들이다. 나이 18세에 이르러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까지 역임하였는데 불행하게도 병자호란을 당하여 충청감사 정세규가 병력을 거느리고 광주 검지천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이 창칼이 드날리는 속으로 찾아가 맹세하기를 적군과 더불어 같이 살고져 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같이 죽기를 힘쓰겠다고 하였다. 공은 대체로 정세규가 충신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진지가 함락됨에 이르러 정세규가 먼저 죽자 공은 그 시체를 어루만지고 통곡하며 동시에 운명을 같이 못한게 한이라며 그 외롭게 남아있는 병사들에게 유시하여 말하기를 적군을 평정하지 못하고 아군 먼저 죽었으니 우리들은 오늘 오로지 죽음만 있을 뿐이라며 곧 혼자서 적군의 화살 속으로 돌진하여 아군에 비교해 적군을 많이 사살하였는데 이내 화살에 맞아 마침내 절개 지켜 순국하였으니 공의 나이 스물두살이었다. 그 날을 생각하여 보면 그 진지중에 몇명의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공의 나이로 공같이 충성을 바친 사람 또한 몇사람이나 있을소냐? 부인 되시는 김씨는 이 변고소식을 듣고 거의 절명하다가 다시 숨을 쉬며 말하기를 사람의 신하가 된 의리는 당연히 이와같아야 함으로 나는 진실로 이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며 전쟁터로 달려가 모래밭 풀숲 속에서 시체를 찾았는데 백골들이 수북하게 쌓여 판명이 불가능하여 마침내 초혼을 하여다가 정산 동면 가야산에 장례

를 하였으니 진실로 이런 남편이 있기에 이런 아내가 있었다고 이를수 있다。

공이 졸한 후일에 숙종대왕 조정에서 특별히 통훈대부로 증직을 내리고 영조대왕 기유년(1789년)에 비로소 정려문을 세우게 되었다。그밖에 자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전쟁에서 사망한 유적들은 그간 화재로 소실되어 마침내 조상을 그리는 절개로 하여금 문헌이 없어 증거없는 아쉬움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가히 애석함을 참을소냐? 삼가 그 대략만 거두어 이와같이 썼을 뿐이다。

(공의 사적은 정산읍지에 기재되어 있다)

순조 을축년(1805년) 10월 일

일가 후손 성균관진사 심의는 삼가짓다

⑤ 贈主簿公事蹟(諱 翊) 忠孝公后

公諱翊字景亮 漆原之尹 以判决事公六代孫 生於忠孝之家 禀其節義之性 己自髫髿 凜然 有烈丈夫志氣 常以殉國家之急 擔着于身 此 盖公素所畜積者 然矣 年至十八 登武科 歷訓鍊院主簿 不幸當丙子之亂 忠淸監司鄭世規領兵至廣州儉之川 公 徃從於干戈搶攘之中 誓不欲與賊俱生 與之戮力 勉以同死 公 盖知世規之爲忠也 及其陣陷 世規先死 公 撫尸痛哭 恨不得同時幷命 仍諭其子遺將士曰大賊未平 元戎先喪 吾輩 今日 只有死耳 遂以匹馬 直挑於亂兵簇立中 斯殺過當 乃爲流失所中 竟殉於節 公之時年 二十有二矣 試看當日 域中 曾不知有幾箇義士而公之年 辦公之烈者 亦豈有幾人哉 夫人金氏 聞變 幾絶 而復吹曰人臣之義 當如是矣 吾 固知斯人之必不生還也 奔徃戰所 求尸於荒沙野草之間而白骨堆積 無可辨明 遂招魂葬於定山東面加也山 眞可謂有是夫 有是婦矣 公歿後 肅廟 特贈通訓大夫 英廟己酉 始 旌其閭 他餘戰亡事蹟之藏守於子孫家者 間爲回祿所灾 遂使巡遠之大節 不免杞宋之文獻 可勝惜哉 謹撮其略 如右云爾

(公之事蹟載于定山誌)

純祖乙丑 十月 日

族后孫 成均進士 心誼 謹撰

◇

⑥ 증좌랑공사적(휘 광은) 충효공후

공의 휘는 광은이요 자는 신보이다。주부공은 바로 아버지가 된다。공은 출생하여 겨우 세살에 주부공이 경기도광주에서 순절하여 공은 오직 어머니만 의존하였고 성장하여서는 아버지가 비명에 죽은 것을 애통하게 여기어 날마다 슬피우는 것으로 일과를 하고 화려한 의복은 입지를 아니하고 즐겁게 놀지 아니하였다。어머니의 뜻이 상할까 두려워 슬퍼하는 모습을 일찌기 밖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 상을 당하여는 슬퍼하는

것이 예법에 지나칠 지경이며 복제가 끝나고도 아버지
상복을 추모하여 입으며 죄인으로 자처하여 친구간의
교류를 끊었으며 미음을 3년간 마시며 초상기와 같이
하였으며 매년 12월 제사일이 되면 직접 전쟁터로 가서
술 석잔을 올려 슬픈 감정을 펼치니 사람들은 공의 마
음속으로 슬퍼하는 것과 얼굴 표정의 수척한 것을 보고
아버지는 국가에 충성하고 자식은 어버이에게 효도한다
고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가히 집안에 전승되는 충
성과 효도라고 이를 수 있으며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면 또 혀를 차며 감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말하자면 만고에 오륜 삼강이 한 가문에 모여있는 것이
라 하였다。숙종대왕 조정에서 특별히 공조좌랑으로 추
증하였고 영조대왕 기유년(1789년)에 주부공과 함
께 동시에 정려문을 받았다。(공의 사적은 정산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순조 을축년(1805년)에

일가 후손 성균진사 심의는 삼가 짓다

⑥ 贈佐郎公事蹟(諱 光殷) 忠孝公后

公諱光殷 字 華甫 主簿公 寔公之考 公 生甫三歲 主簿
公 殉節於廣州 公 惟母夫人是依 及長 痛父非命 日事哀
號 不服華麗 不事嬉遊 恐傷母夫人之意 悲慽之容 未嘗形
於外 逮當母喪 哀毁踰禮 及其制闋 追服父喪 自處以罪人
息交絶遊 饘粥三年 一如初喪時 每歲臘月諱日 躬往戰所
三盃椒酒 以展哀感之誠 人之見公 情事之慽 容色之癯者
莫不曰父忠於君 子孝於親 可謂傳家之忠孝矣 其聞者 亦
莫不嘖嘖稱服曰萬古綱常 萃在一門矣 肅廟 特贈工曹佐郎
英廟己酉 並與主簿公同時 旌閭

(公之事蹟 載于定山誌)

十月 日

族後孫 成均進士 心誼 謹撰

◇

⑦ 석봉공사적(휘 제형) 충효공후

공의 휘는 제형이요 자는 평숙이며 아호는 석봉이다。
후재 김간 선생이 묘비명문을 지으며 말하기를 공은 타
고난 자태가 아름답고 체격이 커서 사람들이 바라만 보
고도 군자가 됨을 알수있다。천성적으로 지극한 효자로
어버이 섬김에 순한 표정과 예쁜 모습으로 능히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따뜻하고 서늘하게 모시는 절차와
아침 저녁 문안인사와 맛있는 음식공양에 이르러 모두
봉양의 방법을 얻었으며 어버이 병환이 위급한 때에 당
하여는 변도 살펴보고 손가락 피도 흘려 다시 소생을
얻어 마을에서는 감탄하여 꼭 효자 윤모씨라고 호칭하
였다。그는 부모의 임종시에는 국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막이 젖도록 3년간 울고 가슴을 치며 초상시의 처음

과 같이 하였으며 특히 제례를 근신하여 제사일에는 반드시 살아계시는 듯한 성의를 다하였다。아우와 더불어 우애가 돈독하여 밥을 같이 먹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잠을 자다가 분가할 때에 이르러서는 논밭 같은 것은 자신은 척박한 것을 갖고 골라서 비옥한 것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부모들이 일찌기 아끼던 바라 하였으니 이것은 설맹상의 일과 더불어 누가 높고 낮은지 알 수가 없다。

어렸을 때에 마을에서 사기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어 공은 늘상 스승으로 예우하여 섬기었는데 그 스승이 죽어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워 그 은혜를 표시하였다。일찌기 임금의 초상을 만나 울면서 소복을 입고 몇일간 있으니 사람들이 혹 물어 말하기를 자네 나이도 늙었고 또 서생이란 관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러는가? 공은 말하기를 내가 편안히 살며 배고플때 먹고 추울때 옷을 입는 것은 그 누가 준 것이요 속이 상하는 아픔이 어찌하여 늙고 젊고 가난하고 부자의 간격이 있으리오 하여 물어본 사람이 감복하였다。

아 공은 하늘이 낳은 효자로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살아서는 그 편안을 이루고 봉양에는 그 즐거움을 이루고 제사에는 그 공경을 이루고 초상시에는 슬픔을 이루었다。아우에게 우애하고 스승에게 융성하게 하고 일가와 친척에게 화목하고 벗들에게 믿게한 것은 모두가 천성적으로 근원이 된 것이요 억지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평생토록 남들의 장단점 말하지 아니하고 당시 정치의 득실은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며 남의 착한 것을 보면 표창하여 나타내고 남의 착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알려서 가르치대 가르쳐도 고치지 아니한 연후에 절교를 하였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사람들이 식량을 보지 못하였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반드시 힘을 다하여 구제하였으며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여 조용한 곳에 단체를 결성하여 날마다 강의하고 연구하였다。이때부터 배운 것이 더욱 진보되었으며 조예가 더욱 깊어져 멀고 가까운 곳에서 배우러 오는 선비가 더욱 많아졌다。일찌기 자손들을 훈계하는 글을 지어 좌석의 우측에 걸어놓았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되는 것은 그 오륜이 있기 때문이니 오륜이라고 말하는 도리를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으랴? 또 말하기를 내 몸을 닦고 행동가짐의 도리를 알고져 하려면 회암 주자선생이 지은 소학 책을 늘상 눈으로 보고 죽을때까지 근신하고 후일까지 추모하는 예절을 알고져 하면 사계 김선생이 지은 상례비요란 책을 때때로 펴놓고 읽어 사람의 도리를 하면 가까워지질 것이다。이렇게 된 것이 대략 6·7조항되는데 모두가 당시에 법이 되었으며 후세에 교훈으로 드리웠

으니 이것을 보면 역시 가히 공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명문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백가지 행동이 있는데 효도가 근원이 된다네。 오직 공은 유일하게 효도하여 무리에 뛰어나고 대중과 다르지요 늙어 서당을 지어 많은 선비들이 달려 왔다네。 경계문을 지어 내려놓았으니 저술한 책이 있지요。 저 은산을 바라보니 이곳이 공의 묘소라네。 돌에 새겨 사실을 기록하여 무궁토록 소상하게 보여주리라。

⑦ 石峯公事蹟(諱 齊衡) 忠孝公后

公諱齊衡 字平叔 號石峯 厚齋金先生幹 撰墓銘 曰公天姿粹美 器宇宏厚 人望之 知其爲君子人也 性至孝 事其親 愉色婉容 克盡誠敬 至於溫凊之節 定省之禮 滫瀡之供 皆得就養之方 當親疾之危也 甞糞血指 得以再蘇 鄕里感歎 必稱孝子尹某 迨其屬纊 水醬亦廢 苫塊俱濕 三年哭擗 一如祖括之初 尤謹於祭禮 省牲之日 必致其如在之誠焉 與一弟 友愛篤至 聯床而食 同衾而臥 及其析資也 如土地之類 自取其荒瘠 擇而給其肥沃者曰是 吾父母 所甞愛者 未知此 與薛孟甞事 孰爲軒輊也 少時 有鄕中受史師公 常以師禮 事之 其歿也 爲之竪石于墓前 以表其恩 甞遭國恤 哭而素者累日 人 或問曰子年 老矣 又書生 與朝士有異 何乃爾也 公 曰我之安居 飢食寒衣者 是誰之賜 如喪之痛 豈以老少窮達 有間 問者服焉 於戲 公 以出天之孝 盡事親之道 居則致其安 養則致其樂 祭則致其敬 喪則致其哀 以至友於弟 隆於師 睦於親黨 信於朋友 皆根於天性 非勉强之得也 平生 不論人物長短 不記時政得失 見人之善 褒而獎之 見人之不善 諭而敎之 敎而不改然後 絶之 家甚貧 人無見糧而遇寒餓者 必竭力以濟之 好學之心 老而彌篤 結社靜地 日事講究 自是 所學益進 所造益深 遠近從學之士 益多矣 甞著戒子孫書 揭諸坐右曰 人之爲人 以其有五常 所謂五常之道 非學問 何由知之 又曰欲知修身操行之道 晦菴朱夫子小學書 常常寓目 欲知愼終追遠之禮 沙溪金先生備要書 時時披覽則爲人之道 庶幾矣 如是者 蓋六七條 皆可爲法於當時 垂訓於後世 觀於此 亦可以知公之所存矣 銘 曰人有百行 孝爲之源 惟公惟孝 出類離群 晩築書室 士多趍隅 垂裕作戒 曰有著書 瞻彼恩山 寔公攸藏 鑱石記實 昭示無疆

◇

⑧ 차군헌공유사(휘 동교) 부원군후

내 고장이 낳은 영조대왕 시대에 문학과 무술을 겸비한 영걸한 동교 선생은 숙종대왕 병진년(1676년)에 복내면 유정리에서 태어났다。 공은 칠원윤씨 후손이니 칠성부원군 공의 먼 후손이며 주부 대한의 손자이다。 일찌기 도암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과 덕행이

심오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숙종대왕 34년(1708년)에 문과 과거에 급제하여 보안승예조좌랑과 장연현감을 역임하고 문겸선전관이 되었다。영조대왕 4년 무신년(1728년)에 산음현감으로 재임 중에 역적 정희량과 이인좌의 반역에 국가의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다。경남 거창에서 승승장구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여러 읍면들이 모두 빼앗기게 되어 일주일간 군복을 벗지 아니하고 성을 지키며 적군 무리를 회유시키어 반란군을 이산시켜 놓았으며 용기를 내어 전쟁하다가 성초역에서 정희량의 죄상을 선포하고 귀순하도록 회유하니 반란군대들이 흩어지게 되었다。진주에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과 합세하여 거창에 주둔한 적군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소탕시키고 조정에 역적 목을 바치는 공로를 세웠다。그래서 분무원종훈신에 기록되었으며 위원군수를 제수받고 평안도 위원군수겸위원병마첨제사까지 맡게 되었다。영조대왕 칠년에 57세로 한 평생을 운명하였다。공은 군수 임기 중에 정치를 잘하여 군민들이 숭배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위원읍에는 선정 비석이 세워져 영원히 기념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그의 업적은 정치 공적보다는 조선의 문운이 중흥하는 것에 기여한 큰 비중을 찾아볼 수 있다。성담송환기가 지은 묘갈비명과 매산 홍직필이 지은 묘지명과 이조판서 심의면이 지은 묘표문과 이조판서 김병운이 지은 문집 서문과 고산 임헌회가 지은 신도비명등의 많은 글이 남아 후세에 더욱 빛을 내고 있다。

고종황제 9년(1872년)에는 자헌대부 이조판서겸지경연의금부사지춘추관성균관사、홍문관대제학、예문관대제학오위랑총부도총관을 추증받았다。북내면 장천리에 신도비를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추모하는 뜻으로 유정리 덕암에 사당을 세워 봄과 가을로 제사를 올리는데 이조판서 서유훈과 규장각 직제학 조연흥이 축문을 지었다。공이 공부하던 덕암재는 칠원윤씨 후손들은 물론이고 마을에 살고있는 타 성씨 자제들까지 공부를 하는 도장으로 써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그의 후손들은 유정리를 비롯하여 노동、북내、장흥、서울 등에 살고있다。

보성군지를 참고하였다。

⑧ 此君軒公遺事(諱 東郊) 府院君后

英祖朝 文武兼全 英傑東郊先生 肅宗三年丙辰 福內面楡亭里 公 漆原人 漆城府院君梡 後裔 主簿大僩 孫 李陶庵門下受學 學德深奧 境地 肅宗三十四年 明經科及第 保安丞禮曹佐郞長連縣監 文兼宣傳官 英祖四年戊申 山陰縣監在任時逆敵鄭希亮 李麟佐謀反 社稷危殆 居昌 乘勝長驅沿道列邑 席捲 七晝夜 戎服守城 賊徒誨諭 亂散奮戰 省草驛 希亮 罪 宣布歸順 勸諭亂軍 晉州官軍 合勢 居昌

敵 狹攻掃蕩 朝廷 獻馘 功勳 奮武原從勳 記錄 渭原郡守 除授 平安道渭原郡守兼渭原鎭兵馬僉制使 在任 英祖七年 五十七歲 一期 殞命 公 在任時善治 郡民 崇仰 的 渭原邑 善政碑 紀念 業績 治績 李朝文運中興 寄與 比重 性潭宋煥箕 墓碣銘撰 梅山洪直弼 墓誌撰 吏判沈宜冕 墓表撰 吏判金炳雲 文集序 神道碑銘撰 鼓山任憲晦等 後世 發 高宗九年 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知春秋舘成均舘事弘文舘大提學藝文舘大提學五衛郎摠府都摠官追贈 福內面獐川里 神道碑 鄕人 追慕 楡亭里德岩 祠宇春秋 享祀 吏判徐有薰 奎章閣直提學趙然興 祝文 製述公 講學 德巖齋 尹氏後裔 勿論 鄕中子弟 修學道場 人材輩出 後孫 楡亭里 蘆洞 福內 長興

參考 寶城郡誌

◇

⑨ 검옹공사적(휘 징삼) 부원군후

공의 휘는 징삼이요 자는 이중이며 아호는 검옹이다。 태어나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서 효도와 우애의 성품은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라 하겠다。 소꼽장난 할때부터 일찌기 어버이 곁을 떠나거나 어버이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유순한 표정과 예쁜 얼굴에 자연스런 효자의 모습이 있었다。 장성하여는 입신양명의 뜻을 두고 공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공부를 하였는데 다시 세상의 경쟁을 개탄하여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어버이를 영예롭게 해주면 마침내 족히 어버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마침내 격물치지의 연구 학문에 전심하여 풀뿌리와 나물을 먹으며 유연히 자적하면서도 오직 어버이 봉양에는 일찌기 다하지 못함이 없었다。 앞 냇가에서 고기잡고 뒷산에서 나무하여 쌀 팔아다가 식량을 이어주고 또 어버이가 편안하게 여기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얼굴에 근심을 표현하지 아니하였다。

경인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므로 감히 장례예절을 넘도록 슬픔을 다하지 못하고 옛날 법제만 지키었는데 이때에 공의 나이 서른세살이었다。 때마침 아버지 병을 당하여는 곧 변까지 살펴보았으나 병이 점차 위독하여 약들이 효력이 없어 밤낮으로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대신 아프기를 소원하였으며 지성으로 기도하여 다시 회춘을 얻어 마침내 수직벼슬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미 위독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얻었고 이미 장수하여 벼슬까지 올랐으니 효성에 감동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모두들 그 벼슬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효자의 벼슬이라 하였다。 후일 천명을 다하고 죽어 가슴치며 울기를 절제없이 하다가 나무같이 말라 뼈만 서 있었으며 장례에 이르러서는 묘 밑에 여막에서 살며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성묘하는 것을 비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의 음식은 반드시 자신이 요리하였으니 대체로 3년간을 하루같이 하였다。매년 초상후의 제사에도 역시 시종을 같이 하였다。진실로 병이 심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늘상 말하기를 만일 자신이 제사지내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지내지 아니한 것과 같다는 교훈을 감히 소홀히 할소냐 하였다。

계모를 다시 모시면서 능히 정성을 다하여 맛있고 따뜻한 의식과 아침 저녁 살핌을 늙은 나이에도 게을리 아니하여 오직 지극한 성심을 생모와 같이 하였다。자수성가한 후로 아우인 동지중추공과 더불어 젊어서부터 늙을때까지 한 집안에 살며 당호 간판을 담락당이라 하였는데 지금까지 월각봉 옛 집터를 사람들은 담락동이라 이르고 있다。이 곳은 큰 도로변에서 손으로 가르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동리 노인들은 입으로 전해오고 있으니 여기에서 가히 공의 들어있는 바를 볼 수 있으나 공이 졸한지 바로 60년이 되도록 그 숨어있는 덕과 보이지 아니한 빛을 선양한 일이 없으니 그 애석한 마음 견딜 수 있겠느냐? 백세가 되도록 공정한 의논이 진실로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공같이 탁월한 행동과 지극한 효도는 확실히 연기같이 사라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글로 기록하였다。

봉조하 남원 윤정현은 짓다

⑨ 儉翁公事蹟(諱 徵三) 府院君后

公諱徵三字伊仲號儉翁 生有異質 孝友之性 出於天賦 自嬉戲時 未嘗離親側違親旨 愉色婉容 天然有孝子樣 既長 有榮養之意 留心於功名上工夫 旋又慨世之奔競 乃曰今世之榮其親 適足以忝其親 遂專意窮格之學 咬根植菜 悠悠自適而惟其養親 蓋未嘗或匱 前川而漁 後山而樵 負米而繼糧 又慮其親之不以爲安而未或形見焉 庚寅 遭內故 爲其所尊在 不敢踰制盡哀 殯喪葬祭 一遵古禮 時 公年三十三也 方侍父病日 輒嘗糞 疾漸篤 藥餌無力 晝夜號泣 仰天願代 至誠祈祝 竟得回春 終躋壽爵 夫既危而得甦 既壽而陞帙者 蓋莫非孝感所致 故 遠近 咸稱其爵曰孝子爵云 後以天年終 哭擗無節 柴毀骨立 至葬 廬于墓下 晨昏哭省 不以風雨少懈 祭奠之需 必自烹調 蓋三年 如一日矣 每値喪餘 亦如初終 苟非疾革 親自將事 常曰如不祭之訓 其敢忽諸 逮侍繼慈 亦克殫誠 甘毳之薦 晨昏之省 未嘗以年老而或怠 惟其至誠所推 自成家則與其弟同樞公 自少至老 相居一室 扁其堂曰湛樂 至于今月角峰故墟 人 謂之湛樂洞 此蓋行路之所指點 故老之所傳誦也 於此 可以見公之所蘊而公之歿 殆六十有餘年 無能闡揚其潛德幽光者 可勝惜哉 百世之公議 苟或不泯則如公之卓行至孝 固不當湮沒 玆庸表識

奉朝賀 南原 尹定鉉 撰

⑩ 3대묘전전말소기 대언공후

우리 선조중에 서승 증집의공과 생원 증참의공 양대 묘소는 (풍덕 동면 홍교리) 현주소 개풍군 홍교면 홍교리 가재울에 있고 직제학 증참판공 선조의 묘소는 또한 홍교면 오동골에 있으니 선산과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 있다。 세월이 흘러 묘소가 허물어지게 되어 옛날 임인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좌막기보란 벼슬을 하실때에 본군에 부임하시어 선영들을 성묘하면서 여러차례 주위의 일꾼을 뽑아 3대의 묘소 봉분을 개축하여 놓고 또 석물들이 쓰러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자손중에 산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춘하추동으로 제사올리게 하여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있다。 올 임진년 여름에 묘소 아래에서 사는 일가이며 진사인 유적씨가 발문을 하여 선영의 사초와 비석들이 다시 퇴락됨을 알렸다。 그래서 경구가 종조부되시는 사평공의 명을 받고 달려가 배알하고 유적씨 부자와 더불어 상의하고 협조하였으며 또 관의 힘을 빌려 그 무너진 것은 보수하고 넘어진 것은 일으켜 세워놓았다。 유적씨의 설문을 들어보니 집의공과 참의공 양대 묘소 아래에 일찌기 위토전답이 있었다고 하여서 경구는 돌아와 사평공에게 알려 곧바로 서울에 사는 여러 일가를 모아놓고 그 사실을 물으니 과연 논이 있었다。옛날 도조문서에 군사 병자(兵)로 기록한 것을 보면 36두락은 된 듯하다。 비록 이런 전답들이 과연 어느때에 소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러 종인들이 모두들 선조의 위토가 진실이라 말하고 있어서 마침내 상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칠원윤씨종회 시문이라고 제목을 정했다。 그때에 모인 일가 10여명이 모두들 말미에 서명날인 하고 그 논밭을 영원히 3대의 위토로 만들고 그 곳에 사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주어 한편으로 춘하추동 제수 자본으로 삼았고 또 묘소관리비로 하고 성묘를 하게 하였으며 그 쓰고 남는 것은 자손들이 성묘할 때에 비용의 자본으로 하기로 하였다。 기타 상세한 것은 모두가 본 권 속에 나타나 있다。

후손 경구는 삼가 기록한다。

⑩ 三代墓田顚末小記 代言公后

維我先祖署丞 贈執義公 生員 贈參議公兩代墳塋 在於豐德東面興教里(今開豐郡興教面興教里) 可潛憩谷 而直提學 贈參判先祖衣履之藏 亦在東面梧桐里 距先塋數里之近矣 星霜累換 莎草見毁故 昔在壬寅年間 我曾王考佐幕畿輔時 到本部 展掃先塋 多發傍近役丁 改築三代墳土 更竪其石物之頹仆者而子孫之居在山下者 四時芬苾 至今不替矣 今壬辰夏 楸下宗人進士維績氏 發文 以先塋莎石復頹爲論故 敬龜 承從祖司評公命 馳進展拜 仍與維績氏父子

相謀拮据 且賴官力 以之補其缺而竪其仆者 乃從維績氏獲聞 執義公 暨叅議公兩代墳域下 曾有墓水田如干云 敬龜歸告司評公則司評公 卽會在京諸宗 求問其由則果有水田舊量案 以兵字見錄者凡三十斗種落 雖未知此田 果於何時所置而諸宗人 咸以爲先祖墓位之眞的云故 遂齊議立券 名之以漆原尹氏宗會時文 其時 所會諸宗十餘人 皆署于末而以其土田 永作三代墓位土 授諸居之勤幹者 一以爲四時香火之資 亦使之禁伐灑掃之地而其贏餘 以資子孫之省掃者餱糧焉 其詳 俱見本券中云

後孫 敬龜 謹識

◇

⑪ 통덕랑공사적(휘 학령) 부원군후

공의 휘는 학령이요 자는 명구이다。기질이 조용하고 심성이 선량하여 소꿉장난 할때부터 일찌기 사람들과 더불어 비교가 되지 아니하여 보는 사람마다 군자가 나왔다고 하였다。일찌기 가정교육을 받아 능히 천부적 자질을 보전하였으며 자신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도와 남을 대하고 물체와 접하는 도리가 한결같이 본시 있는데서 나왔으며 터럭만큼도 사사로운 뜻은 그 사이에 없었던 것이다。남의 착한 것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이하고 남의 악한 것을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고 엄하였으니 이러므로 착한 것은 더욱 권장이 되고 악한 것은 조심하고 꺼려한 것이다。또 경서에 널리 통달하였는데 여러차례 과거를 보았어도 합격하지 못하여 부모를 모시고 관가를 지나게 되면 자신이 섭섭한 표정을 보였으며 늘상 화려한 복장과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의 경계를 간절히 하며 집안 살림을 하는데는 일찌기 뜻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어버이 뜻을 받드는 것이었으니 공의 본래 성품이 역시 그랬던 것이다。

일찌기 산음산골에서 도적의 변을 당하여 여러 골이 패망하여 달아나서 재앙이 금시라도 이르게 되었는데 공의 아버지 차군헌이 공과 공의 아우 봉령에게 명하여 우리 부자들은 의리상 당연히 죽을 곳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알고 있는거나 모르고 있는거냐? 공이 울면서 고하며 말하기를 적은 보답이 오로지 오늘에 있으니 명을 받지 못하여도 죽는 것이 무엇때문에 어려우리오 하고 마침내 아우와 더불어 같이 진중으로 들어가 직접 화살을 무릅쓰고 사병들보다 앞서서 손수 꿀과 식량을 모아 일찌기 궁핍하게 아니하니 대중들이 모두들 좋아하고 따라주어 죽음으로 지키고 있는데 다행히도 차군헌의 자세한 병법에 힘입어 마침내 승전하여 적의 목을 바치기에 이르게 되었다。이때에 사람들이 축하하여 말하기를 열열하도다。공의 가문이여 아버지가 이미 충성하고 아들이 또 용맹하여 모두 이루워진 것이니 그 공로 위대한 것이라 하였다。바야흐로 그 상황의 소식을

듣고 대중 공론이 모두들 말하기를 현감이 첫째 공로인이요 현감의 두 아들이 다음이 된다고 하니 차군헌은 말하기를 애비가 이미 공로가 없는데 아들이 또 어떻게 공로가 있으랴? 아버지 만은 례를 따르겠지만 자식들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니 공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자식의 소망이라 하였다。이래서 그 말이 위로 올라가 은총이 차군헌에서 중지되어 공은 더불어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경술년에는 아버지 상을 임지 인위원에서 만나 가슴치며 울기를 무절제하게 하여 바싹 말라 뼈만 남아 어름 길을 밤새워 돌아오다가 거의 절명지경이 여러번 있었으며 초상과 장례와 제사를 옛 예절대로 준수하였다。계유년에는 어머니 상을 당하여 슬픔이 례를 지나쳐 거의 본심을 잃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때 공의 나이 쉰아홉살 이었다。늘상 자제들에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만두더라도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유업이 내 대에서 실추되어 없어지면 이것은 더욱 불효의 죄가 될 것이니 너희들은 역시 이를 거울삼아 힘쓰라고 하였다。이래서 여러 자손들은 더욱 학문에 열심히 하여 혹은 문과에 합격하고 혹은 지방 백일장에 소문이 나 있으니 여기에서 가히 공의 함양한 것이 상상이 된다。공같이 탁월한 행동과 높은 공로는 반드시 발천하고 선양하고 포상하고 추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같이 자취없이 사라진 것이다。그러나 포상하고 포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공에게 무슨 손해가 되랴?

손자 재익은 짓다

⑪ 通德郎公事蹟(諱 鶴齡) 府院君后

公諱 鶴齡 字 鳴九 氣質沉靜 衷情仁善 自戱嬉時 未嘗與人相校 見者 以爲君子出焉 早受家庭之訓 克保天賦之本 律身齊家之道 待人接物之義 一從固有者出來 未或以一毫私意于其間焉 見人之善若己之有 見人之惡 不惡而嚴 是以 善者益勸 惡者敬憚焉 且夫博通經傳 屢擧不中 歷侍官啇 自視歜然 常切切於華飾藝御之戒 產業經營 曾不爲之留意 蓋惟親旨是承而公之素性 亦然也 嘗於山陰 遇賊變 列邑奔潰 禍迫朝暮 公之考此君軒 命公及公之弟諱鳳齡曰吾父子 義當死於死所 汝曹 知之否 公 泣而告曰涓埃之報 只在今日 不命其承 死何難焉 遂與弟 同入陣中 躬犯矢石 以先士卒 親董芻糧 未嘗匱乏 衆皆悅服 以死相守 幸賴此君軒公 密勿戎韜 竟至克捷獻馘 人 於是 爲之賀曰烈哉 公之家乎 父旣忠矣 子又勇焉 總以成之 其功偉然 方其狀聞也 公議 皆曰縣監 爲元功 縣監之二子 爲其次 此君軒公 曰父已罔功 子且何功 於父則循例 於子則止之可也 公 曰親之意 卽子之志也 於是 依其言上達 恩止於此君軒公而公則不與爲也 越在庚戌 遭巨創於渭原任所 哭擗無節 柴毁骨立 氷道星還 幾絕者屢矣 喪葬祭奠

一遵古禮 至癸酉 丁內憂 痛益過制 幾至滅性 時 公年 五十九也 常訓其子孫曰吾則已矣 吾先君遺業 將自吾而墜盡矣 此尤不孝之罪 汝曹 亦鑑茲而勉之哉 於是 諸子孫 益勤於學 或登文科 或聞鄕擧 於斯 盖可想公之所蘊蓄者矣 使公之卓行嵬勳 必當闡揚褒贈而若是其泯焉 然而褒與不褒 於公 何損焉

孫男 在益 撰

◇

⑫ 효열절행록(휘 기손、기진) 낭장공후

착한 일을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일반인이라도 감동이 없지 아니할 것이며 특별한 행동이 지극하다면 성현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이래서 일반인들의 말에도 성현들이 반드시 취할 바 있으며 성현의 행동에 일반인들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으니 성인이란 인륜의 지극한 것이요 효자란 인륜의 근본인 것이다。옛 성현이 말씀하신 임금은 임금 노릇하고 신하는 신하노릇하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 아들은 아들노릇하며 남편은 남편 노릇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하며 어른은 어른 대우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로 키우며 벗은 벗으로 삼아 주는 것이 모두 인륜을 밝히는 바이다。이 명륜록은 어찌하여 지었을까? 나의 중조부 휘 기손이 자손을 훈계하고 인륜을 밝히려고 지은 것이다。가끔 일찌기 엎드려 읽으면 알연한 감동이 든다。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도리와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와 제사와 빈객에게 근신하게 올리는 절차가 찬연히 구비되어 기재되어 있다。선공의 서재를 호명하고 사모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까?

오늘날 시편과 예절가들은 예절 설명에는 밝고 문학가들은 문장과 예술에는 부지런히 하며 효도하고 공경하는 집안들은 효행에 독실한데 효도와 공경하는 것은 요순의 법도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다。선대조상때부터 효도와 우애가 집안에 전승되어 대대로 계승되다가 처사공과 오천공이 스승의 문하에 드나들며 효도를 돈독히 하고 학문을 성실히 하여 조정에 소문이 나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석촌공은 어버이 섬김과 형을 공경함이 행동마다 옛 예절에 맞았으며 젊은 시절에 활과 말을 타는 것으로 천거가 되었으나 재능은 있으나 운명이 없었으니 어찌 우리집 가문만의 불행이랴? 중조고께서 행동에 더욱 위대한 것이 있었으니 아우의 휘 기손과 두 분의 효자가 나란히 한 집안에서 나왔으니 손가락을 베어 입에 넣어 어버이 수명을 연장시키었다。이미 또 정려문이 있어 한 세상을 움직였으니 지금까지 영광스럽다。나이 아흔살까지 새벽 인사를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머지는 이것으로 추측하여 보면 일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을 것이다。선공의 본래에 뜻을

받들어 말하면 너희들 자손은 나의 가르침을 들어 사랑과 좋은 일을 독실히 이행하며 평생토록 잘 사용하면 인간의 처세에 어찌 깨끗하고 여유가 있지 아니하겠느냐? 인도하기를 항상하고 가르치고 타이른다면 이것이 선공이 본래에 가슴 속에 품고있던 바이다。

오늘날 산림간에서 학문에 힘쓰는 사람을 선비중에 어진 군자라고 호칭하지만 어찌하여 그런지 알지를 못하겠다。 할아버지 휘 득성의 아내는 유인 김씨로 효자의 가문에서 태어나 효자의 가문으로 시집와서 의를 지키고 자상하여 열녀로 계승되었으니 저 높은 세 곳 정려문은 우리 마을에 으뜸이니 그 정려문을 바라보면 그들의 효도와 열행이 추모되고 그들의 효도와 열행을 추모하면 그의 교화에 감화되니 이래서 한사람이 효도를 일으키면 한 집안이 효도가 일어나고 한 집안이 효도를 일으키면 한 마을이 효도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진실한 효자의 행동이며 어진 사람의 교화인 것이다。

가령 허벅지를 자르고 손가락을 피 내는 것은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행동하여 그 남을 감동시키는 것에 이르러 천리로서는 이르기 어려운 바에 이르면 반드시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니 어찌 특별한 행동이 극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다스림을 사랑으로 하고 착한 것으로 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우수한 것인데 하물며 한 몸이야 안 그러하랴? 몸을 닦는 사람이 사랑과 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덕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며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랑과 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남을 교제하지 못할 것이며 국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랑과 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대중을얻지 못할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랑과 착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정치를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함으로 도의와 배합이 되는 것이 진학에 먼저 힘쓸 일이고 집안과 나라에 쓰면 교화의 큰 근본이 될 것이니 또한 어찌 착한 것에 그치라는 명언이 아니겠는가? 만일 군자의 명언으로 효자의 특별한 행동같이 한다면 백세의 후일에 일반인들이라도 감동이 없지 아니할 것이며 백세위의 성현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증손자되는 영건이는 지식이 고루하고 견문이 얕으며 몸은 약하고 말이 천하여 진실로 만분지 일도 형용하기 부족하였으나 그러나 자연적 감동이 나오는 마음을 스스로 멈출 수 없어 감히 서문이라 못하고 대략 몇줄 진술하며 후손을 기다리노라。

숭정기원후 을미년(1715년) 1월16일

불초손 영건은 삼가 쓰다

⑫ 孝烈節行錄(諱 起巽 起震) 郎將公后

名言 止於善 即衆庶 不能無所感也 特行 立乎極則聖賢 不能有所過也 是故 衆人之言 聖人 必有所取 聖人之行

衆人 必有所學 聖人 人倫之至也 孝子 人倫之本也 古人所謂君君臣臣 父父子子 夫夫婦婦 長其長 幼其幼 友其友者 皆所以明人倫也 明倫錄 何爲而作也 曾王考諱起巽 戒子孫 明其倫而作也 間嘗伏以誦之 藹然有感者矣 孝親敬長之道 修身齊家之法 賓祭謹飾之節 粲然具載 先公 所以齋號慕先 意在斯乎 意在斯乎 今夫詩禮之家 明於禮說 文學之家 勤於文藝 孝悌之家 篤於孝行 孝悌也者 堯舜之道也 孔孟之學也 自祖宗以來 孝友傳家 世世承承 處士公烏川公 出入師門 篤孝實學 聞于 朝 名於世 石村公 事親敬兄 動合古禮 早薦弓馬 有才無命 豈徒私門之不幸也哉曾王考 行有尤大焉 昆弟諱起巽 雙孝 幷出一門 斫指灌口以延親壽 既復且旌 風動一世 于今有光 至若行年九十 不廢晨謁 餘皆類推 無事不然 先公之素所承顔也 曰汝子孫聽我訓戒 篤行仁善 善用平生則人之處身 豈不綽綽然有餘裕哉 導之以常常 教之以諄諄 寔先公之素所服膺也 今之山林力學 號稱儒宗之賢君子 抑未知何如也 祖考諱得聖配孺人金氏 生於孝子之家而歸於孝子之門則處義安詳 繼之以烈 卓彼三旌 冠吾一鄕 見其旌而慕其孝烈 慕其孝烈而感其化 是以 一人興孝 一家興孝 一家興孝 一鄕興孝此眞孝子之行也 仁人之化也 若夫刲股血指 人之所難行而行 有其至感物格天理之所難必而必得其應 此 豈非特行之立極者耶 治己治人 以仁以善則優於天下 而況於一身乎修身者 不以仁善則不可以入德也 齊家者 不以仁善則不可以接人也 治民者 不以仁善則不可以得衆也 治國者 不以仁善則不可以行政也 是故 配之於道義則進學之先務也 用之於家邦則敎化之大本也 亦豈非名言之止善者乎 以若君子之名言 有若孝子之特行 百世之下 衆庶 不能無所感也百世之上 賢聖 不能有所過也 曾孫永建 識陋而見淺 軆弱而語卑 固不足以萬一之形容 然而油然感發之心 不能自己則非敢序也 略陳數行 以俟來裔

崇禎紀元後乙未正月既望

不肖孫 永建 謹書

◇

⑬ 별검공사적(휘 양승) 부원군후

공의 휘는 양승이요 자는 광중이다。 나서부터 영리하여 겨우 말을 하면서 문자를 알았으며 점차 성장하여는 통덕랑공의 가업이 실패한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자신이 집안 살림을 책임질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계속하여 성인의 글과 현인의 글에 달통하고 문자를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기이하게 여기고 크게 기대하였다。 스무살도 되지 아니하여 여러차례 향시에 합격하였으며 임오년에는 궁전강경장으로 나가서 초자기자라는 문장을 강의하며 귀신이 즐기는 음식이라는 싯귀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신이 과연 흠향하던고 하니 공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용에 말하기를 양양히 그 위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흠향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싯귀를 물으시어 역시 이와같이 대답하니 임금께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역시 아름답지 아니하냐? 저 중용귀 가지고 이것까지 증명하고 잇으니 경서에 밝다고 말할 수 있으니 어찌 다 외우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며 그 자리에서 벼슬을 주시며 또 가까이 있게하라는 특명을 내려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의 행동은 법도가 있으며 묻고 대답하는 것이 또 분명하여 임금이 말하기를 네 풍채를 보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든다고 하였다。

총애를 받은 것이 매우 높아 울연히 원대한 계획을 두고 다음해에 통례원에 있었으며 다시 승문원정자로 있다가 목릉별검으로 전근하였고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되었는데 때마침 통덕랑공이 심히 늙어있는 때라 늘상 요양중에 있어서 공은 약 치료가 급하여 벼슬 길에는 뜻이 없었으니 공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들 감탄하고 그리고 또 애석하게 여기었다。

기축년에는 아버지 상을 당하여 가슴치며 울며 속이 상하여 본성을 잃을 지경에 가까웠다。 10월에 예의대로 광탄 선영하에 장례하고 초상에서 장례와 제사까지 모두 옛날 법을 따르며 아침 저녁으로 체빈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다가 다음 해에 큰 전염병이 퍼져 사망자들이 계속나오니 집안에서는 자제들이 밖에서는 친구들이 모두들 공의 몸이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심히 위험하다며 임시로 여막을 나오라고 권고하니 공은 울며 말하기를 불효가 막심하며 이 끝없는 슬픔이 있으니 죽어도 불쌍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죽어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뵈올 것이니 이것은 오히려 살아있는것 보다 나을 것인데 내 어찌 감히 자리를 떠나 살아남을 것을 도모할소냐? 예의를 대며 엄격히 물리쳐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해 4월28일에 그 병에 걸려 마침내 여막에서 졸하여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

손자 심현은 짓다

⑬ 別檢公事蹟(諱 陽昇) 府院君后

公 諱 陽昇 字 光仲 生而穎悟 甫語能解文字 稍長聞通德郎公 業墜之歎 慨然有自任門戶計 不撤講學 貫通經傳 博解文字 見者異之 大有雅望 未及弱冠 屢闡鄕擧 壬午 赴殿講 講楚茨章 至神嗜飮食之句 上曰神 果享之乎 對曰中庸 有曰洋洋乎如在其上 蓋如其享之之意也 又 問他句亦如是對 上 顧謂左右曰不亦善乎 以彼證此 可謂明經 何必盡誦 其賜第 又特命近侍 宣來於 闕內 其行步有度 應對且明 上 曰視爾風采 得吾相任 恩受甚隆 蔚有遠圖 翌年春 鴻臚 分隷槐院 以承文院正字 遷穆陵別檢 陞成均典籍時 通德郎公 以篤老之景 恒在靜攝中 公 急於侍湯 無

意於晉途 知公者 皆爲之感服而亦爲之閔然 己丑 遭巨創
拚擗柴毁 幾於滅性 十月 以禮 奉襄于廣灘先兆之下 殯葬
喪祭 一從古禮 晨昏 不離苫次 明年春 大癘熾張 死亡 相
繼 內而子弟 外而親知 皆見公之欒欒而甚危之 勸其從權
出寓則公 泣而語曰不孝無狀 罹此終天之慟 死不足恤 且
死而歸 拜于吾父吾母則此猶愈於生 吾何敢離次而圖生乎
據義嚴斥 終不回聽 是年四月二十八日 以其疾 竟死廬所
人 莫不嗟惜焉

孫男 心鉉 撰

◇

⑭ 병암공사적(휘 대형) 장군공후

윤대형의 자는 도상이요 호는 병암이니 직장 벼슬을 한 적의 후손이다。나이 열세살에 아버지가 기이한 병에 걸려 약이 없었는데 꽃뱀이 가장 좋은 약이라 하였으나 섣달 추위에 얻을 수가 없었다。홀연히 한마리 꽃뱀이 주춧돌 틈에서 나와 고개를 들고 명령을 듣는 것같이하여 잡아 올릴때에 먼저 맛 보고난 뒤에 올려드려 효과를 얻어 다행이 수십여일의 수명을 연장하였다。일찌기 성담 송환기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추앙을 받았다。

⑭ 屛庵公事蹟(諱 大亨) 將軍公后

尹大亨字 道常 號 屛庵 直長跡 后 年 十三 父得奇疾 無藥 醫言 花蛇最良云 臘寒不得 忽有一條花蛇 柱礎間出來 俛首若聽命 手執就進 先嘗後進 得效 幸延數旬之命 嘗從遊於性潭宋煥箕門 見推

◇

⑮ 심의제도발(휘 종의) 대언공후

지난 병진년(1796년)에 큰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예기책을 삼산 묘사에서 읽을때 심의와 옥조등편에 이르러 심의란 제도가 처음 일어난 것은 여러 학자들의 주석문에 병폐가 있고 일정한 이론이 없어서 가례의 제도 양식들이 도리어 저속한 것을 이루고 있음이 혐오스러워 여러차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며 그림으로 그려 형상도 보이고 문장으로 증거하다가 몇달을 지나서야 곧 요령을 얻었다。이 때에 심의옥조의 예기문을 모아서 그 선후를 순서대로 해 놓고 본주까지 찾아 모아서 선대 유생들의 요지를 그 얕고 깊음에 따라 순서대로 하였다。이 책을 편성한 다음 해인 정사년에 세상을 떠나니 마침내 그의 제도대로 염습의 옷들을 만들었다。아 그 당시 나의 형은 나이 겨우 20세이었지만 문득 이런일에 뜻을 두고 있었으니 어찌 일을 미리 앞서 정할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였을까? 그의 제도는 예문가의 법도를 잃지 아니하였으며 옷깃과 소매를 꾀매는 것이 바로 당시 왕가의 제도를 준수

한 것이었다。시읍면에서 사용하여 깊은 산골까지 곧 본받았으며 무덤에 사용하면 곧 두루두루 염습이 완고하였다。이 때에 저명한 석학 원로들까지 널리 토론이 되었지만 이의가 없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 집안 상용제도로 확정하였다。나의 형이 비록 장수는 못하였어도 그래도 이 제도는 영원히 후세까지 법이 될 것이니 어찌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없을소냐? 이 책에다 당초에는 말 한마디 한개 글자도 덧붙이지 않았으나 내 뜻이 비록 형과는 관계없는 듯 하나 이 책의 편집순서만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관찰하였더니 역시 나의 형이 평일에 뜻 두고 있던 것을 경험하기에 충분하였다。그런고로 삼가 일권 책으로 편성하면서 아래 쪽에 기록하였다。

아우 종의는 삼가 쓰다

⑮ 深衣制度跋 代言公后

昔歲丙辰 伯兄 陪家君 讀大戴於三山舍 至深衣玉藻等篇 始起於深衣之制而病諸家註釋 無定論 嫌嫁禮制檬 反致駭俗 屢爲禀質於家君 圖而象之 文而證之 凡歷月餘 乃得其要領 於是 撮取深衣玉藻之經文 序其先後 搜集本註焉 先儒之要語 第其淺深 編成後翌年丁巳棄世 竟以其制 爲贈襚之衣 嗚呼 伊時 吾兄 年纔弱冠而遽留意於斯 豈事有前定 心有前知而然歟 其制也 規矩衡準 不失禮家之尺寸 縫腋袵袂 寔遵時王之制度 用之鄕黨則深邃而便體 用之壽藏則周遮而斂固 於是 廣議於名碩長老而無有異議 仍定爲吾家之常制 吾兄 雖無年而斯制 若永爲法於來世 亦豈無補於萬一者乎 是書 初無一言隻字之參 以己意則雖若不關於吾兄而其編輯次第 若使有知者 觀之則亦足驗吾兄 平日之意匠故 謹爲編成一冊而識于下方

舍弟 從義 謹書

◇

⑯ 송와공실록(휘 심의) 충효공후

공의 휘는 심의요 자는 중진이며 송와는 그의 아호이다。출생하여 여섯 일곱살때부터 타고난 자질이 영리하고 인륜을 지키고 마음이 선량하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경하여 노인들을 추월하는 것이 없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서 집안의 어른과 아이들까지 모두들 기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이는 필시 어린 나이의 행동이 장차 후일에 큰 그릇이 될 것이라 하였으며 점차 성장하여는 가업을 계승하고 학문과 예술이 성립되었으며 행동을 근신하여 이로 말미암아 남들의 자제들에 대하여 효도와 공경의 도를 권면하였으며 학문의 일은 시를 지어 자식을 훈계하고 작문을 지어 학업을 일깨웠으니 그의 훈계한 공로와 격려한 교육이 지금도 후인들의 모범이 되며 그리고 살아있던 날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친구지간에 장황한 편지를 보낸 것과 남의 답장을 받은 것 등등 이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으나 소장하여 오던 유고들도 불행하게 박탈을 당하였으며 갑오년 난리속에 편집된 것도 십중 팔구가 분실되었다。 그러나 수습한 것이 약간 있으니 시편과 문장의 서문 발문등이 조금 남아 있으며 그것 중에 대개는 공의 문장과 덕행 정신과 노력을 겨우 만분지 일을 좇아 나타내었고 여타의 공적과 덕업은 모두 다 기록되지 못하였으니 가히 한탄을 견딜소냐? 공이 어렸을때 영동 향시에서 합격하였으니 바로 공의 아버지 명국씨가 금영 향시에서 7등으로 합격하던 나이었다。 그는 시험보러 가던 날 당숙인 재민씨를 모시고 주막에서 하숙을 하는데 마침내 여름철이라 호랑이가 밤에 개를 물고가며 공이 자고있는 곳을 번개처럼 지나며 피를 뿌려 옷위에 점점히 묻었는데 그날밤 꿈에 신추함이 부스러져서 실로 그 자리를 꿰메다가 놀래어 깨어보니 바로 꿈이었다。 이 일을 당숙에게 고하니 당숙은 해몽하여 말하기를 옷 위에 피가 묻었으니 바로 종이 위에 붉은 점이요。 신추함이 깨져 꿰메었으니 바로 봉투 안을 실로 꿴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장원급제하였으니 이러한 공의 꿈은 우연이 아니라고나 할까?

공의 아버지는 학식과 문장이 세상에 추앙을 받는 선비로 서울과 시골에서 여러차례 초시는 합격하였지만 단지 살피기 어려운 것은 천운인 것이다。 본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 공이 3년간 슬프게 울며 예법을 준수하여 사람들은 시문과 예절의 가문이라 말하였으며 지방에서 말하기를 공의 가문은 한아한 선비로 문장이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 이런 아버지가 있기에 이런 아들이 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아니하며 어찌 애석하지 아니할소냐? 공은 처음 대학에 들어가던 날로 즉시 성균관으로 들어가 생원 진사들과 더불어 경서의 의를 강마하고 시편을 읊어 원외 동료를 하사받았으며 남쪽 고향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작시 한 수를 벽에 써놓았으니 그 시에 말하기를 서울에 친구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솔 숲 깊은 곳에 누워 책을 본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공의 취미가 높은 경지에 이르고 뛰어난 경지에 이르러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랴?

배는 안동 권씨 보의 딸이며 향수는 77세였다。 졸하여 무덤을 만들던 날에 광산후인 김기조가 만장시에 말하기를 문장이 옥을 다듬은 것 같아 3대조정에서 매입할 것이며 명망은 북두칠성 같이 높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는 싯귀가 있으며 파산 윤봉진의 조사에 공의 일평생 의지와 사적을 말한 것이 있어 사실상 이 글은 그것들을 모아 요약한 것이다。

기유년 2월10일

증손 병하는 삼가 기록하다

⑯ 松窩公實錄(諱 心誼) 忠孝公后

公 諱 心誼 字 仲眞 松窩 其號也 生自齠齕 禀姿穎悟 秉彛良心 愛親敬長 無踰於老成 人 莫不嘖嘖而家長及小感奇異之曰此 必是幼年行度 將爲他日大器也 及其稍長 承襲家庭 學術樹立 謹飭操行 由是而對人子弟則勸以孝悌之道 學問之業 或作詩以誡子 作文以警學 其訓迪之功 激勸之論 至今 爲後生之模範而在世之日 嘉言行蹟 及知舊問與人長書 愛人答書 不止於此而家藏遺稿 不幸運値剝奪甲午歲搶攘之中 旣編帙 蕩失於十八九而所以收拾者若干言詩文篇序記跋 略存 其槩於公 文章德行 造詣精力 表準其萬一而他餘程法 未必盡錄 可勝歎哉 公 爲童蒙時永同試 叅榜 即公 考鳴國 錦營試 第七次叅榜之年也 其附試之日 陪從叔父載民 宿於酒店 適槐薫之節也 虎夜噬狗 閃越公臥 灑血點點於衣上 其夜夢 神櫝破碎 以繩縫緝故處驚以覺之 乃夢也 以此 告之于從叔父 叔父解之曰衣上點血 即紙上朱點 神櫝碎縫 即封內貫絲也 果捷壯元 此蓋公之夢 非偶然歟 公 考 學識文章 爲世仰儒 京鄕科試 屢中初解 但難諶者 天也 未得會捷 不幸奄世 公 哀毁三年 一遵禮制 人 謂之詩禮之家而鄕黨 咸稱曰公之家 儒雅文章知名當世 有是父 有是子 豈不偉哉 豈不惜哉 公 始登國庠之日 即入成均舘 相與生進諸士 講磨經義 詠吟詩篇 贈外僚友 南歸田廬 自題壁上詩一句曰京洛故人如問我 松林深處臥看書 此豈非公之志趣而高蹈逸躅 托在林泉耶 配安東權氏倘之女 享壽 七十七 垂當窀穸之日 光山金箕照有挽章云 文如玉琢三朝售 望若斗高一世知之句 坡山尹鳳鎭 綍調 有言其公之平生志行事蹟 此實撮略焉

歲己酉仲春下澣

曾孫 炳夏 謹識

◇

⑰ 종모재공유서(휘 영상) 대언공후 합천

아들 진사를 의병진중으로 보내면서 경계한 글

하늘의 운수가 심히 어려워 나라의 운세도 바야흐로 실추되니 아 저 오랑캐들이 팔도에 가득차 선대왕의 법제를 개혁하고 그들 나라의 정치를 행하니 조정에 있는 간사한 적들은 시세에 따라 몸을 굽히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국민들도 역시 모두들 화가 두려워 표면상 순종하는구나! 그 오랑캐들의 심장을 연구하여 보니 중국을 변화시키어 오랑캐로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몰아내고 짐승을 만들려고 하니 어찌 통곡하고 이가 갈리지 아니할소냐? 다행하게도 관대한 영웅인 이하단과 그의 아들 해춘이 우리 일가되는 일박과 더불어 오랑캐를 면하고 짐승을 면하는 계획을 세워 널리 다스려온지 20여년만에 재야의 의리있는 선비들을 선동시키고 의지있고 절개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정미

에 이르러서는 의로운 함성을 관동지방에서 크게 외치다가 무신년에 이르러 관북지방으로 진지를 이동하여 오랑캐 팔천여명을 죽이었다。이 이공은 바로 덕흥대군의 후예이다。8월4일은 일박씨 아버지 소상날이니 우리는 옛 동지들이며 함께 모의하던 사이인지라 멀더라도 위로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너를 보내여 그 행동을 계승하라고 하니 의병 진중으로 달려가 일박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라 경계하여 말하노니 견고하지 아니하면 사안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서경에 말하기를 시작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도 끝냄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으니 네가 이 일을 이행하는 것은 집안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구제하는 일이다。아 저 오랑캐들을 죽이고 나라에 도적을 제거하며 종묘 사직을 반드시 보존하고 억조창생을 구제할 것이다。너는 지금 씩씩하고 건장하게 자랐으니 예리한 사기와 용기있는 힘으로 깊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모의하면 비록 하늘이 준 크고 작은 한계는 있으나 일에 당하여 기회를 연마하면 반드시 최상의 계책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못할 것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일을 해치는 것이요。물욕이라는 것은 의지를 좀먹는 것이니 혹시라도 여기에 마음이 오염되었거든 오늘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아울러 금전과 떨어져 있고 여색을 멀리하는 것이 군중에서 제일 근신할 바이니 그리고 한나라 태조도 함곡을 파괴할때 추호도 이런 생각을 두지 아니하였다。오늘의 마음이 내일이 오도록 변하지 말고 금년의 마음이 후년이 이르도록 확실히 지켜주면 비록 수십년이 되어도 항상 이와같이 되어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하면 이것을 대장부의 심지라고 이르는 것이니 근신하고 노력하여 애비의 제언을 어기지 말면 이것도 사람의 자식된 도리를 수행하는 것이니라。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 분담할 수 없으니 어느 것을 크게 기대하며 어느 것을 크게 시작하겠느냐 네가 나의 일까지 대행하여 준다면 어찌 애비의 공이 없다고 하겠느냐? 우리집안이 한미한지 오래이고 나의 계획도 오래되었구나。자벌레 비록 구부리고 있으나 용처럼 펼 날이 없는게 아니며 좋은 말이 비록 엎드려 있으나 어찌 범처럼 뛰는 때가 없을소냐? 옛말에 이르기를 세차게 부는 바람에 굳센 풀을 안다고 하였으니 너를 반드시 일찌기 외우고 배우게 한 까닭이다。젊은 나이에 무술을 배워서 뜻을 펼수 있는 날이 지금이 그때이며 지금이 그때이다。세찬 바람은 병란이요。굳센 풀은 용기이니 이 한구절을 너는 반드시 외우고 다니며 꿈에서라도 생각하고 있으면 비록 좋은 재물과 예쁜 여자라도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섞이지 아니할 것이니 마음에 새기고 폐에 새기어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라。

종질 병형은 받아적다

⑰ 終慕齋公遺書(諱 永相) 代言公后 陝川

遣子進士赴義陣戒

天步孔艱 國運方墜 噫彼犬羊 充滿八域 革此先王之法制行其渠國之政令 在朝奸賊 莫不趁勢而屈己 在野愚氓 亦皆畏禍而面從 究其犬羊之心腸則欲使變華而爲夷 驅人而爲獸 豈非痛哭切齒者乎 何幸寬大英雄李公夏鑄氏其子海春 與吾族人一博 圖欲免夷免獸 經營重恢者二十有餘載倡動林下義理之士 招起有志有節之人 至于丁未 大放義聲於關東 暨此戊申 移陣于關北 屠戮彼酋八千餘人 李公即德興大院君之祀裔也 八月初四日 是一博之先人小祥而昔我同志同謀則不可無遠涉唁慰故 送汝而繼其行 赴義陣 與博也 同事也 戒之曰不固則事不成 書 曰靡不有初 鮮克有終 汝之此行 須非爲家爲己 乃是濟世拯國之事則噫彼犬羊必屠乃已 國賊 必除乃已 社稷宗廟 必保乃已 億兆生靈可拯乃已 汝今方壯方健之日 銳氣勇力 深謀秘籌 雖有天賊大小之有限 臨事鍊機則必不無錯出一等也 財者 害事也物者 蠹志也 若或心染於次則今之不赴 必爲愈也 屏錢財遠美色 是兵間第一所愼戒而漢太祖之破函谷而秋毫無所有者 此也 今日之心 至于明日而勿替 今年之心 至于後年而固守 雖數十載 恒庸如是 克始克終 此謂大丈夫之心志也 愼哉勗哉 勿違乃父之戒言 是人子修職之道也 余今年老 不能分擔 此何等大機 何等巨掀也 汝其代余行 豈可無作之功哉 吾家之微寒者久而汝父營計者尙矣 尺蠖雖屈 不無龍伸之日 良驥雖伏 豈無虎躍之時乎 古語 云疾風 知勁草 汝曾所以誦習也 少年之用武得意 此其時哉 此其時哉疾風 兵亂也 勁草 氣也 此一句 汝必行吟夢記 念在玆則雖奇貨美色 不拘於見而不淆於心也 銘心刻肺 以聞好消息於來許焉

從姪 炳馨 撰

◇

⑱ 연계공효행실록(휘 하박) 대언공후 제천

병자년(1876년) 겨울 11월에 내가 이 지방 군수로 부임한 처음에 먼저 관내에 있는 지극한 행동을 한 인사들이 있느냐고 물으니 여러사람 모두들 첫째로 연계 윤처사의 이름을 천거하며 그의 특이한 일 한두가지를 말하였는데 듣고 보니 바로 옛날 책 속에 있는 기이한 이야기와 같았다。 지금 세상에도 또 이런 사람이 있을줄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소문이 사실보다 과장된게 아니냐? 과연 이와 같다면 내가 이 지방의 군수가 된게 어찌 다행이 아니겠느냐? 그후로 장평마을을 심방하였는데 장평마을은 바로 시문은 부족한 곳이지만 농사짓기는 모범되는 촌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산천의 승지를 근거로 하여 집을 짓고 마을이 펼쳐있는

데 매우 정연하고 깨끗한게 세상을 벗어난 생각이 들었다。 윤처사가 옷을 단정히 입고 사람을 맞이하는데 그 풍채가 온화하고 말씨가 자상하여 물어보지 아니하고도 덕이 있는 선비로 알 수가 있었다。 또 높은 연세가 74세가 되었으니 우연하게도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갑인데 기력이 지금까지도 건강하여 그래서 내가 생각하여 보니 나는 진실로 효성이 얕아서 아버지가 높은 수명을 누리지 못한 것만 같아서 그저 여생에 불효의 한탄이 간절하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자식은 봉양하고 싶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나를 위하여 말한 것이라 하겠다。

그의 아들을 대면하고 먼저 아버지가 강녕한 복을 축하하며 집안에 전해오는 소장품을 보자고 하니 바로 이 지방 여러 선비들이 기고한 것이었다。 혹은 기문으로 사실을 서술하고 혹은 시문으로 미담을 찬양한 것이 무려 수백편으로 셀 수가 없으며 그리고 문장이 좋고 나쁜 것과 기사가 상세하고 대략적인 것이 비록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삼지 아니한 것은 없었다。 그 중에 효행실록이란 책이 있으니 그의 시종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 효자께서 태어나 겨우 54일만에 아버지가 젊은 나이로 졸하고 얼마후에 또 할아버지 초상까지 만나게 되어 오직 증조부와 할머니 이씨와 어머니 채씨 두 부인만 집안에 살고 있었다。 이 처사는 천성적으로 효성스럽고 유순하여 이미 어려서부터 유독 지극한 효성이 있어 일찌기 어른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였으며 나이 열한살에 증조부의 상을 당하여 3년간 부모의 대리로 복을 입고 슬픔이 예절에 지나쳐 마을에서 모두들 그의 효성에 감복하였으며 열여섯 살에 부인 이씨와 결혼하니 부인은 현숙한 부덕이 있어 남편의 뜻을 잘 받들었으며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섬김에 공경과 사랑을 다하며 집안이 비록 빈한하여도 맛있고 따뜻한 것을 바쳐 일찌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였었다。 할머니가 우연히 고질병에 걸려 약을 쓰고 침을 놓아도 모두가 효험이 없어 처사께서는 옷을 벗지 아니하고 일찌기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하루는 잘 생긴 처사가 꿈에 찾아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니라 할머니 병환으로 근심걱정을 이와같이 하지만 그 처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라 그래서 특별히 찾아와 너에게 알려주니 반드시 동으로 뻗은 앵두나무 가지와 돌버섯을 같이 삶아 죽을 끓여 올리거라 하였다。 깨어보니 얼굴 모습이 눈에 있는듯 하고 말이 귀에 있는듯 하였다。 처사는 어려서 아버지 상을 당하여 항상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종신의 애통으로 삼았는데 다행히 꿈속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고 또 처방을 알려주고 꼭꼭 부탁하였길래 즉시로 그 약을 사용하여 즉시로 효과를 보아 그 후

6년 있다가 졸하였으며 3년을 묘막에 살았는데 매일 밤마다 호랑이가 찾아와 지키고 있어서 바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주인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였으며 복제가 끝나는 전일 밤에는 여러 수십마리 까치가 묘정에서 요란하게 짖으며 깍깍 거리며 그치지 아니하더니 갑자기 하얀 실타래가 떨어져 아무 뜻없이 주어다가 소장하게 되었다。그후로 부인께서 우연히 위급한 병에 걸려 곧 구제가 불가능하였다。누가 말하기를 까치는 바로 영조이니 하물며 부인의 효도도 남편과 더불어 서로 부합이 되고 있으니 전날 까치가 준 실이 아마도 영물일 것이니 어찌 다려서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여 곧바로 다려 먹여 효과를 얻었다。그후로 13년 뒤에 어머니 병세가 위독하여서는 약을 드리며 변까지 검사하며 지성을 쓰지 아니한 적이 없으며 운명시에 임하여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드려 2일간 생명을 연장시키고 상을 당하여는 슬프게 울어 뼈만 서 있는 것 같았으며 이미 장사를 하고는 또 3년간 묘막에 살았는데 호랑이가 찾아와 호위하기를 전번 초상때와 같이 하였다。아 처사가 살아서 봉양하고 주검을 떠나 보냄에 모두 예의와 성의를 다하였으니 이른바 살아서 그 공경을 이루고 봉양할 때 그 즐거움을 이루고 병듬에 그 근심을 이루고 초상에 그 슬픔을 이루고 제사에 그 근엄을 이룬다는 것을 모두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이것은 사실기록 중에서 그 대략만 모은 것이며 그리고 기타의 평상시 살아온 상세한 조목은 모두 기록할 수 없다。

또 부지런하고 검소함으로 살림을 하여 가운이 침체한 것을 만회시키었으며 독실한 행동과 노력하는 행동으로 세상에서 이미 무너진 교육의 나머지를 일으켜 세웠으니 이 사람은 시대에 부응하여 태어났으며 가정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고 세상에 있어서도 역시 우연은 아니었다。또 아버지가 젊은 나이로 일찌기 세상을 떠나 지극한 행동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영혼은 어둡지 아니하여 효자의 꿈에 약을 알려주어 그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으니 죽어서도 어버이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를 수 있다。만일 장수를 하였더라면 덕행이 성취되어 윤씨들 문중에서 부자지간 효도 잘 하였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애석하도다。하늘이 어찌하여 그의 수명을 시기하였을까? 그 중에서도 까치가 물고온 실 사건은 혹은 의심하기를 후일 어머니의 병에 사용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부인의 병에 사용하였다면 진실한 효자와는 관계가 아니될 것이라 하나 이 사건은 더욱 그런 것이 아니다。효자의 가문에는 반드시 효자 며느리가 있는 것이다。만일에 이씨 부인이 불행하게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먼저 죽었다면 어찌 흠집이 아니겠는가? 이씨부인도 역시 효자 며느리였다。

나는 처음 공의 사실을 듣고 그 사람됨을 상상하여 보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기록을 읽고 더욱 그 사실이 소문보다 더한 것을 탄식하였다。 여러 선비들이 찬양한 글은 남겨놓은 것이 없다고 할수있다。 나같이 조리없는 문장으로 처사의 경중을 삼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인륜을 지킨 것이 성정에 감동되는 것은 자연 중지할 수 없어 삼가 개요만 찾아 선비들의 명제 끝에 다 펼쳐놓았다。 공의 이름은 하박이요 자는 청일이며 칠원윤씨 후손이다。 세상에서는 윤효자로 호칭하고 연계는 그의 아호이다。 세상에 숨어 근심이 없고 숨어사는 군자의 행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이다。

정미년(1907년) 가을 9월 일

군수 수양후인 최재익은 서문을 쓰다

⑱ 蓮溪公孝行實錄(諱 河博) 代言公后

丙子冬十一月 余守茲州 下車初 先問境內 有至行人士則衆皆首擧蓮溪尹處士之名而述其特異一二事 余始聞 便同古書中 奇談 未知此世 亦有此人乎 抑聲聞 無乃過情乎 若果如是則吾之作宰是邑 豈非幸乎 厥後 委訪于長坪 長坪乃其逼軸之地而近爲農桑模範村落 據溪山之勝 結搆排鋪 極其整齊 有瀟灑出塵之想 處士 整衣迎人 儀容凱弟 言語慈詳 不問可知爲有德之士也 且邵齡 七十有四 偶與先君 同庚而氣力尙康健 因自思 如吾無似 誠孝淺薄 未享堂上岡陵之壽而徒切餘生風樹之恨 古人所謂子欲養而親不待者 正爲我道者也 對其胤君 先賀其堂上康寧之福而求見其家庭巾衍之藏 乃鄕中諸君子 所寄稿也 或記以叙其實或詩以贊其美者 無慮數百篇而文辭之巧拙 記事之詳畧 雖有不同 然 無非據實之論也 其中 有孝行實錄 詳記其顚末焉 孝子 生甫五十有四日 曾考 早世 未幾 又遭曾祖考之喪 惟曾祖父及祖母李氏 母蔡氏兩夫人 在堂 處士 天性孝順 已自幼小時 頗有至行 未嘗忤長者之志 年十一 遭曾祖喪 承重三年 哀毁踰制 隣里咸服其誠孝焉 十六 娶夫人李氏 有賢淑之德 能承君子之意 事兩夫人 克殫敬愛 家雖貧乏而甘毳之供 未嘗缺焉 祖母 偶罹沈痼治之疾 以藥以石 百無一效 處士 衣不解帶 未嘗離側 一日 夢 有一彦處士 來言 我是汝父 以祖母患候 悶迫如此而未曉其方劑故特來告汝 宜用櫻桃東枝 及石茸 同煎煮粥 進之也 旣覺而貌尙在目 言猶在耳 處士 早喪所怙 常以不記父面 爲終身之痛 幸得承顔於夢寐之中 且告戒之命 不啻丁寧 即試右藥效立 後六年而歿 廬墓三年 每夜虎來守衛 便同家畜之隨主人焉 終制前一夜 群鵲數十 亂噪墓庭 査査不已 忽墮一紵素絲 漫然拾而藏之 其後 夫人李氏 偶罹急疾 殆不能救 或 言鵲 是靈鳥 兄夫人之孝 與其君子 相符 前日鵲絲恐是靈應 盍煎試之 及試之而得効 其後十三年 母夫人 病勢危篤 侍湯嘗糞 靡不用其至誠而垂絕之際 咋指血進 得

延二日之命 遭喪 哀毁骨立 旣葬 又廬墓三年 虎又來衛如前喪 噫 處士 養生送死 俱盡誠禮 所謂居致其敬 養致其樂 病致其憂 喪致其哀 祭致其嚴者 可謂兼盡矣 此實錄中 撮其大槪而其他 平常細節 不能殫記焉 乃復勤儉治産 挽回家運於將替之後 篤志勵行 扶植世敎於旣斁之餘斯人 應時之年 在家 非偶然 在世 亦非偶然也 且尊考 年少早世 未有至行之著于世者 然 其精靈 不昧 諭藥於孝子之夢而醫其萱堂之病 可謂死不忘親者也 若使假以年壽 成就德行則尹氏之門 將見父子之孝矣 惜乎 天何慳其壽也其中 鵲絲一事 或疑不待他日親癠之用而用於夫人之病者非關於誠孝云 此尤不然 孝子之門 必有孝婦 若使李氏 不幸先亡於尊姑生存之日 豈非欠事乎 李氏 亦 孝婦也 余始聞公之事而想其爲人 及見其人 讀其錄而益嘆其實 浮於名也 諸君子 讚揚之文 可謂無緼矣 如吾蕪辭蕪言 不足爲處士之輕重 然 秉彛之感于情者 自不能已 謹摭其槩 以臚君子題名之尾焉 公 啣 河博 字 淸一 漆原人 世稱尹孝子蓮溪 其號也 遯世無悶 有隱君子之行 故 以稱焉

丁丑秋九月主倅

首陽后人 崔在益 序

⑲ 학생공사적(휘 안국) 충효공후

공의 휘는 안국이요 자는 자문이다。 공은 일생을 효도하고 우애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행동이 나타나 있었는데 나이 여덟살에 아버지의 늑막염이 여러달 위독하여 공은 의사와 약을 사방으로 찾아 극진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서 의사가 그 어린 나이에 지성과 근면이 가련하여 진찰하기 꺼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힘을 입어 아버지 병이 치료되었다。 점점 자라나 부모들이 공부하기를 권고하니 공은 사양하여 말하기를 부모님들은 늙으시고 집안은 가난하여 봉양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느냐며 마침내 어린 아우들과 더불어 자신이 품팔이를 하고 손수 나무하고 나물 캐어 비록 벽만 남은 집안에 굶주렸어도 어버이 밥그릇은 일찌기 비어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공의 어린 시절 효도이다。

중년시절에 아버지가 이상한 병이 들어 밤낮으로 약을 다리며 먹을 것을 입에 삼키지 아니하고 밤이면 자지 아니하였는데 때마침 추운 겨울인데도 어름을 깨고 목욕제계하고 노천에서 기도한지 일주일이 되었으며 또 변까지 살피며 병세를 살핀 것이 하루가 아니며 한달이 지나도록 게을리 아니하였으며 손가락을 잘라 연명을 시키었는데 한개 손가락뿐이 아니고 세개 손가락에 피를 흘렸으며 또 우황이 가장 좋은 약제라는 소문을 들

었으나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는데 그때마침 소간 한쪽을 보내온 사람이 있어 쪼개어 찾아보니 대추만한 것이 몇개 있었으니 과연 이것이 우황이었다。그래서 약을 지어 올리게 되었으며 또 잉어와 메추리등이 생각난다고 하여 앞 냇가로 급히 달려가 낚시로 잉어를 잡아 돌아와 올리게 되었다。

또 일찌기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갑자기 한마리 새가 하늘에서 떨어져 살펴보니 바로 꿩이었다。마침내 소매에 넣고 돌아와 봉양하고 다시 갔는데 또 꿩이 있었고 세번째 갔어도 역시 꿩이 있어서 세차례나 꿩을 얻었다。병들은 아버지가 일찌기 타처에서 임시 살며 집안을 왕래하였는데 계속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매번 산길 으슥한 곳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뒤를 따라와 숨어서 호송하는 것 같았다。병중에 사탕이 먹고 싶다고 하였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사탕을 보내 왔으니 기이하고 또 이상한 것이었다。효자가 하늘을 감동시키어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같은 것이라 하겠다。

대저 어버이가 병들면 하늘에 기도하고 손가락을 베고 변을 살피는 것은 일찌기 그런 사람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소간에서 우황을 얻고 시냇가에서 잉어를 얻고 하늘에서 꿩이 떨어지고 밤중에 호랑이를 짝하고 서울에서 사탕을 보내온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나 효도의 감동에 대응하여 된 것이 어찌 하나같이 신통하고 영특하지 아니한가? 이런 일들은 대략 공의 말년에 효도한 것인데 장자는 후사가 없고 동생은 자취가 없으니 애석한 마음 견딜수 있을까? 사림들이 낱낱이 알리는 장계를 올리고 관청이 포상하는 문제가 언제 이루어질지 한이 되나 오직 후일의 공론을 기다릴 뿐이다。

⑲ 學生公事蹟(諱 安國) 忠孝公后

公諱安國 字子文 檗公 一生孝友人也 自在幼穉 著卓異之行 年甫八歲 父病內腫 閱月沈劇 公遍訪醫藥 靡所不極 醫人 憐其年幼而誠勤 不憚診視 賴而得瘳 及其稍長 父母 勸以學則公 辭曰親老家貧供養無人 安用書爲 遂與小弱弟 親自傭雇 身兼樵採 雖在壁立罄竭之中而親廚 未嘗空也 此檗公 童時之孝也 逮至中歲 親嬰奇疾 日夜侍湯 食不下咽 夜不交睫 時當冬寒 鑿氷而浴 露體而禱者凡七夜又嘗糞而点其症者 非一日而閱月靡懈 斫指而延其命者 非一指而三指皆血 且聞牛黃 最宜良劑 未易猝求 適有以牛肝一部 送助者 剖而視之 有如棗者 數枚 果是黃也 和劑而進之 又思魚鱗鶉雉之屬 急往前川 釣得一鯉 歸而供之 又嘗往省其母親之墓 忽有一禽 自空而墜下 視之乃雉也 遂袖而歸養 再往 又如之 三往 亦如之 凡三得雉焉 病

親 甞寓他所 徃來家中 備續甘旨 不以晨夜而或廢 每值山路幽險處 有虎隨後 隱若護送然 病中 甞思砂糖 有親朋之自京來者 聞其言而與之糖 奇乎異哉 孝子之感天格人 良如是 父親疾而禱天 斷指而甞糞者 世 未曾無其人而牛肝獲黃 溪澗之得鯉 空中之墜雉 冥然之虎偶 京之糖 其可曰人力之所到而孝感之應 一何神且靈耶 此 蓋公 晩年之孝而伯道 無胤 同生 泯跡 可勝惜哉 士林枚報之狀 鶯官褒奬之題 不知何恨 惟俟日後之公議云爾

◇

⑳ 3·1운동 기념탑 취지문(휘 택근) 충효공 거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운동이 1919년3월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요원의 불길처럼 전개되자 거제 3·1운동 발상지인 이운면 아주리에서 윤택근, 이주근, 이인수, 이주목, 주종찬, 권오진 등의 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 봉기를 모의 주도하여 4월3일 장날을 기해 아주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이날의 독립항쟁은 일제 관헌의 무자비한 무력탄압으로 제지 당했고 의거를 주동한 애국지사들은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우리 민족자존의 고귀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우리의 주권을 찾으려 했던 선조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후세에 영구히 전하고자 이에 거제시민의 정성을 모아 옛 아주장터가 내려다보이는 옥녀봉 승지에 이 탑을 세우다。

2000년 10월

거제시장 양정식은 짓다

◇

5、재사기문 및 상량문

(1) 재사기문

① 궐초재기(상포재구재호) 계내

낙동강변 상포 계내동에 신라시대 태사벼슬을 하신 분의 묘소가 있으니 바로 우리 칠원윤씨의 시조가 되시며 그리고 그 밑으로 몇대의 선조 묘소들도 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할 수는 없고 중엽에 이르러서야 선조들은 홍포사 강당을 시제때 후손들의 휴게소로 삼고 있었으나 한번 철거를 당한 이후로 다시 건립을 못하야 항상 근심하여 온지 30여년이 되었다。일가되는 영신씨가 충청도에서 생장하여 처음으로 선산 묘소를 성묘하고 재사가 없는 것이 한탄되어 부근 마을 사는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상의하여 재물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여 한달도 되지 아니하여 완성을 알리게 되었으며 최초에 생민의 의를 취하여 아름다운 명호를 걸어놓고 그 밑의 선산 묘소에 또 상석을 구비

하게 되었었다。그 이후로는 시제때가 되면 침식을 능히 할 수 있었으며 또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지나다가 성묘할 때에 편안히 할 수 있어 구차하지 않게 되었으니 선산 묘소의 위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후손된 사람으로 선조를 위하는 도리에는 당연히 이와같이 했어야 할 일이었다。그러나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아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다가 성의를 다하고 사실을 기록하게 됨을 거행하였으니 그 공로를 무엇이라 이를소냐?

아 산수가 매우 아름답구나 뒷편 산기슭을 올라가 내려다 보면 평탄한 모래펄 십리에 낙동강이 빙 둘러있고 창문을 열면 눈으로 바라보이는 여러개 산봉이 사방으로 둘러있고 소나무와 홰나무들이 울창하여 이것들 역시 좋은 경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옛날에 일가 중 선조되는 직암공이 안동 현감 재임시에 3개처 선산을 성묘하고 사당을 덕산에다 짓게 된 것은 바로 계내동에 묘각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또 여러가지 책을 구입하여 후손들의 학문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공은 조상을 위하고 후손을 감격하게 하였으니 어찌 정성을 영원히 높이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냐? 먼저 숭모의 뜻을 갖고 실천한 것에 있어서는 오직 영신씨의 선조를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재사를 지은 공로가 역시 직암공보다 얕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실천을 나란히 한 것이라 하겠다。아 위대하도다。종중 재산을 세워놓아 여러 곳에 쓸수있게 준비하니 여러 일가들이 모두들 따라주었다。이 태사공 묘소의 상석은 옛날 수사를 역임한 바 있는 영하씨가 특별히 석물이 매몰 되었기에 돈을 장만한 것이며 이 재실의 공사는 석전에 사는 홍의씨가 맡아 일을 충실히 하여 그의 힘 때문에 능히 완공이 된 것이다。그런고로 아울러 기록하여서 후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본받게 하였노라。

후손 영상은 삼가 기록하다

① 厥初齋記(上浦齋舊齋號) 溪內

洛東上浦溪內洞 有羅朝 太師公衣帶之藏 即吾尹 爲始之祖而其下 有數代 邱壠矣 自古在昔事 不能盡記而逮在中葉 以 先代鴻浦祠講堂 爲時享時雲仍憩息之所 一自掇後未遑肯構 恒爲憂悚者三十有餘祀矣 族從永臣甫 生長於湖北 始省 丘壠 惘恨齋舍之不存 與其本近邑諸宗 相議鳩財經之營之 不月告訖 竊取厥初生民之意 以揭嘉號而其下先壠 且備床石矣 自後 時享之時 憩息 能容 又遠近省過之時 貽安 不窘 不徒爲 先壠之威儀 爲後者之其於爲 先之道理 固當如是也 然而八域之散居 尙云不尠而至今未遑之 擧此竭誠經紀 其功 謂何如哉 噫 風土甚美 名勝爲區攀後麓而俯眺 平沙十里 洛江 縈廻 啓明牕而騁望 群巒四環 松檜蔚翠則此亦不爲無助也 昔 族先祖直庵公 作宰

嶺下 省審三處 先壟 營此書堂於德山者 無乃溪內有墓閣而然歟 且求書籍 倡起後來之文學 公之有功於爲先格後者豈非悠遠顯敞也哉 挹彼注玆 惟其永臣甫 慕先肯搆之功亦不下於直庵公而趾美幷駕 嗚呼偉哉 扶植宗財 以備調用群宗 咸服 是一太師公墓前床石 伊昔水使永夏甫 特爲石物之埋沒 捐金而爲者也 斯齋役也 石田居泓誼 克遵所使賴以克完者也 故 幷錄焉 以爲來許之勸勉則倣焉

後孫 永相 謹記

◇

② 상포재 중건기(시조공병사) 계내

윤씨 중에 칠원으로 관적을 하고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헤아릴수 없으며 온나라에 두루 퍼져 지방마다 동조의 후손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신라시대에 태자태사 고명원로 벼슬을 하신 휘 시영께서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의 저명한 씨족이 되었다。 나는 윤씨들이 벼슬한 인명록을 읽으며 일찌기 책장을 넘길때마다 긴 한숨을 쉬지 아니한 적이 없다。 대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이후로 장수와 재상들의 업적과 군호에 봉해지고 시호를 추증받은 것과 문과와 무과에 급제한 것과 충신 효자 학문자들이 수천여년간 크게 빛났으며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들은 모두 태사공 후손들이다。 아 그가 덕을 심어놓고 기반을 열어 후손들에게 내려 놓은 것이 어찌 크고 또 길지 아니겠느냐? 또 아름답고 또 성대하지 아니할소냐? 시조공의 묘소는 낙동강 상포 뒷편 칠원 계내리 위에 있다。 풍수지가의 전설에 의하면 금소반에 옥병이 있는 형국이라서 자손들이 영원토록 대대로 높이 나타날 묘지라고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치 즉 멀리까지 빛나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감히 믿으면서 그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복인이어야 길조의 땅을 만나는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싶다。 즉 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적선의 보답인 것이다。 이제 태사공의 적선한 사실을 볼 수 있으니 어찌 흠모하지 아니할소냐?

옛날 조선 정조대왕 조정에서 돈녕부판사에 오른 직암공 휘 사국씨께서 재사를 처음으로 지어놓고 아울러 태사공 묘소 밑에 위토 전답을 매입하고 그 지명으로 인하여 이름을 상포재라 하였고 또 후손인 영신씨와 우학씨가 사랑채를 지어 이름을 궐조재라 하였으며 그 후로 여러차례 증축과 보수를 하여왔으니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임오년에(1882년) 개수를 할때 후손들인 영주씨와 보근씨와 성학씨들이 사실상 그 공사를 주재하여 판돈녕공의 소망사업을 계승한 것이다。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불행하게 경인동란(1950년) 6·25사변을 만나 재티가 되어 모든 윤씨들이 바라보고 한탄한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금년 봄에서야 다시 건축

하며 몇달이 지나서야 공사가 끝이났다。 기둥 들보 석가래등이 옛 것에 비교하면 더 크고 미려하여 사람들은 이르기를 태사공 이후 갈수록 더욱 더 번창하고 선조를 추모하는 성의도 오래일수록 해이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더욱 존경하고 숭모하고 돈목하면 어찌 후손들이 오늘보다 얼마나 더 증가될지 알며 윤씨들에게 경사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어찌 가히 헤아려 알수 있으랴?

이 중건공사는 상근씨 보근씨 성학씨 등 세 분이 시작에서 끝까지 공사를 맡았으며 모두가 나와 더불어 친구라서 나에게 중건기 기문을 부탁하니 나는 그들 선세의 덕행과 후손들이 계승을 잘한 것을 좋게 여기어 감히 사양하지 않고 기술하였다。 그 수백년간의 공사기록은 옛 기문에 있으며 산천 경치의 선경은 성학군이 지은 칭송 글에 상세하게 쓰여있어 아울러 거론하지 아니한다。

무술(1958년) 9월9일

하산 성순영은 기록하다

② 上浦齋重建記(始祖公 丙舍) 溪內

尹氏之貫漆原者 其麗不億 遍國中 無地無之而同祖 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 始焉 爲東土望族也 余讀尹氏簪纓譜 未嘗不捲卷太息也 蓋自羅麗以來 將相勳業 封君贈諡 文武科甲 忠孝學問 煥赫于數千餘百載 至今不絶者 皆太師公雲仍也 嗚呼 其種德肇基 垂裕後昆者 豈不大且遠矣 亦其不休乎盛矣哉 公之墓 在洛江上浦之陰漆原溪內洞之上 相傳地家之說 以爲金盤玉壺形 子孫永世顯達之地云然 斯理也 遙潤延漫 余固敢信而藉使有之 其說 不曰福人逢吉地乎 則福 是爲善之報也 滋見公爲善之實也 庸非可欽也耶 在昔前朝 正廟朝 后孫判敎寧直庵公諱師國 創建齋舍 幷置祭田於 公墓下 因地而名之曰上浦齋 又有后孫永臣氏及禹學氏 築丙舍 以名厥初齋 后果經增葺而至距今十六年前壬午而改修則遠裔永周甫根晟學 實主其事 於是乎克承判敎寧公之志事也 歲未久而不幸 遭庚寅動亂 蕩爲灰燼 諸尹氏 爲之顧瞻咨嗟 經已多年 乃以今年春 重建 閱幾月 功告訖 棟樑間架 比舊更宏麗 人謂公後 去益昌熾而追遠之誠 久而靡懈也 由玆而篤尊慕崇敦睦則安知來者之尤有增於今日而尹氏之慶流滾滾 豈可量哉 是役也 相根甫根 晟學三君 始終董事而皆與余善 屬余記 余樂道其世德之美繼述之善 乃敢不辭而書之 若其數百年之沿革 有舊記在而於山川雲物之勝 晟學君之撰頌 詳焉 玆幷不贅擧云爾

戊戌重陽節

夏山 成純永 記

③ 상포재 중건기(시조공 병사) 계내

칠원은 산천의 아름다움이 경남지방에서 으뜸인데 천주、청룡、무릉、자양등의 여러곳 명산들이 이곳으로 향하여 사방을 둘러있으며 염계와 낙동강 두곳 물이 섞이어 합세하여 서북쪽을 둘러 비치고 있어 영기가 모이고 있으니 어찌 현인과 군자가 그 사이에서 빛나게 출생하지 아니할소냐?

삼가 우리 시조공께서 처음 땅으로 내려오실때 어머니 꿈에 신령이 찾아와 말하기를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시영으로 하거라 하였다. 잠을 깨어 이상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이름으로 지었다. 성장하여 경서와 사기와 백가집을 무불통지 하였으며 만년에 관직이 태자태사고명원로에 이르렀다. 묘소는 칠원 서쪽 상포 남향의 언덕진 곳에 있다. 후손 중에 고려시대에 이부상서를 역임한 휘 을부와 구성군에 봉해지고 충의공 시호를 추중받은 휘 길보의 묘소가 있고 조선시대 명종의 조정에서 참봉 벼슬을 한 휘 예안을 시조공 묘소하에 장례하였다. 군부판서공 휘 수의 배위인 무안 박씨와 칠원 부원군에 봉해지고 정평공 시호를 추중받은 휘 자당의 묘소들은 또 동서 양쪽 산기슭에 있다.

옛날에 몇칸짜리 재실이 있었는데 비바람을 겪어 여러차례 개축하고 여러차례 퇴락되었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정조대왕시에 후손인 돈녕부 판사의 아호는 직암이고 휘는 사국이니 안동 현감으로 부임하여 묘소가 폐허된게 개탄스러워 칠원의 여러 일가와 더불어 상의하여 제수위토를 매입하고 재사를 처음으로 지었었다. 그 이후로 영하씨가 사업을 맡아 각처에 있는 선산 묘소 비석을 보수하였고 족숙되는 영신씨가 금릉에 살며 여러지방 일가들과 상세하게 문의하여 이 재실을 중건한 것이다. 얼마후에 또 퇴락이 되어서 전 참판 벼슬을 한 상학씨가 칠원 군수로 있는 영직씨와 유사를 맡고 있는 영희씨와 더불어 중건을 계획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불초한 보근이 외람되게 종사를 맡아온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일찌기 선조들이 이루지못한 것이 한스러워 칠원 사는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분발하여 재산을 모으고 각처에 사는 여러 일가들까지 성금을 낸 것이 여러만냥이며 같은항렬 되는 상근과 성학이 더욱 돈과 성의를 다하여 임오년에(1942년) 일을 시작하여 계미년에(1943년) 완공을 하였으니 본채가 네칸이고 사랑채가 세칸이며 기와로 지붕이 되어 영원히 보존될듯 하였으나 경인년(1950년) 혹독한 총포 화재가 칠년뒤에 닥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선산 묘소는 엄연하고 옛 집터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성묘시에 피눈물이 눈에 고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래서 감히 미약한 성심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또 전국의 여러 종친들에게 두루 알렸더니 여러 일가들이 응해주어 일을 감히 지체시키지 않고 정유년(1957년) 3월에 시공하여 무술년(1958년) 4월 준공하니 본채는 다섯칸이고 사랑채는 세칸인데 기와로 덮었다。 모든 면에서 전과 비교하면 우수하였으며 옛 이름인 상포재로 편액을 걸었다。 이래서 묘소길도 더욱 상쾌 하여졌고 영혼도 엄연히 기뻐하였을 것이다。 산천이 묘소를 감싸고 있어 더 빛나고 풍월이 문과 창으로 들어와 더욱 청한하여졌다。 재사에서 목욕재계할 수가 있어 가히 춘추제사에 흠향할 수 있으며 실내가 완비되어 가히 일가끼리 윤리를 돈독히 할 수 있으니 중건사를 천년두고 말하고 많고 많은 관리가 시대마다 연속될 수 있으리라。

아 우리 일가는 비록 번성하고 있으나 세력을 가진 사람은 적은데도 매번 일을 당하면 모든 일에 다같이 분발하였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없으니 이 어찌 우리 선조들의 혁혁한 아름다운 음덕이 정녕코 우리 후손을 뒤에서 도운 것이 아니랴 후일 자손들이 선조의 소망을 잘 지켜서 더욱 존경하고 더욱 사모하여 잊지않고 또 게을리 아니한다면 이 재실의 보전은 가히 무궁함을 기대하리라。

서기 1958년 무술 9월9일

후손 보근은 삼가 지음

③ 上浦齋 重建記 (始祖公 丙舍) 溪內

維漆 山川之勝 擅于斗南也 天柱 靑龍 武陵 紫陽諸名山 拱揖環抱于四面 滌洛二水 渾融合勢 映帶于西北 靈氣鍾聚 豈無賢人君子奕生其間哉 敬我始祖公嶽降之初 母夢神人 來告曰兒生 名以始榮 覺而異之 遂而命名焉 及長經史百家 無不通 晩 官至太師顧命元老 墓 在縣西上浦面陽之原 后孫吏部尙書諱乙富 龜城君忠義公諱吉甫 及我明廟叅奉公諱禮安 祔於兆下 判書公諱秀之配務安朴氏 及漆原府院君靖平公諱子當之墓 亦在東西麓焉 舊有數間丙舍 閱歷風雨 屢葺屢頹 粤在 正廟 后孫判敦寧直庵公諱師國 南莅花山 慨先阡之凌替 與本鄕諸宗 相議置祭田創齋宇 厥後 永夏氏宰文昌 修補各處先塋石物 族叔永臣氏 寓金陵 詢謀于列邑宗中 重建斯齋 未幾 亦已頹圮而前叅判尙學氏 與本倅永稷氏 有司永熙氏 謀欲以重新之 未果而皆不幸下世 不肖甫根 猥 任宗事數十星霜 嘗慨然於先賢之遺意 遂與本鄕之諸宗 發奮鳩財 各處僉宗收誠 累萬 族從相根 晟學 尤致物誠 經始於壬午 告功於癸未 正舍四間門廊三間 用瓦完覆 擬保永久 豈料庚寅之兵燹 侵酷於七年後哉 然 先壠 儼然 舊址尙存 省掃躕躇 自不覺血淚沾眶 乃敢奮發微誠 又輪告于八域僉宗 僉宗 響應 事敢不滯 起工于丁酉三月 告竣于戊戌四月 正舍五間門廊三間 以瓦完塗 徵一切制度 比前有優 以舊號上浦齋 扁之 於是 岡阡

添爽 精靈 儼悅 溪山 繞園而增采 風月 入戶而彌淸 籩豆 整齊 可以致春秋陟降之享 堂室 備全 可以序花樹天倫之篤 袞袞經事 千古可誦 濟濟衣冠 有時可連 吁 吾宗 雖蕃 有勢者絶少而每當先事 一切共奮 靡有不成 此豈非我先祖 赫赫嘉謨 護贗後 丁寧者乎 後之苗裔 克遵先志 愈尊愈慕 而不忘且不怠則斯齋之保全 可無窮期矣

檀紀四二九一年戊午重陽節

后孫 甫根 謹撰

◇

④ 검단재 중건기(태사국판사공 휘 황) 검단

칠원의 북쪽에는 많은 명산과 명승지가 있는데 바로 검단지역이 최고가 된다。주상봉을 청룡 무릉이라 하는데 세갈래로 내려 뻗어 가파르게 서있고 물결을 일러 염계 낙동강이라 하는데 두가닥이 옷깃처럼 둘러있고 지맥은 호랑이가 엎드려 있고 용이 비행하듯 북으로 달리고 서로 달리며 봉우리가 갈려져 학이 춤추고 봉이 날으듯 별처럼 펼쳐있다。절경과 기이한 형세는 모두가 풍수가 감정한 것과 같으니 진실로 위대한 사람과 군자의 혼령이 편안히 있을 곳이다。

칠원윤씨는 우리나라에서 명문가로 알려졌다。시조는 신라시대 태사공 휘 시영에서 부터 신라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까지 이르러 저명한 정승 판서와 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받으며 문장과 덕행과 충효와 절의가 빛나 대대로 계승돼 이미 국사와 야화에 찬연히 빛나 다시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오직 이곳 산의 한 지역은 토지신을 거느릴 수 있는 대대의 묘소가 있다。태사국판사 휘 황과 보윤공 휘 거부와 배위 유씨부인과 참정공 휘 송제와 배위 송씨 부인과 판서공 휘 수와 대언공 휘 자의 7위 묘소들이 모두 이곳에 있어 상포 나내리에 있는 태사공의 묘소와 거리가 비록 약간 떨어져 있으나 역시 동일한 산맥이 되고 생장 거주 초상 묘지들이 고향땅과 멀지 아니하여 저승길에서 모시는 즐거움이 살아있는 땅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자손들의 경건한 마음은 더욱 오랠수록 해이하여지지 않으나 재사는 세월이 오래되고 병화를 겪으면서 퇴폐되고 전복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수도 하여보고 중수도 하면서 제향을 폐지하지 아니한 것은 전 돈녕부 판사인 직암공 사국의 독실한 성의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후로 회산군수를 역임한 영하와 영신과 칠원군수로 있던 영직이 선인들의 의지를 계승하였으니 어찌 그 할아버지에 그 후손이라 말하지 아니할 소냐? 오직 검단재만은 시작한지 오래되었어도 완성하지 못하다가 바로 무자년(1948년)에 상의하여 기축년(194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옛터를 개척하여 새 재실을 건축하니 본채는 4칸이고 사랑채는 3칸이었다。환한 빛이 높이 올라

다시 큰 재실을 보는듯 하였으며 산천까지 다시 빛나 초목들이 생기를 들어내니 여기에 선조의 혼령이 오르내려 그 양양한게 계신듯 하며 후손들의 효도와 공경하는 마음은 계속하여 스스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리고 여기에서 목욕재계하고 여기에서 일가간 일을 강의하고 여기에서 글과 예절을 복습시키어 후생에게 욕됨이 없게 하면 윤씨들 번창의 끝을 어찌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의 친구인 성학 역시 선조를 위함이 독실하여 상근 홍근과 더불어 혹은 힘으로 도와 수리한 곳도 있고 혹은 모든 것을 전담하여 증설한 곳도 있으니 이 재실 역시 그 중에 하나이다。 나에게 기문을 부탁한 것은 본래 나와 친구이며 또 선대로부터 아는 사이라서 사양하지 못하고 대략 서술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기해년(1959년) 1월15일

도성 이중계는 삼가 기록하다

④ 檢丹齋重建記(太史局判事公 諱 璜) 檢丹

漆堤之北 多有名山勝地 即檢丹一局 爲之最也 主山曰青龍 武陵 三角冠笏 削立 流派曰濂溪洛江 二羽襟帶 縈廻 支脈則如虎伏龍行而北走西馳 分峰則如鶴舞鳳飛而星羅 辰列 絶處奇形 盡爲堪輿師 所鑑定而允宜碩人君子妥靈之 地也 盖尹之氏 籍漆原 著槿域 自肇祖新羅太師諱始榮 以 至歷羅麗及鮮 名公巨卿 封君贈諡 文章德行 忠孝節義之 爀 式世相承 既燦耀於國史野乘 不須更贅 惟玆山一局 管 領后土而連世窆兆 自太史公諱璜 甫尹公諱鉅富 配夫人柳 氏 叅政公諱松磾 配夫人宋氏 判書公諱秀 代言公諱樜凡 七位靈塋 皆在於此 與上浦柰內山太師公墓 相距 雖稍間 亦一山之脈而生居死葬 不殷故土而陰府侍衛之樂 無異於 陽界 抑子孫之虔敬 愈久不懈 齋舍 歲久而頹敗于經亂而 顚覆者 改修焉重葺焉而不廢香火者 前有判敎寧直庵公師 國 篤修之誠 始矣 後有檜山守永夏及永臣 漆原守永稷 亦 先人之志 繼焉則豈不曰有是祖有是孫者歟 惟檢丹齋舍則 營久未就 迺合謀於戊子而起工於己丑 拓舊基而建新齋 四 間正堂 三間門廊 昭耀飛騰 復見輪奐 山川 增輝 草木 呈 采而於是焉祖先陟降之靈 洋洋乎如在 孱孫孝悌之心 油油 然自生 俎豆於斯 齊宿於斯 講花樹於斯 習詩禮於斯 無忝 所生 尹氏之昌熾無窮 豈可量哉 余友晟學 亦篤於爲先尤 甚 與 相根 弘根 (弘博) 或有助力而修葺處 或有全担而 增設處 斯齋也 亦其中一也 屬余記 素與余善 又深先契 辭不獲 略叙如右云爾

己亥上元節

道城 李中啓 謹記

⑤ 구혜재기(좌사보공 휘 계) 대산

우리 칠원윤씨는 신라시대 태자태사고명원로 휘 시영을 최초로 성씨를 갖게 된 시조로 모시고 지나온 연대가 천년이 넘어 고려와 조선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속에 몇차례 병란을 당하였으며 시대가 변천하여 그 숫자는 알 수 없어도 자손들은 혹은 번창하고 혹은 쇠퇴하여 전국에 흩어져 살아 선조의 묘소도 계속하여 수호하기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태사국판사공 밑으로는 대수가 분명하지 않고 보윤공 밑으로는 또 묘소들이 실전되어 있음을 족보에서 매우 많이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자손된 사람들에게 크게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옛날부터 커다란 옛 무덤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무덤은 바로 윤씨릉 이라고도 하며 혹은 윤정승 릉이라고도 이르고 있다。 그런데 옛날 충주 오갑리에 사는 일가 정주라는 이가 선산의 묘소를 탐색하여 비석 머리부분인 깨어진 돌과 하얀 사발 한 쌍과 은가락지를 찾아내었고 함안 마수리에 사는 일가 상징씨가 종중에 전달하여 경자년까지 내려왔으며 칠원 사는 일가 찬연씨가 거제사는 일가 방민씨와 더불어 또다시 찾아가 상세하게 살펴보니 고총의 앞과 뒤와 좌측과 우측에 지방 사람들 무덤이 여러개 있으며 혹은 비석들을 제방에 뽑아다 버렸다고 이르고 있고 지금까지 상세하지 아니하나 그 후로 함안과 칠원에 사는 여러 일가들이 말하고 있는 묘소의 칭호가 이미 공의 성씨와 부합이 되고 릉이라 말하는 것은 묘소를 이르는 것임에 틀림없고 옛 노인들이 유전하는 말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좌사보공의 릉이 됨은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런고로 을묘년에 이르러 곁에 가까이 있던 고총들을 파서 이장하고 바로 개사초를 하였더니 이 자리가 지방 사람들이 이르는 금귀몰니형 즉(금거북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모양)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연화부수 즉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모양)이라 하니 바로 명칭과 위배된 것이 없는지라 병진에 처음으로 시제의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지만 목욕재계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 장소는 준비에 이르지 못하였다。 수십년 뒤에 이르러 칠원 사는 춘박씨가 종약장을 맡으며 그런 사업을 펼칠 장소가 없음을 근심하여 모여서 상의하고 재물을 모아 재사를 공의 묘소에서 몇십자 떨어진 곳에 신축하고 그 지명으로 인하여 현판 명칭을 구혜재라 하였으니 본 채는 네 칸이고 사랑채는 세 칸이며 곡간은 담밖에다 별도로 세 칸을 지었다。이렇게 해서 후손들이 목욕재계 할 수 있는 자리가 환연히 갖추어 졌으니 일가인 정주와 상징과 찬연과 방민씨들이 선조 묘소를 탐색한 성의와 춘박씨의 유물 수호 계획들이 어찌 위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할소냐?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이 재실이 성사된 것에 반드시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만 후손의 상례로 남게되는데 춘박씨는 이 재실을 준공한지 몇년이 되지 아니하여 죽었으며 문중의 여러 원로들도 차례로 죽어갔으며 문장가도 말세가 되어 물어 볼 곳도 없어 한탄을 금하기 어려웠으며 현재 대동족보를 발간하는 때를 당하여 각 처의 재사 기문을 모집하였는데도 이때에 다만 내가 지은 사운시 한 구절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고로 병들은 몸 졸렬한 문장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기는 불가능 하였지만외람되게 앞과 같이 기록하였으니 소원컨대 여러 일가들은 상세하게 보고 살피어 족보의 끝에 기재하여 후손에게 전해주어 참고하게 하면 크게 다행할 것이다。 이 재사를 위하여 싯귀를 새로 지었다。

이곳에 새로 집을 지으니 눈앞에 풍경은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구나 넓고 넓은 평야는 하늘과 연하여 닿았고 세차게 흐르는 긴 강은 바다로 향하여 흐른다。 서리와 이슬은 유연하게 슬픔을 일으키고 시서가 겸비되어 춘추로 강의하네 우리 집안 유훈은 오직 충성과 효도이니 영원토록 전승되어 지체되지 말지어다。

서기1980년 경신 8월

후손 순원은 삼가 기록하다

⑤ 九惠齋記(左思補公 諱 啓) 代山

惟我漆原之尹 自新羅太子太師顧命元老諱始榮 始爲得姓之祖則歷年 千有餘載 麗韓朝易中 累被兵燹 時代變遷 不知其數則子孫 或盛或衰 散在八域 先祖墳墓 不能繼承守護故 太史公以下代數不明 甫尹公以下 亦是兆域失傳 觀於譜牒 甚多則是爲子孫者之大不幸也而惟今慶尚道咸安郡代山面九惠里則舊有一大古塚 自古來傳說 是尹氏陵云或尹政丞陵云故 昔 忠州烏甲宗人禎周 探索先塋中求得碑頭破碎及明器鍮鉢一雙銀環 居咸安馬輪宗人商徵 傳于宗中而至于庚子 居漆原宗人燦然 與巨濟宗人邦徹 又往省審則塚之前後左右 多有邑人墳墓而或云碑碣 拔棄於堤堰 至今未詳 其後咸漆諸宗所論墓山之稱號 既合公姓 陵之爲言墓之謂也則故老之流傳 如此 其爲左思補公 無疑焉 故 至乙卯 掘移傍近之塚 仍爲改莎 是則地方所謂金龜沒泥形一云蓮花浮水則無違名地而丙辰 始行歲祭之儀 未遑齋沐供需之所 至于數十年 居漆原春博氏 任宗約長 憂其無肄業之所 合謀宗議鳩財 築齋于公墓數弓許 因其地名 扁其楣曰九惠齋則正堂四間 門廊三間 庫舍 垣外 別置三間 於是乎後裔齋宿之所 奐然俱備則宗人禎周氏 及商徵 燦然邦徹諸公 探索先塋之誠 春博氏 遺後守護策 豈不曰偉哉雖然 齋既成則必有詳記顚末 以遺後孫之常例而春博氏 竣工後未幾年而歿 門中諸老 差第凋零 文章叔世 無處憑問

難禁感恨而今至庚申大譜發刊之際 收集各處齋舍記文 在是則只有不肖所記四韻一句而已 故以病軀拙文不能詳錄猥撮如右爲記 願僉宗 詳細鑒察 若載譜牒之末 傳之後承以爲參考 幸甚矣 其韻 曰

棟宇新成 此一區 眼前風景 畵難收 茫茫廣野 連天接 滾滾長江 向海流 霜露 油然生怵惕 詩書兼備講春秋 吾家遺範 惟忠孝 永世相傳勿替休

一九八〇年庚申仲秋

後孫 順遠 謹記

◇

⑥ 유원재기(충효공 휘 환) 유동

지리산이 동으로 삼백여리쯤 내려와 옛 가야국이 있으니 현재 경상남도 함안군이다。 이 곳은 무릉 산성이 봉마다 높이 솟아있고 낙동강물이 세차게 칠백여리를 길게 흘러 그 중간에 좋은 지방과 저명한 산들이 지방마다 골마다 여기 저기 있어서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특별히 계내산 수곡은 금반옥호형(금상에 옥병모형)인데 우리 시조이신 태사공이 영면하신 묘소가 있고 칠북 검단은 선인취적형(신선이 피리부는 모형)인데 태사국판사공의 체백이 감추어진 곳이며 대산구혜는 금귀몰니형(금거북이 진흙당에 들어가는 모형)인데 고려시대 좌사보공의 묘소가 있는 곳이며 유원은 연화반개형(연꽃이 반쯤 핀 형국)인데 칠원백 충효공의 묘소가 이 곳에 있고 공의 묘소계하에는 공의 아들 대제학공 묘소가 있고 그 곁에는 공의 동생인 칠성군 휘 장과 사윤공 휘 화와 칠성부원군 휘 공과 대제학 휘 수상의 제단비가 있다。 그 밑에는 방손되는 전 판서 직암사국공이 화산현감으로 있을 때에 본 손들과 더불어 재사를 중건하였는데 시경 노송편에 이른바 할아버지가 복을 내려 자손들이 받았다는 의의를 취하여 간판을 수지재라 하였으며 그 후로 전수사인 재건이 회산 군수로 있을 때에 묘소의 비석과 재사를 중축하였으며 이어서 영하와 명근이 협동으로 중건하고 중축한 후에 처안이 허물어진 곳을 보수만 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습기가 스며들어 무너질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영옥과 시학이 경상도와 충청도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같이 상의하고 힘을 합하여 명당지로 옮겨 건축하였는데 불행하게도 6·25사변을 만나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었다。

그 후로 5년이 지나 홍근의 지극한 정성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여 을미년에(1955년) 준공하니 원채는 4칸이고 사랑채는 3칸인데 가운데는 대문이 되고 좌측은 방이요 우측은 창고이며 담밖에 별도로 3칸을 지어 창고로 쓰게 되어 후손들이 일을 할 장소가 환연히 갖추어졌다。 덕원이 지은 수지재 기문이 있고 그리고 춘박이 종약장직을 맡은 시기에 현판을 고쳐 유원

이라 한 것은 지명으로 인한 것이며 문간을 수지재라 한 것은 옛 것을 의거하여 이름한 것이다。 멀리 사방을 바라보면 칠원의 아침 해와 뒷산의 석양과 가야의 훈훈한 바람과 무릉의 개인 노을과 솔에 부는 바람과 벽에 걸린 달빛과 열평쯤 되는 연못이 있어 뚜렷한 명승지의 선경을 지어낸다。 혁혁한 높으신 혼령이 엄연하게 그 사이로 오르고 내려올 것이다。

재실이 이미 낙성되었으니 반드시 명칭이 있어야 하며 명칭이 있으면 반드시 기문을 짓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범례인 것이다。 현판을 바꾼 것은 몇년 전이다。 공의 자손들 수가 헤아릴수 없으며 팔도강산 여기저기 살고있다。 세상의 변천이 더욱 심한 속에서 문중의 원로들이 차례로 늙어 죽었고 때마침 말세를 만나 문물이 침체되었다。 그런고로 사실 기문을 걸지 못한 것이 자손들의 한탄이었다。 경신년 1980년 대동족보 발행시에 이르러 불초한 형수가 임원직 말석에 외람되게 참석하여 비록 단문하고 졸필이지만 대략 시말을 앞과 같이 적었다。 엎드려 소원컨대여러 일가들은 공의 음덕과 여경이 후손에게 이르게 되었으니 시경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너의 선조가 생각나지 아니하느냐 서로들 덕을 닦아라 하였으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영원토록 전승하여 그 아름다움을 바꾸지 아니하면 거의 끝없이 번창할 것이다。 이 어찌 선조들의 음덕보답이 아니겠는가? 후일 집필자들이 잘 살펴보기를 기다리며 기문을 지었노라。

경신년(1980년) 8월15일

22대손 형수는 삼가 지음

⑥ **柳原齋記(忠孝公 諱 桓)** 柳洞

智異山 東走三百餘里許 舊有伽倻國 今慶尙南道咸安郡是也 武陵山城 峰峰屹立 洛東江水 滾滾長流七百里 其間勝區名山 散在方方谷谷 不知其數 然 特而溪內藪谷金盤玉壺形 惟我始祖太師公永世幽宅 漆北檢丹仙人吹笛形 判太史局事公衣履之藏 代山九惠金龜沒泥形 高麗左思輔公遯跡之地 柳原 可潛蓮花半開形 漆原伯忠孝公兆域 在此公之墓前 有其子大提學墓 其側 公之弟漆城君諱樟 左司尹諱樺 漆城府院君諱椌 大提學諱守常 壇享碑 在焉而其下 傍裔前判書直庵師國 守花山時 與本孫諸族 重建齋宇取魯頌所謂祖先降祉 子孫 受之之意 扁其楣曰受祉 其後前水使載健 守檜山時 增修墓道及齋舍 仍而永夏與明根協同 重刱增制後 處安 隨毁修緝 歲久浸濕 至于傾頹 永玉曁時學 與嶺南湖西諸族 合謀併力 移建于爽塏處 不幸値庚寅兵燹 燒盡無餘 越五年甲午 以弘根之殫誠 經之營之 乙未 竣工 正舍四間 門廊三間 中爲門而左房右庫 垣外 別置三間 以爲庫舍 後孫肄業之所 奐然具備矣則德遠所述受祉齋記在焉而春博 任宗約長職時 改其楣曰柳原者

因其地名也 門曰受祉者 依舊以名之也 遙望四圍 漆原朝陽 後山落照 伽倻薰風 武陵晴嵐 松風蘿月 半畝方塘 卓然勝區仙景 赫赫尊靈 儼然陟降乎其間矣 齋旣成則必有號 有號則必有記文 古之常例 改楣有年 公之子孫 其麗不億 散居八域 世變益甚之中 門中文老 差第凋零 時値叔世 文物 浸滯故 未遑實記 是爲子孫之恨 至于庚申一九八〇年大譜發刊之際 不肖亨洙 猥忝任員之末席 雖短文拙筆 略撮顚末如右 伏願僉宗 公之餘蔭 以及於後孫則詩不云乎 無念爾祖 聿修厥德 以父祖之心 爲心 永世相傳 勿替其休 庶幾昌大無窮 此豈非不食之報歟 以俟後來秉筆者之明察 是以爲記

歲庚申仲秋節

二十二代孫 亨洙 謹記

◇

⑦ 수지재 중건기(현 유원재 : 충효공 휘 환)

유동 칠원이란 옛날 읍명이고 함안이란 새로운 군명이다。 천주산과 화개산은 글자 뜻대로 확실히 화려하게 동북으로 나열하였고 염계와 낙동강 두 곳의 물은 명성대로 송나라 현인들을 배출한 곳과 부합하여 서남으로 세로로 흐르니 진실로 경남은 지형이 아름답고 걸출한 인물을 내는 영지이며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읍내의 서면 동쪽에 옛 마을이 있으니 유동이라 한다。 옛날에 나의 이십대조이신 충효공이 생장하신 옛 집터와 체백을 감추신 곳 즉 묘소가 있는 곳이다。 충효공은 정치인으로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재목으로 고려의 말기를 당하여 여러 대동안 문무관리를 배출한 계통을 전승하여 5세대 왕을 차례로 섬기며 세차례 수상을 제수받았으니 그의 높은 덕과 넓은 업적이 당세에 높이 드날렸다。 은퇴의 나이에 이르러서는 유동의 농사집으로 돌아와 뜻에 따라 한가롭게 살다가 홍무 병인년(1386)에 임종하시니 바로 고려나라가 패망하기 칠년전이었다。

애석하도다 그의 나라에 보답하고 국민을 사랑하던 마음이 은퇴하고도 게으르지 아니하여 재산을 내놓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채권을 거두어들여 불에 태웠으니 성심과 믿음이 넓고 넓어 물이 공의 밭에서 솟아나와 한재를 구제하였으니 당연히 사림들의 추모로 홍포서원에 제향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목은 이선생이 칭찬한대로 은혜를 베푼공의 자취가 사라지지 아니함이 바로 이것이다。

아 슬프도다 시대가 다르고 일들이 변화하여 세대는 계속 멀어져도 선조를 추모하고 인륜을 지킴이 오래일수록 쇠퇴되지 아니하여 묘소에 세운 비석 일체와 제사올릴 위토와 재사들을 잘 보호한 것이다。 공의 방후손되는 전 판서 직암공 휘 사국이 화산현감으로 부임하여 본 손 되는 여러 후손과 더불어 재사를 중건하고 현판

을 수지재라 하였으니 시경 노송편에 이른바 선조가 복을 내려 자손들이 받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 후로 여러 해가 지나 허물어진 곳을 보수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당시 사업 실적은 이미 전인들의 기문이 갖추어져 있어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었으나 또 불행하게도 경인년(1950년) 난을 당하여 총탄을 맞아 불에 타서 남은 것이 없었으니 이곳은 자손들이 눈물을 머금고 두려워하던 곳인데 슬픔을 머금고 펴보지 못하고 곧 3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다. 계사년(1953년) 가을 시제때에 이르러서 여러 일가들이 염려도 하고 서로 의논하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여러 일가에게 고루 통지하여 재물을 모으고 일꾼을 모아 갑오년에(1954년) 공사를 시작하여 을미년에(1955년) 준공하니 비록 단청을 칠하는 장대한 미려는 없으나 석가래 기둥 주추돌이 질박하고 또 견고하며 대청과 실내는 넓지도 아니하고 좁지도 아니하고 재계하고 연회하는 곳과 목욕시설이 각기 적당하게 있어 매년 시향에 제사 올리는 날이면 후손들이 모두 이 재실로 모여 정성과 공경을 가지고 예절을 지키며 연령과 항렬대로 엄격하게 일가의 연회를 베풀며 위로 선조의 덕업을 추모하고 아래로 일가끼리 돈목함에 힘을 쓰니 공의 영혼이 강림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서 기뻐하며 많은 복을 주었다. 직암공이 재사 현판의 뜻을 여기에 두었다고 할까? 이 재사의 낙성이 어찌 여러 일가들의 지극한 정성때문이 아니며 사실상 선조의 말없는 도움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 공사에서 공사를 주관한 홍근씨의 노력이 사실상 컸다. 우리 일가들은 돕고 힘쓸지어다.

대한민국 37년(1955년) 을미년 9월9일

충효공 27대손 덕원은 삼가 기록하다

⑦ 受祉齋重建記(現柳原齋 : 忠孝公諱 桓) 柳洞

漆原 古邑 咸安 新郡 天柱 華蓋 字合確固華麗之意而羅列東北 濂 洛二水 名符宋賢輩出之地而經其西南 固慶南形勝而人傑之靈 猗乎宜矣 邑之西郡之東 有一古里 曰柳洞 昔 我二十代祖忠孝公 生長遺址 衣履之藏也 公 以經綸濟世之材 當麗末 承襲累世簪纓之緒 歷事五朝 三拜首相 其崇德廣業 顯揚當世矣 及其致仕之年 歸老於柳洞別墅 放懷優遊而終於洪武丙寅 乃麗朝運訖前七年也 惜哉其報國愛民之心 退思不倦 散財賑乏 收券燒之 誠乎冥漠水湧公田 以救旱熯 宜有士林之慕而鴻浦書院之享 所以設也 牧隱李先生所稱餘澤不泯者 此也 嗚呼 時異事變 世代綿遠而慕先秉彝 愈久不衰 墓道儀物 祭田齋宇 謹奉守護矣 公之傍裔孫前判書直庵公師國 守花山時 與本孫諸族重建齋宇 扁之曰受祉齋 蓋取魯頌所謂祖先降祉 子孫 受之之意也 其後 累變星霜 隨毁隨緝 固非一再而該時事績

己備於前述 不必贅擧焉 又不幸於庚寅之亂 彈丸所擊 燒盡無餘 是 子孫飮泣悚懼之處而含悵未擧者 奄過三年矣 越至癸巳秋享時 諸族 發慮胥謀 輪通湖嶺諸族 鳩財募工 經始甲午 工竣乙未 雖無丹碧輪奐之美 榱棟礎砌 旣質且堅 廳堂室堧 不寬不隘 齋戒飮讌 沐浴藏置 各有所宜 每時祀祼薦之日 雲仍 咸萃於斯齋 著存誠敬 一遵禮制 以齒以行 嚴陳族讌 仰慕祖先之德業 俯勉宗族之敦睦則公之尊靈陟降 悅豫於冥冥之中 錫之多祉矣 直庵公 扁齋之意 其在斯乎 是齋之成 豈非僉宗之殫誠 實意祖先之默佑歟 是役也 弘根氏 董役替代之勞 實大焉 惟吾諸宗 勗哉勉哉

大韓民國三十七年歲乙未重陽節

忠孝公二十七代孫 德遠 謹記

◇

⑧ 영모재기(판결사공 휘 조생) 충효공후 청양

옛 칠원골에 유동이 있으니 나의 18대조고이며 고려시대에 문하시중 칠원백 충효공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공의 손자인 판결사공이 이 곳에서 생장하였는데 그 지역을 상상하여 보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로 과감하게 스승의 자리를 물리치고 명당지를 선택하여 비로소 이 곳으로 이사와 살은 것이다。 옛날에는 열성이라 하고 지금은 정산이라 하는데 호서지방의 명산인 칠갑산 한 줄기 긴 산맥이 봉마다 꾸불 꾸불하여 북에서 남에 이르고 서에서 동에 이르러 이십여리쯤 내려와 개미허리처럼 고개진 곳에 옛날에는 팔풍정이 있었으니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명승지 이었을 것이며 근방에 명덕봉이 있는데 첩첩이 높이 솟아 그 세력은 장려하며 망망하게 넓은 평야는 환하게 널리 열려있고 세차게 흐르는 금강 물은 외곽에서 길게 흘러 의지있는 선비와 은일 처사들의 터가 되기에 적당하였다。 형제가 뜻을 같이하여 형은 북쪽으로 아우는 남쪽으로 살며 공은 죽어 현재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명덕봉 서쪽 산기슭 서남서향(갑좌)에 장례를 하였으니 세월이 오백년 가까이 되었다。 자손들이 번창하여 그 수가 헤아릴수 없으며 고위 관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이 땅을 선택한 은덕이 후손에 이르게 되었음에 의심할 바가 없었다。 생각을 하여보니 공의 묘소 아래에 목욕재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창건한연대수는지금상세하지아니하다。병오년에(1966) 이르러 공의 15대손인 영배씨가 여러 일가를 모으고 상의하여 비로소 묘소 비석을 구비하였고 그의 아들인 인학씨가 대를 계승하여 재사를 중건하고 영원토록 추모한다는 뜻을 취하여 간판을 영모재라 하였다。 그 후로 세월이 오래되고 햇수가 길어져 재사가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되어 형의씨가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상의하고 힘을 모아 재사를 중건하고 비석을 세워 묘도를 갖추게

되었으니 그 선조를 위하는 성의와 노력이 실로 지대하였다。불초한 지학과 나 중학이 이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였으니 원채는 6칸인데 중앙 2칸은 대청으로 쓰게 되었고 사랑채는 3칸인데 중앙은 대문을 내고 좌우측은 창고로 쓰고 우측에 3칸 집을 지어 상용하는 곳을 갖추었다。수리하고 보수하니 옛 재실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새로워졌다。멀리 사방을 바라보면 동쪽에서 흐르는 금강은 속세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서쪽으로 둘러있는 칠갑산은 저녁 노을이 휘황찬란하며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망월산은 때때로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사방 들에 풍년이 들고 북쪽에는 앵봉산이 있어 맑은 노을에 승경으로 뚜렷한 좋은 구역 명승지이니 공의 높으신 혼령이 엄연히 그 사이에 강림하시리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역시 여러 일가들의 지성과 협력으로 신유년(1981년) 여름에 또다시 상석을 만들어 새로운 묘의로 삼았으며 옛날에 있던 상석은 산신제 상석으로 사용하여 묘도의 여러 의식이 거의 구비하게 되었으며 재사도 갖추어졌다。후손들에게 부탁하노니 이 재사는 묘소 제사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서 겨울까지 시절따라 이 재사에 오게되면 청소에 게을리하지 말고 선조의 유업을 강의하고 외워 아름다운 풍속을 지체시키지 말아 조상들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영원토록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한다면 이 어찌 우리 문중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 서로 더불어 힘쓰고 도와줄지어다。이것으로 기문을 하였노라。

신유년(1981년) 8월15일

16대손 중학은 삼가 기록하다

⑧ 永慕齋記(判決事公 諱 祖生) 忠孝公后 青陽

昔漆原縣 有柳洞 惟我十八代祖考高麗門下侍中漆原伯忠孝公遯跡之地也 公之孫判決事公 生長於此 想其地域 遙遠京師故 勇撤皐比 擇其地靈 始移居于此 古之悅城 今地定山 湖西名山 七甲山一枝長脉 峰峰逶迤 自北以南 自西以東 走來二十有餘里許 蟻腰作峙處 舊有八風亭 今雖癈墟 一時名勝 近有明德峰 重重屹立 其勢壯麗 茫茫廣野 豁然大開 滾滾錦江 背廓而長流 宜乎有志士處世之基也 兄弟同意 兄北弟南 公之旣歿 葬于今青陽郡青南面上場里 明德峯西麓甲坐之原 歲近于五百年間 子姓 蕃衍 其麗不億 簪組不絕 公之擇地之餘蔭 以及於後孫 無疑也 竊念公之兆域之下 舊有齋沐肄業之所 創建年代 至今未詳而至於丙午 公之十五代孫永配合謀諸族 始具墓道 永配之子麟學 亦以繼述 重建齋舍 取永世追慕之意 扁其楣曰永慕 其後歲久年深 舍至傾頹之境則亨義 與諸宗 詢謀協力 重建齋舍 竪碑碣而用衛墓道 其爲先誠力 實大焉 不肖地學及中學 仍以修而葺之 正堂六間 中二間 以用廳事 門廊三間 中爲門而左右爲庫 右置三間 以備常用之處 修之葺之 比

於舊制 奐然維新 遙望四圍 東流錦江 洗去塵埃之心 西圍七甲山 落照輝煌 南有望月山 時送薰風 四野登豊 北有鶯鳳山 晴嵐勝景 居然勝區名地 公之尊靈 儼然陟降乎其間矣 豈不美哉 亦以諸宗之殫誠協力 歲辛酉夏 更治床石 以新墓儀 舊有床石 用於山神處 墓道諸儀則庶幾具矣 齋舍備矣 寄語來裔 斯齋則只非墓祭所用 自春至冬 隨時登斯齋 無怠灑掃 先祖之遺業 講之誦之 勿替徽風 以父祖之心爲心 永世不忘其本則此豈非吾門之大幸也 相與勉勗哉 是以爲記

洗辛酉仲秋節

十六代孫 中學 謹記

◇

⑨ 종안재기(생원공 휘 신생) 충효공후 탄천

대저 먼 후일까지 추모하는 것은 선조를 사모하는 성의와 인심인 것이며 조상에 보답하는 것은 일가끼리 돈목하는 도의인 것이니 후손이 되어서 힘쓰지 아니할소냐? 또 선조들이 생장하여온 고향마을도 차마 그 자취를 없애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물며 선조의 묘소가 있고 제사를 올리는 재사임에랴?

삼가 찾아보면 충청도 공주군 탄천면 덕지리 동향의 구릉지에 종안재가 있으니 나의 선조이신 생원공 휘 신생과 공의 손자인 사정공 휘 성계의 재사인 것이다. 그

주산을 말하여 서당골이라 하는데 작은 구릉과 큰 능선에 큰 숲과 작은 숲이 넓게 되어 자손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으며 그 앞쪽은 넓은 밭과 비옥한 평야가 만경이나 뻗어 있으며 산 좋고 물 맑은 것은 계룡산에서 시작되고 그 모양을 말하면 공작 여러마리가 춤을 추니 대대로 영화할 땅이요。 좌에는 청룡이 꿈틀거리니 자손이 집안에 가득하겠으며 우측에는 백호가 쭈그리고 앉아 있어 집안의 창고가 가득차겠다고 하겠다。 천지가 개벽한 이후로 현인을 기다려 넓은 터와 큰 재사가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바람이 감싸주고 물을 만나게 되었으니 가히 적선한 음덕의 보답이라 할까?

우리 윤씨는 신라시대에 태사공 휘 시영으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는 경상남도 칠원현에서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대가 장례되어 있다。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초기에 저명한 선조가 비로소 충청도를 선택하여 살아 그 후손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으니 은진、노성、정산、온양、석성、용안、익산 그리고 거제도이다。 이 재사는 몇백년 전부터 웅장한 뜻을 취하여 본채와 사랑채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문이 전래하지 아니하여 창건한 연대를 알 수 없으며 다만 매년 10월 1일에 시제 올리는 예절만 전래되고 있어 이 집에서 음복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날 서양 풍속의 난입으로 관리가 소홀하여져 동쪽은 기울어지고 서쪽은 퇴락된 후에 각

파의 여러 일가들이 연성금을 내어 재사를 중수하여 영원토록 제사를 올리게 되었으니 자손의 도리를 만분지일이라도 조상님께 보답이 되니 감모의 회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우리 여러 일가들은 이 제사에서 함께하고 이 제사에 모여 선조를 계승하고 후손에게 너그럽게 하는 도리에 더욱 서로 권면하게 될 것이다。부탁하여 말하건대 종족이란 선조의 나뉜가지이며 정의를 행하고 덕을 빛내는 것은 선조의 유업이고 효도 공경 충성 신의는 선조의 유범이고 문과와 무과의 벼슬은 선조의 유직이니 이어찌 가히 후손이 본받을 수훈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대저 인생이란 반드시 선조가 근본이 되니 후일까지 추모하며 근본에 보답하는 것은 인의의 성의와 도리를 지극히 다한 것이다。재사의 간판을 종안재라 하였으니 종자는 일가끼리 돈목하는 것이며 안자는 후손이 편안하고 번성한다는 의의이다。서경 요전에 말하기를 능히 덕을 밝히어 구족을 친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하여 보면 인간의 도리는 일가끼리 화목하는데 있다고 하겠다。매년마다 여러 일가들이 다 함께 재실 아래에 모이게 되면 돈목할 것이다。제사를 올리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며 음식을 먹는 것은 일가를 화합케하는 것이니 이를 게을리 아니하면 여러 후손들이 더욱 안녕과 번영이 무궁하기를 기대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할소냐? 나 홍수는 묘소에 성묘할 때에 여러 일가와 더불어 화수의 정을 간절하게 이야기하였다。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감정을 문장력이 고루한 것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대략 우와같이 기술하였노라。

경신년(1980년) 10월1일

생원공 20대손 홍수는 삼가 기록하다

⑨ 宗安齋記(生員公 諱 神生) 忠孝公后 灘川

蓋追遠 慕先之誠仁 報本 睦宗之道義 何不以爲后當務哉 又先祖杖屨所過之泉石林壑 不忍沒其跡 況先祖衣履之藏而妥享之齋乎 謹按 湖西公州屬郡灘川面德芝里震向之原有宗安齋 惟我先祖考生員公諱神生 公之孫司正公諱成啓之齋也 其玄主山曰書堂之陂 小丘大陵 大藪小林 以爲廣直 子孫散處 爲案曰廣田沃野 延于萬頃 山明水麗 發於鷄龍 象曰 朱崔多翔舞 世世榮華地 左靑龍蠢動 子孫滿有堂 右白虎跪坐 倉庫滿有家 自鴻濛開闢之後 以待賢人之洪基宏齋 若此藏風得水 可以報積善之蔭庥歟 吾尹 自羅世 太師公諱始榮 逮于麗朝 嶺左漆原縣 世居而累葬矣 傳于鮮朝初 自顯祖考 始卜居于湖西 其雲仍 散處 曰恩津 魯城 定山 溫陽 石城 龍安 益山而巨濟也 本齋 自累百年前 以攸蓋取大壯而上棟下宇 然 不傳記文 未知創建之禩 但傳每年十月朔日 薦吉蠲之禮 行飮禧于斯齋 至于今續之 往在白虎之亂 以管守疎漏 東傾西頹而後 各派諸宗 捐誠貲

金重修于齋舍 永久遵行則子孫之道 萬有一報而不勝感慕之懷矣 凡我諸宗 俱斯齋而聚斯舍 承先裕後之道 益相勉旃焉 屬曰宗族 祖先之分枝 行誼文德 祖先之遺業 孝悌忠信 祖先之遺範 文武冠冕 祖先之遺職也 此豈非可爲後承之垂訓哉 夫人之生 必本于祖而追遠報本 仁義之誠道 至盡也 扁其齋曰宗安 宗 宗族敦睦 安 安繁雲仍之義 堯典曰克明峻德 以親九族 由是而觀則人道 在於睦族 每歲諸宗族 俱聚齋下 敦睦矣 祭祀而報本 飮食而合族 無懈則諸來雲仍 益期於安繁之無窮矣 豈不美歟 不肖瞻掃封塋之際與諸宗 懇談花樹之情 竊念所感 不揆文陋 略記如右

庚申十月朔日

生員公 二十代孫 弘洙 謹記

◇

⑩ 남춘재기(양성당공 휘 지) 대언공후 장흥

삼가 살펴보건데 공은 단종조에 벼슬를 사양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에 자리를 잡으셨다。 공의 본심은 모르겠으나 추측컨데 정란을 피하여 오신듯 하다。 동쪽엔 작두산이 높이 솟고 좌우로 산줄기가 춤추듯 뻗어 내려 명승지를 이루었다。 앞쪽으로 광활한 평야가 끝없이 펼쳐있고 탐진강은 서남간으로 돌아흘러 장흥평야의 젓줄이 되니 매년 풍년을 기대하고 인심은 넉넉하니 일찍부터 학문으로 이름난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공께서 이 신령한곳을 골라 비로소 사시면서 산수를 벗하고 안빈낙도 하시며 시가로 위안하시고 천명을 마치신 후에 작두산 간좌향에 배와 합장되셨으니 참으로 대대자손의 편안한 장지가 되었다。 아 5백년이 지난 지금 세아들의 후손이 번성하여 약 1천여 세대 자손들이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경기·서울등과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다。

매년 음력 10월6일에 모여 세일제사를 올리지만 목욕재계의 장소가 없어 모두 탄식하고 있었는데 함안 칠서에 살고 있는 19대손 춘강 기수씨가 선조를 위하고 종중의 화목을 위한 정성를 발휘하여 재실 신축의 뜻을 보이고 추진위원 대표를 맡고 각 지역별 대표위원을 조직하였으니 부산 익수、 마산 철원、 칠서 영수、 합천 종규、 산청 영환、 장흥 봉근、 나주 형남、 고흥 영욱씨등이다。 1년여간에 걸쳐 종원들의 성금이 답지하여 거금이 조성되었고 기수씨 익수씨가 특별헌성금을 내어 공의 묘소아래 간좌(서남향)에 목조재실 25평 5칸과 철근 연와조 관리사 30평을 1996년부터 공사하여 1998년 9월10일 준공하였으니 이것이 곧 남춘재이다。 또 추가로 문토답 1천여평과 밭2백평을 재사터로 기수씨가 갖추어 놓았으니 공헌한 바 크다。 이 재사는 비단 재사용일 뿐 아니라 봄부터 가을까지 정성껏 쓸고

닦으며 선조의 덕업을 외우고 익히는 장소로 사용하여 조상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길이 근본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가문에 다행이 아니겠는가? 엎드려 대대로 계승됨을 바라고 번창함을 기대하노라! 여러 후손들은 힘쓰고 서로 힘쓸지어다.

서기1997년 5월 일

14대손 형남(영선)은 삼가 지음

⑩ 南春齋記(養性堂公 諱 志) 代言公后 長興

謹按 端宗朝 遜位南下 全南長興郡夫山面基洞里 杖住于此 不知本志 推測是皆由政變之患禍 東聳鵲頭山脉 左右如舞枝 名云名勝地也 前平野廣濶大開 無邊接天 耽津江迴流南西間 可灌 平野 每期登豊人心溫厚 早通經書 公卜之始居靈地 樂山樂水 安貧樂道 詠詩慰安也 公旣歿 葬于鵲頭山艮坐向原配合窆 眞爲千歲子孫永安葬于此嗚呼歲近于約五百餘年 生三子蕃衍 散居 全南北道 慶尚南道 釜山 京畿道 서울 各地方等 約阡餘世帶 子孫 每年陰十月初六日 薦享于歲一祭之禮 無沐浴之所 皆嘆無至 咸安漆西居住 十九代孫春岡騏洙 爲崇祖睦宗精神發揮 築齋室之意發議 委員代表被選地域別代表委員組織 釜山益洙馬山哲遠英洙陜川鍾圭山清泳煥長興奉根羅州衡南高興永郁二年間餘鳩財金遝至 巨金造成 麒洙特別巨金獻誠金公墓下 齋室木造五間 貳拾五坪 管理舍鐵筋煉瓦造參拾餘坪一九九六年至一九九八年九月十日完工 又麒洙氏 門土畓壹仟餘坪田貳百坪買入獻納 旣而齋舍備具矣 斯齋則 只非墓祭所用 自春至冬 爲心 無怠灑掃 先祖之業 講之誦之爲父祖之心 爲心永世不忘其本則 豈非吾門之幸也 伏願世世繼承而繁暢可期也 諸子孫相與勉哉 相與勉哉是爲記

西紀 一九九九年 五月 日

十四代孫 衡南(永善) 謹記

◇

⑪ 선덕재기(진사공 휘 제) 충효공후 탄천

삼가 살펴보니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삼각리 봉산서향 능원에 있는 선덕재는 우리 칠원윤씨 선조고이신 진사공 휘 제와 공의 손자인 승지공 휘 보상을 매년 10월2일에 제향을 올리는 장소이다. 그 위치를 말하면 동으로 계룡산이 35리요 남으로 건평시장이 10리요 서쪽으로 분강포가 10리요 북으로 이인역이 25리이며 묘앞쪽의 탄천시는 3리쯤 된다.

대저 선조들이 덕을 베풀면 후손이 반드시 번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으며 또 보이지 아니한 덕을 베풀면 반드시 보이는 보답이 있는 것이며 숨어서 행동하면 반드시 빛나는 명성이 있게 되는 것이니 말하자면 남모르게 하여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을 좋은 인연에 좋은 보답이 따르는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우리 윤씨는 신라시대부터 비로소 태사공이 터를 열었고 고려시대에 크게 나타나 7세대가 군에 봉해져 빛났으며 조선시대까지 계승하여 고위 관리가 전승되었다。

진사공으로부터 지금까지 5백년에 이르기까지 충청도의 저명한 씨족으로 자손들이 은진、노성、정산、온양、석성、용안에 퍼져 살고있어 그 수가 셀 수 없으니 이 어찌 선조께서 덕을 베푼 것이 아니겠는가? 아 선조께서 살아 계실때 문장도 있고 용맹도 있어 그 아름다운 덕과 넓은 업적을 묘지와 족보에서 들을 수 있으나 고중할 곳은 없고 세상이 멀어지며 전해오는 말까지 사라졌으니 애통함을 이겨낼 수 있을소냐? 재사라 하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닦고 장엄하게 선조를 공경하는 곳이다。율곡이 말하기를 보통 제사를 올리려면 사랑과 공경의 정성이 으뜸이라 하였다。우리들 한 할아버지 자손은 이 재사로 들어오게 되면 서로들 부탁하여 말하기를 일가간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돈목을 하는 것이요。선조의 묘소를 공경하고 추모하면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니 가히 힘쓰지 아니할소냐? 라고 하였다。슬프도다 후세에 자손들은 역시 선조의 성대한 덕을 앙모하여 반드시 추원의 성의를 다하면 이것이 인간 도리에 당연한 일이다。매년 세일제를 천년토록 봉행하여 자손들이 폐지하지 아니하면 거의 후세에도 바램이 있을 것이니 어찌 가히 잊을소냐?

현판을 선덕이라 한 것은 서경에 말하기를 삼덕을 베풀어라 하였으니 그것은 너그럽고 유순하고 근신하는 것이다。이것으로 우리 종훈을 하면 좋을 것이니 당연히 서로 돕고 서로 힘쓸지니라。내 비록 문장가는 아니지만 졸렬한 것을 잊고 기문을 지어 후일에 이론이 정립된말을 하는 군자를 기다리노라。

경신년(1980년) 10월 일

진사공 17대손 두원은 삼가 기록하다

⑪ 宣德齋記(進士公 諱 濟) 忠孝公后 灘川

謹按 忠南公州郡灘川面三角里蜂山兌原宣德齋 惟我漆原尹氏先祖考進士公諱濟 公之孫承旨公諱輔商之每歲十月初二日芬苾奉香之所也 其位曰東 鷄龍山 三十五里 南 乾坪市 十里 西 汾浦 十里 北 利仁驛 二十五里 其案 灘川市 三里 夫先祖之宣德 後孫必昌 理之常也 又陰德者 必有陽報 隱行者 必有昭名 可謂不誣莫達之義 因果應報之理乎 竊念 吾尹 自羅朝 肇基太師公 大顯麗朝 七世封君之赫 繼在朝鮮 蟬聯相傳 自進士公 迄今五百之禩 以湖西望族 子姓 布居恩津 魯城 定山 溫陽 石城 龍安 其麗不億 此豈非先祖之宣德哉 嗚呼 先祖之在世 有文以武功懿德廣業 宣聞誌籍 無處可徵者而世遠言湮 可勝痛哉 齋舍者 洗心潔而莊而恭也所 栗谷曰凡致祭 主愛敬之誠而已

惟我同祖之孫 登入斯齋 互相囑曰宗族之間 愛之重之 以爲敦睦 先祖之藏 敬之慕之 以爲報本 可不勉勵哉 噫 後末之子孫 亦仰慕先祖之盛德 必盡追遠之誠 是人道當然之事 每歲一祀 奉行千秋 子孫勿替 庶有望於來世矣 奚可忘乎 扁名宣德 書經 曰宣三德 曰寬弘曰柔順曰謹愿 是可曰吾宗之訓 當相勗而相務哉 余雖不文 忘拙爲記 以俟後之立言君子

庚申十月 日

進士公 十七代孫 斗遠 謹記

◇

⑫ 마전재기(맹산공 휘 자균) 충효공후 논산

올해는 우리 윤씨가 경신대동보를 발간하는 때를 만나 충청도를 여행하며 선조의 남긴글을 보고싶어 대전에 있는 족보 편찬소를 찾아온지 몇일이 되었는데 은진에서 사는 두원과 시종을 우연히 만나 선조의 유업을 이야기하다가 봉직랑 맹산공의 유적을 이야기하며 찬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나 보고 말하기를 비록 우리 집안 종손인 성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도 같은 할아버지 후손이라며 재사의 기문을 요구하였으니 나는 몸이 아파서 글을 지을 수 없으니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일가끼리 정의 때문에 완고하게 사양하지 못하고 삼가 유적을 찾아보니 공은 충효공의 후손이며 승지공 휘 보상의 둘째 아들로 대대로 공주에 살다가 신성한 곳을 찾을 뜻을 가지고 전국을 두루 답습하던중에 이 곳에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바라보니 대둔산, 계룡산, 옥녀봉, 작산 등은 충남의 명산으로 하늘이 무너져 허공에 꽂혀 기둥이 된듯 의심이 들고 그 중간에 넓은 평야가 열려 끝없이 광활하여 가없이 하늘에 닿았으며 긴 강이 빙 둘러 흘러 세차게 흐름이 멈추지 아니하여 충청도 평야에 물을 대 줄 수 있어서 매년마다 풍년이 들어 수신제가하며 도를 즐길 수 있으며 산에 가서 나무하고 물에 가서 낚시할 수 있으니 어찌 하늘이 주신 좋은 터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곳을 선택하여 비로소 마전으로 이사와 살게 됨으로 자손들이 거기서 살게 된 것인데 공이 돌아가시자 정토산 동향(유좌) 능원에 장례하였고 배위도 같은 묘소에 모셨다。

그 후에 5대손인 제형에 이르렀는데 일곱살 때부터 주자가 저술한 소학책을 읽었으며 이어서 사계 김선생의 예문을 읽어 마음속에 선조를 추모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자손들에게 훈계하여 상의하고 재물과 곡식을 모아 공의 묘소 아래에 네 칸 재실과 여섯 칸 사랑채를 짓고 현판을 그 곳 지명에 의거하여 마전재라 하였다。이래서 후손들이 목욕재계하고 제수를 만드는 장소가 환연히 갖추게 되어 공의 영혼이 기쁘게 그 사이를 오르고 내릴 것이다。

논밭도 십여 두락 사들여 그 논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세일제 올릴 때에 제수의 비용으로 쓰게 되었는데 비록 남는 것은 없어도 검소하게 사용하면 가히 지속이 될수 있으니 어찌 위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할소냐? 옛말에 이르기를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라고 하였으니 이를 이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재실이 있으면 기문이 있는 것이 옛날부터 전래하는 관례인데 이 재실이 창건된 그 연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3백년이 되었는데 어찌 기문이 없었을까? 생각컨대 그간에 세월의 변천이 더욱 심하였으며 몇차례 전란을 겪어서 수리한 연대가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후손들에게 부탁하노니 우리 윤씨의 선대 할아버지의 덕업과 유훈이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니고 오로지 충성과 효도에 있을 뿐이다. 시경에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너의 할아버지가 생각나지 아니하냐 서로들 그 덕업을 닦으라 하였으니 선조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대대로 계승하여 그 아름다운 풍속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거의 크게 번창함이 끝없이 될 것이다. 그 힘써 돕기를 권고하면서 이것으로 기문을 삼았노라.

경신년(1980년) 가을

방후손 순원은 삼가 기록하다

⑫ 麻田齋記(孟山公 諱 自均) 忠孝公后 論山

歲値吾尹庚申大譜發刊之際 遊於湖西 欲覽先祖之遺墨 晩到大田譜所有日 居恩津族斗遠 與時鍾 邂逅相逢 談話先祖之遺業 言及奉直郎孟山公之遺蹟 讃辭不已之餘 卒然謂余曰雖有吾家胄孫誠洙 然 吾亦同祖之孫 要其丙舍之記 余以病軀不文 豈能堪當是役 於宗族之誼 固辭不獲 謹按遺蹟 公 以忠孝公之后承旨諱輔商公之第二子世居公州 以擇其靈地之意 遍踏八域 杖住于此 遙望四圍 大屯 鷄龍 玉女 鵲山 以忠南名山 疑其天壞 揷空爲柱 中開廣野 茫茫廣濶 無邊接天 廻流長江 滾滾不息 能灌湖西平野 每期豊登 適於修齊樂道 樵山釣水 此豈非天賦之勝基也 故卜之 始移居于麻田而子孫 仍居焉而公之旣歿 葬于淨土山酉坐之原 配亦同兆 厥後至五代孫齊衡 始自齠齔 讀乎朱夫子小學之書 繼習沙溪金先生之禮要 心抱先祖追慕之感 戒諭子弟 合謀鳩財貯穀 公之墓下 築四架之齋 六間之門廊 扁其楣曰麻田 依其地名也 是後孫齋沐肄業之所 煥然具備 則公之精靈 悅然陟降乎其間矣 買田十餘斗落則以其中所產 用歲一祭庶羞之費 雖無贍餘 儉用可支 豈不偉云乎 古之所謂有是祖有是孫 此之謂也 然而有齋則有記 自古傳來之例也 斯齋之創建 閱其世代 即三百年于茲矣 豈無所記意者 其間歲變 益甚 累經兵燹 修葺年代 未詳故也 寄語來裔 吾尹之先祖德業遺範 無他 只在忠孝而已 詩不云乎

無念爾祖 聿修厥德 以先祖之心 爲心 世世繼承而勿墜徽風則庶幾昌大無窮矣 勸其勉勗 是以爲記

歲庚申秋

傍裔 順遠 謹記

◇

⑬ 안동재기(군수공 휘 자당) 충효공후 부여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 바람 불고 춥고 더웁고 비내리는 조화를 부리고 땅에는 산과 강이 있어 능히 부귀와 아들을 많이 낳는 공을 이루고 있다고 들었다。충청도 계룡산 서쪽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찾아보면 내룡의 변화가 있고 산맥에 정기가 있으며 기세는 명랑하고 형세는 평사낙안(모래펄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형국)이라 그래서 그 고을이름을 안동이라 하는데 바로 옛날 노성현 소사면이며 현재는 부여군 초촌면 진호리인데 우리 칠원윤씨 선조이신 진도군수공 휘 자당과 공의 아들인 성균관 진사공 휘 여형 이하로 여러대가 자리잡고 살며 대대로 묘소가 있는 곳이다。그 재사의 이름을 안동재라 하였다。동리 앞에 건평들이 있어 오곡이 풍요하며 뒷산 북동향 산봉우리는 소년등귀형(소년이 과거에 합격할 형국)이고 동쪽에 홍성동이 있어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같으며 서쪽에 수항동이 있어 기러기가 춤추며 모여들고 남쪽에는 모래펄이 있어 기러기가 내려오는 성이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열어놓은 별천지가 아니리오。또 인간대사인 혼례에 기러기를 드리는 것이 첫째가 되며 혼인한 후에야 하늘이 백성을 낳게 하며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아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예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연령과 같은 자는 뒤따라 다니고 형의 연령과 같은 사람과는 기러기 같이 다닌다고 하였다。시전에는 말하기를 형제를 안행이라 하였다。형제는 부모가 주신 유체를 같이 받아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며 일가끼리는 조상을 보기를 또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다。여러 곳으로 흩어져 사는 곳은 노성、정산、온양、석성이 되겠으며 인구수는 5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선조의 음덕일 것이다。옛말에 말하기를 기러기는 혼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은 형제간에 우애를 이르는 것이며 종족간에 화목하는 의의인 것이다。

매년 10월2일은 여러 곳 일가들이 이 재실로 모여들어 세일제 예식을 행하고 음복의 의식을 가져 추원의 성의를 다하고 보본의 도리를 밝혀온지 지금 4백여년이 되었다。선조의 선행을 밝히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전승하지 못하면 이는 어질지 못한 것이니 어찌 의리를 모두 밝혔다고 할소냐? 현판에 말하기를 안동재라 하였으니 기러기라는 것은 음과 양 중에 양의 성질을 따르는 새라서 혼례에서 기러기를 드리는 것은 그 화합과

신의를 취하고 두번씩 짝 짓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르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종족의 화목이요 사람에 대한 신망이며 의리를 행하는 것이니 우리 일가의 진실한 도리인 것이다。오직 소원하건대 후손들은 조상묘소 수호를 게을리 아니하고 그리고 세일제를 관리하고 조상에 공경하고 일가에 화목을 영원히 끝없이 전승하면 바야흐로 천추두고 순후한 덕화요 풍속의 가르침이라 이르게 될 것이니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도인 것이다。내 비록 말도 잘하지 못하고 학문도 미천하지만 선조 묘소 아래에서 몇십년간 살아 성묘하던 옛날 시절의 감동을 대략 우와 같이 기술하고 당세 군자의 기록을 기다릴 뿐이다。

경신년(1980년) 10월 일

진도군수공 14대손 윤원은 삼가 기록하다

⑬ 雁洞齋記(郡守公 諱 自塘) 忠孝公后 扶餘

蓋聞 天有日月星辰 能造風寒暑濕之化 地有山麓河川 能成富貴多男之功矣 按湖西鷄龍之西元宗之峰 龍有變化 脈有精細 氣有明朗 形有平沙落雁 其洞曰雁洞 即魯城故縣素砂面 今扶餘郡草村面眞湖里 惟我漆原尹氏先祖考珍島郡守公諱自塘 公之子成均進士公諱汝衡以下累代庄店而世阡之地也 其齋號曰雁洞 洞有乾坪 五穀富饒 鎭山艮峰少年登貴形 震有鴻城洞 鴻雁之適 兌有水巷洞 舞雁之合 离有長沙 落雁之城 豈非天開于別地哉 又人倫大事 奠雁爲先 奠雁之後 天生蒸民 有男而生孫 萬福之根源 禮記云父之齒 隨行 兄之齒 雁行 傳 曰謂兄弟曰雁行 兄弟 同受父母之遺體 與我如一身 宗族 視祖 又與我一身 其散處曰魯城 定山 温陽 石城 其員五千 必是先祖之遺蔭也 古語 曰雁不獨行 謂之兄弟友悌 宗族和睦之義 每歲十月初二日 諸宗族 聚合斯齋 行薦享之禮 飮福之儀 以盡追遠之誠 明報本之道 今續四百之祀 夫祖先之有善 不知不明 不知不傳 不仁 豈曰盡明之義理乎 扁其齋曰雁洞 雁者 隨陽鳥 昏禮 奠雁 取其和信 不再偶云 寔 宗族和睦 於人信望行之義理 吾宗之誠道也 惟願來裔 不怠先壟守護而歲祀管理 敬祖睦宗 永傳無疆 方可謂千秋之醇化風敎 人所可行之道乎 余雖不佞淺學 居于阡下數十年 省掃汗漫之際 所感 略記如右 以俟當世君子之記云爾

庚申十月 日

珍島公十四代孫 允遠 謹記

◇

⑭ 다원재기 충효공후 거제

이 재사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44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이 다원재는 임진왜란때에 의병을 일으켜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여 혁혁한 훈공을 세운 여러 의병장들 중에 윤승보、윤개보、윤영상、윤홍량 등 4인 충신의 위패를 충훈사에 봉안하고 향리 사림들이 행사

하는 제향의 제례와 사당의 수호를 위하여 세운 재사이다。 그리고 4인 충신들이 모두 칠원윤씨이다。 그러므로 칠원윤씨 21세이며 거제도로 처음 들어와 뿌리를 내린 전 사과 윤달의 묘소가 있는 거제도의 영산인 앵산의 원봉이 뻗어내린 다원촌 좌측에 서기1825년(순조25년)에 4인 충신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림들이 창건하였다。 그 후로 170년동안 중수를 거듭하였으나 오랜 세월의 비바람으로 퇴락되어 서기1996년 6월에 옛 건물을 허물고 석조 슬라브에 기와를 얹어 35평 규모의 재사를 후손들의 헌성으로 중건하였다。

◇

⑮ 경모재기(전적공 휘 준제) 충효공후 청양

앵봉산맥이 10리쯤 꾸불꾸불 내려와 그 산세가 장대하게 높고 지맥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 금강에 닿으면서 멈춘 곳을 이름하여 석봉산이라 한다。 여기는 우리 선조되시는 경정공의 체백을 모신 곳이다。 그 산 밑에 재사가 있으니 매우 조용하고 그윽하며 맑고 또 조용하다。 바로 10월 첫 정일에 세일제 행례를 이 재사에서 기쁘게 행하니 모든 늙고 젊은 자손들이 함께 있게 된다。 나 혁원이 감히 일어서 손을 모아 말하기를 만물은 하늘에다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에다 근본을 둔 것이다。 그런고로 제사를 지내어 근본에 보답하고 음식을 만들어 일가끼리 화합하는 것은 어질음이 지극함이요 도리를 다함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현재 나는 이 재사에서 제사를 봉행하고 이 재사에 일가들을 모이게 하였으니 옛 성현들이 예의를 제정한 의의에 가깝게 된 것이다。

또 혼자 생각하여 보니 우리 윤씨는 먼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효도하며 대대로 벼슬을 하여왔고 문장과 학술이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성대하고 또 위대하였을까? 이 경정공에 이르러서는 형통됨이 막히어 지위가 덕에 맞지 아니하였으니 애석하도다。 하늘이 이곳에 자리를 주어 후손들이 계속하여 번성해서 한 지방의 거족이 되었다。 어찌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을 주되 본인에게 아니하였으면 곧 그 후손에게라도 꼭 보답하는 것이라고 아니할까? 그러나 연대가 점차 멀어지며 선조의 일이 적막하게 되어 나라에서 영광을 보고 시골 향리에서 영화를 누리는 일가사람을 듣지 못하였고 점차적으로 낮아져 날로 보잘것 없이 되었다。 마침내 회수를 건너간 귤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 것이다。 슬프도다、 하늘이 보답을 주는 것은 또 반드시 그렇다고 아니하겠으나 만일 또 수십년 되면 아마도 우리 윤씨중에 일가가 또 세상에 소문이 날 것이니 이것을 가히 공경하지 아니할소냐?

생각하여 보면 분발하여 권면하는 방법이 무능력하여 퇴폐되고 게을러져도 다행히 선조의 음덕은 항상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는 바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들을 잘 가르쳐 같게 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의 삶에 욕됨이 없게하라、 하였으며 주역의 동인괘에는 일가는 동일한 사람이라 하였다。 할아버지가 같은 우리 후손들은 이 집에 오르고 이 방에 들어오거든 서로들 권면하여 말하기를 우리들 몸은 바로 선조의 유체이며 효도、우애、충성、신용은 바로 선조의 유훈이요 문장과 학덕은 바로 선조의 유업이며 관리와 관복은 바로 선조의 유직이다。 선조의 유체를 받고서 가히 선조의 유훈과 유업에 복종하지 아니할소냐?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이와같이 하면 선조의 유직은 자연 찾지 아니하여도 이르게 되고 자손의 교육과 나에게 욕됨이 없으며 같은일가 사람됨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선조의 영혼이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서 도와주며 빙그레 웃는 것을 알지 못할소냐? 또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퍼지고 크게 성장하는 것이 역시 앵봉산과 더불어 더욱 높아지고 창강과 더불어 더욱 깊어질 것이니 가히 힘쓰지 아니할소냐? 모두들 말하기를 오직 그러할 것이니 자네가 쓰라고 하여 마지 못하여 마침내 재사의 현판을 경모라고 경정공의 뜻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붙여 쓰고 또한 기문을 지었노라。

을미년(1895년) 10월10일

경정공 12대손 혁원이 삼가 기록하다

⑮ 敬慕齋記(典籍公 諱 遵悌) 忠孝公后 青陽

鶯峯之山 十許里 逶迤而南下 體勢隆長 支脉 蕃衍 縮于大江而止者 名曰石峯 寔我先祖敬亭公 衣履之攸藏也 山下而齋 極幽而邃 清而且靜 迺以十月上丁 行蘋藻吉蠲之禮 欣禧于斯宮 諸老幼昭穆 俱在焉 赫遠 敢起而拱手言曰 夫萬物 本乎天 人 本乎祖 故 爲之祭祀以報本 爲之飮食以合族 仁之至 義之盡也 今我奉祭祀于斯 聚宗族于斯 其庶乎古聖人 制禮之義乎 且竊念吾尹 粤自羅麗 逮于我 朝 克忠克孝 世襲簪冕 文章學術 代不乏人 何其盛且偉歟 至若敬亭公 末路亨衢 位不稱德 惜乎 天也而玆土奠居 雲仍延綿 蔚 爲一邦之巨族 豈天之報施善人 不于其身則必于其後者歟 然而年代 寖邈 繼述 寥寥 未聞有觀國之光 爲鄕里之榮耀 駸駸然卑下之 日趨小草 竟爲淮橘 令人興歎 噫 天之報施 友未可必也而若復數十年則嗟我尹氏之族 當復聞於世矣 是可不惕然耶 顧思所奮發振厲之道因循頹惰 只幸先蔭之不常墜 爲恃哉 詩云式穀似之 又曰無忝爾所生 易之同人 曰同人于宗 凡我同祖之孫 登斯堂 入斯室 交相勉厲曰此身 乃祖先之遺體也 孝悌忠信 乃祖先之遺訓也 文章學行 乃祖先之遺業也 冠紱簪冕 乃祖先之遺職也 受祖先之遺體 可不服祖先之遺訓遺業乎 苟如是也 祖先之遺職 自不待求而至而可於斯式穀也 無忝也 同人于宗 无咎

也 安知不祖先之靈 庶食報於冥冥之中而爲之莞爾也 且其子孫之蕃衍隆長者 亦蔣與鰲峯之益高而滄江之益深矣 可不勉哉 僉曰惟是哉 子之書也 是不可以不識 遂扁其齋曰敬慕 以寓其慕敬亭公之意而且爲之記云

歲乙未十月上旬

敬亭公 十二代孫 赫遠 謹記

◇

⑯ 첨앙재기(헌민공 휘 탁연) 대언공후 합천

문학과 무술은 바로 나라의 큰 근본이며 널리 행해지는 권도인 것이니 이 두가지중에 혹시 한가지가 빠져있으면 균등하게 본체 응용 근본 말사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이다。문학과 무술은 본래 두가기 길이 아니었다。오직 시대따라 적용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으며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근본이 연유된 바이다。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내려온 이후로는 학문과 무술의 길이 갈라져 두가지가 되어 문학이 뛰어난 사람은 편벽하여 두루하지 못하여 혹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소견이 좁아 통하지 아니하여 거칠고 사나워 예의가 없게 됨에 이르게 된다。그런고로 능히 그 본체를 완전히 하면서 그 응용에 통달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적은 것이다。우리나라 조선 명종대왕과 선조대왕 시대에 광국공신이며 칠계군이며 시호 헌민공인 윤공 휘 탁연이 있었으니 그는 신하가 되어 간언을 과감하게 하고 나라를 호위하고 적군을 토벌하여 공신록에 책명되어 포상을 내리는 명을 받고 시호를 추봉하는 영전이 있어 후일과 전일이 서로 이어졌으니 조정에서 응성하게 보답한 것도 역시 이미 지극하였다。공은 태어나서부터 영리하고 겨우 입학하여 신동으로 칭찬을 받았으며 성장하여 명망의 소문이 한시대를 덮어 아계 이산해와 간이 최립등과 더불어 8대문장중에 1인으로 함께 칭찬을 들었으며 그리고 국가의 법전은 많은 것이 그의 손에서 나왔으니 순수한 문신이라 하겠으며 임진년 전란에 전쟁에서 반드시 크게 이기고 적군 천여명의 목을 베어 위엄을 평양과 의주까지 떨치고 3등공신에 책봉되었으니 장렬한 무신이라 하겠다。조정내에서는 사간원의 수장으로 정직을 지켜 동요하지 아니하고 몇차례 꺽이고 억누름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강등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 변방을 진압하고 두차례 명나라에 이르러 은혜와 의의를 함께 빛냈으며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상을 당하여 시묘살이에 예절을 다하였으니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고 또 효도를 하였을까? 공같은 사람을 이른바 문학과 무술이 완전히 겸비되고 자체 응용 근본 말사가 각기 그 적당한 것을 얻어 그 재기를 이룬것이 완전하고 응용을 이룸이 주밀하여 사실상 백

세토록 제사를 올리는 영전이 있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공의 초상화를 경기도 광주 종가택에 수장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수백년이 되었다。그분의 혜택은 국민에게 미치고 공로는 사직에 남아있어 개인집에서 편벽되게 뫼시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그런고로 지금 계묘년 봄에 12대 후손인 병윤이 여러일가들과 협의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처음으로 사당을 합천 묘산아래 광산리 내에 건립하고 편액에 가곡이라 하였으니 바로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선조들의 농장지이니라。종가집에 소장한 초상화를 모사하여 이곳에 모셔놓고 앞으로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봄과 가을로 제사를 올리고 또 사당밑에 재실을 지어 자손과 지방의 우수한 사람들이 강의하는 장소로 삼게 되었으니 바로 첨앙재라고 현판을 걸게된 것이다。이곳이 비록 공게서 평상시 생활하던 바는 아니더라도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어 역시 선조의 덕을 추모하며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는 의의를 둘 수 있으니 매우 성대한 거사라 하겠다。아! 공의 높은 충성과 위대한 순국은 실로 학문의 힘에서 나왔기에 해와 별과 더불어 빛을 다툴수가 있고 그 남겨놓은 풍속과 남아있는 운치고 역시 가히 백세토록 썩지 아니할것이다。지금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오륜삼강이 두절되어 예의가 원수로 되고 성현들이 함께 욕을 당하는등 특히 대의를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계양하였으니 어찌 그 하나의 우뢰소리가 혹은 만가호가 열고 억만년 기본이 됨을 알소냐! 순궤시를 외우게 되면 천년이라도 반드시 옛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니 자손들은 학문에 힘쓰면 자연히 한귀절도 잊지 아니할 것이니 원컨대 여러 군자들과 더불어 서로 도와주었으면 하노라。

계묘년 동지일 하동 정도현은 지음

⑯ 瞻仰齋記(憲敏公 諱 卓然) 代言公后 陜川

文武是有國之大本達權而於此二者若或闕一則均之爲軆用本末之未備也文武本非二道惟在隨時適用之如何而治平之所由本也降自三代以後文武地道歧而貳之文之勝者偏而不周或至於束手無策武之勝者局而不通或至於麁悍無禮故能全其軆而達其用者盖鮮矣惟我明宣之際有光國功臣漆溪君諡憲敏尹公諱卓然其爲臣敢諫衛國討賊策名勲府貤贈之命封諡之典後前相屬朝家之所以崇報者亦已極矣公生而穎異纔學稱以神童及長華聞盖一時與李鵝溪崔簡易屏稱八文章之一而國朝典文多出其手純乎其文也壬辰之發戰必大捷斬馘千餘級威振西北策勲三等烈乎其武也內長言官秉直不撓屢被推抑終不少貶外鎭邊塞再造天廷恩義俱著而及丁兩艱廬墓盡禮何其忠且孝也若公亦可謂文武兼全軆用本末各得其當成材也全而致用也周實無愧爲百世祀典也公之眞影藏在廣州宗宅者已數百年于兹矣其澤及生民功存社稷不可以偏奉私室故今癸卯春十二代孫炳允與僉宗協議辨重貲剏

建一祠于陜州妙山之光山里中扁曰佳谷乃子孫之世居先庄也自宗宅摹本而奉安于此將與諸章甫擬享菜儀而又建一齋于祠下以爲子姓與鄉秀講學之所卽揭以瞻仰此雖非公之平日杖屨攸及而子孫世居亦可以追慕先德用寓永久不忘之義甚盛擧也嗚乎公之危忠大節實出於學問之力而可與日星爭光其遺風餘韻亦可爲百世不朽也歟今天地飜覆綱常斁絕禮義爲讎聖賢俱辱而特揭大義於窮陰之中安知其一聲也雷將或爲萬戶開一兆之基本歟爲誦荀詭詩千秋必返古之常弟子勉學天不忘一句願與諸君子交助焉

癸卯冬至節

河東 鄭道鉉 記

◇

⑰ 내산재기(학생공 휘 원) 충효공후 청양

사자수 이북과 웅진 이남으로 창강연안에 옛부터 평야가 있으니 이름하여 내산평야이다。 이 사이에 산이 수려하게 있는데 바라보면 엎드려 있는 자라와 같은 이 내산은 현재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인데 바로 우리 선조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그 산 밑에 재실을 짓고 효성을 다하여 봄과 가을에 성묘하고 제사를 올리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성인의 추원 보본의 뜻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화가 되어 아름다운 풍속이 행하여져 왔으며 사대부가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이 예법을 행하여 온지 오래이다。

삼가 찾아보면 이 곳 내산은 학생공 휘 원의 체백을 모신 곳이며 그후로 일가들의 묘소가 즐비하게 있어서 현재는 칠원윤씨의 세천지로 발전이 되었다。 현재 후손들이 번성하고 부귀하여 능히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이 곳에서 살며 향토의 거족으로 번창할 자손이 매우 많이 있으니 마침내 하늘이 착한사람에게 보답하기를 본인에게 못하면 반드시 후손에게 한다고 말이 사실이란 생각이 든다。 하물며 일가들이 이 재사에 모여서 제사 일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예의를 강론하여 영원한 규모를 생각하고 일가간에 우의를 나누는 지리에서 반드시 선조에게 공경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이 역시 반드시 보이지 않게 도와주어 하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밭은 농사짓기 적당하여 영원토록 풍년농사가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대저 정성이 지극하면 귀신이 흠향하고 귀신이 흠향하면 사람이 화합하는 것은 자연한 이치인 것이다。 세대가 비록 인륜이 퇴락되어도 이치야 어찌 사라지는 때가 있을소냐? 대체로 강산의 명승과 풍물의 많음과 물고기와 새들이 하늘을 날고 헤엄치는 것과 구름과 안개 걷히고 퍼짐은 자세하게 다 말할 틈이 없으나 이 재사에 올라와 사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가까이 있으며 꽃나무들이 두루 퍼져 있는데 바로 후손들이 대대로 사

는 한 마음인 것이다。 아마도 이곳에서 목욕재계하고 오르고 내리며 일하는 사람들은 삼가 제사일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났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는 자식을 가르치고 형은 아우를 권면하라 능히 공경하고 능히 정성드려 그 덕행 닦을 것을 생각하여 공경함이 두루 일가에 미친 연후에야 그 근본을 잊지 않게 되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서기 1981년 신유중추 8월20일

병현은 삼가 기록하다

⑰ 來山齋記(學生公 諱 源) 忠孝公后 定山

夫泗水以北 熊津以南滄江沿岸 古有平野 名曰來山平野 此間 有山淸秀而望之如伏龜者 是來山今靑陽郡靑南面中山里 即我先祖世藏之地也 山下而齋 克推孝思 春露秋霜 省掃薦焚 此乃聖人所以報本追遠之意而維我 國祖化行俗美 士大夫家之致謹於此禮者 其來久矣 謹按來山 本學生公諱源之巾舃之攸藏而厥後聚族之葬 壘壘焉 今日發達于漆原尹氏世阡者 今其後承 繁然榮貴 克亨休美 奠居茲土 蔚爲鄕坊巨族者 甚振振焉 究念天之報施善人 不于其身則必于斯後者耶 況宗族 會合斯齋 敬修祀事 講貫禮儀 以圖永遠之規 講信宗稧 必思所以致虔乎祖先 則祖先在天之靈亦必默佑陰隲 使之受祿于天 宜稼于田 永世勿替 蓋誠至而神享 神享而人和者 乃自然之理也 世雖降頹 理豈有盡滅之時哉 概其江山之勝 風物之富 魚鳥之翔泳 雲歷之卷舒 不暇其詳悉而登斯齋 眺四方則村閭 殷闐 花木 周匝 乃其雲仍世居之一坊也 抑爲凡致齋于此而陟降將事者 愼勿以祀事孔明 爲能事畢 父詔于子 兄勉其弟 克敬克誠 念修厥德 敬止宗親然後 不忘其本 勉之哉勉之哉

一九八一年 辛酉 仲秋 八月 中浣

炳賢 謹記

◇

⑱ 송죽강당기(구 명륜재 휘담) 충효공파 청양

삼가 호서지방기를 찾아보면 금강물 우측편 언덕이요 구수동의 원천이며 차령산맥 지맥이며 중간마을로 내려온 곳은 옛날 정산현의 동면이며 지금은 청양군 목면 신흥리 송죽동이다。 그안 산에 열칸짜리 기와집이 있으니 이 곳은 바로 우리 칠원윤씨 선조되시는 찰방공 휘담의 파종문중강당이다。 강당이라는 곳은 학문을 강론하고 연구하고 복습하는 도장이니 배워서 마음에 얻어진 것을 행동하여 착한 곳에 중지한 연후에 군자라 하는 것이니 어찌 가히 힘쓰지 아니할소냐?

후한서를 읽어보면 황제도 직접 강당으로 나가 황실의 태자와 여러 왕들에게 명하여 경전을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강당이 있어온지 오래이다。 이곳 신흥리와 이웃마을 일원은 찰방공 후손들이 여섯개 파

로 나누어 사는 곳이다。혹 파종문에 강당들이 있으나 폐지된 지 이미 오래이며 혹은 집안에 사숙이 있어 이어져오고 있으니 그것은 여기에서 근원이 된 것이다。지난 기해년(1959년) 겨울에 족숙되시는 종칠씨와 족대부이신 일원씨와 자원씨와 족숙되시는 종술씨와 종은씨 등의 여러 어른들이 이때부터 우리 가문에 자제들이 배움을 잃고 있는 사람이 허다한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있었다。비록 배우기를 소원하고 있었지만 실로 배울 곳이 없었다。그런고로 문중에서 난상토론하여 의지를 하나로 통일시켜 선조들이 남긴 재물로 기금을 마련하고 후손들의 성금을 연출하고 각자 갹출까지 하기를 3년이 지나서 벼와 보리가 대략 백석이 되었다。

임인년(1962년) 2월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족숙되는 호경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소 직접 감독하였으며 대목수인 정산 사람 이다복을 시키어 정성과 힘으로 낙성을 보게되었으니 때는 동년 7월8일이었다。이 거사는 우리 가문에 드물은 거사이며 우리 마을에서도 드물게 있는 거사이다。아 우리 문중의 자제들은 다같이 이 강당에 모여 성현의 가르침을 배워 어버이에서 할아버지에 이르고 할아버지에서 일가에 이르러 가까이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후손들은 그 법칙을 행하면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유연히 감동되어 일어나 가히 근본에 돈독하고 화목이 수행되기를 기대할 것이다。생각하건대 이 일을 생각하여 더욱 힘쓸지어다。정성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뜻을 독실히하고 게을리 아니하여 능히 배운것을 이행하여 부모와 종족과 향리와 국가를 위하게 되면 그사람의 영광은 이미 극에 이르게 될 것이다。소원하건대 여러 일가들은 조금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겠다。그후로 13년이 지나 현명하신 족대부인 제원씨와 모원씨와 여홍후인이신 민병철씨와 장흥후인이신 고재봉씨 등 네분을 스승으로 모셨다。영재를 추적하니 족제되는 동수와 청주후인 한갑수 이외 150인이 된다。

옛날에 자제를 잘 가르친 사람들은 반드시 명덕의 선비와 연하여 더불어 살게하여 교육시키어 인성을 이루게 하였고 마을에는 인도가 크게 통하고 의로가 크게 통달하여 기강을 일으켜 세웠으니 백대의 교육으로 남고 천추의 모범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한다。오늘날 온 세상은 모두들 오랑캐 풍속을 따르고 세상은 또 오랑캐 풍속으로 변화하여 옛날 성현의 교훈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현인들 법이 혹 이문장에 있으나 완전히 이것을 배우는 학도는 없어 이제 자연적으로 폐지되었으니 갑인년(1974년) 겨울이다。지금은 우리 일가들이 시제시에 연회만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강신의 자리에는 오직 집을 지키는 유사만 있게 되었으니 족숙이신 호경씨이었다。다시는 스승이 강의하는 강론과 우리 학

도들이 낭송하는 것을 들을수가 없게되었다。 아 비어있는 강당에서 어떻게 강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랴? 강당을 쳐다보면 한탄이 끊이지 아니한다。 그 강당의 명칭을 송죽이라 한 것은 동리명칭이 송죽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어찌 우연히 하였겠는가? 소나무와 대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오래 오래 참아 그 심지가 착하고 춘하추동을 통하여 가지와 잎이 변하지 아니하여 군자의 마음 같다고 하고 숙녀의 선을 의의로 취하고 있으니 비록 이 강당이 폐지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 가르침과 이 법칙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게 될까? 아!

서기 1980년 경신 12월 일

찰방공 12대손 홍수는 삼가 기록하다

⑱ 松竹講堂記(舊明倫齋 諱 湛) 忠孝公派 青陽

謹按湖西 錦江右岸而九水之源 車嶺支脈而中坊落龍之處 故定山治東 今青陽郡木面新興里松竹洞 其案山 有十間瓦堂 寔 即惟我漆原尹氏之先祖考察訪公諱湛派門中講堂也 講堂者 學問之論而究而習之道場 學之得於心 行之止於善 然後 謂之君子 豈可以不勉哉 按後漢書 皇帝 親御講堂 命皇太子諸王說經云 其在久遠矣 新興里及隣里一圓 察訪公後仍 六同氣連枝之地 或派門 有講堂 癈來已久 或家有私塾 傳嗣之 其原于玆矣 已往己亥歲冬 族叔鍾七 族大父一遠 自遠 族叔鍾述鍾殷等諸丈 玆此慨然于吾門子弟之失學許多者 雖有志願學而實無有學之處所故 以爛商門論 其志歸一 傾先祖之遺財 以爲基金 捐後孫之誠貲 以爲醵出 經之三年 祖麥 總約萬斗也 自壬寅二月朔日 起工 族叔鎬京丈 晝宵不度而躬自董督 使巨匠定山李多福 可見誠力而落成 是年七月初八日也 此擧 吾門之稀有巨事 吾鄕之罕有大事也 嗟余吾門子弟 俱聚斯堂 學聖賢之訓則 由親而達于祖 由祖而逮于族 密邇學先祖之遺訓 行後孫之遵則 孝悌之心 油然 感發 可期於敎本修睦矣 顧自念此而益勉哉 以誠恒心學者 篤志不懈 能就學行 爲父母宗族鄕黨邦家 其人之光榮 已極矣 惟願諸宗 毋或少忽焉哉 慶年十三 溯源乎賢師 族大父濟遠 模遠 驪興人閔丙喆 長興人高在鳳等四人 追跡乎英才 族弟東洙 清州人韓甲洙外百五十餘人 古之善學子弟者 必延名德之士 使與之處 以薰陶成性 里 仁道大通 鄕 義路大達 扶植綱紀 庶期於遺百世之風敎 遺千秋之模楷矣 今之擧世 皆從戎俗 宇內又化蠻風 不嗜先聖之訓 後賢之則 或有斯文 全無斯徒 今自癈休 其年甲寅歲冬 至今爲吾門人之歲時燕饗而講信之所兮 惟有堂司 族叔鎬京丈 不復聞舌耕師之講 伊吾徒之誦 嗚呼 虛堂何有習聽 瞻仰于堂 慨嘆不已 稱其堂曰松竹 因其洞名松竹 豈偶然哉 松竹 歲寒耐久 其心 善之 貫四時而不改柯易葉 曰若君子之心 淑女之善 取義也 雖癈休講堂 然是訓是則 永世不朽乎 噫

檀紀四三一三年庚申十二月 日

察訪公十二代孫 弘洙 謹記

⑲ 쌍청루 현판후기 대언공후 청양

이 쌍청루는 바로 나의 고조할아버지 증참판공 휘 유길께서 청양현감으로 있을 때에 일찌기 증조할아버지 되는 장령공 휘 우정이 손수 써놓은 세 개의 큰 글자이다。할아버지 중이조참판공 휘 서적이 계속하여 청양현감으로 부임하여 마침내 각자하는 사람에게 새기도록 할때 간단한 발문을 지어 중부되는 정언공에게 명하여 그 위에 써놓았으니 우리 집안의 4대조 글씨들이 이 현판속에 구비되어 있다。아 역시 기이하구나! 전년도 가을에 내가 충청도를 순찰하며 지나가는 객으로 남아 있는 현판을 바라보니 나 자신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단청을 해 놓고 약간을 그 밑에 써놓았다。슬프도다、장령공의 글씨가 관사의 벽에 붙어 있은지 52년이요 이참공이 처음 현판을 걸은지도 그 이후로 55년이나 되었으며 지금 또 다시 수리하였으니 우리 집안의 후손들이 이 곳을 지나게 되거든 이 일을 계승하여 창문 종이 하나까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면 이 현판의 전승이 또 몇백년 갈지 모를 것이니 그 일에 역시 힘쓸지어다。

기미년(1679) 봄

관찰사 불초증손 경룡은 절 올리고 삼가 쓰다

⑲ 雙淸樓 懸板後記 代言公后 青陽

此雙淸樓 即我高祖考 贈參判公諱有吉 視篆青武時 曾王考掌令公諱遇丁 手書三大字也 王考 贈吏參公諱叙績 繼莅于兹 遂入剞劂氏 仍題小跋 命仲父正言公 書其上 我家四世遺跡 備在一板中 吁 亦奇矣 小子 於前秋 忝按本道 巡 過客 仰瞻遺板 自不勝羹墻之慕 改施丹艧 略識于下 噫 掌令公之留書舘壁 五十有二年 吏參公 始揭懸板 其後五十五年 今又重修焉 凡爲我家 後孫之過是者 繼此而不廢紗籠之護則兹板之傳 又不知其幾百年 其亦勉力哉

歲己未仲春

觀察使 不肖曾孫 敬龍 拜手謹書

⑳ 상량재기 대언공후 양산

신라 태종무열왕 때에 태자태사로 고명원로에 이른 휘 시영을 시조로 모신 칠원윤씨의 대언공파 양산소문중은 임진왜란 전에 영남으로 내려와 양산상삼 양동에 대대로 살 터를 잡았으니 입향조는 바로 26세조 되시는 휘 승원이시며 진사공이시다。공은 홍포서원 사당에 봉안하신 다섯 선생님 중에 청백리인 지퇴당 휘 석보의 후손이며 수신제가하고 입신홍족에 힘쓰시어 이후로 자

손이 번성하고 준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선조대왕 25년의 임진왜란 때에 27세조 되시는 휘 옥은 무과에 합격하여 중추부사이었고 발은 무과에 합격하여 만호에 이르렀는데 이 두 분들은 임진왜란시 형제간에 의병을 일으키어 공을 세운 바가 있어 양산 읍지와 양산 향안 책에도 사적이 기재되었으며 28세조이신 휘 정기는 통정대부로 충효를 세전하니 선조의 어진덕과 유업이 왕성하게 피어난 것이라 하겠도다。지금에 이르러서 공의 13대손과 14대손들이 주축이 되어 온 집안의 뜻을 모아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영원토록 기르고자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터를 잡아 재실을 건립하고 상량재라 이름지어 현판을 걸었다。비록 작은 규모이나 정성을 담아 선조를 숭모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며 참으로 우리 가문의 영광된 일이라 하겠다。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대대손손이 충성하고 효도하고 일가에 화목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후손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수신제가하고 입신흥족하자는 우리 종훈을 실행하여야만 국가가 태평해지고 국민의 안녕의 길이 열릴 것이니 이 어찌 조상을 영원히 경모하지 아니하랴? 삼가 이 글을 담아 낙성제에 임하니 천년토록 썩지 아니하고 빛나는 역사의 가문으로서 다함께 경사를 빛나게 함이로다。

서기 1997년 정축5월18일

12대손 정삼은 삼가 짓고

창원후인 남곡 황치현은 삼가 쓰다

⑳ 上良齋記 代言公后 梁山

新羅太宗武烈王 太子太師 顧命元老 諱始榮 始祖 漆原尹氏代言公派梁山小門中 壬辰乱前 南下 梁山上森 良洞世居 二十六世祖諱承元進士公 公 鴻浦祠奉安五先生中淸白吏止退堂諱碩輔 後孫 修身齊家立身興族 以後 子孫 繁盛 俊傑 宣祖二十五年壬辰乱 二十七世祖諱沃 武科中樞府事諱潑 武科萬戶兩位 壬辰乱兄弟倡義有功 梁山邑誌梁山鄕案 事載 二十八世祖諱廷起 通政大夫 忠孝世傳 祖上賢德遺業 盛華 至今 公 十三世 十四世孫 主軸 一族 崇祖精神 永遠 山 齋室 建立 上良齋 懸板 小規模 精誠 祖先 崇慕 無限 吾門 光榮之事 孝 百行之本 代代孫孫忠孝睦宗崇祖愛育修身齊家立身興族 宗訓實行 國泰民安 祖上永慕 落成祭 臨 千秋不朽 靑史一門咸熙慶事

一九九七年 丁丑五月十八日

十二代孫 政三 謹撰

昌原後人 南谷 黃致賢 謹書

◇

㉑ 경모재기(선교랑공 휘 태기) 대언공후 합천

옛날 임진왜란때에 우리의 선조이신 검열공의 장자

선교랑 휘 태기공이 경기도 광주에서 비로소 자취를 감추어 이사와서 살던 곳이 바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면 인곡리이다。 자손들이 대를이어 살게 되었고 공이 돌아가시자 인곡동 점후산(유좌) 능원에 배위 청주 한씨와 더불어 합장하였다。 그후로 여러 자손들이 상의하고 재물을 모아 공의 묘소 아래에 몇칸 되는 재사를 짓고 추원과 영모의 의를 취하여 현판을 경모재라 하였으니 자손들이 목욕재계하고 일을 할수있는 장소가 되었다。 세월이 오래되어 기울어지고 퇴락되어 다시 재사 네 칸과 사랑채 세 칸을 중수한지도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며 상량문과 기문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훼손되고 증거가 없어졌으며 더욱이 자손들의 무성의 때문에 보수도 못하였는데 이것이 후손들의 한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대의 변천으로 광주 지역이 성남시 발전권역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 경계가 검열공의 묘소까지 침범하게되니 어쩔수 없이 선교랑 묘소위 몇 걸음 떨어진곳으로 배위와 더불어 이장하여 합장으로 모셨다。 이 지방의 산세는 수려하지만 산 높고 골 깊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전에는 넓은 평야가 없어 개척의 전망이 없기때문에 자손이 수백명에 달하지만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 살고있어 묘소를 수호할 사람은 몇집에 지나지 아니하게 되었으니 몇대의 묘소들에 비록 비석문들이 있었으나 전래하는 문장은 자취없이 사라져 고증할 길이 없었다。 불초한 순원 또한 몸에 병이 들어 초고도 쓸수가 없어 여러가지 한을 품고 피눈물로 울다가 눈물을 닦고 남으로 낙향하신 첫번째 할아버지의 자취를 삼가 기술하여 후손에게 밝혀주며 대략 그 전말을 우와 같이 기록하였다。

경신년(1980년) 8월 15일

선교랑 11대손 순원은 삼가 기록하다

㉑ 景慕齋記(宣敎郞公 諱 泰基) 代言公后 陜川

在昔時値壬亂 吾先祖檢閱公之嗣子宣敎郎諱泰基公 自京畿廣州 始遯跡移居卜地之處 是慶尙南道陜川郡陜川面仁谷里 子孫 仍居而公之旣歿 葬于仁谷銅店後山酉坐之原與配清州韓氏 同兆而其後 諸子孫 合謀鳩財 公之墓下 築數間齋舍 取追遠永慕之意 扁其楣曰景慕而爲子孫齊沐肄業之所 歲久年沈 至于傾頹 更修重建丙舍四間廊舍三間至于六十有餘年而有記與上樑諸文 因其兵燹 盡毁無徵而尤以子孫之無誠 姑未補闕 是爲後裔之恨而至于中歲 以時代變遷 廣州地域 入于城南市發展之際 界偪檢閱公墓所故不得已移葬于宣敎郎墓上數步許 與配同穸而此地方 山勢雖麗 山高谷深 交通 不便 前無廣野 將無開拓之望則所蒙子孫 至數百戶 散居八域而守護者 不過數戶 數代墳墓 雖有顯刻之文 傳文 泯沒 無可證憑 不肖順遠 亦以病軀 不能抄本 抱恨萬端 泣血抆淚而謹識落南初祖之跡 以明來裔

略記顚末如右

庚申 仲秋節

宣敎郎 十一代孫 順遠 謹記

◇

㉒ 구수재기(통덕랑공 휘 중삼) 충효공후 청양

주산인 앵봉산이 높이 솟아 크게 뻗어 산줄기마다 맑은 기운이 모였으니 밝을 명자요 그 안산은 아홉개 골로 여러곳 물이 모여 마을이 광활하니 집당자라 하겠다。 여기는 가히 충청도의 명승지며 지금은 청양군 목면 신흥리 구수동이다。 서향으로 뻗은 능원에 재사가 있으니 구수재라 한다。 우리 칠원윤씨 선조고 되시는 통덕랑공 휘 중삼의 재사이다。 이 마을은 공이 사셨던 곳이요 그리고 의발이 장례를 지낸 곳이다。 우리 윤씨가 선대부터 살아온 마을이며 본 재사를 창건하여 관리하여온 것은 거의 3백년의 오랜 기간이다。 지난날 크고 작은 사적들이 반드시 글로 지어놓은게 있으련만 한가지도 보존된 것이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아니할소냐?

매년 10월15일에 제사를 올리고 회의하기를 지금까지 계승하였으니 실로 오랜 내력이 있다。 대저 사람이란 반드시 조상에게 근본을 두고있는 것이며 근본인 할아버지가 동일한 것을 일가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근본이 견고한 나무는 지엽이 무성하고 근원이 깊은 물은 흐름이 긴 것이다。 선조에서 오랜 덕이 있으면 반드시 후손들이 장수하고 번창하는 것이다。 나에게 부탁하여 일가들은 말하기를 항상 이 재사로 다같이 모여서 추원 보본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의를 감히 잊지 말고 묘소를 성묘하고 감모의 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천리의 근본이요 인도의 정상이라 하였다。 우리 여러 일가들이여 비록 소원한 일가라도 그 뿌리의 근본은 선조의 유체로부터 나누어진 것이며 또 한마을을 함께 살고 있으니 그 일가된 정의만은 다를게 없다。 자신들 각자가 기쁘고 슬플때에 각자들 힘을 내어 서로 돌보아 주며 다같이 나가자고 권면하여 일가끼리 화목의 정을 다하게 되면 이것이 가히 백대가 되어도 지친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 문중의 영화는 반드시 끝이없이 이어질 것이다。 재사 이름을 구수재라 하였는데 이 아홉 구자는 수가 많이 모인다는 뜻이다。 당나라 시대에 장공예란 사람이 9대가 함께 살면서 참을 인자로 화목의 의의를 삼았고 물 수자는 물개시골, 물개마을, 물개교외란 뜻으로 이 재사가 구계의 좌측 언덕에 있기 때문이며 금강물 우측 평원이란 뜻이니 어찌하여 흠모하지 아니할소냐? 여러 후손들은 항상 제향의 의의에 정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며 끝없이 계승하면 우리 문중에 영광의 도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감히 조리없는 글로 대략 위와 같이 써서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힘쓰고자

한다。

서기1980년 경신 10월 일

통덕랑공 11대손 형수는 삼가 기록하다

㉒ 九水齋記(通德郞公 諱 重三) 忠孝公后 靑陽

主山鷹峰 高聳大開 脈絡淑鍾 明 其案九谷 衆水聚合 洞府曠豁 堂 此可謂湖西之勝地 今靑陽郡木面新興里九水洞其兌向之原 有齋 曰九水齋 惟我漆原尹氏先祖考通德郞公諱重三之齋舍也 本洞 公杖屨之地而衣履之藏 吾桑梓之鄕本齋刱建崇奉 殆近三百載之久矣 往前大小事蹟 必有成誌者而無一保存 是豈非痛恨哉 每歲上冬望日 薦享而講信至今嗣續 有自久來矣 夫人之生 必本于祖 同本于祖者族也 又且根固之樹枝葉茂 源深之水 派有長 有先祖之久德有必後孫之壽昌 囑余宗族曰恒念俱聚斯齋 追惟報本而禮不敢忘 瞻掃封塋而不勝感慕 是天理之本 人道之常也 凡我諸宗族兮 雖是疎遠之族 原其本則分自先祖之遺體 又同居一鄕 情誼非他 自當各別 慶吊之間 各自出力 相恤看護齊進勉勵 以盡和宗睦族之誼 是可以百代之至親事 吾門之華開 必可期於無窮矣 齋號九水 九 數之多而聚也 唐張公藝 九世同居 以忍爲和睦之義 水 水鄕而水村而水廓也 齋舍 在于九溪之左丘 錦江右原之義 何不欽慕之哉 諸來裔恒念其誠盡享祀之義 連綿無窮 可得以永保吾門光榮之道也 敢以蕪辭 略書如右 欲與諸宗 共勗乎

檀紀四三一二年庚申十月 日

通德郞公 十一代孫 亨洙 謹記

◇

㉓ 죽림재기(처사공 휘 순무) 대언공후 죽청

본 군의 북쪽 무릉산 아래에 죽청촌은 우리 윤씨가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곰곰히 생각하니 10대조 처사공 휘 순무는 바로 양성당 선생의 6대손이며 충주에서 이곳으로 찾아와 대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창하고 보기 좋았으니 마을 이름을 죽청이라 한 것은 이때문이다。그 속에 집을 짓고 나란히 사는 사람들은 여러 자손들이며 마을 앞에 덕산 서북서향(을좌) 묘원은 처사공의 묘소이다。무인년(1938년)10월 묘제 지낸 다음날에 나는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몇칸 재실을 마을 남쪽 밭가에 짓고 현판을 죽림이라 하였으니 마을 이름에서 취한 것이다。집이 이미 완성되어 나는 일가 노인과 젊은이들 보고 말하기를 선조를 추모하는 도리는 재실 집이 큰 것과 제물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올릴때에 정성으로 행하고 효성을 다하여 조상의 업을 추락시키지 아니하고 선조의 덕을 욕되게 아니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 하였다。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 양성당 선생은 위대한 재능과 깊은 학문으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나라를 위하여 신하

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처사공은 숨어 살며 의리를 행하여 후손에게 후하게 하였으니 곧 글을 읽고 마음을 맑게하였으며 집에 있으면 효도와 우애로 집안을 다스렸으며 마을 사람들을 성실함과 신용으로 독실하게 공경하여 능히 선대를 계승하였으니 바로 선조를 추모하였다고 이를 수 있다。이미 선조를 추모한 사실이 있어 봄비 내리고 가을 서리오는 때가 이르면 묘소에 올라가 제례를 드리는 때에 정성을 다하였기에 선조의 신령이 오시어 끝없는 복을 내리시었다。소원컨대 여러 일가들은 서로 도울지어다 라고 하자 모두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마침내 이 글을 써서 기문으로 삼는다。

기묘년(1939년) 동지일

10대손 병홍은 삼가 기록하다

㉓ 竹林齋記(處士公 諱 舜懋) 代言公后 竹清

郡之北 武陵山下 竹清村 我尹氏世庄也 粤十代祖處士公諱舜懋 卽養性堂先生六世孫也而自忠州 來卜此土 多種竹樹 蒼蔚可觀 里名竹清 爲是也 屋其中 擲比以居者 諸子孫也 村前德山負乙原 處士公藏也 歲戊寅十月墓祭之翌日 余與諸族 合席爛議 仍構數間齋舍於村之南畔 扁以竹林 取里名也 屋既成 余謂族黨老少曰夫慕先之道 不惟在於棟宇之宏 苾芬之薦 亶在乎課忠着孝 以不墜箕裘之業而無忝先德也 緬惟我養性堂先生 以偉才邃學 啓沃朝端 爲國藎臣而處士公 隱居行義 以裕後昆則凡爲心讀書淑身 在家而孝友爲政 處鄕而忠信篤敬 克承先武 乃可謂慕先者也 既有慕先之實而以至春雨秋霜之際 上墓執籩之時 盡誠致慤 則祖考之神 庶幾來格而降之以無疆之福矣 願諸宗 勗哉 僉曰諾 遂書此以爲記

己卯冬至節

十代孫 炳洪 謹識

◇

㉔ 전당재 중건기(휘 익삼) 충효공후 청양

이 재실을 전당재라고 호칭한 것은 동네 이름을 따른 것이며、시골에서는 번개 못 재실이라고 한다。옛날부터 누각 재 정자 재실등을 모두 이렇게 호칭한 것이 많이 있으니 무엇을 의심할소냐? 이곳은 옛날 정산 목면 전당동이고 현재는 청양 목면 신흥리이니 두룽산 동쪽 기슭이요 금강 우측 연안이라서 산수가 아름답고 공기가 신선하다。이 동네 산등중앙의 동남향(건좌) 능원은 통덕랑 칠원윤공 휘 익삼의 묘소가 있고 묘소에 오르는 좌측 길가의 남서향(간좌) 집터는 공의 후손들이 매년 시제일에 모여 제사올리는 재실이다。공이 최초로 이 동네로 들어와 수신제가하고 효도하고 우애하여 소문이 나고 재물과 권력을 멀리하며 스스로 시골로 들어가 생활을 이곳에서 하며 음덕을 마을에 남겨놓았다。이 재

실은 2백여년이 전승되어 그간에 나는 옛날에 지은 재실을 어려서부터 보았는데 기둥과 지붕이 비바람에 씻기어 동으로 기울고 서로 무너져 다시 세우자는 의논이 대대로 전해져 얼마전 을사년(1965년)에 문장인 종칠씨가 주관하여 옛재실을 헐어내고 새재실을 지어 제각으로 삼으니 3간되는 재실이 된 것이다。여러 일가들이 말하기를 이 재실은 잔치하고 노는 오락장소가 아니고 선조를 추모하는 경건한 장소라고 하였다。제사일에 혹 일기가 불순하여 묘소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제사올리기 적당한 장소로 이 재실을 오랜 세월동안 사용하게되었는데 지난해 겨울 재실이 불에 타버렸다。또 다시 여러 일가들이 상의하여 1억원의 돈을 모아 정산사는 고전건축가 박충길씨의 수고로 금년 6월25일에 주추돌을 놓고 7월15일에 상량식을 거행하고 8월30일에 준공하였다。설계와 작업은 전재실의 규모를 따르되 조금 확장되었다。현판 호칭은 역시 전당재라 하였으니 사실상 옛 규모를 닮아 아름다운 기둥과 큰 지붕이 되었다。이 재실에 모여 일가들이 정성을 다하여 선조를 추모하는 제사에 옛 예절을 밝히니 선조의 혼령이 강림하여 계신듯하여 추모하는 생각이 정이 배나 간절한다。이 재실을 건축한 임원들인 종건、종은、진원、종희、동수씨 이외에 일가들이 선조에 대한 보은을 견딜수 없어 일심으로 노력하였으니 장하고 또 위대한 정성이라 하겠다。아… 이 재실을 지어놓고 후손에게 한마디 말을 아니하면 옛날의 아름다운 덕이 감추워져 오래가면 자취없이 사라질 것이니 어찌 그 만분지 일이나마 밝혀놓지 아니할소냐? 여기에 아름다운 말을 남겨 백세토록 전하여 더욱 그 정성을 힘쓰게 하는 것이 바로 선조를 숭배하고 선조에 보답하는 것이며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일가에 돈목하는 것이다。우리 일가들은 매년 제사일에 이 재실에서 목욕재계하고 선조를 추모하는 감정이 들때면 선조의 성의가 영원히 생각나고 후손들의 정의가 돈독하여질 것이다。오늘의 이 큰 공사를 보고 후손들이 계속하여 주면 우리 일가의 번창은 가히 이루어져 오래갈 것이다。이어서 시를 지어 이르길 재실을 다시 지어 전당재라 명명하니 지금 이곳 고향땅에 크고 아름답게 서있도다。선조의 아름다운 말 후손에게 남기고、후손의 아름다운 행동 선조를 받드는 것이로다。일가끼리 돈목하여 서로간 수업하고 제사일은 다같이 정성으로 올리리라。과거같이 미래에도 일가끼리 모여 효도와 우애 더하기를 맹세하세。

서기2000년9월 일

봉덕랑공 10대손 종은 삼가 지음

㉔ 電塘齋(諱 益三) 重建記

忠孝公后 青陽

本齋號電塘 從洞名之 鄕稱 齋舍 自古樓齋亭閣 皆號此然許多 夫何疑乎 維玆 故定山木面電塘洞 今青陽木面新興里 豆陵東麓 錦江右岸 山水窈窕 風煙鮮新 本洞裏岡乾坐原 通德郎漆原尹公諱益三之藏所 埏道左岡中村艮坐基 公之後孫 每會芬苾敬伸之齋舍也 公 初入此洞 修齊孝友 稱聞 財利權富 遠慮 自謫巷村 杖屐此留 庇蔭傳鄕 本齋 曾有二百餘年傳承 這間余見舊齋於少時 棟宇 風磨雨洗 東傾西頹 重建議論 世傳有恨 輓近乙巳年 當時齋長鍾七甫主管 毁撤舊齋 重建于新齋而祭閣 凡以四楹三間 齋之成也 僉宗賢 相謂曰此齋之作 非爲燕會逍遙之樂所 專爲祖先追慕之戒所 享祀之際 或日事不吉 不能上墓 於次齋內以行祭之適所 而待永歲 昨年至冬 火滅齋舍 又詢謀僉宗以鳩財億金 定山古典建築家朴忠吉之以賢勞 是年六月二十五日定礎 七月十五日上樑 八月三十日 告竣 經之營之從前規模 少毫擴張 揭號亦爲電塘 實符乎依舊如模 棟輪宇奐矣 此有會齋宗族新成盡 慕祖香煙古禮明 若先祖精靈陟降如在 羹墻寓慕 尤倍感切 是建齋任員鍾建 鍾殷 晉遠鍾熙 東洙甫外僉宗賢等 不勝祖先之報恩 一心傾勞 可謂壯且大之誠耳 嗚呼 於今齋成 無一言於示後 先時懿德潛行 愈久愈泯 安能不闡揚其萬一哉乎 此貽厥嘉猷 傳後百世 益加勉其祗植者 寔謂崇祖報本 孝親敦宗 我僉宗 每歲事 散致于齋 追遠感時 永慕先祖之誠意 敦睦後孫之親情鑑乎今日鉅事 後來繼述 吾宗之昌盛 可立而悠久也 繼以詩韻曰 新齋重建電塘名 今此梓鄕輪奐成 玄祖嘉猷遺後盛後孫美行奉先迎 家門克篤相修業 歲事尤伸共獻誠 繼往開來宗族會 更加孝友帶礪盟

大韓建國歲次 八十二 庚辰秋深月 日

通德郎公 十代孫 鍾殷 謹撰

◇

㉕ 봉소재기(휘 해)

충효공후 청양

이 봉소재는 조선시대에 중통훈대부절충장군부호군이요 수직으로 증가선대부중추부동지사인 칠원윤공 휘 해의 후손들이 선산을 보살피고 시제를 봉행하고 계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족들간에 정의를 돈독히 하는 재사이다。이 재사는 홍수로 침몰되어 서둘러서 재건립을 하였더니 규모가 협소하여 시제일에 여러 자손들이 회합하여 제수를 준비하고 목욕재계하기에 불편하여 목조구옥을 헐어내고 시멘트와 대리석으로 두배 규모로 신축하여 정결한 내실과 광활한 대청이 구비되어 참신한 재사가 되었다。이 재사를 봉소재로 명명한 이유는 지형산세에 의하여 호칭한 것이다。이 곳 재사의 뒤에는 만길 앵봉산이 하늘을 닿을듯 솟아있고 문전은 천리되는 금강이 바다로 향하여 흘러가니 산이 열려있

고 물이 비추는 명당이며 토지 비옥하고 인심이 순후한 풍속이 아름다운 시골이다。이 앵봉산 한줄기가 동남향으로 10여리를 뻗어 내리며 높고 낮은 산봉들이 용과 뱀같이 꾸불꾸불하고 만그루 소나무 잣나무들이 빽빽하게 무성한 산등에 부호군 공의 묘소가 안장되어있고 그 산소 밑에는 자자손손이 차례로 장례를 하였다。지형산세가 봉황새 둥우리와 같아 보이므로 또다른 이름을 봉소요지라고도 한다。이 재사의 신축 경비는 위토에서 받은 도조로 제사를 올리고 저축한 잔여 금액과 종산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보상으로 받은 대금으로 충당하였고 건립 계획과 공사과정은 유사인 종설씨의 계획과 노력으로 낙성이 되었다。종친이란 복제가 끝나면 정의가 소원하게 되고 정의가 소원하면 타인같이 되어 그래서 선조를 추모하는 제사일에 회합하면 모두가 같은 할아버지의 후손이 되어 백대가 되어도 지친이라 하는 것이다。우리 후손들이 묘소의 성묘와 춘추의 제사와 위토의 보호와 종친의 화목을 정성과 노력을 다바쳐 자손 각자마다의 도리를 다하면 후일의 모범이 되어 이 재사가 영원히 보존 될 것이다。

서기2000년 경진 가을에 준공

부호군 8대손 의원은 삼가 지음

㉕ 鳳巢齋記(諱 楷) 忠孝公后 青陽

鳳巢齋 朝鮮時代 贈通訓大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漆原尹公諱楷 後孫 先山 省掃 時祭 奉行 稧日 講信 宗族間 情誼 敦篤 齋舍 齋舍屋 洪水 沈沒 倉卒 再建立 規模 狹小 時祭日 諸子孫 會合 祭需 準備 沐浴齊戒 不便 木造舊屋 毁撤 石灰 代理石 二倍規模 新築 精潔 內室 廣濶 大廳 具備 嶄新 齋舍 齋舍 鳳巢齋 命名 理由 地形 山執 依 號稱 屋後 萬丈鳳山 衝天聳出 門前 千里錦江 向海下流 山開水明 靈地 土沃民淳 仁里 鶯鳳山一脈 東南 十里餘 延蔓 高低峯巒 龍蛇屈蟠 萬株松栢 蔚乎蒼蒼 中岡 副護軍公宅兆 安葬 其階下 子子孫孫 繼葬 地形山勢 鳳巢形 望見 一名鳳巢要地 齋舍 新築經費 位土賭租 祭需 便用 貯蓄 殘餘金 宗山一部 道路 收用 補償 代金 充當 建立計劃 工事過程 有司 鍾高氏 賢勞 落成 宗親 服制 情誼 疏遠 情誼 疏遠 他人 先祖 追慕 祭日 會合 同祖 後孫 百代至親 後孫 墓所 省掃 春秋 奉祀 爲土保護 宗親 和睦 精誠 勞力 道理 後日 模範 齋舍 永遠 保存

西紀二〇〇〇年 庚辰秋 竣工

副護軍八代孫 義遠 謹記

㉖ 덕암재 중수기 부원군후 보성

호남의 보성천마산 밑에 재실 이름이 덕암이란 곳이 있으니 고인이 된 중호조참판성재공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은 장소인데 그로 인하여 대대로 교육하던 곳이다。 공의 아버지 괴정공은 조정암선생의 학문을 배웠고 공의 아들인 차군헌공은 이도암선생의 도를 배워서 무신년 적도를 토벌한 공신이 되었으며 선대에서 시작하여 중흥을 일으킨 사람들은 검옹과 심재와 용재와 좌랑과 전적공이라 하겠다。 공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 충의 관직 어디를 가던지 이 덕암재가 바탕이 되지 않음이 없었다。 또 나는 듣자하니 보성은 호남의 사대부들이 준재를 배출한 이후로 크던 작던 명성이 멀던 가까이던 소문난 사람들은 그 시작도 역시 이 덕암재를 본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대저 배워서 세상의 도가 된것은 근본이 완고함이며 그리고 이 서재가 학문에 도움이 된것도 그것은 역시 소중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세상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 분을 말하지 않고 그 누구를 말할소냐? 아 성대하도다 특별히 어찌하여서 운수가 갔다가 다시오는 법이 없을까? 세상에는 평시와 혼란이 있어 그런고로 근대에 와서 올바른 학문의 강의는 온 나라에 끊어지고 이욕이란 글자만 마음을 파먹는 좀벌레가 되어 살인의 함정이 되었으며 인륜을 지켜온 예의있는 사람이 사람노릇을 한다는 이유로 육대주의 금값으로 멸종되었으니 이 덕암재인들 어떻게 능히 혼자 면할 수 있으랴?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는데 병호라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공의 7대방손이 된다며 개연히 먼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큰 돈을 연출하여 중수를 하게 되었으니 퇴락한 곳은 일으키고 묵은 곳은 깍아내서 환하게 뽐내여 관광이 바꾸어 졌으니 보고 듣는것이 이르는 곳이면 모두들 감탄하고 탄식하며 윤씨중에도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공의 8대손인 행우가 다시 내집을 찾아와 중수문을 부탁하여 나는 재물을 천히 여기고 덕을 귀중하게 여기는 성현의 교훈을 지키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 기꺼이 사양하지 않고 중수문을 기술하여 권면하기를 윤씨들은 도를 외면함이 없고 마음으로 힘쓰고 있었으니 마음이 어디에 있던고 배움에 있으며 배움은 무엇을 배웠던가 인륜과 예의를 배운것이다。 조정암 선생의 도는 진실로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 강학을 힘써 지켜가며 조용히 하늘 운수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에 계신 성재공 혼령이 바로 말하기를 나도 후손이 있어서 세상을 도울 도를 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 말하기를 보성의 뜻있는 선비들이 다같이 옛날의 도의를 닦음을 좋은 일로 삼게되어 다행하다 하리라。 만일 이 덕암재에 이름을

짓는다면 옛 기록이 여기에 있으니 다시 말하지 아니하겠다.

1937년 6월 일

수양 오진영은 서운산의 망화돈실에서 쓰다

㉖ 德巖齋 重修記 府院君后 寶城

維湖南之寶城天馬山下 有齋諺德巖 故 贈戶曹叅判誠齋公藏修之所 仍世講學者也 公之先槐亭公 傳靜庵先生之學 公之胤此君軒公 學陶庵先生之道 爲戊申討賊之勳臣 述而興者 曰儉翁 心齋 庸齋 佐郎 典籍諸公 是也 公之家 世學問 忠義官業 何徃而非斯齋爲之地 且吾聞之 寶城 湖南士大夫之驥北而後來若大若小 馳聲遠邇者 其始亦罔不于斯而則之 夫學之爲世道 本固也而齋之爲學之助 其亦綦重矣 賢者之有益于世 不謂公而誰謂之 嗚乎盛矣 獨無奈何運有徃復 世有治亂故 近世正學之講 將三千里絕響而利之一字 爲食心之蠹 爲殺人之穽 綱常禮義之人 所以爲人者滅頂 于六州金價矣 斯齋亦何能獨免 夫鞠爲茂草 乃有曰炳皓甫 於公 爲七世傍孫也 慨然乎先徽之將沬 獨捐巨貨以重修之 頹者興 蕪者剔 煥乎其奮之改觀 瞻聆之攸及 咸咨嗟歎息 謂尹氏之有人也 公之八世孫珩宇 再踵門 請以文 余喜賤貨貴德聖人之訓 賴斯人而尙及見之 不辭而爲之記 以勉夫尹氏之毋道外而務內 內何在 在學 學何學 學夫綱常禮義 靜庵先生之道 豈不外是 是之講而守之力 靜以竢天復之日 誠齋公在天之靈 始乃曰予有後而爲輔世道矣 復以語 寶之志士 同食舊爲吉則幸也 若夫齋之得名 有舊記在此 不復云爾

彊圉赤舊若陽復之翌月

首陽 吳震泳 書于瑞雲山之望華遯室

◇

㉗ 유산재기(남호공 휘 세원) 대언공후 구산

우리는 칠원윤씨 선조이신 청백리 지퇴당의 증손자이며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를 추증받은 휘 호연의 후손들로써 칠원의 석전에서 대대로 살았다 6대조 되시는 휘 세원의 자는 이서요 호는 남호공인데 공이 그 신령스런 땅을 선택하여 비로소 이곳으로 이사와 살았으니 지명은 유산이다. 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꾀꼬리 살기에 적합하고 산이 크게 높지 아니하여도 그 세력이 수려하며 평야는 광활하지 아니하여도 기름진 땅에 가까우며 창밖에 솔과 대나무들은 바람에 거문고 소리를 내니 은퇴한 군자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자손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6대손에 이르러 태어난 영직공이 나면서부터 특이한 재질이 있어 일찌기 집안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을 수련하였으며 벼슬에 뜻을 두어 관직이 수사에 이르게 되었으니 선조들

께서 땅을 선택하여 자손을 가르친 음덕이 후손에 이르게 된 것에 의심할 바가 없으며 수사공이 재직 시절에 추모의 뜻을 심히 품고 선조를 위한 일에 정성을 다하여 묘소에 비석 일체를 구비하였음을 족보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한 업적은 우산리 앞에 서있는 말없는 비석이 증거하고 있으나 옛날부터 지퇴당 이후로 우리 집안 가훈은 오로지 수신제가였으며 외물은 탐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남호공이 죽은지 2백년이 지나자 그 세력이 약해져 세일제 올리고 목욕재계할 장소를 짓는데에도 이르지 못하다가 근년에 이르러서야 은혜입은 자손들이 상의를 하고 재물을 모아남은 정성 미약한 힘으로 겨우 수사공이 짓고 조용히 살던 육류정을 취득하여 후손들이 제사를 올리고 목욕재계할 수 있는 장소로 삼게 되었으나 기문은 사라졌으며 문중에 원로들이 차례로 죽어 논의할 곳이 없으니 자손의 여한이 이보다 큰게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내가 비록 불초하고 단문하고 졸필이나 대략 우와 같이 적어놓고 후손들에게 부탁하노니 선조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계속하여 전승하여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풍을 추락시키지 아니하면 이 어찌 우리 문중의 아름다운 덕이 아니겠는가? 근신하고 힘쓸지어다。 이것으로 기문을 삼았노라。

경신년(1980년) 5월5일

남호공 6대손 영춘은 삼가 기록하다

㉗ 柳山齋記(南湖公 諱 世元) 代言公后 龜山

惟我先祖淸白吏止退堂之曾孫贈通政大夫丞政院左承旨諱浩然公之后孫 世居漆原之石田 六代祖諱世元 字而瑞 號南湖公 擇其地靈 始移居于此 地名 柳山也 柳非叢林 可宜鶯棲 山非泰高 其勢秀麗 野無廣濶 庶幾膏油之地 窓外松竹 風引琴瑟之聲 可宜隱君子遯跡之地也 故子孫 仍居而至于六世 永穆公 遂生 特有異質 早受家訓 以修學文有意於公車之業 官至水使 先祖擇地敎子之蔭 以及於後孫無疑 水使公 在職之時 孔懷追慕之意 殫誠於先祖 以備墓道之儀 考於譜牒 知矣 愛民治政之蹟 牛山里前無言之石證之 然 自古止退堂以來 吾家遺訓 只在修身齊家 勿貪外物故 南湖公旣歿 至二百年于玆矣 勢力 不逮 未遑歲修齊宿之所 至于近年 所蒙子孫 合謀鳩財 以殘誠微力 僅取水使公閑居之所六柳亭 以爲後孫肄業齊沐之所 尙無所記者門中文老 差第凋零 無處所論故 是爲子孫之恨 甚莫大焉則至于今日 不得已雖不肖之短文拙筆 略撮如右 寄語來裔以父祖之心 爲心 繼之承之 勿墜祖先之徽風 此豈非吾門之美德耶 愼哉勉哉 是以爲記

歲庚申榴夏節

南湖公六代孫 永春 謹記

㉘ 서양정기(휘 재호) 대언공후 합천

수석과 숲과 골짜기의 아름다움을 얻어 태어났고 살다가 죽어 그 곳에 장례하였으니 당시에는 고고하게 살던 선비가 많이 있었으며 그리고 자손들이 그들이 살던 곳으로 나아가 정자를 짓고 그 주위를 빙둘러 대나무와 꽃나무들을 심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보고 듣는 즐거움을 누림은 뜻있는 사람이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경건하지 못하고 지켜만 오면 이름만으로 끝나게 될 것이며 그 묘소가 있는 곳에 석물을 구비하고 위토를 갖추어 세일제를 올릴때에 소잡고 술하고 예절대로 술잔 갖추어 매우 풍부하게 하는 것은 능력있으면 가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성으로 하지 않고 계승만 하면 잠시일 뿐이다。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또 정성과 공경으로 지켜주고 계승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혹시 그 실질적인 것을 줄이고 명성만 사치하게 하여 더욱 오래일수록 더욱 빛나게 할 계획을 아니하면 군자들은 오히려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합천 북마령 아래요 장계곡 위에 남옥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윤씨들의 농장지이다。윤씨의 선조 중에 후당공 휘 재호가 있어 이곳에다 처음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생활하고 글 읽음을 즐거움으로 삼았다。그는 보이지 아니한 덕행이 있었으며 죽어서 후상서곡이란 곳에 장례한지 현재 백여년이 된다。자손이 번성하게 퍼져 엄연히 한 마을을 이루었으며 늙은이、젊은이 구별없이 옛날 법을 독실히 지키고 있다。비록 시대가 바뀌어졌어도 본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고 몇차례 전쟁을 치르면서도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여 그 곳의 물 하나 돌 하나 숲 하나 계곡 하나가 추모의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여기서 여러 윤씨들이 서로 더불어 종계를 결성하여 묘소에 비석을 세우고 위토를 구비하여 세일제의 제사를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고 그리고 또 남는 재력으로 방 한칸을 살고있는 집 곁에 짓고 묘지의 이름을 따서 현판을 서양정이라 하였다。일찌기 나에게 그 사실의 업적 전말을 기술하라고 요청하였다。진작 선세에서 이 정자 짓는 것을 본 적이 역시 많았으나 혹은 소문만 나있고 사실이 아니며 혹은 잠시 있다가 오래 유지가 어려웠다。대저 의지를 두고 있으면 있게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 힘쓰면 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지키기를 공경으로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계승하기를 정성껏 하는 것은 도와서 오래가게끔 하는 것이다。사실이 오래가면 천하에 좋은 일이 이보다 다할수 없을 것이다。윤씨네 씨족같이 번성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능히 정성과 공경으로 일을 하고 의지와 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하였으니 더욱 오래일수록 더욱

빛남이 이렇게 왕성한 것이니 여러 군자들은 당연히 유념할 바이다。

서기1963년 계묘년 5월 일

진양 강석황은 기록하다

㉘ 瑞陽亭記(諱 載豪) 代言公后 陝川

得水石林壑之美 生焉而居之 歿焉而葬之 其時高蹈之士多有之而子孫 就其所居 以爲亭臺 環其隙養 樹竹花卉 夸形勝而耀觀聽焉 此 有志者之所能成 然而不敬以爲守則名焉而已 于其所葬 具儀物置位土 歲事修擧 牢牲酒醴 俎豆壺觴 極其豊贍焉 此 有力者之所可爲 然而不誠以爲繼則暫焉而已 有志有力而又誠敬 以守且繼之則善矣而或乃約其實而侈其名 不爲愈久愈著之圖 君子猶爲不欽焉 陝川北馬嶺之下 長溪之上 有村曰南玉者 尹氏之庄也 尹氏其先有後堂公諱載豪 始家于此 耕農爲生 讀書爲樂 有隱德以歿而仍葬于后祥瑞谷者 今百餘年矣 子姓 蕃衍 儼成一閈 無長無少 篤守者舊常 雖時移代易而不廢本業 累經戰難而不離故居則其一水一石 一林一壑 無不可以起追慕之思 於是 諸尹氏相與爲宗契 治墓石備祭田 歲時奉祭祀甚盛而又以餘力 築一室於所居之側 取墓地名而扁之曰瑞陽亭 問嘗請余記其事之顚末 余嘗見世之爲此者 亦多矣 然 或名而不實 或暫而難久 盖志可而値而有 力可而勉而爲 故守之而敬者 所以存其實也 繼之而誠者 所以勗其久也 實而久天下之善 無過於此 以尹氏族姓之蕃且賢 又能從事於誠敬而致夫志力之終始 其愈遠而愈光者 於是乎旺 此諸君子所宜留念也

東方紀元四二九六年 癸卯 陽復節

晉陽 姜錫鋧 記

◇

㉙ 동산재사실기(진사공 휘 상의) 대언공후 합천

우리 경상도 산맥이 꾸불 꾸불 남으로 십여리 내려와 관산에 이르러 걸출하게 솟아있고 여러개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우측으로 계곡이 열려 선영동이 되었고 좌측으로 꺾이어 곁으로 돌아 한 줄기 긴 허리띠같이 끌려서 북을 걸어놓은것 같은데 옛날부터 동산이라 호칭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진사부군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옛날에 나의 선친께서 일찌기 우리 아들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할아버지 증조 이상을 큰 재사인 관산재에서 세시따라 성묘와 제사를 올려야 하고 동산에 있는 선친의 묘소는 산등 넘어 있어 약간 멀어서 직접 목욕재계할 장소를 둘 수가 없었고 재력도 미치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나의 깊은 한탄이라 하시며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하시었다。 늙어서야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능참봉 벼슬을 하시어 통정대부비서감승에 이르게 되었는데 세상이 변하여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아버

지는 항상 울분을 품고 한탄하다 돌아가셨다。 유언을 받들어 선영의 좌측 동향(유좌) 능원에 안장하고 각 묘소마다 비석을 세웠는데 할아버지 비석문은 면암 최익현 선생이 짓고 아버지 비석문은 판서인 윤용구가 글을 짓고 글씨를 썼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음덕과 아름다운 행동이 다행히도 당시에 군자의 기록을 입어 족히 백세토록 소멸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에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을 계승하여 재사를 두 분들의 묘소 중간에 건축하려고 계축년(1912년) 봄에 착공하여 그 해 7월 16일에 낙성식을 갖고 동산과 연관시키어 현판을 걸었다。 재사앞에는 수목들이 울창하게 가리고 있어 마을에서 떠드는 소리가 지척이라도 곧 그윽한 별천지가 이루어졌다。 서리 밟고 이슬 내리면 소나무와 가래나무 숲에 더욱 추모의 감정이 더해지고 좋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어 자손들의 학문 장소로도 쓸수 있으니 돌아가신 선친의 유언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하겠다。 제수를 장만하는 할아버지의 위토전답 약간과 또 우리 삼형제들이 선친의 묘소가 있는 것을 위하여 장만하였고 별도로 글로 기록하여 재사의 창고에 보관하여 영원토록 변경할 수 없는 계획을 하였으니 아 나의 후손들은 선친께서 기초를 연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쇠퇴되지 않게하면 이 재사는 기울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여 가히 무궁함이 기대될 것이니 힘쓸지어다。

순능참봉 순학은 기록하다

㉙ 東山齋事實記(進士公 諱 尙義) 代言公后 陜川

吾道一脉 迤邐南出十餘里 至于冠嶺 傑然聳秀 列祖子孫峰而右闢淵谷先塋洞 左折旋旁 拕如一條長帶 懸鼓形者自來 稱東山 我王考進士府君衣履藏焉 昔 先府君 嘗謂不肖等曰祖曾以上則有冠山齋 可以供歲時省薦而至於東山親塋則越一岡而稍遠 尙無寓羹墻致齊沐之所而力未遑焉是余深恨也 汝其識之 晩年 府君 筮仕寢郎 至通政大夫秘書監丞 及世變罔極 府君 常懷憤嘆 及歿 承遺志 卜藏于先塋左偏枕西原 各具墓前儀物 王考墓碑 勉庵崔先生 撰先考墓碑 尹相公用求 撰幷書之 兩世潛德懿行 幸賴當世君子之筆而足以百世不磨矣 於是 及繼先府君遺志 營建丙舍于兩墓之間 經始於癸丑之春 告成於七月旣望 因以東山扁其楣焉 前有樹林 蔚然擁護 村鬧咫尺而便成幽夐別區履霜露展松楸 彌增追慕之感而圖書寶藏 子孫肄業 亦得其所 庶幾不負先人之顧托歟 粢盛之供 前有王考墓田若干且吾三兄弟 爲先人墓所置者 別有文記 藏諸齋庫 以爲永世不改之圖 嗟我後承 以先府君肇基之心 爲心 不替引之則此齋 不傾不圮 可期無窮矣 勉之哉

順陵參奉　淳學　記

㉚ 구강재실기(주사 휘 창학) 대언공후 합천

구강재는 합천군 북방이며 오도산 남방인 팔심리에 있다. 마을 북쪽에 있는 청룡산 기슭이 가로로 꾸불꾸불하게 많을 다자 형을 이루고 있는데 속세의 이름이 하구등이라 하여 그 지명으로 인하여 현판을 걸은 것이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이신 동래 정씨께서는 아름답고 유순하고 깔끔하고 면밀한 덕행이 있어서 옛날의 이름난 여인에 비해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을유년 4월 20일에 나이 81세로 세상을 떠나 이 산등 남서향(간좌) 능원에 장례를 하였으며 돌아가신 아버지 종사랑한성부주사 우천공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고 효도하고 우애하여 수신하고 경계하는 덕행이 있었는데 무자년 8월 23일에 나이 80세로 돌아가시어 역시 어머니 묘소 아래 동일한 능원에 장례하였다. 소본당이신 큰 형은 강직한 성품이 있어 깍이지 아니하는 의의가 특별히 성립하였는데 병술년 7월20일에 61세의 많지 아니한 나이로 죽어 교곡리에 장례하였다가 후일 이 산등 남서향(간좌)으로 이장하였으며 배위인 성산 전씨는 합장으로 모셨다. 학당이신 둘째 형은 정치의 큰 뜻이 있었는데 병신년 4월1일에 죽어서 역시 이 산등 동남동향(신좌)에 장례하였다. 토끼띠로 태어난 병항은 세상을 다스릴수 있는 계략과 경륜이 있었는데 무술년 10월24일에 서울서 죽어 양주군 미아리 산에다 장례하였다가 후일에 이 산등 남서향(간좌)으로 이장하였다. 나도 역시 사후의 장지를 이 산등 남남동향(해좌) 능원 예정하였으니 이 산은 우리 다섯 부자간의 계장지라 할 수 있다. 내 자손들도 역시 영원히 곁에다 장례를 한다면 옛날 수사에 살던 성인의 묘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오상주씨네 선산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리라.

아 유명은 비록 다르지만 죽은자의 혼령과 살아있는 자의 정신은 같은 것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부르고 대답할 것이며 물러서면 형제에게 즐겁게 함을 평일과 같이하여 영원토록 즐거워 한다면 또 무엇을 바랄소냐? 큰 형이 병세가 위독할때 나를 부르며 울면서 말하기를 덕환 아우야 인간세상 모든 일에는 과연 정해진 운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연히 가산이 망하였고 소망하였던 일은 한가지도 추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남은 한이다. 현재 내 몸에 병이 매우 심상치 않으니 만일 아버지보다 먼저 죽으면 이 죄를 어찌 면할소냐? 오직 네가 오래오래 세상에 살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수렴하여 장례 모시고 묘소에 비석을 세우고 제사 올릴 집을 지어 차례로 모두 끝내거라. 현재의 형편으로 너에게 구구하게 부탁을 하게 되니 도리어 매우 편치않다고 하면서 서거하였다. 이때에 가산이 탕진되어 형편을 형언

할 수 없었다。만일 조금만 나아지면 나도 역시 자식인지라 형이 비록 부탁하지 아니하였어도 맹세코 나 혼자만 부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 마음은 없었다。오로지 눈물만 마시고 있을 뿐이지만 다행히 70세까지 먹고 죽게될 때에는 약간의 소자본을 얻을 수 있었다。그래서 먼저 묘소에 비석을 세웠고 오늘은 또 재실을 건축하고 일곱마지기 반 되는 논을 내놓아 우리 삼부자의 묘답으로 삼게하여 재사에 기부하였으니 이는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줄이지만 아니한다면 성묘하고 제사 올림은 폐지되지 않고 재사도 또 유지가 될 것이다。오늘 이후로 나는 감히 소망하였던 일을 거의 이루었다고 하겠다。

아 세월따라 변천하여 10월 서리 내리는 초하루 날에 아들과 딸이 이 재사에 모여 며느리와 딸들은 여러가지 음식 정결하게 준비하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 깨끗이 쓸어놓고 다음은 우리 형제들까지 같은 날에 제사를 같이 흠향하게 되면 혼령의 이치 어찌 편안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할 소냐? 이에 구양수의 묘소 비문을 모방하여 이 실기로 삼아 현판으로 걸었다。너무 심하도다。나의 마음은 두기 어렵고 또 멀은듯 함이여! 소원하건대 우리 자손들은 이 재사에 올라와 이 실기문을 읽어보고 자연적으로 성공시키기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고 영원토록 지체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끌어간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구구히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임인년 단오절에 불초자 병형이 울면서 삼가 기록하다

㉚ 龜岡齋實記(主事 諱 昌學) 代言公后 陜川

龜岡齋 在陜川郡北吾道山南八壽里 村北靑龍麓 横接蜿蜒成多字形 俗號曰下龜嶝 因地名而揭扁者也 先妣孺人東萊鄭氏 有婉順精密之行 可無愧古史氏 乙酉四月二十一日 壽以八十一 下世 卜葬于此嶝艮坐原 先考從仕郎漢城府主事愚泉府君 有寬仁孝友修敕之行 戊子八月二十三日 壽以八十 考終 亦葬于先妣墓下同原 溯本堂伯兄 有强直之性特立不削之義 丙戌七月二十日 以六十一不多壽 觀化 初葬于橋谷某坐 後 改葬于此嶝艮坐 配星山全氏 合祔 鶴堂仲兄 有經綸大志 以丙申四月一日 卒 亦葬在此辛坐 卯君炳恒 有治世籌策經綸 以戊戌十月二十四日 卒于京第 葬于楊州郡美阿里山 後 改葬于此艮坐 吾亦身後地 擇定此亥巳原 此山 可謂吾五父子繼葬之地也 吾子孫 永亦藏于側則庶不悖洙泗先聖人之墓制 亦無愧烏傷朱氏之葬山 嗚呼 幽明 雖殊 精英 若在 晨昏 唱諾于考妣前 退而湛樂乎兄弟 如平日則永世樂事 夫復何有 伯兄 病劇 呼余下淚曰德煥弟 人間萬事 果命數有定 吾無罪而偶然落產 志事 一未進行 是吾大恨也 今吾病 大不尋常 若先父而死則此罪何贖 唯汝則久久在世 父主下世後 斂葬也 墓儀也 齊沐之室 差第盡畢而來 以今形便 托汝區區 還極不安 怡然而逝

時 家事板蕩 不可形言 如得小康則吾亦子也 兄雖不托 矢無獨享富安之心 只飮泣而已 何幸七十垂死之年 稍得小資故 先堅墓儀 今友修建室 出七斗五升畓 爲吾三父子墓畓付于齋 此雖不多 若不欠縮則可不廢瞻掃之祭 齋亦可維持矣 以今以後 吾敢自謂志事 可庶幾矣 嗚呼 隨歲遷易 以十月霜露旣降之令 子若婦 會于此齋 俾婦若女 精具庶羞省掃于考妣墓塋 次及吾兄弟同日同得享祭則於神理 豈不曰有安乎 玆倣歐文公隴岡仟記 爲此實記 揭于楣 甚矣 吾心之艱且遠也 願吾子孫 登於斯 讀此文 油然思成立之艱而永世勿替引之則豈不大幸矣乎 區區切望者也

歲壬寅端陽節

不肖子 炳馨 泣血 謹記

◇

㉛ 원상정사기(심재공 휘 병형) 대언공후 합천

영남이남의 합천군 심원촌을 중세에 이르러 팔심촌이라 호칭하였으니 즉 칠원윤씨들이 대대로 사는 지방이다。오도산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오면서 혹은 솟아오르고 혹은 구부러져 10여리를 돌아 한 마을을 만들었다。매우 특이하게 뛰어난 곳으로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것 같다。돌 틈에 샘물은 유심하고 숲속은 요조하며 시장과는 약간 떨어져 요란한 세상 이야기는 들리지 아니하니 사실상 군자들이 세상을 피하여 휴양하기 적합한 장소이다。그래서 이 집 주인되는 윤 문장가 병형씨가 수백두락되는 널다란 곳으로 나가 작은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면서 강의하며 늙어 학문 연구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겸하여 후학들이 수업할 자리로 만들어 그 명칭을 원상정사라 하였으니 그 지명으로 인하여 지은 것이며 이 주인장의 선고되는 우천공이 일찌기 이름짓도록 한 바이다。일찌기 제사기문이 없었다며 나에게 지어주기를 요망하였으나 나는 사실상 글도 지을 수 없고 늙고 병들어 감히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그러나 느티나무 풍경이 좋을때 서로 만나 난초향기 더욱 짙어지니 그의 학문이 정도임을 깊이 알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옛 학문을 좋아하고 뜻을 숭상하는 선비인지라 그래서 감히 끝까지 어찌할 수 없어 삼가 한마디 기록하여 말한다。고금을 두고 정자의 설립은 백천가지 무엇을 한정삼아 혹은 아름다움을 취하고 혹은 자기 뜻을 붙여 지었으니 대략 그 개요만 열거하면 파릉의 악양루는 아름다움을 동정호에서 취하였고 제주의 취옹정은 아름다움을 양천에서 찾았으며 한나라 위공의 주금당은 뜻을 영향에 붙였는데 이제 이 집은 아름다움을 오도산에서 취한 것이며 뜻은 마을 이름 심원촌에서 붙인 것이다。또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고 후학을 권장하였고 그 소망이 깊고 멀어서 보통 경치의 아름다움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일찌기 우리의 유도는 천하에 큰 도라 하였으며 주자도 말하기를 이 도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원이란 물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샘물이 계속하여 나와 밤과 낮을 쉬지 않으며 웅덩이에 찬 후에 흘러나가 사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학문의 처음과 끝을 말하여 그 낮은 것부터 배워 높은 것에 이르는 의의를 비유한 것이다。그러하다면 도라는 것은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이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인륜의 사이에 서 나의 성품에 따르고 나의 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그런고로 옛날부터 성현들의 천가지 말 만가지 말이 모두 사람들이 따라 행하기를 원했으니 편안하게 행한 사람은 성인이고 이롭게 행한 사람은 현인되고 힘써 행한 사람은 선비가 된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유도는 가깝게는 부부가 집에서 사는 사이에서 부터 치국평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한집됨이 없으니 하루 아침 하루 저녁에 합쳐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며 또 한가지 일 한가지 사물을 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그런고로 자사라는 선생이 말하기를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떠나면 옳지 아니하고 떠나면 도가 아니라 하였다。이 도에 살고 이 도를 읽게 함은 뜻을 세워서 성인이 됨을 희망하고 현인도 희망함이니 마음속에 지니어 잊지말고 급히 이루고자 말며 밤과 낮을 쉬지 않고 공부하며 명예를 생각하고 의리를 생각하여 우리도의 맥에서 진실한 근원을 찾으면 성인에 이르게 되고 이르지 못하면 현인이라도 되며 최하라도 근신하는 선비가 됨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심재옹의 학문은 도에 뜻을 두고 있어 정성과 정직으로 근본을 삼고 수신제가로 노력을 삼았으며 또 일찌기 아버지 교육을 전승하여 자연 시문과 예절의 학문이 있었고 간재 전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능히 도학연원의 정론을 지키고 있었다。이렇게 우리 유도가 어두어진 날을 당하였으나 더욱 그 의지를 견고하게 갖고 확실히 이 재사에 있는 경서와 역사책을 수호하며 자신이 지은 싯귀로 타고난 성품과 뜻을 즐김을 늙어 죽을때까지 계획을 삼았는데 과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아니한 강경한 사람이었다。

동중서는 말하기를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으니 하늘이 변하지 아니하면 도라는 것도 또한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나는 또한 말하기를 재사의 아름다움을 취한 것은 산에 있으니 산이 변하지 아니하면 재사도 역시 변하지 아니하리라。대체로 이와같다면 저 동정호와 양천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향의 일시적 뜻에 이르게 되어도 그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졸렬한지 알지 못할 것이다。이 주인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며지 창문과 방안에 아침 저녁 연기와 구름과 춘하추동

경치의 아름다움은 모두 외면하고 기록을 다하지 아니하였노라。

기해년 9월9일 연안 이만영은 기록하다

㉛ 源上精舍記(尋齋公 諱 炳馨) 代言公后 陜川

嶺以南陜川郡尋源村 中世 稱以八尋村而卽漆原尹氏世居之地也 有吾導山 自北而南來 或起或屈十許里回旋 作一區 甚奇絶 如金環 落在地上 泉石 幽邃 林巒 窈窕 城市稍遠 囂塵 不到 實合士君子遯世養靜之所也 故 其主人翁尹斯文炳馨 就其上數畝間曠之地 築一小屋 棲息於斯 講誦於斯 爲其暮年藏修之計 兼作來學者肄業之所而名曰源上精舍 蓋因地名而翁之先府君愚泉公之曾所勉命者也 尙無楔楣之文 要余以作 余實無文老病 不敢當 然 榆景相逢蘭臭益厚 深知其學之正而居今好古尙志之士故 不敢終怎謹將一言而記之曰古今亭舍之設 百千何限而或取其美 或寓其意 略擧其槩而言之 巴陵之岳陽樓 取美於洞庭 滁州之醉翁亭 取美於釀泉 韓魏公之晝錦堂 寓意於榮鄕而今此舍 取美於山之吾道 寓意於村之尋源 且繼述先志 奬進後輩 其志深遠 不可與尋常臨觀之美者 同一而語也 蓋嘗論之吾道者 天下之大道也 故 朱子曰斯道 無對 源者 水之始出者也 故 孟子曰源泉 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 進放乎四海 此 言學之始終而諭其下學上達之義也 然則道 不在高遠難行之地 只在民生日用彛倫之間 順吾性而行吾身者也 故 從古聖賢千言萬語 皆欲人由而行之 安而行者 爲聖 利而行者 爲賢 勉而行者爲士 然 是道也 近自夫婦居室之間而至於治國平天下之事 無處不在 其小無內 其大無外 非一朝一夕 襲而取之者 亦非一事一物 行而致之者也 故 子思子曰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使居於斯而讀於斯者 立志以希聖希賢 持心以勿忘勿助 做工以不舍晝夜 顧名思義 尋眞源於吾道之脉 及則聖 不及則賢 下不失其爲謹飭之士 是以 翁之學 志於道 以誠正 爲本 以修齊 爲務 且早承庭訓 自有詩禮之學 從師艮齋田先生之門克守淵源正論 當此吾道一晦盲之日 益堅其志 固守此舍經史 自娛嘯咏性情 爲終老計 果至死不變之强者耶 董子曰道之大源 出於天 天不變 道亦不變 余亦曰舍之取美 在於山 山不變 舍亦不變 夫如是則視諸洞庭釀泉之美 及夫榮鄕一時之意 未知其孰優而孰劣也 主人翁 以爲如何 其餘窓櫳房室 朝暮雲烟 四時風光之美則皆外也 不盡記

歲己亥黃花節

延安 李晩永 記

◇

(2) 상량문

① 상포재 중건상량문(시조공 병사) 계내

저기 바라보이는 묘소는 물 뿌리고 쓸어놓으며 허물어지고 묵으면 즐거이 다시 고쳐져 짓도다。 재실에서

추모하는 것이 자손에 계승되리라。 자리를 어찌 다시 잡을소냐? 정성이란 한가지인 것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우리 시조되시는 태사공은 산하의 정기를 모아 하늘이 내신 영령이라네。 바라보면 공적은 나라를 세운 것보다 중하고 우러러 보면 지조는 태산과 화산보다 높도다。 원로로서 앞을 인도하고 임금님 임종시에 뒷일 부탁을 받았다네 비록 기나라와 송나라의 문헌이 중요하다하여도 사실상 우리보다 가벼우리라 문관과 무장이 번창하였으니 조상의 음덕에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도다。 충신과 현인이 계속하여 빛났으니 남기신 교훈이 지금까지 있음을 볼 수 있도다。 그 형세는 호랑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고 용이 서리고 있는듯 한 근엄한 묘소이며 사당터는 선대에서 물려받아 후대로 전승하였으니 차례차례 대대로 장례한 곳이다。 옛날 최초로 지은 재실은 이미 여러 연대가 지나 허물어지면 수리하나 터만은 당시 것을 버리지 않고 또 증축하고 보수하니 영원토록 유적이 있기를 기대한다。

저 경인년(1950년) 대란이 땅을 흔들고 하늘까지 닿아 곧 화재를 당하여 좌로 번지고 우로 퍼져 애석하게도 집과 사랑채가 숯되고 재되어 빈터가 쓸쓸하고 반은 붉고 반은 검게 남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오히려 한숨을 쉴 지경이니 자손이 되어 어찌 입을 다물고 있을소냐? 중건공사계획 몇년동안 상의하고 협력하여 좋은 계절인 3월을 선택하니 점괘에도 길하다고 되었다。 옛터에다가 개척하니 좌향은 조금 다르게 되었으며 새로운 목재를 실어와 깍고 다듬어 그 규모를 더욱 크게 지었다。

모든 자료를 지휘하여 곧 큰 집의 도표를 내놓게 되었으며 여러 일가들의 노력이 잠시도 태만한 표정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지난날엔 깨어진 기와와 벽돌이 들판에 흩어져 있었지만 오늘은 높고 커다란 집이 하늘에 높이 솟았도다。 완전하고 아름답도다。 영혼께선 강림하여 편안히 계시니 마음 속에 간직하여 잊지 아니하려고 노래로 부르고 탄식을 하였다。 늘상 많은 일가들이 모여 정의를 돈독히 하는데 정성껏 하리라。 들보를 만들어 큰 소리로 들어올리며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낙동강물 계속하여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많고 많은 후손들도 항상 이와 비슷하게 천년 두고 선조의 풍토 막히지 않게 하리라。 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무릉도원 복숭아꽃 만발한 봄 속이라 일찌기 날으는 봉황새 신선터로 내려왔단 소문을 들었으며 천 그루 복숭아 꽃송이 비단같이 둘러 있도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단번에 용화산 눈밑으로 들어오네 홍포가 거꾸로 흘러가고 모래펄에 기러기 내리면 끝없는 경치 곧 발걸음 헤매게 하도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제일높은 산봉이 우뚝 솟아 북극에 서 있으며 그 원기

줄줄 흘러 사방에 젖으니 제왕담 연못 위에 하늘이 잠겨 있도다。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해와 달과 별빛이 넓은 하늘에 밝게 떠 있으니 적선한 가문에 많은 경사가있어 예로부터 이런 이치 본래에 끝이 없었다네。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푸른 솔 더북한 대숲 내내천에 쏟아지네。비유할 수 없는 좋은 일 천가지 주위 일가끼리 서로 주니 어찌 격려하지 아니할소냐!

엎드려 소원컨대 들보를 올린 후로 무덤길 더 높아지고 산천이 상서로움을 보여 관리가 대대로 계승되어 전래하는 집안에 선대의 아름다움을 떨어뜨리지 말고 충성과 효도의 바른 신하가 대대로 이어온 조상업을 빛내며 일가끼리 단란하여 윤리의 정담을 서로 토론하고 혜련처럼 준수하여 이원의 즐거운 일을 더욱 펼쳐 후손들이 영원토록 동락을 하고 이끌어 바꾸지 말고 만년토록 함께 번창하게 하소서。

건국 39년(1957년) 정유3월13일

태사공후손 성학은 삼가 지음

① 上浦齋重建上樑文(始祖公 丙舍) 溪內

瞻封塋而載汛載掃 起廢荒而肯構肯堂 追慕於齋宮 繼承之子孫 地豈更卜 誠乃攸同 伏惟我始祖太師公 氣鍾山河 天生靈英 望實重於鼎足 仰操崇於泰華 保導元老 寄托顧命 雖文獻之杞宋 實羽毛之雲霄 文武 熾昌 可知有慶之有自 忠賢 聯赫 于見遺模之尚存 形勢 虎距而龍盤 儼儼幽宅 堂斧 昭先而穆後 整整世藏 在昔創建之棟樑 己今多歷於年代 隨弊隨擧 不棄基於當時 且增且修 期遺蹟於永世 夫何庚寅大亂 動地而彌天 奄遭祝融狂炎 左 而右突 愴堂廡廡 爲灰爲燼 悲墟蕭蕭 半頹半黔 行路 猶爲咨嗟 孱孫 豈禁振嘱 營重建於數載 詢謀協同 擇良辰於三春 龜筮元吉 就舊址而開拓 向背稍殊 輪新材而切磋 規模益大 指揮都料 不日獻輪奐之圖 賢勞諸宗 無暫示怠慢之色 昨焉敗瓦頹塼 仍從橫於原野 今也雲窓霧戶 將軒豁於層空 完矣美矣 善居英靈陟降 心不忘乎著存 歌斯噫斯 常聚花樹葳蕤 誼當誠其敦睦 修樑且擧 偉唱斯陳 兒郎偉拋樑東 洛水沄沄永不窮 麗萬雲孫 長似此 千秋勿替祖先風 兒郎偉拋樑南 武陵桃色 萬春心 曾聞飛鳳仙抬下 千樹桃花錦作絍 兒郎偉拋樑西 一抹龍華 入望低 鴻浦溯流沙鴈落 無邊光景却行迷 兒郎偉拋樑北 第一峰巒 聳拱極 元氣淋漓湯四域 帝王潭上潛空碧 兒郎偉拋樑上 日月星熖天曠朗 積善之家餘慶多 從來此理元無窮 兒郎偉拋樑下 蒼松苞竹柰川瀉 無猶式好賦斯千 相奐同根豈未暇 伏願上樑之後 阡隧增崇 山川呈瑞 衣冠 繼世 不墜傳家之先徽 忠孝 剌臣 以光統宗之祖業 族親 團圝 栗里之情話 胥討 惠連 俊秀 李園之樂事 益張 來者無窮 永享同樂 引之勿替 萬世咸昌

韓國 三十九年 丁酉 三月 十三日

太師公后孫 晟學 謹撰

② 검단재중건 상량문

검단

여러 세대의 장묘지는 한씨들의 하양 산기슭과 비슷하고 새로지어 우뚝한 모습은 견씨들의 서주 정자와 똑같도다。소망이 있으면 마침내 이루워지는 것이라 사람마다 축하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었네。엎드려 생각하여 보니 우리 윤씨의 근원은 칠원에서 나와 신라 고려 조선 세 세대가 바꾸어졌으며 가문은 화족으로 지칭되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씨족이로다。시조가 탄생하시어 화려한 궁전을 전승하도록 하느님이 특혜를 내려 다시 내산의 능원을 볼 수 있게 되었도다。고려시대는 문무고관이 열분이 되지만 슬프게도 그 분묘를 잃어버렸고 상서공 구성군 두 손자만 다행히 시조를 곁에서 모시고 있다네。판태사공은 분명히 역사의 책속에 기재되었고 보윤공은 준수하여 선조의 업을 받으시었다네。참정공께서는 바로 재상의 직책으로 왕도를 논의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판서공께서는 판서란 벼슬로 재상을 돕고 임금을 보필하였다네。그런즉 구성공 이상의 세분 묘소는 상포에 있고 판태사공 이하 다섯 묘소는 검단에 있지요。상포의 재사는 이미 옛날에 중수하였지만 검단 한 곳은 지금까지 백세가 되도록 중수할 겨를이 없었도다。이래서 무자년 10월에 최초로 논의하여 재사를 짓자고 모든 사람들 일제히 대답하여 함께하게 되었고 기축년 3월 마침내 재물을 모아 사방에서 합류하여 함께 나가게 되었다네。터를 잡은 곳이 좋다고 하여 역술가에 물어봐 좋은 날을 정하였었다。황무지를 개척하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달려왔으며 재목을 베어다가 솜씨를 다하여 일을 하였다。비록 목수들이 수없이 하였지만 오직 감독자의 근면에 있으며 세월이 얼마지나 큰 집의 건립을 보았다。기둥이 네모 반듯하여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지도 아니하고 설계와 작업이 꼼꼼하여 진실로 완고하고 아름다웠다。반드시 기뻐하시는 선조의 혼령이 강림하여 만나보는것 같음이 있을 것이며 또 넓은 곳에서 후손들이 목욕재계할 수 있으니 무슨 근심이 있을소냐? 서리가 내리면 가히 제사를 정성껏 모실 수 있고 문들이 밝아 산천의 정기가 잡힐듯 하였다。오로지 듣고 보는 즐거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곳이로다。긴 들보를 얹어놓고 시를 지어 불러보자。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아침해 처마에 떠서 서기가 어려있네。우리들은 평일에 기를 잘 수양할 수가 있고 능히 선조의 사업을 계승하여 높일 수 있도다。어영차 들보를 서로 던지니 멀리 내산의 저녁 노을 나지막히 보이도다。선조의 신령이 달밤이면 왕래하시어 후손들이 길을 잃을까 걱정하신다네。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소나무 삼나무 빽빽히 하늘에 닿았도다。한

겨울 산하에 차가운 눈 가득하여도 그래도 곧은 마음 남아 푸름을 가지고 있지요。 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세차게 흐르는 낙동강 쉬지않고 흐르도다。 그 멀리까지 흐르는 천갈래 흐름을 알고저 하여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니 깊고 또 맑구나。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해는 길고 구름은 사라져 하늘만 높구나。 양양히 계신듯한 맑고 깨끗할 때에 제사올릴 성심이 잠시 나오도다。 어영차 들보를 밑으로 던지니 문밖에는 벼논이 넓게 열려 있도다。 시간만 나면 여기에 와서 글 읽기 좋으니 우리 집안에 큰 선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한 후로는 지붕의 기와는 새지 말고 기둥은 이지러짐이 없으라。 땅의 영기가 모여 장차는 준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선조의 신이 웃고 꾸짖고 있으니 어찌 재앙이 침입할 수 있으랴? 위원의 화수회를 본받아 화목을 수행하는 좋은 이때에 이씨강원의 초석을 생각하여 허황된 작은 꿈을 크게하세。 반드시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전수하기 쉽지 아니한게 걱정될소냐?

기축년(1829년) 3월6일

후손 병기는 삼가 지음

② 檢丹齋重建上樑文 檢丹

累世歸藏髣髴韓氏河陽之麓 新構突兀宛如甄氏徐周之亭 有志竟成無人不賀 伏惟我尹 根出漆堤世更三史 閥稱華族名顯一邦 元祖挺生爲傳於承華之殿 上帝特召復眞於柰山之原 麗朝縉紳十傑嗟失墳塋 尙書龜城兩孫幸侍祖側 太史公明會登玉牒之局 甫尹英俊特授梓鄉之茅 參政是三公之任論道而經邦 判書以六卿之官佐相而輔袞 然則 龜城以上三墓居於上浦 太史已下五墳在於檢丹 盖上浦丙舍已重葺於曾年 惟檢丹一字尙未遑於百世 於是 戊子十月始議營屋千口齊聲而同歸 己丑三春遂謀聚貨百泉合流而同并進 占基地而云吉 問日家而擇良 開捲拓荒衆悉心而爭趍 伐木度材工彈巧而經紀 縱斧斤之無數惟在監官之勉勉 曾日月之幾何倏見夏屋之渠渠 間架方正不侈不儉芳 制度周詳苟完苟美矣 必有嘉悅先靈之陟降如見 方覺恢弘后裔之齊宿何憂 霜露旣降可致籩豆之潔誠 戶牖斯明平邑山川之精采 非顯耳目之爲娛 實是羹墻之有寓 載擧修樑庸陳巴唱

兒郞偉抛樑東 曉日升簷瑞彩融 吾儕善養平朝氣 克述先徽業乃崇

兒郞偉抛樑西 遙望柰山落照低 精靈月夜相來去 應歎雲仍盡失蹊

兒郞偉抛樑南 松杉盃盃中天叅 歲暮山下寒雪滿 猶保貞心晩翠含

兒郞偉抛樑北 滾滾洛江流不息 欲知達遠派千分 當溯源泉深且湜

兒郞偉抛樑上 日永雲消天宇曠 洋洋如在明禋時 祼獻誠

心可暫放

兒郎偉抛樑下 戶外平開禾黍野三餘登此讀書宜望切吾宗生大雅

伏願上樑之後甍瓦不漏楹桷無虧 地靈攸鍾竹將看俊傑之多出 門神所呵焉有灾祥之或侵 擬韋園之花樹修敦睦以良辰 懷李庄之草石戎空幻之片夢 必思成立之克艱 何患傳守之不易

己丑 春三月 旣望

后孫 炳岐 謹撰

◇

③ 구혜재 상량문(좌사보공 휘 계) 대산

지리산이 동으로 3백리를 뻗어 혜봉이 수려하여 원기가 모였고 가야국의 북으로 한자리 좋은땅을 펼치어 낙동강이 둘러있으니 그 땅이 상쾌도 하구나。 여기에 높이 서 있는 집은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을 지냈고 엄연한 영혼은 천년 세월을 강림한 곳이다。 그러나 후손들의 목욕 재계할 장소는 오래도록 구비되지 아니하였다。 아름답도다。 우리 일가의 단결된 성의가 이제와서 독실하여 졌도다。

삼가 생각하여 보니 우리 선조이신 좌사보공은 신라시대 태사공의 현명한 후손이며 고려국에 호장 보윤공의 종손이다。 숭고한 도덕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에 함양되었고 공평한 다스림 요순시대의 현인들과 같았다。 세대가 점차 멀어졌지만 역사책에 분명히 있고 전쟁을 겪으며 불에 타서 재티가 되었지만 그 신명들은 말없이 도와 살아서 움직이는 금거북이가 비석을 지고서 뛰어나왔도다。 이때에 재사를 짓자는 성심이 멀고 가까운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 이제 영혼이 모일 터를 밝히니 산천까지 다같이 성대하게 되었다。 정남쪽에 터를 개척하고 좋은 날을 가리니 기유년(1969년) 겨울이로다。 이제 연구하고 이제 계획하여 그 규모의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신중하고 나무를 베고 다듬어 먹줄을 놓아 길고 짧은 것을 진실로 알맞게 하였다。

이 집들이 상쾌하고 밝게 펼쳐있어 제비와 새들이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제기들이 줄줄이 반듯하여 아름답게 영원히 향기 나리라。 가래나무와 소나무들이 빽빽히 있어 항상 좌사보공의 눈물이 젖어있고 꽃과 나무들이 찬란하여 위씨의 노래가 이어지도다。 춘하추동은 하늘 법도의 정상적인 체계이니 이에 기둥을 세우고 이에 석가래를 얹혀 놓고 인의예지는 인간 성품의 큰 강령이니 이에 수리하고 이에 밝혔도다。 일곱자 싯귀로 짧은 가사를 지어 이 위대한 재사의 공사를 노래로 도와준다。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영원히 동쪽에 새벽 햇빛 붉으며 닭이 울면 일어나 순임금 도리 따르고 먼저 효도와 우애로 독실히 몸소 수행하였도다。 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계속되는 남강 푸르게 가득차서 낙동강과 연하여 마침내 바다에 닿으니 완연히 우리 유도가 끝없는 것과 같도다。 어영차 들보를 남쪽으로 던지니 하늘 닿은 지붕에 아지랭이가 걷히고 대장부로 현명하여 벼슬 길에 오르면 나라 위한 충성심 밤낮으로 새롭다。 어영차 들보를 북쪽으로 던지니 내내산봉 가물가물하고 또 높고 높아 태자태사고명원로공의 영혼은 당연히 이산 곁에서 호위하고 계시리라。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하늘이 소명하여 만물이 우러러 보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착하지 아니한 일을 하면 복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시니 밝기가 거울 같도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마을이 넓은 들에 크게 열렸도다。 옛 것을 알아 농사에 밝았고 분수를 편안히 한 사람들이니 능히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였도다。

엎드려 소원하건대 들보를 올린 후에는 제사 일을 매우 경건하게 하고 집안의 명성은 영원히 돈독하며 재사는 오랠수록 더욱 탄탄하여 비바람도 침입하지 못하고 샘물은 빛나고 시원하여 안개에 항상 젖게 하고 있다。 춘하추동 따라 천도를 누리고 인간오륜을 밝히어 인도를 이루게 하소서。

경술년(1970년) 11월 일 후손 석근은 삼가지음

③ 九惠齋上樑文(左思補公 諱 啓) 代山

智異山 東走三百里 惠峰 秀而元氣鍾 伽倻國 北開一片名區 洛水圍而厥土爽 於屹斧堂 歲修乎三古雨風之餘 有儼精靈 陟降乎千秋霜露之際 然而後孫齋宿之所 積久未備允矣 吾族團結之誠 届今攸篤 恭惟我先祖左思輔公 新羅太師公之賢裔 高麗戶長公之胄孫 竊想崇高道德 涵濡於魯鄒聖經 公平政略 彷彿於唐虞哲輔 世代 寢遠 昭昭史乘歷兵燹而灰燼 神明 默佑 潑潑金龜 負義石而躍出 于以發肯構之誠 遠邇咸應 乃玆鬮鍾靈之址 山川 同湊 拓基安子午位 卜年得己酉冬 載究載圖 規模之大小 謹悉 爰伐爰治繩墨之長短 允協 肆堂戶之噲噲歲歲兮 燕雀 爭賀 而籩豆之井井方方兮 蘋藻 永芳 楸松 密邇 長浥甄君之淚 花樹爛漫 賡和韋氏之歌 元亨利貞 天道之常體 爰立爰構 仁義禮智 人性之大綱 迺修迺明 用述七言短辭 以助之偉齋頌 兒郎偉抛樑東 萬古扶桑 曉日紅 起自鷄鳴 從舜道 先將孝友 篤修躬 兒郎偉抛樑西 滾滾南江碧滿堤 洛水相連終達海 宛如吾道無窮兮 兒郎偉抛樑南 接天華蓋卷晴嵐 丈夫顯達靑雲上 爲國丹衷夙夜堪 兒郎偉抛樑北 柰峀蒼蒼復嶷嶷 太子太師元老公 精靈宜護此山側 兒郎偉抛樑上 天宇昭明象萬仰 爲善又爲不善人 降祥降禍鑑如亮 兒郎偉抛樑下 民社大開於大野 讀古明農安分人 也能孝養其親者 伏願上樑之後 祀事孔虔 家聲 永敦 棟宇 愈久愈健 風雨不

浸泉石 迺光迺爽 烟霞常滴 四序順而天道亨 五倫明而人道成

庚戌十月 日

後孫 錫根 謹識

◇

④영모재 상량문(판결사공 휘 조생) 충효공후 청양

명나라 숭정기원후 네번째 경신년(1860년) 3월 26일 유생인 정의는 재사 상량을 고유하여 말하기를 복원하오니 하늘에 별들은 하늘에서 집을 지을 현상을 내리고 기둥과 석가래는 주역 중에 장대한 규모를 취하였도다。 명덕봉 서쪽에 대지를 점치고 선산의 묘소 아래에 재사를 지었도다。 해마다 시제때면 자손들이 단합하는 장소이며 겨울철 10월이면 원근에서 회의하는 자리가 된다。 기와가 깨지고 석가래가 부러져 때로는 비바람을 견디기가 어렵고 처마가 기울어지고 벽이 허물어져 늘 갑자기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었다。 세차 원승이해에 모월 모일 모시에 공사를 시작하여 상량을 경일에 하니 이것은 바로 청춘 청금의 사람이란 것이다。 이 삼사칸 옛 집이 새로워지니 우리 여러 마을 일가들의 서로 돕는 힘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어느덧 진실로 아름답고 진실로 완고한 집짓는 제도를 본받고 도끼와 톱을 사용하는 노력을 다하였다。 거리에 낀 연하는 이 재실을 평화로운 거리에 세우게 하였고 산에 가득한 소나무와 가래나무는 후손에게 끝없이 전승되리라。 물은 백마강까지 연하였으니 여기에 살며 여기에 거처할 수 있는 터이며 산은 망월산을 향하고 있으니 장차 흥왕하고 장차 일어날 봄이로다。 꽃피는 아름다운 때는 친척의 담소를 기쁘게 하고 눈 내리고 달 뜨는 누각은 모든 노소들이 술잔을 나누는 곳이로다。 엎드려 소원하건대 들보를 올린 후에 호랑이와 표범은 자취를 감추고 난새와 봉황은 호위할 것이다。 자손들은 점차 불어나 대대로 문관 무관이 충성하고 효도하며 오운의 물고기 떠와 새의 비녀는 사람마다 장수하고 강녕하게 하리라。 삼가 술과 과일을 올려 성심과 기도를 다하나이다。

④ 永慕齋上樑文(判決事公 諱 祖生) 忠孝公后 定山

維歲次崇禎紀元後四庚申三月乙丑朔二十六日庚寅 幼學鼎義 告齋舍上樑之文曰伏而星辰 垂天上營室之象 棟宇取易中大壯之規 相土于明德峰西 築齋茲先君楸下 歲一祀子孫團會之地 冬十月遠近講信之所 瓦碎榱折 難堪有時風雨 軒傾壁敗 恒恐不虞顚覆 太歲在申 經始某月某日某時成造運庚 此正青春青襟之人 迨茲三四間舊屋 維新 賴我七八村同宗 相助 於焉效苟美苟完之制 庶乎盡彼斧彼鉅之功 濃衢烟霞 建此齋於昇平域 滿山松楸 傳來裔於無窮世 水連白馬 爰居爰處之址 山向望月 將興將起之春 花樹佳

辰 悅親戚之談笑 雪月暗棲 戚老少而樽酒 伏願上樑之後 虎豹 遁藏 鸞鳳 拱衛 子姓 駿滋 世世文武忠孝 午運 魚雅 人人壽考康寧 謹用酒果 殫竭誠禱

◇

⑤ 관산재상량문(칠계군 휘 탁연) 대언공후 합천

곰곰히 생각을 하여보니 선조들이 모범을 내려놓은 것에 마침내 도학의 연원이 있었다。 지금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이에 아비가 집을 지으면 자식이 즐거이 여김과 같이 집을 짓기로 한것이니 위로는 십대나 되는 먼날이지만 편안히 하루만에 이루워졌다。

삼가 생각을 하여보니 우리 헌민공 중호 선생은 조선의 명신이며 칠원의 옛날 명문이다。 일곱분이 군에 봉해져 빛나는 공이 오래도록 족보에 나타나있고 한 분은 간관으로 정직하고 청백한 것이 근래까지 조상의 업적으로 남아있다。 스승을 따라 이퇴계의 가르침을 받아 동문의 여러 현인과 교류를 하였고 조정으로 들어가서는 왕실의 무고를 판단하여 광국공신 대열에 오르게 되었다。 내직으로는 사헌부에서 법을 펴놓고 외직으로는 관찰사로 근심을 나누기도 하였다。 소문과 명성이 당시에는 높이 나서 교제한 친구가 무리로 있고 재능과 심덕은 적소마다 등용됨이 겸비되어 가는곳에 따라 적당하였다。 어쩌다가 임진왜란의 근심을 만나 그 공과 업적이 상세히 조치할 수 없었으며 세월의 지남이 점차 오래됨에 따라 문헌까지 많은 곳이 믿음과 의심으로 섞이게 되었다。

후손들도 변화하는 삶의 인연으로 마침내 고향마을을 떠나 여기에 찾아와 서로들 집을 짓게 되었다。 사당은 철폐되어 차마 홍포사의 폐허를 볼수밖에 없었고 초상화는 유전되어 남아있어 임시로 강양의 재사에 봉안하였다。 그 모습과 문이 진실로 소홀히 된것을 한탄한지도 이미 백년이나 되었으며 세상의 난리가 들어 계속되는게 두려워서 혹은 다른 생각도 가져보았다。 늘 한탄하며 소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비로소 건축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 도끼와 짜구를 가지고 산림으로 들어가 보니 재목이 부족한 것은 근심되지 아니하였으며 일을 시키는데 부역을 고르게 하였더니 마을에서 앞을 다투어 빠른 시간에 달려오게 되었다。 다섯칸짜리 재실에서 돈독을 펴는 시간을 가질수 있겠고 세칸짜리 사당에는 신주를 편안히 모시게 되었다。 감히 한 지방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의 온 군내가 계속되는 듯 하였다。

준공식을 끝내고 낙성식 음주를 하게되어 삼가 가곡체로 기쁘게 불러본다。 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노테산이 멀리 하늘높이 있도다。 높고 낮은 것 다투는 곳 필요하지 않고 각처에서 찾아와 추앙하기 같이하는 것 필요하다네。 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여기는

조용하게 그윽히 아지랭이 둘러있네。 산을 즐기는 것은 본래 인자한 덕이니 고요하게 변함이 없으면 묘한 이치들이 있으리라。 어영차 들보를 서로 던지니 아름다운 관산봉 재사 간판같이 보이네。 예의가 무너지고 음악이 붕괴된지 몇 세대이던가 성인들이 책임 있으니 누구의 참고를 기다릴꼬。 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눈에 가득한 여기저기 모두가 덕화입은 마을일세。 우리의 도는 본래가 다른것 필요하지 아니하고 태평하여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네。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선조의 혼령이 내려오셨다 하여도 망령이 아니로다。 정성따라 곳에따라 내려오시니 감히 해마다 향화를 게으르게 할소냐?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구곡물 잔잔히 흐르고 넓은 들판 열려있네。 두보시인이 어느해에 팔도를 찾게되면 명승지 가려서 분명히 올것이다。

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한 후로는 산천도 더 아름다와지고 규모도 바꿔지지 아니하며 기둥하나 석가래하나 들보하나 도리하나 하나하나 잘 보존하여 훼손됨이 없게하고 대그릇 목기 밥그릇 국그릇 법과 예절에 과오가 없게하여라。

무신년(1968년) 3월15일

13대손 상원은 삼가 지음

⑤ 冠山齋上樑文(漆溪君 諱 卓然) 代言公后 陝川

學自祖先之垂範 有的道學淵源 及今孫裔之殫誠 迺肯底法堂構 仰止十世之遠 居然一日而成 恭惟我先祖憲敏公重湖先生 東國名臣 漆原舊閥 七封君之煒赫 遠著譜乘 一諫官之直淸 近繩祖武 從師而承陶山之敎 周族同門群賢 登朝而辨宗系之誣 叅列光國勳爵 內而司徒之敷典 外而方岳之分憂 聲譽 聳動於當時 交推有來 在德 兼備於適用 隨處則宜 奈値龍蛇之俶優 功業 無詳於措晝 隨經歲月之浸久 文獻 多錯於信疑 重緣雲仍之不恒厥居 遂離貫邑而聿來胥宇 院祠禁撤 忍看鴻浦之廢墟 眞幀 遺存 權奉江陽之丙舍 慨儀文之苟簡 亦旣百年 懼世故之侵尋 或有他慮 庸萃齋咨之同願 載興營建之新圖 斧斤 時入 山林 不患材木之乏匱 用事役均 里黨 爭先奔趍之刻期 五楹齋堂 取便惇叙之時會 三架廟宇 永妥精靈之主棲 非敢謂耀一方之觀瞻 庶可以百堵之似續 逮訖功而落飮 恭疏引而歡呼 兒郞偉抛樑東 有山魯泰逈蒼空 不須高下爭人地 名處還須仰與同 兒郞偉抛樑南 斯干秩秩逸幽嵐 樂山 自是仁之德 主靜有常妙理含 兒郞偉抛樑西 秀色冠峰 着扁題 禮壞樂崩 何許世成人有責待誰稽 兒郞偉抛樑北 滿目紛綸 皆化域 吾道元來不必他 蕩平 復此歸其極 兒郞偉抛樑上 先靈於赫臨无妄 精誠隨處格斯來 敢懈年年修灌鬯 兒郞偉抛樑下 九曲潺潺開曠野 杜氏何年八度尋 名基占取昭來者 伏願上樑之

後 山川 增媚 規撫不替 一楹一椽 一楔一楝 一無保守之毁虧 于籩于豆 于登于鉶 于以罔愆於式禮

戊申三月十五日

十三代孫 尙遠 謹撰

◇

⑥ 첨앙재 상량문(칠계군 휘 탁연) 대언공후 합천

남산의 높음이여 태사윤씨들 인솔하니 다같이 바라보고 푸른 대나무 무성함이여 문무겸한 군자가 일어나 잊혀지지 아니하네。우러러보면 그 얼마나 오래인지 계획한 것이 비로소 새롭도다。엎드려 생각하여보니 칠계군 중호선생은 선조대왕시에 중신이며 퇴계 문하에 높은 제자이다。타고난 자태가 영민하고 지예로워 석삼자를 쓸때 옛날 삼자로 써놓고 공부와 예술이 정미하고 깊어 일찌기 팔대문장 가운데에 한사람이 되었다。시작이 반듯하니 큰 인물될 자질이 기대 되었었다。외작으로 나와서는 관찰사 책임을 맡았으며 조정으로 들어와서는 호조판서를 맡아 정확하게 모두 법도에 맞았으며 고치면 요순 임금이 되고 고치지 아니하면 걸주 임금이 된다고 하며 날카롭게 간언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 아부하지 아니하였을까? 철권의 도형을 받은 것은 나라에 무고를 상쾌하게 설욕한 까닭이며 군으로 봉해지고 시호를 추증받은 것은 은총의 영광을 입은 바이다。

한탄스럽구나、나라의 운명에 어려움이 많고 일본의 오랑캐까지 감히 방자하여 왕자가 북방으로 들어갈때 곧 호종의 책임을 맡았으며 나라의 임금이 피난을 하여 편안히 죽을 뜻을 펴보지 못하였다。북청땅에 이르러 감찰사로 특별히 제수 받았으며 모든 관문이 이미 비게 되어 그 수습책을 연구하기 어려웠었다。삼수와 갑산지방으로 전근하여 적병을 저지하고 여러곳 요충지를 고수하니 누가 무리를 배반 할 생각을 하였으랴? 한쪽으로는 소문을 내고 한편으로는 의병을 모집하여 토벌하여 복고 할 것을 마음에 맹세하고 특별히 명령을 내리고 특별히 교시를 내려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되어 울기도 하였다。

양가죽 옷을 공로로 하사받았으니 이미 피난길 조정에서 후한 은총을 입었지만 임기가 찰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으며 또 공정한 상소문을 보면 대체로 심중에서 자진한 것이라는 것을 대중의 의논으로 밝히었다。적군의 세력이 파리하게 되고 그들을 몰아낸 것은 그 누구의 힘이었던가? 하물며 기회마다 응변을 잘하고 오랑캐를 방비한 것은 바로 공의 공이라 하겠다。그런 사람을 친하게 하고 그런사람을 현인으로 여겨주는 것은 한갓 자손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고 이렇게 넉넉하게 한것은 생각하여 보면 문무 관리들이 함께 존경할 바가 아니던가? 칠원에 사당이

있는 것은 덕을 숭상하여 보답하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잡초만 자라는 것을 세인들은 보기만 할까?

생각하여 보니 이곳 가곡의 물가는 바로 후손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며 선현들이 소요하던 곳으로 비록 묘소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혼령을 자손의 육신에 남겨놓은 곳이다。 이에 몇칸 사당을 짓고 상반신 초상화를 모시게 되어 그 의지를 두고 있던 것이 사실로 마침내 이루어져 편안한 날이 되었으니 그 정성이 이르게 되면 돌도 가히 투명하게 되어 모든 것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 모여 이일을 노래하니 동쪽은 사랑채요 서쪽은 안방이라 거듭거듭 가르쳐 주노니 위는 지붕이요 아래는 당이라 바라보면 엄숙하여 흙으로 빚은 정명도 선생이 단정히 앉아 있는듯 하고 졸장부가 가히 엄숙하게 됨은 사마온공의 옷차림 같아 서늘하기 때문이다。 초목들도 모두 그의 정기빛을 입게되고 어린이의 놀이도 바로 제기진설 하였다。 영원히 그 덕을 추모하여 장차는 노나라 태백의 아름다운 명성과 부합이 되겠으며 선조를 모시는 예의를 알게되어 우리 유도의 원맥을 계승하기 바라노라。 들보를 깍아 던지며 짧은 칭송문을 또 노래로 부르니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상산이 낙동강 동쪽까지 뻗어내려있네。 당시에는 잠시 큰 재능 작게 쓰는날이지만 그 교화는 성대하여 조선을 주름잡았지요。 어영차 들보를 서로 던지니 서울은 아득한 하늘의 서쪽일세。 추억으로 오로지 천추의 절개를 대하고 있으면서 몇번이나 편지 가지고 말을 서쪽으로 달렸을까? 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칠원의 상포 아득히 강물 끝 남쪽이 바라보이네。 적막한 금년 봄에도 풀이 가득하니 어느해쯤 제사를 남쪽에서 올리게 될까? 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전쟁하던 곳이 어디 쯤일까? 관북이로다。 검찰직 명령받아 정말 바빴는데 모든 물 동으로 흘러도 별은 북으로 모여있네。 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해가 밝게 떠서 하늘에 있구나。 역사책 말로 고치는것 어찌 족히 말할소냐? 좋은 향기 가히 양가죽 옷에서 떠올 수 있다네。 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세상에 한탄 이제는 모두 끝이로다。 아름다운 덕 마음에서 추락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큰 집 지어 땅에 높이 서있도다。 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을 한 후로는 지붕과 기둥이 더욱 완고하고 초상화 영원히 편안히 있어 바람과 번개처럼 상쾌하게 내세를 깨끗이 쓸어내고 충성을 배우고 효도를 이행하여 장차 후손에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계유년 1973년9월9일

덕은 송재성은 삼가 지음

⑥ 瞻仰齋上樑文(漆溪君 諱 卓然) 代言公后 陜川

南山節兮 引太師尹氏俱瞻 綠竹猗兮 興有斐君子不諼 仰

止幾久 經始維新 伏惟漆溪君重湖先生 宣廟重臣 退門高弟 天姿敏睿 具書三子字參 工藝精深 早居八文章一 發軔旣正 權輿可期 出而任道府 入而任度支 鑿鑿皆有中度 改則爲堯舜 否則爲桀紂 棘棘何其不阿 鐵劵圖形 以邦誣之快雪 君封追贈 乃恩榮之攸蒙 吁 國步多艱 島夷敢肆 王子入北 迺承護從之任 君父播遷 莫伸死綏之志 北靑及到檢察使特除 咸關 己空 收拾策 難究 轉入三甲深地 以遏賊兵 固守列劍要衝 孰料叛衆 一邊聞一邊募 討復誓心 特下命特下敎 觀聽感泣 羊裘劵賜 己蒙行朝優恩 苽期願留又見定平儒疏 盖中心 自盡 公議 乃明 使賊勢疲而豊沛淸是誰之力 況機應宜而藩胡備 乃公之功 親其賢其 不徒子姓孺慕 顧是沛是 顧非衿紳共尊 于漆有祠 德尙報也 何草亦鞠 世可觀焉 顧此佳谷之湄 乃是後裔攸宅 先賢嘯咏 雖非杖屨地頭 祖考精靈 遺在子孫身上 爰構數間祠宇 庸奉七分影模 有其志者事竟成 居然一日 到厥誠則石可透 燦矣百規 聚斯歌斯 東廂而西室 中以敎以 上宇而下堂 望之也嚴 明道之泥塑 端坐 薄夫可肅 溫公之衣帶 凜然 草木皆被精光 遊戱 乃設俎豆 追遠德厚 將符魯泰嘉名 奉先禮知 望承吾道元脉 修樑助擧 短頌且歌 兒郞偉抛樑東 商山隱歷洛江東 當年暫試牛刀日 風化蔚然擅我東 兒郞偉抛樑西 燕京迢遞天之西 回思專對千秋節 幾度奉書馬首西 兒郞偉抛樑南 漆浦遙望水盡南 寂寂而今春草滿 何年揖讓豆籩南 兒郞偉抛樑北 風塵何處是關北 承來檢職正遑遑 萬水東流星拱北 兒郞偉抛樑上 白日昭昭垂在上 野說雌黃豈足言 天香可掬羊裘上 兒郞偉抛樑下 世級吁嗟今盡下 好德心天猶不墜 新成巨厦屹于下 伏願上樑之後 棟宇益固幀稍永安 蕉風鞭霆 快掃淸於來世 課忠責孝 將有辭於後昆

癸卯重九節

德殷 宋在晟 謹述

◇

⑦ 덕암재 상량문 부원군후 보성

기술하여보자、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아들이 계승하여 그 뜻을 계승하는 것은 원래 자손의 성의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여기는 부모들이 살아온 고향이며 묘소가 있는 아끼는 곳이다。오직 덕암재는 조선시대 성홍기에 처음으로 건설되어 중간에 몇차례의 중수를 거치며 칠원윤씨 종중에서 수호하며 당연히 천년을 능히 계승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위치는 단연코 이 지방의 명승지를 선택한 것이고 명성은 일찌기 전라남도 지방에 많이 퍼져있었다。양성시킨 사람은 허다한 영재들로 지방시에 합격하여 나랏일에 참관하였으며 종래의 유적을 폐지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봄옷으로 바꾸어 입고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것이 상상

된다。어떻게 하면 근세의 변천을 가지고 오래도록 한산한 무용지물로 버려짐이 되었을까? 기둥과 지붕이 기울어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한탄을 하니 관청에 이 소식을 알리어 보성군에서 중수하게 하여야겠다。윤씨들에게 상의하였더니 몇일이 걸리지 아니하여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원근에서 자본을 모으게 되었으니 모두들 마음을 합하고 힘으로 돕게 되었다。남의 힘을 빌려 기술을 본받아 옛 모습대로 모방하여 새롭게 지었으니 가락을 지어 불러 상량문 육위를 펼쳐본다。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정자강 흘러 하늘을 머금고 있구나 어른과 어린이들 읊으며 돌아오던날 생각하니 봄옷이 기우제터 바람에 펄렁이고 있도다。어영차 들보를 서로 던지니 계당산 푸르러 바로 희미하구나。어느해 신선되어 구름타고 갔을까? 바라보면 높고 가팔라 올라가지 못하겠네。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높고 높은 천마산 아지랑이 끼었도다。그 모습 오래도록 생각나 높은 곳에 오르는 날은 산야에 꽃이 선명하여 흥참지 못하겠도다。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천봉산 높아 하늘로 천길일세。평야가 아득히 천만두렁 펼쳐져 해마다 들에는 벼이삭 풍년일세。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오직 원대한 하늘이 항상 넓고 넓구나。음양이 바뀌어 세상이 흥하고 망하게 되었으니 몰래 하늘의 움직임과 꿈을 누가 능히 이같이 할꼬。어영차 들보를 밑으로 던지니 냇물이 쉬지 않고 가듯이 이와같이 가고있네。천년두고 누가 능히 뜻의 미묘함 맺을꼬。동해로 모두 모여 겨울 여름 없구나。엎드려 소원하건대 상량한 이후로 하늘에 운수가 크게 돌아와 제사의 음악소리 들림이 거듭거듭 있게되고 땅의 신령이 보호하여 영원토록 풍마우세 침범이 없으리라。이 집의 모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수리하고 지붕을 보수하는것 계승이 있으리라。

서기 1977년 정사년 9월 성천 이백순은 지음

⑦ 德巖齋上樑文 府院君后 寶城

述夫 設塾設庠養材 實爲國家之本 肯堂肯構繼志 元出子孫之誠 況是桑梓之邱 僾乎杖屨之地 惟德巖齋 肇建於鮮朝晟際 間經再度之重修 守護於漆尹宗中 宜念千秋之克嗣境地 占斷一方之勝 聲聞 早闡南州之多 養成許多英才 多有賓興而觀國 不廢從來遺蹟 尙想春服而浴沂 爭奈挽近時世之變遷 久作閒散弁髦之委棄 棟宇傾昃 行路爲之咨嗟 官府關聽 環區爲之治闢 動議於宗族 遂不日而起功 鳩資以邇遐 皆合心而助力 郢斤效技 倣舊制而一新 巴唱成調 陳上樑之六偉 兒郎偉抛樑東 程子江流涵碧空 想得冠童詠歸日 飄飄春服舞雩風 兒郎偉抛樑西 桂棠山翠正依迷 何年仙侶乘雲去 却望嶄嶄不可躋 兒郎偉抛樑南 崔嵬天馬帶晴嵐 長懷杖屨登高日 野水花明興不堪 兒郎偉抛樑北 天

鳳山高千碧落 野闊蒼茫千頃餘 年年壠上禾登熟 兒郎偉抛樑上 惟大上天 長蕩蕩 二五推移世興衰 密移乾步誰能狀 兒郎偉抛樑下 逝者如斯川不舍 千載 誰能契旨徵 朝宗東海無冬夏 伏願上樑之後 天運 回泰 重有絃誦之相聞 地靈護呵 永無虫沙之來犯 典型不壞 修葺有承

歲光復三十三年丁巳九月

星川 李栢淳 撰

◇

⑧ 운암재 상량문(참의공 휘 우을) 대언공후 합천

선현들은 자손이 편안토록 좋은 계획을 남겨놓아 비로소 두릉에 삶을 자리 잡았고 후손들이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다하여 재사를 지을 생각을 한 것이다. 이미 목욕재계할 장소를 얻었고 또 거문고와 책을 즐길수 있음이 겸비되었다. 삼가 생각하여 보니 공조참의를 추증받은 운암 윤공은 높은벼슬 세도가요 문장이 높은 유생이다. 헌민공의 많은 공로와 위대한 업적은 기린각에 초상화가 걸려있고 칠평군의 고고한 절개와 정성된 충절은 사슴 가죽으로 다리를 감았다네. 이것이 우리 가풍의 시작이요 대대로 덕행이 전승되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때마침 당쟁이 분분하여 일찌기 벼슬길이 험난함을 알았던 것이다. 이 재실 간판 두 자를 자세히 음미하여보면 사람은 가버리고 하늘만 푸르다고 하였으니 구차한 세상과는 단절한 고고한 표적을 상상할 수 있고 다만 물 흘러가고 흰구름만 남아있다. 후손들이 집을 지으려고 여러해 계획하였지만 공사가 매번 시행되지 못한 것이 걱정이었다. 기해년(1959년) 봄에 이르러 넓게 여러가지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재목은 바로 수십년간 키운 것이요. 공사일에 십여호 가까운 집안이 분주하였다. 마침내 황폐된 옛 집터가 곧 앞이 탁트인 자리가 되었다. 넓어져 좋고 그윽하여 좋다. 진실로 군자가 수신제가하기 적합하다고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니 가히 우리 일가끼리 모이기 좋았다. 서리 내려 슬퍼지고 이슬 내려 슬퍼지면 더욱 제사의 정성을 독실히 할 것이요. 달밤에 글 읽고 낮에는 밭갈아 대대로 지켜오던 세업을 추락시키지 말라. 사방 산들이 높고 깊어 속세의 더러움이 이르지 아니하겠고 세 갈래 지름길 열려 손님이 자연 찾아오리라. 이것은 모두 오래동안 계획한 것이니 어찌 단지 보고 듣는 것만 아름다울소냐?

삼가 용렬한 글을 지어 구령소리를 도우나니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지척에 있는 조상 묘소 손가락으로 가르키는 곳에 있네. 그 당시 뿌리내린 곳 알고저 한다면 지금의 마을에 순후한 풍속이 있는 것이라네 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머나먼 길 날마다 달리지 아니한 적 없다네. 은근히 벼슬길 나간 사람들 말하노

니 한 세상 분주하게 탐욕만 두고 있다네。어영차 들보를 서쪽으로 던지니 우산에 구름 끼어 저녁 구름 낮아지네。넓은 하늘에 비와 이슬 지금도 옛날 같은데 목수일은 도리어 아침 해 저녁 달 뜨는 것을 근심하도다。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동산에 가득찬 것은 모두가 구슬빛이라네。난새가 날아가고 봉황이 숨어 버린게 그 어느때 이더냐 열매가 소소하여 먹는 것 보지를 못하였네。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하늘이 내려보고 있어서 가히 마음을 놓겠노라。조용한 속에서 반드시 혼자도 근신하는 공부 더하여 경서 가르치기 좋아하여 밝고 넓은 것 보리라。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시냇물 옥같이 흘러 평야로 달려가네 고요한 천년 성인 말씀 사라지니 누가 또다시 물결보고 가는 이치 알소냐?

엎드려 소원하건대 들보를 던진 후로 이 재사가 편안하여 곧 새와 쥐의 피해가 없고 가문이 높고 커져 높은 벼슬의 영광을 보게 되어라。효도를 가르치고 충성을 배워 전수의 도리에 지체됨이 없고 시에 흥기되고 례를 세워 특별히 진보와 수련의 공을 내려 놓을지어다。

계해년(1959년) 2월30일

순창 설병두는 지음

⑧ 雲巖齋上樑文(參議公 諱 遇乙)

代言公后 陜川前賢 貽模於燕翼 始卜杜陵之居 後承 殫力於鳩財 用寓甄亭之思 既得齊沐之所 又兼琴書之娛 恭惟贈工曹叅議雲巖尹公 簪纓古家 圭璋令質 憲敏公之豊功偉烈 麟閣圖形 漆坪君之苦節精忠 鹿皮纒股 盖是家風之有自 宜其世德之相承 時際黨論之紛爭 早知官路之巇險 詳味扁楣之二字 人去而碧上空 可想絕世之孤標 水流而白雲在 來仍 積營於肯構 事力 每患於不敷 扡至己亥之春 博采甲乙之論 材木則數十年儲養 工役則八九家奔趨 遂令廢荒之墟 便作爽塏之地 宜於曠宜於奧 允合君子之攸齋 美哉奐美哉輪 可容宗族之斯聚 霜悽露怵 益篤歲薦之誠 月誦雲耕 勿墜世守之業 萬山 深而囂塵 不到 三俓 闢而賓朋 自來 此皆久遠之圖 豈但眺聽之美 恭陳蕪拙 用助呼邪 兒郎偉拋樑東 咫尺楸阡 指顧中 欲識當年扶植處 至今村落有淳風 兒郎偉拋樑南 長程無日不征驂 慇懃寄語紅塵客 一世奔忙有底貪 兒郎偉拋樑西 牛山雲暗暮雲低 仁天雨露 今猶古 斥斧還愁日夕躋 兒郎偉拋樑北 滿園都是琅玕色 鸞徂鳳伏 此何時 練實蕭蕭不見食 兒郎偉拋樑上 有赫其臨心可放 靜裡須加謹獨功 好將經訓觀昭曠 兒郎偉拋樑下 一溪流玉 走平野 寥寥千載 聖言湮 誰復觀瀾知逝者 伏願上樑之後 亭榭平安 頓無鳥鼠之害 門閭高大 第見車馬之榮 責孝課忠 無替嗣守之道 興詩立禮 另下進修之功

大淵獻夾鍾月下澣

淳昌 薛炳斗 撰

⑨ 석전재 상량문(통정공 휘 형립) 대언공후 칠원

저기 슬봉을 바라보니 하늘 속에 수려하게 우뚝솟았는데 완연히 꽃은피어 해를 받들고 있는듯 하고 이곳 산등으로 향하여 들판을 꾸불꾸불내려오니 흡사 용이 물을 만나 날아가는듯 하다。이곳에 나의 9대조 체벽을 남서향(간좌)에 모셨고 또 나의 7대조 체백을 북쪽 언덕에 모셨다。그래서 여기에다 몇칸 재사를 지어 보려고 몇대가 되도록 설계와 공사를 펼친 것이다。

삼가 생각하오니 우리 선조의 영혼은 말없이 좌우로 도와주었고 우리 후손들은 정성 노력으로 힘을 펴서 아침 저녁으로 협동단결한 것이다。남향(자좌)으로 세우려고 이에 고유제를 올리고 개척을 하니 소문난 집터가 기다리어 기해년을 맞이하였고 선택하여 공사를 거행하니 추운 선달이 봄철과 같았다。내 도끼와 자귀를 갈아 작은 나무도 베어내고 큰 나무도 베어와 먹줄로 곧게 잡고 길게도 자르고 짧게도 잘라 눈과 비 맞는 것 꺼려하지 아니하고 생각마다 정성을 드리고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달보고 돌아오며 일마다 계획대로 실천하였다。이 공사가 크지 아니하여 여러 후손들의 세력이 미약한 부끄러움이 있으나 참아가며 오직 시작과 끝을 순순히 이루었으니 감동은 멀리 사는 일가들보다 많았다。재사의 안과 밖에서 감히들 상쾌하다고 떠들지만 제사 올리는 절차에 영순은 똑바로 서서 있을 뿐이었다。백길되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들은 하늘을 닿을듯 빽빽히 있고 한쪽에 있는 옹달샘은 담을 돌아 흐른다。여기서 일가끼리 강론을 한다면 오래될수록 더욱 돈독하게 되고 여기서 계속 책을 읽으면 더욱 오묘하고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이에 들보를 얹을때에 짧은 대련구를 지으니 어영차 들보를 동으로 던지니 천주봉 머리에 아침해 붉게 떠있네。산골 눈 처음 녹아 매화가 피려고 하는구나 만상을 바라보니 온화한 봄바람일세。어영차 들보를 남으로 던지니 광려산 위에 노을이 일어나네。수신제가와 효도와 우애는 우리 선비집안의 일이니 뜬세상 공명을 탐내지 말라。어영차 들보를 서로 던지니 천길 못속에 용이 잠복하여 있도다。조용히 천기를 살피며 시기를 기다려 일어나면 풍운의 변화를 누구와 같이 할고。어영차 들보를 북으로 던지니 무이산이 눈에 들어와 단아하고 또 높도다。구비구비 좋은 경치 차례로 올라가니 무릉도원의 선경이 필연코 끝이로다。어영차 들보를 위로 던지니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토록 밝도다。옹당 밝고 밝아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니 착한 사람 집안에 복록이 왕성하리라。어영차 들보를 아래로 던지니 우리 인생들 신농씨 농사를 짓고 있다네 부지런히 수확하여 방아 찧고 밥 지어 봄 가을로 제사 올리니 향기가 봄가을 잔에 가득하네。상량을 한 후로는 아버지는 사

랑하고 아들은 효도하여 집안의 명성이 나라안에 가득히 넘치고 하늘이 돕고 귀신이 보호하여 이 집이 풍우에도 우뚝 서 있기를 엎드려 비옵니다。이 일을 권면한 것이 어찌 나의 모사와 나의 규범에만 한정하랴 스스로 수양하고 나서 늘상 노숙한 선비와 노숙한 덕인을 찾아 문의하여 더욱 넓히고 채워야 할 것이다。

기해년(1959년) 12월26일

9대손 윤학은 삼가 기록하다

⑨ 石田齋上樑文(通政公 諱 衡立) 代言公后 漆原

瞻彼滕峰 揷天秀麗 宛如花開擎日 揖此夷岡 壓郊蜿蜒 恰似龍行得水 于以窆我九代祖考 巾履於艮兆 且以葬我七代祖考 體魄於坎原 然而惟此數間構築 展也積到屢世經營 恭惟我先祖之精靈 默佑於左右 肆後孫之誠力 團協於日夕 立子午位 爰告爰拓 名墟如待 卜己亥歲 載趍載擧 凍臘如春 銳我斧斯 伐小伐大 直我繩墨 度長度短 不憚雪冒雨 念念憧憬 每多凌晨返月 事事履踐 寔施度之未擴 堪恧怩於孱孫勢冷 惟終始之順成 多感銘於遠族誠熱 堂戶庭際 敢曰噲噲噦噦 籩豆簠簋 永順 整整齊齊 百丈松楸 叅天而密邇 一區泉石 繞垣而輪奐 於以講明花樹 愈遠愈篤 迺茲繹誦經書 愈奧愈喫 庸述短聯 助擧脩梁 兒郎偉抛樑東 天柱峰頭 曉日紅 峽雪 初消 梅欲放 從看萬像 毓春風 兒郎偉抛樑南 匡廬山上起晴嵐 修齊孝友吾儒事 浮世功名 且莫貪 兒郎偉抛樑西 龍沼千壽龍伏兮 靜養天機待時作 風雲變化 誰能齊 亞郎偉抛樑北 入望武夷端且嶷 曲曲多奇次第攀 桃源仙境 必然極 兒郎偉抛樑上 日月星辰 萬古亮扱應昭昭毫不差 善人家裡 福履旺 兒郎偉抛樑下 蒼生大食神農野 以勤以穫以精炊 禋享春秋香滿斝 伏願上樑之後 父慈子孝 家聲 洋溢於邦國 天佑神庇 棟宇確立於風雨 爰啻勸勉於我猷我範 以自修而止 常須進問於老儒老德 以益充而擴

己亥十二月二十六日

九世孫 允學 謹識

◇

6、충효열비문、기문

(1) 충 신

① 충신 효자 정려중수기 충효공후 청양

대저 들어보면 선현들이 남겨놓은 교육은 충성보다 높은 것이 없고 효도보다 영광된게 없으니 충성과 효도는 임금과 어버이들이 매우 바라는 바이며 높여주는 것과 영광을 받는 것은 신하와 자식들이 매우 소원하는 바이다。내가 청양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선비 윤영설、윤정근이 선조의 사적을 안고 찾아와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며 장차 편액에 새기어 걸어놓고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충신과 효자의 업적을 찾아보

니 아버지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하였으니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하겠다。특히 정려의 포상을 받고 직품을 추증한 것이 역사책에 분명히 나타나 아름답게 비추고 지방에서 여기저기 소문나 칭찬하니 삼강과 오륜을 세운 것이 모두 한 집에 있으니 지나간 옛날에도 듣기 드문 일이며 지금에 와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그들이 바라고 소원한 것을 달성한 것을 문장으로 불가하나 졸렬한 것을 잊고 대략만 기록하였다。충신은 증통훈대부행훈련원주부 윤공이니 휘는 익이요 자는 경량이며 관적은 칠원이다。덕망이 높은 선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에 벼슬은 문하시중을 하고 칠원백에 봉작되고 충효공으로 추시를 받았으니 이 분이 공의 8대조이다。아버지 휘는 린이니 행동이 고결하여 여러차례 벼슬 권고를 받았으나 끝까지 벼슬 길을 나가지 아니하고 세전충효 (대대로 충성과 효도를 계승하다) 네 글자로 교훈을 남기었다。

공은 광해을묘(1615년)년 6월 3일 출생하였다。

공은 절개와 의리의 성품을 타고나 어려서부터 뛰어난 충렬장부 지기가 있어 항상 국가의 위급시에 몸 받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공이 평소에 쌓아 온 바가 있어 그랬던 것이라 하겠다。나이 18세에 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 주부를 역임하고 21세에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복을 입었으며 다음 해는 불행하게 병자호란을 만나 충청감사로 있는 정세규가 군대를 인솔하고 광주 검지천에 이르러 있어 공은 창칼이 난무하는 속으로 찾아가 맹세코 적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힘을 합하여 같이 죽기로 맹서하였다。공은 관찰사 정세규가 충성과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 진지가 함락됨에 이르자 관찰사 정세규가 먼저 죽어 공은 그의 시체를 만지며 통곡하며 동시에 운명을 같이 못한 것을 한탄하며 외롭게 남아있는 장병에게 유시를 하며 말하기를 적군을 토평하지 못하고 우리 대장이 먼저 죽었으니 우리들은 오늘부터 오로지 죽음만 있을 뿐이라 하고 마침내 말을 타고 적군의 화살이 난무하는 속으로 돌진하여 적군 사살을 많이 하였는데 이때에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마침내 충절로 순국하였으니 이 날은 12월 27일이며 공의 당시 나이 22세였다。그 당시를 살펴보면 그 진중에 몇 사람의 의로운 사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공의 나이로 공같은 충렬을 힘쓴 사람 또 어찌 몇 사람이나 있었겠느냐?

부인 김씨는 변고의 소식을 듣고 숨이 끊어졌다 다시 숨을 쉬며 말하기를 신하의 의리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 나는 진실로 남편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을 알았다며 전쟁터로 급히 달려가 황량한 모래판과 들판의 풀 속에서 시신을 찾았으나 백골이 쌓여 있어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마침내 혼을 불러 현

재 청양군 목면 대평리 가야산 조정동 계좌향에 장례를 하였으니 이런 남편이 있어 이런 아내가 있다고 이르겠다。 공이 순직한 후에 숙종대왕 조정시에 특별히 통훈대부급으로 추증하고 영조대왕 기유년에(1729년) 비로소 정려문을 세웠다 효자는 증승훈랑공조좌랑 윤공이니 휘는 광은이요 자는 신보이며 충신 주부공의 아들이다。 공은 인조 갑술(1633년)년 10월 1일에 출생하였다。 태어나 세살때에 아버지가 순직하여 공은 오직 어머니만 의지하고 살다가 장성하여 아버지가 전사한 것이 슬퍼 날마다 슬퍼 울며 화려한 의복을 입지 아니하고 즐겁게 놀지 아니하며 어머니 뜻을 상할까 두려워 슬퍼하는 모습을 일찌기 밖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는 슬퍼함이 예절을 넘었으며 삼년상이 끝나서는 아버지의 상복을 다시 입고 죄인으로 자처하며 친구들과 교제도 끊고 삼년간 죽만 먹어 초상시와 같이 하였다。 매년 12월 순절한 날이면 직접 전쟁터로 찾아가 술 석잔을 올려 서러운 감정의 지성을 펴게 되면 사람들이 공의 심정에 슬픔과 얼굴 빛에 근심이 어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들은 어버이에게 효도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충신과 효자가 전승되는 집안이라 이르겠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또 앞 다투어 상 주자고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숙종대왕 을유년(1705년) 5월 5일에 졸하여 묘소는 목면 태평리 대로변 해좌에 있다。 숙종대왕 조정에서는 특별히 승훈랑 공조좌랑을 추증하였고 영조대왕 기유년(1729년)에는 아버지 주부공과 함께 동시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아 앞에 충성과 효도로 전승되는 집안의 충신과 효자는 모든 사나이중에 뛰어나서 한 지방에 힘을 입게하였다。 공로를 만민이 칭찬하여 명성이 궁중까지 이르렀다。 영조대왕 기유년에 다행히 포상의 영전을 입어 정려문을 세운 자리는 정산 대평동이니 이후로 정성껏 수호하여 260년이 되었다。 그간 비록 몇번 보수를 하였어도 비바람에 닳고 씻기어 동으로 기울고 서는 무너져 누구인들 추모의 성심에 유감되지 아니하겠는가? 후손들이 재력이 부족하여 다시 짓는 일을 못하여 지나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서야 다행히 관청의 보조를 받고 자손들의 성심을 다하여 다시 수리가 끝났으니 사실상 지난 옛날 숭배하던 것보다 새로운 감정이 들었다。 후손에게 교화를 세우고 풍속을 권면하는 도에 당연히 반드시 공경하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시문에 기술하여 말하기를

의리 행한 비문 고금을 생각하니 국민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어 또 하늘에 드날리고 있네。 나라에 순직한 늠름한 충성 역사에 비추고 자신 잊은 당당한 효도 후손의 기운일세。 큰 공로 멀리 호서지방 안에 펴져있고

좋은 행동 길게 금강변에 드리웠네。지금같이 인륜이 퇴
패한 날에 온 나라 복종하여 영원토록 서로 전승하세。

서기1990년 경오 3월 일

청양군수 한준수는 삼가 기록하다

① 忠臣孝子旌閭重修記 忠孝公后 青陽

蓋聞 先賢之遺教 莫顯於忠 莫榮於孝 忠孝 人君人親之所
甚欲也 顯榮 人臣人子之所甚願也 余莅於青陽倅 士人尹
永高尹貞根 抱來先祖之蹟 責余以記文 將欲繡梓揭板壽傳
按其蹟 父忠於君 子孝於親 有是父 有是子 特蒙旌褒 追
贈職品 史乘昭現徽映 鄕邦嘖聞稱模 扶植綱常 都擧一門
徃古稀聞 來今罕覩 其所達欲願 不可以文 忘拙略記 忠臣
贈通訓大夫行訓練院主簿尹公 諱翊 字景亮 貫漆原 顯祖
諱桓 麗末 官侍中 封漆原伯 謚忠孝 寔公之八代祖考也
考諱璘 操行 高潔 屢蒙承傳 終不出仕 以世傳忠孝四字而
遺訓 公生于光海乙卯六月三日 禀其節義之性 已自髮髫
凜然有烈丈夫志氣 常以殉國家之急 擔着于身 此盖公素所
畜積者然矣 年至十八 登武科 歷訓練院主簿 二十一 遞官
歸家 服母喪 翌年 不幸當丙子之亂 忠淸監司鄭世規 領兵
至廣州儉之川 公徃從於干戈搶攘之中 誓不欲與賊俱生 與
之戮力 勉以同死 公蓋知世規之爲忠義人也 及其陣陷 世
規先死 公 撫尸痛哭 恨不得同時並命 仍諭子遺將士曰大
賊未平 元戎先喪 吾輩 今日只有死耳 遂以匹馬 直搗於亂
兵簇立中 斬殺過當 乃爲流失所中竟殉於節 是日 十二月
二十七日 公之時年 二十二矣 試看當日 域中 曾不知有幾
箇義士 而以公之年 辦公之烈者亦豈有幾人哉 夫人金氏
聞變幾絶而復吹曰 人臣之義當如是矣 吾固知斯人之必不
生還也 奔徃戰所 求尸於荒沙野草之間 而白骨 堆積 無
可辦明 遂 招魂葬於今青陽郡木面大平里佳也山照井洞癸
坐 可謂有是夫 有是婦矣 公歿後肅廟 特贈通訓大夫 英廟
己酉 始旌其閭

孝子 贈承訓郎工曹佐郎尹公 諱光殷 字莘甫 忠臣主簿公
之子也 公生仁廟甲戌十月初一日 生甫三歲 父 殉節 公
惟母夫人是依 及長 痛父非命 日事哀號 不服華麗 不事嬉
遊 恐傷母夫人之意 悲感之容 未嘗見外 逮當母喪 哀毁逾
禮 及其制闋 追服父喪 自處罪人 息交絶遊 饘粥三年 一
如初喪時 每歲臘月諱日 躬徃戰所 三盃椒酒 以展哀感之
誠 人見公 情事之慽 容色之癯者 莫不曰父忠於君 子孝於
親 可謂傳家之忠孝矣 其聞者 亦莫不嘖嘖稱賞 肅廟乙酉
五月初五日卒 墓在木面大平里大路上亥坐 肅廟特贈承訓
郎工曹郎 英廟己酉 並與主簿公 同時旌閭

噫 右傳家之忠孝 卓冠百夫 全賴一境 功頌萬口 名達九重
英廟己酉 幸蒙褒奬之典 建表旌閭之所 定山大平洞以來恪
謹守護二百六十祀也 間雖幾補 風磨雨洗 東傾西頹 孰不
憾乎追慕之誠哉 後裔 財力不贍 未遑重剏 俾爲行路者咨
歎矣 今茲幸得官府補助 雲仍殫誠 竣重修 實有感於昔年

瞻仰之維新 後來者樹風勵俗之道 宜有必式而興起哉
記韻曰 仗義銘文憶古今 化民成俗更揚天 殉國凜忠先史照
忘身堂孝後光炯 元功遠播湖西裏 長行長垂錦水邊 今此序
倫頹廢日 滿邦稱服永相傳

一九九〇年庚午 三月 日

青陽郡守 韓竣洙 謹書

◇

② 애국지사 공적기념비(휘 병한) 대언공후 진천

일생을 조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지사 윤공의 휘는 병한이요 자는 운로요 호는 중암이니 신라태사 윤시영 공의 제37대손으로 서기1874년 6월20일 칠원윤봉학공과 어머니 연안 이씨의 독자로 충남 당진에서 탄생하시었다。 선생은 어렸을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품성이 고매하여 본시 장군 재목이시었다。 때마침 격동하는 구한말 구국강병의 웅지를 품고 군관학교를 거쳐 대한제국 참위로 임관되어 뜻을 키워나가실때 어느덧 국세는 기울어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되고 경술년 국치까지 당하게 되었다。

오호라 통재로다。 선생께서 품은 그 뜻은 하루 아침에 수포가 되었으니 선생께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하늘을 우러러 애곡하시니 그 무엇이 그 누가 그 통분한 마음을 풀어주랴。 격노한 선생께서는 분연히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시었으니 때마침 서기1919년 봄 삼천리 근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민중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갈때라 고향동지 정운화 남계홍 백선옥 이영호 신달용 이상직 오은영 정관용 등과 동지를 규합하여 동지 이백여명을 이끌고 광혜원 시장통으로 떨쳐 나왔으니 이때가 서기1919년 4월2일이라。 그 이튿날 4월 3일 광혜원 장날을 기하여 수천명 민중이 운집한 자리에서 왜놈들이 우리나라를 강도질 해간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뒤따르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천번 만번 외치시니 그 뒤를 따르는 인파가 이천명이요 기세도 당당하게 시장거리를 시위하시니 그 뜻과 그 기운이 마치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시위군중은 도중 장터에서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바들말 헌병주재소를 때려 부수고 항거하며 투쟁할때 진천헌병대에서 수십명 무장 헌병들이 나와 무차별 총격을 가함에 이에 맞서 싸우다 쓰러진 군중이 부지기수요 그중 이치원 김경윤 윤광옥 김득손 김예원 구씨 류치선 모자등도 이때에 적탄을 맞고 타계하셨다。

이때에 자기 아들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류치선 부인은 이 도적놈들아 나도 같이 죽게 쏴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자 그 잔악무도한 왜병은 힘없는 그 부인마저 총을 쏴서 자기 아들 가슴에 피를 토하고 그 위에 쓰러져 죽게 하였다。 장하도다 한국의 민중이여

한국의 어머니여 이 고장의 선각자 윤선생이시여

그후 선생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왜병에게 체포되어 악랄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시고 3년의 긴 세월 옥고를 치르셨고 동지 정운화、백선옥、남계홍、이영호、신달용 등은 8개월씩 영어의 몸이 되어 고생하고 나오셨다。선생께서는 그후 나오셔서 초야에 묻혀 지내시면서 이전부터 연계되어온 상해임시정부와 다시 내통하며 독립투사 김좌진 신팔균등과 연락하여 군자금 조달에 온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력을 쏟으시다 아깝게도 1932년 9월 5일 향년 59세를 일기로 한 많은 일생을 마치시니 오호 한이로다 선생의 위업은 정부에서도 인정하여 1980년 8월 14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유자손으로는 사자 담과 손 종구가 있다。이 지역 고장에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 면민 일동은 다함께 모여서서 두손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때 가신 님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드리노라。아울러 이 고장에 이 나라에 이 겨레 앞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이 기념비를 세워 역사를 기리며 후진을 계도하는 뜻으로 이에 비문을 새긴다。

서기1984년 12월 11일

애국지사 윤병한선생공적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③ 애국지사 기적비(휘 병일) 충효공후 청양

고 애국지사이신 칠원윤공의 휘는 병일이요 자는 장일이며 아호는 화강이다。현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에 문하시중 벼슬을 하신 시호 충효공의 19대손이다。아버지의 휘는 소권이니 효행으로 통정대부를 추증받았고 어머니는 종숙부인 김해 김씨이니 현풍의 딸이다。공은 서기1873년 고종황제 계유년 12월 12일에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오산동 집에서 출생하였다。특히 그 명철한 지혜와 빼어난 올바른 행동을 열거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상과 일본에 항거한 투지는 살신성인의 유공으로 지금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다。서기1957년(정유년) 8월23일에 별세하여 묘소는 오산동후 산기슭 병좌이다。아 저 간악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의 야망을 품고 서기1895년에 을미사변을 일으켰다。이에 울분한 애국지사들은 의렬의 깃발을 들고 일본과 대항할 것을 다짐하였다。공은 1904년도 정산에서 일어난 토지세부측량저지의 민중봉기에 가담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인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행위라 하고 저지한 것이니 이것은 일본에 항거하는 의거의 첫 자취인 것이다。흉폭한 일본은 다음해인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국권을 강탈하니 이때에 전임 이조참판으로 정산면 천장리에 낙향한 민종식이 동지들을 모아 국권

을 바로잡기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이때에 공은 그 휘하에 출진하여 좌군관으로 참전하니 이 사건이 바로 1906년 고종황제 병오년 4월에 거사한 홍주 의거이다。 이때에 정산、청양、보령、홍산 등지에서 운집한 수천명의 의병으로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인들은 홍주성을 탈환하기 위하여 통감인 이등박문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사령부에명령을 내려 일본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 패배하여 후퇴하게 되었다。 이에 공은 재기를 위하여 청양유치에서 4백여명의 의병을 수습하여 의병 대장인 민참판과 더불어 일대 의거를 도모할 것을 절치부심으로 맹세와 약속을 하였다。 그후 1916년 기미년에 논산군 연산에서 이용규、이만식、조종국 제공과 더불어 모의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강화 석모도에서 1년간 유배형을 받았다가 다음해인 1917년에 석방되었다。 그후 고향에서 살면서 출입을 삼가하고 세상 인연과 멀리하다가 노쇠한 나이에 조국 광복의 영광을 맞이하였으니 그 기쁨을 어찌다 형언할 수 있으랴? 아 공은 오직 자나깨나 조국 광복의 변함없는 마음은 전 생애를 통하여 뺏지못할 입지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구국일념의 업적이라 하겠다。 이 훌륭한 의기와 영광된 이름은 공이 죽은 후에까지 청사와 구전으로 찬연하더니 급기야는 국가보훈처의 상신으로 지난 1990년에 8월 광복절을 기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애기장을 추서받았다。 고향 사람들도 공의 평생 이룬 업적의 보답이라며 추송하였다。 아 공의 위대한 업적은 만인의 숭배앙모요 천추의 모범인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공훈을 찬양하고 교화를 바르게 하고져 함이라 이에 공을 추모하는 인사인 이영복、우봉명、이광선、우형식、복상교와 아울러 동족인 용원、종상、종규、종혜、창수、홍수 등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비석을 공의 고향마을에 세워서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하는 바이다。

서기1991년 신미 7월 일

청양군수 이호종는 짓고

후학 월성후인 최병무는 쓰고

화강윤선생유공현창회장 이원강은 세우다

③ 愛國志士 紀績碑(諱 炳日) 忠孝公后 靑陽

故愛國志士漆原尹公 諱 炳日 字章日 號華岡 顯祖 諱桓麗末 官侍中 諡忠孝公 十九代孫 考 諱召權 以孝行 贈通政大夫 妣 贈淑夫人金海金氏 鉉豊 女 公 西紀一八七三年 高宗癸酉十二月十二日 靑陽郡木面華陽里五山洞第出生 特 明哲 智慧 行誼 愛國思想 抗日鬪志 殺身成仁 遺功 現今 名聲 藉藉 西紀一九五七年丁酉八月二十三日 別世 墓五山洞後麓丙坐 好惡 日本 韓半島侵略 野望 一八九五年乙未事變 鬱忿 愛國志士 義烈 旗幟 抗日 公 一九

○四年 定山 細部土地測量沮止 民亂事件 加擔 日本人
稅金過賦 行爲 沮止 抗日義擧 凶暴 日本 一九○五年 乙
巳條約 國權 强奪 前任吏曹參判 定山天庄里 落鄕 閔宗
植 同志 國權 爲 公 麾下 出陣 左軍官 參戰 一九○六年
高宗丙午四月 擧事 洪州義擧 定山青陽保寧鴻山等地 雲
集 數千名 義旅 洪州城 占領 日本 洪州城 奪還 爲 統監
伊藤博文 駐箚司令部 命令 猛擊 敗退 公 再起 爲 青陽
紐峙 四百餘名 義兵 收拾 儀兵將 閔參判 一大義擧 圖謀
切齒腐心 盟約 其後 一九一六年 己未 論山郡 連山 李容
珪 李晩植 趙鍾國諸公 擧義 謀約 日警 被逮 江華席毛島
一年間 流配刑 一九一七年 釋放 鄕第 出入 世緣 衰年
祖國光復 榮光 形言 公 祖國光復 恒心 前生涯 通 立志
成仁 爲 救國一念 業績 義氣 榮名 公 死後 靑史 口傳
燦然 及其也 國家報勳處 上申 一九九○年八月 光復節
大統領 建國勳章愛旗章 追敍 公 平生 業報 追頌 公 偉
績 萬人 崇仰 千秋 規範 功勳 敎化 公 追慕 人士 李英
馥 禹鳳命 李光善 禹衡植 卜相敎 族人龍遠 鍾相 鍾奎
鍾海 昌洙 弘洙等 賢勞 碑 故里 後世 模楷

西紀一九九一年 辛未 七月 日

青陽郡守 李顯鍾 撰

後學 日城后人 崔秉武 書

華岡尹先生遺功 顯彰會長 李元康 竪

④ 항일투사 기적비(휘 병환)충효공후 청양

항일투사 윤병환의 자는 군범이며 칠원윤씨이다。공은 고려시대 저명한 재상 충효공 환의 십구대 손이며 아버지 문학과 어머니 예안 김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서기 1889년 기축 3월 3일에 청양군 청장면 지곡리 222번지에서 출생하였다。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언행이 바르며 집에서는 효심이 돈후하고 근면 성실하여 친우들 간에 신망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이 따랐다。공의 어린시절에는 일제의 압박으로 민족의 서러움이 극에 달하는 고난시대에 살면서 항시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이 상실된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고자 우국충정을 불사르며 투쟁하다가 서기 1919 기미년 3월인 31세때에 독립운동 만세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지자 향리 이동명과 함께 지곡리 당산에서 마을 대중을 선동하여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그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켰다。그리고 청장면사무소와 주재소 앞을 행진하며 일제의 학정을 규탄하던 중에 정산에 주재한 일본 헌병의 행진저지로 시위대중이 해산되었고 주동자인 공과 이동명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당년 4월에 공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6개월간 징역형의 언도를 받고 복역하였다。출감후는 지곡리에 귀향하여 조선민족의 단

결을 호소하며 이 나라의 독립이 우리의 최대 과제임을 역설하며 오직 항일사상의 고취와 민족의식의 개선을 부르짖었다。공은 구국일념으로 통한의 세월을 보내다가 8·15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기 1948년 무술 6월 11일 향년 60세로 별세하니 묘소는 적곡면 은곡리 외차산 동향(유좌)이다。부인은 순천박씨이며 4남 2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길원과 조원과 영원이요 사위는 단양인 우종억과 김해인 김경환이다。공에 대하여는 서기 1979년 기미 2월 정산향교전교 김만영이 지은 기미독립투사 묘비와 동년 4월 청양군 군수 박찬무가 지은 항일칠투사비가 있으며 1992년 임신 3、1절을 기하여 건국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므로 공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영원히 빛내기 위하여 여기 애국지사 고향에 그 공적의 사실을 새겨 이 비를 세운다。

서기 1993년 계유10월 21일

유도회정산지부회장 윤홍수는 삼가짓고

청양군수 이병준은 삼가세우다

④ 抗日鬪士紀績碑(諱 炳環) 忠孝公后 青陽

抗日鬪士 尹公炳環 字 君凡 漆原尹氏 公 高麗名相忠孝公 桓 十九代孫 父文學 母禮安金氏 長男 一八八九年己丑三月三日 青陽郡青揚面芝谷里二二二番地 出生 幼年稟性 剛直 言行 孝心 敦厚 勤勉誠實 親友間 信望 隣近住民 公 幼年時 日帝 壓迫 民族 極 達 苦難時代 恒時日帝 侵略 國權 喪失 鬱憤 祖國 光復 爭取 憂國衷情 暗鬪 一九一九年己未三月 三十一歲 獨立運動萬歲 喊聲 全國坊坊曲曲 鄉里 李東明 芝谷里 堂山 里民 大衆 煽動烽火 獨立萬歲 先唱 喊聲 天地 震動 青揚面事務所 駐在所 行進 日帝 虐政 糾彈 中 定山駐在 日本憲兵 出動沮止 示威大衆 解散 主動者 公 李東明 逮捕 酷毒 拷問 當當年四月 公州地方檢察廳 送致 六個月 懲役刑 言渡 服役 出監後芝谷里 歸鄉 朝鮮民族 團結 呼訴 獨立 最大課題 力說 抗日思想 鼓吹 民族意識 改善 公 救國一念 痛恨 歲月 八·一五光復 後一九四八年戊戌六月十一日 享年六十歲 別世 墓所 赤谷面隱谷里外車山酉坐 配 順天朴氏 四男二女 男 吉遠 照遠 永遠 女 丹陽人禹鍾億 金海人金慶還 公 一九七九年己未二月 定山鄉校典校金萬榮撰己未獨立鬪士墓碑 同年四月 青陽郡郡守朴贊武撰 抗日七鬪士碑 一九九二年壬申三·一節 期 建國功勞 大統領表彰 追敍 公 崇高 自主獨立精神 永遠 爲 愛國志士 生長地 事績 碑

一九九三年癸酉十月二十一日

儒道會定山支部會長 尹弘洙 謹撰

青陽郡守 李炳駿 謹竪

⑤ 의사윤병석전(휘 병석) 대언공후 합천

윤병석은 1889년 1월 26일에 경남 합천군묘산면 팔심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수학하며 농사를 지었지만 항상 국가의 주권이 상실되어 있음을 한탄하던 차에 서기1919년 삼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3월 22일에에 동지를 규합하고 묘산면 농민 대중을 동원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여 거사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단상에 올라 대중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높이 흔들어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니 대중의 함성은 이곳 산천을 진동케하였다。 이어 면사무소와 주재소로 행진하여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통신시설들을 절단하니 당시 합천읍에 주둔한 헌병대와 경찰이 출동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군중이 해산되었지만 최후까지 항거하다가 그는 헌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진주재판소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구복심 법원에 불복항소 하였으나 역시 1심형과 같이 선고되어 옥고를 치르었다。

그는 또 악독한 일경들을 질책하여 말하기를 호랑이와 이리는 발톱과 어금니를 사랑하고 공작새는 꼬리를 사랑하고 봉황새는 무늬를 사랑하고 국가는 충성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거늘 충성하고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벌을 주고 욕을 보이니 충성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일본은 패망할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하고 내 너희들을 생각하니 가련하고 애석하다고 꾸짖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출옥한 후에 향리로 돌아와 은거생활을 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독립을 하지 못하면 장차 민족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었으며 해방후에는 조용한 전원생활을 하다가 서기 1955년 4월 1일에 영면하였다。

찬사에 말하기를

내 삼일운동 역사를 읽다가 합천군묘산면편에 이르러 칠원윤씨문중에서 팔촌이내인 애국지사 여섯 사람이 함께 일어나 각자 주동의 책임을 지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다 어찌 장엄하지 아니할소냐? 병은、병덕、병교、병석、병창、병대 등 여러사람이 있었으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체포되어 모두들 1년 이상에서 2년간 복역을 하였으며 그중에 병교공은 아버지를 위하여 대신 자신이 매를 맞아 얼마후에 순국하였으니 그는 충성과 효도의 의리를 겸하여 온전히 하였다。 일찌기 눈물과 한탄을 거둘 수 없기에 합천사는 유도회장 평산후인 신맹교는 삼가 찬사를 쓰다。

⑥ 애국열사 기적비(휘 병구)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병구이며 자는 의경이요 성은 윤씨이니 본관은 칠원이시다. 신라 태종무열왕 때에 태자태사로써 고명원로에 오른 시조 휘 시영의 먼 후손이며 고려시대 문하시중 충효공 휘 환의 10대손이다. 아버지 휘 임학과 계비 전주 이씨 사이에 장남으로 서기1893년 3월 16일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469번지에서 태어나셨다. 공은 유년 시절부터 성품이 담대하시고 모험심이 강하시어 경향각지를 빈번히 왕래하시면서 신문물 탐구를 몸소 실천하셨고 정의의 기백을 연마하시었다. 서기1905년 일제의 총검 아래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국권이 박탈되자 비분강개하여 구국운동의 의지를 굳히고 공은 서기1919년 3월 1일에 국권 회복을 위한 울분에 젖은 배달민족의 만세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짐에 의연히 구국일념으로 비장한 각오를 다지시고 만주로 건너가서 북경에 본거를 둔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발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셨다. 조국 광복에 골몰하시던 공은 1922년에 유석현.김지현과 같이 제등 총독을 암살할 것과 조선 총독부와 동양척식 회사 및 조선은행 등을 폭파할 계획을 세운 뒤에 군자금 마련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여 동년 12월 23일에 서울 무교동에 거주하는 부호이며 조선 총독부 판사인 백윤화를 찾아가 거사 내용을 알리고 군자금 5만원을 요구하자 재산 상속을 받지 아니하여 거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거절 당하였다. 공의 일행은 그의 부친 백운영을 찾아가 군자금을 요구하자 그도 역시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여 권총을 꺼내들고 이천원을 꼭 조달하도록 명령하고 돌아와 백윤화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든 돈을 마련한 후에 남대문 구내 게시판에 다음 열차로 떠난다는 암호를 쓰라는 편지를 보내고 동월 25일 밤에 공과 유석현이 군자금을 인수차 백윤화의 집에 가셨다가 사전에 잠복한 관할경찰서 왜경에게 체포되어 시국표방 강도죄로 중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혹독한 옥고를 치르시다가 서기 1931년 29일 옥중 순국하셨다. 이렇듯 공의 애국 충절과 살신성인하신 강인한 항일 투쟁의 발자취는 바로 조국 광복의 밑 뿌리가 되었으며 거룩한 애국정신은 정의구현의 대도로서 온 백성의 귀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공의 충성대의를 추앙하여 서기1962년에 건국공로훈장국민장을 추서하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충렬대에 안장하였으니 그 기상은 영원 불멸하리라. 공의 거룩하신 충의와 애국 정신을 길이 빛내기 위하여 청양군민의 이름으로 이 곳 공의 향리에 기적비를 세우니 이 나라를 위한 붉은 충성 천추에 빛나리라.

서기1991년 신미 10월 일

청양군수 이호종은 짓고 세우고
월성후인 최병무는 삼가 쓰다

⑥ 愛國烈士 紀績碑(諱 炳球) 忠孝公后 青陽

公諱 炳球 字義敬 姓 尹氏 本貫 漆原 新羅太宗 武烈王 太子太師 顧命元老 始祖諱 始榮 遠世孫 高麗門下侍中 忠孝公諱桓 十九世孫 考諱林學 繼妣全州李氏 長男 西紀 一八九三年三月十六日 青陽郡青南面中山里 四六九番地 公 幼年時節 性品 膽大 冒險心强 京鄕各地 頻繁 往來 新文物探究 實踐 正義 氣魄 硏磨 西紀一九〇五年 日帝 銃劍 乙巳保護條約 勒結 國權 剝奪 悲憤慷慨 救國運動 意志 公 西紀一九一九年三月一日 國權回復 爲 鬱憤 倍達民族 萬歲喊聲 全國坊坊曲曲 毅然 救國一念 悲壯 覺悟 滿洲 北京 本據 義烈團 加入 活發 抗日運動 展開 祖國光復 汨沒 公 一九二二年 柳錫鉉 金祉燮 齊藤總督 暗殺 朝鮮總督府 東洋拓殖會社 朝鮮銀行等 爆破 計劃 軍資金 爲 國內 潛入 同年 十二月十三日 武橋洞 居住 富豪 朝鮮總督府判事 白允和 擧事內容 軍資金 五萬 要求 財產相續 巨金 調達 拒絕 公 一行 父親 白雲永 軍資金 要求 亦是 順順不應 拳銃 二千 調達 命令 白允和 生命 所重 南大門 構內揭示板 列車 暗號 片紙 同月 二十五日 公 柳錫鉉 軍資金 引受次 白允和 事前 潛伏 本町警察署 倭警 被逮 時局 標榜强盜罪 重刑 言渡 西大門刑務所 酷毒 獄苦 西紀一九三一年二月九日 獄中 殉國 公 愛國忠節 殺身成仁 强靭 抗日鬪爭 祖國光復 根底 愛國精神 正義具現 大道 百姓 龜鑑 政府 公 忠誠大義 推仰 西紀一九六二年 建國功勞勳章 國民章 追敍 銅雀洞國立墓地 忠烈臺 安葬 氣像 永遠不滅 公 忠義 愛國精神 爲 青陽郡民 公 鄕里 紀績碑 愛國丹誠千秋

西紀一九九一年 辛未 十月 日

◇

(2) 효자

① 사부공 정려중수기(휘 빈) 충효공후 탄천

종선조 되시는 사부공의 휘는 빈이다。 일찌기 문민공 황추포 선생을 사사하여 마침내 유생이 되었다。 인조 기사년에 증광진사에 합격하였으며 봉림대군의 사부이었는데 경회세자를 책봉한 이후에 효종에 이르러서 그로인하여 여러가지 벼슬을 하였다。 숙종 을사년에는 (1725년)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어 다행히 포상의 영전을 하사받아 정려각을 짓고 비를 세워 보호하여 온지 삼백여년에 가까워졌다。 그간에 비록 몇번이나 보수를 하였지만 또 풍마우세로 퇴락이 되었으니 이 정문의 터에 감동이 없으리오마는 재물과 노력이 미치지 못하여 단지 행인들만 한탄에 그칠뿐이었다。 언제인가 다행하게도 문중에 의논을 다같이 하여 재물도 모으고 목수

도 모아 이제 중건하고 중수하여 바로 지난 옛날 추앙하던 감정이 새로워진다。선조의 유업과 조정의 은전이 후손들을 감싸준 것을 대대로 어찌 감히 잊을소냐? 저 정려문 모습을 바라보고 추모의 성심을 영원히 후손에게 서로 전하려고 마침내 기문을 지었다。

서기 1976 병진년 2월 일

종11대손 상원은 삼가 기록하다

① 師傳公旌閭重修記(諱 彬) 忠孝公后 灘川

從先祖師傳公諱彬 曾事師於文敏公黃秋浦 竟成儒業 仁廟乙巳 中增廣進士 鳳林大君師傳 慶熙世子策定以後 至孝廟 仍爲歷任焉 肅廟乙巳 以孝動天 幸蒙褒奬之典 建旌表閭 護之 殆近三百有祀也 間雖幾補 又爲風雨所圮 孰無憾乎追慕之地 以其事力之未逮 只止於行路咨嘆而已矣 何幸門議僉同 鳩財募工 今乃重建重修 寔有感於昔年瞻仰之維新也 先祖之遺業 朝宗之恩典 庇休後裔者 世世何敢忘哉 瞻旌閭之儀 寓追慕之誠 永世遺後相傳 遂爲之記

歲丙辰 一九七六年 二月 日

從十一代孫 尙遠 謹記

◇

② 효열정려기(휘기손、기진 청풍김씨) 충효공후 오갑

충주군 거곡면 상오갑은 현재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가 된다。옛날 중추부첨지사 벼슬을 한 윤기손과 그의 아우인 학생 기진이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나 집안에서 시문과 예의를 배워 그들의 순수한 효성은 이미 칠팔세 시절에 나타나 있다。그들은 어머니 원씨가 일찌기 괴질에 걸려 여러해 고치지 못하자 공의 형제는 정성을 다하여 약 봉양을 한결같이 하였으며 때마침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꿩탕을 먹고 싶어하시니 형제는 맨손으로 산에 들어가 꿩을 찾다가 얻지 못하여 울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때마침 매가 새를 채 가다가 그들 앞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꿩이었다。가지고 돌아와 봉양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후일 원씨부인 병이 위중하여 장차 이불 속에 눕게되니 형이 먼저 주머니 칼로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고 또 세번째 손가락을 찢으려 하니 아우가 칼로 다섯 손가락을 나란히 베어 어머니 입에 흘려 넣었으나 입이 이미 다물어져 피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가 잠시후 흘러 들어가자 숨이 조금 소통되어 마침내 수명이 30세까지 연명되었다。중추부첨지사의 큰 아들 득성의 아내는 김씨이니 바로 옛날 효자이며 지평 벼슬에 중직된 희경의 후손이다。남편 나이 겨우 열아홉살에 병이 걸려 위독하니 김씨 부인은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대신 죽기를 애걸하였으나 병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김씨 부인은 직접 수의를 꿰매어 근엄하게 염습을 끝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독약을 마셨으나 집안 식구들이 응급 구조하여 다시 살아났다。그후로 임신중인 것을 알고 시부모들이 대의를 일깨워 주니 김씨 부인도 역시 아들 낳기를 바라고 있다가 분만을 하게 되니 바로 딸이었다。부인은 울면서 부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남편이 죽었을때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유복자를 위하여인데 불행하게도 딸을 낳아 삼종지도가 끊어졌다며 마침내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물 한모금 입에 넣지 아니하여 이틀 후에 죽었다。아 순효와 정렬이 모두 한 집안에 모였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때에 각 군과 각 도의 사림들이 일제히 상소문을 내고 글을 지어 관가에 알려 임금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또 당시에 관리들이 사실을 찾아 장계를 올려 마침내 영조대왕의 포상을 입어 상금을 받는 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정조대왕이 신사년에 정문을 명령한 사실이 충주 읍지에 기재되어 있다。백여년 이후 을미년(1895년) 봄에 동리에 불이나서 계속하여 수십가호가 불에 탔는데 이 정문은 마을 한가운데 있고 불길이 높아 거의 이르게 되었으나 바람이 갑자기 불어 불길을 물리쳐서 드높게 홀로 화염속에서도 안전하였다。이런 사례로 관찰하여 보면 실덕과 실행이 있음을 어찌 하늘이 알지 못한다고 이를소냐？그후로 윤씨들의 가산이 패망하여 옛 터들이 타인의 소유가 되고 또 기둥과 처마가 퇴락되어 매우 한심스럽게 되었다。고종황제 기유년(1909년) 봄에 그의 종친되는 진사 윤정학이 그들의 후손되는 성원、병보、종대등과 더불어 겨우 재력이 준비되자 수무라는 곳으로 옮겨 세우고 세칸 정문에 단청을 하니 고루 빛나 새로 지은 것 같았다。비록 백세의 후라도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묵념을 할지어다。

기사년 봄 음성군 명륜당 회의 중에서 장차 읍지를 발행하고 그리고 군내 있는 효자와 열녀들의 모든 사실을 찾아내게 되었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② 孝烈旌閭記(諱起巽、起震、清風金氏) 忠孝公后 梧甲

忠州郡居谷面上梧甲 今爲陰城郡甘谷面文村里 故僉樞尹起巽其弟故學生起震 系出簪纓 家習詩禮 其純善之孝 已著於髫齔之時 母夫人元氏 夙嬰奇疾 屢歲沉痼 公兄弟 竭誠侍湯 始終如一 方盛夏 母思雉羹 兄弟徒手入山 求之不得 號泣彷徨 適有鷙鳥墜所攫於前 乃雉也 持歸以供 人皆驚異 後 元氏 病將屬纊 其兄 先以佩刀 裂一指血盡 又裂其三指 其弟 又以剉刀 幷斫五指 流滴母口 牙關 已緊閉 血不能下 少頃 漸流入而氣息 稍通 遂延壽至三十歲 僉樞之長子得聖 妻金氏 即故孝子贈持平僖卿後也 夫年 纔十九 患疹症危 金氏露禱乞代 病竟不起 金氏 手縫歛衣 惟謹旣殮 入私室飮毒藥 家人 急救得甦 其後 知有遺腹 舅

姑 勉以大義開諭 金氏亦冀有子 及解娩 乃女也 泣告其父母曰夫死而不死 只爲遺腹也 不幸擧女 望絶三從 義在一死 遂閉目緘口 水漿 不入口者二日而死 噫 純孝貞烈 咸萃一門 何其懿耶 於是 各郡各道士林 齊聲發文 告官呈營至於上言 且其時 繡衣 摭實狀啓 遂蒙英廟睿褒 至有給復之典 丁廟辛巳 命閭 事載忠州邑誌 後百餘年乙未春 洞里失火 連燒數十家 旌門 在里中 火色 熇熇將及而爲風所却巍然獨全於烟炎中 以此觀之 若有實德實行則豈謂天公之無知也哉 其後姓 敗產 故址 爲他人物 且棟桷 摧頹 極爲寒心 高宗己酉春 其族人進士尹正學 與其後孫聲遠 炳普鍾大等 僅辨羨力 移建于數武之地 三旌丹雘 輪奐如新 雖百世之下 入里者必式也

己巳春 自本邑明倫會中 將刊邑誌而郡內孝烈 皆採摭考實故 以此錄

◇

③ 효행기실비(휘 학률) 부원군후 충무

태고적 사람들이 처음으로 문자를 제정하여 사물마다 이름을 붙여주어 후세인에게 남겨놓았으나 후세인들이 활용하는데 번잡하고 간단한게 있다. 여섯가지 경전을 참고하여 보면 오직 뜻지자와 효도효자는 번잡한 것에 속하고 또 효자는 충성충자보다 번잡한 것은 무슨까닭일까? 군신지간은 사람마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부자지간은 바로 집집마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효자는 한가지 사례로 말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입과 몸을 봉양하는 사람을 입과 몸도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입과 몸을 봉양하는 사람이 족히 효자가 되겠지만 의지를 받드는 사람을 입과 몸만 봉양하는 사람에게 비교하면 의지를 받드는 사람이 곧 효자가 될 것이다. 군왕 중에 효자는 순임금은 말하였어도 요임금은 말하지 아니하였고 공자 문하에 효자는 민자건은 말하였어도 안연은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 분들의 처지에 정상과 다름이 있어서 더욱 그 명성이 빛난 것이다.

윤효자의 휘는 학률인데 지극히 가난하였어도 부모의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으니 가난은 역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공이 해변에서 살며 효도와 열녀의 도리를 실행하니 불빛에 모여드는 게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의 효성을 흠모하여 아이와 어른들이 서로 전하여 그 때문에 유림의 선비들이 움직이고 그 때문에 시골 마을까지 전래하고 있으니 어찌 홍살문을 높이 세워서 사람들의 귀와 눈에만 비치게 함만 같으랴?

공이 돌아가신지 106년이 되었다. 서양의 사조가 동양의 문물을 몰아내고 동서양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변중의 논리에 효도를 적용치 않고 유행되는 잡지에도 효도효자를 멀리하고 비록 쓰더라도 옛것을 인용할 뿐 후

배에게 권면하지 아니하니 통탄을 견딜수 있으랴? 공이 어버이 묘소를 성묘할 때는 늘상 섯달 그믐이면 묘소 곁에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밝히며 돌아오다가 길을 잃으면 귀신이 불빛을 비추어 인도하였으며 제사 날을 당하면 생선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바닷가 조수를 따라다니면 맛있는 고기가 나타났었다。 대개 지성이면 어름속에 생선과 우물속의 잉어를 얻었다는 역사를 보면 효자임을 드러낼때 가끔씩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 내 어찌 공의 마음에서 느끼는 바가 없을소냐? 등백도 같은 사람은 바로 천지이치의 착오일 것이다。

공의 관적은 칠원인데 대대로 통영군 도천리에서 살며 선조의 덕으로 교관에 제수 되었다。 현재 군민이 비석을 세워 정려문을 세우며 감역하는 일을 글방 두 선비에게 요청하고 김환익을 보내와 나에게 비문을 요구하니 이에 명문에다 말하기를

바닷가 이 마을에 효자가 살던 집이 있도다。 누가 그의 정문을 세웠을까? 모두가 비석을 세우라고 하였다네 효자의 행실을 듣고도 흠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정문을 거짓이라 여기어 예의를 갖추지 않을 사람이라네。

무진년(1928년) 3월 20일

통정대부행수학교관 광능 안택중은 삼가 기록하고

유생 김녕 김익환은 삼가 쓰고

전참사 김해 김유광、유생 김해 김용일은 감역하다

③ 孝行紀實碑(諱 學律)府院君后 忠武

太始人 始制字 逐物名詞 留贈後人 後之人 用之 有繁簡焉 考諸六經 惟志孝字 居繁而又孝繁於忠 何以哉 君臣之際 非人人所有 父子之際 乃家家所有 然而孝不可以一例論 養口體者 比不養口體者 養口體者 足爲孝 養志者 比養口體者 養志者 却爲孝 王之孝 言舜不言堯 師門之孝 言閔不言顏 以其遭遇 有變常 益暢其名 尹孝子 諱 學律 至貧而盡其養 貧亦人事之變常也 公 居海濱 行桐栢之義 汐社蟹灯 童叟相傳 以之而動儒紳 以之而達瓠家 豈若高其棹紅其門 耀人耳目也哉 公 乃謚家百六也 西潮東盪 黃白相標 辯證之論 以爲孝无適用 又見流行雜誌發刊中 用孝字 太簡 雖用之 皆引古而非勉後也 可勝歎哉 公之省親墓也 每常除夕 執燭于墓傍 燭而歸 迷失路 有鬼燐導之 當忌日 思用生鮮 邊海灣潮汐 嘉魚獻鱗 蓋目氷魚井鯉之載籍 求闡孝子 種種用是 吾於公心之家 豈無感之多 如鄧栢道 此是天理之一錯 公之貫漆 世居統營縣道泉里 蔭除敎官 令縣人 立珉 褒其閭 請董於黌二儒 遣金君煥翼 求文于余 繼爲之銘曰

維海是汫 孝子攸盧 誰其旌之 僉曰碣銘 聞其風而有不立者 欺其閭而有不式者也

戊辰 三月下澣

通政大夫行修學教官 廣陵 安宅重 謹志
幼學 金寧 金煥翼 謹書
前叅事 金海 金有光 監董
幼學 金海 金容一 監董

◇

④ 효자정려기(휘 병조) 충효공후 청양

공의 휘는 병조요 자는 경구이며 칠원후인이다。문하시중 칠원백 충효공 휘 환의 19대 손이다。헌종 무인년(1848년)에 정산 동면 구수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천성이 온순하고 선량하여 지극한 행동까지 겸비하고 있었다。그는 부모님을 섬기는 예절이 또 고금에 비교할 수 없었으며 마을에서 보고 감동되어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었다。일찌기 어머니 상을 당하였고 80세 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집안은 가난한데 아버지 나이는 높아지고 조석을 이어가기 어려워 부엌에 불을 여러차례 못때었으나 산에 가서 나무하고 물에 가서 고기 잡아 맛있는 반찬이 춘하추동으로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침。저녁 살피는 절차와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서늘하게 하는 방법은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매번 증자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을 생각하고 늘상 노래자가 부모 앞에서 한 재롱을 흉내냈으니 왕상의 잉어와 맹교의 죽순만이 특이한 옛날만의 아름다운 일은 아닐 것이다。집안에서 다닐때 업고 붙들고 모시고 다니며 얼굴 빛이 노하였으면 종아리 맞기를 간청하고 벼개맡에서 부채질하고 종아리치는 힘 때문에 울은 정성을 이제 또다시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또 병이 들어서는 밤중에 하늘에 기도하여 대신 아프기를 기원하였으며 매일 변을 살피며 잠시도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늘의 도움을 꿈에 얻고 영약을 신령 의사에게 받아 사용하여 수명을 10년 연장시키었다。임종시에는 세번 손가락을 베어 3차례 회생시키었으며 초상을 당한 후에는 안색이 수척하고 곡성이 애절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었으며 이웃 마을까지 감탄하였다。3년을 여막에서 살며 성의와 예의를 다하였으니 어찌 효성이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와같이 지극한 행동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명성이 빛나는데 자취없이 사라지면 불가하여 그래서 이에 대한 사림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 권응규 이외 68인이 연명하여 그 명단을 본군 군수에게 올렸는데 그 답변은 이 사람의 효도는 일찌기 감탄한 바였으나 이제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늦었다고 하며 당연히 사실을 들어 조정에 알려 교시를 내리겠다 하였고 지방을 순회하던 재상합하의 답변에 이르길 하늘에 빌어 약을 얻어 수명을 10년간 연장시키고 임종에 이르러서는 세번 손가락을 베어 세차례 갱생시키었으니 만일 하늘에 근본을 두지 아니한

효성이면 어찌 귀신과 사람이 함께 감동하였겠는가? 포상할 날이 있을 것이니 공론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다。그후로 일제통감의 표창에도 역시 칭찬하기를 능히 효도와 봉양을 다하여 족히 향리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와같이 특이한 행동은 옛날에도 듣기 드문 것이고 지금도 보기 드문 것이다라고 하였다。일찌기 황제의 사액을 받지 못한 것은 오직 국운이 불행한 소치로 연관이 되겠지만 사림들의 공론이 이와같이 간절하였고 관가의 답변도 이와같이 지극히 엄중하였어도 정려문 거사는 오히려 늦게 되었다。금년 봄에 이르러 사림들 공론이 다시 일어나 정려를 지어놓고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는지라。그래서 나는 사양을 하지 못하고 졸렬한 것을 잊고 대략 기록하였다。

을사년(1965년) 5월 일

진주후인 정헌무는 삼가 기록하다

④ 孝子旌閭記(諱 炳祖) 忠孝公后 青陽

公諱炳祖 字敬九 漆原之尹 門下侍中漆原伯忠孝公諱桓之十九世孫也 憲宗戊申 生于定山東面九水洞 天性溫良 至行兼備 其事父母之節 更無倫比古今而鄕里 莫不觀感而欽也 早遭其母夫人喪 八旬嚴侍下 家計貧寒 親年卲隆 菽水難繼 厨煙屢空則山而樵焉 水而漁焉 甘旨之供 不絶於四時 定省之節 溫冷之方 不怠於暫時 每念曾子之養志 常效老萊之爲戱 王鯉孟筍 不獨美於古也 戶庭之行 負扶陪從 顏色之怒 請受撻楚 扇枕泣筍之誠 今復覩於此矣 且當沉病 中夜禱天 願以身代 每日甞糞 暫不離側 得天助於夜夢 受靈藥於神醫用之 壽延十載矣 及其臨終 裂指三番 回甦三次 遭艱之後 顏色之慽 哭泣之哀 使行路而流涕也 共隣里之感歎也 居廬三年 盡誠禮 豈非孝義而然耶 若此至行昭昭 芳名爀爀 不可湮沒故 於是乎士論 大發 權膺圭外六十八人 連名呈單于本郡城主 其題音 此士之孝有實行 夙所艶歎 今呈此狀 尙云晩矣 當擧實報府爲敎 巡相閤下之題音 有曰禱天得藥 壽延十載 及其臨終 三裂三甦 如非根天之孝 豈有神人之俱感乎 褒奬有日 益俟公議 厥後統監之表彰 亦稱云克竭孝養 足鄕黨模範 如是卓異之行 比古罕聞 在今罕覩 曾未蒙天陛之賜額 雖因國運不幸之致 士林之公論 若此至切 官營之題音 如是至重 表旌之擧 尙已晩矣 至于今春 士論更發 經營旌閭 託余以記事故 辭不得已 忘拙略記

檀紀四二九八年 乙巳五月 日

晋州后人 鄭憲武 謹記

◇

⑤ 효자비문(휘 영원) 충효공후 논산

대저 효도란 덕의 근본이며 교육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바이다。그런고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

하는 행동이 비록 가내에서 수신제가하는 일이지만 사실상 치국평천하하는 도의 교육인 것이다。인륜이라는 것중에 오직 효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백행의 근본이라고 이르는 바이다。

저기 충청남도 논산군 채운면 화정리에 돌아가신 효자인 윤영원씨가 살았으니 공의 시조는 신라 태자태사 휘 시영이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섯임금을 섬기며 세차례 수상이 되어 나라를 돕고 백성을 안정시킨 원로대신이신 시호 충효공 휘 환의 후손이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인 휘 창의의 고손자이다。공은 서기1888년 9월 5일에 출생하여 1927년 1월 21일에 41세로 일찍 서거하였다。

삼가 전기들을 참고하여 보니 공은 신체의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이 온순하고 후덕하고 지혜가 탁월하며 행동가짐을 근신하여 7、8세의 나이에 이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알아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으며 나가려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인사하는 것과 저녁이면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이면 보살피는 예절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동하였고 성인에 이르러서는 사물을 연구하고 자신을 수행하는 일과 시서예악을 힘을 다하여 연구하여 영예로운 소문이 자자한 저명한 가문의 수재이었다。아 하느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운명의 길이 불길하여 일찍 서거하니 그 재능이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

또 더우기 몇차례 군사란을 겪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의 효행이 비석으로 서지 못하게 되었고 또 정려문의 포창도 받지를 못하였으나 그래도 고향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물캐는 아낙네와 꼴 베는 목동이라도 공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그리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들 공이 살던 옛집을 가리키며 도리어 가엾게 여기며 한탄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손이 된 사람들이 어찌하여 숭모의 정성이 없겠느냐?

대저 포창의 영전과 권상의 제도는 한사람이 멋대로 하는 일이 아니고 관청의 허가와 공정한 상의가 있은 연후에 공을 말하고 상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한사람의 말로 결정하면 이유도 없이 거짓으로 꾸며 죄를 지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며 공로가 있는데 밝게 드러나게 하지 못하면 그 허물이 불효죄로 돌아갈 것이다。사람의 자식이 되어 효도의 마지막은 부모를 높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니 어찌하여 태만히 할소냐? 현재 은진과 노성의 향교지를 추심하여 포상준 기록문을 절취하여 옮겨 기록하고 향리의 원로들이 말로 전해주고 손으로 지적한 곳을 귀로 듣고 기록하여 유림의 여러 선비와 동문의 여러 일가와 내외에 있는 관청동료들이 마음

과 힘을 합하여 큰 계획을 세워놓고 비문 기록을 청탁하니 나는 한 나라에 내무행정직수장으로 재임중에 효도의 정치를 첫째로 삼고 있었다。주역책에 말하길 우는 학이 하늘에 있으면 그 새끼가 화답한다는 문귀가 있어서 역사책 읽어보지 아니하여도 그 명성이 천추에 전해짐을 미리 알 수가 있었다。그러나 세상의 인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알게되는 것이 열에 여덟 아홉되는 것이다。이제 죽은 사람의 기록을 찾아 비석을 세우는 것은 선인들의 도덕을 높이 찬양하고 후학들이 거울 삼도록 가름침을 드리우는 것이니 백세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겠다。두 향교 포상문에 이르기를 병든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 백가지 약으로 치료하며옷을 벗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보호하며 그 정성을 극진하게 하였으나 효력을 얻지 못하고 점점 병세가 위독에 이르러 손가락을 끊어 피를 넣어드려 3일간 다시 사기게 하였으니 이것은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아서 거북털과 토끼뿔을 얻은 것이다。옛날 생각이 일어나 마음으로 말하고자하는 것을 입으로 다 따르지 못하여 입만 벌리고 우두커니 있을 뿐이다。이 만세의 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도한 논산군내 유림의 여러 선비와 윤씨문중의 여러 일가와 관리 여러분의 약간 성명을 비석 후면에 아울러 기록하여 그들의 성의와 노고에 치하를 하였으니 제공의 후손들도 공동으로 보호하여 초군목동들이 두드려 깨치고 부서뜨리는 걱정이 없으면 더욱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나의 조리없게 지은 글로는 선인의 아름다운 덕행과 후인들의 위대한 계획을 모두 서술하기 어려워 명문에 말하기를

몸을 받들고 뜻을 받드는 하늘이 낸 지극한 효성이 손가락을 끊어 피를 넣어 삼일간 갱생을 얻었으며 말은 삼가하고 행동은 독실하여 자신을 성립하고 명예도 드날렸다네。예절과 덕행으로 가문을 빛내었으니 그 남긴 음덕으로 후손의 경사가 백가지 복으로 포성하게 될 것이로다。

서기1991년 월 일

전내무부장관 구자춘은 삼가 지음

⑤ 孝子碑文(諱 寧遠) 忠孝公后 論山

夫孝 德之本也 教之所由生也 故孝于父母 友於兄弟之行 雖庭內修齊之事也 實被教於治平之道也 人之於倫也唯孝爲大 可謂百行之本也 這忠淸南道論山郡彩雲面花亭里 故孝子尹寧遠甫 居焉 公之鼻祖 新羅太子太師諱始榮至于高麗 五朝奉事 三爲首相 輔國安民 喬木世臣 諡忠孝公 諱桓 後裔 至于朝鮮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諱昌義之玄孫 公 西紀一八八八戊子年九月五日 出生 一九二七丁卯年一月二十一日 以四十歲 早逝 謹按傳記 公 體貌秀麗稟性溫厚 智謀卓越 操行謹愼 以齠齔之年 既知孝親 坐則

坐而食則食 出必告反必面 昏定晨省之禮 誠心勤行 及其丁年 窮理修身 詩書禮樂 盡力講究 讃譽聲聞 藉藉 名門高弟 嗚呼 天神不佑 命途不吉 短命夭逝 抱玉歸土 萬般俱亡 且尤發火累經 鼎業更遞 公之孝行 其不爲勒竪碑 又不薦褒彰旌閭焉 猶有街談巷說 以口傳口 雖採女牧夫 不知其公之名號者 未之有也 其於路上行客 皆指其公之遺墟舊家 還有憫笑 嗟嘆不已 況爲子孫者 豈無崇慕之誠乎 蓋夫褒彰之典 勸賞之制 非一人之專擅 有官許公議然後 論功行賞 可也 一言寓意 無由而虛構 罪當伏法 立功不顯過歸不孝也 凡爲人子者孝之終也 以顯父母 奈何其惓怠耶與 今玆恩津及魯城鄕校誌 推尋 褒彰文 截取移記 鄕里舊老 口講指劃 聽用記述 儒林諸賢 同門諸族 中外官署諸僚協心合力 壯圖計劃 碑銘 請託 吾 一國內務行政首長職在任中孝治爲先 易 曰鳴鶴 在陰 其子和之 文句 有 不待詠史 傳芳千秋 豫而可知也 然而世情 目濡耳染者十中八九焉 今爲銘誄竪碑 前人之遺德 顯揚 後學之鑑戒 垂教可謂百世懿德 鄕校誌褒彰文 云病母臥牀 百藥救治 衣不解帶 晝夜扶護 極盡其誠 未得其効 漸至病危 斷指注血以得三日之甦 此 至誠如神 龜毛兎角 得 感舊之懷 興起心欲言而口不逮 啞然失色而已矣 此萬世之業 奉行 主導管內儒林諸賢 尹門諸族 公人諸位 若干人姓名 碑陰 並記其誠意 勞苦 致賀 諸公之後裔 共同保護 樵童牧豎 撞碎殘缺 餘念 無 尤爲永世不朽之業矣 以吾之蕪詞亂筆 前人之懿行 後人之壯圖 盡敷難述 其銘文曰

承體養志天挺孝誠斷指注血三日得生愼言篤行立身揚名
以禮以德夫著門閥遺蔭餘慶百福褒成

西紀一九九一年十一月 日

前 內務部長官 具滋春 謹撰

◇

⑥ 효자 정려기(휘 종) 장군공후 보은

효자 증조봉대부동몽교관윤종지려

충북 보은 읍지에 이르기를 윤종의 자는 성약이요 아호는 사성와이니 효자인 병암 대형의 아들이다. 고종 26년 기축년(1889년)에 효자로 정문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으니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뒷산 능상에 있다.

⑥ 孝子旌閭記(諱 琮) 將軍公后 報恩

孝子 贈朝奉大夫童蒙敎官尹琮之閭

報恩邑誌云尹琮 字 聖若 號 思省窩 孝子屛庵大亨 子 高宗二十六年己丑 以孝命旌閭 在報恩郡水汗面弁院里後山陵上

(3) 열 녀

① 칠원윤씨 열녀포양장 대언공후 장흥군 용산

장흥에 거주하는 진사 임승한과 정인보와 유생 임우철 등이 목욕재계하고 재배하야 안렴명정하는 합하께 글을 써 올리옵니다。엎드려 생각하건대 포미정선은 국가의 성전이요。양휴숭덕은 사림의 상책입니다。혹 어두워 드러나지 않고 막혀 나타나지 않음이 있음은 횡거선생이 이른바 나타남이 때가 있고 드러남에 날을 기다린다한 것이 아마 적절한 논거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마을의 옛 통덕랑 백진의 처 공인 칠원윤씨는 관찰사 율원선생 윤조원의 딸이요 홍문관제학 창명의 손녀인데 태어나 밝고 순수하여 4、5세때부터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민첩하며 말씨가 조용하고 조심하여 이미 성인과 같더니 9세에 어머니 황씨 상을 당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릇 말과 웃음이 적고 조석제전에 반드시 참여하였으며 총명함이 출중하여 여자의 일을 한번보면 문득 알아 정묘하지 않음이 없고 문자를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소학 열녀전 같은 여러 글을 통람하지 아니함이 없고 성품이 또한 명달하여 의리에 밝고 여자의 법도를 잘 갖추었더니 백씨의 가문으로 시집감에 일을 받들고 법도를 존중하여 동서들을 받들어 대접함에 그 도리를 다하니 항상 환심을 얻고 무릇 음식과 옷으로 공친하는데 그 일을 친히 행하여 반드시 입맛에 맞고 몸에 편하게 하였으며 벼슬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이미 궁약함에 처하여 부지런하고 애씀을 몸에 익혀 편안코져 한 뜻이 없고 그 지아비의 근친을 대우함에 곡진하고 은혜로운 뜻이 있으니 향리에 칭찬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고 일은 반드시 몸소 집행하고 비록 수고로울지라도 노복으로 하여금 대신케 아니하고 백진의 병이 위태로운지 수년에 이르도록 비록 엄동설한이라도 반드시 목욕하고 하느님께 눈물로 빌었으나 수명의 한이 때가 있는지라 문득 천명을 끝마치는 아픔을 당하니 단지 두살된 외아들과 8세의 시누이가 있는지라 숨기고 참아 슬픔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죽은 이를 보내는 절차에 하나하나 친히 점검하여 겨우 성복을 지낸 뒤 종을 보내여 지관인 허별좌를 수레로 맞아와 종으로 하여금 말하기를 미망인의 소원은 한 어린 아이를 보존하는 것이니 이러한 길지를 얻어 미망인의 소원을 이룸이라 하니 지관이 그 말씀에 의거하여 네 곳을 보고와서 고하니 윤씨가 교자를 타고 친히 가서 그 풍수에 맞고 집에서 가까운 곳을 취하여 마을 남쪽 가현에 장사하고 3년이 지난후 아들을 경성본댁 윤감사 집으로 보내고 같이 보낸 편지로 그 오라비 윤민길에게 영결서를 고하대 어린 아들 숙식케 함을 부탁하고 시누이는 계고의 딸이

로되 보살피고 사랑하는 도리를 친동기보다 더욱 잘하여 그 외가 안판관 광위 집에 부탁하야 보내고 그 시아비 백민준께서 논과 노비를 나누어 아울러 부급하고 사당신주와 분묘는 노비에게 명하여 맡아서 제사지내라 하고 세상을 떴다。 무진년 5월 12일은 곧 백진의 대상을 마친 날이니 그날로부터 음식을 끊고 9일이 지난 뒤 의복을 바꿔 입었으니 그 모양이 습한 모습같이 하여 시비에게 명하여 내가 죽은 뒤에 염할때 이 의복을 고치지 말라하고 조용히 세상을 뜨니 슬프도다。 가히 슬퍼할만한 것은 그 분의 마음 상태가 아닐 것이며 경외할만한 것은 그 분의 정렬이 아니리오。 아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함은 사람의 마음일진데 거룩한 저 윤씨는 한번 죽음을 추호보다 가볍게 여기고 삼강을 만근보다 중하게 여기어 죽을 마음 속에 두 마음 갖지 아니하니 당당한 뜻을 무어라 말하리요。 아끼는 바는 신명이요 불쌍한 바는 어린 아들이로되 다만 남편이 있음을 알고 따라 죽을 뜻을 초상날에 결정하여 3년 지내기를 하루같이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이에 이르니 어찌 늠름한 여사의 행실이 아니리오。 정려포상의 여부는 윤씨의 행과 불행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도의의 공변됨과 공변되지 못함에 매인 바이니 회암부자가 이른바 강상을 부식하고 의리를 권장함은 정려로 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 감히 윤씨의 저 뛰어난 행실을 영원히 사라질 지경에 묻혀 두리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스승과 아비와 어른들의 가르침을 익히 받았고 제집사의 덕을 장려한 글을 익히 보아와 매양 감개하고 애석함이 절실하였습니다。 호남의 50주에 어찌 탁이한 행실이 없으리오마는 우리들은 실제로 같은읍의 사사로움이 아니오니 합하께서 조정으로 돌아가시는 날 윤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의를 위하며 우리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강상을 돕기 위하여 경연하는 날에 장계로 주달함을 아끼지 아니한 즉 윤씨의 정려포상은 합하의 일이며 합하의 책임입니다。 서두에 이른바 어둡고 밝음은 때가 있고 사라지고 드러남은 날을 기다린다 함은 아마 오늘을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합하께서는 관대히 살피시어 삼가 과감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조 병자년

장흥진사 임승한、정인보、유학 임우철은 글을 올립니다

◇

② 회산황씨 정려기(휘 화국의배) 대언공후 합천

황씨 부인 열녀는 회산 후인이다。 통덕랑 벼슬을 한 억조의 딸이며 영모재 칠원 윤화국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어 조금도 슬퍼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아들에게 훈계하여 예의를 갖추어 염습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리

에 누워 8일간 단식하여 남편따라 죽은 열녀이다。정조대왕 병진년(1796년)에 정려문을 짓도록 명을 내렸다。그의 아들인 재현과 며느리 신씨도 역시 효자효부로 소문이 나 있다。찬문에 말하기를

남편따라 죽기로 의중에 맹서하고도 아들에게 경계하여 장례를 준비토록 하였도다。쌀 한톨 먹지 않고 8일만에 서거하였도다。나라에 영전이 빠지지 아니하여 정려문 세우도록 하였다네。(영남 삼강록에 기재되어 있다)

② 檜山黃氏旌閭記(諱 華國配) 代言公后 陜川

孺仁烈婦 檜山黃 通德郎億祚 女 永慕齋漆原尹公華國之妻 夫死 少無哀遑之色 戒其子 備禮襲斂 因就臥絶粒八日而殉烈 正廟丙辰 命旌 子載憲婦愼氏 亦有孝名 贊 曰 從夫矢志 戒子備禮 絶粒八日 從容以逝 邦典 不欠 命旌其閭 (嶺南三綱錄)

◇

③ 청풍김씨 정려기(휘 득성의배) 충효공후 오갑

부인 청풍 김씨는 효자 득성의 아내로 품격 높은 사대부 가문에 출생하여 어린시절부터 부모의 교훈을 받들어 오륜삼강의 도리와 삼종지도의 미덕을 배우고 익혀 품행이 단정하고 정숙한 규수로 자란지라 효행이 이름난 가문에 출가해 와서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남편을 순종으로 받들어 가정이 화평하였다。그러므로 향리가 칭찬하였는데 남편의 나이 19살때에 우연히 중병을 앓아 매우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고 천지신명께 자신이 대신 아프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했으나 마침내 운명을 하는지라 홀연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지라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어찌 감당하리오 남들 모르게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 하였으나 시부모의 개유와 주위사람들의 저지로 다시 반성한 것이다。몸에 유복자를 잉태하고 있는지라 오직 아들만 낳기를 기대하였는데 딸을 분만하는지라 종가의 후사를 계승하지 못하게 됨으로 크게 절망하여 미음을 끊은지 2일후에 자결하여 남편을 따라 가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열녀라 칭송하였다。영조대왕 기간에 유림들의 추천으로 정렬의 포상을 받고 순조 을유년(1825년)에 정려문을 받았다。실은 시부모와 시숙들도 효자인지라 한 가문에 효자와 열녀가 쌍으로 나와 세개의 정려문이 세워 졌으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영원히 우리 고장에 빛이 나리라 중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고종 기유년(1909년)에 후손들이 재물을 모으고 힘을 모아 현재 위치로 옮기어 중건하고 서기 1993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③ 淸風金氏旌閭記(諱 得聖配)

夫人淸風金氏 孝子得聖 妻 品格 士大夫家門 胎生 幼

年時節 父母 教訓 五倫三綱 道理 三從之道 美德 品行 端正 貞淑 閨秀 孝行 家門 出嫁 媤父母 精誠 奉養 夫君 溫順 家庭 和平 洞里 稱讚 夫君 十九歲 偶然 重病 至極 精誠看護 天地神命 自己 代身 祈禱 終乃 殞命 忽然 妙年 青孀 臆膈 堪當 黯然 毒藥 自殺 舅姑 開諭 傍人 沮止 更醒 遺腹子 生男 企待 女兒 分娩 宗家 後嗣 絶望 米飮 二日 自訣 下從 烈女 稱頌 英祖年間 儒林 推薦 貞烈褒賞 純祖乙酉(一八二五年)旌閭 實 媤舅 媤叔 孝子 一門 雙孝烈 并出 三閭 表旌 永遠 中年 火災 燒失 高宗 己酉(一九〇九年) 後孫 財物 現位置 重建 一九九三年 重修

◇

④ 부안임씨 묘비문(휘 병갑의배) 충효공후 청양

칠원윤공 휘 병갑은 고려말에 칠원백으로 봉작되고 충효공으로 시호를 추증한 휘 환의 후손이다。 고종 병술년(1886년) 6월5일 출생하여 순종 정미년(1907년) 6월21일에 졸하니 나이가 겨우 21세였다。 배위 열부인 부안 임씨의 증조는 정대요 할아버지는 통정대부 학성이요 아버지는 노화이고 어머니는 밀양 박씨이니 천영의 딸이다。 고종 경인년(1890년) 1월 21일 출생하여 갑진년에 공에게 시집와서 시어머니 섬김에 효성을 극진히 하고 남편 받들음에 예의를 다하였었다。 남편이 병이 들자 정성을 다하지 아니한게 없었으나 남편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독약을 마시고 따라서 죽었다。 아름답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의리를 잊고 이욕을 따르건만 유일하게 이 임씨 부인은 홀로 송백같이 절개 지키며 자신의 목숨에 미련없이 곧바로 남편따라 죽어 상여를 나란히 하고 무덤까지 함께 하니 묘소는 정산 목면 구수동 안산의 동남향(건좌향)에 있다。 운산은 높고 높으며 금강은 푸르고 푸르도다。 그 후로 10여년 되어 윤일원과 윤종칠 두 사람이 종중과 상의하여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였으니 지나 다니는 사람들은 그 비를 보고 감동이 일어날 것이다。 (부인의 사적은 정산향지에 기록되어 있다)

서기 1941년 4월 30일

김해 김충은 쓰다

④ 扶安林氏墓碑文(諱 炳甲配) 忠孝公后 青陽

漆原尹公諱炳甲 麗末漆原伯諡忠孝公諱桓之后也 高廟丙戌六月五日生 純廟丁未六月二十一日 卒 年纔二十一 配烈夫人扶安林氏 曾祖 鼎大 祖 通政學成 考 魯化 妣密陽朴千餘 女 高宗庚寅正月廿日生 甲辰 歸于公 事姑 極盡其誠 奉君子 盡其禮 夫病禱天 靡不用極 及其歿也 飮毒而從焉 猗哉 載世之人 擧多忘義循利而惟夫人 獨守松

栢之節 不顧身歿而即殉 並駕同封 穴于元定山木面九水洞 案山乾之原 雲山 峩峩 錦水 蒼蒼 後十數年 尹一遠 尹鍾七 二君 議於宗族 竪碑墓徑 以誌其實 行路之人 其觀感而興起哉 (夫人事蹟載于定山誌)

辛巳四月下澣

金海 金冲書

◇

⑤ 의령남씨 정려기(휘 영희의배) 충효공후 거제

이 정려문은 의령 남씨의 정렬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렬각이다。의령 남씨는 칠원윤공 영희의 배이며 임란공신 윤홍량의 10대손부이다。부인은 칠원윤씨 가문으로 출가하여 시부모에 대한 효성과 남편에 대한 도리가 지극하였다。우연히 남편이 병들어 오래도록 신음하자 하늘에 기도하여 남편을 소생시키고 자신이 대신 병사하기 원하였지만 남편의 병세가 점차 위독하여 사경에 이르게 되자 부인은 삼종지도를 지킬 수 없음을 통탄하며 남편따라 죽기로 작심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남편은 간호한지 5일만에 사망하고 자신은 4일후에 세상을 떠났다。스무살 젊은 나이에 시집온지 3년만에 이와같은 열행이 있어 서기1888년(고종25년) 남씨 부인의 효성과 정렬을 포상하고 고종황제께서 어필로 쓴 정려각이란 액자가 하사되어 서기1889년에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죽전마을 도로변에 정문을 세웠다。

◇

⑥ 열녀 정려기(휘 상의의배정씨) 대언공후 합천

고종황제 25년 무자년(1888년) 합천군에 옛날 성균관 진사 윤상의 부인 정씨의 정려문을 세우도록 하명하였으니 효자 열녀문이라 한다。한 마을에 정려문을 쌍으로 세웠으니 지방의 빛나는 일이다。아 영지와 예천은 과연 뿌리와 근원이 있는 것일까? 또 깃털 하나만 보아도 봉황의 전체를 아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다。삼가 찾아보니 윤씨들은 칠원 지방의 명망있던 집안이다。선조시대에 칠계군 헌민공 휘 탁연은 광국공신에 책록되었고 칠평군 충장공 휘 경원은 임진왜란시에 순국하였는데 이 분들은 그 사람의 9대조와 8대조가 된다。옛 효자 자천이 군자가 됨에는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공은 성격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노력한 바는 사람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봉양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들어서는 근심을 다하고 초상에는 슬픔을 다하며 한결같이 옛날 효자가 한 것을 좇아 어버이 섬김에 시작과 끝을 다 하였다。

부인은 시부모를 잘 봉양하여 아침、저녁으로 게으름이 없었으며 남편의 죽음을 당하여는 아들과 손자들을

이미 두었으며 또 나이 늙었는데도 특별히 남편의 장례가 끝나길 기다려 9일간 쌀 한톨 먹지 않고 편안히 따라 죽었으니 이것은 책만 읽고 도의를 논하는 사람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바이나 부인은 능히 하였으니 또한 현숙하지 아니할소냐?

대저 삼강과 오륜은 하늘의 법이요。땅의 의의이며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이다。그 성공에 이르러서는 각자 처지로 인하여 비록 크고 작고 숨어있고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은 있어도 그 세대의 쇠퇴와 흥성과 풍속의 오름과 내림에 연관이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지금은 오랑캐 행동이 멋대로 횡행하고 오륜과 삼강이 멸절하는 날이 되어 서로들 퇴폐한 풍속에 빠져 도와 줄 여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 조정에서는 응당 포상할 것을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효도를 진작시킴을 보이지 아니하니 어찌 우연이라 할소냐? 대저 사람의 자식이 되고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고 감격케 할 수 있는 것을 두어 효도와 열행의 양심을 흥기 시키면 세상 교육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이니 다만 윤씨의 자손들만 사사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기술한 현판을 걸게 된 곳이 단지 후손들만 계승하고 천명하는 곳이 아니고 역시 오고가는 인사들로 하여금 이 글을 읽어보고 그 시대를 논의하여 선왕의 법률이 지금까지 남아있음을 알게 하려고 손가는 대로 자취없이 사라지지 않을 기록을 중지하지 아니하였다。효자의 후손되는 순학이 천리를 걸어와 나에게 기문을 문의할때 처음 보고도 그를 법도가 있는 집안의 좋은 선비로 알았기에 감히 늙고 병든 핑계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임술(1862년)9월 16일

월성 최익현은 기술하다

⑥ 烈女旌閭記(諱 尙義配鄭氏) 代言公后 陝川

今上二十五年戊子 命旌陝川郡故成均進士尹公尙義曁夫人鄭氏 曰孝子烈女之門 一閭雙楔 鄕邦輝映 噫 靈芝醴泉果有根源 且觀一羽而識鳳凰之全體者 其理然也 謹按尹氏漆尹望族 宣廟朝 漆溪君憲緻公卓然 策光國勳 漆坪君忠莊公慶元 殉節壬辰 是其九世若八世 子賤之爲君子 有自來矣 公 性質 純慤 其所致力 不出於人倫日用之間 養致樂 病致憂 喪致哀 一如古孝子爲者 事親之始終 盡矣 夫人 善養舅姑 夙夜無怠 及値城崩 子孫 在前 年且耆艾 特待其卒襄 絕粒食九日而從容就殉 此則讀書談道義者 所難容易而夫人 能之 不亦賢乎 盖三綱五常 天之經 地之義而民之秉彛也 至於成就 各因地頭 雖有大小微著之不同 其有關於世道之汙隆 風化之升降 一也 今當蹄跡 交横 倫綱斁絕之日 載胥及溺 不遑暇恤而朝廷 所以眷眷褒錄 不作

第二義 看者 豈偶然哉 盖欲使爲人子爲人妻者 有所嚮慕感激 興起其孝烈之良心而有補於世敎之萬一 非獨以私於尹氏之子孫而已也 然則述事揭楣 不但爲後承紹述闡明之地 亦使往來人士 讀其文論其世 有以知先王典章 尙有餘存 不隨手泯滅者 識不可已也 孝子之後淳學 千里踏跰 問記於不佞 一見 知其爲法家善士 不敢以老病辭

著雍閹茂菊秋旣望

月城 崔益鉉 記

◇

⑦ 전주이씨 정절비문(휘 병학의배) 충효공후 논산

대저 여자의 도리에 세가지 따르는 법이 있고 또 두가지 의리가 있으니 설명하면 지조를 지키는 정조와 따라 죽는 순절이다。 그러나 절개를 지키는 것은 또 서로 다른게 있으니 혹은 시부모가 살아 계시어 다른 사람이 봉양할 사람이 없으면 그 노인들의 외로움이 불쌍하여 차마 따라 죽지를 못하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혹은 어린 자식이 포대기 속에 있어 다른 사람이 키울 수 없으면 남편의 집안이 무후가 될까 걱정되어 의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옛날 유생 칠원 윤병학의 아내 이씨는 관적이 전주이고 옥계도정을 역임한 휘 현동의 후손이다。 시집온지 얼마 안되어 일본이 나라를 유린하거늘 의병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바로 융희 원년(1908년)이었다。 병학이 의병을 따라가 돌아오지 아니하니 왜적의 칼에 죽은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때에 부인은 자식도 두지를 못하고 또 시부모도 없었다。 그러하니 무엇이 불쌍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의지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리오。 남편이 무후가 되는게 염려되어 정조를 변치않고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참아가며 바느질과 절구질로 가난하게 생활을 하며 어린 조카 명원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남편이 집을 떠난 날을 제사일로 정하여 황천에서 떠도는 귀신으로 하여금 제사를 흠향하여 유감이 없게하였으니 시부모가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였다。

또 어려운 바가 있었으니 남편이 죽은 날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의리를 따라 갑자기 눈을 감는 것은 삽시간의 일로 역시 어려운 바이나 이렇게 창황한 때를 만나 후일까지 추측하여 상상하여 보고 본심을 굳세게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고고한 절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종 일생을 살았으니 이는 더욱 어려운 바이니 누구인들 감정이 일어나 의리를 일으키지 아니할 소냐? 이렇게 특이한 어려움이 자취없이 사라져 전해지지 아니하면 불가하기에 그래서 그들의 일가인 윤종태 윤병철 두 사람이 나서서 재물을 모아 장차 비석을 세워 영원한 모범으로 내리기 위하여 아들 조카 집안 사람들로 부터 출자를 시작하여 친인척과 마을까지 이르러 의연금

을 내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이에 병철씨가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니 나도 감동이 되어 의리상 글을 못 짓는다고 사양할 수 없어 졸렬하고 고루함을 잊고 감히 아름다운 업적을 가지고 대략 그 전말을 서술하였을 뿐이다。

서기 1947년 정해년

화순후인 최재익은 지음

⑦ 全州李氏貞節碑文(諱 炳鶴配) 忠孝公后 論山

夫女之道 有三從 又有二義 曰貞曰烈 而守節貞 殉節烈也 然 守節 亦有異焉 或因舅姑在堂 無他奉養之人 憐其老獨而無依 不忍殉從而守節者有焉 或因乳孤遺襁 無他收養之人 恐其夫家之無後 不能決志而守節者有焉 故士人漆原尹炳鶴 妻李氏 籍全州 玉溪都正諱賢童后也 出嫁未幾 倭寇擅國 義兵 四起 即隆熙元年丁未也 炳鶴 亦隨義兵而不返 死於倭賊之鋒 必矣 時 夫人 未及有子 又無舅姑 然則何憐何恐而不能決志也 慮其夫之無繼 不變貞操 忍飢耐寒 以針以舂 困窮生涯 率養幼姪明遠爲繼 以夫離家之日 定行忌祭 使泉台無歸之魂 享香爔而無憾焉 與有舅姑者 有乳孤者 異焉 又有所難焉 即於崩城之日 不顧有身 從容就義 溘然瞑目 事在霎時 斯亦難矣而遭此蒼黃之時 推想後事 堅持素志 不改苦節 終始一生 尤所難矣 孰不感發而起義也 使此異難之不可泯蔑而無傳故 其宗人尹鍾台 尹炳轍兩氏 發起鳩財 將欲刻銘 以垂永遠之規 自子姪宗族 出資爲始 以及姻戚鄕黨 莫不捐助焉 於是 炳轍甫 要余以記文 余亦感歎而義 不以無文 爲辭 忘拙蒙陋 敢將美績 略叙顚末云爾

檀紀四二八〇年丁亥 月 日

和順后人 崔載翊 撰

◇

⑧ 전주이씨 정려기(휘 인수의배) 충효공후 청양

효도와 열행을 겸하여 행동한 부인 전주 이씨는 바로 임영대군 구의 후손이요 원혁의 딸인데 칠원후인 윤인수의 아내이다。고종 무신년(1908년) 출생하였으며 시집가기 전부터 어버이 봉양의 정성과 아름다운 덕행이 소문이나 있었다。시집을 가서는 효성을 시부모에게 옮겨 아침 저녁의 보살피는 예절과 아침저녁 식사에 맛있는 것을 올려 정성을 다하였으며 특히 뜻을 받아드리는 일을 다하였으니 공경으로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었다。남편이 우연히 병에 걸려 3년간 밤낮으로 누워 있었는데 위독한 경지에 이르러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넣어 3일간 회생하였으나 급기야는 운명이 다하였으니 당시 나이 스무살 이었다。즉시로 따라 죽으려 하였지만 시부모를 생각하니 뫼시고 봉양할 사람이 없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시어머니 병이

위독하자 허벅지를 베어 약을 지어 여러차례 올려 효험을 보았으나 마침내 초상을 당하니 슬픔이 지나쳤었다。홀시아버지를 효도로 봉양하여 아들의 몫까지 대신하여 손수 농사짓고 길쌈하여 능히 뜻과 몸을 다하였다。시아버지가 혹 외출하여 해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면 비록 바람 불고 비 내리는 추운 날 밤이라도 반드시 등불을 잡고 먼 거리까지 마중나가 모시고 돌아왔다。이와같은 부인의 효도와 열행은 지금 세상에는 하나뿐이고 둘도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니 여기에 감화된 인륜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흠모하고 감탄하지 아니할소냐? 사림들의 공론이 자연 있게 되어 여러지방 선비들까지 포상하고 선양하자는 말이 일어나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풍속을 바로 세우고 삼강오륜을 지키려고 정려의 거사를 이제 준공하니 이 정려각이 노상에 서서 지나는 나그네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가르키게 하여 영원히 전해지게 하노라。(부인의 사적은 정산 읍지에 실려있다)

융희후 임오년(1942년) 2월 일

정산유생일동

⑧ 全州李氏旌閭記(諱 寅洙配) 忠孝公后 青陽

孝烈雙行夫人全州李氏 即臨瀛大君璆 后而元赫 女 漆原人尹寅洙之妻 生于高宗戊申 越自未笄時 養親之誠 懿德著聞 及其于歸 移孝於舅姑 晨昏定省之節 朝夕甘旨之供 靡不盡誠而尤專致於養志 敬事夫子 承順無違 其夫偶遘奇疾三年之久 晝宵臥 越至於危劇 斫指注血 因甦三日 遽盡運命 時年(値丁卯)二十 即欲下從 顧令舅姑 無他侍養 未遂其志 姑疾之劇 割股和藥 累試奏效 及其丁憂 哀毁逾制 孝養偏舅 代供子職 貧自耕織 克盡志體 舅或出他 日暮未歸 雖風雨寒雪之夜 必秉燭携傘 追至中路 持奉侍而歸 若此夫人之孝烈 當今世 可謂有一無二則化此秉彝者 孰不欽仰稱歎哉 士林之公議自在 列邑章甫爭起褒揚 表厥宅里 樹立風聲 扶植綱常 棹楔之擧 今爲竣工 烏頭赤脚 煌煌立於路上 俾爲行路者 指點 永久之傳 夫人事蹟載于定山誌

隆熙後壬午復月 日

定山 士林 一同

◇

7、제문 유사 및 상소문

(1) 제 문

① 군수공제문(휘 지임) 대언공후

유세차 병신1월 임진삭 초8일 기해에

사촌 아우인 지명은 삼가 술과 과실을 올려놓고 두번 절하고 울면서 사촌형 군수 부군의 영전에 제사를 올립니다。아 애통하도다。장수와 복록을 사람이면 누가 소원하지 아니하며 사망과 가난 또한 누가 슬퍼하지 아니

하랴。나 사촌 아우는 공의 서거에 사실상 보통 사람의 정보다 배나 슬프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저 공께서는 품성이 너그럽고 마음씀이 풍부하여 마음이 평탄하여 너그럽고 성품이 인자하고 선량하니 이래서 공께서 장수하기를 바랬으며 공의 복록을 기대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반대로 되어 일찌기 아내의 상을 당하고 아들 둘이 있었으나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 인생의 지극한 슬픔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서는 지극히 곤궁한 사람이 되었으니 누가 공보고 인자하다고 이르겠는가? 그 타고난 운명이 박복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이라 할까 귀신이라 할까? 공으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누구일까? 그래서 늘상 말하기를 하늘이 화를 내리기 이미 가혹하게 하였기에 이제는 혹시 뉘우치고 공으로 하여금 병이라도 면하여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우연히 병이 들어 고치지 못한지 몇년이더니 수일 이내에 돌아가시니 하늘이 여기에 더욱 크게 불인한 것을 두셨으니 어찌하여 그에게 재앙의 가혹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단 말인가?

아 애통하도다。공처럼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 마침내 그 복과 보답을 받지 못하고 나이 겨우 육십이 넘고 관직은 겨우 4품에 그치고 후일을 부탁할 곳은 오직 여덟 살 된 손자가 있을 뿐이니 평일에 알고있던 사람들도 역시 모두들 한탄하고 슬퍼하거늘 하물며 나는 사촌 아우이니 어떠하리요? 옛날 우리 집안의 전성시대를 생각하여 보니 집안에는 여러명 사촌들이 있어 형님까지 팔구인이 서로들 이끌고 쫓아 다녀 아침 저녁으로 단란하였으며 글자리 술자리에서 노래를 교대로 부르고 온화한 바람 밝은 달밤에 팔짱끼고 모이면 가문의 즐거움이 온화하고 즐거워 남의 성대한 씨족이 부럽지 아니하였었다。애통하도다。가문이 쇠퇴하고 복이 적어져 10몇년간을 하늘이 우리 집안만 치우친 재앙을 내려 몇몇 형님들이 계속하여 서거하였으니 모두들 장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30세도 되지 못하고 요절하였으니 이것은 더욱 인간 이치에 극도로 참혹한 일이며 하늘의 도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공께서는 특히 60세의 수를 누렸으니 여러 사촌 형제들에 비교하면 조금은 위안이 되는 바이다。아 60세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수명은 아닌데 오히려 이런 수명으로 위안을 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더욱 아프지 않으리요? 아 지난 옛날 집안에 가득찬 형제들이 과반수 줄었으니 잠깐 사이에 이미 옛날 자취가 되었도다。생각하건대 이제 와서는 단지 가물가물할 뿐이다。아 그만두자 백년의 기회를 잃었으며 만고의 결별이 임박하였도다。이 한잔 술 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성심이지만 영혼께서는 내려와 살피소서。아 애통하도다。올려드리오니 흠향하소서。

종제 지명은 지음

① 郡守公祭文(諱 志任) 代言公后

維歲次丙申正月壬辰朔初八日己亥 從父弟志溟 謹以酒果之奠 再拜哭祭于一兄郡守府君之靈曰嗚呼痛哉 壽考福祿 人孰不願 死喪窮戚 亦孰不哀 而惟余少弟 於公之逝 實有所倍常情 而於悒者也 盖以公 稟賦之腴厚 容儀之豐富 心坦而寬平 性仁而慈良 以此 望公以壽考 期公以福祿 今乃一切反是 早喪賢配 有二子 皆夭折焉 備生人之至戚 而爲天下之至窮 孰謂公之仁 而賦命之薄 一至於此耶 天乎鬼乎 使公 至此極者 誰耶 然而常謂天之降禍既酷 今或悔之 使公 得免於疾恙 而假之以遐算矣 居然一疾 沉痼積年 兩日之內 倏焉不起 天 於是 尤有所大不仁者也 豈意其禍殃之荐酷 愈往而愈甚也耶 嗚呼痛哉 以公之寬平慈良 竟不能享其福 食其報 而年纔踰六旬官纔止四品 至於後事之托 唯在八歲兒孫 凡平日相知者亦皆爲之齎杏而嗟嘆焉 況余少弟之痛 當如何哉 憶昔吾家全盛時 堂有群從氏 暨我兄八九人 提挈追逐 朝暮團欒 文場酒席 塤篪迭唱 和風郎月 聯翩相會 門闌之樂 融融陶陶不羨人盛族矣 痛矣 門衰祚簿 十數年間 天禍吾家偏酷 四五兄 相繼而逝 皆不得壽 而甚至於有不滿三十而夭 此尤人理之極慘 而天道之不可測也 唯公 獨享六旬之壽 比諸群從 稍有所慰焉 噫 六旬 固非稀世之壽 而猶以此爲慰則豈非其情之 尤可慽者也耶 嗚呼 疇昔之充堂兄弟 零落過半 轉頭之頃 已成陳迹 言念及此 只有泫然而已 嗚呼已矣百年之期 失矣 萬古之訣迫矣 一觴之奠 雖薄而耿耿寸誠靈 或有以垂鑑也 嗚呼痛哉 尙饗

從弟 志溟 撰

◇

② 관찰사공 사제문(휘 경룡) 대언공후

유세차 을축 5월임신삭 18일 기축에 국왕께서는 신하인 예조정랑 윤학보를 보내어 죽은 전감사 윤경룡의 영전에 제사를 올리도록 유시를 하시었다。생각하여 보니 혼령께서는 인품이 풍부하며 크시고 재능이 두루 넓었으며 기회를 알고 지식을 연마하여 보좌를 성심과 노력으로 하였도다。경을 알게된 시초는 금오랑 시절부터 이었지요。조정에서는 이유를 따지고 내가 성내는 것을 속으로 찬양하였지요。현명한 집안에서 급제하여 나는 선비를 얻었다고 하였다네。사간원과 홍문관에서 벼슬 시작이 되었네。이간자들 거짓말이 크게 모든 과장에 이르게 되었네。경이 이 일 집행하여 그 자취 썩지 아니하는 업이 되었도다。남쪽을 호위하고 북쪽을 도와 여러차례 지적을 하였지요。말마다 죄주지 아니한다 하면 내 마음은 곧 되돌아보게 되었다네。무엇때문에 지키기를 괴롭게하나 그 한계 뺏지 못하겠네。외직으로 살아온 날 많아서 검은 띠가 곧 가루가 났도다。끝까지 긁어대어 노래가락 서로 오르고 있다네。다시 용만으로 발탁이 되어 처음은 위배되었지만 끝에는 순응하였네。

은총이 진터까지 빛나 장년인 내가 서쪽을 막았지요。 충청감사 되어 능히 많은 업적 있었네。 잠시 장단에서 머물다가 동고로 돌아온 것은 의지를 횡요하여 자기를 도운 것이 아니라네。 친절이 비록 간절하여도 뜻으로 결정하고 힘으로 노력하였네。 승정원과 병조에서 좌천도 싫어하지 아니하였지요。 황해도 정치에는 역시 큰 소문이 있도다。 감탄으로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 쌓인 것이 많음이라。 일찌기 쓰임이 기대되어 전개됨이 있었노라。 현인측에 들어가지 못하여도 곧 중추는 된다네。 행동거지 생각하면 어린이와 노인까지 울었다네。 재능을 다 쓰지 못하였으니 나에게 슬픔을 더해주네。 슬프도다。 경의 시작과 끝은 의지가 있어 본 받을 바가 있다네。 보통 인재가 아니어서 나라에 필요한 인물로 기대되었지요。 붕당의 자리에서 초연히 스스로 이끌어 갔지요。 사람들은 모두들 위협받아도 나는 홀로 태평하다네。 영광을 사양하고 의지를 굳게 지키어 나라에 보답할 마음 길기만 하여라。 어찌하여 나이를 근심한다 할까? 왕을 위하여 모사하지 못함일세。 안주와 술을 올려 이 슬픔을 모두 표시하였노라。 현명한 사람 있거든 흠향할 지어다。

부제학 신 오수채 지어서 올리다

② 觀察使公賜祭文(諱 敬龍) 代言公后

維歲次乙丑五月壬申朔十八日己丑

國王 遣臣禮曹正郎尹學輔 諭祭于卒前監司尹敬龍之靈 惟
靈 器豐而碩 才周以博 沈機練識 輔以誠力 知卿之始 在
郎金吾 帳前詰因 汝贊密讀 明庭擢第 予曰得士 薇垣瀛啣
晉塗爰始 間者讐言 訐及全科 卿用是執 跡疎金業 南尉北
丞 載屢黜譴 匪曰罪之 予心則眷 何守之苦ㅣ艮限莫奪 居
外日多 黑綬捿屑 效殫櫛爬 氓謳互騰 再擢龍灣 始達終膺
恩煦威鎭 壯我西鑰 湖藩受委 克茂著績 乍荏于湍 旋畀東
皐 匪意橫拗 在我奚恤 敦譬雖懇 志决力兎 銀臺騎省 不
厭連蹇 西州之治 亦大有聞 嗟專不咸 欝其素蘊 尙期進庸
俾有展拓 修門未入 乃以樞北 臥轍之思 髫白兩泣 用之不
卒 增予愴悒 噫卿終始 有志可則 匪直通才 待以需國 朋
伐之囮 超然自抽 人皆劫劫 我獨優優 辭榮守確 報國心長
云胡悶年 俾不謀王 肴醴之薦 庸表悼盡 不昧者存 其庶歆
假

副提學 臣 吳遂采 製進

◇

③ 판돈녕공 사제문(휘사국) 대언공후

가경14년(1809년) 세차 기사4월 25일에 국왕은 신하인 예조좌랑 이집운을 보내어 교시하기를 죽은 판돈녕 윤사국의 영전에 제사를 올리라고 하였다。 3대왕조에서 기로소까지 들어간 한 시대에 명재상이었다。 인품이 온순하고 청아하며 재능과 지식이 모두 총명하였도다。 영조 성대에 벼슬 길에 오른 영웅이라네。 예문관

에 출입하며 과거 선출에 노력을 하였도다。 대간의 자리에 서서 표정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네。 변방으로 나가고 남으로 좌천되어 나가도 그 교시에 노하지 아니하였도다。 홍문관 예문관에서 어려운 일 해결하며 책을 끼고 관가에서 늙었다네。 마음이 대범하고 슬기롭고 문장과 글씨가 편안하였다네。 머리가 세도록 높은 벼슬하며 또 사적으로 꾸짖기도 하였다네。 서당에서는 스승이며 사헌부의 수장일세。 황해도를 잘 방어하고 강원도를 잘 다스렸도다。 내외직을 역임하며 모두 공로를 세웠다네。 선대왕께서 가상하게 여기어 재상으로 발탁을 하였지요。 마침내 크게 등용하려는데 시기하는 말이 있었다네。누가 틈을 벌리었느냐? 맑은 거울과 같아 피할 곳 없었노라。 서쪽에서 공부하였고 동쪽에서 소요를 하여 세태가 여하하던 그 진퇴는 의리로 따르고 있었다。 높은 직위와 많은 나이에도 가난한 선비같이 살았다네。 쓸쓸한 초가집 솥에 고기가 살 정도라네。 마음이 바르고 붓을 바르게 하니 안진경、유공권의 후손일세。 궁중에는 주옥 같은 글씨 남아있고 지지대고개에는 비석이 서 있지요。 나까지 감복이 되었는데 경은 이미 운명하였도다。 판돈녕 벼슬 겨우 끝내니 축하 술잔 이르게 되었지요。 영혼이여 현명하시니 이 술잔을 흠향하소서。

지제교 신위는 지어서 올리다

③ 判敎寧公賜祭文(諱 師國) 代言公后

維嘉慶十四年歲次己巳四月二十五日

國王 謹臣禮曹佐郎李集運 諭祭于卒判敎寧尹師國之靈 三朝耆獻 一代名卿 器度温雅 才識綜明 元陵盛際 釋褐蜚英 出入藝苑 掄圈力爭 植立臺端 正色不撓 北補南竄 匪怒伊教 持斧兩湖 挾冊穀邸 式膺睿簡 文契寧考 遂躋金貂 復嗶燕駱 鬢堂皐比 烏臺長席 壯鑰灣西 珥節關東 歷試內外 咸奉厥功 先王曰嘉 擢置卿月 方究大用 反致巧舌 爲誰修隙 淵鑑莫逃 優遊西樓 嘯咏東皐 勢利若浼 進退由義 崇秩劭齡 處若寒士 蕭然弊廬 有釜生魚 心正筆正 顔柳緖餘 宮留玉鏞 臺屹珉刻 逮予嗣服 卿已謝迹 敎啣纔解 禮單遄至 靈其不昧 庶歆玆觶

知製敎 申緯 製進

◇

(2) 유사

① 부사공 선정비문(휘 영하) 충효공후 칠원

창원부사 겸칠원현감 윤후영하 선정비

4년간 창원부사 역임하며 재해를 구제하고 환란을 구휼하였도다。 또 칠원 국민 다스리며 약한 사람을 구제하고 소망을 해결하여 주었도다。 묵은 버드나무에 이슬이 젖듯이 선정비가 마을에 있도다。 도원에 봄이 돌아오듯 영원토록 이웃이 되리라。

숭정기원후 네번째 경오년(1810년) 12월 일
유동주민이 비를 세우고
황종환이 짓다

① 府使公善政碑文(諱 永夏) 忠孝公后 漆原

行昌原府使兼漆原縣監尹侯永夏善政碑

四載昌府 救災恤患
再治漆民 拯弱亨志
古柳霑露 有碑在巷
源桃遍春 永世爲隣

崇禎紀元後四庚午十二月 日
柳洞 民竪碑
黃鍾煥撰

◇

② 군수공 선정비문(휘 영직) 대언공후 마산

전 군수 윤후 영직이 국민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한 공덕을 칭송하는 비

광무 칠년(1903년) 6월 15일에 세우다。이 비석의 소재지는 마산시 우산동인데 비석문은 세월이 오래 되어 이끼끼고 부식되어 글자의 점획들이 상세하지 아니하다。

② 郡守公善政碑文(諱 永稷) 代言公后 馬山

行郡守尹侯永稷愛民善政碑

光武七年六月十五日立
所在地 馬山市牛山洞碑銘歲久苔蝕字畫未詳

◇

③ 용암공송덕비문(휘 경원) 충효공후 청양

윤경원의 민생을 구제한 송덕비

공의 의술은 천심을 본 받고 덕성은 자비롭도다。동서남북 마을을 군신의 의리로 도와주었도다。소망은 오직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니 손만 대면 곧 소생을 이루었도다。입은 은덕을 이 돌에 새겨 놓으니 2천여인이 되도다。

서기 1946년 병술 봄에 세우다
소재지 청양군정산면천장리

③ 龍岩公頌德碑文(諱 慶遠) 忠孝公后 靑陽

尹公慶遠濟衆頌德碑

仁術體天心 德性也慈悲
東西南北村 佐使君臣理
志存惟濟世 着手即成春
紀恩銘于石 二千有餘人

檀君紀元四二七九年丙戌春立

④ **칠계군 유적비명** 대언공후 합천

합천의 묘산 지방은 칠원윤씨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이곳에 병윤씨와 응도씨가 있는데 그들은 선조되는 중호선생 휘 탁연공을 위하여 유적비를 그 마을에 세우려고 일가되는 철순군과 더불어 유서집과 족보등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비문 짓는 것을 부탁하였다。 중호선생공은 일찌기 도산서원에서 수학을 하였으므로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가 없었다。 삼가 공을 살펴보니 자는 상중이요、 중호란 자신이 지은 아호이다 그리고 그의 선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라에 귀족이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재상인물이 있었으며 연산군 조정에 이르러 홍문관 직제학 벼슬을 한 휘 석보가 있었는데 정직하게 간언을 한 이유로 귀양가 강음땅에서 졸하였으니 이분은 공에게 증조부가 되고 할아버지는 내섬시 판관을 역임한 휘 문형이요、 아버지는 우봉현감을 역임한 휘 이요、 외할아버지는 성균관 생원 벼슬을 한 안동 김능선이다。 공은 중종 무술년(1538년) 5월 15일 충청도 청주 정안리 사저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지혜로워 겨우 말을 배우면서 곧 문자를 알아 꾸짖고 독려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와 문장을 짓는 능력이 날로 발전하여 세상에 신동이라고 칭찬하였다。 성장하여는 명망의 소문이 날로 빛나 아계 이산해와 고죽 최경창들과 더불어 팔대문장이라는 칭찬이 있었다。 무오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을축년에 알성급제하여 홍문관에서 춘추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잠시후에 승정원주서가 되었다。 명종대왕이 병들어 크게 위독하여 유언서를 쓰게 되어 영의정이 공을 불러들여 쓰도록 하였는데 공은 덕홍대군 세째아들인지라 삼자를 일반삼자로 쓰지 않고 갖은 삼자로 써서 그 두루 민첩한 점을 칭찬받게 되었다。 무진년에는 성균관전적과 사간원정언과 형조좌랑을 역임하고 천추사서장관으로 가서 종계의 원통한 것을 변명하여 한 시대의 선량한 극치를 이루었다。 돌아와서는 사헌부지평으로 임명되었다。 일찌기 경연관 강의중에 사건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으며 말하기를 이런일은 진나라 간문공도 하지 아니한 바라하니 왕이 큰소리로 말하며 네가 어찌 나를 간문공에 비교하느냐? 공은 서서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과실을 고치면 요순임금 되시고 고치지 아니하면 걸주왕이 되는 것이니 어찌 간문공 뿐이겠습니까? 왕이 대단히 진노하였는데 정승인 홍진의 해명에 힘입어 사건의 중지를 얻게 되었다。 장령으로 승진되어 홍문관교리로 전근하고 내섬종부시첨정 의정부검상사인으로 전근하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부장으로 교체되었다。 을해년에는 동래부사로 발탁이 되었다。 병자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상을 당하여 상기가 끝난후에는

상주목사가 되었다。 안과 밖으로 칭찬을 받아 주민들이 떠난후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다。 경진년에는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를 제수받고 춘당대문관시협에서 장원을 하여 가선대부계급으로 선발되고 좌승지에서 도승지로 승진하였으며 예조참찬으로 전근을 하였는데 때마침 영남지방에 왕의 혜택이 크게 없다고 하여 공을 경상관찰사로 특별히 제수하여 남쪽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입게 되었다。 예조로 교체되었고 또 지신으로 전근하고 곧이어 겸동지춘추승문원제조가 되었으며 얼마후에는 한성판윤을 제수받고 또다시 세차례 형조판서가 되고 두차례 탁지부를 거느렸으니 직무중에 어려움과 관리하기 어려운것을 이 세가지 책임보다 더하는 것이 없는데 모두 처리하기를 너그럽게 하여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은 문장을 잘하는 것뿐이 아니었다。 경인년에는 광국훈로3등으로 책봉되어 정헌대부계급으로 승진되어 칠계군에 책봉되며 비국유사당상을 수여하였다。 임진년에는 일본 오랑캐들이 침입하여 왕이 의주로 피난나가며 임해군을 데리고 가라는 명을 받았으며 북방으로 가는 도중에 검찰사를 제수받았다。 이때는 왜적이 이미 함흥에 가까이 침입하여 군인과 국민들이 모두 짐승같이 달아나 걸어서 북쪽으로 들어가보니 국민들이 거의가 왜적에 붙어있어 공은 빨리 의주의 임금에게 알리고 남아있는 군인을 불러 모아 나라를 찾을 계획을 하였으므로 도순찰사에 특명을 받았다。 공은 눈물을 흘리며 교지를 선포하니 그 의로운 소문이 이르는 곳이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호응되어 즉시로 적군을 함흥에서 물리치고 홍천에서 크게 승리하며 후방에서도 안변까지 격퇴시키었다。 전후의 승전소식이 팔도에서 최고가 되었다。 그전에 아들인 경원을 파견시켜 의주의 임금님 계신곳으로 달려가게 하며 간찰에 말하기를 나라의 적군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수치를 설욕하지 못할 것이다。 진지에는 하란이는 많아도 군막에는 제갈량이 없는구나。 대대로 나라에 은총을 받았으니 어떠한 일로 보답할꼬 죽는것 밖에 없으니 맹서코 구차하게 살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 외로운 성을 지켜온지 현재 40일이 되었음을 해와 별들이 내려다 보고 귀신이 옆에서 증명하고 있으니 인을 이루고 의를 이루리라。 공자도 말씀하시고 맹자도 말씀하시었다。 내뜻에 찬성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찬성날인을 하라。 죽기를 맹서하면 나라에 보답한 마음을 귀신이 증명할 수 있으니 의심하지 말라。 왕께서 공이 바람맞고 눈맞으며 거리에 있는 것이 염려되어 양가죽옷을 하사하니 즉시로 답장편지를 올려 사례하기를 지극히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였다。 청백하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넓고 공정하고 분명하여 흩어져 있는 것들을 수습하여 피해당한 것을 복구하고 폐악을 버리고 국민에게 밥을 먹이고 적군을 제압하여 북녘지역 국민들이 오직 다른곳으로 전근갈까 두려워 상소를 올려 계속 유임하여 있기를 청원하였다。 그러나 공이 북

녘에 있은지 3년이 되었으며 그리고 전쟁이 장구하여 근심하고 애쓰고 피로하고 야위여 전염병에 걸려 갑오년 5월 28일에 군중에서 순직하니 나이가 57세이다. 경기도 광주선영에 장례를 하고 시호를 헌민공으로 추증받았다.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경원이 장자이며 호조좌랑 벼슬을 하였는데 임진왜란시에 순국하여 훈신으로 책록되고 좌승지를 추증받았다. 차자는 길원이니 문과에 급제하고 예문관 검열 벼슬을 하였다. 좌랑 경원이 아들 넷을 두었으니 장자 계기는 한성판관 벼슬을 하여 그로 인하여 경기도 광주에서 살게 되었고 둘째 태기는 선교랑 벼슬을 하고 판관의 양자로 나가 최초로 합천에 살곳을 정하였으니 여기는 공의 하사받은 장군의 신표와 칼을 서장한 곳이다. 현재 병윤씨는 검열공의 후손이요 철수는 판관공의 제사를 올리는 주손이다. 명문에 말하기를

공의 옷속에 보배로운 64개의 격언이 있으니 글자마다 충직하고 간절하여 나라에 혼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비석에 새겨 가히 명문이 되면 귀신도 흐느껴 울고 해와 별같이 밝고 빛나리라. 이곳 합천땅은 한국의 명소이며 산림이 고요하고 무성한 곳이라네. 공은 옛날부터 명성이 퍼져있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지요. 10대손이 계승되고 번성하여 능히 선조의 유훈을 계승하고 문화와 사업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네. 북으로 남한산성 바라보면 소나무 가래나무들 울창하여 효도하는 생각 그치지 아니하네 봄이슬 가을서리에 초상화 뫼신곳 우뚝솟아 엄연히 강림하신듯 하구나. 이제 비석을 다듬어 내 명문을 깊이 새겼도다. 국난을 평정시켜 나라를 빛내니 공로는 높고 충성심 붉도다. 산이 평탄해져서 바다에 이어질때까지 더불어 끝이 없으리라.

문학박사 진성 이가원은 삼가 짓고
안동 김응현은 삼가 쓰다
서기 1986년 병인 10월 일 세우다

④ 漆溪君遺蹟碑銘

陜川之妙山 漆原尹氏之世居也 玆有炳允應道甫 爲其先祖重湖先生卓然公 豎遺蹟碑於其里 與宗人哲洙 齎遺集暨家譜 責余爲之銘 公 甞承學陶山 義不敢辭焉 謹按公 字 尙中 重湖 自號 而溯厥先葉 一國華冑 自麗迄韓 遙遙相望 至燕山朝 有弘文館直提學碩輔 以直諫 謫卒江陰 是於公爲曾考 王考 內贍寺判官文亨 皇考 牛峯縣令伊 外王考 成均生員安東金胤先 公 以中宗戊戌五月十五日 生於淸州之靜安里第 幼而靈慧 纔學語 便知文字 不俟呵暫而藻思日進 世稱奇童 及長 華聞日暢 與李鵝溪山海 崔孤竹慶昌之輩 有八文章之稱 戊午 中司馬 乙丑 登謁聖科 由槐院入史局 俄拜承政院注書 明宗疾 大漸 宣末命 首相 拓公書之 公 書德興君第參子 不三而參 一時 稱其周敏焉 戊辰 歷成均館典籍 司諫院正言 刑曹佐郎 以千秋使書狀官如明 盖以宗系辨誣 極一代之選 洎還拜司憲府持平 甞於

筵中 因事格非 曰此 晉簡文之所不爲也 王 厲聲曰 爾何
比予於簡文 公 徐對曰改過則爲堯舜 否則爲桀紂 豈特簡
文而已 王 怒甚 賴洪相暹 力解事得已 陞掌令 移弘文館
校理 轉內贍宗簿寺僉正 議政府檢詳舍人 迭爲亞長於兩司
乙亥 擢東萊府使 丙子 丁內外艱 制除 爲尙州牧使 蒙表
裏之褒 民竪去思之碑 庚辰 連拜同副左副承旨 魁春塘臺
文官試 擢嘉善階 以左承旨 陞都承旨 轉禮曹參判 時 嶺
南 大無王器 公 特除觀察使 南士 賴以蘇完 遞拜南宮 又
移知中 仍兼同知春秋承文提調 無何 除漢城判尹 復三判
秋曹 再領度支 職務之劇而難理者 莫逾於此三任 而皆處
之 恢恢 人 稱其才諝 不第 長於詞翰也 庚寅 策光國勳三
等 陞正憲 封漆溪君 特授備局有司堂上 壬辰 島夷 入寇
王西播 命陪臨海君 而北途拜檢察使 時 賊已逼咸關 軍民
皆鳥獸竄行 入北邊 民多附賊 公 馳聞行在 召募殘卒 爲
復疆計 特拜都巡察使 公 灑泣宣敎 義聲所曁 遠近 響應
却賊於咸興 大捷於洪原 尾擊於安邊 前後捷報 爲最於諸
道矣 先是 遣其子慶元 赴行在 寄以簡札曰國賊 未討 國
恥未雪 藩多賀蘭 幕無諸葛 世受國恩 報以何物 祇有一死
矢不苟活 獨守孤城 今四十日 日星 下臨 鬼神 傍質 成仁
就義 孔曰孟曰 吾意有賛 汝背當涅 矢死報國之衷 可以質
神無疑也 王 念其風雪載途 錫之羊裘 則上箋以謝 辭極眞
懇清悲 寬弘公明 收拾散亡 蘇殘袪弊 粒民制敵 北道士民
恐其爪遞 上疏請留之 然 公 在北三載 蓋久于風塵矣 憂
勤勞瘁 癘鬼乘之 至甲午五月二十八日 殉于旅次 春秋 五
十有七 歸葬于廣州之先兆 贈諡 憲敏 有子五人 慶元 居
其長 官戶曹佐郎 壬亂殉國 錄勳贈左承旨 其次 吉元 文
科 藝文館檢閱佐郎 子 四人 長啓基 漢城判官 仍居于廣
次泰基 宣敎郎 出爲判官後 始奠居于陜 蓋以公 節鉞之所
憩也 今炳允 出於檢閱 哲洙 主判官祀者也 銘曰 公有簡
札 六十四言 字字忠懇 喚起國魂 勒之于石 可以爲銘 幽
泣神界 昭曜日星 維玆陜州 濱海名疆 園林悄蒨 公昔播
芳 慈孫居之 十世綿衍 克遵祖謨 文物粲然 北望漢山 松
楸鬱蒼 孝思靡歇 春露秋霜 影堂斯屹 儼其若臨 載琢穹
石 我銘雕深 定難光國 巍勳丹忠 山夷海嬗與之無窮

文學博士 眞城 李 家 源 謹撰

安東 金 應 顯 謹書

檀君紀元 四千三百十九年 丙寅十月 日立

◇

⑤중호선생 영당기(칠계군 휘 탁연) 대언공후 합천

칠원윤씨는 국내에서 유명한 씨족이다. 그들의 선조 중에 다섯분 선생이 계시어 홍포서원에서 함께 제사를 올린다. 헌민공 아호는 중호이며 휘는 탁연이고 자는 상중이니 역시 그중에 일인이다. 공은 청백리 지퇴당의 집에서 태어나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여 문장가로 당시에 명성이 알려져 있었다. 일찌기 젊은 나이로 벼슬길에 올라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고 왕실을 설욕한 공로로 광국공신에 책봉되고 칠계군으로 봉해졌다.

옛날부터 영정 즉 초상화가 있어서 서원에 봉안하고 있었는데 고종무진(1868년)년에 서원이 국가의 명령으로 훼철당하게 되어 이 초상화를 모실 곳이 없어졌다。9대손 되는 식의가 이를 슬프고 애통해 하며 선산아래 관산재로 나가 그 벽합에 안치하여 놓고 아우되는 병의와 진사 상의와 더불어 상의하여 말하기를 서원은 비록 훼철당하였으나 초상화는 지금까지 보전되어 있으니 자손된 사람으로 어떻게 차마 모시지 아니할소냐? 이때에 병의공이 그 조카되는 영상과 더불어 즉시로 상포계내리로 달려가 초상화를 모시고 돌아와 9월 9일 다례행사에 모셔온지 이제 백년이 되었다。그이후로 세상의 변화가 더욱 심하여 재사까지 여러번 군사변란을 입어 곧 기울어지고 퇴락하는 근심까지 있게되어 후손중에 병수가 여러차례 종회의를 열어 중건발의를 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무신년(1968년)봄에 진사공파와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삼칸 영당을 짓게 되었으니 그 자리는 동산의 남장곡 아래이었다。병수는 말하기를 나는 오늘 이후로는 가히 근심이 없게 되었다며 마침내 관산재를 강당으로 준비하였다。통덕랑공파 여러 일가들이 서로 더불어 수리하고 보수하여 몇일이 걸리지 않고 완성이 되어 이에 백년의 편안한 장소로 환연히 일신되었다。

곰곰히 생각하여보니 9년전 병진년에(1976년) 수원과 순원이 그일로 나를 찾아와 기문을 부탁하여 나는 사양을 못하고 그 시말을 이와같이 대략 기술하였으며 또 고하여 말하기를 일은 시작이 어려운게 아니고 성공이 어려운 것이며 성공이 어려운게 아니고 계승하는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다。현재 윤씨는 그 시작이 이루워 졌으니 후일 사람들이 장차 어느 방법으로 계승할지 알수가 없다。대저 부조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감히 게을리 아니하고 감히 잊지 아니할 뿐이다。진실로 이 도를 따라주면 선조의 혼령이 반드시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며 후손이 날로 땅에서 창성하여 이 영당이 완고하게 됨을 역시 가히 끝없이 기대가 될 것이니 어찌 서로 더불어 권면하고 돕지 아니할소냐?

병진년(1976년)9월 9일에

성산 이헌주는 기록하다

⑤ 重湖先生影堂記(漆溪君諱卓然) 代言公后 陝川

漆原之尹氏 爲國中著族 其先 有五先生 並享于鴻浦書院 若憲敏公號重湖諱卓然字尙中 亦其一也 公 生淸白吏止退堂之世 而遊退陶先生之門 以文章 知名當世 早歲登科 官至戶曹判書 以雪宗系勳 策光國功臣封漆溪君 舊有眞影 奉于書院 至高宗戊辰 書院 見撤於邦令 則眞影亦無所於寓 九世孫植義 爲是慨痛 就先塋下冠山齋 而置其壁龕 與弟柄義 進士尙義 謀曰院雖撤矣 眞影尙存 爲子孫者 何忍不奉乎 於是 柄義公 與其姪永相 即赴上浦溪內 奉眞影而還 用重九日歲修茶禮者 百年于玆矣 厥後 世變益甚 齋舍

累被兵燹 頗有傾頹之患 則後孫炳守 屢開宗會 發議重建 而因循未果 戊申春 自進士公派 合謀併力 建三架之堂於 所居東山之南長谷之下 炳守曰吾 今而後 可以無憂 遂許 冠山齋 以備講堂 通德郎派諸宗 相與修葺 不日而完 於是 百年妥享之所 奐然一新矣 粤九年丙辰 守遠與順遠 以其 事 來余請記 余辭不獲 則略記其顚末如此 且告之曰事非 始之難 而成之爲難 非成之難 而繼之爲難 今尹氏 其始而 成之矣 未知後之人 將何道而繼之 蓋惟以父祖之心 爲心 不敢惰不敢忘而已 苟循此道也 先靈 必悅豫於上 後祉 日 昌盛於下而斯堂之鞏固 亦可期於無窮矣 盍相與勉勗哉

丙辰菊秋節　星山　李憲柱　記

◇

⑥ 첨정공 표도비문(휘 영상) 충효공후 거제

삼가 선조대왕시의 공신록을 살펴보면 일등공신 진위장군행훈련원첨정인 윤공의 휘는 영상이며 관적은 칠원이다。 선략장군훈련원첨정인 다계공 휘 승보의 장남이며 행청송부사인 휘 말형의 손자이다。 임진년(1592년) 변란을 만나 군사진지가 위급하다는 소문을 듣고 칼을 잡고 의리를 도우려 하는데 때마침 현령인 김준민이 영남 관찰사인 김성일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후원하였지만 공의 아버지는 홀로 성을 지키며 아우인 개보와 차자인 홍량에게 사방 해변을 살피게 하여 적군이 있어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였다。 장목 옥포 지세포로부터 적군이 산야를 덮어 오면서 부락에 불을 지르고 백성을 살해하자 군사들이 달아나고 흩어짐이 새와 짐승들 보다 빨랐는데 다계공은 홀로 몸을 던져 전쟁에 나가 수백명 적을 사살하고 포로를 생포하여 항복을 받으려 하였지만 욕설하는 적군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혀를 깨물고 머리를 지쩌 죽었다。

공은 이때에 완영에 있었는데 꿈으로 인하여 급히 돌아오니 아버지는 과연 싸우다가 돌아가시어 삼촌과 아우들과 더불어 시체를 거두어 염습하여 성밖에다 장사를 지내었다。 그리고 마을 장사인 신응수와 김희진과 더불어 마침내 결의하여 말하기를 다만 같은 해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한다며 남여산 굴속에 숨어 원수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며 적군의 동정을 관망하고 있으니 적군들은 군졸을 위안하기 위하여 소를 잡고 술을 먹여 밤중에 취하여 졸고 있거늘 공은 솥 뚜껑에 불을 담아 적군의 진중에 던져 불이 화약으로 옮겨 붙어 터지니 죽은 사람이 수천명이었다。 승리를 틈타 북으로 쫓아내니 적군들은 급하여 뒤돌아 칼을 던져 공의 발에 맞았으나 마침내 칼을 뽑아 적군을 참살하였다。 그 칼이 아직도 신응수 집안에 전해진다。

공은 삼촌과 아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국가의 적을 토벌하지 아니하면 안되며 아버지의 원수를 보복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며 마침내 거제도를 지키려 하였으나 사실대로 성사하기 어려워 직접 충무공 이순신 휘하에

보고하니 만나보고 공을 기이하게 여기어 더불어 군사를 모의하여 전쟁마다 여러차례 승리하였으며 한산도에 이르러 배를 위장하여 짚을 싣고 적군의 배에 불을 지르니 적군들이 도망가려 할 때 개미 목 자르듯 하였다는 곳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충무공이 장엄하게 여기어 임금에게 글을 올려 아버지도 벼슬을 주고 삼촌과 아우에게도 훈장을 하사하였다。

한산도 군대망루에 오르면 이원수가 지은 시에 말하기를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들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들이 알도다。이 난리에 칼 휘두름은 나라를 도와 위급한 때를 구제하는 것이라하니 공이 화답으로 남여산 암굴속의 깊은 모사 세상은 모르리라。칼 휘둘러 많은 적군 죽이고 맹세코 태평시대 보리라 하였다。신공과 김공의 시도 다같이 실록에 기재되어 있다。

남해바다에 이르러 풍우속에 여러차례 싸우다가 충무공이 전사하자 이 세 장사들은 칼을 만지며 통곡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이미 죽었으니 우리들은 어찌 살소냐하고 발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가 유탄에 맞아 죽게 되었다。임진창의록과 착량교묘문이 족히 믿을 수 있는 사료가 되고 있다。

묘소는 다공소천등에 있으니 바로 윤씨들이 대대로 장례한 묘역이다。부자형제가 충훈사에 함께 봉향되어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나는 선비의 후배로 이 어려운 일을 억지로 책임지게 되어 함부로 멋대로 썼으니 어찌 말이 잘 되었으리오?

명문에 이르기를

제갈양은 이르기를 아들을 두고 손자를 둔다고 하였으며 장순과 허원은 이르기를 한 몸은 충성의 혼이라 하였도다。그 의열의 풍속이 지금까지 늠름하오니 이것은 곧 옛부터 생장한 것이로다。

을축년 4월 일

경주후인 최영제는 삼가짓고

후손 창원은 삼가 쓰다

⑥ 僉正公表塗碑文(諱 榮祥) 忠孝公后 巨濟

謹按 宣廟功臣錄 宣武一等功臣振威將軍行訓鍊院僉正尹公諱榮祥 貫 漆原 宣略將軍訓鍊院僉正茶溪公諱承輔 長男 行青松府使諱抹亨 孫 値龍蛇之變 聞完營危急 杖劍扶義 時 縣令金俊民 嶺伯金粹之至親 引兵赴援 父公 獨守城 令弟玠輔 次子興良 分伺四濱 有寇不虞 自長木 玉浦知世浦 蔽山野而來 燒村落 殺人民 士卒走散 不啻若鳥獸 茶溪公 獨挺身出戰所擊 殺數十百 爲虜所擒 欲受勒降 罵賊不屈 嚼舌碎首而死 公 時 在完營 因夢事急還 父公 果殉節 與叔與弟 收殮公屍 稾葬城外 與同鄉壯士辛公應壽金公希璡 遂結誼 曰但願同年同日死 隱於南呂山石窟 臥薪嘗膽 觀寇動情 彼屯於河清境上 牛酒犒軍 夜深 醉睡 公 以鼎盖盛火 投彼營落 火及藥苞 死者數千 乘勝逐北

彼弁 翻劒擲之 中公足指 遂奪劒斬賊 劒尙在焉 公顧謂叔與弟曰國賊 不可不討 父讐 不可不報 竟守孤城 事固難成 自白於忠武公李舜臣麾下 見而異之 與謀軍事 連戰累捷 至閑山 裝船載稾 燒敵船 彼欲逃走 而鑿斷蟻項 戰處尙存 忠武公 壯之 拜表于 上 貤父公之秩 及叔與弟 蒙賜勳帖 登閑山戍樓 元帥賦詩曰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風塵 揮一劍 輔國濟危時 公 和曰南呂山巖裏 深圖世不知 揮刀多殺賊 誓見太平時 辛金二公 詩 俱在實錄 至南海洋百戰風雨 忠武公 戰亡 三壯士 撫劒痛哭曰知己已死 我何生爲 不旋踪而殊死戰 中流丸而死 壬辰倡義錄 鑿梁橋廟文 足爲信史 墓 茶貢小川嶝 乃尹之阡也 父子兄弟 同享于忠勳祠 行舍菜禮 余 從士林之後 難孤强責 冒抽濫筆 豈能言哉 銘曰 諸葛孔明 可謂有子有孫 張巡 許遠 可謂一體 忠魂義烈之風 至今凜凜 此直古生長

旃蒙赤奮若乙丑 四月 日

月城 崔榮徲 謹撰

後孫 昶遠 謹書

◇

⑦ 송강공 세적비문(휘 정국) 대언공후 합천

칠원윤씨는 우리나라의 명망 높은 씨족이다。 건릉연간에(1777년에서 1800년) 휘 정국이요 아호 송강이 있었으니 공은 본래 경기도 광주에서 경상북도 취산으로 이사하였는데 격세의 재능인이며 경륜의 의지로 운림에 은거하며 성리학을 바로 잡아 세상에서는 운림처사라고 호칭하였다。 신라시대에 태자태사이며 휘 시영은 시조가 되고 휘 황은 태사국판사이다。 몇대를 지나와 휘 거부는 고려시대에 칠원백이며 휘 형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복야이고 휘 홍중은 정당문학이고 휘 적은 무양후에 봉해지고 문경으로 시호를 추중받았으며 휘 명도는 구령부원군에 봉해지고 충경 시호를 추중받았으며 휘 계는 문과에 급제하여 좌사보이고 휘 원강은 금자광록대부무안군이고 휘 유는 무창백에 봉해지고 익량 시호를 추중받았으며 휘 운경은 칠제군에 봉해지고 안혜 시호를 받았으며 휘 박은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에 오르고 휘 세득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이 되었으며 휘 을부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가 되었으며 휘 흘은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가 되었고 휘 송제는 은청광록대부참지정사이며 휘 양삼은 광록경우찬선이고 휘 수는 군부판서이고 휘 길보는 수성직량공신으로 구성군에 봉해지고 시호를 충의로 추중받았으며 휘 자는 우부대언이고 휘 천이는 대전낭장이었다。

휘 참은 조선 태조시대 전설서승이요 휘 사는 생원에서 집의를 추중받았으며 휘 석보는 홍문관직제학에서 이조참판을 추중받았으며 휘 문형은 판관에서 이조판서를 추중받았으며 휘 이는 통훈대부사온서령에서 순충보조공신대광보국영의정세자사구원부원군을 추중받았으며 휘 탁연은 호는 중호이고 수충익모광국공신칠계군에

서 헌민공을 추증받았으니 퇴계 선생을 사사 하였으며 휘 길원은 예문관검열이고 휘 태기는 진사에서 선교랑이 되었고 휘 명우는 진사에서 형조정랑이 되었고 휘 상적은 진사이고 휘덕춘은 진사이고 휘 경윤은 진사이니 이 분이 송강처사를 낳았다。 처사가 1남을 두었으니 휘는 재원이고 아호는 정헌이다。 재원이 2남을 두었으니 순의와 상의이니 상의의 아호는 청계이며 효행이 있었고 순의는 2남을 두었으니 영조와 영현이며 상의가 사남을 두었으니 영진과 영문과 문억과 영도인데 영억의 아호는 매산이며 영릉참봉이다。 영도의 아호는 화산이니 공명을 사양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나라를 깊이 걱정하여 기유년(1909년) 경술년(1910년) 한일합역로에서 상소를 올리었고 왕이 남방을 순찰할때 방의 치욕에 분노하다 병이 들어 졸하였으며 영조가 1남을 두었으니 주학이고 영현이 형제를 두었으니 치학과 순학이다。 영진이 형제를 두었으니 시학과 우학이고 영문의 양자는 상학이며 영억이 형제를 두었으니 상학과 의학인데 상학이는 출계하였고 영도가 일남을 두었으니 성학이다。 주학이 4형제를 두었으니 병윤과 병열과 병일과 병규인데 병일이는 순학에게로 양자 갔다。 시학이 1남을 두었으니 병수요 우학이 1남을 두었으니 병모요 상학이 4형제를 두었으니 병호와 병한과 병천과 병찬이다。 의학이 3형제를 두었으니 병무와 병경과 병정이다。 성학이 3형제를 두었으니 병회와 병철과 병기이다。 성학이 그 대를 이어 사업에 노력하야 자기의 선세조 업적을 곧 송강공 묘소 마당에 비석을 세우면서 나에게 비문과 세계를 요청하였다。 나는 비록 재주가 적고 식견이 얕지만 그의 선조들 직계들이 문과 무과에서 장원을 한 것과 충신과 효자들의 현명하고 뛰어난 것을 보니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감히 사양도 못하겠기에 삼가 우측과 같이 써놓고 명문에 이르기를

높은 저 위대한 업적은 해와 달같이 빛나도다。 충신과 효자와 의사와 열사들이 무과에 빛나고 문과에 번창하였네。 비석에 새겨놓고 역사에 기록되도다。 수많은 후손들 대대로 영원히 빛나리라。

대한민국 39년(1957년)정유년 1월15일

진성 이중계는 지음

⑦ 松崗公世蹟碑文(諱 禎國) 代言公后 陜川

漆原尹氏 東土望族也 健陵年間 有諱禎國號松崗 公 始自京畿廣州 移居嶺左鷲山 以間世之才 經綸之志 隱居雲林典提理學 世稱雲林處士 新羅太子太師諱始榮 始祖 諱璜判太史局事 歷數世 諱鉅富 高麗漆原伯 諱瑩 文左僕射諱弘中 政堂文學 諱勳 武陽侯謚文敬 諱鳴道 龜寧府院君謚忠敬 諱啓 文左思輔 諱元綱 金紫光祿大夫武安君 諱蕤武昌伯謚翼亮 諱殷卿 漆堤君謚安惠 諱博 文檢校 諱世得文持平 諱乙富 文吏部尙書 諱仡 文檢校 諱松磾 銀靑光

祿大夫僉知政事 諱養三 光祿卿右贊善 諱秀 軍簿判書 諱吉甫 輸誠直亮功臣龜城君諡忠義 諱櫶 右副代言 諱天怡 大殿郎將 諱參 我 太祖典設署丞 諱思 生員 贈執議 諱碩輔 弘文館直提學 贈吏叅 諱文亨 判官 贈吏判 諱伊 通訓大夫司醞署令 贈純忠補祚功臣大匡輔國領議政世子師龜原府院君 諱卓然 號 重湖 輸忠翼謨光國功臣漆溪君諡憲敏 從退陶夫子學 諱吉元 藝文舘檢閲 諱泰基 進士宣敎郎 諱遇明 進士刑曹正郎 諱相續 進士 諱德春 進士 諱敬胤 進士 是生松崗處士 處士生一男 諱 載源 號 靜軒 載源生二男 淳義 詳義 號 淸溪 有孝行 淳義 生二男 永祚 永賢 詳義 生四男 永振 永文 文億 永道 永億 號 梅山 洪陵叅奉 永道 號 華山 謝功令 好易學 憂深君國 己酉南巡驛路陳疏 庚戌之變 憤極成疾以終 永祚 生一男 周學 永賢 生二男 致學 淳學 永振 生二男 時學 祐學 永文 系男祥學 永億 生二男 祥學 義學 祥學 出 永道 生一男 晟學 周學 生四男 炳律 炳烈 炳日 炳奎 炳日 系淳學后 時學 生一男 炳秀 祐學 生一男 炳模 祥學 生四男 炳顥 炳翰 炳天 炳贊 義學 生三男 炳戊 炳庚 炳丁 晟學 生三男 炳曦 炳哲 炳騏也 晟學 力於繼述 以其世蹟 將竪碑於松崗公墓庭 請余爲文世契也 余雖薄才淺識 觀其先世直系文武科甲 忠孝賢英之淵源則不敢承不敢辭故 謹書如右 爲銘曰

卓彼偉蹟 日月輝煌 忠孝義烈 武爀文昌 刻于貞珉 史竹蒼蒼 麗萬雲孫 世世永光

大韓民國三十九年丁酉上元節

眞城　李中啓　撰

◇

⑧ 돈본계서(휘 사국)

우리 칠원윤씨는 시조이신 태사공에서 그 이하까지 여러세대 묘소들이 모두 칠원에 있어 서울과 천리나 떨어져 있다。 자손들이 수시로 성묘를 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마다 봄과 가을이면 두려웁고 슬퍼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 선조의 추모심에 편안하지 못하였다。 사국이는 다행이 국가의 혜택을 입어 분수에 넘치게 경상도지방관장이 되어 처음으로 선조묘소에 제사를 올리게되어 조금이나마 정성과 예의를 펼 수가 있어 묘소주위를 둘러보고 소나무들을 어루만져보니 감개스러워 근원을 찾고 뿌리를 북돋을 감정이 들어 즉시로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선조묘소를 수호할 절차를 완만히 상의하였고 나의 월급받은 여분으로 엽전 삼백량을 모아 우선 위토부터 만들어 제사올릴 자산으로 만들었고, 여러 일가들도 역시 각자들 곡식을 내놓아 약간이 되어 계을 결성하고 이름을 돈본이라 하였다。 그전부터 말하기를 수달같은 인물도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도리인 어버이를 친히하고 조상을 존경하여 그 근본이 나오게 된 것을 추측하면 더욱 오래될 수록 더욱 감히 잊지 아니하여야 한다고나 할까? 오직

묘소들은 세대가 멀어진다 하여도 동일한 혈기가 유통되어 진실로 간격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니 우리 여러 후손들은 노력을 다 할 수있고 그리고 선조에게 정을 쓸수 있는것은 오직 제사와 수호하는 두가지 일이 있으니 이것이 돈본계를 만들게 된 바이다。우리는 같은 일가이니 모두들 계의 일에 마음을 먹고 유사을 우워 재산과 곡식을 관리하여 보통 제사비용으로 내놓고 그리고 묘소를 수축할 때 이 자산에서 전체부담하고 계법을 삼가하고 지켜 오래 오래 되도록 지체하지 아니한다면 견씨내의 사정고사와 같은것이 있게되어 거이가 죄송하고 후회하는 것을 모면할 것이니 힘쓰지 아니할소냐? 이미 여러 일가들에게 알리고 마침내 기록하여 돈본계 서문으로 하게 되었다。

서기 1780년 경자년 4월1일에 태사공 후손인 사국이 화산 도재당내에서 삼가 쓰다。

⑧ 敦本禊序 節目直菴公 文集載

惟我漆原尹氏 自始祖太師公以下 屢世衣冠之藏 皆在本縣 距京師千里 子孫 不得以時展省 每於歲時霜露 未嘗不懼然怵惕 永慕靡寧 師國 幸蒙聖恩 忝叨嶺邑 始克奠粢薌於先墓 少伸誠禮 繞塋域攀松檟 慨然有淵源培根之感 即與諸宗 爛商先壠守護之節 謹以俸餘 聚三百緡銅 先置位田 作香火資 諸宗 亦各出穀 凡如干斗 以之結禊 名曰敦本 既而 曰財穀 至微物也 尙不忘報本 况人道之親親尊祖 推本於所自出 愈遠而愈不敢忘者乎 雖丘壠 世遠而一氣流通 孚格無間 凡我諸孫之得盡力而用情於先祖 惟在享祀與守護二事 此 敦本之禊之所爲作也 凡我同宗 皆悉心於禊事 置有司 掌財穀 凡以供芬苾而修封植 一於此資之 謹守成憲 久遠不替 有如甄氏思亭故事則庶乎得晃罪悔 可不勉哉 既以告諸宗 遂記之 以爲敦本禊序 上之即位四年庚子初夏吉日

◇

⑨ 돈본계서(휘 인국)

영남의 칠원은 바로 우리 윤씨의 관향이다。태사공이하의 여러 세대 산소들이 있으며 우리 씨족으로 태사공을 시조로 한 사람들은 누구인들 개연히 추원본분의 마음이 들지 아니할 소냐?

그런데 근세에 와서 찾아가 성묘하고 그리고 수호하기는 절차를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으니 어찌 그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 역시 성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말할 뿐이다。오늘 사촌형인 빈경씨가(사국) 화산지방 관장으로 나가신 다음해에 직접 칠원현까지 가서 선조산소를 차례로 성묘하시고 제사까지 올렸으며 또 여러 일가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영남과 거제까지 초청하여 잔치를 산하에서 베풀었으니 매우 성대한 행사이였다。이어서 엽전 삼백량까지 내놓아 위토를 두어 수호와 제사의 자산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또 여러 일가들을 모이도록하여 각자 한말씩 곡식을 내놓아 그 이하로 부족한 것에 보태주고 계를 직접하여 이름을돈본이라 하였으니 친척간에 돈목하고 근일에 보답하는 의의를 취한 것이었다。 아… 지금은 태사공께서 세상을 떠난신지가 몇천백년인데 빈경씨는 바로 아득한 후손으로 능히 산소의 제사와 일가간에 화목의 도리를 다하였으니 그의 계획과 일처사한 것은 한데 차례 질서가 있었으며 그리고 조상을 추모하는 성심에 근본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돈본이란 이름이 어찌 우연히 되었으랴? 그가 차례로 성묘함에 여러차례 같이 동행하자고 하였는데 생각하여보니 나는 병들어 시골에 칩거하며 사상일에 억매어 마침내 곁에서 일을 가져보는 대열에 끼어 선조를 추모하는 감정도 가져보지 못하였고 영남이외에서 사는 여러 일가들을 만나 옛날을 이야기하는 그 성대한 모임등 구경하는 것도 얻지를 못한것이 한이 된다。 지금 계의 규약을 만들면서 감모의 회포를 견딜수 없어 간략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돌리겠노라。

임인년(1782년) 초봄

태사공 후손 인국이 삼가 쓰다

⑨ 敦本稧序

嶺之漆即我尹貫鄉也太師公以下數世冠屨之藏在焉凡氏族之本于太師公者孰不慨然有追報之心哉然而近世以來未聞有徃省而爲之守護之節者豈力不足而然耶盖亦誠有所未盡者耳今我三從賓卿氏出按花山之翌年躬詣漆縣歷展先壠而祇薦以牲酒焉且邀諸宗之散處嶺海者設一宴於山下甚盛事也仍出銅三百緡爲置墓田以備守護香火之資而亦使諸從之來會者各出斗穀而殖之補不足焉設稧而名之曰敦本盖取敦親報本之義嗚呼今去太師公之世幾千百載而賓卿氏乃渺末後裔能盡享先睦宗之道其所以區畫措置者井然有序而莫不本於追本之誠則敦本之名豈偶然哉方其歷省也屢要聯轡而顧余病蟄窮山拘攣世故終不得厠跡將事之列以伸追遠之情且不得與嶺外諸宗一面而道舊以觀其盛會爲恨今於稧目之成不勝感慕之懷略書此以歸之

壬寅初春

太師公后孫寅國謹書

◇

⑩ 돈본계헌발(휘 재급)

우리 아버지께서 화산현감으로 나가신 이듬해 경자년(1780년) 3월 10월에 칠원으로 여행을 하신다고 알려와 나 소자도 시종하였었다。 7일을 지나 상포에 도착하여 시조이신 태사공 이하 3위 산소를 배알하고 그 2일후에 제사를 올리며 정평공 묘소까지 제사를 지내었다。 다음날 또 검단리에 계신 판태사공 이하 5위의 묘소에 제사를 올리고 다음날 유동 칠원백 묘소에 제사를 올리었다。 다음날은 산하와 거제와 함안의 여러

일가 수백명이 모여 연회를 베풀고 또 동향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향당연회를 베풀고 칠원 향지를 읽어보니 일가 중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장사로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칠원 현감 앞으로 보내어 면제하게 하고 곧 칠원 현감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회답의 예를 이루었다。 다음날은 여러 일가와 사법관을 거느리고 모모처에 몰래 투장한 5、6개 무덤을 파내여 버리고 대략 7일만에 돌아왔다。 우리 칠원윤씨는 이곳에 대대로 장례한지 어언간 지금까지 천년이 되었는데 묘위의 위토전답이 없으니 실로 우리 종중의 예의를 결한 큰 일이다。 여러대 선조의 제향이 바로 일가인 찬연씨의 힘을 입어 정성을 다하고 운영을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녹봉으로 받은 3백냥을 내놓아 위토전답을 매입하여 시제의 제수용으로 쓰게하고 또 서당을 덕산에다 건립하여 여러 일가들의 어른 어린이들의 학업의 장소로 삼았으며 또 일가들이 다같이 곡식을 내놓아 계를 결성하고 그 명칭을 돈본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선산을 수호할 계확인 것이다。 또 상포의 주산과 동민 밭과 좌우에 농사짓는 땅을 영원히 묵혀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게 하고 묘지기에게 노임을 주어 그 수호의 법도를 꾸며놓고 도내에는 판본재까지 두어 논어、맹자、대학、중용、시경、서경、주역、소학과 통감 등을 인쇄하여 서당에 소장하고 그 책으로 외우고 읽는 자료로 삼게 하였다。 이 해 9월에는 아버지께서 동래부사로 전근을 받아 묘제사에 사용하는 제기와 제상과 차일과 포진등이 미비된 것을 모두 완성하여 놓고 그 전에 족숙인 인국씨에게 서문을 부탁하고 나 재급에게 모든 기록을 부탁하여 규약 조목을 지어 돈본계헌 화산 서당규약 제례의식 강신의를 지어 합쳐서 각 지방 여러 일가들에게 보여 그 가부를 심사한 연후에 확정하였으니 이 규정을 좇아 영원토록 시행하며 잃지 말지어다。 아 퇴계 선생이 향약서문에 말하기를 효도와 공경을 교육 시키지 아니하면 사람마다 모두 하늘이 부여한 인륜의 성품을 잃게 되니 국가에서 학교를 세워 교육을 실시하지만 어찌 우리들까지 조문성립을 기다릴소냐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범죄자가 예의를 해쳐 향토풍속을 붕괴시킨 사람은 천리를 해쳐 국민이 비록 처벌하지 아니하고저 하지만 언어질소냐? 아 선조들의 마음을 미루어 화목하게 일가간 돈독히 하는 것은 자신들이 당연히 돌이켜 찾고 그리고 힘써 행동할 것인데 어찌하여 권고하는 것을 기다릴소냐。 퇴도선생도 당시 향약의 순수함에 항상 근심하여 죄를 짓고 예의를 해치면 법조대로 벌을 준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부득이하여 나온 것이니 역시 벌준다는 것은 벌줌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다。 이렇게 종중에 알리고 또 스스로 알아 살필뿐이다。

신축년(1781년) 5월

재급은 절하고 삼가 기록하였다。

⑩ 敦本稧憲跋

家君出宰花山其翌年庚子暮春上旬啓漆原行小子從焉越七日到上浦祗謁　鼻祖太師公以下三位墳山其二日始行奠禮仍祭　靖平公墓翌日又行奠禮于檢丹池　太史公以下五位墳山翌日祭柳洞　漆原伯墓翌日會山下及巨濟咸安諸宗數百人行宴禮又請會同鄕父老宴于鄕堂觀鄕案宗人之失學入良役者親呈單于本縣除免仍進刺縣衙致酬酢之禮翌日率諸宗訴官去某某處偸葬者五六塚凡七日乃歸我尹氏世葬于此於今且千年墓位無田實吾宗闕典之大者屢代香火寔賴宗人燦然氏殫誠經紀幸以至今不替家君以俸錢三百緡置位田以爲歲祭所需又爲營立書堂于德山村俾作諸宗長幼肄業之所宗人又合出穀結稧名之曰敦本凢以爲先壠守護計也又買上浦主山民田及龍虎加耕俱屬永陳種以松檟墓直人等給錢布飭其守護道內有板本爲印四書詩書易經小學及通鑑等書送爲書堂之藏資其誦讀是歲季秋家君移除東萊墓祭籩豆床卓及遮日鋪陳之未偹者皆成之旣而屬族叔父寅國氏同序文載伋輯錄應行規節爲稧憲學規及祭儀講信儀并以示在鄕諸宗審其可否而後乃定庶幾有所依倣行諸久遠而勿失也噫退陶先生鄕約序曰孝悌之不爲立教人皆有降衷彛倫之性國家庠序設教奚待我輩立條又曰犯義侵禮以壞鄕俗者天之弊民雖欲無罰得乎嗚呼推性遠祖修睦敦宗自當反求而力行之夫豈有待於勸哉老先生時鄕約之淳素而尙憂犯義侵禮至於立條用罰則今日之約誠出於不得已而亦罰期于無罰之意也以奉告宗中且以自警省云爾

辛丑仲夏

載伋拜手謹識

◇

⑪ 덕산서당기(휘 사국)

경자년(1780년) 봄에 나는 이미 칠원지방의 선산들을 성묘하고 물러와 여러 일가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종중에 학당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니 여러 일가들은 멍하니 한참있다가 말하기를 폐지된지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 자제들이 비록 배움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로 수업할 수가 없어 일찌기 한사람도 향시에 합격하거나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없었고 과거 시험을 소원하는 사람들까지 평범한 농부에 그치고 있으니 이래서 더욱 미천하여 다시는 명성을 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실로 우리 종중의 수치이며 심한 불행이라 하였다。

나는 개탄을 하다가 곧 이원에게 알리기를 후일에 상포와 검단의 여러곳 산은 모두가 무릉산이 조산이며 그리고 이원이 사는 덕산도 무릉의 지맥이며 소나무들이 빽빽하여 그 속은 깊고 넓어 성내의 사람들과는 서로 간섭이 되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여러 일가들은 이곳에 서당을 세워 책을 끼고 가게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살면서 배우게 할 것이며 묘제 올리는 제기와 제상을 오래도록 둘 곳이 없으니 여기에 모아 저장하고 또 헌관

과 집사들의 목욕재계하는 방과 일가들의 강신하는 장소로 하면 좋을 것이라 하니 이원이 고맙다고 말하며 나도 뜻을 두고는 있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할 수가 없었는데 공이 이런 말을 하시니 우리 일가에 다행한 일이니 감히 힘을 다하지 아니할소냐 하였다? 바라건대 여러 일가들은 집을 완성하여 공의 소망을 끝내게 되었고 나는 곧 경서와 사기책 몇권을 인쇄하라고 녹봉을 나누어 보내고 또 이원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기를 서당이 이미 지어졌으면 묘소에 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하물며 제사 올리고 선조를 추모하는 것이 어찌 학자에 근본이 아니겠느냐? 우리 일가의 자제들을 여기에 살게하면 선조와 가까워지고 강습하며 행동하면 효도와 공경의 마음이 유연히 감동되어 나와 어버이로 말미암아 선조에 이르고 선조로 말미암아 일가에 이르게 되어 근본을 돈독히 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부터 더욱 권면하게 될 것이다。

만일 마음을 둔 사람이 있다면 독실한 뜻을 게을리 아니하여 능히 학문과 덕행을 성공하면 일가와 부모를 위한 영광이 극에 이를 것이요 또 혹시 과거 급제의 명부에 성명이 올라 남들에게 칭찬을 받아 이 사람들이 모처의 서당학동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는가? 후일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 나와 이원이가 다행히 보게 되어 선영을 성묘하는 날이면 기쁨과 감동이 극에 이르러 어찌 내 자식들이 한 것보다 적을 소냐? 바라건대 이원는 이런 말을 우리 고향 자제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장려하기를 구구히 바라는 바이다。

정조대왕 경자년(1780년) 4월 1일

태사공후손 사국은 화산도재당중에서 삼가쓰다

⑪ 德山書堂記

歲庚子春余既省掃漆原先墓退而與諸宗語仍問宗中學舍有無諸宗憮然久之曰廢來久矣子弟雖有志願學者實無所肆業未嘗有一人貢于鄕而觀于國者所觀視願慕者止於凡庸鄙本以是益衰黴不可復振實吾宗之恥而不幸之甚者也余爲慨然卽告宗人而遠曰上浦檢丹諸山皆祖武陵而而遠所居德山亦武陵支脉而密邇松楸其中窈然泬曠不與城塵人事相涉請爲諸宗建堂于斯使向之抱書而無所之者居而學焉而墓祀之齋豆床卓久而無所庇於此乎收而貯之且爲獻者執事淸齊之室宗人講信之所其可乎而遠謝曰吾志也而力不及無能爲公有是言吾宗之大幸也敢不盡力董諸宗以底于成以卒公志余乎爲印經史凡幾卷送俸餘錢財又書告而遠曰書堂既作墓有齋舍兄享祀追遠孰非本於學者使吾宗子弟之居於此者密邇先祖講習飭行則孝悌之心油然感發由親而達于祖由祖而逮于族庶幾敦本修睦而自此而益勉矣如有有心者篤志不懈能成就文行爲宗族父母光榮已極又或登名於蓮榜桂藉見稱於人曰此某書堂學徒也其何如哉異日倘有此事吾與而遠幸及見之則先塋榮掃之日喜極感生抑何減於親子姓爲之哉幸而遠以此語吾鄕子弟勸勉而奬成之區區所望也　上之卽位四年

庚子初夏吉日

太師公后孫師國謹書于花山之道齋堂中

◇

⑫ 동천서숙기(휘 사국)

춘천의 동천마을에 윤기오와 여러사람들은 나와 더불어 태사공을 시조로하고 있다。 내가 강원관찰사가 되어 관내를 순시하다가 춘천에 이르러 동천마을을 지나면서 그사람의 자제들을 불러들여 만나보니 모두가 준수하게 생겨 가르치면 좋을것 같기에 그들의 학업에 대하여 물어보니 모두가 집안이 가난하여 스승을 모실 길도 없고, 또 서당을 차릴 장소도 없다고 한다。 나는 그말을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즉시로 녹봉의 일부를 내놓아 우선 서당을 지으라고 시키고 또 여러 일가들은 각자들 한가마니씩 곡식을 내놓아 계를 결성하여 그 이자로 선생을 모셔 학업을 강논할 자산으로 삼으라고 하니 모두들 일어서 고맙다고 말하며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겠느냐며 바로 그해에 서당지을 계획을 세우고 곡식을 모아놓고 나에게 요구하기를 한마디 기록하여 주면 목판에 새겨놓는다고 하였다。 나는 마침내 이글을 써주고 또 말하기를 여러 일가들이 이집에 대하여 감정이 일어나고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폐지시키지 아니한다면 글을 읽어 몸을 닦는 선비가 어찌 이 서당에서 여러명 나오지 아니하겠으며 학사가 되고 관찰사가 되는것을 진실로 알 수가 없으니 어찌 나의 지난날 관찰사 행차를 부러워할소냐? 대체로 이런말로 수레 앞을 떠나가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경술년(1790년) 가을

일가 삼산노초가 관동집무실에서 쓰다。

⑫ 東川書塾記

春川之東川尹生基五諸人與余同祖太師公余以按使巡都到春仍歷入東川招見其子若弟俱俊秀可教而問其學業皆云家貧無從師之道又無肄業之所余聞惻然即捐若干廪餘使之先搆書堂亦使諸宗各出十斗租結稧取殖俾爲延聘諸業之資咸起而辭曰敢不唯命乃是年營書堂聚穀物要余識一言而上木余遂書此復言曰諸宗若感發於斯牖厥子孫永世勿替則讀書飭躬之士安知不輩出於堂而爲學士爲按使固未可知何羨余向日擁節之行耶盖以是語諸車前慰去之兒童而勉勵之也歲

庚戌秋

宗人三山老樵書于關東之宣化堂中

◇

⑬ 직암공 연보초(휘 사국) 대언공후

정조4년 경자(1780년)에 공은 안동현감으로 있다가 그 해 가을에 조정의 추천으로동래부사로 전근하였는데 당시 쉰세살이었다。칠원은 우리 윤씨의 관향으로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대대로 장묘한 곳이다。 공은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여러 일가들을 나오도록 하여 제물을 넉넉히 하여 성묘 행사를 하였으며 물러와서는 여러 일가와 더불어 차례로 음복례를 행하였다。다음날 이 마을 노인들과 더불어 연령 순서대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일가 사람들이 부역을 나가는 사람은 명단에서 면제하였고 곡식을 내여 전답을 사들여 시제의 제수로 쓰게 하였다。여러 일가와 더불어 각자 곡식을 내놓아 돈본계를 결성하여 그 수호의 자본으로 삼았으며 또 여러 일가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 서책을 인쇄하고 서당을 세워 권학을 하였다。돈본계에는 계헌이 있고 서당에는 장학의 법규와 서문이 있다。정조15년 신해년(1791년)에는 공이 원춘도 관찰사로 있었으며 이 해에 다시 강원도라 호칭하게 되었다。먼 일가 되는 사람들이 춘천에 살고있어 사인교의 행차 앞에서 환영을 하여 공이 직접 그 집안을 찾아가 위안을 하였는데 그 곳에서도 부역을 나가는 사람은 모두들 명단에서 면제하여 주고 서당을 세우도록 하여 학업을 권장하였다。그 곳 서당 기문을 지어 판자에 새겨 현판으로 걸었으니 그 이름은 동천서숙이다。그후에 마을에서는 서당을 지칭하면 윤씨생원이라 하였다。

⑬ 直庵公 年譜抄(諱 師國) 代言公后

正祖四年庚子(一七八〇) 公 在安東任所 秋 以廟薦 移拜東萊府使 時 五十三歲 漆原 吾尹貫鄕 自羅麗時 世葬之地 公 進遠近諸宗 具設奠榮掃 退與諸宗 序行旅酬 翌日又與一鄕鄕老 序齒設酌 宗人入貸役者 呈單許免 捐廩買田 使需歲享 與諸宗 各出穀 設敦本稧 資其守護 又憫諸宗之失學 印經籍 建書堂以勸之 敦本稧 有契憲 書堂 有講學規及序文 十五年辛亥 公 在原春道任所 是歲 復號江原道 有疎遠同宗在春川者來迎轎前 公 親往其廬而慰存其入貸役者 並皆許免 爲建書堂而勸學 撰書堂記文 鏤板揭楣 號曰東川書塾 其後 鄕里仍稱書堂 尹生員

◇

⑭ 덕암재 서계안(휘 필오)

아… 글은 문장과 같은 것이니 우리 씨족(氏族)은 그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의 씨족(氏族)에게 동일한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는 부인(符印)이 같은 것이니 우리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은 그 부인(符印)을 가지고서 우리의 부절(符節)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왜 그러한가? 씨족(氏族)끼리는 친근(親近)하고 소원(疎遠)한 구분이 있고 마음에는 정숙하고 간사한 차이가 있으니 친근하고 소원한 것이 동일(同一)하지 아니한 것을 문장(文章)으로 동일(同一)하게 하고 정숙하고 간사한 것이 일제(一齊)하지 아니한 것을 마음으로 일제(一齊)하게 하려면 곧 서계(書稧)를 설립(設立)함으로써 그 종친(宗親)끼리 화목이 되고 씨족(氏族)끼리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바가 될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

을까? 아! 비록 제왕(帝王)의 가족(家族)이라도 문자(文字)가 나오기 이전은 대체로 말할 것이 없고 문자(文字)가 나온 이후에서 비로소 연대(年代)를 판단할 수가 있었으니 이 문자(文字)는 무도(無道)한 세상(世上)에 도움을 준것이 이같이 위대(偉大)하였다。

하물며 우리는 파문은 없지만 오래가면 더욱 소홀하게 되고 소홀하다보면 더욱 멀어질 것이니 그 문장(文章)을 동일(同一)하게 아니하고서 그 마음들을 통일(通一)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만가지로 다른것을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의의(意義)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이다。문헌(文獻)은 이래서 덕(德)이라고 세대(世代)가 없는 것도 이래서 고증이 되는 것이다。계(稧)의 명칭이 역시 그 의의(意義)가 우연한 것은 아니었다。주역(周易)에 말하기를 사람은 종족(宗族)에서부터 생겨나온 것이라하고 서전(書傳)에는 말하기를 구족(九族)이 이미 화목(和睦)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아! 그 힘을 써야 하겠노라。

1805년12월 30일

계장 필오 쓰다

◇

⑮ 유사초(휘 순의)

14세 되던 신해년(1791년)에 정조대왕이 광릉으로 행차할때 공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도로 좌측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임금님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갑자기 호위병들의 대응이 연속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 초립쓰고 공손하게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공이 성명대로 대답하자 곧 앞으로 나오라는 하명이 있었다。그 앞에 작은 도랑이 있어서 또 군사들에게 하명하여 엎고 건너 오라고 하였다。임금께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현재 강원도 관찰사 모의 손자라며 엎드려 대답하니 모두 예법에 맞는지라 임금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얼굴을 들어 보라고 하명하였다。또 나이가 몇살이며 책은 몇권이나 읽었느냐고 물어 대답하기를 나이는 열네살이고 논어。맹자。대학。중용과 시경。서경과 강목을 이미 읽었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장려하여 말하기를 숙성하였다며 그림 부채를 하사하고 조정 중신들 보고 말하기를 내가 윤모의 손자를 보았더니 사람됨이 매우 아름답게 생겼다고 하였다。

19세 되던 병진년(1796년) 공이 동교에 살며 예기책을 읽으며 심의의 제도에 의문이 생겨 여러가지 책들을 참고하여 일설을 자작하였다。정조 정사년(1797년) 겨우 20세로 세상을 떠났다。첨추공(아버지 휘 재급)이 울면서 이 책을 수습하였다 서대학 유신이 읽어보고 좋게 여기어 이 책을 가져다가 자기 후손들의 제도로 삼겠다고 하였다。

불초고 영건은 삼가 기록하다

⑮ 遺事抄(諱 循義)

十四歲辛亥 正廟幸 光陵 公 與鄕客數三人 觀光路左 駕倒 忽有所侍衛之應對 連續鄕客 皆戰栗 一紫來問 着草笠而祗迎者 爲誰 公 以姓名對之 因有進前之命 前有小渠又命軍士 負之 上 曰汝是誰之子 對曰今關東伯尹某之孫也俯伏應對 悉中禮度 上 異之 命擧顔 又問年幾何 讀幾何 對曰年 十四而四書 二經及綱目 已讀矣 上 奬之曰夙成 賜一彩扇後 對筵臣曰予 見尹某孫而爲人 甚佳矣

十九歲丙辰 公 在東郊 讀禮記 因起疑於深衣之制 叅攷諸書 自作一說 正廟丁巳 弱冠二十 下世 僉樞公(父諱載伋)泣 而以是 歛之 徐大學有臣 見而善之 取以爲身後之制

不肖孤 永健 謹識

◇

⑯ 석남선생 기적비문(휘 혁원) 충효공후 청양

저 끝없이 멀리 흐르는 금강과 높이높이 우뚝 서 있는 앵봉산은 정산과 청양 문화의 발상지로서 여기에서 배출된 문장가 재능인 충효의 덕행가들이 내 고향을 예문향으로 꽃피웠으니 여기에 세워놓은 기적비의 주인공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삼가 찾아보니 공의 휘는 혁원이요 자는 주보이며 석남은 그의 아호이다。신라시대 태사공 휘시영의 후예이며 고려시대 문하시중 칠원백에 봉작된 휘 환의 21세세 후손이다。조선시대에 이르러 성균관 전적 벼슬을 하신 휘 준제의 13세손이다。아버지는 유학자 병선씨요 어머니는 예안 김씨와 무안 유씨이다。공은 고종 4년 정묘(1867년) 유씨에게서 태어났으며 임신년(1872년) 일찌기 아버지를 잃게되어 안으로 어머니의 교양을 받고 밖으로 광산 김조현씨 문하에서 수업을 하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주사 평양조원근씨 문하에서 유학하였다。집에서는 어머니 섬김에 지극한 효성으로 하였고 사람을 대함에는 겸손으로 하였으며 스승의 앞에서는 학문을 연마하고 덕행을 함양하여 자기를 완성하였다。공은 천부적으로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재능의 명성을 널리 떨쳤는데 취학하던 6살 때도 하루에 천자를 외웠으며 8살에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말하기를 푸른 산이 가파르게 나왔으나 정신은 부처이고 백로가 날아오나 그림자는 까마귀라 하였으며 또 9살 때는 반야심경 1권을 한번 읽고 외웠으며 또 산수 능력이 우수하여 두 사람이 부르는 숫자를 암산하여 대답하면 추호도 오차가 나지 아니하였다。이래서 서울로 올라와 살았는데 고종 기해년 양무위원으로 임관되어 평생토록 근무하게 되었으며 신축년(1901년) 처음 벼슬 길에 오르게 되었고 을사년(1905년) 내부참서관으로 천거를 받았으나 한일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라서 공은 오직 국치와 민욕이라며 몇차례 사양하고 취직하지 아니하고 향리에서 칩거하며 오로지 자연을 즐기고 스스로 판단하여 옳은 것을 취하였으며 후학

을 가르치다가 불행하게도 향년 41세로 졸하였다。아 그의 순진한 효성과 독실한 행동을 옛 선비에게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으며 또 백세의 사표가 될만한지라 이미 사당을 짓고 정문을 세워 찬양하여야 당연한 일이거늘 옛날과 지금이 달라져 모든 것이 사라져 칭찬할 수 없으니 선비로써 어찌 부끄러운 탄식이 없겠는가? 이제 와서 지방 선비들이 공론을 일으켜 비석을 동강리 장항 입구에다 세우며 나에게 비문을 짓게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찾아내어 대강만 서술하였다。혼자 생각하여 보니 사람의 감정은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는 고로 이 비석문이 족히 후배와 뒷 사람들로 하여금 덕성을 교화 시키고 미풍을 함양케 하여 앞다투어 윤리 풍속을 다져 나가게 될 것이며 또 이 미덕이 서민들에게 감화되어 혼란한 인심이 순화할 것이니 이 일이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느냐? 아 창강에 뜨는 달은 선생의 존령이 어려있고 석봉에 잠긴 연하는 공의 풍채를 떠오르게 하도다。공의 아들 이름은 종관이니 문학이 저명하고 사손은 재순이니 공정한 덕의가 풍부하여 향토개발에 공헌한 바가 커서 지방인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공의 사적은 정산 읍지에 기재되어 있다)

서기 1978년 무오중춘 10일

예안후인 김만영은 삼가 기록하다

⑯ 石南先生紀蹟碑文(諱 赫遠) 忠孝公后 青陽

悠悠 錦江 巍巍 特立 鷄鳳山 定陽文化 發祥地 輩出 文章才士 忠孝之德 文鄕 茲 建立 紀蹟碑 主人公 代表的 人物 謹按 公諱 赫遠 字 周甫 號 石南 新羅太師諱始榮 後裔 高麗門下侍中 漆原伯諱桓 二十世孫 入我朝成均典籍諱遵悌 十二世孫 考 儒行炳璿 妣 禮安金氏 務安兪氏 高宗四年 丁卯 兪氏子 壬申 早失其考 慈母 教養 光山金公朝鉉門下 修業 成童 主事平壤趙元根門下 遊學 在家 事母至孝 接人 謙讓 西席之前 學問 練磨 德行 涵養 自己完成 公 生而聰慧 自幼 才名 就學 六歲 日誦千言 八歲 作詩曰青山削出精神佛白鷺飛來影子烏 至 九歲 般若心經一券 一覽 輒記 且算法 優秀 二人呼數 暗算即答 秋毫不錯 以此 遊京師 高宗己亥 量務委員任仕 平生奉職 辛丑 筮仕 乙巳 內府參書官 薦 韓日保護條約成立之後 公 惟國耻民辱 痛嘆 固辭不就 蟄伏鄕里 但山水自娛 滄浪自取 後進訓迪 不幸 享年 四十一 卒 嗚呼 純至之孝 篤實之行 古人 比 損色 百世 師表 旣爲表宅豎門 闡揚 時異今昔 泯然無稱 可以士 烏不愧嘆哉 迨今士林 發公議 竪立貞珉于東江里獐項洞口 使余爲記 不敢辭 摭其實 大綱叙述 竊念 人情 無不好此懿德者故 記文 足 後進後覺 薰陶德性 美風涵養 倫理風土 且美德 庶民 感化 錯亂的 人心 淳化 此豈非盛事歟 滄江 先生尊靈 石峰 煙霞 惟公 風情 公 子諱 鍾瓘 文學 著名 嗣孫 在淳 公德心 豊富

鄕土開發 貢獻 地方人士 尊敬
公之事蹟載于定山誌

檀君紀元 四千三百十一年戊午仲春上澣

禮安后人 金萬榮 謹識

◇

⑰ 소송공 유적비문(휘 병용) 충효공후 청양

옛날에 난공자란 사람이 말하기를 국민은 세 분들 때문에 살고 있으니 섬기기를 동일하게 하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아니면 출생하지 못하였고 임금이 아니면 생장하지 못하였고 가르침이 아니면 지식인이 못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나 충성과 효도를 이행하고져 하면 반드시 학문에 바탕이 있어야 지식인이 되는 것이니 그 학문의 방법은 반드시 현명한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것이요 성공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효도도 하고 충성도 하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승의 은혜가 아버지나 임금과 동일하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된 의의인 것이다.

공의 성씨는 윤씨요 휘는 병용이며 자는 학중이고 아호는 소송이며 관적은 칠원이다. 그의 시조는 신라시대 태자태사 벼슬을 한 휘 시영이다. 고려말에 칠원백작에 봉해지고 충효공으로 시호를 추증받은 휘 환은 바로 공의 19대 할아버지 이시다. 조선시대 선조대왕 경인년(159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오른 휘 준제는 11대 조고이다. 아버지 휘는 성근이며 어머니는 동지중추 벼슬을 한 평택 임욱의 딸이다. 고종 무인년(1878년) 10월 20일에 출생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였으며 성장하여는 학업이 대성하여 깊은 경지에 이르렀고 품행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집안에 있으면 효도하고 우애하였으며 손님을 접하면 겸손하고 마음을 비워 기쁘고 성냄을 얼굴에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며 평생토록 재물에 마음쓰지 아니하고 오직 학문에만을 주력하며 후배를 장려하니 문하생도가 더욱 늘어나 날마다 모여 강의하고 연마하여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것을 일러 영재를 얻어 가르침이 이것이 한가지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고종 경자년(1900년) 홍릉참봉으로 승임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거하여 뜻한 바를 즐기다가 임종하였으니 진실로 한 평생을 덕만 숭상한 군자라 하겠다. 시경에 말하기를 빛이 나는 군자여 마침내 잊지 못하겠다 하였고 대학 책에 말하기를 성대한 덕과 지극히 착한 것은 국민들이 잊지 아니한다고 말하였으니 이 말은 믿을 수가 있다. 현재 그의 문인들이 상의하여 힘을 모아 돌을 깎아 비석을 세워서 존경과 추모의 성의를 표현하였으니 실로 공의 덕화에 감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후세인들은 당연히 보고 감동하여 흥기할 지어다.

나 고재봉은 늙어서 이 곳에서 살며 그의 높은 교화를 흠모하고 있으나 적은 성의라도 표시하며 동문의 여

러 현사와 더불어 공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을 매우 한탄하는 바이다。이제 비석을 다듬고 정종률、윤일원 두 사람이 나의 사람됨이 어리석고 못남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꼭 비문을 지으라고 요구하였다。 생각하여 보니 나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여러번 사양하였으나 물리지 못하고 감히 졸렬한 것을 잊고 들은 것을 대략 서술하여 앞과 같이 기록하면서 여러 군자들의 시정과 질채을 기다릴 뿐이다。(공의 사적은 정산읍지에 기재되어 있다)

서기 1974년 갑인 윤4월 일 세우다

후학 장흥 고재봉은 삼가 기록하다

⑰ 小松公遺蹟碑文(諱 炳庸) 忠孝公后 青陽

昔 欒共子有言 民生於三 事之如一 非父不生 非君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盖欲行忠孝 必資學問而知之 學問之道 必得賢師 熏陶成就然後 方可爲孝爲忠 然則師敎之恩 同於父君 古今之通義也 公 姓 尹氏 諱 炳庸 字 學仲 號 小松 貫 漆原 鼻祖 新羅太子太師諱始榮 麗季漆原伯忠孝公諱桓 寔公之十九世祖也 本朝宣朝庚寅 文科成均典籍諱邊悌 十一世祖考也 考諱 聖根 妣 平澤林氏同中樞煜 女 以高宗戊寅十月廿日 生 公 自幼 聰明穎悟 及長 學業 大成 造詣深邃 性行恭儉 居家孝友 接人謙虛 喜怒不形於色 平生不以事物經心 惟以文學爲主 勸奬後生 門徒益進 日聚講磨 終有成就者 不少 此之謂得英材而敎育之 爲一樂也 高廟庚子 陞洪陵叅奉不就 隱居樂志而終 眞一世之尙德君子也 詩經 曰有斐君子 終不可諼兮 大學傳 曰道盛德至善 民之不能忘也 信乎斯言也 今其門人 詢謀合力 伐石竪碑 以表尊慕之誠 實有感於公之德 亦可見矣 後人 宜其觀感而興起哉 不佞 晩年 寓此 欽仰高風 甚恨不得束修與同門諸賢 爲列也 今當鐫石 鄭鍾律 尹一遠兩甫 不揆余之非劣 固要爲文 顧吾非人而屢辭不獲故 敢忘陋拙 略述所聞 而記之如右 以俟正責於諸君子之耳 公之事蹟 載于定山誌

檀紀四三〇七年甲寅閏四月 日

後學 長興 高在鳳 謹識

◇

⑱ 대농공창의 기적비문 충효공후 청양

농사의 근본은 토지로서 실중하니 천하의 대본이요 사람의 본성은 중도로 빛나니 그 광휘가 곧 대이다。여기 광활한 평야가 문전옥답이 되고 이 고장의 토양이 청양군 제일의 곡창지대가 되기 까지에는 실로 한 의로운 사람의 진실한 성심과 덕을 심음이 바로 생생한 텃밭이였으니 이로써 대농선생의 큰 뜻은 그 꽃을 피웠고 온 농민의 오랜 바램은 함께 그 땀의 열매를 맺었어라。그 님이 바로 칠원윤공이니 휘는 창의요 대농은 그의 아호이다。 명성이 높은 선조의 휘는 환이니 고려말에 벼슬은 문하시중이요 시호는 충효로 공의 16대조요 휘익은 조선 병자호란 충신으로 중 통훈대부요 정려문 명

을 받았으니 8대조이다。고조의 휘는 창렬이요 증조의 휘는 시환이요 조의 휘는 이국이요 고는 석학인 휘 재덕이다。공은 서기1916년 3월 7일에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에서 출생하니 어려서부터 재능과 지혜가 비범하고 의협심이 강하였다。20세에 이장이 되자 마을사람들을 계도하여 퇴비증산에 힘쓴 결과 도내 일등으로 당시 수상한 비료는 부촌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다。장년이 되면서는 금강 유역의 넓은 평야가 매년 침수로 버려짐을 애석히 여겨 6·25전란의 와중임에도 정부당국에 수리시설을 끈질기게 교섭하여 장평수리조합의 설치인가를 받는데 성공하였다。이 공사는 2백여만평의 황폐된 땅을 옥토로 만드는 8년간의 대역사였는바 공사가 끝날 무렵인 서기1958년 이 지방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급보가 전해졌다。수리시설로 얻을수 있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70여만평의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농민들은 대대로 이 땅을 관리 경작하면서 수리공사의 완공전에 농민에게 불화되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오던 중에 이 실정을 탐지한 서울 소재의 한 회사가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이 토지를 대전지방관재국과 농민 모르게 나라땅을 불하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이에 격분한 공은 관련 농민 2백여 세대를 규합하여 공이 농민의 대표가 되어 선두에 나서 이 토지의 연고권을 찾기위한 험난한 농민 생존권 투쟁을 시작하니 이때 공의 나이 42세였다。우선 국가와 회사간의 불하계약을 취소키 위하여 재무부에 소청을 제기하니 심사결과 국가는 농민측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불복한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농민들은 국가에 보조참가하면서 이 소송은 승패를 거듭하기 23년으로 이 나라 최장의 송사였다。이 소송이 이렇게 장기화된데에는 재판에서 농민의 연고권 인정으로 회사가 패소하자 회사도 인근 농민을 유인하여 투자시켜 거짓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부터였다。회사의 감언이설에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니 회사의 힘은 확장되면서 법원의 판결은 번복되고 공은 기진맥진한 채 가산은 탕진되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잃게되자 그 울분이 서울 한복판의 농민 데모로 폭발되었다。이 사실이 서울과 지방의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되자 정부도 5개부처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여서 속수무책이었다。그러나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하에 공의 농민 생존권 투쟁은 계속되었고 이에 승복한 회사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협상을 제의하니 판결 전에 농민측이 2억원에 회사를 인수하여 원고와 피고를 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토지를 농민들이 차지하라는 것이었다。회사로서는 그간의 소송비라도 보상받겠다는 의도였으나 농민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그 이유는 2억원에 회사를 인수한 후 판결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회사 인수금

2억원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손해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은 만일의 경우를 예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니 그것은 회사가 승소하면 소송비 한푼 회수치 못하는 것은 물론 그 땅은 영원히 농민들 품을 떠나기 때문이었다。 이때 공은 비장한 결심을 하였으니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손해본다는 각오하에 이사들의 협조로 고리의 사채를 얻어 2억원 전액을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공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스고 회사를 인수한지 2개월 후인 1980년 12월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회사측의 승소로 끝났다。 실로 공의 생사를 건 선견적 과단이 아니였던들 농민들의 20여년간 혈투는 수포화되고 농토는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 공은 이어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매입 자금을 위하여 이 비문의 근찬자인 본인이 국정에 참여할 무렵 힘을 합하여 정부로부터 장기저리 농업개발자금을 융자받는 한편 공은 섣달 그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양도세의 감면을 위하여 극도의 피로한 몸을 이끌고 대전지방국세청 출장중 갑작스런 뇌일혈로 순의하니 향년 66세로 그 파란만장하던 생을 객지에서 쓸쓸히 마감한 것이다。 공의 일생은 실로 이 지방을 위한 멸사봉공 살신성인의 귀감으로서 그 행적은 족히 영세불망하리라。 공의 갑작스런 서거로 지도자를 졸지에 잃은 농민들은 황당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농민대표로 공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김정환 한봉수 윤영설 한상복 진기범 윤영각 한근수 김동순 김정덕 김행환 윤병석 윤길랑 김상배 정순명 주남석 황장현 이용구 신충식 조천구 임병준 이사들은 더욱 단결하여 합력하고 또 공의 장남 동덕여대 부총장 영연박사는 공의 유지를 받들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지문제의 유종의 미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공이 회사를 인수한후 판결에 의하여 회사의 소유가 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그간 소송에 동참하고 소송비를 완납한 농민들에게는 토지대금과 상계하고 소송비 한푼 안내고 공이 하는 일에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농민들에게 까지도 그간의 소송비에 해당하는 당시 시가의 3분지1인 평당 2천2백원에 농지를 분배하니 그 의리와 덕행은 실로 일시동인이었다。 이제 공 서거후 십수년간 공의 혜택을 입고 미덕에 감격한 고향의 농민유지들은 공의 의로운 업적과 장한 행적을 기리고 이를 후세에 전하고자 온 정성을 모아 이 비를 세우나니 이로써 대농의 큰 뜻과 정성은 세세년년 농민의 풍요로운 결실로 길이 빛나리라。

국가상징자문위원장 전국회의원 독립기념관장 최창규 삼가 짓고 예안후인 김영식 삼가 쓰다

서기1998년 무인 3월 일

대농지사칠원윤공창의기적비건립추진위원회 삼가 세우다

⑱ 大農公昌義紀績碑文 忠孝公后 靑陽

農의 根本은 土로서 實하니 天下의 大本이요 人의 本性은 中으로 빛나니 그 光輝가 곧 大이다。여기 이 廣闊한 平野가 門前沃畓이 되고 이 고장의 土壤이 靑陽第一의 穀倉地帶가 되기 까지에는 실로 한 匹夫義人의 丹心과 種德이 바로 생생한 텃밭이였으니 이로써 大農의 큰 뜻은 그 꽃을 피웠고 온 農民의 오랜 바램은 함께 그 땀의 열매를 맺었어라。그 님이 바로 漆原尹公이니 諱는 昌義요 大農이 그의 雅號이다。顯祖의 諱는 桓이니 高麗末에 官은 侍中이요 諡는 忠孝로 十六代祖요 翊은 朝鮮丙亂 忠臣으로 贈通訓 命旌閭하니 八代祖요 高祖의 諱는 昌烈이요 曾祖의 諱는 時煥이요 祖의 諱는 頤國이요 考는 碩學 諱 載德이다。一九一六年 丙辰三月初七日 靑陽郡靑南面仁良里에서 출생하니 自幼로 才知가 非凡하고 義俠心이 强하였다。弱冠에 里長이 되자 里民을 啓導하여 堆肥增産에 힘쓴 結果 道內一等으로 당시 受賞한 金肥는 富村을 造成하는 基盤이 되였다。壯年이 되면서는 錦江流域의 넓은 平野가 每年 浸水로 버려짐을 哀惜히 여겨 六·二五亂 渦中임에도 政府당국에 水利施設을 끈질기게 交涉하여 長坪水利組合의 設置認可를 받는데 成功하였다。이 工事는 二百餘萬坪의 陳弊된 땅을 沃土로 만드는 八年間의 大役事였는바 이 工事가 끝날 무렵인 一九五八年 이 地方 農民들에게는 靑天霹靂과도 같은 急報가 傳해졌다。水利施設蒙利面積의 三분의 一에 해당되는 七十二萬餘坪의 土地는 國家所有로서 農民들은 代代로 이 땅을 管理耕作하면서 水利工事의 完工前에 拂下되기만을 鶴首苦待하여 오던중 이 實情을 探知한 서울 所在 會社가 一攫千金을 目的으로 이 土地를 大田地方管財局과 農民모르게 拂下契約을 締結한 것이다。이에 激憤한 公은 關聯農民 二百餘世帶를 糾合하여 農民의 代表가 되고 先頭에 서서 이 土地의 緣故權을 찾기위한 荊棘의 農民生存權鬪爭을 始作하니 이때 公의 나이 四十二歲였다。우선 國家와 會社間의 拂下契約을 取消키 위하여 財務部에 訴請을 提起하니 審議結果 國家는 農民側主張을 받아들여 會社와의 契約을 取消하기에 이르렀다。이에 不服한 會社는 國家를 상대로 行政訴訟을 제기하였고 農民들은 國家에 補助參加하면서 이 訴訟은 勝敗를 거듭하기 二十三年 이 나라 最長의 訟事였다。이 訴訟이 이렇게 長期化된데에는 二審에서 農民의 緣故權認定으로 會社가 敗訴하자 會社도 隣近農民을 誘引投資시켜 僞裝緣故權을 主張하면서 부터였다。會社의 甘言利說에 많은 農民들이 加擔하니 社勢는 擴張되고 法院의 判決은 飜覆되고 公은 氣盡脈盡 家産은 蕩盡되고 農民들은 生存權을 잃게되자 그 鬱憤이 서울 한복판의 農民데모로 폭발되었다。이 事實이 都下 各新聞에 大書特筆되고 國會에서 이 問題가 上程되자 政府도 五個部處로 收拾對策委員會를 構成하여 解

決策을 摸索하였으나 裁判에 繫留중인 事件이여서 束手無策이였다。그러나 義勝利라는 信念下에 公의 農民生存權鬪爭은 繼續되었고 이에 承服한 會社는 드디어 迂餘曲折끝에 協商을 提議하니 判決前에 農民側이 二億원에 會社를 引受하여 原。被告를 兼함으로써 判決結果에 關係없이 土地를 農民들이 차지한다는 案이었다。會社로서는 그간의 訴訟費라도 報償받겠다는 意圖였으나 農民들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이는 二億원에 會社를 引受한후 判決에서 會社가 敗訴하면 會社引受金 二億원은 고스란히 農民들이 損害보기 때문이였다。그러나 公은 萬의 一을 豫斷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것은 會社勝訴時 訴訟費 한푼 回收치 못함은 물론 그 땅은 永遠히 農民들 품을 떠나기 때문이였다。이때 公은 悲壯한 決心을 하였으니 農民들의 反對를 무릅쓰고 스스로 損害본다는 覺悟下에 理事들의 協助로 高利의 私債를 얻어 二億원 全額을 支給하고 會社를 引受한 것이다。公이 萬難을 무릅쓰고 會社를 引受한지 二個月後인 一九八〇年 十二月 二十三日 大法院의 最終判決은 會社側 勝訴로 끝났다。실로 公의 生死를 건 先見的果斷이 아니였던들 農民들의 二十餘年間 血鬪는 水泡化되고 農土는 빼앗기고 말았을 것이다。公은 이어 零細農民들의 土地買入資金을 위하여 不侫이 國政에 參與할 무렵 合力으로 政府로부터 長期低利 農業開發資金을 融資받는 한편 선달 그믐임에도 土地讓渡稅의 減免을 위하여 극도의 疲勞한 몸을 이끌고 大田地方國稅廳 出張中 갑작스런 腦溢血로 殉義하니 享年 六十六歲로 그 波瀾萬丈하던 生을 客地에서 쓸쓸히 마감한 것이다。公의 一生은 실로 이 地方을 위한 滅私奉公 殺身成仁의 龜鑑으로서 그 行蹟은 足히 永世不忘하리라。公의 갑작스런 逝去로 指導者를 졸지에 잃은 農民들은 荒唐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農民代表로 公과 生死苦樂을 같이해온 金正煥 韓鳳洙 尹永卨 韓相福 陳箕範 尹永恪 韓權洙 金東順 金正德 金杏煥 尹炳石 尹吉郎 金相培 鄭淳明 朱南錫 黃章顯 李容求 申忠植 趙千九 林炳俊理事들은 더욱 團結하여 合力하고 또 公의 長男 同德女大副總長 永淵博士는 公의 遺志를 받들어 萬難을 克服하고 農地問題 有終의 美를 위하여 獻身하였다。公이 會社를 引受한후 判決에 의하여 會社의 所有가 된 土地를 農民들에게 分配함에 있어 그간 訴訟에 同參하고 訴訟費를 完納한 農民들에게는 土地代와 相殺하고 訴訟費 한푼 않내고 公의 하는 일에 오히려 反對便에 섰던 農民들에게까지도 그간의 訴訟費에 해당하는 당시 시가의 3분지 1인 坪當 二千二百에 農地를 分配하니 그 義와 德은 실로 一視同仁이였다。이제 公 逝去後十有數年 公의 善惠美德에 感激한 一鄕의 農民有志들이 公의 義蹟壯擧를 기리고 이를 後世에 傳하고자 온 誠念을 모아 이 碑를 세우나니 이로써 大農의 大端한 精誠은 歲歲年年 農民의 豊饒로운 結實로 悠久無疆하리라。

國家象徵諮問委員長 前國會議員 獨立紀念館長
崔昌圭 謹撰 禮安后人 金永植 謹書
西紀一九九八年 戊寅三月 日
大農志士漆原尹公昌義紀績碑建立推進委員會 謹立

◇

⑲ 모암선생 추모비(휘 자원)

앵봉산이 높이 솟아있고 금강물이 돌아흘러 산좋고 물맑으며 인재가 걸출하고 지리가 영험한 이 시골마을은 모암선생이 태어나 돌아가신 곳이다. 선생의 본관은 칠원이고 성씨는 윤씨이며 휘는 자원이고 자는 기중이니 모암은 바로 그분의 아호이다. 옛날 신라시대 태사공휘 시영은 시조가 되고 고려시대 문하시중 시호 충효공 휘 환은 20대조이며 조선시대 성균관전적 휘 준제는 12대조이다. 휘 임의 휘응한 휘예학 휘병진은 고조 증조 조고 아버지이니 다같이 덕행으로 가업을 서로 계승하였고 어머니는 안동김씨이니 역시 현숙한 부인이었다. 선생은 서기1925년 1월 22일에 출생하시었으니 지혜가 총명하고 성품이 인자하여 온순 선양 공손 검소하고 너그럽고 정중하고 말이 없이 묵묵하였다. 밖으로는 광산후인 김낙영 선생의 교육을 받아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수련하였으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근면하고 성실하여 검소하고 절약하게 쓰는 집안의 법도를 계승한 청백하고 빈한한 시골 선비이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하며 학문연구에 힘쓰고 살면서 후배들 양성에 마음과 몸을 바쳐 문하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사람인지 논하지 아니하고 직접 가르치고 일깨워 주었으니 배우기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 게을리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다. 마음도 다하고 몸도 다바쳐 부모에 효도하고 우애와 화목으로 형제들을 보호하여 한집안의 화락을 이루워 놓았으며 어머니 김씨가 8년간 병석에 누워있어 잠시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곁에 있으며 자신이 약을 다리고 간호하기 처음과 같이 하였으니 자식된 도리에 모범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법우회와 사단법인 청남노인회와 칠원윤씨정산종친회로부터 효자표창을 수상하였다. 늘상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예의로하고 자신은 의리를 지키며 사신 도덕윤리에 선구자이시며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범자이시다. 또 애국지심이 남들 모르게 있어서 조국통일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채 자신의 생명이 끝에 이름을 미리 아시어 선생은 대한민국만세라고 십여번 크게 부르시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서기1991년 신미년 11월 2일 음력으로 9월 26일에 돌아가시었으니 그분의 효도하고 충성스러운 고귀한 정신과 탁월한 행동을 누구인들 찬양하지 아니할소냐? 묘소는 청남면천내리사구소 선고의 묘소아래 남남서향(계좌)이다. 아내 인천이씨는 자녀가 없이 일찍 졸아고 아내 안동김씨는 성품이 온화하여 남편의 뜻을 잘 받들

어 집안과 마을에서 모두들 덕행들 칭찬하였다。 아들 삼형제와 딸 자매를 두었으니 아들은 종실 종익 종채요 사위는 이영술과 최순천이다。 문하생 김지영 전동진 김홍도 김삼제등이 나를 찾아와 행장을 제시하며 문하생도 일동이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저 추모비석을 세우고 사실을 기록하여 새겨놓아 영원히 보전하기 위하여 성금을 거두어 큰계획을 세웠다고하여 내 비록 글솜씨는 졸열하나 스승을 숭배한다는 성의에 감동되어 행장에 의거하여 이 비문글을 기술하였다。 아! 선생은 돌아가시었으나 그 아름다운 말과 좋은 행동은 백세까지 스승이 될 것이며 이 추모비석은 미풍양속에 아름다운 법이 되어 후일 사제지간에 세상을 일깨우는 통례가 될 것이다。

서기1992년 2월 일

서울교육대학교수 한태상은 삼가 짓고

진주후인 소헌영은 삼가 쓰고

문화생일동은 세우다

⑲ 慕巖先生追慕碑

鳳山聳翠錦水縈廻山紫水明人傑地靈此鄕里慕巖先生生卒之地先生貫籍漆原姓尹氏諱自遠字箕中慕巖即其雅號古新羅太子太師公諱始榮始祖高麗門下侍中謚忠孝公諱桓二十代祖朝鮮成均館典籍諱遵悌十二代祖諱任義諱應漢諱禮學諱炳振高曾與祖考俱以德行家業相繼妣安東金氏亦有賢淑先生西紀一九二五年正月二十二日出生智慧聰明性品仁慈溫良恭儉寬重寡默外受光山后人金洛榮先生之訓人格薰陶學問修鍊家庭嚴親勤勉誠實儉約節用箕裘業繼承淸貧隱士晝耕夜讀藏修遊息後進養成心身貢獻門下入學者有何人莫論親炙懷論可謂學不厭敎不倦者以盡心竭力孝於父母友愛敦睦保護兄弟一家和樂成就萱堂金氏八年臥病暫不解衣晝宵侍側親執湯藥省護如一人子之道鑑之行者故社團法人大韓法友會社團法人靑南老人會漆原尹氏宗親會孝子表彰受賞恒時接人以禮守身以義道德倫理先驅者言行一致垂範者亦有愛國之心潛在祖國統一念願未遂自身臨終感知先生大韓民國萬歲十餘唱最終遺言西紀一九九一年辛未十一月二日陰九月二十六日永眠其忠孝高貴精神卓越行實不讃揚墓靑南年泉丙里沙鷗所先考墓階下癸坐配仁川李氏無后早逝繼配安東金氏心性溫和承順君子宗族鄕鄰咸稱其德有三男二女鍾實鍾益鍾采婿李榮術崔順天門下生金志榮田東鎭金洪鍍金三濟甫鄙老尋訪行狀提示門徒一同師恩報答追慕碑建立紀事銘刻永世保傳誠金收合壯圖計劃雖拙手師父崇拜誠意感動行狀依據碑文記述噫先生殞歿其嘉言善行百世師表追慕碑美風良俗懿範後日師弟之間警世通例

서울敎育大學敎授 韓泰相 謹識

晉州后人蘇憲永 謹書

門下生一同 建立

西紀一九九二年二月 日

만력22년 갑자(1594년) 5월 일

(3) 상소문

① 정평유생 원유상소(휘 탁연) 대언공후

상소하여 말합니다。 대저 감사인 윤탁연은 넓고 큰 도량이 있고 공정하고 현명한 재량이 있어서 흩어져 있는 민심을 수습하였으며 전후에 걸쳐 적군의 목을 베어 바친 것이 수천명이나 아군은 칼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으며 넘치는 은혜를 국민들이 다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적군이 물러간 후로도 남은 백성을 살리고 폐습을 버릴 사유와 백성을 구제하고 적군을 억제할 대책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헤아려 널리 묻고 널리 찾아 끝까지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며 농사짓는 일도 날마다 정해진대로 이루어놓고 진대의 정책을 멀고 가까운 곳에 시행하였읍니다。 주민의 안녕과 위험이 감사가 한번 가느냐 오느냐하는 것에 매여 있는데 다만 걱정은 그의 임기가 한계가 있고 설사 북방 국민이 복이 없다고 하여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명령에 있나니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아기가 젖을 잃은 것이니 어찌 이게 북방 국민의 큰 불행이 아니겠읍니까? 엎드려 소원하건대 현명하신 임금께서는 윤감사의 유임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주시어 착한 정치를 하고 있는 감사를 전근시키지 마시어 소원하는 하천한 무리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면 먼지방 국민들은 행복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이를 것입니다。

① 定平儒生願留上疏(諱 卓然) 代言公后

疏辭 大概監司尹卓然 寛弘有量 公明有器而收拾散亡人心 前後獻馘 千餘級 兵不血刃 使豐沛 肅淸則其忠義功勳 民爾具瞻 而況自賊退之後 蘇殘袪弊之由 拯民制賊之策 晝思夜度 廣問博訪 靡不用極 耕農之事 日就條緖 賑貸之政 行於遠近 黎庶安危 係於方伯之一去一來而第念瓜期有限 遆代無常 脫有北民無祿 經邦有命則鎖鑰無人 赤子失乳 豈非此北民之大不幸也 伏願聖明 俯從借寇之懇 勿遷善政監司 使詠願鼠之輩 爲歌 鴻鴈之民 不勝幸甚云云

萬曆 二十二年 五月 日

◇

② 인제공상소(휘 상) 대언공후

선비인 신하 윤상은 진실로 황공하고 진실로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삼가 백번 절하고 인륜을 바로잡아 지극을 세우고 성대한 덕과 넓은 업을 세운 주상전하에게 말씀을 올리옵니다。 소신은 엎드려 생각하오니 우리나라는 운수가 열린 이후로 여러 성군이 전승되어 일찌기 청백을 장려하고 절약과 검소를 높혀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아니한 적이 없으며 오직 포상하지 않으면 또 하명하여 서책에 써놓고 서책에 써놓지 아니하였으면 또 하명하여 그의 자손을 기록하여 당시

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감동되어 홍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며 후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앙되어 분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 그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덕행을 떨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성종대왕 조정에 이르러 더욱 뜻을 밝힐수 있었는데 그때에 죽은 신하가 있으니 홍문관직제학으로 이조참판에 추증된 석보라는 사람은 청백리로 선록이 되어 특별한 후대를 받았으며 청백한 관리임을 역력히 밝혀 그 장도가 바야흐로 펼쳐지려는데 마침내 연산군의 화를 입어 결국은 크게 등용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석보는 맨처음 풍기군수로 나가 관리를 다스림은 청렴으로 하고 국민을 대하기는 사랑으로 하며 검소로 풍속을 높이고 검약으로 몸을 가져 관청에서 거느리고 있는 자를 일인의 하인과 일인의 하녀만 있게 하고 본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해서지방 풍덕촌 시골집에 남겨두고 있어 그의 처자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서 집안에 전해오던 비단 한필을 한이랑의 밭과 바꾸었는데 석보가 군청에 있으며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편지를 보내어 그 밭을 돌려주라며 말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한자의 땅도 넓히지 아니하고도 그 임금을 저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나는 이미 군수로 종사하는 몸이라 임금의 밥을 먹으면서 땅과 집을 가지면 되겠는가 하였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백성과 더불어 매매를 한 것은 나의 죄가 무거우니라 하니 아내는 부득이하여 그 밭을 전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한가지 일이지만 평생동안 쌓아놓은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소신은 석보에게 4대 손자가 됩니다。환란으로 이산된 이후로 그의 가죽옷까지 모두 잃어 자손이 된 사람이면 당연히 외우고 가슴에 간직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어 선조를 위하는 도리를 잃지 아니하여야 겠습니다。석보가 군수직을 떠난 후에 군민들이 그의 덕행을 사랑하고 차마 잊지를 못하여 군청앞 거리에 비석을 세워 글씨에 말하기를 청백리 윤석보의 비석이라 하였습니다。조정에서 그 덕을 기리고 사관이 그 일을 크게 나타내어 밝히니 여러책과 문서에 청백리윤석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석보의 아들 풍형이 있으니 바로 소신의 증조부입니다。마음이 청순하고 소박하여 그 가풍을 계승하였고 표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들어가 오래동안 홍문관부제학을 하였는데 김안로에게 배척을 당하여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으며 그가 죽어서는 특별히 부의와 제사를 하사하여 총애를 하였으니 대개 그 사람의 행동과 관리생활에서 백성을 위하여 일한 것은 모두가 가정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며 또 유훈으로 책을 지어 자손을 가르치되 일찌기 청백。근신。청렴。결백이 아닌것이 없어 선조를 욕보이지 말라고 간절하게 말을 하니 그

아름다운 덕행이 집에 법이 되고 그리고 자손에게 전해진 것은 그런것들 뿐입니다.

아 국가 운수가 중도에 비색하게 되어 왜적이 외침을 하여 군사전쟁 이후에 모든 서적이 함께 망실되고 남겨놓은 덕행도 겨우 세상에 보존된 것은 모두가 입과 귀로 전해오는 것에서 나온 것이며 믿을 수 있는 기록의 책은 없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혹 어떤 것은 선세에 남겨놓은 덕업들을 당시인들이 전승하여 후인들이 사모하고 있으나 그 써놓은 것과 써놓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논란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하물며 선조의 사적들은 우리 성종대왕이 특별히 장려한 것에서 나왔으니 어찌 자취없이 사라짐에 이르러 전승이 없겠습니까? 지금은 원수와 적이 물러가 나라가 다시 이루어져 바로 만물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는 때이며 선대의 청백리를 추모하야 후일에 청렴한 것을 세우도록 장려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것이니 엎드려 소원컨대 굽어 소신을 살펴주시면 어찌 넓은 정치 초기의 지성이 아니겠습니까? 소신의 할애비 석보로 하여금 다시 포상과 선양을 얻으면 선대 조정의 청백리 장려하는 도에 더욱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선대의 신하인 석보의 청렴결백한 것이 소명하게 성주의 명관록 속에 기재되고 중조할애비 풍형이도 역시 청렴하고 절약으로 스스로 힘쓰고 있어서 자손들이 살아갈 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집안이 궁색하지만 오직 많은 책때문에 한양의 시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애석하게도 난리때에 망실되어 거의 없어져 보존된 것은 오직 새로 발행한 신증여지승람 전질 23권 뿐이니 이것만이 실로 소신의 집안의 재산이지만 이제 글을 올리는 날을 당하여 감히 저의 소유로 아니하고 감히 이 책을 헌납하오니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여러가지 정치하시는 틈에 독서의 시간을 내시어 전성시대의 국경도 보시고 강산이 옛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사 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상 국토를 넓힐 것을 생각하시며 안으로 수행하고 밖으로 제거하여 옛날을 회복하고 빛내면 주나라 선왕과 한나라 무제같이 되어 그 홍망성쇠와 평화의 도에 역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신은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과 지극함을 가눌길 없어 삼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만력 27년(1599년) 2월 일에 상소문으로 올리오니 신하들과 상의하여 조목을 알려 말씀하시되 청백리의 기록 문서들은 이미 왜란중에 잃었으나 그러나 선대조종의 조정부터 내려오는 각자 전기가 있으니 우선 윤석보부터 시정하시면 어찌 혼자만의 포상이 되겠습니까? 그 명신들을 찾아서 전후의 청백을 기록하여 주고 아울러 문서로 만들어 후세인을 장려하시고 다시 법률에 의거하여 자손들까지 기록하도록 받아 주심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기록에 말하기를 윤허하였다고 하였다.

청백리의 자손들은 일찌기 기록한 법전이 있었으나 폐지된지 오래이다。 이때부터 후로는 기록하여 놓도록 하명하여 공의 현손자 되는 상이가 비로서 은총을 받아 당년 초여름에 군자감찬봉을 제수받고 홍문관으로부터 여지승람전질을 환수하였다。

② 麟蹄公上疏(諱 祥) 代言公后

幼學臣尹祥 誠惶誠恐 頓首頓首 謹百拜上言于正倫立極盛德洪烈 主上殿下 臣 伏以我 國家開運以來 列聖承相未嘗不以勵清白崇節儉 爲先務 不惟褒之以賞典 而又 命之 書之於策 不惟書之於策 又命之 錄其子孫 使當世之見者 莫不觀感而興起 使後世之聞者 莫不激昂而奮發 其扶持名檢 振勵清芬者 至矣 至于 成廟朝 尤致意焉 其時 有先臣 以弘文舘直提學 贈吏曹參判碩輔 以清白 被選 遇眷特厚 歷揚清顯 長途方聘 而適被燕山之禍 竟不至大用焉 碩輔 初守豐基郡 莅官以清 臨民以愛 儉以尊俗 約以持身 衙中所率 一奴一婢 留其妻子于海西之豐德村廬 其妻子苦其飢寒 無以自賴則賣其家傳段衣一領 換置一畝之田 碩輔 在郡聞之 走書于家 令退其田曰古人 有不廣尺土之地以負其主者 今我 旣從大夫之後 食君之食而使之置田宅可乎 其母 以與民買賣 重我之罪戾也 妻不得已 還其田于其主 此雖一事而平生 所蘊蓄 槩可知矣 臣 於碩輔 爲四世孫也 亂離以來 蕩失其裘 爲子孫者 當誦而服膺之無泯滅者玆不失爲子爲孫 爲先祖之道也 碩輔去郡之後 郡人愛其德而不忍忘也 則立石于康衢而 書之曰 清白吏尹碩輔之碑 朝家褒其德而旌異則太史氏又能張大其事 屢書曰特書曰清白吏碩輔而有傳 碩輔之子有 曰豐亨 卽臣 曾祖也 一心清素 以世其家 及正色立朝 久爲玉堂之長 爲安老所斥 出監江原道觀察使 其亡也 特賜賻祭以異寵之 盖其行已居官 爲世服者 皆出於家庭之訓也 又著爲遺戒一書 以訓子孫 未嘗不以清謹廉白 不辱先人 懇懇爲言 其清德之刑于家而傳之子者然也 嗚呼 國運 中否 島夷外侵 兵火之餘 典籍 俱亡 遺德之僅存於世者 皆出於口耳之傳而無信筆之書 豈不痛哉 豈不惜哉 或者 以爲前世之遺德業者 時人傳之 後人慕之 其書與不書 固不足論也 況臣 先祖之事出於我 成廟之特奬 豈至泯滅而無傳哉 今者 讐賊 退遁邦國 再造 正當與物更始之秋 追崇先代之清白 以勵後日之廉立者 機關也伏願殿下 俯察臣之 豈非重恢初政之懇使臣 祖碩輔 復得褒揚則於先朝崇奬清白之道 尤有光焉先臣碩輔 廉明 昭載於星州名宦之中 曾祖豐亨 亦以清節自勵 不爲子孫立產業故 家勢窮寒 惟以多書 名於洛中 惜乎 奔竄之際 散失殆盡 所存者 惟新增輿地勝覽全帙二十三卷 此 實臣家之青氈也 當此講書之日 不敢自私 敢以此爲獻 伏惟 殿下 萬機之暇 庶賜乙覽 覽全盛之幅員 痛山河之非舊 感興廢靡 常念疆土之一闢 內修外攘 光復舊物如周宣王 漢武帝則其於興衰撥亂之道 亦不無少補云爾 臣無任祈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萬曆二十七年己亥二月日 疏奏 啓 下議大臣啓目 曰清白吏 簿籍 已失於兵火之

中 然自祖宗朝以來 各有其傳 先正臣尹碩輔 豈獨褒揚 考其名宦 錄前後淸白 並爲書籍 以奬後人 復依法典 錄用子孫 即奉承 如何 傳曰允(淸白吏 子孫 曾有錄用之典而廢闕 久矣 自以此後 命錄用而公之玄孫 祥 始蒙 恩除 是年初夏 授軍資監參奉 自弘文舘 收入輿地勝覽全帙

◇

③ 진시폐 22조 상소(휘 수연) 대언공후

사맹 벼슬을 하고 있는 소신 윤수연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오니 소신은 늙고 옹졸한데도 부모의 덕으로 벼슬한 사람입니다. 외람되게 관을 쓰고 다니는 서열에 오르고 여러차례 지방군수를 하였지만 티끌만큼도 공로가 없어 천지간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소신도 목석이 아닌데 어찌하여 충성을 다하고저하는 마음이 없겠읍니까? 하물며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죽이 남아있지 아니한데 털이 어디에 붙어 있으랴 하였습니다. 나라가 있은 연후에 집안이 있고 집안이 있은 연후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나라 처녀들은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노나라의 환난을 근심하였고 주나라 처녀들은 자기 일신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나라가 망하는 것을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설혹 소신이 임금님의 끝없는 은총을 입는 것을 잊지않는다면 비록 집안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지만 나라를 근심하는 것이니 그 나라 근심하는 성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집안만 위하고 그리고 자신만 위하는 사심은 용서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한가지 정성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집안도 잊고 자신도 잊어가며 나라를 근심하는 충신과 의사들이 하루도 안되어 우루루 오게 될 것입니다.

삼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권의 책에 진술하고 그리고 주지번이가 써놓은 무망임계라는 네글자와 주봉길이 편찬한 목민심감이란 책을 받쳐 올리오니 엎드려 소원하건데 사람때문에 각하 시키지 마소서! 소신은 조심스럽고 두려우며 격앙되고 간절함이 지극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조 종묘와 사직의 대제시에 초헌관은 1품급 대신중에서 지정하여 정하되 왕명을 받아 엄숙히 행하라는 사안과 각제사때에 헌관과 집사들은 이조와 예조에 상의하여 선택한 것을 장계를 올려 돌려가며 지정하라는 사안과 제사에 쓰는 물건과 제사에 쓰는 그릇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아니한 것은 현관이 살펴보고 장계를 올리라는 사안과 관리들이 경비하는 것과 제사를 감시하는 관리들이 안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안입니다.

제2조 무신들이라도 당상관이면 삼공과 양사와 육조와 비변사들과 같이 상의하게하고 당하관이면 비변사와 병조에서 같이 상의하여 그 재능을 시험하여보고 그 몸과 말씨와 글씨와 문리력을 관찰하

여 두루 점검하여 차례를 정하되 장계를 올려 선택하여 등용하라는 사안과 재능이 없어도 적자들로서 충의 한 사람이면 심사에 들이지 말고 사용벼슬을 주고 재능이 있으면 중서자라고 논의하지 말고 시험보아 등용하여 녹봉을 주도록 심사에 합격시키라는 사안과 활 잘쏘는 군사와 포잘쏘는 관리와 방패가진 군졸과 대나무창이나 등나무방패 든 사람들은 모두 품계를 주고 양반 및 서얼자와 양민들 중에 공사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과 백정들은 모두 재능을 시험하여 녹봉을 주라는 사안과 재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면 정규군으로 선정하여 군장비를 주되 다만 삼지창과 칼을 차게하여 입대시키라는 사안과 노약자로 만일 기술이 있는 여러사람들은 긴요하지 아니한 군내일을 선정하여 주고 기타는 모두들 쌀과 포목을 거두는 일을 시키고 군내에 있는 하인 파졸 사령등은 돈을 주고 쓰더라도 재능을 시험하여 보고 군사들을 대우하는 녹봉은 우대하여 주라는 사안과 한가하게 살면서 건강한 노예로 대리하고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하여 주라는 사안과 훈련원 군기시 군자감 주사들은 훈련도감과 합하게 하라는 사안과 팔도지방을 오장으로 나누어 항상 정해주고 방어사 다섯사람을 정하고 모두 천명으로 하되 열사람이 때때로 순찰하라는 사안과 궁궐 동서문 밖에다가 장대한 행랑을 나열하여 지어 군대의 주둔지로 삼으라는 사안과 사직이상의 교체는 나누어 사용으로 삼고 문관과 만기된 군수와 변장으로 직책과 월급이 없는 사람들은 균일하게 주라는 사안입니다。

제3조 기이한 모사와 좋은 계책은 적군의 동정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여기지 말라는 사안과 산과 물이 막고 있어 산성이 있는 곳에는 모두 큰 진영을 설치하라는 사안과 북방의 여섯곳 진영과 서도의 일곱곳 읍들은 국가의 울타리이니 보통 일들도 특별하게 조치하라는 사안입니다。

제4조 강화도는 중국의 남경의례에 따라 보장하는 조치를 하라는 사안과 강화의 말 훈련장을 국민이 농사를 지어 먹도록 허락하라는 사안과 두세곳 이웃 군읍과 강화도를 개성부와 합병하여 당상관과 낭청 두직원을 두어 녹봉을 주되 한사람 직원은 무반에서 부임시키어 무기를 말도록 하라는 사안입니다。

제5조 군수직은 매우 소중하오니 매년마다 참하급 문관으로 몰래 왕래하며 항상 듣고 본 일들을 일일히 기록하여 장계로 올리라는 사안과 목민심감이란 책을 인쇄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는 사안과 과거시험을 보려면 인명수를 기록하여

장계로 올려 시험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명을 기록하라는 사안과 심사받는 관리가 시험관과 더불어 동시에 명패를 부르면 글씨 쓴 사람이 바꾸워져 역시 동시에 들어가게 되니 집안편지와 국가의 통보를 출입할 수 없게 하라는 사안과 시험관이 시험문제를 낸 후에는 그자리를 피하여 별청에 앉아 있게하고 감시관리는 사관등에서 감시하라는 사안과 글씨를 쓴 사람의 성명을 바꾸어서 단지 본고에만 쓰게 하라는 사안입니다。

제6조 선혜청은 존엄한 곳이 되니 오로지 편하고 편하지 아니한 것을 지휘하고 옳고 그름을 찾아보고 간사하고 거짓말 하는 것을 적발하여 원통하게 그릇친 일이 없도록 하여 지극한 은혜를 선포할 뿐이니 상하가 받들어 밑에서도 행하여 되와 자등을 근신하여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사안과 선혜청이 설립된 후로는 국민들이 모두들 살아갈 도리로 바라볼 것이니 팔도내에 다같이 설립하라는 사안입니다。

제7조 재앙으로 상해받은 고을에 경차관(임시관리)을 보내어 둔전 감목관들을 파면시키지 말라는 사안과 묶어있는 토지를 전후의 계획을 세워 모두 불을 놓아 세금받은 5년후에는 계획을 세워 나누어 주라는 사안과 크고 작은 배의 척수는 책으로 만들어 놓고 화인 즉 도장을 불에 달구어 표시하라는 사안입니다。

제8조 군과 현을 크게 합하여 주로 만들어 목사로 부임시키고 작은곳은 부로 만들어 부사로 부임시키고 각각 하급관 두사람 직원을 부임시키되 한사람 직원은 무반으로 부임시키어 오로지 무기를 담당하게 하되 개성부 의례를 따라 녹봉을 주라는 사안입니다。

제9조 매년 연말에는 의정부와 육조와 각사의 제조가 선혜청에서 회의하여 감제자와 무역자와 매입자와 쌀을 만드는 사람들이 편의따라 정하는 것을 박탈하라는 사안과 호조에 낭관급 두사람 직원을 더 두어 각자 네곳으로 나누어 비용과 회계를 맡게하고 나누어 맡지 못하도록 하라는 사안입니다。

제10조 도감이나 상사에게 책망을 받은 각사의 각관들은 선혜청 방문을 일체히 금지시키라는 사안입니다。

제11조 부상을 입히거나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사적으로 화해할 수가 없다는 사안과 공사가 아니면 명패를 내놓고 사람을 구금할 수가 없고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날마다 장계를 올려 법사에 하명하여 5、6명씩 선출하여 조사하여 억울한 것을 풀어주라는 사안과 비록 강도

로 두번이상 범죄한 연후에 교살하는 것인데 지금은 죄에 관계없이 역시 형을 주어 불안하다는 사안입니다。

제12조 각도감에서는 받아들이고 사용한 물건들을 일일이 계산하여 장계로 올리라는 사안과 사용금지 물건을 차례로 목록에 적어 장계로 올리고 팔도로 옮기어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을 독촉하라는 사안과 서북도에서 수납하는 인원은 다같이 말을 주지 말라는 사안과 탐욕하는 풍속이 크게 일어나 사치가 날로 극성하여 편안하지 못하다는 사안입니다。

제13조 크고 작은 집을 수리하는 것을 일제히 정지시키고 각관청과 각사의 사대부가들이 법제에 지나친 집을 짓는것을 일제히 금지시키라는 사안과 상평창을 설립하라는 사안과 도로가 궁벽한 지방의 크고 작은일 처리는 원곡의 3、4만석의 세금과 관계없이 쌀로 된 것을 가려내고 혹 여유가 있으면 각관리들은 회계에 시행을 옮겨 예비의 곡식으로 원곡을 절약하면 기록에서 빼지 말라는 사안입니다。

제14조 명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에는 각도의 논밭에서 균등하게 쌀과 베를 거두는데 도사로 감독케 하고 차사로 나가는 직원은 군수중에서 2、3명을 가려내어 비용을 부담케 하되 차사의 직원들을 똑같이 조치하라는 사안과 각관리들이 사용하는 말은 군인말 가격으로 모아 선혜청에서는 검열하여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사안과 각관청과 각사에서는 각자들 기록문서를 가져다가 점검하여 개정하라는 사안입니다。

제15조 향교는 상중하로 세채의 재사를 지어 선생을 선발하여 소학생에게는 삼강과 충효행실도를 인쇄하여 주라는 사안입니다。

제16조 감사와 군수를 선정하면 사명과 관계없으면 보내지 말고 긴급하지 아니한 차사직원은 선정하지 말라는 사안입니다。

제17조 궁중이 엄하지 아니하다는 사안과 군의 분배가 공정하지 아니하고 군의 행정이 해이하다는 사안과 군사들이 고생하는 댓가를 첫째로 삼아 6량1시의 시험을 중지하고 한번에 보수를 계산하여 고생하는 것을 정하라는 사안과 나이가 15세 미만에 군인을 시키는 것과 나이가 60세가 지났는데도 은퇴시키지 아니한 군수들과 토색질하는 아전들은 죄인으로 다스리라는 사안입니다。

제18조 대전을 강론하라는 사안과 지방군수들이 탐욕을 부리고 국민에게 포악하는 사람은 의법조치하고 소문만 듣고 탄핵하지 말라는 사안입니다。

제19조 파주 장단 고양군은 바로 서울의 기본이 되는 곳이니 각별히 잘 보호하라는 사안입니다。

제20조 장계로 들어온 공사는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의 여론이 있으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사안과 대전에 의거하여 무당 승려 부처를 숭배하는 선비들은 도성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불공드리고 거리제 지내고 산신제 기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시키라는 사안입니다.

제21조 임진계사년 난을 잊지 말라는 네글자를 간판에 새겨 벽에 걸어 놓고 밥먹고 잠잘때마다 잊지 말게 하라는 사안입니다.

제22조 옛날부터 간관의 말은 정도에 지나치게 되어도 임금이란 보통때 마음으로 듣기를 좋아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인 연후에 말할 기회를 열어주면 국가가 다스려지고 성문이 이미 닫힌 후에는 말할 기회를 비록 열어 놓아도 따라갈 길이 없다는 사안입니다.

③ 陳時弊二十二條上疏(諱粹然)

行司猛臣尹粹然伏以小臣殘拙一蔭官也至於濫冒貂班屢忝州府絲毫無效愧負天地臣非木石豈無犬馬之心乎况古人有言曰皮之不存毛將焉付有國然後有家有家然後有身故昔者魯女猶未嫁而憂魯之患周女不恤緯而憂周之殞設或小臣無狀忘 君父罔極之恩而雖爲家爲身而憂國其憂國之誠則一也若恕其爲家爲身之私而只納其憂國之一誠則忘其家忘其

身憂國之忠臣義士于于焉將不日而至矣謹以耳所聞目所見心所懷者條陳一册而朱之蕃所書無忘壬癸四字及朱逢吉所編牧民心鑑一册封進伏願 殿下勿以人而却之也臣無任兢惶激切之至謹昧死以 聞

第一條 宗廟社稷大祭初獻官一品大臣中落點差定奉 命肅拜事 各祭獻官執事吏禮曹同議抄擇入啓輪回差定事 祭物祭器精不精獻官奉審入啓事 官衛令及祭監書吏未安事

第二條 武臣堂上則三公兩司六曹備邊事同議堂下則備邊司兵曹同議試其各才觀其身言書判圈點分秩入啓擇用事 無才嫡長忠義勿入番例付司勇有才者則勿論衆子試用付祿入番事 能射軍士善砲哨官外彭排隊卒筤筅藤牌皆除之士族及庶孼良民公私賤才人白丁等皆試才付祿事 無才壯健者正兵差定除軍裝只持三枝鎗佩劒入番事 老弱則如匠人諸員不緊軍差定餘皆收米布而役使軍卑隸羅將使令等雇立試才軍士處給祿給料事 欲爲閑遊而以壯實奴願代者許之事 訓鍊院軍器寺軍資監舟師合于訓鍊都監事 八道分于五掌常定防禦使五員千摠十員時時巡檢事 闕東西門外列造長廊爲軍營事 司直以上遞兒分作司勇文官及箇滿守令邊將無職祿者均付事

第三條 奇謀良策外彼敵之動靜則勿爲秘密事 阻山河有山城處皆設巨鎭事 北方六鎭西道七邑乃 國家藩籬也 凡事別樣處置事

第四條 江都依上國南京例爲保障措處事 江都馬場許民耕食事 數三鄰邑與江都合並依開城府例置堂上郎廳二員給祿郎廳一員則以武班差之兼掌武備事

第五條 守令甚重每季以叅下文官稱暗行出入無常凡聞見之事一一謄錄入 啓事 牧民心鑑印出頒布事 科擧時錄名數入 啓使不得爲入門錄名事 捜査同官與試官一時牌招易書人亦一時入之凡家書朝報毋得出入事 試官出題後避坐別廳使監試官四館等監製事 易書人姓名只書於本草事

第六條 以宣惠廳爲尊嚴之地但當指揮便否檢擧是非摘發奸僞俾無寃枉宣布至惠而巳捧上上下行下細項升尺等事則愼勿干涉事 宣惠廳設立之後民皆望可生之道八道並爲設立事

第七條 勿遣灾傷敬差官屯田監牧官革罷事 陳地前後立案皆燒之納稅五年然後立案成給事大小船隻成册踏火印事

第八條 合郡縣大者爲州差牧使小者爲府差府使 各差下官二員而一員則以武班差之專掌武備依開城府例給祿事

第九條 每年終議政府六曹各司提調宣惠廳會議減除者留易和賣者作米者從便定奪事 戶曹郎官加設二員各司分于四掌經費會計勿使分掌事

第十條 都監上司之侵責各司各官者宣惠廳訪問一切禁斷事

第十一條 有傷處殺人毋得私和事 非公事毋得出牌直囚者凡獄囚勿論大小逐日入啓下于法司抽拄五六名推閱解寃事 雖强盜再犯然後處絞而今則不關之罪亦爲刑推未安事

第十二條 各都監所納所用之物一一會計入啓事 凡所禁之物列錄名目入啓行移八道逐日捉納事 西北道受由人員並勿給馬事 貪風大振奢侈日極未安事

第十三條 大小營繕一切停罷各官各司士大夫家舍過制造成一切禁斷事 常平倉設立事 路傍僻邑大小處分揀元穀三四萬間或不關貢物作米或有裕各官移轉會計施行以備耗之穀節用元穀則勿爲減錄事

第十四條 天使時以各道田結均收米布以都事爲都差使員各站擇守令二三爲支待差使員一樣措備事 各官刷馬自募軍價宣惠廳檢擧毋得虛費事 各官各司各站謄錄取來改正事

第十五條 鄕校設上中下三齋擇訓導小學三綱二倫行實印出事

第十六條 擇定監司守令不關使命勿送不緊差使員勿定事

第十七條 宮闈不嚴事 分軍不正軍政解弛事軍士苦歇價爲先革罷試六兩一矢計步數定苦歇事 年未十五定役年過六十不爲老除守令色吏治罪事

第十八條 大典講論事 依法外官貪汚虐民外勿許風聞擧劾事

第十九條 坡州長湍高陽乃畿甸根本之地各別優護事

第二十條 入啓公事勿爲積滯人有言則雖小勿憚改焉事 依大典巫覡僧尼居士使不得接跡都城內外供佛野祭禱堂遠山等事令法司禁斷事

第二十一條 毋忘壬癸四字刻板掛諸壁上一匙一枕念念不忘事

第二十二條 自古諫官之言例爲過中人主平心喜聞而嘉納然後言路開而國家治城門旣閉之後

◇

④ 진민마상소(휘 복원) 대언공후

엎드려 생각하오니 소신은 개미같은 하천한 몸으로 외람되게 큰 은혜를 입어 여러차례 군수의 책임을 받으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코저 하였는데 재능은 적고 힘은 미약하여 조금도 도움이 없어 늘상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지가 오래입니다。지금 임실현감으로 와서 국민의 고통을 눈으로 보니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일부러 버리고 그중에서 큰것만 골라 말하겠습니다。임실은 현읍관내가 궁벽한 산골중에서도 쇠잔한 골입니다。백성이 의지하고 살것은 오로지 화전곡식인데 밭을 헤아릴때 물론 산간의 작은 밭도 해당관청에 나누워놓고 감영에서 부과하는 것을 한결같이 계산하여 마지기 수자대로 따르고 있습니다。산전이라는 것은 깊은 산중 계곡속에 있고 혹은 금년에 개간하였다가 내년이면 묵게되고 혹은 금년에는 묵었다가 내년에 개간하는데 본래 정한 마지기 수량을 받쳐도 해당 관청은 묵히고 개간한 것은 따지지 아니하고 수량대로 본관에 배정하고 바로 해당 관리들이 배정한 것을 독촉하여 징수하니 그 토지에서 나온것을 다 바치고 그 집안의 수입을 다 바쳐도 일년 세금을 내기에도 부족합니다。슬프도다 우리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리오。지난 계축년에는 이곳 임실군 주민들은 묵은 밭 세금에 곤욕을 당하여 한때 백성이 흩어져 바로 버려진 고을이 되었다고 합니다。아! 고을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심인데 묘소와 밭과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이사다니는 것은 가히 애석할 뿐이요 죄 줄수 없습니다。그때에 조정에서 특별히 현감으로 원탁을 보내어 위로하게 하였는데 원탁이 현감으로 부임한 후로 한결같이 무마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이산한 국민을 불러 모으고 상소문을 진술하는 때에 이르러서 영원히 밭을 헤아리는 법을 개혁하여 개간한 곳에서만 세금을 거두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한 후로는 유랑하던 사람들이 돌아와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편안히 할 수가 있어 다시 완전한 고을이 되었습니다。아! 밭 한결을 잃어도 한 아이만 얻으면 이것이 왕도정치에 해롭지 아니하거늘 작년같이 크게 움직임이 없던것은 옛날에도 드문 일 이었습니다。이 지방 백성들이 사방으로 가서 죽지 않고 이사온 것을 전라도 감사가 눈으로 보고 불쌍하게 여기었던 것은

이미 지난해에 다 올렸으며 열다섯 지방의 피해를 아뢰면 고아 홀애비 배고픈 현상이니 소신의 말을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후일에 알 것입니다。 흉년이 들은 후에는 농사를 짓고져 하여도 밭갈이 할 소가 없고 씨를 뿌리려하여도 종자가 없어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 겨우 종자는 뿌려도 논밭에 점심을 내가지 못하고 그들이 서쪽 들로만 가서 살려고하여 호미들고 다니는 국민이 끊어졌으니 가을이 온들 국민의 사정은 역시 상상이 됩니다。 아! 밭을 계량하던 초기에 현감을 한 사람은 나라에 법만 두려워서 비록 높은 산 깊은 계곡에 있는것까지 한치땅도 빼놓지 아니하고 개간하는 것만 능사로 여기고 모두 토지로 기재하여 지금은 사는 국민이 드물게 되고 토지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좋은 논과 밭만 찾아도 부족한 것은 근심이 아니되니 왜 하필 높은 산 깊은 계곡을 택하겠습니까? 밭으로 기재하여 수입하던 산전들은 묵어 버려져 있는 것중에 반이상은 수목의 숲이 되었습니다。

소신이 직접 논밭의 사이를 다니며 살펴보고 논밭의 주인으로 물어보니 초목이 있는 곳을 가르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누구네 밭이었고、 자갈깔린 곳을 가르키며 말하기를 이곳이 누구네 논입니다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만일 정축년 같이 밭 마지기 수만 계산하면 바로 옛날이 되어 밭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고 마지기가 없어도 부역을 나가게 되니 고금천하에 어디가 밭이 없는데 세금을 내며 마지기가 없는데 부역을 냅니까? 항차 우리나라의 법은 산악지방 고을은 개간조건에 따라 세금받는 선례가 있어 산악지방 주민들이 안도를 얻는 것은 이런 법에 힘을 입기 때문입니다。 임실현은 산은 많고 농지는 좁으며 물논은 매우 적어 산악골이라고 하지 비옥한 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기름진 물논이 있는 골과 더불어 비교하여 같이 한다면 또한 억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전일에 국민들이 이산하는 환난이 있던것은 이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관청에서는 반드시 사소한 밭 마지기라고 하며 감해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시의 상소로 여기고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소신도 역시 말하지 않고 그저 백성이 있은 연후에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은 연후에 세금이 나오니 백성이 바로 세금의 근본이니 백성이 만일 또다시 이산한다면 밭과 마지기에서 부세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소신이 근심하는 것은 밭과 마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잃는 대신 차라리 밭과 마지기를 잃겠습니다。 엎드려 소원하건데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주소서。 아… 세상이 이미 말세입니다。 인심은 옛날같지 아니하여 현감 한사람이 민폐를 상소하면 반드시 백성의 눈에 명예를 요구하는 현감으로 여기니 이런 명예가 서는것을 싫어하여 묵묵히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신은 이런 혐의를 피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상소나 올린다고 남들

이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모면 하겠습니까? 전하 만일에 소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거든 전라감사에게 물어보시고 특별히 개간지에 따라 세금을 받으라고 하명을 내리시면 이 작은 지방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니 특히 백성의 행복만이 아니고 역시 국가의 다행일 것입니다。 소신은 전하께서 반드시 소신의 직위가 낮다고 믿고 들어주시지 아니 할 것이며、 조정에서도 반드시 소신의 말이 하천하다하여 채택하여 시행하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구구하게 나라를 근심하는 염려를 스스로 그치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임실현감 윤복원 소

④ 陳民瘼上疏(諱 復元) 仁祖己卯在壬實縣時

伏以臣以螻蟻賤質濫蒙　鴻恩屢叨字牧之任思欲竭其心力以報萬一而才踈力微無補涓埃常自耿耿于中者久矣今者身莅本邑目擊民瘼可言者多矣而姑舍是撮其中大者而言之任之爲縣窮峽中一殘邑也民之所賴以生者只山田火粟而量田之時勿論山田片片之地皆入於量案中該曺分定監營差役則一從量案之結數焉所謂山田則在於深山窮谷中或有今年起而明年陳者或有今年陳而明年起者而一入於元結之數則該曺勿論陳起而以量數分定本官仍該曺分定而督徵之竭其地之出殫其廬之入不足以應一年之役哀我蒼生于何從祿徃在癸丑年間本縣之民困於陳結之役一時潰散將爲廢邑嗚呼安土重遷乃人之常情棄墳墓田宅而轉徙者其情可謂戚矣而不可罪也其時自　朝廷特遣縣監元鐸以慰之元鐸到官之後一以撫摩爲心革袪奬政召集散民至於陳疏永革量田之規以隨起收稅爲式自此之後流者還集貧者安業復爲一完邑嗚呼失一田結而得一赤子抑亦不害於　王政昨年大無振古所罕本邑之民散而之四不死則徙本道方伯所目覩而惻然者也己盡於上年十五邑被灾之啓則孤鰥飢饉之狀不待臣言而後知之也失稔之後民產蕩竭欲耕則無牛欲播則無種東貸西乞僅能播穀而南畝無饁彼之資西疇絕荷鋤之氓秋來民事亦可想矣嗚呼當其量田之初爲守令者畏其國法雖在高山深谷不遺寸地一任所起沒數載案今則居民鮮少土地不貴擇其良田美沓不患不足何必於高山深谷乎量田時所入山田荒廢者太半己成林木之藪臣親審田野間問其田結字號則指草樹之處曰是某字田也指沙石之地曰是某字沓也今年若以丁丑年量田結數而仍舊焉則是無田者出稅無結者出役古今天下安有出稅於無田者出役於無結者乎況我國之規山縣則例有隨起收稅之法山縣之民得以安堵者賴此也本縣則山多地狹水田甚少可謂之山縣而不可謂之沃野也若與有膏饒水田之邑比而同之則不亦寃乎自前民有潰散之患者職此之由也該曺必曰些少田結不可減也一時陳疏不可施也云則臣亦無辭第念有民而後有田有田而後有役則民是出役之本也民若潰散則田結之役從何出乎臣之所憂者不在於田結而在於民也與其失民心寧失田結伏願　殿下留念焉嗚呼世己末矣人心不古守令一有爲民弊陳疏者則必以要譽於民目之守令惡此名立視而

含默者多矣臣則不避此嫌妄陳一疏人之云云烏得免乎 殿下若以臣言爲不實則詢諸本道特降隨起收稅之 命使小邑殘民得蒙一分之惠則不獨生民之幸是亦 國家之幸也臣非不知 殿下必以臣爲位卑而不足信聽朝廷必以臣爲言賤而不足採施而區區憂國之念 不能自已謹昧死以聞

壬寅 縣監 尹復元 疏

◇

⑤ 진시폐상소(휘 복원)

엎드려 생각하오니 소신은 인조대왕께서 왕위에 오른 초기에는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외람되게 나라에 은혜를 입어 행운으로 나란히 의관의 서열에서 먹고살고 육품계급을 벗어나 지방군수 책임을 제수하니 재능은 모자라고 힘은 미약하여 물한방울도 도움이 없지만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죽어 후일에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오늘 임금은 욕을 당하고 신하는 죽어야 할 날이 이르렀지만 삶을 도둑질하여 구차하게 살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소신은 진실로 천지간에 자립할 수가 없고 또 한마디 말도 아니하고 죽는다면 전하를 배반하는 것에 가까우며 본심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아! 전하께서 성안을 떠나던 사건은 기세가 약한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다시 거론하지 아니하겠지만 성내를 떠나온 후일을 생각하니 임금이나 신하나 위와 아래가 당연히 마음을 개혁하고 생각을 바꿔서 좋은 뒷날을 계획하여 도모할바인데 오늘날 조정의 기상을 시험하여 보니 행동거지가 전일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소신은 일부러 그 큰것만 들추어 말하겠습니다。 아!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정하지 아니하고 전날과 유사하며 말할 길이 열리지 아니함이 그전과 같으며 군대 정치가 수행되지 아니함이 전과 같으며 기강이 정돈되지 아니함이 전과 같으며 국민의 부역이 고르지 아니함이 전과 같습니다。 아! 이와같은 기상과 이와같은 행동거지로 하면 비록 태평무사한 때라도 오히려 패망할터인데 하물며 오늘같이 큰 난을 당한 후에 있어서야? 아! 전하께서 장막속에 계신지가 몇일이며 그리고 유사들이 국가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아! 미약한 외로운 성이 아침이나 저녁에 함락이 되겠기에 신하가 된 사람으로 의리상 당연히 심장이 썩고 창자가 찢어지도록 삶을 잊고 죽음을 본받음에 틈이 없어야 하는데 사병의 호위받는 장수들은 성위에서 높이 누워있고 성을 지키는 신하들은 기로에서 배회하며 한사람도 남한산성 아래로 달려가 죽은 사람이 없으니 군신간의 의리는 땅을 쓸어보아도 없습니다。 소신이 남모르게 애통하는 것은 소신이 관직에서 은퇴한 후로 농촌에서 숨어있기에 전하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가시며 너무나 급하여 수레를 끄는 사람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거리를 헤매며 죽을 곳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늦게야 듣고 또 종묘 사직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서 쫓아가 겨우 강화

도로 들어갔습니다。 강화도 사건은 소신도 들었기에 청컨대 강화도 사건을 말할까 합니다。 아! 강화도의 실수는 장수와 재상의 실수로 연유되었으니 조치는 군인법률로 처리하여 사형시켜 사면하지 마소서! 그리고 강화도는 사방이 넓은 물가이며 또 성을 쌓놓은 것도 없어 수군이 아니면 방어하기 어려우니 통제사와 각도의 수사들은 종묘사직의 신주와 왕비와 왕손들이 옮겨오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그간의 일자를 말하면 시간이 충분하였는데 쳐다만 보고 구제하지 아니하여 종묘사직의 신주는 오욕을 당하고 왕비와 대군들은 구속을 당하고 남녀들은 사살을 당하는 것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떻게 차마 말을 하리오。 그때에 통제사인 윤숙은 다만 귀양보내어 죽고 기타의 수사들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영의정인 강진기만이 혼자 죽었으니 또한 원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아! 군대는 죽는 곳이라는 것과 사람이면 어느누가 나가면 죽고 후퇴하면 산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생사를 잊고 화살을 무릅쓰는 것은 군법이 있기 때문이지요 군법이 엄하지 아니하면 어느누가 반드시 죽는 곳으로 달려가기 좋아하겠습니까? 아! 군법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것이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무리에게 벌을 더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나라의 법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소신은 후일에 적군을 만나면 이것을 본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많을까봐 두렵습니다。 아! 전하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되면 신하들은 부모처자들을 버리고 난리속에서 호위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신하와 자식의 직분에 당연한 것이며 그리고 그때 말고삐를 잡는 수고와 성을 지킨 공로는 보답하지 아니하면 불가한 것인데 포상받은 말들은 높은 신하에게서만 나오고 포상의 영전은 하급직은 빠져 들판에 뱀 우는소리와 모래판에 사람의 말소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 관직이 있는 사대부들도 역시 원망의 말이 있을것인데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하천한 노예들 무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소신이 듣기로는 어떤 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을 지켰고 지원하여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도 역시 포상받지 아니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은 두가지 전형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성을 지킨 각 지방 장수 관리에게 상을 주는것은 더욱 앞서 할 일이나 한사람도 발탁하여 등용한 사람은 듣지를 못하였으니 어떻게 후일을 권장하고 인심을 격려하겠습니까? 소신이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것입니다。

소신이 엎드려 보니 기평군 유백증의 두번의 상소문은 충직한 말과 올바른 이론이 모두 마음속에서 나와 쟁론이 혹 중도에 지나쳐 있어도 종사와 임금과 백성을 위하지 아니한 것은 없습니다。 어찌 다른 마음을 두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혹시 말로 덤빈 대신을 죄주고 혹시 말이 중도를 지나면 배척하십니까? 아! 전하의 조

정에 있는 신하들이 직접 만나 정직하게 항의하면 벼슬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복종하여 아첨하면 마침내 부귀를 누린다면 관직을 보존하고 부귀를 누리고저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하를 위하여 말 다하기를 좋아하겠습까? 아! 전하께서는 직접 만나 정직하게 항의하는 사람을 간신이라 하겠습니까? 충신이라 하겠습니까? 순종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정직하다고 하겠습니까? 전하의 조정에는 유백증이 혼자있어 그래서 오히려 조정에서 그 움직임을 보지못하고 단지 조정에서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하도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전하는 유백증의 관직을 보존하여 주겠습니까? 부귀자들을 보존해 주겠습니까? 조정의 실수를 사람들은 말하기 어려운바이나 오직 유백증이는 말을 하였고 부귀인에게 덤벼들어 사람들은 논하기 어려우나 오직 유백증이는 논하였으니 유백증이는 역시 봉황새가 아침에 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전하는 또 좌절시키고 배척하였으니 오늘날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며 형이 아우를 훈계하여 눈앞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조차 팔짱끼고 곁에서 바라만보고 좌우의 신하가 입을 다물며 말을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로 전하의 가르침 입니다。아! 전하는 구중궁궐에 깊이 살고 천리나 높은 집에 있으니 조정의 신하가 현명한지 사곡한지와 시대 정치의 득과 실을 누구에게서 들으리오。아! 임금이란 대간의 도를 기다림이 일반 관리와 달리하며 혹 특명으로 교체시키는 것이 있고 관리들을 부임시킬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전하는 대간의 도를 기다리는 것은 적다고 말하겠습니다。지금 유백중이의 한가지 일을 말한다면 파직은 면제시키고 추대는 뒤로하여 하명을 천만번 생각하여 하면 대간의 모습들도 이때부터 뚝 떨어질 것입니다。소신이 속으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전하께서 예전에 역사를 읽어 보면 임금이 바른말 하는 사람을 등용하면 다스려 졌고 아첨하는 말을 가까이하면 어지러워 졌으니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두려워하고 힘쓰지 아니하십니까?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절개와 의리가 있는 선비는 당연히 직접 덤벼 바른말로 중도를 얻는다고 하였는데 전하의 신하들은 한사람도 난리난 날에 죽은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이것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 궁중에서 고기잡고 소금 만드는 많은 혜택까지 법을 세우는 것은 일국의 큰 폐단이 되며 그리고 사간원 사헌부에서 중도에 합당하다고 논하는 것도 오늘날 고칠점입니다。전하는 때로는 멈추어 한달간 연기하며 사당의 소리를 들으소서。전하의 현명하심으로 궁중에서 법안 세운것이 큰 폐단이 됨을 모르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에 그 어려움에 봉착함은 장벽친 것을 넘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아! 국가가 태평하면 궁중에는 비록 고기잡고 소금만드는 큰 혜택이 없어도 가히 그 부를 편안히 누리겠지만 국가가 위태하고 패망하면 비

록 고기잡고 소금만드는 큰 혜택이 있어도 어떻게 쓸수 있으랴? 그 이익과 손해는 하늘과 땅차이뿐이 아닐 것입니다。그런데 전하는 오히려 깨닫지 아니하고 있으니 소신이 말하는 언로가 열리지 아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 청나라가 우리나라와 이미 더불어 화해를 하여 조정에서는 모두들 말하기를 중국의 근심은 이미 근절되어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들하니 이말은 비록 우선 당장에 나온것이나 소신도 역시 그리하다고 하겠습니다。어찌하여 말을 하느냐하면 말하자면 일본 군인이 중국군인보다 배나 강하고 무리도 중국의 배가 되고 무기의 견고도 중국의 배이며 기술의 정교도 중국의 배인데 만일 우리의 허술한 틈을 타고 배 돛대를 올리면 우리나라 병력과 우리나라의 무기와 우리나라의 장수들은 오직 평화한 날만 있었기에 오히려 적군과 대항하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날 같이 허술한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임진년에 있어서 평화로 백여년이 지나 병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병기가 정밀하지 못한것도 아니며 장수로는 신립이 있었고 이일도 있었으나 여러 성이 지킴을 잃어 모두 패하여 패망하였는데 지금의 병력이 임진년과 어떠합니까? 지금의 장수가 신립과 같고 이일과 같은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까? 하물며 임진년에는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 끝까지 구제하여 우리 국토를 복구시키고 우리 백성을 구제하였습니다。아! 지금은 병력도 임진년만 못하고 병기도 임진년만 못하고 장수는 신립과 이일 같지 못하고 또 명나라에서 와서 구해주는 것도 없어 완급이 있어도 임진년 같이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그런데 위나 아래나 헤매면서 각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소신은 오늘의 근심하는 바는 청나라에 있는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국서에는 위협하는 말이 많이 있어 일본 왕이 부르는 것에 이를까봐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 입니다。조정에서는 당연히 익숙히 강구하여 비가 올 대비를 하세요。전하께서는 조정의 위에서 고요하고 적막하여 한가지 계획이나 한가지 계략이 있음을 듣지 못하여 조정의 신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 일을 등한하게 보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소신같이 어리석고 용렬한 사람도 오히려 홀어미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저들처럼 고기 먹어가며 국가와 더불어 기쁨과 근심을 같이한 사람들이 앉아서 처다만 보고 서로 잊고 있는 지경까지 되었을까? 소신이 속으로 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아! 천재와 지변이 매월마다 발생하면 진실로 말할 수가 없으나 일본의 변고는 말한지가 몇년이며 낙동강 물이 끊어져 흐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유성이 남방에 떨어져 지난해에는 괴설이 나오고 요괴가 남쪽에서 나와 원근지방이 놀래고 임금의 수레바퀴의 밑까지 이르는 이런 변고가 또 있으며 또 지난해 겨울에는 붉은 기운이 동남방에서 일어나 한달이나 사라지지 아니하여 하늘이 재앙을 남방에 심하

게 보였습니다。그 형세를 헤아려보고 그 재앙의 이변을 시험하니 일본 오랑캐가 와도 안보는 없습니다。아! 우리나라 통제사의 임무는 오로지 왜군을 막으려고 설치한 것입니다。이순신이 죽으면서 대리자는 점차 전인들만 같지 못하고 장수를 보자면 먼저 포목가격부터 정하여 군대를 풀고 거두어 드리며 조금도 생각하여 기대할 바가 없으며 권세의 뇌물과 임금과 가까운 신하의 유산과 처첩의 자산과 친구의 요구들이 한가지도 여기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아! 군인들의 전선배가 물가에 버려져 있어도 수리할 뜻이 없고 해군과 육군은 모두 임무를 저버려 훈련에 뜻이 없고 군졸들이 명목은 비록 해군에 속하여 있어도 사실은 열심히 익히지 아니하니 배 조종을 어떻게하며 혹은 배 노가 무었하는 물건인지 알지를 못하니 이와같은 해군으로 급할때 대응하여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 일본 오랑캐가 비록 강한 도적이라 말하지만 까닭 없이 군인을 동원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말꺼리가 있어야 올 것이며 그 소식을 청나라에서 들으면 역시 반드시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이런때를 당하여 전하는 어떻게 할 계획을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진실로 우리나라의 큰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조정은 도외시하여 한결같이 일들이 약해가고 있으니 소신이 말하는 군정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아! 조정은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방군현은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골 마을은 군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전일의 일을 말한다면 집안의 금법이 매우 엄하여도 덤비는 사람들이 더욱 많고 사치의 금법이 매우 준엄하여도 덤비는 사람이 더욱 무리로 있고 세력가에게 금법이 있지만 도리어 허사로 돌아가고 경쟁에 금법이 있지만 지금도 전일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오늘날 일을 말하자면 호남의 군수들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이웃 고을 가까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소문에 강화에서는 수비를 잃고 한밤에 이르러 포를 쏘며 서로 대응하여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고 혹은 지방부자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을 겁주어 세금곡식까지 절취하여 감히 누가 그들이 하는것을 막으려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국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것에 연유되고 기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은 임금과 신하에게 있으니 말하자면 기강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아!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은 반드시 농토마지기 에 있으니 국민의 농토를 계산할 때에는 각지방마다 일례로 여유있는 농토는 군수의 사적 사용의 토지를 삼고 있어서 근년에 임금께서 몇차례 엄명을 내리어 이런 폐단을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군수들은 오히려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작은 군의 사적 농토가 혹은 3、4백 마지기에 이르니 기타의 큰 군들은 이것을 추측하면 그 속을 알 수가

있읍니다。 군수들이 비록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자진하여 말하고저 하지만 앞과 뒤의 군수들이 두려워 죄를 지고도 감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특별히 조목을 만들어 군수로 자진하여 나와 알리는 사람들은 전후군수를 놓아두고 벌주지 말고 만일 전일 같이 숨기고 있으면 자주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시골 마을에 물어보아 만일에 법을 범하고 있으면 비록 한두 마지기라도 장물죄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사로 갖는 농토의 폐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 면천 한곳 군의 일로 보면 전생서에서 받아들인 돼지 한마리 염소 한마리의 가격이 많게는 30석 쌀에 이르고 있으니 한마리 돼지 염소의 가격이 어찌 이 값에 이르겠습니까? 평상시에 있어 아주 심히 놀랐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여러 도와 군으로서 난을 치르지 아니한 지방은 돼지와 염소가 남아있는 것이 심히 많아 군수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것을 골라 제사에 적합한 것이면 직접 본서로 상납하여 제조들이 적합한 물건인지를 보고 쓰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퇴짜를 놓으면 되지 어찌 꼭 돼지와 염소를 받아다 제사에 쓰는 것까지 막으려 할수 있을까? 또 각지방에서는 어전소를 설치하여 오로지 진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어전소에서 잡은 것을 군수들이 아전에게 주는 자료로 삼고 진상품은 국민에게 배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리하기 심한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들을 시켜 죄과를 조사하여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소신이 현재 평시령이 되어 저자백성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원망과 고통의 현상을 부득이하여 조목조목 진술하였습니다。 저자거리 백성들이란 평일에 공명하게 재물을 유통하여 재력이 또 넉넉한 것입니다。 대저 관가의 무역하는 물자는 오히려 가히 견디어내지만 현재는 국가가 불행하여 청나라 사변이 갑자기 일어나 몇일 안에 곧 서울까지 쳐들어와 비록 부자 상점 큰 가게라도 싣고 운반하지 못하고 모두들 강화도로 들어와 사망하거나 없어졌는데 하물며 물자들이야? 난이 안정된 후는 다른지방에서 군대를 피하여 겨우 살아돌아오게 되고 잔여한 사람은 몇 없으니 백성의 수가 평일에 비하여 백분에 일이며 그리고 그중에 남아있는 가게들이 반이상은 포살수의 무리이니 이들은 조정으로부터 오로지 시민부역을 감해주니 시민이 하는 시민 부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포살수만 되면 그들은 오로지 시민부역을 면제하니 이것도 과실이며 그리고 포살수의 일가되는 씨족과 이웃되는 이웃은 모두 포살수의 세력을 빙자하여 시민부역을 하지 아니하여도 관리들이 감히 손도 못대고 시민들이 감히 따지지도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애통한 일입니다。 포살수가 성을 나가면 위에서부터 항상 호위의 노고를 위로하고 항상 처자식을 먹여주며 특히 시민부역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사병들의 뜻을 사랑함이 가히 성대하다 말할 것

입니다。 지금은 이미 관리 월급을 먹고 또 월급을 넉넉하게 받으며 오로지 시중의 이권을 강탈하고 자신의 부역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물자를 내는 부역은 그래도 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포살수도 아니면서 그 세력을 빙자하여 부역을 면제받는 사람은 더욱 당연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소원하오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주소서! 엊그제 일본에서 들여온 말들은 시장에 빨리 내놓아 한마리도 남기지 말것입니다。 난을 치른 후로는 말을 키움이 많지 아니하여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넷다섯마리도 아니되어 부득이 궁중에서 사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니 궁중에서 놋쇠로 만든 등자의 가격도 그랬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 가격에 기준을 두면 궁중에는 반드시 조두 등자의 폐단은 없어지고 시민들도 피해받는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호조에서 보통 물품을 무역할 때는 시장사람을 불러들여 가격을 정하되 시장사람들이 호조의 권위가 두려워 그 가격을 대충 정하면 호조에서는 시장인의 말을 따르니 실지가 아닌데 혹 그 가격을 줄이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차마 듣지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칙사를 보내어 물자를 무역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 만일 홍시감이라면 가을철에는 아주 하천한 물건이지만 계절이 늦어지면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애당초 이미 칙사가 오는 것을 알면 감이있는 각고을에 혹은 세금을 감해주어 미리 감으로 바꿔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이 급해진 후에 혼자 시장에서 찾으면 시장관리자가 욕을 먹는 것이 만가지는 될 것이요。 하급관리들은 곤장을 맞아 거의다 죽을 것이며 호조에서 무역하는 가격은 또 10여가지에 이를 것이니 우리나라의 일들이 이와같습니다。 소신은 속으로 고민하는 것이며 또 각사에서 당연히 진상하여야 할 물품은 각사의 하급관리들이 그 관청에다 위촉하고 호조에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호조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시장에다 나누어 놓는 것은 각사에서 진상물이 있는 곳이면 납품을 막아주고 주인이 진상물의 가격을 많이 받으면 무역이라도 하여 호조에서는 반드시 시장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백성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특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호조에서 나누어놓은 이외에도 각사에서는 또 적발관자를 두어 빨리 시장에 내놓을 것이 있으니 궁중기물 제조법 같은 것입니다 소신이 일찌기 다녀본 곳에는 공물의 주인들이 모두가 본원의 하급관리들이니 이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반드시 시장에 나누어 놓아야만 그후에 중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일에 있지 아니한 법규입니다。 이길을 막지 아니하면 시민들은 더욱 손발을 둘곳이 없을 것입니다。 아! 각사의 하급관리들의 인정의 폐단은 말로 다할 수가 없고 호조도 평일에 비하면 더욱 심하니 무역할 물품이 있으면 먼저 인정을 시장에서 중험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서리들의 손에 망한다는 것은 진실로 거짓

이 아닙니다。아! 임금께서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버려 평일에도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이런때에 요즈음 왕세자는 복제를 끝낸 후인데 비단옷과 이불을 보내면서 역시 시장에서 매입하였다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선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임금이나 신하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이 풀자리에 누워 각오를 할 때이지 비단 이불은 아마도 때가 아닐것인데 하물며 남들이 보고 있으니 역시 이러한 화려한 행동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엎드려 소원하오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주소서 이제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동빙고는 오로지 제사에 쓰려고 설치하였고 내빙고는 궁중에 받치려고 설치하였고 서빙고는 오로지 신하에게 나누어주려고 설치한 것입니다。제사에 쓰는것과 궁중에 받치는 것은 내빙고것과 동빙고 것으로 사용하여도 좋으며 서빙고의 설치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정축년에는 비록 얼음물은 마시지 아니하여도 더위를 인내하였으니 군신과 상하들은 당연히 병자 정축년을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전철를 밟으며 거개가 행동거지를 태평한 무사시와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소신이 속으로 애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평시서에서 평일에 백성이 가장 많이 있을 때는 얼음을 수장하는 역군이 27명으로 정해놓았는데 지금은 평시때에 정해놓은 수자의 반을 감하였기 때문에 14명으로 정해졌읍니다。사복시는 7명으로 정하고 공조는 5명으로 정했으나 평시서는 시민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놓은 수가 두곳 관청보다 많으니 시민의 고충은 이것을 근거하면 알수 있고 얼음을 수장하는 것이 국가의 대역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시민이 내놓은 쌀이 많게는 160섬에 이르고 있어서 도청에서 비록 양을 정해놓아도 시민은 모두 댓가받는 고용인이니 만일 고용의 댓가가 적으면 얼음을 나르는 역군이 되어 일하러 나오기 즐겨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이 조두 등자의 폐단이니 역시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아아! 몽고지방에서 소를 사오는 일이 더욱더 하여선 안될 일입니다。소신은 듣자오니 소를 사오는 가격이 현금과 각종 물건이 매우 많이 들며 또 짐실는 말을 말하면 한마리 가격만 논하면 4、5십필을 주는데 한마리 소를 사오는 비용이 열마리 소 가격에 이르며 가령 사오는 길이 멀어 그 활동을 가두어 놓아 반드시 미리 죽을수도 있게 되고 하물며 토질과 기후가 다른곳에서 생장하여 우리나라는 역시 맞지 아니 할 것입니다。만일 이 가격을 줄여 국민의 노력을 줄여주면 비록 인력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어도 도리어 일하기 즐거워 할 것입니다。듣자하니 삼개도의 농사일하는 소들이 비록 병들어 죽었지마는 남아있는것도 적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난한 국민들이 부역을 괴로워하고 또 그 가격을 높이려고 서로 다투어 잡아먹는 소로 몰래 팔 것입니다。그래서 이 잡아먹는 소로 속여 매매하는 사

람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에서 보내온 가격을 여러지방에 배포하고 그 가격을 잡아먹는 소에 비교하여 배로 주면 그들이 송곳하나 이익 따지는 무리라도 어찌 반드시 잡아먹는 소로는 팔면서 조정에 팔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모두 농사짓는 소를 얻을수 있을 것이니 어찌하여 멀리 몽고에서 얻으려 하리오。이것만 특히 그런것이 아닙니다。만일 이길을 열어 놓으면 몽고인들도 역시 반드시 시장을 우리나라에 요청하여 계속 왕래하며 많은 물품을 재촉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사양하여 거절하지 아니하십니까? 앞으로의 근심은 말로는 할 수가 없는데 있을 것입니다。성익이 강을 건너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빨리 파발을 보내여 그 행동을 정지시키면 다행하고도 다행한 일입니다。또 어느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남녀간에 포로된 사람이 몇천만명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댓가를 주고 풀려나왔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지금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거리에서 원망하는 것을 눈으로 차마 볼수가 없으며 귀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조정은 우리나라 백성을 돈주고 살리지 아니하며 오직 소 사오는 것에 급급하니 사람은 물어보고 말은 물어보지 아니한 공자의 뜻과는 역시 반대가 됩니다。청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역시 웃고 있을 것입니다。전하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여기에 대하여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하께서는 나라 일을 마침내 알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른바 농사짓는 소를 소신은 어느곳에서 사용하였는지 알지를 못하고 역시 백성들로 하여금 찾아 헌납하게 하였으나 이른바 소시장이라는 곳이 소 전염병을 치른 후에 폐지한지 오래입니다。시민들이 찾아 헌납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한마리 가격이 70필의 포목을 주는 것이니 다섯마리 소 가격만 말하면 그 가격이 많게는 350필의 포목에 이르고 있어서 국가에서 낭비하는 수자도 역시 많지 아니합니까? 만일 긴요하지 아니하다면 평상시 정한 것을 한계로 하여 감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요。만일 부득이 하다면 감한 수자로 정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아! 안으로 시장의 폐단이 이와 같고 밖으로 국민의 원망이 저와 같아서 소신이 말하는 국민의 부역이 균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아! 소신이 상주고 벌주는 것이 공정하지 아니하고 언로가 열리지 아니하고 군정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기강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부역이 균등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으니 하나라도 이런것이 있으면 족히 나라를 패망시키고 장래는 근심이 이것보다 심한게 없을 것입니다。말하자면 청나라에 해마다 폐백하는 것이니 내년 1년의 폐백가지수는 우리나라의 물력으로는 모두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하물며 그 중에서 대미 일만포가 되니 한포가 비록 열말이라 하지만 청나라는 30말을 한포로 삼고 있어 이것을 계산하면 4만말이나 되며 한마리

말이 비록 두섬을 실을 수가 있지만 싣고 갈 말이 2만 마리에 이르게 되고 기타의 물품을 싣고 갈 말도 역시 수백필이 넘을 것이며 물품의 조달만도 진실로 말로도 하기 어려운데 2만여필의 말을 어떻게 출동시키며 2만여필의 말 가격을 어떻게 얻을수 있습니까? 조정에서는 당연히 금년부터 계획하여 그 좋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소신은 전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 해마다 중국에 바칠 조공은 한번이 아니니 아울러 말을 한다면 당연히 감할 것은 조공물품이요. 그 임시로 부득이하게 감해 놓을 것이면 먼저 조공물품을 감량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외방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감량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엎드려 소원하오니 전하께서는 조정과 더불어 가하다 불가하다를 따져 정하고 별도로 해마다 조공바치는 관청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것을 각사에서 바치게 맡겨 모두들 힘쓰게 하여 급박한 근심이나 없게 하면 더없는 다행일 것입니다. 아! 소신이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소신의 직위가 하급직이라하여 믿고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조정에서 반드시 소신의 말이 천박하여 채택이 되지 아니할까하는 구구한 나라의 근심을 자신이 중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소원하오니 전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말씀을 폐하지 마십시오. 소신의 소임이 없어집니다.

⑤ 陳時聲上疏(諱 復元) 仁祖丁丑平市令時

伏以臣於 反正之初以館儒濫蒙 國恩幸齒衣冠之列出六品未久旋授字牧之任才疎力微無補涓埃只以爲 國一死爲他日報效之地而及今主辱臣死之日偷生苟活以到今日臣固知無以自立於天地間又無一言而死則不幾於負 殿下而愧初心哉嗚呼 殿下出城之事言之氣短今不須追論而第念出城之後君臣上下所當革心改慮以圖善後之計而試觀今日朝廷之上氣像擧措無異曩日臣姑擧其大者而言之嗚呼賞罰之不公猶夫前也言路之不開猶夫前也軍政之不修猶夫前也紀綱之不振猶夫前也民役之不均猶夫前也嗚呼以如此之氣像以如此之擧措雖在太平無事時猶可以覆亡況於今日大亂之後乎嗚呼 殿下之在圍中凡幾日而有司之死於 國者凡幾人哉嗚呼一髮孤城朝夕且陷爲臣子者義當腐心裂膓忘生效死之不暇而擁兵之將高枕於城上守藩之臣俳徊於岐路無一人赴死於南漢之下者君臣之義掃地盡矣臣竊痛之臣罷官之後退伏田野晩聞 殿下播越南漢蒼卒之際未及叅於羈靮之勞奔遑中路罔知死所及聞 廟社主移御江都跣足追徃僅入江都江都之事臣亦與聞請以江都之事言之嗚呼江都之失險實由於將相之失措在軍律當死罔赦然而江都四面濶大水邊且無城柵非舟師難以禦之統制使各道水使輩非不知 廟社主嬪宮元孫移御之言其間日子亦非不多而越視不救致令 廟社主汚辱嬪宮大君被拘士女屠戮當時之事尙忍言哉其時統制使尹璛只竄謫而死其他水使輩尙保首領姜晉昕之獨死不亦

寃乎嗚呼兵死地也人孰不知進則死退則生而忘死生冒矢石
者有軍律故也軍律不嚴則孰肯樂赴於必死之地乎嗚呼軍律
無則無有則必加於此輩而猶免 邦刑臣恐他日臨敵效此者
必多也嗚呼 殿下之入南漢也臣僚等棄父母妻子扈駕於搶
攘之中此雖曰臣子職分當然而其執靮之勞守堞之功不可不
酬而希望之語出於宰臣賞職之典闕於末流至於晋野蛇叫漢
沙人語嗚呼其在有識士夫亦有怨懟之說況於無知賤隷之徒
乎臣聞武夫之終始守堞自願出戰者亦未蒙賞典臣未知兩銓
之所除者何人也守堞各邑將官之賞職尤所當先而未聞有一
人之擢而用之者其何以勸後來而激人心乎臣之所謂賞罰不
公者此也臣伏見杞平君兪伯曾前後疏章其忠言讜論一出於
心肝所爭者雖或有過中無非爲 宗社也爲君父也爲生靈也
豈有他腸哉殿下或以言犯大臣而罪之或以語涉過中而斥之
嗚呼 殿下在廷之臣犯顔抗直者不保官爵承順媚悅者終享
富貴欲保官爵欲享富貴者誰肯爲 殿下盡言哉嗚呼未知 殿
下以犯顔抗直者爲奸耶爲忠耶以承順媚悅者爲佞耶爲直耶
殿下朝廷之上獨有一伯曾而猶不見容於朝廷非但不容於朝
廷猶不見容於 殿下殿下以伯曾爲欲保官爵者耶欲享富貴
者耶朝廷所失人所難言而唯伯曾言之勳貴所犯人所難論而
唯伯曾論之伯曾亦可謂之鳳鳴朝陽而 殿下猶且摧折之退
斥之今之父而戒子兄而戒弟耳目之臣拱手而旁觀左右之臣
含口而不言者實 殿下啓之也嗚呼 殿下深居九重堂陛千里
則朝臣之賢邪時政之得失孰從而聞之嗚呼人君待臺諫之道
異於庶官而或有特命遞差有若庶官者然 殿下待臺諫之道
可謂薄矣令以兪伯曾一事言之先罷後推之 命出於千萬意
慮之外臺閣風采自此墜落臣竊惜焉 殿下歷觀前代古史人
君用直言則治近佞言則亂 殿下何不惕厲於此耶古人曰節
義之士當於犯顔諫諍中得之 殿下之臣無一人效死於亂日
者未必不由於此也嗚呼諸宮家漁鹽海澤立案爲一國巨弊而
兩司之論正中今日之病也 殿下留時引月尙閟宮兪音以 殿
下之聖明非不知諸宮家立案之爲巨弊而若是其留難者不過
壁於所親而然也嗚呼 國家治平則諸宮家雖無漁鹽海澤可
以安享其富 國家危亡則雖有漁鹽海澤焉得以用之其爲利
害不啻若霄壤而 殿下猶未之覺悟臣之所謂言路不開者此
也嗚呼淸國之於我國旣與之和好朝廷皆曰西患已絕無復可
虞此言雖出於姑息而臣亦以爲近矣何以言之所謂南夷兵强
倍於西軍衆倍於西器械之堅利倍於西技藝之精妙倍於西若
或乘我板蕩風帆一掛則以我國之兵力以我國之器械以我國
之將雖在平日猶不敢抗敵況於今日板蕩之後乎其在壬辰昇
平百餘年兵力非不足也器械非不精也將則有如申砬有如李
鎰而列城失守一敗塗地今之兵力視壬辰何如今之器械視壬
辰何如今之將如申砬如李鎰者幾人況壬辰則天朝發兵極救
復我疆土濟我生靈嗚呼今則兵力不如壬辰器械不如壬辰將
不如申砬李鎰且無 天朝之來救脫有緩急求欲如壬辰不可
得也而上下迷不省悟臣以爲今之所憂者不在於西而在於南
也況今書啓中多有恐嚇之語至於招去島主則此大可憂之端
也朝廷所當熟講陰雨之備而 殿下朝廷之上寥寥寂寂未聞
有畫一策出一計者朝臣以爲無可奈何而如是耶視國事於等

閑而如是耶如臣愚劣者尙有嫠婦之憂况彼肉食與國同休戚者其可坐視而置於相忘之域哉臣竊恠焉嗚呼天災地變式月斯生此則固不足道而以南方之變言之頃年洛東之水斷而不流天狗之星墮於南州去年恠說一出妖鬼自南而來遠近驚惑至於輦轂之下亦有此變又去年冬赤氣起於東南彌月不滅天之示災於南方極矣揆以形勢驗以災異則南夷之來安保其無也嗚呼我國統制使之任專爲備倭而設也自李舜臣之死代之者漸不如前人視師之日先定價布放軍徵斂少無顧忌權貴之賂近習之遺妻妾之資親舊之求無一不出於此嗚呼戈舡戰艦排置水邊而無意於修緝水軍陸卒盡歸折價而無意於組練軍卒名雖屬於舟師實未閑操舟之爲如何或不知舟揖之爲何物以如此之舟師其可應於蒼卒之用乎嗚呼南夷雖曰強寇不可無故動兵必有執言而來則淸國聞之亦必興師當此之時未知殿下何以爲計也此誠我國之所大憂者而朝廷置於度外一向委靡臣之所謂軍政不修者此也嗚呼朝廷不畏君上之令州縣不畏朝廷之令村里不畏州縣之令以前日之事言之家舍之禁甚嚴而犯者愈多奢侈之禁甚峻而犯者愈衆關節有禁而反歸虛套奔競有禁而尙循前習以今日之事言之湖南守令親領軍兵來駐境上一聞江都失守之說至於半夜放砲相應一時潰散或有土豪輩愒制土主攘竊官穀莫敢誰何任其所爲此無他民不畏法故也民不畏法由於紀綱之不立紀綱之不立實在於上臣之所謂紀綱不振者此也嗚呼均役之法必在田結而民田打量之時各邑例有餘結以爲守令私用之地頃年自 上屢降嚴旨欲革此弊而守令猶不畏法小邑私結或至於三四百結則其他巨邑推此可知其中守令雖或有畏法而欲自首者恐前後守令獲罪不敢現出自今以後別作事目守令之自首現告者則前後守令置而勿罪若如前欺隱則數遣暗行御史訪問閭里如有所犯者雖或一二結繩以贓律不少饒貸則庶無私結之弊矣嗚呼以沔川一郡之事觀之典牲署所納猪一口羔一口之價多至於三十石之米一口猪羔之價豈至於此乎在平時殊甚可駭况於今日乎諸道列邑未經亂之地則猪羔之餘存者甚多使守令極擇善養祭享可合者直納于本署與提調看品可合者捧之不合者退之豈必以防納猪羔爲祭享之用乎且各邑之設漁箭專爲進上而今則不然漁箭所捉則以爲守令餉供之資進上則分定於民結此無理之甚者也使各道方伯査覈科罪俾無此弊幸甚臣今爲平市令目見市民怨苦之狀不得不條陳焉市民在平日則通貨於大明物力且富凡公家貿易之物猶可以堪之今則國家不幸西變猝起數日之內直擣 王京雖富商大賈未及載運皆入江都而死亡殆盡則况其物貨乎亂定之後自他方避兵者僅得生還餘存者無幾市民之數比平日百分之一而其中列肆者太半砲殺手之輩此類則自 朝家專減市役市民之爲市役者幾何所謂砲殺手則渠身之專免市役亦已過矣而砲殺手族之族隣之隣皆藉砲殺手之勢亦不爲市役官吏莫敢下手市民莫敢爭利誠可痛也砲殺手出城之後自上一以慰扈衛之勞一以爲妻子之養特減市役 殿下愛士卒之意可謂盛矣而今則既食官廪又有奉足至於專奪市利身役則雖不可爲出物之役則猶可以定也况非砲殺手而藉其勢免役者尤所當治也伏願 殿下留念焉頃者日本入送之馬責出於市上不遺餘力經

亂之後馬畜不繁出市者不滿四五而市民不得已私求於諸宮家諸宮家之刁蹬其價勢所然也自 朝家求得准其價貿之則諸宮家必無刁蹬之弊而市民亦無被侵之患矣戶曹凡物貨貿易之時招市人定價市人畏戶曹之威酌定其價而戶曹例以市人之言爲不實或減其價其爲怨呼之聲有不忍聞也勑使之來凡物貨貿易罔有紀極如紅柿子秋節則極賤之物而節晩則難得之物也當初旣知勑使之來則有柿各邑或減稅米預爲貿來可也而事急之後獨責於市上以此市官被辱萬狀下吏受杖幾隕戶曹所貿之價亦至於十餘同我國之事類如此臣竊悶焉且各司所當進排之物各司下吏輩囑於其官以無儲報於戶曹則戶曹不分眞僞例爲分定於市上各司有貢物處則防納主人多捧貢物之價可以貿納而戶曹必移定於市上市民奚罪焉不特此也戶曹分定之外各司亦有直發關字責出於市上者如尙方則臣曾經之地也貢物主人皆是本院下吏以此搪塞必分定於市上而後已此在平日所未有之規也此路不防則市民尤無所措手足矣嗚呼各司下吏人情之弊有不可勝言而戶曹則比平日尤甚凡有貿納之物先徵人情於市上我國亡於胥吏之手者信不虛矣嗚呼人君崇儉去奢在平日猶然况於此時乎今者東宮脫服後所送錦衣褥亦貿於市上聞之者莫不寒心此正君臣上下甞膽臥薪之秋錦衣之褥恐非其時也况彼人所見亦不必示此華靡之擧也伏願 殿下留念焉今以藏氷一事言之東氷庫則專爲祭享而設也內氷庫則專爲 御供而設也西氷庫則專爲頒賜而設也 祭享及 御供則以內氷庫東氷庫之氷猶可用也西氷庫則不必設也丁丑之年雖不飮氷亦可耐熱君臣上下所當毋忘丙丁之年而未經一年復蹈前轍凡擧措施爲有若太平無事時臣竊痛焉平市署在平日市民最多之時藏氷之軍定以二十七名而今以平時所定之數減半故定十四名司僕則定七名工曹則定五名平市署則以市民之故所定之數最多於二司市民之苦據此可知所謂藏氷國之大役也市民所出之米多至於一百六十餘石都廳雖或量定市民皆給價雇人若雇價不多則負氷之軍不肯赴役其刁蹬之弊亦不可禁也嗚呼蒙古地方貿牛一事尤極未安臣聞所貿之價銀子及各樣物貨極多又以載去之馬論之一馬之價或給四五十匹則一牛所貿之費多至於十牛之價設或貿來遠道牽來其勢必至於徑斃况風土異候生長我國亦未可必也若除此價減民之一役則雖以人力起耕猶可以樂業聞下三道農牛雖曰病斃餘存者亦不少而貧民苦於賦役且利其價爭相潛賣於屠牛者故以此屠牛販賣者比比有之自 朝家分送價布於列邑其價比屠牛者倍給則彼錐刀競利之徒豈必獨賣於屠牛者而不賣公家乎若然則農民皆得牛耕之何必遠求於蒙古乎不特此也若開此路蒙古之人亦必請市於我國絡繹往來多責物貨則未知 殿下以何辭而拒之耶將來之患有不可言也成釙必未及越江馳送罷撥停止其行幸甚幸甚又有一說我國不幸男女之被擄者不知幾千萬人而有銀者則給價贖來無銀者則闔家未還至今哭聲沸天怨呼載路目不忍見也耳不忍聞也自 朝家不贖我國生靈而唯以貿牛爲焉焉與問人不問馬之意不亦左乎淸人聞之亦必有笑之者矣 殿下左右之臣無一言及此者 殿下國事終可知矣嗚呼所謂內農牛則臣未知用於何地而亦令市民覓納所謂

牛市則自經牛疫之後廢設久矣市民非徒覓納最難一牛之價給以七十疋之木以五牛之價論之則其價多至於三百五十餘疋公家浪費之數不亦多乎如或不緊則限平定間專減可也而如不得已則減數分定亦可也嗚呼內而市弊如此外而民怨如彼臣之所謂民役不均者此也嗚呼臣之所陳賞罰之不公也言路之不開也軍政之不修也紀綱之不振也民役之不均也有一於此足以亡人之國而將來之患有甚於此者曰清國之歲幣是也明年歲幣之數以我國之物力萬無辦出之路況其中大米一萬包則一包雖曰十斗清國則以三十斗爲一包以此計之乃四萬斛也一馱雖載二石載運之馬多至二萬匹其餘物貨所載之數亦不下於數百匹物貨之難辦固不足言而二萬百餘匹之馬從何以出之二萬百餘匹馬價亦何以得之 廟堂所當自今年料理得其善策者也臣未知 殿下將何以爲計也嗚呼歲幣貢物不可一時並擧則所當減者貢物也與其臨時不得已而減之莫若先減貢物俾外方之民咸知 殿下量減之惠也伏願 殿下與廟堂商確可否別設歲幣廳內需各司 之貢委之於此使之多般拮据俾無窘迫之患不勝幸甚嗚呼臣非不知 殿下必以臣爲位卑而不足信聽 朝廷必以臣爲言賤而不足採施而區區憂 國之念不能自已冒昧以陳伏願 殿下不以人而廢言也臣無任云云

答曰省疏具悉嘉爾爲國之誠 條陳之事當與廟堂量處焉 備邊司回啓曰觀此平市令尹復元疏辭無非時務之大者極爲可嘉令該司稟處施行何如 答曰依啓戶曹回啓曰私結之禁自前非不嚴明而守令不爲畏法猶踵前習極爲痛駭令各道監司嚴加廉察啓 聞處置爲白齊 祭享猪羔則各別善養擇送以除防納之弊爲白齊漁箭所捉魚物以爲 御供云者甚好而有難施行是白齊至於市纏貿易一事臣曹被其譏詆有難逐條辨明今後惕念擧行爲白齊歲幣農牛貢物減除事旣非臣曹所敢擅便議于 廟堂處置何如 答曰依啓

제6편 칠원윤씨대동보 상계

칠원윤씨세계도

시조－5세

- 시조 시영(始榮) 태사공
  - 황(璜) 판태사국사
  - ⋯ 중시조 1세 거부(鉅富) 호장보윤
    - 2세 영(瑩) 좌복야
      - 3세 홍중(弘中) 정당문학
        - 4세 적(勣) 문경공
          - 5세 명도(鳴道) 부원군

6세－12세

- 6세 계(啓) 좌사보
  - 7세 원강(元綱) 무안군
    - 8세 유(蕤) 익량공
      - 9세 은경(殷卿) 칠계군
        - 10세 박(博) 검교감직사
          - 11세 세득(世得) 검교감찰
            - 12세 을부(乙富) 이부상서

13세－16세

- 13세 흘(仡) 낭장공
  - 14세 송제(松磾) 참정공
    - 15세 양삼(養三) 추밀부사
      - 16세 수(秀) 판서공

17세－21세

- 17세 길손(吉孫) 전서공
  - 18세 안신(安信)(無后)
- 17세 길보(吉甫) 충의공
  - 18세 환(桓) 충효공
    - 19세 천효(天斅) 대제학
      - 20세 조생(祖生) 판결사공
        - 21세 연(淵) 사직 — 2권
        - 21세 적(迪) 충순위 — 2권
        - 21세 형(衡) 교리 — 2권
        - 21세 신로(莘老) 군수 — 2권
        - 21세 신충(莘忠) 사직 — 2권
      - 20세 신생(神生) 생원공
        - 21세 제(濟) 진사 — 3~4권
        - 21세 달(達) 사과 — 5~7권
      - 20세 광우(光祐) 낭장공
        - 21세 제(齊) 호군 — 7권
  - 18세 자(榧) 대언공
    - 19세 천의(天義)
    - 19세 천이(天怡) 유수 낭장
      - 20세 참(參) 집의공
        - 21세 지(志) — 8권
        - 21세 사(思) 양성낭공 순수공 — 9~10권
    - 19세 천우(天佑) 현감
  - 18세 장(樟) 칠성군
    - 19세 천각(天覺)
      - 20세 공생(公生)
        - 21세 호(湖) — 10권
    - 19세 천효(天斅)(出)
  - 18세 화(樺) 사윤공
    - 19세 방창(邦昌)
      - 20세 유(柔)
        - 21세 강명(强明) — 10권
    - 19세 방저(邦柢) 예조참판 영의정
      - 20세 작(作) 현감
        - 21세 계선(繼先)
        - 21세 계조(繼祖) 부사과 — 10권
  - 18세 공(椌) 부원군
    - 19세 자당(子當) 정평공
    - 19세 자량(子良) 대제학
      - 20세 세안(世安) 관관
        - 21세 보(保) 조봉대부 — 11권
- 17세 계유(繼柔) 장군공
  - 18세 전(佺) 대호군
    - 19세 수상(守常) 대제학
      - 20세 무(懋) 판사공
        - 21세 거정(居正) 개성서윤 — 11권

칠원윤씨대동보 상계(上系)

시조(始祖)

尹始榮 윤시영

신라(新羅)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시대에 탄생(誕生)하셨으며 벼슬은 태자태사(太子太師)를 지내시고 고명원로(顧命元老)에 이르셨다。돌아가신 연대(年代)는 미상(未詳)이다。

묘: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194의 1번지 칠서지방산업공단(漆西地方産業工團) 제1공원 북쪽산 남향(子坐)에 모셨다。비석(碑石)·상석(床石)·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양석(羊石)·망주석(望柱石)과 안내판(案內板)이 있다。배묘(配墓)는 실전(失傳)되었다。

주:1914년4월에 후손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시강원첨사(前侍講院詹事) 상학(尙學)이 비문(碑文)을 짓고 숭록대부(崇祿大夫) 전이조판서(前吏曹判書)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가 글씨를 쓴 비석이 있었는데 1950년6·25 한국전란때 손상(損傷)된 것을 전란후 1953년에 후손들이 의논하여 묘역을 정비하고 다시 비석을 세워서 1997년까지 내려왔다。다시 세운 비석은 전란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후손들의 모금으로 세운 것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왜소하고 초라할뿐 아니라 비문 글씨를 쓴 사람이 이조판서 윤용구가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의 글씨로 되어 있어서 사리에 맞지 않았고 묘역을 정비한후 근 50년 가까이 되어서 묘소의 봉분은 무너지고 비문음기(碑文陰記)는 비바람에 마모(磨耗)되어 재정비가 불가피하였다。1997년도 대종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시조공묘역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개월여의 공사끝에 1998년 4월24일 고유제(告由祭)와 동시에 준공식을 가졌다。비문은 후손 상학(尙學)이 지은 옛 비문을 그대로 옮기고 추기(追記)는 전 검찰청 인천지청장 후손 영학(榮學)이 지었으며 글씨는 미술협회(美術協會) 부회장(副會長) 초정 권창륜(草丁 權昌倫)이 썼다。비문(碑文)은 원문(原文)과 한글번역문을 병기(倂記)하였다。

해설:① 태자태사(太子太師)는 임금의 아들중에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스승이다。

② 고명원로(顧命元老)는 임금이 유언으로 후일의 나랏일을 부탁한 원로대신이다

③ 어느 왕의 태자를 가르친 스승인지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

아들 **璜** 황

생졸(生卒) 년월일은 미상이다.

벼슬은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를 지내셨다. 공 이후 중시조(中始祖)인 호장공(戶長公)까지의 수대는 계보(系譜)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묘: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산190번지 못골(池洞) 무릉산(武陵山) 밑 서향(卯坐)에 모셨다. 배묘(配墓)는 실전(失傳)되었다.

주:무릉산(武陵山)밑에 있는 검단묘역(檢丹墓域)에는 시조공(始祖公)의 아드님인 판태사국사공위(判太史局事公位)와 중시조(中始祖) 호장공위(戶長公位) 및 배(配) 문화류씨위(文化柳氏位)와 14세 참지정사공위(參知政事公位) 및 배(配) 여산송씨위(礪山宋氏位)와 16세 군부판서공위(軍簿判書公位)등 6위(六位)의 묘(墓)가 계장(繼葬)으로 모셔져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비석(碑石)이나 표석(表石)이 없어서 어느 묘가 어느 위(位)의 묘(墓)인지를 알 수가 없다. 옛 어른들의 전언(傳言)에 의하면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비석(碑石)과 표석(表石)이 전부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묘(墓) 아래에 단비(壇碑)를 설치하고 시향(時享)을 모시고 있다.

옛 단비(壇碑)는 1903년2월에 설치하였으며 후손 영신(永臣)이 글을 짓고 후손 칠원군수(漆原郡守) 영직(永稷)이 글씨를 썼는데 중시조(中始祖) 호장공(戶長公)의 배(配) 문화류씨위(文化柳氏位)가 누락되어 5위만이 모셔져 있었으며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글씨가 비바람에 마모되어 보기가 어려웠다.

1959년2월에 단비(壇碑)를 새로 설치하면서 중시조배(中始祖配) 문화류씨위(文化柳氏位)와 묘가 실전(失傳)된 18세 대언공위(代言公位)를 추가하여 기존5위와 함께 7위의 단비(壇碑)를 새로 설치하고 시향(時享)을 모시고 있다.

새 단비(壇碑)는 후손 성학(晟學)이 비문(碑文)을 짓고 세웠다.

검단묘역 산에는 산불이 나더라도 묘(墓) 가까이 이르게 되면 스스로 꺼지고 까마귀와 까치가 감히 묘(墓) 옆에 있는 나무에 둥지를 틀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령스러운 묘(墓)라고 한다.

칠원윤씨대동보 제1권 세계(世系)

중시조(中始祖)

鉅富 거부

옛족보에는거보(居甫) 거부(居富) 또는 군보(君甫)라고 한 곳도 있다 생졸년대(生卒年代)는 미상(未詳)이다 고려초에 보윤호장(甫尹戶長)의 벼슬을 지내시고 칠제백(漆隄伯)의 작위(爵位)를 받으셨다

(墓)경남함안군칠북면검단리山190번지 못골(池洞) 무릉산 밀 서향(卯坐)에 계시다

配문화류씨(文化柳氏)

(墓)판사공(判事公) 묘소뒤 서향(卯坐)에 계시다

임진왜란후에 비석이 없어져서 묘의 위치를 알수 없으므로 현재는 계장지(繼葬地)아래에 설단(設壇)을 하고 시향(時享)을 모시고 있다

◉주: 고려사 향직고(高麗史 鄕職考)와 선거지(選擧志)에 의하면 보윤(甫尹)은 8품(品)에 해당하는 품계(品階)이며 호장(戶長)은 향리직(鄕吏職: 지방관리)의 우두머리(首長)라고 하였다

2세

아들 **瑩** 영

문과에 급제하고 좌복야(左僕射:정2품)와 판내사(判內史:정1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진주하씨(晉州河氏)

(墓)실전되었다

3세

아들 **弘中** 홍중

문과에 급제하고 정당문하(政堂文學:종2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안동김씨(安東金氏)

(墓)실전되었다

4세

아들 **勣** 적

처음의 이름은 성(晟)이었는데 고려 현종(顯宗)때에 거란군(契丹軍)을 맞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우자 임금이 적(勣)이란 이름을 내렸다

태위(太尉:정1품)의 벼슬에 있었는데 특진상주국첨의찬성사(特進上柱國僉議贊成事)로 승진하고 무양후(武陽侯)로 책봉되셨으며 천호(千戶)의 식읍(食邑)을 받으셨다 시호는 문경(文敬)이시다

配김해김씨(金海金氏)

(墓)실전되었다

5세

아들 **鳴道** 명도

구령부원군(龜寧府院君)에 봉해지시고 시호는 충경(忠敬)이시다

配개성왕씨(開城王氏)

(墓)실전되었다

아들 **玄道** 현도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의 좨주(祭酒:종3품) 벼슬을 지내셨다

6세

아들 **啓** 계

768

아들 **罷** 파

무과에 급제하고 삼도도지휘사(三道都指揮使) 벼슬을 지내셨다

6세

弘中-勳-鳴道

啓 계 767

문과에 급제하고 좌사보(左思補:정6품)벼슬을 지내셨다

配청주한씨(淸州韓氏)

墓함안군대산면구혜리 205번지 복구등(伏龜嶝) 동향(西坐)에 합장으로 모셨다

산소앞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이 산소의 혈(穴)을 풍수지리설에서 금구몰니형(金龜沒泥形)이라고 하며 함안사람들은 이곳을 가르켜 윤정승(尹政丞)산소라고 한다

◉복구등(伏龜嶝): 엎드려 있는 거북형상의 등성이

◉금구몰니형(金龜沒泥形): 금거북이 진흙속으로 들어가는 형국

7세

아들 **元綱** 원강

문과에 급제하고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종1품) 판밀직사(判密直事)와 판삼사사(判三司事) 벼슬을 지내셨고 무안군(武安君)에 봉해지셨다

配강씨(姜氏)

墓실전되었다

아들 **叔綱** 숙강

무과에 급제하고 낭장(郎將) 벼슬을 지내셨다

아들 **季綱** 계강

문과에 급제하고 우대언(右代言:정3품)벼슬을 지내셨다

8세

아들 **蕤** 유

문과에 급제하고 지도평의사사(知都評議司事) 벼슬을 지내셨고 무창백(武昌伯)에 봉해지셨으며 시호는 익량(翼亮)이시다

配경주김씨(慶州金氏)

墓실전되었다

9세

아들 **殷卿** 은경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벼슬을 지내셨고 봉칠제군(漆隄君)에 봉해지셨으며 시호는 안혜(安惠)이시다

配경주김씨(慶州金氏)

墓실전되었다

아들 **殷老** 은로

문과에 급제하고 병부령(兵部令:정3품) 벼슬을 지내셨다

10세

아들 **博** 박

문과에 급제하고 검교감직사(檢校監直司) 벼슬과 서주(西州), 관풍(觀風), 삼도(三道)의 방백을 지내셨다

配경주이씨(慶州李氏)

墓실전되었다

11세

아들 **世得** 세득 769

아들 **時得** 시득

문과에 급제하고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종3품) 벼슬을 지내셨다

11세

蕤-殷卿-博

世得 세득 768

문과에 급제하고 검교감찰(檢校監察)과 지평(持平:정5품)을 지내셨고 서해광순어사(西海廣詢御史)를 지내셨다

配하동정씨(河東鄭氏)

墓실전되었다

12세

아들 **乙富** 을부

문과에 급제하고 이부상서(吏部尙書:정3품) 벼슬을 지내셨다 또 원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가시어 흥위위별장(興威衛別將)을 제수받으셨다 요동(遼東)에서 돌아가셨다

配강릉김씨(江陵金氏)

墓함안군칠서면계내리 상포(上浦)에 있는 태사공묘(太師公墓)밑 남향(子坐)에 계시다 지석(誌石)을 묻었으며 표석(表石)·양석(羊石)·망주석(望柱石) 등이 있었다 1998년4월20일 상포선영을 성역화하면서 묘비(墓碑)·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을 새로 갖추었다 비문(碑文)은 홍포서원원장 배문준(裵文準)이 짓고 글씨는 초정 권창륜(草丁 權昌倫)이 썼다

13세

아들 **仡** 흘

검교대전금위유랑장(檢校大殿禁衛諭郎將:정6품) 벼슬을 지내셨다

부친이신 상서공(尙書公)께서 원(元)나라 벼슬을 하시다가 요동에서 돌아가시자 그때 어린나이인 공께서 이 소식을 듣고 슬피 곡을 하며 달려가서 체백(體魄)을 모시고 와서 묘소를 만들고 삼년상을 치른 후에도 슬픔을 가누지 못하셨다 왕께서 소문을 듣고 가상하게 여기어 비단을 내리고 품계를넘어낭장(郎將:정6품) 벼슬을 내렸다

配안동김씨(安東金氏) 혹은 **안동권씨**(安東權氏)

墓실전되었다

14세

아들 **松磾** 송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정3품) 참지정사겸동북면도지휘사(參知政事兼東北面都指揮使) 벼슬을 지내시고 원나라에서 중랑장(中郎將) 벼슬을 지내셨다

配여산송씨(礪山宋氏)

墓함안군칠북면검단리 지동(池洞) 서향(卯坐)에 계시다 배위의 묘소는 공의 묘소 뒷쪽에 계시다

임진왜란후에 비석이 없어져서 묘의 위치를 알수 없으므로 현재는 묘소밑에 제단을 설치하고 시향을 모시고 있다

15세

아들 **養三** 양삼

광록대부(光祿大夫:정2품)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와 우찬선(右贊善) 벼슬을 지내셨고 신호위(神虎衛) 장군(將軍) 벼슬을 지내셨다

配개성왕씨(開城王氏)

墓실전되었다

친정아버지는 동원군(東原君)이시다

16세

아들 **秀** 수

770

16세

秀 수

仡-松碑-養三

769

정순대부(正順大夫:정3품) 군부판서(軍簿判書)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 춘궁익위(春宮翊衛) 벼슬 등을 지내셨다 역사에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벼슬을 마치셨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조의 원종(元宗)때부터 충렬왕(忠烈王)때까지 활동하셨고 충렬왕 계미 3월(1283년)에 돌아가셨다 (묘)함안군칠북면검단리 지동(池洞)에 있는 판사공묘소뒤 할머니 송부인의 묘소밑 서향(卯坐)에 계시다 임진왜란후에 비석이 없어져서 묘의 위치를 알수 없으므로 현재는 묘소밑에 제단을 설치하고 시향을 모시고 있다

配무안박씨(務安朴氏) (묘)시조공묘소의 오른

17세

아들 **吉孫** 길손

봉익대부(奉翊大夫:종2품) 검교선부전서(檢校選部典書) 벼슬을 지내셨다

配광산김씨(光山金氏) 친정아버지는 문숙공 주정(周鼎)이시다

아들 **吉甫** 길보

삼중대광(三重大匡:종1품)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 벼슬을 지내셨고 수성직량공신(輸誠直亮功

18세

아들 **安信** 안신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군위나씨(軍威羅氏) 친정아버지는 윤재(允材)이시다

婿안동 권중달(權仲達) 지밀직(知密直:종2품) 벼슬을 지내고 화원군(花原君)에 봉해졌다 아버지는 정승(政丞:종1품) 벼슬을 지낸 한공(漢功)이시고 아들 사종(嗣宗)은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냈고 계용(季容)은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냈고 예천군(醴泉君)에 봉해졌다 사위 전분(全賁)은 정선인(旌善人)인데 재신(宰臣)을 지냈고 유혜방(柳惠芳)은 진주인(晉州人)인데 군수(郡守:종4품) 벼슬을 지냈으며 민근(閔瑾)은 여흥인(驪興人)인데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봉해졌고 이색(李穡)은 한산인(韓山人)인데 시중(侍中:종1품) 벼슬을 지냈고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김윤철(金允轍)은 전서(典書:정3품) 벼슬을 지냈다

婿이 심(李審) 중서(中書) 벼슬을 지내셨다

아들 **桓** 환

1313년8월4일생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종1품)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벼슬을 지내셨고 원나라에서 정동행성랑중

19세

婿낙안 김 수(金隨) 낙천군(洛川君)에 봉해졌다 아버지는 상서를 지낸 남정(南正)이시다 아들 미문(靡文)은 부윤(府尹)이고 사위 정총(鄭摠)은 청주인(淸州人)인데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냈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민(文愍)이다

子系 **天斅** 천효

구보에서는 이름자가 지보(之輔)라 했고 또 한곳에서는 원보(元甫)라 했다 낳아주신 아버지는 칠성군(漆城君) 장(樟)이시다

20세

아들 **祖生** 조생

문과에 급제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장례원판결사(掌隷院判決事) 벼슬을 지내셨다

配숙부인(淑夫人) **파주염**

21세

아들 **淵** 연

사직(司直) 벼슬을 지내셨다

아들 **迪** 적

2권 29

아들 **衡** 형

2권 29

쪽 산등성이의 서원뒤 남남동향(壬坐)에 계시다
상석(床石)이 있다
친정아버지는 밀직부사(密直副使:종2품)를 지내신 부(琈)이시고 조부는 성기(成器)이시며 증조부는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유(儒)이시다

臣)에 녹훈되셨으며 구성군(龜城君)에 봉해지셨다 시호는 충의(忠義)이시다
墓칠서면계내리상포에 계신 5대조부 상서공(尙書公) 묘소 아래 남향(子坐)에 계시다
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이 있었다
1998년4월20일 상포선영을 성역화하면서 묘비(墓碑)·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을 새로 갖추었다 비문은 21대손 의원(義遠)이 짓고 글씨는 초정(草丁) 권창륜(權昌倫)이 썼다
配실전되었다

(征東行省郎中)으로 임명하였다 추성병의동덕섭리익찬공신(推誠秉義同德燮理翊贊功臣)에 녹훈되셨으며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으로 봉군(封君)되셨고 칠원백(漆原伯)에 봉작(封爵)되셨다 시호는 충효(忠孝)이시다
수(壽)는 80여세이다
1386년4월 일졸
◎고려사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하기를 공은 고려 공민왕때 사람으로 다섯 임금을 섬기고 세번에 걸쳐 수상(首相)을 지내셨으며 집이 부자였다 일찌기 칠원으로 돌아가고자 청하여 유동(柳洞)에 살고 계셨다 어느해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이 되었다 공은 재물을 풀어 굶주림을 면하게 한뒤 받았던 채권증서를 거두어 모두 불태웠다 또 오랜 가뭄에 공의 밭에서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의 논밭에 물을 대주었는데 그해에 곡식이 대풍년

문과에 급제하시고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종2품) 벼슬을 지내셨다
◎사신(使臣)으로 중국에 가시다가 도중에 돌아가셨다
墓아버지묘소 아래 동북동향(庚坐)에 계시다
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이 있다
配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씨(坡州廉氏)
친정아버지는 좌사령(左史令)을 지내신 방경(邦慶)이시고 아들 셋을 낳으셨다
繼配숙부인(淑夫人)해주정씨(海州鄭氏)
친정아버지는 정승(政丞:종1품)을 지내신 각(慤)이시다
墓충남청양군청남면상장리 명덕봉(明德峰) 서쪽기슭에 3위 합장으로 모셨다
비갈(碑碣)·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이 있다 은진 송두헌(宋斗憲)이 갈명(碣銘)을 지었고 청송 심응주(沈應宙)가 글씨를 썼다

아들 **神生** 신생
1419년에 성균관생원(成均館生員)이 되셨다
配의인(宜人) 동래정씨(東萊鄭氏)
墓충청우도공주종안(宗安)에 모셨는데 실전되었다 행정구역은 충남공주군탄천면덕지리종안서당골이다
서기1937년도에

아들 **莘老** 신로 2권 31

아들 **莘忠** 신충 2권 34

壻김 좌(金 佐)
온수(溫水)의 감무(監務)를 지내셨다

아들 **濟** 제 3권 15

아들 **達** 달 5권 33

16세

17세

18세

이들어 영남백성들이 칭찬해 마지 않았다 공의 관직과 이름자는 북한산(北漢山) 태고사(太古寺)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에 새겨져 있고 또 개성의 종경(鍾磬)에도 새겨져있다 사적(事蹟)은 목은집(牧隱集)에 많이 실려 있으며 행장(行狀)은 종14대손 사국(師國)이 지었다

配진주류씨(晋州柳氏) 자녀를 두지 못하셨다 친정아버지는 평리(評理:종2품) 벼슬을 지낸 간(玗)이시고 할아버지는 총랑(摠郎:정4품) 벼슬을 지낸 부(榑)이시며 증조할아버지는 상서(尙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홍림(洪林)이시다 외할아버지는 문화 류성비(柳成庇)이시다

繼配밀양박씨(密陽朴氏) 친정아버지는 전서(典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지장(之長)이시다

(墓)함안군칠원면유원리 유동지곡(池谷) 동북동향(庚坐)에 계시다

19세

20세

설단(設壇)하여 시제를 모시고 있었다 이단비문은 19대손 종관(鍾瓘)이 지었다 옛 설단비(設壇碑)는 규모가 왜소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1994년10월에 제하에 붇고 여러 자손들이 성금을 모아 넓은 장소에 큰 비로 다시 설단(設壇)하여 시제를 모신다 단비(壇碑)·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유적비(遺蹟碑) 기타의 여러가지 석물(石物)이 있다 유적비문은 20대손 20홍수가 짓고 글씨는 20대손 평수가 썼다

아들 **光佑** 광우

낭장(郎將:정6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여흥이씨(驪興李氏)

(墓)공의 묘소는 경기도 여주군점동면강금산리 남쪽하평촌(下坪村) 서당골 서북서향(乙坐)에 계시고 배위의 묘소는 공의 묘소아래 서향(卯坐)에 계시다 두분 묘소에는 다같이 단갈(短碣)·석인(石人)·상석(床石)·망주석

21세

아들

齊 제

7권 557

비석(碑石)·상석(床石)·석인(石人)·양석(羊石)·망주석(望柱石)이 있다 15대손 병사(兵使) 재건(載鍵)이 갈문을 지었다

아들 **樜** 자

고려조에서 우부대언(右副代言:정3품) 벼슬을 지내셨다

墓 실전되었다 함안군칠북면검단리에 있는 선산밑에 설단(設壇)하였다

配 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 실전되었다

婿의령 남좌시(南佐時)

정당문학(政堂文學)과 대제학(大提學) 벼슬을 지냈고 의성군(宜城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양정(良靖)이다 아버지는 좌사윤(左司尹:종3품) 벼슬을 지내신 대번(大蕃)이시다 아들 침(琛)은 상호군(上護軍)이며 사위는 변이(邊頤)인데 총판(摠判)을 지냈다

婿영천 이양실(李陽實)

아버지는 찬성(贊成)을 지낸 승손(承孫)이시다

婿김윤량(金允諒)

아들 **天義** 천의

유수(留守:종3품) 벼슬을 지내셨다

아들 **天怡** 천이

대전좌중금위(大殿左中禁衛) 유랑장(諭郎將:정6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경주이씨(慶州李氏)

墓 경기도파주군교하면 후율리(써근배미)에 모셨는데 찾지못하였다

친정아버지는 소감(少監:4품) 벼슬을 지내신 육(毓)이시고 할아

(望柱石)·사대석(莎台石)이 있다

婿상주 주문보(周文俌)

아들 세곤(世鵾)과 세붕(世鵬)이 있다

아들 **參** 참

1393년 식년시(式年試)에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였다 전설서승(典設署丞:정6품) 벼슬을 지내셨는데 증손자 풍형(豊亨)의 벼슬이 높아지자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벼슬에 증직되셨다

配숙인(淑人) 진천송씨

아들 **志** 지

8권 53

아들 **思** 사

10권 23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버지는 지신사(知申事: 都承旨: 정3품) 벼슬을 지내신 경중(敬中)이시며 증조할아버지는 참리(參理: 종2품) 벼슬을 지내신 천(倩)이시다 외할아버지는 녹사(錄事)를 지내신 능성 구인필(具仁弼)이시다

(鎭川宋氏)

墓경기도개성군풍덕면 홍교리가잠곡(可潛谷) 가재골 동남동향(辛坐)에 합장으로 모셨다

표갈(表碣)·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석인(石人)·표석(表石)이 있다 표석(表石)은 사국(師國)이 글씨를 썼고 지석(誌石)은 서기1774년에 사국(師國)이 글을 짓고 글씨도 썼다 또 묘소 왼쪽 산등성이에 「윤씨선산(尹氏先山)」이라고 쓴 네글자를 새긴 돌이 세워져있다

아들 **天佑** 천우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내셨다

壻신안 이 반(李 胖)

감정(監正: 정3품)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시령(寺令: 종3품) 벼슬을 지내신 덕배(德培)이시고 아들은 인손(仁孫)·의손(義孫)·예손(禮孫: 縣監)·지손(智孫: 縣監)이다

壻강릉 김하적(金河赤)

판서(判書: 정3품)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부령(副令: 종4품) 벼슬을 지내신 한신(漢臣)이시고 아들은 장간(莊侃: 大卿)·성간(成侃: 司宰監)이고 사위는 곽예(郭預: 護軍)이다

아들 **樟** 장

고려조에서 칠성군(漆城君)에 봉해지셨다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

아들 **天覺** 천각

아들 **公生** 공생

아들 **湖** 호

10권 479

아들 **天斅** 천효

큰아버지이신 환(桓)

다
묘찾지 못하고 함안군 칠원면유원리에 있는 충효공(忠孝公) 묘소 밑에 설단(設壇)하였다

에게 양자로 가셨다

아들 **樺** 화

고려조에서 인녕부(仁寧府:三司) 좌사윤(左司尹:종3품) 벼슬을 지내셨다
묘찾지 못하고 함안군 칠원면유원리에 있는 충효공(忠孝公) 묘소 밑에 설단(設壇)하였다

配영양남씨(英陽南氏)
묘실전하였다
친정아버지는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휘기(輝璣)이시고 할아버지는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유손(有孫)이시며 증조할아버지는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성로(星老)이시다 외할아버지는 직제학(直提學:정4품) 벼슬을 지내신 이원간(李元幹)이시다

아들 **邦昌** 방창

방(邦)자를 방(方)자로도 쓰셨다 예조참판(禮曹參判:종2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정부인(貞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친정아버지는 현성군(玄城君) 용(鏞)이시고 할아버지는 현복군(玄福君) 염(廉)이시며 증조할아버지는 찬성사(贊成事:정2품) 벼슬을 지내신 준(準)이시다 외할아버지는 밀직사사(密直司事:종2품) 벼슬을 지내신 광주 김광철(金光轍)이시다
묘실전되었다

아들 **邦柢** 방저

방(邦)자를 방(方)자

아들 **柔** 유

아들 **强明** 강명
10권 517

婿청주 하 준(河濬)
현감(縣監:종6품) 벼슬을 지냈다

아들 **廉** 렴

婿남양 홍 인(洪珚)
총판(摠判)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수언(修彦)이시고 아들은 미인(美仁)이다

婿남평 문유질(文由質)
아버지는 소윤(少尹:종4품) 벼슬을 지내신 노(魯)이시고 사위는 신자교(申自橋:都事)·홍일동(洪逸童:提學)이다

婿의령 조 상(曺尚)
헌납(獻納:정5품)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우윤(右尹) 벼슬을 지내신 정유(挺儒)이시고 아들은 호직(好直:縣監)·호정(好正)이다

아들 **作** 작

현감(縣監:종6품) 벼

아들 **繼先** 계선
10권 517

16세

17세

18세

19세

로도 쓰셨다 처음 이름
은 방흥(邦興)이시다
조선조 태종(太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추충
익대좌명삼등공신(推
忠翊戴佐命三等功臣)
에 녹훈(錄勳)되셨고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찬
성(右贊成:종1품) 벼
슬을 지내셨고 칠원군
(漆原君)에 봉해지셨
다 영의정(領議政:정
1품) 벼슬에 증직되셨
고 시호는 정경(貞景)
이시다
건원릉(健元陵:太祖)
의 신도비문(神道碑文)
중 공신록(功臣錄)에
는 다만 저(柢)자만 기
록되어 있는데 방(邦)
자가 빠져 있는 것은
임금의 이름자와 같았
기 때문인듯 하다
配정경부인(貞敬夫人)동
복오씨(同福吳氏)
친정아버지는 판밀직
(判密直:종2품) 벼슬
을 지내신 중화(仲和)
이시고 할아버지는 찬
성사(贊成事:정2품)
벼슬을 지내신 선(僐)
이시며 증조할아버지
는 찬성사(贊成事:정

20세

슬을 지내셨다
配숙부인(淑夫人)광산김
씨(光山金氏)
친정아버지는 군수(郡
守:종4품) 벼슬을 지
내신 염(琰)이시다

21세

아들
繼祖
계조
10권
517

2품) 벼슬을 지내신 잠(潛)이시다 외할아버지는 현복군(玄福君) 염(廉)이시다

墓실전되었다

아들 邦興 방흥

좌우위(左右衛) 정용(精勇) 호군(護軍:정4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婿오 승(吳 陞)

대제학(大提學:종2품)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사경(寺卿)이시고 사위는 최순손(崔順孫:錄事)이다

아들 子當 자당

자당(自當)이라 기록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정1품) 벼슬을 지내셨다 조선조 태종(太宗) 때에 추충분의익대좌명공신(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에 녹훈되셨으며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에 봉해지셨다 시호는 정평(靖平)이시다

종(從)16대손 심현(心

婿우주 황 균(黃 均)

아버지는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거중(居中)이시고 아들은 장손(長孫:內侍別監)·진손(進孫:生員)·명손(命孫:進士)·만손(萬孫)이다

婿이승손(李承孫)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냈다

아들은 영신(永臣)이다

婿담양 전 유(田 柔)

이조판서(吏曹判書:정2품) 벼슬을 지냈다

아들은 보원(甫原:判中樞)·보명(甫明)이다

아들 椌 공

고려조에서 삼중대광(三重大匡:정1품) 벼슬을 지내셨고 추성병의동덕섭리보조공신(推誠秉義同德燮理保祚功臣)에 녹훈(錄勳)되셨으며 칠성부원군(漆城府院君)에 봉해지셨다

墓찾지못하고 함안군 칠원면유원리에 있는 충효공(忠孝公) 묘소 밑에 설단(設壇)하였다

16세

17세

18세

配 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 실전되었다

19세

鉉)이 행장(行狀)을 지었다

配 정경부인(貞敬夫人) 연안송씨(延安宋氏)

친정아버지는 목사(牧使) 벼슬을 지내신 광언(光彦)이시고 외할아버지는 판서(判書:정3품) 벼슬을 지내신 영양 남휘주(南暉珠)이시다

繼配 정경부인(貞敬夫人) 함양여씨(咸陽呂氏)

친정아버지는 서령(署令:종5품) 벼슬을 지내신 길손(吉孫)이시고 할아버지는 부사(府使:종3품) 벼슬을 지내신 공계(公繫)이시며 증조할아버지는 의랑(議郎:정4품) 벼슬을 지내신 극해(克諧)이시다 외할아버지는 양원군(楊原君) 경주 설순(薛淳)이시다

● 함안군칠서면상포(上浦)에 있는 선산 왼쪽 산등성이 남남동향(壬坐)에 3위 합장으로 모셨다

상석(床石)·석인(石人)·향로석(香爐石)이 있다

아들 子良 자량

20세

아들 世安 세안

21세

아들 保 보

아들 **繼䒱** 계유
고려조에서 대장군(大將軍:종3품) 벼슬을 지내셨다

婿광산 김성리(金成理)
아버지는 문학(文學:정5품) 벼슬을 지내신 장영공(章榮公) 진(禛)이시다 리(理)자는 광산김씨족보에서는 리(利)로 기록되어 있다

婿고 선(高善)

아들 **佺** 전
검교예빈경(檢校禮賓卿:정3품)과 대호군(大護軍) 밀직사지사

조선조 태종(太宗)때에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과 한성판윤(漢城判尹:정2품) 벼슬을 지내셨다 1400년에 박포(朴苞)의 난(일명 왕자의 난)때에 형님이신 정평공(靖平公)과 함께 태종을 위하여 참전하여 의롭게 순사하셨다 종사(宗社)를 안정시킨 공로로 원종공신(原從功臣)에 녹훈되셨고 칠제백(漆隄伯)에 봉해지셨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시다
墓실전되었다

婿강 원(姜原)
부윤(府尹:종2품) 벼슬을 지냈다

婿홍(洪)
전적(典籍:정6품) 벼슬을 지냈다

아들 **守常** 수상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종2품)와 대제학(大提學) 벼슬을 지내

정순대부(正順大夫:정3품) 군기시(軍器寺) 판사(判事)를 지내셨다 어느 기록에는 예문관(禮文館) 시교(侍敎) 또는 판관(判官)을 지내셨다고 되어 있다
壇2000년음력3월 1일에 전남보성군노동면광탄리에 제단비(祭壇碑)를 설단하고 상석(床石)·망주석(望柱石)·인물석(人物石)등을 갖추었다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아들 **懋** 무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종2품) 벼슬을 지내셨다 칠원향안(漆原

아들 **持正** 지정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16세

17세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婿함양 박 종(朴 琮)

중랑장(中郎將:정5품) 벼슬을 지냈다 아버지는 정승(政丞)을 지내신 지량(之亮)이시고 아들은 원두(元斗:典客令)·원계(元繼:祗侯)이다 사위는 의령 남로천(南老天:知軍事 贈侍中)·김유(金襦:護軍)·인천 이익세(李益歲:中書舍人)이다

婿김 두(金 科)

삼재(三宰) 벼슬을 지냈다

婿진주 류인무(柳仁茂)

판시사(判寺事:정3품) 벼슬을 지냈다

18세

(密直司知事:종2품) 벼슬을 지내셨다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19세

셨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을 지내셨다고 기록되었다 또 칠원향안(漆原鄕案)에는 이름이 수상(壽祥)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공은 문장(文章)을 잘 지을뿐 아니라 학문이 높아 그 시대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셨다

壇찾지못하고 함안군 칠원면유원리에 있는 충효공(忠孝公) 묘소 밑에 설단(設壇)하였다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20세

鄕案)에는 무관(武官)으로서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지내셨다고 되어 있다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墓실전되었다

21세

아들 **行政** 행정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아들 **方正** 방정

配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아들 **居正** 거정 11권 1131

제7편 족보편찬위원회

1.경진대동보 편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칠원윤씨 대동보편찬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7 칠원윤씨대종회관내에 둔다.

제3조 (구성) 본회는 지역종친회 회장과 파종회장 및 편찬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적) 본회는 대동보 편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신보 발간이후에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수보 및 구보의 수단누락 종친들의 입보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선조의 훌륭한 행적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 함으로서 위업을 선양하여 종친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친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
이 사	10인내외	감 사	3인이내

제6조 (고문, 자문위원) ①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대한다.

제7조 (보소) ①대동보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회에 보소를 둔다.

②보소 주관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파종회는 자체결의에 의하여 수단보소를 둘 수 있다.

④파종회는 각 지파의 수단유사를 선정하고 중앙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본회의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9조 (임무) ①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보소 주관임원은 대동보 편찬 업무를 담당한다.

④감사는 회계 사무를 년1회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 ①본 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예산, 결산

나. 임원선출

다.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라. 대동보 편찬위원회 해산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①대동보 편찬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이사는 고문, 자문위원과 편찬위원중에서 족보에 관한 식견이 많은분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파종간의 이견조정
나. 계파 불분명자의 입보문제
다. 예산승인
라.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회의) ①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대종회 정기총회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회의록)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구성원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재정) 본회의 수입은 수단금과 대동보 대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5조 (예산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초년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름한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7조 (해산 및 청산)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며 청산업무는 대종회에 인계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진대동보 편찬기준

1. 족보의 명칭 : 칠원윤씨대동보(경진보)
2. 추진기구 : 칠원윤씨대동보 편찬위원회
3. 족보의 규격, 권수 : 4×6배판 양장으로 하고 단수는 현행 8단을 6단으로 재편하며 1권당 쪽수는 1,000쪽 이내로 하고 1질은 11권(예정)으로 한다.
4. 기준보 : 경신보로 한다.
5. 구보의 한글화 :
   ① 경신보 1권의 문헌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화하고 해석문 다음에 원문을 기재한다.
   ② 경신보 각권에 등재된 자손록은 전부 한글화 한다.
6. 연월일 표기 : 서기로 표기한다.
   예) 1997년 6월 22일생
7. 국·한문 사용 : 인명, 지명등 고유명사는 괄호안에 한문을 넣고 그 외에는 가능한한 한글로 한다.
8. 남녀의 배열 :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고 연장순(年長順)으로 한다.
9. 유적, 유물 등의 사진 :칼라로 촬영하여 편집한다. 다만, 실전된 경우에는 옛사진을 활용한다.
10. 선영도 : 선영도에는 항공사진과 천연색 지도를 삽입한다.
11. 파별순위 : 세계도(世系圖)의 순서대로 한다.
12. 파계도(派系圖) : 현 28세까지로 되어있는 파계도(派系圖)를 36세까지로 확대한다.
13. 족보의 신청 :
    ① 전보(11권) 1질(帙)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족보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 50,000원을 수단금과 같이 납부한다.
    ③ 족보대금은 신청부수를 감안하여 추후결정통보
14. 수단금 : ① 수단금은 관(冠) (기혼남녀 칠원윤씨) 15,000원
    ② 동(童) (미혼남녀 칠원윤씨) 10,000원
    단, 칠원윤씨(남)의 부인과 칠원윤씨(여)의 남편과 외손은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
15. 수단위원(유사) : 각종파의 수단위원은 해당종파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고 대동보편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대동보소 제반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6. 수단기록사항
    ① 공직

일반공무원 : 사무관 이상(예 : 서기관, 국방부 정훈국○○과장)
(면장, 읍장, 통일주체국민회의의원, 평통자문위원 포함)
군　　인 : 위관이상
교　　직 : 교감이상(초중고)대학교수(전임강사)이상
국영기업 : 부장이상(상장기업포함)
일반회사 : 대표이사(비상장주식회사)
경　　찰 : 경정(警正)이상
선 출 직 : 시군구의회 의원 이상
언론기관 : 부장이상
향　　교 : 전교(典敎) 이상
종 교 계 : 주지, 목사

② 고시 :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시험 기술고시(회수기재)

③ 학력
전문대는 "전문대졸" 4년제대학이상은 ○○ 학사 ○○ 석사 ○○박사

④ 상훈
표창 …… 대통령 표창
훈장 …… 전체, 훈장명, 훈장번호
효열 …… 명칭, 기관명(시장, 군수이상 대종회장 표창포함)

⑤ 묘소
1) 지번, 좌향
2) 공원묘지는 묘지명, 묘번

⑥ 입출계(入出系)
입계(入系) : 생부(生父)명, 계자(系子)표시
출계(出系) : ○○후

⑦ 여식
1) 기혼녀, 미혼녀 모두 자와 동일시한다.
2) 차서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단 망자는 망년월일을 기입한다)

⑧ 배
1) 배의 4조는 구보에 기록된 것 외에 본보에서는 배의 부모만을 기록한다. 다만 배의 부모 관직은 수록할 수 있다.
2) 배의 성명과 생년월일, 관직, 학력, 상훈을 수록한다.
예 (1) 김해 김숙자 1935년 3월 5일생
부김길동(金吉童)모풍양조영자(豊壤趙榮子)

⑨ 사위

1) 출가녀의 남편은 부로 하고 평에서 1자고(1字高)로 한다.

2) 본관 성명과 관직은 시장, 군수급이상만 수록한다.(외국인인 경우 본관대신 국명을 쓰고 성명은 고유명사임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생년월일, 학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3) 외손은 부 다음에 자, 여의 이름만을 수록한다.

⑩ 호

미성년자의 호는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추록, 보충수정금지

손록보주는 역대구대보상에 선현들의 기록과 문헌의 고증을 존중하고 고증없이 기록된 부분은 족보의 존엄성과 정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추록(追錄)하거나 보충수정하는 것을 불허한다.

⑫ 임의환본금지(任意還本禁止)

구보에 이미 재록된 계후자(系后者)가 자의(自意)로 환본(還本)함은 이를 용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후부(所后父)의 소생자(所生者)가 있거나 양측의 완전한 동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그 사유를 밝힌다.

⑬ 수단인국한

상기 수단변경사항등은 금반 수단인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기몰자(旣沒者)는 경신보에 의한다.

⑭ 행장

군지, 시지, 이상에 등재한 인물은 기재를 인정한다.

3、경진대동보 편찬위원회명단

고 문 : 영우(永禹) 영학(榮學) 영연(永淵)
영원(英遠) 병철(炳哲)

자문위원 : 영설(永卨) 병섭(炳攝) 정삼(政三)
종구(鍾璆) 종오(鍾五) 철원(哲遠)
기옥(錡玉) 종화(鍾華)

위 원 장 : 응원(應遠)

부위원장 : 병오(炳五) 규원(圭遠) 종은(鍾殷)
의원(義遠)

감 사 : 진원(晋遠) 은수(銀洙)

위 원 :

종구(鍾九)	부 산	석원(錫遠)	보 은
양원(良遠)	대 구	인수(仁洙)	칠 곡
종서(鍾書)	대 전	종만(鍾萬)	제 천
종연(鍾燃)	광 주	만수	충 무
주원(柱元)	춘 천	유근(有根)	하 동
병혁(炳赫)	거 제	종석(鍾晳)	화 성
종태(鍾太)	마 산	용한(容漢)	노 해
창원(昌遠)	논 산	성호(晟豪)	익 산
종복(鍾福)	성 남		
병휴(炳休)	산 하		
병욱(炳旭)	울 산		

홍 수(弘 洙)	종 안(宗 安)
병 흠(炳 欽)	송월암공(松月庵公)
대 원(大 遠)	낭 장 공(郎 將 公)
병 갑(炳 甲)	칠 계 군(漆 溪 君)
병 만(炳 萬)	목 사 공(牧 使 公)
성 순(成 淳)	부호군공(副護軍公)
종 규(鍾 圭)	양성당공(養性堂公)
경 원(敬 遠)	승사랑공(承仕郎公)
영 각(永 恪)	판결사공(判決事公)
상 철(相 徹)	생 원 공(生 員 公)
기 복(基 福)	칠 성 군(漆 城 君)
형 남(衡 南)	대제학공(大提學公)
백 순(伯 淳)	부 원 군(府 院 君)

4、임원명단

위 원 장：응원(應遠)

부위원장：병오(炳五) 규원(圭遠) 종은(鍾殷)

의원(義遠)

이 사：종대(鍾大) 종재(鍾在) 형남(衡南)

종만(鍾萬) 성순(成淳) 석원(錫遠)

기복(基福) 영일(永日) 홍수(弘洙)

종권(鍾權) 병호(炳浩) 종연(鍾燃)

감 사：진원(晋遠) 은수(銀洙)

편집위원명단

위 원 장：응원(應遠)

부위원장：의원(義遠)

위 원：영설(永卨) 형남(衡南) 병현(炳賢)

병섭(炳攝) 병오(炳五) 규원(圭遠)

종은(鍾殷) 기옥(錡玉) 종오(鍾五)

홍수(弘洙) 상철(相徹)

교정감인：형남(衡南) 상철(相徹)

신쌍환(辛雙煥) 정완택(鄭完澤)

5、수단위원(유사) 명단

지역	유사	지역	유사
하동	유근(有根)	정산	홍수(弘洙)
정산	성원(成遠)		종은(鍾殷)
지곡	창원(昌遠)		종희(鍾熙)
화성	종석(鍾晳)	용안·익산	성호(晟豪)
	인호(寅浩)	거제	종대(鍾大)
춘천	주원(柱元)		병혁(炳赫)
	주화(柱華)		은수(銀洙)
	주설(柱卨)	양평	종재(鍾在)
	종덕(鍾德)	오갑	종태(鍾泰)
	원묵(原默)	칠원마산	철원(哲遠)
공주·청남	영각(永恪)	검단죽청	
청남·정산	종섭(鍾燮)	합천법수	종규(鍾圭)
논산가야곡	두원(斗遠)	고산	영권(永權)
논산채운면	수원(修遠)	나주	형남(衡南)
부여초촌	종태(鍾球)	고흥	연휘(年輝)
	경원(敬遠)	장흥	순근(順根)
	윤원(允遠)	당진·진천	상철(相徹)
정산	병현(炳賢)	양산부산	정복(正福)
	종설(鍾卨)	합천	수원(修遠)

수단위원(유사)명단

지역	유사		
서울	용한(容漢)		
	병만(炳萬)		
석전유산	철근(鐵根)		
	만근(萬根)		
칠곡대전	석원(碩遠)		
제천	종만(鍾萬)		
화성	영무(永茂)		
성남	기복(基福)		
부안	영일(永日)		
거제	맹근(孟根)		
승주	차봉(次俸)		
보성서울	성순(成淳)		
	호순(鎬淳)		
	정수(定洙)		
	태원(泰遠)		

附

錄

제8편 부록(附錄)

제1장 보첩에 관한 상식

1、종친(宗親)과 문사(門事)

종친(宗親)이란 말은 처음에 임금의 친족(親族)을 말하였다。그래서 종친부(宗親府)라는 관청을 두어 왕실의 계보(系譜)나 임금의 초상화(肖像畵) 등을 관리 보관하고 임금과 왕비의 옷을 관리하며 임금의 친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했다。

또 과거(科擧)에서도 종친과(宗親科)라는 제도가 있어서 종친의 유생(儒生)에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었다。그러다가 민주사회가 등장하면서 임금의 핏줄만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까지 씨족(氏族)간에 종친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같은 일가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이것을 종친회(宗親會)라 부르게 되었다。종친회는 중앙조직이 있고 각 파별로 파종친회(派宗親會)도 있으며 그 이하 소파(小派) 종친회도 생겨나게 되었다。이 대소 종친회에서 필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문사(門事)라고 한다。종친회와 비슷한 말로 화수회(花樹會)란 말도 있는데 종친회와 하는 일은 비슷하다。

2、보첩(譜諜)과 보첩(譜諜)에 나오는 용어

보첩은 족보라고 부르는데 같은 일가들을 소목(昭穆)에 맞게 배열하여 종(縱)으로나 횡(橫)으로 서열을 분명히 하고、생년월일이나 경력、죽은 날、묘소 등을 기록하여 일가들의 역사책 구실도 하도록 편찬한 것이다。이 족보는 중국의 6조시대(六朝時代)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특히 북송(北宋)의 대문장가들이었던 소순(蘇洵:호는 老泉)과 그 두 아들인 식(軾:호는 東坡)과 철(轍:호는 欒城)에 의하여 편찬되었던 족보는 그 내용이 우수하였다고 한다。그 후부터 족보를 편찬할 때는 대개 중국의 소씨(蘇氏)족보를 표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歷代) 왕실(王室)에만 세보(世譜)가 있었을 뿐이고 사대부(士大夫)의 집에는 가승(家乘)만이 마련되어 오다가 1516년(중종11년)에야 겨우 족보의 형태를 갖추어 인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족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분류하여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승(家乘)

가승은 보첩을 편찬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가승은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이다。어느 집은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는 문중도 있으나 대개는 시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여기에서 사적(事蹟)이란 이름자 옆에 방주(旁註)한 것을 이른다。

② 계보(系譜)

계보란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쉽게 볼수 있도록 이름자만 상·하·좌·우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 것을 말한다。계보는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 파보(派譜)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만의 이름자와 사적(事蹟:旁註)을 수록한 족보를 말한다。

④ 세보(世譜)

세보는 두 종파(宗派)이상이 합보(合譜)하여 순서에 맞게 편찬하거나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世譜)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다。또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⑤ 대동보(大同譜)

본관(本貫)과 성씨가 같은 일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종지(宗枝)와 소목(昭穆)을 분명히 하는 족보를 말한다。대동보는 조상님들의 유적(遺蹟)들을 등재하여 후손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일문(一門)의 역사를 분명히 밝혀주며 자기 씨족의 영고성쇠를 알려준다。또 이를 기초로 하여 나라의 역사도 편찬한 일이 자주 있어 왔다。

⑥ 종보(縱譜)와 횡간보(橫間譜)

이것은 족보의 편찬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요사이의 보통 족보는 1쪽을 6단으로 나누고 5단까지만 방주(旁註)를 기록한 다음 6단에는 다음기두로 넘어갈 아들들의 이름자와 다음기두 첫머리에 나오는 이름을 연결해주는 쪽수 번호를 넣고, 또 딸들의 방주와 사위의 본관과 이름, 외손들의 이름, 양자의 들어가고 나간 기록 등을 기록하여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횡간보(橫間譜)가 있고 또 줄보라고 이름지어진 종보(縱譜)가 있다。종보는 1쪽을 일정한 숫자로 분할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의 기록이 끝나야만 세로로 줄을 그어서 표시하기 때문에 윗대와의 열결이 불편하고 한사람 란(欄)에 아들, 누이, 사위등을 한꺼번에 기록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해득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지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어 지면을 줄여서 경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면은 있다。 그러나 수십년만에 발행되는 족보는 읽는데 편리한 횡간보를 취하는 것이 요사이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 족보에 나오는 용어(用語)

①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는 족보 기록상 제일 처음 나오는 조상을 말한다。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제일 먼저 기록에 나오는 조상님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씨(崔氏)의 비조는 소벌도리(蘇伐都利)이고 경주최씨(慶州崔氏)의 시조는 최치원(崔致遠)인 경우와 같다。

위와 같은 경우 이외에 선계(先系)가 없는데 자기 시조를 비조(鼻祖)라고 부르는 수가 있으나 이것은 자기들의 시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②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상에 알린 조상을 중시조라 한다。 중시조로 추존(追尊)하려면 모든 종중의 공론에서 결정하며 자기의 파(派)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선계(先系)

시조 이전의 조상님이나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말한다。

④ 세계(世系)

세계라 함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혈통(血統)의 차례를 말한다。

⑤ 세(世)와 대(代)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세(世)이다。 대(代)는 자기와 아버지 사이를 1대라 한다。 그래서 대는 세에서 하나를 뺀 것을 말한다。

⑥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호적명(戶籍名) 하나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름을 여러개씩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때 부르던 아명(兒名)、 관례(冠禮:성년식)를 치르고 나서 부르는 관명(冠名:字)、 족보에 올리는 이름인 보명(譜名:行名[항명])、 그밖에 별호(別號)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호적명과 아명 정도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여러 이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윗어른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자(銜字)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휘자(諱字)라고 한다。 또 윗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함자(銜字)이건 휘자(諱字)이건 이름자를 바로 부르지 않고 이름자의 글자 사이마다 자(字)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또는 글자를 풀어서 부른다。 예를 들어 어느 어른의 이름자가 용진(龍鎭)이라면 용(龍)자(字) 진(鎭)자(字) 입니다 라고 하던가 용룡 자와 누를 진자를 쓰십니다 라고 하면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존대하여 부를 경우에도 여러 호칭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씨(氏): 이름자나 성씨(姓氏)밑에 붙이며 아호(雅號)에는 붙이지 않는다。

* 선생(先生): 성씨나 이름 또는 아호(雅號)밑에 붙인다。

* 공(公): 남자의 성씨나 아호(雅號)、시호(諡號) 또는 관직이름 밑에 붙인다。 어떤 경우에는 「그 어른」 또는 「그 분」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특히 족보에서 많이 쓰이는 행장(行狀)이나 비문(碑文) 등에서 쓰이는 공(公)은 「이 분은」「이 어른은」이란 뜻이다。 또 부인의 남편이라고 표현할 때에도 공(公)이라고 쓴다。

* 옹(翁): 남자 노인의 성씨나 이름자 밑에 붙인다。

* 장(丈): 남자의 직함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⑦ 항렬자(行列字)

항렬은 같은 일가끼리 세계(世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이다。 이 항렬자(行列字)를 정해서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의 고종때부터라고 한다。 항렬자를 정하는 방법은 가문(家門)마다 다른데 천간(天干)에 따라서 甲·乙·丙… 등으로 정하기도 하고 지지(地支)를 사용하여 子·丑·寅·卯…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一·二·三·四… 등의 숫자로 정하는 가문도 있다。 그러나 오행(五行:金·水·木·火·土)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가문이 가장 많다 하겠다。

항렬자를 사용하여 이름자를 지으면 일가끼리 만났을때 이름자만 보고도 같은 항렬인지 숙항(叔行)인지를 알 수 있어 반가운 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나 한편으로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다든가 하여 혼동을 피하기 위해 듣기에 거북한 이름자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일가끼리 위·아래를 분명히 하여 예절을 차릴 줄 안다는 편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렬자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⑧ 생(生)과 졸(卒)

생(生)은 출생한 것을 말하며 졸(卒)은 죽은 것을

말한다。졸을 표시할 때는 연령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시하는데 20세전에 죽으면 요절(夭折)이라 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하고 70세전에 돌아가시면 향년(享年) ○○세라 표시한다。또 70세이상을 사시고 돌아가시면 수(壽) ○○세라 표시한다。

⑨ 배(配)

부인을 말한다。족보에서는 보통「配」라 표시하는데 어느 가문에서는 부인이 살아 있으면 실(室)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족보 수단 때는 살아 있다가도 간행될 때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족보 간행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⑩ 묘소(墓所)

묘소의 위치를 표시하며 묘(墓)자만 기록한다。묘소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그동안 리(里)나 고유지명(固有地名)과 좌향(坐向)만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현행 행정구역으로 리(里)단위까지 쓰고 더 세분하고져 할때는 고유지명이나 지번(地番)을 표시하고 좌향(坐向)을 표시한다면 묘소를 찾기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⑪ 합장(合葬)과 쌍분(雙墳)

남편묘소와 부인 묘소가 어떤 형태로 매장되었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남편과 부인을 한 봉분 안에 같이 매장한 형태를 합장(合葬)·합폄(合窆)·합분(合墳) 등으로 표시해 왔는데 합장(合葬)이라 표시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듯 하고 또 남편과 부인을 같은 곳에 매장하고 봉분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쌍분(雙墳)이라고 한다。

⑫ 좌향(坐向)

좌향이란 시신이 어느 방향에 매장되었는지를 표시한다。보통은 동양에서 사용하는 24방위로 표시한다。또 좌(坐)란 시신의 머리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표시하고 향(向)은 시신의 다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를 표시한다。나침반(羅針盤)에 표시된 것을 보면 좌(坐)가 결정되면 향(向)은 자동으로 결정되게 만들어졌다。24방위도는 부록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⑬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묘비는 죽은 분의 행적(行蹟)을 새겨 묻힌이의 묘소앞에 세운 석물의 모든 것을 말한다。비명(碑銘)은 묻힌이의 행적(行蹟)을 기록한 뒤 그에 적절한 내용을 간추려 시부(試賦)의 형식을 빌어 운문(韻文)으로 서술한 비문을 말한다。

⑭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는 종2품(從二品)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

의 묘소로 가는 길가에 세운 묻힌이의 비석을 말한다。 신도비명은 통정대부(通政大夫:정3품)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이 글을 짓는 것이 관례였다。 묘갈(墓碣)은 정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소 앞에 세우는 비석인데 모든 것은 신도비와 같으나 체제나 규모가 작은 것이 다르다。

⑮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는 보통 표석(表石)이라고 한다。 묻힌이의 관직(官職)과 이름 또는 호를 전면에 큰 글자로 새기고 뒷면에 사적(事蹟)을 서술한 글을 새기는데 이것을 음기(陰記)라고 한다。 표석에는 비명(碑銘)은 쓰지 않는다。 묘지(墓誌)는 묻힌이의 본관·성명·사적등을 돌에 새기거나 자기(磁器)나 옹기(甕器)등에 글을 쓰고 난후 구운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무덤앞에 묻는다。

3、조선시대(朝鮮時代)의 관직(官職)

조선시대의 관직은 크게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 나누었는데 동반은 문관(文官) 벼슬을 말하고 서반은 무관(武官) 벼슬을 말한다。 또 동반과 서반은 경직(京職:內職)과 외직(外職:地方職)으로 다시 구분한다。

① 동반(東班)의 경직(京職)

동반관직의 경직(京職)은 요사이의 중앙부처(中央部處)와 비슷한데 여러차례 증설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여 관청수로는 약80여개에 이르렀으나 여기서는 중요 관청과 담당 업무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 외의 관청은 고려와 이조의 관직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의정부(議政府): 국사(國事)를 상의하는 나라의 최고기관(最高機關)이다。 모든 관원(官員)을 총괄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어 나라를 다스린다。 구성원은 영의정(領議政:정1품)·좌의정(左議政:정1품)·우의정(右議政:정1품)·좌찬성(左贊成:종1품)·우찬성(右贊成:종1품)·좌참찬(左參贊:정2품)·우참찬(右參贊:정2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승정원(承政院):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다。 우두머리 벼슬은 도승지(都承旨:정3품)이고 5명의 승지로 구성되어 있다。
* 승문원(承文院):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문서와 또 기타 외국과의 외교문서 작성을 맡아오던 정3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홍문관(弘文館): 궁중의 경서(經書)나 사적(事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정3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춘추관(春秋館): 그 당시의 정치를 기록하고 교명(教命)을 지으며 논의(論議)를 관장하던 정3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대제학(大提學): 정2품의 관직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임명되었고 자기가 사임하지 않으면 종신까지 근무한다。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과 성균관의 지사(知事)를 겸직하므로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소속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 예문관(藝文館): 국왕이 내린 모든 명령을 문서로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던 정3품관이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의금부(義禁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담당하던 종1품이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사헌부(司憲府): 당시의 정치를 논평하고 모든 관원을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일과 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밝히고 외람된 행위와 허위의 언동을 금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종2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사간원(司諫院): 왕에게 잘못된 정사를 지적하고 이를 고치도록 요청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3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경연(經筵): 왕이 참석한 가운데 4서5경(四書五經)이나 십삼경(十三經)등 유교에 관한 서적의 해설이나 토론을 주관하던 정3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한성부(漢城府): 서울의 호적·시장과 상점·가옥·논과 교량·개천과 하수구 등을 관리하고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빚진 것 등을 해결하고 싸우고 다치는 것을 방지하며 주간에 시내를 순찰하고 죽은 사람을 검시하고 마차(馬車)의 관리와 낙인(烙印)찍는 사무를 주관하는 정2품 관리가 우두머리인 관청이다。

* 6조(六曹): 나라의 정무(政務)중 전문분야를 나누어서 맡아보던 6개의 관청을 말한다。 이 관청들의 우두머리는 정2품 관리가 맡았다。 각 조(曹)의 맡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조(吏曹): 나라에 필요한 관리의 채용과 봉급에 관한 일, 봉군(封君)·봉작(封爵)에 관한 일, 관리의 공과(功過)·근태(勤怠)·파면(罷免)등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한다。

(2) 호조(戶曹): 나라 안의 가구(家口)와 인구(人口)에 관한 일, 지방에서 정부에 바치던 특산물의 관리와 세금의 부과에 관한 일, 경작지와 그곳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관한 일, 식료품이나 화폐발행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3) 예조(禮曹): 예법(禮法)과 음악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 연회(宴會)에 관한 일,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일과 기타 외국과의 외교관계 학교(學校)에 관한 일, 과거를 시행하는 일 등을 맡아 보았다。

(4) 병조(兵曹): 무관(武官)의 선발과 임명, 봉급에 관한 일, 군사에 관한 일, 호위병을 동원하여 의식을 엄숙하게 진행하는 일, 공무로 여행하는 관리에게 말을 대주는 일, 군사들의 갑옷이나 병장기에 관한 일, 중요 군사기지에서의 출입에 관한 일, 각 진영의 열쇠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5) 형조(刑曹): 법률(法律)에 관한 일, 형벌의 경중(輕重)을 심리하는 일, 재판에 관한 일, 죄수를 옥에 가두고 관리하는 일, 노예에 관한 문서나 노예로 인한 분쟁을 판결하는 일 등을 맡아 보았다。

(6) 공조(工曹): 산과 하천(河川)에 관한 일, 물품과 제조업에 관한 일, 건축물의 신축과 보수에 관한 일, 토지나 금속기구의 가공이나 제조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② 동반(東班)의 외관직(外官職)

동반(東班)의 중앙관직에 대한 대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지방관직(地方官職)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감영(監營): 감사(監司)가 머무는 관청이라 해서 감영이라고도 하였는데 전국을 8개의 도(道)로 나누고 그 도의 우두머리 벼슬은 관찰사(觀察使: 종2품) 또는 감사(監司)라고 했다。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인 무관벼슬도 겸직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중요한 정사(政事)에 대하여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가 관할하는 도에서는 경찰권(警察權)·사법권(司法權)·징세권(徵稅權) 등을 행사했다。 관원(官員)은 중앙에서 임명된 도사(都事)·판관(判官)·중군(中軍)등의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民政)은 이(吏)·예(禮)·호(戶)·병(兵)·공(工)·형(刑)방 등에서 행하고 이들은 지방민 중에서 선발된 향리(鄕吏)들이 맡아 처리했다。

* 부윤(府尹): 지방행정조직의 하나이다。 전국에 6곳 즉 경기도의 광주(廣州)、경상도의 경주(慶州)、전라도의 전주(全州)、함경도의 함흥(咸興)、평안도의 평양(平壤)과 의주(義州)등에 두었던 지방행정 조직이었다。 우두머리 벼슬은 종2품 관리가 맡았다。 절제사(節制使)인 무관을 겸직했다。

* 부사(府使): 지방행정 조직중의 하나이다。 대도호

부사(大都護府使:정3품 당하관)와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일컫는다. 대도호부사는 전국에 4곳에 두었으며 도호부사는 전국에 75곳에 두었었다. 무관인 절제사(節制使)도 겸하였다.

* 목(牧):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전국 20곳에 설치했고 부속된 여러 고을을 관리하게 하였다. 정3품 당하관이 우두머리 관리였는데 무관직인 첨절제사(僉節制使)도 겸직하였다.

* 군(郡): 지방행정 구역중의 하나이다. 전국에 80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우두머리 관리인 종4품 관원(官員)이 맡았었다. 군수는 무관벼슬인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도 겸직했다.

* 현령(縣令):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전국 26곳에 설치하였었다. 우두머리 관리는 종5품 관원이 맡았었는데 무관벼슬인 절제도위(節制都尉)도 겸했다.

* 현감(縣監):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전국에 138곳에 설치하였다. 우두머리 관리는 종6품 관원이 맡았었다. 무관벼슬인 절제도위(節制都尉)도 겸직했다.

각 지방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관리를 서리(胥吏)라 하였다. 지방민에서 선발하는 향리(鄕吏)인데 아전이라고도 불렀다. 조직에서도 중앙의 유조(六書)를 모방하여 유방(六房)이라 하였다. 6방서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이방(吏房): 해당 지방관서의 인사(人事)와 지방장관의 비서(秘書) 업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 호방(戶房): 해당 지역의 가구(家口)와 인구(人口) 파악, 세금과 공물의 부과, 경작지와 그곳에서 생산된 곡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 예방(禮房): 예의(禮儀)와 음악에 관한 일, 제사에 관한 일, 윗사람이 내방했을 때 접대에 관한 일, 학교(學校)에 관한 일 등을 담당하였다.

◎ 병방(兵房): 군사관계에 대한 일, 중앙 공문서를 중계하고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에게 말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

◎ 형방(刑房): 법률(法律)에 관한 일, 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 공방(工房): 작물의 재배에 관한 일, 배와 마차에 관한 일, 물품의 제조에 관한 일, 건축물의 축조와 보수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 이서(吏胥)밑에 지인(知印)이라는 일종의 향리(鄕吏)가 있어 지방장관의 관인(官印)을 보관하고 날인(捺印)하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또 통인(通引)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들은 나이어린

사람으로써 지방장관의 심부름을 맡아했다. 통인은 관노비(官奴婢)들의 소생이 대부분이었다.

이상과 같이 동반(東班)의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에 대하여 설명했다. 다음은 서반(西班)의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을 설명한다.

② 서반(西班)의 경직(京職)

중추부(中樞府): 문관이나 무관으로서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리가 맡은 직책이 없는 경우 이 사람을 우대하기 위하여 중추부(中樞府) 관원으로 임명한다. 이 관청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왕명의 출납, 군사에 관한 기밀, 군사에 관한 정책, 왕궁의 호위등을 담당하였으나 후에는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이관하였다. 그래서 서반 경직으로 분류하였다.

*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5위의 군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는 임진왜란때에 비변사(備邊司)가 생기면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오위(五衛)는 다음과 같다.

중위(中衛) 의흥위(義興衛): 서울의 중부, 개성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의 각 진(鎭)에 소속된 군사로 구성되었다.

좌위(左衛) 용양위(龍驤衛): 서울의 동부, 경상도의 각 진(鎭)에 소속된 군사로 구성하였다.

우위(右衛) 호분위(虎賁衛): 서울의 서부와 평안도의 진(鎭)에 소속된 군사로 구성하였다.

전위(前衛) 충좌위(忠佐衛): 서울의 남부와 전라도의 각 진(鎭)에 소속된 군사로 구성하였다.

후위(後衛) 충무위(忠武衛): 서울의 북부와 함경도의 각 진(鎭)에 소속된 군사로 구성하였다.

* 훈련원(訓鍊院): 병사(兵士)들의 무예를 시험하고 군사들의 무예를 연습시키며 병서(兵書)를 강의하던 관청이다. 우두머리 벼슬은 정3품 도정(都正)이 맡았다.

④ 서반(西班)의 외관직(外官職)

* 각도 병영(各道兵營): 각도의 육군을 지휘하는 군영인데 종2품관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가 각 도(道) 병영의 우두머리 벼슬이다. 병마절도사는 각 지방의 육군을 통솔하고 경비를 담당하였다. 도별로는 경기도 1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 등 전국적으로 15명이었는데 각 도(道) 관찰사(觀察使)가 그 중 한곳의 병마절도사를 겸임하였다.

* 각도수영(各道水營): 각도의 수군을 총 지휘하는

군영인데 정3품관인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도(道) 수군의 우두머리 벼슬이다。각 도별로는 경상도、전라도、함경도에는 각 3명、경기도、충청도、평안도에는 각 2명、강원도、황해도에는 각 1명이었다。수군진영이 한곳인 곳은 각 도 관찰사가 겸임하고 2명의 수군절도사가 있는 도는 1명은 도의 관찰사가 겸임하였다。다만 평안도에서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1명이 겸임하였다。나머지 도에는 전문 수군절도사가 임명되었다。

4、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을 임명할 때 먼저 위계를 정하여 발령을 내는 것은 지금의 공무원 임용과 다를바 없다。우선 품계(品階:職級)가 정해지고 다음에 소속 관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직책이 정해진다。조선조에서는 관직을 9품계(九品階)로 나누고 그 사이에 정(正)과 종(從)을 두어 총 18등급으로 나누었다。문관(文官)인 경우 정1품(正一品)부터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누고 품계의 등급마다 고유한 이름이 정해져 있었다。무관의 경우도 문관의 경우와 같이 18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무관도 등급마다 고유한 명칭이 있었다。예를 들면 동반 정1품은 고유명칭이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인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5、훈호(勳號)와 봉호(封號) 및 시호(諡號)

훈호는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리는 칭호를 말한다。훈호를 정할 때에는 어떤 사건의 성격에 맞게 공신 이름을 짓고 ○○공신(功臣)이라 하고 공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 1등、2등、3등 등으로 나눈다。공신칭호를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게 마련이어서 같은 공신칭호라도 1、2、3등을 두고도 알력이 많았다。

봉호는 왕의 적통(嫡統) 아들이나 빈이 낳은 아들、정2품 이상의 관원이 큰 공을 세웠을때、왕비의 친정아버지 등에게 대군(大君) 또는 군(君)、부원군(府院君) 등을 봉하던 것을 말한다。시호는 죽은 후에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 주는 대명(代名)을 말한다。조선조에서는 왕이나 종친 또는 문무관(文武官)중에서 실직(實職) 정2품 이상에게 주었다。시호를 받으려면 자손들이 지은 행장(行狀)을 예조(禮曹)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했다。시호제도는 후에 현신(賢臣)이나 명유(名儒)·절신(節臣)등에게까지 적용되는 일이 많았다。

6、행직(行職)과 수직(守職)

관원(官員)의 품계(品階)보다 낮은 직책(職責)에 임용된 것을 행직(行職)이라 하며 그와 반대로 자기 품계(品階)보다 높은 직책(職責)에 임명된 것을 수직(守職)이라 한다。이 경우 소속관청의 이름앞에 「행(行)」 또는 「수(守)」자를 붙이게 되었다。

7、관직의 기타 호칭

(1) 음직(蔭職)

공신(功臣)이나 현직 당상관(堂上官)의 자손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것을 말한다。이렇게 채용된 사람을 음관(蔭官) 또는 남행관(南行官)이라 불렀다。이들의 등용시험은 매년 정월에 있었고 공신이나 2품 이상인 자의 아들、손자、사위、아우、조카들과 3품관인 자의 아들、손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등용시험은 업무를 담당할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음관이 된 자가 뇌물죄나 패륜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추천한 사람도 연좌(連坐)하여 책임을 졌다。음관(蔭官)은 또 소과(小科:司馬試)에 합격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처음으로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서사(筮士)라고도 한다。

(2) 증직(贈職)와 수직(壽職)

종친이나 문무관(文武官)으로서 실직(實職)에 재직중인 자의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 등 3대의 관직을 추증(追贈)하는 것을 말한다。증직은 부모는 본인과 같은 품계를 주고 조부는 한품계를 내려서 주며 증조할아버지는 두 품계를 내려서 추증한다。특히 공신(功臣)이나 일등공신의 부모부터 증조에게까지는 상당한 예우가 뒤따랐다。

수직(壽職)은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면 양인(良人)이나 천인(賤人)을 막론하고 1품계의 벼슬을 주던 것을 말한다。원래 품계가 있던 자가 80세가 되면 1품계를 더 올려준다。그러나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왕의 특명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3) 영직(影職)

조선시대에 직함(職銜)만 있고 실제 업무에는 근무하지 않는 관직을 말한다。품계(品階)를 주기 위하여 임시로 주었다가 바로 사임시켰었다。

8、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는 4품이상의 관원(官員)에게 임금이 내리던 직첩(職牒:오늘날의 사령장(辭令狀))을 말한다。첩지(牒紙)는 5품이하의 관원에게 내리던 사령장을

말한다. 첩지를 내릴 때에는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이 연서(連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9、제수(除授)

해당 관청에서 천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0、묘계(墓界)

관원(官員)의 품계에 따라 묘소의 구역(區域)을 정하던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정(正)·종(從)1품(一品): 묘소를 중심으로 4방 1백보까지 허용하였다.

정(正)·종(從)2품(二品): 묘소를 중심으로 4방 90보까지 허용하였다.

정(正)·종(從)3품(三品): 묘소를 중심으로 4방 80보까지 허용하였다.

정(正)·종(從)4품(四品): 묘소를 중심으로 4방 70보까지 허용하였다.

5품이하(以下): 묘소를 중심으로 40보까지 허용하였다.

생원(生員)·진사(進士): 묘소를 중심으로 40보까지 허용하였다.

일반서민(一般庶民): 묘소를 중심으로 10보까지 허용하였다.

11、봉사(奉祀)

기제사(忌祭祀)를 모실 때 어느분까지의 제사를 모시는가 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

문무관(文武官) 6품이상: 삼대(부모、조부모、증조부)까지 제사를 모신다.

문무관(文武官) 7품이하: 두 대(부모、조부모)까지만 제사를 모신다.

일반서인(一般庶人): 아버지 어머니 두분만 제사를 모신다.

* 나라에 큰 공훈을 세운 공신(功臣)의 경우는 영구히 사당(祀堂)에 신주(神主)를 모셔놓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했는데 부조전(不祧典) 또는 불천위(不遷位)라 한다.

* 봉사(奉祀)라는 것은 기제사(忌祭祀)를 이른다. 그렇다면 묘제(墓祭)는 5대조부터 모시니 일반서민들의 경우 부모만 기제사를 모시게 했으니 조부와 증조부、고조부의 제사를 어떻게 했었을까? 의심나는 일이다. 편자의 생각으로는 조부부터 고조부까지는 큰댁 사당(祀堂)에서 절사(節祀)만 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12、학제(學制)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기본이념으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유교경전(儒教經典)을 교육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成均館)이었는데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시험에 합격해야 했고 성균관 학생이라야만 과거에 응시하는데도 유리한 면이 많았다。 그리고 서울의 4곳에 사부학당(四部學堂)을 두었는데 요사이로 보면 중·고등학교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것이 지방에서는 향교(鄕校)라고 하였다。 4부학당이나 향교에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입학할 수 없었으며 각 지방 향교 학생들이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향시(鄕試)에 합격하고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해야 했다。 4부학당은 서울의 중부·서부·동부·남부에 있었으며 향교는 각 도(道)·부(府)·군(郡)·현(縣)에 설치되어 있었다。 서당(書堂)은 양반 자제가 아니라도 입학하여 기초학문을 수학할 수 있었다。

제2장 과거제도(科擧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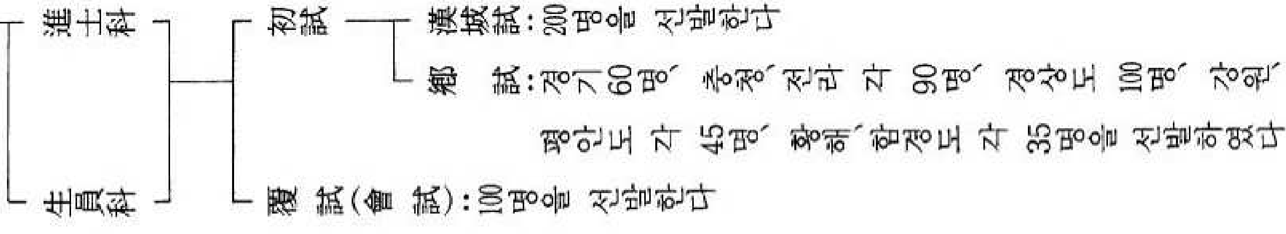
옛날 관리(官吏)들을 선발하던 국가시험을 과거라 했다。 과거(科擧)라는 말은 과목(科目)에 따라 선비들을 뽑아 벼슬을 주던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조선조(朝鮮朝)에서 시행하였던 과거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대강(大綱)만을 기술하였다。

1、정기과거(定期科擧)

과거를 시행하는 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태세간지(太歲干支)로 자(子)·묘(卯)·오(午)·유(酉)자가 들어간 해에 정기적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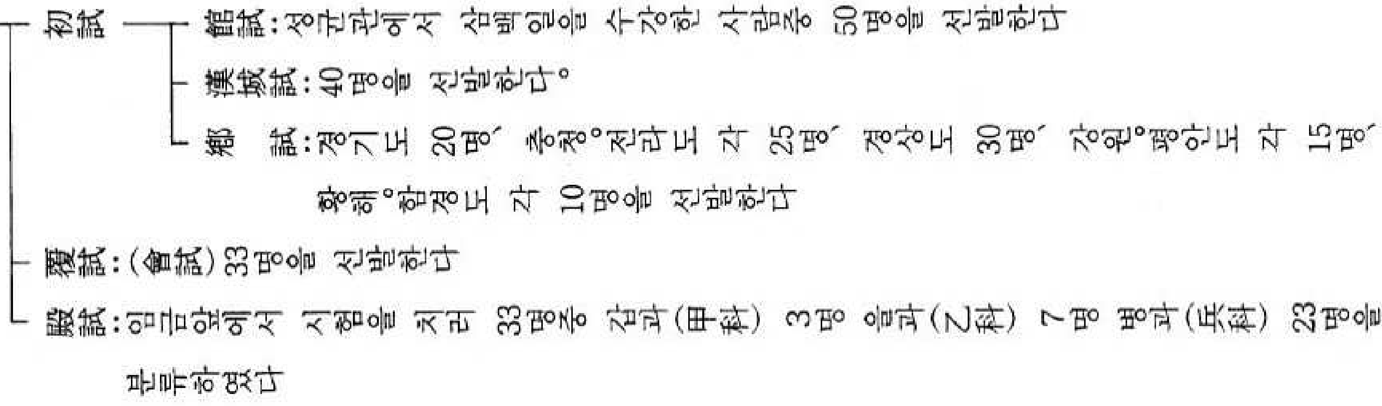
(1) 사마시(司馬試)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의 입학자격을 주는 과거제도이다。 사마시에 합격하고도 성균관에 입학하지 않고 하급관리로 진출하는 일도 있었다。 소과(小科)라고도 하였다。



(2) 문과(文科)

지금의 사법(司法)・행정(行政)시험과 비슷한 제도이다。시(詩)나 문장(文章)과 경술(經術:經書)・대책(對策:論文)을 출제하여 선발하였다。



(3) 무과(武科)

무예(武藝)와 병서(兵書)에 능한 사람을 선발하여 훌륭한 무관(武官)을 뽑기 위한 과거이다。

- 무과(武科)
  - 初試
    - 院試：70명을 훈련원에서 선발한다
    - 鄕試：경상도 30명、충청、전라도 25명、황해、평안、강원、함경도에서 각 10명을 선발한다
  - 覆試(會試)：초시합격자 중에서 28명을 선발한다
  - 殿試：갑과 3명、을과 5명、병과는 20명을 분류하는 시험을 보인다

(4) 잡과(雜科)

중인계급중에서 기술관리(技術官吏)를 선발하는 과거이다。세분(細分)된 영역은 아래에 적은 4개분야이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가 있다。

- 잡과(雜科)
  - ① 譯科(漢・蒙・倭・女眞學)：초시와 복시를 통하여 한학(漢學) 13명、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 각 2명을 선발한다
  - ② 醫科(醫官)：초시와 복시를 통하여 9명을 최종으로 선발한다
  - ③ 陰陽科(觀象監員)：초시와 복시를 통하여 천문학(天文學) 5명、지리학(地理學)。명과학(命課學)에서 각 2명을 선발한다
  - ④ 律科(法官)：초시와 복시를 통하여 9명을 선발한다

2、부정기과거(不定期科擧)

(1) 증광문과(增廣文科)

새임금의 즉위(即位)때나 반역자들을 토벌함과 같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때 보이던 과거이다。

(2) 별시(別試):문과(文科)·무과(武科)

임금의 즉위 이외의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과거이다(예:왕의 결혼식때、원자의 탄생 등)

(3) 정시(庭試):문과(文科)·무과(武科)

매년 봄·가을에 성균관 유생들을 궁전의 뜰로 불러들여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을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과거이다。이 시험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4) 알성시(謁聖試):문과(文科)·무과(武科)

국왕이 봄·가을 두번에 걸쳐 행하는 성균관의 문묘석전제(文廟釋奠祭)에 참석한 뒤 명륜당(明倫堂)에서 현직 3품이하 관리와 성균관 유생들에 보이는 특별시험이었다。시험과목이 적고 당일로 급제가 판명되므로 응시자가 많았다。나중에는 지방 유생들에게도 개방되었다。

(5) 중시(重試):문과(文科)·무과(武科)

10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당하관(堂下官)이하 문신(文臣)에 보이던 시험이었다。합격자는 20명미만이었는데 장원한 사람에게는 4등급、2~3등은 3등급을 올려 주는 등 파격적인 승진시험이었다。

(6) 승과(僧科)
- 禪宗試:傳燈、拈頌等으로서 30명을 선발하였다
- 教宗試:華嚴、十地論等으로 30명을 선발하였다

제3장 제 례(祭禮)

1、제례(祭禮)의 유래(由來)와 의의(意義)

제사의 시작은 먼 옛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인간들이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질병(疾病)、맹수들의 공격을 막으려는 미신적인 수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그러나 문명이 발달되고 중국내에서 유교사상(儒敎思想)이 뿌리내리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모(愛慕)의 표시로 변하게 되어 모든 가정마다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그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엄숙하게 지내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미풍양속(美風良俗)으로 자리잡게 되었다。현대에 와서는 제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옛날 같이 엄숙한 기풍이 줄어드는듯 하다。그러나 제사는 형식이나 제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중요하므로 참사자 모두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옛날에는 기제(忌祭)를 비롯하여 차례(茶禮) 사시제(四時祭) 묘제(墓祭) 한식제(寒食祭) 이제(禰祭) 사당(祠堂)에서의 제사 등 수많은 제사가 있었으나 서양문물(西洋文物)의 유입과 산업사회(産業社會)로 변모되면서 모든 제사가 간소화되거나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여기서는 기제사(忌祭祀)와 묘제(墓祭)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주로 제사의 절차와 축문의 해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기제사(忌祭祀)

기제(忌祭)는 고인의 상례(喪禮)후 작고한지 일년이 되는날 새벽에 지내는 제사이다。기제는 매년 지내는데 시항에 모실때까지는 계속 지낸다。옛날에는 보통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지내야만 상례(喪禮)가 끝났으나 요사이는 49제 또는 백일 탈상、심지어는 삼우제(三虞祭)날 탈상하는 것이 보통이다。기제사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고조할아버지까지 모셨으나 요즈음에는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 의거 조부모까지와 후손이 없는 3촌이내의 존비속(尊卑屬)에 한해서만 기제(忌祭)를 지낸다。그동안은 고인이 돌아가신날 자정부터 새벽 1시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다。그러나 요사이는 사회생활이 복잡하고 각자의 생활이 일정하지 않는 등 제사 참석자들의 형편이 옛날 같지 않아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뒤 어두워진 밤9시경에 지내는 가정이 많아졌다。특히 주의할 것은 기제일에는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혼이 다녀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참사원들은 제사 전날부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목욕하여 몸을 단정히 하며 신(神)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제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부모나 조부모등 내외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는 내외분을 합설(合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주(祭主)와 참사원(參祀員)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낸다。 고인의 장자(長子)나 장손(長孫)이 제주가 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고 또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다。

② 제기(祭器)와 제구(祭具)

제상(祭床)、향탁(香卓)、병풍、돗자리、향로、향합、모사기(茅沙器)、신주(神主:위패 또는 지방)、축판(祝板)、제기(祭器:제사올릴 음식을 담는 그릇)、시접(匙楪:수저를 올려 놓는 제기)、술주전자、술병、술잔(잔받침이 있어야 한다)、퇴주그릇

③ 지방(紙榜)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방을 붙인다。 지방의 양식은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있어 그 양식은 뒤에 붙인다。

④ 제수진설의 일반원칙(祭羞陳設의 一般原則)

제사 지내는 방법이나 진설은 가문마다 다르다。 여기서는 보편적인 것만 간단히 소개한다。

제상을 바라보아 오른쪽을 동(東) 왼쪽을 서(西)로 한다。 만약 제상을 남쪽을 향해 놓았다해도 마찬가지이다。 진설의 순서는 맨앞줄에 과일、둘째줄에 포와 나물、 세째줄에 탕(湯)、 네째줄에 적(炙)과 전(煎)、 다섯째 줄에 메와 갱을 놓는다。 진설의 용어를 대강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조율시이(棗栗柹梨):왼쪽에서부터 대추、밤、감、배의 순서로 진설한다

㉯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 생동숙서(生東熟西):김치는 동쪽에 나물은 서쪽에 놓는다。

㉱ 좌포우혜(左脯右醯):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 두동미서(頭東尾西):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놓는다。

㉴ 건좌습우(乾左濕右):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 접동잔서(楪東盞西):접시는 동쪽에 잔은 서쪽에 놓는다。

㉠ 좌반우갱(左飯右羹):메는 왼쪽에 갱은 오른쪽에 놓는다。

⑤ 제사순서(祭祀順序)

㉮ 영신(迎神):먼저 대문을 열어 놓는다。제상의 뒷쪽(북쪽)에 병풍을 치고 제상위에 제수를 진설한다。지방을 써 붙이고 제사의 준비를 마친다。옛날의 예법에는 출주(出主)라 하여 사당(祀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셔 내오는 의식이 있었다

㉯ 강신(降神):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향로에 향을 피운다。집사(執事)가 제상에서 잔을 들어 제주에게 건네주고 잔에 술을 조금 따른다。제주는 두 손으로 잔을 들고 모사 그릇에 조금씩 세번 붓는다。빈 잔을 집사에게 다시 건네주고 두번 절한다。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神)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는 땅 아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 참신(參神):고인의 신위(神位:지방)에 인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이때는 모든 참사자(參祀者)가 일제히 두번 절한다。어떤 가정에서는 제찬(祭饌)을 진설하지 않고 참신 뒤에 진설하는 경우도 있다。진찬(進饌)할 때에는 제주가 육(肉)、어(魚)、갱(羹)을 올리고 주부가 국수、떡、메(밥)를 올리기도 한다。진찬하는 방법도 가정마다 다르니 전해오는 대로 해도 예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 초헌(初獻):제주가 첫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제주가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향을 사른다。집사가 잔을 제주에게 주고 술을 가득 붓는다。제주는 두손으로 받들어 집사에게 준다。집사는 그 잔을 받아서 메 그릇과 갱 그릇 사이의 앞쪽에 놓는다。다음 시접 위에 젓가락을 올려 놓는다。제주는 일어나 두번 절한다。잔은 고위(考位:아버지)앞에 먼저 올리고 다음에 비위(妣位:어머니)앞에 올린다。집안에 따라서는 술을 올린 뒤 메 그릇의 뚜껑을 열기도 한다

㉲ 독축(讀祝):초헌이 끝나면 참사자 모두는 꿇어앉아 있고 축관(祝官:축읽는 사람)이 옆에 앉아 축문을 읽는다。축문은 제주가 읽기도 한다 축문읽기가 끝나면 모두 일어나 두번 절한다。옛날에는 축문읽기가 끝나면 곡(哭)을 하기고 했다。축문 쓰는 방법은 제사지내는 사람과 제사받는 분의 관계에 따라 일부 구절이 달라진다。그 예문(例文)을 뒤에 붙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아헌(亞獻):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원래

는 주부(主婦)가 올린다。주부가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의 다음 가는 근친이 올린다。절차는 초헌 때와 같으나 주부일 경우는 네번을 절한다。그러나 대개의 가정에서는 주부가 술잔을 올리는 일이 많지 않다

㉦ 종헌(終獻):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아헌자(亞獻者)의 다음 가는 근친자가 아헌 때와 같이 한다。잔을 꽉 채우지 않고 잔에 2/3쯤만 부어서 올린다

㉧ 첨작(添酌):종헌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제주가 다시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으면 집사는 술주전자를 들어 종헌때 2/3쯤 따라 올렸던 술잔에 세번 첨작하여 술잔을 가득 채운다

㉨ 삽시정저(揷匙正箸):첨작이 끝나면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메그릇의 중앙에 꽂는다。또 젓가락을 고른뒤 시접위에 가지런히 놓는다。숟가락은 바닥(안쪽)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삽시정저가 끝나면 제주는 두번 절한다。어느 가정에서는 삽시정저도 주부가 하는 경우가 있다。이때 주부는 네번 절하게 된다

*유식(侑食):첨작과 삽시정저의 두 절차를 통틀어 유식이라 하는데 이는 진지를 권하는 의식이다

㉩ 합문(闔門):참사자들 모두가 잠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기다린다。대청마루에 제청을 차렸을 경우는 뜰아래로 내려가 읍(揖)한 자세로 잠시 기다린다。단칸방에서 제사를 지낼때는 제자리에 엎드려 몇분 동안 있다가 일어나기도 한다

㉪ 계문(啓門):닫았던 문을 여는 절차이다。축관이 헛기침을 세번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사자가 모두 뒤따라 들어간다

㉫ 헌다(獻茶):갱(羹:국)을 내리고 숭늉을 올린 뒤 메(밥)세 술을 떠서 숭늉에 말아 놓고 젓가락을 고른다。이때 참사자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든다

㉬ 철시복반(撤匙覆飯):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제자리에 놓고 메 그릇의 뚜껑을 덮는다

㉭ 사신(辭神):고인의 영혼을 전송하는 절차이다。참사자들 모두가 신위 앞에서 일제히 두번 절한 뒤 지방과 축문을 불사른다。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을 때는 사당으로 모신다。이로써 제사 올리는 의식 절차는 다 끝난 것이다

(거) 철상(撤床):제상 위에 차려 놓았던 제수를 집사가 뒤쪽에서부터 차례로 물린다

(너) 음복(飮福):참사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제수(祭羞)를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이라 한다。음복을 끝내기 전에는 제복을 벗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옛날에는 참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고 이웃 어른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기도 하였다

3、축문(祝文)의 예(例)

(1) **忌祭祝(기제축)**:(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묘월 간지 모일 간지 효손 모 봉사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孫 某(奉祀者

명 감소고우
名) 敢昭告于

현조고 모관 부군
顯祖考 (某官) (府君)

현조비 모봉 모씨 세서천역
顯祖妣(某封)(某氏) 歲序遷易

현조고 혹운조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顯祖考(或云祖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향
饗

【풀이】○○년○○월○○일에 효손 ○○는 감히 밝게 고합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해가 바뀌어서

할아버님(또는 할머님)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을 올려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 증조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의 제사 축문도 같은 서식인데 다만 제사를 받으실 분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칭호(稱號)만 촌수에 따라 맞춰 쓴다。 제사 받으실 분이 증조할아버지이시면 제사 지내는 사람은 효증손(孝曾孫)이라 쓰고 고조할아버지이면 효현손(孝玄孫)이라 쓴다。

※ 기제축(忌祭祝) 첫행의 제일 윗쪽 (太歲干支)는 제사지내는 해의 간지를 쓴다。 예를 들어 2001년의 간지는 신사(辛巳)이니 辛巳가 태세간지(太歲干支)가 된다。 두번째 괄호 안의 간지(干支)는 제사지내는 달의 초하루날 간지를 쓴다。 세번째 괄호 안의 간지는 제사지내는 날의 간지 일진(日辰)을 쓰면 되는데 보통 달력 날짜 밑에는 간지가 쓰여 있으니 참고할것。

※ 모관(某官): 제사받는 분의 관직이 있을 때에 관직명을 표시하는 것이다。 관직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 부군(府君): 제사지내는 사람보다 윗어른이 죽었을때

부르는 존칭이다. 여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모봉(某封):제사받는 분의 죽은 부인에게 남편의 관직에 맞는 외명부(外命婦) 명칭을 말한다. 예를들면 남편이 정3품 벼슬을 지냈으면 부인은 숙부인(淑夫人)이 되는 것과 같다.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쓴다.

※ 모씨(某氏):제사받는 분의 돌아가신 부인의 본관과 성씨를 말한다.

※ 현(顯):돌아가신 부모님 이상 조상님들을 높여 부르는 것을 말한다. 축문을 쓸때는 다른 글자보다 한자 위에 쓴다.

※ 비(妣):돌아가신 어머니를 일컫는다.

※ 조비(祖妣):돌아가신 할머니를 일컫는다.

(2) **기제축(忌祭祝)**:(아버님 어머님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효자모 봉사자명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子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모관부군
顯考某官府君

현비모봉모씨 세서천역
顯妣某封某氏 歲序遷易

현고 혹운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顯考(或云妣)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효자(孝子) ○○는 감히 밝게 고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해가 바뀌어
아버님(또는 어머님)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오니 은혜가 하늘같이 크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을 올려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 할아버지 기제축문의 불승영모(不勝永慕)를 호천망극(昊天罔極)으로 바꾼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현고(顯考) 또는 현비(顯妣)줄은 뺀다.

(3) **忌祭祝(기제축)**:(남편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주부모 성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主婦某(姓名) 敢

소고우
昭告于

현벽모관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감창
顯辟某官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感愴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謹以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향
饗

【풀이】○○년○○월○○일에 주부○○는 감히 밝게 고합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게 되니 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을 올려 공손히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 하소서

※ 부모님의 축문 서식중 호천망극(昊天罔極)을 불승감창(不勝感愴)으로 바꾼다.

(4) **忌祭祝(기제축)**: (아내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부모 성명 소고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夫某(姓名) 昭告

우
于

망실모봉모씨 세서천역 망일복지 추원감시 불승감창
亡室某封某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感愴

자이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玆以淸酌庶羞 伸此奠儀 尙

향
饗

【풀이】○○년○○월○○일에 남편 ○○는 밝게 고합니다.

○○씨인 당신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슬프고 괴로운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니 흠향하소서.

※ 아내의 축문은 남편의 축문과 같으나 휘일부림(諱日復臨)을 망일부지(亡日復至)로 바꾼다. 또 근이(謹以)를 자이(玆以)로 공신전헌(恭伸奠獻)을 신차전의(伸此奠儀)로 바꾼다.

(5) **忌祭祝(기제축)**: (형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제모 제명 감소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弟某(弟名) 敢昭

고우
告于

현형학생부군 세서천역 휘일부림 정하비통
顯兄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情何悲痛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동생 ○○는 감히 밝게 고합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신후 해가 바뀌어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으니 형님이 그립고 또 비통한 마음 한량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부모님 축문서식의 호천망극(昊天罔極) 대신 정하비통(情何悲痛)이라 바꾼다

(6) **忌祭祝(기제축)** : (아우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형 고우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兄 告于

망제모 제명 세서천역 망일부지 정하가처
亡弟某(弟名) 歲序遷易 亡日復至 情何可處

자이청작 진차전의 상
茲以清酌 陳此奠儀 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형 ○○는 고하네

동생 ○○가 돌아간 후 해가 바뀌어 그날을 다시 맞으니 그리운 마음 어찌할 수 없네 이에 맑은 술과 음식을 놓고 제의(祭儀)를 차리니 흠향하시게

※ 형님 축문의 현형(顯兄)을 망제(亡弟)로 바꾸고 휘일부림(諱日復臨)을 망일부지(亡日復至)、정하비통(情何悲痛)을 정하가처(情何可處)로 바꾼다. 또 공신전헌(恭伸奠獻)을 진차전의(陳此奠儀)로 바꾼다

(7) **忌祭祝(기제축)** : (아들의 경우)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고우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告于

망자모 자명 세서천역 망일부지 심훼비념 자이청작
亡子某(子名) 歲序遷易 亡日復至 心毁悲念 茲以清酌

진차전의 상
陳此奠儀 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고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야 해가 또 바뀌어 그날

이 다시 오니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구나。이에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을 놓고 제의를 행하니 흠향하거라

(8) 묘 제(墓祭)

묘지 앞에서 일년중 날을 정하여 매년 같은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현대에 와서는 제사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자손들이 참례하기 어려운 관계로 ○월○일○째 주 일요일 등으로 제사날을 잡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찬(祭饌)은 기제(忌祭)와 같이 준비하고 토지신(土地神)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율곡(栗谷)선생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1년에 네번 즉 정월 초하루、한식、단오、추석에 묘제(墓祭)를 지낸다고 되어 있고、「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3월 상순(上旬)에 날을 택하여 지낸다고 적혀 있다。그러나 요즈음은 1년중 적당한 날을 정하여 산소를 찾아가 문중(門中)이 모두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옛날의 예(禮)에는 제주(祭主)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이 산소를 찾아가 재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하게 하였었다。산소의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앞에 깨끗한 자리를 깔고 제사 음식을 진설한다。그리고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사신(辭神)의 순으로 제사를 올리고 상을 물린다。묘제에서는 산신축(山神祝)과 묘제축(墓祭祝)을 독축한다。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墓祭時 土地祝(묘제시 토지축:산신축)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

소고우
昭告于

토지지신 공수세사우 대조고 제위고비 모관부
土地之神 恭修歲事于 ○○代祖考 (祭位考妣) 某官府

군지묘 유시보우 실뢰 신휴 감이주찬
君之墓 維時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경신전헌 상
敬伸奠獻 尙

향
饗

*(祭位考妣):제사받는 조상님의 부인을 일컫는다。예를 들어 5대조라 하면 할머니는 5대조할머니(5대조비)가 된다。

【풀이】○○년○○월○○일에 ○○가 토지신에게 아뢰

옵니다
○대조 (또는 ○대조비)의 묘소에 삼가 세사를 올리오니 때로 도와주시는 신의 도움에 의지하고져 술과 안주를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② 墓祭祝(묘제축) (一)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대손 봉사자명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 대조고 모관부군지묘 세천일제 예유중제 이자상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歲薦一祭 禮有中制 履玆霜

로 미증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상
露 彌增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대손 ○○는 ○대 할아버님 묘소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일년에 한번 제사드림은 예문에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 서리도 내리게 되니 그리운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세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③ 墓祭祝(묘제축)(二)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대손모 봉사자명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代孫某(奉祀者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 대조고 모관부군지묘 기서유역 상로기강 첨소봉
顯○代祖考 某官府君之墓 氣序流易 霜露旣降 瞻掃封

영 불승감모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상
塋 不勝感慕 謹以 淸酌庶羞 祗薦歲事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대손 ○○는 ○대 할아버님 묘소에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절후(節候)가 바뀌어 이미 서리가 내렸삽기에 ○대할아버님의 묘소를 바라보니 그리운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삼가 맑은 술과 몇가지 음식으로 세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묘제를 가을에 지낼 때에는 상로기강(霜露旣降)을 백로기강(白露旣降)이라 10월에는 이자상로(履玆霜

露)라 하며 한식(寒食)때에는 우로기유(雨露旣濡)라 한다。그러나 문중에 따라서는 달리 쓰는 곳이 많다。

(9) 사 초(莎草)

사초는 부모나 조상님들의 묘소가 허물어졌거나 떼가 없어져서 다시 떼를 입히거나 무너진 봉분을 다시 돋우고 떼를 입히는 등 묘소를 손보는 것을 말한다。이때에도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축문을 읽는데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① 墓改莎草前 土地祝(묘개사초 전 토지축:산신축)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성명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姓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총택붕퇴 장가수치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塚宅崩頹 將加修治 神其保佑

비무후간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俾無後艱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년○○월○○일에 ○○가 토지신에게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의(벼슬이 있으면 ○○부군이라 쓴다) 무덤이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이제 보수하고자 하오니 신께서는 보호하여 후에라도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삼가 술과 과일을 올리며 삼가 고합니다

② 墓改莎草祝(묘개사초축:사초할때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

소고우
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세월자구 초쇠토비 금이 길신익봉
顯考某官府君之墓 歲月玆久 草衰土圮 今以 吉辰益封

개사 복유 존령 불진불경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改莎 伏惟 尊靈 不震不驚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풀이】 ○○년○○월○○일에 ○○가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의 묘소가 세월이 오래되어 떼도 없어지고 봉분도 무너져서 이번에 좋은 날을 가려 봉분을 세우고 떼를 다시 입히려 하오니 존령께서는 놀래지마소서 이에 술과 과일을 올리며 삼가 고합니다

⑽ 구석물(具石物)

보통 묘소 앞에는 여러가지 석물(石物)을 갖추는데 이를 의물(儀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장례를 모시는 기간이 짧아서 장례를 모시고 난 후 석물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는 석물을 세울때에 묘지에 묻힌 분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독축을 하는데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具石物祝(구석물축:석물을 세울때)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

소고우
昭告于

현고모관부군지묘 복이 석행양봉 의물다궐 금지유년
顯考某官府君之墓 伏以 昔行襄奉 儀物多闕 今至有年

근구 모물 용위묘도 복유 존령 시빙시안
謹具 (某物) 用衛墓道 伏惟 尊靈 是憑是安

【풀이】 ○○년○○월○○일에 ○○는 감히 밝게 고합니다。

○○의 묘소를 이곳에 모시고도 의물(儀物:石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사온데 이제야 형편이 나아져서 ○○을 갖추어 묘도(墓道)를 호위하고저 하오니 존령께서는 여기에 의지하여 평안 하소서

※ 모물(某物):석물의 종류를 가리어 쓴다。

② 具石物時 土地祝(구석물시 토지축:산신축:이 축은 비석을 세운 뒤에 산신에게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

소고우
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묘의미구 자장 모물 용위신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墓儀未具 玆將(某物) 用衛神

도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주과용신건고 근고
道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 酒果用伸虔告 謹告

【풀이】 ○○년○○월○○일에 ○○는 토지신에게 감히 밝게 고합니다。

그동안 ○○의 묘소에 묘의(墓儀:石物)를 갖추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을 세워서 신도(神道)를 호위하고져 하오니 신께서는 도와주셔서 후환이 없게 하옵소서。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경건하게 고합니다。

(11) 개 장(改葬)

묘소를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개장 또는 이장(移葬)이라고 한다。이 일을 시작할 때와 끝마칠때 제사를 올린다。제사에서 읽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① 改葬 土地祝(개장 토지축): 묘소를 이장할때 구묘가 있는 곳 토지신에게 드리는 축문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성명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姓名)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모관부군 택조불리 장개장우차 신기보
土地之神 今爲 某官府君 宅兆不利 將改葬于此 神其保

우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혜 지천우신상
佑 俾無後艱 謹以淸酌脯醯 祗薦于神尙

향
饗

【풀이】 ○○년○○월○○일에 ○○는 토지신에게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이번에 ○○의 무덤이 불리하여 다른 곳에 이장하고자 합니다。신께서는 보호하여 주셔서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소서。이에 삼가 맑은 술과 포혜(脯醯: 마른고기와 식혜)로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② 改葬後奠墓祝(개장후 전묘축): 묘소를 이장하고 새로운 묘소앞에서 읽는 축

유
維

세차 간지 모월 간지 삭 모일 간지 모 봉사자명 감
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某(奉祀者名) 敢

소고우
昭告于

현모관부군지묘 신개유택 사필봉영 복유 존령 영안체백
顯某官府君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尊靈 永安體魄

【풀이】 ○○년○○월○○일에 ○○는 감히 밝게 고하옵니다。

○○의 묘를 새로 이장하여 봉분을 마련하였읍니다。

존령(尊靈)께서는 영원히 체백을 평안히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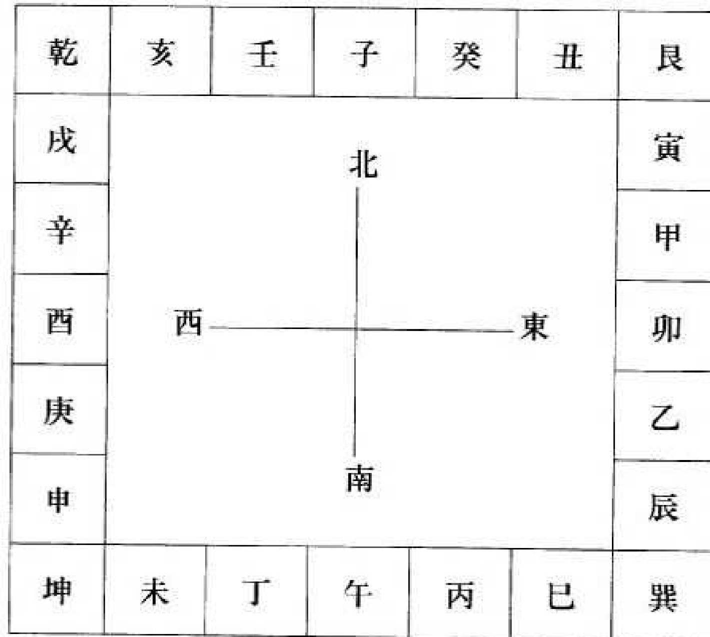
제4장 방위와 시간

1、산소의 좌향(坐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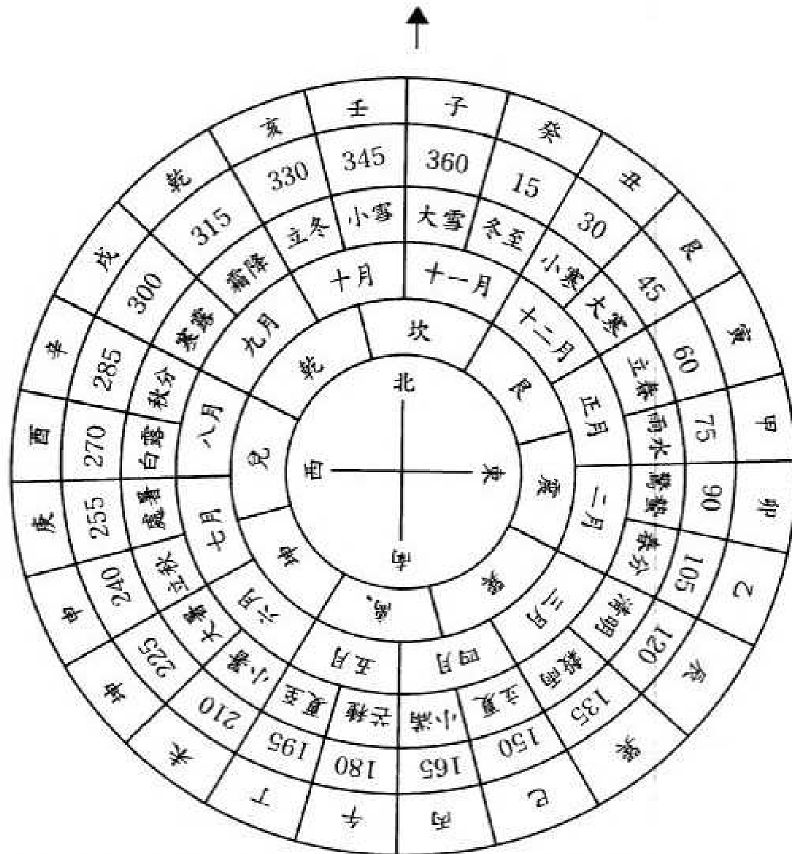
자좌(子坐) : 정남(正南 · 午方)을 바라보는 좌향
계좌(癸坐) : 남남서(南南西 · 丁方)를 바라보는 좌향
축좌(丑坐) : 남남서(南南西 · 未方)를 바라보는 좌향
간좌(艮坐) : 남서(南西 · 坤方)를 바라보는 좌향
인좌(寅坐) : 서남서(西南西 · 申方)를 바라보는 좌향
갑좌(甲坐) : 서남서(西南西 · 庚方)를 바라보는 좌향
묘좌(卯坐) : 정서(正西 · 酉方)를 바라보는 좌향
을좌(乙坐) : 서북서(西北西 · 辛方)를 바라보는 좌향
술좌(戌坐) : 동남동(東南東 · 辰方)을 바라보는 좌향
건좌(乾坐) : 남동(南東 · 巽方)을 바라보는 좌향
해좌(亥坐) : 남남동(南南東 · 巳方)을 바라보는 좌향
임좌(壬坐) : 남남동(南南東 · 丙方)을 바라보는 좌향

오좌(午坐) : 정북(正北 · 子方)을 바라보는 좌향
정좌(丁坐) : 북북동(北北東 · 癸方)을 바라보는 좌향
미좌(未坐) : 북북동(北北東 · 丑方)을 바라보는 좌향
곤좌(坤坐) : 북동(北東 · 艮方)을 바라보는 좌향
신좌(申坐) : 동북동(東北東 · 寅方)을 바라보는 좌향
경좌(庚坐) : 동북동(東北東 · 甲方)을 바라보는 좌향
유좌(酉坐) : 정동(正東 · 卯方)을 바라보는 좌향
신좌(辛坐) : 동남동(東南東 · 乙方)을 바라보는 좌향
진좌(辰坐) : 서북서(西北西 · 戌方)를 바라보는 좌향
손좌(巽坐) : 북서(北西 · 乾方)를 바라보는 좌향
사좌(巳坐) : 북북서(北北西 · 亥方)를 바라보는 좌향
병좌(丙坐) : 북북서(北北西 · 壬方)를 바라보는 좌향

2、方位圖



羅針盤 二十四方位 三六〇度 二十四節候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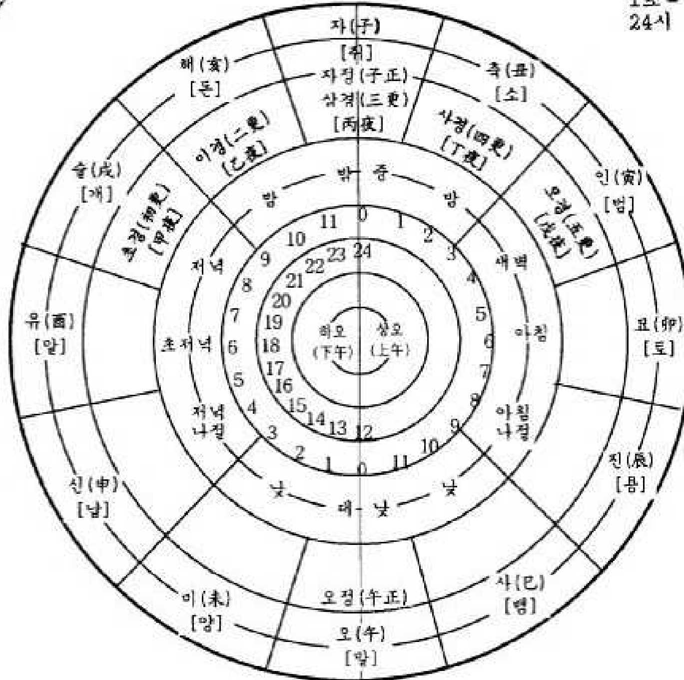
羅針盤으로 墓所坐向 보는 法

墓所용미에다 羅針盤을놓고우선羅針을 南·北으로 정확하게 맞춘 다음 羅針盤 중앙을 上下로 연결하는 線을 기본으로 하여 上(용미쪽)을 「坐」라 하고 下(계절쪽)를 「向」이라 한다.

시 각 표(時刻表)

1日 = 12時(24)시
1時 = 8刻(2시)
1刻 = 10分(15분)
1分 = 90秒
12時

1일 = 24시(12時)
1시 = 60분(4刻)
1분 = 60초(0.6分)
1초 = 0.01분
24시



3、干支時間

十二干支로 時間을 따지는 法

一支는 至今 時間으로 二時間이며 初와 正은 一時間이다. 또 支마다 刻이 있는데 一刻은 十五分이며 刻 밑에 分이 있어 分은 至今 時間의 分과 同一하다.

子時 午後十一時에서 午前 一時까지
丑時 午前 一時에서 午前 三時까지
寅時 午前 三時에서 午前 五時까지
卯時 午前 五時에서 午前 七時까지
辰時 午前 七時에서 午前 九時까지
巳時 午前 九時에서 午前十一時까지
午時 午前十一時에서 午後 一時까지
未時 午後 一時에서 午後 三時까지
申時 午後 三時에서 午後 五時까지
酉時 午後 五時에서 午後 七時까지
戌時 午後 七時에서 午後 九時까지
亥時 午後 九時에서 午後十一時까지

十二支에 該當하는 動物의 이름

子 쥐(鼠) 丑 소(牛) 寅 범(虎)
卯 토끼(兎) 辰 용(龍) 巳 뱀(蛇)
午 말(馬) 未 양(羊) 申 원숭이(猿)
酉 닭(鷄) 戌 개(犬) 亥 돼지(豚)

제5장 기타 상식

1、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고대 중국의 세계관(世界觀)이다。 음양설은 상당히 복잡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하면 우주(宇宙)의 모든 현상(現象)을 이원(二元)에 의하여 설명하는 사상이다。 중국의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의 장공(莊公) 3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음(陰)이 홀로 사물을 낳지 못하고 또 양(陽)도 홀로 사물을 낳지 못한다」하여 음이나 양 어느 하나만으로는 사물을 생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결합한 뒤에야 가능하다 하였다。 또 오행설(五行說)이란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타고난 기운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오행(五行)이 있어서 이것의 상호관계에 따라 생성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오행상생(五行相生)과 오행상극(五行相克)에 의해서 만물(萬物)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오행설은 중국 고대부터 생겨난 사상인데 그 영향은 중국뿐 아니라 수천년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는 주변국가들까지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음향오행설은 또 천문(天文)·지리(地理)·의학(醫學)은 물론 민간 신앙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오늘날까지도 이 사상은 없어지지 않고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종친회에서 정하는 항렬자(行列字)도 오행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니 그 영향을 받았다 할 것이다。 속설(俗說)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상생(相生)이 되지 않고 상극(相克)이 되면 두 사람 모두가 평생동안 노력에 비하여 되는 일이 없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을 다 믿을수는 없지만 구태여 항렬자를 어기면서 이름을 지으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육십갑자(六十甲子)

육갑(六甲)은 음력(陰歷)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오행(五行)과 함께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일년을 따질때도 육갑에 의해서 갑자년(甲子年) 또는 을축년(乙丑年) 등으로 불렀고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에도 육갑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향(時享)이나 기제사(忌祭祀)의 축문(祝文)에서도 육갑이 없으면 쓸 수 없었다。

육갑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로 구성되었다。 즉 천간(天干)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등 10자이며 지지(地支)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등 12자이다。 이를 순차로 배열하다 보면 처음 갑자(甲子)가 61번째에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육

십갑자(六十甲子)라고 한다。환갑(還甲)이란 말은 태어난 해부터 계산하여 61번째 해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간지가 다시 돌아오므로 환갑이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바 있는 천간(天干)을 하늘이라고도 하며 또 양(陽)이라고도 하고、지지(地支)는 땅이라고도 하고 또 음(陰)이라고도 하여 천지음양(天地陰陽)을 뜻하기도 한다。천간(天干) 10자와 지지(地支) 12자를 배합하여 60간지를 차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갑자(甲子)・을축(乙丑)・병인(丙寅)・정묘(丁卯)・무진(戊辰)・기사(己巳)・경오(庚午)・신미(辛未)・임신(壬申)・계유(癸酉)・갑술(甲戌)・을해(乙亥)・병자(丙子)・정축(丁丑)・무인(戊寅)・기묘(己卯)・경진(庚辰)・신사(辛巳)・임오(壬午)・계미(癸未)・갑신(甲申)・을유(乙酉)・병술(丙戌)・정해(丁亥)・무자(戊子)・기축(己丑)・경인(庚寅)・신묘(辛卯)・임진(壬辰)・계사(癸巳)・갑오(甲午)・을미(乙未)・병신(丙申)・정유(丁酉)・무술(戊戌)・기해(己亥)・경자(庚子)・신축(辛丑)・임인(壬寅)・계묘(癸卯)・갑진(甲辰)・을사(乙巳)・병오(丙午)・정미(丁未)・무신(戊申)・기유(己酉)・경술(庚戌)・신해(辛亥)・임자(壬子)・계축(癸丑)・갑인(甲寅)・을묘(乙卯)・병진(丙辰)・정사(丁巳)・무오(戊午)・기미(己未)・경신(庚申)・신유(辛酉)・임술(壬戌)・계해(癸亥)

이렇게 60개의 간지가 형성되고 61번째는 갑자(甲子)가 되돌아오는 것이다。옛 어른들이 육십갑자을 생활에서 항시 사용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셈법이었지만 60번 다음에는 또 같은 갑자가 되돌아 오므로 백년이나 천년 등을 계산할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朱子十悔訓 (주자십회훈)

① 不孝父母 死後悔 (불효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

② 不親家族 疎後悔 (불친가족 소후회)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③ 少不勤學 老後悔 (소불근학 노후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④ 安不思難 敗後悔 (안불사난 패후회)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

⑤ 富不儉用 貧後悔 (부불검용 빈후회)

넉넉할 때 아껴쓰지 않으면 가난한 뒤에 뉘우친다。

⑥ 춘불경종 추후회
春不耕種 秋後悔
봄에 종자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⑦ 불치원장 도후회
不治垣墻 盜後悔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적맞은 후에 뉘우친다。

⑧ 색불근신 병후회
色不謹愼 病後悔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뉘우친다。

⑨ 취중망언 성후회
醉中妄言 醒後悔
술에 취해 망언하면 술깬뒤에 뉘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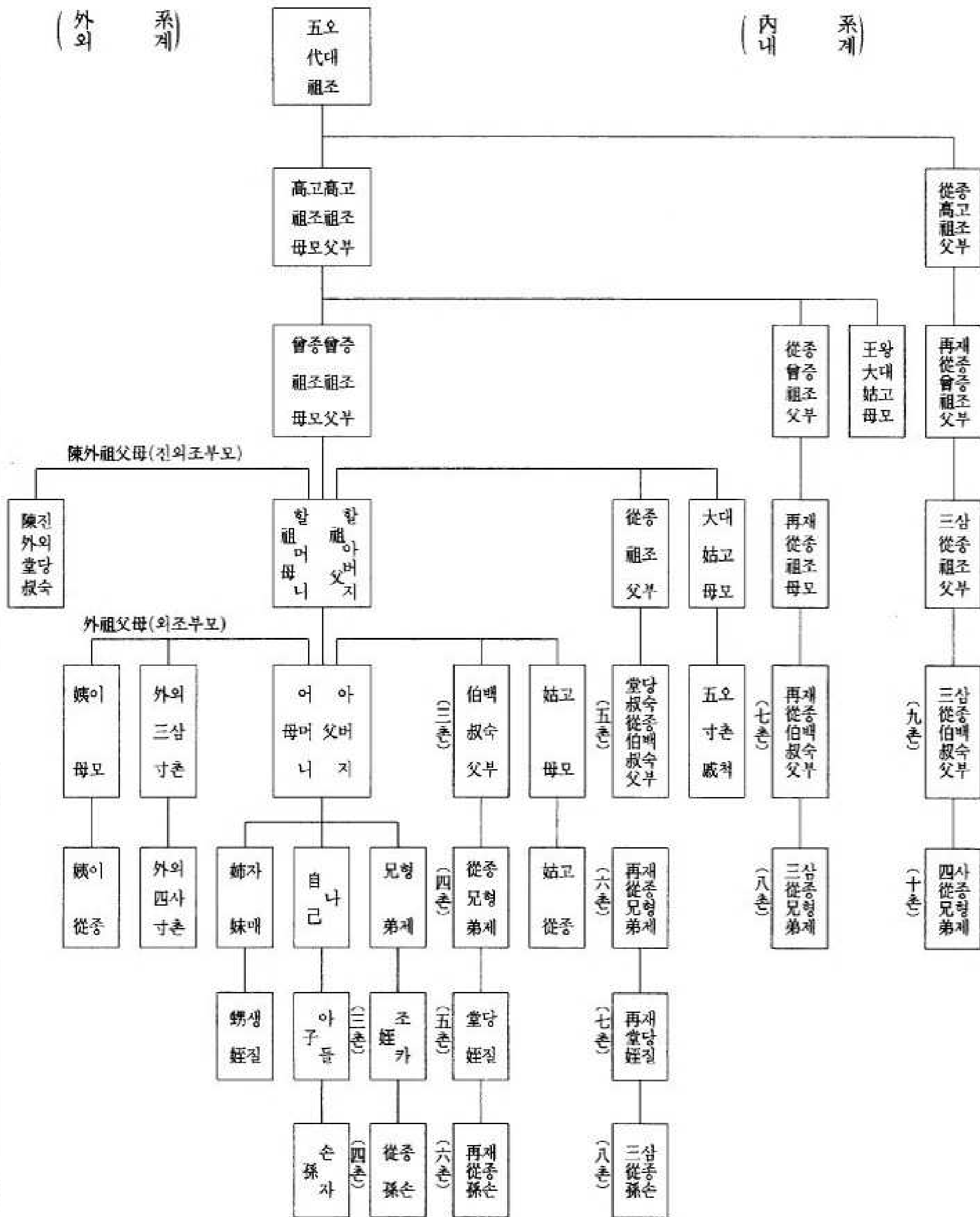
⑩ 부접빈객 거후회
不接賓客 去後悔
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가고난 뒤에 뉘우친다。

4、결혼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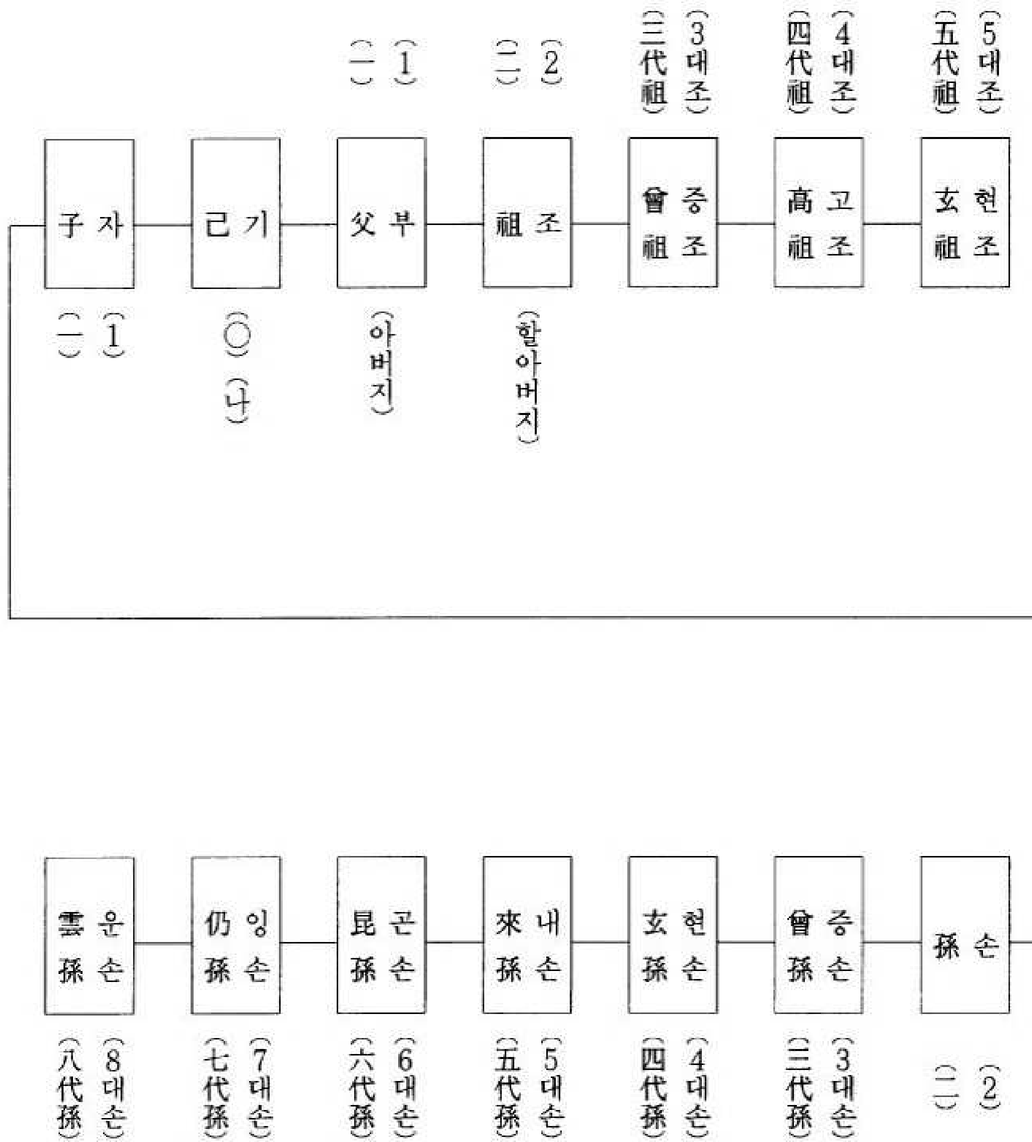
① 지혼식: 결혼한 다음 해인 만1주년 기념일
② 고혼식: 결혼2주년 기념일
③ 과혼식: 결혼3주년 기념일
④ 초혼식: 결혼4주년 기념일
⑤ 목혼식: 결혼5주년 기념일
⑥ 화혼식: 결혼7주년 기념일
⑦ 은혼식: 결혼10주년 기념일
⑧ 마혼식: 결혼12주년 기념일
⑨ 동혼식: 결혼15주년 기념일
⑩ 도혼식: 결혼20주년 기념일
⑪ 은혼식: 결혼25주년 기념일이며 이 날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예가 많고 은제품의 기념품을 준다。
⑫ 진주혼식: 결혼30주년 기념일
⑬ 산호혼식: 결혼35주년 기념일
⑭ 홍옥혼식: 결혼45주년 기념일
⑮ 금혼식: 결혼50주년 기념일
⑯ 회혼식: 결혼60주년이 되면 회혼예식이라 하여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회갑때와 같은 큰 상을 차리고 자녀들이 잔을 올리며 절을 하는 예식이 있다。

제6장 친 족

1、계 촌 법(系寸法)



2、조손의 호칭
(祖孫의 呼稱)



3. 친인척(親姻戚)간 호칭법(呼稱法)

대상자 \ 구분		내가부를때	나를말할때	내가남에게말할때	남이나에게말할때	남에게자신을 말할때	촌수
조부(祖父)	生	할아버님 할아버지 조부(祖父)님	손자(孫子) 소손(小孫) 불효손(不孝孫)	조부(祖父) 왕부(王父) 조부장(祖父丈)	조부장(祖父丈) 왕대인(王大人)	조부 할애비	2
	死	조고(祖考) 현조고(顯祖考) (축)	효손(孝孫)(축)	조고(祖考) 선조고(先祖考)	왕고장(王考丈) 선왕대인 (先王大人)		2
조모(祖母)	生	할머님 할머니 조모(祖母)님	상동	조모(祖母) 노조모(老祖母)	존조모(尊祖母) 왕대부인 (王大夫人)	조모 할미	2
	死	조비(祖妣) 현조비(顯祖妣) (축)	효손(孝孫)(축)	조비(祖妣)	선조모(先祖母)님		2
부(父)	生	아버님 아버지	소자(小子) 불효자(不孝子) 불초자(不肖子)	가친(家親) 노친(老親) 엄친(嚴親)	어르신네 춘부장(椿府丈) 춘당(椿堂)	부(父) 애비 나, 여(余)	1
	死	고(考) 현고(顯考)(축)	고자(孤子) 효자(孝子)(축)	선고(先考) 선친(先親)	선부군(先府君) 선대인(先大人)		1
모(母)	生	어머님 어머니	소자(小子) 불효자(不孝子) 불초자(不肖子)	모친(母親) 자친(慈親)	자당(慈堂) 대부인(大夫人)	모(母) 나, 에미	1
	死	비(妣) 현비(顯妣)(축)	애자(哀子) 효자(孝子)(축)	선모친(先母親) 선자친(先慈親) 선비(先妣)	선자당(先慈堂) 선대부인 (先大夫人)		1
남편(男便)	生	여보 당신 서방님	처(妻) 우처(愚妻) 소처(小妻)	바깥양반 사랑양반 남편	주인어른 부군(夫君) 현군(賢君)	부(夫) 가부(家夫) 졸부(拙夫)	0
	死	현벽(顯辟)(축)	상동		선령군자 (先令君子)		0
아내(妻)	生	여보 당신 부인	부(夫) 가부(家夫) 졸부(拙夫)	집사람 안사람 내자(內子)	부인(夫人) 영부인(令夫人) 합부인(閤夫人)	처(妻) 우처(愚妻) 졸처(拙妻)	0
	死	망실(亡室) 망처(亡妻)	부(夫)	망처(亡妻)	고령부인 (故令夫人)		0

대상자 \ 구분		내가부를때	나를말할때	내가남에게말할때	남이나에게말할때	남에게자신을 말할때	촌수
아들(子)	生	애 큰애, 작은애 또는 이름	애비 에미 우리	자식, 집아이 가아(家兒) 가돈(家豚)	자제 아드님 영식(令息)	저 소자(小子) 불효자	1
딸(女)	生	애 여아(女兒) 또는 이름	애비 에미 우리	딸애 여식(女息) 여아(女兒)	따님 영애(令愛) 영교(令嬌)	저 여식(女息) 불초녀(不肖女)	1
손자(孫子)	生	손아(孫兒) 또는 이름	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아(孫兒) 가손(家孫)	영손(令孫) 현손(賢孫)	불효손(不孝孫) 불초손(不肖孫)	2
형(兄)	生	형님 백, 중형 (伯 仲兄)	저, 동생 아우 사제(舍弟)	가형(家兄) 사형(舍兄)	백씨장(伯氏丈) 중씨장(仲氏丈)	저, 형, 나 사형(舍兄) 가형(家兄)	2
형수(兄嫂)	生	아주머니 형수씨	저 생(生)	형수(兄嫂)씨	영형수(令兄嫂)씨	저, 나, 형수 아주미	2
제(弟)	生	동생 아우	나, 형 사형(舍兄) 가형(家兄)	아우, 동생 사제(舍弟)	영제(令弟)씨 영중, 계제씨 (令仲,季弟)	저 아우, 동생	2
제수(弟嫂)	生	아주머니 제수씨	나, 생(生)	제수(弟嫂) 계수(季嫂)	영제수(令弟嫂)씨	저 제수(弟嫂)	2
누나	生	누나 누님, 언니	저, 나 동생	누님 자씨(姉氏)	누나 영자씨(令姉氏)	저, 나 누나	2
누이동생	生	동생 누이	나, 오빠, 오라비	내누이 사매(舍妹)	누이동생 영매(令妹)씨	저 동생	2
백부(伯父)	生	큰아버님 큰아버지 백부(伯父)님	저, 조카, 사질(舍姪)	사백부(舍伯父)	백부장(伯父丈)	저, 나, 큰애비	3
백모(伯母)	生	큰어머님 큰어머니 백모(伯母)님	상동	사백모(舍伯母)	존백모부인 (尊伯母夫人)	저, 나, 큰에미	3
숙부(叔父)	生	작은아버님 숙부(叔父)님	사질(舍姪) 종자(從子)	가숙(家叔)	숙부장(叔父丈)	작은애비 숙부(叔父)	3
숙모(叔母)	生	작은어머님 숙모(叔母)님	상동	사숙모(舍叔母)	존숙모부인 (尊叔母夫人)	작은에미 숙모(叔母)	3

구분 대상자		내가부를때	나를말할때	내가남에게말할때	남이나에게말할때	남에게자신을 말할때	촌수
종형(從兄)	生	사촌형님 종형(從兄)님	아우 종제(從弟)	사촌형 당형(堂兄)	영종형씨 (令從兄氏)	형, 종형(從兄)	4
종제(從弟)	生	사촌아우 종제(從弟)	형, 종형(從兄)	사촌아우 당제(堂弟)	영종제씨 (令從弟氏)	아우 종제(從弟)	4
고모(姑母)	生	고모(姑母)님	저, 나 사질(舍姪)	비고모(鄙姑母)	귀고모부인 (貴姑母夫人)	저, 나 고모(姑母)	3
고모부(姑母夫)	生	고모부(姑母夫)님	저 인질(姻姪)	비고모부 (鄙姑母夫)	귀고숙장 (貴姑叔丈)	저, 나	3
당숙(堂叔)	生	당숙님 종숙님	당질(堂姪) 종질(從姪)	비당숙(鄙堂叔)	당숙장(堂叔丈) 종숙장(從叔丈)	종숙(從叔)	5
종조부(從祖父)	生	할아버님 종조부님	종손(從孫)	종조부(從祖父)	귀종조부 (貴從祖父)님	종조부(從祖父) 할애비	4
종조모(從祖母)	生	할머님 종조모님	종손(從孫)	종조모(從祖母)	귀종조모 (貴從祖母)님	종조모(從祖母) 할미	4
재종형(再從兄)	生	형님 재종형님	재종제(再從弟) 아우	비재종형 (鄙再從兄)	귀재종형 (貴再從兄)씨	재종형(再從兄) 형	6
재종제(再從弟)	生	아우 재종제(再從弟)	재종형(再從兄) 형	비재종제 (鄙再從弟)	귀재종제 (貴再從弟)씨	재종제(再從弟) 아우	6
외조부(外祖父)	生	외할아버님 외조부님	외손(外孫)	외조부(外祖父) 외왕부(外王父)	외왕존장 (外王存丈)	나, 여	2
외조모(外祖母)	生	외할머님 외조모님	저	외조모(外祖母)	외왕대부인 (外王大夫人)	나, 할미	2
외숙(外叔)	生	외삼촌	저, 생질(甥姪)	비외숙(鄙外叔)	귀외숙(貴外叔)	나, 아재미	3
외숙모(外叔母)	生	외숙모님	상동	비외숙모	귀외숙모 (貴外叔母)	나, 아재미	3
이모부(姨母夫)	生	이모부님	이질(姨姪)	비이숙(鄙姨叔)	귀이숙장	이숙	3
이모(姨母)	生	이모님	상동	비이모(鄙姨母)	귀이모부인	이모	3

구분 / 대상자		내가부를때	나를말할때	내가남에게말할때	남이나에게말할때	남에게자신을 말할때	촌수
내종형(內從兄)	生	내형(內兄)	외종제(外從弟)	비내종형(鄙內從兄)	귀내종형		4
내종제(內從弟)	生	내제(內弟)	외종형(外從兄)	비내종제(鄙內從弟)	귀내종제		4
외종형(外從兄)	生	표종형(表從兄)	내종제(內從弟)	비외종형(鄙外從兄)	귀외종형		4
외종제(外從弟)	生	표종제(表從弟)	내종형(內從兄)	비외종제(鄙外從弟)	귀외종제		4
장인(丈人)	生	빙장(聘丈)어른 빙부(聘父)어른 장인(丈人)어른	사위 저	비빙장(鄙聘丈) 비장인(鄙丈人)	존빙장(尊聘丈)	빙부(聘父)	1
장모(丈母)	生	빙모(聘母)님 장모(丈母)님	사위 저	비빙모(鄙聘母) 비장모(鄙丈母)	존빙모부인 (尊聘母夫人)	빙고(聘姑)	1

제7장 통계자료

1､우리나라 10대성(十大姓)인구(1985년)

번 호	성 씨(姓氏)	인 구(명)
1	金	8,785,000
2	李	5,985,000
3	朴	3,435,000
4	崔	1,913,000
5	鄭	1,780,000
6	姜	958,000
7	趙	877,000
8	尹	843,000
9	張	810,000
10	林	672,000

2、한국의 성씨일람표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가	賈	노	魯	범	凡	신	申	유	劉	채	菜
간	簡		路	변	卞		辛	육	陸		采
갈	葛	뇌	賴		邊		愼	윤	尹	천	千
감	甘		雷	복	卜	심	沈	은	殷		天
강	姜	누	樓	봉	奉	십	辻	음	陰	초	楚
	康	단	段		鳳	아	阿	이	李		肖
	彊		單	부	夫	안	安		異		初
	强		端		傅	애	艾		伊	최	崔
	剛	담	譚	비	丕	야	夜	인	印	추	秋
강전	岡田	당	唐	빈	賓	양	梁	임	林		鄒
개	介	대	大		彬		楊		任	춘	椿
견	甄	도	都	빙	氷		樑	자	慈	탁	卓
	堅		陶	사	史		襄	장	張	탄	彈
경	慶		道		舍	어	魚		蔣	태	太
	景	독고	獨孤		謝	어금	魚金		章	판	判
계	桂	돈	頓	사공	司空	엄	嚴		莊	팽	彭
고	高		敦	삼	森	여	呂	장곡	長谷	편	片
곡	曲	동	董	상	尙		余	저	邸		扁
공	孔	동방	東方	서	徐		汝	전	全	평	平
	公	두	杜		西	연	延		田	포	包
곽	郭		頭	서문	西門		連		錢	표	表
교	橋	마	馬	석	石		燕	점	占	풍	馮
구	具		麻		昔	염	廉	정	鄭	피	皮
	丘	만	萬	선	宣	영	永		丁	필	弼
	邱	망절	網切	선우	鮮于		榮		程	하	河
국	鞠	매	梅	설	薛		影	제	諸		夏
	國	맹	孟		偰	예	芮		齊	학	郝
	菊	명	明	섭	葉	오	吳	제갈	諸葛	한	韓
군	君	모	牟	성	成	옥	玉	조	趙		漢
궁	弓		毛		星	온	溫		曺	함	咸
궉	鴌	목	睦	소	蘇	옹	邕	종	種	해	海
권	權	묘	苗		邵		雍		宗	허	許
근	斤	묵	墨	소봉	小峰	왕	王	좌	左	현	玄
금	琴	문	文	손	孫	요	姚	주	朱	형	邢
기	奇	미	米	송	宋	용	龍		周	호	扈
	箕	민	閔		松	우	于	준	俊		胡
길	吉	박	朴	수	水		禹	지	池		鎬
김	金	반	班		洙	운	雲		智	홍	洪
나	羅		潘	순	荀		芸	진	陳	화	化
난	欒	방	龐		舜	원	元		秦	환	桓
남	南		方		淳		袁		晋	황	黃
남궁	南宮		房		順	위	魏		眞	황보	皇甫
낭	浪		邦	승	承		韋	차	車	후	后
내	奈	배	裵		昇	유	柳	창	昌		候
	乃	백	白	시	施		兪		倉	흥	興
노	盧	범	范		柴		庾	채	蔡		

여기에 수록된 성씨(275개)는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임.

3、윤씨(尹氏) 본관별 인구통계 (1985년)

번호	본관(本貫)	인구(명)	번호	본관(本貫)	인구(명)
1	파평(坡平, 坡州)	646,648	29	백천(白川)	82
2	해남(海南)	48,786	30	현풍(玄風)	81
3	칠원(漆原)	44,883	31	기계(杞溪)	65
4	남원(南原)	37,845	32	평창(平昌)	63
5	해평(海平, 善山)	22,758	33	광주(廣州)	61
6	무송(茂松)	10,320	34	고령(高靈)	49
7	함안(咸安)	6,106	35	수원(水原)	48
8	양주(楊州)	2,315	36	달성(達城)	47
9	태평(泰平)	2,235	37	거창(居昌)	41
10	예천(醴泉)	1,965	38	대전(大田)	41
11	영천(永川)	1,745	39	순흥(順興)	35
12	함평(咸平)	910	40	고창(高敞)	22
13	전주(全州)	552	41	거제(巨濟)	21
14	해주(海州)	350	42	야성(野城)	19
15	가평(加平)	287	43	경남	16
16	경주(慶州)	266	44	죽산(竹山)	12
17	여주(驪州)	263		기타	2,712
18	평산(平山)	197		미상	1,122
19	밀양(密陽)	191		합계	834,121
20	강릉(江陵)	141			
21	남평(南平)	127			
22	김해(金海)	127			
23	문화(文化)	108			
24	진주(晉州)	101			
25	신녕(新寧)	93			
26	팔판	92			
27	덕산(德山)	88			
28	청주(淸州)	85			

4.윤씨(尹氏)본관별 사마시(司馬試) 합격자(조선조)

성	본 관	인원수	성	본 관	인원수
윤(尹)	강릉(江陵)	1	윤(尹)	영덕(盈德)	1
윤(尹)	남양(南陽)	3	윤(尹)	영양(英陽)	1
윤(尹)	남원(南原)	124	윤(尹)	영천(永川)	3
윤(尹)	남해(南海)	1	윤(尹)	예천(醴泉)	1
윤(尹)	덕산(德山)	2	윤(尹)	원주(原州)	1
윤(尹)	덕풍(德豊)	1	윤(尹)	청송(靑松)	1
윤(尹)	무송(茂松)	24	윤(尹)	청주(淸州)	1
윤(尹)	무안(務安)	3	윤(尹)	칠원(漆原)	99
윤(尹)	무장(茂長)	1	윤(尹)	파주(坡州)	8
윤(尹)	성주(星州)	1	윤(尹)	파평(坡平)	934
윤(尹)	송생(松生)	1	윤(尹)	평산(平山)	4
윤(尹)	신계(新溪)	1	윤(尹)	함안(咸安)	17
윤(尹)	신녕(新寧)	2	윤(尹)	해남(海南)	39
윤(尹)	양주(楊洲)	9	윤(尹)	해주(海州)	1
윤(尹)	여주(呂州)	1	윤(尹)	해평(海平)	271
윤(尹)	여주(驪州)	2	윤(尹)	현풍(玄風)	5
윤(尹)	여흥(驪興)	2		합계	1566

5. 성씨별(姓氏別) 문과(文科) 합격자(조선조)

姓	인원수	성	인원수	성	인원수	성	인원수	성	인원수
감(甘)	1	여(余)	3	지(池)	10	우(禹)	37	임(任)	176
공(公)	1	예(芮)	3	탁(卓)	10	하(河)	39	황(黃)	179
동방(東方)	1	유(庾)	3	소(蘇)	12	변(邊)	41	남(南)	191
부(夫)	1	형(邢)	3	주(周)	12	배(裵)	47	서(徐)	199
상(尙)	1	봉(奉)	4	맹(孟)	13	여(呂)	51	오(吳)	219
인(印)	1	선우(鮮于)	4	위(魏)	13	신(辛)	53	심(沈)	224
위(韋)	1	연(延)	4	경(慶)	14	나(羅)	54	안(安)	235
륭(隆)	1	함(咸)	4	금(琴)	14	구(具)	55	강(姜)	245
엽(葉)	1	황보(皇甫)	4	방(方)	14	전(全)	57	민(閔)	254
염(廉)	1	명(明)	5	남궁(南宮)	16	곽(郭)	57	송(宋)	291
장(蔣)	1	모(牟)	5	도(都)	16	문(文)	61	신(申)	305
진(晉)	1	반(潘)	5	변(卞)	16	원(元)	63	한(韓)	331
초(楚)	1	옥(玉)	5	현(玄)	20	정(丁)	64	권(權)	390
태(太)	1	구(丘)	6	유(劉)	23	양(梁)	66	최(崔)	437
필(弼)	1	표(表)	6	기(奇)	24	채(蔡)	69	류(柳)	454
구(仇)	2	길(吉)	7	어(魚)	25	고(高)	80	홍(洪)	500
국(鞠)	2	마(馬)	7	양(楊)	27	백(白)	81	조(趙)	641
설(偰)	2	복(卜)	7	진(陳)	27	손(孫)	85	윤(尹)	651
벽(薛)	2	석(石)	7	전(田)	29	노(盧)	91	정(鄭)	751
옹(邕)	2	선(宣)	7	엄(嚴)	30	유(兪)	122	박(朴)	852
장(莊)	2	진(秦)	7	주(朱)	31	조(曺)	122	김(金)	2,198
천(千)	2	공(孔)	8	차(車)	32	임(林)	124	이(李)	3,392
계(桂)	3	방(房)	9	목(睦)	34	허(許)	132		
노(魯)	3	승(承)	9	신(愼)	35	성(成)	139		
단(段)	3	왕(王)	10	강(康)	36	장(張)	143		

합계122성. 15,741명

제8장 역대왕계 및 관직표

1、歷代王朝의 王系(韓國史大系에 依據)

德日新網羅四方之義紀元年甲子(漢宣帝五鳳元年)起 後唐盩王乙未亡 都慶州
朴昔金三姓相傳 朴十代昔八代 金二十八代 初號斯盧五十六王 九百九十二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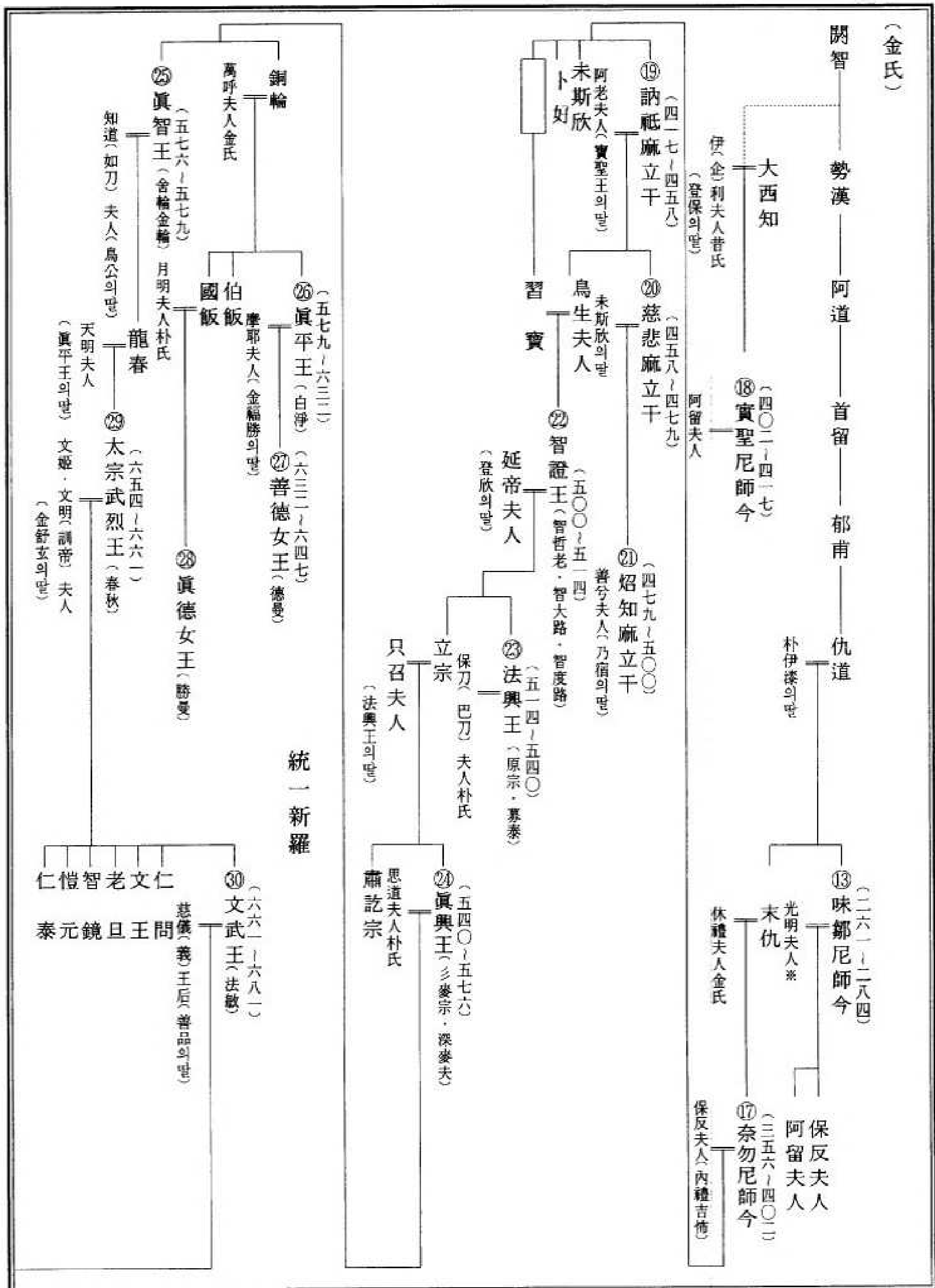
新 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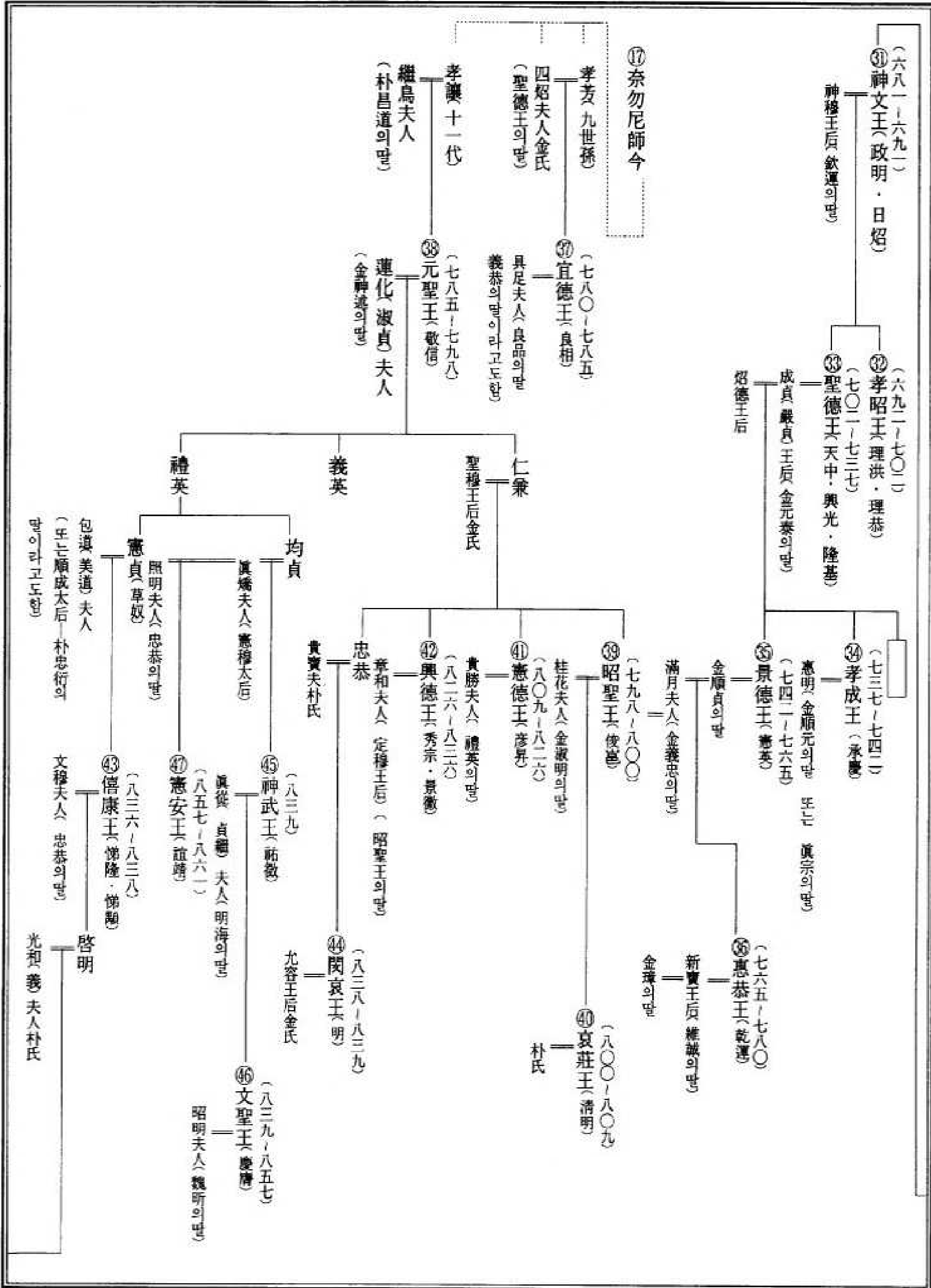
(朴氏)

- ① 赫居世居西干 (B·C五七~A·D四) ═ 閼英夫人
  - ② 南解次次雄 (四~二四) ═ 雲帝(阿婁)夫人
    - ③ 儒理尼師今 (二四~五七) ═ 日知(朴氏許婁王의 딸이라고도함)
      - ⑦ 逸聖尼師今 (一三四~一五四) ═ 朴氏(支所禮王의 딸)
        - ⑧ 阿達羅尼師今 (一五四~一八四) ═ 內禮夫人朴氏(祗摩王의 女) ……又兼
      - ⑤ 婆娑尼師今 (八〇~一一二) ═ 史省夫人金氏(許婁의 딸)
        - ⑥ 祗摩尼師今 (一一二~一三四) ═ 愛禮夫人金氏(摩帝의 딸)
    - 奈老
    - 阿孝夫人 ═ ④ 脫解尼師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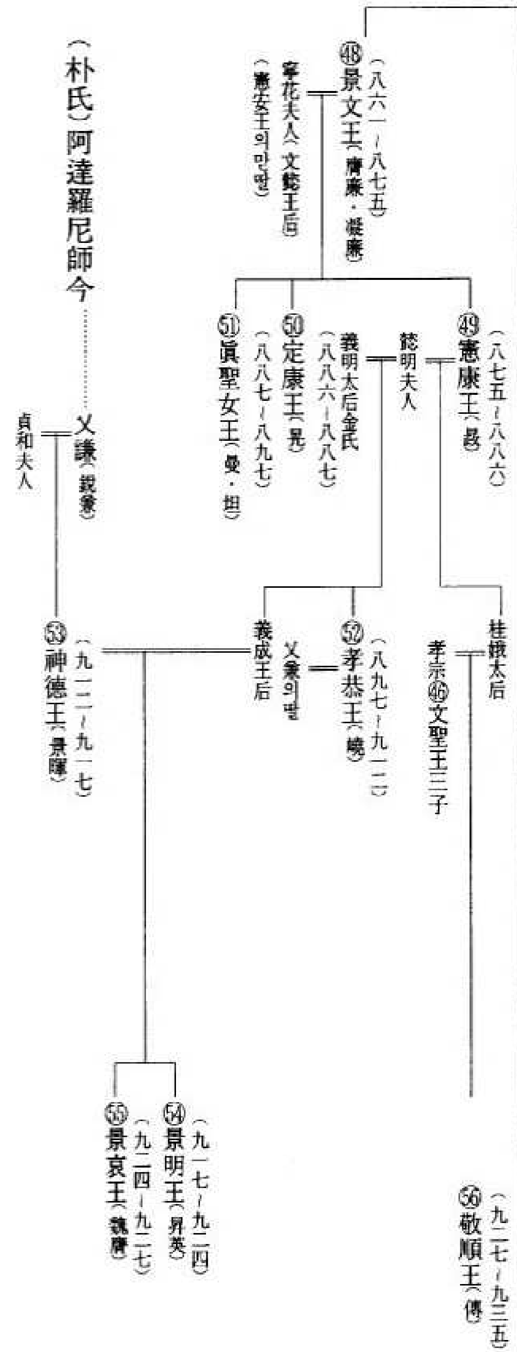
(昔氏)

- 多婆國王 ═ 女人國王의 딸
  - ④ 脫解尼師今 (五七~八〇) ═ 阿孝夫人
    - 仇鄒 ═ 只珍內禮夫人金氏
      - ⑨ 伐休尼師今 (一八四~一九六) ═ ?
        - 骨正(忽爭) ═ 玉帽夫人(金仇道의 女)
          - ⑪ 助賁尼師今 (二三〇~二四七) ═ (阿爾兮夫人(奈解王의 딸)
            - ⑭ 儒禮尼師今 (二八四~二九八) ═ ?
            - 乞淑
              - ⑮ 基臨尼師今 (二九八~三一〇) ═ ?
            - 光明夫人(味鄒王의 딸) ※
          - ⑫ 沾解尼師今 (二四七~二六一) ═ 朴奈音의 딸
        - 伊買 ═ 內禮夫人
          - ⑩ 奈解尼師今 (一九六~二三〇) ═ 助賁王의 妹
            - 于老 ═ 命元夫人(助賁王의 딸)
              - ⑯ 訖解尼師今 (三一〇~三五六)
            - 利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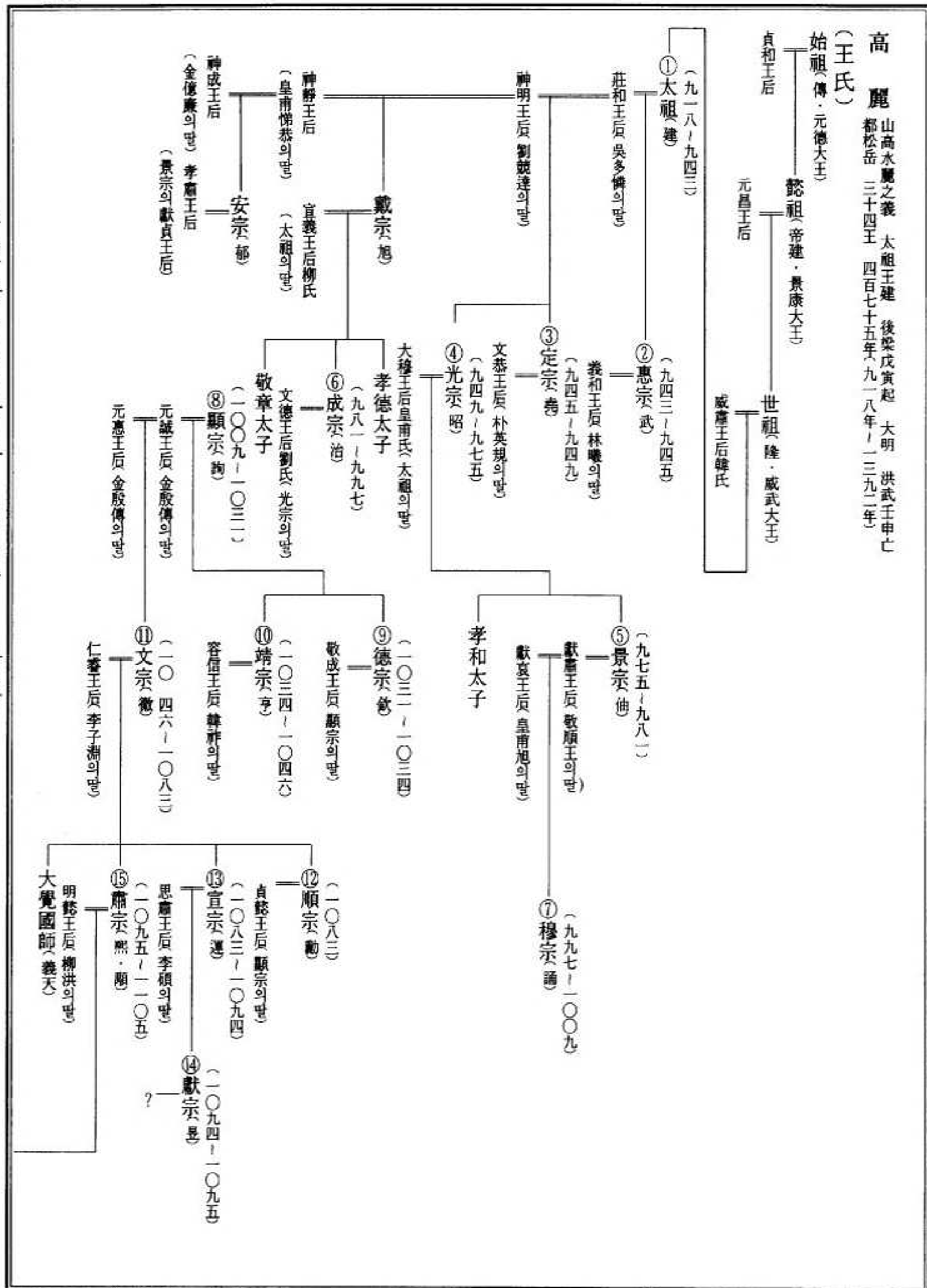

(金氏)
閼智
勢漢
阿道
首留
郁甫
仇道
朴伊柒의딸
大西知
伊(企)利夫人昔氏
(登保의딸)
⑬味鄒尼師今(二六二~二八四)
光明夫人※
末仇
休禮夫人金氏
保反夫人
阿留夫人
⑰奈勿尼師今(三五六~四〇二)
保反夫人(內禮吉怖)
⑱實聖尼師今(四〇二~四一七)
阿留夫人
⑲訥祇麻立干(四一七~四五八)
阿老夫人(實聖王의딸)
未斯欣
卜好
⑳慈悲麻立干(四五八~四七九)
未斯欣의딸
烏生夫人
習寶
㉑炤知麻立干(四七九~五〇〇)
善兮夫人(乃宿의딸)
㉒智證王(五〇〇~五一四)(智哲老·智大路·智度路)
延帝夫人(登欣의딸)
㉓法興王(五一四~五四〇)(原宗·募泰)
保刀(巴刀) 夫人朴氏
立宗
只召夫人(法興王의딸)
㉔眞興王(五四〇~五七六)(彡麥宗·深麥夫)
思道夫人朴氏
肅訖宗
統一新羅
銅輪
萬呼夫人金氏
㉕眞智王(五七六~五七九)(舍輪金輪)
知道(知刀) 夫人(烏公의딸)
㉖眞平王(五七九~六三二)(白淨)
摩耶夫人(金福勝의딸)
伯飯
國飯
月明夫人朴氏
龍春
天明夫人(眞平王의딸)
㉗善德女王(六三二~六四七)(德曼)
㉘眞德女王(勝曼)
㉙太宗武烈王(六五四~六六一)(春秋)
文姬·文明(訓帝) 夫人(金舒玄의딸)
㉚文武王(六六一~六八一)(法敏)
慈儀(義)王后(善品의딸)
仁問
文王
老旦
智鏡
愷元
仁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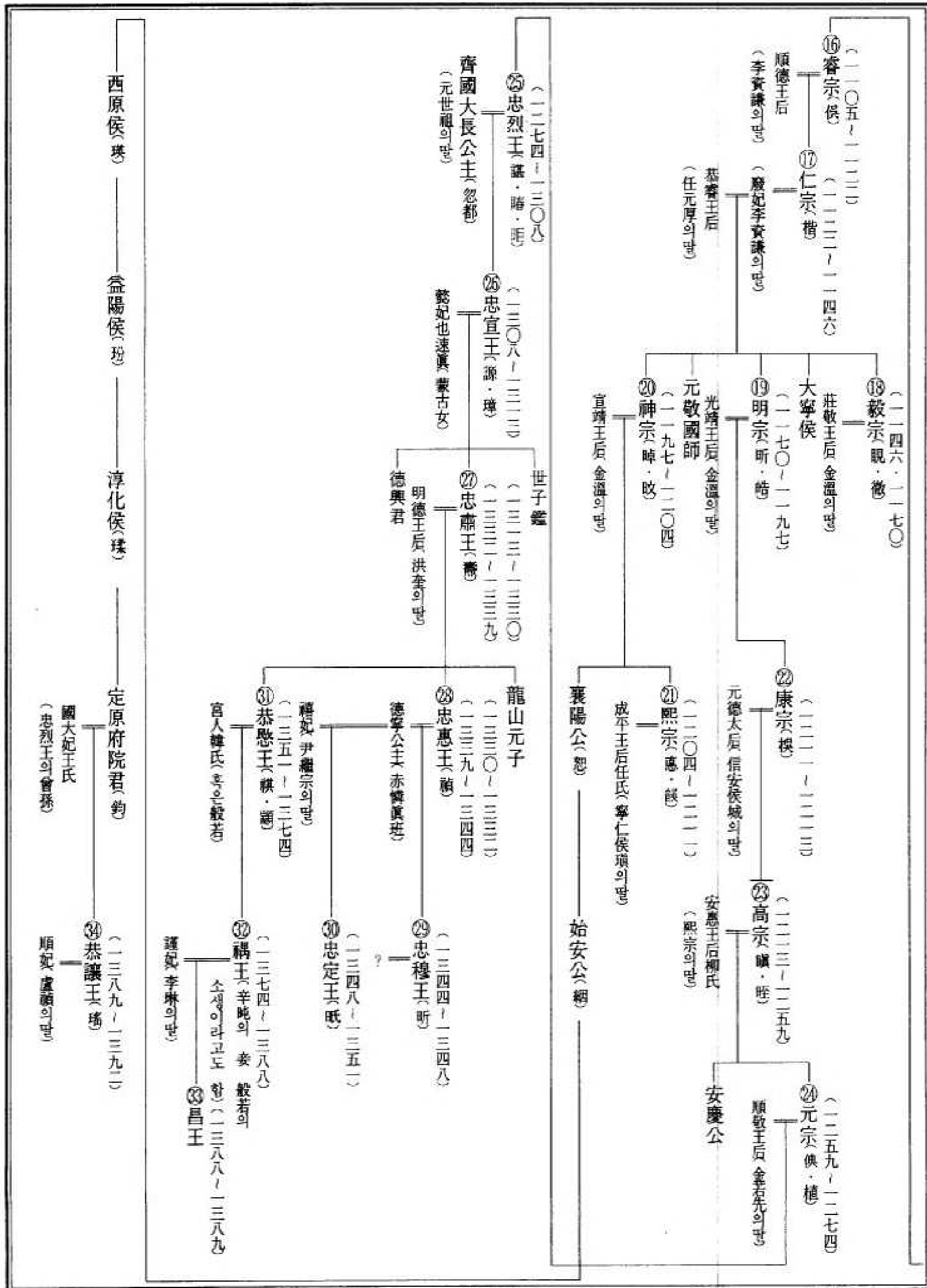
⑰奈勿尼師今
孝芳(九世孫)
四炤夫人金氏(聖德王의딸)
孝讓(十一代)
繼烏夫人(朴昌道의딸)
(六八一~六九一)
㉛神文王(政明·日炤)
神穆王后(欽運의딸)
(六九二~七〇二)
㉜孝昭王(理洪·理恭)
(七〇二~七三七)
㉝聖德王(天中·興光·隆基)
成貞(嚴貞)王后(金元泰의딸)
炤德王后
(七三七~七四二)
㉞孝成王(承慶)
惠明(金順元의딸)
(七四二~七六五)
㉟景德王(憲英)
金順貞의딸
滿月夫人(金義忠의딸)
또는 眞宗의딸
(七六五~七八〇)
㊱惠恭王(乾運)
新寶王后(維誠의딸)
金璋의딸
(七八〇~七八五)
㊲宣德王(良相)
具足夫人(良品의딸
義恭의딸이라고도함)
(七八五~七九八)
㊳元聖王(敬信)
蓮化(淑貞)夫人
(金神述의딸)
仁謙
聖穆王后金氏
義英
禮英
(七九八~八〇〇)
㊴昭聖王(俊邕)
桂花夫人(金叔明의딸)
(八〇〇~八〇九)
㊵哀莊王(淸明)
朴氏
(八〇九~八二六)
㊶憲德王(彦昇)
貴勝夫人(禮英의딸)
(八二六~八三六)
㊷興德王(秀宗·景徽)
章和夫人(定穆王后)(昭聖王의딸)
忠恭
貴寶夫人朴氏
(八三八~八三九)
㊹閔哀王(明)
允容王后金氏
均貞
眞矯夫人(憲穆太后)
憲貞(草奴)
照明夫人(忠恭의딸)
包道(美道)夫人
(또는順成太后—朴忠衍의
딸이라고도함)
(八三九)
㊺神武王(祐徵)
眞從(貞繼)夫人(明海의딸)
(八三九~八五七)
㊻文聖王(慶膺)
昭明夫人(魏昕의딸)
(八五七~八六一)
㊼憲安王(誼靖)
(八三六~八三八)
㊸僖康王(悌隆·悌顒)
文穆夫人(忠恭의딸)
啓明
光和(義)夫人朴氏



㊽景文王(膺廉·凝廉)(八六一~八七五)
寧花夫人(文懿王后)(憲安王의 맏딸)
㊾憲康王(晸)(八七五~八八六)
懿明夫人
㊿定康王(晃)(八八六~八八七)
義明太后金氏
(51)眞聖女王(曼·坦)(八八七~八九七)
桂娥太后
孝宗 ㊻文聖王三子
(52)孝恭王(嶢)(八九七~九一二)
乂謙의 딸
義成王后
(朴氏)阿達羅尼師今
乂謙(銳謙)
貞和夫人
(53)神德王(景暉)(九一二~九一七)
(54)景明王(昇英)(九一七~九二四)
(55)景哀王(魏膺)(九二四~九二七)
(56)敬順王(傅)(九二七~九三五)



高麗(王氏)
山高水麗之義 太祖王建 後梁戊寅起 大明 洪武壬申亡
都松岳 三十四王 四百七十五年(九一八年~一三九二年)
始祖(傳·元德大王)
貞和王后
懿祖(帝建·景康大王)
元昌王后
世祖(隆·威武大王)
威肅王后韓氏
①太祖(建) (九一八~九四三)
莊和王后 吳多憐의딸
神明王后 劉兢達의딸
神靜王后 (皇甫悌恭의딸)
神成王后 (金億廉의딸)
戴宗(旭)
宣義王后柳氏 (太祖의딸)
安宗(郁)
孝肅王后 (景宗의獻貞王后)
②惠宗(武) (九四三~九四五)
義和王后 林曦의딸
③定宗(堯) (九四五~九四九)
文恭王后 朴英規의딸
④光宗(昭) (九四九~九七五)
大穆王后皇甫氏(太祖의딸)
孝德太子
⑥成宗(治) (九八一~九九七)
文德王后劉氏(光宗의딸)
敬章太子
⑧顯宗(詢) (一〇〇九~一〇三一)
元誠王后(金殷傅의딸)
元惠王后(金殷傅의딸)
⑤景宗(伷) (九七五~九八一)
獻肅王后(敬順王의딸)
獻哀王后 皇甫旭의딸
孝和太子
⑦穆宗(誦) (九九七~一〇〇九)
⑨德宗(欽) (一〇三一~一〇三四)
敬成王后 顯宗의딸
⑩靖宗(亨) (一〇三四~一〇四六)
容信王后 韓祚의딸
⑪文宗(徽) (一〇四六~一〇八三)
仁睿王后 李子淵의딸
⑫順宗(勳) (一〇八三)
貞懿王后 顯宗의딸
⑬宣宗(運) (一〇八三~一〇九四)
思肅王后 李碩의딸
⑭獻宗(昱) (一〇九四~一〇九五)
?
⑮肅宗(熙·顒) (一〇九五~一一〇五)
明懿王后 柳洪의딸
大覺國師(義天)



⑯睿宗(俁) (一一〇五~一一二二)
順德王后 (李資謙의 딸)
⑰仁宗(楷) (一一二二~一一四六)
廢妃李資謙의 딸
恭睿王后 (任元厚의 딸)
⑱毅宗(晛·徹) (一一四六~一一七〇)
莊敬王后 金瑥의 딸
大寧侯
⑲明宗(昕·晧) (一一七〇~一一九七)
光靖王后 金瑥의 딸
元敬國師
⑳神宗(晫·旼) (一一九七~一二〇四)
宣靖王后 金瑥의 딸
㉑熙宗(悳·韺) (一二〇四~一二一一)
成平王后任氏(寧仁侯稹의 딸)
襄陽公(恕)
始安公(絪)
㉒康宗(祦) (一二一一~一二一三)
元德太后 信安侯珹의 딸
㉓高宗(皞·瞮) (一二一三~一二五九)
安惠王后柳氏 (熙宗의 딸)
㉔元宗(倎·禃) (一二五九~一二七四)
順敬王后 金若先의 딸
安慶公
㉕忠烈王(諶·昛·賰) (一二七四~一三〇八)
齊國大長公主(忽都魯揭里迷失) (元世祖의 딸)
㉖忠宣王(謜·璋) (一三〇八~一三一三)
懿妃也速眞(蒙古女)
世子鑑
㉗忠肅王(燾) (一三一三~一三三〇) (一三三二~一三三九)
明德王后 洪奎의 딸
德興君
龍山元子
㉘忠惠王(禎) (一三三〇~一三三二) (一三三九~一三四四)
德寧公主(亦憐眞班)
禧妃 尹繼宗의 딸
㉙忠穆王(昕) (一三四四~一三四八)
?
㉚忠定王(㫝) (一三四八~一三五一)
㉛恭愍王(祺·顓) (一三五一~一三七四)
宮人韓氏(혹은 般若)
㉜禑王(辛旽의 妾 般若의 소생이라고도 함) (一三七四~一三八八)
謹妃 李琳의 딸
㉝昌王 (一三八八~一三八九)
西原侯(瑛)
益陽侯(玢)
淳化侯(琇)
定原府院君(鈞)
國大妃王氏 (忠烈王의 曾孫)
㉞恭讓王(瑤) (一三八九~一三九二)
順妃 盧頙의 딸

朝鮮 (一三九二年~一九一〇年 二十七代 五一九年)

穆祖(安社) = 孝恭王后 平昌李氏

翼祖(行里) = 貞淑王后 登州崔氏

度祖(椿) = 敬順王后 文州朴氏

桓祖(子春) = 懿惠王后 永興崔氏

①太祖(成桂)(一三九二~一三九八) = 神懿王后韓氏, 神德王后康氏

鎭安大君(芳雨) ②定宗(芳果·曔)(一三九八~一四〇〇) = 定安王后金氏 益安大君(芳毅) 懷安大君(芳幹) ③太宗(芳遠)(一四〇〇~一四一八) = 元敬王后閔氏 德安大君(花衍) 撫安大君(芳蕃) 宜安大君(芳碩)

讓寧大君(禔) 孝寧大君(補) ④世宗(祹)(一四一八~一四五〇) = 昭憲王后沈氏 誠寧大君(褈)

⑤文宗(珦)(一四五〇~一四五二) = 顯德王后權氏 ⑦世祖(首陽大君 瑈)(一四五五~一四六八) = 貞熹王后尹氏 安平大君(瑢) 臨瀛大君(璆) 廣平大君(璵) 錦城大君(瑜) 平原大君(琳) 永膺大君(琰)

⑥端宗(弘暐)(一四五二~一四五五) = 定順王后宋氏

德宗(崇·暲=追尊) = 昭惠王后韓氏 ⑧睿宗(平甫·晄)(一四六八~一四六九) = 章順王后韓氏, 安順王后韓氏

月山大君(婷) ⑨成宗(娎)(一四六九~一四九四) = 恭惠王后韓氏, 廢妃尹氏, 貞顯王后尹氏 仁城大君([illegible]) 齊安大君(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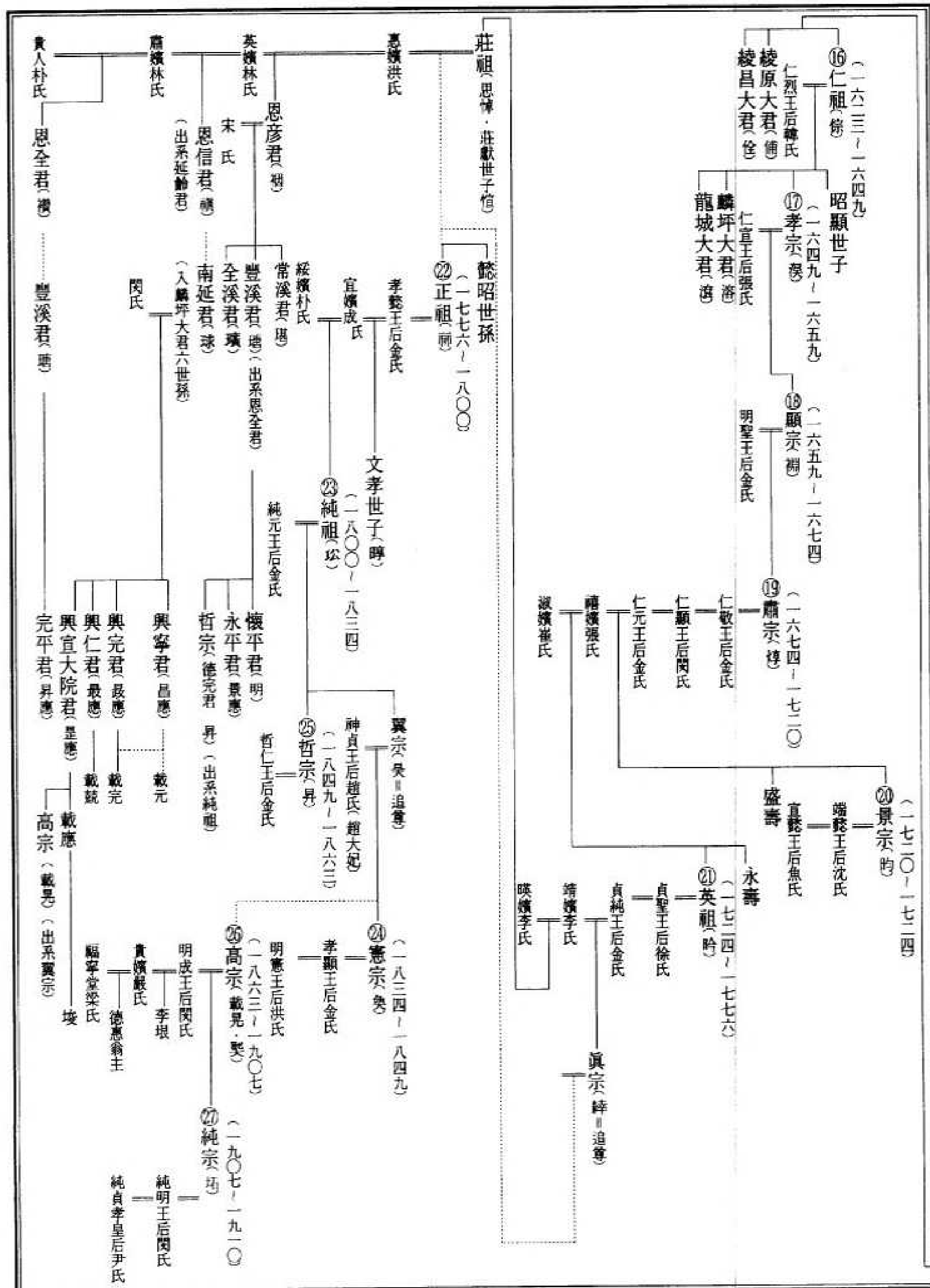
⑩燕山君(㦕)(一四九四~一五〇六) = 愼氏 ⑪中宗(懌)(一五〇六~一五四四) = 端敬王后愼氏, 章敬王后尹氏, 文定王后尹氏, 昌嬪安氏

⑫仁宗(峼)(一五四四~一五四五) = 仁聖王后朴氏 ⑬明宗(峘)(一五四五~一五六七) = 仁順王后沈氏 永陽君(岠) 德興大院君(岹) = 鄭氏

⑭宣祖(昖)(一五六七~一六〇八) = 懿仁王后朴氏, 仁穆王后金氏, 恭嬪金氏, 仁嬪金氏, 順嬪金氏

永昌大君(㼁) 臨海君(珒) ⑮光海君(琿)(一六〇八~一六二三) = 柳自新의 딸 義安君(珹) 信城君(珝) 元宗(琈) = 仁獻王后具氏 義昌君(珖) 順化君(珄)

廢世子(祬)



⑯仁祖(倧)(一六二三~一六四九)
仁烈王后韓氏
昭顯世子
綾原大君(俌)
綾昌大君(佺)
⑰孝宗(淏)(一六四九~一六五九)
仁宣王后張氏
麟坪大君(㴭)
龍城大君(滾)
⑱顯宗(棩)(一六五九~一六七四)
明聖王后金氏
⑲肅宗(焞)(一六七四~一七二〇)
仁敬王后金氏
仁顯王后閔氏
仁元王后金氏
禧嬪張氏
淑嬪崔氏
⑳景宗(昀)(一七二〇~一七二四)
端懿王后沈氏
宣懿王后魚氏
盛壽
永壽
㉑英祖(昑)(一七二四~一七七六)
貞聖王后徐氏
貞純王后金氏
靖嬪李氏
暎嬪李氏
眞宗(緈＝追尊)
莊祖(思悼・莊獻世子愃)
惠嬪洪氏
懿昭世孫
㉒正祖(祘)(一七七六~一八〇〇)
孝懿王后金氏
宜嬪成氏
綏嬪朴氏
文孝世子(㬐)
㉓純祖(玜)(一八〇〇~一八三四)
純元王后金氏
翼宗(旲＝追尊)
神貞王后趙氏(趙大妃)
㉔憲宗(奐)(一八三四~一八四九)
孝顯王后金氏
明憲王后洪氏
㉕哲宗(昪)(一八四九~一八六三)
哲仁王后金氏
英嬪林氏
恩彥君(裀)
宋氏
常溪君(湛)
豊溪君(瑭)(出系恩全君)
全溪君(壙)
懷平君(明)
永平君(景應)
哲宗(德完君 昪)(出系純祖)
肅嬪林氏
恩信君(禛)
(出系延齡君)
南延君(球)
(入麟坪大君六世孫)
閔氏
興寧君(昌應)
興完君(晸應)
興仁君(最應)
興宣大院君(昰應)
載元
載完
載兢
載應
高宗(載晃)(出系翼宗)
埈
貴人朴氏
恩全君(禶)
豊溪君(瑭)
完平君(昇應)
㉖高宗(載晃・熙)(一八六三~一九〇七)
明成王后閔氏
李坧
貴嬪嚴氏
李垠
福寧堂梁氏
德惠翁主
㉗純宗(坧)(一九〇七~一九一〇)
純明王后閔氏
純貞孝皇后尹氏

2、統一新羅 官職表

文官職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最高官職)	沿革	所掌
	上大等(上臣)			法興王一八年(五三一) 設置	政事를 다스리는 한편 和白과 같은 遺族會議를 主宰함
執事省	中侍(六五一)↓侍中(七四七) 典大等(五六五)↓侍郎(七四七) 大舍(五八九)↓郎中(七五九) 舍知(六八五)↓員外郎(七五九)↓舍知(七七六) 史↓郎(景)↓史(惠)	一 一 一 一 一四	二~五 六~一一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七	眞德女王五年(六五一) 稟主라 하던것을 改稱 興德王四年(八一九) 執事省으로 改稱	國家의 機密과 庶政을 맡아보던 最高의 行政機關
兵部	令(五一六) 大監(六二三)↓作郎(景)↓大監(惠) 弟監(五八九)↓大舍(六五八)↓郎中(景)↓大舍(惠) 弩舍知(六七二)↓司兵(景)↓弩舍知(惠) 史 弩幢(六七一)↓小司兵(景)↓弩幢(惠)	三 三 二 一 一七 一	太~五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七 一二~一七	法興王四年(五一七) 設置	軍事에 關한 事務를 管掌
調部	今(六五一) 卿 大舍(眞) 主簿(景)↓大舍(惠) 舍知(六八五)↓司庫(景)↓舍知(惠) 史	二 二 二 一 八	太~衿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七	眞興王六年(五八四) 設置 景德王때 大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貢賦의 일을 맡아 보던 곳
京城周作典	令(七三二) 卿(七三三) 大舍↓主簿(景)↓大舍(惠) 舍知↓司功(景)↓舍知(惠) 史	五 六 六 一 八	太~五 六~一一 一〇~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七	景德王때 修城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首都 慶州의 城廓을 보수하는 일을 맡아 보던곳
四天王寺成典	衿荷臣↓監令(景)↓衿荷臣(惠)↓監令(哀) 上堂↓卿(景)↓上堂(惠)↓卿(哀) 赤位↓監(景)↓赤位(惠) 青位↓主簿(景)↓青位(惠)↓大舍(哀)	一 一 一 二	一~五 六~一一 一一~一三	景德王때 監四天王寺部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四天王寺의 管理를 맡아 보던곳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史	二			
奉聖寺成典	衿荷臣↓檢校使(景)↓衿荷臣(惠)↓令(哀)	一		景德王때 修營奉聖寺 使院으로 改稱, 後에 還元	奉聖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上堂↓副使(景)↓上堂	一			
	赤位↓判官(景)↓赤位	一			
	青位↓綠事(景)↓青位	一			
	史↓典(景)↓史	一			
感恩寺成典	衿荷臣↓檢校使(景)↓衿荷臣(惠)↓令(哀)	一		景德王때 修營奉聖寺 使院으로 改稱, 後에 還元	感恩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上堂↓副使(景)↓上堂(惠)↓卿(哀)	一			
	赤位↓判官(景)↓赤位	一			
	青位↓綠事(景)↓青位	一			
	史↓典(景)↓史	一			
奉德寺成典	衿荷臣↓檢校使(景)↓衿荷臣(惠)↓卿(哀)	一		七五九年 修營奉德寺 使院으로 改稱, 後에 還元	奉德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上堂↓副使(景)↓上堂(惠)↓卿(哀)	一			
	赤位↓判官(景)↓赤位(惠)	一			
	青位↓綠事(景)↓青位(惠)	二			
	史↓典(景)↓史(惠)	六			
奉恩寺成典	衿荷臣(惠)↓令(哀)				奉恩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副使(惠)↓上堂↓卿(哀)				
	大舍				
	史				
靈廟寺成典	上堂↓判官(景)↓上堂	一		七五九年 修營靈廟寺 使院으로 改稱, 後에 還元	靈廟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青位↓綠事(景)↓大舍	一			
	史	二			
永興寺成典	大奈麻↓監(景)	一		六四八年 設置, 七五九年 監永興寺舘으로 改稱	永興寺의 管理를 맡아보던곳
	史	三			
倉部	令	二	大~五	六五八年 稟主에서 分置	中央部署에서 財政을 擔當하던곳
	卿(六五一)↓侍郎(景)↓卿(惠)	二	六~?		
	大舍(眞)↓郎中(景)↓大舍(惠)	二	一一~一三		
	租舍知(六九九)↓司倉(景)↓租舍知(惠)		一二~一三		
	史(眞)	三〇			
禮部	令(五八六)	二	太~五	眞平王八年(五八六)에 設置	外交및儀禮를 맡아보던 곳
	卿(六四八)	二	六~?		
	大舍(六五一)↓主簿(景)↓大舍	二	六~一三		
	舍知↓司禮(景)↓舍知	一	一二~一三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史(六五一)	一二	一二~一七		
乘部	令(五八四) 卿 大舍→主簿(景)→大舍 舍知→司牧(景)→舍知 史	二 二 二 一 九	一~五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七	景德王때 司馭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馬匹과 車乘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던곳
司正部	令 卿(五四四) 佐→評事(景)→佐 大舍 史	一 二 二 二 一五	一~五 六~? 一〇~一一 一一~一三	太宗武烈王六年(六五九) 設置, 景德王때 肅正臺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百官을 監察하는 業務를 맡아보던곳
例作部 (例作典)	令(六八六) 卿(神) 大舍(八〇五)→主簿(景)→大舍 舍知→司例(景)→舍知 史	一 二 四 二 八	一~五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景德王때 修例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營繕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던곳
船部	令 卿(六六二) 大舍→主簿(景)→大舍(惠) 舍知→司舟(景)→舍知(惠) 史	一 二 二 一 八	一~五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文武王一八年(六七八) 兵部에서 分置, 景德王때 利濟府로 改稱, 恭愍王때 還元	水軍 또는 船舶에 關한 事務를 管掌던곳
領客府	令(六五一) 卿 大舍→主簿(景)→大舍(惠) 舍知→司儀(景)→舍知(惠) 史	二 二 二 一 八	一~五 六~? 一一~一三 一二~一三	本名은 倭典 眞平王四三年(六二一)領客典으로 景德王때 司賓府로 改稱, 惠恭王때 領客典으로 改稱	外國使臣의 接待를 맡아보던곳
位和府	衿荷臣→令(八〇五) 上堂(神)→卿(哀) 大舍→主簿(景)→大舍 史	二 二 二 八	大~二 六~九	眞平王 三年(五八一)設置 景德王때 司位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官吏의 身分 또는 人事를 擔當하던곳
左理方府	令 卿(眞) 佐(眞)→評事(景)→佐(惠) 大舍 史	二 二 二 二 一五	三~九 六~? 一〇~一一 一一~一三	眞德女王 五年(六五一) 設置, 처음에 理方府였으나 文武王七年(六六七)에 左右理方으로 分廳 六九三年 議方府로 改稱	刑律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던곳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右理方府	令 卿 佐 大舍 史	二 二 二 二 一〇	三~九 六~? 一〇~一一 一一~一三	文武王七年(六六七) 設置	刑律에 關한 事務를 管掌
賞賜署	大正(六二四)↓正(景)↓大正 佐 大舍(六五一)主書(景)↓大舍(惠) 史	一 一 二 六	六~九 九~一〇 一一~一三	처음 倉部에 屬한것을 眞平王四六年(六二四)에 別途로 設置 景德王때 司勳監으로 惠恭王때 賞賜署로 改稱	論功行賞에 關한 功勳等의 事務를 맡아 보던곳
大道署(寺典 內道監)	大正(六二四)↓正(景)↓大正 主書↓主事(景) 史	一 二 八	六~九 一一~一三	禮府에 所屬	
典邑署	卿 監 大司邑 中司邑 小司邑 史 木尺	二 四 六 六 九 一六 七〇	八~一一 一〇~一一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三	景德王때 典京府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永昌宮成典	上堂(景)↓卿↓上堂(惠)↓卿(八〇五) 大舍↓主簿(景)↓大舍(惠) 史	一 二 四	六~九 一一~一三	文武王一六年(六七六)에 設置	永昌宮을 管理하던곳
國學	卿↓司業(景)↓卿(惠) 博士 助敎 大舍(六五一)↓主簿(景)↓大舍(惠) 史	一 若干名 若干名 二 二	六~九 一一~一三	禮府에 所屬 神文王二年(六八二)設置 景德王때 大學監으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新羅時代의 敎育機關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 左氏傳, 文選, 論語 孝經등을 가르침
音聲署	長↓卿(六八七)↓司樂(景)↓卿(惠) 大舍(六五一)↓主簿(景)↓大舍 史	二 二 四	六~? 一一~一三	禮府에 所屬, 景德王때 大樂監으로 改稱, 惠恭王때 還元	音樂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던곳
大日任典	大都司↓大典儀(景)↓大都司 少都司↓小典儀(景)↓少都司 都司大舍↓大典事(景)↓都司大舍 都司舍知↓中典事(景)↓都司舍知 都謁舍知↓典謁(景)↓都謁舍知	六 二 二 四 八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一~一三 一二~一三 一二~一三	武烈王四年(六五七) 設置, 景德王때 典京府에 併合	土俗宗敎의 關係等의 事務를 맡아보던곳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大日任典	都引舍知↓典引(景)↓都引舍知	一	一二~一三		
	幢↓小典事 (景)↓幢	六	一二~一七		
	都事稽知	六			
	都謁稽知	六			
	都引稽知(都引幢·小典引)	五			
	比伐首	一〇			
工匠部	監(六八二)	二	九~一〇	景德王때 典祀署로 改稱 後에 還元	工業에 該當되는 業務를 관장
	主書(六五一 ·또는 主事 ·大舍)	二	一一~一三		
	史	四			
彩典	監(六八二)	一	一〇~一一	景德王때 典彩署로 改稱 後에 還元	圖書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곳
	主書(六五一)	二	一一~一三		
	史	三			
左司錄館	監	一	一〇~一一	文武王一七年(六七七) 設置	官吏의 祿俸의 事務를 맡아보던곳
	主書(主事)	二	一一~一三		
	史	四			
右司錄館	監	一		文武王二一年(六八一) 設置	官吏의 祿俸을 管理하던곳
	主書	二			
	史	四			
典祀署	監	一	一〇~一一	禮府에 所屬 聖德王 一二年(七一三) 分置	祭祀의 儀禮를 管掌하던곳
	大舍(六五一)	二	一一~一三		
	史	四			
新宮	監	一	一〇~一一	聖德王一六年(七一七) 設置 景德王때 典設館으로 改稱 後에 還元	
	主書	二	一一~一三		
	史	三			
東市典	監	二	一〇~一一	智證王一〇年(五〇九) 設置	慶州의 東部를 擔當
	大舍↓主事(景)↓大舍	二	一一~一三		
	書生↓司直(景)↓書生	二			
	史	四			
西市典	監	二		孝昭王四年(六九五) 設置	慶州의 西部를 擔當
	大舍↓主事(景)↓大舍	二			
	書生↓司直(景)↓書生	二			
	史	四			
南市典	監	二		孝昭王四年(六九五) 設置	慶州의 南市典을 擔當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南市典	大舍→主事(景)→大舍	二			
	書生→司直(景)→書生	二			
	史	四			
司範署	大舍(主書)→主事(景)→大舍	二	一二~一三	禮府에 所屬	
	史	四			
京都驛	大舍	二	一一~一三	炤知王九年(四八七) 設置. 景德王때 都亭驛으로 改稱. 後 還元	郵驛에 關한 業務를 맡아보던곳
	史	二			
漏刻典	博士	六		聖德王一七年(七一八) 設置	時間과 日曆을 測定하는 機關
	史	一			
六部少監典 梁部(閼山楊山村)	監郎	一		新羅建國前부터 있었던 六村을 儒理王九年(三二)에 六部로 改稱함	慶州(서울)의 行政을 擔當하던곳
	大奈麻	一			
	大舍知	二			
	舍知	一			
	史	六			
沙梁部(突山高墟村)	監郎	一			
	大奈麻	一			
	大舍知	二			
	監幢	一			
	史	五			
本彼部(觜山珍支村)	監郎	一			
	監大舍	一			
	舍知	一			
	監幢	五			
	史	一			
牟梁部(茂山大樹村)	監臣	一			
	大舍	一			
	舍知	一			
	監幢	五			
	史	一			
漢祇部(金山加利村)	監臣	一			
	大舍	一			
	舍知	一			
	監幢	三			
	史	一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習比部(明活山高耶村)	監臣	一			
	大舍	一			
	舍知	一			
	監幢	三			
	史	一			
食尺典	大舍	六			
	史	六			
直徒典	大舍	六			
	舍知	八			
	史	二六			
古宮家典	幢(稽知)	四			
	鉤尺	六			
	水主	六			
	禾主	一五			
內省	私臣→殿中令(景)→私臣	一	衿~太	眞平王四四年(六二二) 私臣 三名을 一名으로 하였으며 景德王一八年(七五九)에 殿中省으로 改稱하였다가 還元	大宮, 梁宮, 沙梁宮의 三宮의 事務를 管掌하던 곳으로 中央의 官廳과는 別途로 設置한 곳
	卿	二	六~一一		
	監	二	八~一一		
	大舍	一			
	舍知	一			
內司正典	議決	一		景德王五年(七四六) 設置 同王 一八年(七五九) 建平省으로 改稱 後에 還元	
	貞察	二			
	史	四			
典大舍典	典大舍	一			
	典翁	一			
	史	四			
上大舍典	上大舍	一			
	大翁	一			
黑鎧監	大舍	一		景德王때 衛武監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一			
本彼宮	虞	一		文武王二〇年(六八〇) 設置	昔氏의 發祥地에 宮을 세우고 大宮 梁宮, 沙梁宮과 같이 內首에서 이에 關한 業務를 擔當
	私母	一			
	工翁	二			
	典翁	一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史	二			
引道典	上引道	一		景德王때 禮成典으로 改稱 後에 還元	
	位引道	三			
	宮引道	四			
村徒典	干	一		文武王九年(六六九) 設置	
	宮翁	一			
	大尺	一			
	史	二			
尻驛典	看翁	一			
	宮翁	一			
平珍音典	看翁	一		景德王때 掃宮으로 改稱. 後에 還元	
	筵翁	一			
	典翁	一			
煙舍典	看翁	一		聖德王一七年(七一八) 設置	
祥文師				聖德王一三年(七一四)에 通文博士로 하였다가 景德王때 翰林으로 改稱. 後에 博士를 둠	
所內學生				聖德王二〇年(七二一) 設置	
天文博士				後에 司天博士로 改稱	
醫學	博士	二		神文王一一年(六九一) 設置	
供奉乘師					
律令典	博士	六			
藪宮典	大舍	二			
	舍	二			
青淵宮典	大舍			景德王때 造秋亭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宮翁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夫泉宮典	大舍 史 宮翁	二 二 一			
且熱音宮典	大舍 史 宮翁	二 四 一			
坐山典	大舍 史 宮翁	二 三 一			
屛村宮典	大舍 史 宮翁	二 三 一		景德王때 玄龍亭으로 改稱 後에 還元	
北吐只宮典	大舍 史	二 二			
弘峴宮典	大舍 史	二 二			
葛川宮典	大舍 史	二 二			
善坪宮典	大舍 史	二 二			
伊同宮典	大舍 史	二 二			
平立宮典	大舍 史	二 二			
明活典	大舍 看翁	一 一		神德王二年(九一三) 設置	
源谷羊典	大舍 看翁	一 一		興德王四年(八二九) 設置	
梁谷典	看翁	一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壁典	看翁	一			
	下典	四			
莿園典	看翁	一			
	下典	二			
豆呑炭典	看翁	一			
少年監典	大舍			景德王때 釣天省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會宮典	宮翁			景德王때 北司設로 改稱 後에 還元	
	助舍知				
上新謀典	大舍	一			
	史	二			
下新謀典	大舍	一			
	史	二			
左新謀典	大舍	一			
	史	二			
右新謀典	大舍	一			
	史	二			
租典	大舍	一			
	史	一			
新園典	大舍	一			
	史	一			
永庫典	大舍	一			
	史	一			
白川苜蓿典	大舍	一			
	史	一			
漢祇苜蓿典	大舍	一			
	史	一			
蚊川苜	大舍	一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稻典	史	一			
本彼苩稻典	大舍	一			
	史	一			
陵色典	大舍	一			
	史	一			
穢宮典	稚省	一〇		景德王때 珍閣省으로 改稱 後에 還元	
	宮翁	一			
	助舍知	四			
	從舍知	二			
朝霞房	助舍知	二三			
梁宮	母	一一			
蹏典	母	六			
紅典	母	六			
蘇芳典	母	六			
攢梁典	母	六			
漂典	母	一〇			
倭典	母				
錦典				景德王때 織錦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鐵鍮典				景德王때 築冶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寺典					
漆典				景德王때 飾器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毛典				景德王때 聚毳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皮典				景德王때 鞄人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鞦典					
皮打典				景德王때 鞸工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磨典				景德王때 梓人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曝典	干	三			
肉典	干	二		景德王때 尙膳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滓典	干	一			
	史	四			
阿尼典	母	六			
綺典	母	八		景德王때 別錦房으로 改稱 後에 還元	
席典	干	一		景德王때 奉座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二			
机概典	干	一		景德王때 机盤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六			
楊典	干	一		景德王때 司篚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六			
瓦器典	干	一		景德王때 陶登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六			
監夫大典	大舍	二			
	史	二			
	從舍知	二			
大傳典	大舍	二			
	史	二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從舍知	二			
行軍典	大舍	二			
	史	四			
	從舍知	二			
永昌典	大舍	二			
	史	二			
古昌典	大舍	二			
	史	四			
番監	大舍	二			
	史	二			
願堂典	大舍	二			
	從舍知	二			
物藏典	大舍	四			
	史	二			
北廂典	大舍	二			
	史	四			
鞱典					
靴典					
打典					
麻履典					
御龍省	私臣(八〇一)	一			
	御伯郞(七八〇)→奉卿→卿(七五〇)→監	二			
	稚省	一四			
洗宅	大舍	八		景德王때 中書省으로 改稱 後에 還元	
	從舍知	二			
崇文臺	郞	二			
	史	四			
	從舍知	二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嶽典	大舍	二			
	史	四			
	從舍知	二			
監典	大舍	二			
	舍知	二			
	史	四			
	都官	四			
	從舍知	二			
	樂子	若干名			
廩典	大舍	二		景德王때 天祿司로 改稱 後에 還元	
	舍知	二			
	史	八			
	廩翁	四			
	從舍知	二			
春典	舍知	二			
	史	八			
祭典	舍知	二			
	史	六			
藥典	舍知			景德王때 保命司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從舍知				
供奉醫師					
供奉卜師					
麻典	干	一		景德王一八年(七五九)에 織紡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史	八			
	從舍知	四			
南下所宮	翁	一		景德王때 雜工局으로 改稱 後에 還元	
	助	四			
南桃園宮	翁	一			
北園宮	翁	一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新靑淵宮	翁	一			
針房	女子	一六			
東宮官					
東宮衙	上大舍	一		景德王一一年(七五二) 設置	
	次大舍	一			
御龍省	大舍				
	稚省				
洗宅	大舍				
	從舍知				
給帳典	典	四			
	稚	四			
月池典					
僧房典	大舍	一			
	從舍知	二			
庖典	舍知	二			
	史	二			
	從舍知	二			
月池嶽典	大舍	一			
	水主	一			
龍王典	大舍	二			
	史	二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侍衛府	三從			眞德王五年(六五一) 設置	新羅의 王宮을 護衛하던 軍隊組織
	將軍	六	六~九	神文王元年(六八一) 設置	
	大監	六	九~一一		
	隊頭	一五	八~一三		
	項	三六	一〇~一三		
	卒	一一七	一二~一七		
諸軍官	將軍		一~九		
	大官大監		六~一三	五四九年 設置	
			六~一一		
	隊大監(領馬兵, 領步兵)		六~一一		
	弟監		一〇~一三	五六二年 設置	
	監舍知		一二~一三	五二三年 設置	
	少監		一二~一七	五六二年 設置	
	大尺		一二~一七		
	軍師幢主		七~一一	五二四年 設置	
	大匠尺幢主		七~一一		
	步騎幢主		八~一一		
	三千幢主		八~一三		
	菁衿騎幢主		八~一三		
	緋衿幢主		八~一三		
	師子衿幢主		七~一三		
	法幢主(百官幢主)				
	黑衣長槍末步幢主		九~一三		
	三武幢主		一〇~一三		
	萬步幢主		一〇~一三		
	軍師監		一一~一三		
	大匠大監		一〇~一三		
	步騎監		一一~一三		
	三千監		一〇~一三		
	師子衿幢監		一一~?		
	法幢監		一一~一三		
	緋衿監				
	菁衿監		一一~?		
	皆知戟幢監		一一~一三		
	法幢頭上				
	法幢火尺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法幢辟主 三千卒		一〇~一七		
九誓幢	綠衿誓幢 紫衿誓幢 白衿誓幢 緋衿誓幢 黃衿誓幢 黑衿誓幢 碧衿誓幢 赤衿誓幢 青衿誓幢			軍隊編制의 하나로서 眞平王五年(五八三)부터 歷代를 通하여 增設되어 神文王七年(六八七)에 完成된 中央軍團	自國民인 新羅人을 비롯 高句麗, 百濟, 靺鞨人등으로 組織編成됨 反亂의 危險이 있는 他國民에 對한 憂患을 더는 한편 中央의 兵力을 强化하는 編制로서 衿色으로 部隊를 區別하였음
十停	音里火停 古良夫里停 居斯勿停 參良火停 召參停 未多夫里停 南川停 骨乃斤停 伐力川停 伊火兮停			北方에 配置된 軍隊의 編制로서 地域이 가장 넓고 國防上으로 重要한 漢山州에만 二停을 設置하였으며 나머지 八州에는 各各一停씩을 둠	
政官(政法典)	大舍→僧官 史	一 二		七八五年 設置	
國統(寺主)	都唯那娘 阿尼大都那 大書省 少年書省			眞興王一二年(五五一)에 高句麗에서 온 惠亮法師가 國統이 됨	國王 顧問의 立場에서 僧官인 外統과 郡統을 統率
州統				僧官으로 各州에 一名式	國統의 命에 따라 全國의 佛教 教團을 國家政策에 맞도록 統率 監督
郡統				僧官으로 各郡의 佛教 教團을 指導 監督	郡內의 教團을 統率

官衙	官職名	官員數	官階	沿革	所掌
	都督→軍主(五〇八)→摠管(六六一)→都督(七八五)	九	二~九	智證王六年(五〇五) 設置	地方長官
	仕臣(仕大等 五六四)	五	四~九	眞興王二五年(五六四) 設置	地方官職, 小京의 長官
	州助(州輔)	四	六~一一	官員은 各州마다 四名	外官職
	郡太守		六~一三		
	長史(司馬)		一〇~一三		
	仕大舍(少尹)		一〇~一三		
	外司正	一三三		文武王一三年(六七三) 設置 官員은 各州에 二名 郡에 一名씩 모두 一三三名 各縣마다 官員을 둠	地方官吏들의 非行을 살펴 규탄하는 곳
	少守(制守)	八五			
	縣令	二〇一			地方長官
浿江鎭典	頭上大監	一	六~九	宣德王三年(七八二) 設置	大同江 下流 南쪽 沿岸 地方을 다스리던곳
	大谷城頭上	六	六~九		
	大監	七	六~一三		
	頭上弟監	一	一〇~一三		
	弟監	一	一一~?		
	步監	一	八~一七		
	少監	一	一二~一七		

註

※一. 官職欄에서 ( )의 漢字는 王을 表示함

(景)=景德王, (眞)=眞德王, (哀)=哀莊王, (神)=神文王, (惠)=惠恭王

二. ( ) 안의 數字는 西紀를 表示함

※官階欄의 數字는 新羅 一七官位階의 順位를, 또 太는 太大角干, 大는 大角干, 衿은 衿荷臣을 表示함.

新羅一七官位階의 順位

一. 伊伐湌(角干) 六. 阿湌(重阿湌↕四重阿湌) 一一. 柰麻(柰末, 重柰麻↕七重柰麻) 一六. 小烏(小烏知)

二. 伊尺湌(伊湌) 七. 吉湌 一二. 大舍(韓舍) 一七. 造位(先沮知)

三. 迊湌(蘇判) 八. 沙湌 一三. 舍知(小舍)

四. 波珍湌 九. 級伐湌(級湌) 一四. 吉士(吉次)

五. 大阿湌 一〇. 大柰麻(大奈末, 重奈麻↕九重奈麻) 一五. 大烏(大烏知)

※武官은 官廳別로 整理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軍官의 名稱과 官等만을 밝혔음.

3、高麗官職(位階) 變遷表 (高麗史 百官志에 依함)

品階 / 年代	文散階 一○六○年 (文宗一四)	文散階 一二七五年 (忠烈一)	文散階 一二九八年 (忠烈二四)	文散階 一三○八年 (忠烈三四)	文散階 一三一○年 (忠宣二)	文散階 一三五六年 (恭愍五)	文散階 一三六二年 (恭愍一一)	文散階 一三六九年 (恭愍一八)	武散階 九九五年 (成宗一四)	鄕職 選擧志에 依함
正一品 上 下				三重大匡 뒤에 壁上三韓三重大匡	三重大匡	開府儀同三司, 儀同三司	壁上三韓三重大匡, 三重大匡	特進輔國三重大匡, 特進三重大匡		三重大匡
從一品 上 下	開府儀同三司		崇祿大夫	重大匡 뒤에 壁上三韓重大匡	重大匡	金紫光祿大夫, 金紫崇祿大夫	重大匡	三重大匡, 重大匡	驃騎大將軍	重大匡
正二品 上 下	特進		興祿大夫	匡靖大夫	大匡正匡	銀靑光祿大夫, 銀靑榮祿大夫	匡靖大夫	光祿大夫, 崇祿大夫	輔國大將軍	大匡
從二品 上 下	金紫光祿大夫	匡靖大夫	正奉大夫	通憲大夫	匡靖大夫, 奉翊大夫	光祿大夫, 榮祿大夫	奉翊大夫	榮祿大夫, 資德大夫	鎭國大將軍	正匡
正三品 上 下	銀靑光祿大夫	中奉大夫	正議大夫	正順大夫, 奉順大夫	正順大夫, 奉順大夫	正議大夫, 通議大夫	正順大夫, 奉順大夫	正議大夫, 通議大夫	冠軍大將軍	大丞
從三品 上 下	光祿大夫		通議大夫	中正大夫, 中顯大夫	中正大夫, 中顯大夫	大中大夫, 中大夫	中正大夫, 中顯大夫	大中大夫, 中正大夫	雲麾大將軍	佐丞
正四品 上 下	正議大夫, 通議大夫		大中大夫	奉常大夫	奉常大夫	中散大夫	奉散大夫	中散大夫, 中議大夫	中武將軍, 將武將軍	大相
從四品 上 下	大中大夫, 中大夫		中大夫	奉善大夫	奉善大夫	朝散大夫	奉善大夫	朝散大夫, 朝列大夫	宣威將軍, 明威將軍	元甫
正五品 上 下	中散大夫, 朝議大夫		中散大夫, 朝議大夫	通直郎	通直郎	朝議郎	通直郎	朝議郎	定遠將軍, 寧遠將軍	正甫
從五品 上 下	朝請大夫, 朝散大夫		朝請大夫, 朝散大夫		朝奉郎	朝奉郎	朝奉郎	朝奉郎	遊騎將軍, 遊擊將軍	
正六品 上 下	朝議郎, 承議郎		朝議郎, 承議郎	承奉郎	承奉郎	朝請郎	承奉郎	朝請郎	耀武將軍, 耀武副尉	元尹
從六品 上 下	奉議郎, 通直郎		奉議郎, 通直郎		宣德郎	宣德郎	宣德郎	宣德郎	振尉校尉, 振尉副尉	佐尹
正七品 上 下	朝請郎, 宣德郎		朝請郎, 宣德郎	從事郎	從事郎	修職郎	從事郎	修職郎	致果校尉, 致果副尉	正朝
從七品 上 下	宣議郎, 朝散郎		宣議郎, 朝散郎						翊威校尉, 翊麾副尉	正位
正八品 上 下	給事郎, 徵事郎		給事郎, 徵事郎	徵事郎	徵事郎	承事郎	徵事郎	承事郎	宣折校尉, 宣折副尉	甫尹
從八品 上 下	承奉郎, 承務郎		承奉郎, 承務郎						禦侮校尉, 禦侮副尉	
正九品 上 下	儒林郎, 登仕郎		儒林郎, 登仕郎	通仕郎	通仕郎	登仕郎	通仕郎	登仕郎	仁勇校尉, 仁勇副尉	軍尹
從九品 上 下	文林郎, 特仕郎		文林郎, 特仕郎						陪戎校尉, 陪戎副尉	中尹

4、高麗官職變遷表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題官職名
	罷	太師 1(正一) 太傅 1(正一) 太保 1(正一)			三師
	罷	太衛 1(正一) 司徒 1(正一) 司空 1(正一)			三公
⑤ (正四) ㉔**都僉議侍中 (尋復改中贊)	①僉議府 (幷尙書省) ①廢 ①左僉議中贊 1 右僉議中贊 1	⑮中書門下省 中書令 1(從一) 門下侍郎 1(從一)	(成 1)內史門下省 (成)內史令 (成)門下侍中	(國初)內議省 (國初)內議令	門下府 判門下 侍中
㉔罷 後復之	①僉議侍郎贊成事 僉議贊成事	中書侍郎平章事 1(正二) 門下侍郎平章事 1(正二) 中書平章事 1(正二) 門下平章事 1(正二)	(成)內史侍郎平章事 門下侍郎平章事		贊成事
⑯政堂文學 ㉔左散騎常侍 右散騎常侍 ㉔罷 ㉔左諫議大夫(從四) 右諫議大夫(從四)	①僉議參理 ①叅文學士 ①知僉議府事	叅知正事 1(從二) 政堂文學 1(從二) 知門下省事 1(從二) 左常侍 1(正三) 右常侍 1(正三) 直門下 1(從三) 左諫議大夫 1(正四) 右諫議大夫 1(正四)	(穆)叅知政事 (穆)左散騎常侍 右散騎常侍 (穆)左諫議大夫 右諫議大夫		評理 政堂文學 知門下府事 常侍 直門下 司議大夫
㉔給事中 ㉔都僉議舍人(正四)	(後改)中事	給事中 1(從四) 中書舍人 1(從四) 起居注 1(從五)	(成)內史舍人	太13)內議舍人	給事中 舍人 起居注
		起居郎 1(從五)			起居郎
		起居舍人 1(從五)			起居舍人
㉔左司諫 右司諫		(睿)左補諫 1(正六) 右補諫 1(正六)	(穆)左補闕 右補闕		獻納
		(睿11)左正言 1(從六) 右正言 1(從六)	(穆)左拾遺 右拾遺		正言
㉔都僉議錄事(正七)		門下錄事 1(從七)	(穆)門下錄事		錄事
㉔都僉議注書(正七)		中書注書 1(從七)	(穆)內史注書		注書
		主事6 令史6 書令史6 注寶3 待詔2 書藝2 試書藝2 記官20 書手26 直省(鄕4 唐4)8 電吏180 門僕10			吏屬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中	前	初	第三期 後
無其人則闕 其始置歲月 不可考				⑪ 罷	⑤復 置	
				⑪ 罷	⑤復 置	
掌百揆庶務 其郞舍掌諫 諍封駁 * 以嫌於 元中書令	(竊)判 門 下 (昌)侍 中 守 侍 中		⑱門 下 府 ⑱領 門 下 ⑱門 下 左 侍 中 ⑱門 下 右 侍 中	⑪都 僉 議 府 ⑪領 都 僉 議 ⑪僉 議 左 政 丞 僉 議 右 政 丞	⑤中 書 門 下 省 ⑤中 書 令 ⑤門 下 侍 中 守 侍 中	⑲都僉議使司(從二) ㉑都 僉 義 令* ㉞政 丞 省(一人)
改判都僉 議使司事 後改領都 僉議			⑱門 下 贊 成 事	⑪僉 議 贊 成 事	⑤中書侍郞平章事1 (正二) 門下侍郞平章事1 (正二) 中書平章事1(正二) 門下平章事1(正二)	㉞中 護 3(正二)(後復稱贊成事)
** 忠烈 王二十四 年卽忠宣 王受禪登 位 *** 班在 直門下上		㉑門 下 評 理 ㉑左 常 侍 右 常 侍 ㉑左 司 議 大 夫 右 司 議 大 夫	⑱參 知 門 下 府 事 ⑱知 門 下 府 事 ⑱左 散 騎 常 侍 右 散 騎 常 侍 (復改)直 門 下 ⑱左 諫 議 大 夫 右 諫 議 大 夫	⑪僉 議 評 理 ⑪知 都 僉 議 事 ⑪左 常 侍 右 常 侍 ⑪直 道 僉 議 左 司 議 大 夫 右 司 議 大 夫	⑤參 知 政 事 ⑤知 門 下 省 事 ⑤左 散 騎 常 侍 右 散 騎 常 侍 ⑤直 門 下 ⑤諫 議 大 夫(終三) ***	㉞評 理 3 (忠宣)罷 後復置 (忠宣)罷 (尋復改) 左常侍 右常侍 (復改) 左司議大夫 右司議大夫
			⑱門 下 舍 人	⑪內 書 舍 人	①中 事(尋罷) ⑤中 書 舍 人(從四) ⑤ (正五)	㉞罷
					⑤ (正五)	
					⑤ (正五)	
		㉑左 獻 納 右 獻 納	⑱左 司 諫 右 司 諫	⑪左 獻 納(正五) 右 獻 納(正五)	⑤左 司 諫(從五) 右 司 諫(從五)	㉞左 獻 納(正五) 右 獻 納(正五)
					⑤左 正 言 右 正 言	㉞思 補(正六)
			⑱門 下 錄 事	⑪僉 議 錄 事(正七)	⑤門 下 錄 事	
			⑱門 下 注 書	⑪僉 議 注 書	⑤門 下 注 書	㉞典務令1(從七) 丞 2(從八) 錄事 2(正九) } 尋罷之 (忠宣)首領官 經 歷1 都 事2 } 尋罷之 忠宣王 { 照磨1 譯史2 通事2 知印2 奏差10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題官職名
㉔左僕射 右僕射 左司郎中 2 右司郎中 2 左司員外郎 2 右司員外郎 2 (尋罷之) 都事 2	①僉議府 (幷于中書門下省 幷罷員吏)	尙書都省 尙書令 1(從一) 左僕射 1(正二) 右僕射 1(正二) 知省事 1(從二) 左丞 1(從三) 右丞 1(從三) 左司郎中 1(正五) 右司郎中 1(正五) 左司員外郎 1(正六) 右司員外郎 1(正六) 都事 2(從七) 主事4 令史6 書令史6 記官20 算士1 直省2	(成1)御事都省 (尙書都省)	(太)廣評省 侍中 侍郎 郎中 員外郎 內奉省*	尙書省 吏屬
	(忠烈) 左使 右使	三司 判事 1(宰臣兼官) 使 2 (正三) 知司事 1 (副使) 副使 2 (從四) 判官 4 主事6 令史11 書令史2 記官25 重監2 計史2 算士4	(顯5)都正司(尋改之)	(太)三司(改泰封調位府)	三司 吏屬
㉔光政院 使 (從一) 同知院使(正二) 副使(從二) 僉院使(正三) 同僉院使(從三) 都承旨(從五) 承旨(從六) 副承旨(從六) 計議官(正七) 計議參軍(正八)	①密直司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中樞院 判院使 1(從二) 院使 2(從二) 知院使 1(從二) 同知院使 1(從二) 副使 2(正三) 簽書院使 1(正三) 直學士 1(正三) 知奏事 1(正三) 左承宣 1(正三) 右承宣 1(正三) 左副承宣 1(正三) 右副承宣 1(正三) 堂後官 2(正七) 別駕10 主事10 試別駕2 令史2 記官8 通引4	(顯14)中樞院 左承宣 1(副樞兼官) 右承宣 1(〃) 左副承宣 1(〃) 右副承宣 1(〃)	(成10)中樞院	密直司 吏屬

備考	第五期(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第四期 中	第四期 前	第四期 初	第三期 後
摠領百官 * 太祖時又有 內奉省 三國史云 內奉省 即今都省沿革與此不同 ** 革三司而復置之幷復文宗舊制 ** 罷尙書省 復置三司				⑪三 司***	⑤尙 書 省** 尙 書 令 左 僕 射 右 僕 射 左 丞 右 丞 左 司 郎 中 右 司 郎 中 左 司 員 外 郎 右 司 員 外 郎 都 事(正七)	
掌摠中外錢穀出納會計之務	(禑)領三司事		⑱小 尹	⑪三 司 判 事 1(從一) 左 使 1(正二) 右 使 1(正二) 左 尹 2(從三) 右 尹 2(從三) 副 使 4(正四) 判 官 2(正五) 都 事 (正七)	⑤尙 書 省	(忠惠)都 事
掌出納宿衛軍機之政 * 顯宗初卽位罷中樞院及銀臺南北院置中臺省以掌三官機務有使、副使、直中臺、兼直中臺二年罷中臺復置中樞院			⑱ (正三) 學 士 右承宣 左承宣 右副承宣 左副承宣 (復改舊之)	⑪密 直 司 判 司 事(從二) 司 事(從二) 知 司 事(從二) 簽 書 司 事(從二) 同 知 司 事(從二) 副 使(正三) 提 學(正三) 知 申 事(正三) 左 代 言(正三) 右 代 言(正三) 左 副 代 言(正三) 右 副 代 言(正三) 堂 後 官(正七)	⑤樞 密 院 判 院 使 1(從二) 院 使 2(從二) 知 院 使 1(從二) 同 知 院 使 1(從二) 副 使 2(正三) 簽 書 院 使 (正三) 直 學 士 1(正三) 知 奏 事 1(正三) 左 承 宣 1(正三) 右 承 宣 1(正三) 左 副 承 宣 1(正三) 右 副 承 宣 1(正三) 堂 後 官 2(正七)	(尋復改)密 直 司 使 1 (從二) 知 司 事 2(從二) 同 知 司 事 3(從二) 副 使 4(從二) 知 中 事 1 左 承 旨 1(正三) 右 承 旨 1(正三) 左 副 承 旨 1(正三) 右 副 承 旨 1(正三) 堂 後 官 (正七)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 題官職名
中	前		後	前	
㉔資政院(新置) 使(從一) 同知院事(正二) 僉院事(從二) 同僉院事(正三) 判官(正五) 計議官(正七) 計議參軍(從八)					資政院
㉔銓書(別位禮部) 罷(尋復之) 尙書1 尋(尋復之) 侍郎3 (其一他官兼之) 郎中3 } (其一皆以西班兼之) 員外郎3 }	①典理司 (并吏禮部) 判書 摠郎 正郎 佐郎	尙書吏部 判事1(宰臣兼官) 尙書1 (正三) 知部事1(他官兼之) 侍郎1 (正四) 郎中1 (正五) 員外郎1 (正六) 主事2 令史2 書令史2 記官6	(成14)尙書吏部	(國初)選官 御事 侍郎 郎中 員外郎	吏書 吏屬
㉔(併于銓書)	① 正郎 佐郎	尙書考功 郎中 2(正五) 員外郎 2(正六) 主事2 令史4 書令史4 計史 記官2 算士1	(成14)尙書考功	(國初)司績	考功司 吏屬
㉔兵書 尙書2 (其一班主兼之) 侍郎3 (其一他官兼之) 郎中3 } (其一西班兼之) 員外郎3 }	①軍簿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尙書兵部 判事1(宰臣兼官) 尙書1 (正三) 知部事1(他官兼之) 侍郎2 (正四) 郎中2 (正五) 員外郎2 (正六) 主事6 令史2 書令史2 記官12	(成14)尙書兵部 太祖 { 御事 侍郎 郎中 員外郎 (成14)尙書庫部	(太1)兵部 (後改兵官) 令 卿 郎中 庫曹(屬于兵部)	兵曹 吏屬
㉔民書 尙書1 侍郎3 (其一他官兼之) 郎中3 } (其一西班兼之) 員外郎3 }	①版圖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尙書戶部 判事1 (宰臣兼官) 尙書1 (正三) 知部事1(他官兼之) 侍郎2 (正四) 郎中2 (正五) 員外郎2 (正六) 主事6 令史6 書令史10 計史1 記官25 算士1	(成14)尙書戶部 (成14)尙書度支 } 尙書金部 } (後并罷) 尙書倉部 }	(國初)司官 御事 侍郎 郎中 員外郎 司度 } 金曹 } (屬于民官) 倉曹 }	戶曹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掌文選勳封之政	(恭讓1)吏 書	㉑典 理 司 判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⑱選 部 尙 書 議 郎 直 郎 散 郎	⑪典 理 司 判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⑤吏 部(復位禮部) 尙 書(正三) 侍 郎(他官兼之) 郎 中(正四) 員 外 郎(正五)	㉞選 部(幷吏兵禮部) 典 書 1 議 郎 3 直 郎 3 散 郎 3 注 簿 2 (正七) (他官兼之)
掌考覈官吏功過		㉑ 正 郎 佐 郎	⑱ 直 郎 散 郎	⑪ 正 郎 佐 郎	⑤考 功 司 郎 中 員 外 郎	
掌武選軍務儀衛郵驛之政 *顯宗二年罷庫部	(恭讓1)兵 書	㉑軍 簿 司 判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⑱摠 部 尙 書 議 郎 直 郎 散 郎	⑪軍 簿 司 判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⑤兵 部 尙 書 侍 郎 郎 中 員 外 郎	㉞併于 選部→摠部→軍簿司
掌戶口貢賦錢糧之政 *幷三司軍器都監院	(恭讓1)戶 書	㉑版 圖 司 尙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⑱民 部 判 書 議 郎 直 郎 散 郎	⑪版 圖 司 判 書 摠 郎 正 郎 佐 郎	⑤戶 部 尙 書 侍 郎 郎 中 員 外 郎	㉞民部*(→版圖司) 典 書 1 議 郎 3 直 郎 3 散 郎 3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題官職名
中	前		後	前	
㉔刑 書 尙 書 1 侍 郞3 (其一他官兼之) 郞 中3 | 員外郞3 (其一西班兼之)	①典 法 司 判 書 摠 郞 正 郞 佐 郞	尙 書 刑 部 判 人 1(宰臣兼之) 尙 書 1 (正三) 知 部 事 1(他官兼之) 侍 郞 2 (正四) 郞 中 2 (正五) 員 外 郞 2 (正六) 律 學 博 士 1 (從八) 律 學 助 敎 2 (從九) 主事2 令史6 書令史4 計史1 記官6 算士2 杖首26	(成14)尙 書 刑 部	(太)義刑臺→刑官 御 事 侍 郞 郞 中 員 外 郞	刑 書 吏 屬
㉔ 郞 中 員 外 郞	① 正 郞 佐 郞	尙 書 都 官 郞 中 2 (正五) 員 外 郞 2 (正六) 主事6 令史6 書令史6 計史1 記官5 算士1			都 官 吏 屬
㉔儀 曹 尙 書 1 侍 郞3 (其一他官兼之) 郞 中3 | 員外郞3 (其一西班兼之)	①併于 典理司	尙 書 禮 部 判 事 1(宰臣兼之) 尙 書 1 (正三) 知 部 事 1(他官兼之) 侍 郞 1 (正四) 郞 中 2 (正五) 員 外 郞 2 (正六) 主事2 令史4 書令史2 記官6 篆書書者2	(成14)尙 書 禮 部 (成14)尙 書 祠 部*	(初列)禮 官 御 事 侍 郞 郞 中 員 外 郞 祠 曹(屬于禮官)	禮 曹 吏 屬
㉔工 書 尙 書 1 侍 郞3 (其一他官兼之) 郞 中3 | 員外郞3 (其一西班兼之)	①罷	尙 書 工 部 判 事 1(宰臣兼之) 尙 書 1 (正三) 知 部 事 1(他官兼之) 侍 郞 1 (正四) 郞 中 2 (正五) 員 外 郞 2 (正六) 主事2 令史4 書令史4 計史1 記官8	(成14)尙 書 工 部 (成14) 尙 書 虞 部 | 尙 書 水 部	(國初)工 官 御 事 侍 郞 郞 中 員 外 郞 虞 曹 | 水 曹 (屬于工官)	工 書 吏 屬
㉔司 憲 府(尊役改 大 夫 (從二) 減 中 丞 2(從三) 減 內 侍 史	①監 察 司 提 憲 侍 丞 侍 史	御 史 臺 判 事 1 (正三) 大 夫 1 (正三) 知 事 1 (從四) 中 丞 1 (從四) 雜 端 1 (從五) 侍 御 史 1 (從五)	(顯 6)司 憲 臺 大 夫 中 丞 雜 端 侍 御	(成14) 大 夫 中 丞 侍 御 史	司 憲 府*

備考	第五期(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掌法律詞訟 詳讞之政 *幷監傳色 都官典獄	(恭讓)刑 書	㉑典法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⑱理部 尙書 議郎 直郎 散郎	⑪典法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⑤刑部 尙書 侍郎 郎中 員外郎	㉞讞部*→典法司 典書 2 議郎 2 直郎 2 散郎 3
掌奴婢簿籍 決訟		㉑ 正郎 佐郎	⑱ 革 直郎 散郎	⑪ 摠郎(正四)(加置) 正郎 佐郎	⑤ 郎中 ⑨員外郎 4	㉞幷於讞部(忠宣2 復置 都官)
掌禮儀祭享 朝會交日學 校科擧之政 *顯宗二年 罷祠部	(恭讓1)禮 書	㉑禮儀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⑱禮部 尙書 議郎 直郎 散郎	⑪禮儀司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⑤禮部 尙書 侍郎 郎中 員外郎	㉞併于選部
掌山澤工匠 營造之事	(恭讓1)工 書	㉑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⑱ 典書 議郎 直郎 散郎	⑪ 判書 摠郎 正郎 佐郎	⑤工部 尙書 侍郎 郎中 員外郎	(後罷之)
掌論執時政 矯正風俗糾 察彈劾之任 *國初稱司 憲臺		㉑ 執義 掌令	⑱司憲府 大司憲 知事(從三) 兼知事(從三) 侍史	⑪監察司 執義 掌令	⑤御史臺 大夫(如故) 中丞1 侍御史	㉞司憲府(復改) 大司憲(正二) 執義(正三) 掌令(從四)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題官職名
中	前		後	前	
殿中內侍史 監察內史6 主　簿1(正七)	監　察　史	殿 中 侍 御 史 2(正六) 監 察 御 使 10(從六) 文　吏 (各 5) 錄事3　令史4　書令史6 計史1　知班2　記官6 算士1　記事10　所由50	司 憲 殿 中 侍 御 司 憲 監 察 司　憲	殿 中 侍 御 史 監 察 御 史	吏　屬
		開　城　府 知　府　事	(顯)開　城　縣 令	(成)開　城　府 尹	開　城　府
㉔詞　林　院* 學 士 承 旨 (從二) 學　士2(正三) 侍 讀 學 士1(從二) 侍 講 學 士2(從三) 待　制1(正四)	①文　翰　署 (睿11) (正三) (正三) (正四) (正四) (八)	翰　林　院 判　院　事 (宰臣兼之) 學 士 承 旨 1 (正三) 學　士 2 (正四) 侍 讀 學 士 2 侍 講 學 士 1 直　院 4(其二權務) 醫　官 2 錄事2　承事郎2　待詔2 記官1　書手1	(顯)翰　林　院	(太)元　鳳　省 ↓ 學　士　院 翰 林 學 士	藝　文　館 吏　屬
		史　館 書藝4　記官2	(後改)直　館(八)	(國初)史　館 監修國史 (侍中兼之) 修 國 史 同修國史 (二品以上兼之) 修 撰 官 (翰林院三品以下兼) 直 史 館 (其二權務)	春　秋　館 吏　屬
㉘併于　同　文　院	①寶　文　署	(睿11)淸　燕　閣)*(後改) 學　士 1 (從三) 直 學 士 1 (從四) 直　閣 1 (從六) 校　勘 4 (其二他官兼之) 寶　文　閣**			寶　文　閣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中	前	初	第三期 後
		持平	雜端(從五) 兼糾正(加置)	持坪(正五) 糾正	殿中侍御史(從五) 監察御使	持坪(正五) 糾正14(其四兼官)(從六)
* 併給田都監及五部掌都城內 ** 掌都城外	(恭讓)令本府直報都評議司掌家舍財物追倍 又掌農桑戶婚田土逋缺宿債牧民之任			⑪ 判府事(從二)	⑤開城府 尹(從二) 少尹(正四) 判官(正五) 參軍(正七) 縣令(正七) 縣丞(正八)	㉞開城府* 判府尹1(從二) 尹2(其二兼官)(正三) 判尹3(其二兼官)(正四) 判官2(正五) 記室參軍2(正七) 開城縣** 令
掌制撰詞命 * 委以出納之任 ** 併右文館進賢館書籍居	(恭讓 1) 藝文春秋館	(忠肅12)藝文館 (別置 春秋館) 供奉(正七) 修撰1(正八) 注簿1(正八) 檢閱2(正九)	⑱(復舊制)	⑪藝文館 大提學(從二) 提學(正三) 直提學(正四) 應敎(正五) 供奉(正七) 修撰(正八) 檢閱(正九)	⑤翰林院 ⑨大學士2 學士承旨(正三) ⑤{待制(正五) 供奉1(正七) 檢閱1(正八) 直院2(正九)}	㉞藝文春秋館* 大詞伯3(從二) 詞伯2(正三) 直詞伯2(正四) 應敎2(正五) 供奉2(正六) (官兼) 修撰2(正七) 注簿2(正八) 檢閱2(正九)
掌記時政		(忠肅12)春秋館 領館事, 監館事(首相爲之) 知館事, 同知館事(三品以上爲之) 克修撰官, 克編修官, 兼編修官(三品以下爲之) 供奉(正七) 修撰1(正八) 注簿1(正八) 檢閱2(正九)		⑪春秋館 供奉(正七) 修撰(正八) 檢閱(正九)	⑤史館 編修官1(正七) 檢閱1(正八) 直館2(正九)	㉞藝文春秋館 (併于文翰署)
* 朝夕講論經書 ** 淸燕閣在禁內學士直宿出入爲難就其旁別置		㉑ 大提學 提學 直提學 直閣	⑱復舊制 應敎(正五) 減	⑪ 大提學 提學 直提學 減 直閣(正四)	⑤ 大學士 減 直學士 待制(正五)	(忠肅 1)寶門閣 大提學(從二) 提學(從三) 直提學(正四)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題官職名
中	前		後	前	
		大學士 侍制 1 提學 同提學 管勾 同管勾 (中樞內臣兼之) (毅 5)門 牒 所*** 別監 (文)同文院 使 1(三品兼之) 副使 1(五品兼之) 錄事 4(其二兼官)			
㉔弘文館 學士 直學士 崇文館 學士	(仁14) 修文殿 集賢殿	諸殿大學士(從二) 諸殿學士(正四)	(成14)弘文館 學士	崇文館 文德殿 大學士 學士 延英殿 大學士 學士	諸* 館 殿
㉕成均監 大司成(正三) 祭酒 司業 成均博士 明經博士 明經學諭	①國學 (睿11)大司成(從三) (睿11)典酒(正四) ① 司藝	國子監 提學 2 同提學 2 管勾 2 判事 2 (皆是兼官) 祭酒 1(從三) 司業 1(從四) 丞 1(從六) 國子博士 2(正七) 大學博士 2(從七) 注簿 2(從七) 四門博士 2(正八) 學正 2(正九) 學錄 2(正九) 學諭 4(從九) 直學 2(從九) 書學博士 2(從九) 算學博士 2(從九) 書史2 記官2	(成)國子監 國子司業博士 國子助教 大學博士 大學助教 四門博士 四門助教		成均館 吏屬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閣號寶文 *** 文士 十四人及 寶文閣校 勘專掌其 事 **** 忠烈 王以後寶 門閣從有 其名忠穆 王初立臺 臣請置書 筵官分四 番更日侍 讀	(恭讓2)經筵 領經筵事 知經筵事 講讀官				①書筵官	(忠穆)書筵官****
* 皆選文臣 之有才學 者入銜兼 帶以備侍 從		㉑ 右文館 進賢館	⑱ 修文殿 集賢殿	⑪ 右文館 大提學 提學 直提學 進賢館 大提學 提學 直提學	⑤ 修文殿 大學士 直學士 集賢殿 大學士 直學士	㉞ 右文館 大提學(正三) 提學(正三) 直提學(正四) 進賢館 大提學(從二) 提學 直提學
掌儒學教誨 之任			⑱ 司成	⑪成均館 司藝 成均博士 諄諭博士(從七)	⑤國子監 大司成(正三) 祭酒(從三) 司業(從四) 直講(從五) 國子博士(正七) 大學博士(從七) 四門博士(正八) 明經博士(正八) 律學博士(從八) 學正(正九) 學錄(正九) 直學(從九) 書學博士(從九) 明經學論(從九) 算學博士(從九) 律學助敎(從九)	㉞成均館 大司成(正三) 祭酒1(從三) 樂正1(從四) 丞1(從五) 成均博士2(正七) 諄諭博士2(從七) 進德博士2(從八) 學正2(正九) 學錄2(正九) 直學2(從九) 學論4(從九)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題官職名
㉓秘 書 監 減 丞 (從六) 郎 (從七) 校 勘(倂留院官)		秘 書 省 判 事 (正三) 監 1(從三) 少 監 1(從四) 丞 2(從五) 郎 1(從六) 校 書 郎 2(正九) 正 字 2(從九) 校 勘 2(從九) 主事1 令史1 書藝10 記官2 書手15 御 書 院 知 院 事 副 知 院 事 判 院 兼 押 院 2 檢 計 官 2 留 院 官 2 知 書 2 書 手 25	(成14)秘 書 省 監 少 監 丞 郎 校 書 郎 正 字	(國初)內 書 省	典 校 寺 吏 屬
㉔閤 門 祗 候 8 減	①通 禮 門	閤 門 判 事 (正三) 知 事 (兼官) 使 (正五) 引 進 使 2(正五) 引 進 副 使 (從五) 閤 門 副 使 (正六) 通 事 舍 人 4(正七) 祗 候 4(正七) 權 知 祗 候 6 承旨4 驅頭20 記官1	(穆)閤 門 使 副 使 祗 候		通 禮 門 吏 屬
㉘奉 常 寺 卿 2(正三) 少 卿1(正四) 丞 1(正五) 博 士1(從七) 大 祝1(正九) 奉 禮 郎1(正九)		大 常 府(內科權務) 使 1(三品兼之) 副 使1(五品兼之) 錄 事4 (兼官) 記事 書者	(穆)大 常 卿 少 卿 博 士 司 儀 齋 郎		典 儀 寺 吏 屬
㉙宗 正 寺(後復改) 革 卿 少 卿 丞	→殿 中 寺 尹 小 尹	殿 中 省 判 事 (正三) 監 1(從三) 少 監 1(從四) 丞 2(從五)	(穆)殿 中 省 監 少 監 丞 內 給 事		宗 簿 寺

備考	第五期(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中	前	初	第三期 後
掌經籍祝疏 * 爲藝文官所轄		㉑典校寺 (復用十一年官制)	⑱秘書監 (復用五年官制)	⑪典校寺 令 副令 革 郎 (正七) 注 簿(正八) (從九)	⑤秘書監 判事 1(正三) 監 少監 丞 2(從五) 著作郎 2(正七) 郎 2(從七) 秘書郎 4(正八) 校勘 (正九) 正字 (從九)	㉞典校寺* 判事 (正三) 令 (從三) 副令 (從四) 丞 1(從五) 郎 1(正七) 注簿 (正八) 校勘 1(從九) 權知校勘 12 正字 (從九)
掌朝會儀禮		㉑通禮門 副使 判官 舍人	⑱閤門 引進使 引進副使 通事舍人	⑪通禮門 副使 判官 舍人	⑤閤門 判事(正三) 知事(從三) 引進使(正四) 引進副使(正五) 通事舍人(從六) 祗侯(從六)	㉞中門(後復改) 使 2(正二) 副使 2(正四) 判官 2(正六) 舍人 2(正六) 祗侯14(其四郎將兼之)
掌祭祀贈諡		㉑典儀寺 (復用十一年官制)	⑱大常寺 卿 少卿(正四) 博士	⑪典儀寺 令 副令(從四) 丞 注簿 直長 錄事	⑤大常寺 判事(正三) 卿 少卿 丞 博士(正六) 直長 錄事	㉞典儀寺 領事 2(兼官) 令 1 副令 2 丞 1 注簿 1(正六) 直長 2(正七) 錄事 2(正九)
掌族屬譜牒		㉑宗簿寺 (復用十一年官制)	⑱宗正寺 卿 少卿	⑪宗簿寺 令 副令	⑤宗正寺 卿 少卿	(忠宣 2)宗簿寺 判事 (正三) 令 (從三) 副令 (從四) 丞 (從五)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 題官職名
內給事 注簿(從七)		內給事 1(從六) 主事4 令史4 書令史4 記官4 算士1			吏屬
㉒ 革 尹 2 少尹 丞 1		衛尉寺 判事 (正三) 卿 1(從三) 少卿 1(從四) 丞 2(從六) 注簿 2(從七) 書史6 記官	(成14)衛尉寺	(太)內軍 ↓ (光11)掌衛部 ↓ 司衛寺	衛尉寺 吏屬
㉓ 革 卿 2		大僕寺 判事 (正三) 卿 1(從三) 少卿 1(從四) 丞 1(從六) 注簿 2(從七) 書史4 記官1			司僕寺 吏屬
㉔典客寺(後復改) 革 尹 2 少尹 丞 1		禮賓省 判事 (正三) 卿 1(從三) 少卿 1(從四) 丞 2(從六) 注簿 2(從七) 書史8 令史8 記官4 算士1 承旨4 孔目15 都衙15	(成14)客省(後復改)	(太 4)禮賓寺	禮賓寺 吏屬
(尋改)儲積倉	典農司*		(穆)司農(後廢之) 卿		典農寺
㉕外府寺(後改) 革 卿 1 少卿 1 丞 1 注簿 2		大府寺 判事 (正三) 卿 1(從三) 少卿 2(從四) 丞 2(從六) 注簿 4(從七) 書史12 計史1 記官6 算士 6			內府寺 吏屬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中	前	初	第三期 後
						注簿(從七)
掌儀物器械	(恭讓 1)罷 併于 重房	㉑ 尹 少尹	⑱ 卿 少卿	⑪ 尹 少尹	⑤衛尉寺 卿 少卿	㉞併於 吏部 (忠惠一年復置) 判事(正三) 令(從三) 少尹(從四) 丞(從六) 注簿(從七)
掌輿馬廐牧 *併 尙乘 典牧諸牧 監		㉑司僕寺 正 副正 直長	⑱大僕寺 卿 少卿 注簿	⑪司僕寺 正 副正(從四) 直長	⑤大僕寺 判事(正三) 卿(從三) 丞 注簿	㉞司僕寺* 判事1(正三) 正2(正三)(其一兼官) 副令2(從四) 丞2(從六) 直長2(從七)
掌賓客燕享	(恭讓 2)禮賓	㉑典客寺	⑱禮賓寺 卿 少卿	⑪典客寺 令 副令	⑤禮賓寺 卿 少卿	㉞典客寺 判事2(正三) 令(從三) 副令2(從四) 丞2(從六) 注簿(從七) 錄事(從八)
掌供粢盛 *其司員吏 出使者 皆稱務農 鹽鐵使		㉑典農寺 正 副正	⑱司農寺 卿 少卿 直長 ⑲籍田官令1	⑪典農寺 正 副正 革	⑤司農寺 判事(正三) 卿(從三) 少卿(從四) 丞(從五) 注簿(從六) 直長(從七)	
掌財貢廪藏		㉑內府寺 令 副令	⑱大府寺 卿 少卿	⑪內府寺 令 副令	⑤大府監 卿 少卿 丞(從六)	㉞內府寺 判事(正三) 令(從三) 副令(從四) 穆(從五) 注簿(從七)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 一 期(初期)		百官志表
中	前		後	前	題官職名
㉞內 府 監 革 監 (從三)	*(忠惠1)小 府 寺 判 事 (正三) 尹 (從四) 丞 (從六) 注 簿 (從七)	小 府 監 判 事 (從三) 監 1(正四) 少 監 1(從四) 丞 2(從六) 注 簿 2(從七) 監史6 記官4 算士1	(光11)寶泉→小府監 監 少 監 丞 注 簿	(太)物 藏 省 令 卿	小 府 寺 吏 屬
					軍 資 寺
㉞繕 工 司 領 事 1(從二) 令 3(正三) 副 令 3(正四) 丞 2(正五) 注 簿 (正七) (皆兼官)	㉔繕 工 監 革 監 (從三)	將 作 監 判 事 (從三) 監 1(正四) 少 監 1(從四) 丞 2(從六) 注 簿 2(從七) 監作6 記官3 算士1	(穆)將 作 監 監 少 監 丞 注 簿		繕 工 寺 吏 屬
㉞都 津 司 令 3(其一兼 (正三) 長 3(其一兼官) (正四) 丞 2(正五) 注 簿 2(正七)	㉔司 津 監 革 監 少 監	司 宰 寺 判 事 (正三) 卿 1(從三) 少 卿 1(從四) 丞 2(從六) 注 簿 2(從七) 書吏6 記官2 算士2			司 宰 寺 吏 屬
都 府 署 (轄都津司所任)					司 水 寺
㉔ 革 注 簿 2		軍 器 監 判 事 (從三) 監 1(正四) 少 監 1(從五) 丞 2(正七) 注 簿 4(正八) 監史8 記官4 算士2	(穆)軍 器 監 監 少 監 丞 注 簿		軍 器 寺 吏 屬
㉞書雲觀(幷太史局) 提點 1(兼官)(正三) 令 1 (正三) 正 1 (從三)	①觀 候 署 ↓ 司 天 監	司 天 臺 判 事 (正三) 監 1(從三) 少 監 2(從四)	(顯14)司 天 臺	(國初)太 卜 監 監 少 監	書 雲 觀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掌工技寶藏	(恭讓 2) 罷之委其任於內府寺	㉑小府寺 尹 少尹	⑱小府監 監 少監	⑪小府寺 尹 少尹	⑤小府監 監 少監	㉞併于 繕工司
掌軍需儲積 *革小府寺而置軍資寺 又革轉輸都監 其錢穀文書悉委之	(恭讓 2) 軍資寺* 判事(正三) 尹(從三) 少尹(從四) 丞(從六) 注簿(從七)					
掌土木營繕 *以小府宮闕都監 倉庫都監 國贐併焉	(恭讓 1) 重房上大將軍郎別將兼判事以下官	㉑繕工寺 令 副令	⑱將作監 監 少監	⑪繕工寺 令 副令	⑤將作監 監 少監	(後改)繕工寺 判事(正三) 令(從三) 副令(從四) 丞(從六) 注簿(從七)
掌魚染川澤		㉑司宰寺 令 副令	⑱司宰監 監 少監	⑪ 令 副令	⑤ 卿 少卿	後改 司宰寺 判事(正三) 令(從三) 副令(從四) 丞(從六) 注簿(從七)
掌兵船軍	(恭讓 2) 司水寺 判事(正三) 令(從三) 副令(從四) 丞(從六) 注簿(從七)					
掌營造兵器	(恭讓 1) 重房上大將軍郎別將兼判事以下官			⑪軍器寺 錄事(正八)	⑤軍器監 判事(正三) 監(從三) 少監(從四) 丞(從五) 注簿(從六) 直長(從七)	㉞并於 民部
掌天文曆數測候刻漏之事		㉑書雲觀 (復用十一年官制)	⑱司天監 (員吏品秩復用五年官制)	⑪書雲觀 判事(正三) 政(從三)	⑤司天監 (判事以下竝復文宗舊制)	(尋復改) 罷 判事

元支配時期-주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주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주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題官職名
副正 1(從四) 丞 1(從五) 注簿 2(從六) 挈漏 2(從七) 視日 3(正八) 司曆 3(從八) 監候 3(正九) 司辰 2(從九)		春官正 1(從五) 夏官正 1(從五) 秋官正 1(從五) 冬官正 1(從五) 丞 2(從六) 注簿 2(從七) 卜正 1(從九) 卜博士 1(從九) **太史局** 判事 1 知局事 1 令 1(從五) 丞 1(從七) 靈臺郎 2(正八) 保章正 1(從八) 挈壺正 2(從八) 司辰 2(正九) 司曆 2(從九) 監候 2(從九)		四官正 丞 卜博士 卜正 **太史局** 令 丞 靈臺郎 保章正 挈壺正 司辰 司曆 監候	
㉟司醫署 提點2(兼官)(正三) 令 1(正三) 正 1(從三) 副正 1(從四) 丞 1(從五) 郎 1(從六) 直長 1(從七) 博士 2(從八) 檢藥 2(正九) 助教 2(從九)		**太醫監** 判事 2(從三) 監 1(正四) 少監 2(正五) 博士 2(從八) 丞 2(從八) 醫正 2(從九) 助教 1(從九) 呪噤博士 1(從九) 醫針史1 注藥2 藥童2 呪噤師3 呪噤工2	(穆)太醫監 監 少監 丞 博士 醫正		典醫寺 吏屬
	②通文館(始置)(命禁內學官等參外年未四十者習漢語)				通文館
㉜寢園署* 令 (正七) 丞 1(正八)	(神 5) 令 (參秩)	**太廟署** 令 1(從五) 丞 2(正七) 史4 記官2			寢園署 吏屬
	(神 5) 令 (參秩)	**諸陵署** 令 1(從五) 丞 2(從七) 史6 記官2	(穆)諸陵署 令 丞		諸陵署 吏屬
㉝司醞署 提點3(兼官)(正三) 令 3 (其一兼官)(正五) 丞 3 (正六)	(神 5)良醞署* 參上 1	**良醞署** 令 2(正八)			司醞署

備 考	第五期 (後 期)	第 四 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後	中	前	初	第 三 期 後
			太 史 局 (員吏品秩復用五年官制)	副 正(從四) 丞 (從五) 注 簿(從六) 掌 漏(從七) 視 日(正八) 司 曆(從八) 監 候(正九) 司 辰(從九)	卜 助 敎(從九) 太 史 局 (令以不品秩亦復文宗舊制)	
掌醫藥療治之事		㉑典 醫 寺 正 副 正	⑱大 醫 監 監 少 監	⑪典 醫 寺 正 副 正 檢 藥	⑤大 醫 監 監 少 監 革	(尋復改)典 醫 寺 罷 判 事 注 簿
掌譯語				(後置)司 譯 院		
掌守衛宗廟 *屬典儀寺		㉑寢 園 署	⑱大 廟 署	⑪寢 園 署 (員吏如舊)	⑤大 廟 署 令 (正五) 丞 (從七) 注 簿 (從八)	令 (從七) 丞 (從八)
掌守護山陵				⑪ 令 (從五) 丞 (從七)	⑤ 罷 丞 (從七)	㉞典 儀 寺 所轄
掌供酒醴 *罷宣送酒色併於本監		㉑司 醞 監	⑲良 醞 署	⑪司 醞 監	⑤良 醞 署 (正五) (正六)	(尋後) 罷 (正六) (正九)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題官職名
直長 3(正七) 副直長 3(正八)	參外 1 別監 1	丞 2(正九) 史6 記官2			吏屬
㉞司膳署* 提點1(兼官)(正五) 命 3 (其一兼官) (正五) 丞 3 (正六) 直長 3(正七) 副直長 3(正八)		尙食局 奉御 1(正六) 直長 2(正七) 食醫 2(正九) 書令史4 記官2 算士 1 雜路8	(穆)尙食局 奉御 直長 食醫		司膳署 吏屬
(後改)奉醫署 令 (正六) 直長 (正七) 醫佐 (正九)	②掌醫署	尙藥局 奉御 1(正六) 侍醫 2(從六) 直長 2(正七) 醫佐 2(正九) 醫鍼史2 藥童2 書令史2 算士2	(穆)尙藥局 奉御 侍御醫 直長 醫佐		奉醫署 吏屬
		尙衣局 奉御 1(正六) 直長 1(正七) 書令史4 記官2 法衣1	(穆)尙衣局 奉御 直長		掌服署 吏屬
㉞司設署 提點1(兼官)(正五) 令 2(正五) 丞 2(正六) 直長 2(正七) 副直長 2(正八)		尙舍局 奉御 1(正六) 直長 1(正七) 書令史4 記官2 幕士40	(穆)尙舍局 奉御 直長		司設署 吏屬
		尙乘局 奉御 1(正六) 直長 2(正七) 書令史4 承旨50	(穆)尙乘局 奉御 直長		奉車署 吏屬
		中尙署 令 1(正六) 丞 2(正八) 史6 記官2 算士1	(穆)中尙署 令		供造署 吏屬
㉔ 令 (權參)		京市署 令 2(正七) 丞 4(正八) 史4 記官2	(穆)京市署		京市署 吏屬
		大官署 令 2(從七) 丞 4(從八)	(穆)大官署 令		膳官署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正七) (正八)
掌供膳羞 *倂御廚別廚迎送		㉑司 膳 署 令	⑱尙 食 局 奉 御	⑪司 膳 署 令	⑤尙 食 局 奉 御 直 長 食 醫	(尋後) 罷 (正六) 罷 罷 食 醫 (正九)
掌和御藥	(恭讓 3) 倂於 典 醫 寺	㉑奉 醫 署 令	⑱尙 醫 局 奉 御	⑪奉 醫 署 令	⑤尙 醫 局 奉 御 直 長 醫 佐	
掌供御衣	(恭讓 3) 供掌 工 曹	㉑掌 服 署 令	⑱尙 衣 局 奉 御	⑪掌 服 署 令	⑤尙 衣 局 奉 御	(忠宣 2)掌 服 署 令 直 長
掌供鋪設		㉑司 設 署 令	⑱尙 舍 署 奉 御 丞	⑪司 設 置 令 罷	⑤尙 舍 署 奉 御 丞 直 長	(後改) 罷 (正六) (正九) 罷
掌內廐	(恭讓 2) 倂於 重 房	㉑奉 車 署 令	⑱尙 乘 局 奉 御	⑪奉 車 署 令	⑤尙 乘 局 奉 御	(忠宣 2)奉·車 署 令
掌御用器玩		㉑供 造 署	⑱中 尙 署 令 丞	⑪供 造 署 令	⑤中 尙 署 奉 御	(忠宣 2)供 造 署
掌勾檢市廛					⑤ 丞 (從八)	㉞ 丞 3
掌祀宴饌膳 *屬司膳署		㉒膳 官 署	⑱大 官 署	⑪膳 官 署	⑤大 官 署	㉞膳 官 署 令 2(從七) 丞 4(從八)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中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前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後	第一期(初期) 前	百官志表 題官職名
		史 6 記官 2 算士 1			吏 屬
㉞營 造 局 使 (從五) 副 使(從六) 直 長(從七)		掌 治 署 令 2(從七) 丞 2(正八) 吏 4 記官 2 算士 2			掌 治 署 吏 屬
㉞雜 作 局 使 (從五) 副 使(從六) 直 長(從七)		都 校 署 令 2(從七) 丞 4(正九) 監作4 書令吏4 記官2			都 校 署 吏 屬
㉞典 樂 署 令 2(正七) 長 2(從七) 丞 2(從八) 史 2(從八) 直 長 2(從九) 紫 雲 坊(尋罷) 提 點 1(正五) 使 1(正五) 副 使 2(正六) 判 官 2(正七)		大 樂 署 令 1(從七) 丞 2(從八) 史 6 記官 2	(穆)大 樂 署 令		典 樂 署 吏 屬
		內 園 署 令 2(從七) 丞 2(從八) 史 4 記官 2 算士 1			內 園 署 吏 屬
		供 驛 署 令 2(從七) 丞 2(從八) 史 4 記官 2 算士40			供 驛 署 吏 屬
		典 廐 署 令 1(從七) 丞 2(從八) 史 4 記官 2 算士 1	(穆)典 廐 署 令		典 廐 署 吏 屬
		掌 牲 署* 令 1(從八) 丞 2(正九) 史 3 記官 2			掌 牲 署 吏 屬
㊴織 染 局* 使 2 (其一 兼官) (從五) 副 使 1(從六) 直 長 1(從七)		都 染 署 令 1(正八) 丞 2(正九) 史 4 記官 2			都 染 署 吏 屬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掌鎔冶之事	(恭讓 3) 併於 工曹					㉞(忠宣2)掌冶署 令 (從七) 丞 (從八)
掌工作之事	(恭讓 3) 併於 繕工寺				⑤ 令 (從八)	(忠宣 2)都校署 令 (正八) 丞 (正九)
掌教閱聲律 *屬業雲坊 ** 習宗廟樂歌	(恭讓 3) 雅樂署(別置) **	㉑典樂署	⑱大樂署	⑪典樂署 (員秩竝仍旧)	⑤大樂署 令 (從七) 長 (從七) 丞 (從八) 史 (從八) 直長 (從九) 罷	(後改) 令 (從七) 罷 (從七) 副直長(從九)
掌諸園苑						㉞司譼署所轄 丞 4
掌諸道程驛						
掌飼雜畜						㉞司儀寺所轄
掌薦犧牲 *沿革未可攷						
掌色併 *併雜織署屬繕工司					(忠宣 2)都染署 令 (正八) 丞 (正九)	(後)令內謁者監內侍伯內程者長源亭直各二人任其事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題官職名
中	前		後	前	
㉝雜 染 局*		雜 織 署 令 2(正八) 丞 2(正九) 史 4 記官 2			雜 織 署 吏 屬
㉞ 令 2(從八) 丞 2(從九)		司 儀 署 令 1(正八) 丞 2(正九) 史 4 記官 2			司 儀 署 吏 屬
		守 宮 署* 令 2(正八) 丞 3(正九) 史 6 記官 3 算士50			守 宮 署 吏 屬
(忠宣) 罷		典 獄 署 令 1(正八) 丞 2(正九) 史 6 記官 3	(成14)大 理 寺 評 事	(國初)典 獄 署	典 獄 署 吏 屬
		大 倉 署* 令 2(從七) 丞 4(從八) 史 5 記官 4 算士 2	(穆1)大 倉 署 令		大 倉 署 吏 屬
		大 盈 署* 令 1(丞七) 丞 2 史 3 記官 2 算士 1			大 盈 署 吏 屬
		右 倉*			豊 儲 倉
		左 倉*			廣 興 倉
			備 用 司*		科 物 庫
					義 盈 庫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掌織紝 *都染署註 參照					(後)雜 織 署 令 2(正八) 丞 2(正九)	
掌贊禮						
掌供帳幕 *沿革未可攷						
掌獄囚				⑪典 獄 署 令 (從八) 丞 (從九)		
*沿革未可攷						
*沿革未可攷						
掌供上米廩 *文宗時 京城有左 右倉以近 侍爲別監					(恭愍) 使 (從五) 副 使(從六) 丞 (從七) 注 簿(從八)	㉞豊 儲 倉 使 1(正五) 副 使 1(正六) 丞 1(正七)
掌百官祿俸					(恭愍) 使 (從五) 副 使(從六) 丞 (從七) 注 簿(從八)	㉞廣 興 倉 使 1(正五) 副 使 1(正六) 丞 1(正七)
掌御廩米穀 *始置年代 未詳						(忠宣 2)料 物 庫 使 (從五) 副 使(從六) 主 簿(從八)
					(恭愍) 注 簿(從八)	㉞義 盈 庫 使 1(從五) 副 使 1(從六) 直 長 1(從七)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 一 期(初期)		百官志表 題官職名
中	前		後	前	
			大府上庫*		長興庫
			大府下庫*		常滿庫
		內庫 使 1(從六) 副使 2(正八) 史 4 承旨20			內庫 吏屬
(忠肅12)內房庫 (罷員吏)	(忠宣)義成倉 使 (從五) 副使(從六) 丞 (從七)				內房庫
(忠肅12)德泉倉 (罷員吏)	(忠宣)德泉庫 使 (從五) 副使(從六) 丞 (從七)				德泉庫
					義鹽倉
					常積倉
(忠惠後 4)寶興 (併 有備倉)	(忠肅後 8) 寶興庫* 有備倉** 使 (從五) 副使(從六) 丞 (從七) 注簿(從八)				寶興庫
					典廏庫
					架閣庫

備考	第五期(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始置年代 未詳					(恭愍) 使 (從六) 革 革 主 簿(從八)	㉞長 興 庫 使 1(從五) 副 使 1(從六) 直 長 1(從七)
					(恭愍) 使 (從六) 革 革 主 簿(從八)	常 滿 庫 使 1(從五) 副 使 1(從七) 直 長 1(從七)
*始置年代 未詳						㉞ 使 (權參)
*併雲義倉 於富興倉 尋改爲義 成倉					④內 房 庫 提 學 別 監	(忠肅17)義 成 倉 (置員吏)
*委料正監之 **罷祿官 及料正					④ ** 提 學 別 監	(忠肅17)(復置員吏)*
					(恭愍)義 鹽 倉 丞 (從七) 注 簿(從八)	
*沿革未可攷						㉞常 積 倉(始置)* 使 1(正五) 副 使 1(正六) 丞 1(正七)
*忠惠王私 置之 ** 始置年 代未詳						(忠穆) 罷 (以其所聚土田 奴婢還本處)
			⑱ 令	⑪ 革	⑤典 廐 庫 令 (從七) 丞 (從八)	
掌藏圖籍					⑤架 閣 庫 丞 (從七) 注 簿(從八)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 一 期(初期)		百官志表
中	前		後	前	題官職名
					惠濟庫
					義濟庫
⑬濟用司 知事 2(正五) 使(其二兼官) 4(正五) 副使(其一兼官) 2(正六) 丞 2(正七)					資贍司
					寶源解典
(忠宣)大消觀 判官 (從九)					大消觀
(忠烈13)五部 副令 (從六)	(高 4)五部** 判官 2 錄事 2	五部 使 1(四品以上) 副使1(五品以上) 錄事 各 2(八)		(太)五部*	五部
	(忠宣 5)提擧 提擧 1(正七) 副提擧 2(正七) 提控 2(正七) 司鑰 8(正八) 司涓 8(正九)	延慶宮 使 1 副使 1 錄事 2(丙科權務) 記事 2 記官 2 史20			延慶宮提擧司 吏屬
(忠烈 4) 中闈色** 許掌(傳令者) 金直(門鑰者)	(睿11)	掖庭局 內謁者監 1(正六) 內侍伯 1(正七) 內謁者 1(從八) 監作 1 書令史 3 (吏)	(成14)掖庭局	(國初)掖庭院	掖庭局

備 考	第五期 (後 期)	第 四 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⑪惠 濟 庫 令 (從七) 丞 (從八) 錄 事(從九)		
	(恭讓3) 併于 惠 濟 庫			⑩義 濟 庫 令 (從七) 丞 (從八) 錄 事(從九)		
*尋罷之	(恭讓4)資贍 貸庫(尋罷之)					(忠宣 2)資 贍 司* 革 使 (從四) 副 使 (正五) 革 注 簿 (正八)
*始置年代 未詳	(恭讓 3) (併 供辨署 濟用庫)	(恭讓)濟 用 庫	⑬寶 源 解 典 使 (從五) 副 使(從六) 丞 (從七) 注 簿(從八) 錄 事(從九) 権 備 色*			
*主藏纛 凡出征必 禡于本纛	(辛禑 3) 汰之				(恭愍) 纛赤 (將討紅賊制大 纛設官爲纛赤)	
*東南西北 中五部 **任搜檢 亡卒		⑱ 令	⑪ 副 令	(恭愍 5) 五 部 令 (從六) 錄 事(權務)	(忠惠 1) 五 部 副 令	㉞併於 開 城 府
*本限七品 職事員凡 三十六人 **以內寮 不可皆令 啓事擇人 爲申聞色			(復改)掖 庭 局 內 謁 者 監(正六) 內 侍 伯(正七) 內 謁 者(從八)	(忠宣 2)巷 庭	(忠宣 1)掖 庭 局	(忠烈34)內 謁 司 伯 2(正三) 令 2(從三) 正 2(正四) 副 正 2(從四) 僕 2(正五) 謁 者 2(從五)

元支配時期-主로 忠烈王時代		第二期(主로 文宗代)	第一期(初期)		百官志表題官職名
中	前		後	前	
		記官 3 ⎫ 屬 給使 3 ⎭			
		南班職 •			
		內殿崇班 4(正七)			
		東西頭供奉官 各 4(從七)			
		左·右侍禁 各4(正八)			
		左·右班殿直 各4(從八)			
	三班奉職	殿前承旨 8(正九)			
	三班借職	殿前副承旨 (南班初入仕路)			
	三班差使	尙乘內承旨 (南班初入仕路)			
	三班借差	副內承旨 (南班初入仕路)			
					內侍府

註 (1) 《高麗史》百官志 表題順으로 排列함.

(2) 時期의 區分은 官職이 顯著히 變動된 때를 任意 選擇하였음. 卽 第1期 前部에는 主로 國初官制를, 後部에는 成宗穆宗代의 것을 記錄하였으며, 第3期 前部에는 主로 忠烈王元年, 中部에는 同王24年(忠宣王이 禪讓받고 官制改革을 始作한 해), 後部에는 同王34年(亦是 忠宣王의 施策임)의 것을 記載했고, 第4期 初部에는 主로 恭愍王 5年, 前部에는 同王11年, 中部에는 同王18年, 後期에는 同王21年의 것을 記載하고, 第5期에는 主로 恭讓王代의 官制를 記載하였음. 그러나 排列·變遷의 性質上 이 原則에 어긋난 곳도 있음을 諒解하여 주기 바람.

備考	第五期 (後期)	第四期(排蒙時期-主로 恭愍王代)				第三期
		後	中	前	初	後
			內殿崇班(從七) 東頭供奉官(從七) 西頭供奉官(從七) 左侍禁(從八) 右侍禁(從八) 左班殿直(從八) 右班殿直(從八) 內班從使(從九)			丞 2(正六) 直長 2(從六) 內殿崇班 4(正七) 東頭供奉官 4(從七) 西頭供奉官 4(從七) 左侍禁 4(正八) 右侍禁 4(正八) 左班殿直 4(從八) 右班殿直 4(從八) 內班從事 4(從九)
*改宦官職而設 ** 秩比開城府 ***階三品	(恭讓)復置***	(辛禑)罷		(後置)內侍府* 判事 1(正二) 檢校 3(從二) 同判事 1(從二) 檢校 32(正三) 知事 1(正三) 檢校 38(從三) 僉事 1(從三) 檢校 28(正四) 同知事 2(正四) 同僉事 2(從四) 左承直 2(正五) 右承直 2(從五) 左副承直 1(正六) 右副承直 1(從六) 司謁 1(正七) 謁者 1(從七) 宮闈丞 1(正八) 奚官令 1(從八) 給事 1(正九) 通事 1(從九)	(5)內詹事* 內常侍 內侍監 內承直 內給事 宮闈丞 奚官令	

(3) 官署名·官職名은 字體를 달리하여 區分하였음.

※《高麗史》百官志에 의함.

(4) 官署名·官職名 앞의 ( )와 ○는 置廢沿革의 年代를 나타낸 것임. 卽 (太)는 太祖를, (成 1)은 成宗 元年을 나타내고, ㉔도 해당왕 24년을 나타냄

(5) 職名 다음에 記載된 아라비아 數字는 人員을 表示하는 것이며, 그 다음의 ( )는 品秩을 나타내는 것임. 例컨대 (從四)는 從四品을 나타냄.

(6) *·**標는 備考欄에 注解를 단 標識임.

5、高麗時代(文宗代) 東班官職表(中央) (高麗史 百官志에 依據)

官署名	三師	三公	中書門下省	尙書都省	三司	中樞院	尙書吏部	尙書考部	尙書兵部	尙書戶部	尙書刑部	尙書都官	尙書禮部	尙書工部
正一品	太師一 太傅一 太保一	太衛一 司徒一 司空一												
從一品			中書令一 門下侍中一	尙書令一	判三司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判事(宰臣兼官)
正二品			中書侍郎平章事一 門下侍郎平章事一 中書平章事一 門下平章事一	左僕射一 右僕射一	一									
從二品			參知政事一 政堂文學一 知門下省事一	知省事一		判院使一 院使二 知院使一 同知院使一								
正三品			左常侍一 右常侍一		三司使二	副使二 簽書院使一 直學士一 知奏事一 左承宣一 右承宣一 左副承宣一 右副承宣一	尙書		尙書	尙書	尙書		尙書	尙書
從三品			直門下	左丞一 右丞一			知部事(他官兼之)		知部事(他官兼之)	知部事(他官兼之)	知部事(他官兼之)		知部事(他官兼之)	知部事(他官兼之)
正四品			左諫議大夫一 右諫議大夫一				侍郎一		侍郎二	侍郎二	侍郎二		侍郎一	侍郎一
從四品			給事中一 中書舍人一		知司事一 副事二									
正五品				左司郎中一 右司郎中一	判官四 兼		郎中一	郎中二	郎中二	郎中二	郎中二	郎中二	郎中二	郎中二
從五品			起居注一 起居郎一 起居舍人一											
正六品			左補闕一 右補闕一	左司員外郎一 右司員外郎一			員外郎一	員外郎二	員外郎二	員外郎二	員外郎二	員外郎二	員外郎二	員外郎二
從六品			左拾遺一 右拾遺一											
正七品						堂後官二								
從七品			門下錄事一 中書注書一	都事二										
正八品														
從八品											律學博士一			
正九品														
從九品											律學助教二			

御史臺				判事一 大夫一			知事一 中丞一		雜端一 侍御史二	殿中侍御史二	監察侍御史一〇※						
開城府																	
翰林院	判院事一（宰臣兼官）			學士承旨一		學士二		侍讀學士二 侍讀學士一								直院四※	醫官二
史館	監修國史一（侍中兼之）	修國史一 同修國史一（二品以上兼之）			修撰官一（翰林三品以下兼之）									直史館四	陞直史館爲八品		
諸館殿			太學士一※			學士※											
國子監			提學二 同提學二	管勾二（兼官） 判事二（兼官）	祭酒一		司業一				丞一	國子博士二	大學博士二 主簿二	四門博士二		學正二 學錄二	學諭二 直學二 書學博士二 算學博士二
秘書省				判事一	監一		少監一		丞二		郎一					校書郎二	正字二 校勘二
御書院				判事一													
閤門				判事一	知事一（兼官）			使一 引進使二	引進副使一	閤門副使一		通事舍人一 祗候四	權知祗候六				
大常府				使一（三品兼之）				副使一（五品兼之）								錄事四※	
殿中省				判事	監		少監一		丞二		內給事一						
衛尉寺				判事	卿		少監一				丞二		主簿二				
大僕寺				判事	卿		少監一				丞一		主簿二				
禮賓省				判事	卿		少監一				丞二		主簿二				
大府寺				判事	卿		少監一				丞二		主簿四				
小府寺					判事	監一	少監一				丞二		主簿二				
將作監					判事	監一	少監一				丞二		主簿二				
司宰寺				判事	卿		少監一				丞二		主簿二				
軍器監					判事	監一	少監一				丞二	丞二		主簿四			
司天臺				判事	監		少監一		春官正一 夏官正一 秋官正一 冬官正一		丞二		主簿二				卜正一 卜博士一
太史局				判事	知局事一				令一				丞一	靈臺郎二	保障正一 挈壺正二	司辰二	司曆二 監候二
太醫監					判事	監一			少監二						博士二 丞二		醫政一 助教二 呪禁博士一
大廟署									令一			丞二					
諸陵署									令一				丞二				

良醞署	尚食局	尚藥局	尚衣局	尚舍局	尚乘局	中尚署	京市署	大官署	掌冶署	都校署	大樂署	內園署	供驛署	典廐署	典牲署	都染署	雜織署	司儀署	守宮署	典獄署	大倉署	大盈署	右倉	左倉	備用司	大府上庫	大府下庫	內庫	義盈庫	富興倉	五部	延慶宮	掖庭局	南班職	宦官職
																																使一△			
																															使一（四品以上）				
																																副使一△			
																							使一	使一	使一				使一		副使一（五品以上）				
	奉御一	奉御一	奉御一	奉御一	奉御一	令一																											內謁者監一		
		侍醫二																					副使一	副使一	副使一			使一	副使一						
	直長二	直長一	直長二	直長二	直長二		令一																										內侍伯一	內殿崇班四	
								令二	令二		令一	令二	令二	令一							令二	令一	丞一	丞一					使直一		丞一			東西頭供奉官（各四）	
令二						丞二	丞二		丞二							令一	令二	令一	令二	令一								副使二			錄事二	錄事二△		左右侍禁（各四）	
								丞四		令二	丞二	丞二	丞二	丞二	令二						丞四	丞二△	注簿一	注簿一	注簿一				注簿一				內謁者一	左右殿直（各四）	
丞二	食醫二	醫佐二								丞四					丞二	丞二	丞二	丞二	丞二	丞二														殿前承旨八	
																																			殿前副承旨・尚乘內承旨・副內承旨=初仕入路

6、高麗時代 西班官職表 （高麗史 百官誌에 依據）

府衛名	正二品	從二品	正三品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鷹揚軍一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一		中郎將二		郎將二		別將二		散員三		尉二〇	隊正四〇
龍虎軍二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二		中郎將四		郎將一〇		別將一〇		散員一〇		尉四〇	隊正八〇
左右衛 保勝一〇領 精勇二二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一三		中郎將二六		郎將六五	長史一	別將六五		散員六五 錄事二		尉二六〇	隊正五二〇
神虎衛 保勝五領 精勇一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六		中郎將一四		郎將三五	長史一	別將三五		散員三五 錄事二		尉一四〇	隊正二八〇
興威衛 保勝五領 精勇七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一二		中郎將二四		郎將六〇	長史一	別將六〇		散員六〇 錄事二		尉二四〇	隊正四八〇
金吾衛 精勇六領 役領一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七		中郎將一四		郎將三五	長史一	別將三五		散員三五 錄事二		尉一四〇	隊正二八〇
千牛衛 常領一領 海領一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二		中郎將四		郎將一〇	長史一	別將一〇		散員一〇 錄事二		尉四〇	隊正八〇
監門衛一領			上將軍一	大將軍一	將軍一		中郎將二		郎將五	長史一	別將五		散員五 錄事二		尉二〇	隊正四〇
都府外							中郎將一		郎將三		別將二		散員三		尉闕	隊正數闕
儀仗府									郎將一		別將一		散員二		尉五	隊正一〇
堅銳府											別將一				尉二	隊正四〇
忠勇四衛					將軍四		中郎將一二		郎將一二		別將二〇		散員二〇		尉長八〇	隊正一六〇

7、朝鮮時代 東班(文官) 官職表

(京官職「文・武」經國大典에 依據) ※西班職・(雜)雜職(兼)兼職 ( )數字는 定員 ×無定員

官衙名	正一	從一	正二	從二	正三(堂上)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	正七參下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宗親府	大君× 君(×)	君(×)	君(×)	君(×)	都正(×)	正(×)	副正(×)	守(×) 典籤(一)	副守(×)	令(×) 典簿(一)	副令(×)	監(×)							
忠勳府	君(×)	君(×)	君(×)	君(×)					經歷(一)		都事(一)								
儀賓府	尉(×)	尉(×)	尉(×)	尉(×)	副尉(×)	僉尉×	僉尉(×)		經歷(一)		都事(一)								
敦寧府	領事一	判事一	知事一	同知事一	都正(一)	正一	副正(×)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二		奉事(一)		參奉二
奉朝賀						正一品功臣	從一品功臣	正二品功臣	從二品功臣 正一品功臣嫡長 正一品凡人	正三品功臣	從一功臣嫡長	正二功臣嫡長	從二功臣嫡長	正三功臣嫡長 從一品凡人	正二品凡人		從二品凡人	正三品凡人	
議政府	領議政(一) 左議政(一) 右議政(一)	左贊成(一) 右贊成(一)	左參贊(一) 右參贊(一)					舍人(二)		檢詳(一)						司錄(二)			
義禁府		判事	知事	同知事					經歷		都事								
司憲府				大司憲一			執義(一)	掌令(二)		持平(二)		監察(二四)							
承政院					都承旨一 左右承旨 左・右副承旨 二 同副承旨									注書(二)					
司諫院					大司諫一		司諫(一)			獻納(一)		正言一							
經筵	(領事)(三)		(知事)(三)	(同知事)(三)	(參贊官)(七)			講官(×)		侍讀官(×)		檢討官(×)		司經(×)		說經(×)		典經(×)	
漢城府			判尹(一)	左尹(一) 右尹(一)					庶尹(一)		判官(二)			參軍(三)(中一兼)					
開城府				(留守二 中一兼)					經歷(一)		都事(一)		教授一						
※中樞府	領事一	判事一	知事六	同知事七	僉知事八				經歷(一)		都事(一)								
※都摠府 五衛			都摠管	副摠管					經歷(四)		都事(四)								
※兼司僕				將(三)															
※內禁衛				將(三)															
吏曹			判書一	參判(一)	參議(一)					正郎(三)		佐郎(三)							
忠翊府											都事(二)								
尙瑞院						正(一)					判官(一)				直長一	副直長二			
宗簿寺	都提調(一)		提調(二)			正(一)													

官衙名	正一	從一	正二	從二	正三堂上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參上	正七參下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司饔院	都提調(一)		提調(四)		副提調五	正(一) 提擧	提典	提檢	(僉正)一 提僉入品四		判官(一)		主簿(一) 宰夫雜(一)		直長(二) 饍夫雜一		奉事(三) 調夫雜二	飪夫雜二	參奉(二) 烹夫雜七
內需司										典需一 別坐	別坐	別提	副典需(一) 別提二合		典會(一)		典穀(一)		典貨(一)
內侍府				尙膳一	尙醞(一)	尙茶(一)	尙藥(一)	尙傳一	尙冊(三)	尙孤四	尙帑四	尙洗四	尙燭(四)	尙烜四	尙設六	尙除六	尙門五	尙更六	尙苑
掖庭署												司謁雜一 司鑰雜一	副司鑰雜(一)	司案雜(二)	副司案雜(三)	司鋪雜(二)	副司鋪雜(三)	司掃雜(六)	副司掃(雜)(九)
戶曹			判書(一)	參判一	參議(一)					正郎(三)		佐郎(三)	算學教授一 別提(二)		算士(一)		計士(二)	算學訓導(一)	會士(二)
內資寺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內贍寺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司䆃寺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主簿(一)		直長(一)				
司贍寺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主簿(一)		直長(一)		工造雜四		工作雜一
軍資監	都提調一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副奉事一	參奉(一)
濟用監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副奉事一	參奉(一)
司宰監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主簿(一)		直長(一)				參奉(一)
豐儲倉								守(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副奉事一	
廣興倉								守(一)					主簿(一)				奉事(一)	副奉事一	
典艦司		(提調)(一)							提檢	別坐	別坐	別提	別提合五						
平市署		(提調)(一)									令(一)						奉事(一)		
司醞署											令(一)						奉事(一)		
義盈庫											令(一)						奉事(一)		
長興庫											令(一)						奉事(一)		
司圃署		(提調)(一)										司圃別提	別提			別檢	別檢七		
養賢庫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五部													主簿各(一)						
禮曹			判書一	參判一	參議(一)					正郎(三)		佐郎(三)							
弘文館	(領事)(一)		大提學(一)	(提學)(一)	(副提學)(一)	直提學(一)	典翰(一)	應教一	(副應教)(一)	校理二	(副校理)(一)	修撰(二)	(副修撰)(二)	博士(一)		著作一		正字(二)	
藝文館	(領事)(一)		大提學(一)	(提學)(一)		(直提學)(一)		應教一						奉教(二)		待教二		檢閱四	
成均館			知事一	同知事二	大司成一		司成(二)	司藝三		直講四		典籍(三)		博士(三)		學正三		學錄(三)	學諭(三)
春秋館	領事(一) 監事(一)		(知事)(二)	同知事(二)	(修撰官)(×)	(編修官)(一)	(編修官)(×)	編修官(×)	編修官(×)	記注官(×)	(記注官)(×)	(記事官)(×)	(記事官)(×)	(記事官)(×)	(記事官)(×)	(記事官)(×)	(記事官)(×)	(記事官)(×)	
承文院	都提調(三)	(提調)(×)			副提調(×)	判校(一)	參校(一)		校勘(一)		校理(一)	校檢(二)		博士(二)		著作一		正字(二)	副正字(二)
通禮院						左通禮一 右通禮一	相禮(一)	參禮一		贊儀一			引儀(八)						
奉常寺	都提調	(提調)(一)				正(一)	副正(一)		僉正(二)		判官(二)		主簿(二)		直長(一)		奉事(一)	副奉事	
校書館		(提調)(一)				判校(一)					校理(一) 別坐	別提	別提合四	博士(二)		著作一	工造雜四	正字(二)	副正字 工作雜一

官衙名	正一	從一	正二	從二	正三上堂	正三堂下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正六	從六參上	正七參下	從七	正八	從八	正九	從九
內醫院	都提調(一)	(提	調)	(一)	副提調(一)	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直長(三)		奉事(二)	(副奉事)(一)	參奉(一)
禮賓寺		(提	調)	(一)		正(一)	副正(一)	提檢	僉正(一) 提檢	別坐	判官(一) 別坐	別提	主簿(一) 別提合六		直長(一)		奉事(二)		參奉(一)
掌樂院		(提	調)	(二)		正(一)			僉正(一)			典樂(雜)(一)	主簿(一) 副典樂(雜)(二)	典律(二)	直長(一) 副典律(雜)(二)	典音(雜)(二)	副典音(雜)(四)	典聲(雜)(一〇)	副典聲雜(二三)
觀象監	領事(一)	(提	調)	(一)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天文學教授(一) 地理學教授(一)				奉事(二)	副奉事三 天文·地理·命課學訓導四	
典醫監		(提	調)	(二)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醫學教授		直長(一)		奉事(二)	副奉事四 醫學訓導	參奉(五)
司譯院	都提調(一)	(提	調)	(二)		正(一)	副正(一)		僉正(一)		判官(一)		主簿(一) 漢學教授(四) (中二參)		直長(一)		奉事(二)	副奉事二 漢蒙倭女眞學訓導(一〇)	參奉
世子侍講院	師(一) 傅(一)	貳師(一)	左賓客(一) 右賓客(一)	左右副賓客各一			輔德(一)	弼善(一)		文學(一)		司書(一)		說書(一)					
宗學								導善(一)		典訓(一)		司誨(一)							
昭格署		(提	調)	(一)							令(一)	別提	別提合二				尙道雜一		志導雜一
宗廟署	都提調	(提	調)	(一)							令(一)				直長(一)		奉事(一)	副奉事一	
社稷署	都提調	(提	調)	(一)							令(一)								參奉(二)
氷庫		(提	調)	(一)							別坐	別提	別提			別檢	別檢合四		
典牲署		(提	調)	(一)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參奉(一)
司畜署		(提	調)	(一)									別提(一) 司畜(一)						
惠民署		(提	調)	(一)									醫學教授 主簿(一)		直長(一)		奉事(一)	醫學訓導	參奉(一)
圖畫署		(提	調)	(一)									善畫雜一 別提		善繪雜一		畫史雜一		繪史雜二
活人署		(提	調)	(一)									別提(四)						參奉(二)
歸厚署		(提	調)	(一)									別提(六)						
四學													教授各二					訓導各二	參奉各二
各殿		(提	調)								令								參奉(二)
各陵園	都提調										令								
兵曹			判書(一)	參判(一)	參議一 參知一					正郎(四)		佐郎(四)							
※五衛				將(一二)		上護軍(九)	大護軍(一四)	護軍(一二)	副護軍(五四)	司直(一四)	副司直(一二三)	司果(一五)	部將(二五) 副司果(一七六)	司正(五)	副司正(三〇九)	司猛(一六)	副司猛(四八二)	司勇(四二)	副司勇 一九三九

官銜名	訓練院	司僕寺	軍器寺	典設司	世子翊衛司	刑曹	掌隷院	典獄署	工曹	尙衣院	繕工監	修城禁火司	典涓司	掌苑署	造紙署	瓦署	地方
正一			都提調									都提調					
從一										提調(三)	提調(二)	提調(三)	提調(二)	提調(一)	提調(二)	提調(二)	
正二	知事(一)					判書(一)			判書(一)								領牧使
從二						參判(一)			參判(一)								兵使 判牧使 府尹 觀察使(大都護府使)
正三堂上	都正(二)(中一兼)					參議	判決事一	副提調一	參議(一)	副提調(一)							牧使 水使 兵馬節度使 兵馬水軍節度使
正三堂下	正(一)	正(一)	正(一)							正(一)	正(一)						
從三	副正(二)	副正(二)	副正(二)								副正(二)						都護府使 兵馬虞候 僉節制使
正四				守(一) 提檢								提檢(四)(中三兼)					水軍虞候
從四	僉正(二)	僉正(一)	僉正(一)	提檢						僉正(一)	僉正(一)		提檢				郡守 同僉節制使 萬戶
正五			別坐	別坐	左翊衛一 右翊衛一	正郞(四)	司儀(三)		正郞(三)	別坐		別坐	別坐				
從五	判官(二)	判官(一)	判官(二) 別坐	別坐	左司禦一 右司禦一					判官(一) 別坐	判官(一)	別坐合六(中四兼)	別坐				縣令
正六			別提	別提	左翊贊一 右翊贊一	佐郞(四)	司評(四)		佐郞(四)	別提		別提	別提	掌苑(一) 別提			評事
從六參上	主簿(二)	主簿(二) 安驥雜一	主簿(二) 別提合二	別提合五	左衛率一 右衛率一	律學敎授 別提(二)		主簿(一)		主簿(一) 別提合二	主簿(一)	別提合二(中一兼)	別提合五	別提合三 愼花(雜)(一)	司紙(一) 別提(四)	別提(三)	縣監 敎授 察訪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正七參下	參軍(二)				左副率一 右副率一												
從七		調驥雜一	直長(一)	工製雜五		明律(一)				直長(二)	工製雜四 直長(一)		直長(二)	愼果(雜)(一)			
正八					左侍直一 右侍直一									愼禽(雜)(一)			
從八	奉事(二)	理驥雜一	奉事(一)	工造雜二		審律(一)		奉事(一)	工造雜一		工造雜一 奉事(一) 工造雜四		奉事(二)	副愼禽(雜)(一)		工造雜四	
正九			副奉事一		左洗馬一 右洗馬一	律學訓導(一)					副奉事一			愼獸(雜)(一)			
從九		促驥雜一	參奉(一)	工作雜二		檢律(一)		參奉(一)		工作雜一	工作雜三 參奉(一) 工作雜四		參奉(六)	副愼獸(雜)(一)		工作雜二	驛丞 渡丞 訓導 權管

8、朝鮮時代 西班(武官) 官職表

官廳＼官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上	正三下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中樞府	領事	判事	知事	同知事	僉知事				經歷		都事								
宣惠廳	都提調		提調	提調															
五衛都摠府			都摠管	副摠管					經歷		都事								
五衛				將		上護軍	上護軍	護軍	副護軍	司直	副司直	司果	部將 副司果	司正	副司正	司猛	副司猛	司勇	副司勇
兼司僕				將															
內禁衛				將															
羽林衛					將														
訓練院			知事		都正	正	副正		僉正		判官		主簿	參軍			奉事		
宣傳官廳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宣傳官
世子翊衛司										左翊衛 右翊衛	左司禦 右司禦	左翊贊 右翊贊	左衛率 右衛率	左副率 右副率		左侍直 右侍直		左洗馬 右洗馬	
世孫衛從司													左長史 右長史		左從史 右從史		英祖때 設置		
守門將廳													守門將				正祖때 設置		
訓練都監	都提調		提調	中軍 大將	別將 千摠								從事官				宣祖壬辰前創設		哨官
禁衛營	都提調		提調	中軍 大將	別將 千摠 騎士將				把摠 外方兼 把摠				從事官	肅宗때 設置 英祖때 大將을 둠					哨官
御營廳	都提調		提調	大將 中軍	別將 千摠 騎士將				把摠 外方兼 把摠				從事官		仁祖때 御營使를 둠				哨官
摠戎廳				使 中軍	千摠 鎭營將				把摠						仁祖때 創設				
扈衛廳	大將				別將										仁祖때 創設				
龍虎營				別將	將										仁祖때 創設				
捕盜廳				大將									從事官		成宗때 設置				
總理營			使		中軍 別驍將				把摠		從事官				正祖때 水原에 設置				哨官 斥堠將
守禦廳				使 中軍	別將 千摠				把摠				從事官		仁때 南漢山城에 設置				哨官
管理營				使	中軍 別將 千摠 百摠				把摠 從事官						肅宗때 開城에 設置				哨官
鎭撫營				使	中軍 鎭營將 千摠				把摠						肅宗때 江華府에 設置				哨官

外官職(東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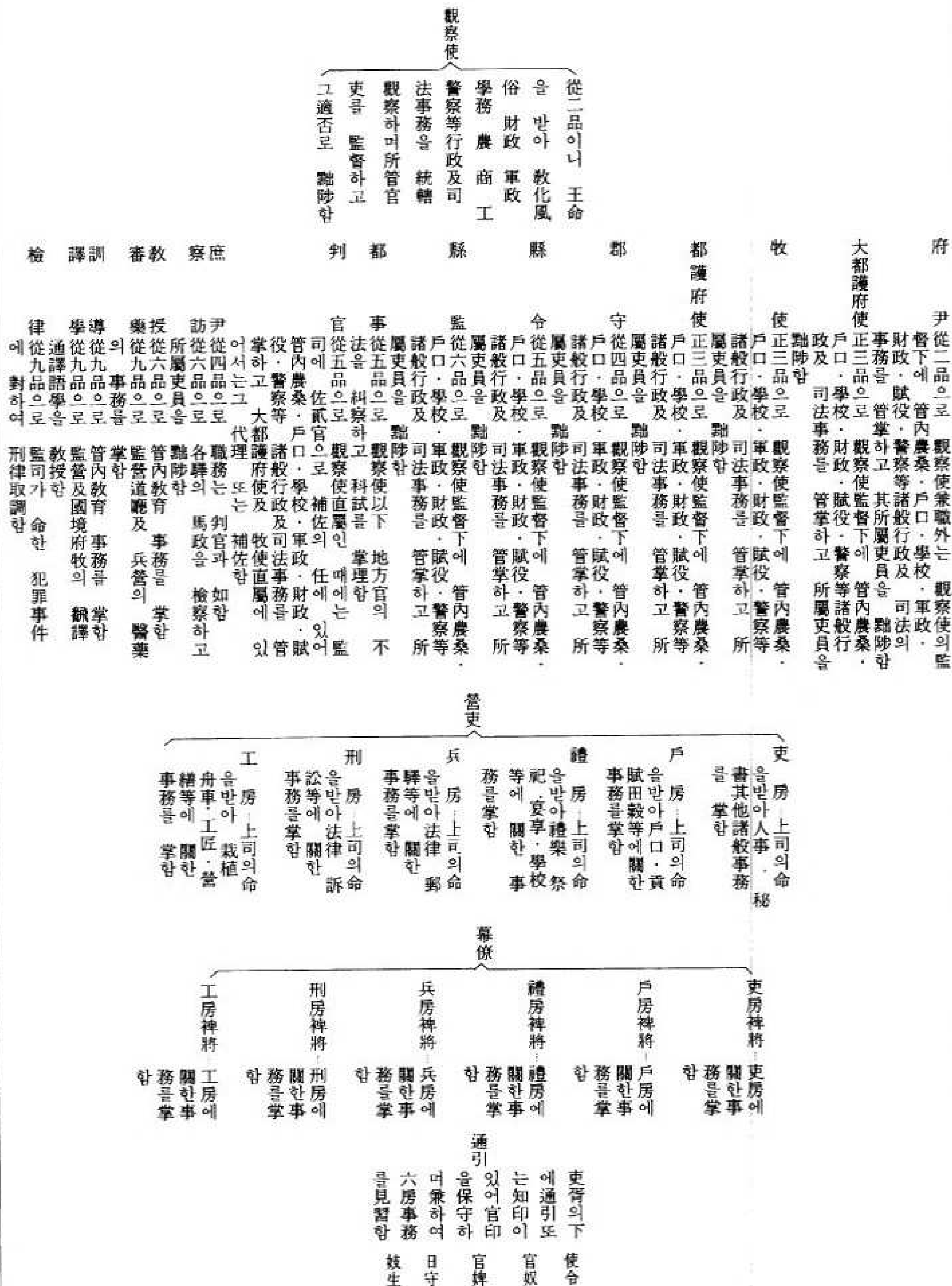
官廳＼官階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正三上	正三下	從三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從八品	正九品	從九品
京畿道				觀察使 府使		牧使	都護府使		郡守		都事 判官 縣令		察訪 縣監 敎授						訓導 審藥 檢律 驛丞 渡丞
忠淸道				觀察使		牧使	都護府使		郡守		都事 判官 縣令		察訪 縣監 敎授						訓導 審藥 檢律 縣丞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咸鏡道	平安道
觀察使 府尹	觀察使 府尹	觀察使	觀察使	觀察使 府尹	觀察使 府尹
大都護府使 牧使	牧使	牧使	大都護府使 牧使	大都護府使 牧使	大都護府使 牧使
都護府使	都護府使	都護府使	都護府使	都護府使	都護府使
郡守	郡守	郡守	郡守	郡守	郡守 庶尹
都事 判官 縣令	都事 判官 縣令	都事 判官 縣令	都事 判官 縣令	都事 判官 縣令	都事 判官 縣令
察訪 縣監 教授	察訪 縣監 教授	察訪 縣監 教授	察訪 縣監 教授	察訪 縣監 教授	察訪 縣監 教授
訓導 倭學訓導 審藥 檢律 驛丞	訓導 譯學訓導 審藥 檢律 驛丞	訓導 譯學訓導 審藥 檢律 驛丞	訓導 審藥 驛丞 檢律	訓導 譯學訓導 審藥 檢律	訓導 譯學訓導 審藥 檢律

外官職(西班)

官階／官職	京畿道	忠淸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咸鏡道	平安道	土官職(文)	土官職(武)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兵馬節度使 兵馬防禦使 水軍統御使 水軍防禦使	兵馬節度使	兵馬節度使 水軍統制使 水軍中軍	兵馬節度使 水軍防禦使	兵馬節度使	兵馬節度使 兵馬防禦使	兵馬節度使 兵馬防禦使	兵馬節度使 水軍防禦使 兵馬防禦使		
正三上	兵馬節制使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兵馬節制使 水軍節度使 水軍虞候 巡營中軍 鎭營將	兵馬節制使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水軍節制使 鎭營將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兵馬虞候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衛將	兵馬虞候 兵馬節度使 水軍節度使 巡營中軍 鎭營將		
正三下										
從三品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虞候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虞候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虞候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虞候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兵馬僉節制使 水軍僉節制使		
正四品			水軍虞候	水軍虞候	水軍虞候					
從四品	兵馬同僉節制使 兵馬萬戶 水軍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水軍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水軍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兵馬萬戶 水軍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兵馬萬戶 水軍萬戶	兵馬同僉節制使 兵馬萬戶		
正五品									都教	勵直
從五品									掌簿	副勵直
正六品							兵馬評事	兵馬評事	校簿	勵果
從六品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兵馬節制都尉 監牧官	勸簿·都轄	副勵果
正七品									典事	勵正
從七品									掌事	副勵正
正八品									管事	司猛
從八品									給事	副司猛
正九品									參事	司勇
從九品	別將	別將	權管 別將	別將	別將		權管 別將	權管 別將	攝事	副司勇

土官職은 咸鏡道 平安道에 特設한 官職 府 牧 都護府 六鎭 所屬下에 文·武로 나뉘어 있다. 別稱土班 總班


9. 外方官職制의 圖解
觀察使
從二品이니 王命을 받아 敎化風俗 財政 軍政 學務 農 商 工 警察等行政及司法事務을 統轄 觀察하며 所管官吏를 監督하고 그 適否로 黜陟함
府尹
從二品으로 觀察使兼職外는 觀察使의 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의 事務를 管掌하고 其所屬吏員을 黜陟함
大都護府使
正三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牧使
正三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都護府使
正三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郡守
從四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縣令
從五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縣監
從六品으로 觀察使監督下에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都事
從五品으로 觀察使以下地方官의 不法을 糾察하고 科試를 掌理함
判官
從五品으로 觀察使直屬인 監司에 佐貳官으로 補佐의 任에 있어 管內農桑·戶口·學校·軍政·財政·賦役·警察等諸般行政及司法事務를 管掌하고 大都護府使及牧使直屬에 있어서는 그 代理 또는 補佐함
庶尹
從四品으로 職務는 判官과 如함
察訪
從六品으로 各驛의 馬政을 檢察하고 所屬吏員을 黜陟함
敎授
從六品으로 管內敎育 事務를 掌한
審藥
從九品으로 監營道廳及 兵營의 醫藥의 事務를 掌함
訓導
從九品으로 管內敎育 事務를 掌함
譯學
從九品으로 監營及國境府牧의 飜譯 通譯語學을 敎授한
檢律
從九品으로 監司가 命한 犯罪事件에 對하여 刑律取調함
營吏
吏房…上司의 命을 받아 人事·秘書其他諸般事務를 掌함
戶房…上司의 命을 받아 戶口·貢賦田穀等에 關한 事務를 掌함
禮房…上司의 命을 받아 禮樂祭祀·宴享·學校等에 關한 事務를 掌함
兵房…上司의 命을 받아 法律 郵驛等에 關한 事務를 掌함
刑房…上司의 命을 받아 法律 訴訟等에 關한 事務를 掌함
工房…上司의 命을 받아 栽植·舟車·工匠·營繕等에 關한 事務를 掌함
幕僚
吏房裨將…吏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戶房裨將…戶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禮房裨將…禮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兵房裨將…兵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刑房裨將…刑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工房裨將…工房에 關한 事務를 掌함
通引
吏胥의 下에 通引 또는 知印이 있어 官印을 保守하며 兼하여 六房事務를 見習함
使令
官奴
官婢
日守
妓生

10、朝鮮 官衙所掌 및 別號表

官衙名	所掌	別號	備考
宗親府	宗室諸君之府		
忠勳府	諸功臣之府	盟府・雲臺 功臣都監	
儀賓府	尙公主・翁主者之府	駙馬府	
敎寧府	王親・外戚之府		
奉朝賀	實行通政(正三堂上) 以上 職者・作散人府祿之職		
議政府	總百官・平庶政・理・陰陽・經邦國	都堂 黃閣	經歷・都事 共一〇員
義禁府	掌 奉敎推鞫之事	巡軍・義勇・王府・金吾	
司憲府	掌 論執時政・糾察百官・正風俗・仲寃抑・禁 濫僞等事	栢府・霜臺・烏臺・御史臺・監察司	
承政院	掌 出納王命	銀臺 喉院	
司諫院	掌 諫諍・論駁	薇院(垣)	
經筵	掌 講讀論思之任	分司・廈氈	
漢城府	掌 京都口帳・市廛・家宅・土田・四山・道路・橋梁等事	京兆	
開城府	掌 治舊都	留後司	
★中樞府	無所掌・侍 文武堂上官之無所任者	西樞 鴻樞	
★五衛都摠府	掌 治五衛軍務		都・副摠管 共一〇員
★兼司僕			兼司僕・內禁衛는 國王을 陪衛함
★內禁衛			
吏曹	掌 文選・ 勳封・考課之政	天官・東銓・典理文部・選部	見同項下
忠翊府	原從功臣之府		
尙瑞院	掌 璽寶・符牌・節鉞	知印房・政房割子房符・符寶郞	
宗簿寺	掌 撰錄璿源譜牒・糾察宗室愆違之任	殿中省 宗正寺	
司饔院	掌 供御膳及 闕內供饋等事	尙食司・膳廚院・司膳	
內需司	掌 內用米布及 雜物 奴婢	料物庫	書題(二〇)
內侍府	掌 大內監膳・傳命・ 守門・掃除之任		
掖廷署	掌 侍謁・及供御筆硯・闕內鎖論・察庭鋪設之任		
戶曹	掌 戶口・貢賦・田糧・食・貨之政	地官・地部 倉部・民官・民部・度支・版圖	
內資寺	掌 內供米麵酒醬油蜜蔬果・內宴・織造等	大官 膳官	
內贍寺	掌 各宮・各殿供上酒及 倭・野人供饋・織造等事	德泉寺	
司䆃寺	掌 御廩米穀	備用寺・料物庫 供・正庫	
司贍寺	掌 造楮貨及外居奴婢貢布等事	司贍庫 供造署	(校書館) 參 照
軍資監	掌 軍需儲積	物藏省・寶泉監・小府監	
濟用監	掌 進獻物布 人蔘・賜與 依服及紗羅綾段布貨等事		
司宰監	掌 魚肉・鹽・燒木炬火等事	司津・都津 義鹽倉	
典儲倉	掌 米豆・草芚・紙地等物		見同項下
廣興倉	掌 百官祿俸	太倉署・司祿館・天祿司	
典艦司	掌 京外舟艦	司水監	水運判官(一) 海運判官(一)
平市署	掌 句檢市廛 平斗斛丈尺	京市署	
司醞署	掌 供酒醴		
義盈庫	掌 油蜜・黃蠟・素物 胡椒等		
長興庫	掌 席子・油芚紙地等物		
司圃署	掌 園圃 蔬菜		
養賢庫	掌 成均館生 米豆等物		
五部	掌 管內坊里居人非法事及 橋梁・道路・頒火・禁火等事	中部・東部・南部・西部・北部	
禮曹	掌 禮樂・祭祀・宴享 朝聘・學校・科學之政	春館・南館 儀曹・禮部	
弘文館	掌 內府經籍・治文翰備顧問	玉堂・玉署・瀛閣・瑞書院・淸燕閣	
藝文館	掌 制撰辭令	元鳳省・詞林院・文翰署・翰林院	

官衙名	所掌	別號	備考
成均館	掌儒學敎誨之任	太學·國學·國子監	
春秋館	掌記時政	口官	
承文院	掌交隣文書	槐院	
通禮院	掌禮儀	司範署·通禮門閤門·中門·鴻臚	
奉常寺	掌祭祀·議諡	典記署·太常寺典儀寺	
校書館	掌印頒經籍及香祝·印篆之任	藝閣·內書·秘書·典校·外閣	校書館·司贍寺·逢紙署·和會·遞授
內醫院	掌和御藥	尙藥·掌醫·奉醫·尙醫·藥房	
禮賓寺	掌賓客燕享·宗宰供饋等事	倭典·頒客·司賓·奉賓	
掌樂院	掌敎閱聲律	聲音署·大樂監典樂署·雅樂署	僉正以下 兼一二員
觀象監	掌天文·地理·曆數·占筭·測候·刻漏等事	漏刻典·太卜監太史局·司天臺觀候署·書雲觀	天文學習讀官 一六員 禁漏 三○員
典醫監	掌醫藥內用及賜與	太醫監司醫署	習讀官 三○員
司譯院	掌譯諸方言語	通文館·漢文都監·舌院·象院	漢學習讀官 三○員
世子侍講院	掌侍講經史·規諷道義	春坊·甲觀·詹事府·澄源堂·雷肆	
宗學	掌宗室敎誨之任		
昭格署	掌三淸星辰醮祭		
宗廟署	掌守衛寢廟	大廟寢園	
社稷署	掌掃壇壝	社稷壇	
永庫	掌藏永		
典牲署	掌養犧牲		
司畜署	掌飼雜畜	典廏署	
惠民署	掌醫藥·救活民庶	惠民局	
圖畫署	掌圖畫	彩典	
活人署	掌救活都城病人	大悲院	

官衙名	所掌	別號	備考
歸厚署	掌造棺槨 和賣 供禮葬等	棺槨色	
四學	掌訓誨所管儒生	東學·西學南學·中學	習讀官 三○員
各殿	文昭殿 延恩殿		
各陵殿			
兵曹	掌武選·軍務·儀衛·郵驛·兵甲·器仗·門戶管鑰之政	夏官·兵官西銓·軍簿·軍部·騎省·摠部	
★五衛			
★訓練院	掌軍士試才鍊藝·武經習讀之事		
司僕寺	掌輿馬廏牧	乘府·司馭·太僕	
軍器寺	掌造兵器	武庫·軍機寺	
典設司	掌供帳幕	尙舍局·司設署	
世子翊衛司	掌陪衛東宮	率更寺 桂坊	
刑曹	掌法律·評讞詞訟 奴隸之政	秋官·李官·理坊義利典法·刑官·讞官·理部	
掌隷院	掌奴隷簿籍及決訟之事	奴婢辨定都監刑曹都監	
典獄署	掌獄囚	大理	
工曹	掌山澤·工匠·營繕 陶冶之政	冬官·水府·例作修例·工官·典工	
尙衣院	掌供御衣襨·內府財貨金寶等物	掌服·中尙·供造·尙方	
繕工監	掌土木營繕	將作	
修城禁火司	掌宮城都城修築及宮闕·公廨坊里·各戶 救火等事		
典涓司	掌涓治宮闕之任		
掌苑署	掌苑圃花果	內苑署	
造紙署	掌造表箋·咨文紙及諸般紙地		
瓦署	掌造瓦甎	瓦密 陶局	

11、朝鮮官職 品階表(其一)

宗親·宗親妻儀賓 各 從一品以下는 一八六五年(高宗二年)부터 그 品階의 稱號가 一般文官·武官妻의 稱號와 同一하게 되었다(其二參照)

品階	內命婦 王宮	內命婦 世子	宗親	外命婦①(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無階	嬪		大君 王子君		公主 翁主	
正一品	嬪		君 顯祿大夫 興祿大夫 後期는 上輔國 崇祿大夫	府夫人(大君妻) 郡夫人(王子君妻)		尉 綏祿大夫 成祿大夫 後期上輔國 崇祿大夫
從一品	貴人		君 昭德大夫 (綏德)—後改 嘉德大夫	郡夫人		尉 光德大夫 (靖德)後改 崇德大夫 (明德) 後改
正二品	昭儀		君 崇憲大夫 承憲大夫	縣夫人	君主	尉 奉憲大夫 通憲大夫
從二品	淑儀	良娣	君 中義大夫 正義大夫 昭義—後改	縣夫人	縣主	尉 資憲大夫 順義大夫
正三品(堂上)	昭容		都正 明善大夫	愼夫人		副尉 奉順大夫
正三品(堂上)			正 彰善大夫	愼人		僉尉 正順大夫
從三品	淑容	良媛	副正 保信大夫 資信大夫	惠人		僉尉 明信大夫 敦信大夫
正四品	昭媛		守 宣徽大夫 光徽大夫	惠人		
從四品	淑媛	承徽	副守 奉成大夫 光成大夫	溫人		
正五品	以下皆宮人職 尙宮 尙儀		令 通直郎 秉直郎	溫人		
從五品	尙服 尙食	昭訓	副令 謹節郎 愼節郎	順人		
正六品	尙寢 尙功		監 執順郎 從順郎	順人		
從六品	尙正 尙記	以下皆宮職 守閨 守則				
正七品	典賓 典儀 典膳					
從七品	典設 典製 典言	掌饌 掌正				
正八品	典贊 典飾 典藥					
從八品	典燈 典彩 典正	掌書 掌縫				

品階	內命婦 王宮	內命婦 世子宮	宗親	外命婦①(宗親妻)	外命婦②	儀賓
正九品	奏宮 奏商 奏角					
從九品	奏徵 奏變宮 奏羽 奏變徵	掌藏 掌食 掌醫				

參考(經國大典)

王子(嫡)……(大君)(無階) 大君의 配偶者…「府夫人」(正一)
〃(庶)……(君) (無階) 王子君의 配偶者…「郡夫人」(正一)
王女(嫡)……(公主)(無階) 公主의 配偶者…初授「尉」(從一)
〃(庶)……(翁主)(無階) 翁主의 配偶者…〃「尉」(從二)
王世子의 子(嫡)……(君)(初授)(正二) 君의 配偶者…〃「縣夫人」(正二)
〃 (庶)……(君)(初授)(正三)
王世子의 女(嫡)……(君主)(正二) 郡主의 配偶者…〃「副尉」(正三)
〃 (庶)……(縣主)(從三) 縣主의 配偶者…〃「僉尉」(正·從三)

其他의 宗親

一品「君」 그 配偶者「府夫人」
二品「君」 그 配偶者「縣夫人」
正三品「都正」 堂上 三品宗親의 配偶者「愼夫人」
「正」 堂下 三品宗親의 配偶者「愼人」
從三品「副正」
正四品「守」 그 配偶者「惠人」
從四品「副守」
正五品「令」 그 配偶者「溫人」
從五品「副令」
正六品「監」 그 配偶者「順人」
王妃의 父「府院君」(正一) 그 配偶者「府夫人」(正一)
親功臣「府院君」(正一) 그 配偶者「貞敬夫人」(正一)
「君」(從一·從二) 그 配偶者 從一品…「貞敬夫人」 從二品…「貞夫人」

※ 이 가운데 府院君·君과 三品以下의 宗親·儀賓 그리고 王妃母·世子女·宗親二品以上의 妻는「邑號」라 하여 그 出身關係의 地名等을 붙여 呼稱하는 일이 많았다(例 潘宗妃의 父 韓明澮는 上黨府院君, 潘宗 女 顯肅公主의 駙馬 任光載는 豊川尉). 이들 宗親을 위해서는「宗親府」親功臣을 위해서는「忠勳府」(처음에는 功臣都監 忠勳司), 公主 翁主에 尙(장가든)한 者를 위해서는「儀賓府」를 두었고, 또 이보다 遠疎한 王親 外戚에도 範圍를 定하여 正一品衙門의「敦寧府」를 두었으며, 또 原從功臣을 위해서는 從二品衙門의「忠翊府」를 두었다.

12、朝鮮官職 品階表(其二)

區分		東班	西班	外命婦③(文武官妻)	雜職 東班	雜職 西班	土官職 東班	土官職 西班
堂上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上輔國崇祿大夫(國舅—後期)・輔國崇祿大夫		府夫人(王妃母)・貞敬夫人				
堂上	從一品	崇祿大夫・崇政大夫		奉保夫人(大殿乳母)・貞敬夫人				
堂上	正二品	正憲大夫・資憲大夫		貞夫人				
堂上	從二品	嘉靖大夫(嘉義)—後改・嘉善大夫		貞夫人				
堂上	正三品	通政大夫	折衝將軍	淑夫人				
堂下	(正三品)	通政大夫	禦侮將軍	淑人				
堂下	從三品	中直大夫・中訓大夫	建功將軍・保功將軍	淑人				
堂下	正四品	奉正大夫・奉列大夫	振威將軍・昭威將軍	令人				
堂下	從四品	朝散大夫・朝奉大夫	定略將軍・宣略將軍	令人				
參上	正五品	通德郞・通善郞	果毅校尉・忠毅校尉	恭人			通儀郞	健忠隊尉
參上	從五品	奉直郞・奉訓郞	顯信校尉・彰信校尉	恭人			奉儀郞	勵忠隊尉
參上	正六品	承議郞・承訓郞	敦勇校尉・進勇校尉	宜人	供職郞・勵職郞	奉任校尉・修任校尉	宣職郞	健信隊尉
參上	從六品	宣敎郞・宣務郞	勵節校尉・秉節校尉	宜人	謹任郞・效任郞	顯功校尉・迪功校尉	奉職郞	勵信隊尉
參下	正七品	務功郞	迪順副尉	安人	奉務郞	騰勇副尉	熙功郞	敎義徒尉
參下	從七品	啓功郞	奮順副尉	安人	承務郞	宣勇副尉	注功郞	中義徒尉
參下	正八品	通仕郞	承義副尉	端人	勉功郞	猛健副尉	供務郞	奮勇徒尉
參下	從八品	通仕郞	修義副尉	端人	赴功郞	壯健副尉	直務郞	效勇徒尉
參下	正九品	從仕郞	效力副尉	孺人	服勤郞	致力副尉	啓仕郞	勵力徒尉
參下	從正九品	將仕郞	展力副尉	孺人	展勤郞	勤力副尉	試仕郞	彈力徒尉

參考

一、堂上=正三品上階(通政大夫・折衝將軍) 以上

二、堂下=正三品下階(通訓大夫・禦侮將軍) 以下

三、參上=從六品以上

四、參上=正七品以下・參下에서 參上이 되는것을 「出六」또는「陞六」이라한다

五、官職正式名稱(階・司・職)의 順序=例하면 領議政은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 別項參照

六、行=階高職卑:例하면 從一品을 가진이가 正二品職인 吏曹判書가 되면「崇政大夫行吏曹判書」

七、守=階卑職高:例하면 從二品階를 가진이가 正二品職인 大提學이 되면「嘉善大夫守 弘文館大提學」

八、官職의 任期=「任滿」이라하여 大槪 六品以上은 九百日・七品以下는 四百五十日・無祿官은 三百六十日
但・地方官은「瓜滿」・「瓜限」이라하여 觀察使・都事는 三百六十日(一年)・守令은 一千八百日(五年)・堂上官과 未挈家 守令은 九百日(二年半) 兵水使와 虞侯・評事는 七百二十日(二年)・未挈家僉使・萬戶는 九百日을 原則으로하나, 後期에는 觀察使가 二十四朔, 守令이 三十朔 또는六十朔(三年窠와 六年窠의 區別이 있음)等으로 고쳐졌다.
※未挈家=家族을 두고 單身赴任함.

九、贈諡=宗親과 文・武官 實職으로 二品以上의 高位層은 그 死後에 贈諡(經國大典) 한다 하였고, 그 뒤로 점차 範圍가 擴大되어 續大典에는 大提學과 儒賢・死節人 表著者는 正二品이 못되더라도 贈諡를 特許한다 하였다.

十、贈職=官僚의 榮典으로 첫째 名儒・節臣 또는 王室의 私親에게 死後에 品職을 追贈하는 것과 둘째 高官의 父親에게 追贈하는 것이 있고, 그밖에도 奉命出彊하여 身沒異域한 者, 其他에 追贈의 對象이 적지 않았다.(經國大典) ※出彊=外國使節, 身沒=死亡

十一、土官職=土官의 文職은 觀察使가, 武職은 節度使가 選拔 任命하는데, 平安・咸鏡兩道에 限하여 대개 土着의 吏屬에서 뽑는일이 많았다.
五衛(五衛에 이르기까지의 經過와 構成) 「經國大典」

五衛(五衛에 이르기까지의 經過와 構成)「經國大典」

(太祖元年)	(太祖四年)	(定宗元年)	(太宗十八年)	(文宗元年)	(世祖三年)
中軍					(罷)
(義興親)	(義興)	(義興)	(義興司)	(義興司)	(義興衛)
(軍左衛)	(侍衛司)	(侍衛司)			
(新興義)	(忠佐)	(忠佐)	(忠佐司)	(忠佐司)	(忠佐衛)
(軍右衛)	(侍衛司)	(侍衛司)			
(鷹揚衛)	(雄武)	(雄武)	(雄武司)	(罷)	
	(侍衛司)	(侍衛司)			
(金吾衛)	(神武)	(忠武)	(忠武司)	(忠武司)	(忠武衛)
	(侍衛司)	(巡禁司)			
左軍					(罷)
(左右軍)	(龍驤)	(龍驤)	(龍驤司)	(龍驤司)	(龍驤衛)
	(巡衛司)	(侍衛司)			
(神虎衛)	(龍騎)	(龍騎)	(龍騎司)	(罷)	
	(巡衛司)	(侍衛司)			
(興威衛)	(龍武)	(龍武)	(龍武司)	(罷)	
	(巡衛司)	(侍衛司)			
		(新設)	(龍奮司)	(罷)	
右軍					(罷)
備巡衛	(虎賁)	(虎賁)	(虎賁司)	(虎賁司)	司(虎賁衛)
	(巡衛司)	(侍衛司)			
千牛衛	(虎翼)	(虎翼)	(虎龍司)	(罷)	
	(巡衛司)	(侍衛司)			
監門衛	(虎勇)	(虎勇)	(虎勇司)	(罷)	
	(巡衛司)	(侍衛司)			
		(新設)	(虎牙司)	(罷)	

一. 義興衛(中衛「甲士補充隊」)
中部…京中部·開城府·京畿(楊州·廣州·水原·長湍鎭管)軍士
左部…江原道(江陵·原州·淮陽鎭管)軍士
右部…忠淸道(公州·洪州鎭管)軍士
前部…忠淸道(忠州·淸州鎭管)軍士
後部…黃海道(黃州·海州鎭管)軍士

二. 龍驤衛(左衛「別侍衛·隊卒」)
中部…京東部·慶尙道(大邱鎭管)軍士
左部…慶尙道(慶州鎭管)軍士
右部…慶尙道(晋州鎭管)軍士
前部…慶尙道(金海鎭管)軍士
後部…慶尙道(尙州·安東鎭管)軍士

三. 虎賁衛(右衛·族親衛·親軍衛·彭排)
中部…京西部·平安道(安州鎭管)軍士
左部…平安道(義州·龜城·朔州鎭管·昌城·昌洲·方山·麟川鎭)軍士
右部…平安道(成州鎭管)軍士
前部…平安道(寧邊·江界·碧潼鎭管·碧團·滿浦·高山里·渭原·理山·寧遠鎭)軍士
後部…平安道(平壤鎭管)軍士

四. 忠左衛(前衛)忠義衛·忠贊衛·破敵衛)
中部…京南部·全羅道(全州鎭管)軍士
左部…全羅道(順天鎭管)軍士
右部…全羅道(羅州鎭管)軍士
前部…全羅道(長興·濟州鎭管)軍士
後部…全羅道(南原鎭管)軍士

五. 忠武衛(後衛)忠順衛·正兵·壯勇衛)
中部…京北部·永安道(北靑鎭管)軍士
左部…永安道(甲山鎭管·三水·惠山鎭)軍士
右部…永安道(穩城·慶源·慶興鎭管·柔遠·美錢·訓戎鎭)軍士
前部…永安道(鏡城·富寧·會寧·鍾城鎭管·高嶺·潼關鎭)軍士
後部…永安道(永興·安邊鎭管)軍士

○參考

一. 甲士=兩班子弟로서 武藝에 出衆한 者를 取才로써 選拔한 것이니 京城侍衛(京甲士)와 兩界赴防(兩界甲士)에 모두 中心되는 兵力을 이룬다 五衛의 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등은 이 甲士로써 充差하는 것이다 (定宗二年設立)

二. 補充隊=兩班을 父로 賤人을 母로 한者를 모은 것으로서 所定의 服務를 마치면 從九品으로 去官하여 身分上으로 免賤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去官의 制度는 다른 兵種에서도 適用되는 것이다(太宗十五年設立)

三. 別侍衛=兩班子弟에서 取才하는 것인데 大槪 그 武藝와 處遇가 內禁衛보다는 못하고 甲士보다는 나은 位置에 있다

四. 隊卒=彭排와 함께 賤人으로서 膂力있는 者를 試取한 것이다

五. 族親衛=國王의 遠戚 및 그 姻戚을 모은 部隊이다

六. 親軍衛=太祖의 故鄕인 咸鏡道出身의 武人으로 構成된 것으로서 그 試取資格이나 處遇(禮貌 또는 去官의 品階등)가 別侍衛와 거의 同格이다(經國大典)

七. 彭排=본래 木製의 射候의 뜻이나 때로는 防牌와 同一한 뜻으로 이기도 하여 兵種의(一인防牌)의 後身으로 보인다. 그 試取資格과(處遇는隊卒)과 同一하다(經國大典)

八. 忠義衛=功臣子弟의 部隊이다(世祖卽位元年 設立)

九. 忠贊衛=原從功臣과 그 子弟의 部隊이다(世祖二年 設立)

十. 破敵衛=그 由來가 자세치 않으나 木箭·走·力으로 試取하고 그 處遇는 壯勇衛·彭排·隊卒등 賤人部隊보다는 높고 良人出身인 正兵보다는 못하다(經國大典)

十一. 忠順衛=異姓緦麻外六寸親 王妃緦麻外五寸以上親(先王·先后親同)東班六品以上西班四品以上 曾經實職顯官 文科出身·生員·進士有蔭子孫壻弟姪 卽有蔭子弟의部隊이다(世祖五年設立)

十二. 正兵=國初부터 侍衛牌의 後身으로서 良人出身의 番上兵이다.

十三·壯勇衛＝賤人出身을 基幹으로 良人으로 許屬하며 贊力과 武藝있는 者를 모은 部隊이다(世祖五年設立)

十四·五衛의 兵種別編成＝經國大典에 나타난 禮貌및 去官의 品階등으로 大體의 序列을 摘記해본다면 위로부터 宣傳官·兼司僕·內禁衛·親軍衛·別侍衛·族親衛·忠義衛·甲士·忠贊衛·忠順衛(以上이 대체로 兩班出身)·正兵·破敵衛·壯勇衛·隊卒·彭排·補充隊의 順位가된다. 이 가운데서 族親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등은 王室의 遠戚·大臣子弟·有蔭子孫등을 모은것으로서 그 戰鬪力은 거의 期待할바 아니었을 것이요. 단지 王室을 護衛한다는 觀念과 그 特權層의 利益을 위해서 設立된 것이라 할것이며 實地의 戰鬪力으로는 宣傳官·兼司僕·內禁衛등의 親兵과 親軍衛·別侍衛·甲士·正兵·破敵衛·壯勇衛·隊卒·彭排·補充隊로서 이들은 大槪 武藝와 膂力으로 試取하는 것이며(正兵·補充隊는 除外)良人出身의 番上兵으로서 兵力의 基幹이된 正兵(侍衛隊의 後身)도 이때에는 일등 特權層등과 職業軍人으로 그 番上의 義務가 크게 緩和되어 있어서 五衛의 各兵種은 大部分이 有蔭子弟로 充當되어 있었다고 볼것이다 또 經國大典 當時의 兵種은 이와 같지마는 그밖에도 여러 兵種이 設置 또는 整理되었던 것이니 世祖十年에 梁誠之가 列擧한 것을 例로들면 親兵에 「內禁衛」·「兼司僕」·衛兵에「甲士」·「別侍衛」·勳衛에「忠義衛」·「忠贊衛」·宿衛에「奉忠衛」·「拱宸衛」番上에 「正兵」·「平虜衛」·步軍에「破敵衛」·役軍에「防牌」·使令軍에 「攝六十」控鶴軍에「近杖」·奴軍에 「壯勇隊」·軍器監에「別軍」·義禁府에「都府外」·鎭守軍에「鎭軍」·「船軍」·「守城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며 經國大典이후에도 新設된것이 있어 定虜衛와 같은 것은 그 主要한것의 하나였다 한편 地方別로 본다면 이것은 番上軍士가 地方別로 所定에 各衛에 所屬된다는 뜻이 아니라 五衛를 兵制의 基本으로 삼은 指揮系統을 뜻하는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러한 觀念은 이미 國初에서부터 있다. 卽太祖四年에 十司를 三軍에 分屬할때 京畿左·右道와 東北面은 中軍에다 江陵交州道와 慶尙道·全羅道는 左軍에 楊廣道·西海道와 西北面은 右軍에 所屬케하고(凡各道州郡之兵·亦命兵馬使以下掌之)라 하였던 것이니. 이 原則이 五衛에도 適用되었던 것이라 할것이다.

13、甲午(1894년)更張官制 一覽表

- 國王
  - 議政府
    - 軍國機務處
    - 都察院
    - 中樞院
    - 紀功局
    - 記錄局
    - 銓考局
    - 官報局
    - 編史局
    - 會計局
    - 耆老局
    - 八衙門
      - 內務—警務廳
        - 總務局
        - 版籍局
        - 州縣局
        - 衛生局
        - 地理局
        - 寺祠局
        - 會計局
      - 外務
        - 總務局
        - 交涉局
        - 通商局
        - 飜譯局
        - 記錄局
        - 會計局
      - 度支
        - 總務局
        - 主稅局
        - 主計局
        - 出納局
        - 國債局
        - 儲置局
        - 記錄局
        - 典圜局
        - 銀行局
        - 會計局
      - 軍務
        - 總務局
        - 親衛局
        - 鎭防局
        - 海軍局
        - 醫務局
        - 機器局
        - 軍需局
        - 會計局
      - 法務 義禁司
        - 總務局
        - 民事局
        - 刑事局
        - 會計局
      - 學務
        - 總務局
        - 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
        - 專門學務局
        - 普通學務局
        - 會計局
      - 工務
        - 總務局
        - 驛遞局
        - 電信局
        - 鐵道局
        - 鑛山局
        - 燈椿局
        - 建築局
        - 會計局
      - 農商務
        - 總務局
        - 農桑局
        - 工商局
        - 山林局
        - 水産局
        - 地質局
        - 獎勵局
        - 會計局
  - 宮內府
    - 承宣院
    - 慶筵廳
    - 奎章閣
    - 通禮院
    - 掌樂院
    - 內需司
    - 司饔院
    - 尙衣院
    - 內醫院
    - 太僕寺
    - 命婦司
    - 侍講院
      - 翊衛司
      - 講書院
      - 衛從寺
      - 輔養廳
    - 承文院
    - 殿閣司
    - 會計司
    - 宗正府
      - 儀賓院
      - 敦寧院
    - 宗伯府
      - 宗廟署
      - 社稷署
      - 永禧殿
      - 各殿·廟·陵園
      - 璿源殿
      - 奉常寺
      - 景慕殿
      - 典牲署

14、韓末官職表 (增補文獻備考에 依함)

宮內府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宮內府	一八九四年 / 一八九五 / 一八九九 / 一八九五 / 一九〇〇	宮內府 / 宮內府 / 宮內府 / (大臣官房)	大臣 協辦 / 大臣 協辦 / 內大臣(增) / 特進官	參議 / 參書官 / 秘書官 / 秘書官 內事課長 / 外事課長 通譯官 / 調查課長(增)	主事 委員 / 主事	內事課長을 文書課長으로 改稱
侍從院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七 / 一九〇〇	侍從院 / 侍從院 / 侍從院 / 侍從院	卿 侍從長 / 侍講 / 侍講 / 侍講	侍從 / 副侍講 / 侍從 奉侍 / 侍從 奉侍 / 承奉(增)	侍御 / 侍讀 / 侍御 / 主事(增) / 左侍御 右侍御	
秘書院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承宣院 / 秘書監 / 秘書院	都承宣 左承宣 右承宣 / 左副承宣 右副承宣 / 中丞 / 卿	記注 記事 / 丞 / 丞	香室禁漏主事 / 郞 / 郞	
奎章閣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六	奎章閣 / 奎章院 / 奎章院 (校書司) (記錄司) / 奎章閣	學士 / 卿 / 卿 / 學士	直學士 / 長 / 長 / 直學士 / 直學士	直殿 侍制 主事 / 主事 / 校書 / 主事 / 校書 主事 / 直閣 侍制 主事	
弘文館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六 / 一八九七 / 一九〇三	經筵廳 / 經筵院 / 弘文館 / 弘文館 / 弘文館	大學士 / 侍講 / 卿 侍講 / 大學士 / 大學士 學士 / 經筵官(增)	學士 / 副侍講 / 副學士 / 經筵官(增)	副學士 / 侍讀 / 侍讀 / 侍讀 / 侍讀	侍從院에 移屬
掌禮院	一八九四 /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七	通禮院 / 宗伯府 / 掌禮院 / 掌禮院	左通禮 右通禮 / 大宗伯 宗伯 / 卿 / 卿 小卿	相禮 [illegible]禮 / 參議 祀享官 / 掌禮 / 左掌禮 贊儀 / 右掌禮 相禮	奉禮 鴻臚 / 主事 / 主事 / 主事	
敦寧院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九〇〇	貴族司 / 貴族院 / 敦寧院	長 / 卿 / 領事 判事 知事 / 同知事	僉知事	主事 / 主事 / 主事	舊敦寧府를 宗正府에 合함
會計院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會計司 / 會計院 (出納司) (檢查司) (金庫司) / 會計院	提學 / 卿 / 卿	長 / 長 / 長 / 檢查課長 / 出納課長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宗正院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宗正院 / 宗正司 / 宗正院	長 / 卿 君	都正 正 副正	主事 / 主事	

宮內府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太醫院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六 / 一九〇三	內醫院 / 典醫司 / 典醫司 / 太醫院 / 太醫院	提學 / 長 / 長 副長 / 都提調 卿 / 都提調 卿	太醫 / 典醫 / 典醫 / 少 御 典醫 / 少卿 典醫 技師	主事 / 典醫補 主事 / 主事 / 主事	
內藏院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九 / 一九〇二 / 一九〇三	內藏院 / (寶物司) / (莊園司) / 內藏司 / 內藏院 / (藏園課) / (種牧課) / (水輪課) / (貢稅課) / (記錄課) / 正業課 / (典牲課) / 內藏院	卿 / 長 / 卿 / 卿 監督(增)	長 / 長 / 長 / 長 / 長 / 長 / 長 / 長 技師 / 長(增) / 各課는 前과 간음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貢稅課로 改稱
水輪院	一八九八 / 一八九九 / 一九〇二	水輪院 / 水輪院	總裁 副總裁 監督	長 技師 / 課長 技師 局長	主事 / 主事 技手	內藏院에 移屬
警衛院	一九〇一	警衛院	總管 總務局長	總務局長 警務官	主事 總巡	
禮式院	一九〇〇 / 一九〇二 / 一九〇三	禮式院 / 禮式院 / 禮式院	長 副長 / 長 副長	外務課長 / 飜譯課長 / 參理官 飜譯官 / 文書課長 / 會計課長 / 博文課長(增)	主事 飜譯官補	
鐵道院	一九〇一 / 一九〇〇	鐵道院 / 鐵道院	總裁 監督 / 總裁 監督 副總裁	技師 / 技師 鐵道課長 / 會計課長 文書課長	主事 技手 / 主事 技手	
博文院	一九〇二 / 一九〇三	博文院	長 副長 贊議	監書(參書)	記事(主事)	禮式院에 屬함
平式院	一九〇二 / 一九〇三	平式院	總裁 副總裁	總務課長 / 檢定課長 技師	主事 技手	農商工部에 屬함
綏民院	一九〇二	綏民院	總裁 副總裁 監督	總務局長 參事官	主事 委員	
御供院	一九〇四	御供院	卿	庶務課長	委員 主事	
秘院	一九〇二 / 一九〇三	秘院 / 秘院	監督 / 長 副長	檢務官 監董 / 檢務官 監董	主事 / 主事	
帝室制度整理局	一九〇四	帝室制度整理局	總裁 議定官	秘書	記事	
西北鐵道國	一九〇〇	西北鐵道國	總裁 監督 局長	局長 技師	主事 技手	
奉常司	一八九五 / 一八九五 / 一八九六 / 一九〇二	奉常司 / 奉常司 / 奉常司 / 奉常司	提調 / 都提調 提調	長 / 長 / 副提調 / 副提調	主事 協律郎 / 主事 / 主事 / 主事	掌禮院에 屬함
尙衣司	一八九四 / 一八九五 / 一九〇三 / 一九〇五	尙衣院 / 尙衣院 / 尙衣院 / 尙衣院	提調 / 提調	提學 / 長 / 長 / 長 織造課長 技師	主事 / 主事 / 主事 / 主事 技手	提調는 宴饗冠衣때만 差出

宮內府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典膳司	一八九四	司饔院		提擧	主事	
	一八九五	典膳司		長	主事	
	一九〇〇	典膳司	提調	副提調 長	主事	提調 副提調는 宴饗嘉禮 때만 差出
主殿司	一八九四	殿閣司		提擧	守護內侍(?)	
	一八九五	主殿司		長	主事	
營繕司	一八九五	營繕司		長	主事	
	一八九七	營繕司		長 技師	主事	
物品司	一八九五	物品司		長	主事	
太僕司	一八九四	太僕寺		提擧	主事	
	一八九五	太僕司		長	主事	
	一九〇二	太僕司		長 技師	主事	
通信司	一八九六	通信司		長	主事 內乘	
		(電話課)		長 技師	主事 內乘	
		(鐵道課)		長 技師	主事 內乘	
濟用司	一九〇四	濟用司	長	副長 理事 檢察官	主事	
管理署	一九〇三	管理署	管理 副管	副管 理事	主事	
礦學局	一九〇一	礦學局	局長 監督	局長 技師	主事	
王太后宮	一八九五	王太后宮	大夫	理事	主事	
皇后宮	一八九五	皇后宮	大夫	理事	主事	
侍講院	一八九四	侍講院	師傅 貳師 賓客	贊善 輔德 弼善 文學	司書 說書 諮議	書筵官은 儒賢으로 敍任
	一八九四	翊衛司	翊衛 司禦 翊贊 衛率	副率 侍直 洗馬	典書官	
	一八九五	王太子宮	詹事 卿 日講官	副詹事	侍從官 侍御	
					主事 侍講	
	一八九五	王太子宮	日講官 詹事	副詹事 侍從官	侍從官	
	一八九六	侍講院	日講官 詹事	副詹事 侍讀官	侍從官	
	一九〇三	侍講院	書筵官 詹事	副筵官 侍讀官	侍從官	
講書院	一八九四	講書院	師傅 諭善	翊善 勸讀	贊讀	
	一九〇三	講書院	日講官 諭德	副諭德	贊讀 衛從	
皇太子妃宮	一八九五	王太子妃宮		大夫	主事	
	一八九七	皇太子妃宮		大夫	主事	
親王府	一九〇〇	親王府		令	典衛	
	一九〇二	親王府	摠辦	贊尉	典讀 典衛	
王族家	一八九五			家令	家從	王族家에 둠
宗人學校	一八九九	宗人學校	校長 導善 典訓	典訓 司誨	司誨 典簿	宗正院에 屬함
圜丘壇祠祭署	一八九七	圜丘壇司祭署	提調		令 參奉	
宗廟署	一八九四	宗廟署	提擧		令 參奉	
	一八九五		提調		令	
社稷署	一八九四	社稷署	提擧		令	
	一八九四	社稷署	提調		令 參奉	
永禧殿	一八九四	永禧殿	提擧		令 參奉	
	一八九四	永禧殿	提調		令 參奉	
廟殿官	一八九四		提調(全羅監司兼)		衛將(鎭衛大隊長이 兼함)	肇慶廟 慶基殿에 둠
壇基官	一八九九				守奉官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에 各各 둠
陵園官	一八九九				奉事 參奉	各陵에 둠
圜衛隊	一八九七	圜衛隊	摠管	正尉 副尉 參尉	餉官 正軍官 副軍官 參軍官 參領	

議政府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議政府	一八九四	議政府	摠理大臣 左贊成 右贊成 司書	司憲(都憲) 參議	主事	
		(軍國機務處)	摠裁 副摠裁	會議員	書記官	
		(都察院)	長	都憲	主事	
		(中樞院)	長	參議	主事	
		(會計審査局)		長	書記 審査官	
	一八九五	內閣	摠理大臣 摠書	記錄局長 參書官	主事	
	一八九六	議政府	議政 參政 贊政 參贊 摠務局長	秘書官 參書官 秘書官 參書官	主事 主事	
中樞院	一八九四	中樞院				
	一八九五	中樞院	議長 副議長 議官	議官 參書官	主事	
表勳院	一八九九	表勳院	摠裁 副摠裁 議定官	製章局長 參書官 技師	主事 技手	一九〇四년 議政府에 屬함
內部	一八九四	內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技手	
	一八九五	內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參書官 視察官 技師		
廣濟院	一八九九	病院		長 技師	醫師 製藥師	
	一九〇〇	普施院		長 技師	醫師	
	一九〇〇	廣濟院		長	醫師 委員	
惠民院	一九〇一	惠民院	摠裁 議定官 摠務	摠務 參書官	主事	
外部	一八九四	外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	外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參書官 飜譯官	主事 飜譯官補	
公使館및 領事館		(公使館) (摠領事館) (領事館)	特命全權公使 辦理公使 公使	代理公使 參書官 摠領事 領事 副領事 參書官 摠領事 副領事 領事 通商事務官	書記生 書記生 書記生 書記生	
監理署	一八九五	知事署		知事	主事	領事 없는 곳에 둠
	一八九六	監理署		監理	主事	各港에 둠
度支部	一八九四	度支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	度支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參書官 財務官	主事	
	一九〇四	度支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參書官 財務官 技師	主事 主事 技手	
管稅司	一八九五	管稅司		長	主事	
徵稅署	一八九五	徵稅署			長 主事	
量地衙門	一八九八 一八九九	量地衙門	摠裁官 副摠裁官	記事員	書記 量務監理 委員	
地契衙門	一九〇一	地契衙門	摠裁 副摠裁 監督	記事員 委員 監理	主事	
典圜局	一八九九	典圜局	局長 管理	局長 技師	主事 技手	
	一九〇一	典圜局	局長	局長 技師	主事 技手	
軍部	一八九四	軍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	軍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課長 課員 技師	技手 主事	
	一八九九	軍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課長 局員 課員 官房長 參書官 技師	技手 主事 房員	
陸軍法院	一九〇〇	陸軍法院	長 理事	理事	錄事 主事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議政府						
陸軍監獄署	一九〇〇		長		看守長 主事	
軍器廠	一九〇四	軍器廠	提理 副官	主計 技師	主事 技手	
	一九〇四	軍器廠	管理 副管理	副官 檢査官	餉官 醫官 主事	
		(製造所)	長	技師	技手	
法部	一八九四	法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	法部	大臣 協辦 局長	檢事 參書官	主事	
平理院	一八九四	義禁司	判事 知事 同知事	參議	主事	
	一八九五	高等裁判所	裁判長 判事 檢事	判事 檢事	書記 判事試補	
				豫備判事	檢事試補	
	一八九九	平理院	裁判長 判事 檢事	判事 檢事	主事	
		(特別法院)	裁判長 判事	判事		皇室犯罪取扱
漢城裁判所	一八九五	漢城府裁判所	判事 檢事	判事 檢事	書記	
	一八九七		首班判事	判事 副判事	主事	
	一八九九	漢城府裁判所	判事 檢事	判事 檢事	主事	
	一九〇一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判事	判事 檢事	主事	
地方裁判所			判事	檢事	書記	
法官養成所	一八九九	法官養成所	長	教官	教官	
法律起草委員會			長 委員	委員		
學部	一八九四	學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	學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參書官	主事	
觀象所	一八九五	觀象所		長 技師	技手 書記	
成均館	一八九五	成均館		長 教授	教授 直員	
	一八九九			長 教授	教授 博士 直員	
師範學校	一八九五	師範學校		長 教官	教官 副教官	
					教員 書記	
中學校	一八九九	中學校		長 教官	教官 書記	
外國語學校	一八九五	外國語學校		長 教官	教官 副教官 書記	
醫學校	一八九九	醫學校		長 教官	教官 書記	
農商工學校	一八九九	商工學校		長 教官	書記	
	一九〇四	農商工學校		長 教官	書記	
礦務學校	一九〇〇	礦務學校		長 教官	副教官 書記	
小學校		小學校		長	教員 副教員	
農商工部	一八九四	工務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四	農商衙門	大臣 協辦	參議	主事	一八九五年에 工務와 農商을 합칭
	一八九五	農商工部	大臣 協辦	局長 參書官 技師	主事 技手	
通信院	一九〇〇	摠信院	摠辦 會辦	局長 參書官	主事 船稅委員	
				飜譯官 技師		
電報司	一九〇〇	電報司		摠司 司長 技師	主事	全國에 設置
郵遞司	一九〇〇	郵遞司		摠司 司長	主事	
警務廳	一八九四	警務廳	警察使	副管 警務官	書記官 摠巡 巡檢 監禁 副監禁 監守	各 觀察府에는 摠巡, 各 港口에는 警察官·摠巡·開市場에는 摠巡을 두었다.
	一八九五	警務廳	警務使	警務官	主事 摠巡長	
		(監獄署)			書記 看守長	
	一九〇〇	警部	大臣 協辦 局長	局長 警務官 長	主事 摠巡	
		(監獄署)			看守長 主事	
	一九〇一	警務廳	警務使 局長	局長 警務官 長	主事 摠巡	
		(監獄署)			看守長 主事	

官衙		年代	將官	領官	尉官	其外	備考
	漢城府	一八九四	漢城府	府尹		主事	
		一八九五	漢城府	觀察使	參書官	主事	
		一八九六	漢城府	判尹	少尹	主事	
元帥府	元帥府	一八九九	局長	副長	局員	下士	軍務 檢査 記錄 會計의 四局을 둠
		一九〇四	副元帥	副長	副官		
	侍從武官府	一九〇四	武官長(大·副)	侍從武官	侍從武官(正)	書記	
	東宮陪從武官府	一九〇四	武官長(副·參)	陪從武官	陪從武官(正)	書記	
	親王附武官				親王附武官(正)	書記	
	參謀部	一九〇四	總長(大·副) 局員(參)	副官 局員(參)	副官(正) 局員(正)	餉官(軍司) 繙譯官(奏·判) 書記 編輯員(判)	
	敎育部	一九〇四	總監(副·參) 副監(參) 參謀長(參)	副監(正) 參謀長(正·副) 參謀官(副·參) 副官(參)	參謀官(正) 副官(副)	餉官(軍司) 繙譯官(奏·判) 書記(下士)	
	騎輕兵科			科長(副·參)	科員(正·副)		
	砲工兵科			科長(副·參)	科員(正·副)		
	憲兵司令部	一九〇〇	司令官	隊長	副官(正) 副官(副) 中隊長(正·副) 小隊長(副·參)	餉官(軍司) 書記(下士) 餉官(軍司) 書記(下士) 書記(下士) 分隊長(下士)	
	侍衛隊	一八九五	聯隊長(副) 大隊長(參)		副官(副) 餉官(正)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下士 (校正 副校 參校)	
		一八九八	聯隊長(正·副)		副官(正) 武器主管(副·參)		
	大隊			大隊長(參)	旗官(參) 副官(副)	餉官(軍司) 正校 副校	
	親衛隊	一八九六		聯隊長(正·副)	副官(正) 武器主管(副·參) 旗官(參)		
	騎兵隊	一九〇〇		大隊長(參)	副官(副)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餉官(軍司) 正校 副校 參校	侍衛隊所屬
	工兵隊	一九〇〇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正校 副校 參校	親衛隊所屬
	輕重兵隊	一九〇〇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正校 副校 參校	親衛隊所屬
	砲兵隊	一九〇〇		大隊長(參)	副官(副)	餉官(軍司)	侍衛隊所屬
	山砲中隊	一九〇〇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軍醫 獸醫 書記 正校 副校 參校	

	官衙	年代	將官	領官	尉官	其外	備考
元帥府	野砲中隊				小隊長(副·參) 中隊長(正)	正校 副校 參校	
元帥府	軍樂隊	一九〇〇 一九〇四			中隊長(副·參)	軍樂隊 參校 書記 正校 軍樂手	侍衛隊所屬
元帥府	武官學校	一八九八 一九〇四		校長 敎頭 學徒隊長 校長	副官 敎官 中隊長(正) 學徒隊長 副官 敎官 學徒隊副官 學徒隊中隊長	醫官 飜譯官 飜譯官補 主事 助敎 醫官 獸醫 餉官 飜譯官 主事 助敎 特務正校	語學科 敎官은 文官으로 奏任 또는 判任이다.
元帥府	陸軍研成學校	一九〇四		校長 敎成隊長(副·參)	副官(正) 敎官 副官(副) 中隊長(正) 敎成隊長(副)	醫官 餉官 飜譯官 書記 特務正校 助敎	
元帥府	陸軍幼年學校	一九〇四		校長	副官(正) 敎官 學徒隊中隊長(正)	醫官 餉官 特務正校 助敎 馬術助敎	
元帥府	鎭衛隊	一八九六 一八九八 一九〇〇		參領 大隊長(參) 聯隊長(正·副) 大隊長(參)	正尉 副尉 參尉 副官(副)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副官(正) 武器主管(副·參) 旗官 副官(副) 中隊長(正) 小隊長(副·參)	正校 副校 參校 餉官 副校 正校 副校 參校 曲號隊副校 餉官(軍司) 正校 副校 參校	各地方軍으로서 各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다.

	官衙	年代	名稱	勅任	奏任	判任	備考
地方官制		一八九四	(府)(二三) (郡)(四三八)	觀察使	觀察使 參書官 警務官 郡守	主事 警務官補 摠巡	
地方官制		一八九六	(道)(一三) 濟州牧 府(九) 郡	觀察使	牧使 府尹 郡守	主事 主事	

(註) 將官欄의 (大) (副) (參)은 各各 大將 副將 參將
領官欄의 (正) (副) (參)은 各各 正領 副領 參領
尉官欄의 (正) (副) (參)은 各各 正尉 副尉 參尉

제9장 연대대조표

1.연대기원 조견표

(年代紀元 早見表)

우리의 문헌(文獻)에는 중국 연호(中國 年號)가 많이 쓰여 있다. 이것을 우리 연호(年號)로 또 서기(西紀)로 환산(換算)하여 보기 위하여 이 한중년대표(韓中年代表)를 붙인다.

기원조견표
(紀元早見表)

단군기원은	서기+2333	신라기원	서기+ 57
불교 〃	서기+ 544	고구려 〃	서기+ 37
공자 〃	서기+ 551	백제 〃	서기+ 18
회교 〃	서기+ 621	고려 〃	서기- 917
일본 〃	서기+ 660	조선 〃	서기-1391
천도교포덕 〃	서기-1857		
요제기원(堯帝紀元)	서기+2357	원(元) 〃	서기-1279
진시황(秦始皇) 〃	서기+ 246	명(明) 〃	서기-1367
한고조(漢高祖) 〃	서기+ 206	청(淸) 〃	서기-1661
당(唐) 〃	서기- 617	중화민국(中華民國) 〃	서기-1911
송(宋) 〃	서기- 959		

2、東・西洋年代對照表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1937	2397	64	121	7	甲子
1936	2398	65	122	8	乙丑
1935	2399	66	123	9	丙寅
1934	2400	67	124	10	丁卯
1933	2401	68	125	11	戊辰
1932	2402	69	126	12	己巳
1931	2403	70	127	13	庚午
1930	2404	71	128	14	辛未
1929	2405	72	129	15	壬申
1928	2406	73	130	16	癸酉
1927	2407	74	131	17	甲戌
1926	2408	75	132	18	乙亥
1925	2409	76	133	建初	丙子
1924	2410	77	134	2	丁丑
1923	2411	78	135	3	戊寅
1922	2412	79	136	4	己卯
1921	2413	80	137	5	庚辰
1920	2414	81	138	6	辛巳
1919	2415	82	139	7	壬午
1918	2416	83	140	8	癸未
1917	2417	84	141	元和	甲申
1916	2418	85	142	2	乙酉
1915	2419	86	143	3	丙戌
1914	2420	87	144	章和	丁亥
1913	2421	88	145	2	戊子
1912	2422	89	146	永元	己丑
1911	2423	90	147	2	庚寅
1910	2424	91	148	3	辛卯
1909	2425	92	149	4	壬辰
1908	2426	93	150	5	癸巳
1907	2427	94	151	6	甲午
1906	2428	95	152	7	乙未
1905	2429	96	153	8	丙申
1904	2430	97	154	9	丁酉
1903	2431	98	155	10	戊戌
1902	2432	99	156	11	己亥
1901	2433	100	157	12	庚子
1900	2434	101	158	13	辛丑
1899	2435	102	159	14	壬寅
1898	2436	103	160	15	癸卯
1897	2437	104	161	16	甲辰
1896	2438	105	162	元興	乙巳
1895	2439	106	163	延平	丙午
1894	2440	107	164	永初	丁未
1893	2441	108	165	2	戊申
1892	2442	109	166	3	己酉
1891	2443	110	167	4	庚戌
1890	2444	111	168	5	辛亥
1889	2445	112	169	6	壬子
1888	2446	113	170	7	癸丑
1887	2447	114	171	元初	甲寅
1886	2448	115	172	2	乙卯
1885	2449	116	173	3	丙辰
1884	2450	117	174	4	丁巳
1883	2451	118	175	5	戊午
1882	2452	119	176	6	己未
1881	2453	120	177	永寧	庚申
1880	2454	121	178	建光	辛酉
1879	2455	122	179	延光	壬戌
1878	2456	123	180	2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1997	2337	4	61	4	甲子
1996	2338	5	62	5	乙丑
1995	2339	6	63	居攝	丙寅
1994	2340	7	64	2	丁卯
1993	2341	8	65	更始	戊辰
1992	2342	9	66	新漢	己巳
1991	2343	10	67	2	庚午
1990	2344	11	68	3	辛未
1989	2345	12	69	4	壬申
1988	2346	13	70	5	癸酉
1987	2347	14	71	天鳳	甲戌
1986	2348	15	72	2	乙亥
1985	2349	16	73	3	丙子
1984	2350	17	74	4	丁丑
1983	2351	18	75	5	戊寅
1982	2352	19	76	6	己卯
1981	2353	20	77	地	庚辰
1980	2354	21	78	2	辛巳
1979	2355	22	79	3	壬午
1978	2356	23	80	後漢	癸未
1977	2357	24	81	光武	甲申
1976	2358	25	82	建武	乙酉
1975	2359	26	83	2	丙戌
1974	2360	27	84	3	丁亥
1973	2361	28	85	4	戊子
1972	2362	29	86	5	己丑
1971	2363	30	87	6	庚寅
1970	2364	31	88	7	辛卯
1969	2365	32	89	8	壬辰
1968	2366	33	90	9	癸巳
1967	2367	34	91	10	甲午
1966	2368	35	92	11	乙未
1965	2369	36	93	12	丙申
1964	2370	37	94	13	丁酉
1963	2371	38	95	14	戊戌
1962	2372	39	96	15	己亥
1961	2373	40	97	16	庚子
1960	2374	41	98	17	辛丑
1959	2375	42	99	18	壬寅
1958	2376	43	100	19	癸卯
1957	2377	44	101	20	甲辰
1956	2378	45	102	21	乙巳
1955	2379	46	103	22	丙午
1954	2380	47	104	23	丁未
1953	2381	48	105	24	戊申
1952	2382	49	106	25	己酉
1951	2383	50	107	26	庚戌
1950	2384	51	108	27	辛亥
1949	2385	52	109	28	壬子
1948	2386	53	110	29	癸丑
1947	2387	54	111	30	甲寅
1946	2388	55	112	31	乙卯
1945	2389	56	113	中元	丙辰
1944	2390	57	114	2	丁巳
1943	2391	58	115	永平	戊午
1942	2392	59	116	2	己未
1941	2393	60	117	3	庚申
1940	2394	61	118	4	辛酉
1939	2395	62	119	5	壬戌
1938	2396	63	120	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2057	2277	前57	始祖	五鳳	甲子
2056	2278	〃56	2	2	乙丑
2055	2279	〃55	3	3	丙寅
2054	2280	〃54	4	4	丁卯
2053	2281	〃53	5	甘露	戊辰
2052	2282	〃52	6	2	己巳
2051	2283	〃51	7	3	庚午
2050	2284	〃50	8	4	辛未
2049	2285	〃49	9	黃龍	壬申
2048	2286	〃48	10	初元	癸酉
2047	2287	〃47	11	2	甲戌
2046	2288	〃46	12	3	乙亥
2045	2289	〃45	13	4	丙子
2044	2290	〃44	14	5	丁丑
2043	2291	〃43	15	永光	戊寅
2042	2292	〃42	16	2	己卯
2041	2293	〃41	17	3	庚辰
2040	2294	〃40	18	4	辛巳
2039	2295	〃39	19	5	壬午
2038	2296	〃38	20	建昭	癸未
2037	2297	〃37	21	2	甲申
2036	2298	〃36	22	3	乙酉
2035	2299	〃35	23	4	丙戌
2034	2300	〃34	24	5	丁亥
2033	2301	〃33	25	竟寧	戊子
2032	2302	〃32	26	建始	己丑
2031	2303	〃31	27	2	庚寅
2030	2304	〃30	28	3	辛卯
2029	2305	〃29	29	4	壬辰
2028	2306	〃28	30	河平	癸巳
2027	2307	〃27	31	2	甲午
2026	2308	〃26	32	3	乙未
2025	2309	〃25	33	4	丙申
2024	2310	〃24	34	陽朔	丁酉
2023	2311	〃23	35	2	戊戌
2022	2312	〃22	36	3	己亥
2021	2313	〃21	37	4	庚子
2020	2314	〃20	38	鴻嘉	辛丑
2019	2315	〃19	39	2	壬寅
2018	2316	〃18	40	3	癸卯
2017	2317	〃17	41	4	甲辰
2016	2318	〃16	42	永始	乙巳
2015	2319	〃15	43	2	丙午
2014	2320	〃14	44	3	丁未
2013	2321	〃13	45	4	戊申
2012	2322	〃12	46	元延	己酉
2011	2323	〃11	47	2	庚戌
2010	2324	〃10	48	3	辛亥
2009	2325	〃 9	49	4	壬子
2008	2326	〃 8	50	綏和	癸丑
2007	2327	〃 7	51	2	甲寅
2006	2328	〃 6	52	建平	乙卯
2005	2329	〃 5	53	2	丙辰
2004	2330	〃 4	54	3	丁巳
2003	2331	〃 3	55	4	戊午
2002	2332	〃 2	56	元壽	己未
2001	2333	〃 1	57	2	庚申
2000	2334	1	58	元始	辛酉
1999	2335	2	59	2	壬戌
1998	2336	3	60	3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1757	2577	244	301	7	甲子
1756	2578	245	302	8	乙丑
1755	2579	246	303	9	丙寅
1754	2580	247	304	10	丁卯
1753	2581	248	305	11	戊辰
1752	2582	249	306	12	己巳
1751	2583	250	307	13	庚午
1750	2584	251	308	14	辛未
1749	2585	252	309	15	壬申
1748	2586	253	310	16	癸酉
1747	2587	254	311	17	甲戌
1746	2588	255	312	18	乙亥
1745	2589	256	313	19	丙子
1744	2590	257	314	20	丁丑
1743	2591	258	315	景耀	戊寅
1742	2592	259	316	2	己卯
1741	2593	260	317	3	庚辰
1740	2594	261	318	4	辛巳
1739	2595	262	319	5	壬午
1738	2596	263	320	炎興	癸未
1737	2597	264	321	晉	甲申
1736	2598	265	322	泰始	乙酉
1735	2599	266	323	2	丙戌
1734	2600	267	324	3	丁亥
1733	2601	268	325	4	戊子
1732	2602	269	326	5	己丑
1731	2603	270	327	6	庚寅
1730	2604	271	328	7	辛卯
1729	2605	272	329	8	壬辰
1728	2606	273	330	9	癸巳
1727	2607	274	331	10	甲午
1726	2608	275	332	咸寧	乙未
1725	2609	276	333	2	丙申
1724	2610	277	334	3	丁酉
1723	2611	278	335	4	戊戌
1722	2612	279	336	5	己亥
1721	2613	280	337	太康	庚子
1720	2614	281	338	2	辛丑
1719	2615	282	339	3	壬寅
1718	2616	283	340	4	癸卯
1717	2617	284	341	5	甲辰
1716	2618	285	342	6	乙巳
1715	2619	286	343	7	丙午
1714	2620	287	344	8	丁未
1713	2621	288	345	9	戊申
1712	2622	289	346	10	己酉
1711	2623	290	347	太熙	庚戌
1710	2624	291	348	永平	辛亥
1709	2625	292	349	2	壬子
1708	2626	293	350	3	癸丑
1707	2627	294	351	4	甲寅
1706	2628	295	352	5	乙卯
1705	2629	296	353	6	丙辰
1704	2630	297	354	7	丁巳
1703	2631	298	355	8	戊午
1702	2632	299	356	9	己未
1701	2633	300	357	10	庚申
1700	2634	301	358	太康	辛酉
1699	2635	302	359	永寧	壬戌
1698	2636	303	360	永安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1817	2517	184	241	中平	甲子
1816	2518	185	242	2	乙丑
1815	2519	186	243	3	丙寅
1814	2520	187	244	4	丁卯
1813	2521	188	245	5	戊辰
1812	2522	189	246	6	己巳
1811	2523	190	247	初平	庚午
1810	2524	191	248	2	辛未
1809	2525	192	249	3	壬申
1808	2526	193	250	4	癸酉
1807	2527	194	251	興平	甲戌
1806	2528	195	252	2	乙亥
1805	2529	196	253	建安	丙子
1804	2530	197	254	2	丁丑
1803	2531	198	255	3	戊寅
1802	2532	199	256	4	己卯
1801	2533	200	257	5	庚辰
1800	2534	201	258	6	辛巳
1799	2535	202	259	7	壬午
1798	2536	203	260	8	癸未
1797	2537	204	261	9	甲申
1796	2538	205	262	10	乙酉
1795	2539	206	263	11	丙戌
1794	2540	207	264	12	丁亥
1793	2541	208	265	13	戊子
1792	2542	209	266	14	己丑
1791	2543	210	267	15	庚寅
1790	2544	211	268	16	辛卯
1789	2545	212	269	17	壬辰
1788	2546	213	270	18	癸巳
1787	2547	214	271	19	甲午
1786	2548	215	272	20	乙未
1785	2549	216	273	21	丙申
1784	2550	217	274	22	丁酉
1783	2551	218	275	23	戊戌
1782	2552	219	276	24	己亥
1781	2553	220	277	康延	庚子
1780	2554	221	278	章武	辛丑
1779	2555	222	279	2	壬寅
1778	2556	223	280	建興	癸卯
1777	2557	224	281	2	甲辰
1776	2558	225	282	3	乙巳
1775	2559	226	283	4	丙午
1774	2560	227	284	5	丁未
1773	2561	228	285	6	戊申
1772	2562	229	286	7	己酉
1771	2563	230	287	8	庚戌
1770	2564	231	288	9	辛亥
1769	2565	232	289	10	壬子
1768	2566	233	290	11	癸丑
1767	2567	234	291	12	甲寅
1766	2568	235	292	13	乙卯
1765	2569	236	293	14	丙辰
1764	2570	237	294	15	丁巳
1763	2571	238	295	延熙	戊午
1762	2572	239	296	2	己未
1761	2573	240	297	3	庚申
1760	2574	241	298	4	辛酉
1759	2575	242	299	5	壬戌
1758	2576	243	300	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漢朝	干支
1877	2457	124	181	3	甲子
1876	2458	125	182	4	乙丑
1875	2459	126	183	永建	丙寅
1874	2460	127	184	2	丁卯
1873	2461	128	185	3	戊辰
1872	2462	129	186	4	己巳
1871	2463	130	187	5	庚午
1870	2464	131	188	6	辛未
1869	2465	132	189	陽嘉	壬申
1868	2466	133	190	2	癸酉
1867	2467	134	191	3	甲戌
1866	2468	135	192	4	乙亥
1865	2469	136	193	永和	丙子
1864	2470	137	194	2	丁丑
1863	2471	138	195	3	戊寅
1862	2472	139	196	4	己卯
1861	2473	140	197	5	庚辰
1860	2474	141	198	6	辛巳
1859	2475	142	199	漢安	壬午
1858	2476	143	200	2	癸未
1857	2477	144	201	建康	甲申
1856	2478	145	202	永嘉	乙酉
1855	2479	146	203	本初	丙戌
1854	2480	147	204	建和	丁亥
1853	2481	148	205	2	戊子
1852	2482	149	206	3	己丑
1851	2483	150	207	和平	庚寅
1850	2484	151	208	元嘉	辛卯
1849	2485	152	209	2	壬辰
1848	2486	153	210	永興	癸巳
1847	2487	154	211	2	甲午
1846	2488	155	212	永壽	乙未
1845	2489	156	213	2	丙申
1844	2490	157	214	3	丁酉
1843	2491	158	215	延熹	戊戌
1842	2492	159	216	2	己亥
1841	2493	160	217	3	庚子
1840	2494	161	218	4	辛丑
1839	2495	162	219	5	壬寅
1838	2496	163	220	6	癸卯
1837	2497	164	221	7	甲辰
1836	2498	165	222	8	乙巳
1835	2499	166	223	9	丙午
1834	2500	167	224	永康	丁未
1833	2501	168	225	建寧	戊申
1832	2502	169	226	2	己酉
1831	2503	170	227	3	庚戌
1830	2504	171	228	4	辛亥
1829	2505	172	229	熹平	壬子
1828	2506	173	230	2	癸丑
1827	2507	174	231	3	甲寅
1826	2508	175	232	4	乙卯
1825	2509	176	233	5	丙辰
1824	2510	177	234	6	丁巳
1823	2511	178	235	光和	戊午
1822	2512	179	236	2	己未
1821	2513	180	237	3	庚申
1820	2514	181	238	4	辛酉
1819	2515	182	239	5	壬戌
1818	2516	183	240	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1577	2757	424	481	5	甲子
1576	2758	425	482	6	乙丑
1575	2759	426	483	7	丙寅
1574	2760	427	484	毗有	丁卯
1573	2761	428	485	2	戊辰
1572	2762	429	486	3	己巳
1571	2763	430	487	4	庚午
1570	2764	431	488	5	辛未
1569	2765	432	489	6	壬申
1568	2766	433	490	7	癸酉
1567	2767	434	491	8	甲戌
1566	2768	435	492	9	乙亥
1565	2769	436	493	10	丙子
1564	2770	437	494	11	丁丑
1563	2771	438	495	12	戊寅
1562	2772	439	496	13	己卯
1561	2773	440	497	14	庚辰
1560	2774	441	498	15	辛巳
1559	2775	442	499	16	壬午
1558	2776	443	500	17	癸未
1557	2777	444	501	18	甲申
1556	2778	445	502	19	乙酉
1555	2779	446	503	20	丙戌
1554	2780	447	504	21	丁亥
1553	2781	448	505	22	戊子
1552	2782	449	506	23	己丑
1551	2783	450	507	24	庚寅
1550	2784	451	508	25	辛卯
1549	2785	452	509	26	壬辰
1548	2786	453	510	27	癸巳
1547	2787	454	511	28	甲午
1546	2788	455	512	蓋鹵	乙未
1545	2789	456	513	2	丙申
1544	2790	457	514	3	丁酉
1543	2791	458	515	4	戊戌
1542	2792	459	516	5	己亥
1541	2793	460	517	6	庚子
1540	2794	461	518	7	辛丑
1539	2795	462	519	8	壬寅
1538	2796	463	520	9	癸卯
1537	2797	464	521	10	甲辰
1536	2798	465	522	11	乙巳
1535	2799	466	523	12	丙午
1534	2800	467	524	13	丁未
1533	2801	468	525	14	戊申
1532	2802	469	526	15	己酉
1531	2803	470	527	16	庚戌
1530	2804	471	528	17	辛亥
1529	2805	472	529	18	壬子
1528	2806	473	530	19	癸丑
1527	2807	474	531	20	甲寅
1526	2808	475	532	文周	乙卯
1525	2809	476	533	2	丙辰
1524	2810	477	534	三斤	丁巳
1523	2811	478	535	2	戊午
1522	2812	479	536	東城	己未
1521	2813	480	537	2	庚申
1520	2814	481	538	3	辛酉
1519	2815	482	539	4	壬戌
1518	2816	483	540	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晉	干支
1637	2697	364	421	2	甲子
1636	2698	365	422	3	乙丑
1635	2699	366	423	太和	丙寅
1634	2700	367	424	2	丁卯
1633	2701	368	425	3	戊辰
1632	2702	369	426	4	己巳
1631	2703	370	427	5	庚午
1630	2704	371	428	咸安	辛未
1629	2705	372	429	2	壬申
1628	2706	373	430	寧康	癸酉
1627	2707	374	431	2	甲戌
1626	2708	375	432	3	乙亥
1625	2709	376	433	太元	丙子
1624	2710	377	434	2	丁丑
1623	2711	378	435	3	戊寅
1622	2712	379	436	4	己卯
1621	2713	380	437	5	庚辰
1620	2714	381	438	6	辛巳
1619	2715	382	439	7	壬午
1618	2716	383	440	8	癸未
1617	2717	384	441	9	甲申
1616	2718	385	442	10	乙酉
1615	2719	386	443	11	丙戌
1614	2720	387	444	12	丁亥
1613	2721	388	445	13	戊子
1612	2722	389	446	14	己丑
1611	2723	390	447	15	庚寅
1610	2724	391	448	16	辛卯
1609	2725	392	449	17	壬辰
1608	2726	393	450	18	癸巳
1607	2727	394	451	19	甲午
1606	2728	395	452	20	乙未
1605	2729	396	453	21	丙申
1604	2730	397	454	隆安	丁酉
1603	2731	398	455	2	戊戌
1602	2732	399	456	3	己亥
1601	2733	400	457	4	庚子
1600	2734	401	458	5	辛丑
1599	2735	402	459	元興	壬寅
1598	2736	403	460	2	癸卯
1597	2737	404	461	3	甲辰
1596	2738	405	462	義熙	乙巳
1595	2739	406	463	2	丙午
1594	2740	407	464	3	丁未
1593	2741	408	465	4	戊申
1592	2742	409	466	5	己酉
1591	2743	410	467	6	庚戌
1590	2744	411	468	7	辛亥
1589	2745	412	469	8	壬子
1588	2746	413	470	9	癸丑
1587	2747	414	471	10	甲寅
1586	2748	415	472	11	乙卯
1585	2749	416	473	12	丙辰
1584	2750	417	474	13	丁巳
1583	2751	418	475	14	戊午
1582	2752	419	476	元熙	己未
1581	2753	420	477	永初	庚申
1580	2754	421	478	2	辛酉
1579	2755	422	479	3	壬戌
1578	2756	423	480	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晉	干支
1697	2637	304	361	永興	甲子
1696	2638	305	362	2	乙丑
1695	2639	306	363	光熙	丙寅
1694	2640	307	364	永嘉	丁卯
1693	2641	308	365	2	戊辰
1692	2642	309	366	3	己巳
1691	2643	310	367	4	庚午
1690	2644	311	368	5	辛未
1689	2645	312	369	6	壬申
1688	2646	313	370	建興	癸酉
1687	2647	314	371	2	甲戌
1686	2648	315	372	3	乙亥
1685	2649	316	373	4	丙子
1684	2650	317	374	建武	丁丑
1683	2651	318	375	太興	戊寅
1682	2652	319	376	2	己卯
1681	2653	320	377	3	庚辰
1680	2654	321	378	4	辛巳
1679	2655	322	379	永昌	壬午
1678	2656	323	380	太寧	癸未
1677	2657	324	381	2	甲申
1676	2658	325	382	3	乙酉
1675	2659	326	383	咸和	丙戌
1674	2660	327	384	2	丁亥
1673	2661	328	385	3	戊子
1672	2662	329	386	4	己丑
1671	2663	330	387	5	庚寅
1670	2664	331	388	6	辛卯
1669	2665	332	389	7	壬辰
1668	2666	333	390	8	癸巳
1667	2667	334	391	9	甲午
1666	2668	335	392	咸康	乙未
1665	2669	336	393	2	丙申
1664	2670	337	394	3	丁酉
1663	2671	338	395	4	戊戌
1662	2672	339	396	5	己亥
1661	2673	340	397	6	庚子
1660	2674	341	398	7	辛丑
1659	2675	342	399	8	壬寅
1658	2676	343	400	建元	癸卯
1657	2677	344	401	2	甲辰
1656	2678	345	402	永和	乙巳
1655	2679	346	403	2	丙午
1654	2680	347	404	3	丁未
1653	2681	348	405	4	戊申
1652	2682	349	406	5	己酉
1651	2683	350	407	6	庚戌
1650	2684	351	408	7	辛亥
1649	2685	352	409	8	壬子
1648	2686	353	410	9	癸丑
1647	2687	354	411	10	甲寅
1646	2688	355	412	11	乙卯
1645	2689	356	413	12	丙辰
1644	2690	357	414	升平	丁巳
1643	2691	358	415	2	戊午
1642	2692	359	416	3	己未
1641	2693	360	417	4	庚申
1640	2694	361	418	5	辛酉
1639	2695	362	419	隆和	壬戌
1638	2696	363	420	興寧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1397	2937	604	661	5	甲子
1396	2938	605	662	6	乙丑
1395	2939	606	663	7	丙寅
1394	2940	607	664	8	丁卯
1393	2941	608	665	9	戊辰
1392	2942	609	666	10	己巳
1391	2943	610	667	11	庚午
1390	2944	611	668	12	辛未
1389	2945	612	669	13	壬申
1388	2946	613	670	14	癸酉
1387	2947	614	671	15	甲戌
1386	2948	615	672	16	乙亥
1385	2949	616	673	17	丙子
1384	2950	617	674	18	丁丑
1383	2951	618	675	19	戊寅
1382	2952	619	676	20	己卯
1381	2953	620	677	21	庚辰
1380	2954	621	678	22	辛巳
1379	2955	622	679	23	壬午
1378	2956	623	680	24	癸未
1377	2957	624	681	25	甲申
1376	2958	625	682	26	乙酉
1375	2959	626	683	27	丙戌
1374	2960	627	684	28	丁亥
1373	2961	628	685	29	戊子
1372	2692	629	686	30	己丑
1371	2693	630	687	31	庚寅
1370	2964	631	688	32	辛卯
1369	2965	632	689	33	壬辰
1368	2966	633	690	34	癸巳
1367	2967	634	691	35	甲午
1366	2968	635	692	36	乙未
1365	2969	636	693	37	丙申
1364	2970	637	694	38	丁酉
1363	2971	638	695	39	戊戌
1362	2972	639	696	40	己亥
1361	2973	640	697	41	庚子
1360	2974	641	698	義慈	辛丑
1359	2975	642	699	2	壬寅
1358	2976	643	700	3	癸卯
1357	2977	644	701	4	甲辰
1356	2978	645	702	5	乙巳
1355	2979	646	703	6	丙午
1354	2980	647	704	7	丁未
1353	2981	648	705	8	戊申
1352	2982	649	706	9	己酉
1351	2983	650	707	10	庚戌
1350	2984	651	708	11	辛亥
1349	2985	652	709	12	壬子
1348	2986	653	710	13	癸丑
1347	2987	654	711	14	甲寅
1346	2988	655	712	15	乙卯
1345	2989	656	713	16	丙辰
1344	2990	657	714	17	丁巳
1343	2991	658	715	18	戊午
1342	2992	659	716	19	己未
1341	2993	660	717	20	庚申
1340	2994	661	718		辛酉
1339	2995	662	719		壬戌
1338	2996	663	72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1457	2877	544	601	22	甲子
1456	2878	545	602	23	乙丑
1455	2879	546	603	24	丙寅
1454	2880	547	604	25	丁卯
1453	2881	548	605	26	戊辰
1452	2882	549	606	27	己巳
1451	2883	550	607	28	庚午
1450	2884	551	608	29	辛未
1449	2885	552	609	30	壬申
1448	2886	553	610	31	癸酉
1447	2887	554	611	威德	甲戌
1446	2888	555	612	2	乙亥
1445	2889	556	613	3	丙子
1444	2890	557	614	4	丁丑
1443	2891	558	615	5	戊寅
1442	2892	559	616	6	己卯
1441	2893	560	617	7	庚辰
1440	2894	561	618	8	辛巳
1439	2895	562	619	9	壬午
1438	2896	563	620	10	癸未
1437	2897	564	621	11	甲申
1436	2898	565	622	12	乙酉
1435	2899	566	623	13	丙戌
1434	2900	567	624	14	丁亥
1433	2901	568	625	15	戊子
1432	2902	569	626	16	己丑
1431	2903	570	627	17	庚寅
1430	2904	571	628	18	辛卯
1429	2905	572	629	19	壬辰
1428	2906	573	630	20	癸巳
1427	2907	574	631	21	甲午
1426	2908	575	632	22	乙未
1425	2909	576	633	23	丙申
1424	2910	577	634	24	丁酉
1423	2911	578	635	25	戊戌
1422	2912	579	636	26	己亥
1421	2913	580	637	27	庚子
1420	2914	581	638	28	辛丑
1419	2915	582	639	29	壬寅
1418	2916	583	640	30	癸卯
1417	2917	584	641	31	甲辰
1416	2918	585	642	32	乙巳
1415	2919	586	643	33	丙午
1414	2920	587	644	34	丁未
1413	2921	588	645	35	戊申
1412	2922	589	646	36	己酉
1411	2923	590	647	37	庚戌
1410	2924	591	648	38	辛亥
1409	2925	592	649	39	壬子
1408	2926	593	650	40	癸丑
1407	2927	594	651	41	甲寅
1406	2928	595	652	42	乙卯
1405	2929	596	653	43	丙辰
1404	2930	597	654	44	丁巳
1403	2931	598	655	惠王	戊午
1402	2932	599	656	法王	己未
1401	2933	600	657	武王	庚申
1400	2934	601	658	2	辛酉
1399	2935	602	659	3	壬戌
1398	2936	603	660	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百濟	干支
1517	2817	484	541	6	甲子
1516	2818	485	542	7	乙丑
1515	2819	486	543	8	丙寅
1514	2820	487	544	9	丁卯
1513	2821	488	545	10	戊辰
1512	2822	489	546	11	己巳
1511	2823	490	547	12	庚午
1510	2824	491	548	13	辛未
1509	2825	492	549	14	壬申
1508	2826	493	550	15	癸酉
1507	2827	494	551	16	甲戌
1506	2828	495	552	17	乙亥
1505	2829	496	553	18	丙子
1504	2830	497	554	19	丁丑
1503	2831	498	555	20	戊寅
1502	2832	499	556	21	己卯
1501	2833	500	557	22	庚辰
1500	2834	501	558	武寧	辛巳
1499	2835	502	559	2	壬午
1498	2836	503	560	3	癸未
1497	2837	504	561	4	甲申
1496	2838	505	562	5	乙酉
1495	2839	506	563	6	丙戌
1494	2840	507	564	7	丁亥
1493	2841	508	565	8	戊子
1492	2842	509	566	9	己丑
1491	2843	510	567	10	庚寅
1490	2844	511	568	11	辛卯
1489	2845	512	569	12	壬辰
1488	2846	513	570	13	癸巳
1487	2847	514	571	14	甲午
1486	2848	515	572	15	乙未
1485	2849	516	573	16	丙申
1484	2850	517	574	17	丁酉
1483	2851	518	575	18	戊戌
1482	2852	519	576	19	己亥
1481	2853	520	577	20	庚子
1480	2854	521	578	21	辛丑
1479	2855	522	579	22	壬寅
1478	2856	523	580	聖王	癸卯
1477	2857	524	581	2	甲辰
1476	2858	525	582	3	乙巳
1475	2859	526	583	4	丙午
1474	2860	527	584	5	丁未
1473	2861	528	585	6	戊申
1472	2862	529	586	7	己酉
1471	2863	530	587	8	庚戌
1470	2864	531	588	9	辛亥
1469	2865	532	589	10	壬子
1468	2866	533	590	11	癸丑
1467	2867	534	591	12	甲寅
1466	2868	535	592	13	乙卯
1465	2869	536	593	14	丙辰
1464	2870	537	594	15	丁巳
1463	2871	538	595	16	戊午
1462	2872	539	596	17	己未
1461	2873	540	597	18	庚申
1460	2874	541	598	19	辛酉
1459	2875	542	599	20	壬戌
1458	2876	543	600	21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1217	3117	784	841	48	甲子
1216	3118	785	842	49	乙丑
1215	3119	786	843	50	丙寅
1214	3120	787	844	51	丁卯
1213	3121	788	845	52	戊辰
1212	3122	789	846	53	己巳
1211	3123	790	847	54	庚午
1210	3124	791	848	55	辛未
1209	3125	792	849	56	壬申
1208	3126	793	850	廢王 元義	癸酉
1207	3127	794	851	成王	甲戌
1206	3128	795	852	康王	乙亥
1205	3129	796	853	2	丙子
1204	3130	797	854	3	丁丑
1203	3131	798	855	4	戊寅
1202	3132	799	856	5	己卯
1201	3133	800	857	6	庚辰
1200	3134	801	858	7	辛巳
1199	3135	802	859	8	壬午
1198	3136	803	860	9	癸未
1197	3137	804	861	10	甲申
1196	3138	805	862	11	乙酉
1195	3139	806	863	12	丙戌
1194	3140	807	864	13	丁亥
1193	3141	808	865	14	戊子
1192	3142	809	866	定王	己丑
1191	3143	810	867	2	庚寅
1190	3144	811	868	3	辛卯
1189	3145	812	869	4	壬辰
1188	3146	813	870	僖王	癸巳
1187	3147	814	871	2	甲午
1186	3148	815	872	3	乙未
1185	3149	816	873	4	丙申
1184	3150	817	874	簡王	丁酉
1183	3151	818	875	宣王	戊戌
1182	3152	819	876	2	己亥
1181	3153	820	877	3	庚子
1180	3154	821	878	4	辛丑
1179	3155	822	879	5	壬寅
1178	3156	823	880	6	癸卯
1177	3157	824	881	7	甲辰
1176	3158	825	882	8	乙巳
1175	3159	826	883	9	丙午
1174	3160	827	884	10	丁未
1173	3161	828	885	11	戊申
1172	3162	829	886	12	己酉
1171	3163	830	887	彝震	庚戌
1170	3164	831	888	2	辛亥
1169	3165	832	889	3	壬子
1168	3166	833	890	4	癸丑
1167	3167	834	891	5	甲寅
1166	3168	835	892	6	乙卯
1165	3169	836	893	7	丙辰
1164	3170	837	894	8	丁巳
1163	3171	838	895	9	戊午
1162	3172	839	896	10	己未
1161	3173	840	897	11	庚申
1160	3174	841	898	12	辛酉
1159	3175	842	899	13	壬戌
1158	3176	843	900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1277	3057	724	781	6	甲子
1276	3058	725	782	7	乙丑
1275	3059	726	783	8	丙寅
1274	3060	727	784	9	丁卯
1273	3061	728	785	10	戊辰
1272	3062	729	786	11	己巳
1271	3063	730	787	12	庚午
1270	3064	731	788	13	辛未
1269	3065	732	789	14	壬申
1268	3066	733	790	15	癸酉
1267	3067	734	791	16	甲戌
1266	3068	735	792	17	乙亥
1265	3069	736	793	18	丙子
1264	3070	737	794	文王	丁丑
1263	3071	738	795	大興	戊寅
1262	3072	739	796	3	己卯
1261	3073	740	797	4	庚辰
1260	3074	741	798	5	辛巳
1259	3075	742	799	6	壬午
1258	3076	743	800	7	癸未
1257	3077	744	801	8	甲申
1256	3078	745	802	9	乙酉
1255	3079	746	803	10	丙戌
1254	3080	747	804	11	丁亥
1253	3081	748	805	12	戊子
1252	3082	749	806	13	己丑
1251	3083	750	807	14	庚寅
1250	3084	751	808	15	辛卯
1249	3085	752	809	16	壬辰
1248	3086	753	810	17	癸巳
1247	3087	754	811	18	甲午
1246	3088	755	812	19	乙未
1245	3089	756	813	20	丙申
1244	3090	757	814	21	丁酉
1243	3091	758	815	22	戊戌
1242	3092	759	816	23	己亥
1241	3093	760	817	24	庚子
1240	3094	761	818	25	辛丑
1239	3095	762	819	26	壬寅
1238	3096	763	820	27	癸卯
1237	3097	764	821	28	甲辰
1236	3098	765	822	29	乙巳
1235	3099	766	823	30	丙午
1234	3100	767	824	31	丁未
1233	3101	768	825	32	戊申
1232	3102	769	826	33	己酉
1231	3103	770	827	34	庚戌
1230	3104	771	828	35	辛亥
1229	3105	772	829	36	壬子
1228	3106	773	830	37	癸丑
1227	3107	774	831	38	甲寅
1226	3108	775	832	39	乙卯
1225	3109	776	833	40	丙辰
1224	3110	777	834	41	丁巳
1223	3111	778	835	42	戊午
1222	3112	779	836	43	己未
1221	3113	780	837	44	庚申
1220	3114	781	838	45	辛酉
1219	3115	782	839	46	壬戌
1218	3116	783	840	47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1337	2997	664	721		甲子
1336	2998	665	722		乙丑
1335	2999	666	723		丙寅
1334	3000	667	724		丁卯
1333	3001	668	725		戊辰
1332	3002	669	726		己巳
1331	3003	670	727		庚午
1330	3004	671	728		辛未
1329	3005	672	729		壬申
1328	3006	673	730		癸酉
1327	3007	674	731		甲戌
1326	3008	675	732		乙亥
1325	3009	676	733		丙子
1324	3010	677	734		丁丑
1323	3011	678	735		戊寅
1322	3012	679	736		己卯
1321	3013	680	737		庚辰
1320	3014	681	738		辛巳
1319	3015	682	739		壬午
1318	3016	683	740		癸未
1317	3017	684	741		甲申
1316	3018	685	742		乙酉
1315	3019	686	743		丙戌
1314	3020	687	744		丁亥
1313	3021	688	745		戊子
1312	3022	689	746		己丑
1311	3023	690	747		庚寅
1310	3024	691	748		辛卯
1309	3025	692	749		壬辰
1308	3026	693	750		癸巳
1307	3027	694	751		甲午
1306	3028	695	752		乙未
1305	3029	696	753		丙申
1304	3030	697	754		丁酉
1303	3031	698	755		戊戌
1302	3032	699	756	高王（建國）	己亥
1301	3033	700	757	2	庚子
1300	3034	701	758	3	辛丑
1299	3035	702	759	4	壬寅
1298	3036	703	760	5	癸卯
1297	3037	704	761	6	甲辰
1296	3038	705	762	7	乙巳
1295	3039	706	763	8	丙午
1294	3040	707	764	9	丁未
1293	3041	708	765	10	戊申
1292	3042	709	766	11	己酉
1291	3043	710	767	12	庚戌
1290	3044	711	768	13	辛亥
1289	3045	712	769	14	壬子
1288	3046	713	770	15	癸丑
1287	3047	714	771	16	甲寅
1286	3048	715	772	17	乙卯
1285	3049	716	773	18	丙辰
1284	3050	717	774	19	丁巳
1283	3051	718	775	20	戊午
1282	3052	719	776	武王	己未
1281	3053	720	777	仁安	庚申
1280	3054	721	778	3	辛酉
1279	3055	722	779	4	壬戌
1278	3056	723	780	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1037	3297	964	乾德	光宗	甲子
1036	3298	965	2	16	乙丑
1035	3299	966	3	17	丙寅
1034	3300	967	4	18	丁卯
1033	3301	968	寶開	19	戊辰
1032	3302	969	2	20	己巳
1031	3303	970	3	21	庚午
1030	3304	971	4	22	辛未
1029	3305	972	5	23	壬申
1028	3306	973	6	24	癸酉
1027	3307	974	7	25	甲戌
1026	3308	975	8	26	乙亥
1025	3309	976	太宗	景宗	丙子
1024	3310	977	興國	2	丁丑
1023	3311	978	3	3	戊寅
1022	3312	979	4	4	己卯
1021	3313	980	5	5	庚辰
1020	3314	981	6	6	辛巳
1019	3315	982	7	成宗	壬午
1018	3316	983	8	2	癸未
1017	3317	984	雍熙	3	甲申
1016	3318	985	2	4	乙酉
1015	3319	986	3	5	丙戌
1014	3320	987	4	6	丁亥
1013	3321	988	端拱	7	戊子
1012	3322	989	2	8	己丑
1011	3323	990	淳化	9	庚寅
1010	3324	991	2	10	辛卯
1009	3325	992	3	11	壬辰
1008	3326	993	4	12	癸巳
1007	3327	994	5	13	甲午
1006	3328	995	至道	14	乙未
1005	3329	996	2	15	丙申
1004	3330	997	3	16	丁酉
1003	3331	998	眞平	穆宗	戊戌
1002	3332	999	咸平	2	己亥
1001	3333	1000	3	3	庚子
1000	3334	1001	4	4	辛丑
999	3335	1002	5	5	壬寅
998	3336	1003	6	6	癸卯
997	3337	1004	景德	7	甲辰
996	3338	1005	2	8	乙巳
995	3339	1006	3	9	丙午
994	3340	1007	4	10	丁未
993	3341	1008	祥符	11	戊申
992	3342	1009	2	12	己酉
991	3343	1010	3	顯宗	庚戌
990	3344	1011	4	2	辛亥
989	3345	1012	5	3	壬子
988	3346	1013	6	4	癸丑
987	3347	1014	7	5	甲寅
986	3348	1015	8	6	乙卯
985	3349	1016	9	7	丙辰
984	3350	1017	天禧	8	丁巳
983	3351	1018	2	9	戊午
982	3352	1019	3	10	己未
981	3353	1020	4	11	庚申
980	3354	1021	5	12	辛酉
979	3355	1022	仁宗	13	壬戌
978	3356	1023	大聖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高麗	干支
1097	3237	904	961	4	甲子
1096	3238	905	962	5	乙丑
1095	3239	906	963	6	丙寅
1094	3240	907	964	7	丁卯
1093	3241	908	965	8	戊辰
1092	3242	909	966	9	己巳
1091	3243	910	967	10	庚午
1090	3244	911	968	11	辛未
1089	3245	912	969	12	壬申
1088	3246	913	970	13	癸酉
1087	3247	914	971	14	甲戌
1086	3248	915	972	15	乙亥
1085	3249	916	973	16	丙子
1084	3250	917	974	17	丁丑
1083	3251	918	975	高麗	戊寅
1082	3252	919	976	太祖	己卯
1081	3253	920	977	3	庚辰
1080	3254	921	978	4	辛巳
1079	3255	922	979	5	壬午
1078	3256	923	980	6	癸未
1077	3257	924	981	7	甲申
1076	3258	925	982	8	乙酉
1075	3259	926	983	9	丙戌
1074	3260	927	984	10	丁亥
1073	3261	928	985	11	戊子
1072	3262	929	986	12	己丑
1071	3263	930	987	13	庚寅
1070	3264	931	988	14	辛卯
1069	3265	932	989	15	壬辰
1068	3266	933	990	16	癸巳
1067	3267	934	991	17	甲午
1066	3268	935	992	18	乙未
1065	3269	936	後晋	19	丙申
1064	3270	937	天福	20	丁酉
1063	3271	938	3	21	戊戌
1062	3272	939	4	22	己亥
1061	3273	940	5	23	庚子
1060	3274	941	6	24	辛丑
1059	3275	942	7	25	壬寅
1058	3276	943	8	26	癸卯
1057	3277	944	開運	惠宗	甲辰
1056	3278	945	2	2	乙巳
1055	3279	946	3	定宗	丙午
1054	3280	947	後漢	2	丁未
1053	3281	948	高祖	3	戊申
1052	3282	949	3	4	己酉
1051	3283	950	隱帝	光宗	庚戌
1050	3284	951	後周	2	辛亥
1049	3285	952	太祖	3	壬子
1048	3286	953	3	4	癸丑
1047	3287	954	顯德	5	甲寅
1046	3288	955	2	6	乙卯
1045	3289	956	3	7	丙辰
1044	3290	957	4	8	丁巳
1043	3291	958	5	9	戊午
1042	3292	959	6	10	己未
1041	3293	960	北宋	11	庚申
1040	3294	961	太祖4	12	辛酉
1039	3295	962	建隆5	13	壬戌
1038	3296	963	乾德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新羅	渤海	干支
1157	3177	844	901	15	甲子
1156	3178	845	902	16	乙丑
1155	3179	846	903	17	丙寅
1154	3180	847	904	18	丁卯
1153	3181	848	905	19	戊辰
1152	3182	849	906	20	己巳
1151	3183	850	907	21	庚午
1150	3184	851	908	22	辛未
1149	3185	852	909	23	壬申
1148	3186	853	910	24	癸酉
1147	3187	854	911	25	甲戌
1146	3188	855	912	26	乙亥
1145	3189	856	913	27	丙子
1144	3190	857	914	28	丁丑
1143	3191	858	915	虔晃	戊寅
1142	3192	859	916	2	己卯
1141	3193	860	917	3	庚辰
1140	3194	861	918	4	辛巳
1139	3195	862	919	5	壬午
1138	3196	863	920	6	癸未
1137	3197	864	921	7	甲申
1136	3198	865	922	8	乙酉
1135	3199	866	923	9	丙戌
1134	3200	867	924	10	丁亥
1133	3201	868	925	11	戊子
1132	3202	869	926	12	己丑
1131	3203	870	927	景王	庚寅
1130	3204	871	928	2	辛卯
1129	3205	872	929	3	壬辰
1128	3206	873	930	4	癸巳
1127	3207	874	931	5	甲午
1126	3208	875	932	6	乙未
1125	3209	876	933	7	丙申
1124	3210	877	934	8	丁酉
1123	3211	878	935	9	戊戌
1122	3212	879	936	10	己亥
1121	3213	880	937	11	庚子
1120	3214	881	938	12	辛丑
1119	3215	882	939	13	壬寅
1118	3216	883	940	14	癸卯
1117	3217	884	941	15	甲辰
1116	3218	885	942	16	乙巳
1115	3219	886	943	17	丙午
1114	3220	887	944	18	丁未
1113	3221	888	945	19	戊申
1112	3222	889	946	20	己酉
1111	3223	890	947	21	庚戌
1110	3224	891	948	22	辛亥
1109	3225	892	949	23	壬子
1108	3226	893	950	瑋瑎	癸丑
1107	3227	894	951	25	甲寅
1106	3228	895	952	26	乙卯
1105	3229	896	953	27	丙辰
1104	3230	897	954	28	丁巳
1103	3231	898	955	29	戊午
1102	3232	899	956	30	己未
1101	3233	900	957	31	庚申
1100	3234	901	958	哀王	辛酉
1099	3235	902	959	2	壬戌
1098	3236	903	960	3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857	3477	1144	高宗	仁宗	甲子
856	3478	1145	紹興	23	乙丑
855	3479	1146	16	24	丙寅
854	3480	1147	17	毅宗	丁卯
853	3481	1148	18	2	戊辰
852	3482	1149	19	3	己巳
851	3483	1150	20	4	庚午
850	3484	1151	21	5	辛未
849	3485	1152	22	6	壬申
848	3486	1153	23	7	癸酉
847	3487	1154	24	8	甲戌
846	3488	1155	25	9	乙亥
845	3489	1156	26	10	丙子
844	3490	1157	27	11	丁丑
843	3491	1158	28	12	戊寅
842	3492	1159	29	13	己卯
841	3493	1160	30	14	庚辰
840	3494	1161	31	15	辛巳
839	3495	1162	32	16	壬午
838	3496	1163	隆興	17	癸未
837	3497	1164	2	18	甲申
836	3498	1165	乾道	19	乙酉
835	3499	1166	2	20	丙戌
834	3500	1167	3	21	丁亥
833	3501	1168	4	22	戊子
832	3502	1169	5	23	己丑
831	3503	1170	6	24	庚寅
830	3504	1171	7	明宗	辛卯
829	3505	1172	8	2	壬辰
828	3506	1173	9	3	癸巳
827	3507	1174	淳熙	4	甲午
826	3508	1175	2	5	乙未
825	3509	1176	3	6	丙申
824	3510	1177	4	7	丁酉
823	3511	1178	5	8	戊戌
822	3512	1179	6	9	己亥
821	3513	1180	7	10	庚子
820	3514	1181	8	11	辛丑
819	3515	1182	9	12	壬寅
818	3516	1183	10	13	癸卯
817	3517	1184	11	14	甲辰
816	3518	1185	12	15	乙巳
815	3519	1186	13	16	丙午
814	3520	1187	14	17	丁未
813	3521	1188	15	18	戊申
812	3522	1189	16	19	己酉
811	3523	1190	光宗	20	庚戌
810	3524	1191	紹熙	21	辛亥
809	3525	1192	3	22	壬子
808	3526	1193	4	23	癸丑
807	3527	1194	5	24	甲寅
806	3528	1195	寧宗	25	乙卯
805	3529	1196	慶元	26	丙辰
804	3530	1197	3	27	丁巳
803	3531	1198	4	神宗	戊午
802	3532	1199	5	2	己未
801	3533	1200	6	3	庚申
800	3534	1201	嘉泰	4	辛酉
799	3535	1202	2	5	壬戌
798	3536	1203	3	6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917	3417	1084	7	宣宗	甲子
916	3418	1085	8	2	乙丑
915	3419	1086	哲宗	3	丙寅
914	3420	1087	元祐	4	丁卯
913	3421	1088	3	5	戊辰
912	3422	1089	4	6	己巳
911	3423	1090	5	7	庚午
910	3424	1091	6	8	辛未
909	3425	1092	7	9	壬申
908	3426	9193	8	10	癸酉
907	3427	1094	紹聖	11	甲戌
906	3428	1095	2	獻宗	乙亥
905	3429	1096	3	肅宗	丙子
904	3430	1097	4	2	丁丑
903	3431	1098	元符	3	戊寅
902	3432	1099	2	4	己卯
901	3433	1100	3	5	庚辰
900	3434	1101	徽宗	6	辛巳
899	3435	1102	崇寧	7	壬午
898	3436	1103	2	8	癸未
897	3437	1104	3	9	甲申
896	3438	1105	4	10	乙酉
895	3439	1106	5	睿宗	丙戌
894	3440	1107	大觀	2	丁亥
893	3441	1108	2	3	戊子
892	3442	1109	3	4	己丑
891	3443	1110	4	5	庚寅
890	3444	1111	政和	6	辛卯
889	3445	1112	2	7	壬辰
888	3446	1113	3	8	癸巳
887	3447	1114	4	9	甲午
886	3448	1115	5	10	乙未
885	3449	1116	6	11	丙申
884	3450	1117	7	12	丁酉
883	3451	1118	重和	13	戊戌
882	3452	1119	宣和	14	己亥
881	3453	1120	2	15	庚子
880	3454	1121	3	16	辛丑
879	3455	1122	4	17	壬寅
878	3456	1123	5	仁宗	癸卯
877	3457	1124	6	2	甲辰
876	3458	1125	7	3	乙巳
875	3459	1126	靖康	4	丙午
874	3460	1127	高宗	5	丁未
873	3461	1128	建炎	6	戊申
872	3462	1129	3	7	己酉
871	3463	1130	4	8	庚戌
870	3464	1131	紹興	9	辛亥
869	3465	1132	2	10	壬子
868	3466	1133	3	11	癸丑
867	3467	1134	4	12	甲寅
866	3468	1135	5	13	乙卯
865	3469	1136	6	14	丙辰
864	3470	1137	7	15	丁巳
863	3471	1138	8	16	戊午
862	3472	1139	9	17	己未
861	3473	1140	10	18	庚申
860	3474	1141	11	19	辛酉
859	3475	1142	12	20	壬戌
858	3476	1143	13	21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北宋	高麗	干支
977	3357	1024	仁宗	顯宗	甲子
976	3358	1025	天聖	16	乙丑
975	3359	1026	4	17	丙寅
974	3360	1027	5	18	丁卯
973	3361	1028	6	19	戊辰
972	3362	1029	7	20	己巳
971	3363	1030	8	21	庚午
970	3364	1031	9	22	辛未
969	3365	1032	明宗	德宗	壬申
968	3366	1033	2	2	癸酉
967	3367	1034	景祐	3	甲戌
966	3368	1035	2	靖宗	乙亥
965	3369	1036	3	2	丙子
964	3370	1037	4	3	丁丑
963	3371	1038	寶元	4	戊寅
962	3372	1039	2	5	己卯
961	3373	1040	康定	6	庚辰
960	3374	1041	曆慶	7	辛巳
959	3375	1042	2	8	壬午
958	3376	1043	3	9	癸未
957	3377	1044	4	10	甲申
956	3378	1045	5	11	乙酉
955	3379	1046	6	12	丙戌
954	3380	1047	7	文宗	丁亥
953	3381	1048	8	2	戊子
952	3382	1049	皇祐	3	己丑
951	3383	1050	2	4	庚寅
950	3384	1051	3	5	辛卯
949	3385	1052	4	6	壬辰
948	3386	1053	5	7	癸巳
947	3387	1054	至和	8	甲午
946	3388	1055	2	9	乙未
945	3389	1056	嘉祐	10	丙申
944	3390	1057	2	11	丁酉
943	3391	1058	3	12	戊戌
942	3392	1059	4	13	己亥
941	3393	1060	5	14	庚子
940	3394	1061	6	15	辛丑
939	3395	1062	7	16	壬寅
938	3396	1063	8	17	癸卯
937	3397	1064	英宗	18	甲辰
936	3398	1065	治平	19	乙巳
935	3399	1066	3	20	丙午
934	3400	1067	4	21	丁未
933	3401	1068	神宗	22	戊申
932	3402	1069	熙寧	23	己酉
931	3403	1070	3	24	庚戌
930	3404	1071	4	25	辛亥
929	3405	1072	5	26	壬子
928	3406	1073	6	27	癸丑
927	3407	1074	7	28	甲寅
926	3408	1075	8	29	乙卯
925	3409	1076	9	30	丙辰
924	3410	1077	10	31	丁巳
923	3411	1078	熙元	32	戊午
922	3412	1079	元豊	33	己未
921	3413	1080	3	34	庚申
920	3414	1081	4	35	辛酉
919	3415	1082	5	36	壬戌
918	3416	1083	6	順宗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元	高麗	干支
677	3657	1324	晋宗	忠肅	甲子
676	3658	1325	恭正	12	乙丑
675	3659	1326	3	13	丙寅
674	3660	1327	4	14	丁卯
673	3661	1328	致和	15	戊辰
672	3662	1329	天曆	16	己巳
671	3663	1330	文宗	17	庚午
670	3664	1331	至順	忠惠	辛未
669	3665	1332	寧宗	2	壬申
668	3666	1333	順帝	忠肅	癸酉
667	3667	1334	元統	2	甲戌
666	3668	1335	至元	3	乙亥
665	3669	1336	2	4	丙子
664	3670	1337	3	5	丁丑
663	3671	1338	4	6	戊寅
662	3672	1339	5	7	己卯
661	3673	1340	6	忠惠	庚辰
660	3674	1341	至正	2	辛巳
659	3675	1342	2	3	壬午
658	3676	1343	3	4	癸未
657	3677	1344	4	5	甲申
656	3678	1345	5	忠穆	乙酉
655	3679	1346	6	2	丙戌
654	3680	1347	7	3	丁亥
653	3681	1348	8	4	戊子
652	3682	1349	9	忠定	己丑
651	3683	1350	10	2	庚寅
650	3684	1351	11	3	辛卯
649	3685	1352	12	恭愍	壬辰
648	3686	1353	13	2	癸巳
647	3687	1354	14	3	甲午
646	3688	1355	15	4	乙未
645	3689	1356	16	5	丙申
644	3690	1357	17	6	丁酉
643	3691	1358	18	7	戊戌
642	3692	1359	19	8	己亥
641	3693	1360	20	9	庚子
640	3694	1361	21	10	辛丑
639	3695	1362	22	11	壬寅
638	3696	1363	23	12	癸卯
637	3697	1364	24	13	甲辰
636	3698	1365	25	14	乙巳
635	3699	1366	26	15	丙午
634	3700	1367	27	16	丁未
633	3701	1368	明	17	戊申
632	3702	1369	太祖	18	己酉
631	3703	1370	洪武	19	庚戌
630	3704	1371	4	20	辛亥
629	3705	1372	5	21	壬子
628	3706	1373	6	22	癸丑
627	3707	1374	7	23	甲寅
626	3708	1375	8	禑王	乙卯
625	3709	1376	9	2	丙辰
624	3710	1377	10	3	丁巳
623	3711	1378	11	4	戊午
622	3712	1379	12	5	己未
621	3713	1380	13	6	庚申
620	3714	1381	14	7	辛酉
619	3715	1382	15	8	壬戌
618	3716	1383	16	9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宋元	高麗	干支
737	3597	1264	景宗	元宗	甲子
736	3598	1265	度宗	6	乙丑
735	3599	1266	咸淳	7	丙寅
734	3600	1267	3	8	丁卯
733	3601	1268	4	9	戊辰
732	3602	1269	5	10	己巳
731	3603	1270	6	11	庚午
730	3604	1271	7	12	辛未
729	3605	1272	8	13	壬申
728	3606	1273	9	14	癸酉
727	3607	1274	10	15	甲戌
726	3608	1275	德祐	忠烈	乙亥
725	3609	1276	景炎	2	丙子
724	3610	1277	2	3	丁丑
723	3611	1278	衛王	4	戊寅
722	3612	1279	2	5	己卯
721	3613	1280	元	6	庚辰
720	3614	1281	世祖	7	辛巳
719	3615	1282	至元	8	壬午
718	3616	1283	4	9	癸未
717	3617	1284	5	10	甲申
716	3618	1285	6	11	乙酉
715	3619	1286	7	12	丙戌
714	3620	1287	8	13	丁亥
713	3621	1288	9	14	戊子
712	3622	1289	10	15	己丑
711	3623	1290	11	16	庚寅
710	3624	1291	12	17	辛卯
709	3625	1292	13	18	壬辰
708	3626	1293	14	19	癸巳
707	3627	1294	15	20	甲午
706	3628	1295	成宗	21	乙未
705	3629	1296	元貞	22	丙申
704	3630	1297	大德	23	丁酉
703	3631	1298	2	24	戊戌
702	3632	1299	3	25	己亥
701	3633	1300	4	26	庚子
700	3634	1301	5	27	辛丑
699	3635	1302	6	28	壬寅
698	3636	1303	7	29	癸卯
697	3637	1304	8	30	甲辰
696	3638	1305	9	31	乙巳
695	3639	1306	10	32	丙午
694	3640	1307	11	33	丁未
693	3641	1308	武宗	34	戊申
692	3642	1309	至大	忠宣	己酉
691	3643	1310	3	2	庚戌
690	3644	1311	4	3	辛亥
689	3645	1312	仁宗	4	壬子
688	3646	1313	皇慶	5	癸丑
687	3647	1314	延祐	忠肅	甲寅
686	3648	1315	2	2	乙卯
685	3649	1316	3	3	丙辰
684	3650	1317	4	4	丁巳
683	3651	1318	5	5	戊午
682	3652	1319	6	6	己未
681	3653	1320	7	7	庚申
680	3654	1321	英宗	8	辛酉
679	3655	1322	至治	9	壬戌
678	3656	1323	3	10	癸亥

年數	檀紀	西紀	南宋	高麗	干支
797	3537	1204	嘉泰	神宗	甲子
796	3538	1205	開禧	熙宗	乙丑
795	3539	1206	2	2	丙寅
794	3540	1207	3	3	丁卯
793	3541	1208	嘉定	4	戊辰
792	3542	1209	2	5	己巳
791	3543	1210	3	6	庚午
790	3544	1211	4	7	辛未
789	3545	1212	5	康宗	壬申
788	3546	1213	6	2	癸酉
787	3547	1214	7	高宗	甲戌
786	3548	1215	8	2	乙亥
785	3549	1216	9	3	丙子
784	3550	1217	10	4	丁丑
783	3551	1218	11	5	戊寅
782	3552	1219	12	6	己卯
781	3553	1220	13	7	庚辰
780	3554	1221	14	8	辛巳
779	3555	1222	15	9	壬午
778	3556	1223	16	10	癸未
777	3557	1224	17	11	甲申
776	3558	1225	理宗	12	乙酉
775	3559	1226	寶慶	13	丙戌
774	3560	1227	3	14	丁亥
773	3561	1228	紹定	15	戊子
772	3562	1229	2	16	己丑
771	3563	1230	3	17	庚寅
770	3564	1231	4	18	辛卯
769	3565	1232	5	19	壬辰
768	3566	1233	6	20	癸巳
767	3567	1234	端平	21	甲午
766	3568	1235	2	22	乙未
765	3569	1236	3	23	丙申
764	3570	1237	嘉熙	24	丁酉
763	3571	1238	2	25	戊戌
762	3572	1239	3	26	己亥
761	3573	1240	4	27	庚子
760	3574	1241	淳祐	28	辛丑
759	3575	1242	2	29	壬寅
758	3576	1243	3	30	癸卯
757	3577	1244	4	31	甲辰
756	3578	1245	5	32	乙巳
755	3579	1246	6	33	丙午
754	3580	1247	7	34	丁未
753	3581	1248	8	35	戊申
752	3582	1249	9	36	己酉
751	3583	1250	10	37	庚戌
750	3584	1251	11	38	辛亥
749	3585	1252	12	39	壬子
748	3586	1253	寶祐	40	癸丑
747	3587	1254	2	41	甲寅
746	3588	1255	3	42	乙卯
745	3589	1256	4	43	丙辰
744	3590	1257	5	44	丁巳
743	3591	1258	6	45	戊午
742	3592	1259	開慶	46	己未
741	3593	1260	景宗	元宗	庚申
740	3594	1261	2	2	辛酉
739	3595	1262	3	3	壬戌
738	3596	1263	4	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497	3837	1504	弘治	燕山	甲子
496	3838	1505	18	11	乙丑
495	3839	1506	武宗	中宗	丙寅
494	3840	1507	正德	2	丁卯
493	3841	1508	3	3	戊辰
492	3842	1509	4	4	己巳
491	3843	1510	5	5	庚午
490	3844	1511	6	6	辛未
489	3845	1512	7	7	壬申
488	3846	1513	8	8	癸酉
487	3847	1514	9	9	甲戌
486	3848	1515	10	10	乙亥
485	3849	1516	11	11	丙子
484	3850	1517	12	12	丁丑
483	3851	1518	13	13	戊寅
482	3852	1519	14	14	己卯
481	3853	1520	15	15	庚辰
480	3854	1521	16	16	辛巳
479	3855	1522	世宗	17	壬午
478	3856	1523	嘉靖	18	癸未
477	3857	1524	3	19	甲申
476	3858	1525	4	20	乙酉
475	3859	1526	5	21	丙戌
474	3860	1527	6	22	丁亥
473	3861	1528	7	23	戊子
472	3862	1529	8	24	己丑
471	3863	1530	9	25	庚寅
470	3864	1531	10	26	辛卯
469	3865	1532	11	27	壬辰
468	3866	1533	12	28	癸巳
467	3867	1534	13	29	甲午
466	3868	1535	14	30	乙未
465	3869	1536	15	31	丙申
464	3870	1537	16	32	丁酉
463	3871	1538	17	33	戊戌
462	3872	1539	18	34	己亥
461	3873	1540	19	35	庚子
460	3874	1541	20	36	辛丑
459	3875	1542	21	37	壬寅
458	3876	1543	22	38	癸卯
457	3877	1544	23	39	甲辰
456	3878	1545	24	仁宗	乙巳
455	3879	1546	25	明宗	丙午
454	3880	1547	26	2	丁未
453	3881	1548	27	3	戊申
452	3882	1549	28	4	己酉
451	3883	1550	29	5	庚戌
450	3884	1551	30	6	辛亥
449	3885	1552	31	7	壬子
448	3886	1553	32	8	癸丑
447	3887	1554	33	9	甲寅
446	3888	1555	34	10	乙卯
445	3889	1556	35	11	丙辰
444	3890	1557	36	12	丁巳
443	3891	1558	37	13	戊午
442	3892	1559	38	14	己未
441	3893	1560	39	15	庚申
440	3894	1561	40	16	辛酉
439	3895	1562	41	17	壬戌
438	3896	1563	42	18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557	3777	1444	正統	世宗	甲子
556	3778	1445	10	27	乙丑
555	3779	1446	11	28	丙寅
554	3780	1447	12	29	丁卯
553	3781	1448	13	30	戊辰
552	3782	1449	14	31	己巳
551	3783	1450	景泰	32	庚午
550	3784	1451	景宗	文宗	辛未
549	3785	1452	3	2	壬申
548	3786	1453	4	端宗	癸酉
547	3787	1454	5	2	甲戌
546	3788	1455	6	世祖	乙亥
545	3789	1456	7	2	丙子
544	3790	1457	英宗	3	丁丑
543	3791	1458	天順	4	戊寅
542	3792	1459	3	5	己卯
541	3793	1460	4	6	庚辰
540	3794	1461	5	7	辛巳
539	3795	1462	6	8	壬午
538	3796	1463	7	9	癸未
537	3797	1464	8	10	甲申
536	3798	1465	憲宗	11	乙酉
535	3799	1466	成化	12	丙戌
534	3800	1467	3	13	丁亥
533	3801	1468	4	14	戊子
532	3802	1469	5	睿宗	己丑
531	3803	1470	6	成宗	庚寅
530	3804	1471	7	2	辛卯
529	3805	1472	8	3	壬辰
528	3806	1473	9	4	癸巳
527	3807	1474	10	5	甲午
526	3808	1475	11	6	乙未
525	3809	1476	12	7	丙申
524	3810	1477	13	8	丁酉
523	3811	1478	14	9	戊戌
522	3812	1479	15	10	己亥
521	3813	1480	16	11	庚子
520	3814	1481	17	12	辛丑
519	3815	1482	18	13	壬寅
518	3816	1483	19	14	癸卯
517	3817	1484	20	15	甲辰
516	3818	1485	21	16	乙巳
515	3819	1486	22	17	丙午
514	3820	1487	23	18	丁未
513	3821	1488	孝宗	19	戊申
512	3822	1489	弘治	20	己酉
511	3823	1490	3	21	庚戌
510	3824	1491	4	22	辛亥
509	3825	1492	5	23	壬子
508	3826	1493	6	24	癸丑
507	3827	1494	7	25	甲寅
506	3828	1495	8	燕山	乙卯
505	3829	1496	9	2	丙辰
504	3830	1497	10	3	丁巳
503	3831	1498	11	4	戊午
502	3832	1499	12	5	己未
501	3833	1500	13	6	庚申
500	3834	1501	14	7	辛酉
499	3835	1502	15	8	壬戌
498	3836	1503	16	9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617	3717	1384	洪武	禑王	甲子
616	3718	1385	18	11	乙丑
615	3719	1386	19	12	丙寅
614	3720	1387	20	13	丁卯
613	3721	1388	21	14	戊辰
612	3722	1389	22	昌王	己巳
611	3723	1390	23	恭讓	庚午
610	3724	1391	24	3	辛未
609	3725	1392	25	李朝	壬申
608	3726	1393	26	太祖	癸酉
607	3727	1394	27	3	甲戌
606	3728	1395	28	4	乙亥
605	3729	1396	29	5	丙子
604	3730	1397	30	6	丁丑
603	3731	1398	31	7	戊寅
602	3732	1399	惠宗	定宗	己卯
601	3733	1400	建文	2	庚辰
600	3734	1401	3	太宗	辛巳
599	3735	1402	4	2	壬午
598	3736	1403	太宗	3	癸未
597	3737	1404	永樂	4	甲申
596	3738	1405	3	5	乙酉
595	3739	1406	4	6	丙戌
594	3740	1407	5	7	丁亥
593	3741	1408	6	8	戊子
592	3742	1409	7	9	己丑
591	3743	1410	8	10	庚寅
590	3744	1411	9	11	辛卯
589	3745	1412	10	12	壬辰
588	3746	1413	11	13	癸巳
587	3747	1414	12	14	甲午
586	3748	1415	13	15	乙未
585	3749	1416	14	16	丙申
584	3750	1417	15	17	丁酉
583	3751	1418	16	18	戊戌
582	3752	1419	17	世宗	己亥
581	3753	1420	18	2	庚子
580	3754	1421	19	3	辛丑
579	3755	1422	20	4	壬寅
578	3756	1423	21	5	癸卯
577	3757	1424	22	6	甲辰
576	3758	1425	洪熙	7	乙巳
575	3759	1426	宣宗	8	丙午
574	3760	1427	宣德	9	丁未
573	3761	1428	3	10	戊申
572	3762	1429	4	11	己酉
571	3763	1430	5	12	庚戌
570	3764	1431	6	13	辛亥
569	3765	1432	7	14	壬子
568	3766	1433	8	15	癸丑
567	3767	1434	9	16	甲寅
566	3768	1435	10	17	乙卯
565	3769	1436	英宗	18	丙辰
564	3770	1437	正統	1	丁巳
563	3771	1438	3	20	戊午
562	3772	1439	4	21	己未
561	3773	1440	5	22	庚申
560	3774	1441	6	23	辛酉
559	3775	1442	7	24	壬戌
558	3776	1443	8	25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淸	朝鮮	干支
317	4017	1684	康熙	肅宗	甲子
316	4018	1685	24	11	乙丑
315	4019	1686	25	12	丙寅
314	4020	1687	26	13	丁卯
313	4021	1688	27	14	戊辰
312	4022	1689	28	15	己巳
311	4023	1690	29	16	庚午
310	4024	1691	30	17	辛未
309	4025	1692	31	18	壬申
308	4026	1693	32	19	癸酉
307	4027	1694	33	20	甲戌
306	4028	1695	34	21	乙亥
305	4029	1696	35	22	丙子
304	4030	1697	36	23	丁丑
303	4031	1698	37	24	戊寅
302	4032	1699	38	25	己卯
301	4033	1700	39	26	庚辰
300	4034	1701	40	27	辛巳
299	4035	1702	41	28	壬午
298	4036	1703	42	29	癸未
297	4037	1704	43	30	甲申
296	4038	1705	44	31	乙酉
295	4039	1706	45	32	丙戌
294	4040	1707	46	33	丁亥
293	4041	1708	47	34	戊子
292	4042	1709	48	35	己丑
291	4043	1710	49	36	庚寅
290	4044	1711	50	37	辛卯
289	4045	1712	51	38	壬辰
288	4046	1713	52	39	癸巳
287	4047	1714	53	40	甲午
286	4048	1715	54	41	乙未
285	4049	1716	55	42	丙申
284	4050	1717	56	43	丁酉
283	4051	1718	57	44	戊戌
282	4052	1719	58	45	己亥
281	4053	1720	59	46	庚子
280	4054	1721	60	景宗	辛丑
279	4055	1722	61	2	壬寅
278	4056	1723	世宗	3	癸卯
277	4057	1724	雍正	4	甲辰
276	4058	1725	3	英祖	乙巳
275	4059	1726	4	2	丙午
274	4060	1727	5	3	丁未
273	4061	1728	6	4	戊申
272	4062	1729	7	5	己酉
271	4063	1730	8	6	庚戌
270	4064	1731	9	7	辛亥
269	4065	1731	10	8	壬子
268	4066	1732	11	9	癸丑
267	4067	1734	12	10	甲寅
266	4068	1735	13	11	乙卯
265	4069	1736	高宗	12	丙辰
264	4070	1737	乾隆	13	丁巳
263	4071	1738	3	14	戊午
262	4072	1739	4	15	己未
261	4073	1740	5	16	庚申
260	4074	1741	6	17	辛酉
259	4075	1742	7	18	壬戌
258	4076	1743	8	19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淸明	朝鮮	干支
377	3957	1624	天啓	仁祖	甲子
376	3958	1625	5	3	乙丑
375	3959	1626	6	4	丙寅
374	3960	1627	7	5	丁卯
373	3961	1628	毅宗	6	戊辰
372	3692	1629	崇禎	7	己巳
371	3693	1630	3	8	庚午
370	3964	1631	4	9	辛未
369	3965	1632	5	10	壬申
368	3966	1633	6	11	癸酉
367	3967	1634	7	12	甲戌
366	3968	1635	8	13	乙亥
365	3969	1636	9	14	丙子
364	3970	1637	10	15	丁丑
363	3971	1638	11	16	戊寅
362	3972	1639	12	17	己卯
361	3973	1640	13	18	庚辰
360	3974	1641	14	19	辛巳
359	3975	1642	15	20	壬午
358	3976	1643	16	21	癸未
357	3977	1644	17	22	甲申
356	3978	1645	弘光	23	乙酉
355	3979	1646	隆武	24	丙戌
354	3980	1647	之曆	25	丁亥
353	3981	1648	永之	26	戊子
352	3982	1649	3	27	己丑
351	3983	1650	4	孝宗	庚寅
350	3984	1651	5	2	辛卯
349	3985	1652	6	3	壬辰
348	3986	1653	7	4	癸巳
347	3987	1654	8	5	甲午
346	3988	1655	9	6	乙未
345	3989	1656	10	7	丙申
344	3990	1657	11	8	丁酉
343	3991	1658	12	9	戊戌
342	3992	1659	13	10	己亥
341	3993	1660	14	顯宗	庚子
340	3994	1661	15	2	辛丑
339	3995	1662	淸	3	壬寅
338	3996	1663	聖祖 康熙	4	癸卯
337	3997	1664	3	5	甲辰
336	3998	1665	4	6	乙巳
335	3999	1666	5	7	丙午
334	4000	1667	6	8	丁未
333	4001	1668	7	9	戊申
332	4002	1669	8	10	己酉
331	4003	1670	9	11	庚戌
330	4004	1671	10	12	辛亥
329	4005	1672	11	13	壬子
328	4006	1673	12	14	癸丑
327	4007	1674	13	15	甲寅
326	4008	1675	14	肅宗	乙卯
325	4009	1676	15	2	丙辰
324	4010	1677	16	3	丁巳
323	4011	1678	17	4	戊午
322	4012	1679	18	5	己未
321	4013	1680	19	6	庚申
320	4014	1681	20	7	辛酉
319	4015	1682	21	8	壬戌
318	4016	1683	22	9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明	朝鮮	干支
437	3897	1564	嘉靖	明宗	甲子
436	3898	1565	44	20	乙丑
435	3899	1566	45	21	丙寅
434	3900	1567	穆宗	22	丁卯
433	3901	1568	隆慶	宣祖	戊辰
432	3902	1569	3	2	己巳
431	3903	1570	4	3	庚午
430	3904	1571	5	4	辛未
429	3905	1572	6	5	壬申
428	3906	1573	神宗	6	癸酉
427	3907	1574	萬曆	7	甲戌
426	3908	1575	3	8	乙亥
425	3909	1576	4	9	丙子
424	3910	1577	5	10	丁丑
423	3911	1578	6	11	戊寅
422	3912	1579	7	12	己卯
421	3913	1580	8	13	庚辰
420	3914	1581	9	14	辛巳
419	3915	1582	10	15	壬午
418	3916	1583	11	16	癸未
417	3917	1584	12	17	甲申
416	3918	1585	13	18	乙酉
415	3919	1586	14	19	丙戌
414	3920	1587	15	20	丁亥
413	3921	1588	16	21	戊子
412	3922	1589	17	22	己丑
411	3923	1590	18	23	庚寅
410	3924	1591	19	24	辛卯
409	3925	1592	20	25	壬辰
408	3926	1593	21	26	癸巳
407	3927	1594	22	27	甲午
406	3928	1595	23	28	乙未
405	3929	1596	24	29	丙申
404	3930	1597	25	30	丁酉
403	3931	1598	26	31	戊戌
402	3932	1599	27	32	己亥
401	3933	1600	28	33	庚子
400	3934	1601	29	34	辛丑
399	3935	1602	30	35	壬寅
398	3936	1603	31	36	癸卯
397	3937	1604	32	37	甲辰
396	3938	1605	33	38	乙巳
395	3939	1606	34	39	丙午
394	3940	1607	35	40	丁未
393	3941	1608	36	41	戊申
392	3942	1609	37	光海	己酉
391	3943	1610	38	2	庚戌
390	3944	1611	39	3	辛亥
389	3945	1612	40	4	壬子
388	3946	1613	41	5	癸丑
387	3947	1614	42	6	甲寅
386	3948	1615	43	7	乙卯
385	3949	1616	44	8	丙辰
384	3950	1617	45	9	丁巳
383	3951	1618	46	10	戊午
382	3952	1619	47	11	己未
381	3953	1620	光宗	12	庚申
380	3954	1621	泰昌	13	辛酉
379	3955	1622	熹宗	14	壬戌
378	3956	1623	天啓	仁祖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淸	朝鮮	干支
137	4197	1864	同治	高宗	甲子
136	4198	1865	4	2	乙丑
135	4199	1866	5	3	丙寅
134	4200	1867	6	4	丁卯
133	4201	1868	7	5	戊辰
132	4202	1869	8	6	己巳
131	4203	1870	9	7	庚午
130	4204	1871	10	8	辛未
129	4205	1872	11	9	壬申
128	4206	1873	12	10	癸酉
127	4207	1874	13	11	甲戌
126	4208	1875	德宗	12	乙亥
125	4209	1876	光緖	13	丙子
124	4210	1877	3	14	丁丑
123	4211	1878	4	15	戊寅
122	4212	1879	5	16	己卯
121	4213	1880	6	17	庚辰
120	4214	1881	7	18	辛巳
119	4215	1882	8	19	壬午
118	4216	1883	9	20	癸未
117	4217	1884	10	21	甲申
116	4218	1885	11	22	乙酉
115	4219	1886	12	23	丙戌
114	4220	1887	13	24	丁亥
113	4221	1888	14	25	戊子
112	4222	1889	15	26	己丑
111	4223	1890	16	27	庚寅
110	4224	1891	17	28	辛卯
109	4225	1892	18	29	壬辰
108	4226	1893	19	30	癸巳
107	4227	1894	20	31	甲午
106	4228	1895	21	32	乙未
105	4229	1896	22	建陽	丙申
104	4230	1897	23	光武	丁酉
103	4231	1898	24	2	戊戌
102	4232	1899	25	3	己亥
101	4233	1900	26	4	庚子
100	4234	1901	27	5	辛丑
99	4235	1902	28	6	壬寅
98	4236	1903	29	7	癸卯
97	4237	1904	30	8	甲辰
96	4238	1905	31	9	乙巳
95	4239	1906	32	10	丙午
94	4240	1907	33	純宗	丁未
93	4241	1908	34	隆熙	戊申
92	4242	1909	宣統	3	己酉
91	4243	1910	2	倭政	庚戌
90	4244	1911	3	2	辛亥
89	4245	1912	中華	3	壬子
88	4246	1913	民國	4	癸丑
87	4247	1914	3	5	甲寅
86	4248	1915	4	6	乙卯
85	4249	1916	5	7	丙辰
84	4250	1917	6	8	丁巳
83	4251	1918	7	9	戊午
82	4252	1919	8	10	己未
81	4253	1920	9	11	庚申
80	4254	1921	10	12	辛酉
79	4255	1922	11	13	壬戌
78	4256	1923	12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淸	朝鮮	干支
197	4137	1804	嘉慶	純祖	甲子
196	4138	1805	10	5	乙丑
195	4139	1806	11	6	丙寅
194	4140	1807	12	7	丁卯
193	4141	1808	13	8	戊辰
192	4142	1809	14	9	己巳
191	4143	1810	15	10	庚午
190	4144	1811	16	11	辛未
189	4145	1812	17	12	壬申
188	4146	1813	18	13	癸酉
187	4147	1814	19	14	甲戌
186	4148	1815	20	15	乙亥
185	4149	1816	21	16	丙子
184	4150	1817	22	17	丁丑
183	4151	1818	23	18	戊寅
182	4152	1819	24	19	己卯
181	4153	1820	25	20	庚辰
180	4154	1821	宣宗	21	辛巳
179	4155	1822	道光	22	壬午
178	4156	1823	3	23	癸未
177	4157	1824	4	24	甲申
176	4158	1825	5	25	乙酉
175	4159	1826	6	26	丙戌
174	4160	1827	7	27	丁亥
173	4161	1828	8	28	戊子
172	4162	1829	9	29	己丑
171	4163	1830	10	30	庚寅
170	4164	1831	11	31	辛卯
169	4165	1832	12	32	壬辰
168	4166	1833	13	33	癸巳
167	4167	1834	14	34	甲午
166	4168	1835	15	憲宗	乙未
165	4169	1836	16	2	丙申
164	4170	1837	17	3	丁酉
163	4171	1838	18	4	戊戌
162	4172	1839	19	5	己亥
161	4173	1840	20	6	庚子
160	4174	1841	21	7	辛丑
159	4175	1842	22	8	壬寅
158	4176	1843	23	9	癸卯
157	4177	1844	24	10	甲辰
156	4178	1845	25	11	乙巳
155	4179	1846	26	12	丙午
154	4180	1847	27	13	丁未
153	4181	1848	28	14	戊申
152	4182	1849	29	15	己酉
151	4183	1850	30	哲宗	庚戌
150	4184	1851	文宗	2	辛亥
149	4185	1852	咸豐	3	壬子
148	4186	1853	3	4	癸丑
147	4187	1854	4	5	甲寅
146	4188	1855	5	6	乙卯
145	4189	1856	6	7	丙辰
144	4190	1857	7	8	丁巳
143	4191	1858	8	9	戊午
142	4192	1859	9	10	己未
141	4193	1860	10	11	庚申
140	4194	1861	11	12	辛酉
139	4195	1862	穆宗	13	壬戌
138	4196	1863	同治	14	癸亥

年數	檀紀	西紀	淸	朝鮮	干支
257	4077	1744	乾隆	英祖	甲子
256	4078	1745	10	21	乙丑
255	4079	1746	11	22	丙寅
254	4080	1747	12	23	丁卯
253	4081	1748	13	24	戊辰
252	4082	1749	14	25	己巳
251	4083	1750	15	26	庚午
250	4084	1751	16	27	辛未
249	4085	1752	17	28	壬申
248	4086	1753	18	29	癸酉
247	4087	1754	19	30	甲戌
246	4088	1755	20	31	乙亥
245	4089	1756	21	32	丙子
244	4090	1757	22	33	丁丑
243	4091	1758	23	34	戊寅
242	4092	1759	24	35	己卯
241	4093	1760	25	36	庚辰
240	4094	1761	26	37	辛巳
239	4095	1762	27	38	壬午
238	4096	1763	28	39	癸未
237	4097	1764	29	40	甲申
236	4098	1765	30	41	乙酉
235	4099	1766	31	42	丙戌
234	4100	1767	32	43	丁亥
233	4101	1768	33	44	戊子
232	4102	1769	34	45	己丑
231	4103	1770	35	46	庚寅
230	4104	1771	36	47	辛卯
229	4105	1772	37	48	壬辰
228	4106	1773	38	49	癸巳
227	4107	1774	39	50	甲午
226	4108	1775	40	51	乙未
225	4109	1776	41	52	丙申
224	4110	1777	42	正祖	丁酉
223	4111	1778	43	2	戊戌
222	4112	1779	44	3	己亥
221	4113	1780	45	4	庚子
220	4114	1781	46	5	辛丑
219	4115	1782	47	6	壬寅
218	4116	1783	48	7	癸卯
217	4117	1784	49	8	甲辰
216	4118	1785	50	9	乙巳
215	4119	1786	51	10	丙午
214	4120	1787	52	11	丁未
213	4121	1788	53	12	戊申
212	4122	1789	54	13	己酉
211	4123	1790	55	14	庚戌
210	4124	1791	56	15	辛亥
209	4125	1792	57	16	壬子
208	4126	1793	58	17	癸丑
207	4127	1794	59	18	甲寅
206	4128	1795	60	19	乙卯
205	4129	1796	仁宗	20	丙辰
204	4130	1797	嘉慶	21	丁巳
203	4131	1798	3	22	戊午
202	4132	1799	4	23	己未
201	4133	1800	5	24	庚申
200	4134	1801	6	純祖	辛酉
199	4135	1802	7	2	壬戌
198	4136	1803	8	3	癸亥

年數	檀紀	西紀	中國	大韓民國	干支
17	4317	1984	36	37	甲子
16	4318	1985	37	38	乙丑
15	4319	1986	38	39	丙寅
14	4320	1987	39	40	丁卯
13	4321	1988	40	41	戊辰
12	4322	1989	41	42	己巳
11	4323	1990	42	43	庚午
10	4324	1991	43	44	辛未
9	4325	1992	44	45	壬申
8	4326	1993	45	46	癸酉
7	4327	1994	46	47	甲戌
6	4328	1995	47	48	乙亥
5	4329	1996	48	49	丙子
4	4330	1997	49	50	丁丑
3	4331	1998	50	51	戊寅
2	4332	1999	51	52	己卯
1	4333	2000	52	53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年數	檀紀	西紀	中國	朝鮮	干支
77	4257	1924	13	倭政	甲子
76	4258	1925	14	16	乙丑
75	4259	1926	15	17	丙寅
74	4260	1927	16	18	丁卯
73	4261	1928	17	19	戊辰
72	4262	1929	18	20	己巳
71	4263	1930	19	21	庚午
70	4264	1931	20	22	辛未
69	4265	1932	21	23	壬申
68	4266	1933	22	24	癸酉
67	4267	1934	23	25	甲戌
66	4268	1935	24	26	乙亥
65	4269	1936	25	27	丙子
64	4270	1937	26	28	丁丑
63	4271	1938	27	29	戊寅
62	4272	1939	28	30	己卯
61	4273	1940	29	31	庚辰
60	4274	1941	30	32	辛巳
59	4275	1942	31	33	壬午
58	4276	1943	32	34	癸未
57	4277	1944	33	35	甲申
56	4278	1945	34	光復	乙酉
55	4279	1946	35	2	丙戌
54	4280	1947	36	3	丁亥
53	4281	1948	37	建國	戊子
52	4282	1949	中國	2	己丑
51	4283	1950	2	3	庚寅
50	4284	1951	3	4	辛卯
49	4285	1952	4	5	壬辰
48	4286	1953	5	6	癸巳
47	4287	1954	6	7	甲午
46	4288	1955	7	8	乙未
45	4289	1956	8	9	丙申
44	4290	1957	9	10	丁酉
43	4291	1958	10	11	戊戌
42	4292	1959	11	12	己亥
41	4293	1960	12	13	庚子
40	4294	1961	13	14	辛丑
39	4295	1962	14	15	壬寅
38	4296	1963	15	16	癸卯
37	4297	1964	16	17	甲辰
36	4298	1965	17	18	乙巳
35	4299	1966	18	19	丙午
34	4300	1967	19	20	丁未
33	4301	1968	20	21	戊申
32	4302	1969	21	22	己酉
31	4303	1970	22	23	庚戌
30	4304	1971	23	24	辛亥
29	4305	1972	24	25	壬子
28	4306	1973	25	26	癸丑
27	4307	1974	26	27	甲寅
26	4308	1975	27	28	乙卯
25	4309	1976	28	29	丙辰
24	4310	1977	29	30	丁巳
23	4311	1978	30	31	戊午
22	4312	1979	31	32	己未
21	4313	1980	32	33	庚申
20	4314	1981	33	34	辛酉
19	4315	1982	34	35	壬戌
18	4316	1983	35	36	癸亥

편집후기

이 경진대동보는 다섯번째 대동보이다。우리 칠원윤씨 대동보 문헌편을 읽어보면 선조들이 조상에 대한 추모의 성심과 일가간에 돈독한 정의를 알 수가 있다。선조들은 상호간 왕래와 서신교환이 불편하여 족보편찬시에 수단원고 수집에 많은 세월이 경과하고 인쇄경비에 거액이 소요되어도 가문을 위하여 계속하여 족보를 발행한 것이다。지금도 선조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상상된다。창간보인 신유대동보는 관찰사공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언공의 협조로 수단에서 발행까지 30년만에 완성되고 임신대동보는 칠팔년의 작업으로 예산이 고갈되자 중추원의관공의 출자로 발행이 되었고、경자보와 경신보는 전종원의 갹금으로 발행이 되었다。이러한 지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천년의 계보를 밝힐 수가 있고、오만여 일가의 계촌이 가능한 것이다。그간에 가장문과 국사를 고증하여 소목의 위치를 정정하여 계보의 정통을 확립시킨 지대한 공로가 있다。이번 경진대동보는 경신보 이후로 발생한 변동사항과 구보에서 누락된 문헌과 유품을 찾아 증보하고 수백년 궐사하던 선조 열일곱위 내외분을 봉사하는 사유를 기입하였다。특히 구보는 모든 기록이 한문자로 기입되어 있어 자손들의 대다수가 읽고 이해할 수가 없기에 성명、관직명은 국문과 한문을 병기하고 연대는 서기로 환산하며 문헌편과 기타 유사는 모두 번역하였다。자손록은 아들、딸 구별없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옛날 지명은 현 행정구역명으로 기록하고 국·한문 혼용한 문헌도 별칭 이칭의 단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문원문도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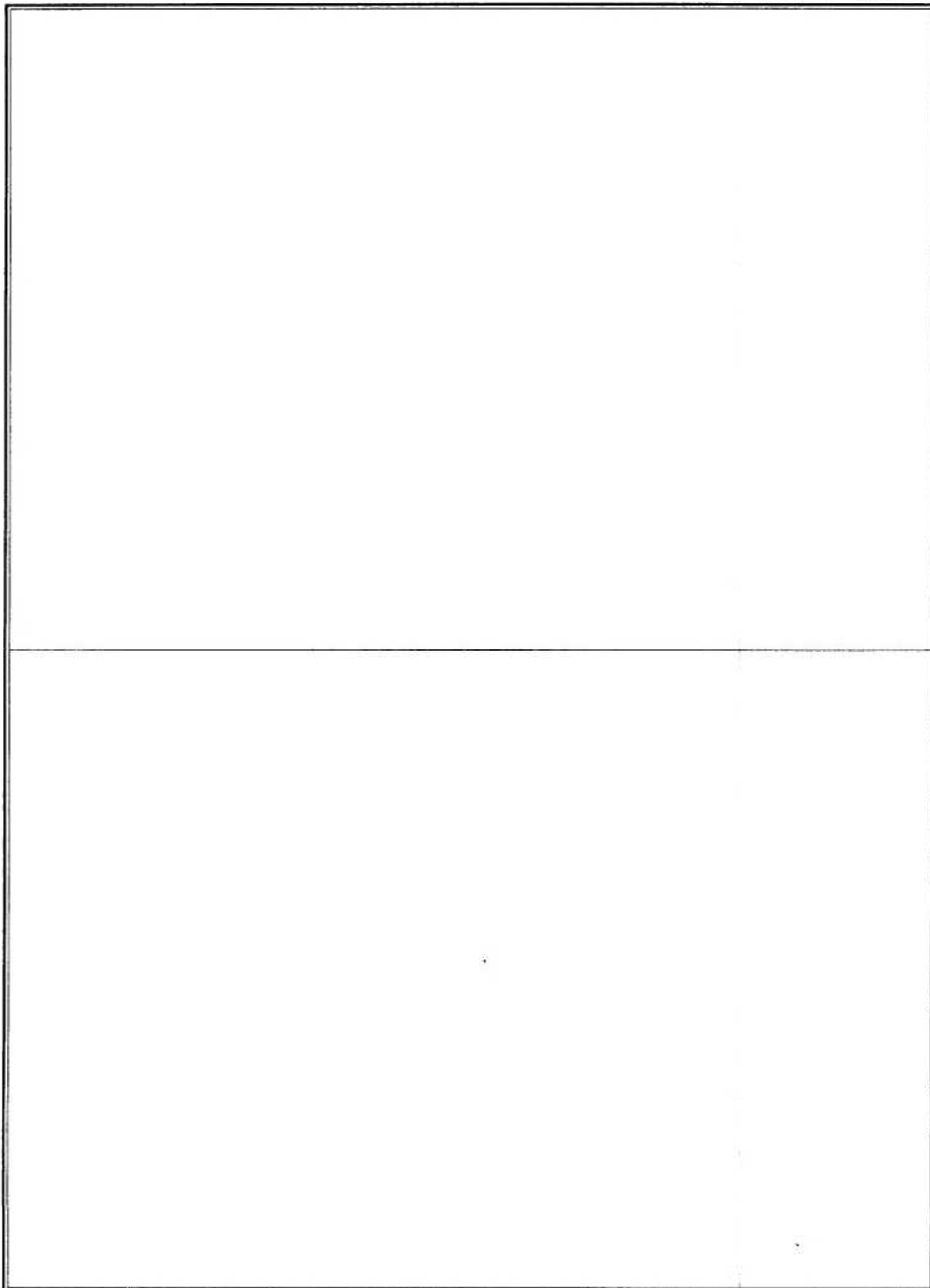
이번 대동보의 편찬에서 발행까지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하신 전·현직 대종회장님과 편찬위원님 수단위원님 그리고 치밀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에 노심초사하며 가사를 불고하고 주야로 동분서주하신 응원 편찬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린다。이번 족보는 실무를 담당하여 8단족보를 6단족보로 재편집 하느라고 다년간 수고한 영산후인 신쌍환씨와 고희에 가까운 노안으로 교정에 참여하여 오탈자를 정정한 형남씨와 사방에 흩어져있는 고증 및 참고자료와 사진을 수집하려고 원근을 빈번하게 왕래하며 교정과 편집에 참여한 상철군과 자손록과 문헌편을 일일이 점검하여 오류를 시정한 영일후인 정완택군 그리고 4만여명의 수단과 4천여질의 예약에 경리를 담당한 정자양 등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족보의 편집과정을 보면 구보의 자손록에서 간지(干支)를 서기로 환산함에 있어 부자간 또는 형제간에 연령의 순차(順次)가 사리에 맞지 않아 종과 횡으로 모순되는 예가 많아 고증으로 밝히고 합리적으로 재구

성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본인이 문헌을 번역하다보니 구보의 문헌에서 한자(漢字)원문은 난해한 부분과 오자탈자가 많아 교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고、현대문으로 알기쉽게 쓴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사진의 준비와 편집에서는 칠원선영과 유적일부만 전문가의 손을 빌렸고、나머지는 관계되는 일가분들이 직접 준비한 사진들이다。선영도와 일부 영정의 사진은 원본 입수가 불가능하여 흑백사진을 컴퓨터로 수정복원 하였음을 밝혀둔다。끝으로 족보발간사상 초유의 한글족보를 출판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차질없이 족보가 발간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창문사 김종수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2001년 8월 14일

경진대동보 편집부위원장 의원 삼가씀



칠원윤씨대동보

서기 2001년 6월 20일 인쇄
서기 2001년 7월 31일 발행

발행소 칠원윤씨대동보 편찬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위원장 윤 용 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118의 7
전화(02)928-6707
(02)927-7799
FAX(02)928-6708

인쇄소 창 문 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104의 7
전화(02)2277-3999
(02)923-9692

제본소 가나안제책사

이 족보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